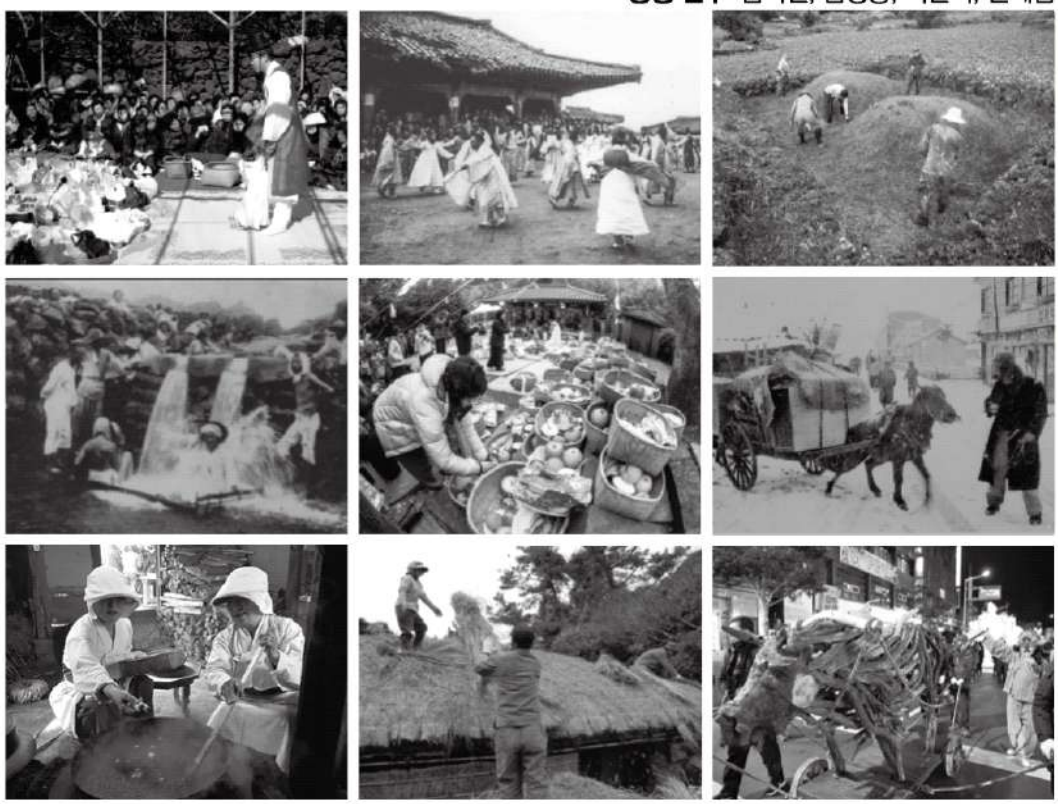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11-B553921-000029-01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 2
-구술 자료집(서귀포시 동부 지역)

정월 보름날 산메 청 오곳이 밥 뒈민 운 종덴

2022

연구 책임 김순자
공동 연구 김미진, 김성용, 최연미, 현혜림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차 례

Ⅰ. 연구 개요 ····· 5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7
2. 연구 기간 ····· 7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7
4. 연구진 ····· 8
5. 주요 연구 내용 ····· 8
6. 기대 효과 ····· 9
7. 사진 자료 ····· 10

Ⅱ. 서귀포시 동부 지역 세시풍속 구술 자료 ····· 17

1. 성산읍 오조리(1) ····· 19
2. 성산읍 오조리(2) ····· 67
3. 성산읍 수산1리 ····· 114
4. 성산읍 신풍리 ····· 310
5. 표선면 하천리 ····· 421
6. 표선면 가시리 ····· 509
7. 표선면 토산2리 ····· 578
8. 남원읍 의귀리 ····· 705
9. 남원읍 신례1리 ····· 787
10. 남원읍 하례1리 ····· 883

Ⅰ.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세시풍속은 제주 사람들이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행하던 여러 가지 행사로,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월별로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임.
○ 제주는 동서남북 지역별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어 사라지는 세시풍속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함.
○ 이 사업은 제주 지역을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세시풍속을 조사하고 관련 어휘와 제주의 문화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기간

2022년 3월 15일 ~ 2022년 12월 31일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조사 지역: 서귀포시 동부 지역 중 해안 마을과 중산간 마을을 적절히 선정함. 성산읍 오조리·수산1리·신풍리, 표선면 하천리·가시리·토산2리, 남원읍 의귀리·신례1리·하례1리 등 9개 마을임.
○ 조사 대상: 조사 지역 출신 80대 이상 토박이를 대상으로 함. 제보자는 성산읍 오조리 2명, 수산1리 4명, 신풍리 2명, 표선면 하천리 2명, 가시리 1명, 토산2리 1명, 남원읍 의귀리 2명, 신례1리 3명, 하례1리 3명 등 20명임.
○ 조사 현황: 문헌조사와 28차례의 현지조사를 시행함. 다음은 마을별 제보자, 조사 현황임.

〈표 1〉 마을별 제보자, 조사 현황

조사 마을	제보자	성별	출생 연도	조사 일시
성산읍 오조리	현순덕	여	1931년	7월 8일, 9월 7일, 10월 14일, 12월 20일
	현춘흥	남	1935년	
성산읍 수산1리	강수용	남	1942년	7월 6·15·19일, 8월 5일, 12월 21일
	김원옥	남	1939년	
	고인옥	여	1942년	
	강순호	여	1943년	
성산읍 신풍리	김길홍	남	1939년	9월 6·7일, 12월 21일
	강상순	여	1941년	
표선면 하천리	강영택	남	1946년	7월 16·17일
	김임순	여	1950년	

표선면 가시리	안정생	여	1926년	5월 26일, 6월 3일, 11월 2일
표선면 토산2리	김성섭	남	1937년	7월 8·13일
남원읍 의귀리	김병수	남	1940년	5월 16·17일
	오양수	여	1938년	
남원읍 신례1리	양완호	남	1929년	5월 23·24·25일, 10월 25일
	정순자	여	1939년	
	정문자	여	1943년	
남원읍 하례1리	현영송	여	1941년	6월 2일, 11월 2·3일
	허정순	여	1940년	
	강금순	여	1960년	

○ 조사 방법: 조사는 강영봉、김순자(2016)의 ≪제주어구술채록질문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의 '제1부 구술' '10. 세시풍속' 중 관련 문항을 기초로 하고, 연구진 회의를 통한 <구술로 쓰는 세시풍속 이야기 월별 조사 질문지>를 개발함.

○ 질문 문항: 월별 행사와 절기에 따른 농사일, 금기사항의 질문을 기초로 함.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풍습이나 어휘가 나오면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조사는 "정월멩질 허젠 허믄 어떵 준비를 헤수과?", "걸궁 ᄀᆞ튼 것도 헤수과?", "단오멩질은 언제까지 헤수과?"처럼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제주의 풍습과 관련한 어휘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함.

4. 연구진

〈표 2〉 연구진 현황

구분	이름	소속	연구 역할
연구책임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총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공동연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공동연구,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김성용	(사)제주어연구소	조사, 전사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관장	조사, 전사
연구보조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및 영상 촬영, 자료 확인 및 교정

5. 주요 연구 내용

○ 주요 연구 내용: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채록함. 조사 지역별로 △ 마을제 △ 문전철갈이 △ 명절과 제사 △ 신구간 등 월별 행사를 기록함.

○ 녹음 및 영상 장비: 소니 PCM-A10 녹음기, 캠코더 캐논 FDR-AX100을 이용하여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였고, 자료화하여 향후 교육 자료, 콘텐츠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진은 카메라와 휴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촬영함.

❍ 전사: 채록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여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세시풍속 관련 구술자료집을 발간하고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휘와 용례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집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사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함. 조사자가 여럿일 때는 @1, @2…처럼 표시하고, 제보자가 여럿일 때는 #1, #2, #3…처럼 나타냈음.

❍ 결과물

1) 책자: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세시풍속 구술자료집 발간

2) 녹음·영상·사진 자료

〈표 3〉 조사 마을별 성과물

조사 마을	성과물			
	녹음(시간)	영상(시간)	사진(점)	자료집
성산읍 오조리	7:12:31	5:33:01	210	구술자료집
성산읍 수산1리	5:47:34	7:10:22	363	
성산읍 신풍리	2:51:46	2:51:31	178	
표선면 하천리	2:41:31	2:41:43	138	
표선면 가시리	1:51:34	1:49:55	24	
표선면 토산2리	3:42:24	3:40:25	29	
남원읍 의귀리	3:01:01	2:36:53	80	
남원읍 신례1리	2:25:32	2:06:06	25	
남원읍 하례1리	1:16:56	1:26:30	150	
9개 마을	30:50:49	29:56:26	1197	

6. 기대 효과

❍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을 망라한 이 조사를 통해 제주 사람들의 지역별·월별 문화, 제주어, 제주민속 등을 담아 자료를 구축할 수 있음.

❍ 사라지는 제주의 세시풍속과 관련한 문화 등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어와 제주민속 등 제주문화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구술 채록된 음성자료는 전사하여 제주어 자료로 구축하고,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은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7. 사진 자료

7.1. 현지조사 모습



성산읍 오조리(2022. 7. 8.)



성산읍 오조리(2022. 9. 7.)



성산읍 수산1리(2022. 7. 6.)



성산읍 수산1리 '신술당' 재연 행사(2022. 7. 15.)



성산읍 수산1리 '마불림제' 재연 행사(2022. 8. 5.)



성산읍 신풍리(2022. 12. 21.)



표선면 토산2리(2022. 7. 8.)



남원읍 의귀리(2022. 6. 16.)



남원읍 하례1리(2022. 11. 3.)

7.2. 제보자 모습



성산읍 오조리 현순덕 제보자



성산읍 오조리 현춘홍 제보자



성산읍 수산1리 김원옥, 강수용 제보자



성산읍 수산1리 고인옥, 강순호 제보자



성산읍 신풍리 김길홍, 강상순 제보자



표선면 하천리 김임순, 강영택 제보자



표선면 가시리 안정생 제보자



표선면 토산2리 김성섭 제보자



남원읍 의귀리 김병수, 오양수 제보자



남원읍 신례1리 양완호 제보자



남원읍 신례1리 정문자 제보자



남원읍 하례1리 현영송, 허정순 제보자

Ⅱ. 서귀포시 동부 지역 세시풍속 구술 자료

1. 성산읍 오조리(1)

- 조사 일시: 2022년 7월 8일, 9월 7일
- 조사 장소: 오조리 복지회관, 제보자 자택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 제보자: #1 현순덕

정월

정월 멩질

@1 정월 멩질 허젠 허민 어떵 준비헤서마씸?

#1 정월 멩질 허젠 허민 우선에, 보리철 나민 보리헤다가 골을 놓는 거라. 게믄 이제 보리대에, 보리에 요추룩 이제 파랑헌, 그 푸십새가 쪼작쪼작 나오민, 그걸 이제 다 나오민 벙뎅이 딱 지거든 물 자꾸 주어도, 그걸 다 불룅, 이제 아, 멍석에 다 널엇당 엿날 정ᄀᆞ레 잇잖아요. 것에 ᄀᆞᆯ아근에, 그걸 이제 물에 둥갓당 히린좁쏠, 찰좁쏠, 그 좁쏠을 이제 쑤엉 그놈을 식혀서 서터. 서텅 놔두믄, 이제 그 서튼 게 쌀은 알러레 갈라고, 물이 우터레 다박다박, 멧 분 뒈민 올라와.

@1 예.

#1 올라오민 그놈을 이제 막 문대어서 짜는 거라. 짜근에 이제 솟디서 딸려. 딸려서 ᄀᆞ만이 잇어야지, 경 아녀민 그냥 그게 솟 우이로 그냥 부꺼 부려. 경 허는 때문에 그디서 막 조루민 그걸 이제 식으믄 옛날 뭐 이런 단지, 그 단지에다가 담앗다가 이제 제ᄉᆞ 밧디덜토 이제 멩질헐 때덜은 이제 그걸 병에 질어사. 요런 벵, 우리 집이 두 개 잇엇단 거 웃방에 놔두난 오꼿 엿장시 앗아가 비언. 그걸 이제 벡펭 잇잖아요. 벡펭 꼿 그려진.

@1 예.

#1 그것에 이제 담앙 제ᄉᆞ 멩질 먹을 때도 이제 그것에 질엉 가져가는 거라. 요즘은 뭐 고기로 그자 가져가고, 돈으로 가져가고, 옛날은 골감주를 멘들아서 이제 펭에 질엉 그걸 멩질 때 가져가고, 이녁 집이도 사용허고, 또 제ᄉᆞ 때도 똑 그 골감주를 헤서, 이제 첨 딸려서 친척덜 오믄 무신 첨 메물ᄀᆞ루로 빙 지졋다가 겨울에는 그리 안 네고, 여름 때는 이제 기주 만들아서 이제 상웨떡, 요새 빵떡 닮은 거.

@1 예.

#1 그거 집이서, 옛날에는 다 집이서 밀가루를, 이렇게 ᄑᆞ는 밀가루가 어디 셧어. 그냥 집이서 밀을 갈아서, 그거 ᄀᆞᆯ앙, 그 ᄀᆞ를 쳥, 그거 놧다가 그걸로 헤서 이제 만둘

멘들든가, 이제 첨 전기, 빙이주 이젠, 엿날엔 전기, 전기.
@1 전기예.
#1 그거 이제 헤서 친촉덜 갈 적에는 고기 조금 놓곡, 묵 놓곡, 떡 한 멧 개 헤영 제ᄉᆞ 지내나민 똑 싸서. 그렇게, 요샌 비니루나 잇저. 엿날은 차반지, 요런 고령 잇잖아요.
@1 예. 고령.
#1 그것에 이제 가졍 가게코롬 허고, 그렇게 헤서 세상 살단 이젠 이런 좋은 세상 난, 우리 첨 오래 사니까 좋은 세상 봐서 저 세상 가도 아무 원도 없습니다.
@1 예. 게난 삼춘 정월 멩질 허젠 허면은 먼저 골감지를 멘든 거라예? 골 놩예?
#1 으. 골 놩, 골감주. 골감주 기자.
@1 골감지 하고, 그 멩질 준비허젠 허민 골감지 말앙도 멩질ᄀᆞ심덜도 어떵 준비헤야 뒐 거 아니?
#1 쏠게, 쏠 이제ᄀᆞ치 나오랏어게? 이녁 집이 산뒤 갈아서, 산두라고 이제 갈아서, 그거 이제 몰ᄀᆞ레에 곧앙, 이제 그것도 정ᄀᆞ레에 ᄀᆞ루 멘들자고 헤서 체로 쳥, ᄀᆞ는체, 거름체, 거름체, ᄀᆞ는체, 대체, 그 저 체도 세 가지야.
@1 음.
#1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아서 첨 친척덜 ᄌᆞ냑 때라도 오나, 무시거 하믄 우선에 감주 ᄒᆞᆫ 잔이라도 허곡, 술 잡수는 어른덜은 술덜 허곡, 우리 오조린 김칩이라서, 우리 시가이가 김칩이라서 막 집안이 그냥 으리으리 헤낫수다게. 경 헌 때문에 이제 꼭 어르신덜 오믄 ᄌᆞ냑에 딱 이제 첨 ᄒᆞᆫ 잔썩 감주 ᄒᆞᆫ 잔이나 허고, 그 빙 지진 거, 하나 두 개나 잡수는 어른덜은 그렇게 잡수고, 엿날은 그렇게 허당, 이젠 ᄀᆞ만이 시민 강 기계 가근에, 아이고, 엿날은 제ᄉᆞ 당허젠 허민, 정ᄀᆞ레 헤서 ᄀᆞ루 곧앙, 그거 집이서 다 멘들아야만 허고, 경 헤낫수다.
@1 게난 정월 멩질 때는 상 출리젠 허민 뭐 뭐 출렷수과?
#1 우선에, 친떡.
@1 친떡.
#1 정월에는 친떡. 솔벤 절벤, 솔벤 알주?
@1 예.
#1 절벤 동글락헌 거. 이제 그거.
@1 예.
#1 솔벤 절벤, 우선 정월 멩질에는 그걸 꼭 올려낫수다.
@1 게믄 정월 멩질에 거 세 가지만 올려마씸?
#1 예.
@1 친떡.
#1 그자 먹을 거 빙, 빙 ᄀᆞ튼 건 그자 자변으로 헤서 먹고, 그렇게 또 만두도 만들 수 잇고.
@1 만두도 허고예. 게믄 만두는 모멀로?

#1 모멀ᄀᆞ루.
@1 모멀ᄀᆞ루로예. 그 우에 우찌시는 안 놔마씸?
#1 우지시?
@1 우지시.
#1 무사 우지시 안허여게. 엿날부떠 우지시, 요샌 고냥 바롱바롱헌 거 나오람주만은 엿날은 요렇게 헤서 동골동골허게시리 헤서 아주 엿날에 우리, 첨 홀 적엔 허단, 이젠 그 우지시.
@1 찍는 거.
#1 그거 찍는 게 나오라서 엿날도 그자 ᄋᆞ추룩 멘들아서 동글동글허게 헤서 우트레 놔서.
@1 걸 지져근에 놘마씸? 옛날도, 우지시 헹 지젼?
#1 우지시 지졍게.
@1 지졍예.
#1 지져서 지름에.
@1 솟두껭이.
#1 요새는 솟두껭이, 요만은헌 솟두껭이, 떡 지지는 솟두께가 잇주. 그디서 빙도 지지고, 그것에서 이제 그 우지지도 지져근에 우터레 톡톡허게, 그 떡 우터레 솔벤 절벤 우터레 그걸 똑똑 놔, ᄯᅳ로 상에 안 놓고 그자 떡 우터레 쭉허게.
@1 게난 삼춘네는 김칩? 어느 김칩이우꽈? 거기는.
#1 응?
@1 삼춘네는 김칩인데 여기서 유명헷덴 허멍예?
#1 우리 평대에서 이디 가지 갈라 온, 우리 평대가 큰 종손칩이라.
@1 아, 여기서는, 게믄 뭐 광산 김, 아니민 김해 김?
#1 김해 김.
@1 김해 김예. 게난 김해 김칩이서 멩질할 때 그 떡을 침떡 아까 헌덴 헷지. 제펜?
#1 솔벤 절벤?
@1 예.
#1 제펜.
@1 제펜 멧 개 놔마씨? 올릴 때.
#1 올릴 때. 다섯 개. 다섯 개 올려서 우터레, 그 솔벤 절벤 우터레 이렇게 올려서.
@1 게믄 침떡 다섯 개 올리고.
#1 그 우터레 올려. 따로 아녀고.
@1 절벤은 멧 개 올련?
#1 솔벤 다섯 개.
@1 예. 절벤은?
#1 절벤 다섯 개, 솔벤 다섯 개.
@1 우찍은 하나.

#1 응.
@1 그렇게 헤근에 상은 올리는 거라예.
#1 그래서 이제 지름떡이라고 헤서 그거 우터레 또 올리고.
@1 거, 우지시는 멧 개 올려?
#1 우지시도 게나제나 다섯 개.
@1 아, 침떡도 다섯 개.
#1 응. 지름떡도 다섯 개. 우리 집안은 그렇게 헷는데 몰라요. 다른 집안은.
@1 예. 그렇게 하고, 메물들.
#1 메물.
@1 채소 메물은 뭐뭐 헤수과?
#1 고사리, 콩ᄂᆞ물, 또 무신 야채나 시민 야채, 주로는 콩ᄂᆞ물허고, 고사리지 옛날은.
@1 예. 세 가지 헤수과?
#1 세 가지.
@1 과일 ᄀᆞ튼 건?
#1 과일? 과일은게, 이 철 나민 수박도 올릴 수 잇주만 겨울에는 이제 저.
@1 댕유지.
#1 우선 배, 사과 그거주. 사과 다섯 개, 배 다섯 개 그렇게 올려.
@1 아, 다섯 개, 것도예.
#1 다섯 개씩 그렇게 올려. 우리 집안은 그렇게 헷는데 몰라요.
@1 적갈 같은 거는 어떵 올련마씨?
#1 적?
@1 예.
#1 적은 그저 ᄒᆞᆫ 사라에 뒈야지고기민 뒈야지고기, 소고기민 소고기, 이제 무신 상어 ᄀᆞ튼 거민 그자, 이렇게 같이 영 ᄎᆞᆨᄎᆞᆨ헤서 한 상에.
@1 ᄒᆞᆫ 상에.
#1 그렇게 올렷수다. 따로 따로 안 올령.
@1 게난 적갈도 세 가지 허고예. 묵적 ᄀᆞ튼 건 안 헤수과?
#1 묵 무사 안 허여. 묵 허곡, 묵 허영 묵은 따로 딱 올리고, 묵도 그 옆뎅이, 작살이라고.
@1 묵작살예?
#1 묵작살, 그 메물, 그 콩ᄂᆞ물, 고사리 잇는 엠에 따로 똑 그건 올리고.
@1 예. 묵작살은 예. 그렇게 이제 묵작살도 올리고, 생선 ᄀᆞ튼 거는 어떤 걸 올려수과?
#1 생성은 사라 하나에 그자, 만약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서이민 세 개 그자 톡톡톡. 우리는 세 분이난 세 개 톡톡 올려서 그자 ᄒᆞᆫ 상에 이렇게.
@1 아, 세 개 한 접시에 세 개를, ᄒᆞᆫ 사름이 하나씩.
#1 응. 그렇게 허고, 뒈야지고기, 소고기, 뭐 문에, 소라 ᄀᆞ튼 건, 소라허고 이제 문

어 ᄀᆞ튼 건 따로 놓주만은 뒈야지고기하고 소고기만큼은 또, 상어 ᄀᆞ튼 건 같이 이렇게 놓고 그렇게 헙니다.
@1 여기 문어, 소라 이런 것도 올렴구나예?
#1 예. 올렷수다.
@1 옛날도. 바당 동네난 바당 것도 올렷구나예?
#1 예. 올립니다.
@1 게믄 삼춘네는 여기에 아까 생선 올린덴 헷잖아예? 어펑 올립니까, 영 데쌍 올립니까?
#1 가르창.
@1 가르창 올려?
#1 응.
@1 여기도 게민 페쓰는 게 등으로 페쌈구나, 이 동네도?
#1 이디? 앞으로, 이제 상에 올릴 것만은 이제 이 복장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자 먹을 건 뒤이로 이렇게 올리고.
@1 아, 상에 올리는 거는 배로 이렇게 헹은에 올리는데도 가르쌍, 이렇게 어프지 안허고예.
#1 우리 집안은 그렇게 헷수다.
@1 아. 이렇게 헹은에 올렴구나게.
#1 먹을 건 뒤으로 싹싹 베르쌍 이제 허고, 상에 올릴 건 앞으로 헤야 이디 카도 안허여. 얄룹지 안헤서.
@1 응, 굽기 좋고예.
#1 이 복장이 얇지 안허꽈?
@1 예.
#1 그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허민 그게 잘 타버려. 경 허는 때문에 제ᄉᆞ 상에 올릴 것은 이제 그냥 첨 이대로 구워서 올리고, 그렇게 헷수다. 우리 집안은.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갱거리는 주로 뭐로 헷수과?
#1 갱거린 그자 솔레기나, 우럭이나, 그자 닥치민 닥친 냥허고, 또 소고기 ᄀᆞ튼 거 이제 나오믄 또, 적 허당 남으민, 그걸로 또 소고기 국 끌리곡, 그렇게 허주, 뒈야지고기 ᄀᆞ튼 건 안 끌리고 그자 소고기, 바다에 생성, 그걸로만 사용허고.
@1 혹시 상에, 멩질 차례상에 안 올리는 것도 이서마씸? 뭐 올리지 말라 허는 것도 이십니까?
#1 그런 음식은 엇어수다.
@1 그런 음식은 엇고예.
#1 올리지 말렌 헌 음식은.
@1 게난 옛날엔 멩질 허젠 허민 떡 ᄀᆞ를 챙기는 게 큰 일이엇구나양.
#1 예, 큰, 떡, 아이고
@1 예. 혹시 멩질 전날, 멩질날 새벽이 뭐, 떡국 멩질 이런 거는 안 헷수과? 국멩질.

떡국 헹은에 조상 나시.
#1 떡국 허는 집안덜토 잇주만은 우리 집안만큼은 그렇게 못 헷수다.
@1 아, 삼춘네는 안 허고, 이 동네도 허는 집안은 이선예.
#1 아직이 이제 멩질 전에 떡국헤서 이제 올리고 잡솨난 그 집안덜은 멧 집 잇어수다. 경 헷주만은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헷수다.
@1 안 헤 보고예. 예.
#1 친정이나, 춤, 시가에나 그런 일은 엇어수다.

과세

@1 예. 옛날은 멩질 끗나도 과세허레도 하영 뎅이지 안헤수과예? 과세헤난 기억 이수과? 과세허레, 세배허레 뎅기는 거.
#1 아이고, 세배는 죽장 헤야주. 이제 멩질, 정월 멩질에는 하여튼 동네 이제 우리 시아바님네가 첨 멘의원허고, 이장 멧 년허고 허난에 동네 조금 헌 어른덜은 게나제나 우리 집안에 그 세배를 옵데다. 세배 오는 어른덜 나시 딱 음식도 이렇게 놧다가 술 흔 잔썩이라도 오믄 드셔사 가고 헤낫수다.
@1 메칠이나 세배 받안마씨?
#1 한 이틀.
@1 이틀. 동네 상나거나 하면 거기는 더 먼저 간덴 허멍예. 세배는 꼭 가야 뒌덴.
#1 세배. 동넷어른덜 좀 나 만한 분안테는 세배 다 옵니다. 나 만헌 어른덜, 요즘은 그자 무대뽀로 헴주만은, 엿날쯤은 우리 시절엔 첨 꼭 노인덜안티 세밸 와요. 우린 하필이민 아버님이 이제 멘의원으로 흔 칠 년 잇고, 이장 흔 오 년 허고 허난에 부락에서 멧 분 떨어진 분이 없엇습니다.
@1 예. 유지 집안이엇구나게.
#1 예. 경헤서 그자.
@1 게도, 그런 멩질 허젠 허면 그릇도 다끄고, 콩ᄂᆞ물도 놓고, 과세 온 사람들 음식도 주고, 여자들이 일이 하서예.
#1 이제 아마, 우리 제국시절에 놋그릇, 시집간 보난, 다 뺏겨 비어서. 나가 이제 저 강원도 속초까지 해녀질허레 다녓어요. 허다가 이제 강릉 오라서 놋그릇 전부 이제, 다섯 분이난, 다섯 분 네시 놋그릇, 이제 국사발, 밥사발, 이제 낭푼, 놋낭푼 요만은 헌 거, 관세라고, 관세 있죠?
@1 예. 손 씻는 거.
#1 그거 허고, 이제 전신에 놋그릇허고 사다놘, 요즘은 스덴그릇 나난, 다끄기 실퍼서 보다리에 싸서 ᄀᆞ만이 이제.
@1 그거 나중에 사진 하나 찍어근에 기록으로 남겨야 뒈쿠다. 속초서 사온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헹은에 멩질을 허고예. 예전에 정월 뒈면, 삼춘도 혹시 당에도 뎅겨봔?
#1 당? 아, 옛날이사 우리 바다에 오조리 바다라 부난, 게나제나.
@1 빌어. 신안테 요왕님안테.

#1 우리 올레에 큰 이제 당이 이수다. 그디 일 년 뒈믄 당 모셔서 거기 이제 돌레떡, 모물ᄀᆞ루나 쌀가루 헤서 떡 이만큼썩 헤여근에 이제 그 당에, 첨 올레에 거기 가곡, 또 부락에 이제 족짓할망, 당 이제 지금도 잇어요.
@1 예.
#1 거기 다니는 사람이, 두 곤데 이제 모셔놔서 이렇게 나무 잇는 디다가 하간 물색 헤서 다 둘련 헌디, 지금은 우리도 첨 다 천주교에 다녀 부리난 헴주. 엿날에 해녀질 헐 때는 똑 일주일에 훈 번 밥헤서 가서 이제, 족짓할망신디나 저 당에 가근에 몸 건강허게 헤줍센 이제. 해녀니까 그렇게 헤나고 헷수다.

정월 대보름

@1 예, 그것도 나중에 또 다시 들어보커라예. 혹시 정월 대보름 액멕이도 헤난마씨?
#1 정월 대보름?
@1 예.
#1 우리 정월 대보름은 잘 안 세낫수다.
@1 보름떡 같은 거, 모듬떡 안 헤근에.
#1 아, 그건 우리 어린 때, 어린 때 저 보름떡이라고 헤서 대보름 뒈민 쏠덜 모다다 근에 물ᄀᆞ레, 옛날 물ᄀᆞ레에 굴앙, 그거 이제 이름 써 부찌멍 징징징징 놔서, 이제 몸이 건강허젠 허민 떡이 오골렉이 잇고, 이제 몸이 안 좋은 사름은 이제 그디 잇다가 떡이 조금 영 둘라졍 아니 익는 수도 잇고, 그런 식도 우리도 다 넹기곡.
@1 삼춘 멧 살 때 그런 거 헤난 거 닮아?
#1 훈 열일곱, 열ᄋᆞ섯 때에 경 헷주. 열여덥에 결혼헤 부난.
@1 게난, 결혼허기 전에 그런 보름떡덜 헐 거라예.
#1 응, 처녀 시절에게, 어머니신디덜 이실 때.
@1 그 방서허는 거라든가, 허지는 안헨? 방법.
#1 방서?
@1 예, 액멕이. 액막이 하는 거.
#1 액멕이, 액멕이헐 때는게 무당덜이 이렇게 쌀 영 줍아줘근에 쌀이 이제 궂이나 어떵게 하믄 이제 궂뎅 허는 거라. 궂덴 허민 이제 액멕이로 이제, 오랑 그 멩디칼로, 멩디칼로, 이제 우리는 해녀고 허난에 이제 영등굿헐 때나, 그런 디 꼭 참석을 허니까. 이제 그 이렇게 쏠 줍아봐서 쏠 짝이 글르면, 아이고 이거 어느 둘엔 궂이켄 허민, 어떵허민 뒙니껜 허민, 이제 무당안티 돈 멧 푼 주민 이제 무당이 오라서 그 멩두칼로 머리로, 어딜로 여기 여기 칵칵 찔르면서 본풀이를 헤줘. 그렇게 헤나고.
@1 겅 헤난 다음에 동네 시커리에 강 뭐영 음식도 놓거나 이러진 안헤?
#1 아니.
@1 아, 그런 건 안허고예. 거난 그 저기.
#1 그자 그디서 당헌 디서 먹엉 설러 불엇주.
@1 그런 식으로 헹은에 이제 하고예. 그다음으로 정월 대보름이나, 정월 뒈면 토정비

결 보거나 이런 것들은 안헨? 여기서.
#1 토정비결을 보는 사름도 잇주만은 정월이나, 이제 정월 나민 이제 집에서 무당.
@1 예, 안택, 올레코시.
#1 데려다가 뭐 백지 이런 거 이제, 문전 들어오는 대문 우에다가 이제 지전 물르곡 헤서 이렇게 올렷다가, 일 년 뒈믄 또 그거 내려둥 불 테와두고 그런 식은 잇어낫어, 집안에.
@1 아, 집안에예. 집안 좋게 헌덴.
#1 집안 안네 그 한다고 해서, 문전비들레기라고, 그게 이름이 문전비들레기라고.
@1 아, 문전비들레기, 그 문전비들레기는 문전에 헴구나.
#1 문전에 이제 그 해에 집안에 편하게 헤ᄃᆞ라고, 그런 무당이 잇어낫어 오조리도.
@1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헤주는 거라예.
#1 이제 그 첨, 요즘은 하간 거 믿어부난 경헴주만은, 옛날은 무당베끼 더, 우리가 사용헤수과게, 게난, 무당 돌아단 하단 이젠 좋은 식 나난, 천주교 가버리고, 안식교 가버리고, 장로교 가버리고 허난 그게 싹 없어져도 까닥 안 허멘.
@1 예, 이제 또 다른 믿음 있으니까. 게난, 삼춘네 집이서도 그 문전비들레기 헤난?
#1 예.
@1 그, 문전비들레기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꽈?
#1 문전비들레기 허젠 허민 날 봐근에 어느 날 이제, 무당안티 말허믄, 무당이 어느 날 허라 허민, 엿날 방에에 찍엉 쌀 적졋당 이제, 돌레떡 요추룩 헌 거, 그거 이제 멧 개 멘들곡, 이제 술 받아놓곡, 밥 헤놓곡, 이제 메, 한 그릇썩 헤근에 이제 문전이라고 헤근에, 어둑으믄 그날, 날 본 날에 이제 오랑, 상 찰령 펭풍 요디 세와 놓곡, 그 무당이 오랑, 이제 문전안티, 문전님안티 이렇게 빌어서, 이제 문전님신디 그 묵은, 작년에 돌아멧던 그 지전허고, 고냥 똘라진 지전허고, 백지 흔 장에 그자 헌 건 솔아두고, 새로 또 만들어서 이렇게 걸고. 옛날은 그렇게 헤낫어.
@1 아, 지전 헌 거를 거기 걸어놘예.
#1 돈.
@1 돈이니까. 일 년 동안 걸엉 놔둬.
#1 응. 일 년 동안. 그자 문전에 딱 굳어 부는 거라. 이 대문 곧 들어오는 그디 딱 허게시리. 그렇게 부쪄.
@1 응. 그렇게 부쪄근에 일 년에, 일 년마다 헷구나예?
#1 옛날에 다 그거 헷주게.
@1 예. 그런 식으로 헹 놔두니까 건강하고, 집안도 잘 뒈고, 이렇게 한 걸 테주예. 그러면 그 문전비들레기는 보통 정월에 허는 거?
#1 정월.
@1 정월 날 받앙예.
#1 정월. 이제 이월 보름 사이에 허는 거라. 이월에는 이월 보름에 이제 영등할망이라고 들어오는 때문에 그 사이에 허는 거.

@1 영등 들어오기 전이예. 이월 보름 전에 다 마무리를 헤야 뒈는 거고, 혹시 이 동네 이월에 점 보거나 이런 거는 엇어마씨?
#1 점?
@1 예. 그런 거는 엇어나고예. 여기에도 거욱대도 이수과? 이 동네.
#1 무신거?
@1 거욱대, 방사탑. 이 동네.
#1 엇어.
@1 그런 건 엇어예. 그러면 요즘은 마을제는 무시거 헙니까?
#1 마을제. 일 년에 흔 번 허는 거난, 남저분덜, 남저분덜 깨끗헌 분들로, 친촉이나 당부모나 이제 복 입은 사람은 안 허고 아주 깔끔헌 그런 집안에 어른덜을 헤서 마을제라고 큰 제 지내요.
@1 어디 강 헙니까?
#1 저 우에, 이제 엿날은 우리 식산봉에서 하다가 이제 잡사름이 많이 뎅기기 때문에 일로 저 우터레 싹 올란, 저반이ᄆᆞ들이엔 헌 디 가서 이제 집 지어서, 그디 가서 첨, 어르신덜 흔 삼 일 고생허고 와요.

포제

@1 아, 게난 그 제 이름은 무시거우꽈? 포제?
#1 포제. 마을 포제.
@1 포제예. 게믄 아까 그 포제단 잇는 디가 저반이ᄆᆞ들?
#1 저반이ᄆᆞ들.
@1 저반이ᄆᆞ들에서 새로 지엇구나예.
#1 예. 그디 조그만허게 집 지엇수다게. 이 리사무소에서도 헤나고, 저 식산봉 이제 거기서도 헷는디, 너무 이젠 잡인이 만허니까 글로, 우이로 올라가서.

당

@1 여기 본향당은 엇수과?
#1 수산, 수산이 큰 본당 이수다.
@1 아, 수산에서예.
#1 또 요디 족짓할망이라고.
@1 족짓할망.
#1 족짓할망이라고 엿날은 아이덜이 아프나, 어떻게 허민 그 족지에 데령 가서 이제, 그 족짓할망신디 강 절허고, 그디 하간 무색덜 둘아메곡 경 헤난디, 이젠 그것도 없어져 비엇수다.
@1 게믄 여기, 오조리에는 당이 멧 개 이서마씨?
#1 당 엇수다. 오조리 안넨, 이젠 당이 다 엇어져 불언.
@1 아까 족짓할망 잇고.

#1 족짓할망허고, 저 상알허고 그디 당 잇엇다가 다 없어져 비엇주.
@1 거는 좀수들 뎅기는 당?
#1 좀수덜 이제 항상 가서 기도허고, 밥헹 가곡, 고기 구웡 가믄 바다드레 이렇게 올리고 하다가 이젠 것도 다 없어져 비엇수다.
@1 게믄 좀수굿도 안 헤마씨, 여기는?
#1 좀수굿이 그거. 이월둘에 들어오민 삼월 보름에 나가는.
@1 응. 영등굿.
#1 영등굿만은 헙니다. 이디.
@1 영등굿은 허는구나예?
#1 예.
@1 그러면 아까 문전비들레기가 우리 안택허는 거구나? 집안 좋게 허는.
#1 문전비들레기라고게, 집안에 일 년에 아이덜이고, 집안이고 좀 깨끗하라고 문전비들레기라고 옛날은 경 헤낫수다.
@1 집집마다. 그 저기 집 뒤에 안튀에 칠성 모시거나 허지 안헙니까? 이 동네는.
#1 그런 거 모셔난 어른덜도 잇어요. 엿날은 한 멧 집에 ᄒᆞᆫ 번썩 그거 모셔낫수다.
@1 삼춘네는 그런 거는 안헤나고?
#1 우리는 그런 것만큼은 안 모셧수다.
@1 응, 집 바깟디예 그렇게 이제 하고. 이 동네 저기 밧은 하진 안헤도 옛날 보리들은 갈아실 거 아니라예?
#1 듬북, 해녀, 우리가 이제 듬북을 ᄌᆞ물앙, 배로 ᄌᆞ물앗당, 그것도 첨 놈이 배로 부떠가민, 지게로 이제 멧 지게썩 이제 갈라서 그걸 ᄆᆞᆯ리왕, 그걸 이제 보리 갈젠 허민 그걸 걸름으로, 그 보리, 듬북은 보리 갈 때는 그거 사용허고.
@1 듬북 끌아근에 보리를 갈앗구나예.
#1 그렇지. 듬북으로 보리 갈앗수다게.
@1 게난, 보리도 ᄇᆞᆯ라 보기도 헨마씸?
#1 양?
@1 보리 ᄇᆞᆯ란? 보리 날 때, 정월에 ᄇᆞᆲ는 거.
#1 보리 나근에 주작주작 허믄, 그거 ᄃᆞᆫᄃᆞ허렌 다 ᄇᆞᆯ르곡 헤낫수다.
@1 응. 이 동네도 보리 ᄇᆞᆯ랏구나예.
#1 예. 보리 ᄇᆞᆯ랏수다게.
@1 그게 정월에?
#1 정월에.
@1 정월에예. 삼춘 이 동네 걸궁들도 헤신가마씨?
#1 엿날 걸궁 이서낫수다.
@1 걸궁, 언제 헤난 거 닮수과?
#1 막 오랫주. 아이고, 우리 ᄒᆞᆫ 열 ᄉᆞᆯ, ᄋᆞ덥 ᄉᆞᆯ에 헌 분덜 허민. 남ᄌᆞ 어른덜이 여ᄌᆞ로 ᄎᆞᆯ령, ᄉᆞ못 동네 집집마다 가서 첨 뭐 받으면서 헤나건디 세상 오래수다. 걸궁도

헤낫수다, 옛날은.
@1 삼춘네는 면의원, 아버지가 면의원 헷덴 헷잖아예? 경 허니까. 그 집안엔 또 하영 가실 거 같은데.
#1 아니우다.
@1 아니우꽈? 게난, 그 걸궁은 또 어느 철에 헤마씨?
#1 이월, 이월이나 뒈가믄 부락에서 걸궁 출련 헤나건디 세상 우리 어린 때 헤난, 우리 큰, ᄒᆞ쏠 영 큰 후젠 아주 딱 설러 부렷수다.

멩질옷

@1 삼춘 일월에 아까 들어보지 못헤신디 그 멩질 헤 먹젠 허면 옷 준비덜도 헤야 뒈지 안헙니까?
#1 그건. 정월 멩질, ᄇᆞ뎌 가민 섣둘에부떠, 옛날은 다듬이질허멍 광목이민 광목, 다요새나 그자 헹과서 널주만은 옛날은 헤서, 그거 다 바지민 바지, 저고리민 저고리, 두루막 다 손으로 다 헷주.
@1 경 헤영 풀헤영.
#1 응. 풀헤영 다 그걸 두드려.
@1 옷 준비도 하고.
#1 그자 엿날은 정월 나민, 요새사 척척 다 만들앙 나왐주만은, 옛날은 다 손으로 멘들앙 바지고, 저고리고 다 헷잖으꽈게. 옛날 할망덜.

금기

@1 그리고 정월에는 멩질헐 때라든가 뭐 허지 말렌 허는 것들도 이신가마씨?
#1 엇수다.
@1 아니. 떡 치는 디 오지 말라 헌다든가, 부정 탄 사람 오지 말라.
#1 떡 치는 딘 들어오민 떡 안 익엄젱, ᄉᆞ못 부억에서 불 숨다근에 누게 들어오라가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렇겐 헤낫수다.
@1 건 무산고예?
#1 들어오민 떡이 픽픽픽픽, 그 옆뎅이로 이렇게 밀가루 헤근에, 솟 바위를 이렇게 헤 놓민, 그게 이제 누구 오나 안 오나 그거 터질랴고 허믄, 짐으로 푹 터지는 걸, 누게 들어오민 그게 터졈젱, 아이덜이나 이렇게 부억더레 영 들어오라 가민 아이고, 저 마당, 저 상방으로 오라. 상방으로 오라헨, 상방으로 이렇게 부억더렌 오라도, 그 떡 칠 때 바로 부억문으로 영 들어가 보진 못헷수다.
@1 기지예.
#1 예. 우리 집안은 옳게 큰집이라서 그렇게 헷는데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안 허고, 결혼헨 가난 집안이 ᄒᆞ쏠 첨 난 어른덜, 이 어른덜 친정이요. 이 어른에 우리 큰집인디 아주 첨 유식한 분덜이랏수다.
@1 동서 뒈는 거꽈? 어떵 뒈는 거꽈?

#1 아니. 삼춘 조케.
@1 삼춘 조케.
#1 난 삼춘이고, 저딘 조카고, 동갑이라도.
@1 아, 동갑이라도. 경헤근에 이제 허고 정월에, 섣둘그믐날 잠 자민 눈썹 흰다, 이런 말도 헤실 거고.
#1 예. 좀 자민 눈썹 흰덴, 좀 자지 말렌 헤도 ᄌᆞ로왕 그때 시절에사 좀 안 자졋수과? 테레비가 이시카, 그자 자주. 눈썹도 아니 희고 겡 헤도.
@1 겡 헤도 안 희고. 요즘은 머리도 염색 다 헤주난 머리도 안 흰디.

이월

영등

@1 삼춘 이월에 영등헌덴 헷잖아예? 영등에 대해서 좀 자세히 ᄀᆞᆯ아 줍서.
#1 영등. 영등굿이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바다에만 죽장 사니까, 이제 배 허는 어른덜이, 똑 영등 십오일 뒈민 이제 저 당머리에. 지금도 헤여. 지금도 이월 보름날은.
@1 이월 보름날. 영등은 언제 들어와마씸?
#1 영등?
@1 예.
#1 정월 초닷샛날 들어오나, 열사흘날, 열사흘날.
@1 정월 열사흘날 들어왕, 언제 나가?
#1 이월 보름에.
@1 아이고, 혼 둘 살앙 나감구나?
#1 예.
@1 여기는 영등하르방이우꽈? 할망이우꽈?
#1 하르방.
@1 하르방. 오래 살당 감구나. 게믄 영등 들어올 적에도 날 궂이민 누게 둘아왓저 헌 말이 잇지예?
#1 예. 경도 ᄀᆞᆯ읍네다. 영등하르방 오랑 비나 오라가민, 에에 영등하르방 비 지언 오랏저, 경.
@1 비 젼 오랏저. 날 좋으민?
#1 날 좋민 아메도 하르방 날 좋안 오랏저. 기자 그런 말은 헙니다. 그게 옛날 어르신덜 말인ᄀᆞ라.
@1 무사 영등굿을 허는 건고예?
#1 영등하르방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오조리만큼이나 어떤 부락이라도 해녀니까, 이제 바다에서 첨, 무신 궂인 일이 없도록 그렇게 헤서 이제, 부락에서 아주 크게 출려서 헙네다게.
@1 그때 게민 해녀들은 출리는 거 뭐마씨? 해녀들 출령 갈 거 이실 거 아니?

#1 해녀들은 가근에, 이녁만썩 밥 헤서, 지 싸서 그거 이제 이녁 다 던져 바다더레 던지고.
@1 지는 멧 개나 싸마씨?
#1 그 이녁 집안 수정마다 쌉네다. 경 계획적으로 아녀고, 이녁 마음대로.
@1 게믄 지에는 뭐뭐 놔?
#1 밥에?
@1 예.
#1 밥에 그자, 밥 헹 간 밥 놓고, 그냥 것더레 이제 쌀이나, 그 제비쏠 뽑아서 이렇게 헤놓면, 그거나 이렇게 이제 줍아 놀 때도 잇고, 그자 쌀 때도 잇고 그렇게 헙니다.
@1 다른 거 계란이나 이런 건 놓지 안허고, 깨끗허게 밥허고, 제비쏠.
#1 아니. 계란 ᄀᆞ튼 거 이제 허고. 부락에서 이제 닥, 닥만큼은 헤서 그걸 이제 부락마다 그 우리 해녀를 위해서 닥 한 ᄆᆞ리 헤서 띠우고, 큰 이제 장ᄃᆞᆨ으로.
@1 장ᄃᆞᆨ으로, 게민 그거는 영등배에 헹은에 실렁 바다에.
#1 예. 배에 이렇게 산디찝, 저 나룩찝으로 이렇게 지어서 거기 닥 놓고, 거기다 이제 쌀이나 뭐 온갖 헹 간 제물 잇으믄 그것에 놔서 배 띠웁니다. 띠우민 그 닭은 어디 오르민 주워다고 먹는 사람덜도 잇엇고, 가에 올르민.
@1 가에 올르지 안헹 쭉 나가기도 허켜예?
#1 나가다가도 요렇게 ᄇᆞ름으로 헤서 이제 가에더레 밀리민 그렇게 헤서 먹은 사람덜토 잇고.
@1 예, 게난 무사 장ᄃᆞᆨ은 그거 영등배에 ᄀᆞ치 띠우는 건고예?
#1 영등배에?
@1 예. 장ᄃᆞᆨ은 무사 실렁 보냄신고?
#1 그거 사공으로, 뱃사공으로.
@1 뱃사공으로.
#1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게.
@1 예. 게난 굿, 다 영등굿 끗나나면 제물 실렁은에 보내는 거 아니라예?
#1 예. 영등굿. 무당덜 오라서 굿 다 헤나서, 이제 그거 올릴 땐 다 해녀덜이 거기 다 가서.
@1 절도 허고.
#1 예, 그것도 허고.
@1 게난, 그때 영등도 보내는 거 아니라예? 전송허는 거 아니라예?
#1 가부는 날.
@1 가부는 날, 가부는 날 헤근에 사공으로 장ᄃᆞᆨ 살아잇는 거를 같이.
#1 시껑 보내는 거.
@1 시껑 보내는 거.
#1 게난 다 이제 우리 오조리민, 오조리 액을 다 마타서 나가는 그런 법으로 허는 거

같아요.
@1 예. 게난 어디는 보면은, 그 굿 끗나나면 닭들 헤근에 목 쳐갖고, 피 영 뿌리기도 헌덴 허잖아예. 그런 거는 안 헤수과?
#1 안 헙니다. 그자 이딘 산 차 이렇게 실러서 보내는 거주.
@1 산 차로 실렁은에.
#1 그럼 그거 어디 가서 올르믄 주워다 먹는 사람덜토 잇고.
@1 예, 겡 뭐 나쁘다 이런 말은 안 허고, 그런 건 엇고예. 삼춘, 삼춘네 한식 멩질도 헤난?
#1 한식. 우리 그런 한식은 안 헷수다.

새철 드는 날

@2 이월에 새철 드는 날.
@1 아, 이월에 새철 드는 날, 어제도 안 헌 거 닮다. 새철 드는 날은 언제우꽈? 여기는.
#1 새철 드는 날은 어디 못 다니게 허곡, 집에서 새철이라고 집안 수정은 첨 고기국 끌리고, 밥 새벽에 먹고 허지 안헙니까. 새철이라고. 그추룩 헤낫수다.
@1 아, 새철에도 고기국 끌리고 헹 먹어예.
#1 예. 밥허고, 국허고.
@1 놈이 집이는 못 가고.
#1 놈이 집인 못 가게 헤야주. 누게 뎅겨나민 그 집안에, 밧디 지슴, 쳐 짓 나고, 옛날 할망들은 가민 물 혀서 다 치데겨낫젠 헙니다. 들어오지 못허게 그냥.
@1 그다음에 새철할 때는 못 뎅기게 허주만은, 영등에도 빨래 허지 말라. 이런 말은 엇어마씨?
#1 아니. 그런 말은.
@1 영등에는 그런 말은 엇어예.
#1 영등은 그자 첨 영등에 다니는 어른덜만 영등에 갓다 왓다 허주. 이런 무신 잡인은 하나도 엇입니다, 이디. 옛날부떠도. 우리 커 올 때도.

삼월

청명

@1 그다음에 청명, 삼춘. 청명에는 무시 거 헷수과?
#1 첵명엔 무신 집안에, 무신 첨, 죽어분 어른덜 이제 이묘헐 때 첵명엔 그런 거베끼, 첵멩, 첵멩 첵멩엔 아무 이제 숭패가 없나고, 옛날 어른덜 곧는 거 보민, 무사 첵멩엔 똑 이렇게 이제 이묘 ᄀᆞ튼 걸 헴수과 허난, 이제 첵멩엔 아무 탈이 엇넨. 그렇게 아녀믄 이 탈이여, 저 탈이여. 날 봥 헤도 이제 경헹 헌덴.
@1 청명에도 탈이 안 나는 거잖아예. 신구간엔 어떵 허여?

#1 신구간은, 그자 신구간이라고 부대뽀주. 신구간엔 아무, 아무 것도 뭐 없다고.
@1 신구간에 이사도 헤봅디가. 삼춘네도?
#1 아이고, 저 시집 간, 그자 그 집이 가난, 그 집이서 한 세상, 세상 살단 아방 삼십이 세에 돌아가 부리난.
@1 서른두 설에?
#1 서른두 설.
@1 아고야.
#1 애기 육 남매 낳고, 경 헤도 나 애기 육 남매 다 키우고, 이제 어멍 없는 애기 이제, 가시나이, 어멍 이제 남펜 얻엉 가멍 내부난, 아무도 안 질롬젠 헨, 그 똘을 키완 놔두난, 그 똘 시집보낸 놔두난, 그게 그렇게 훌륭허게 뒈엇어. 웨아덜안티 시집보낸 놔두난, 그 똘이 춤 이렇게 말허믄 허주만은 이녁 난 똘보다 더 나를 생각헤서, 또 하필이면 시집도 잘 가 부리고, 나 그렇게 헤서 산 사름.
@1 게난, 남편 분도 안 계셧는데 여섯 명 키우고, 또 다른 딸도 키우고.
#1 응. 이녁 애기 육 남매. 아돌 삼 형제 똘 삼 형제.
@1 저 바당일 허멍, 물질헤연 다 키완예?
#1 물질허고, 첨 멧 차 안 가는 부자라낫수다. 거난, 그 밧디 농ᄉᆞ허면서, 가름팟 다, 이제 부락 안네 밧이 혼 삼천 평 이서 놓난.
@1 아이고 부자라낫구나게 진짜.
#1 그거 헤서 부자칩이라고 헷는디 그냥, 아덜덜이 사업허면서 이거 비끄러운 소리주만은 재산이 들통 나 부리난, 아덜덜이 또 뭐 다른 게 아니고 양어장 허다가.
@1 예, 옛날 양어장들은.
#1 양어장 일본 그 돔 헤서 길르다가, 그게 탁 도메뒈는 ᄇᆞ람에 그냥 집안이 홀딱 망헤 비엇수다게. 경 헤도 아이덜 건강헨 이시난.
@1 그렇주마씨게.
#1 거 생각 안 허주.

쉐 ᄀᆞ꾸기

@1 이 동네덜도 옛날에 쉐 ᄀᆞ꾸고 헤신가마씨?
#1 양?
@1 쉐, 쉐. 목장도 이서나수과?
#1 목장은 없고, 나도 소를 키와서 못헌 일 엇수다, 나. 웨똘로 커도, 못헌 일 엇이 구루마 끗고, 이제 소 길르고, 소 세 ᄆᆞ리 길롸서, 새끼 나믄 그거 풀멍 허단, 그냥 다 들렁 다 팔아 버리난, 그자 소 키와서 이 동네서 메틀에 한 번, 일주일에 혼 번 그 모돠서 동네에서 저 산으로 가서 멕이고, 그렇게 헤서 세상 살앗수다.
@1 어디에서 쉐 헹 올리거나 이러진 안허고예?
#1 올리지 안허연. 이젠 다 올리는디, 그땐 집집마다 그자 집이 이제 아들이 내몰앗다가, 어둑웡 혼 일곱 시 뒈민 또, 들어오민 그거 다 헤당 쉐출 이제 밤이 먹을 거

다 푸십새 비어다 놧당 멕영 둣날은 또 내보내근에, 이젠 좋은 세상 낭 그냥 소가 이서도, 이신듯 만듯 그자 몰라도, 옛날 우리 커올 땐 그런 거. 춤 살아올 땐 경 안 허연.
@1 게난 산담 손질 ᄀᆞ튼 것도 청명에 헤신가마씨? 산담 손질이여, 뭐 봄벌초여 이런 것들.
#1 에에. 그런 건 엇어.

사월

사월 초파일

@1 그런 것도 없고예. 삼춘은 뭐 이제는 성당 다니니까 허주만은 옛날에 ᄉᆞ월 초파일날 이런 때 뭐 허는 것도 이신가마씨?
#1 ᄉᆞ월 초파일은 게, 초파일이고 해녀고 헌 때문에 무당덜안티, 무당 이제 족지할망이라고, 족지에 가서 이제 하간 거 헤서 올리고, 이제 또 바닷가 에염에 당.
@1 예, 그 당 일름은 무슨 당?
#1 그자, 상울아래당.
@1 상울아래당. 거기가 상울이구나예?
#1 응. 상울, 상울아래당이라고 그디 이렇게 나무 하나에 하간 그 무색들 헤서 둘리고, 그걸 이제 큰 구신이라고 밥 헤 가서, 그디 강 이제 올려두고, 이제 절 허고, 다 케우려 놔두고, 이제 또 족짓할망이라고, 우리 지금 저디 족지가 이제 족지는 그자 이수다. 이제 그디 오라근에 또 영 헨에 이제 건강허게 헤 줍센 그자 기도.
@1 아, 초파일 때도, 그런 때 갓구나예. 그러면은 당에 갈 때는 상울할망당을 먼저 감구나?
#1 응. 상울할망에 가근에 족짓할망신디 오랑.
@1 예, 그날 다.
#1 그날 경 그렇게 하다가 이젠 성당 믿어 부리난 아주 깨끗헨 좋수다.
@1 이 오조리도 성당이 이서마씨?
#1 오조리 성당이우다. 요디 잇는 성당이, 오조리 성당. 오조리 성당 들어사건이 그냥 그레 성당더레 가부난 아무 것도 아녀고, 아주 깨끗헨 좋수다.
@1 예.
#1 까딱 안 허네.
@1 다 믿음이라는 건 마찬가지.

오월

단오 멩질

@1 삼춘, 오월에 단오 멩질도 헨마씨?

#1 단오 크게 헤낫수게. 엿날에.
@1 아, 단오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헤난마씨?
#1 단오헐 때, 엿날엔 단오헐 때, 상웨떡, 여름이라고, 집이서 상웨떡허고, 솔벤, 절벤, 우리 집에는 그거 다 잇는데, 솔벤, 절벤 헤서 그거 헹 올리고, 밥헤영 이제 친촉들 다 갈라먹고, 떡헤서 다, 밥은 안 놔나도 떡만큼은 다 싸면서, 옛날 다.
@1 삼춘네는 단오를 언제까지 허연?
#1 단오 헤나건디 오래수다. 멧 십 년 뒈수다.
@1 멧 십 년예.
#1 단오 설르난, 우린 딱 설러부련. 우리 경 허곡, 곳사 춤 여기 앚앗던 이도 친촉이주만은 집안이 젤 으리으리 헤나수다. 오조리 김칩이라고, 우리도 오조리가 아니고 평대서 내려온 이제 갈라온 김칩이우다. 경헨 이제 큰 초상덜은 평대 다랑쉬 에염에 제보레덜, 아이덜 이제 일 년에 훈 번.

묘제

@1 묘제허레 감구나예.
#1 묘제허레 갑네다. 묘제 이제 평대서 출리민, 또 오조리서 출리곡 그렇게 헤서.
@2 묘제는 몇 월달에 헤마씨?
#1 묘제. 오월.
@2 아, 오월에.
@1 집안마다 다예 ᄯᅳ난예. 단오를 그렇게 크게 헨예?
#1 예. 단오도 크게 헤나고게. 하다가 또 그렇게.

유월

금기

@1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면 유월에는 허는 게 뭐 이서, 삼춘?
#1 유월에. 유월둘엔 헤서 뭐 잘 생각 아녀.
@1 유월절엔 어디 뎅기지도 말렌 허멍예?
#1 안 뎅겨. 유월둘에.
@1 건 무산고마씨?
#1 거 이상ᄒᆞ게시리 유월둘 나믄, 뭐 저 엿날 우리 춤, 해녀질헐 때, 똑 훈 덜에 훈 번씩 이제 메 헤서 바다에 가서 허는디, 유월둘엔 그런 일이 없엇어.
@1 아, 유월엔 그것도 안허고, 바당 갈쳐 불거나 이것도 아니?
#1 바다에 첨 다녀도 그런 일이 없어. 유월에는 아메도.
@1 거난 뭐 이사도 허지 말렌 허멍예. 앚은 방석도 고쪄 앚지 말라고, 그런 말 잇지예?
#1 응?

@1 앚은 방석도 고쪄 앚지 않는덴 허지예?
#1 아메도, 유월둘은, 큰 무신 엿날 어른덜이 앚인 방석도 둘싹거리지 말라이 경 헤영 무시거 헤가민 허메.
@1 둘싹거리지 말라, 응.
#1 유월둘엔 뭐 허지 못허게 헤난, 아무것도 안헤서.
@1 거난 바당에도 안 가고예?
#1 바당엔 가.
@1 아, 가는데 지는 안 싸고.
#1 응. 뭐 지 싸나 뭐, 이제 밥헤서 이런 거 아니헤서. 유월둘은.
@1 유월둘에는예. 삼춘네는 흔 둘에 한 번씩 계속 바당에 지 싸고 헌 거? 물질헐 때는.
#1 물질헐 때는 꼭 이제 춤, 바다에 이제 꼭, 지를 싸서 던져.
@1 응. 흔 둘에 흔 번씩.
#1 족짓할망이라고 지금도 이제 집은 잇주만은, 거기 할망신디 오랑 건강하게 헤줍센 그냥 비는 말이주게.
@1 게믄 그 족짓할망안테는 메칠날 가는 거마씨? 거기는.
#1 초일뤳날이고.
@1 초일레. 매둘 초일레를 강 허는 거구나. 그 할망안테는.
#1 가고 또, 답답헤서, 무신 집안에 애로가 이신 어른덜은 아무 때나 가서 그자, 그디 가서 기도허고.
@1 그 상울할망당은 언제 가고?
#1 상울할망당은 이제 없어져 비엇주만은, 그자 아무 때나.
@1 아, 거기도 아무 때나 가고예.
#1 가고픈 때 그자 가서, 누게 뭐, 나무 ᄒᆞ나에 제우 그 무당덜 건 그 시마지덜 뭐 발랑발랑헌 거 그거 하나.
@1 걸어 잇고.
#1 그 나무를 이제 큰 이제 당으로 생각허여, 상울당.

유월 스무날

@1 상울당예. 게난 상울당은 그렇게 허고, 족짓할망을 더 하영 갓구나, 여기서는. 겡 그렇게 하고 유월 쓰무날은 뭐 허는 날이우꽈?
#1 유월 쓰무날, 둑 숣는 날?
@1 응, 둑 숣는 날. 삼춘네 둑 숣앙 먹언 그때?
#1 난 본래 둑허고 이제 물쿼기, 이제 개고기 ᄀᆞ튼 걸 먹지 못헤낫어.
@1 아, 옛날 어렷을 때도, 건 무사우꽈?
#1 어떵 헌디 그걸 먹구지 안 허난 절대 안 먹엉 먹는 거, 소고기나 좀 먹주. 이제 이 성질에라도, 이디덜 둑 헤당 먹어도 난 그냥 ᄀᆞ만이 앚주, 먹지 아녀.

@1 아, 어렷을 때부떠 안 헨예. 게믄 집에는 둑 숣으는 거는 엇어난? 집에서는.
#1 아니 헤영 어머님네 이신 때사 잡솻주만은, 먹으라, 먹으라헤도 그걸 먹어지질 아녀난, 원 먹을 걸로 봐지지 안허여.
@1 아, 어렷을 때부떠.
#1 장어허고, 이제 닭고기허고, 말코기 ᄀᆞ튼 거. 단지 소고기만 조금 먹주.
@1 생선은 먹고?
#1 생선은 먹어져.
@1 뒈지고기도 안 먹엄수과?
#1 뒈야지고긴 먹어.
@1 뒈지고기허고, 소고기 조금 먹고, 물코기나, 안 좋덴 헌 건 안 먹엄구나, 아예.
#1 원, 먹고 싶질 아녀. 성질이, 어린 때부떠.
@1 게도 유월 쓰무날 둑 숣는 날 헷잖아예? 둑 잡아먹는 날.
#1 둑 잡아먹는 날, 유월 쓰무날. 둑 잡아먹는 날.
@1 둑 잡아먹는 날. 삼복에 게믄 삼춘은 어떵 허멘? 복에, 삼복 더위에는 둑도 안 먹고 허면, 삼계탕도 안 먹으면, 뭐 먹어근에 여름 남수과?
#1 그자 밥허고, 국허고 그냥 뭐.
@2 문어죽은 안 쒀 먹엇수과? 문어로 죽 안 쒀?
#1 아, 문어야 먹주게.
@2 죽 쒕 먹진 안헤?
#1 죽 쒕 먹주게. 문어 폭허게시리, 기름 놩 푹허게시리, 압력솟디 끓여근에 허민 푸각푸각헤여, 문에가.
@1 겡 문에죽은.
#1 문에죽.

조 불리기

@1 옛날 조도 불려 봐수과? 삼춘도.
#1 무시거?
@1 조, 조 갈아봔? 좁쏠.
#1 좁쏠.
@1 조 가는 거.
#1 아, 우리는 다 그 조 불령, 조 검질메영, 그거 이제 첨 기계 엇인 땐 다 도께로 두드령 불령, 물ᄀᆞ레에 강 골아당, 집이서 푸는체로 그 체 다 펑, 경 헨 살단 기곗방 나난에 좀 한가허게 살앗주. 우리 힘들게 살앗어.
@1 게난, 옛날에 조도 다 불령 살앗구나예. 조 불리는 건 어느 철에 불리는 거?
#1 조, 우린 멧 채 안 간 부자라부난, 조 멧 섬썩 헤근에 ᄉᆞᄆᆞᆺ 항, 지금도 우리 집인 그 항이 이수다. 엿날 이만썩헌 항, 혼 네 개, 이제 그것에 다, 일 년 먹을 걸 다 장만허영, 그디 딱허게 놧당, 그냥 쪼끔씩 쪼끔씩 이제 죽장 먹엇수다.

유월절

@1 삼춘 옛날에 유월절 허는 말 허더라예. 유월절이 무시거우꽈?
#1 유월절, 젤 더운 이제 시절 오는 때, 시작, 유월절이 시작.
@1 옛날도 보면 유월절이여, 유월절이여, 헌 말들을 하영 허니까.
#1 아이고, 유월절 어느 때고, 유월절 전이 이제 농ᄉᆞ는 헤사 허여. 저 뭐 불리는 거, 조 ᄀᆞ뜬 거. 유월절 전에. 경 허고 유월절이 무사냐 허민 제일 더우는 이제 달이라, 유월절이. 경 헤부난 유월절.
@1 경 헴구나.
#1 경 헌 거 같다.

칠월

@2 오늘은 칠월달부터 들어 보젠예. 칠월달에 옛날에 헤난 거예.
#1 칠월돌 옛날 뒈민 이제 조팟디, 검질이 막 버밀 때라? 이만은 높아. 게민 모가지에 고사리 꺽엉, 그 고사리 이파리 잇는 거, 이디 감아근에 그냥 검질메당 그냥 돌아오랑 바다에 가야 이제 헐 거난, 바다에 또 이제 갈랴고, 새벽이 새벽즘 안 장 올라강 오랑 밥 ᄒᆞᆫ 술 먹엉, 바다에, 여기는 또 네 지어서, 우리 오조리는.
@2 네 저엉 가야 뒈.
#1 내 젓엉, 배 헤영.
@2 물질허레 들어가는 것도 네 젓엉. 배 탕 갓구나예.
#1 배 탕, 우도허고 우리 오조리 사이에 거기 전복이고, 소라고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강 이제 우리가 헷주. 우리 오조리는 겡벤 엠에 바당 조금 이신 건, 이제 할머니덜이나, 아이덜, 베와 오는 아이덜이나 헷주. 조금 물질허는 사람은 배 타서, 배가 세 척이랏어. 우리 오조리 해녀 배가, 그래서 이제 그거 탕, 네 젓어 이제. 가서 그디서 해녀질 헤영 오랑, 성산포 오라근에 소라, 전복 풀아 두고 또 이젠 이 안으로 들어오곡 경 헤수다게.
@1 거기가 지경은, 이름 뭐렌 ᄀᆞᆯ읍니까?
#1 너븐여.
@1 너븐여.
#1 너븐여, 새여, 저 새여로, 너븐여로, 저 어디니, 노끈여로, 이제 노픈 딘 노끈여. 바다에도 다 이름이 잇어요. 그자 이렇게 허면 우리 오조리민, 오조리 허듯이. 바다에 어느 여, 이제 어느 넙여동산, 주부리동산, 넙여동산, ᄏᆞ진여. 이제 그렇게 다 이름이 이수다.
@2 젤 그거 전복이영, 해삼이영 하는 나는 디가 어디꽈?
#1 전복, 해숨 첨. 전복허고, 소라 하영 잡은 건 우도허고 우리 오조리 사이에, 그디 물이 막 기프고 물이 창창허기 때문에 거디서 많이 잡앗수다.
@2 네 젓엉 갈 때 막 노래도 부르고?

#1 이어싸나. 이어싸나. 우리 네 지렌 허민 아마 제주도에서 우리 오조리 할머니들 미칠 사름 엇을 거우다. 네 지엇어, 이녁대로. 네 젓어 가고, 그냥 그디 가서 네 놔두고 옷 입엉, 요샌 고무옷이나 잇저. 엿날은 기자 속옷, 그거 그냥 입어근에 물질헤아정, 또 이젠 수건 쓰곡 헤영 집이 네 젓엉 오랑, 성산포 오랑 그 물건 다 풀아두고, 또 오조리로 들어오곡 경 헷수다.
@2 삼춘 멧 살 때까지 그거 헷수과?
#1 물질?
@2 응.
#1 저 윗병이 나부난에 ᄉᆞ십ᄋᆞ덥ᄁᆞ지, 경 안 헤시민 춤, 늙도록 헤실 건디 위가 나빠젼에, 위를 이제 그 체 ᄂᆞ리는 할머니안티 가서 하단 보난 위가 그냥 헐어져 비언. 이디 막 너미 문테난게, 그 옛날엔 체 나믄 어디 병원이 섯수과 무시거 그자 영 내련, 경 허단 보난 위 헤싸지는 ᄇᆞ름에 물질도 그때 설러불고, 경 헷수다게. 그자 경허난 농ᄉᆞ허고, 생선 장ᄉᆞ허고, 저 제주시 동문통 거기 ᄒᆞᆫ 십 년 장ᄉᆞ헷수게. 여기 생성배 세 개, 이제 둘이 헤놔근에, 그거 헤아정, 옛날 버스로 가곡, 올 땐, 택시가 어디 시난. 하당 버치민 비싸도 택시 탕 오고.

칠월 칠석

@2 칠월에 칠석 헙니께. 칠월 칠석.
#1 칠월 칠석.
@1 그땐 무신거 허는 거 이신가마씨?
#1 이디 이젠 안 허여.
@2 옛날엔 무신거 헤나수과?
#1 옛날 칠월 칠석이엔 헤근에, 칠월 나민 칠석날 이제 밥, 밥허고, 이제 술 받아놓곡, 고기 구워놓곡 헹 가서, 좋은, 깨끗한 바닷가 엠에, 동산 잇는 디 가서 초석 페와근에 그디 상 차리고, 이렇게 향 피우곡 헹 칠월 칠석 그렇게 헤난.
@2 아, 그건 무사 허는 거마씸?
#1 칠월 칠석이엔. 칠월ᄃᆞᆯ에 이제, 팔월ᄃᆞᆯ 오는, 아마도 ᄀᆞ만이 생각헤 보난 엿날 할머니들이 경 헌 거 닮수다.
@2 거 무슨 바다 요왕님안티 허는 거마씨?
#1 응. 요왕님.
@2 물질헐 때 어디 사고 나지 말렌?
#1 그런 거주게, 아마도.
@2 어디 당에 강 허는 건 아니고?
#1 당에 가는 건 또 따로 잇고, 칠월 칠석은 특별히, 당에 가는 건 이제 바닷가 에염에 요 족짓할머니라고, 이제 저디 지금 족짓할망이라고, 거기 이제 해녀덜은 족짓할망신디 가서, 바다에 가서 이제 넋이 나나, 뭐 허믄 거기 가서, 무당 데령강 이제 넋드리고 경 헤낫수다. 바로 우에, 지금 이디 우리 집으로 보민 저 우에, 거기 그 헤연케

집 지은 디가, 거 엿날 큰 구신 모사난 당이에요, 당.
@2 아, 당이구나예.
#1 족짓할망, 족짓할망 헹, 아이덜 아파도 그디 강 허곡, 또 무신 일이 닥쳐도 거기 가서 이제 첨 불공허곡, 그렇게 헤낫수다.
@1 그 당엔 메칠날 메칠날 가마씨?
#1 일뤳날허고, 초일뤳날허고, 저 팔월 초일뤳날허고, 건 특별히, 경 안허믄 아이덜이 어디 가다가 쓰러지나 넋 나나 허민, 아이덜 데령 이녁대로 가서 할망이라고, 족짓할망신디 강 그자 이렇게 기도허면서 이녁대로 가고, 경 안 허믄 또 조금 헌 사람덜은 무당할망이 잇엇주. 무당할망덜 데령강 또 허고 경 헤낫수다.
@2 팔월 십일날은 무신 날인디 그날은 특별한 날이꽈? 아까 족짓할망당 가는 날.
#1 팔월 십일날은 아메도 옛날부떠 그 족짓할망신디 가는 그 규칙이 이신 셍입디다.
@2 팔월 십일, 팔월 칠일?
#1 팔월 칠일.

백중제

@2 아, 팔월 칠일, 일뤳당이난, 백중에는 무신거 허는 거 이서신가마씨?
#1 백중엔 솔 길루민, 소 길루민 그냥 우리도 소 ᄒᆞᆫ 세 ᄆᆞ리 길루난 이제 떡 헹.
@2 무신 떡?
#1 상웨떡, 밀ᄀᆞ루, 밀 갈앗다근에 밀 ᄀᆞᆯ앙, 상웨떡 집이서 저 막걸리 헤놧당, 이제 그거 피와서 이제 당에 가는 떡은 이렇게 헤여. 동글동글허게.
@2 아 요렇게 동글랑허게.
#1 둥글렁하게. 그렇게 헤서 강 밥허곡, 술 받아놓곡, 고기 구워 놓곡 헤서 백중에 가서 그렇게 기도허는 거.
@2 건 어디 강 허는 거마씨? 백중은.
#1 건, 이제 바닷가, 지금 우리 오조리로 싹 나가믄 성산포더레 가는 넙딱헌 빌레 잇잖아게. 거기 깨끗헌 디로, 글로 강 헙니다.
@2 아, 바닷가에 강, 산에 안 가고.
#1 응. 바닷가로 갑니다.
@1 옛날은 이 동네 쉐 멕일 때, 게믄 바당쪽에 쉐 하영 메수과?
#1 양?
@1 쉐들 멕일 때, 쉐 어디 강 멕연? 쉐 ᄀᆞ꾸레 갈 때.
#1 웽미, 저 웽미 잇잖우꽈?
@1 웨양미?
#1 아이고, 것ᄀᆞ라. 수산 그 우이, 거기 가서 쉐 멕이고.
@2 수산 우에.
#1 거기 거 오름 잇지 안허꽈게. 그것ᄀᆞ라 웽미엔 헙니다. 이디서.
@1 웽미오름.

#1 웽미, 그디 강, 쉐 이제 멧 집이 메틀에 ᄒᆞᆫ 번썩 허민, 거기 몰앙 강 멕여 아졍 오곡, 이제 일주일에 ᄒᆞᆫ 번이민 ᄒᆞᆫ 번, 경 헤근에 돌아가멍 경 헤낫수다. 요샌 좋은 세상 낭 ᄀᆞ만이 시민 다 썰멍, 다 멕이는디, 옛날엔 꼭 웽미로 올라가서 우리 오조리는, 어디 버덕진 디가 없어서. 쉐 떼게, ᄒᆞᆫ 일곱 집이 허젠 허민, 어떤 때는 ᄒᆞᆫ 집이 쉐가 두 개, 세 개 잇고 헤노난, 나도 아니 헤 본 거 엇수다. 구루마 다 끗곡.
@2 곱게 늙으신 어르신인 줄 알앗는데. 소 돌아가멍 멕이는 거 뭐옌 ᄀᆞᆯ아? 무신거 헌덴 허여?
#1 쉐?
@2 돌아가멍 ᄀᆞ꾸레 가는 거. 무신거 허게 영 헙니까?
#1 ᄆᆞ쉬 ᄀᆞ꾸레 가게게.
@2 아, 그냥 ᄆᆞ쉬 ᄀᆞ꾸레 가게, 영예.
#1 쉐 ᄀᆞ꾸레옌 아녕, ᄆᆞ쉬 ᄀᆞ꾸레 가게. 아이고 낼모리 우린 ᄆᆞ쉬 ᄎᆞ례여. 경 허고.
@2 아, ᄆᆞ쉬 ᄎᆞ례여.
#1 이녁이 이제 그날 이제 갈 ᄎᆞ례 뒈믄, 일주일에 ᄒᆞᆫ 번이나 이제 가젠 허민, 아이고, 낼모리 우리가 ᄆᆞ쉬 ᄀᆞ꿀 ᄎᆞ례여 경 허영 ᄆᆞ쉬 ᄀᆞ꾸레 가곡 그렇게 헷수다.
@2 아까 백중제헐 때예 제물은 상웨떡은 멧 개나 헙니까?
#1 상웨떡 그자, 둥굴둥굴허게시리 헤연 그자.
@2 멧 개나 허여?
#1 ᄒᆞᆫ ᄋᆞ섯 개, 다섯 개, 이만썩 허영 그자 사라에 영 올렷당, 게민 그게 이녁만 먹질 아녀고 소 길르는 집이 ᄋᆞ덥이민 ᄋᆞ덥 집, 열 집이ᄁᆞ지는 안 가지, 소가 일곱 집, ᄋᆞ덥 집이 허민 그 쉬정들이 거기 가서 제 지내영, 이제 백중날은 경 헤영 오곡 헷수다.
@2 밤이 갑니까? 아니민 낮이?
#1 밤이. 곧 어둑자말자 밥헤 놧다가 거려아졍 금방 강 벌여서 촛불 싸고 헹, 그디서 백중이라고 영, 경 헨 지내수다.
@2 겐 제물은 이녁만씩 헹 가는 거꽈? 아니민 일곱 집이 다 ᄀᆞ치 헹 가는 거꽈?
#1 아이고, 이녁만썩.
@2 이녁만썩.
#1 이녁만썩게, 이녁만썩이난, 멧 개썩 앗앙 강 ᄒᆞᆫ 사라, ᄒᆞ나에 영 올령, 이녁대로, 이녁대로. 우리 이 수정이민, 이녁 수정만썩 딱딱 허게, 욜로 요만썩 젯자리 페와근에, 그레 이녁 자리만썩 페왕 앚앙.
@2 젯자리민, 무슨 초석이라도 페와?
#1 젯자리게 우리 제ᄉᆞ에 페우는 젯자리 잇지 아녀꽈? 그것 똑 가졍 가야 헙니다. 그거 가졍 강 그 우터레 차령 헙네다.
@2 게믄 밥허고, 상웨떡허고, 궤기 군 거하고.
#1 그거.
@1 세 개만? 또 뭐 다른 거 엇수과?

#1 아이고, 그때는 다른 거 뭐 섯우과게. 그자 고기허고, 밥허고, 국허고 그거주.
@2 아, 국도 허여?
#1 응. 갱국은 헤사. 갱국은 미역국, 고기 놩 끌령 가사.
@2 바닷고기?
#1 응. 바닷고기.
@2 뭐, 옥돔?
#1 응. 옥돔게.
@2 이딘 옥돔 뭐옌 골읍니까?
#1 솔레기.
@2 솔레기 놩 국 끌령예.
#1 솔레기 놩 국 끌리고, 솔레기 이제.
@2 굽곡.
#1 굽곡, 경 헤영 강, 헤난 거 그디서 이녁만썩 제 자리에서 먹어아졍 오곡 경 헷수다. 우린 죽장 소가 잇어부난에 떨어지지 아년 혼 세상 춤.
@1 게난, 그건 누겔 위한 제우꽈? 그날 백중은?
#1 백중은 저 하간 농ᄉᆞ에멍, 소에멍, 아메도 그런 옛날 법이 서신ᄀᆞ라. 경 헨 헷수다.
@1 응. 백중을 위한 제구나예?
#1 응. 백종.
@1 백종.
@2 그거 테우리코사여 영 헌 말도 ᄀᆞ찌 헙니까?
#1 코ᄉᆞ?
@2 예.
#1 코ᄉᆞ는 코ᄉᆞ허는 사름이 또 따로 이십주. 배허는 사람덜예, 특별히 고ᄉᆞ 따로 지냅니다. 이제 따로, 그 어른덜은 특별허게시리 그 고ᄉᆞ라고 첨, 특별허게 그 어른덜은 유달리 또.
@2 건 언제 헙니까?
#1 백중에.
@2 것도 백중에.
#1 백중에 ᄀᆞ찌.
@2 아, 백중에. 배허는 어른덜은 따로 헹 고사 지내고, 음. 혹시 그 당에 마불림제 영 허는 말도 헙니까?
#1 마풀림?
@2 응.
#1 아이 당 일년뒈민게 마풀림 헐려고 막 무당덜 오랑 허민, 우리 해녀들은 다 거기 밥헤 놓고, 지전 물라 놓고, 이제 돈 멧 푼 이제 놓고, 그 첨 옛날 무당덜은 쏠덜 받아 가젠 허민 그디 갈려고 허믄, 쏠도 제일 고운 걸로 헤근에 쳥, 이렇게 메쏠 영 줍

앙 파치가 나오민 궂덴 허는 때문에, 다 이제 그거 체로 쳥 알멩이, 준준헌 알멩인 엇게시리 헹 당에 갈 쏠은 춤, 흔 사발이나 춤, 그때 흔 사발허는 사람 엇어수다. 큰, 기자, 보시로 하나썩, 소박소박 앗앙 강 그거 허민, 영 줍앙 그 잡쏠이 엇어사주. 잡쏠이 잇게 안허는 때문에, 당에 가젠 허민 그 쏠을 다 이렇게 헹 놔둬낫수다.
@2 응. 것도 칠석날? 아니 백중날?
#1 백중.
@2 백중 ᄀᆞ리에.
#1 백중에. 백중에 특별히 백중.
@1 어느 당에 가수과? 그 마풀림헐 때는?
#1 마풀림헐 때는 울뤠.
@1 울뤳당.
#1 울뤠, 큰, 그디가 이제 큰 당이랏수다.
@1 거기가 본향이우꽈? 본향당?
#1 그디 이제 울뤠옌 헌 디, 이젠 이신디 엇인디 우리도 믿건디 오래부난, 거기 가젠 허민 돌레떡, 둥글렁헌 돌레떡, 그 엿날은 이제 물ᄀᆞ레에 그 쏠 좀 굴아근에, 그 굴앙 그 쏠로 이제 돌레떡을 만드는 거라. 동글락허게 겡 허영 울뤠 갈 때는 특별히 고령에, 이런 떡고령 잇지 아녀꽈. 떡고령에 이제, 춤, 멧 개, 흔 열 개민 열 개, 툭툭허게 놩 강, 그디 다 당에 영 헨 올려나믄, 그디 또 큰 무당이 잇엇우다. 온평리, 그 어른네가 다 가져 가부려. 우리 먹을 것만 첨 흔 두 개, 세 개 나뒁, 고령착에 논 떡을 다 헤다가 무시거 헴시녠 물으난에, 그 노인덜이영 가민 이제 받앙 갈 디 봐근에 기다렴덴 경 허멍, 무당 어른 비슬비슬 웃는 어른 이서나신디 그 어른 경 굴으멍 헤낫수다.
@2 그 울뤤 어느 지경에 이신 거꽈?
#1 우리 오조리, 오조리 막 수산더레 가젠 허민 진 울뤠라고, 이제 큰 무룩헌 소낭밧이 이수다. 일로 영 가민 오른쪽, 이렌 가민 수산이고, 우리 오조리, 그디가 큰 울뤠라고, 엿날은 큰 신 위헤난 디우다. 그디 지금도 이실 거우다. 모르긴 헤도 그 당에 가.
@2 마풀림도 허고, 백중날은 마풀림도 허고, 백중제도 지내고, 또 다른 거는 허는 거 엇인가마씨? 백중에.
#1 백중에 그자 그디만, 백중제만 지내낫수다게. 것도 저 소 잇는 사람덜만, 그자 민간덜은 안허고, 쉐 잇는 사람만, 아메도 그 소에 대한 그런 역사가 잇어신ᄀᆞ라. 똑 백중엔 소 질루는 어른덜은 챙경 가근에 헤낫수다.
@2 이디도 어디 물 맞으레도 갑니까?
#1 물 맞으레, 물 맞이레 우린 저 어디니? 서귀포 짝, 거기 흔 번 가낫수다.
@2 어디 소정방마씨?
#1 예. 할망덜 흔 넷이.
@2 자주 가진 안허는구나예. 이 지경엔 어디 물 맞는 딘 엇수과?
#1 이디 물이 이서부난, 요 족지라고.

@2 족지.
#1 족지에 시원한 물이 창창 내립네다게.
@2 아, 아까 족지당 이신 디꽈?
#1 응. 족지당 이신디 그디 바로 그 물이 옛날은 물이 시원헤난 물이라수다.
@2 아, 나는 물이 잇구나예?
#1 바로 이제도 내려.
@2 물 이름은 무신거라?
#1 족지, 족지.
@2 그냥 족지.
#1 그디 당은 족짓할망이고, 그딘 또 족짓물.
@2 족짓물. 내창은 아니고.
#1 내창은 아니고 그자 돌 엉덕으로, 그 부락 그 산속으로 이렇게 이제 바다더레 내립네다게. 이 물 바다에 쌀 때만.
@2 아, 바다에 쌀 때만.
#1 들민 솟아올라도 모르지. 영 알러레 영 내려가는 것만 알지.
@2 모래찜도 헙니까? 모래찜질 허는 거.
#1 이딘 모래찜질은 요 오조리 가믄 방파제, 거기 병모살 거기서 좀 헙니다.
@2 아, 허긴 허는구나예?
#1 예. 헤낫수다. 그땐 헤나고 이젠 그냥 아주 집 다 짓어불고 부락 뒈부난, 모래가 헤영한 모래 막 그냥, 깨끗헌 모래 헤영 그디서 몸 아픈 어른덜은 파근에, 그디 강 모살 썽 누워나고 헷수다.
@2 경 허민 아픈 것이 좀 낫으는가마씸?
#1 아메도 모살뜸 헨 낫으난 자꾸 허는 어른덜, 남저덜 충분, 저 대부분은 남저가 하영 갑디다게.
@2 아, 남자들이 하영 갓구나예?
#1 예. 남저들이 하영 가.
@2 그디가 병모살? 아까 그 지경 이름이 병모살?
#1 당머리.
@2 당머리. 아, 모래찜질 허는 디가 당머리.
#1 당머리, 당머리.

입추ᆞ처서

@2 혹시 입추여, 처서여 허민 무신거 허는 거 이수과?
#1 체서 허민 무시거 우리 농ᄉᆞ허는 사람이나 체서에 기다렷주. 무시거 경 크게 안 헤낫수다.
@2 처서에 무사 기다려수과?
#1 체서. 체서에 하간 거 출령 헤나민 농ᄉᆞ 잘뒌덴.

@2 무신거 출령 헤나민, 처서에 무신거 출렷수과?
#1 체서에 게고제고 밀 굴앗다근에, 밀 굴앙, 그자 빵떡 그거 멘든 거 그게 췌고고, 도 잇는 어른들은 쌀 도깃대에 뼛아근에 헤양헌 거, 돌레떡 그거 허고.
@2 무신 거에 뼛앙?
#1 방에.
@1 도곳대? 도고방에.
@2 도고대?
#1 응. 방에게. 방에. 것ᄀᆞ라 방에.
@2 아까 방에엔 안 굴안게예?
#1 도깃대.
@2 도깃대.
#1 도깃대는 ᄒᆞ쏠 육짓말 부쩡 도깃대고, 우린 방에고.
@1 겐, 처서에 그 떡 멘들앙 먹언마씨?
#1 체서에, 체서엔 그 소 길루는 사람덜만. 소 길루는 사름만, 아메도 소.
@1 백중 때도 허고, 처서에도 허고,
#1 응. 백중 땐 아주 큰.
@1 크게 허고.
#1 크게 하고.
@2 처서에도 허고?
#1 체서엔 그자, 가끔 좀 헌다허는 집안에서나 허주. 경 아무 집이나 경 허지 아녀.

팔월

벌초

@2 이젠 팔월예. 음력 팔월 뒈민 무신거 헤나신고 생각헤 봅서예.
#1 팔월 뒈민 시부모덜, 우린 시부모님들이 멘의원으로 ᄒᆞᆫ 칠 년 다니고, 부락 이장 ᄒᆞᆫ 사 년 허고 헤 부난, 이제 그자, 요샌 양복이나 입엄저. 그땐 그 바다에 가저, 일 허저, 이제 멘에 갈 땐 바지저고리 여름에, 중의적삼 이제 그거 이제 다 챙경 드려야 허지. 요샌 양복 톡 걸치민 뒈주만은. 그땐 한복만 입언 뎅길 때난, 그거 헤영 윤디, 저 다리미로 이제 숫불 놩, 이렇게 다리멍 이제 헤서, 그냥 우리 불 탄에 헤부난 거주. 나도 중ᄒᆞᆨ교서여, 멘사무소에서여, 서귀포서여 하간 선물 받아낫수다게. 첨 불 타는 ᄇᆞ름에 다 카 부리난.
@2 모시 적삼, 모시 두루막 이런 거 헹 입엇수과?
#1 예. 우린 이제도 이수다. 보쿠과?
@2 잇당. 다 얘기헤 나걸랑예.
#1 모시 적삼, 모시 두루마기.
@2 삼춘 거, 할아버지 거?

#1 아니. 아덜덜 거.
@2 아덜덜 거. 이제도 멩질 날 그거 입읍니까?
#1 아이고, 우리 이 김칩만은 양복 입는 버릇이 엇어. 겨울엔 두루막, 첨 사제수덜 두루막 헹 입곡.
@2 검멍헌 거?
#1 검은 거. 여름엔, 팔월 멩질엔 저추룩 이제.
@2 하얀 거?
#1 하얀 거. 우알로.
@2 이제도?
#1 이제도. 우리 이 우리 김칩만은 양복 달랑허게 입지 안허여.
@2 아, 벌촌 헙디가?
#1 우리 벌초 요번에.
@2 팔월 초ᄒᆞ루에 벌초 옛날에 헤낫수게예?
#1 팔월 초ᄒᆞ루에 헤낫주만은 이젠 기자 당허난, 당허난 헴신게.
@2 일요일날 그냥에.
#1 일요일, 아이덜 서울에덜 살아 부난, 친촉 아이덜 휴가 받아지민 그자 그때 오민, 이제 엿날은 똑 팔월 초ᄒᆞ루 뒈사 헷주만은, 이젠 그자 당허민 당헌 대로 헤도 꼬딱 안 헴신게.
@1 친척덜 다 모다졍 허는 벌초는 무신 벌초렌 헙니까?
#1 대벌초.
@1 대벌초. 문중벌초, 대벌초.
#1 문중, 문중. 우린 평대가 큰 종손이랏어. 게민 삼년에 ᄒᆞᆫ 번, 거기 오조리서 ᄒᆞᆫ 번 식사 대접허고, 이 년은 평대서 허고, 제주시멍 평대멍 그 김해 김씨 어룬덜이 경.
@2 그민 그디 까지 강 벌초헙니까? 평대까지 강?
#1 평대 그 다랑쉬에, 바로 다랑쉬 발에 우리 김칩 산이, 엿날 그 첨 김칩 어룬덜이 이 큰 산 쏘곱에 오란 어떵 ᄎᆞ지헤신고 아메도 펭대 어른들이 영리헤나신ᄀᆞ라. 그디, 그 천지를 ᄒᆞᆫ 다섯 자레, 이만큼썩 다섯 자레 헨, ᄀᆞ만이 이선 그디서 제 지냅니다. 시제라고.
@2 아, 시제는 몇 월달에 허는 거꽈?
#1 거 기자 무시거. 저 이삼월 뒈민.
@2 이삼월 뒈민, 응.
#1 시제만.
@2 벌초헐 때는 평대까지 강 벌초 헤? 벌초 허는 거.
#1 벌초 허는 거 해마다, 거기서 이년 헤나민, 우리 오조리에서 허고.
@2 아, 그건 웃대 벌초고, 그다음 할아버지 벌초나 이런 건.
#1 건 그자, 우리 해각에 다 가족 공동묘 다 멘들아부난, 그자 가족 공동묘 헹 간단허게.

@2 옛날엔 다 밧디 따로따로 이서낫수게.
#1 뚜로뚜로 허멍 산담허멍 헷주만은, 이젠 차근차근차근 큰 밧 사놩 그자, 얼마나 간단한 세상이라. 요즘 세상이.
@2 벌초헐 때 여자도 갑니까?
#1 엿날사, 여자가 간에 담 풀 다, 산담 치레헤놓난 풀 나오난, 거기다 그거 헷주만은 이젠 그자 산만 민짝헤부난 여잔 안 가.
@2 이젠 안 가고.
#1 먹으레나 가주.
@2 옛날엔 다 ᄀᆞ치 가낫구나예?
#1 다 가근에 담 풀게 다 걷고, 이제 낫 안 가는 딘 그 호미로 다 고냥에 거 다 홈프고 그렇게 헤낫지. 엿날에사.
@2 그 벌초헤난 다음에 제도 지내?
#1 아니. 가기 전에.
@2 가기 전에, 벌초허기 전에?
#1 아니. 벌초허레 갈 때는 모든 음식 출령 강, 다 벌여근에 벌초 헤난 다음엔 이제, 놔근에 춤 거기서 이제 음복헤 아지고 또 오랑 점심덜 먹고 이젠 경.
@2 게민 이 밧디 산 하나 이시민 그디 강 벌초헤동 제지내곡, 또 다른 밧디 강 벌초헤동 또 제지내곡 헤?
#1 아니.
@2 경 안 헤?
#1 그때도 큰 산 젤 웃대 산, 우리 김칩만이 웃대 산에 오라근에 다 헤동 헷주. 경 토막토막 안 허여.
@1 아, 그때 헐 땐 제물은 무신거 헹 갑니까?
#1 게나제나 상웨떡이주게. 요새ᄀᆞ치 무신 빵떡이 낫어, 무시거 헤서? 집이서 게고제고 기주, 이제 불탁불탁허게시리 기주 헤 놧당 걸렁 밀ᄏᆞ루 ᄀᆞᆯ아놧당 떡 헷주.
@2 기주는 어떵 만드는 거마씨?
#1 기준 누룩 놩.
@2 응.
#1 누룩 놩 이제 좁쏠 이제 히린, 찰좁쏠 이제 쑤엉, 그 좁쏠이 다, 죽이 식어야 허여. 그레 이제 누룩을 이제 카 노민 그게 밥 뒀던 게 살락헤 부려, 저 골ᄀᆞ루 놓민. 살락허민 그거 흔 멧 분 잇당 짜근에 그거 딸리민 그게 감주 뒈주.
@2 음. 골ᄀᆞ루도 놔?
#1 골ᄀᆞ루로게. 골ᄀᆞ루로 헤사 감주가 뒈지.
@2 아, 기주, 아까.
@1 기주가 아니고 감주.
@2 기주, 기주. 감주 말고 기주, 아까 만든덴 허난.
#1 기주는 누룩으로 헤서 이제 술을 멘들아서 떡 만들고, 감주는 골ᄀᆞ루 놩 찰좁쏠

헤근에 허는 거. 우리도 지금은, 우리 김칩만은 감주헤여.
@2 아, 이제도 헙니까?
#1 응. 정월 멩질에.
@2 응, 정월 멩질에.
#1 이녁 집이서 감주 딸령 골ᄀᆞ루 똑, 게난 요샌 좋은 세상, 옛날은 이 철 놔민 골 놔 다근에 갈아당 묻엇단 헷주만은, 춤 놧당 헷주만은 이젠 기자 가난 봉지에 톡톡 싼 줭, 춤 좋은 세상 낫저. 경 허민 저 우리 친구 하난 아이고, 성님네 집안이난 경헴주. 누게 경 허는 사름 이수과, 게, 엿날 거 이제 베와사, 밑에 아이덜도 봣당 아이고, 엿날 할머니네 산 땐 이렇게 헤낫구나. 그렇게, 그 식을 잊어불지 말아사주 뒈느냐 허멍.
@2 맞아마씨. 거난 우리 삼춘 만나레 온 거마씨. 옛날 헤난 말 들어 보젠.
#1 엿날엔 경 헤연.

팔월 멩질

@2 팔월 멩질 낼모리 돌아올 거라예. 팔월 멩질 돌아왐저 허민 무신거부터 헤야 뒙니까?
#1 우선 고기 헹 놔두고.
@2 무신 고기?
#1 갱거리 허고, 굴 거 허고, 이제 돌아가신 분 다섯이민 다섯 분 네시, 다섯 개 따로따로 이제.
@2 상 다 따로따로 차립니까?
#1 아니. 흔디 이렇게 출려도.
@2 흔디 찰려도 다섯 갠 이서야 뒈.
#1 경 헤영 이제 또 우리 김칩만은 그 식 잊어불지 안헤영 그자 엿날식으로 헴주.
@2 그건 옥돔으로? 아까 솔레기로?
#1 솔레기.
@2 솔레기 굴 거허고, 솔레기 갱거리허고.
#1 갱거리허고.
@2 그다음 또 무신 거 준비헤야 뒙니까?
#1 요샌 좋게시리 잡채 나오난 잡채도 허곡, 옛날 잡채가 어디 셧어.
@2 게난,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출릴 거여 허민예.
#1 고사리 숢곡, 콩ᄂᆞ물 허곡, 이제 묵 작살, 묵 헤난 작살, 그걸 큰, 그걸 꼭 헤여. 묵 썰어나믄 이제 그 찌꺼리 잇잖아.
@2 예, 예.
#1 요추룩 헌 거, 그거 똑 헹 똑 이제 첨 돌아가신 분이 다섯이민 다섯, 너이민 너이, 거 따로따로 똑 그걸 이제 한 멧 점썩 낭, 헷당 말짼 이제 다 잡식 헤나민 다 한데 허영 엿날 초가집 이신 때는 앗아당 다 데꼇주만은 지금은 우린 또 믿어불고 허난 이젠 기자 제만 지내.

@2 게믄 고사리허고, 콩ᄂᆞ물허고, 또 채소 뭐 하나 더 안 헤? 그냥 묵작살 이거 세 개민 끝?
#1 묵작살.
@2 이거 세 개만 허고예.
#1 또 미나리 ᄀᆞ튼 거나 먹고 싶으민 또 그건 별도로 허고.
@2 아, 별도로 허고.
#1 우선에 고사리허고, 콩ᄂᆞ물허고, 묵작살은.
@2 꼭 헤야 허는 거.
#1 세 가지는 똑 잇어야 허는 거.
@2 그믄 아까 밥허고, 국허고예.
#1 밥허고 국허고.
@2 그다음 뭐 적갈 안 헤? 소고기영 뒈지고기영?
#1 무사 적갈 안허여? 아이고 그 적이야 다 헤사주.
@2 무신 적, 무신 적 헙니까?
#1 도야지 고기, 소고기, 이제 상어.
@2 아, 상어.
#1 꼭 상어 헤여, 우린. 그 상어 허고 그거 따로.
@2 세 개예.
#1 세 가지, 딱 그거.
@2 상어적허고, 떡은?
#1 떡은 아, 친떡허고, 이제 팔월 멩질엔 낭웨덜 잇으니까 낭웨 허고.
@2 침떡도 허고, 낭웨도 헙니까?
#1 아니, 아니. 친떡 대신 낭웨 허고, 낭웨 대신 친떡 허고.
@2 아, 정월 멩질엔 침떡 허고, 팔월 멩질엔 낭웨 허고.
#1 친떡 허는 사람들도 잇주만은 요샌 친떡 안 먹어부난, 아이덜 입에 맞게 헴주.
@1 요즘은 낭웨 무시걸로 멘듭니까? 여기서는.
#1 낭웨?
@1 예.
#1 밀ᄀᆞ루 헤영.
@1 밀ᄀᆞ루 헤근에예.
#1 기주, 기주 그 막걸리 이제 그걸로 이제 헹 놔두민, 부글렉이 이제 밀가루 헹 물앙 놔두민 그게 부글허게 올라와. 게민 그땐 이제 베멍 찌민 낭웨가 뒈는 거.
@2 쏘곱에 무신 거 안 놔?
#1 쏘곱에? 저 상에 올릴 땐 친떡 ᄀᆞ튼 딘 그 풋쉬 놔도, 낭웨ᄀᆞ튼 딘 무시거 놓지 안허여. 그자 부각하게 낭웨만 헹 올리주.
@2 상에 떡 올릴 거라예. 떡은, 게민 낭웨만 올립니까? 옛날에? 다른 떡은 우에 안 놔?

#1 낭웨, 낭웨 올리고, 우터레 절벤, 솔벤.
@2 아, 우터레 절벤, 솔벤.
#1 응. 절벤, 솔벤.
@2 또.
#1 그거 올리고, 지름떡 우터레, 제일 우터레 지름떡 놓고.
@2 제일 우터레 지름떡 놓고.
#1 요샌 따로 이제 첨, 똔 그릇 헹 기름떡 ᄀᆞ튼 거 영 톡 놓주만은, 엿날엔 첨 상웨떡 우터레 다 영헨 올렷어.
@2 게믄 낭웬 몇 개나 놉니까?
#1 다섯 개.
@2 아, 낭웨 다섯 개 놓고, 그 우트레.
#1 그 우터레 솔벤 절벤 놓곡, 지름떡 놓곡 경.
@1 솔벤 절벤은 멧 개씩 놔?
#1 다섯 개, 다섯 개썩은 다 놔.
@1 다섯 개씩 놓고.
#1 게난 엿날 정반 이만썩 헌 것덜.
@2 과일은?
#1 과일은게 사과허고 첨, 우리 제주도 밀감 셔 나부난 밀감허고, 배허고, 그게, 불써 우리집은 들어왓네. 저디 사과, 배.
@2 옛날엔 어떵 헤신고마씨? 사과, 배 엇일 때.
#1 경헤도 똑 올렷어. 다섯 개 못 올려도 세 개, 배 두 개에 사과 이제 츰 세 개에 헤영, 그 우터레 다른 거 올려낫주.
@2 이젠 막 바나나여 메론이여 이런 것도 막 올립디다.
#1 아이고, 벨아벨 거 이신 건 다 오렴서. 첨 옛날 초상덜 얼굴 모른 거 다 잡솨 감서 이제, 다 손자덜이 다 도시에 사난 다 헨 보내고, 우리도 벌써 저 사과여. 배여 들어왓네.
@1 송편허거나 영은 안헙니까? 팔월 멩질에.
#1 송펜?
@1 예. 조개솔벤 ᄀᆞ튼 건 안허여?
#1 절벤 솔벤.
@1 그것만 허고예?
#1 응. 이제나 절벤 솔벤 엇어벰주. 옛날사 꼭 절벤 솔벤 헤사, 그게 이제 친떡 우터레, 저 상웨, 상웨떡 우터레나, 그게 영영 솔벤은 알러레 놓고, 제편 첨 동골랑떡은 우터레 영 올령.
@2 절벤 솔벤은 어떵 멘드는 거꽈?
#1 절벤 솔벤? 솔벤은 이렇게 이제 잇고, 앗당 베와주카?
@2 ᄒᆞ꼼 잇당. 본 이수과? 본 이수과? 솔벤본, 절벤본? 집이.

#1 응. 옛날 헤난 거 다 잇주.
@2 쏠ᄀᆞ루로 갈아근에
#1 쏠ᄀᆞ루로 ᄀᆞᆯ아, 그걸 이제 돌레떡 멘들앙 쪄 내어, 그걸 이제 첨 만져근에, 그땐 이제 솔벤도 밀어근에 솔벤으로 허고, 절벤도 또 요추룩 동글동글허게 두 개 합쳐근에 꼭허게 눌리곡 헹.
@1 이제도 경 허멘마씨?
#1 아이고, 이제 요샌 경 안 헙니다.
@1 이젠 경 안 헴수과?
#1 그자 친떡 우터레 조개솔벤이나 무시거 헹 올려불주. 옛날엔 솔벤 절벤 똑 이제 팔월 나민, 그 솔입을 빳아 그 꽁뎅이에 그 하얀 게 안 부떠. 게민 그거 이제 큰집더레 그거 딱허게, 확허게 데우쳥 깨끗허게 ᄆᆞᆯ류왓당, 그거 ᄁᆞᆯ아근에 솔벤, 것에서 쪄냇주. 영 톡톡허게, 옛날 할망덜 머린 좋아서게, 경헤도. 그거 이제 아래 ᄁᆞᆯ앙 그 우터레 떡 놩, 또 그 우터레 헤영, 그거 이제 사름덜은 그자 간 ᄀᆞ루 ᄀᆞᆯ안, 그디서 떡 멘들안 나오람주만은 그땐 똑 이녁이.
@2 팔월 멩질날 옛날에는 달구경도 헤나신가마씨? 밤에. ᄃᆞᆯ구경 허레 가곡 헨? 놀고, 허벅 장단허고. 그런 거 안 헤난?
#1 에에. 겡 안 헤. 우리 오조리만은 겡 안 헤.
@2 마을에서 뭐 잔치허고 영 안 헙니까?
#1 잔친 걸궁이나 허주.
@2 그건 일월, 건 정월에 허는 거 아니, 걸궁은?
#1 응.
@2 말고, 팔월에?
#1 팔월엔 안 헤. 경 허고 우린 젊을 때 과부 들어부난 어디 강 무시거 허젠 헤도 ᄇᆞ름 낫젠 허카부덴 꼼짝 안 허고, 집안이 또 첨 으리으리헌 집안이난 소리도 허렌 허민, 놈만이 헤도 당췌 헤보지 못헨 ᄒᆞᆫ 세상 늙어빗젠 허난.
@1 팔월에 허는 일은 무시거 이수과?
#1 팔월에 허는 거 무시거 이서? 벌초 헤불민. 남ᄌᆞ들은 벌초고, 어멍들은 옷덜 헹 놧당 거 입지는 거, 그거. 모시 두루막, 모시 중의적삼, 팔월에.

꼴 장만하기

@1 촐은 안 비어? 촐, 촐, 쉐촐, 쉐촐.
#1 아, 쉐촐은 쉐 잇는 사람덜.
@1 건 언제 빕니까? 쉐촐허는 거는?
#1 그거 이 팔월에.
@1 삼춘네도 촐허레 하영 뎅견?
#1 아이고, 쉐, 홀어멍이 쉐 세 개 질롼, 그것에서 새끼 내우멍 구루마 끗은 할망이, 날만이 일헌 사람 엇덴 허난.

@1 거난 촐 헷던 얘기헤줍서.
#1 톨? 촐?
@1 응.
#1 촐, 게나제나 이제 낫질 허는 거, 오조리서 여ᄌᆞ 중에 나벳기 허는 사람 없어. 낫질 허잖아, 이렇게.
@2 영 서근에 허는 거예?
#1 응. 그거, 그걸로 촐왓 ᄒᆞᆫ 세 개 헤영, 그거 다 헤영 ᄉᆞᄆᆞᆺ 오름만썩 눌엇당 그거. 아이고 첨.
@2 어디 놉 안 빌엉? 놉도 빌어야 뒐 거 아니?
#1 아이고, 놉 빌고, 놉도, 저 소 새끼 줘근에 농ᄉᆞ도 그 사람덜 빌엉 허곡, 경 헨 헷젠 허난.
@2 삼춘네 촐왓도 이서나수과?
#1 촐왓도 잇고말고, 촐왓도 세 개나, 큰 촐왓 세 개, 울뤠로 웬당물로 저 구진거벵이로, 우리ᄀᆞ찌 촐왓 하고, 촐 헤사, 그 소 맥영, 그 소 또 싸난 그 걸름 그거 헤서 이제 농ᄉᆞ, 보리 짓곡 헤난.
@2 게민 그 촐, 놉 빌엉 촐 비젠 허민 밥도 헹 가야 뒐 거 아니꽈?
#1 밥은 ᄉᆞᄆᆞᆺ 헹펜엇이 ᄎᆞᆯ려 가사. 게난 첨 입이 구직헌 어른덜은 ᄉᆞᄆᆞᆺ 우리 일이엔 허민, 그냥 어느 때 빌 거니, 어느 때 빌 거니 헤낫젠 허난, 날로 나 말이 아니고, 먹이는 것이 애끼지 안헤영 그자 풍풍 헤드리고, 술은 먹고 싶은 어른덜 술, 그자 엿날은 사이다라, 펭 그거, 그거에 헤당 내불민 당신네 먹구정 허민 먹고, 가졍 오랑 먹구정 허민 가졍 오랑 먹고, 겡 헤낫어. 게난 일험도 저, 멧 째 안 뒌 부자라주만 저 그렇게 외롭지 안헷어. 할망덜은 할망덜대로, 놈은 좁ᄊᆞᆯ, 조 ᄒᆞᆫ 말 준덴 헤도, 난 ᄒᆞᆫ두 뒈나 더 폭폭 거려놩 안네 불곡 헤불민, 막 일헐 땐 어느 때 헐 거니, 어느 때 헐 거니. 경 헨 헷젠 허난. 날로 나 말이 아니고 나 그렇게 첨 깨지깨지 허구정을 안 헤낫어. 단똘로 커도.
@2 촐 빌 때 반찬은 무신 반찬 헹 갑니까?
#1 게나제나 고사리 헤영 무치고, 저 요새난 잡채도 중간에부터사 나왓주. 잡채 허고, 게고제고 솔레기 구워 아지고, 국 끌령, 저 뭣에 들러 아졍, 저 단지, 아이고 그 단지에 국 헤영 들렁 갓당 그거 먹고 헷젠 헤난.
@2 그 촐밧, 촐왓까지 다 날랑?
#1 응. 촐왓ᄁᆞ지 앗앙 가사 밥을 먹주, 무신. 냉국헐 땐 냉국 허고, 또 특별히 이제 그 술 잡수는 어른덜은 고기국을 좋아 아녀게. 게난 그자, 우리 일 마탄 허는 분이 첨 서이라낫는디 기자 죽장, 죽장 잘 헤줜 첨.
@2 팔월에 백로, 추분 영 허는디 그땐 무신거 허는 거 엇지예?
#1 아니, 그런 식은 엇어.
@1 삼춘 여기는 촐 ᄒᆞᆫ 바리 허면은 몃 뭇 헙니까? 몃 단?
#1 촐?

@1 응 흔 바리.
#1 흔 바리 서른 단.
@1 서른 단. 응.
@2 구월달 뒈민 무신거 허는고마씨? 음력 구월에 허는 거 이신가?
#1 구월돌엔 무시거, 벨로 헌 거 엇어베다.
@2 당에도 가는가? 음력 구월에?
#1 게나제나 당에 뎅기는 어른은 이거, 정월이고, 이월이고, 삼월이고 ᄉᆞ월이고, 그자 윤돌만 안 가. 윤돌만.
@2 아, 매달 가는구나예?
#1 응. 매달에 가. 이제 족짓할망이라고, 이제 저디, 그디 족짓할망 모사놓민 이제 아이가 넉이 나나, 무시거 허나 허민, 그디 가민 할망 하나가 이렇게 이제 손 봐주민 낫곡 경 헤낫어, 병원이 잇어시카 무시거 옛날사게, 그자 무당 할망덜.

구월

@2 구월에 상강 영 허는디. 그땐 무신거 허는 거 이수과?
#1 구월에?
@2 응, 절기로 상강 이런 거 이신디. 그때 뭐 허는 거 엇어?
#1 엇어 베다.
@1 그때 ᄀᆞ실허는 건 언제?
#1 응?
@1 추수, ᄀᆞ실허는 거, 곡석 허여들이는 거.
#1 곡석 헤들이는 건 구시월에게.
@1 무시것들 헤여들입니까?
#1 아, 옛날사 조허고 ᄆᆞ물, ᄒᆞ쏠 부자칩인 ᄆᆞ물허고 산디, 산디 이녁대로 산디 이제 그 산디라고 알지?
@2 예, 예.
#1 옛날은 나룩 잇어낫주만은, 옛날 이제 ᄒᆞ쏠 잇는 집인 산디 갈앙 그걸로 밥허고.
@2 이 동네 나룩도 헤나수과?
#1 나룩밧 잇저.
@2 아, 나룩밧 이수과?
#1 응.
@2 삼춘네도 이서난? 나룩밧.
#1 우리 나룩밧 이서난. 그냥 저 고성 가는디 큰 강답인디, 그자 오꼿 아덜덜 오란 저 갈앙 무시거 헐디. 애월 오란 하간 양어장, 돔, 돔 양어장 허느라고 다 담보헷단 하필이민 그 돔이 딱 막아져 불지 아녀서게. 경 허는 통에 오꼿 우리 손 들렷젠 허난, 좋은 재산.

십일월

동지

@2 음력 시월엔 무신거 허는고마씨?
#1 음력 시월에 무시거.
@2 헐 거 엇어? 게민 음력 십일월.
#1 십일월? 십일월은 동짓둘 아니라.
@2 예.
#1 동짓둘에 동지범벅 헹 먹고.
@2 동지범벅, 건 무신걸로 허는 거꽈?
#1 ᄆᆞ믈ᄀᆞ루.
@2 ᄆᆞ믈ᄀᆞ루 허고, 또 무신거 놔?
#1 감저.
@2 감저허고.
#1 감저 쳐 놔근에, 그레 감저 부글부글 다 익어가민 그 우터레, 메물ᄀᆞ루 그거 우터레 서텅, 그냥 남죽으로 이렇게 막 젓으민 그게 이제 범벅이 뒈부는 거라. 경허민 그거.
@2 그거 동짓날 먹어낫수과?
#1 응.
@2 무사, 무사 먹는 거라. 그건, 어디 좋나 허는 거 이서?
#1 아메도 몸에 좋덴 헹 동지에 동지죽 쑤고, 또 헌다는 집이선 특별히 그 범벅허고 헤나수다.
@2 아, 동지죽은 무신거꽈?
#1 동지죽. ᄑᆞᆺ죽게.
@2 아, ᄑᆞᆺ죽.
#1 동지엔 똑 ᄑᆞᆺ죽 쒀.
@2 아, 동지엔 ᄑᆞᆺ죽 똑 쒀. 건 무신거에 좋덴 허는 거라.
#1 아메도 그런 엿부떠 무신 그런 식이 잇어신ᄀᆞ라. 그걸 죽장 경 헷젠 허난.
@2 게민 ᄑᆞᆺ죽은 쑤젠 허민 어떵 쑵니까? 차례대로.
#1 ᄑᆞᆺ, ᄑᆞᆺ 막 숣아. 이제, 요샌 걸럼주만은 옛날은 문들문들 뀌여.
@2 아, 뀌어.
#1 그레 쏠 놔, 그자 쏠.
@2 아, 그 무신 새알심 ᄀᆞ튼 것도 놉니까?
#1 그레? 저 헌다 허는 집이선 밀ᄀᆞ루 헤근에 요만썩 수제비 헨, 톡톡 놘.
@2 경도 헨 먹어낫수과?
#1 경도 헨 먹고.
@2 그거 수제비엔 ᄀᆞᆯ아?

#1 저베기.
@2 저베기, 저베기, 응. 저베기 그레 놩예.
#1 수제빈 요새사 나오랏주. 옛날엔 저베기.
@1 옛날은 저베기.
#1 우리 감저ᄀᆞ루 헨 저베기 헹 먹키여 경 허주. 뻿데기ᄀᆞ루 헤서 엿날은게 그거 큰. 아이고 거 제국시절에 다 털어 가불민.
@2 풋죽도 쑤엉 먹는 동지가 잇곡.
#1 안 쒀 먹는 동지.
@2 아, 건 어떵헌 말이꽈? 언제는 쑤고, 언제는 안 허는 거라.
#1 아메도 그게 해마다, 그 해에 그거 쒀 먹는 해가 이서신지, 옛 어른덜 그 식이, 그런 식이 셔.
@2 거 무슨 애기 동지여. 늙은 동지여 영 허는 말은 안 헤?
#1 애기동지옌 허여.
@2 애기동지옌 허여. 애기동지엔 안 헤 먹는 거?
#1 애기 동진 아니 먹고, 이름만 애기동지, 늙은이 동지 경.
@2 무사 애기동지옌 골암신고?
#1 몰라. 아메도 그 노인덜이 아메도 그 애기 생각사 헤서 그런 뜻이라는디. 엿할망덜, 엿할멍덜이 머리 엿하르방덜 얼마나 좋아? 다 그 법으로 이때까지 살아가는디.
@2 풋죽 쑤는 거 말고 동지둘에 허는 거 엇인가마씨?
#1 동짓둘에?
@2 응.
#1 동짓둘에 동지범벅, 섣둘에 풋죽이엔 헌 노래 헤낫어.
@2 어떤 노래?
#1 동짓둘에 동지 풋죽, 섣둘에 ᄆᆞ물칼국수, 저 범벅.
@2 아, 범벅? 칼국수?
#1 범벅.
@2 모멀범벅?
#1 범벅게 기자, 고구마 놔근에 우터레 밀ᄀᆞ루 놩 영 헌 것ᄀᆞ란 범벅. 칼국순 썬 것ᄀᆞ라 칼국수.
@2 예, 맞아. 이때 저기 뒌장도 담급니, 뒌장도 만듭니까?
#1 아이고, 뒌장이사 엿날부떠 뒌장 허는 거주.
@1 메주 언제 숢읍니까?
#1 메준 저 섣덜 초승 낭, 구시월에, 구시월에 헤사 잘 든덴 헹. 우리도 지금 뒌장 둠은 뒌장 먹어.
@2 누게가 담아?
#1 나가.
@2 삼춘이? 아이고, 영 아픈디.

#1 아이, 요샛 사름덜 산 먹어부난, 할망 돔은 건 이제 고만히 먹는 거 이서. 우리 성당 뎅기는 아이 오란 흔 단지 퍼 가고, 옛날 뒌장 먹어보쿠덴 허멍.
@2 음력 십이월에는 허는 거?
#1 십이월에 무시거 허는 거 엇지, 그자.
@2 엿 멘들앙 먹어수과? 엿?
#1 응. 엿은 엿은, 똑 허주. 엿, 골ᄀᆞ르 놧당.
@2 어떵 어떵 헹 허는 거꽈?
#1 골ᄀᆞ루.
@2 골ᄀᆞ루부터 어떵 만들어 골ᄀᆞ르 만드는 거부터, 골ᄀᆞ루 어떵 멘드는 거꽈?
#1 보리, 보리나 밀이나, 이제 이때에 그놈을 이제 물에 컷당 흔 삼일 컷당 놔두민 헉싹허거든, 경 헹 그걸 이제 우터레 무시거 영 톡 더껑 놔두민 그게 뽀족뽀족 뿔이 나와. 그 보리가 나와, 보리싹. 게민 그게 어느 만큼 ᄒᆞ쏠 크민, 말리와서 엿날 그 정ᄀᆞ레, 이것에 이제 골아근에 그걸 이제 찰좁쏠. 이제 죽 쑤어. 그놈을 이제 언물에 캉 찰좁쏠러레 이렇게 비우민 그자 사르르 헤비어. 그 찰좁쏠이 벙뎅이 지지 아녀. 그자 살락허게시리 물 따로 쌀 따로 뒈. 게민 한 멧 분 잇당 그놈을 이제 막 문대서 짜. 손으로 짜서 이제 또 체로, 옛날 체, ᄀᆞ는체, 그걸로 걸렁 딸리민 감주 뒈는 거.
@2 얼마니나 딸리민 뒙니까?
#1 그거 알아지주. 이제 요추룩 허민 욜로 요추룩 겡기가 이서. 다 딸려지민 그믓이, 이제 거 줓아든 그게.
@2 예 예 예.
#1 경 허민.
@2 어느만이 줄어들민 뒈는 거라.
#1 요거민 요ᄁᆞ지만 허민 뒈는 거라.
@2 그 정도 줄어들 때까지 딸려?
#1 응. 게민, 풀풀헤 가멍 그 첨 질분ᄀᆞ루 맛이 그디서 나온다게.
@2 무신 ᄀᆞ루?
#1 골ᄀᆞ루게.
@2 골ᄀᆞ루 맛이.
#1 거 다 엿날은 집이서 골 놩, 집이서 물류왕 긇앙, 흔 번썩 멩질에, 제서에 헐 거, 요새ᄀᆞ치 식혜 ᄑᆞ는 디 이섯서? 그땐 게고저고 섹일에고 뭐고 똑 감주를 헷주.
@2 감주가 뭣어예. 그다음에 엿을 만들젠 허민 어떵헤?
#1 엿은, 딸려가민 엿이 뒈는 거라.
@2 감주 더 딸려가민 엿이 뒙.
#1 응. 감주가 막 딸려가민 거멍케 엿이 뒈분덴 허난, 그게 그 춤 사르륵 헷단 게 오래오래 딸려가민, 이걸로 영영영 헤가민 요ᄁᆞ지 오민, 딱 엿이 풀풀허게, 까망게 뒈비여.
@1 삼춘은 손가락으로 영 그믓 봠구나예?

#1 응.
@1 아까 삼춘 감주헐 때 좁쏠 잇지 안허꽈? 흐린좁쏠, 그냥 좁쏠로 놉니까? 밥 허영 놓는 게 아니고? 조팝 안 허여?
#1 그자 죽.
@1 죽을 쒀근에.
#1 죽 쒕, 그자 죽이멍 밥이멍 흘탁허게 헤영, 골ᄀᆞ루에 물 놔근에 담그민 벙뎅이 졋단 밥이 살락헤 분덴 허난, 이 골ᄀᆞ루가, 경 헹, 그게 한 멧 분 잇당 똑 ᄀᆞᆯ라앚는 거라. 우알, 이제 게민, 그땐 막, 문테어서, 짜서 딸리민 그게 엿 뒈는 거. 감주 뒈는 거.
@1 우리 어머니는 조팝 헹 허더라고예?
#1 조팝. 조팝허여.
@2 그디 무신 뒈지고기여, 꿩이여, 독이여, 이런 것도 놔근에 엿 허지 안헙니까?
#1 그건 보약허는 사람덜.
@2 게난 그건 언제 놉니까?
#1 그건 이제 골ᄀᆞ루, 춤 저 감주ᄀᆞ루 다 멘들아서 짜논 다음에 이제 고기 놔서 ᄀᆞ치 딸려.
@2 아, ᄀᆞ치 딸려.
#1 ᄀᆞ치 딸리민, 그 뒈야지 고기 흘랑흘랑 다 이렇게 뒈고, 닥 ᄀᆞ뜬 것도 다 영, 가지가지 다, 뼈 떼동 놓민 살살 다, 헤서 그자들 퍼먹고 헷주.
@2 그건 몸보신으로 먹는 거꽈?
#1 몸보신, 옛날엔 몸보신게. 요샌 주사여, 뭐여 이서도 옛날은.
@2 영양제구나예.
#1 그게 영양제, 닥허고 인삼허고, 그게 큰 영양제.

십이월

납평날

@2 그 엿 허는 날을 무신 날?
#1 넴평날.
@2 아.
#1 넴평.
@2 넴평날. 건 언젠고?
#1 그게 구시월에 나올 거라. 넴평에.
@2 엿은 십이월에 만드는 거 아니꽈? 겨울에 허는 거 아니?
#1 십이월이고, 무시거고 넴평에 헤사 아무 무시거 엇덴 헨 똑 넴평에 엿을 헷어, 넴평이라고.
@2 엿허는 날이구나예.
#1 엿허는 날 넴평.

신구간

@2 신구간도 이수게예? 신구간은 무시거 허는 날이꽈?

#1 신구간은 아무 이제 우리가 집 이사를 헤도, 그 신구간 어느 날로 어느 날 새가 잇주. 그민 그때 간 건 아무, 엿날은 아무 탈이 엇고, 그자 이사 잘못헷다, 무시거 헷다 헹 탈 나민, 아이고 거 이사 잘못 헤부난 거여 경, 말이 그게.

@2 그때 이사 가야 뒈는구나예. 이사 가는 거 말고, 신구간에 집도 고치고, 이런 것도 헌덴 헨게만은, 뭐 통시도 고치고, 영 허는 것도 신구간에 헌덴 헨게 만은 그런 건 안 헙니까?

#1 무사? 그때 뒈사. 신구간엔 아무 탈이 엇곡, 아무걸 헤도 옛날 화장실에서 무사 ᄒᆞ쏠허민, 무신 탈낫저, 무시거 헷저, 아녀?

@2 예, 예.

#1 게난 그게 이제 신구간에 그런 게 아주, 아무 필요엇덴 헹, 신구간엔 온갖 거 다 터놘 헷주. 화장실 고치는 거고, 담 다는 거고, 요 어귓담 하나라도 무신 옛날에 ᄆᆞ음대로 헤졋어? 탈 낭, 에에, 그 집인 신구간도 안 든디 거 헤여 뎅기당 거여, 누게 아프나 무시거 허민, 그자 옛날 할망덜 말이.

@1 신구간에는 무사 탈 안 난덴 허는 거우꽈?

#1 아주 죽어진 ᄃᆞᆯ인 셍이라, 신구간이. 아무 미신이고, 첨 잡티가 엇인 때문에 신구간, 신구간.

집알이

@2 삼춘은 이사 안 가실 거 닮수다만은 혹시 이사 가젠 허민, 옛날에 요즘사 부동산도 잇주마는. 이사 갈 집은 어떵헹 알아봥 가는 거꽈?

#1 중매.

@2 이사헐 거, 이사.

#1 이사헐 때. 그 어느 집더레 이사가켄 헤근에 그 중매가 잇엇어, 옛날에. 그 중매가.

@2 헤주는 사름이 잇구나.

#1 그거 다 와이루 먹으면서, 공짜 아니.

@2 공짜 아니. 겡 어디 뭐, 누게네 집이 요디 밧그레 비엇저 헤근에 이디 왕 살라 허젠 허민.

#1 살라 허젠 허민, 이제 그 사름 놔근에, 그디 강 빌엉, 경 헨 살고 헷주.

@2 옛날엔 이사허민 집들이도 허고 막 헤나수게.

#1 막 밥 헹 먹이고, 이사가 큰 첨 큰 보물이주게.

@1 새로 짓어근에 가도.

#1 집 짓엉도 살곡, 상도 가곡, 그게 큰 재물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경허난 그걸 크게 생각헹 그땐, 첨 집 산 어른덜이나 상 가는 어른덜이나 동네 어르신덜 다 모셔당 아이고 도세기 궤기 두 점 석 점 논 거, 크게 생각 헹, 경헹 다.

@2 친척 어른 집 지언에 집들이 헴저 영 허민, 그때 무신거 아졍 갑니까?
#1 쏠.
@2 쏠 부지.
#1 쏠 부지. 좁쏠 흔 말.
@2 좁쏠 흔 말.
#1 곤쏠은 어디 시난 좁쏠도 좋주.
@2 요즘엔 화장지여, 성냥이여, 이런 것도 가졍 간덴 헨게만은.
#1 요새사게 무신 다 그런 거주 무신. 쏠 앚앙 가곡 무신 경 헴서. 옛날은 게나저나 기자 이제 친촉집이 이사헴젠 허민, 쏠 흔 말 놩, 좁쏠 흔 말 잘리에 담앙 ᄇᆞ름구덕에 놩 아상 갓주.
@2 아까 이사할 때, 삼춘, 이사 허젠 허민 무신거 먼저 가졍 가라 영 허는 거 잇지예. 이사헐 때, 집 옮길 때, 무시거부터 아졍 가?
#1 성냥허고, 숫허고, 그거.
@2 불 허는 거 먼저 가져가는 거구나예.
#1 경 허렌 헷주, 옛날 할망덜이. 이사갈 때랑 숫, 옛날은게 숫덜 구웡 이추룩 헌 거, 숫허고 이제 화곽 앗앙 가라.
@2 화곽 앗앙 가라.
#1 성냥이 어디 시난, 화곽.
@2 게민 집 짓은 사름은예, 우리 집이 삼춘이 좁쏠 가져 왓잖아. 게민 나는 우리가 집 짓엇어예, 게민 삼춘안티 무신거 줘?
#1 옛날은 무시거 줄 거 셔서? 가민 기자 조팝이민 조팝, 궤기국 기자 그거 허고, 생각헌 집인 뒈야지 고기, 그거 두 점썩 놩 그거주. 무시거 줄 게 없어, 옛날. 요샌 뭐 하간.
@2 답례품 막 줍니께, 이젠 상품권도 주고.
#1 상품권이여 하간 거. 그땐 그런 게 엇어. 오꼿 받앙 앗아 불민 그거뿐이주. 아이고 첨 요새 좋은 세상 나난.

소한 · 대한

@2 겨울에는 대한이여. 소한이여 영 헙니께? 막 추울 때.
#1 대한,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이랑 찾아보지 말렌.
@2 무사 춪지 말렌 허는 거라?
#1 바람이 막 제일 춥고, 제일 쎈 게 대한, 소한.
@2 대한이 더 추웁니까. 소한이 더 추웁니까?
#1 대한이.
@2 아, 대한이 더 추워. 응. 섣달그믐, 섣달그믐엔 무신거?

섣달그믐

@1 섣둘그믐날 무시거 헙니까?
#1 섣둘그믐날 무시거 헤? 떡허곡, 멩질헐 거 출림벳기, 엿날 무시거.
@2 메주 들이치고 영 안헤?
@1 장 둠는 거.
#1 장 둠는 건 섣둘그믐날.
@2 응, 섣둘그믐날.
#1 그날은 똑.
@2 똑 그날 헤?
#1 무사닌 허민 섣둘그믐에 헤사 아무 탈이 엇녠. 이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안 돌아온 때문에, 경헨 엿날 할망덜 경 헨. 똑 섣둘그믐날.
@2 딱 바쁜디, 딱 바쁜디 떡 허느라, 뭐 허느라, 딱 바쁜디 장도 헤야 뒈어?
#1 다 헤단 놧다근에 그날사 톡톡 들이치는 거주게.
@2 아, 들이치는 것만.
#1 미리서 다 헤놧주게. 옛날 할망덜 머리도 너무 좋아서.
@1 게난 삼춘도 섣둘그믐날 장 둠안마씨?
#1 응. 옛날이야 섣둘그믐에 다 둠앗주. 이제난 아무 때라도 듬벙듬벙헴주. 옛날엔 똑 섣둘그믐뒈사 장 둠아.

기타(출가 물질)

@1 삼춘도 육지 물질도 뎅겨왓수과?
#1 육지?
@1 물질허레 육지 가봔?
#1 나 강원도 속초로, 안 뎅기는 디 없어. 저 추자도로 저 어디니, 확 곧젠 허난 잊어비엇저.
@1 울산.
#1 울산으로, 결혼헨에 아방 군대 오꼿 가부리난, 군대 간 옴썩에, 게나제나 육지만 팔락팔락 뎅겻주. 애기도, 놈은 다 난디 난 애기덜 엇고 허난 그자 육지.
@1 멧 년이나 뎅깁디가?
#1 훈 오 년. 당포로, 강원도 속초로 안 본 디 없어.
@2 그땐 육지 물질 강 허민, 무시거 헤나수가? 바당 소곱이서 메역?
#1 메역허고, 저 합저.
@2 합저?
#1 합저, 합저허고, 굴, 굴. 저 비지, 한산도 가난에 굴만 헨게, 굴만.

윤달

@2 윤달엔 무신거 헙니까?
#1 윤돌, 윤둘엔 아무 필요 엇덴 온갖 부억에, 옛날은 부억에 요 무시거 하나 터져근에 불르젠 헤도 날 보고 무시거 허단, 윤둘엔 기다리는 거라. 윤둘 뒈민 그땐 아무 숭패가 엇덴, 그땐 아무거나 헤도 어떵 안 헌덴.
@2 또 윤둘에 허는 거 엇수과?
#1 윤둘에 거 뿐이주.
@2 수의도 만들고, 죽을 때 입는 옷.
#1 응. 그런 건 다 허주.
@2 것도 삼춘 멘들아 놔둡디가? 수의도.
#1 응. 다 헨 놧주.
@2 그건 무사 윤달에 허는 거라.
#1 그 윤둘엔 아무 탈도 없녠. 윤둘엔 아주 죽은 둘이라서, 무슨 숭불, 숭패가 엇녠.
@2 수의는 무신걸로 헹 놔둡디가? 무신 천으로?
#1 멩지. 시집갈 때 멩지로 다 우린, 춤 헌다허는 똘로 이제 이녁대로, 장옷이멍, 무시거멍 문딱 헹 이제 저디 딱 궤에 헨, 저디 창고에 딱 데멘 놧주.
@2 시집올 때 입어난 장옷으로 지금도 놔둰? 새로헌 게 아니고?
#1 응. 그때 시집올 땐 ᄒᆞ쏠, 나가 웨똘로 크고, ᄒᆞ쏠 살아낫주, 우리 집안이. 경허난 문딱 헤주난 그자 그거 이제 오고셍이 헨 이제 쌍 놧어, 이만은 헌 하꼬에. 팔월 나민 ᄒᆞᆫ 번씩 쒜와근에 들여 놓고, 약 놓고.
@1 올해도 쒜웁디가? ᄇᆞ름 쒜완?
#1 응. ᄇᆞ름 쒜왓주.
@1 언제? 백중에?
#1 저번에.
@1 그때 사진 찍어야 뒈는디.
#1 그거 홈파 내젠 허민 창고에 놘, 궤 다 이, 아들 오랑 살멍, 이디 놧당 궤멍, 뭐멍, 여기 거 다, 궤도 허민, 옛날 궤덜 다 저디 놔부난, 궤 속에 이제 다 봉헨 놔둿어.

생업

밭일

@1 삼춘 옛날 농사 하영 지엇잖아예? 농사도. 일월부떠 농ᄉᆞ허는 거를 쭉 골아줘 봅서.
#1 일월부떠. 일월둘부떠 농ᄉᆞ하는 게, 일월둘엔 뭐 없어.
@1 없고. 이월에는?

#1 이월에, 이월돌 뒈가민 이제 뭐 헤드리는 거. 겨울에 헷던 거.
@1 무시거 헙니까? 이월에는.
#1 옛날은, 이제닌 하간 당근이여, 무시거여 헴주. 그땐 보리허고, 우리 오조리만은 보리허고, 조, 그거 큰 거, 그것이 큰 걸로.
@2 삼춘, 보리는 언제 갈아마씸?
#1 보리? 구시월에.
@1 보리는 구시월에 갈고.
#1 응, 조는 삼ᄉᆞ월에 불리고.
@1 조는 삼ᄉᆞ월에 불리고, 산디는?
#1 산디도 저 ᄉᆞ월돌에.
@1 사월에 불리고. 그다음에 콩은?
#1 콩은 이제 농ᄉᆞ 다 지내낭, 이제 유월돌 뒈어사.
@1 유월에예, 그다음에 감저?
#1 감저는 ᄉᆞ오월에 놔야주.
@1 사오월에예, 그 보리는 구시월에 갈면 수확은 언제 허는 거?
#1 그거 삼월, 삼월돌 뒈가민.
@1 보리 익어?
#1 보리 익어근에, 일년 데깍 허는 거라.
@1 일년 데깍예. 그다음에 조는 언제 허여들여?
#1 조는 이 봄에 헤근에 가을 들엉, 제일 조가 빨리 나와.
@1 가을이면 구시월에 허는 거?
#1 응. 구시월.
@1 산디는?
#1 산디도 그때.
@1 산디도 그때고, 콩은?
#1 콩도 그때.
@1 감저는 언제 헙니까?
#1 감저는 이제 이때 봄에 놔근에, 감저도 구시월에 헤근에, 뻣데기, 옛날 뻣데기, 그거 허연 풀아나고, 제국 시절에.
@1 ᄆᆞ믈은 언제 갑니까?
#1 ᄆᆞ믈은 막 늦어근에 저 유월돌 뒈사.
@1 유월 뒈고 수확은? 수확은 허여들이는 거.
#1 팔월에.
@1 수확은 팔월에 허고. 게믄 두달이민 딱 끗나는구나예. ᄆᆞ물은예?
#1 ᄆᆞ물이 제일 일찍 뒈는 거. 농ᄉᆞ 중에.
@1 농사 중에. 그 감저 놓젠 허면, 감저 메종 놔얄 거 아니꽈? 건 언제 놔?
#1 그거 모종. 정이월에.

@1 정이월 모종예. 요건 옛날 헤난 거고, 요새 이 동네 농사짓는 거 무시거 이서마씨?
#1 요새 농ᄉᆞ 짓는 사름덜, 게고제고 옛날ᄀᆞ찌 고구마도 놓고, 고구마 놩 요 동넷아인 자꾸 앗아오고 허는디, 고구마 기자 좀 이 우잣 이신 사름은 이제 고구마 놩 먹어.
@1 그다음에 그 미깡밧들도 이십니까? 이 동네도.
#1 아니.
@1 안 허고예.
#1 미깡밧 엇어.
@1 게민 밧디 허는 거, 마농들은 싱거?
#1 마농 조금 싱거서, 영 장ᄉᆞ로 아녀고 그자 가정에 먹을 거.
@1 마농은 언제 싱거마씨?
#1 마농, 이때 싱그주.
@1 이때 팔월에. 팔월에 싱겅 수확은 언제 헙니까?
#1 정이월에.
@1 정이월에 수확허고예, 그다음에 당근 ᄀᆞ뜬 건 안 헙니까? 이 동네.
#1 당근. 주로 당근 갈주.
@1 게민 당근 씨는 언제 싱그는 거?
#1 당근 어느 때. 잊어비엉 뒈크냐? 얼마 엇엉 수확헐 거난, 것도 이삼월에 허는 거 닮다.
@1 예, 요즘은 당근을 하영 싱검구나예?
#1 감저허고 당근은 ᄀᆞ찌 뒈 가고.
@1 양파 같은 것도 헙니까?
#1 양파덜도 장서허는 사람덜.
@1 양파도 허고예.
#1 조금씩 다. 젊은 아이덜은.
@1 삼춘 저기 부식으론 호박 ᄀᆞ튼 건 언제 놔?
#1 호박은 저 이월 음력 이월 영등하르방 이제 나가불자말자 놔야 잘뒌다.
@1 아, 경헤야 잘 온덴. 옛날들은 호박으로 헹 먹는 거 핫어예.
#1 응. 다 호박으로 살앗주.
@1 어떻게?
@2 무신거?
#1 호박 헤영 죽도 쒕 먹고, 엿날 친떡에도 호박 헤근에, 썰엉 채로 헤영 이제 친떡에도 그거, 둘큼둘큼 먹으렌 놓고, 호박이 오죽 크게.
@1 엿도 허고.
#1 엿도, 호박엿 허고
@1 메물도 헤 먹어수과? 식겟날, 탕쉬.

#1 탕쉬?
@2 호박 탕쉬.
#1 호박 탕쉬 허고
@1 건 식게 먹으레 가민 호박 탕쉬부터 막 주지 안헤수과예?
#1 호박허고, 콩ᄂᆞ물 ᄒᆞ쏠 걸치고. 그거.
@1 그렇게 헤근에 주고예. 호박도 약도 허지 안헙니까?
#1 호박엿.
@1 호박엿도 허고, 호박 영 이렇게 누운 거허고, 이렇게 하면은 약 뒈는 호박은 뭐가 약 뒌덴 헙니까?
#1 갈라진 호박, 이제 배꼽이 우터레 영, 호박이 영 갈라지지 안허여게. 둥그렁헌 놈이 첨 엎어지는 것도 잇곡, 영 갈라지는 게 이제 몸에 좋덴. 햇빗 하영 받아서, 아메도 그런 뜻인 셍이라.
@1 경 헹 옛날예.
#1 엿헨 먹고.
@1 아, 영등 지나근에 심으민 좋다고, 호박은.

바다

@1 그다음 삼춘 여기는 바당 동네난, 바당에서 허는 거 일월에는 무시거 ᄌᆞ물아수과?
@2 일월에는 이제 몸.
@1 몸, 몸은 언제부떠 ᄌᆞ무는 거?
#1 그자 이월ᄃᆞᆯ 나민 ᄆᆞ음 헤연 풀아낫주.
@1 이월에, 정이월에
#1 정이월에.
@1 언제까지? 몸은 언제까지 나는 거? 이월에만 허민 끝납니까?
#1 이월 ᄒᆞᆫ 삼월ᄁᆞ지 잘 엇어.
@1 엇어예. 이거는 춤몸인가마씨?
#1 춤몸, 다 피어비어. 꼿 피어. 바다에서도 그 춤ᄆᆞ음이 이제 첨 이월ᄃᆞᆯ엔 이렇게 올라오랑 곱닥헷당, 이게 이월 그물어가민, 삼월ᄃᆞᆯ 뒈가민 이 옆으로 뿌리 나오면서 늙어 비어, 이렇게 아주 풀 나오면서, ᄀᆞ에 오랑 널어도 이제 막 잘 마르도 아녀고.
@1 거난, 이월에예. 이 바당에는 춤몸이 하낫구나예?
#1 우린 몸 췌고로 헷주. 우리 오조리.
@1 아, 겡 몸 잇고, 그다음에?
#1 듬북.
@1 듬북도 헹 풀앗수과?
#1 응. 듬북도 헨 다 풀고 덜.
@1 듬북도 먹어?

#1 아니.
@1 듬북은 걸름으로.
#1 바다에, 첨 저 밧디 걸름.
@1 걸름예. 듬북은 어느 철에 허는 거? 듬북은 어느 철에 ᄌᆞ물아.
#1 이 정이월, 이삼월 뒈 가민.
@1 아, 정이월 삼월예. 그다음에 듬북 잇고 메역은?
#1 메역은 한시 한냥, 그자 언제까지나 바다에서도 아주 꼬리가 다 이제 우이로 썩어도 뿌리만은 딱 부떵 잇어. 돌바쿠에나, 이제 어디 부떠서, 그게 이제 또 그디서.
@1 또 나고.
#1 귀 잇지 아녀, 귀.
@1 예, 미역귀.
#1 거기서 이제 아메도 뭣이 잇는ᄀᆞ라. 꽁당지가 다 썩어서 다 흔들어 비어도 그 뿌리, 머리만은 ᄀᆞ만이 그자 돌바쿠에 부떵 이서.
@1 응, 게믄 주로 어느 허는 건, 계절에 하영 ᄌᆞ물아? 메역은.
#1 메역? 이삼월에.
@1 이삼월에예 이것도. 이 바다에 나는 저기 해초들은 이삼월이 하영 헴저예?
#1 그때가 곳이야.
@1 그다음에 여름에도 뭐 고지기 같은 거.
#1 고지기.
@1 고지기도 걸름 허는 거예. 이건 언제?
#1 건 여름 나서.
@1 여름나근에 이제 허고.
#1 듬북은 춘하추동 그자, 듬북허고 고지기가 따거든. 게난 고지긴 여름 가까워도 홀 수가 잇고, 듬북은 이제 듬북이엔 헌 건 여름 뒈가민 바다에서도 그게 가라앉아 가.
@1 우미는? 삼춘.
#1 우미는 지금, 막 지금 헐 때, 지금 헴서, 우미.
@1 늦게 헴수다예. 우미 늦게 헴서.
#1 저번 쎄어부난에, 헤연 다 춤, 풀앗구나. 요새 저 메역 헴젠 헷구나. 메역.
@2 요새 메역 헴수과?
@1 메역 안헐 거 닮은디?
#1 메역 안헤영 무시거 ᄌᆞ물레 갓젠 헤라마는 오늘 바다에.
@1 요즘 성게도 끝나고.
#1 성귀도 끗나고. 우미, 우미. 우미 헴젠 헷구나. 요새.
@1 우미는 허고. 삼춘 저기 구젱기, 고동.
#1 소라는 금헷단 이제야 잡기 시작허고.
@1 언제 금헙니까?
#1 거 이제 삼개월 금헷당.

@1 육칠팔 금헷구나 이제예.
#1 이제부터 시작헨, 잡기 시작헷주.
@1 그다음 전복은 금허는 거 엇고?
#1 아이고, 전복은 얼마나 힘들어서.
@1 바당에 이제 허는 거, 금허는 건 소라구나.
#1 소라. 소라, 성게.
@1 성게는 언제 ᄌᆞ물아마씸?
#1 성게도 삼ᄉᆞ월에 헤사 고름 안 피엉 아주 까들까들 잇곡, 이제, 그게 알 싸불민 흘탁허게시리 허는 때문에.
@2 지붕, 옛날에 초가 지붕 헐 때는, 초가 지붕 그거 지붕 더끄는 거.
#1 새.
@2 응, 새. 건 언제헤근에 언제 허는 거꽈?
#1 새, 구시월 나민 비어. 동지섣ᄃᆞᆯ엔 이제 줄 놔근에 집 더프고.
@2 아, 건 매년 헙니까? 이년에 ᄒᆞᆫ 번 헙니까?
#1 일년에 ᄒᆞᆫ 번썩 헤사, 우리 오조리만은 바람이 쎄서, 저 ᄒᆞᄊᆞᆯ 우터레 사는 사람덜은, 경 헤도 이년에 ᄒᆞᆫ 번 허는 사람 잘 없엇어.
@2 일년에 ᄒᆞᆫ 번씩예.
#1 일년에 ᄒᆞᆫ 번, 줄 놓는 거, 줄께.
@2 일월달부터 십이월달까지 다 물어봐신디, 우리 못 물어본 거 이신가? 삼춘. 옛날 헤난 거, 물어본덴 물어봐신디 나 이건 안 ᄀᆞᆯ아진 거 닮다. 영 헌 거 이수과?
#1 안 ᄀᆞᆯ아진 게 이서? 다 ᄀᆞᆯ아진 거 닮아. 아니 다 ᄀᆞᆯ아졋어.
@2 옛날 헤난 거영, 이제 헤난 거영 생각허민 막 달라졋잖아예?
#1 아이고, 달라짐만 하늘광 땅이주.
@2 겅 헤도 옛날이 더 좋은, 이건 옛날이 더 좋은 거 닮다 허는 거 이수과?
#1 에에. 옛날에 하도 사삼사건으로, 제국 시절이여 우린 만나부난, 아주 춤 그런, 하얏튼 사삼사건에 살아난 생각허민 기가 찬덴 허난.
@1 그땐 어떵 살안마씨?
#1 그때 기자 사사삼사건에 부뜬, 이젠 아주 왕으로 헤가민 밉나. 나 저 테레비에 나오라 가민, 오조리도 멧 사름이 왕노릇 헨에, 멧 사람 다 죽여먹고 헷는데, 그 사람을 이제, 막 이걸 허곤테, 아이고, 젊어져시민 저디 강 ᄒᆞᆫ 번, 그런 놈을 이제 사삼 사건에 췌고로 ᄉᆞᄆᆞᆺ 들구헨, 놉다뎅기던 사람을 이젠, 아주 그 사름은 이거라, 이거. 오조리도 ᄒᆞᆫ 가족이 헤서 멧 사름 다 죽여먹고 헤도.
@1 곱으레 뎅겨낫수과? 삼춘도?
#1 아니. 우린 오빠들이 그때 군대에 이서부난 그런 사건에 하나 걸리지 아녀난 꼼찍 아년. 큰오빠 대위로 잇곡, 셋오빠 중위로 잇곡 헤부난에 군인 가족으로 그런 데 ᄒᆞᆫ 번 가담도 안 뒈고.

2. 성산읍 오조리(2)

- 조사 일시: 2022년 10월 14일
- 조사 장소: 오조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 제보자: #1 현춘홍

조사 마을

@1 아까 오조리에 대헤근에 제주돗말로 골아줍서예. 오조리 옛날 이름은 무시거꽈?

#1 오조리는 오소포라고 헤서 불럿다고 그렇게 말들을 허는데 나 오 자에 부를 소 자 그래서 마을 리 자 헤서 오소포, 포구가 잇어서 포구라고 그렇게 불러졋던 모양인데 그후에 오조리옌 기냥 허는데, 오조리라고 허는 뜻이 나를 비춰준다. 일출봉 저쪽, 동쪽에서 해가 뜨면 일출봉에서 가려지고 저 북쪽으로 서쪽으로 뻗은 그 언덕이 잇어부니까. 그 언덕에서 해 뜨는 게 가려졍 우리 오조리가 맨처음 비추는 거라, 햇빗이. 그래서 나를 비춰주는 마을이다.

@1 게믄 오조리는 지금 멧 개 마을로 이뤄졋수과? 자연마을은.

#1 여긴 동네가 벵문동네, 병문동네.

@1 예. 이 동네 이를 때는 벵문동네렌 헤예.

#1 벵문동네는 저쪽 우에 저 제주시에서 들어오는 저쪽 벵문동산이라고 허는 데가 잇는데 거기를 벵문동네, 그다음 새가름.

@1 새가름.

#1 새가름은 왜 새가름이라고 헷느냐 허면은 오소포가 저쪽 우도를 향해서 지금 포구가 만들어, 항구가 만들어진 성산항이 만들어진 그쪽에 마을이 잇엇는디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자꾸 침략해 와서, 절도도 허고, 횡패를 놓니까 마을을 옮긴 것이 새가름 동네.

@1 새가름동네.

#1 그다음 족지동네.

@1 족지동네.

#1 족지옌 헌 건 족지물이라고 이서. 용천수 좀 아주 양이 큰 용천수가 솟아나는 물통이 잇는데, 용천수 이름이 족지, 족지물, 그러니까 족짓동네.

@1 족지동네 예.

#1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본동네. 마을회관 잇는 디는 그다음은 짐수막동네, 짐수막.

@1 짐수막.

#1 짐수막은 웨 짐수막이냐면, 그 삼별초 난리 때에, 삼별초 난리 때에 제주에 난리를 평정할려고 최영 장군이 이끄는 그 진압 군대들이 왓엇는데 거기에 김수, 김수라

고 하는 장군이 잇엇다고 헤. 김수 장군이 머물럿던 막사를 치고 머물럿다고 헤서 김수막 동네, 우리는 김하면 짐으로 얘기허거든 그니까 짐수막, 알고 보니까 김수, 김수 장군의 막사를 뒀던 곳이다. 그래서 짐수막. 그다음은 저쪽 남쪽은 앞동네. 우리 이 북쪽을 뒤로 보고, 남쪽을 앞으로 보거든. 그니까 동네 저쪽, 그다음에 이쪽 조그만 개맛 잇는 곳은 엉물동네, 엉물. 억이 아니고, 이응 받침 엉물, 언덕베기가 잇어서 물 나오니까 엉물이라고 아마 헤서 그 동네가 엉물동네, 그다음 이제 공펄동네.
@1 공펄동네.
#1 공펄동네는 뻘이 많이 잇어서 저 자우락이엔 헌 풀 들어봣지예?
@1 예, 예. 자우락 들어봣수다.
#1 자우락이 많이 나고, 그런 갈대, 즌즌헌 갈대가 많이 나고 뻘밧이 많이 잇으니까. 우리는 뻘을 펄이라고 허거든이.
@1 예, 예, 펄.
#1 거난 공펄동네.
@1 공펄동네 예, 또 이수과?
#1 그렇게 동네가 그렇게
@1 아이고 거난 오조리가 크지는 안헌디 동네는 ᄋᆞ라 개우다예. 벵문동네, 새가름, 족짓동네, 본동네, 짐수막동네, 앞동네, 엉물동네. 공펄동네. 뒷동네라는 말은 안 써마씨?
#1 엇어.
@1 아, 앞동네만 남쪽에예?
#1 거난 새가름이 뒷동네 뒈긴 뒈는 건데 새로 들어와서 정착헤부니까 새가름.
@1 게믄 이 오조리에도 오름이 싯수과?
#1 오름이 식산봉이라고.
@1 식산봉을 이 동네선 뭐렌 불러마씨?
#1 바오름, 바오름. 밥오름이라는 얘기라. 밥오름. 식자가 밥 식 자. 밥 식 자에, 메 산 자에, 봉우리 봉 잔데 그 말의 유래는 밥공기 이렇게 담아놩 허민 밥사발이 모록허게 이렇게 올라가지 안헙니까 요렇게.
@1 예, 예.
#1 게난 그 뜻인데 저 산이 사방팔방으로 봐도 꼭 밥그릇 이렇게 담아논, 그릇에 담아논 거 가찌 봉오리가 영 조짝 올라가니까 식산봉이라고 헷는데, 그 식산이라고 헌 유래가 또 잇어요. 잇는 것이 그 왜구들이 자꾸 침입헤 온다고 아까 나 말을 헷는데 여기 저 진이 하나 감시소가 성산고등학교 잇는 그 해안가에 감시소가 하나 잇어서, 진이 하나 잇는데, 그래서 그 동네가 형성뒷다가 동네는 옮겨와 버리고 헷는데 그 왜구 저 왜구 야네들이 계속 침입헤 오니까 여기 주둔헷던 군인덜이 여기 ᄂᆞ람지를 쌋어. 이제는 막 나무가 칠팔십 년 막 백 년 뒌 소나무 여러 가지 이제 그 잡목들이 막 우거져 가지고 산이 막 수풀화 뒷는데 그 옛날엔 민둥산이엇던 모냥이라. 거기 농사도 짓곡 뭐 허난에 저 오름 땅이 지질이 막 좋아, 걸어서. 게민 농사도 짓곡 거기 웨

도 놓곡 막 헤난 모냥인데 그 옛어른덜이 왜구에게 어떤 억압을 주기 위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ᄂᆞ람지를 이쪽 정의면 사람들 각 마을에 정의면 사람들안티 ᄂᆞ람지를 공출을 받아가지고 ᄂᆞ람지 알지?
@1 예, 예.
#1 비가림 허는 그. 그 ᄂᆞ람지를 산 전체에, 전체에 둘러가지고 군량미를 쌓아논 거 같이 그렇게 위장전술을 써 낫덴 허여. 그래서 그 오름 이름을 바오름이라고 헷다고 그렇게.
@1 게니까 밥오름이라고 않고 그냥 바오름이라고 곧는구나예.
#1 밥오름 허기 뭐허니까 바오름, 바오름 발음하당 보니까, 바오름, 바오름.
@1 게난 식산봉을 이 동네 사람들은 요즘도 바오름이렌 골아마씨?
#1 응, 바오름.
@1 바오름 잇고, 또 다른 오름도 이서마씨?
#1 다른 오름은 엇고.
@1 혹시 아까 물 같은 경우는 족짓물 잇고, 물은 어떤 거 이수과?
#1 엉물은 양어장 만들면서 없어져 버리고, 엉물이엔 헌 건 없어져 버리고, 족지물, 앞송물, 앞이엔 헌 앞하고 뭐 소나무 송 자 썻는지 뭔지 한자를 몰라 앞송물, 앞동네에 물 나는, 지하, 용천수 나는 조그만 용천수가 잇엇어. 그걸 그렇게 애기하고 또 저 해안가에 가민 여러 개가 잇는데 수리덕물.
@1 수리덕물.
#1 수리덕, 수리덕물. 그다음에 납데기, 납데기.
@1 납데기.
#1 납작헌 빌레에 그 바위가 깔려 잇어서 납데기라고 허는 이름이 지어졋는데, 그 납데기에 또 용천수가 나오고, 그 외에 자잘헌 거, 저 얼피라고 잇엇는디 얼피는 지금 천주교회가 자리잡안 그 헤가지고 이제 헷는데 거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용천수가 아주 많이 솟앗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져 불엇지.
@1 매립헨마씨?
#1 어떻게 헤서 저 우에서 뽑아 올려 버리니까 안 나오는 건지 완전히 수맥이 막혀 버련, 이제 안 나와.
@1 원래 이 오조리는 물이 부족헌 동네는 아니라낫수과?
#1 아니.
@1 물은 하구나예.
#1 응.
@1 지금도 그 이런 나는 물 말고, 그냥 물통 쉐 멕이는 물통들도 잇어낫수과?
#1 이 가운데 마을 형성뒌 게 이 논물, 논물, 논물 허는데 여기 국유지로 뒌 이 못이 한 천오륙 평짜리 못이 잇어요.
@1 아, 지금도 이서마씨?
#1 예. 지금 가면 연도 잇고, 뭐 깔때도 잇고, 사진 이땅 찍으면.

@1 예, 이땅 찍겠습니다. 논물.
#1 저건 상당히 그 가치 잇게 오조리를 잇게 한 물이라. 소 물도 멕일 뿐만 아니라, 빨래도 허고 질어당 거기서 ᄉᆞᆼ키도, 옆에 통 만들어 놩 ᄉᆞᆼ키도 씻곡 허는 아주 필요헌, 또 우리 어린 때는.
@1 목욕도 하고.
#1 여기서 헤엄을 쳐서 먼저 수영을 베우는 거라. 게민 딴 동넷아이들은, 엉물동네 아이들은 이제, 엉물이 바다가 가까우니까 헤엄 치는 헤엄을 베우는 애들이, 어린 때 배우는 애들이 잇는디 논동넷 아이가 제일 헤엄을 빨리 베왕 잘 쳐. 그게 이 논물 덕으로 그렇게 빨리 물에 익숙헤젼.
@1 삼춘, 아까 논동네옌 ᄀᆞᆯ앗어예. 논동네는 아까 이름 헤주면은 어느 동네에 해당헐 거꽈?
#1 짐수막동네.
@1 아, 짐수막동네. 거기를 이제 논이 이시난.
#1 논이 이시난 논동네라고.
@1 논동네옌도 불럿구나예. 논물 잇고, 또 다른 물도 이서마씨? 옛날 보면 식산봉 앞에 보면 거기도 막 물, 거긴 바닷물이우꽈?
#1 그딘 양어장 만들어 부난, 그전엔 뭐 거기를 저 여러 가지 물로 장시, 장시머들, 장시머들허고, 또 상울, 상울이엔 헌 건, 쌍울, 쌍울 헤서 거기 달이 두 개가 보인다고 헤서 쌍월인디 그 동산이 가려져 가지고 일출봉 쪽에서 이제 동녁에서 달이 저녁에 잔잔한 초저녁에 달이 떠오면은 그 바깥에도 달이 뜨고, 이 안네도 물이 이제, 잔잔한 물이 잇으니까 달이 두 개가 보이는 거라. 그 동산에 서면은.
@1 물에 비친 거영 하늘에.
#1 일출봉 사이에 있는 그 넴 안에 달이 하나 뜨고, 또 동산 넘어 오조리 쪽 양어장 잇는 물 이쪽에 달이 보이는 거라. 게니까 달이 두 개 보인다고 헤서 쌍월동산. 게서 그거를 상울동산, 상울동산 허는데 한자로는 쌍월동산.
@1 예. 게니까 이 동네서는 상울동산, 상울동산 헴구나예.
#1 응. 상울동산, 상울동산 그렇게 불러.
@1 요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당들도 이신가마씨? 옛날.
#1 당 잇엇는디, 일뤳당이라고 헤서 아까 족짓물 나 얘기헷잖아이. 족짓물 옆에 일뤳당이라고 헤서 일뤠할망당. 어린애가 탄생허민 거기 가서 계속 소원을 저 보름날, 아니민 초ᄒᆞ룻날에 ᄒᆞᆫ 달에 ᄒᆞᆫ 번은 가서 애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서. 할아버지들은 안 갓지마는 애기엄마나 할머니들이 가서 웨할머니나 가서 정성을 꼭 드렷주게. 겐디 그게 그 땅이 팔려 버리니까 그 잇던 자리가, 어디 개인 소유에 해당된다고 헤서 팔려 버리니까 제주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정리허젠 암반 같은 거 막 부숴가니까 동네사람들이.
@1 걸랑 건들지 말렌.
#1 여기는 일뤠당이 잇는 자리니까 당신 큰일난다, 함부로 부수면 안 된다, 이건 유

서가 한 사오백 년 이 마을이 한 오백 년 가까이 뒌 마을에 계속 일뤠당 할망으로 모셧던 걸 그렇게 허면 안 뒌다 허니까 딴 자리로 옮겨주켄. 경 헨 이제 해안 쪽으로 내려간 조그맣게 한 삼 평, 한 서너 평 정도 헤가지고 자리를 옮겨줫어. 일뤠당할망이 잇고, 그다음에 이제 진권이물, 진권이물이라고 헤서.
@1 진권이물.
#1 진권이, 긴긴헌 진 자, 권이라는 건 뭔지, 뜻이 모르는데, 진권이물 그 옴푹헌 저 궤, 궤엔 허민 알잖아?
@1 예, 예.
#1 산중에 가면은 암반으로 이렇게 헤서 엉덕 만들어진, 그 궤가 잇는데 거기는 진권이물당이라고 헤서, 거는 뱀을, 뱀에게 어떤 동티를 당헤가지고 뱀에 놀랏거나, 뱀을 죽여 가지고 무슨 탈을 봣거나 영허면은 거기 강 굿을 허여.
@1 아, 진권이물.
#1 유일하게 오조리에 이서. 토산당, 토산당 허지 안헤.
@1 예.
#1 토산도 아마 그런 디가 잇는 모양인데 유일허게 오조리도 진권이물 그 당이 뱀을 위한 당이라.
@1 게믄 여기에도 옛닐 뒤에 밧칠성들도 모셔나신가마씨? ᄂᆞ람지 헤영.
#1 집에 ᄂᆞ람지 헤영 칠성 저, 칠성눌, 거 이서낫어.
@1 이실 거 닮아예, 거기.
#1 지금은 보존헌 집이 엇일 거라. 우리 집에도 잇엇는데 이제 아까 얘기헷지만 두 번째 형님이 억울허게 군인덜안티 총살 당허고 사삼사건 때 그렇게 허니까. 어머니가 여기 잠수 회장도 허고, 잠수가 아주 상군으로 아주 굉장히 일제 때부터 막 날렷어요. 키가 육척 장신이라.
@1 어머니가예?
#1 응. 엄청나게 어머니 발에 신는 신발 잇잖여. 고무신, 코신, 그게 맞는 게 없어가지고 부산이나 어디 목포나 가는 사람안티 특별 주문허영 남자 반화, 반화라 헹 그거 한 이백팔십 미리나 뭐 거의 삼백 미리 가까운 신을 신엇던 모양이라,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는 송 장군 딸인데, 송 장군이라고 헤서 우리 웨할아버지가 제주도 삼읍 중에 씨름왕을 멧 번을 헷던 모냥이라. 송예집이라고 아마 어디 기록에 나왓을 거라. 기록에 틀림엇이 기록에, 최근 기록에 나와실 거라, 송예집. 헤서 그 웨할아버지가 힘이 엄청나게 쎄어 가지고 그렇게 힘대가 상당히 좋앗는데, 그 일화를 한 번 나가 이야기 허카?
@1 일단은 거는 이따가.
#1 나중에이 송예집에 대해서.
#1 경헨 이제 그 칠성눌 없애 불엇어. 집에 나쁜 일이, 이 이상 더 나쁜 일이 잇겟느냐. 그래서 종달리에 타불교, 타불교라고 헤서.
@1 옛날 참물교인가마씨.

#1 그런 불교 계통에 첨 교회가 잇엇는데 그런 교회에 어머니가 다니면서 거기 스님을 모셔단에 그걸 없애 버리더라.
@1 그러면 당이 아까 일뤗당 잇고, 진권물당 잇고, 여기 본향은 엇어마씨?
#1 본향당은 수산에 잇는 걸 오조리선 이용헴주. 수산에 본향당 잇는 거 알죠?
@1 예, 예.
#1 정월 초이틀날.
@1 지난번에 마불림제헐 때 갓다왓거든예. 그때 오조리 삼춘들이 왓구나게.
#1 여러 사람 이제 잘 안 뎅겨.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땐 거기도 열심히 헷다고, 잠수 회장을 허니까 동네, 게민 저 정월 명절에는 이 어머님이 제수를 마련허는디 돼지고기는 딴 사람안티 멧겨. 만지지 안허여. 경헤영 딸이나 동네 친족안테 적고지 멧개 헤근에 꿰어다 줍센 헤동 어머닌 돼지고기 일제 안 맡기고, 갱국도 돼지는 안 쓰고 경 허더라고.
@1 예, 당에 가야 뒈니까.
#1 어머니는 ᄆᆞ믈돌레떡허고, 만두떡이나 ᄆᆞ믈정기나 헤근에 가졍강, 그 제숙 그렇게 헷주.

포제

@1 여기는 포제도 지내마씨?
#1 응.
@1 포제단도 게민 이시키여예?
#1 포제단 이서. 포제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육이오 전쟁 일어나서 군인 많이 간 때까지 별제라고 잇엇어요. 일제 때부터. 포제는 본 마을 전체를 위헤서 허는 거고, 별제는 포제 지낸 다음에 또 날짜 봐가지고 따른 장소에서 허는디 주로 바오름, 저 식산봉에 강 헤연. 건 외지에 일본이나 어디 이제 군인으로 끌려 갓거나, 징용 당헤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석탄 파레도 북해도니 막.
@1 갓잖아예.
#1 갓잖여이. 게난 이런 분들을 위헤서 출정한 군인이나, 일제 때, 또 석탄 파레 간 그 광부들로 끌려 간 사람들이나, 또 웨지에 나가서 돈벌이하러 웨지에 나가 가지고 사는 국내든 국외든 이런 사람들을 위헤근에, 별도로 그 가족들만 거기 관련된 가족들만 저 추렴을 헤 가지고 돈을 내놔. 경 헤영 그 별도로 그 제살 지내낫어.
@1 걸 별제렌 헨예.
#1 응, 단이, 저 제단이 잇다고 저 식산봉에 중턱에 올라가민.
@1 그러면 포제단이 따로 잇고, 별제단이 잇다예?
#1 응.
@1 이제도 이시카마씨?
#1 이제도 이서. 식산봉 정리허멍 그 시청에서 지원받안에 담 이렇게 싸놘에 만들어져 이수다.

@1 게민 포제는 언제 헤마씨?
#1 정월달 들멍이 첫해일.
@1 아, 첫해일.
#1 돼지날. 돼지날은 파제로 두고, 그 앞서 삼일 저 한 오일, 오일 정도 입제허지, 입제 헤근에 해일에 파제를 허여. 뒈지날.
@1 별제는?
#1 별제는 잘 모르겟는데, 어느 날 택허는지 건 나가 잘 모르크라.
@1 것도 정월에 헤마씨?
#1 어. 정월에 헤여. 그 포제 지내난 다음에 날짜 봥. 게믄 뭐 영등둘도 가곡
@1 예, 날 받앙 허난예.
#1 삼월도 가곡, 사정, 돈 수렴헤야 허니까 그렇게 쉽게 뒈는 게 아니.

문화재

@1 우리 이 오조리에 문화재도 이수과?
#1 문화재는 엇어.
@1 문화재로 지정된 건 엇구나예.
#1 일제 때까지는 또 해방된 이후에도 그 사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오조리 청년들이 상당히 활발헤 가지고 그런 걸 헷거든.
@1 아까 연극.
#1 아까 나 이얘기헌 연극, 소인극 허는 거 식으로 우리도 이거 오조리 선배덜 허는 거 뽄 받앙 우리 중학교 때 걸 시행헤 본 건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연극을 헤서 멋드러지게 헤여. 일제 때도 그 제어를 안 허더라고, 그건 뭐 주로 일제 때 헌 걸 이렇게 보민 군인 지원헹 가는디 그 첨 사랑하는 애인이나, 약혼자나,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멍 아방 놔둬 가는디 막 슬피 울고, 보낼 때 일본말로 센닌바리.
@1 센닌바리.
#1 센닌바리옌 헌 말 들어봣어?
@1 예. 선생님.
#1 천 명이 바늘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그 기원헤 주는 거, 건강이나 이제 무사 안녕을 기원헤 주는 그런 건, 바리옌 헌 건, 침 자거든, 침. 일본말로 하리.
@1 바늘.
#1 바늘. 하리. 이것이 니혼 저 센닌바리, 천 인, 천 사람이 바느질을 헌 거다 헤서 센닌바리라고 헤서, 이거 우리 육이오 난 이후에 출정허는 군인들에게도 이거 헷엇다고, 징집 당헤가지고 가는 군인안테도 이거 만들엉, 막 그 집에 메누리가 잇거나 부인 잇거나, 어멍이 좀 또리또리허면은 동네 메칠 돌아근에 그거 헹 몸에 끌영 가렌 헤근에 태극기 주위에 돌아가멍 그거 헤근에 이디 끼왕 보내곡 헷어.
@1 센닌바리를, 그건 일본 문환데.
#1 일본 문환데 그건 무사 안녕을 기원허는 거니까,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

이나 꼭같은 심정으로 아마, 걸 본을 받안 헷던 모냥.
@1 손수건 같은 데 헤갖고 다 바느질헌 거라예.
#1 거난 천 명이 이거 바늘 거 헤근에 매듭 지으멍 마음속으로 얼마나 빌어줄 거라게. 뭐 천 명이 됏는지 오백 명이 됏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저 풍습은 잇엇어. 요샌 뭐 강 빠이빠이 허민 그걸로 끗이주만.

정월

정월 멩질

@1 이제부떠는 세시풍속, 삼춘 정월에, 정월에 이제 정월 멩질 헤야잖아예. 정월 멩질허젠 허민 준비허는 게 어떤 건고예?
#1 건 기냥, 제사 특별히 제사허듯이 정월 첫 번째 제를 모시는 거니까 오만 정성을 다허지. 여러 가지 제주돈 열악헤부니까 옛날 우리 어린 때나 최근 보다는 이 과일도 유지, 유지.
@1 유지.
#1 유잔데 이제 등, 뭐 하귤을 등이라고 허거든. 일본말론 나쓰미깡, 나쓰미깡에 나쓰는 여름을 말하는 거거든. 봄은 하루고 여름은 나쓰고 가을은 아끼고 겨울은 후유고. 게니까 나쓰미깡이엔 헌 건 여름에 먹는 과일이라고 헤서 나쓰미깡. 미깡은 밀감을 일본말로 미깡. 게난 이제 그거를 구헤주면 이건 아주 첨 멋드러진 제사가 뒈어. 그것도 없어. 올리지 못헤여.
@1 댕유지는 엇어낫수과?
#1 댕유지 잇지. 댕유지보다는 이 나쓰미깡을 좋아허거든. 댕유지는 약재로 쓰는 건디 댕유지나 그거, 그때는 이 온주밀감 무신 뭐 요즘 말허는 무신 팔삭 뭐허멍 그런 거 엇인 때난에 아예 생각.
@1 등.
#1 등이 나스미깡이라.
@1 예. 이 오조리에서는 옛날에 등낭들이 하난 모양이어예.
#1 동네 한 스무 개 미만, 아마 세면은 스무 개 미만, 그거 잇인 집이 아이덜은 으시댓주 막. 그거 겨울에 나근에 땅 하나 허젠 허민 흔 갑씩 얻어먹젠 허민, 가이안티 발발 돌롸부떠야 뒈낫주.
@1 게난 등이렌 헌 말이예, 이 동쪽에서만 쓰나봐.
#1 댕유지?
@1 등, 등.
#1 근데 웨 등이라고 헷는지 그건 어원은 모르크라이.
@1 저도 수산 강 처음 들어신디예. 등이렌 헙디다게. 아직 그건 어디 사전에도 올라잇지 안허고예. 제가 사전에 올리젠마씨, 등. 어렷을 때도 등이렌.
#1 어린 때 등이라고 헷주게. 나쓰미깡이엔은 일본말로 나쓰미깡이니까 나쓰미깡, 나

쓰미깡, 익숙하게 헷주만 등이엔 굴앗주 흔히.
@1 등예. 그렇게 정월 멩질하면 과일도 준비헤야 하고.
#1 게난 사과도 어려웠어, 사과도 어렵고 첨 배는 배나문 좀.
@1 돌배.
#1 그 개량됀기 전에 배주마는 배나문 여러 집이 잇어가지고 제사 때는 이제 거 두서너 개씩 얻어다근에 밴 올리고, 등은 수산에 사돈을 허거나, 친구가 잇거나 허민, 어떵 허당 두세 개 거 헤당 등 올리고 게민 등이 향이 좋지 아녀이. 향이 좋아가지고 꼭지 쪽에 이렇게 짤르주게. 짤라근에 허는디 그 향이 참 좋아. 제사상 벌려놩 등 그 우에 영헹 껍데기 우에쪽 딱헤근에 세 개민 세 개, 다섯 개민 다섯 개 걸 잘랑 먹게 시리 그렇게 준비를 헹 올리민 그 향이 제사상 모셔논 젯방에 딱허게 향이 흐르면 굉장히 기분 좋아. 생인도 그러지만은 이제 망인, 그 영혼이야 오죽 기분이 좋을 거라게.

멩질옷

@1 옛날 정월 멩질 허면, 남자 옷들도 준비허젠 허면 여자들도 고생헷어예.
#1 아이고, 그거 명주 헹 가을 됀민 그거 이젠 빨앙 풀헤여근에 막 이제 겨울에 긴 밤에 이제 다듬앙, 다듬녠 헌 건 저 옷 굴라 뭐렌 허느니.
@1 다듬이.
#1 아래, 다듬이팡 그, 두꺼운.
@1 안반, 안반.
#1 응. 그거 꿀앙 이제 다듬이마께 영 헌거 잇지 아녀이. 그거 양쪽 심엉 그 다듬이마께, 가령 혼자만 허는 거민 따닥따닥따닥 허주만은, 며느리나 똘이나 누게, 친구나 같이 앉앙, 양쪽에 앉앙 그 다듬이 방멩이소리 이게 정말 눈물을 자아낸다고, 것도 조끔 멀리서 달이나 뜨고 이런 밤에는 그 다듬이 소리가 처량하게도 들리고, 어떻게 하면은 울컥하는 기운도 올리는 그런게 됀고, 이게 다듬이가 기냥 독닥독닥독닥 가는 게 아니라 재주를 잘 부리는 어른덜은 다다닥닥닥, 다다닥닥닥 완전 북장구 치듯이 이걸 장단 맞춰가지고 양쪽에서 앉아서 이거 허면은 이 소리가 기가 막혀. 지금 그런 소릴 못 듣지 아녀. 이젠 다 세탁소에 강 다려와불고.
@1 게난 팔월 멩질하고, 정월 멩질은 꼭 그걸.
#1 팔월 멩질에는 그 명주옷을 안 입고, 저 명주옷도 좀 입지만은.
@1 삼베.
#1 삼베나 양달양, 좀 어려운 사람은 광목 같은 거 막 이제 빨아가지고, 잘헤근에 좀 엉성한 기지로 삼벤 좀 비싸주게. 모시 같은 거는 비싸놓니까 광목이나, 양달양, 그렇게 헤근에 그런 걸로 허민 그때도 그, 요즘은 뭐 전기 아이롱 가졍 다리미질 헹 좍좍 허주만은, 아이고, 그거 헹 발로 불라간다, 불라온다 허멍 춤 요란을 허게 명절을 맞이헷주.
@1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1 요샌 안 헤여. 양복 그냥 입어비어.

고팡제

@1 여기도 혹시 국멩질이렌 헤영 떡국멩질 헙니까? 차례상 전에, 새벽에, ᄆᆞ멀국수 헤근에.

#1 그걸 뭐옌 허느냐믄 문제엔 허주게, 문제. 문제옌 헤근에 본제 허기 전에 올레를 향헤서 문전에 메 한 그릇 올려놓고, 각종 조금씩 조금씩 만든 제수 다 헤놔근엥 절 헤영 잔 한 잔 올령 그걸로 퉤주헤비어. 경 허고 안 고팡에 허는 사람들 잇지 안허여.

@1 고팡에 허는 건 여기선 뭐렌 헤. 안네?

#1 고팡허는 거를, 거 뭐옌 허드라만은. 또 정지에 허는 사람도 이서.

@1 조왕도 허고. 예, 정지.

#1 조왕제라고.

@1 조왕제. 게난 고팡은.

#1 고팡은 그냥 고팡제.

@1 고팡제예. 고팡제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왕제허고, 조왕에도 올리고예. 게난 문제 헷던 걸로 조왕제 허는 게 아니라.

#1 아니, 아니, ᄯᅳ로ᄯᅳ로.

@1 그냥 다 따로따로예. 그거 출리기는 어디에 출려놔마씨.

#1 그냥. 고팡엔 고팡 문 읋앙 그 한쪽에 구석에 헤놧당 그건 주부가 기냥 기자 내주 헤근에 치와 불고, 절허거나 그런 거 안허고, 조왕제도 기냥 어디 살레 아래 같은 디 영 찻판이나 그런 것에 놩 헷당 나중에 그 주부가 그거 기자 영 좀.

문전제

@1 문제허는 거는.

#1 문제허는 건 진짜 옷 입은 상주, 주상이 절헤.

@1 주상이 하는 거고예. 그러면 그거는 차례상 차린 옆에 이렇게 찰령 놔뒀당 헙니까?

#1 예. 따로.

@1 예. 문 앞에 옮겨가 갖고예. 문앞에 강 허는 거고예. 옛날 멩질허젠 허면 설상헤야 뒐 거 아니라예. 상 싱글 때 뭐뭐 올려마씨? 정월 멩질에는.

#1 어떻든 정월 멩절이엔 헹 따로 뭐 허곡 안 허는디 정월은 첫 맞이하는 그 조상을 위하는 제사라 부니까 특별히 음식덜을 이것저것 허주만은 문친떡이라고 허는 게 잇지 아녀이.

@1 예, 예. 문친떡.

#1 친떡, 그 위에 솔변 절변까지 헤여. 달떡하고 저 해떡하고, 동그란 거하고, 반달떡하고, 그건 절변 솔변, 소름하게 만든 거니까 솔변, 동그랑허게 만든 건 절변헤서, 그

게 뭐냐면 친떡은 땅이야. 땅을 의미하고, 그다음 이제 별떡이 따로 이서이. 별떡이 따로 이서. 꼭 일곱 개 만들엉, 지름떡 만들엉 그 올려.
@1 예, 웃기, 우지시.
#1 접시에 우에 올리는, 거난 해와 달과 별, 천지를 의미허는 거지. 그 떡에서.
@1 거난 문친떡은 땅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반달은.
#1 반달은 달. 동그란 건 해.
@1 달을 얘기허는 거, 절변은 해.
#1 그다음에 이제 별떡이라고 헤서 별떡은 토실토실허게 만든 거 잇지 안허여게.
@1 지름떡, 거는 일곱 개 올려예. 북두칠성.
#1 응. 칠성.
@1 북두칠성 말허는 거구나게.
#1 게난, ᄎᆞ롈 우리 메느리덜 왕 영 음식을 만들민 지름떡은 멧 개 헐 거 알암시냐 허거든. 흔 댓 개 허민 뒐 거 아니꽈 허민, 거 무신 소리 헴시니, 일곱 개여. 게민 우리 어린 때는 저 지름떡을 ᄃᆞ퇑. 형제들끼리. 저걸 기름에 튀긴 건 얼마나 맛잇어. 고소하고, 저걸 먹젠 막 서로 눈 밝혀.
@1 이제도 맛좋읍다게. 게민 지름떡은 뭘로 헤마씨? 춥쏠로 헙니까 아니면?
#1 그냥 쌀가루나 ᄆᆞ믈가루로나, 밀가루로나 헤. 건 꼭 가루 선택허지 안허여. 원래는 쌀가루를 허는 건데, ᄆᆞ믈가루나 쌀가루.
@1 문친떡은 뭘 걸로 멘들어마씨?
#1 문친떡은 쌀로, 쌀가루로 허고.
@1 쌀가루로 헤갖고 거기에 뭐 호박이나 이런 것도 놔근에.
#1 호박도 썰어놩 허는 사람도 잇는디 원래는 우리 어머니네는 아무것도 놓지 말앙 그자 픗 쉬 삶은 것만 우터레 영 깔앙 그냥.
@1 아, 경헤여근에 문친떡예. 문친떡 멧 개 올려마씨?
#1 한 다섯 개 정도.
@1 하영 올렷네.
#1 똑 짝 맞춰 아녕. 짝걸르게.
@1 짝그르게.
#1 건 적도 여섯 고지나 여덟 고지나 안 올령, 다섯 개냐, 일곱 개냐, 아홉 개냐, 세 개냐 딱 짝걸르게, 참 이상허더라고, 그 이윤 잘 모르겟는데 어른덜 그렇게 헤오니까 지금 우리도 기냥 나도 경허고 아이덜안티도 짝걸르게, 과일도 네 개 허민 하나 더헹 다섯 개 아니민 세 개, 과일도.
@1 과일은 몃 종 올려마씨?
#1 과일은 흔히 이제 허는 건 사과하고 배하고, 밀감하고, 밀감은 뭐 사시사철 나니까 그다음 이제 포도 시민 포도허고, 이런 정도.
@1 그런 식으로 이제.
#1 밤 같은 거는.

@1 건 육지나 허주.
#1 또 쓰는 사람 잇는데 나는 그런 건 잘 안 헤지는디.
@1 적 같은 건 어떤 걸로 헙니까? 이 오조리는.
#1 적은이 쉐고기적은 우선이고이, 그다음 돼지고기적, 그다음에 이젠 여긴 해안이난에 저 고동, 소라적, 소라적, 꼭 소라적 헤여. 게 아니민 전복은 양식 전복이지만 그 전에 자연산 헐 때는 자연산은 비싸고 허니까 또 그거 커 놓니까 적허기가, 잘르면서 허기가 보기 싫으니까. 오분자기가 하영 나낫주게. 오분자기가 굉장히 많이 나낫어. 이젠 오분자기 없어져 불엇는데 오분자기적을 이제 저 해산물 적을 그 조개류니까 그걸 뚜로뚜로 안 허영. 소라에 오분자기에나, 소라에 전복살이나 겡 곁들이멍.
@1 아, 그치 꿰엉예.
#1 경 헤근에 허곡 생선 굽곡, 경 허민 다섯 가지가 뒈지 안허여.
@1 생선은 무신 생선 써?
#1 생선은 주로 옥돔이나, 참돔, 근데 참돔이 요샌 귀헤여. 상당히 비싸니까. 옥돔도 상당히 비싸졋드라고, 조기, 게난 옥돔하고 조기, 흔히 그렇게.
@1 이 동네선 옥돔을 뭐렌 불러마씨?
#1 오토미.
@1 것도 동네마다 달라예.
#1 오토미 옥돔이엔 말인데 오토미.
@1 맞수다. 오토미. 상어적 같은 거는.
#1 도미는 돔.
@1 예, 돔. 상어 이런 것들은 안 허는구나예?
#1 상어 적을 참 많이 헷엇는데 여기는 죽상어가 많이 잡히는 동네엿어. 죽상어. 엄청나게 나낫주게 죽상어가. 겐디 이젠 항구 저, 성산 항구 만들어 가지고, 여기 만더레 들어오지 못허게 헤부니까 죽상어를, 큰 그물로 바다에서 잡암신디 몰라도 죽상어를 볼 수가 엇어.
@1 옛날 우도허면 저립들 나낫덴 허지 안헤수과?
#1 저립, 우도에서 엄청나게 잡앗주, 가을 뒈면은.
@1 그 저립도 다 사라지고예.
#1 저립도 싹 없어져 버리고,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씨멸족 헤불 수가 없는데 저립이.
@1 바당이 다 이제 해산물도 잘 안 나고예.
#1 바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뒛냐면은, 나가 이제 수협에 한 삼십이 년에 근무헤 가지고 초창기 육십사 년부터 구십삼 년까지 정년 마쳣는데.
@1 아 수협 뎅겻구나.
#1 이 수산 진흥원 같은데, 도 수산과 내가 비난하고 싶어서 허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안 좋은 일들을 헷어. 지금 우리 태양광 바다에 뭐 허겠다 우쭐대 가지고 지금 대들고 잇잖여.

@1 풍력발전예.
#1 광어양식장 처음 시작헐 때 이게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헷어.
@1 맞아, 폐수들도 바다로 가고.
#1 우리 반대를 헷거든. 근데 성산에가 제일 많이 와서 허더라고, 성산 출신 수산과장이니 간부들이 간부급 출신이 절대 많앗어.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우리 동료고, 후배 아이덜인데 머리가 헤까닥 가분 아이덜이여. 숨겨, 게민 양식장, 양어장 헷다, 한 삼 년 뒤에 우리가 이제 해안을 돌다가 그 양어장 아래 강 볼 거 아니라. 게민, 그 물 흘르는 게 잇어이. 지하로 헤근에 순환시키고 허지만은, 그 새어 가지고 옆으로 흘르는, 그 배수로 파 논 옆으로 막 새는 게 잇거든. 그 새는 물이 흘러나온 데는 모래도 썩고, 해조류 난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 뭣이가 사느냐 허면은 말미잘, 물민젱이엔 헹, 물민젱이. 는적는적한 이런 이상한 그런 게 끈적끈적한 이상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살아. 게 이걸 지적을 하거든, 우리 회의 때나 가면은.
@1 귀에 안 들려예.
#1 우린 모르고 수산○○○이나 이런 수산○○○ 같은 데 건의해야 뒌다는 식으로 딱 피헤 버린다고. 그니까 지금 와서 현실화가 뒛단 말이여. 요새 거론둬는 게 케이○○○이니 이런 데서 막 심층취재니 헤가지고 방송허더라고. 바다가 진짜 엉망 둬불언. 천초 나는 것도 뭐 한 오분의 일로 줄어들어 버리고, 오조리도 이 저 소라, 고동이 엄청나게 낫엇거든. 한 이만 키로 그렇게 잡아낫는데, 지금은 사천 키로 배당뒌, 사천 키로도 잘 안 뒌다 그러더라고. 게난 수산자원이 연안에, 뭐 꼭 그런 양식장 피해만이 아니고 이제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남지만은 앞으로 옛날식으로 살아가기가 좀 어려울 거여.

정월 대보름

@1 삼춘, 이 동네 정월 대보름도 헤수과?
#1 정월 대보름을 헷엇는데 이젠 안 허여. 일제 때 저 이 사삼 사건 이후에 다 없어져 불엇어.
@1 예. 사람이 다 돌아가셔 부난예.
#1 자원이 다 없어져 불엇어. 다 홀어멍, 제주도에서 젤 홀어멍이 한 동네가 우리 오조리라고 헤여. 통계상으로, 웨그러냐면은, 사삼사건에 젊은이 한 육십 명 죽은 게 문제가 아니고 바다에 가서 많이 죽어. 오조리는 반농반어를 허는데, 농사는 삼십 프로 저 해상이 칠십 프로 이렇게 봐야 뒈, 오조리는, 오조리 마을은. 게니까, 바당에 갓다가 오륙 명씩 배 하나가 가라앉아서 죽어버리면은,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이 선원 갓당 죽으민, 그 여섯 홀어멍이 생겨부는 거라. 그 제사가 스물넷, 이십사 명이 죽어 가지고, 그것이 언제냐 하면은 이월 이십사일 음력으로. 음력으로 이월 이십사일 날은. 제사가 스물네 집이라. 교묘하게, 날짜에 맞춰서 제사도 스물네 집이라.
@1 예, 이월 이십사일.
#1 게민 그 스물네 명은 훈 집에 애비아덜도 잇고, 형제도 잇고, 남매 저, 동서간도

잇고, 이렇게 헤서 배에, 낙배가 낙선배에 이제 돗대 두 개 조그맣게 달아근에 가는데 여긴 오조린 개맛 나가면은 우도하고 성산 사이에서 한 삼사십 키로 저 표선 쪽으로 나가 가지고 조업을, 주낫을 허거든게, 주낫 바당이. 옥돔 바당이 저 토산 앞, 그 남원이 앞 그까지 가면은 한 거의 칠팔십 키로 이상 가는 거라. 바람이 갑자기 돌풍이 불면 다 죽어버리잖아. 오조린 배가 엄청나게 많앗어. 많이 헐 때는 삼십 척까지, 작은 낙배덜이, 조그만 돗대 두 개 다는 배가, 톤수로 하면은 일 톤 흔 일 톤 반도 안 뒈는 낙배가 한 삼십 척까지 오조리도 잇엇다고. 경허단 이제 차츰차츰 그 위험성도 잇고, 기계화가 뒈부난 풍선이 없어져 버렷는데, 오조리는 게서 바다에 강 죽은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여녕대가 팔십 대가 다 뒈부니까 홀어멍이다 뭐다 할 순 없지만, 요 한 이십 년 전만 헤도 오조린 홀어멍 동네.

@1 예.

#1 경 기자 뭐 내무리듯이 경 굴아낫어.

@1 게난 그때 이제 옥돔잡이, 그 오토미 잡으레 갓당은에 그렇게 한꺼번에예.

#1 어, 어.

@1 아이고, 이런 저기도 잇구나예. 게난 정월 대보름 할 때 보름떡 쪄 먹엇덴 이런 말도 들어봅디가?

#1 아, 그 저 동네 처녀들끼리나, 어떤 친헌 동네 총각덜도 ᄀᆞ치 끼엉 보름떡을 치거든. 게민 보름날 허는 게 아니고, 열나흘날 허는 거라이.

@1 예.

#1 열나흘날 헹. 그 쏠이 어디 셔? 집에 제사 명절 허젠 놔둔 거 이제 그 처녀덜.

@1 ᄒᆞ꼼씩 가져와 부는 거구나.

#1 조금씩 어멍 몰르게 똘쳐 오는 거라. 게민 이제 남자친구덜 이제 떡 쳠젠 허민야, 느 찍세도 치엄저. 느 이름도 놧저. 영 허거든. 게민 흔 빗층에 백지에 이름 썽 놓고, 흔 빗층에 놓곡, 일고 여덟 층 시루에 시루떡을 치거든이. 게민 그거 잘 익으면은 재수가, 운수가 대통헐 것이다 허고, 못 익으민 좀 환란이 올 것이다 허는 그런 걸 허는 거라.

@1 정월 대보름 그 맞이에예.

#1 떡이 잘 익엇느냐, 안 익엇느냐, 내가 이름 써 논, 잘 익엇느냐, 안 익엇느냐. 그런 걸 헷다고 헤여. 경헹 그거 허영 동네서 ᄂᆞ놔 먹고, 친구덜끼리.

연날리기

@1 연날리기도 헤신가마씨?

#1 연날리긴 우리 어린 때, 일제 땐 헷는데, 해방 후에는.

@1 아, 안 하고예.

#1 아, 사십팔 년에 사삼 사건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냥 뭐 모든 풍습이나 뭐가 완전히 끊겨 버리잖아.

@1 게난, 사삼이 정말 제주도에 엄청난 피해 준 거예.

#1 게. 제주도에 엄청난, 사람, 인적 자원을 죽여 버린 것도 그거지만, 중산간 마을에 그 저 집을 멧 천 채를 불태완 다 없애 버렷잖아.

액막이

@1 아이고, 그때 정월 대보름에 무사 액멕이들도 허지 안헤수과?

#1 액멕이 허는 거는 저 그 보름, 또 아, 초일레, 열일레 이렇게 헤근엥이 지 쌍 강, 식구별로 백지, 하얀 그 창호지나 백지에 메 헤근엥 이렇게 동그락게 쌍, 주먹밥 식으로 쌍, 식구별로 헹, 바닷가에 가근에 달 떠오는 디 던지는 거라.

@1 아, 달 떠오는 방향으로예.

#1 응. 동쪽 향헤근에 가족덜 무사안녕을 비는 그런 걸로. 그 달 떠오는 방향으로.

@1 게믄 이것도 정월에 지 싸마씨? 아니면 달달이.

#1 근데 매달에 허는 집이 잇더라고. 우리 어멍이 포목장사를 한, 육십 년 가까이 헷구나. 포목가게를 헷는데, 그 소지에 헌 거, 백지옌 헌 거 팔지 안허여. 창호지도 팔고, 이제 그 또 저 마포도 이런 거 파는데, 주로 삼베 종륜데 면으로 뒌 시마지옌 헌 거 이서.

@1 예, 시마지.

#1 그걸 하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또 특별 헤 가지고 것도 단계가 네 단계가 잇는데, 막 고급스럽게, 어디 저 심방 모셔근엥 막 좀 비싼 굿 같은 거 헐 때는 좋은 천으로 사가더라고. 겐디, 바당에 강 소지 올리멍 지 던질 때는 막 저급품으로이, 이제 한 만 원, 만이천 원 한 필에 허민, 그게 멧 미터가 뒈냐민 한 십 메타나 팔 메타나 뒈는 거. 이걸 헹 강 바닷가에 가근엥 그 하얀 백지, 소지, 그 소지옌 헌 거는 불을 부친다고 헤서 소지라이.

@1 예. 소지 사르는 거예.

#1 응. 불부쳐서 태운다고 헤서 소 자 써 가지고 소지. 지는 뭐 종이 지자니까. 경헤영 그거 헤영 그 어디 뭐 저 손자나 아니면 아들딸이나, 어디 저 외지에 취직을 가게 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진학을 헹 가게 뒈거나 경 허민 그걸 허는 거 닮아. 아이고, 우린 두 사람치 헤야 뒐 거우다, 무사 두 사람? 허민 우리 집이 사람 물으민, 힉난 손지마씀. 경허고 쉬험 치레 갈 때나 어디 합격헤영 학교 이제 살레 갈 때는 그걸 빌어.

@1 바당에 강 또 들이쳐예.

#1 바당에 강. 제일 많이 허는 사람들이 온평리 사람들, 온평리 사람들 젤 많이. 낼모리 십육일, 십칠일날 뭐 연혼지 무슨 행사 크게 허는 모양이더라고.

@1 예, 예. 거기 해마다.

#1 아마 우리 김○○ 학장도 저 거기 문화원장이난 아마 그디 올 거라. 어제 완 천 같은 거 사가는 거 보니까 막 그냥 호화롭게, 갑자기 기냥 허라고 시켜 놓니까. 그 이장 각시 허는 아이가 젊은 아이란게, 완 막 우리 할망 그냥 나이들어 부니까 미싱도 잘 못허고 하는디, 아이고 어머니 어떵헙니까, 헤줘야 뒈쿠다, 헤줘야 뒈쿠다. 막

집잇사름 기냥 정신엇이 어제 흔 서너 시간 부끄는 거 닮안게. 이제도 그걸 헤여. 겐디 도체비 구신이엔 헌 말 들어봔?
@1 예. 도체비.
#1 도체비 구신이 신흥리 하영 이섯어. 그건 성편으로 옮겨가질 안허고 딸 편으로 옮겨간다고 헤여. 딸편으로.
@1 아, 딸편으로예.
#1 도체비 구신 모신 집이엔 허민 메느리 잘 안허젠 허여. 게민 엉뚱하게 수산이나 막 멀리 시집을 가. 송당이나, 처녀가 나이 들엉 막 헤도 누게, 동네나 근처에선 기피헤 부는 거라. 암만 똑똑헤도.
@1 게민 도체비 구신 모시는 집에 특별히 허는 건 무시거 이서마씨?
#1 그, 들은 얘기로는 올레 어귓담이나 게 아니민 집 축담, 축담에 바당에서 주서온 돌을 꼭 박는다고 헤여, 양 어귀에. 게민 신산리가 그런 풍습이 많덴 허데, 신산리. 남의 마을을 헐뜯는 건 아닌데 이건 민속으로.
@1 예, 건 문화니까.
#1 문화니까. 신산리가 도체비 구신 모신 집이 한덴. 어떵 저 굽갈르느니 허니까 집, 영 올레에 들어가민 담을, 올레 담 싼 집이, 담을 영 보민 거기 적 부튼, 바당에 적, 희득희득헌 돌 적 부뜬 돌 양쪽 어귀에 놓거나, 그 올레 엇인 집은 안네 들어강 보민 집 축담 빗데기에 그 바당 돌을 헤당 축담을 싼 집은 도체비 구신 모신 집이엔.
@1 그러겟네.
#1 겅 얘길 난 그때 들어낫어. 거난 남자안테로 전파가 안 뒈고 꼭 똘안테로 전파가 뒌덴 허더라고. 딸에 부터간다고, 우리 심방도 그런 말을 허지 안허여게. 심방 똘도 허민 신이 헤가지고, 신을 모셔야 뒌다고 허는 그런 말을 흔히덜 허여.

문전비들레기

@1 액막이 할 때, 예전에 정월에 하면 집에 뭐 벨롱겡이나 이런 식으로.
#1 아, 문전비들레기.
@1 여기는 문전비들레기.
#1 문전비들레기, 무슨 말인지 문전비들레기엔 허여.
@1 그건 언제 헤마씨?
#1 정월달이나 이월 영등 보름 전에 헤여.
@1 영등 전에예?
#1 응. 영등. 음력 이월 십오일 전에, 게민 정월 초ᄒᆞ루 넘으민 날 봐근에 그거 꼭 헷어. 우리도 거.
@1 그 문전비들레기 헐 때는 어떤식으로 허는 거꽈?
#1 그 뭐 돌레떡 이런 거 허고, ᄆᆞ물청기나 만디, 만두 잇자녀이, 영 접는 거이. 만디떡이나 그런 거헹 간단허게 헹 솔레기 이제 고기 굽곡 메물 탕쉬 뭐 이런 거 헤근에 꼭 제사 지내듯이 찰련 헨게. 심방 왕.

@1 아, 심방 왕은에.
#1 응. 심방 왕. 게민 그건 큰 심방이 오는 게 아니고 삼승할망이엔 헹 동네 조그맣게 물애기덜 어떵 허당 저들루민 그 빌어당 허는 할망들이 이서이, 아주망덜이. 게이런 할망덜 빌어당 간단허게 허민 그 품으로 뭘 주느냐 허민 쏠이나, ᄆᆞ믈쏠이나, 산디쏠이나, 헤영 놧당 두어 뒈, 반 말 정도, 영헹 톡 쌍 안네고, 또 어떤 집은 돈이 생긴 집은 돈으로 헤근에 영 주고, 경허민 멩세[멩쎄]엔 헤근에 알지?
@1 예.
#1 굿헐 때 영 거기 돈 갖다 놩 허민 거느려주잖아. 내가 명셀 놓민 아이고, 성은 현씨고, 나이는 여든여덟이고, 이제 이 현가 성 가진 이 사람 잘 편안허게 헤줍서. 비는 그걸 헤주잖아. 그 명세 논 깝으로. 이 명세 올린 건 그냥 할망이 가졍 가메. 것도 이제 똘들 이시민 똘들 몫으로 놓곡, 저 지페로, 우리 어린 댄 보면 오 원짜리, 십 원짜리 그 해방 뒌 때, 그런 돈 헤근에. 지금 가트민 만 원짜리도 흉 뒈근에 오 만 원짜리 놔야 뒈지 안허여게. 명세. 명세라고 들어봣구나.
@1 예, 삼춘 그러면, 문전비들레기는 언제까지 헨마씨? 집에서, 삼춘네 집에서는.
#1 우린 정월에 헤 버리더라고, 정월 안네.
@1 예, 게민 요즘도 헴수과?
#1 아니, 아니.
@1 요즘은 안 허고.
#1 안 허지.
@1 언제까지?
#1 어머님이 사삼 때 피해가 와서 집도 불 태와 불고, 우리 형님 그렇게 토벌대로 가잇단에 죽임 당헤 부니까 미쳐 가지고, 종달리 잇는 타불교 거기를 강 정신수양을 헷어. 한 십오일쯤, 이주일쯤, 게난 거기 스님들 데령완에 칠성눌 다 때려부셔 불고, 제사도 문전도 허지 말고, 고팡에 허는 것도 허지 말고, 정지에 허는 것도 허지 말고, 퉤시도 허지 말라 이거라. 잡식 헤근에 바깥에 던지는 거. 이것도 허지 말고, 잔 올려놩 기냥 헤근에 삼 잔 이렇게 삼잔 허지 안허여이, 삼 잔. 처음에 감주허고 그다음에 술하고, 그다음에 막걸리나 뭐 부지 들어온 술이나 영 색다른 술 헤영 세 번을 영 허는디 이거 다 헤 놔근에, 갱 떠놓곡, 밥 조금 떠놓고 헌 이 숭늉 그릇에 거 다 모앙 허민 기냥 올레러레 강 기냥 어디 공처헌 디레 기냥 던져불라 이거라. 그 옛날에 지붕더레 던졋잖아게. 거난 이젠 그런 거 허지 말겐. 게난 이제 타불교 그 스님덜 완에 싹 쓸어분 걸로 그다음 아무것도 안헤. 겐,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허니까. 우리 현씨 집안은 다 젤 그런 식으로 지내여. 문전도 안 허고.
@1 아, 이제는 문전도 안 헴수과?
#1 예. 문전 안 허고, 어디 고팡이나 정지 그런 것도 일체 안 허고.
@1 어머니가 싹 없앤 후로는 안 헴구나예.
#1 메누리덜이 다 그렇게 알앙.
@1 게난, 타불교 그게 큰 영향을 헷네예. 종달 이쪽더레.

#1 미신타파 뒌 셈이지.
@1 식게는 헤도 그런 거는 안 허고예.

포제

@1 그다음에 삼춘, 여기 포제는 아까 첫 해일?
#1 정월 첫 해일에 파제일로 봐. 정월 초ᄒᆞ룻날이나 초이틀날 해일이 뒈불민 안 뒈잖아. 그럼 그다음에 십이일 이후라야 뒈어. 저게 십이갑자, 열두갑자 아니라이. 게난에 꼭 해일, 돼지날 파제를 허니까 신, 유, 술, 술일에 마감허는 거지. 게민 열한시부터 제 지냉 열두시에 파제하니까 파제하는 날이 해일로 헤영 축에 해일로 익는 거라. 축문을.
@1 예, 포제를 허젠 허면 그거는 마을에서 준비를 허는 거꽈? 어떤 식으로 헤마씨.
#1 아, 겨주게. 동네에서. 십이월달, 일월달 뒈가면은 포제 총훼옌 헤근에 회의를 허주게.
@1 아, 포제 총훼를 헤예.
#1 포제 총훼를 따로 임시총회를 허영, 제관 뽑는 회가 뒈는 거지. 제관 뽑는.
@1 포제 총훼 허면
#1 포제 총훼 허영, 제관을 뽑아. 게민 그 저 집안에 상이 난 집안 사람은, 지금은 일년상으로 허지 안허여이. 일년 지나지 안허민 제관으로 안 뽑아. 한 육촌 이내는, 그거 아마 딴 디서도 경헴신지 몰라도, 우리 동네 옛날은 팔촌까지 안 헷다고, 그것도 심지어 사돈, 사돈 뒈는 사람도 안 허고 지금 자원이 없잖아. 다 젊은 아이덜 중간층에 아이덜 공무원 허멍, 뭐 허멍 다 외지에 나간 살아부난, 자원이 엇이난 이젠 줄어진 거지. 폭이, 옛날은 삼년 상, 지금은 일 년 상, 이젠 또 엇어 가민 백일 탈상으로 헤 갈 거여. 제관이 엇어.
@1 제관이 엇어예.
#1 게믄 헤난 사람은 계속허니까 동네서덜 좀 몰린다고, 헤난 사람 맨날 제관헴시녠. 일당을 많이 줘버리니까 그런 말들이 잇는 거주게.
@1 아, 일당도 줍니까?
#1 일당 줘. 우리 헐 때는 일당 엇이.
@1 동네를 위한 거니까.
#1 뒈지 잡으면은 뒈지 그거 헤영 이렇게 ᄂᆞ놔주고, 노인네 다리 하나, 머리나 허고, 내장 같은 거 이런 거 헹 보내고, 어른덜 백, 한 팔십 세, 지금은 뭐 팔십 세가 흔하지만은 옛날은 팔십 세 이상 뒌 노인이 ᄒᆞᆫ 대여섯 사람 허난. 설름 고지라고 헤서 도세기 궤기 썰엉 한 서넉 점씩 꿰엉 수에ᄁᆞ지 담앙 꿰엉, 그 어르신안티 그걸 제관들 통헹 보냇어. 이제는 그런 거 없고, 내가 그 포제 두 번을 헤봣는데, 노인회장을 마트니까 한번 그 저 소위 초헌관, 아헌관, 삼헌관 이렇게 허거든. 초헌관을 두 번을 헷는데 노인회장 헐 때 허고, 노인회장 그만둔 때 또 막 엇언에 골리당 아이고, 나이 드셧주만 헤줘야 뒈쿠다 헨 두 번을 헷는데, 선배들 허는 거 이렇게 보니까 돼지고기

제 지내낭, 통째로 내장만 싹허게 빼엉, 피 다 빼곡 딱 헤동, 통째 올령 제살 지내거든.
@1 예, 희생예.
#1 제상에 올려놓는 거는 저 본봉, 본봉, 본부엔 허는 본봉. 봉은 봉할 자, 바친다고 헤서 봉.
@1 예, 본봉.
#1 그다음엔 이제 ᄒᆞ나를 더 잡는데, ᄒᆞ나나 두 개나, 건 가봉, 가짜옌 허는 거지.
@1 예, 가봉, 가짜로 올리는 거.
#1 어 어. 가짜로 올리지 안허는 거. 본봉은 올리는 거, 가봉은 기냥 ᄂᆞ나 먹기 위헤서 허는 거로 헤서 가봉이라고 헤서 이름을 경 부쳐. 거 다, 가봉이건 본봉이건 제사 지내난 다음엔 열두 조각을 다 잡으멍 배설 끗겡이, 간 끗겡이, 뭐 헐 거 엇이 십이 등분에 내장 피 같은 걸 전부 모아근에 그걸 또 올린다고. 겡 이제 나중에 다 지내나면은 그거 다 그걸로 묻어근에 축도, 축문도 술곡 뭐 헹 그거 다 묻어동 그다음은 그걸 삶아근에 갈르주게. 겐디 삶지 못허민, 그전엔 우리 헐 때는 삶아서 헷는데 요새 아이덜은 삶기 싫으니까 생고기로 막, 자기 도치 막 가졍 강, 그걸 막 잘랑. 부위별로 허민, 딱 이제 저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헤놔근에 이 제관 서이에다가 집례 잇고, 뭐 봉축 무신, 뭐 알자 뭐 허면서 죽허게 일고여덟 사람, 열두 사람까지 제관덜이 허는디, 요샌 일곱 사람으로 줄이더라고. 게민 이장은, 초헌관허고, 아헌관허고, 삼헌 속에 이장을 놔. 게민 여긴 조꼼 고기를 낫게 주고, 그다음은 차차 조꼼씩 고기를 줄이면서 하는데 그 가봉이엔 헌 건 가졍, 노인네 잇는 집이나 부인회장, 청년회장 뭐, 노인회장 집이나 이런 단체장 집에 걸 갈르면서 그렇게 분집을 헤서 경 허영 ᄂᆞ누주게. 이젠 노인네 집이 보내는 건 엇어. 엇이민 이제 이디 노인훼에 가졍 오는 거 잇잖아. 내장이영 뭐영 고기 가져오민 그거 딸령 노인회원들 왕 먹읍센 헤근에 경 허주게. 요샌 코로나헤 부난 ᄒᆞᆫ 이년 안 하던데. 이디서 딸령 먹어비신디.
@1 삼춘, 아까 말 중에 옛날에는 그 적고지 영 꿰여근에 간 그 고기, 그걸 무신거렌 ᄀᆞᆯ아수과?
#1 설름 고지.
@1 설름 고지, 건 무슨 말인고마씨?
#1 설러 간다고 허는 데서 어원이 뒌 건지. 설러 간다고 헤서 설름이 뒌 건지. 설름 고지엔 허주게. 뭐 서러운 건 아니고.
@1 설러 가는 거 닮다예.
#1 정리한다고 허는, 뭐 설른다 허지 안허여. 거기서 뜻이 온 것 같애. 정리해서 끗 정리한다고 하는 뜻에서 설름 고지라고, 고지옌 헌 건 댓고지에 꿰는 거니까. 다 마감헌다고 허는 뜻으로 설름 고지라고 경 헌 거 닮아.
@1 경 헹 동네 어르신들안티 다 가져 가는 거 아니라예.
#1 응. 나이 드신 분들안테.
@1 지금도 본봉허고, 가봉, 그 희생을 두 ᄆᆞ리 잡아마씨. 이 동네?

#1 아, 그거 노인만 아니고, 저 돌아가서 장례 지내 가지고 탈상을 안 헌 집, 영혼 모셔 잇는 집, 그끄지 한다고, 올렷당 먹으렌 신안테 바치는 거지, 영혼안테. 그걸 추가로 써야 뒐 거여. 노인훼덜안티.
@1 지나가버렷지만 아까 왜 정월 멩질하면 옛날 과세덜 뎅기지 안헤수과예? 과세도 상 논 집도 가고 허지 안헤수과?
#1 상 논 집에 갓주.

과세

@1 그 과세 이야기 한번 헤주십서. 어떤 식으로 헷는지.
#1 과세를 이젠 안 허잖아게. 이제는 없어져 비엇는디, 이젠 또 세배도 합동 세배를 하는 동네들이, 쭉 전통적으로 경 허는 동네들이 생겨낫는데, 오조린 걸 아니 헤.
@1 아, 합동 세배 안 헤마씨?
#1 응. 합동 세배 안 헤. 아녀고 그 저 친구 부모나 아니면은 웨가나 이런 덴 세배 뎅기멍 헤여.
@1 전체 과세는, 옛날에는 과세들 헐 때는 여자들이 잘도 고생헷덴 허멍.
#1 경 헤실 거라. 상 출려놔근에 꼭 차 한 잔이라도 대접헤야 뒈니까. 그 과세 오카부덴 막걸리 일부러 담아놩 명절에 쓰고, 그걸 꼭 놧당 과세 온 어른덜안테 사발에, 조그만 중사발에 헤근에 ᄒᆞ나썩 대접허고, 술 먹는 이들은 경 헷주게.
@1 좁쏠로 헤갓고 담아수과? 술?
#1 응. 좁쏠로 헤근에, 아이고, 메주 저, 저.
@1 누룩.
#1 누룩허젠 허민 보리철에 헤근에 보리 굴앙 주세기, 막 걸러분 주세기로, 그걸로 이제 허거든. 게민 나가 우리 육남매 젤 막내, 큰 누님 두 분은 나가 어릴 때 시집가부난에, 또 형님, 큰형님 이제 배타면서 선원 헨 부산 강 살아불고 허니까, 두 번째 형님 돌아가셔 불고, 우리 우에 말젯형님하고 나하고 잇는데, 우리 말젯형님은 밧일을 주로 막 시키고, 난 어머니 존심부름을 막 시켜. 게민 누룩 만들젠 돌레떡, 그 저 줴기떡을 만들지 안허여이. 게민 족은놈아 이레 오라. 이게 헤근엥에 영 산디집 깔아근에 그디 만드는 냥 ᄌᆞ근ᄌᆞ근 줍는 냥 ᄌᆞ근ᄌᆞ근 놔근에, 겡 그거 또 학교 갓다오민 이거 뒤집으라 헤근에 뒤집어 놓고 허멍 그걸 허민 뽀얗게, 그 파스름헌 곰팡이가 싹허게 쓰믄, 그거 헷당게 뻣을 땐 돌ᄒᆞᆨ 요런 돌ᄒᆞᆨ 놩 방엣귀, 조그만 방엣귀로 막 뻣고, 똘이 엇어부니까.
@1 똘 역할을 헷구나게.
#1 응. 누님 우이로 두 분 잇단 시집 일찍 가부난에 쭉 아들만 네 성제에 나 막둥이라 부니까, 어머니 심부름을 완전히 솔입 걷으레도 가낫어, 이 동네 여자들하고. 게민 나가 솔입 걷는 건 뒈잖여. 그건 뭐 삼사학년 사오학년 때니까 뒈는디, 보달 무끄는 거이, 이거 영 둥글게시리 딱 보달쳥, 춤, 이 ᄀᆞ레항에, 물ᄀᆞ레 그 돌 모냥으로 둥그렇게 넙죽하게, 이거를 아, 이걸 암만헤도 안 뒈는 거라. 그게 안 뒈여. 게민 이제 누

님뻘 뒌 동네 누날 이제 츶는 거라. 소낭밧 여기저기 흩어져 잇잖여. 한참 그거 보달 못 채왕 울 것같이 앉앙 어둑어 가는디 잇는 거라. 게민 그 어디 딴 디 가서 챙경 오던 누님이나 이제 동넷어른이 오다근에, 아이고, 이거 못 처멤시냐, 나 헤 주마 경헤영 거 지엉 오곡 헤낫어.

당제

@1 솔입 긁으레도 갓다오고, 그다음에 삼춘, 당제예, 여기 수산본향당 가는 거는 언제 가마씨? 여기는.

#1 정월 초이틀날, 음력.

@1 아, 바로 멩질 때.

#1 멩질 뒷날.

@1 그래서 어머님이 안 믿는구나.

#1 아주 거 크게 헷엇는데 이젠 오조리에서도 한 백여 명 가낫주. 그 저 ᄀᆞ는대구덕 요만인 헌 것에 ᄆᆞ믈, 돌레떡을 허나, 만디떡을 허나, 게민 ᄆᆞ물청길 허나, 또 조금 나은 집은 쌀로, 쌀로 문친떡을 찌엉 가나, 게민 또 돌레떡도 동그란 것도 잇주게. 둘떡도이. 그거 헹 가나, 경 허민, 오조리서 우리 어머님이 그 당시는 왕초 노릇을 헤신 ᄀᆞ라. 완전 오조리 사람들 가민 인솔을 허는 거라. 영 동네별로 딱 안쳥, 그거 제물 헹 간 거 강 바치고 또 거기 뭐 멧 개 덜어근에 가졍 가렌 또 덜어주민 그거 헹 딱 ᄂᆞ누고, 거기 갓다온 날은 이제 멩질 떡 실컷 먹엇주만은 또 그것도 먹는 거라. 맛잇어, 그게 또. 딴 사람이 헌 거난, 이 오조리는 해안 마을이라부난 ᄆᆞ물이 잘 엇어이. 게민 내노라 헹 사는 집이나 아니민 조금 대농집은 ᄆᆞ물을 헷다가, 일부러 이제 제사 멩질에 쓰젠 ᄆᆞ물을 가는 집이 잇는디 모물을 흔히 못헤. 그건 특별히, 지금은 비료가 막 개발뒌 이 비료, 저 비료 쓰지만 그때는 ᄆᆞ물 퉤비는 뭘 헷냐면 꼭 불치, 재, 불치를 써 놓니까 대식구에 대농 아니민 그 불치를 얻질 못허여. 게난 그 불치 잇는 집이 ᄆᆞ물도 많이 가는 거라. 식구도 몃이 없고, 뭐 좀 가난한 집은 불치가 나오지도 안허여. 게민 ᄆᆞ물 못 갈지. 밧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게민 이제 모물 간 거 간 집이거 얻엉 오민 그거 먹엉 막 좋아헤근에. 아 일년 들엉 모물범벅 한번 못 먹어. 범벅 먹는 거, 느젱이엔 헌 거 알지? 가루, 모물가루 허당 그 찌꺼지 나온 거. 모물느젱이, 아이고.

@1 그추룩 헤근에 당은, 본향제는 정월 초이틀 가고, 그다음 또 다른 날도 가신가마씨?

#1 본향당에 가는 건 일 년에 딱 한번이고, 특별히 이녁이 소원헐 게 이시민 심방 데령 강 허주만은 경 안 허민 잘 안 허여.

@1 정월 초이튿날 가고, 나머지는 일뤳당 이런 데.

#1 응. 일뤳당.

@1 일뤳당은 아무 때나 그때는?

#1 초일뤳날이나, 또 보름날이나, 열일뤳날이나, 그렇게.

@1 그건 아무 달이라도.
#1 응. 겐디 유월달은 안 허여.
@1 아. 앉은 방석도 고쪄 앉지 않는다고 유월에는.
#1 응. 앉은 방석도 고쪄 앚지 않는다고 헌 말은 유월이 좀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뭐가 잇는 모냥이라. 유월달엔 앉은 방석도 고쪄 앚지 않는 말이.
@1 유월에는 당에 안 가예?
#1 응. 바당에 가는 사람도 유월엔 안 가.
@1 아, 바당에도예?
#1 바당에 물질허레 안 가는 게 아니고, 지 드리레 가는 거 유월달엔 안 가. 우리가 그 뭐 재료를 팔아보니까 알주.
@1 아까 이제 안택허는 게 비들레기, 문전비들레기 허는 거예. 그거 이제 하고.

보리밧 불르기

@1 그다음에 옛날 보리밧도 불라봣수과?
#1 보리밧 불라봣주게. 겐데 해방뒌 후에, 우리 건국 후에는 보리밧, 그 오일육혁명 난에, 한 멧 년 헤실 거라. 이젠 안허지 안허여. 그때는 막 독려헷주게. 학교에ᄁᆞ지 학생들안티 자치, 학생 자치회 헤근에 보리밧 밟기 헹, 동네 가름팟 이시민 밟아주고, 또 이웃에 어디 요청허민 밟아주곡 헷주게. 그땐, 육이오 때는 학교 갈 때도 딱 저기 오조리 출구에, 나가는 길에 딱 모여근에 학도호국단 막 행진곡 불르멍 학교 갓잖아게.
@1 예.
#1 게난 그게 단결심이 앙양뒈고 애국심이 앙양뒈고 향토애가 그런 데서 발생이 뒈고 허는 게 딱 맞는 거여. 지금 조직 이거 허는 걸 싫어허고 안 헐려고 허지 안허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데 조직생활 이걸 떠날 수가 없는 거거든. 사람끼리 다 도우고 뭔가 정보교환하고 거기서 허는 거 아니라게 그게.
@1 예, 맞수다. 안 좋은 점 보다 좋은 점이 더 많아예.
#1 많지.

걸궁

@1 그다음에 삼춘 이 동네도 걸궁들도 이수과?
#1 걸궁 헷엇는데 사삼 이래 딱 그게 끊어져 불언. 그 후엔 헤 보지 안헨. 사삼 이전엔 해마다, 일제 때 그 어려운 때도 헤서.
@1 걸궁은 무사 헌 거마씨?
#1 걸궁은 신년, 성주풀이 집집마다 가멍 허는 거주게. 게고 또 취미 잇는 사람덜도 놀이 전시도 뒈는 거고 허니까. 놀이패들, 그런 때 막 소원 푸는 거 아니라게.
@1 마을 기금 마련허기 위헤서도 헷덴 헙디다.
#1 경도 헤수다. 경도 헤낫수다.

@1 이 동네도 경 헨예?
#1 여긴 부산 친목회, 일본 향우회 이런 데서가 돈을 작지않게 보내왓다고, 우리 동네는 이거, 마당 잇잖아, 이거. 개인 소유라 거 부산 향우회에서가 이거 다 사준 거. 이 터까지, 요거뿐이랏주, 본건물뿐이랏어.
@1 잘사는 사람들이 많앗구나. 밖에 나강예.
#1 응. 많앗어, 지금 다 그 일세대 이세대 죽어 버리니까 그다음은 이젠 그 부산에 오○○ 소아과라고 잇어. 오○○이엔 헌 소아과 제주도에서 그 저 도립병원 이서난 자리, 거기에 내과 의사를 헷는데 일제 때부터, 초등학교벳기 안 나완. 동남초등학교도 사년제, 사년제 나완, 순 한학만 하단 사년제 나왓는데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라, 이 양반이. 겐 의사가 뒈가지고 헷는디, 상당히 인기를 끌엇던 모양이라. 해방후에 소위 좌익계 이 사람들이 제주시도 유지를 준, 십인 유지훼 그런 얘기 들어봣지예?
@1 예. 들어봣습니다.
#1 그 십인 유지훼에 하나가, 오○○ 의사가 거기 낀 거라. 겐데 그 경찰관 하나가 사찰 정보과 경찰이엇던 모냥인데 마누라가 갑자기 애기 막 난산헤 가지고 낳지 못헤 가니까 새벽에 가서, 그 오소아과네 집에 간 애기를 내어가지고 무사히 난 모양이라. 게난 경찰관이 상당히 신세를 진 거 아니라게, 게난 이제 십인 체포 명령을 딱 내리는 걸 알아가지고 뛰어 들어간에 빨리 도망갑서, 잡혀가민 죽읍니다, 이렇게 뒌 거라. 그 의사가 밤에, 제주 동부두에 간 낙선 하나 이시난에 그냥 돈 팍 줘에 부산더레 걸렌. 당신 도망간 경 살아낫지 안허여. 그런 일화가 오조리 살아난 사람이라. 오○○.
@1 이름을 들어나수다.
#1 예. 이 사람이, 이 분이 중심이 뒌에 오조리 향우회가 상당히 부산서 왕성헷엇다고, 게서 저 지금 버드나무 잇잖아. 저거를 오십 구를 보내줫어. 이 땅을 사서 이 땅 주위에 심으렌 헤연 헷는데, 나가 이 마을에 불쾌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감정이 굉장히 많아. 후배덜안테 저거 다 비어 버련이. 막 덤벙허게 나니까 저걸 다 끊어버리고 저거 하나만 살려놧잖여. (중략) 저거 꼭 보존하라고, 팻말이라도 멋잇게 헤다근에 이거 부산 재부친목훼 기증헌 유일한 버드나무라고 헤서, 그런 거 세기렌 허멍 나 요번에 얘기헷는데, 오조리가 만만헌 부락이 아니엇는데 그 일제 때에 저 밴드가 오현고등학교, 상고 어디 밴드보단도 더 많은 종류의, 한 육십 개 밴드 헤가지고 와장창 와장창 헤낫는데, 이 제주도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품이 잇엇던 마을이라. 조그맣게 촌이라도.
@1 그런 기록들이 학교에 남아 이시카마씨? 오조리 초등학교 이수과?
#1 오조리 없어. 오조리는 동남초등학교가 팔 개 마을, 저 십이 개 마을이엇는데 신풍하고, 신천만 표선으로 붙고, 나머지는 성읍리로 붙고, 그 나머지는 신산으로 이레 다 헤낫는디, 이젠 신산 생겨 버렷지. 수산 생겨 버렷지. 성산 생겨 버렷지. 시흥 생겨 버렷지. 허난 동남초등학교는 오조리하고, 고성리하고, 신양, 세 마을만.
@1 이젠 학교 족아젼예?
#1 응. 지금은 삼백 명도 안 뒌덴 허는디 뭐.

새철 드는 날

@1 정월에 우리 입춘 드는 날, 샛절, 샛절 헐 때는 뭐 허지 말라. 허는 것도 잇고.
#1 새철 놈이 집이 안 가주게. 놈이 집이 안 들어가, 여자는. 남자는 괜찮은디 여자는 놈이 집이 들어가민 안 뒈.
@1 건 무산고마씨?
#1 몰라. 여자가 좀 안 좋은 뭐가 잇는 모양이라.
@1 그러게예. 새철날 보리 뿌리헹은에 점봣덴 헌 얘기 들어봅데가?
#1 그 얘기 듣긴 들엇는데 구체적으론 알지 못 허겟네.

삼월

쉐 ᄀᆞ꾸기

@1 여기는 옛날에 바당이 칠십이고 농사가 삼십이렌 헷잖아예. 경헤도 옛날에 쉐들은 키워실 거고,
#1 응. 쉐덜 키웟지.
@1 쉐 키우면.
#1 구피, 구피밧이엔 헌 거는 귀표 헌덴 헨 구피라. 귀표 허는 날. 그날 귀에 표시헤 가지고 귀표를 허주게. 거난 구피밧, 구피밧 헷다고, 게난 난 굿허는, 무슨 피굿을 허는 건가, 뭔가 어릴 땐 그렇게 헷는데, 나중에 옥안 어원을 엮어 보니까 귀표밧, 귀표허는 밧이라고 헹 귀표밧, 구피밧, 구피밧. 그날 메를 헹 가. 겐디 갱은 안허여. 메만 허고, 고기 하나 굽곡, 경 헨 저 술 가졍 가. 술 조그만 병에 헤근에 술 가졍 강 젤 지내어. 모아놔근에 경허영 윤디라고, 낙인이, 불에 구워근에 낙인 것도 찍곡, 귀에 표시도, 암소는 이쪽 알로 허고, 수소는 이 위로 허고, 경 허영 귀표허는 날헤서 구피밧, 구피밧.
@1 그게 언제 허는 건지 알아지쿠과?
#1 사월 경인가, 소 풀어 놓기 직전에 아마 삼월말 쯤 허지 안 헷나 생각허는데.
@1 예. 청명 전이나 거의 비슷하게예.
#1 건 잘 모르겟네이.
@1 소 풀어놀 때 여기 목장이 이수과?
#1 목장이 잇어낫어. 목장이 잇어낫는데 목장에서 아니하고, 지금 요 소방서 지은디, 그 동산 개왓동산이엔 허는디 동네별로 것도 헷어. 동네별로, 저쪽은 앞동네, 저쪽은 저쪽 웃치 등어리엔 헌 디, 꿩망동산이렌 헌 그디 강 허고, 이 논동네, 저 짐수막동넨 요 우에 소방서 잇는디 가고, 웃동넨 병문개옌 헌 디 저디 가고, 그 동네별로.
@1 구피허는 날은 같은 날.
#1 응, 같은 날덜 허여.
@1 같은 날 다 요소요소에서 헴구나예.
#1 날짜 봥 헤여.

@1 날짜 봥 허여.
#1 응. 숭 나카부덴. 소에 상처내곡 뭐 허는 거라 부난, 날짜 봐근에 흔날에 다 헤여.
@1 아, 날봥예. 어느 날이 좋덴 허여?
#1 삼월에 헷든가, 이월에 헷든가, 그건 내가 모르겟네이.
@1 보통 다른 디 가면 목장에 올리기 전에예.
#1 아, 풀어놓기 전에.
@1 예. 경 헤야 자기 소 아니까. 그때 헤근에 넥인헌덴 헙디다.
#1 여긴 기냥 ᄀᆞ꽛주게.
@1 ᄀᆞ꾸레 가예, 아, 풀엉 올려놓진 안허고예.
#1 목장이 족아놓난, 거기 강 무신 스무 마리나, 서른 마리나 가두지 못허는 목장이라. 웽미, 대왕산 아래 조그맣게, 우리는 해안동네라 부니까 그 목장 그런 것에 관심이 엇어나신ᄀᆞ라 옛날에 그 웃드르렌 싫어헨 땅을 ᄎᆞ지 안헷어, 해안가만 ᄎᆞ지허난에 요디 그냥 뻘밧 같은 거, 암반 잇는데 그 양어장 만들어 버리고, 면적으론 상당히 넓지 안헤게. 면적으로는 엄청나게. 겐디 다 울통불퉁허고, 수고 헌 것도, 수고 설립헐 때 땅 줘 불엇지. 요쪽에 천주교 잇는데 그것도 다 리유랏는데, 국유라낫는데 오조리 차지허젠 허니까 다 뭐 빽 작용허면서 다 팔렷지. 바당만 헷다가, 바당에 집중헤 가지고 허다가, 소가, 패가 네 동네라. 쉐 ᄀᆞ꾸레 가는 건 네 동네라. 웃동네, 벵문동네, 이쪽 짐수막동네, 앞동네, 엉물동네, 공펄은 조그만허니까 엉물동에 같이 부쪄 가지, 네 파.
@1 패가 네 패로 헤갖고, 한 동네는 나갈 때 쉐 멧 개나 ᄀᆞ꾸레 가?
#1 스무 개, 스물다섯 개, 서른 개 뒈민 버쳐. 스물다섯 개 넘으민 진짜 버쳐. 쉐 ᄀᆞ꾸레 갓당 올케 울멍불멍 왕 몽뎅이, 매막뎅이로 아버지안테 맞곡, 쉐 일러 버렷덴 헤근에.
@1 삼춘도 쉐 ᄀᆞ꾸레 뎅겨봔?
#1 형님하고, 쉐 길르곡 허니까 헐 수 엇이 ᄀᆞ꾸레, 쉐 두 ᄆᆞ리라부난 두 번 가야주.
@1 아, 두 번.
#1 이수, 이수까지, 두 술까지는, 기냥 어미에 같이 헹 한 마리로 보는디, 삼수 뒈민 ᄯᆞ로 헤야뒈. 그 어멍 새끼라도 삼 자매로 안 보고, 이 자매로 봐근에 또로 가야 뒈어. 밧갈쉐 허젠 허민 세 설이나 네 설이나 집이서 길러야 허거든, 게니까 두 번을 흔 ᄇᆞ름, 스무날에 두 번을 가는 거라.
@1 아, 두 개라부니까.
#1 게민 이제 동네 사람덜안테 일요일날 지금은 반공일 뭐 그때 반공일헷지만, 토요일날 학교 갓잖여게. 게난 학교 가는 날은 결석허민 안 뒈니까 공일날 맞추젠 옆에 이웃사람안테 막, 미리부터 막 헤 놔야 뒈. 대신 일요일날 ᄀᆞ꽈주고, 다음에랑 우리 거 ᄀᆞ꽈줍서 허고.

방에 부찜

@1 게믄 방에도 부쪄봣수과?
#1 방에는, 오조린 방에를 놓지 안 헤봣어.
@1 아, 여기는 안 놓고예. 아무래도 목장이 없으니까.
#1 우리는 목장이 없어 부난. 그 쉐 같은 거 출 같은 거 곱게 비젱 허민 겨울에 방에를 놓주게. 방에를 놓는디 방에 부찌젠 허민 동네 사람 너댓을 데령 ᄀᆞ치 불렁 가야 뒈어. 불 꺼줄 사람. 남이 밧더레 허거나 소낭밧이나 이런 데 가면 안 뒈잖여. 게난 이녁밧만 부칠 걸로 막 이른 봄에, 본본헌 날, ᄇᆞ름이 안 불엉 막 헌 날, 동네 청년들 이영, 어른들이영 ᄒᆞᆫ 서너이, 너댓이 불 끌 거 준비헹영, 소낭가젱이헤근에, 빗자루ᄀᆞ치 만들앙, 경헹 강 ᄇᆞ름 좀 없는 ᄇᆞ름위로 강 부쩌근에 싹 부쪄오민 남이 밧더레 가지 못허게, 밧 주위에 와가민 다 꺼근에.
@1 삼춘네는 직접 부쳐 보지 안허고?
#1 부쳐 보지 안허고, 구경은 가 나고.
@1 예.
#1 재미로게, 동네 어른덜 가니까.
@1 게난, 촐 비젠 허난 방에 부쩟구나.

이월

영등

@1 영등ᄃᆞᆯ에는 뭐헙니까?
#1 영등달.
@1 예. 이월을 영등ᄃᆞᆯ이엔 허잖아예?
#1 응.
@1 영등하르방은 여기선 언제 와?
#1 영등하르방은 일월 십오일날 들어왕 이월 보름날 나간다고 경 허는가.
@1 이월 초ᄒᆞ를날 들어와근에 ᄇᆞ름날 나간덴.
#1 이월 초하를날?
@1 예. 여기는 영등굿 같은 것도 헤수과?
#1 근데, 우리 민속 지금 얘길 허니까 허는디 이 오조리가 영등에서는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영등할망이, 할망인지, 하르방인지 그걸이 모르잖여이. 겐디 영등하르방이엔도 곧고, 영등할망이엔도 곧곡 헤부니까. 우리 영등할망이라고 헙시다. 영등할망이 어디로 들어오니냐 하면은 저 어디, 한경면 어디 곽지리?
@1 아니. 저기 귀덕.
#1 귀덕. 거기서 들어왕 이제 제주영 한라산 동편, 서편도 돌앗는지 어떵헷는지 모르지만은 한 바퀴 돌앙 나갈 때는 오조리 개맛에서 나간단 말이여. 그 심방이 풀이를 헐 때에, 개맛, 저쪽에서 경 헌다 그러더라고, 개맛 좋은 오조리포로 강 나갑서. 열사

흘날이나 열나흘날 굿을 다 마쳐 버려, 딴 동네는. 이월, 온평리까지도, 다, 근데 보름날 허는 건, 시흥하고, 오조리, 성산이라.
@1 예.
#1 근데, 오조리가 옛날 우리 어머니 잠수회장헐 때, 어린 때 영 보면이 심방덜 아주 알아주는 심방덜 모셔당 허는디 우리 취미로 그 막 심방덜 연구답 허는 걸 듣지 안헤. 게민 들으민 그 신 내력을 얘기허는데 그건 도시리지 못할 녹음이라도 헤놔시민 지금 틀어 보믄 뭐 허주만은 옛날 심방덜 거 허는 거, 야, 역사, 미신적으로 내려온, 신화적으로 내려온 역사지만,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맞춰보면 맞는 것도 잇어. 그거 허는 거.
@1 예. 맞수다.
#1 개맛 좋은 오조리 포구로 헹 나갑서 헤근에, 오조리 포구가 옛날 어디서 굿을 헷느냐 허면은 이 엉물이엔 헌, 쌍월이엔 헌 디서 헷다고, 쌍월동산. 여기서 영등굿을 헷어. 이제 방파제 만들어 버리고, 오조리 그 양어장 둑 쌓아버리고 허니까 안 헷지. 그때는 여기서 헷단 말이야. 게민 물이, 썰물, 그 보름날 썰물이 일찍 끗나 버려이. 굿을 이제 아침 새벡부터 헤가지고 허민 저녁 한 세 시나 네 시에 끗난다고, 게믄 네 시에 끗나근에 배에 둑 실르곡 뭐, 여러 가지 음식 실르곡 뭐, 둑은 사공이라고 헤서 실르는 모양이라이. 경 헨 실렁, 배도 영등배도, 찝으로 막 무꺼 가지고 크게 만들어, 이만큼.
@1 이자락 크게.
#1 어. 이만큼헤근에 중간에 이제 중간 ᄀᆞ는대 놓고 헹 막 무껑, 돗대도 두 개를 세와. 앞에 허고, 가운데 허고, 둑 요 가운데 이제 딱 무꺼놓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음식술 실러놓고 이걸 헤서, 치, 키를 치라고 허거든.
@1 예. 치.
#1 치를 만들엉 달아 놓고 다 헤놩, 완전히 배, 낙선 모냥으로 그추룩 헤놩, 띄우거든. 게민 띄우면은 굿이 조꼼 일찍 마쳐지면은 물, 나가는 물에 이제, 한도 목 나가는 물에 잘 치영 바깟더레 나가고, 조금 늦어 불면은 역으로 들물이 생겨 가지고 들물 나근에 허민 나가지 못허는 거라. 게민 어디로 밀리느냐. 저 성산 쪽으로 밀려 불어. 성산 연안 쪽으로, 내만 성산 연안 쪽으로, 일단 여기서 개맛디서 띄웟으니까, 굿자리에서 띄워시난 내불거든. 게민 성산 아이덜 그 둑, 산 둑을 올리주게, 장둑 헤근에, 사공이라고 헤서, 성산 아이덜 학교 강 오늘 오조리서, 어제 오조리서 굿헌 둑 헤단 우리 잡아 먹엇저. 그땐 성산 합동으로, 저 우리 초등학교 뎅길 땐 성산서 헤시난에 너네 그거 먹엉 너네 줴 받앙, 너네 줴 받녠 허멍 막 경 내무려나곡 헤낫는데. 그렇게 굿을 영등굿을.
@1 거난, 우리가 여기는, 오조리 개맛디로 나가서 저쪽 우도 걸쳐근에 가는 거구나예.
#1 게난 이젠 저 바깟디서 오조리 전복죽 집 허는 디 알지?
@1 예.
#1 거기서 굿을 헤영 그쪽에서, 서방파제, 그쪽에서 배헤근에 이 막 안네 우도에서 도항선도 왓다갓다 허고 헤부니까, 저 성산일출봉 거의 바깟디 나강 배 띄와 놔, 이젠 바깟딜로.

@1 아, 이제는예.
#1 게난, 나 그건 참 잘헴덴, 머리 썽. 거 한 십오년 전부터 거 허기 시작헷는데.
@1 예. 거난 영등굿 자리도 옮기고.
#1 굿 자리도 옮겨불고, 이거 다리 놔 부니깐게.
@1 경허니까 나가지도 못헐 거고예. 삼춘 그리고, 영등에 허면, 날 좋으면 입성 좋은 뭐 왓저. 이런 표현들 헙니까? 추우면 똘 데령 왓저.
#1 영등할망이 날이 막 짓궂엉 비만 오고, 막 이렇게 헤가면 몽니 궂인 할망이나, 몽니 궂인 하르방 들어온 거 닮덴 영 골아낫주.
@1 날 궂으면예. 날 좋으면? 날 본본허고.
#1 날 좋으믄 순헌 할망 왓덴 허고.

삼월

한식 멩질

@1 아, 여기는 겅 골암구나예. 그다음에 한식 멩질 허는 것도 봐봅디가? 삼월에.
#1 한식? 한식은, 우린 일제말이니까 저 그런 거 저런 거 미신타파 허는 걸 일본 사름덜도 헷단 말이야, 총독부에서도. 거니까 한식 허는 건 안 봣어. 건디 단오는 헷엇어.

청명

@1 예전에 청명, 청명에 산담 손질 허거나 이런 거.
#1 응. 헷엇어.
@1 그건 언제 주로 헤마씨?
#1 청명은 사월 오일 전후라. 딱 그렇게 뒈더라고.
@1 예. 식목일날 전후예.
#1 응. 식목일날 전후.
@1 그때 전후에 청명에는 뭐헙니까? 보통.
#1 청명에 담 허물어진 거 같은 거 다고, 또 봉분에 테역, 테역 어떵허당 소나, 뭐나 헤불면은 파지는 것도 잇고, 게민 그걸 축, 경 안 허민 축을 익어근에 신안테 다스려 놔둬근에, 그 떼도 헤당 입히고, 비석 손질도 허고, 산담도 만지고 경 헤낫주게. 경 안허민 동티 부뜬, 탈 난다고 헤영. 게니까 청명날 헤불면은 아무 숭패가 없다. 경 헌 걸로 그, 아마 경 헷던 모양이라.
@1 무숭무해. 그다음에 쉐도 ᄀᆞ꾸는 것도 청명 ᄀᆞ르에 헤갖고 ᄀᆞ꾸기 시작허고.
#1 소 어떵?
@1 소 ᄀᆞ꾸레 가는 거. 아무래도 풀도 나야 뒈난예.
#1 그때 뒈면은 뭇쏠 같은 거 새풀이 나기 시작허주게. 경 허민 청명 전후에 헤근에 소 들에 몰앙 나강.
@1 뭇쏠이 청명ᄀᆞ르에 나기 시작허는구나예?

#1 응. 소 딱 먹을 만큼 저 이렇게 솟아올라.
@1 뭇쏠도 쉐 먹읍니까?
#1 아이, 무쏠 잘 먹어.
@1 옛날엔 밧디 하양허게 나고 막 영 헤나신디예. 아, 뭇쏠도 먹는 거구나.

사월

사월 초파일

@1 그다음에 절에는 안 뎅겨봐수과? 초파일.
#1 난 안 뎅겻는데 우리 어멍은 저 구인사옌 헤영 충청북도 제천에 잇는 구인사라고 잇어.
@1 예. 천태종.
#1 응. 천태종, 지금 삼양에.
@1 예. 문강사.
#1 우리 집에 사람 거길 막 열심히 뎅겻어. 한 해에 한두 번 꼭 참배 가고, 왜 그랫냐 하면 우리 집에 사람이 피부병을 앓앗는데, 애를, 첫딸이 지금 예순네 살인데, 첫딸 난 때하고, 첫아들 지금 예순두 살 난 아이, 그 난 때하고 괜찮앗는데, 세 번째 딸, 지금 쉰여덜, 어디 캐나다 지금 이민 가 잇는데, 가이 나면서부터 나쁜 피부병을 앓기 시작허더라고. 게난 이제 피부병이 어떤 거냐면 고기 비늘 모냥으로 이런 마디 엉덩이, 이 마디. 또 여기 무릎팍, 또 이 등어리, 꼬부렷다 영헷다 허는 등어리에 잇잖아이, 가는 허리, 이런 데 고기 비늘같이 막 푸석푸석한 게 계속 딱지가 일어나는 거라. 겡 걸 가만히 놧당 지대로 떼지면은 괜찮은데 어떵 허당 가렵거나 뭐 헹 긁어 불민 그디 피가 또 나오고, 이게 아주 나쁜 피부병이라고 내가 본 거라. 경헨 제주시 간 헤도 피부과 그런 데 헤도 뭐 주사나 놓곡, 발르는 거나 주곡 헤도 안 돼. 서울 데령 갓주. 서울 데령간 서울대학 병원에 우리 집에 사람 동창이 간호원으로 잇엇는데 거길 찾아갓어. 가니까 제주대학 피부학과 교수, 특진을 이제 빽으로 헤서 특진을 받앗어. 받앗는데 하이고, 이거 서구라파에서는 풍토병이우덴. 햇빗이 잘 안 비치고 습하니까 이게 계절병으로, 우리 감기 영헹 겨울에 감기 앓듯이 일년에 봄, 가을에 꼭 서구라파 사람들이 이걸 앓읍니다 이거라. 햇빗 맞아도 괜찮고, 음달진 디 허면 겨울에 옷 두껍게 입으면은 봄 뒈민 발작허고 또 여름에 활짝 벗엇당 가을 되엉 부석부석 ᄒᆞ쏠 피부 건조헤 가민 또 딱지 막 일멍 서구라파에서는 계절병으로 이걸 병으로도 여기지 안 헙니덴. 나보고, 애기 어떻게 헷느냐고, 사 남매 낳덴. 더 날 거 요? 아, 안 날 겁니다 허니까 게민 뒛소, 나 막 등 독독 때리멍 그 박사가 여자 이것 때문에 싫어허지 말라 이거라. 여자가 남편이 좀 멀리허는 생각을 여자가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앙 이 피부가 더 악화가 뒈니까, 아무 어디 한약방 말도 듣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약 제조헹 주는 걸, 이제 줄 거라고 게민 그걸 발르고 간호사 이시난 떨어져가거들랑 연락허민 또 보내주고 허크메 안심헹 가렌 허멍 막 달래드라고, 교수가.

그 사람 딱 그 저 도감, 세계 만병 도감을 이만큼 두꺼운 거, 딱 내놘에 딱 가르치면서 사진 멧 캇씩 이거 보라고, 영국에서는 이거 병도 아니옌. 서구라파에서는 이거 가면은 그자 우리 독감마냥 주사 한 대 맞앙 넘어가부는 식으로 그자 그때 좀 약 바르당 없어져 불고 헌덴. 아닌게 아니라 싹 없어졋어. 나이 들고 뭐허고 허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안이, 엄청나게 받은 거라, 그거 때문에.
@1 그렇주게, 이게 무슨 죽을 병 걸려신가 헷지.
#1 경헨 이제 어디 의지를 헤야 뒈겟다 헤서 절에 가게 뒌 것이 구인사드라고. 나도 이제 두 번이나 갓엇는데 경헨 허단 이젠 또 나이도 들고 허니까 그디 드나들기 힘드니까 삼양을 몃 번 갓어. 거기 갓단에 이젠 또, 드나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엇던 모양이라. 종달리 금붕사 여기 스님이 불교대학 학장도 하시고 헤여.
@1 키 조그마한 스님.
#1 이젠 나이도 좀 만헤불고 건강이 좀 안 좋은 거 같은디. 거기 헨에 우리 집에 왕, 일년에 한번 와근에 정초에 꼭 왕 기도도 헤줘동 가고.

오월

단오 멩질

@1 그다음에 오월 단오 멩질은 헤봔마씨?
#1 단오 명절은 해방 뒈언 한 저 오일육 나기 전까지 헷잖아. 오일육 나면서 생활개선 뭐 허면서 경헨 그다음부터 안 헤비언. 게고 이제 상을 나면 삼년상을 헷잖여이.
@1 예.
#1 그때 이제 일년상으로, 일년상으로 그때 헤가지고, 막 압력 가헤근에 소상 말고, 대상이나 소상이나 허는 집은 막 강 문도에 서고 헷잖아게. 대상허는 집인 막 말령. 게민 제물떡 헌 고령, 사둔집인 제물떡을 헤야 뒈지 안허여이. 게민 그 앞에는 새마을지도자들, 이 구민운동 지도자덜 영헹 청년들 막 동원시켱 그 집에 영 먼발로 사근에 지키주게. 조문 못 가게. 소상은 괜찮은데 대상은 못하게 하니까, 그걸 허민 뒷담으로 돌앙 제물떡, 사돈은 헤야 뒈거든, 사돈은. 게민 제물떡을 그 담 너머로 넘경 어머니가 육십오 년도에 돌아가셧어, 육십사 년도에 돌아가셧어. 그런데 내가 재경국민운동 성산읍 상인 간사를 헷거든. 사무총장, 사무국장 대기지, 성산읍. 책임자를 헤놓니까 내가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겐 소상만 허고 대상은, 형님이랑 누님네가 난리가 난 거여. 너 오지 말라, 우리만 모시켜. 대상을 이제, 그 상복도 입은 사람 바깟디 나뎅기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만 허는 거라. 우리 장모님이 제물떡 헨 저 뒤로 돌안에 제물떡 가정간 온 적이 잇어. 그렇게 경 헨 그 풍습이 오일육 이후에 점점 엇어젼. 많은 농촌 생활 미신에 대한 거든지. 신앙에 대한 거든지 이런 풍습이 많이 업어져 버렷지.
@1 게닌 일제시대, 우리 사삼, 그다음 오일육 요런 거 때문에 지역에 문화들이 변화기도 하고예.

#1 오일육에 너무 심하게 헤부난, 그다음은 좀 국민들 불만 없애젠 뭐 포제도, 아, 포제도 중간에 못하게 헤나지 안헤서게.
@1 예.
#1 못하게 헤낫어. 겨단 이제, 노태우 넘언에 김영삼 뒈면서 차츰차츰 풀어지기 시작헤연 지금 포제도 허게 뒌 거주. 중간에 한 이십 년 못 헷잖아게.
@1 예. 맞수다.

단오 제사상

@1 아까 단오허단 얘기 헤신디예. 단오 때는 무신 거 출려마씨? 단오 때는.
#1 단오 때도 그냥 명절같이, 뭐 별따로 뭐 허거나 허지 않고, 그냥 명절 지내듯이그냥, 추석이나 단오나같이, 근데 아무래도 본제는 이제 정월 명절하고, 팔월 추석이난에 단오는 좀 음식이 간단헨게.
@1 여기는 메물은 어떤 것들 헤마씨?
#1 메물, 뭐, 콩나물, 미나리, 무채.
@1 고사리
#1 응. 고사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경 헤근에 이제 묵적살, 묵적살이라 그래서 묵적에 영 묵 잘르단 남은 그 끄트머리 헹, 그걸 묵작살, 작살 허더라고이.
@1 묵작살예. 묵작살은 따로 올립니까? 아니면은 ᄀᆞ치 올립니까?
#1 영 보면은 고사리에 같이 겸을 잘허더라고, 딴 탕쉬에 허지 않고, 고사리에 잘 옆에 놩.
@1 게믄 삼춘네는 식게할 때나, 뭐헐 때 다 이 메물예. 탕쉬들 다 따로따로 올려마씨? 고사리 따로, 콩나물 따로 이렇게 헹예?
#1 응. 묵작살도 따로, 게민 혼합하는 게 미나리하고, 콩ᄂᆞ물이, 또 시금치나 허민 그거 겸하거나, 호박에 또 이제 무채를 영 ᄀᆞ치 서끄나 경 허민 네 가지 다섯 가지 뒈잖여.
@1 아, 따로 올리기도 해서 겸하게 헤서 올기도 하고예.
#1 응. 겸헤영.

유월

유월 스무날

@1 유월엔 우리 제주돗말로 ᄃᆞᆨ 잡아먹는 날 잇엇어예?
#1 유월 스무날.
@1 유월 스무날은 ᄃᆞᆨ 잡아먹어수과?
#1 아니, 삼계탕 헹 먹주게. 불렁 식당에라도 시켜근에.
@1 요즘은. 거난 초복 이런 때 안 헹 유월 스무날 먹어마씨? 삼춘넨?
#1 응. 유월 스무날 전후 헹 꼭 맞추멍 이젠 나이 들어 부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꼭

ᄎᆞ례 출리고 싶지 안허여.
@1 게도 예전에는 유월 스무날 둑 잡아먹는 것이 큰 행사 아니라나수과예?
#1 아, 핑계가 무시거 특별식을 먹을 핑계가 엇이난 그거 괜히 핑계 만들어놩 허는 거주. 평상시에도 먹고 싶으민 둑 잡앙 먹고, 쉐 잡앙 먹곡 허는디.
@1 게도 옛날엔 먹을 거 엇이난.
#1 옛날은 먹을 거 엇이난, 딱 그거 여름 닥쳥 초복, 중복 사이거든, 그게. 게난 땀 내고 뭐허젠 허면은 기운 출려야 뒈난에, 그 보기탕으로 이제 둑 잡아먹엉, 힘 차려야 된다 헤서 아마 경 유래가 된 것 같아.
@1 게난 유월 스무날 먹젠 허멍 집이서 둑도 질르고 허지 안헤시카예?
#1 일부로 사다 놩 길르는 사람 잇엇어.
@1 아, 삼춘네는 그렇게 안 허고.
#1 우린 뭐,
@1 옛날 삼복 더위들 물리치젠 허민 어떤 식으로들 물리쳐신고예?
#1 저 여긴 해안이난에 우미 솖은 거 잇잖여, 우미가사리 삶앙 그 우미묵, 그것이 이제 여름에 더위 식히는 음식으로 많이 썻주.
@1 아, 더위 깨젠 허민 우미헹예.
#1 응. 식초 놓고 간장헹 풀어놩 그거 세우리 좀질게 딱 썰어놓고 허면은 지금은 얼음 이시난 허지만은 그때는 얼음이 엇엇거든, 게난 그냥 찬물 놩 그냥 그걸 훈 그릇 먹으민 올케 더위가 싹 가주게.
@1 제주 사람들은 우미를 헹 먹은 거라예.

조 불리기

@1 삼춘 혹시 조 불리기도 헤나수과?
#1 조 불려낫지.
@1 건 언제 조 불려마씨?
#1 조불리는 건 유월절, 전 삼일, 후 삼일 허주. 게민 유월절이 유월 음력으로 한 오륙일에 드는 수도 잇고, 십일에 드는 수도 잇고 허여. 저 윤달, 음력으로 윤달 잇어부니까, 양력하고 맞추면은 칠월 한 십일 전 후 뒐 거라. 칠월 오일부떠 칠월 십오일 사이에가 그 밧 불리는, 조 불리는 시기가 뒐 거라. 게믄 조 불리젠 허민 동네에 말이나 쉐 많이 가진 사람이 잇주게. 게민 그 집엔 또 장남 데령, 물테우리옌 헤근에, 쉐테우리, 물테우리옌 헤근에 테우리가 물 봐주고, 쉐 봐주는 장남 구실 허는 사람이, 물테우리, 쉐테우리라. 방송에 나온 거 보민 뭐, 목장에 물이나 쉐나 올령 방목헤 놓민, 그 돌봐주는 그것이 물테우리, 쉐테우리주게. 쉐 에우는 딘 쉐테우리, 물 에우는 딘 물테우리, 게민 여기 동네 말하고 소하고 따로따로 허는 디는 잇어도, 소는 한 열 마리 기르는 사람이 엇어. 겐데 말은 한 이십 마리 삼십 마리 길른다고, 게민 그런 걸 빌엉 밧 불리주게.
@1 조 불리젠 허민 밧을 갈아근에.

#1 초불 갈앙 그다음 이제 두불, 초불 갈앙 이제 검질 그 막 봄에 낫던 풀 남아잇는 거 그거 다 헤동, 두 불째 갈면서 그 좁씨를 뿌리거든, 뿌려 놩 두 불째 갈거든, 게민 이걸 끌레기옌 헌 게 이서이. 끌레기, 저 나뭇가지, 놀낭가지 조금 굵은 거, 막, 영 헤근에 타박헌 거 헤놩, 그걸 터배 무끄듯이, 떼배 무끄듯이, 조그맣게, 이거보다 크게도 허고, 이만이도 허곡 헤영, 이디 끈 딱 무꺼놔동, 이레 짝허게시리 가젱이 막 벋게 헤놩, 가벼우면은 잘 흑이 굴라지지 안허잖아. 돌멩이도 여기 얹히고, 낭토막도 얹히고, 겡헹 그걸 ᄀᆞ루 막 끌주게.
@1 예.
#1 겡 그추룩 헹 내부는 사람도 잇고, 조는, 이걸 붋아줘야 뒈는 것이 왜냐면, 여름엔 가뭄이 많이 들고, 땅이 빨리 말르지 아녀. 게믄 씨가 나곡, 풀, 곡식 발이 빨리 벋젠 허면 밟아주는 게 좋다 헤가지고 경 헨 소나 물로 걸 붋아주는 거라.
@1 게난 끌레기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불라주기도 하고예.
#1 응. 경 안 허믄 끌레기 안 헤영 그냥 불리곡.
@1 아, 경 안 헹 불리기도 허고.
#1 응. 그냥도 불리곡, 정성 들이는 사람은 끌레기 헤놩 불리곡.
@1 예. 게민 조 불리거나, 테우리 빌엉 헐 때는 제도 지내마씨?
#1 아니.
@1 그런 건 안 허고?
#1 안 허여.
@1 게도 테우리안테 밥덜도 잘 헹 먹여야 뒈곡.
#1 아, 게야주게. 그날은 막 곤밥 헤당 멕여야 뒈여. 고기 구곡 막 경헹 특별히. 경헹 이제 삯 얼마, 물 부리는 삯 얼마, 요청헌 대로 주고. 그걸, 물을 못 빌민 쉐 잇는 집이, 너댓 집 동넷사람들이 서로 수눌음을 허는 거라. 게민, 송에기 일수, 두 살 난 송에기도 이제 이 목에 무꺼근에, ᄀᆞ찌 헤영 그걸로 쉐로, 흔 댓 마리로 밧을 불리는 거라. 돌아가멍 헤주는 거라. 오늘 우리 집, 내일 느 집. 거난, 그때 전 삼 일 후 삼 일 헤놓니까, 일주일 사이에 막 거의가.
@1 그렇지, 동네.
#1 겨당 어떵 허당 비 와 불곡 헤불면은 이거 소 발린 거는 그냥 완전히 막 땅이 쉣덩어리 모냥으로 얼켜불 수가 이서. 소는 무거워 놓니까 말은 가벼운데, 그래서 말을 선택허는 거지. 밟는 거는.
@1 물 이제 빌리지 못허난 경 헴구나예.
#1 응. 게민 이제 홀어멍이나, 뭐 빌지 못헌 사람은 아까 끌레기로 그냥, 끄서귀옌 허주게, 끄서귀. 끄서귀.
@1 끄서귀예. 끌레기가 아니라 끄서귀. 끄서귀로 헤갖고 이제.
#1 끄서귀로 기냥 끗엉 기냥 내부는 거라.

칠월

칠월 칠석

@1 칠월 뒈민 칠석날은 뭐 헤신고예?
#1 칠월 칠일 음력으로 칠월 칠일, 칠석 허는데, 칠석은 별로 난 뭐, 경험 그런 걸 헤보질 못헷는데.
@1 혹시 영혼들을 위헤서 제지내거나 이런 거는 엇인가마씨?
#1 그런 거.
@1 그런 거는 안 헤보고예.

백중제

@1 백중은 어떵 헙니까?
#1 백중은 음력 팔월 십사일을 백중이엔 허주게.
@1 아니, 음력 칠월 십사일.
#1 아, 칠월 십사일. 칠월 십사일을 백중이엔 허는디 백중에는 말, 소 이신 사람은 그날 제, 제 올려. 드르에 나강.
@1 건 어떤 식으로 헹은에 올리는 거우꽈?
#1 아, 그냥 급히 헐 때 모냥으로 그냥 메하고, 고기 굽곡, 술 가지곡 헹 드르에 나강, ᄆᆞ쉬 ᄀᆞ꾸는 팀덜이 잇지 안허여이. 그거 아까 동네별로 헌덴 헌 거, 그 끼리 강 모여근엥 저 지만씩 벌려놩 그자 내지. 절은 안 허고.
@1 예, 절은 안 하고.
#1 응.
@1 예. 그날은 테우리.
#1 소, 말이 잘 어떻게 뒈도록 경 허는 거주게.
@1 게난, 건 누게안테 제 지내는 건고예?
#1 아, 소 귀신안티 허는 거지, 물 귀신안티. 소를 다스리는 귀신, 물 다스리는 귀신.
@1 게난, 그런 귀신도 잇엇구나. 게민 백중에도 당에 가거나 이러진 안헙니까? 이 동넨?
#1 당에 가는 사람 잇는지 몰라도, 절엔 가. 백중제 불공은 많이 허더라고, 절마다, 게난 그건 많이 봐.
@1 절에도 가고예. 그다음에 여기도 모래, 해안에 모래가 이수과? 이 동네도.
#1 오조리 해안은 없고, 저 고성하고 성산 사이에, 어, 오조리도 잇주. 저 시흥리 경계에 우리, 성산고등학교 잇는 아래, 저 시흥리 경계, 종달리 가는 그 해안도로 그 아래, 모래.

모살뜸 · 물맞이

@1 이 동네도 여름에 모살뜸들 헤신가마씨?

#1 모살뜸 잘 안 헤여.
@1 안 헤여. 게민 더위 때는 뭐헤? 물 맞으러 가거나 이런 것도 헤?
#1 물맞이, 족지옌 헌디, 거기 물 맞는디 이젠 안 헤여. 그 막 올레길 헨에 거기 막 한밧이 뒈부니까 여자들, 옷이라도 입엉 앚으민 뒈는디 안 헤여, 안 헤여. 이젠 물 맞는 거, 그거 안 허더라고.
@1 예. 게난 그 족지에가 물, 시원헌 물들 낫구나예.
#1 어.

처서

@1 처서 이런 말 헤갖고, 처서에 대한 이야기도 이수과? 처서, 가을 들면.
#1 아, 처서, 처선 더위가 간다고 헤서 처서, 어디 갈 디가 없다고 헤서, 가을 들어가는 문턱에 처서거든, 처서에 특별한 무슨 그런 행사를 하거나 허는 건.
@1 속담, 처서에 허민 모기 주뎅이도 어떻게 헌다. 검질도 뭐 그런 말은 안 들어보고?

팔월

벌초

@1 팔월엔, 삼춘, 옛날 팔월 초ᄒᆞ룰날 뭐허는 날이라나수과?
#1 팔월 초하루, 뭐 허는 날이라고 헷더라.
@1 옛날 소분허는 날. 벌초방학.
#1 아, 그건 팔월 초하루 전후에 건 벌초, 소분, 소분. 벌초가 아니고 소분, 분이엔 헌 건 묘를 말하는 거고, 소는 청소한다고 헤서 묘를 깎는다고, 저 쓸어낸다고 헤서 소분.
@1 예. 옛날엔 소분헌덴 헤신디.
#1 소분밧, 소분팟이라는 얘기가 잇어. 조상안테서 물려받는 그 밧을 소분팟이라고 허거든.
@1 아, 이 동네는 겅 굴읍니까? 그 제월전예?
#1 응. 조상안테서, 소분하면서 자손 노릇헤주라고 물려주는 밧이다 헤가지고, 소분팟이라고 그렇게 의미가 새겨진 거거든.
@1 겐, 그 소분팟 물려받은 거는 누게안티 물려 받는 거. 종손?
#1 장자. 종손안티. 경 허고 이제 가령 양자를 데렷다거나, 자기 자식에게 또 자식이 죽어가지고 양자를, 양자 손이 뒈는 거지. 경 허민 그 조상, 하르방이 가졋던 밧을 양자 손지안티 주주게. 게민 소분밧 뒈는 거주.
@1 소분팟, 예. 삼춘네는 소분헐 때 가지 소분도 허고, 문중 소분도 허지 안헙니까 예. 어느 거 먼저 헙니까? 벌초헐 때.
#1 가지 소분부터 먼저 허주게. 가지 소분부터.

@1 아, 가지 소분부터예.
#1 게난 팔월 초하루가 본소분 저 선묘 산에 종, 종묘 산에 벌초허는 날이라 허민 그 전에 가지 소분은 다 헤불주게. 그게 상례고, 그다음에 요즘은 막 직장 생활허고 뭐 헨, 가르삭산이 삐어젼 헤부니까 소분허는 그 초하루 맞춰근엥 서울서도 오고, 어디서도 오잖여, 자손들이. 경 허믄 소분헤난 다음에.
@1 원래는 가지 소분부터 헌 다음에.
#1 가지 소분도 먼저 헤영.
@1 도 소분은, 문중에.
#1 저 소분을 나중에 모영 문중 소분을 허게 뒌 거주게.
@1 삼춘네는 경 헴수과?
#1 응.
@1 그 문중 소분헐 땐 완전 대부대옌 허멍예?
#1 대부대는 우리도 저 우리 현씨가 거로파 제주시 중심으로 거로파가 잇고, 그다음에 신산파라고 두 번째 세파가 신산판디, 서귀포 서홍리, 남원, (중략) 양이막이라고 말파, 세 번째 동생이 이제 양이막이라고 헤서 현○○ 의원네, 여기 지금 현○○네 거기가 양이막파주게. 신천, 온평, 시흥 우리 성산읍에 굉장히 많아. 건디 우리 신산 찬 신산하고, 오조리, 시흥리 이번 도의원 뒌 저 현, 우리 손손자, 육촌 형님의 손자, 손손자 뒈는 아이가 이번 도의원 헷는데, 저 우리는 신산까지 못 가는 거라. 어디냐 허면은 수망리에 만이천 평 그 좌전이 잇고, 거기 숭조훼관 짓고 경 헷어. (중략) 우리 모금을, 마을마다 모금을 헷잖여, 그 당시에. 회관을 짓젠 허난, 위미리에 재일교포가 삼천만 원을 딱 꼽안 내놔분 거라. 현 무슨 수여만은, 그 양반이 내놔부니까 쉬웠지. 모인 게 한 거의 이억 멧천 모아져 가지고, 처음에 한 오십 평 정도 창고만이 허게 짓젠 허단에 팔십오 평짜리 완전히 홀 만들어 비언. 거기서 제사 지내.
@1 모든 행사를 거기서 허겟네, 숭조회관.
#1 우리 문중에 재산이 좀 잇어요. 저쪽에 토산일리도 잇고, 아 저 토평일리도 잇고 저 법환이도 잇고, 땅 그것만 헤도 남원이 그것만 헤도 뭐 만이천 평이난 뭐, 엄청난.
@1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네 현칩이.
#1 가지 못헤. 가지 못헤 이젠. 나 그전엔 참석헷는데.
@1 게난 그 문중 벌초를 모듬벌초렌도 골읍니까?
#1 모듬벌초.
@1 모듬벌초렌도 허고예.

구월

@1 구월에 뭐 허는 것도 이신가마씨? 이 동네. 음력 구월에, 다른 데 가면 당에도 가고 헌덴 허긴 허는데.
#1 구월, 시월을 뭐 상달인가엔 허는디.

@1 예, 시월 상달.
#1 구월을 상달로, 영 민속적으로 구월을 상달로 치더라고, 구월에 그 여름에 잘 안 뎅기던 당에도 가곡, 그 저 바닷가에도 가곡 허데. 우리 물건 풀아보면, 추석 전에나 후에나 헤근엥 뭐 사다 놧다근엥 바닷가에 강 술곡 뭐허곡 허는 거, 구월달에 허는 모양이라.

팔월 멩질

@1 아까 추석 안 들언. 팔월 멩질헐 때는 어떵, 뭘로 어떵헙니까?
#1 팔월 멩절은 그냥 뭐, 계절 음식 그냥 허는 거지.
@1 예, 특별하게 그때 뭐 따로 올리는 건 엇어마씨?
#1 특별하게 더 허는 건 엇어.
@1 아까 정월 멩질 허듯이.
#1 응. 꼭같이 헤. 비중을
@1 겨울에 식게허고, 팔월 식게허고는 계절 때문에 여기 상웨떡 같은 거 헤근에 허진 안헙니까?
#1 응. 헤여.
@1 그거는 언제 헤마씨?
#1 상웨떡은 여름에 허주게. 봄부터 가을까지.
@1 그러면 추석 때도 그거 허여? 팔월 멩질에.
#1 추석까지도 허여. 게믄 지금 상웰 귀찮앙 잘 안허지 안허여. 누룩 같은 거 쑤젠 허민 거 뭐 발효제 그거 잇는데, 그것들을 안 쓰드라고, 파우단가, 베킹파우단가 그런 것들, 주부들이 이젠 간세헤근에 그런 걸 안허여. 겨민 낭웨라고 헌 떡이 이서이.
@1 낭웨 예, 이렇게.
#1 꼭 상웨떡같이 이제 부글부글 부푼 거 아니라이 쌀로, 쌀가루로. 그거 사당 그냥 문친떡 그거, 시루떡 안하고, 그 낭웨만 헹 그 위에 솔벤 절벤도 영 올리는 것도 잇고, 정월초보단, 정월 일월 일일 멩질보단 훨씬 좀 부담감을 가볍게 헹 차례를 준비허는 거 닮아.
@1 예, 팔월에 아무래도예. 또 일도 많고.
#1 게고 여름이고, 여름이고, 이제 수확이, 사실상은 지금 봉급젱이들 하고 달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확기가 넘어야지 뒈는 거 아니라. 게난 시월달 넘어야 돈이 들어왕 뭐 장만허젠 헤도 쉽게 장만헐 거난에 정월 명절하고 좀 차등이 그런 게 잇는 거 닮아.
@1 암만헤도 겅 헐 거 닮아예.

시월

동지

@1 그다음에 시월 상달에는 당에 가고, 십일월 동지 헐 때는 어떵 헙니까?

#1 동지죽 쒕 그 올레, 또 문간 앞에, 귓돌에 영 뿌리곡 허더라고.
@1 아, 삼춘네도 그거.
#1 응. 우리 어멍 헤여. 꼭 헤여. 여자들은 놈이 집에, 저 동지, 죽은 ᄀᆞ찌 ᄂᆞ놔먹어.
@1 꼭 그 풋죽을 꼭 쒀근에 문에도 허고, 올레에도 강 뿌리고예. 거는 무사 헌덴 헤마씨?
#1 잡귀신이 빨간색을 싫어한다 이거라. 붉은색을, 게난 그 죽이 붉은색 아니라이. 게난 동짓날 귀신이 옮겨 뎅기는 걸 방지하기 위헤서 아마 동지를 전후헤서 귀신이 뎅겨낫는지, 뭐헷는지 그 유래를 잘 모를건디 아마 경헨에 그 풋죽을 헹 올레허고 어귀 이런 디 영 케뿌리는 모양이라. 숟가락으로.
@1 숟가락으로 케뿌리는 거를 본 거라예.
#1 응, 꼭 우리 집이 사람 그걸 헤여. 어멍, 우리 가시어멍이 경 헤나난.
@1 아, 우리 지금 게믄 사모님도 경허고, 장모님은 원래 어디? 고향이.
#1 여기, 오조리 부씨.
@1 아, 오조리 부씨, 제주 부씨구나게.
#1 응. 제주 부씨.
@1 게믄 지금도 그렇게 팟죽 헤갖고 헴구나예. 혹시 풋죽 안 쒀 먹는 날 잇덴 헌 말 들어봅디가?
#1 풋죽을 안 먹는 날? 기피허는 날? 일부러?
@1 아니. 기피허는 게 아니라, 동지는 동지라도 풋죽을 안 쑤는 날.
#1 아, 그 얘길 들어보긴 들어봣는데.
@1 예, 애기동지렌 헹.
#1 응. 애기동지라고 헤서, 그냥 넘겨 불엇어. 동지 돌아오는 해에 그게 뭣에 나타나는지 애기동지, 올린 애기동지 해여 허는 얘기를 들어보긴 헷어.
@1 예. 애기동지옌 풋죽 안 쑨다고, 게난 그건 음력으로 십일 이전에 드는 건 애기동지렌 허고예.
#1 초승에.
@1 그렇게 헌덴예. 그다음에.
#1 초열흘 안에 들민 애기동지라고.

십이월

납평날

@1 예, 십이월 뒈면 엿들도 하영 헤 먹엇잖아예?
#1 납평, 납평이라고, 납평.
@1 납평예.
#1 남평, 남평 흔히 곧는디 한자를 보니까 납평, 납평이라고 그렇게 헷더라고.
@1 예, 게난 남평날 헐 때 엿 허는 것도 봐난마씨?

#1 응. 엿 계속 헤낫어. 요샌 안 허는데 요 저 한 이십 년 전만 헤도 장모님 살아계실 땐 엿을 꼭 헙센 헤근에 끓엿어.
@1 아, 장모님이 그런 걸 잘헤낫구나예.
#1 응. 장모님이 우리 사남매 다 키워줫잖아. 스무, 서른다섯에 딸 둘 넹겨근에 우리 장인이 남양 군도 저 말레시아 그쪽에 보루네오 거기 징용 당헤가지고 일본 군속으로 갓다가 해방이 딱 뒈서 미군이 점령헤 가지고 포로가 뒌에 부산으로 보내왓어. 게난 그것이 천구백사십오년 십이월달에. 남양 군도에서 이까지 미군 군함으로 오젠 허니까, 상당히 수송선으로 오젠 허난 오래 걸렷잖아게. 겐 그동안에 굶고 뭐 헤부니까 폐결핵이 걸려버린 거라, 우리 장인어른이. 게난, 부산항에 딱 들어완 연고를 찾는데 우리 그, 처고모부가 부산에서 청명당이라고 헤서 큰 책방, 일제 때, 거 무슨 동이니, 저 부산 그 지금 뭐 국제시장 잇는 그 우에, 거기서 저 큰 책방을 일제 때부터 헷던 모양이라, 서점을.
@1 아, 예.
#1 거난 이제 우리 처고모가 어디 갓단에 한국 사람들 남양 갓단에 막 잡힌 사람들 미군들이 데려완에 부산 부두에 막 지금 난리낫덴 헴저 허난, 우리 장모님이 이제, 거기 남편도 일본 거기 출정헨에 행방불명 뒈고 똘 형제만 데리고, 어린아이 데리고 잇단에 딱 귀가 쏠린 거라. 겐 이젠 시누이하고 가봅주 헤서 간 거야. 간 이제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군들하고 뭐헨에 허는디, 간 이제 뭐 허니까 이름이 뭐냐고, 남자 이름이 뭐냐고, 이만저만 허연 일본 이름 야쓰다 이제 하나교라고, 화옥이라고, 강화옥이라고 헤서 일본말로 이젠 허고, 한국말론 강화옥이라고 헨. 한참 한 대여섯 시간 찾아렌. 저녁 한 여덟 시쯤 뒛는데 들어와 보렌.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체가 뒈 가지고 바짝 말라깽이 헨에 시체가 뒌에, 가운 닮은 거 영 입현에, 눕형 눈만 팔롱팔롱 헴서렌. 게난 이젠 그 시누이가 부자로 책방허면서 부자로 사니까 우리가 연고자니까 데려가겠다. 우리가 가서 치료를 하겟다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헐 거 아니라게, 인수증인가 뭔가 찍어둰에 데려완 병원 왓는데 결핵이 워낙 심헤노니까 회복이 안 뒈언. 한 일 년반쯤 살다 돌아가셔 비언게. 게난 우리집이사람네 형제가 홀어멍 밑에서 헷는데 내가 홀어멍 큰딸하고 결혼헨 처가살이를 헷잖아.
@1 예, 그렇구나.
#1 처가살이 난, 저 사형제 육남매 막낸데 집 다 불테와 불엇지.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일찍 돌아, 저 형님 돌아가신 다음에 화병 나가지고 죽어버렷지. 어머니가 살아계셧지만은 큰형님 밑에서 겨우겨우 살앗거든. 우리 조상 때부터 족은아들이라부니까 재산을 안 주더라고. 큰아버지넨 땅 헨에 막 팔아먹으멍 부산 아들들이영 으쓱으쓱 헹 사는디, 우리 사촌형님덜. 족은아덜 하나도 안 줫더라고, 아 훈장허멍 막 대대로 삼대로 훈장헤 온 어른들이 말이야. 그 족은아덜을 아무것도 안 준 거야.
@1 옛날에는 다 장자들안티만 다 주니까예.
#1 겐 처갓집에서 나가 할 수 없이. 유독 여기 오조리서 연애를 헤가지고 성공헹 결혼한 게 우리 부부야.

@1 아, 우리 사모님도 잘도 고우켜, 게믄예.
#1 고운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 소인극 연극을 중학교 때부터 허게 뒛는데 그 처제를 초등학교 육학년 때 스카우트 헤 가지고 연극을 그 아역을 시켯어. 겐디 그 사춘 형제가, 한 살 맏이 사춘 형제가 잇엇는데 그 애하고 둘이가 노래도 잘 불르지, 얼굴도 예쁘지, 연극도 시키믄 잘헤. 겐 그 처제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를, 이제 마누라가 나에게 접근을 허게 뒌 거지.
@1 예. 잘생긴.
#1 어. 난 상당히 순박헤낫거든, 순박헤낫어. 아까 얘기 헷주마는 여자 영 얼굴 마주치민 얼굴 새빨갱, 난 영 외면헤 불곡 헤난디 어떻게 연앤 그렇게 헤지더라고. 겐데 주위에서가 이젠 경허민 친구발로 영헹 얼키고, 우리 어머니편으로 또 그쪽하고 엉킨, 육춘이나 오춘이나 이제, 여자들 잇잖아게. 게난 수군수군헨 저것들 연애허당 실패헤근에 안 뒌다. 이런 얘기가 쫙 퍼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들은 거라. 야, 느 누게영 연애헴시? 허난 나 아니우다 허난, 너 누게 ○○이영 연애헴젠 허멍, 연애헹 성공헌 사름 엇나, 허지 말라. 경 허고, 그디 권당이여. 어떵게 뒌 게, 하르방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육촌 형제가 뒈는 거라. 우리 할머니가 그 강칩에 시집을 갓기 때문에, 거기도 하르방이 살아 계셧어, 하르방이. 거난 우리 아버지하고 육촌 형제라. 거난 손자고, 난 아들이지만, 게믄, 칠촌에다가, 팔촌에다가 이렇게 뒈는 거거든, 우리 눈 산 땐 안 뒌다, 이렇게 뒌 거야. 거난 동네서들 어떠면은 좀 시기 비슷하게, 저것덜 보라. 저것덜 결혼 못 헌다. 막 수군수군헌 거라. 내가 오기가 딱 나더라고.
@1 예.
#1 그리고 이제 나가 문학을 좋아헤 가지고, 흙이니, 청춘극장이니, 막 학생 시절에, 그 소설이 처음에 나온 거 다 연애소설 아냐. 그걸 막 익어 가지고, 오기가 난 거야. 상록수, 또, 상록수, 농촌 운동허는 책, 그 채명신, 채 무슨 신이여.
@1 채영신.
#1 채영신. 그런 소설을 막 익어가지고, 딱 독이 올른 거라. 기어코 난 헤야 뒈겟다. 나가 맞진 안헷지. 왜냐면 저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홀어멍 딸이고, 다 주위에서가 느 허지 말라. 느 장차 대학교까지 가곡 막 헐 건디 이제부터 경 헴시넨, 이런 식으로 우리 사촌 누님이랑 막 그렇게 말린 거라. 경 헤도 오기가 생겨 가지고, 지금 집에사람허고 결혼을 헷어.
@1 헹 보난 잘헤수게.
#1 잘 헤진지 몰라도, 자녀를 사남매를 얻은 거는 난 참 잘헌 거 닮아. 우리 큰딸은 남원 신흥일리에 시집 갓저.
@1 여우네.
#1 여우네옌 헌 디, 잘도 알암저. 거기 헨 아들 형제 낳고, 전처에 스물여섯에 딸 나둰 죽어분, 서귀포 거기도 강씬데, 서귀포 여잔데 스물여섯에 유방암인가 뭔가 걸려 가지고 죽어 버렷더라고, 겐 딸이 네 살 때, 우리 집 딸이 재혼헨에 길럿잖아. 낼모레

내년에, 신년 뒈민 사월 십오일날 잔치를 허게 뒀어. 우리 다음에 개가헹 간에 난 아들덜은 지금 스물네 살허고, 스물한 살, 형제. 아주 아이들 착헤. 경헨 사남매 얻고, 또 장자에 장손은 또 지금 서른아홉인데 제주대학병원에 뎅기는 간호사하고 결혼헤 가지고 딸 둘, 연년생으로 딸 둘 낳어게.
@1 게도 뭐.
#1 아 게난, 요샌 여자아이덜이, 애길 많이 안 낳젠 허잖아. 할망은 은근히 장손이니까 아들 하나를 바랫는데, 요번에도 아이들 데련 와시난 야, 느 이번 훈번 나 보라. 아들이나 혹시 나질 거 아니냐 허난 아인, 막 영헨 외면헨에 헨게, 우리 손자는 애기 하날 더 보고 싶어허는 거 같아.
@1 예, 게민 언젠가는 납니다.
#1 나젠 헴수과게, 어떵 길릅니까 허멍, 정부에서 돈도 지원헤 주곡 허는디 애기 나민 돈도 지원헤 주곡 허는디, 경헨 거 헷는데, 주로 장모님이 허는 그걸 많이 봣어. 나 직장생활 헤불고, 국민운동 헤부니까 막 미신타파니 뭐니, 그때 막 부르짖엇단 말이야. 게노니까 그런디 관심을 둰. 집에사람 절에 뎅기는 것도 막 싫어헨에 말려낫어.
@1 삼춘 납평날 엿헤근에, 혹시 그 엿헹 종기에 붙이고 허는 이런 얘기는 안 들어보고예?
#1 엿을 좀 뿌린다 그러더라고, 엿도, 숟가락으로 헤근에 집 주위 돌아가멍.

신구간

@1 그다음에 우리 신구간, 이사 하영 뎅겨봅디가? 신구간은 뭐 허는 날이 신구간이렌 헙니까?
#1 신구간, 이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지배하는 우리 인간세계에 그 저 임무교대를 허는 그런 거, 아니면 일년을 통헤서 결산을 하는 보고, 파견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신이 가서 옥황상제안티 일 년 동안 결산헤서 보고하는 기간이, 일주일, 그렇다고 허잖아. 정월 메칠, 무슨 날부터 무슨 날까지 헤서.
@1 대한 후 오일부터 입춘 전 삼일까지.
#1 일주일인가, 오일인가.
@1 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1 헤봣어, 이사.
@1 이사예. 게난 그날을 이사허는 이유가 뭐라마씨?
#1 이사허는 건 전통적으로 이사 기간에 집을 비워 주고, 인계인수를 헷잖여. 남이 집 살던 사람이 가불면, 내가 집을 삿는데 그 사람이 꼭 신구간 뒈야 나갓단 말이야.
@1 게난, 무사 신구간에 허는 거? 아까 신들 가부난?
#1 여기서 처갓집에서 살다가, 동남에 이제 초가집 잇는데 오일시장 지금 보건소 헤난 집 앞에, 거기 오일시장, 거기 터가 나와 가지고 거길 사게 뒌 거라. 사게 뒀는데, 오십 평짜리 사게 뒀는데, 거길 사가지고 이제 집엣 사람이 장사를 하니까, 포목 장사를 하니까, 오일시장 바로 맞은편이라. 초가가, 식당허던 자린데, 거기를 사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신구간 봣잖아. 비워주는 사람이 그때까지 허고, 또, 그렇게 헤야 뒌다고 헤서. 아무 때나 이사가는 게 아니라고 헤서, 또 방오를 보는 게 잇어. 금년 나 운수에.
@1 막은방이냐, 튼방이냐?
#1 응. 막은방이냐, 튼방이냐. 그것도 봐야둼. 그 택일 볼 때, 게난 이제 뭣도 잇드라고, 일종에 위장이지. 너 여기서 동남 가젠 허민 남방이니까, 남방엔 금년은 막은방이여. 가지 말라 허민, 내가 서쪽으로 수산 길로 가, 수산으로 강 곱앙 들어오는 거라. 게민 남이 안 둼고, 저쪽으로, 난 서쪽으로 가근엥 영헨 허민, 동으로 오면은 꺼꺼오민 남방 둼는 거거든, 그것도 택일 보는 사람이 다 굴아줜게. 피하는 방법.
@1 아, 삼춘이 그때 헤근에 수산으로 헨 갓구나.
#1 응. 아이덜 둘안에 돌안 갓주.
@1 게난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가져가는 건 무시거부터 가져가렌 갑니까?
#1 이사헐 때 뭘 가져가신고? 이사갈 때 맨 처음 뭘 들여놓더라.
@1 불, 불. 솟이나.
#1 솟단지, 솟단지를 먼저 가져가. 뭐 여자가 건 챙겨놓니까 난 걸, 솟단지 챙겨, 먼저 챙겨가. 거기 쏠 놓곡 뭐 헤근에.
@1 예. 이사가는 집에 갈 때는 무시거 들렁 갑니까?
#1 이사가는 집이 갈 때는 저 화장지, 뭐 비누 같은 거, 이런 걸 헷주게. 우리 때에는 어른덜토 경 허고, 겐디 지금은 무시거 그런 거 찰리질 안허더라고.
@1 다 돈.
#1 돈으로. 화장지나 세제나 그런 거 헹 부지헹 강 올렷는데, 줫는데.
@1 성냥 이런 것도 가져가고예.
#1 응. 성냥도 가져가고, 불같이 일어나라고 헤서 그걸 하고, 세제 같은 건 깨끗이 묵은 거 다 씻엉, 때 같은 거 씻어 불렌 헹 거 가져가고, 그렇게 헌 거 같아. 그런 뜻이 이신 거 같아.
@1 그러면 삼춘은 살아오면서 계속 직장생활 헷구나예, 농사짓거나 그러지는 안허고?
#1 농사 겸업헷지. 내가 맨 처음, 군인가기 전에는 농가에 출신이니까 어머니네하고, 아버지네하고 농사, 어린 때부터 경험을 헷는데. 그다음 부산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에를 꼭 가야둼겟다 헤서 해군사관학교 지원헷는데 칠십팔대 일이라. 육이오 직후에, 환도하기 직전엔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부산에 막 쏠련, 피난 와부니까, 해군사관학교가 공짜 아냐, 사관학교가. 게니까 일반 대학에 갈 여력이 없고, 다 피난 온 아이덜이니까 육사, 해사 이런 데 막 헌 거라. 겐디 해사가 일번이야, 그 테스트허는 것이, 십이월달에 헤. 육사는 이월 말에 헤여. 공사는 사월달에 헤여. 공사가 제일 마지막이라. 겐 해사에 집중적으로 헤노니까 경허고, 육사나 공사는 신체검사를 먼저 허지 않고 실력테스트헌 다음에 상위 점수로 딱 카트헤 놔근에 신체검사를 헌다 그러는데, 해군 이거는 말이여. 해상에 근무허게 뒌 거라 부니까 신체검사부터

먼저 허잖아. 근데 충치 두 개가 나온 거라, 충치가. 충치를 치료를 헷는데 요즘은 자연색으로 이렇게 캄푸라치허니까 안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오십사 ,년 오십오 년 당시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삼푸란치 은색, 그걸로 헤서 땜질을, 체크 딱 두 번 허드니 궁둥이 딱 차면서 나가. 사병들이 딱 지켜 잇다가 아웃 뒈면은 끌어당 운동장더레 강 그냥 발로 창 내보내 부는 거라.

@1 아이고 억울헤라.

#1 한 마디 호소도 못하고 말이야. 신경질 나가지고, 어디 공짜로, 집안이 가난허니까, 고학으로 고등학교도 겨우 나왓으니까. 부산 수산대학에 부속 교원양성소가 잇엇어요. 거 나오민 중학교 준교사 자격을 주는 그게 잇엇는데, 거길 지원헷단 말이야. 아, 거기도 보니까 삼십이대 일이라. 여기는 또 완전히 공부헌 놈들만 달라붙은 거야. 사관학교 이런 데 꿈 안 꾸고, 기냥 공짜 허는디 허니까, 실력파들이 간 거라. 시험치니까 안 뒈더라고. 게, 나가 옹진고등학교라고 육이오 때 피난 온 사립 재단 완에, 하꼬방 지어가지고 이제 허는, 그거를 헷는데 선생들은 실력이 상당히 좋데. 나가 수고 뎅기다가 이학년 일 학기 마치고 전학을 갓는데, 주간에는 티오가 없으니까 야간에 입교를 시켜주더라고, 입학을. 이 학기부터 야간에 공부를 하는데, 야간에 공부를 제대로 안 뒈잖아. 세 시간 허는데 하꼬방에서 말이야. 게고 학생들이 어디 직장생활, 어디 뭐 청소헤 주곡 뭐, 점방에 이런 데 급사하다근에 온 아이덜 허민 말이야. 교실이 어지렁, 어수선 어수선헤. 게민, 선생이 열심히 허는 학생들이 잇어야 선생도 열이 날거 아니라. 아 게믄 영 두서너 페이지 영 허다근에 오늘 그만, 이런 식으로 막 헤버리드라고. 게서 이제, 이제는 갈길이 졸업하니까 이제는 다 아웃뒈고, 제주도 들어오기는 뭐허고, 지원허자. 어디 갓냐, 해병대 간다. 지원소가 부산에 잇엇는데 저쪽동네, *** 군인, 육군 훈련소, 저 지원소가 잇엇다고, 거기 오월달에 갓지. 가니까 언제 모병이 올지 모르는데, 들어와서 뭐 공밥을 한 거의 이십일을 먹엇어. 먹으니까 모병이 왓는데, 처음에 해병대서 왓더라고, 겐 나가 친구 둘하고 같이 지망을 헤서 들어갓는데, 친구가, 나가 해병대 가젠 허니까 막 그냥 너 개병대 소리 들으멍 갓다 오민 어디 취직도 못허고 말이야 아무것도 못 헌덴, 개소리 듣넨 허멍 가지 말렌. 겐 이제 못 가게 말련 안 갓주게. 겐 이제 육군 삼 년, 만 삼 년 근무헤서 나왓는데, 완리서기 이년 허면서 농사를 헷어요. 처갓집에 마침 이천사오백 평 밧이 잇어가지고, 내가 원예 농사 내가, 우리 오조리서 내가 삼 번째, 선배 두 분이 잇고, 나 세 번째, 뭐 씨 없는 수박, 우장춘 박사가 개발한 씨 없는 수박, 그것도 헤보고, 토마토 또 저 은천 참웨, 지금 노란 참웨 줄 영 그어진 거 잇잖아.

@1 예. 성주 참웨.

#1 성주 참웨가 아니. 성주 참웨는 개구리 참웨 뭐 그런 건데, 이 은천 참웨가 만생은 뒈지만은 참 맛잇어. 줄이 딱 열 개 그어진 거. 거 흑농종묘사에 그 회원으로 등록헤놘에 상반기 하반기 그 책자가 나와. 종묘 선전허는 책자가. 그거 봥 주문헹 무, 배추 허면서 하니까 팔리지 안허여. 잘 만들어 내도. 동남이 뭐 이렇게 지금같이 번화헷으면 팔리는데, 그때만 헤도 성산읍 인구가 만사오천, 열네 마을에 만사오천밖에

안 뒛으니까 팔릴 게 뭐야. 겐 또 자존심이 잇어 가지고 도마도를 니아카에 실르면은 내가 동남까지 가서 점포 멧 개 강 팔아. 다 동료덜이나 선배덜이 헌는 점방이니까 이거 좀 팔아줍서 헹 놔둬 왕, 뭐 돈이 뒛든 말앗든 허믄 뒈는데 자존심이 잇으니까 안 가는 거야, 게민 누굴 시키느냐. 우리 웨조카를 시키는 거라. 웨조카 둘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뎅기는 아이가 잇는데, 가네 하학허민, 너네 이레와. 그 니아카에 실른 거 요 앞이 잇다근에 야, 이거 어느 점방에 강 줘동 오라. 가네 시켜근에, 아이고, 자존심이 뭔지. 농민으로서는 지금 나노라 허는 놈들 지금 날뛰어봐야 내가 젤 선배, 내가 총각 때, 그때 연애할 때부터, 채명신 그 책을 익어가지고 완전히 농촌에 살으리라. 그래서 못을 박앗어요. 이 모냥 이 꼴이 뒌 거지. 군인 간 때가 좋은 기회가 있엇지. 그때 우리 어멍만 사귀지 안헐 때면은 그 중대장 누이동생이 ○○대 저 어디라, 평택, 평택인데 상당히 좋은 집안의 딸이드라고, 아 겐디 올드미스가 잇덴 나보다 두 살 밑에, 난 장가 들어버리고 말이야. 나중에 부대장 모션 그디 드나들멍 보난 딱 잇는데, 평택서 여고도 나오고 말이지. 날 막 따라다녀. 지네 오라방 모셩 서울만 오면은 딱 대기헷당 단성사, 대한극장, 어디 수도극장, 을지로에 잇는 수도극장, 단성사는 주로 외화만 봣어. (중략) 하이튼 그 당시 유행한 영화는 내가 안 본 게 없다고, 거 가민 팜프렛, 리플렛을 주잖아. 칼라로 만든 거, 그거 아졍왕 배우 이름 다 웨우는 거라.

@1 멋지게 살아신게마씨.

#1 멋지게 살앗지. 그때 그 여자가 계속 달라붙어 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연애하는 사람하고 기어코 결혼헤서 동네서 깔보는 사람안테 이렇게 성공헷노라 하는 걸 보이겟다하는 의지, 또 농촌에 발붙여서 농촌계몽에 내가 일익을 허겟다. 그렇게 헤서 농촌, 지금도 농민 여러 가지 보상문제니, 뭐니 농촌이 겪는 아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열불이 터져.

바다일(뱃사공)

@1 알아수다. 바당 일은 안 헤봐실 거고예.

#1 나, 바닷일, 사공도 헤서.

@1 사공도 헨? 무신 사공 일.

#1 중학교 때, 줌수배 사공.

@1 아, 오조리가 좀 나강은에 헙니까?

#1 바로 이디 가민 개맛이 잇엇는데 양어장 만들어 부니까 포구가 저 바깟딜로 뒈분 거지게, 항구가. 이 안네서 바로 마을 이 안네서 잠수 실렁 꼬불꼬불 헌 데를 뎅겻다고, 나 열다섯 살 때부터 노 젓엉 계속 고등학교 뎅길 때까지, 한 삼 년 동안 사공질 헷잖아게.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상군잠수엿기 때문에, 그거 잠수배 안 헷으면 우리 먹고 살지 못헷지.

@1 예.

#1 겡 이제 저 큰 미역 허체를 허거나, 몸 허체를 허거나, 듬북 허체를 허거나 허면

나가 힘겨워서 사공을 못헤. 무거운 거 막 끌어올려야 뒈고 허니까, 그땐 사람을 비는 거야. 게민 나가 따라강 그냥 허민 우리 어머니가 물질을 못 허지. 나가 어려부니까, 사공질을 다시 하느라고, 게서 헷는데, 농사는 내가 제대허면서 오면서 종로이가 거기 딱 내리니까 딱 눈에 띄는 것이 종묘사라. 흑농종묘사, 흑농종묘사하고 일 년 뒤에 하나가 더 생겻어. 대한민국에 종묘사가 두 개라. 겡 거기 이제 군복 입언, 차비 아끼젠. 제대 헷주만은 제대복을 안 입고 제대허면은 일반 요금 받아 불잖아. 군복을 딱 입엉 명찰을 다 대고, 거민 헌병들 헷자, 병장 붙여놓면은 야네들 함부로 검문을 안 헌다고. 경헨 군복 입고, 군모 딱 쓰고 헨에 들어갓어. 들어간 나 제주돈데 지금 제대하고 들어간다. 게니 이거 종묘사하고 정기구독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뒈느냐. 주소 성명 다, 생년월일 썬에 허고, 회원 등록을, 돈 멧 백 원 내야뒐 거 아니라, 안 받겟다고, 굉장히 착하다고 나보고, 그 사장이 한 사십오 세쯤 뒌 큰형님뻘인데 상당히 고맙다. 이렇게 종묘사 찾아와근에 농사지으켄 자원허는 사람 지금까지 없엇는데, 웃으멍 경 허더라고, 더구나 제주 출신이 말이야. 가서 열심히 하면은 지원헤 주겟다 이거라. 계속 소식지가 봄, 가을에 계속 와. 한 십 년 받앗어. 나 그만둔 다음에도, 겨단에 이제 그다음 강화뒛는지 조직이, 그다음은 안 오던데. 우장춘 박사 그것도 막 선전허니까, 씨 없는 수박 안 뒈겟더라고, 안 뒈. 씨가 잇어야지. 안네 조직이 막 틀어져 버령 안 뒈. 먹는 맛이 하나도 안 나. 좀 와삭와삭헤야 뒈는데 안 뒈더라고.

지붕이기

@1 옛날에는 여기도 다 초집이라낫잖아예. 이 동네는 집을 언제 일어수과?
#1 정월달, 정월 보름 전에, 대개 보름 전후헤서 일엇어.
@1 일년에 흔 번?
#1 흔 번.
@1 아, 일 년에 흔 번예.
#1 가슬 들이는, 가슬 들인덴 허주게. 한 해에 안 하민, 가슬 들인다. 봄갈이, 봄갈이엔 헌 말도 들어봣잖아.
@1 예.
#1 밧이 잇는데 한 해 경작을 안 헹 내버령 놀리는 거, 그건 밧 지력을, 뭐허기 위헤서 쉬는 거주게. 작물이 계속헤서 흡수헤 버리면, 옛날은 뭐 비료 같은 거 뿌리지 못허고 하니까, 놀리면은 지력이 솟아나서 다음 해에 소득이 수확이 나니까, 게난 이것도 그 일을 촐리지 못허면, 여기는 해안 부락이라 부니까 새들이, 새들이 잘 없어. 수산 가서 사와야 뒈고, 난산 가서 사와야 뒈고 하니까, 성읍리 가서 사와야 뒈니까. 그게 잘 안 뒈니까 가슬 들인다고 헤서, 한 해 쉬는 걸 가슬 들인다.
@1 예. 게믄 가슬 들이민 비도 새고 영 헐 텐데
#1 게난, 한 해 정도는 무난하더라고.
@1 원래는 일 년 흔 번 이는데, 가슬 들이는 집들도 핫구나예?
#1 응. 잇엇어. 어려운 집, 생활이 인력도 없고 어려운 집은 가슬 들영.

@1 봄갈이 허는 밧을 봄팟이렌 헙니까? 이 동네도?
#1 봉가리, 봉가리옌 허는데 봄갈이엔 말이주게. 봄갈이가 아니라, 봄걸이라는 얘기지. 봄에 걸러 버린다. 게난 그 어원을 찾아보면 반드시 잇는 거거든. 봄을 한 해 걸려서 허는 게 봄걸이인데 봉가리, 봉가리허거든. 발음허는 대로 허민 니은 받침을 헤야 뒈고, 가리는 물론 리을 헤근에 갈리, 게민 밧을 가는 것이 들어간다 말이여. 갈이 허면은 말이 안 맞는 거라.
@1 봄에 밧 갈앙 내부는 거.
#1 거난, 봄걸이라는 거지.
@1 그다음에 집은 정월에 일어, 이 동넨예. 아까 정월 보름, 집 일 때.
#1 정월 보름부떠 이월, 저 정월 말까지.
@1 보통 그때허고, 가슬 들이고예.

장 담그기

@1 그다음에 뒌장 같은 거는 언제 담읍니까?
#1 뒌장은 아까 계절이 뭐 잇더라, 동지, 동지 넘어 입춘 전에 장을 담는 거로 아는데.
@1 다른 데는 섣둘그믐날 헌덴 헙디다만은, 다른데 가면.
#1 새철 전에.
@1 새철 전에, 그거는 분명허지 않으니까. 거는 내불쿠다.

윤달

@1 혹시 윤달에, 윤달 잇잖아예, 윤달에는 뭐 헤마씨? 보통.
#1 윤달에도, 윤달에는 이사 안 헌덴 허잖아.
@1 윤달에는 이사 안 허고.
#1 함부로 고치는 것도 안 허고, 수리허는 것도.
@1 아, 수리도 안 헌덴 헤예.
#1 윤달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허여.
@1 근데 호상옷은 허지 안헙니까?
#1 호상옷은 윤달에 헤. 호상옷은 유독.
@1 집도 안 고치는데 윤달에 허고.
#1 윤달이 사 년만에 한번 오는가?
@1 사 년에 한번 오기도 하고예.
#1 사 년만에 한 번 올 거여. 겐데 그게 이월 전에는 없어. 삼월 이후에만 와. 또 동짓달 이후에도 없어. 섣달 윤달은 없어. 동짓달 윤달은 이서. 웨 윤달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동짓달, 섣달하고 정월은 윤달이 없어. 삼 개월은, 겐디 우리 그저 여기서 흔히, 속뒌 그 이제 속어로 허는데 청년층에서 허는 얘기가 처녀를 건드령 말을 걸지

안헤이. 말을 걸면은 처녀가 대답허기 싫거든. 게민 둘은 어느 달에 나수과? 이렇게 남자가 여자안테 물엇다. 게민 여자가 거 기피허는 말로, 대답은 안 헐 수 없고, 윤동지둘 스무날마씀, 윤십일월은 없는 거거든. 거난, 속임으로 윤동지둘 스무날마씀, 남자안티 그렇게 말을 멕엿다 허여. 남자는 그거 모르잖아. 거믄, 집이 강 윤달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없단 말이야. 아, 이건 속임수로구나. 남자가 그걸 느꼇다고 헤서, 여기 이 얘긴 선배덜이 그런 얘길 하더라고.
@1 예. 윤동지둘 스무날마씨. 이렇게 하면 거의 된 거 닮습니다. 나머지 뭐 농사하는 거는 전통적인 거니까 알앙 될 거고.

기타

@1 삼춘, 옛날 삶허고 지금 삶허고는 어떵 달라진 거 같애마씨?
#1 삶이?
@1 예.
#1 삶이 뭐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왓는데, 우린 첨 완전히 구한국시대 사람같이 이렇게 생활이 와서 그렇긴 헌데 이런 세태의 흐름으로 앞으로 가면은,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인간다운 세상이 안 될 것 같아. 과학에만 의존허고, 기계에만 의존허고, 이렇게 헤서 인간이라고 허는 건 그게 아니거든. 영혼이 잇는 건데, 영혼을 잃은 인간이 기계화가 뒈버리는 이런 현상이, 우리 중학교 무렵이야. 과학 선생안테서 이런 말을 들은 적 잇어. 우주 개발이, 이차대전이 끝나 가지고 우주개발이 시작될 때, 과학 선생이 과학지니 뭐니 걸 봣겟죠. 이제 앞으로 우주선 타는 사람이 어떻게 헤서 백 일씩, 이백 일씩, 일 년씩, 이 년씩 달에 강 살 수 잇고 뭐 허냐, 우주선 안에 살 수 잇냐 헷더니, 이 선생님 허는 얘기가 사탕 방울 하나만큼 헌 거, 이거 하루에 한 방울만 먹으면은 이십사 시간 그냥 왕성하게 된다 이거야. 그렇게 헤서 생명 유지가 뒈고, 또 그러면은 이 과학을 발전시킬려고 허민 머리를 써야 허니까 두뇌는 이만큼 커진다 이거라. 근데 몸은 어떻게 뒈느냐, 만지고 뭐허고 안헹 그냥 손만 이렇게 놀리니까 팔다리가 완전히 대막뎅이같이 쫙헤 가지고 손만 쓰고, 다리도 걸어 뎅길 필요가 없으니까 근육도 하나도 엇이 말이야 뼈다귀만 앙성헌 이런 인간이 된다 이거라. 로봇인간이 된다 이거라. 현실화 뒈고 잇잖아, 지금. 나 중학교 때 들은 얘기를 항상 되뇌진다고, 우리가 지금 학문도 인문학을 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문학도가 없잖아. 철학도가 없잖아. 사람은 철학을 공부헤야 뒈거든 철학 문학 인문학을 주로 공부헤야 뒈는데, 문과가 다 없어져 비어, 문과가. 과학만 먹고 아까 모냥으로, 쌀도 필요가 없잖아. 약방울 하나만 먹으면 뭐 사니까. 인간다운 인간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헤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됏겟다 허는 우려를 항상.(중략)

3. 성산읍 수산1리

- 조사 일시: 2022년 7월 6일, 7월 19일
- 조사 장소: 성산읍 수산1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 제보자: #1 고인옥 #2 강수용 #3 김원옥 #4 강순호

조사마을

@1 자 게믄 어, 이 수산일리 옛날 수산일리는 무신거렌 불런마씨?
#2 수산일리를 뭐라고 불르느냐고? 아, 수산일리 그대로 수산리.
#3 기자 수산으로.
#2 수산.
#1 수산.
@1 수산.
#3 엿날은 수산.
@1 수산.
#1 수산리.
#2 그때는 수산일리, 이리가 엇엇어.
#3 옛날에.
@1 예. 삼춘네 이제 천천히 말씀헤주는데, 흔 사람씩. 혹시 여기는 물메렌은 안 헙니까? 이 동네는?
#2 물메?
#1 고성이 물메주.
#2 무시거?
@1 물메.
#1 물메는 고성ᄀᆞ라 물메엔 헙니다.
#2 아이, 아이 건 물메오름이고.
@1 예.
#2 우린 물메렌 말은 못 들어봣는데, 물메라고.
@1 아 수산을 물메라곤 안 헨예? 예.
#2 에, 촌, 제주도 말로 웃드르라 부난에.
@1 예.
#2 물에 대한 건 아니라.
@1 아, 알아수다예. 그냥 수산옌만 헷어예?

#2 예.
@1 옛날부떠예?

오름

@1 게믄 그 이 수산에 오름이 어떤 거, 혹시 오름도 이수과? 이 수산에?
#2 예, 이수게.
@1 예, 삼춘이 골아줍서. 오름 무신 오름, 무신 오름?
#3 우리 대왕산이.
@1 예.
#3 저 대왕산이 수산 오름입주게. 대왕산.
@1 대왕산.
#3 으, 대왕산.
@1 대왕산을 수산 오름옌도 헤마씨?
#3 예. 그 엿날 그 대왕산 수산 오름. 물미도 수산 오름이고. 엿날에 우리 수산이.
@1 예.
#3 옛날에 그 바다도 잇엇수다.
@1 예.
#3 바다 수산 것이라고 온평리 바다도 잇엇는데. 엿날에 그 웨정시절에 놓니깐 가서 그, 에, 망을 보지 안헤수과양? 바다에 가서.
@1 예.
#3 망을 봣는데. 엿날 하르방덜이 그 면장도 허고 세력이 수산이 궹장히 강헷어. 세력이 좋으니까 그 보초 사레 다니는 걸 싫어서.
@1 으.
#3 바다도 너네 추지헤 불곡 보초도 너네 사 불라고 헤서 그레 위임헤 분 거야.
@1 으.
#3 그래서 수산 바다가 지금 없어졋어요.
@1 예.
#3 옛날에. 게 옛날에 세력이 궹장히 좋아낫지.
@1 기지예?
#3 멘장도 헤나고 뭐허고 헤서. 그 권력으로 수산 것도 그레 줘 분 거예요. 보초도 사곡 바다도 너네 알앙 헤 불라 헤서. 우리 그 후에는 바다가 엇어져 분 거예요. 수산 바다가.
@1 예.
#3 수산 것이, 수산 것, 수산 것 헤서 그 지금도 수산 것이라고 허주.
@1 예. 수산 것.
#3 수산 거, 바당.
#4 바다.

#3 겡 우리 수산 바다랏어.
@1 수산 바다랏어.
#3 예 권력으로써 그레 줘 분 거지.
@1 온평리.
#3 온평리.
@1 예.
#3 그레 줘 분 거.
@1 게난 그 물미오름도 잇어예?
#3 예. 저, 저거.
#1 수산봉.
#2 저게 수산봉이라고, 수산봉.
#1 물메봉이엔도 허고 수산봉.
#2 수산봉이라고.
@1 예, 괄호헹은에 쓰쿠다.
#2 사투리는 물미오름.
@1 물미오름.
#2 물메오름.
@1 물메오름이엔도 허고 물미오름도 허고.
#3 예.
@1 예.
#1 물미, 물미 허주.
#2 표준말은 그 수산봉.
@1 수산봉.
#2 예.
@1 게믄 수산봉을 물미오름 허면 이 마을도 물미동네렌은 안 헨마씨?
#3 아니, 안 헷어.
@1 오름 이름만.
#2 예.
@1 아.
#1 오름 이름 따서 고성이 물메오름으로 헤수게.
@1 음. 고성, 물메오름예?
#1 고성 물메오름이렌. 물메로 헙니다, 고성.
@1 고성이.
#1 예.
@1 예. 게난 그 오름은 두 개?
#2 아, 수산 오름 여라 개 잇수다.
@1 아, 게믄예, 저 우리 회장님이.

#2 군데오름, 근대오름.
@1 군데오름.
#2 뒤곱, 뒤곱은이
#2 뒤곱은니.
#2 뒤가 굽엇다고 헤서.
@1 아, 뒤곱은이.
#2 예, 예 그렇게 뒈.
@1 예.
#2 우리 수산경은 그거 두 개.
#1 대왕산, 소왕산.
#2 아 대왕산, 저 소왕산은 저 시흥리 경이고.
#3 소왕산은 아니고 대왕산.
@1 대왕산.
#2 대왕산.
#1 물메봉.
@1 물메봉.
#2 웽미, 왕이 웽.
#1 웽미, 웽미 허주.
#2 왕미오름.
#3 큰, 옛날 산터.
#2 큰오름이라 헤 가지고.
@1 예.
#2 왕미오름, 왕미오름.
@1 왕미오름.
#2 예.
#3 웽미.
#2 큰 오름이엔 헤 가지고.
@1 웽미엔도 허고.
#2 예, 웽미엔도 허고.
#1 같은 웽미.
#2 웽미오름.
@1 예, 게난 그 웽미오름이 대왕.
#1, 2 대왕산.
@1 아, 예, 예. 이 말이 더 좋아마씨. 웽미오름.
#1 웽미렌 헙니다. 아이덜이. 저 웽미오름에 가라, 웽미오름.
@1 웽미오름예? 그다음에 그 게믄 네 개네? 오름이.
#2 예, 예.

@1 군데오름, 뒤굽은이, 대왕, 그 왕, 아 웽미오름, 물메오름.
#4 네 개.
@1 예, 네 개예?

물

@1 그 오름 말고 이 수산에는 물이 어떵 귀헌 편이우꽈? 아니면 물이 합니까?
#2 아, 지금은 물이, 지금은 상수도 시설 허니깐 물이 많지, 옛날에는 상수도 엇을 때는 그 우물에 물, 비가 오면 거기 고이믄.
@1 예.
#2 그 물을 허벅 질어다 먹엇잖아요.
@1 예.
#2 옛날에는. 우리 어렷을 때는 비가 오면은 그 우물에 물이 고이면은 그 여자분들이 물을 허벅에 그 물 길어다가 다 먹고.
@1 예.
#2 그 또 목욕은 또 우물에 가서 물을 고인 데 거기 가서 목욕도 허곡 그렇게 헷고. 그땐 그때는 물이 뭐 소독도 엇곡 헐 때니깐 옛날에는 물에 막 그 고노리 막 뭐가 잇어도.
@1 으.
#2 그거 길어다 먹엇지.
@1 예.
#1 고성 강 질어당 먹어수게게.
#2 그러다가 물이 그기 다 없어져 불면은 고성리에 가믄 그 샘물이 나는 데가 잇어요.
@1 예.
#2 샘물 나는 디가 뭐 한 십이 메다 이상뒌 곳에 가서 그 탕구라고 헌 요즘 바가지.
@1 예.
#2 그 줄 메 가지고 걸 나까다가 물 질어다 먹곡.
@1 예, 암만 헤도 물들은 여자 삼춘네가 하영 질어시난예?
#2 예, 예.
@1 예, 우리 삼춘이 옛날에 그 물은 어떵 헹 먹어수과?
#1 물은 이제 그 비 오면은 그 빌레에 골른 물 똘르다근에 엇으면.
@1 예.
#1 고성 그 내려가는 이제 그 숨통.
@1 숨통.
#1 예, 숨통이엔 헙니다, 물통이.
@1 예.
#1 숨통이엔 헌 디 우리 발로 열두 발 이제 그 새끼를 헤서. 이 탕구에 이렇게 둘아

메서 이제 그걸 막 떠단 먹으민. 고성 사름덜안티 우리가 천대를 막 받아수다.
@1 아.
#1 물질레 왐젠. 수산 것덜 물질레 완, 이녁네 탕구 다 멜라 벰저. 그것이 서로가 부닥쳐근에 막 쏙에 들어가민.
#4 ****.
#1 떠 오지 못헙니께. 부닥쳥.
@1 예.
#1 게믄 수산 것들안티 이제 그 탕구 다 설어내라 무시거 허라 허멍 막 고성 어른들안티 우리 욕 처들으멍. 우린 여기서 나곡 여기서 자라니까.
@1 예.
#1 경 헤 불민 물을 허벅에 지곡.
@1 으.
#1 탕구엔 헌 거엔 들르곡.
@1 예.
#1 그 벳줄을 ᄀᆞ찌 놩 지곡 헨에 허다가 이제, 이제 상수도 이제 남 시작허니까 질렛물 허민 그 고노리.
#4 고노리 허면.
@1 으, 잠깐. 삼춘이 ᄀᆞᆯ아 보카. 삼춘이 ᄀᆞᆯ아 봅서 이제.
#4 고노리 허면 ** 허벅 우에 놔가지고.
@1 예.
#4 걸려서 먹어가지고 따시 나무 헤서 헤근에 춤 받앙 먹고.
@1 춤 받앙 먹곡.
#4 예, 그 전에.
#2 그 춤이란 거는 나무에.
#4 이렇게.
#2 그 새.
@1 예.
#2 띠.
@1 예.
#4 거 여꺼.
#2 띠 여꺼 가지고 나무에 요렇게 무끄면은 물이 쫄쫄 내려, 내려오게끔.
#4 그거 받앙 많이 먹어수게.
@1 예.
#2 그거 그 물 내려온 물을 받아서.
@1 게난 옛날 춤 받아난 그 낭들 지금 이수과?
#4 아이.
#2 아이, 다 끈언. 지금 다 없어졋어.

#1 엇어져수게게.
#4 과수원. 낭밧덜 허멍.
@1 난산린 가니깐 그 츰 메난 낭 잇언 게만은.
#4 예, 이실 거우다. 그런 딘.
#1 난산리 그 큰 집엔 그 하르방.
#4 이실 거우다.
#3 그 엿날에 도루뭇이라고. 요기 바로 요 앞이 매립헤 벳는데.
@1 물 일름이 뭐마씨?
#3 도루뭇, 도루뭇.
@1 도루뭇.
#3 으, 도루뭇인데.
@1 예.
#3 에, 하나는 그 저 소 멕이는 궂인물이고.
@1 예.
#3 이쪽에는 곤물이여. 게 우리 이 근처에는 전부 그디 물을 떠다 먹습니다.
@1 음.
#3 허벅으로 질어다가. 도루뭇.
@1 도루뭇.
#3 예, 도루뭇이라고.
@1 무사 도루뭇이라고 헤신고마씨?
#1 동글락헹.
#3 동글락헷는디 그 어떻게 뒌 건 모르겟어.
#1 동글락허난 도루뭇이주게.
@1 도루뭇.
#3 도루뭇, 도루뭇.
#1 지금 저 아파트 짓은 자리가 그거 아니우꽈게.
#3 예. 거기서 지금, 지금 매립헨에 아파트 짓어분 거여, 저거.
@1 음.
#3 도루뭇.
#2 아 게난 못이란 것은.
@1 예.
#2 물통을 얘기허는 거여, 못.
@1 예, 예.
#3 거기 물은.
#2 게, 수산도 이 근처에, 이 물이 우리 동네는 그딧 물을 먹곡 아랫 동네는 누루못.
#3 누루못. 누루못이라고 그 물을 먹엇어.
#2 누루못, 누루못 겡 못이란 건 물통이거든.

@1 예, 예.
#2 누루못, 동치못.
#3 예. 동치못.
#2 이쪽에는 동치못.
#3 동치못은 그디 물이 없지.
#2 물이 무사 엇어? 물 골란.
#1 진빌레.
#2 진빌레.
#4 진빌레.
#2 다 물이 잇엇지.
@1 진빌레 잇고.
#3 예.
#1 진빌레 지금도 잇수다.
#4 예, 지역마다 다 틀려.
#3 그 물을 먹엇수다.
@1 삼춘 잠깐만예. 우리가 수산일리허고 이리 잇잖우꽈예? 지금 일리에 잇는 물들이 네 개? 아까 도로못.
#3 도로못.
@1 그다음에
#2, 3 누루못.
@1 누루못.
#1 으.
@1 그다음에.
#2 동치못.
@1 동치못.
#2 진빌레.
@1 진빌레.
#4 예.
@1 여기에서 아까 도루못은 저 빌라 지어 불고.
#2 예.
@1 그다음에 누루못은?
#3 그대로.
#2 저 지금 보수, 보수천 만들어 불언.
#3 저수지.
@1 아 이거는 저수지 허여 불고.
#2 예.
@1 동치못은?

#2 지금 다 매립시겨 불고.
#3 건 매립시견.
@1 이건 매립허곡.
#1 진빌레는 이수다.
@1 진빌레는 잇고.
#2 지금 물통 잇잖아.
#5 아, 진빌레도 다 메와 볏주.
#2 메와 벳주.
#1 진빌레, 진빌레 물통 이수다. 경○이네 올레에 이수다게.
#5 아, 거.
#2 지금 잇어.
#1 에, 춤.
#5 물통이 아니고 거 저 하천 개발헤 불멍.
@1 예.
#5 하천 정리하면서 문딱 뚤러 불엇어.
@1 예, 알아수다. 혼 사람썩예. 자, 자, 그다음에 저기 들어보쿠다예? 삼춘 아까 빌레에 가근에 물 똘라당은에 먹엇덴 헷잖아예?
#1 예.
@1 어느 빌레에 강 물 똘라 먹언?
#1 누룻못빌레.
@1 누룻못빌레, 어.
#4 헌디 그걸 다 하천물로 다 파벳수게게.
@1 이젠 다 파벤예?
#1 거기 또 이제 우리 상수도 허젠 허니까 그 집을 그 막 그 뚤런에 그 상수돗물이 거기서 만들엇수다게.
@1 예.
#1 이젠 막 이제 그 내 오민 집들 이제 무너진덴.
@1 으.
#1 우리 집이 그때 김태환 도지사 헐 때우다게. 그때 완 물 들언에 막 시렁ᄁᆞ지 막 올랏주게. 경 헹 왕 간에 이 사름들 죽으렌 헴시냐 헨에 그때부떠 저수지를 만들어수다.
@1 음.
#1 큰 저수지, 큰 저수지.
#3 케물이라고 지금도 물 잇수다. 케물.
@1 케물.
#3 예, 케물이라고 지금도 물 나와.
#1 케물 잇수다.

#6 아 물통은 뭐.
#3 지금도 물이 나와.
@1 예, 케물은 어디에 이신 거우꽈?
#1 아 여기 이수다.
#3 저디 이수다.
@1 아 이건 나는물?
#2 아이, 아이.
#1 나는 건 아니고.
#4 고영 이신 거.
#3 고영 잇는데, 그 물이.
@1 예.
#3 없어지진 아녀.
@1 아.
#1 저기 용천수로 헤서 지금 이제.
#3 없어지진 안 헤.
#1 없어지지 아녑니다.
@1 예.
#3 그 물이.
#1 지금도 잇수다.
#3 없어지진 안헤. 쪼곰이라도 계속 잇지, 없어지질 안헤.
@1 그 게믄 케물은 무사 케물이라마씨?
#3 케물은 어떻게 둬서 물통이.
#1 지경에 따랑 곹아실 거라.
#3 그 지경을 위해서 케물이라고 헌 거 같은데.
#1 케물, 케물.
#3 이게 그 물통이 크질 아녀.
@1 응.
#3 자그만 헌 건데 어떻게 헤서 헌 건지 모르주.
#1 나가 물통 관리허난 곹으쿠다. 케물이엔 헌 거는 그 물이 이, 저 나는, 그 진 안네 물ᄀᆞ치 딱 두 개로 갈라졋어.
#3 어, 어.
#1 지금. 경허믄 이 물이 양쪽으로 이제 헤서 그 물이 이제 엿날 어룬덜이 낮, 아침이 가민 흔 허벅을 딱 똘랑.
#5 어, 거 저, 저, 저, 잘못 생각허는 거여.
#1 에이그.
#5 이전물이지, 그.
#3 케물이 맞아.

#1 에이그 속솜헙서. 저레 가십서.
#3 케물 맞아.
#1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나가 우리가 관리헴수다게, 용천수를.
@1 예.
#1 헌디 아침에 그때 막 곰은 때도양 엇어. 우리 이제 오전에 근무허레 강 보면은 물이 쪼금 이시믄 이 주위엣 물덜은 잇당은에 쪼금씩 모여든 거주게. 경헌디 똑 진안네 물광 그 케물이 똑ᄀᆞ트우다,
#2 으. 맞아.
#1 저 난 것이.
#3 그디 물이 계속 잇어.
#1 이쪽도 빌레, 이쪽도 빌레 가운디는 쫙허게 그 난다는 형식으로 뒈어 이수다, 지금도 가보민.
@1 으.
#1 경헤근에 허면은 어룬덜 엿날에 웃동네 사름덜이 아침이 가민 혼 허벅을 똘라오곡. 넘엉 간 사름은 못 똘라온다 헌 물이 그 케물.
#3 게난 그 물 없어지진 아녀주.
#1 없어지진 아녑니다.
#3 계속 잇어.
#1 지금도 이수다.
@1 계속 잇어예? 예.
#1 게난 우리 우이 더끄난에 낭이파리도 못 들어가게 허곡 우리가 관리헴수다. (웃음)
@1 예, 알아수다. 게믄 아까 진 안에도 물 잇어?
#1 진 안네 물은 저 학교에서 씨름장을 만들아 벼어.
@1 아, 이젠 엇고예.
#2 학교 운동장 멘들안.
#1 엇어졋수다.
@1 게믄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잇는 거는 진빌레물허고 케물하고 누루못은 저수지.
#1 예.
#4 저수지 큰 저수지로 사진 찍어야 뒈.
@1 예.
#1 강 보민 바로 번번허우다. 물은.
@1 음.
#4 누루못은.
#2 거 보수천으로 만들어 부니깐. 물 저장, 정장허는 거.
@1 저장예?
#2 저장뒈는 거.

#1 지금까지도 물이 안 흐르고. 물이 고이면은.
(잡담, 부분 생략)

당

#1 진 안네엔 헌디 이제 진안할망당이 이수다게.
@1 예, 예.
#1 예, 게난 그 학교.
@1 예. 진안할망당.
#1 으, 진성이라는 그 이제 그 뭐가 잇언에예, 그 진안할망당은 잇고, 물은 이제 매립시겨 불곡.
@1 응.
#1 헨에 진성이라는 거는 이제 춤 이 회장님 곧는 말 맞다 그 성담을 다다가 이제 자꾸 멀어지고 뭉크레져.
@1 응.
#1 뭉크레지난에 허단허단 버치니까 이제 그 이제 엿날 어룬덜이 그 이제 성담 안네 이제 그 납헤치라는 이제 그 아이 이제 일곱 설, 아홉 설 난 아이를 묻어서 놓아서 성을 닿면은 성을 이루어진다.
@1 납헤치?
#1 납헤치.
@1 응.
#1 경허니깐 그디가 내차물, 내차 허던 것이 내차물이라는 것이 이수다게.
@1 내차물?
#1 내차물.
@1 건 무신 말이우꽈?
#1 것도.
#2 아 거기 물통이 잇는데.
#1 물통이 잇는데.
#2 그 납헤치를 성 쌓을 때 제물로 바쳣다 헤 가지고 거 나차물.
#1 내차물.
#2 우리 말론 막 내차물 내차물 허는데. 그 납이.
@1 납헤치를.
#2 납헤치가 그래서 나차물, 나차물 허는 겁주.
@1 예, 예, 예.
#1 게난 그 성이 지금 우리 수산진성.
#2 진성이라.
@1 진성예.
#1 학교 성이.

@1 예.
#1 옛날에 멧 번 이제 몽크레졋다, 몽크레졋다 헤서.
@1 거니까 그 납헤치 아이를 묻으니까 그다음에 안 물아졋다.
#1 그것이.
#2 제물로 바치니깐.
#1 진안할망이 그 납헤치옌 헌.
@1 음.
#4 그것이 뒌.
#1 조상이 뒌 거.
#4 조상이 뒌 거.
@1 예, 그 납헤치를 아이가 진안할망이 뒌 거예.
#4 경 뒌 거. 예.
@1 예, 예, 예. 알아수다. 게믄예, 삼춘, 이 수산에 진안할망당 잇고. 당은 게믄 멧 개나 잇어?
#1 본향당 잇고.
@1 본향당 잇고.
#1 에, 신술당.
@1 신술당.
#1 예.
#4 그 할망당.
#2 거벳기 더 잇어?
#1 진안할망게, 신술당으로 뒈어 불고 엿날 ᄋᆞ드렛당은 이신 거 다 없애 부난.
@1 예.
#1 현재로는 ᄒᆞᆫ 세 밧디.
@1 게난 엿날에는 ᄋᆞ드렛당도 잇어난?
#1 예, 잇어낫수다.
@1 거 ᄋᆞ드렛당 이름은 무슨거렌 헤?
#1 기냥 ᄋᆞ드렛당, ᄋᆞ드렛당 헙니다, 우리.
@1 예. 게믄예, 수산.
#1 일뤳날 강오민 ᄋᆞ드렛당에 가곡.
#2 그 검은머들?
#1 예, 검은머들 이제 게난 낼 모리 십오일날 그 축제헐 거 아니우꽈, 어제 ○○ 죽어 부난에 못 헷주게.
@1 아. 게믄 삼춘예, 수산에 수산본향당.
#1 예.
@1 이름이 수산본향당?
#1 예, 본향당.

@1 예. 거기는 누게 모션?
#1 그디는 할머니 초상이 할머니, 하르부지 모셧수다.
@1 응. 두 부체 모셧고예? 그 본향당에는 언제 가?
#1 정월 초이틀날허곡.
@1 예.
#1 이월 열사흘날허곡.
@1 예.
#1 칠월 초ᄋᆞ드렛날허곡.
@1 음.
#1 또 동짓둘이엔 헌 건 십일월.
@1 예.
#1 열나흘날.
@1 열나흘.
#1 십사일날.
@1 가는 날이 다 잇구나예?
#4 다 뜰려.
#1 사제일.
@1 사제일.
#1 사제일이엔 헙니다.
@1 게믄 이때는 심방도 와마씨?
#1 예. 당멘 심방이 와얍주.
@1 당멘 심방.
#1 예.
@1 누게가 당멧수과?
#1 저 어디 오 심방이라고예.
@1 예.
#1 저.
@1 어느 동네 사람?
#2 저 검은물 살암수게. 검은오름.
#1 검은오름.
@1 검은오름.
#1 선흘[선늘], 선흘[선늘].
@1 선흘 검은오름.
#2 검은오름 옆이.
#1 시흥리 옆이 선흘 살암수다.
@1 예, 예.
#1 당이 그디 잇어부난 굿당이.

@1 아, 굿당이.
#4 굿당 그디서 짓어서.
#1 경헤서 그 사름이 우릴 당을 멧겨십주게.
@1 예.
#1 그니까 제일치레 오곡. 이제, 이 수산 이제 일 나면은 귀향풀이 허레도 그지게도 와십디다.
#4 장 나믄 돌아가셔부니까.
@1 게믄 이 동네 귀향풀이 허는 거는 다 그 심방이 허곡.
#1 예.
@1 예, 이걸 여자 심방이우꽈, 남자?
#1 남자.
@1 남자 심방, 으. 그다음에 신술당은 뭐허는 당?
#1 신술당은 유월 초일렛날 가곡 열일렛날 가곡 스무일렛날 가곡 허는 건디.
@1 예.
#3 지금 가카?
#1 이제 어룬덜이 이제 안 뎅겨가니깐.
@1 으.
#3 건 지금 없어져.
#1 이제 없어지니깐 이번 개발헴수게게.
#3 그디?
#1 예, 살렴수게.
#3 살렴서?
#1 살리난에 이번.
#2 십오일날 거기서.
#1 ** 때문에 이번 십오일날.
#4 십오일날 살리젠 헤부난 십오일날.
#1 이제 방송국에서 오곡.
#3 아.
#1 십오일날 그 축제 헴수다. 십오일날, 십오일날 진짜 옵서.
@1 아니, 십오일날 오면?
#1 축제헴수다. 게난에.
#2 우리 본향당은 팔월 오일날인가? 본향당?
@1 본향당은 또 팔월 오일날도? 아니.
#2 팔월 오일날.
@1 아니 칠월 초여드레.
#1 초여드레, 초여드렛날.
@1 음력 칠월 초여드레.

#1 음력 칠월[칠뤌] 초여드레.
#4 다 음력이우다.
@1 요것도 한 번 허고?
#1 그때 마풀림.
@1 아 마불림 할 때?
#1 예, 마불림제.
#2 그때 제라헌 굿을 헐 거우다.
#1 제라이헌 굿이우다.
@1 예.
#2 그 본향당에서.
@1 그 마불림제가 백중에 안 허곡 칠월 ᄋᆞ드레에 허염서?
#1 여기 백중은 저 거시기 보름에 허는디.
@1 으.
#1 그 마풀림 초여드레 헙니다.
@1 여기는 초여드레 헤예? 예.
#1 마풀림.
@1 아, 신술당은 엇어졋다가 이제 살리는 거예?
#1 이제 예, 살렴수다.
@1 무사 살렴수과?
#1 그거를 이제 안 저, 어디서 이제 것이 옛날 어룬덜이 그 뱀.
@1 예.
#1 뱀당[뱀땅]이라고 헤서 것이 없어졍은 이 부락에 그 뭐가 안 뒌덴.
@1 으.
#1 이제 심방이 그거는 뎅기든 안 뎅기든 그거는 이제 그 살려야 뒙니덴 헨에 헹 조사헹덜 그 이디서 뭔, 뭔 조사헨에 이제 건 살렴수다게.
#3 으, 건 살렴구나.
#1 예, 경허난 이번 요번에 이제 오일날.
@1 예.
#2 칠월 오일날.
#1 오일날로 헐 걸로 헌디 이제 태풍 오켄 허난 이제 못 헌 디 헤필이면 ○○ 죽어부난 이제 부정헨에 못 허게 뒈십디다게.
@1 응.
#1 겨난 이번 십오일날은 이제 헐 걸로.
#4 각 부락에 뱀당은 다 살렴수게.
@1 예.
#4 토산이든 어디든.
#1 다 살렴수다.

#4 토산이든 어디든 다.
#1 옛날 그 뭐 다 살렴수다 헤단에.
#4 뱀땅은 무시허지 못 헤.
#1 예, 무시 못 헙니다.
@1 아.
#2 아 거난 이거를 자체적으로 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4 문화재청에서가 이제.
#1 문화청에서가 이제 다.
#4 문화재청에서 조사 허연.
#2 자금을 전부 지원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이 행사를 헌 것이 자체적으로 헌 건 아니우다게.
@1 예.
#2 행정에서 전부 지원헤주니깐 우리 수산에도 신술당이니 진안당이니 본당이니.
#1 엿날에 우리도 신술당에는 거 개인으로 뎅겨수게게.
@1 으.
#2 건디 거난 그거를 다 이번 다 재연허는 거라마씀양.
@1 예, 예.
#2 거 없애졋던 거를 옛날에 헷던 거를 다 재연허는 거라마씨.
@1 예. 그래도 마을에서 걸 협조를 헤주니깐.
#1 예, 예.
@1 좋은게마씨.
#1 이번 이제 우리 본향당도 이번 요번에 또 초이틀 헌 거를 이제 또 헤서 또 재연헤수다게. 방송국에서 허젠 헤 부난.
@1 예.
#1 거 요번에 재연허곡.
@1 촬영헴구나게.
#1 예.
@1 게믄 일뤳당은 뭐 허는 당이 일뤳당이우꽈?
#1 일뤳당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뱀, 저 거시기 서편, 서편 헙니께. 그 뱀 저.
#4 뱀당ᄀᆞ라 서편.
#1 일름이 서편.
@1 서편.
#1 서편 이제 집이 큰 굿을 헤도 서편을 안 거느령은 안 뒈는 거고 허난. 서편당[-땅]에 이제 그거를 없애병은 이제 수산이 이제 불리허게 뒈니까 이거는 꼭 살령 놔둬야 헙니다 그 심방이. 누게 다니는 사름이 엇언에 허니까 어떻게 헐 중 알아지쿠과 이번 헤필 재연굿이 나왓어마씀.
#2 서편이라고 뱀구신이라마씸.

@1 예, 뱀구신예, 예. 그다음 진안할망당은 언제 가는 거?
#1 에, 아 거는 아무 때라도. 자기가 관청할망이라고.
@1 예.
#1 시험 볼 때.
@1 예.
#1 이 국회의원 나젠 헤도 다 옵니께.
@1 어.
#4 큰 사름 나오젠 허믄.
#1 도지사덜토 새벡이 몰르게 옵니께.
@1 새벽에?
#4 예.
#1 이디 왕 간 사름은 안 뒈는 사름은 엇입니다게.
@1 나도 새벽에 와야켜.
모두 (웃음)
#1 공부, 공부, 공부, 시험.
@1 시험.
#1 우리 아이덜토 시험 보젠 허민양. 진짜 첨
#4 이 밤광 저 밤 새에.
#1 이 밤광 저 밤 새에 왕 갑니다.
#4 그 당은양.
#1 이 진안할망당은 우리가 관청할망당이엔 헙니께. 관청할망.
@1 여기서예?
#4 우리 수산리만 아녀고 딴 부락에서 다 옵니다.
#1 저 다 신풍 삼달리서 자꾸 옵니다.
4 딴 부락에서 다 옵니다.
@1 이 동네서 잘 뒌 사름은 다 진앙할망당 뎅겨갓구나?
#4 예, 예, 예.
#1 아, 진짜.
#3 학교로 들어가야켜.
@1 이 밤과 저 밤 사이에.
#3 학교로 들어가야?
#1 학교 아니우다.
#3 아 절로.
#4 저 뒤쪽으로.
#3 ○○네 집으로?
#4 아니우다.
#1 예.

#2 거난 체육대회 허게 뒈믄.
#1 체육대회 대헹은.
#2 일등 허게 헤줍센 그디 강 할망신디 강 허고.
#1 여긴 반 우등 허젠 허민 문저 갑니께, 문저 가.
#4 문여 가는 반장이 일등 허는 거.
#1 일등 허는 거.
@1 아, 마을 체육대회 허젠 헤도.
#4 헤도 이녁 반장이 우선 가젠 난리가 납니다. 문여 가는 거. (웃음)
@1 진안할망당 갈 때는 강은에 나 잘 뒈게 헤줍서 허믄 다 들어주는 할망이구나게.
#1 예, 관청할망.
@1 관청할망예?
#3 ○○ 집이 ᄌᆞ끗딜로?
#1 예. 관청할망.
@1 아, 우리 삼춘은 안 가봣구나?
#3 아이, 거디.
#1 아이덜. 어멍이 뎅겨낫주.
#4 어멍이 뎅기고 남자는 안 뎅겻수게게.
@1 아.
#4 여자들이게 새벽이 출령.
#1 새벽에 이 멘장, 엿날은 멘장, 멘장 우리 두린 때. 우리 어무니가 그런 뭐를 헤근에 허면, 이 저 멘장 나젠 허믄 왕 가는 사름 안 뒌 사름 엇덴 우리 어무니가 자꾸 골아, 게민.
@1 으.
#1 에, 무신. 그디 왕 간 것이 뒙니까? 허믄. 아닌가 우리가 역안에 영 허는 거 보니까 이 도의원들양? 도의원이든, 이 시의원이들 나는 어른들 똑 가게 뒈믄 알아. 우리 신디 알려 어느 때 가믄 뒈는 거.
#4 건디 이젠양.
#2 아 옛날에 기관에 헌 사름은 거의 다 찾아완.
#4 입구에 왕 우리 밧디 간 보민양.
#1 게난 본향당에 입구영 막 헤부난 심방 막 부에난.
#4 문 열지 안헹 그자 벳깃딜로 완 헤불어수게게.
#1 부에낭 감수게 청소허지 안헤근에 가벳젠.
@1 으.
#4 본향당에도 ** 헙니다. 우리 그디 밧 이신디.
#1 겐디 요샌.
#4 그게 문제우다게.
@1 예.

#1 이런 거를예, 안 믿젠 헤도 안 믿을 수가 엇어.
@1 으. 다 잘 뒈니까예?
#1 잘 뒈니꽈.
#4 (웃음)
@1 게믄 진안할망당은 그 아무 때나 가고.
#1 예.
@1 ᄋᆞ드렛당은? 옛날에.
#1 ᄋᆞ드렛당은 일렛날 강 와근에 둣날 ᄋᆞ드렛날 갑니께게.
@1 예.
#1 겐디 요, 저 검은머들 저 ○○네 밧.
#2 그디도.
#1 그디가 ᄋᆞ드렛당 아니우꽈.
#2 저게 엇어벳주.
#1 엇어져벳수게.
@1 그게 어디, 아까 어디에 잇어난 거? 검은머들?
#1 검은머들을 강 오민 그 ᄋᆞ드렛당은 요 저 무거리ᄆᆞ들이엔 허주게.
@1 거기는 무거리ᄆᆞ들.
#1 무거리ᄆᆞ들.
@1 으.
#3 무거리ᄆᆞ들.
@1 아까 신술당은 검은ᄆᆞ들.
#1 검은ᄆᆞ들. 아, 신술은 신술두 잇고 검은ᄆᆞ들도 잇고 두 밧디 이수게. 심방덜이 갈랑 뎅겨.
@1 아, 검은ᄃᆞ들에도 당 이서마씨?
#1, 4 예.
#1 검은ᄆᆞ들도 이신디.
@1 그 당 이름이 미시거?
#1 그 게메 그것도 일뤳당인디.
@1 어.
#1 그거를 이젠 그 할망덜이 권리 ᄃᆞ퉝 이디는 큰심방. 요디는 족은심방 헹 갈랑 뎅겨.
#4 심방들이게 자기네 하영 벌엉 멋젠 갈랑 다녀.
#1 이디는 굽세할망, 요디는 ○○.
#2 아 거난 옛날 심방이.
@1 예.
#2 많으니깐 심방도 자기 단골심방만 데려 가는 거 이제.
@1 예.

#1 단골.
@1 단골덜예?
#2 에이라는 그 심방을 좋아하는 사름은 그 에이라는 심방만 데령 그디 가고. 또 비라는 심방을 좋아하는 심방은 비라는 심방만 데려가고.
#1 ᄃᆞ령가곡. 경헌디 신술은 큰 디고.
@1 예.
#1 검은ᄆᆞ들은 그디서 갈라간.
@1 가지 갈라갓네.
#1 예, 가지 갈란.
#4 자식이 어무니난.
#1 경허난 이번 그디를양? 이거 ᄀᆞᆯ아사주. 그 저 누게 아니우꽈게, ○○ 아들 ○○이. ○○이 땅이라부난 그것이 허락 아녀면은 신술당을 검은ᄆᆞ들로 모시렌 헤수다.
#3 맞아, 맞아 ○○이 땅.
#1 경허난 ○○이가 허락헷덴 헴수다.
@1 음.
#1 허락헨 허난 이번 십오일날 축제 그디서 헐 거.
#3 게난 저 건, 건물도 엇이난 집이라도 지어야지, 저 거.
#1 아니 게난 건물은 그거 허지 안허는 거고. 이번 축제 헐 때는 그 천막.
@1 으.
#1 세 개 쳐근에 헐 걸로 허곡.
#2 자연히 다니는 사름이 엇주게.
#1 자연히 허곡양, 가민 잠깐 강 오는 거 아니우꽈게.
#2 아이, 이제 다니는 사름이 엇어.
#1 엿날 우리 간 때도양. 열 사름 스무 사름을 가도 그 낭알 이시난 낭 아래 돌 우이덜 앚앙 잠깐 헹 옵니께.
#2 아 멧 년 전ᄁᆞ지만 헤도 나도 우리 집사름 신술 차로 태와가곡 태와오곡 헤신디 이젠 다니는 사름이 없어.
@1 예.
#1 경헌디 난예 진짜 저 이녁이 필요허난에 아무도, 아무도 아년 때 가옴은 헷수다게.
@1 음.
#2 음.
@1 계속 갓다오고예? 예.
#3 당에 뎅이는 사람이 잇구나.
#1 저 어디서 ᄀᆞ르쳐ᄃᆞ렌 헨예 미국서 온 그 사름덜. 양, 그걸 어떵사 알아신디 완 가르쳐ᄃᆞ렌 헨 간 나 ᄀᆞ르쳐수다.
@1 우리 삼춘은 이 동네.

#4 원래, 원래 이 동네.
@1 원래 이 동네니까.
#4 우린 결혼하고 온 사람. 원래.
#2 건디 떡을 허고 오는데 떡도 다 틀려요.
@1 예.
#2 무슨 날에는 무슨 떡을 허고, 무슨 날에는 또 무슨 떡허고 그렇게.
#1 정월달에는.
@1 예.
#1 그 저 그 돌레떡.
@1 돌레떡.
#1 돌레떡허고 칠월, 이번 이제 가는 건 유월달에 가는 거는 상웨떡.
@1 상웨떡허고.
#1 빵떡.
#4 빵떡.
#1 빵떡. 경허난 떡도 다 뜰립니다게.
#2 떡도 다 틀려 갈 때마다.
#1 갈 때마다.
#4 여름떡 잇고게, 겨울떡 잇고.
#2 똑같은 게 아니고.
#4 쌀떡허곡 저 빵떡하고게.
#1 우리도 이번 갈 거 쌀떡을 맞추젠 헤놓난에 심방이 쌀떡은 허지 말앙.
#4 빵떡.
#1 상웨떡으로 헙서.
@1 어.
#4 게난 여름에는.
#1 당신네도 상웨떡 허난.
#4 철따라 먹는 거난.
#1 경헙디다.
@1 게난 옛날에 이제 당할망이 이거 받아난 거 그대로.
#1 예, 예.
#4 그게 철따라.
@1 철따라.
#1 철따라. 여름엔 상웨떡, 겨울엔 돌레떡. (웃음)
#4 쌀돌레떡.
#2, 3 모물돌레떡.
@1 모물돌레떡.
#3 모물돌레떡.

#4 엿날은 모물 많이 가니까 모믈돌레떡.
@1 예.
#4 이젠 쌀 하놓난 쌀.
@1 이거 나중에 이거 다시 한 번 조사를 헤사켜. 거난 요거 요정도 허곡.

포제

@1 그다음에 포제도 헙니까? 이 동네?
#2 포제 허주.
@1 어, 삼춘네 이제 포제는 남자가 허는 거니까.
#3 예.
@1 어떵 헙니까?
#3 예?
@1 포제. 포제는 어디서 헤마씨?
#2 아, 포젯단이라고 젯단 잇어.
#1 여기서 준비헤영.
#2 젯단.
#1 젯단에 강.
@1 여기서는 젯단이렌 골암구나예?
#2 예.
#3 젯단.
@1 겡 언제 헤마씨? 요거는.
#2, 3 정월달에 허는데.
#3 날 봐서.
@1 예.
#2 날짜 받아근에.
#3 며칠날 헌다는 건 날 봐서 헤야 뒈어.
#4 좋은 날 봥 택헤영.
#1 해일파제.
#2 해일파제를 많이 해. 해일파제.
#4 해일파제 허민 다 끗낭. 정월 헤서 해일파제 쳇 번.
#1 쳇 번.
@1 해일파제.
모두 예.
@1 파제는 무슨 말이우꽈?
모두 끗나는 것이 파제.
@1 어.
#4 제사허는 날.

@1 예.
#4 제사.
#1 제 끗난 날.
#2 요 오늘이 해일이믄 오늘 열두 시 지나서 허드라.
@1 예.
#2 뭐든지 예전엔 열두 시 지나야 다 제살 지내고. 요즘은 ᄋᆞ답 시에도 허곡 아홉 시에도 허는데, 옛날은 열두 시 지나야 제사를 지냇거든예. 그래서 우리도 이 포제는 똑 열두 시 지나야 헤요.
@1 으.
#2 지나면은 오늘이 해일이면은 오늘 아침 영시를 기헤서 제사 지내는 거주게.
@1 그래서 해일에 파제허는다는 말이구나예?
#2 예, 예.
#1 첫 해일.
@1 첫 해일에.
#2 예, 그날.
#4 정월 첫 해일.
#3 마을 총회에서 제관을 선정헤근에, 이 여기서 삼일, 아, 이틀간 근무헤서 그날 갑니다.
@1 음. 음식들도 여기서 다 준비?
#3 으, 다 여기서 준비헤.
#1 예. 헹 멕이곡.
#3 이일간은 여기서 근무헤야.
@1 이틀간예?
#3 예.
@1 그러면 그때 금줄도 메곡 헙니까?
#2 으, 다 헤야지.
@1 겡은에 해일파제. 예.
#4 정월 첫 해일파제.

문화재

@1 어. 이 수산에 문화재렌 허믄 뭐 뭐 이시코마씨? 저기 진안, 진안할망당도 문화재로 뒌 걸로 알고 있는, 이번에 헤 가지고.
#2 예.
#1 본향당도 뒈 불고.
#4 다 문화재 뒈벳수게게.
@1 아 본향당도 문화재 뒈고. 그다음에 여기 성담도 잇잖우꽈?
#2 진성.

#3 건 진성.
@1 그것도 문화재네.
#4 다 뒈벳수게.
@1 문화재가 하네, 세 개?
#1 문화재 거 우리 알 건인 그것이 문화재에 들어가벳수다.
@1 예. 그러면 저기 그 성은 무슨 성이렌 골읍니까?
#1, 3 진성.
@1 진성. 그다음 수산진성이네.
#1 네.
@1 그다음에 아까 문화재는 본향당은 누게 모션? 거기는.
#1 여기 조상.
@1 조상신 이름 혹시 알아지쿠과?
#1 아.
@1 그건 모르고?
#1 할무니 할르부지.
@1 할머니 할아버지 부처예? (전화소리) 예, 것도 문화재. 그다음에 진앙할망당도 문화재. 알아수다.
(잡담, 부분 생략)

신천리 당

@1 거난 신천허곡 여기허곡 뭐 뚜난 거 이십디가? 풍습이?
#4 풍습 거의 난 해녀로 저딘 바다에 잇곡 여긴 웃드르난 그게 차이주게.
@1 음. 바다예? 저기 신천에도 할망당 유명허잖아마씨.
#4 예, 거기는.
@1 나무에 옷 입히곡 거기는.
#4 거긴 이디 왕 그것이 하나 뜰려.
@1 예.
#4 거난 어릴 때 봐도 우리 밧 하나 이신 디는 연딧밋이엔 헌 딘디.
@1 연디밋.
#4 으, 연디를 이렇게 쌓아놧는디 우리 밧이 앞이 잇어.
@1 으.
#4 건디 동글락허영 가이 묻은 것 같애 우리 생각허민. 그 앞에 우리 밧 옆에 또 당이 묻언.
#2 음.
#4 당이 모셔.
@1 으.
#4 견디 연디뭇, 연디뭇 헨 우리가 어릴 때 아부지안티 무사 연디뭇이우과? 허난에

그 고기잡이 가근에 그 바다더레 보면서 아부지 오는 거 기다리다가 거기서 털어젼 죽으난 이디 묻어실 거여.
#3 아.
#4 우리 아부지가.
@1 으.
#4 그 말만 들언 그 밧을 가면은양 똑 가운디 밧 ᄒᆞ나에 그 둑텅(?) 이렇게 싼 무덤 잇곡 밧 벳깃디는 막 연디 크곡 헤놓곡 우리 밧 밧겻디는 나무에 옷 입히고 당 모셔 나수다.
@1 지금도 이십디다게.
#4 잇지양.
@1 예, 예.
#4 잇어.
@1 나무도 이만큼 허곡.
#3 으.
#4 예, 낭도 크곡. 거난 어린 때라 부난에 그 말만 들엇주.
#1 신천리 당이 큰ᄀᆞ라.
#4 막 커. 경헌디 저짝에 그 어디 동쪽에 당 이신 거는 나가 어려 부난 몰른디 그 당은 아침이부떠 할머니들이 강 심방이 우리 ᄀᆞ치록 막 모여 앚지 아녕 일, 그 바다 가곡 허난 아침이 강 오는 사름 정심에 강 오는 사름.
#1 신산이도 경헌덴 헙디다. 경헌 당.
#3 이녁만썩 기자.
#4 예, 이녁만썩 여기서ᄀᆞ추룩 아녑다. 우리 어린 때난 난 가게 봐부난 신천이서 가게 봐 불민 가멍오멍 종일 허는 당이 잇어.
@1 으.
#4 저 동잇한집이엔 헤근에 동쪽에. 건디 우리 짝에 이신 는 거의 모돠졍 오는 거 같애.
@1 으
#4 그 연디밋이엔 헌 딘 애기가 그때 아부지 바다에 간에 고기잡으레 간에 이제 기다리다가 지쳔 떨어졍, 배고판사 떨어지신디 하이튼 경헌 무덤이여 헌 것만 알아.
@1 예.
#4 우리 밧이 잇어 부난.
@1 예.
#4 그거벳긴 난 잘 몰라. 어릴 때 시집오곡 허난.
@1 예, 예.
#4 그 정도는 잘 알아져도 그다음은 몰라.(웃음)
@1 예, 알아수다.

일월

정월 멩질

@1 자, 그다음엔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 정월. 정월 허면은 가장 첫날 허는 게 무신거우꽈? (생략)
#2 정월에? 정월에사 정월 명질하고 세배허곡 그것벳기 뭐 더 이수과?
@1 예, 정월 멩질은 이 수산에서 어떤 식으로 헤신고예?
#1 그자 엿날사 멩질허곡 세배허곡.
#2 세배허곡 그거주, 무슨.
#3 으, 옛날에는.
@1 예.
#3 그 이녁만썩 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종가칩을 문여 허는 디가 잇곡.
@1 예.
#3 맨 내중에 허는 디가 잇고, 종가칩은.
@1 아, 것도 뚜납니까?
#4 예.
#3 예, 뚜나요.
@1 집안에 따라 다르구나?
#3 집안에 따라서. 게난 종가칩을 저 내중, 저 종손칩을 문여 허는 디가 별로 드물어. 내중에 허곡.
@1 예.
#3 근데 우리 집안은 종가칩을 문여 헷어.
#4 아, 경헙니까?
@1 음.
#3 우리 집은. 종가칩을 문여 헷어.
#2 거 촌집이우다게.
모두 (웃음)
@1 다른 데는 종가칩을 먼저 허는데.
#1 예. 종손칩이 강 막 오래 앚앙은에.
#3 종가칩을 문여 헷어.
@1 게믄 정월 멩질 허젠 허면 전 그때부떠 막 준비를 헤얄 거잖아예?
#3 으, 아시날부떠. 아시날 준비헷다가 먼저. 아이, 그날 준비, 아시날 준비가 아니고 그 날 준비.
@1 정월을? 떡도 허젠 허민?
#3 에, 그날 준비.
#1 어떵 헹 그날 준비헤집니까?
#3 아, 아시날, 아시날.

#1 아시날 준비허주.
#2 섣둘그믐날 전부 준비허주.
#3 아시날 준비허주.
@1 예.

명질 준비

@1 거난 이거는 여자 삼춘안티 들어봐야크라. 정월 멩질 출리젠 허믄 아시날부떠 출려야 헙니까 더 전에부떠?
#1 더 전에.
@1 예, 어떵 출려수과?
#1 쏠 헤근에 시져근에 컷당.
@1 응.
#1 또 가루 ᄀᆞ는 것도예, 떡허는 전에 골아수다. 경허민 막 물려근에 골지 못헤영. 막 엿날은 싸움이 많으주게. 막 느가 먼저 왓저, 나가 먼저 왓저 허민.
#2 아으, 그 전에.
@1 으.
#2 그 정미소가 생길 때고.
#1 예. 정미소.
@1 으.
#2 정미소가 엇을 때는 그 물ᄀᆞ량 알아집니까? 물ᄀᆞ레?
@1 예, 물ᄀᆞ레.
#2 물ᄀᆞ량.
@1 물ᄀᆞ량 알아지쿠다.
#3 거기 강 골앗지.
#2 그 물ᄀᆞ량에서 그 쌀ᄀᆞ루를 갈아엎곡.
#1 방에. 방에.
#2 또 밀가루, 밀, 밀 재배, 밀가루 헐 때는 정ᄀᆞ레, 이 손으로 허는 정ᄀᆞ레서 골아서, 예, 골앗고.
@1 으.
#2 모밀가루 갈 때도 이 정ᄀᆞ레서 골앙 이제 체로 다 쳐 가지고 이제.
#1 정월 멩질은 허젠 허면은.
@1 예.
#1 나흘을, 나흘 역벌엿수다, 나흘.
#2 밀가루, 거 밀가루를 갈아서 밀가루 떡 찧어 가지고 떡을 만들앗어.
@1 예.
#2 쭤기떡이라고.
@1 쭤기떡. 예.

#2 쭤기떡. 밀가루 좋은 거는 떡을 헷고, 정기떡을 헷고, 빙떡.
@1 미신 밀가루로 전기 헙니까게?
#4 모밀ᄀᆞ르게.
#2 아, 모밀가루. 아 밀가루로 빙떡.
@1 예, 전 지질 수 잇지.
#2 묵, 묵을 헷거든. 모멀가루.
@1 예.
#2 밀가루 껍질은 쭤기떡이라 헤 가지고 상웨떡ᄀᆞ치 밀가루로 상웨떡을 만들엇거든.
@1 예.
#2 상웨떡을 그 제에 쓸 걸로 만들고, 이녁 자기가 먹을 거는 그 밀가, 밀 껍데기.
@1 예. 밀주시.
#2 밀주시[밀쭈시].
#1 밀주시.
#2 밀주시로 그 쭤기떡이라고 헤 가지고.
@1 예.
#3 거 헹 먹엇어.
#2 그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엇고.
#3 먹은 건 맞아.
#2 좋은 가루는 떡을 만들엉 제사 준비를 헷곡. 그렇게 헷어요.
@1 예, 옛날 못살 때덜은예?
#2 예, 못살 때는.
@1 자, 이제는 이제 다른 삼춘은 속솜허곡. 우리 여자 삼춘.
#4 본 바 잇언 삼춘이 잘 알주.
@1 예, 굴읍서. 아까 멩질 허젠 허민 메칠을 헷다고?
#1 나흘은 역 벌여사예.
@1 네.
#1 쏠 씻는 날 말아도 아시날 이제 다 그 준비허곡 쌀 시졍.
@1 예, 쌀 시졍.
#1 컷당.
@1 예.
#1 이제 그 미리 그 크는 날 어둑엉 굴 사름도 잇곡. 아시아시날 컷당 그 ᄋᆞ드렛날 ᄀᆞ루 ᄀᆞ는 사름도 잇곡.
@1 예.
#1 아흐렛날 굴아근에 떡헐 사름도 잇곡, 한 사름은 ᄋᆞ드렛날 굴아사 아흐렛날 떡헙니다게.
@1 예.
#1 경 헤근에 허난 우린 한 집이 헤나난 우린 나흘을 난 족은 메누리난 나흘 줌뿍

살아사 멩질이 끗나.
@1 으.
#1 경 헤근에 허민 춤, 큰집이 종가칩이 가근에 끗나민 이제 사람도 많고 헤놓민예 저, 엿날 멩질, 이제 멩질은.
@1 응.
#1 아시날 출려도 오곡 진짜 그날 오후에 출려도 오곡 간단허게시리 허니까. 다 모아들지 안허니까.
@1 예, 예, 예.
#1 서로 이젠 ᄉᆞ춘 간도 이젠 흔디 안 헤 먹엉 이녁만썩 먹는 디도 잇곡 허난.
#2 이녁만썩 헤 헤 먹어.
@1 으.
#1 간단허게.
@1 게난 그 삼춘 옛날에 그 멩질 저, 아침에 국멩질은 안 헤수과? 모멀.
#1 아, 저 국수멩질?
@1 칼국, 국수멩질.
#1 우리 수산은 국수멩질 허는 디가 엇어.
#4 아무집이나 안 헙니다.
@1 아.
#1 예, 모관은 똑 헌덴 헙디다마는 우리 수산은 국수멩질.
#4 국수멩질은 엇엇지?
#1 엇어. 수산은 엇어.
@1 수산은 엇어예?
#1 예.
@1 수산은 엇고예?
#4 건 올케 막 부제칩이 허곡.
#1 아니 부제칩이도 아녀, 이디.
#4 아니 수산 말앙 딴 디.
@1 으.
#1 딴 디는 허주.
@1 게믄 그 정월 멩질날 이제 출리는 거예? 뭐, 뭐 출려? 상에 이제.
#1 밥, 국허곡.
@1 예.
#1 고기적 두 가지. 소고기적 뒈지고기적 또 헌덴 허면은.
#4 바닷고기적.
#1 바다고기, 문어 허는 사름은 문어도 허곡.
@1 문어도.
#2 아이,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엇어.

#4 옛날은 그런 게 없엇어.
#2 옛날에는 그 뒈지고기도 춤 눈에 보일동말동 할 정도로 헷곡.
#1 두 가진 다 헷수다게.
@1 으.
#1 우리 시집온 후젠 다 헤수다게.
@1 예.
#2 문어적도 그런 것도 없엇곡.
@1 두 가지는 기본 허고예?
#2 예, 우리 수산에는.
@1 으.
#2 뭐 소고기적도 헐 셍각 않고. 소고기가 없으니까.
#1 아이구, 엿날엔 소고기가 하나수게.
#2 소고기가 어디 실 말이라? 토신제 헐 댁에도 제주시 강 갈 사름안티 사다ᄃᆞ렌 헤근에 요만큼 사당 토신제를 헷는데. (전화 소리)
#3 옛날엔 그 묵허곡 바닷고기 뿐이라. 옛날에 묵허고, 메밀묵허곡. 아이, 저 바닷고기뿐 거 두 가지라, 엿날엔. 아무리 큰 부자칩이라도.
@1 다 집안마다 좀 가가례 ᄐᆞ나난예?
#1 우리도 시집완 보민 문어적은 똑 헙디다.
@1 어. 거난 웨냐면, 이 제사는 가가례라 부니까예.
#3 예.
@1 삼춘네는 이제 문어적도 하고. 게문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1 으.
@1 그다음에 밥하고 이제 개영, 갱국허곡.
#1 갱국허곡 탕쉬.
@1 탕쉬하고.
#1 메물탕쉬.
#3 메물탕쉰 꼭 허곡.
@1 여기는 메물탕쉬.
#1 고사리.
@1 예.
#1 고사리, 세 가지 딱 헤사 허는 거 아니꽈게.
@1 예.
#1 콩나물, 고사리.
@1 으.
#1 이제 미나리나 무시거 헤근에 아무거나라도. 양에나.
@1 예.
#1 경 헤영 세 가지.

@1 그난 탕쉬를 꼭 메물탕쉬로 헤여예?
#1 예. 메물탕쉬.
@1 으, 그냥 안 허고? 메물탕쉬로.
#2 그땐 호박적도 헷어, 호박적.
@1 호박적.
#3 으, 호박적도 헷주. 호박적 허는 사름 잇어.
@1 호박적은 어떤 식으로 헤수과?
#2 호박적 짤라 가지고.
@1 으.
#2 거 불에 구워 갖고.
@1 그냥 불에 구워예?
#2 예.
@1 음.
#2 소고기 적갈허듯.
@1 그 뭐는 안 허고? 가루 같은 건 안 묻형?
#2 예.
@1 그냥 구워예?
#2 호박 짤라 가지고 고기 그거.
@1 적고지에 꿰영.
#2 적고지에 꿰영은에 구웡은에 그거 호박적.
@1 게믄 묵은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2 모밀묵이주.
#1, 2 메밀묵.
#1 쒀사.
@1 쒕은에?
#2 예.
#1 지진묵은 아년덴 허멍 정월 멩질에 못 허게 헙니다.
@1 아, 지지면.
#1 지져 불민 안 뒌덴.
@1 정월 멩질, 팔월은 헤도?
#1 팔월에는 어떤 사름덜은 헤도.
@1 예.
#2 이젠 벨로 지지는 데가 엇입니다게.
#1 지진묵은 아년덴 헤근에 안 헙니께.
@1 음.
#1 지져 불민 안 존덴. (웃음)
@1 예. 예.

#1 아(웃음), 무사 그런 말 이수게게. 옛날에.
@1 예. 그래서 꼭 쒕은에.
#1 이제는양 젊은 사름덜 이젠 다 지졈수다.
@1 응. 지진묵을 헤 불민, 지져 불어예? 집안이 안 좋다고.
#1 지져 불어, 쉽게.
@1 으.
#1 이젠 뭐 좋고 안 좋고 엿날식이 엇이난.
@1 삼춘 이 동네는 모멀묵 허면 네모나게 헙니까? 아니면은 나비적으로?
#1 건 집마다 뜰립니다.
@1 아.
#1 나비적이나 모적이 다 뜰립니다.
#2 아니 저, 이 묵을 이것도 네모나게 안 허곡. 사각모지게.
@1 예게.
#1 모적.
@1 모적.
#3 모적.
#1 모적.
@1 그니까 모적은 이렇게 딱 뒌 거곡. 이렇게 헌 거는 나비적이곡 여기 영 뒌 거는 예?
#1 것이 모적이엔 골아. 저것이 나비적.
@1 아니, 이게 나비적.
#3 그게 나비적이곡.
#2 이렇게.
#3 귀가 나, 귀가 난다고.
@1 아, 귀가 나게?
#1 귀가 난 것이 이것이.
#2 요렇게.
@1 아, 예, 예, 예, 예.
#1 영 꿰면은 귀가 올라옵니께게.
#3 귀가 난다고.
@1 음. 이렇게.
#2, 3 예, 예.
#3 그게 정상.
@1 이게 나비적.
#1 그게 정상.
@1 이게 모적예. 아.
#1 모적.

#2 이 적을 많이 헙니다, 다.
@1 아 수산에는 귀가 나게?
#3 귀가 나게.
@1 거는 무사 귀가 나게 헙니까?
#2 거 뭐 옛날 어른덜이 어떻게 어떻게 허는지 몰라.
#3 통상으로 내려오는 거니깐.
@1 예.
#2 풍속이 이젠 내용을 모르고 왜 그런지.
@1 이 남쪽 쪽에, 이 모적을 하영 허는 것 같아예?
#3 예.
@1 예. 게난 그 게믄 그 썰 때.
#3 예.
@1 귀나게 썰라 영 헤?
#2 예, 요렇게. 식으로.
#1 귀나게 썹니께게.
#2 요렇게 썰어.
#1 꿰면은, 이 귀가 올라옵니께게.
@1 예.
#2 이거 칠십 프론 경헤실 거라.
@1 아 이 동네예? 아이고 누게 식게나 멩질 헐 때 누구 적갈이나 사진 찍엇으면 좋겟다. 묵적. 팔월 멩질도 경 헤?
#1 예, 예.
@1 예.
#2 제사 때도 마찬가지.
@1 삼춘네 집에 사진 하나 찍엉 보내줍서예? 그다음에 이제 적 이렇게 하곡. (웃음)

멩질 떡

@1 그다음에 적갈 허는데 또 정월 멩질날 꼭 들어, 올라가야 뒈는 떡. 떡은 무슨 떡 헙니까?
#2 친떡.
@1 친떡은 뭘로? 쏠로?
#2 쏠로.
@1 예, 친떡허곡.
#1 솔벤, 절벤.
#2 솔벤, 절벤.
@1 예, 솔벤, 절벤하곡.
#2 우찍.

#1 우찍.
@1 음. 우찍.
#2 우찍을 우지시라 헤요, 우주시.
#3 우지시.
@1 우지시.
#2 지금 우찍, 우찍 헌 거 우지시.
@1 옛날에는 이 동네는 우지시예? 시엣 사름덜은 우찍 허곡 우지시. 게믄 네 가지만 올려?
#1 떡은 네 가지.
@1 아 여기는 인절미 이런 건 안 헙니까?
#2 예, 아녑니다.
#1 아녑니다.
@1 안 하고예? 아, 떡은 네 개.
#2 예.
@1 게믄 떡 올리는 순서는 어떵 헤?
#2 제펜.
@1 친떡이 제펜.
#2 제펜.
@1 예.
#2 그 우에, 그 우에.
@1 제펜은 멧 개?
#2 제펜은 그.
#1 네 개.
@1 아, 네 개마씸?
#2 아이, 거 웨냐면은 각 가정마다 틀리는데 둘이면은 네 빗.
@1 예.
#2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헹 네 빗.
@1 응.
#2 또 우리, 우리 집에는 종가칩이난 그렇게 헷어요. 한 부체면은 세 도리. 두 개씩 헤서 세 도리.
@1 아, 세 도리.
#3 으.
@1 아. 게믄 흔 부처당 두 개구나? 한 사람이 하나씩 주는 거구나?
#1 두, 두 빗.
#2 두 빗.
@1 두 빗. 거난 흔 부처당 두 빗.
#2 예.

#1 아니, 흔 부체민 네 빗이주게.
@1 아, 한 사름에 두 빗.
#2 두 빗씩.
@1 아 삼춘넨 저기 할무니가 둘이구나?
#2 예. 우리 종가칩이난 그렇게 헤서 여섯 빗을 올려.
@1 여섯 빗. 게믄 여섯 빗을 세 도리로 이렇게.
#2 싸곡 그 우에 절벤.
#1 절벤.
@1 절벤.
#2 절벤 다음 솔벤. 솔벤 다음 우주시.
#1 우지시.
@1 예, 게믄 절벤은 몃 개 정도 올려마씨?
#2 아, 절벤은 이제 아홉 개.
@1 아홉 개.
#2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예.
#2 이렇게 헤서 솔벤도 마찬가지.
@1 솔벤도 아홉 개.
#2 예.
@1 우지시는?
#2 우지시도 마찬가지로.
@1 아.
#2 겡 요즘은 다 약식이 뒈 가지고.
#1 약식으로 뒈언 다섯 개 정도.
#2 옛날엔 겡 우리 종가칩에 그렇게 헷는데.
@1 예.
#2 요즘은 전부 약식이 뒈 가지고 막 간소화뒀어.
@1 요즘은 간소화 하고예? 옛날에는 그니까 삼춘네는 종가니까 이제 세 도리. 두 빗씩 세 도리 헌 거라예. 게믄 그 제펜에는 풋은 놉니까? 안 놉니까?
#2 아 옛날 풋 안 놧어 헷으니까.
@1 하얗게.
#2 예, 풋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 헤 가지고.
#1 눈, 눈.
@1 눈.
#1 눈 놓는 딘 놉니다마는.
#2 팟을 안 놓곡 하얀 떡.
@1 하얀 떡.

#2 지금도 보편적으로는 그 팟을 안 썻어요, 하얀 떡으로 헤서. 거 팟은 귀신을 쫓는 거라 헤 가지고.
@1 예.
#2 흰 떡을 많이 헤.
@1 으. 그니깐 이제 훼장님네는 종가칩이니깐 하고. 삼춘네는 눈 부쳐난? 떡?
#1 엿날에, 예. 흰 떡에 눈.
@1 멧 개 부쪄?
#1 이디 영 허여근에 저 팟이나 콩 헤근에 놉니다게.
@1 예. 게믄 그 눈은 멧 개 부찝니까? 하나에.
#1 하나에 세 방울 헹 톡허게 이 눈을 부쪄.
@1 아, 하나에?
#1 예.
@1 한 군데?
#1 한 빗에.
@1 한 빗에.
#1 빗에.
@1 예.
#1 게믄 우리는 또 묘제 출릴 때도 똑 경 놉니다, 지금도.
@1 아, 삼춘 이게 한 빗이면.
#1 으, 그레.
@1 이 옆에 세 개를 이렇게 합쳥은에.
#1 예, 똑허게.
@1 한 군데만 놓는구나예?
#1 예, 똑허게 눈 놉니다.
@1 아. 다른 데는 보니깐 옆에도 놓기도 허는데.
#1 우린 딱 흔 군데.
@1 세 개, 세 방울예? 그때 풋이나.
#1 콩이나.
@1 콩이나. 예, 눈부치기도 하고예? 아.
#1 경헌디 이젯 아이덜은 거 눈 부치멍 거 안 허켄 헙니다.
@1 거난 이 눈은 무사 부쳣덴 허는 거우꽈?
#1 몰르쿠다.
@1 그거는 모르고.
#1 양 골아 봅서. 눈 무사 부쳔.
#2 엿날 하르방덜 헤난 거.
#1 옛날 하르방덜 우리 진짜예, 종손 하르방이 우리 묘제는 나안티만 멧겨나난.
@1 아.

#1 게난 그 눈은 똑 놔근에 지금 허는디, 올리부떠는 눈 아년에 기자 친떡으로 헤벰수다.
@1 올히는 침떡 헷구나예?
#2 엿날 식이 엇수다게.
#1 엇수다, 이젠.
@1 시기에 다 바뀌어 갖고예?
#1 다 바껸.
@1 하르방덜 헷갈리지 안허카? 떡 먹젠 헤도 눈 춪암시민.
#2 옛날식이 엇어.
@1 게믄.
#3 옛날 하르방이 막 간추려 벳수게게. 제ᄉᆞ도.
#1 저 솔벤, 절벤도 다 약식으로 올리곡.
@1 약식으로 올리고.
#1 이젠 다 약식으로 올려.
#2 이젠 전부.
@1 게도 솔벤, 절벤은 다 허긴 헤마마씨?
#1 예.
@1 아, 거믄 어디?
#2 우린 똑 솔벤, 절벤 헙니다.
@1 방엣간에 강 헹 옵니까?
#2 예, 방앗간에 강.
@1 어느 동네?
#1 떡집이 다 잇수게.
#2 떡집 다 만들어져마씨.
@1 이 수산에? 아니면 저.
#1 수산.
@1 아 수산에 떡집이 잇구나?
#2 예, 동남도 잇고 허난.
@1 예. 우지시는 무신걸로 헤?
#2 것도 쏠로.
@1 아 쏠로.
#1 찹쌀로 허민 이녁 먹기 좋으렌 찹쌀로 요샌 헴수다만은 다 저 쌀로 같이 헤벼.
@1 옛날에는 다 저기 산디나 산디쏠로 헹은에 다 헷구나?
#2 예.
@1 예. 지금도 산디쏠로 헤 갖고 우지시 허겟다예?
#1 예, 그거에 ᄀᆞ치 부쪙덜 헴주. 집이서 먹을 거난.
@2 우지시는 어떤 모냥마씨?

#1 별, 별.
@1 벨, 으.
#1 것이 별.
#2 돌.
#1 돌, 별, 헤.
@1 예.
#2 허는 거난게.
@2 기름떡이영 똑ᄀᆞ타?
#1 기름떡이게 그것이 우지시.
#2 그것이 우지시.
#1 지름떡이 그것이 우지시.
#1 (전화) 지름떡이.
@1 게난 삼춘 절변을 여기서는 헤렌 헴구나?
#2 어?
@1 절변을 헤?
#2 절변, 절변.
@1 예.
#2 헤.
@1 저기.
#2 솔변은 돌.
@1 돌.
#2 우지시는 별.
@1 우지시는 별.
#2 예.
@1 친 저기 제펜은?
#2 건 땅.
@1 그거는 땅.
#2 예.
@1 하늘은 없네? 헤가 잇으니깐.
#2 하늘은 엇어.
@1 예, 여기서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헤예? 예. 그다음에 이거는 떡 올리는 거고.

차례상

@1 아까 이제 그 차례상에 하면 갱국은 주로 무신걸로 헙니까?
#2 바닷고기.
@1 바닷고기.
#2 바닷고기로 못 헷을 때 소고기.

@1 아, 우선은 바닷고기로 헤예.
#2 예, 바닷고길 우선.
@1 바닷고기는 주로 어떤 종류로 헤마씨?
#2 여기는 뭐 대충 다 옥돔.
@1 옥돔.
#2 비늘 없는 고긴 갈치 같은 거는 못, 안 하니깐.
@1 음.
#2 비늘 없는 고기는.
@1 예. 이 옥돔을 이 동네선 뭐렌 불러수과?
#2 솔레기.
@1 솔레기. 이 성산 바당이나 이런 데 솔레기 하영 나난 이걸로 주로 허는구나예?
#2 주로 구거주게.
@1 예. 게믄 우리 솔레기 헤갖고 궝도 올리지 아녑니까? 아까 적헐 때 뭐 뒈지고기적이든 그 소고기적이든 헌 다음에 그 우에 올려 놉니까? 생선은?
#2 아이.
@1 솔레기 군 거는?
#2 솔레기 군 거 그냥 사라에 기자 올리는 거주.
@1 따로?
#2 예, 따로.
@1 아 저기 고기적 위에 놓는 거 아니고?
#2 다 뚜로.
#3 그, 저 우리, 우리는 그 종가칩이난 뚜른 데.
@1 예.
#2 여기가 이제, 이제 젯상이다.
@1 예.
#2 헷을 때 이쪽으론 바닷고기.
@1 예.
#2 여기는 뭐 소고기.
@1 예.
#2 뒈지고기.
@1 예.
#2 뭐 문어고기 이렇게 올리곡. 여기는 묵.
@1 묵.
#2 묵. 이렇게 올립니다게. 이것도 집안 마다 다 뚜나.
@1 집안 마다 뚜나네마씨. 떡은 어디 놔?
#2 떡은 요쪽에.
@1 예.

#2 여긴 메, 메 올리곡.
@1 예.
#2 메는 요쪽에 떡은 여기 올리고. 그니까 집안 마다 다 틀린데.
@1 으.
#2 이 바닷고기도. 바닷고기를 머리를 이쪽으로 돌린 디가 잇곡.
@1 예.
#2 바닷고기를 이쪽으로 머리 돌리는 디가 잇곡.
@1 아.
#2 진설허는 것도 집안마다 다 틀려요.
@1 아, 바닷고기 허는 방향도.
#2 으, 방향도 머리를 서쪽으로 돌리는 디가 잇고.
@1 동쪽.
#2 동쪽으로 돌리는 디가 잇곡.
@1 예.
#2 바닷고기를.
@1 게믄 우리 회장님네는 어느 쪽으로 돌려?
#2 우린 서쪽으로 머릿고기, 머리를 돌립니다게.
@1 게믄 머리는 이렇게 어펑근에?
#2 아니, 아니.
@1 이렇게 갈라?
#3 으, 갈라.
#2 것도 다 틀려.
#1 휘는 처레로.
#2 밖으로 베를, 베로 이제 갈른 고기는.
@1 으.
#2 또 어펑 올리는 집안도 잇고.
@1 예.
#2 또 갈랑 올리는 집안도 잇고. 우리는 고기를 항상 등으로만 갈라서 하니까, 이 갈라지는 거지, 베를 밑으로 내려가게.
@1 으. 겡은에 이런 식으로.
#2 예, 예, 예.
@1 삼춘네도 이렇게?
#2 예.
#3 그런 식으로.
@1 어, 이 동네는 거의.
#2 베가 밑으로 가게.
@1 등으로 페싸 부니까.

#1 등으로 페싼 디가 합니다.
@1 아.
#1 게난 저 장에 가근에 사왕 베로 페쓴 거.
@1 으.
#1 우리 묘제 출련에 간디예, 진설허난 오칩이도 다 뜰련게.
#2 다 틀려.
#1 ○○가 **헤서 ○○가 강 진설허난 궤길 문딱 어퍼 올린 거 아니?
@1 으.
#2 건 베로 펜쓴 거주게.
#1 게난 베로 페쓴 거.
#2 베로 페쓴 거는.
#1 경헙디다게.
#2 베로 이렇게 갈른 거는 이렇게.
#1 어펑 휘엉 가는 거렌.
#2 바닷고기 영 휘엉 가는 모냥으로.
#1 휘엉 가는 ᄎᆞ례로 올리는 거 아니꽈, 아 경 허는 거냐? 난.
#2 등으로 페쓴 거는 또 갈라.
#1 갈라 어프고 경헙디다.
@1 예. 거난 휘엉 가는 ᄎᆞ례로.
#2 예, 예.
@1 거난 베로 저 페쓰냐, 등으로 페쓰냐에 따라 다르구나.
#2 예.
#1 대부분 여깃 사름은 등으로 페싸오주게.
@2 어.
#1 장에 강 사민.
@1 사민예? 거난 지역마다 다 이제.
#2 지역마다 틀립다게.
@1 등으로 페쓴덴 허면 고기도 크덴.
#2 예.
@1 예? 베로 페쓰는 것보단 고기가 크덴 허더라고 허덴마씨.
#1 (웃음)
@1 게믄 그 이런 그 순서들도 다 다르고예? 겡은에 갱국은 옥.
#2 갱국도.
@1 솔레기.
#2 갱국도양?
@1 예.
#2 틀려마씨. 그 메허곡 갱국허곡 올리는 것도 집안마다.

@1 아.
#2 좌측에 갱국 올리는 디가 잇곡 우측에 올리는 디가 잇곡.
@1 음. 거는 무산고? 웨냐 돌아가시면은.
#2 아, 그러니까.
@1 예.
#2 그게 귀신은 뭐 바꽈진다고 헤 가지고 겡 그렇게 올리는 디가 잇곡.
@1 예.
#2 또 어떤 집은 그 생신 때 밥상 받는 식으로 이제 또 올리는 디가 잇곡. 이제 갱국을 올리는 디가 잇고. 요쪽에 갱국 올리는 디가 잇곡, 요쪽으로 올리는 디가 잇고.
#1 예, 경허주.
#2 것도 집안마다 다 틀려요.
@1 집안마다 것도 다 틀리고예? 게믄 우리 회장님네는 어느 쪽으로 올려?
#2 우리는 요쪽에 밥, 요쪽에 국.
#1 들어가멍양?
#2 정면에 보이게, 보이는 대로.
@1 보이게, 음.
#2 예.
#3 우리도 이 식.
@1 음, 꺼꿀로네.
#2 아, 정면에 딱 보면은 요쪽엔 갱, 요쪽엔 밥.
@1 그니깐 아, 거는 우리 살아 계실 때처럼?
#2 예.
#1 구신이 영 받아 앚게.
#2 받아 앚게 말고 반대뒈는 거지.
@1 우리 허면 오른쪽에 넣어야 뒈는데.
#1 예, 예.
#2 우리가 볼 때는.
#1 으, 경 헌덴.
#2 오른쪽, 웬쪽인데, 귀신이 상을 받으면은.
@1 예.
#2 바꽈지는 거 아녀? 이게.
#1 예, 경허는 거.
#2 웬쪽이.
@1 살아 잇을 때랑 달르구나.
#2 웬쪽이 국이 뒈고 오른쪽이 밥이 뒈는 거 아니꽈.
@1 예, 예.
#1 우리도 경 올립니다.

@1 어.
#2 맞은편이 보면 바꽈지는 거라, 우리가 볼 때 허고.
@1 이렇게 아지지 아녑니까, 귀신이. 여기가 상이면.
#2 예, 그러니깐 그 자리는 웬쪽엔 국.
@1 국.
#2 오른쪽엔 밥.
@1 예.
#2 우리가 볼 때는 정면으로 볼 때는 오른쪽이 국 웬쪽이 밥.
@1 그건 살아잇는 식이고예?
#2 예, 예.
@1 아, 그런 식으로 하고.
#3 것이 통상일 거라.
#1 예.
@1 근데 또 꺼굴로 하는 데도 잇는 거 같고예?
#2 예, 예, 예.
#1 몰라 부난.

과세

@1 그 세배는 어디에서 헤마씨?
#2 아 거는 집안마다 집이 찾아 강 세배허는 거주.
@1 건 멩질 먹는 날, 모여든 친척들은 흔 집에서 허지 아녑니까?
#2 예, 흔 집에서.
@1 거는?
#2 아 그러니까 그 집안이 형제가 사 형제일 경우 사 형제가 그 집에서 다 따로따로 저 제사를 지내니까 그 친족이 돌아다니는 거지, 이제.
@1 으.
#2 그 요 집이 강 제사 지냉은에 또 요쪽으로 옮기고.
@1 예.
#2 거기 갓을 때는 그 집이서 다 세배를 허곡. 게 종가칩에서는 차례상을 심어 놓니까 안 가거든.
@1 응.
#2 나도 이제 뭐허니까 그 동서네 집엔 안 가는데 그다음은 우리 집이 전부 제사지내레 와서 또 나가 세배를 전부 받는 거지.
@1 예. 건 옛날도 지금도 다 똑같아?
#2 예.
@1 예. 그난 옛날에는 집집마다 멩질 헌 거라예?
#2 예. 아, 지금도.

#3 지금도.
#2 그렇게 허여마씨.
#3 집집마다 허주.
@1 집집마다 다.
#2 헤서 내중엔 우리 종가집으로 전부 모여오는 거지.
@1 예. 세배는 그런 식으로. 옛날에 그 과세들 그 우리 말고 동네 어른들 과세 가고, 과세꾼들 왕은에 음식허곡 이런 건 안 헤수과?
#2 무사게 안 헐 말이우꽈?
#3 옛날엔 많이 헷주.
#1 에이고. 그거 허민 흔 사흘 저르 엇엇수다.
@1 어.
#2 세배를 하루만 오는 게 아니고 둣날도 오곡. 뭐 이삼일은 이렇게 헹 찾아오니까.
#1 술상 출리젠 허민.
#3 삼일끄진 헷주.
#2 예. 삼일끄지 허니까게.
#1 아무 디도 못 갓수다.
@1 그 수산은 물이 귀허니까 이 멩질 허젠 허면 물 짓는 것도 일이커라예?
#1 아이고예 게곡.
#3 엿날이사 궹장히 경.
#1 큰일 나면은 물 흔 허벅 질엉 강 부지.
@1 부지허고.
#1 막 그것이 막 크게 헷수다.
#3 우리, 우리 물 얻는 덴 그, 저 마차로도 물 저 동남 저 고성 간 시껑 왓는데. 정기못 가서 마차로.
#1 구루마.
#2 잔치나 허고 초상이나 나믄.
#1 구루마로 다 시꺼 와수다.
#3 도루무깡 헹은에.
#2 구루마, 마차, 마차에 실러서.
@1 응, 그렇게 이제 하고예.
#3 수산에 그렇게 물이 어려왓주.

멩질옷

@1 그 수산이 이제 오래뒌 마을이니까 이 멩질 허젠 허면 이 옷 같은 것도 준비를 헤시커라예? 제복이랑 이런 것들.
#1 예게. 아니.
#2 다 한복이주게.

#1 다 한복덜게.
#3 한복 그 다 잇는 거.
#1 장게갈 때 헌 한복덜 입주게.
#3 한복 입으면 뒈는 거고 건.
@1 으, 별도로 뭐 머리에 유건 쓰거나 이러진 안헨?
#3 아니.
#2 유건 쓰는 디 엿날에 옛날에 유건 쓰는디.
#1 유건 쓰는 사람 잇어.
#3 엿날엔 옛날엔.
#2 지금도 쓰는 디가 잇수다. 지금도.
#1 지금도 써.
#2 ○○이네 꼭 유건 씁니다. 제사 때.
#1 ○○이네 쓴덴 헙디다.
#2 ○○이네 지금도 제사 때 꼭 유건을 쓰고 허는데. 옛날에는 그 탕근.
@1 탕근.
#2 예, 갓양. 갓.
@1 예.
#1 옛날에 저 무시거 저 성읍리 가근에 무시거 갓당 오믄.
#2 엿날에 탕근, 거 갓.
@1 예. 갓하고.
#2 그거 쓰고 옛날엔 헤신디.
@1 아.
#2 유건 아녕.
@1 그런 것들 보관헤 논 집 이신가?
#2 이젠 없어, 거. 우리, 우리 아부지 때는 다 그거 쓰고 다 제, 제사 지내고.
#1 우리 큰하르부지네도 거 다.
#2 다 그거 썬 제사 지내지.
#1 보난 다 그때 관더레덜 놔 분 셍입디다.
#2 아 우리 아버지넨 다 그거 썬 제사 지낸.
#1 예, 다 헨에.
@1 나중에 관에 놔 불언예?
#1 관에 놘.
#2 이젠 하나토 엇어 그런 거.
@1 거난 삼춘네는 만약에 멩질허게 뒈민 아이덜 옷 저기 사주거나 멘들어주거나 안헨?
#1 아니고 옛날사.
#2 옛날사 무시거 옷 사주고 무시거 사주고.

#1 게도 옷 사줫주게. 아이덜게 멩질 먹으레 가민 옷 자랑허곡 허는 거.
@1 예.
#1 우리도 아이 다섯 개라 놓난. 우린 족은 집이난.
@1 예.
#1 출리렌 맨날 출리렌 가근에 막 출리곡 헤도 아이덜 옷 출려주는 건 잘 출려 줘난.
@1 으.
#1 막 자랑허레 뎅기젠 허민게.
@1 게니까 거 풍습이니까예.
#2 옛날에 멩질 때가 뒈믄 그 집안에 종가칩일 떡허레 다 가는 거라, 이젠.
#1 다 가. 경허민.
#2 떡을 내중에. 우리는 내중에 허고.
@1 예.
#1 종가집이 강 다 떡 헤두고 와서 이제 우리 집이는 허고 이렇게 헷어.
#1 적끄지 문딱 헤뒁 와.
#2 종가집이부떠 문여 준비헤 놓고 와서 이제.
#1 요즘 사름덜은 호강이주게. 아침이 메물허레 가곡.
@1 예.
#1 메물허레 씨집가민 메물허레 가사. 안 가민 퇴척 받아.
#2 옛날엔 종가칩이 우선이니까. 옛날에는.
@1 종갓집 멩질 준비 다 헌 다음에 집이 왕 허는 거라예?
#2 예, 준비를.
@1 삼춘 메물허레 간덴 헌 말은?
#1 새벡이.
@1 세벡이.
#2 멩질 치르젠 허민 메물은 헤살 거난.
#1 큰집이 멩질 메물허레.
@1 예. 게난.
#1 메물허레 강 우리가 강 그 메물을 문딱 헤영.
@1 으.
#1 헤근에 문딱 메영 허영 출려. 진짜 우리 안네 동세는 막 호강헷수다. 우리 동세덜 막 여라이난, 떡허는 거나.
#2 아 옛날은 우선 종가칩이 우선 강 준비해놓고 와서.
@ 게서 종가집이 가갖고 출리는 거를 여기서는 메물허레 간덴헤예?
#1, 2 예, 예.
@1 게난 메물은 탕쉬.
#1 메물은게 당일날 아척게. 당일날 아척도 우리 세수허고 옷이나 출려 입엉 멩질 먹으레 가야 뒐 건디. 우선 메물허레 가사.

@1 아.
#1 메물허곡 강 메허곡 겡허곡 허영 그레 문딴 헹 출립센 허영 둉은에 집일 오는 거라.
@1 아 경허영 집이 왕 출리고.
#1 출령 가.
@1 아.
#1 경허는 거.
@2 메물은 탕쉬를 곧는 거?
#1, 3 탕쉬, 탕쉬, 탕쉬.
@1 게난 아침이 헤야 뒈는 거.
#1 옛날 탕쉬ᄀᆞ라 메물 메물허주게.
@2 아.
#3 아침이 허영 허주.
#1 아침.
@1 예. 아 거난 우리 집 멩질 잇어도 종손칩이.
#1 우선 헤둬사.
#2 우선. 예 우선.
@1 왕은에.
#1 웃초상덜 먹을 거난게.
@1 예.
#1 경헹 못 간 땐 아이고 성님 속아수다. 성님만 출리젠 허난양 허멍 경 곧고.
@1 거난.
#1 경헨 우리가 세상을 살앗주. 지금ᄁᆞ지.
#2 요즘은 다 엇어.
#1 이젠 그 풍습이 엇이난 세상을 우리 메누리든 우리 딸덜이든 다 펜안헌 시대가 돌아왓주게.
@ 경허난 우리가 조사를예. 이제 게도 영 기억허는 삼춘네가 잇으니까 기록이라도 헹 놔두젠 조사헴수게. 으, 그다음에 그 아까 메물 허젠 허면 지금에야 다 사지만 집에서 헤야 뒐 거 아니우꽈예? 고사리도 꺼꺼야 뒈고.
#1 고사리, 고사리, 콩ᄂᆞ물.
@1 콩ᄂᆞ물도.
#1 콩ᄂᆞ물도 놓곡.
@1 어,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 콩ᄂᆞ물은.
#1 옛날엔게 시리에 허영 콩ᄂᆞ물. 종손칩인 시리 헤근에 콩ᄂᆞ물 놧다근에 콩ᄂᆞ물을 막 채소로 헹 먹는 집도 잇고. 어떤 딘 가민 ᄒᆞ쏠만 헤근에 허는 집도 잇고게.
@1 으.
#1 게난 시루에 콩ᄂᆞ물 놔근에 그거 헤영 허는.

#2 아 옛날이야 콩ᄂᆞ물 다 자기대로 놘 먹엇지.
#1 자기대로 놧지. 이지금은 뭐 주전자에덜 놓멍 먹엄지마는.
@1 요즘엔 주전자에도 놉니까?
#3 아, 주전자에도 놉니까?
#1 예, 주전자에 놩 먹읍니다.
#3 콩ᄂᆞ물을.
#1 예.
#2 아 그거 뜨겁게만 허민 콩, 콩, 콩 낭은에 크는 거니까. 물만 주믄.
#1 시리에 허믄 물 비우젠 허민 궂는디.
@1 예.
#1 주전자에 콩 놔근에 허민 물을 영 놩 코로.
#3 물을 비와 불고.
#1 예. 자꾸게. 아침이.
#2 물만 비와 불민 뒈는 거니까.
#1 경 헹 먹어 봅서.
@1 아, 삼춘 그거 허는 거 봣구나, 삼춘도. 주전자에.
#1 집이도 헴구나.
#2 우린 주전자엔 안 헙니다마는.
#1 우리 주전자에 놩 난 먹어.
@ 지금도.
#1 어.
@1 게믄 주전자에 놓는 거를 골아 줍서. 우리 혼 번 헤보게.
#1 아니 물허여근에 콩 놔근에 불려근에.
@1 예.
#3 불려근에.
#1 하영 허지 말앙은에 쪼끄만 주전자에 헤근에 놩.
@1 으.
#1 놓민 그거 뽀족뽀족 납니다게.
#3 아 나면은?
#1 낭게 허민 자꾸 물 줘.
#3 으. 물 줫다근에. 또.
#1 뽑아 먹읍서게. 뽑아 먹으멍.
#3 물 줫다근에 그 물랑 비와불곡.
#1 새 물.
#3 새 물 골고 아.
#1 경허여 가민양 일주일 콩이 요만씩 올라와가근에 훍은 걸라 빠 먹고. 준 거 허멍.
#3 야.

@ 삼춘은 그거 헐 때.
#1 게난 우리 어머니 베와주켄 허멍 그거 헨에 난 서너 번 놔 먹엄수다.
@1 아, 계속 그런 식으로 헹은에 허염구나. 그대로 한 번 헤봐.
#3 야, 주젠지에 놩 먹는 거.
#1 이젠양 주전자에가 좁니다.
@ 아.
#1 엿날에는 그.
@1 거 아르미 주전자.
#1 으.
@2 밑에 뭐 안 놓고마씨?
#1 으, 안 놔도 뒈.
@3 아.
@1 저 뚜껑은 덮고.
#1 콩게 일 엇인 콩게.
#2 콩은 물만 먹으민 크는 거난에.
@1 뚜껑 이시난 천 영 더프지 아녀도 뒈켜예?
#1 예. 뚜껑 이시난.
@1 으, 뚜껑 이시난.
#1 경헤영 거 커 가민 두껑도 읋아불곡게 뽑아 먹으멍게 무신거 허민양 거 재미로 허는 거주. 거 무신. 거 난 재미로 허는 거. (웃음).
#3 아, 재미. 재미. 겐디 뒈긴 뒈.
@1 콩ᄂᆞ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고사리도 직접 꺾껑.
#1 고사리린 언제나 꺾끄는 거고.
@1 여기는 고사리 꺾끄레들 하영 뎅겨수가?
#1 호박 헤근에 허곡예.
@1 예.
#1 세 가지는 똑 허는 거난게.
@1 세 가지 헤영.
#2 아, 묵허고.
@1 묵허고.
#2 묵작살이라고.
#1 묵작살이라고 춤.
@1 예.
#2 묵작살.
@1 묵작살.
#2 거는. 거는 묵 ᄒᆞ쏠 짤라 내분 거.
#1 저베기게. 남은 거.

#2 묵작.
@1 게니까 묵작살 헤 갖고 메물 우에 이렇게도 놓잖아예.
#1 놓주게.
#2 묵작살도 올리는 거. 메물로.
@1 묵작살 멧 개 올립니까? 그거는.
#2 아 그건 보시에 올리는 거난 대충 올리는 거.
@1 으, 묵작살 헹은에 이제 올리고.

새뱃돈

@1 그다음에 정월 멩질에 새뱃돈덜도 줘실 거고예?
#1 예, 아이고 세뱃돈덜.
@1 예전에는 세뱃돈?
#2 아이고 요즘이난 세배지. 옛날이야 세뱃돈이 어디?
#1 아이고 우리 아이덜 키울 땐 우리 세뱃돈 **수다.
#2 우리 아이 두린 때 세뱃돈이랑 말앙 원.
#1 우리 돈은 아니고.
@1 아니 떡이라도 받지 안헨? 세배 허면?
#1 아니.
#2 아. 세베 허민 무신 떡.
#1 우리 두린 땐 저 세뱃돈 받아보지 안 헷수다.
#2 돈이, 돈이 어디 세뱃돈이 어디 잇어. 돈 구경을 못 헨.
@1 돈 구경을 못헨예?
#1 우리.
@1 게도 시에 사름허고는 ᄒᆞ꼼 ᄐᆞ나다.
#2 우리 클 때는 돈 구경 못헷어요.
#1 우리 아이덜 키울 때가 돈이주.
@1 으.
#2 우리 어렷을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돈을 구경 못허니까 배고프니까 벌레.
@1 예.
#2 산에 벌레 타 먹으레 가곡. 탈 타 먹으레. 딸기, 그 산딸기 타 먹으레 가곡. 나무에 폭나무 올란 폭 따먹고.
#1 폭 타먹고. 경 헷주.
@1 예.
#2 먹을, 돈 주고 뭐 돈이 없으니까 과자 사 먹을래야 돈이 없으니까.
#3 사, 사먹젠 헤도 돈이 없으니까.
#2 돈이 없어 못 먹으니까 그렇게 헤서.
#1 촐 허레 강 멀리 거 걷엉 왕 아이덜 주곡.

@1 으, 멀리 걷어왕 주고.
#1 푸케 타먹고.
@1 푸케 타먹고.
#1 푸케도 엇어. 푸께.
#2 푸께 타 먹언. 푸케 알아요.
@1 예게. 저도 타 먹어 봣수다.
#1 푸케 엇어, 요새.
#2 푸케 타 먹으레 가곡.
@1 약 헤 부난예.
#1 우리 씨어머니 산 땐 보리 비멍 요런 디 영영 물앙 놧다근에.
@1 몸뻬로.
#1 똑 우리 집이 몰르로양. 큰메누리영 사난게. 그딘 아이덜이 엇고 우리 집인 아이덜이 이시난. 우리 집이 푸께 아져와난 거 이지금도 생각헤집네다.
@1 삼춘이 큰며느리?
#1 나가 족은메누리난.
@1 족은메느린디, 으.
#1 큰메누리넨 아이덜이게 막 커 부난 엇이난.
@1 아. 몰르게.
#1 요디 영허영.
#2 게난 우리, 우리도 어렷을 땐 춤 어렵게 컷어요.
@1 예.
#1 게난 지금도 그 셍각만 헤저. 우리 아이덜.
#2 우리 사삼사건을 다 꺽엇으니까. 완전 사삼사건 다 껶어으니까.
#1 우린 담요.
@1 예.
#1 담요 써근에 대왓디 문 곱으레 뎅겻어.
#3 사삼에.
@1 사삼에예?
#3 사삼에.
#2 우리 사삼을 다 꺽었으니까.
#1 우리 여기 그 석훼통 물에 와근에 그 사름 애써근에 물 막 물덜 떠당 먹으멍 웨멍 허는 거 다 귀로 들으멍도.
@1 어느 물?
#1 우리 물통
@1 석훼통이렌.
#1 석훼통덜 잇어낫주게. 동네마다.
@1 어.

#1 물덜 엇엉. 그 물도 흔 허벅 두 허벅 다 갈라낫어.
@1 예.
#2 아 옛날에 물, 쎄멘으로 헤 가지고.
@1 예.
#2 물통을 만들엇지.
@1 예.
#2 것도 한창 발달 뒈서 헌 거지 그것도 한창 발달 뒐 때고.
@1 그 물통을 석훼통이렌 헤?
#2 예, 석훼통. 석훼로 만드니까 그거는 저장고지, 물 저장고.
@1 예, 예.
#2 거기에 물 저장헷다가 ?물아근에 이 저 물통에 물덜 엇을 때.
@1 으.
#2 흔 집에 멧 허벅씩.
#1 딱 갈라.
#2 멧 허벅씩 다 배급을 허는 거. 퍼주곡.
@1 거는 석훼통에 거를?
#2 으.
#1 흔 허벅도 귀헌 거라.
#2 거 반장 잇어 가지고 물통 반장 잇어 가지고 반장이 지켜서서 멧 통씩 멧 허벅씩 이제 다 나눠주는 거여.
#1 이 사름은 멧 허벅 질어갓다. 아이고.
@1 게믄 그 석회통도 크게 헤시켜예?
#1 예.
#2 예, 예.
#3 완전히.
@1 게믄 물땅크치록 이렇게 우에도 더껏수가?
#2 안 더퍼 거.
@1 안 더끄곡, 네모나게만 헹은에.
#1 경허민 아래 보민 베염이 다 죽곡.
@1 아. (웃음) 예, 그런 식으로.
#2 게만 베미덜이 왕 죽곡 문진 문진 다 들어가곡 다 그거. 그래도 그 물 다. 물이 엇이니까 그 물 다 먹고 우리 컷지.
@1 예.
#3 오십 선거에 우리, 우린게 중학교를 안 가서 초등흑교 졸업헨에 그때 보초를 삿는데.
@1 예.
#3 오십 선것 날.

@1 네.
#3 우리 동네 그 진둘레라고 잇어. 거기 가서 초소를 지켯는데 그때 그 춤 우이서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저 지금 저기 저 허는데 마을회관이 잇엇지. 마을회관이, 그 잇엇는디 거길 불을 테와 버렷어.
@1 으.
#1 지금 집 짓는 디. 오십 선것 날.
@1 예, 그 지경이 진둘레우꽈?
#3 우리, 우리 근무헌 디가 진둘레고.
@1 아.
#3 여기는 도로못이고.
@1 도로못이고. 아까 못 잇어난디예? 그다음.
#1 지금 집 짓는 디가. 그날 오십 선것 날 불을 테와 베서. 산에서 내려와서.
@1 예.
#3 폭도덜이. 그땐 폭도라고 헷지. 폭도.
@1 정월 멩질이 안 끗남저이.
#3 오십 선거.
@2 (웃음).
@1 게영 정월, 정월 멩질은 요 정도 허쿠다. 경허믄.
#2 오래쿠다.

정월 대보름

@1 그 아깐 정월 멩질에 대한 거 헷잖아예? 삼춘 정월 보름에.
#1 예.
@1 이 동넨 뭐헤마씨?
#1 요지금은 미시거 안 허는데.
@1 으.
#1 엿날에는.
@1 으.
#1 그게 보름떡 치고.
@1 예.
#1 우리, 우리 시절에는.
@1 예.
#1 그 막 흔디 친구들 모여근에 보름떡 치고.
@1 으.
#1 헤근에 그 놓민 영 시리 딱 비와놔근에 하나 영 깨진 거 이시민 아이구야, 넌 올해 궂이켜이, 는 좋켜 보름떡 치는디 그런 것도 엇곡. 보름에 허는 것이 엇수다, 요지금은.

@1 거난 보름에 보름떡 치젠 허면 어떤 식으로 헹 쳔마씨?
#1 어떵헤, 쌀 헹 커근에.
@1 응.
#1 이제 쌀덜 이제 우리가 얼마씩 내놩게.
@1 응.
#1 내놔근에 그걸 이제 다 흔디 강 갈아와. 이제 방앗간에 강.
@1 응.
#1 갈아다근에 놔근에 이젠 그 쳇 번 놓민 건 누구 거.
@1 응.
#1 그다음 누구 거, 누구 거 헤근에 이젠 그 다 이제 그때도, 이 쳇 장에 다 일름을 써. 아 그거 뭐 잊어불 거라근에 일름들을 썸신고 헤도 시리떡 익음새에 잊어 분덴.
@1 응.
#1 경허멍 그 일름 썻다근에 떡 이제 익으면은 탁 알아집니께 그땐.
@1 진짜 떡 잘 뒈믄 잘 뒈고?
#1 잘 뒈는디, 중간중간에 안 뒈는 떡이 잇어.
@1, 2 으.
#1 이 보름떡이렌 헌 게 그런 의미가 잇는 떡인 것 같아. 엿날 어룬덜이.
@1 응.
#1 보름떡 쳐근에 잘 뒈사 잘 뒌다.
@1, 2 응.
#1 이 우리 어무니네 시절에 경허민 우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우린 이제 그 보름떡을 치주. 우리 시절에 우리 결혼헐 때까지는 이제 막 그 보름떡 치는 거를 매해.
@1 매해.
#1 매해 헤근에 허민, 이, 저 절간에 강 초파일에 불싸근에 불 궂이민 그 무시거 허는 식으로, 막 이제 허면은. 어무니신디 왕 아이고게, 영 헤영양 누겐 막 궂고양, 누게도 헌디양 나는양 어느 정도 저 헌디 나도 어떵 헹 막 궂엄직헤 헙디다 허멍 허민. 우리 어무니가 또 영특헌 어른이라이.
@1 으.
#1 이런 그 뭐에 책임지곡 수산리 마을 안네 총 책임자라나곡 허민. 경허민 게난 보름떡을 경허난덜 치지 말렌 헷주.
@3 아.
#1 그런 걸 의심허니까 치지 말렌 허는 말로.
@2 으.
#1 치지 말렌 헷주 허멍 허민. 경헤도 그것이 아니랑 다 치는디 안 쳐집니께 경헹 허민 우리 친구 아이 하나는 딱 치니까 시릴 비완에 두 빗을 딱허게 베어도, 세. 이 우로.
@1 으.
#1 처음은 아랜디 영허민 처음은 우이 뒐 거 아닙니까, 비우면.

@1 예.
#1 경허난에 세 번차 빗을 허니까 헤싹헤 부는 거라.
@1 으.
#1 떡이.
@2 아고.
#1 경허니까 진짜이.
@1 안 좋아젼?
#1 으, 그 해에 가이가 갓어.
@2 아.
@1 젊은 때.
#1 아, 난이 우리 아,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잇구나. 게난 야 이제랑 우리 보름떡덜 치지 말게.
@2 음.
#1 것도 너무 이상허니까.
@1 그렇지.
#1 치지 말게, 우리 치지 말게, 경헨 우리 결혼허는 그, 그 시기에 우리가 젤 그 장난거리덜을 심헤낫주게.
@2 응.
#1 경헌디 그때 보름떡 치는 거 설러 불언.
@1 삼춘 결혼헐 때는 멧 살 때라난?
#1 나? 스물여섯에 결혼헷주.
@1 응.
#1 그때도 제일 늦은 나이주.
@1 응.
#1 진짜 멧, 스물한 살에 허젠 허단 우리 어무니가.
@1 으.
#1 딱 그, 그 부락에는 안 가겟다. 또 딴 디서 오민 또 헤변. 이 신양리 고성, 그 고성보단도 신양리 온평리는 완전 해각 물질허는 거. 난 엿날에 물, 수영은 막 잘헤. 막 그 수영 그 시합헤근에 그, 저 오조리 바당에 강 허는디도 수영허는딘 난 잘헤난디, 이 물질허는 건 막 싫어.
@1 으.
#1 그 물숨 헤근에 허곡 허는 거. 아이덜 우리 동창덜 다 육지덜 가곡 헹 베우는디도 나는 안 가켄 우리 어무니 건 쌍놈이나 허는 거주 양반허는 건 아니옌.
@2 으.
#1 경허멍 헤근에 허난 신양리서 이제 춤 청혼이 들어와도 우리 어무니는 이제 물질도 못 허곡, 해변이는 안 풀겟다. 또 종, 이제 그런 디서 허민 안 풀겟다. 또 이제 이 우리 부락 고잡이엔 헌 디, 이구.

@1 응.
#1 그디서도 난 알동네 사람 그쪽에 가서는 못 산다.
@1 으.
#1 이 알동네 사름이 우터레 올라왕은 못 산다 허는 말로.
@2 으.
#1 경헤근에 안 풀곡. 게서 동네 이제 진짜 스물여섯에 이제 진짜 헨, 결혼헤수다.
@1 좋은 집에 간?
#1 아이고, 좋은 집은.
모두 (웃음)
#1 사름, 사름 한한헌 디.
@1 한한헌 디? 으. 옛날에야게 사름 한 디가 좋은 디 아니꽈?
#1 그 가문 봥.
@1 가문 봥예?
#1 으, 우리 어무니도 그 가문을 봔 헌 거라.
@1 응.
#1 그 사름 저, 심정. 우리 그 집잇 아방이 나에는 당췌 아니 붸도 우리 어무니 생각에는 사람이 이제 뭐허다 헨에 헌 거주게. 경헨 허니까 어무니 말도 그때 안 들으믄 우리는 쫓겨나주, 엿날에는.
@2 (웃음)
#1 게난 불 솜으멍 솟강알 다 파 불곡.
@1 으.
#1 시집 안 가켄. 막 게메 우리 아지망 이제 그 뭐헨 헤근에 허민. 게민 나 대신 아지망 갑센. 아지망ᄀᆞ라 나 대신 시집갑센 헌 사름은 나 하나뿐이주게.
@1, 2 (웃음)
@1 어쩔 수 엇이 가난 또 잘살곡예?
#1 (웃음)
@1 겡 이제 보름떡은 무슨 쏠로 헨마씨?
#1 아니, 그 지금, 지금 우리 먹는 쌀.
@2 어.
#1 그런 게 백미.
@1 백미로 헤 갖고.
#1 그거 헹 헙니께. 게민.
@1 픗 놓곡 헤근에.
#1 팥 헤근에 놓앙 허민 딱 허민 떡이 똑같은 쌀 아니꽈게.
@1 예.
#1 ᄀᆞ루 군 것도 경헤도 딱 알아져.
@1, 2 응.

연날리기

@1 겅허고 그 혹시 그 연날리기 ᄀᆞ튼 거는 안 헤수과? 여기서들은.
#1 옛날 애기?
@1 연날리는, 연, 연.
#1 연. 연날리기 아이덜 막 연날리기 무사 아녑니까게.
@1 으.
#1 막 연날리기도 허고.
@1 겡 보름에 그 연에 불부쪙은에 올려보내는 것도 봐난?
#1 여기서는 수산서는 그런 거 안 헤수다.
@2 으.
@1 으, 안 허고예? 게믄 보름떡 쳥은에 허고, 혹시 그날 뭐 그 운수 보거나 허는.
#1 운수 책?
@1 으.
#1 책 헤근에 봐수게, 그때.
@2 으.
@1 건 언제 봅니까? 주로?
#1 아니, 그건 멩질 그 끗나민 기자 초사흘날더레 모영.
@1 응.
#1 거 세배 다 끗나민. 야 우리 이제라근에 저 운수 보게, 운수 보게 헹 책 헤근에 우리대로 보는디.
@1 으.
#1 그 해석허는 사람이 잇자녑니까게.
@1 예.
#1 경허믄 그 이제 동네 그 어룬이 잇어.
@1 으.
#1 경허민 가근에 우리 운수봐줍서 허면은 날짜.
@1 으.
#1 이제 그 멧 설 헤근에 놓곡 그 날짜. 그거 놔근에 그 허면은 멧 번 나오지 아녑니까?
@1 예.
#1 그 수 놓으면은, 허면은. 그것이 그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맞아 붸어.
@1 으, 토정비결.
#1 토정비결에. 경허믄 이제 또 이제 어무니들이영 야, 영 정 헨게 절간에 가거들랑 또 봐보카 허민 무신 토정비결도 여라 날, 여러 번 보느니 헤도.
@2 으.
#1 그것이 아니주게.
@1 으.

#1 어무니 따랑 우리 결혼 아년 때.
@1 예.
#1 절간에 가민 시님들이 야 우리 저 토정비결 ᄒᆞ썰 봐보카양? 허민, 그 우리 수자스님, 여자 시님이라나수다게.
@1 응.
#1 안 받아도 좋아. 허민 아이 그것이 아니고양. 봐봅서 나 시집이나 가지크냐.
모두 (웃음)
#1 아, 경 골으민.
@2 으.
#1 경허주 보민 그것이 이쪽에서 본 거나 이쪽에서 본 거나 그것이.
@1 응. 책에 나온 거난.
#1 책엔 나온 거니까.
@2 으.
#1 경허민 해석에 따라.
@1 으.
#1 경헨.
@1 그게 이제 정월 멩질 끗낭 한 삼일.
#1 예, 삼일광 오일 사이에 그 토정비결을 봅니께.
@1 아, 삼일광 오일 사이에.
#1 오일 사이에.
@1 예.

액막이

@1 그다음에 옛날 그 정월 대보름 때는 막 저기 액멕이들도 허지 아녑니까?
#1 예, 건 보름에.
@1 보름에. 그 액멕이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1 액멕이 허면은양.
@1 예.
#1 우리 절간에 뎅기는 사름도 허긴 허는디, 기자 무심코 기자 허는 사람들은 허면은 이제 쌀허곡.
@1 응.
#1 쌀허고 저 씰.
@1 으.
#1 씰 놓곡, 그 돈 놓곡 헤서 이제 어디 그 막은방 보지 아녑니까?
@1 예.
#1 여기는 막은방, 동쪽은 트고 서쪽은 막다 경헨 서쪽 튼, 저 튼 방향 쪽으로 가근에 그거를 밤 열두 시에.

@1 으.
#1 그것 가근에 그걸 묻어 비어.
@1 아 파근에 땅에 묻는구나예?
#1 예, 팡 묻는디 바당에 강도 던짐도 헙니다.
@1 예, 예. 지로.
#1 지로, 던지는디 그거 던져둬근에 뒤돌아보지 말곡 집이세 와야 뒈.
@1 응.
#1 그거 묻어도 경허곡.
@1 어.
#1 뒤돌아봐근에 이것이 또 무심코 뒤돌아 봥 왕은 것이 덕이 아니, 못 입읍니다.
@1 으.
#1 나도 그런 거 멧 번 헤봣주. 아이덜허고 아방도 허민 이 바당에 강도 막 그 헹 던져둰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앙 옵센 그 사람이 막 헤여. 그 뭐 헤준 사름이. 경헹 허민 막 진짜 헨 때 허고 이녁이 무심코 잇당은에 뒤돌아본 때도 잇어져.
@1 으.
#1 경헌 때는양, 것도 알아져.
@1 아, 거난 옛날 어른들. (소음)
#1 그런 걸 허면 딱 자기가 느껴보민 알아집니다게.
@1 예.
#1 게난 나가, 진짜 나도 그런 걸 많이 꺼껀. 오래 살진 안헨 팔십 평셍 (웃음) 살앗는데.
@1 응.
#1 이제 나도 꺼끈 일, 안 꺼끈 일 많은 사람이우다.
@1 응.
#1 경허니깐 그런 거는 헤서 옆을 보던가 뒤를 보던가 사람허고 그 마주쳐서.
@1 으.
#1 그 사람이 인사헤도 무심코 와 베야지 대답허지 말아야 뒈어. 뭐에 뭐 정성 드리레 강 올 때도.
@1 으.
#1 거 뭐 방세허레 강 올 때든 사름을 만나면은 자기가 그 사람이 아무리 친헤서 말을 골아도 기자 뭐 허지 말렌 영영도 말곡 무심코 가베사 자기가 허주. 거 무스거니 어떵 대꾸허민 덕을 못 입어요.
@1 응. 겨난 이제 삼춘도 이제 방세허는 거를 이제 정월 대보름에.
#1 대보름에. 겨곡 칠월[칠뤌]. 대보름에 못 헌 사름은 칠월달에 헙니다.
@1 아, 것도 보름에?
#1 것도 상둘. 아이, 건 아무 때나.
@1 아무 때나.

#1 건 상돌이니깐.
@1 상달이니깐.
#1 일월달, 칠월달은 상달이니까 경헤서 아무것도 정성도 그렇게 헤서 허는 거.
@1 혹시 이 동네에 거욱대 이런 것도 이수과?
#1 거욱대 이수다.
@1 아.
#1 건 수산이리.
@1 이리.
#1 거욱대.
@1 어.
#1 거욱대엔 헌 디가 잇수다.
@1 예. 게믄 거기에 영 돌 쌓아져근에 잇구나?
#1 예 그 거욱대 헌 디가 그 수산일리 그 저 무신 식당 들어가는 디 그 돌 영 싸젼 이실 거우다.
@1 예, 예, 으.
#1 게난 거욱대.
@1 아, 멧 개 이서마씨? 이 동네는.
#1 몰르쿠다, 그거 원. 거욱댄디 돌 싸진 게 하나산디 그자 그디 엿날부떠 그자 거욱대, 거욱대 헙니다. 고잡히.
@1 예.
#1 고잡이엔 헌 디가 수산이리주게.
@1 으.
#1 견디 엿날 고잡이 뭐렌 고잡이엔 헤시믄.
@1 으.
#1 이 산, 산.
@1 예.
#1 곶 산전.
@1 예.
#1 게난 곶, 곶 아래기 때문에 고잡, 고잡 헤난 거. (웃음)
@1 아, 고잡.
#1 고잡.
@1 곶 앞이지예?
#1 곶 앞이.
@1 곶 앞이.
#1 경허난 고잡.
@1 고잡.
#1 경헌디 이제는 수산일리, 수산이리 경 헹 지금 이름이 뒌 거.

@1 거믄 수산이리는 고잡이렌 허잖아예? 지금 고잡.
#1 예, 예.
@1 일리는 뭐렌 골아?
#1 이디 수산.
@1 그냥 수산 그대로.
#1 우린 수산.
@1 물미렌 안 허고?
#1 예, 수산.
@1 수산.
#1 물메는 고성이 물메우다게. 그 오름은 우리 물메오름이 수산오름인디.
@1 응.
#1 고성 사름들이 거 뭣 쓸 때는 물메. 견디 난 건 우리 수산봉인디, 이 우리 게이트볼 치는디 펫말을 씁니다게.
@1 예.
#1 경허민 우리 수산은 진성.
@1 진성.
#1 겐디 고성은 물메봉.
@1 어.
#1 경허여. 경허믄 물메봉 쓰지 말아. 이거 우리 수산봉인디 허민. 아 우리 고성 이신디 허민. 아이 그래도 이건 우리 수산봉인디 물메봉이엔 쓰면 안 뒈는디 허멍 헤도 고성 그 일름 쓸 때는 물메봉이라고 쓰주게.
@1 어, 거기 사름들은예?
#1 으.
@1 게믄 그 저 물메 오름이 고성허곡 여기 경계에 잇는?
#1 예, 예.
@1 겅허니까.
#1 지금 고성이우다, 고성.
@1 고성예?
#1 그디가.
@1 아.
#1 신양허고 고성허고 경계주.
@1 경계허고, 여기.
#1 경헌디 옛날 어르신덜이 워낙 그 세력이 뭐허니까 그 오름들을 이제 그 다 둘러 닿덴 허멍 그 밧도 둘러 다곡. 우리 지경은 여기다. 이 어느 지경에 어디는 이제 고성이곡 수산은 얼로 어드레 이제 수산 지경이다 허는디. 이 수산도 이 일주도로 쫙 가면은 그 선생님네 봐시카, 영 올라가믄 신호등 두 번차 이신 디, 거기가 딱 수산 경계우다.

@1 으.
#1 거기가. 경허난 건 고성인디.
@1 예.
#1 딱 거기가 수산 경계.
@1 으, 요 큰길?
#1 저 신작로게. 큰 길.
@1 그니까 큰 길.
#1 이 수산 나가는 입구 신호등 말고.
@1 으.
#1 다음 신호 받는 디 거기가 딱 경계선.
@1 경계예.
#1 겨니까 이, 저 고잡은 곶 앞이기 때문에 고잡, 고잡 헌 거.
@1 예, 예. 거난 그 곶 이름은 뭐라난? 곶.
#1 고잡. 고잡이엔 허는디.
@1 곶들이 옛날이 곶산이라서 그런 거 아니?
#1 곶산.
@1 예.
#1 그디가 지금 허민 그 낭끗, 지금 낭끗오름이렌 헌 거 인칙에 올라갓지예? 그디가 이제 ** 다 저 뭐는 수산 지경이우다게.
@1 으.
#1 수산 호적도 수산이라.
@1 예.
#1 수산이리가. 경허니까 그 낭끗오름, 군데오름 그것이 다 이제 그 수산. (잡담) 그디를 허난 지금도 그 땅이 고잡이[고자피]허고가 이제 갈라지질 아녀고 다 수산 땅.
@1 다 수산 땅. 아까 낭끗오름?
#1 낭끗오름[낭끋또름], 군데오름.
@1 군데오름. 낭끗오름은 아까 안 굴아신게.
#1 낭끗오름 써실 건디.
@1 낭끗오름은 안 썬.
#1 예, 낭끗오름.
@1 으.
#1 군데오름, 뒤굽은이.
@1 뒤굽은이.
#1 뒤굽은이.
@1 그다음에 물메봉.
#1 물메봉.
@1 그다음에.

#1 대왕산.
@1 으.
#1 대왕산이 웽미.
@1 웽미오름예?
#1 으, 웽미.
@1 낭끗오름을 안 썬.
#1 낭끗오름.
@1 예.
#1 낭끗오름도 수산 땅이우다게.
@1 수산땅예.
#1 예, 그 지경이 다.

포제

@1 그리고 그 포제?
#1 포제.
@1 으, 그 포제는 아까 이제 첫 해일.
#1 예, 첫 해일이 파젯날. 게난 정월.
@1 정일에는 안 헤마씨?
#1 정일이 아니고 해일 파제만 봅디다.
@1 해일 파제만, 아.
#1 해일 파제. 나도 이디 계속 나가 이제 여기 심부름을 같이 허는데. 해일 파제 보면은 이제 그 제관들이 이제 뽑히민 들어옵니께. 아시아시날 들어와서 이틀 밤 자곡 삼일 밤 차는 밤 열두 시에 저디 가서 제지냉 오는데.
@1 으.
#1 그 이제 그 제관들 옛날 식으로덜 다 이제 관복 입곡.
@1 으.
#1 그 준비.
@1 으.
#1 다 연습허고. 연습허는 거 막 재미졍 막 이디 주방에 이신 아이덜 다 이디 강 성 다 구경허곡 허주.
@1 음 여기서 연습허는구나예?
#1 저기서, 저 저기서 지금 화투치는 디서.
@2 으.
#1 헤근에 다 연습헙니께, 그 관복덜 입엉. 경헹 허곡 그 뒈지 그 통차.
@1 통차로.
#1 통차 헤당 저디 딱 이제 봉헤 놓곡. 그추룩헹 헹 차로 시껑 강 딱 열두 시 뒈민 제지내 왕 그거 또 음복허여.

@1 음, 음복 여기서.
#1 예 여기서 또 음복헙니다.
@1 으.
#1 음복헤근에 그땐 이제 다 헤어지주.
@1 그러면은 그.
#1 뒈지도.
@1 여기 와근에.
#1 여기 왕 다 여기서 이제 다 분배헤영.
@1 분배허영.
#1 다 분배헤근에 이제 초헌.
@1 예.
#1 쳇 번 초헌, 저 부헌 무신 헤근에 허민 삼헌 헤근에 쫙헤둬근에 그다음 똑ᄀᆞ치.
@1 으. 삼헌관은 ᄒᆞ꼼 하영 주곡, 나머지는.
#1 으, 경헙니께.
@1 경헤근에 제관들만 나와근에 허는구나.
#1 겨곡 이디 부름씨 헌 아이덜 이제는 ᄆᆞᆫ딱 다 갈랑.
@1 아. 거는 그 희생헤 갖고 이제.
#1 예, 다 희생 저디 가근에 헹 시꺼 옵니께.
@1 검은 도세기로 헙니까?
#1 예, 검은 걸로.
@1 검은 걸로? 으, 옛날 소로 헤나거나?
#1 소 헌 디는 삼달리우께.
@1 아 삼달리 소.
#1 틀리는 디가 이십니께.
@1 예.
#1 소, 이제 소 못 잡으니까 소고기 헤근에 막 헤당 헌덴 헙니다.
@1 아 삼달은예?
#1 삼달리가 소.
@1 으, 그 포제 헐 때 무시거 올리는 거 알아지쿠과?
#1 예, 예게. 포제에 그거허곡.
@1 으.
#1 대추.
@1 대추.
#1 그.
@1 과일.
#1 으, 대추 그 곶감.
@1 예.

#1 그거게. 그런 오곡 거 허민 허고예. 과일 귤 같은 거게.
@1 예.
#1 사과, 배, 귤. 그거 허고 이제 또 골감주.
@1 예.
#1 감주 알지이?
@1 예, 예.
#1 그 식혜로.
@1 으.
#1 식혜로 헤근에 저디 봉헤둬근에 이젠 또 그 식혜를 헨 여기서 다 끓여.
@1 으.
#1 쌀 놓곡 끓여근에 또 시식을 헙니께, 감주는.
@1 예.
#1 그 연습헤나민 이제 제관들안티 이렇게 헤서 봉헷습니다 헤서 다 사발에 거령 다 아져가면 이제 그 시식. 시식헤근에 나갑니다.
@1 으, 게난 이제 가져갈 거는.
#1 다 봉헤. 게곡 마제, 사발에.
@1 예.
#1 이제 흰메.
@1 으.
#1 찹쌀메.
@1 으.
#1 좁쌀.
@1 으.
#1 좁쌀도 이제 붉은 거, 검은 거.
@1 아.
#1 경헤근에 헙니다. 경헹 네 개.
@1 아, 그럼 마제는 네 개 올려예?
#1 네 개. 이디 산메를 쳥 사발.
@1 예.
#1 헤근에 그거 헹 치곡.
@1 그러면 네, 네 개.
#1 네 그릇허고.
@1 네 그릇.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은 안 허잖아예?
#1 여기선 떡 아녑니다.
@1 생선은 뭘로 헙니까?
#1 생선은 바닷고기.
@1 솔레기?

#1 생차.
@1 생차.
#1 예. 소고기 또 흔 근쯤 헨 소고기도 큰 제에 쓰는 거니까.
@1 예.
#1 그거 허곡 생고기 헹 쓰곡. 이제 그거 헹 강 오민 또 여기서 다 구웡 시식허곡.
@1 그러면은 문딱 생차로 다 헙니까?
#1 예, 다 생차.
@1 채소는?
#1 채소는 미나리.
@1 예.
#1 미나리허고 무 채로 썰어서 소금에 접시 놔근에 소금에 절이는 식이라게. 으, 소금 똑허게 접시에 놓민 요건 미나리, 무우채.
@1 으.
#1 경헤근에 톡허게 놔근에.
@1 두 가지?
#1 기자 가졍 갑니께.
@1 두 가지만?
#1 예, 두 가지만 놔.
@1 고사린 안 쓰는구나예?
#1 안 씁니다.
@1 어, 포제는 고사리 안 써예?
#1 포제엔 고사리 안 써. 딱 미나리허고 무우채.
@1 무채.
#1 무우채. 경 헙니다. 경 허민 희생 헹 올 때.
@1 으.
#1 털 멧 개 뽑앙 무껑 앗으곡, 피. 피 뽑아 왕 여기 놔둡니다. 여기 이 우이. 경헹 마제에서 또 이제 그디서 다 검진 헙니께.
@1 예.
#1 다 헤놓은 거라도 이제 큰제관 앞이 이렇게 이렇게 헷습니다 헤서 다 이제 쌀 이건 무신 쌀, 요건 마제침 전이 그거는 다 허는 거니깐. 이거는 저 흰쌀 백미쌀. 요거는 좁쌀입니다.
@1 예.
#1 경 곧곡. 제일 그거 곧는 제관이 따로 잇어.
@1 으.
#1 그 직함이.
@1 예.
#1 예, 축 익는 사름은 대축이엔 허곡 또 그거 허는 아는 전ᄉᆞ관인가 무시거.

@1 전사관.
#1 전서관들이 그거 헹 허민 요거는 좁쌀입니다. 요거는 흐린좁쌀입니다, 요거는 찹쌀입니다 헤서 이제 다 헹 봉헤 놓곡. 요거는 이제 그 뒈지 희생헌 미시것ᄀᆞ라 뭐옌 사 곧는디 그거옌도 굴으민 그레 톡허게 앗아놓곡. 요거는 이제 골감줍니다 헤서 생차. 여기서 우리가 짜면은 펭에 집니께.
@1 으.
#1 질엉 그것도 봉허는 거.
@1 아, 골감주도 끌리지 안헹은에.
#1 끌리지 안헹 생차 헙니다.
@1 예.
#1 경헹 생차 봉헤동 그거는 끌려근에 또 시식허는 거.
@1 시식허는 거. 으, 모든 게 생차로 허는구나?
#1 예. 다 생차.
@1 혹시 멩테 같은 거는 안 놔?
#1 아 게메게, 멩테 그 곶감에.
@1 으.
#1 멩테에 비자에 또 그 대추에 그거게 다 삽니께. 그 집이서 토신제 허듯 쓰는 거. 멩테.
@1 으, 멩테도 하고예?
#1 경헙니다. 그건게 오곡 거시기로 다 씁니다.
@1 어쨋든 요런 식으로 하고. 그 포제헐 때 뭐 특별허게 뭐, 뭐허지 말라 헌 이런 것도 이신가마씨? 우리 정월 명절에 떡치는 디 함부로 뎅이지 말라 허는 그런.
#1 예. 게난 이디는 그 엿날에는 아이구 엿날에는 엄숙허게 헌디 요지금들은 다 헤방허니까.
@1 으.
#1 일로 이 부억으로 저레는 여자덜이 부름씨를 헤도 못 다녀수다. 저 멧 년 전이 나가 이거 계속 한 십, 사무장이 올히 십삼 년째니까 계속허니까 본디. 나가 작년, 제작년이 우리 씨아지버니 돌아간 나가 못 봐수다게. 못 본디. 올히는 완에 본디 아이덜이 막 저레 돌아뎅겨.
@1 으.
#1 허난, 난 아이고 이거 젊은 사람덜인디 말 굴으민 것도 요새덜은 좋아 아녀는 뭣도 잇주.
@1 으.
#1 저추룩 너무 방탕시럽게 헹은 안 뒐 건디 허멍도 헨에 그 우리 부녀회장신더레 저 야 ○○ 어멍아 저 누게더레랑 저레 ᄒᆞ썰 가지 말렌 허라. 그거는.
@1 으.
#1 이 저 홀어멍. 홀어멍은 더군다나 이런 디 뎅기지도 못헙니다게.

@1 으.
#1 이디 허는 디도 준비허는 디도.
@1 준비허는 디도예?
#1 경허는디 이제, 이 책임자난에 가이가 이디 완에 그 일을 봐.
@1 으.
#1 나가 올히는 넘어나난 이제는 말헤수다마는 그것도 나중에라도 알렌.
@1 으, 그렇지.
#1 이제 으, 그 즉시 그때 굴아벤은 것도 실례고 또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잇곡 허니까 본인인딘 안 곧곡.
@1 으.
#1 이제 우리 부녀회장더레 가이가 이제 나인디 삼춘 영허고 정허고 모든 거 이제 부락에 일허젠 허민 나인디 똑 의논을 헙니다게.
@1 으.
#1 이제 축제허는 것도 또 허관디 요번에 야, 나이 올히사 완 본디이, 난 안 좋은 게 쪼끔 잇저, 허난에. 무시거꽈 허멍 가이가 허관데. 느신디 굴앙은 뭐 허난 딴더레랑은 뭐허지 말라마는 난 너무 아이덜이 방탕스럽게 허는 건이 큰제에 난 좋아베지 아녀다마는 딴 사름은 다 좋다마는 누게라근에 그레 확확 돌아뎅이지랑 말렌 허라. 여기는 끗나벳주만은 나중에, 나중에 경 헹은 안 뒌다. 경허민 딴 사람이 그 줴, 줴 받넨 말을 말은 못 곧곡. 딴 사람이 줴가 아니고 여기 헌 본주가 줴 받는 거 아니꽈?
@1 그니까.
#1 그 사름이 젤 받아 불민 허는디, 이 우리가 출리면은 이 본주가 줴를 받는 거라. 게니까 이제 ○○ 어멍도 는 이장 대표허는 부녀회장이고 이장이 각시 엇어부니깐 부녀회장이 마탄 허는 거우다, 우리 수산은. 각시가 잇어 불민, 이 사모님덜이 알앙 헤불민 부녀회장이 관계 엇지.
@1 으.
#1 경헨 허난 부녀회 그 임원덜이 그추룩 헹 허곡 누게라근에 흔엇이 가까이 허지 말렌 허라. 경허난에 가이도 그때 알아맞촨, 예, 게메양, 허관디. 게메양이 아니고이 처녀는 존 디 가이가 상처헌 아이주.
@1 으.
#1 경헌디 그런 사름은 더군다나, 이 문 안네도 들어오지 못허게 전엔 헤세.
@1 으.
#1 경허난 가이 부녀회장이 아이구 삼춘 맞수다게.
@1 으.
#1 것도 이제 굴으난 나도 알아지고. 겨난 교 믿는 사름은 게난 나도 그 누게 오난에 나도 이상허덴 느네 교 안 믿음이냐? 허멍 허난 아방은 믿곡 난 안 믿엄수다 허난 집안에서 흔 사름만 교 믿느냐? 그자 그것만 굴앗저만은 건 말이 도저히 뒈지 아녓저. 것도 아방은 믿곡 자기가 안 믿누렌 헌 건, 건 말이 안 뒌 말이지.

@1 으.
#1 경헤연 허난 앞으로라근에 주의허라.
@1 으.
#1 난 우린 이젠 춥 무시거 허곡 이젠 다 느네가 알앙 헐 일인디 느네 앞으로 그런 저런 거는 ○○ 어멍이 우선 알아사 헐 거여. 나 기자 경만 굴앙 잇은 건디. 요번에 또 전화왕 허관데 무시거 무시거 출리는디 어떵 헤근에 가이ᄀᆞ라 허지 말렌 기여게, 허지 말앙 뒐 수 잇건 느 바쁘고대나 느 허라. 그디 가는 것도 그추룩헤근에 우리가 특별히 헹 가는 걸 무사 가일 비느니? 느 못 허켄 허민 나라도 가근에 맞촤근에 허크메 무시거영 가이랑 빌지 말앙근에 기자 보내오켜 허거들랑 보내온 거ᄁᆞ지 못 허게사 헤지느냐. 경 헤영 오렌 허라. 나 경 굴앗는디 그런 거는 딱 이 문으로 갈라근에 여자 부름씨 안 헹 남자들만 부름씨 헙니다.
@1 예.
#1 밥도 가져가곡.
@1 음식 만들어 주는 것만.
#1 만들어 주는 것만 허민, 이 먹어난 거 설러오는 것도 저레 앗당 팡팡허곡 막 잘허여, 그 아이덜이. 이제는 여자들이 막 그것도 아져 가곡이 내불라게 저디 전ᄉᆞ관신디 굴아근에 저 남자들 그 알제관덜 헐 거 느네랑 이디 ᄀᆞ만이 이시라. 경허민 알아 먹어.
@1 응.
#1 경헤영 난 곧주. 느네랑 이디서 만들곡 미시거나 허고 그릇이나 이레덜 씻엉 아져오는 경허는 것만 허곡. 저, 저 알제관들 시기라, 시기라 허멍 경 허는디.
@1 으.
#1 지금은 막 헤방뒈수다게.
@1 예.
#1 멧 해 전이는 여자 이 문으로 저레 원 가보지 안헤수다.
@1 응.
#1 이제 흔 댓 해 뒌 거 닮아. 나가 두 해 안 보고 올히 보고 그 전이 ᄒᆞ썰 해방을 허관데 그 남자 제관덜신디레 뒐 수 이시믄 알제관덜 시깁서. 여자덜랑 이리 오지 못허게 헙서. 나가 막 허민 알아 먹어근에 웃제관덜 우리 문저 노인회장님도 ○○ 어멍 말만 잘 들으민 뒈큰게 허멍 우시개들 허는디. 그 후에 막 해방이 뒈베수다.
@1 예, 맞아예. 요즘은 막 문화로.
#1 문화로.
@1 문화로 가는 형식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거욱대 잇곡. 거욱대 말앙 다른 거 영 방사허게 뭐 세워 논 돌코넹이나 이런 것들은 엇수과? 그런 건 엇고예.
#1 예, 고잡광 수산은.

당제

@1 그 아까 이제 당 이런 거 얘기를 헷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굴아줘 봅서, 이제.

#1 우리.
@1 본향당.
#1 본향당?
@1 메는 어떤 거 헹 가곡 허는 거.
#1 아니, 예. 메 가뜬 거는게, 이 저 돌레떡.
@1 예.
#1 그 우리가 갈 때 정월 초이틀에.
@1 으.
#1 갈 때는.
@1 갖고 가는 거.
#1 돌레떡.
@1 으.
#1 ᄋᆞ둡 개나 열 개나 열두 개나 건 자기 마음대로 놩 갑니다.
@1 으.
#1 훈 뒈 쳥 오민 기자 더러 넹겨도 열두 개. 난 열두 개 놓앙 갑니다.
@1 예.
#1 열두 개 놓곡 쌀 이제 진짜 춤 그 제비 뽑을 쌀.
@1 으.
#1 쌀 이제 그 훈 뒈 뒈나마나 기자 영 큰 낭푼이 하나 이제. 이제덜은 다 봉다리에 헤강 그디 강 까젠 허민 뭐헤도 우선적으로 이제 우린 그물어가민 딱 사다 놓민 봉헤 놔, 그걸.
@1 으.
#1 겡 낭푼에 놔근에 허면은 그레 이제 돈 불전 놓곡.
@1 으.
#1 종이 석 장, 지전 물르곡.
@1 으.
#1 또 석 장은 또 소짓종이.
@1 으.
#1 저 꺼꺼근에 소지, 이제 가민 우리대로 헙니께 그거. 그거 허곡 헤근에 이제 그디 갈 때는 들렁 가진 아녑니다.
@1 으. 다 졍.
#1 우리가 일 년 내내 버은 역갈입니다.
@1 으.
#1 그 마음으로 경 헤서 이제 차에 시껑 가도, 차에 시끔새엔 이제 쪼금 거리가 무뚱광 그 차 세운 디가 멀면은 베 헤근에 그 지고 헹 강 차드레 강 톡 시껑 그디 강 내려도 차에서 져근에 그디 강 그 조상님 앞이 강 부립니께. 벳깃디서도 부리지 안 헤. 똑 조상님이 세우민 딱 정면으로 가서 뒤 조상님더레 영 옆치기로.

@1 옆치기로.
#1 옆치기로 헤서 딱 기대진 안 허고 딱 옆치기로 부려근에 그거 올려동 그때는 이제 구덕허곡 베허곡 벳겻디 그 저 부억더레 갖다 놩 허면은 이제 그디서가 이제 떡은 이제 맞게 어디 손당은 보면은 차롱으로 다 구덕차 올리는디.
@1 예.
#1 우리는 경 아녑니다. 조상 앞이, 두 개씩 걷어근에 다 올려.
@1 아. 가져간 사람덜 것 다 두 개씩?
#1 예. 다 두 개씩 헹 걷엉 올려둬근에 그건 이제 다 이제 떡바구니는 돌려.
@1 으, 두 개만 앗아동은에.
#1 예. 경허민 또 그거 헤근에 허민 이제 그건 굿허당은에 중간에 이제 뭐 헙니께, 그 다 테웁니께, 시식허렌.
@1 으.
#1 심방덜게 요새 가져가민 뭐 허니까 그 군병이엔 허는 거예.
@1 예.
#1 군병.
@1 으.
#1 군병 놀아나사 음식도 먹주, 경 아녕은 일절 가져뎅기지 못헙니다, 그 안네서.
@1 으.
#1 커피도 못 먹곡.
@1 으.
#1 경헤영 저 허민 군병 놀아나민 거 싹 테와근에 먹을 사름덜 먹읍센 경 헤영 허곡 허민 이젠 다 끗나민 이제 제비 뽑아.
@1 으.
#1 그 쌀 가져간 것에 다 이녁만씩. 이제 누게는 어떵 허곡 누게는 어떵 허곡 이제 멧 살로. 열네 설로 우터레벳긴 어린아인 거기서 안 봅니다.
@1 아, 제비 보는 것도예?
#1 예, 예. 어린아이도 안 보곡, 여자도 안 보곡.
@1 아.
#1 메누리덜은 봐도.
@1 예.
#1 여자아이덜은 그 축원에 올리지도 아녑니다.
@1 아, 당에 갈 때예?
#1 예.
@1 건 무산고?
#1 겐디 그디는 옛날에는 이 우리 그 어룬덜 옛날 우리 어무니네보단 쪼금 우이덜에는 남자 어룬덜이 헷젠 헙디다게.
@1 아.

#1 여자덜이 거길 안 다녀.
@1 아, 그 당에, 본향당에?
#1 예, 예. 그 여자는 부정헌 그.
@1 음, 생리.
#1 이제게 생리 때문에 그 허니까 부정도 허곡 허는 때문에 남자 어룬덜이 그 밥차반지. 엿날에 밥차반지.
@1 예, 밥차반지.
#1 알아집니까?
@1 예.
#1 그거 헤근에 이제 돌레떡 멧 개 허곡 이제 아녀면은 밥헤영.
@1 으.
#1 밥헹 사발에 놩 강. 이지금 떡 못헤 간 사름은 낭푼이에 산메 쳥 강 올립니다.
@1 예, 예.
#1 예, 경 헤근에 허난 그거 헹 강 어룬덜이 이제 그 조상신디 가근에 우리 영 정 헹 와수덴. 그때는 심방덜토게 엇곡 무시거 허민 어룬덜이 우리 부락에 영 정 헌 일을 헤여근에 허젠 헴시난 헤줍센 경 곧으멍 어룬덜이 헷덴.
@1 으.
#1 경헌 건디 이제 사삼ᄉᆞ건 나곡 막 이제 막 사름덜이게 죽어갈 거 아니우꽈게?
@1 으, 으.
#1 경허난 이제 그때덜은 막 난리가 난 거라. 이제 막 남자 어룬덜은 이제 안 헹 시들어지곡.
@1 으.
#1 이젠 우리 어무니네 시절이라. 경허니까 이젠 막 굿을 이젠 그추룩 이젠 정월 초이틀에 강 허민 이제 이건 어떵 헤근에 이제 헐 거렌 미시거 헐 거니 헐 건디, 요 저 끗디 이제 그 심방. 그 뭐가 잇어. 잇으난 이제 우리 어무니 동갑인디 우리 어무니가, 이 야, 느 저 놈이 미시거 허레 뎅기지만 말아근에 수산당에 가근에 훈번 굿이라도 헤여 보라.
@1 으. 뭐 안택 이런 것만 다녓엇구나?
#1 으, 그런 거게. 허곡 그런 걸 막 뭐 아녀보난. 헤보라 허난에, 겡 아이고 그 본향당에 그 ᄆᆞᄉᆞ와근에 어떵 헤근에 나가 강 굿을 허느니?
@1 으.
#1 경허난 경헤도 그것이 아니랑 우리 부락에 헤시민 좋암직허덴, 경허난에 그 어룬은 ᄒᆞ썰 놎이곡 우리 어무니넨 우이난에 게민 어르신이 허렌 허민 훈번 헤보켄. 경허난 딱 들어사니깐 수산에 이제 큰일이 닥치고 뭐허켄 막 헌 거 아니?
@1 으.
#1 겡 헨 헤가난에게 진짜 첨 그추룩헌 일이게 닥쳐갈 거주게.
@1 으.

#1 경헹 허난 이젠 우리 어무니네가 이젠, 이제는 안 뒈겟다. 이제는 이디 이제 본향당에는 당을 우리가 이제 어디 그 고잪이[고자피] 고장난밧.
@1 으, 고장난밧. 예, 예, 예.
#1 고장난밧디 이신 이제 그, 그 어른, 그 신을 모셔와사주, 우리가 이제 수산서 모셔와사주. 이 거리도 멀곡. 또 이제 그 안네 이제, 가름 안네 잇어 놓니깐 이제 막 개 같은 거, 고양이 같은 거도 무섭고 허니까 이젠 모셔 오자 헨에 이젠. 그 이 지금 물레에게 본향당에 와수다게.
@1 으.
#1 경헤연 헌디 본향당이 우리 그 신이.
@1 응.
#1 목이 없은 신이라.
@2 아.
#1 게난 그 사삼사건에 목을 쳐벳다는 거주.
@1 아.
#1 그걸.
@1 당? 신을.
#1 그 신을.
@1 으.
#1 경허니까 지금 장옷 입곡 남자도 그 다 장옷 입현 헤도 이 장옷을 썬 잇수다.
@1 으.
#1 경헌디 목 엇인 신이라.
@1 으.
#1 경헨 헌디예, 이디서 굴은 말은 한 번 뜰린 게 엇입니께, 지금까지.
@1 아, 영험허구나.
#1 으, 영. 게난 수산본향당이 일 위라.
@1 예, 예.
#1 손당보담도.
@1 여기 더 쎄덴.
#1 여기가. 게난 여기 가서 잘못헤서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죄를 받앙 오는 거.
@1 으.
#1 게난 우리도 우리 어무니네가 계속 그치룩 헹 허민 섣돌그물어 강. (생략)
@1 으.
#1 경허난 저 그예, 그 신 지금 뭐허곡 여기 우리 어무니네도 영허민 섣돌, 난 지금 섣돌그물엉, 음력 섣돌 그물어 가믄 난 스무날만 뒈민 우리 집이 뒈지고기 치웁니다.
@1 아.
@3 아.
@1 고기를 안 먹는 신이구나?

#1 고기를, 예, 고기, 뒈지고기 먹엉 가믄 것도 안 뒈고예.
@1 예. 부정타고.
#1 이, 저 여자는게, 우린 이제 나이 드난 헤도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곡 못 가, 거기는.
@2 아.
@1 생리허곡 헤불곡 허니까.
#1 생리 때문에. 견디 그런디 그 우리 어무니에 그 저 친구가 이제 그 본향당을 멘 거라. 이제 우리 어무니네가 어, 느가 당을 멩 허라, 허라 허난. 허곡 수산 큰굿이엔 헌 건 큰굿 ** 당을 메면은 멩이 짤른덴 허주게.
@2 아.
#1 버쳥.
@1 예, 버치니까.
@2 으.
#1 그 신을 경허니까 그 오라방. 막 멍텅허여.
@1 으.
#1 우리 보담 세 설 우인가 길 거라. 긴디 인배, 인배. 조인배, 인배 허는디. 그 사름이 이젠 그 어디 성읍리서 이 집이 양잴 온 거주.
@1 으.
#1 멍텅헌 건디예. 그것이 축원만 탁 나오면은 잘잘 익어.
@2 어.
@1 어, 소름. (웃음) 어.
#1 우리, 우리, 우리예 저 정월 그 뭐에 넘어근에 허면은 그 축원헌다는 거는. 이 말 다 골앙 뒐 건가?
@1 예.
#1 축원헌다 허는 거는 이제 별도로 날짜를 봥 헙니께.
@1 예.
#1 날짜를 봐근에 스무날 안네.
@1 으.
#1 음력 정월 흔 둘 안네 헨에 올히도 그거 헌 거 요번에 또 이 문화재청에서 또 우리 이제 보조받안 허젠 헤부난 재연헤수다게, 요번에.
@1 예, 예.
#1 굿 보고 떡 먹자 헨 이디 저 현수막 걸곡 헌 거 헷는디 이젠 그 인배가 이젠 헐 때는 집도 지금 고친 상태 아니고 쩨끌락헌 막살이 허민 우리 정월 초이틀에 우리 두려도 게나제나 애기덜 키우곡 무시거 허젠 허민 그디 안 강 왕은 일 년 동안 머리 아파근에 살지 못 허여, 막 근심 버쳥.
@2 아.
@1 그디 안 가오민 근심 버쳥.

#1 안 가온 거. 으. 무신 때문에 대가리를 아팜 신고, 무신 때문에 어떵 헴신고 막 것만 상상허는 거라.
@1 예.
#1 우리가. 그 무의식 중에도. 경허민 본향에 초이틀에 강 새베헤 와 불민 ᄆᆞ음을 놓곡.
@1 으.
#1 경 아녀민 미시거고 애기덜 둘곡 허민 뒈지고기든 애기든 무시거 허곡 허민 못 가지. 이녁 죄 받은덴 헌 말 들으민 못 강 허민 막 그것이 스트레스 받앙 무시거헌디 이젠 우리 어무니가 곧는 말이, 아이덜 역거들랑 아이덜 학교 뎅기곡 헐 때는 세밸 가와 불라. 세배, 딴 때랑 못 가도 세배만 가와 불라 경허민 허주. 아이덜토 이제 허곡 허주 세배만 멩심헤근에 세배만 가오라. 경헹 그것이 습관 들영 기자 험 시작 허난 아이덜토 우리 아들덜이라도 지금 시에 메누리덜 다 살아도.
@1 으.
#1 딱.
@1 그날은.
#1 그 아니, 섣둘 흔 스무날만 뒈가민 뒈지고기 기자 집이 없애불 건 원 알아.
@1 으.
#1 알아근에 저 문전제에 나가 족은집이난 큰집이 멩질 먹으레 감셰에 아이덜 키우젠 허난 어디 가난 그 인배가 저 그 문전젤 헙센. 문전젤 헤사 아이덜 군인가명 미시거 영 헤근에 펜안허주, 나신더레 그거 신경 쪼끔 썽 문전젤 허렌 허난 문전제 헤도 뒈지고긴 안 헙니께게, 지금도. 나가 거시기 본향에 감 때문에.
@1 예, 명질 때 뒈지고기 안 올렴구나.
#1 뒈지고기 우린 아녑니다게.
@1 소고기만?
#1 소고기도 우린 멩질이 아니난.
@1 아.
@2 문전제만.
#1 문전제만. 으, 게난 큰집이 가면은 우리 조케들 다 알앙 족은어무닌 그릇 거찌지 맙센.
@1 아.
#1 그 뒈지고기.
@1 멩심헌 거 아난예?
#1 뒈지고기 그 무시거는 그릇덜이영 제 올려난 거 이시난 족은어무니라근에 그릇덜 내붑서, 이레 무시거 허지 말앙 내붑서, 내붑서 헙니다게 경헹 허민 헌디 그 인배엔 헌 사름은 또 그 누이가 죽어벳주.
@2 으.
#1 죽으난 이제 인배가 이젠 춤 그 양재 둘아왕 저 성읍리 사람이우다. 조칩이. 둘아

오난 멍텅구리라. 기자 기기기기기 허멍 사름이 ᄒᆞ썰 모자라듯 헌 사름인디. 본향에만 가민 이것이 탁 탁탁 돌아뎅기당 부정헌 사름 보민 탁 머리 심엉 내훈들르곡. 야, 경 헤가는 거 아니?
@2 어.
@1 태운 사름이네.
#1 태완게. 경허난 이젠양 막 이젠 춤 인배 ᄀᆞᆯ은 말 지금도 ᄀᆞᆯ읍니다. 인배 ᄀᆞᆯ은 말은 하나 뜰리지 아년덴.
@2 아.
#1 경헹 허민 부락에 무신 일이 어떵어떵허영 나쿠다 허민 딱 나. 메칠 안네 어떵 뭐 허쿠다 허민 딱 나. 경허멍 헌디 굿을 날짜 받앙 헹 허민 멩단을 쫙 씁니께. 중학셍으로 고등학셍, 대학셍이민 대학셍으로 이 직장, 훼사, 공무원 뭐 저 자영업 그런 거 따로 허영 쓰민 탁 내놓민 기자 일름ᄁᆞ진 허민 오래곡 허민 김씨민 고씨 그런 거 기자 찰찰찰찰허당 익당허당 탁 찍어.
@2 어.
@1 게민 안 좋은 거?
#1 으, 나쁜 사람 탁.
@2 아이고.
#1 경헹 이제 심방사 경 헴수가마는게.
모두 (웃음)
#1 다 축원헤둰 놔둬근에 허면은 영정 헤연 어떤 사름은 궂이곡 어떵은 허쿠덴 ᄀᆞᆫ는디 이 사름은 경 아녀. 탁 익어 가당 탁 집어.
@1 게믄 얼마나 오싹오싹할 거야. 그렇게 헹 탁 집으면 풀어줄 수 잇는.
#1 경허난 풀어, 풀게 집이서 빨리 어떵 헹 헙센.
@1 응.
#1 조치 취헐 사름은 취허렌 허곡.
@2 응.
#1 경 아녈 사름은 기자 미시거 허곡 헙센 ᄀᆞᆫ곡 헙니다. 게난 그, 그걸 그렇게 영특허다는 거.
@2 응.
#1 게난 우리 조상님이 경허난.
@1 도완예.
#1 예, 나가 ᄀᆞᆫ는 게 거주, 참 그거 어디서 이 대학에 이제 논문 쓰젠 허민 다 전화 오는 거라.
@1 맞아, 맞아.
@2 (웃음)
#1 아이구 진짜양, 이 원 이름도 성도 몰른 사름들이 이제 다 전화왕은에 허는 따문에양 허민 또 이제 어딧 사름은 ᄒᆞᆫ 번 와가켄.

@1 으.
#1 무시거 나는 셍이라.
@1 응.
#1 이번 저 장, 저번 때라, 저번 때 허난 저 무신 교육위원 미시거 나오젠 어떵어떵 출려옵니껜. 아이고, 아직 본향당 안 열어수덴. 문 중가불곡 허난에 못 옵니덴. 제일 때랑 오컨 옵센.
@1 으.
#1 게난 그땐 이 칠월에 오렌 헷주.
@2 으.
#1 그때 그ᄀᆞ리 거시기 헨 허난. 어떵 헹 출리덴 헙니껜. 떡, 떡 멧 개허곡 종이 허곡 어떵 어떵 헤연 출려 옵센. 그 사름 왕 강 덕 입고렌 또 전화와십디다.
@1 으, 교육의원 뒀구나?
#1 응.
@1 어.
#1 경허메.
@2 어.
#1 게난양 이디양 그 저 김○○ 도지사가 자꾸 곧주게.
@2 응.
#1 우리 집이 와근에 무시거 허민, 하이구 나도예, 저 ᄒᆞᆫ 번 진짜 그거 역불 보레 와 가고렌.
@1 으.
#1 그 학교에 그 뭐 엇덴 헷젠 허난 보레 완 진짜 들어가난 어떵 헹 몸이 으시시 헨 에예 간 나 딱 올련 절허고 헨에 뭐헤수덴 허멍 막 도지사 나인디 말 ᄀᆞᆯ아나수다게.
@2 으.
#1 우리 집어 저 어디 잇단 그때 막 물들언 이 청장우이ᄁᆞ지 허난 우리 지금 딴 디 강 집 짓엇수다마는.
@1 으.
#1 그 김○○ 도지사허고 우리 막 인연이 잇엇주게.
@2 으.
#1 경헨 헌디양, 모든 무시것이 수산 살단 사름이 타리에 나가근에 수산 본적 떠난 사름은 절대 안 뒙니다.
@1 으.
#1 들어온 사름은 잘 뒙니께.
@1 아.
#1 진짜. 이 지금양 이디 들어온 사름덜토 수산 사름보단 억대덜 벌멍들 다 나갓수다. 나가민 안 뒌덴 곧주, 그 사름덜신디레. 경헤도 지금 저 동남○마트 ○마트도 요 카부에 집이 와근에 진짜 ᄒᆞᆫ 멧 년 살아시? 왕창 버슬언 간에 저 ○마트 짓고게.

@1 으.
#1 배 배 산허곡 수산 완 다 벌엉 간 돈이우다.
@1 어.
#1 경허곡 수산 들어온 사름은 안 뒈는 법이 엇입니다.
@1 예. (잡담)
#1 요디, 요디 저 국숫집 저 장○○이엔 헌디 오널도 손님이 이빠이라. 그 사람들 성산서 식당 안 뒌 이디 온 사름이우다.
@1 어.
#1 그디추룩 대박나는 디 엇수다, 지금.
@1 국수집?
#1 으. 요디게, 장○○. 진짜 그디가 대박이우다.
@1 예.
@2 으.
@1 그런 식으로 이제 헤서 허곡.
#1 우리, 우리 이제 낼모리 칠월 초ᄋᆞ드렛날 마풀림 가곡.
@1 예.
#1 또 이디 신술당 재연헤근에 이제 헤난 것들.
@1 게난 저희들도 이제.
#1 옵서, 왕 봅서.
@1 사진도 찍고 경 헤야크라.
#1 그때.
@1 올 때 무신거 가졍 와야 뒈?
#1 아니 무시거 안 가졍 와도 뒈. (모두 웃음) 그때 왕 구경만 헤도 뒐 거.
@1 예.
#1 경허난 온 사름덜이영 먹게시리 빵, 지네도 헹 오누렌 심방. 겨곡 우리두 우린 흰떡허카 허는디 허멍 나가 부녀회장 삼춘 전화헤봅서 허멍 헤관데. 전화허난에 빵 헹 가는 거난 빵 헤붑서 허관디. 맞아 우리 엿날엔 빵 헤낫주게 허난에.
@2 응.
#1 게, 저 강 사름들 ᄒᆞ나썩 먹게 우린 빵 헹 감수다 허관데 게믄 우리도 이녁만썩 허지 아녀근에 ᄒᆞ썰.
@1 동네서.
#1 멧 사름 가지도 아녈 거곡. 게난 사름을 요디가 ᄒᆞᆫ 노인회서 댓 사름 빌엉 가사커라. 구경도 가살 거주게.
@1 예.
#1 게난 부녀회도 동원 못 시키쿠덴 허멍.
(중략)
#1 이번은 부녀회장 때문에 ᄒᆞ썰 일찍 헐 걸로 뒀어.

@2 아.
#1 게난 방송국더레 일찍 헐 걸로 전화가실 건디.
@2 어.
@1 게믄 당에서 심방이 왕 허는 거는 본향만 심방이 헙니까?
#1 본향당.
@1 본향당.
#1 제일 허는 거허고.
@1 제일허고.
#1 이 진 안네허곡.
@1 으. 것도 다 심방이 간에 강은에 다.
#1 다 심방이.
@1 다 굿헤?
#1 예.
@1 아.
#1 다 앚아근에 앚아근에 굴아도.
@1 앚앙.
#1 심방이 헙니께. 게난 이녁 게난 진 안넨 그 심방이 하도 멀어 부난 엿날엔 이 저 끗디 심방덜이 막 하나수다게.
@1 예.
#1 경허민 인배 자린 요거, 두 번차는 어느 할망. 요 건 어느 할망 헤근에 세 자리가 잇어.
@1 아.
#1 진 안네.
@1 진 안네.
#1 경헤도 지금도 가도 우짝엔 당장 못 갑니다.
@1 예.
#1 그 인배 자리옌 헌 딘양. 우리가 가도 지 이짝에 헤근에 헤뒁 지 묻어뒌 와, 그디 무심코.
@1 아 사람 돌아가시니까?
#1 예. 술 흔 잔허곡.
@1 지를 묻어 그 자리에.
#1 예, 그 자리에게. 영 그 음식 헹 간 거허곡 술ᄒᆞ곡 비와근에. 영 영 잘 이제 미시거 헤줍센 왕 감수덴 헹 기자 헹 허난 심방 안 빌어근에 이녁만 옵니께.
@1 예, 예.
#1 이녁대로 가근에 절 세 번 허곡 그디 이제 헹 간 거 그 구멍. 경허곡 똑 쒜돈 세 개.
@1 응.

#1 구리 돈 세, 삼십 원.
@1 으.
#1 그거라도 아졍 가근에 무심코 이거 우리, 우리 저 일 년 내에 버은 역갈이우다.
@1 으.
#1 헤근에 그걸 그 구녕 이수다게. 그디.
@1 예.
#1 그 지 묻는 구녕. 그레 소로록허게 놓면 그추룩 몰른 사름은 그런 것도 안 허여. 게난.
@1 구리돈으로 것도?
#1 구리돈으로. 하영 묻엇다고 쒜돈 요새 십 원짜리 헤근에. 이거.
@1 번 역갈이렌 헙니까?
#1 이때도록 버은 역갈.
@2 역갈?
#1 버은 역갈. 우리가 벌어 놓은 역갈이우다.
@1 으.
#1 경헤. 버은 역갈이엔 헙니다.
@1 역갈은 무신 뜻일까?
#1 역갈이엔 헌 거는 엿날 그 할망덜 말로 우리가 이때도록 버슬어 놓은 걸로 그레 바쪔수다 헌덴.
@1 으.
#1 역갈이.
@1 역갈이.
#1 우리 어무니. 역갈이 미시거꽈? 우리 이때도록 버을어 논 거 바쪔수다 헌 말이주게. 역갈이. 역갈이우다 헙니다.
@1 음. 버은역갈.
#1 역갈이우다.
@1 예, 역갈.
#1 게난 것도 나도 그 심방 할망이 그 우리 동네 잇어낫수다, 요디. 게난 그 어른이난 아무안티도 안 굴아줘서이 애기 어멍이. 나 시긴 대로만 헤여이. 우리 애기덜 클 때. 완에 우리 족은아덜이 옛날 한집 허지 안헤수과?
@1 예, 예.
#1 이 말도 굴아야 뒈. 한집 헐 땐디 지금 가이가 마흔아홉 뒛어. 경헌디 큰아이영 ᄌᆞ근ᄌᆞ근ᄌᆞ근 서 오누이가.
@1 계속 허잖아예?
#1 으, 우리 집을 이젠 짓엇수다. 학교 앞이 집을 짓는디 집을 한창 짓는디 그 한집덜을 헤노난 어떵 헐 거꽈? 게난 지금 그 우리집 딸 세 번차 똘이 큰아이덜은 문저 헹 끗나부난. 그디 안 살 때 끗나불곡. 세 번차 똘이 시작헹 헤부난 큰아덜도 허곡

족은놈도 이제 시작헤여 가는 거 아니? 게난 아니 똘허고 큰아덜은 술술술술 어떵어떵허연 넘어간디. 족은아덜이 바로 막, 막 난리가 난 거라. 이건 바로 막 사람 다 튿어불곡 어디 강 미시거 아졍 오렌 허곡 막 허멍 이거 원 사름을 못 살게 굴어. 게난 간에 그 어룬 잇는 디 강 아고 삼춘 우리 집이 ᄒᆞ썰 와줍서 허난, 무사? 허관데, 아니 영 정 헨에 한집 헌디 아이 두 갠양 그냥 넘어간디 저 ᄒᆞ난 지금은 막 난리가 난에 ○○네 집이 시렁 우이 강 사과 이시메 아졍 오렌 막 웨곡 지금 난리우덴.

@1 으.

#1 경허난 아이고 무시거에 숭봣젠.

@1 으.

#1 숭보난에 게거들랑 저 애기 어멍 어디 가근에 ᄂᆞ람지나 강 빌어 오라.

@1 응.

#1 ᄂᆞ람지옌 헌 거.

@1 예, 예. 알아집니다.

#1 새로 여끈 진진헌 거.

@1 으.

#1 옛날 잔치헐 때도 그런 거 페와낫주.

@1 예, 예.

#1 ᄂᆞ람지 어디 가근에 ᄂᆞ람질 헤여오코양? 우리 상점 볼 때우다, 그 요디난. ᄂᆞ람지 허난 알동네 어무니신디 강 양 어무니, 어디 ᄂᆞ람지 신고양? 무시거헐 티? 아이 ᄂᆞ람지 이만저만헨에 어디 강 빌어 오렌 헨에 허멍 허난. 아이고, 어디 크게 숭봣구나게. 우리 어무니가 게난 큰아이덜은 어떵 헤시니? 허난 가넨 다 넘은 거 같곡. 저 안직은 채 일뤠도 안 뒈는디 족은아인 지금은 막 난리가 데싸졋수덴.

@2 응.

#1 경헤연 헌디 이젠 ○○이 집이 궤 우이 강 사과 이신 것 강 앚당 도렌 하도 웨난 어떵 그딜 갑니께 헨 허난, 게도 강 들어보렌.

@2 아.

#1 그디도 영 카부 우이 상점 헤낫주게. 간에 양 언니, 저 아이고 나 원 이상헌 일이 잇엉 와서 허멍 허난, 무사? 허난 나보다 ᄒᆞᆫ나 우이주. 그 언닌. 상점 보건 무사 허난 아 우리 집이게 이만저만헌 아이 이신디양, 성님네 궤 우이 사과 이신 것만 아져 오렌 헨 와수게 허난. 아이구 야야게 거 어떵허연 알아시?

@2 허.

@1 꼭 안덴예?

#1 아우고 야게, 경허멍양 그걸 알아시?

@2 으.

#1 아이야야 거 어떵 알아시? 아이 잇저게. 확허게 주는 거 아니?

@2 아.

#1 앚당 주난 기자 와삭와삭 씹어 먹언에 이젠 탁허게 데껴두고 헨 그 할망이 완에

ᄂᆞ람지 빌어 오난에 그 우린 바로 질에염 집이난 지금 영 훼전 만들어 벳수다. 그 집 이젠 튿언. 게난 길로 짝허게 우리 구들ᄁᆞ지 이제 ᄂᆞ람질 페완에 막 할망이 막, 막 빌멍 들어와.
@2 으.
#1 빌멍 들어완 허난 이젠 메, 나인더레 메헤근에 허곡 독세기 ᄒᆞ나 숣곡 헤근에 저 물라근에 찬물 올릴 걸로 허곡 헹 출리라이 허멍. 겡 출려둰에 그거 헤다 놘 허난 이젠 난게 막 불안헨 아인게 저 죽으카부덴만 헷주.
@2 으.
#1 막 겁난. 경헨 허난 할망 들어완 이젠 그거 헨 막 공연허곡 막 수덕 잇주, 그 할망. 경 헤연 허거들랑 기자 오글레기 일어난게 독세기 딱 벌런 먹곡 뭐 허는 거 아니?
@2 으.
#1 야 경헨 할망 가부난 기자 오글레기 일어난 독세기 헨 이제 깐 먹곡. 그 밥 그 헤난 밥 도렌. 경허난 이젠 헤난 밥 이젠 옆으로 영 무시거 헤둰 허난에, 그거 이젠 막 먹으곡. 아이고 이거 원 어떵 헤근에 무시거 헐 건고 아방신디레 벳기디 나강 에고 나 겁낭 못살켜, 어떵 허믄 좋고 원 허난. 아이 밥도 먹고 허난 어떵 안 헐 거 아니? 허멍 허난, 게메 원 밥도 먹곡 독세기도 먹곡 헴저마는. 그 할망은 속솜헹 우리 집 요디난에게 두 집 넘어난 디주게. 경헨에 기자 영 가멍 날ᄀᆞ라 눈치 영 허멍 속솜헹 은에 기자 살아 뎅기렌 영허연 가. 아 기자 ᄒᆞᆫ 사나흘 잇거들랑 기자양 그 솟을 거.
@1 응.
#1 이 몸엔 다 솟앙게 탁허난 이젠 오물락오물락 들어간 기자 아이가게 판찍헤벤게.
@2 와.
@1 게난.
#1 지금도 곱닥헷어.
@2 어.
@1 막 솟아난예.
@2 얽으지도 않고.
#1 아이고 막바르 다 솟은 거 박박 긁으멍 막 하도 웨난 이제 막 곰보가 뒈카 진짜 살지 아녀카 허멍 헤낫주게. 경허멍 헌디 그르도 ᄒᆞ나 엇고양. 진짜 아이고, 나 그 아덜로 저 아니 베울 거 다 베우곡.
@1 으.
@2 (웃음)
#1 놈이 집이 강 사괄 다 빌어온다.
모두 (웃음)
@1 게난 저 말만 우린 들어도 안 주민 안 뒌덴.
#1 경허난 또 저쪽. 안 주민 안 뒌덴. 저쪽 우리 큰집이주. 게난 그 ᄀᆞ리에 제사가 잇엇어.

@2 으.
#1 경허난 그 집안에 한집 든 때는 상 페우지 아녑니께.
@1 예, 예.
#1 경허난 이젠 우리 그 제사 우리 큰동세 제삿상도 아래 눅젼에 제사헤수다.
@2 아.
#1 경헤수다.
@1 예.
#1 밥 먹을 때도 상 페왕 안 먹어.
@2 음.
#1 경헹양 그땐 경. 이젠 그것도 엇수게게. 그것도.
@1 이제는 다 주사 맞아.
#1 주사 맞아 부난. 그때도 예방주사 맞쳣주만은 그땐 한창 헷수게.
@1 예.
@2 겡 족은아들은 멧 설마씨?
#1 지금?
@1 마흔아홉.
#1 마흔아홉.
@2 아.
#1 큰아덜은 쉰, 마흔아홉인가?
@2 좀 어린데.
#1 큰뚤이 육십여섯, 육십넷. 육십, 아 저 오십둘, 오십, 마흔ᄋᆞ답이로구나. 큰뚤 로곧지 아녀믄 몰라.
모두 (웃음)
@1 차례차례예.
#1 (웃음) 꺼꾸론 못 골아.
@2 으.
#1 경헤 불믄 큰뚤만 뚤이엔 허멍 우리 족은아덜은 막 웃주게.
@1 아고게 큰뚤이 큰뚤이주게.
#1 큰뚤이 큰뚤이라, 에이구. 아멩헤도 손지도 그 큰뚤 난 손지가 일등.
@1 으.
#1 처음으로 나놓난 막, 막 아까와근에.
@1 으, 맞아.
@2 으.
#1 올리 장게 보냇주마는 막 아까와.
@1 게난 아덜 손지보다 큰 손지가 더, 큰뚤이 큰뚤.
#1 큰뚤이 큰뚤.
@2 (웃음)

#1 우리 아덜네 손진 너이 두 개썩 두 개썩 네 개.
@2 으.
#1 게도 손지가 열 개우다, 나.
@1 야. 부자네 진짜. 다섯이라고 헷잖아.
@2 으.
@1 겡 요런 식으로 이제 그 가져가는 거라예? 아까 이제 본향에 무시거 가졍 갑니까? 헤신디 여까지 와불어수다.
모두 (웃음)
@1 돌레떡허곡.
#1 쌀.
@1 쌀허고.
#1 불전.
@1 불전 싸고.
#1 거시기 지전.
@1 지전하고.
#1 지전 석 장은 똑 물랑 가사.
@1 그다음 소지헐 거 허고.
#1 소지 석 장.
@1 으, 씰은 안 가져갑니까?
#1 무사 씰도 아졍 갑니다. 뭐헌 사름은 씰도 가졍 가고예.
@2 으.
#1 초도 상 가고 셍꼬도 상 가고 또 그 천.
@1 예.
#1 천 헤근에 막 발로 발아근에 그 저 양단.
@1 물색으로 물색.
#1 물색천. 그런 거 허는 사람은양 계속 헤사주게.
@1, 2 아.
#1 게난 아무상엇이 경 거 허지 아녑니다.
@1 아.
#1 경허고 이 닥 가뜬 것도양 아무상엇이 거 허는 거 아니.
@2 하.
@1 다른 디 가믄 계랄도 삶앙 가.
#1 계란도 삶앙 갑니다, 하나.
@1 하나만 삶아.
#1 본인이 하나.
@1 계란 하나예.
#1 건 잔 헌덴 헤근에 술 흔 펭허곡.

@1 술 흔 펭하고. 거 계랄 안주구나?
#1 안주, 술안주게.
@1 술안주. 경허니깐 그 묻엉 나중에 술허곡 허는 거구나게?
#1 게난 그거는 본향에 간 때 다 테와 주민 먹는 거.
@2 으.
#1 저 계란 삶앙 가민.

안택

@1 게영 그렇게 허고. 삼춘 안택도 헤봔? 집에서?
#1 우리 안택 아녑니다.
@1 안 헙니까?
#1 요새 안택 헙니께.
@1 예.
#1 허는데 안택은 허는 건디게 그 닥 희셍헹 허는 거 아니꽈.
@1 예.
#1 게민 그 아까 식으로, 이, 저 포제 가는 거 세 개.
@1 예.
#1 네 가지.
@1 네 가지.
#1 으, 메도 네 가지.
@1 으.
#1 또 그 저 멩테에 그 대추 같은 거 그거. 안택허는 거는 그거우다.
@1 어, 안택은 집에 좋게 허는 거잖아예? 것도 심방 왕 헙니까? 아니면은.
#1 아니 건 시님. 요새 시님 빌엉 헤도양. 이 집이서 축 익는 사람 이시민 집잇 사람냥으로도 헙니다.
@1 아.
#1 예.
@1 축으로?
#1 예, 축으로.
@1 옛날.
#1 심방 빌엉 허는 사름은 지금도 헙니다, 지금도.
@1 걸 안택이렌 헤마씨? 것도 정월에 허지예?
#1 정월에.
@1 정월.
#1 정월 못 허민 삼월.
@1 삼월에.
#1 그새.

@1 그게 여기서도 올레코시 이런 말 헙니까?
#1 올레코시가 안택 헤근에 올레코시 헙니께.
@ 으. 안택 헌 다음에?
#1 으. 그거 허영 올레더레 막 뿌리멍 허는 게 안택, 올레코시. 또 경허곡 그 주지 차근에.
@1 예.
#1 그 영 씨우는 거. 주지 열앗닥 더껏닥 허는 거 허는 사름도 이십니다.
@1 그 할망?
#1 그 저.
@1 칠성.
#1 칠성 모셩.
@1 예.
#1 겨민 그거 허는, 아까 우리 노인회장네도 그거 헷어.
@1 아.
#1 그거 허면은양 건 아무상엇이 건드리지도 못허곡. 똑 그 새철 나민 새 비어당 놧당 그거 굴아 더프곡.
@1 으.
#1 경헙니께게. 경허난 그것도 막 없애 부는 디덜은 막 없애 베어. 견디 없애 불면은 뭐가 안 좋아. 게난 옛날에 그 요디 우리 사둔넨디 그 오 선생네가 막 잘살아나수다게.
@1 으.
#1 잘산데 안택 이신 거라. 그 주지 차근에 그 안투에.
@1 그 안튀에 강.
#1 안튀에옌 헙니다 그건, 안투에.
@1 예.
#1 뒤에. 경헌디 그거를 이젠 그 할머니 대엔 막 그거를 신경썽 헷주게. 일 년에 훈 번 굴아더끄곡 그거 헤근에 그 허곡, 그거 조상 심방 빌어다근에 막 헙니께게. 경헨 허연 허난 그 집이가 막 잘뒛어.
@1 으.
#1 잘 뒈단에 이젠 할무니 할아부진 돌아가난 어무니 아부진 이젠 한약, 한, 한방 그 약국을 헷어. 경허난 또 아들덜은 다 선셍을 허곡. 오 선셍, 오 선셍 허곡 막 잘살앗어. 그 할무니네 이신. 게난 그 할무니가 돌아가 부난 그 집을 풀게 뒌 거 아니우꽈? 게민 그거를 처리헤근에 팔아시민 헐 건디 이젠 그거는 우리 사둔이 사서. 그 집은. 그 사난 아픈 거 아니라. 그 저 우리 남자 사둔이 아프난 어디 간 들으난에 이젠 그 집이 안택이 이신 걸 무심헤 부난 이제 그걸 어떻게 헤사 무시거 허켄. 허난 이젠 아이 것사 어려운 거우께. 우리 여자 사둔 춤 요망짐은 헌 사름이라. 허난 헤단 심방 빌언에 이제 그거 허연 눌 굴앙 더끄곡. 그거 헤부난 왕창 왕 부제가 뒈베수게게.

@1 아.
#1 그 집인, 그 집인 기자 푹삭 망헤불곡. 그 집인 원 아덜덜도 약국이고, 아덜덜이 각시 갈라간다 죽어간다, 원. 완전 안 뒈수다.
@1 거난 그 안칠성 헤근에 안튀엣 거를.
#1 안칠성을.
@1 밧칠성.
#1 밧칠성이엔 허주, 거.
@1 밧칠성.
#1 이녁네 가멍 모셩 가시민 그 헐 건디 그 할망 허단 거난 다 무심코 내분 거 아니꽈게. 게난 딴 사름 산 들어완에게 헹 그거를게 부자, 아이고, 당근 장시 헤근에 마다리로 돈 벌엇젠 소문나낫수다.
@1 그난 그 밧칠성은 집안엔 부자뒈게 허는 거잖아예?
#1 게난 것도 저, 뱀 그 뭐 아니우꽈게.
@1 으.
#1 게난 그것이 허곡 우리도 어디 가근에 질레에 그 죽은 거라도 보면은 그거 이제 뭐 허지 아녑니까게. 경허민 우리 신술당이라.
@1 예.
#1 신술당이 그 저.
@1 가근에.
#1 가근에 헙니께. 게난 우리도, 우리 아방도 ᄒᆞ썰 뭐가 약헤근에 그거 허연 허난 진짜 쳇 해에 놈이집 빌언에 집게 안 장만헌 때. 놈이 집 빌엉 나간에 기치룩헨 허난에 그거 출령 나 당에 강 왕 진짜 살멍 헨에 허고양? 그, 저디도 무시 못 헙니께. 이제는 시대가 변헤부난. 예, 이제 시대가 변허난 다 구신덜토 다 알암수게게.
@1 예. (웃음)
#1 게난 이거.
@1 그런 식으로 하고.

보리밭 밟기

@1 옛날 정월에 보리밧 불르기도 헤봅디가? 보리 불라봔?
#1 불라. 그 갈아논 거? 놈은 불라봣주만은 난 우린 부제칩이서 사난 보리밧 불르는 건 안 헤봣수다.
@1 아이고, 그 다른 집덜은 허고?
#1 막 허고. 봣주게.
@1 으.
#1 보리 갈앙 그 상강지민 막 올라오민 막 불라.
@1 으.
#1 밟아게.

@1 것도 정월에예?
#1 정월에광 이월에 막 헙디다.
@1 예, 정월허고 이월에.
#1 이월에. 보리밧 불르고.

걸궁

@1 여기 이 동네도 걸궁들도 헤신가마씨
#1 아이고 우리 막 헤나수다. 나도 막 헤나수다.
@1 걸궁은 언제 허는 거?
#1 걸궁 헤근에 허민 집집마다 가근에 막 그 헤근에 정월달에 막 허주게.
@1 예.
#1 보름 새에. 경헤근에 막 꽝메기 치멍 막 허는 거 허곡 허단에 그것도 사라졋수게.
@1 건 언제까지 헤신고예? 걸궁허는 거는.
#1 걸궁헌 거는예, 그 사삼사건 후에.
@1 으.
#1 후에 우리가 저 크멍 허민 그 우리 삼춘 그 걸궁 그 허는 어른덜이라.
@1 으.
#1 그 어룬덜이 헤근에 막 그 연극ᄀᆞ치 허멍덜 막 집집마다 돌아가민 막 그 집이서 뭐 주멍 헙디다. 우리 졸졸졸 아이, ᄯᅮ라 뎅이멍. 경허단 삼춘덜이 군인간 다 돌아갓 주게양.
@1 으.
#1 경헌디 그 후에 꺼진 디 또 이제 우리 읍사무소로 또 걸궁패들 헨에 ᄒᆞ쏠 헤뎅기단 이디도 설러졋수다게.
@1 으.
#1 우리도 그 민속 무시거에 다니단.
@1 민속놀이로 경연대회에.
#1 으, 경연대회에 뎅기난. 수산도 와근에 ᄒᆞ썰 허곡 무시거 허곡 허민 어느 집이 오렌 허민 가곡 오지 말렌 허민 안 가곡 허멍 우리도 놀아뎅겻주.
@1 으.
#1 경헹.
@1 게믄 그 사삼 이후에들 헌 거구나?
#1 예, 사삼.
@1 아, 사삼 전엔 아니고예?
#1 사삼 이후에 우리 그 삼춘네가 사삼 이후, 이후, 이후.
@1 으.
#1 사삼 우리가 세 살 때 사삼.
@1 삼춘네는예?

#1 예. 경 헹 해방, 해방뒛주.
@1 예.
#1 경허난 우리 그 담요 쓰멍 게나제나 대왓디 강 곱으멍 살아수게.
@1 으, 그 세 살 때 그거 기억나예?
#1 예. 게난 우리 그 삼춘 죽엇젠 허난.
@1 으.
#1 왕 쏘완 죽여볏주게. 창곰으로. 경허난 우리 그 동, 장이고 나영 동갑이라. ○○이가. 그디 아방. 게난 우리 어무니가 이젠 간 오난, 강 어떵 헤십디겐 허멍 우리 두린 때난. 세 설인 땐디. 허난에 아이고 간 보난 사름덜은 ᄒᆞ나도 엇곡 피만 벌겅헨에. 우리 어무니가 이젠 다 이제 권당덜신디 다 연락헹 게도 죽은 사름 어떵은 처리헤살 걸.
@1 어.
#1 다 앚이민 어떵 헐 거우껜 헨에 헤연 권당덜 다 왐시난 느네랑 꼼작허지 말아근에 집이 이시민 우리 서 오누이난.
@1 으.
#1 우리 오빠에 언니에 나에난에 어디 올레 가민 죽여 분덴 소리에게 ᄀᆞ만이 이시렌 헌 거주. ᄀᆞ만이 이시민 그디 일 다 끗난에 올거난에 밥 먹곡 헹 이시렌. 게민 막 창으로 다 쏴 죽여 불언.
@1 게난예.

새철 드는 날

@1 그 예전에 새철 드는 날예?
#1 새철 드는 날.
@1 으. 새철 드는 날도 헐 말이 하예?
#1 아이고.
@1 예.
#1 여자, 여자들은 놈이 집이 안 간덴.
@2 으.
#1 시간에, 시간에 아니고 그날 종일 안 갑니다. 이지금도.
@1 이지금도예?
#1 게도 전화헌 것사 어떵 헙니까만은 이지금도 전화헌 것도 막 궂어라 헌 사름도 잇어.
@2 아.
#1 새철날에 뭐 전화헷젠.
@1 어.
#1 게도 전화헌 거는 어떵 안 헙니다게. 우린 이디서덜 놀멍 경헤도 에이고 재수엇이 새철날 아척이 전화와서렌 경 굴읍디다.

@1 예.
#1 겨난 검질 짓는 말이.
@1 으.
#1 옛날게 우리 두린 때는 새철날 저 놈이 집이 가민 그 집이 검질 짓어, 검질 짓어.
@1 예.
#1 검질이 아니고 그 집이 나쁜다는 거.
@1 음, 그렇지.
#1 으, 그 집이 그 해에 나쁜다는 거주. 검질 짓는 말이 아니고. 게난 나도 그걸 딱 한번 느꼇수다.
@1 으.
#1 우리 그때 상점허멍 헤신디 그 어룬 이젠 돌아갓어. 저 그 우리 지금 그 집은 잇수다게, 그 바로 그 학교, 초등학교 그 주차장 부뜬 집.
@1 예, 예.
#1 그 집이 이젠 놀렐 잘 가주. 저 민속허곡 허는 어룬들이난 놀레 이젠 화륵허게 들어가난 그 여자 어룬이 막 욕헌 거라. 뭣허러 새철날 아칙이 예청이 와시니, 여자 어룬이 보통이 아니라나수다. 저 대정 어른인디.
@1 예.
#1 게난 이젠 그 어룬은 막 겁절에 우리 집일 화르륵허게 온 거 아니?
@1 으.
#1 게난 난 이제 상점 보단에 아이덜토 잇고 헌디 영 나간 양 성님 무시거허레 이디 옵니까? 허난 기자 왓다 가켄 헤시믄. 나 이디 옛날에 그말 곧주게. 기자 완 가켄 헤시민 허주만 아이고 나 넘어가단 똥 ᄆᆞ려완 똥 싸둥 가젠 왓저. 어떵사 부에가 난디 헤연 허난 그 성님 경헹 왕 가분 여에 우리 진짜양 별일을 다 헤수다.
@2 허.
#1 막 궂언. 똥, 딴 것도 아닌 똥싸둥 가켄 헌 말이 뒌 것꽈? 경헹 화장실더레 확 들어간 거 아니?
@1 으.
#1 그 취헨게. 미안에 취헨 돈지 못헹 삼춘디 강 욕 들으난 우리 집더레 화르륵허게 들어오난 언니, 성님은 미시거허레 이레 옵니까 허난에 나 똥싸둰 가젠 왐젠. 게난 나 그 성님안티 막 골아낫엇어. 성님 딴 건라도 헐 티 똥 싸둥 가켄 헌 말이 무신 말이우껜. 게난 이거 봅센 우리 올리 목숨 부뜨난 살암수게 허멍.
@1 으.
#1 아이고.
@1 안 좋앗구나예?
#1 경 헤수다.
@1 게난 똥 싸러 온 것도 아니지만 말.
#1 으.

@1 나와분 거라예?
#1 경헌 거. 미안에 취헨에. 바로 부뜬 집이난 강 욕허난 겁절에 나온 거주게.
@1 으.
#1 경허난 ○○ 어멍 미치게 셍긴 견 허멍 욕을 오죽헌 거라? 우리 회에, 삼춘 욕헤 부난에 우리 집이 경 헹 완 헤수게 허난, 그 성님은 아이고 야 나이 게메, 아이고 미안허다. 아이고 뒈수다게 이제사 씻어베집니까게.
@1 으, 어쨋든 겅 허젠 허난 헌 거주게예.
#1 우리가 운이 나빤.
@1 예, 운이 나쁜 거지, 그때.
#1 게난 새철날은 경헹 놈이 집이 안 간덴 헤도 지금ᄁᆞ지도 아멩헤도 새철이우다게.
@1 바농질도 안 뒌덴 허멍예?
#1 바농질 허면은.
@1 으.
#1 건 물에 물질허는 사람.
@1 으.
#1 바당에 가민 솔치 쏘운덴.
@1 게니까, 경 헌덴 허드라고예.
#1 게고 이딧 사람은 쉐 ᄆᆞ쉬 ᄀᆞ꾸레 안 갑니까?
@1 예.
#1 ᄀᆞ꾸레 갈 때 그날 이제 물 질민 새철날 물 질민 비온덴.
@1 아.
#1 경 헙니다.
@1 새철날 물질허민 비온덴예?
#1 물 질어 오민.
@1 아. 물 질어 오면.
@2 질어 오민
#1 물 질어 오면.
@1 예, 예.
#1 비온덴. 우리 두린 때 쉐덜 저 ᄀᆞ꾸레 뎅길 때 새철날 물 질레 가지 말라. 경허여. 게민 무사 물 질레 안 갑니까? 허곡 빨래터에 강 막게 놀주게. 강 빨래허고 경허민 절대 물허벅 졍 물랑 질지 말렌.
@2 으.
#1 게난 그거는 새철날 물허벅 졍 물 질면은 소 ᄀᆞ꾸는 당번날 비 온다.
@1 으.
#1 경헌 말.
@1 예.
#1 경헙디다.

쉐 ᄀᆞ꾸기

@1 어쨋든 여기는 소 ᄀᆞ꾸는 것도 잇고 옛날부떠 목장지대잖아예?

#1 목장지대라도 막 그 이 오름 저 오름광 저 당번 헤영, 당번 헤영 ᄀᆞ꿉니께게.

@1 예.

#1 우리 가민 우린 쉐 세당 보민 어둑어 불곡.

@1 어, 경 쉐가 하예?

#1 쉐 하민 그 멧 개 몰앙 가민 ᄒᆞᆫ 오십 멧 개썩 허민 그걸 저물앙 세사주기. 두름이 주게.

@1 예.

#1 ᄀᆞ만이 기자 누워근에 그 쉐덜 먹어가민 글로 강 막앙 몰아오곡 허민 뒐걸, 기자 눈 셀 막뎅이로 강 지프멍 그걸.

모두 (웃음)

@2 일러불카부덴.

#1 일러먹어시카부덴. 경헤나수다.

@1 예, 겡 그런 걸 이제 번 선덴 헤수과? 뭐렌 헤? 당번?

#1 당, 저. 쉐 ᄀᆞ꾸는 거.

@1 쉐 ᄀᆞ꾸는 거.

#1 예, 거 당번으로.

@2 당번으로.

방에

@1 게믄 그 쉐 ᄀᆞ꾸고 허니깐 옛날 방에들도 하영 부쪄시켜예?

#1 예. 방에.

@1 방에는 어느 철?

#1 방에, 방에철 허민 이 저, 칠월[칠뤌], 팔월[팔뤌] 나민게 그 부치민 방에 끄렐 뎅겨수게. 우리가 부쪄수과게.

@1 으.

#1 누게가 부찐 줄 몰르게 그 부쪄베사 ᄆᆞ쉬 먹넨 누게 자꾸 고의적으로 부찌는 거 주게. 옛날에.

@1 으. 방에 끄레 뎅견?

#1 게난 방에 끄렐 오죽 뎅겨수과?

@1 으.

#1 막 이디서 막 방송이 아니고 사이랑 불엇어.

@1 으.

#1 이디 이젠 그 사이랑 어디사 가신디. 왕왕왕왕허민 나오민 이 사무실더레 나오민 대왕산 방에 낫젠 방에 끄레 가렌 허민 돈는 사름. 게도 강 다 꺼. 그 대왕산 부뜨민 그 안 뒌덴.

@1 으.
#1 그 소나무덜이영 다 이제 부떠 불민 안 뒌덴 헤곡 더러 이제 부떠 베사 쉐덜 먹을 거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부뜨곡 오름덜은 못 부뜨게 헙디다. 그 솔나무덜.
@1 예.
#1 나무덜 케운덴. 경허민 또 방에선으레는 삽 아졍 강 이제 또 둑[뚝] 싸는 거.
@1 예.
#1 그것도 허곡.
@1 그것도 하고.
#1 그 시절엔 다 넘어수게.
@1 그게 칠월.
#1 칠월, 팔월, 구월, 시월에가 잘 나주. 시월에가.
@1 시월에가. 아.
#1 시월에.
@1 역불로 봄에 방에 부찌진 아녀고?
#1 아, 역불로 부찌는 사름은 엇입니다게.
@1 엇이고예?
#1 게난 그 고의적으로 부찌는 사름도 잇주만은 거 나타나질 아녀니까.
@1 으.
#1 쉐 ᄆᆞ쉬 허젠 허면은 풀 부쪄사 먹을 거 아니꽈?
@1 예, 예.
#1 풀이 나사.
@1 으.
#1 경허난 고의적으로 부찌긴 허는 거라도. 건 기자 방에 낫저, 방에 낫저만 허는 거라. 게난 이젠 방에 안 부찌니까 무신 쉐덜이 들어삼수과? 목장지대 만들어 부난.
@1 그러니까.
#1 다 곶산전 뒈 벳주.
@1 그러니까 맞아예.
#1 경 뒈수다.
@1 게난 여기저기가 다 곶산 뒈불언.
#1 다 곶산전. 엿날에 평평헤난 디가 다 곶산전.
@1 으. 이렇게 헤서 일월엔 이렇게 하고.

이월

영등

@1 이젠 이월, 영등둘. (웃음) 영등에는 어떵헤?
#1 영등둘에도 경헹 갑니께.

@1 으.
#1 영등 열사흘날.
@1 으.
#1 영등둘. 이디는 경헹 허고 헤변덜은 바다로 강 허고.
@1 아 게믄 여기서 영등 열사흘날 어디 가?
#1 우리 본향당에.
@1 아 본향에 또 영등도 헤마씨?
#1 예.
@1 어.
#1 칠월이영 다 본향당에서 헙니다. 사제일.
@1 으.
#1 칠월 동짓둘끄지.
@1 동짓둘끄지. 아, 영등 바당에서 안 하고 여기 영등제를.
#1 예.
@1 본향에서 헤에?
#1 예, 본향에서. 우리 수산. 경허민 또 보름날은 바당으로 강 헙니께. 고성 어룬들은.
@1 고성.
#1 고성, 신양.
@1 예.
#1 성산.
@1 이 동네 사름은 바당에 안 갑니까?
#1 안 갑니다. 기자 지 묻으레 가.
@1 지 묻으레 가.
#1 갈 사름덜.
@1 으.
#1 갈 사름덜.
@1 바당에?
#1 바당에.
@1 으.
#1 바당으로 앞바당으로 가근에 지 묻읍니다.
@1 으. 우리 옛날 영등 하면 영등 저 웨방에서 온 신 아니우까예?
#1 예.
@1 언제 들어온덴 헤? 영등은?
#1 영등 이월 열사흘날.
@1 그땐 나가는 거.
#1 아니, 열읏세날에 나감수게게.
@1 아.

#1 들어왕.
@1 어.
#1 들어오민.
@1 으.
#1 열엿새날 보름날 베 놓민 열읫새날은 나가는 거.
@1 아. 열사흘날 들어왕 보름날 베 놓고.
#1 보름날 굿헤근에 베 놉니께게.
@1 여기서도 베 놓레 가마씨?
#1 옛날에는 이디서 헤근에 오조리로 강 벨 논 건디.
@1 으.
#1 이제는 그걸 안 헹 오조리덜이 이젠 다 교 믿어 부난 아녑니다게.
@1 으.
#1 경허난 이제 그 집도 막 망헤벳어.
@1 으.
#1 ○○이네 집인디 망헤부난 그걸 없애 부난. 우린 기자 굿만 허민 고성 어룬덜 신양리는 본향당이 이수다.
@1 예.
#1 신양리도. 경허난 그디서 베 놔근에 나가민 우리 심방이 그 저 고성 사름덜 그 굿은 강 헙니께.
@1 아.
#1 열사흘날 그 사름덜 옴도 헤여, 이디.
@1 아 여기도 오고.
#1 예. 경허민 지 묻으레 갈 사름덜 허고 이건 또 신양, 고성 허민 저 수협에서가 다 준비, 돈 줘근에 허는 거엔 헙디다.
@1 이렇게 허고예? 지, 지 허는 사람이 하구나.
#1 지.
@1 그리고 영등에 뭐 비올 때 들어오는 영등. 여긴 영등할망 헙니까 영등 하르방 헙니까?
#1 하르방. 육지는 할망.
@1 어, 여기는 하르방.
#1 게난에 비 하영 오민 하르방 저 메누리 둘앙 왓저, 비 하영 왕.
@1 으.
#1 비 하영 아녀 오민 하르방 똘 둘안 왓저, 날 좋앙.
@1 날 좋앙.
#1 하르방도 메누리광 똘을 차별허여.
@2 (웃음)
@1 게니까.

#1 경 굴읍니다게.
@2 으.
#1 비 오면은 메누리 둘안 왓저, 하르방은. 경 허고. 날 막 좋으민 아이고 올힌 하르방 똘 둘안 왓구나.
@1 아.
#1 경 굴읍니다.
@1 여긴 하르방, 할망.
#1 하르방. 육지는 할망, 여기는 하르방.
@1 아니 시에도 할망.
#1 할망?
@1 예게.
#1 건 무사?
@2 (웃음)
@1 건디 성산 쪽에 우도 쪽에가 하르방.
#1 하르방.
@1 영등하르방.
#1 영등하르방이우다게. 아, 육지만이 할망이 아니고 제주시도 할망?
@2 예, 제주시도 할망.
#1 게민 제주도도 할망 하르방이 잇구나게.
@1 예게.
@2 으.
@1 게난 이제 그 비온 거 이렇게 셍각허는구나예? 눈 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1 아니, 아니. 비 오민 경헙니다.
@1 비 오면 메누리.
#1 예.
@1 그다음에 날 좋으면.
#1 똘 둘안 왓저.
@1 똘 둘앙 오곡.
#1 경헙니께.
@1 그다음에 그 이제 삼월 뒈면. 뭐 이월에는 그거 말고 뭐 다른 건 엇어예?
#1 엇어.
@1 아 영등에 빨래 허지 말렌 허는 말 안 헙니까?
#1 아니.
@1 흰, 흰 거 숢지 말라.
#1 아, 저.
@1 구데기 인덴 헤 갖고.
#1 우린 그런 말은 안 들어수다.

@1 아. 하르방이어서 그런가 보다.
@2 (웃음)
#1 아, 저렌 경 헙디까?
@2 예.
@1 이월, 이월 초에.
@2 빨래 허지 말렌.
@1 어부들은 초ᄒᆞ룰날 우린 들어온덴 허거든예?
#1 어.
@1 그때 빨래 허지 말렌 헤여.
#1 아.
@1 흰 빨래 숢지 말렌.
#1 아,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건 엇어예? 게난 삼춘이 몰를 리가 없는데.
#1 아니 우린 그런 전설은 엇수다.
@1 없어.
@2 그니까. 으.
@1 영등 들어온 것도 삼일날 들어온덴. 십삼일날.
@2 십사일날.
#1 열사흘날.
@1 열사흘.
#1 열사흘날 굿 허는 때 들어오면은.
@1 예.
#1 이제 보름날 베 놓민 열잊새날 나간덴 경 허여.
@2 삼일.
@1 예. (웃음) 순간.
#1 삼일.
@1 삼일, 열사흘예? 그렇게 이제 하고.

삼월

한식 멩질

@1 그다음에 이제 삼월 뒈면은 삼춘 한식 멩질 헤여?
#1 아이고 엿날에 헤나수게게.
@1 아.
#1 엿날에.
@1 으, 한식은 언제 헙니까? 한식.
#1 한식이 저 사월 오일 그 한식. 그때 허단에 그 멩질 끄친 디가 언제우꽈?

@1 으. 허는 거 보긴 허여?
#1 예, 우리 친정에서도 한식 헷수다게, 죽장.
@1 아.
#1 게난 쳉명.
@1 예, 쳉명.
#1 쳉명 아시날 그 한식, 한식 허멍 한식 멩질 똑ᄀᆞ치 헤수게게.
@1 으, 아, 출리는 것도 똑ᄀᆞ따예?
#1 예, 똑ᄀᆞ치. 경헤근에 허면 엇인 집인 상웨떡 진짜 춤 그 밀 골아근에 허곡. 엇이민 전기떡.
@1 예.
#1 그 빙떡게.
@1 예.
#1 전기떡엔 허난 우리 메누리 전기가 미시거? 빙떡 헤근에 그런 거 허곡게 헷주게. 친떡은 정월 멩질에만 허곡 헷수다게. 경헌디.
@1 아, 친떡은 보통 정월 멩질에.
#1 정월멩질에.
@1 팔월에도 안 허고?
#1 아이고, 못 헤여.
@1 으 웨 쏠이.
#1 귀헙니께. 산뒤덜 이제 갈고 이젠 공통적으로게 엿날엔 산디 막 갈안 먹어수게, 우린.
@1 예, 예.
#1 우리 헐 때도 막 갈안 나 우리 아이덜 저 제주시 진짜 춤 다 강 내보냉 살 땐 양석. 우리 쌀로 다 당헤수다.
@1 으.
#1 경허단 이젠 그 뭐 헷주.
@2 안 헤.
#1 찹쌀 갈아근에.
@1 예. 정부미.
#1 헹 서꺼근에 멕이고.
@1 으. 맞아.
#1 나 이름 난 사람이우다.
(모두 웃음)
@1 겡 한식멩질 이제 하고.

청명

@1 그 청명에 산담 고치거나 이런.

#1 예. 그런 거 다 고치고.
@1 벌초도. 으.
#1 이젠양? 벌초도 번거롭게 허는 집인 헤도.
@1 으.
#1 아녀는 딘 아녀.
@1 다 팔월에.
#1 팔월[팔뤌]에. 두 번차. 산 너미 단장허민 안 좋덴.
@1 으.
#1 허는 디는 안 좋덴 헙니다게. 산 단장허지 말렌 헤여.
@1 아 산 단정허지 말렌 헙니까?
#1 예. 산 단장허지 아녑니다. 웨냐면 우리도 께꾸라진 종손 이신 때는 그 오월달에.
@1 으.
#1 쳉명에 그 오월 멩질에. 쳉멩에 안 헤근에 경헹 허단 막 젊은 사름덜이 미시거 헨에 딱 반대헨에 안 헴수다.

오월

오월 멩질

@1 삼춘네 오월 멩질도 헨?
#1 오월 멩질 우리가 제일 끗데 설러수다.
@1 음.
@2 그게 언제쯤?
#1 수산 안네서.
@1 그게 언제까지? 삼춘 멧 설에 헨?
#1 음. 우리 지금 ○○이가 게난에 한, 한 십 년?
@1 아.
#1 설른 때. 우리가 제일 끗데 헷어.
@1 최근까지 헷네?
#1 옐 젤 막 미운 체 들으멍들.
@2 어.
#1 우리 종손이 이상헌 사람이라낫주게.
@1 예.
#1 막 놈 멩질 안 허는데 우린 멩질 헤누렌 막 과세 허멍 뎅기곡이. 경허멍 허난 아이고 아주버님 경 허지 맙서게, 놈은 멩질 안 헴수게게 허면.
@1 으.
#1 아 경헤도 조상 나시 헌 거 잘못 아니라, 아니라 허멍 경 허멍 헤도 워낙 헤가난 진짜 설럿주, 경헨 멧 해 안 뒈수다.

@1 으.
#1 십 년? 십 년 뻑듯, 경헤수다.
@1 아 한식 오래 정말 저기 늦게까지 헷네.
#1 한식이 아니고 오월게.
@2 단오 멩질.
@1 단오 멩질예.
#1 단오, 단오.

쳉명

@1 삼춘 그. 그 아까 청명에 산 단장허지 말렌 헷지만.
#1 으.
@1 그때 막 가시낭도.
#1 케곡.
@1 케곡 허잖아예?
#1 막.
@1 집도 고치고.
#1 으, 집도 고치곡, 집도 짓곡.
@1 으.
#1 쳉명엔 그런 거 못 거찐 거 거칩니께게.
@1 으.
#1 제일 공간이라고.
@1 예.
#1 구신이 하늘로 다 올라가벤신지.
@1 으.
#1 그치룩 쳉명에 헤여.
@1 쳉명에 하고예.

사월

사월 초파일

@1 그다음에 이제 사월 초파일.
#1 초파일은 절간에 뭐 가서 등 ᄃᆞ는 거난.
@1 으.
#1 그거는 느나 엇이 허는 거니깐.
@1 삼춘네도 절에 뎅견?
#1 예. 우리 제일 큰 절, 금붕사에 다닙니다.
@1 금붕사믄.

#1 하도리.
@1 예, 하도, 하돈데.
@2 으.
#1 하도리.
@1 북군에 가신게예?
#1 예. 수산도 헴수다마는 우린 그디.
@1 금붕사 다녬구나게. 게믄 이제 사월 초파일날 아이들 머리 까까주곡 영 헤봔?
#1 우리? 거 가끄면 삼 년 까끌 거난.
@1 으.
#1 아이덜신더레 우리 큰아덜인더레 야 초파일날 머리 까끄민이 삼 년 까끌 건디 어떵 헐래? 허난 나 머리 안 까끄켄. 게난 우린 원 안 까까봐수다.
@1 아. 겅헤도 그때 까까주면 머리도 하영 나곡 좋덴.
#1 아이고 우리 집인 머리 걸체(?) 못허는 집이난.
@1 어.
@2 (웃음)
@1 아, 삼춘 머리가.
#1 아이 나 머리 보담도 아 진짜 우리 지금 딸덜이나, 손지덜이나, 아덜덜이 머리가 그렇게.
@1 막 좋구나.
@2 삼춘도.
#1 나도 미장원에 가민 나가 젤 머리수 하덴만 허주게.
@1 머리수 지금 완전 많지.
@2 어.
#1 경헌디. 지금 우리 손지도 야, 는 작은고모 닮은 머리 영 허민.
@1 으.
#1 막 머리덜이 너무 많아.
@1 으.
@2 어.
@1 거 복이우다게.
#1 복이라?
@1 예. 아이고 요즘 막 젊은 사름들도 머리 많이 빠져갖고예.
#1 대머리 헤근에이? 가발 씨멍 장가가지 못헨게.
@2 으, 맞아.
#1 우리 아들 친구도 가발 대머리 때문에 장게 못 간 거 재우 갓어.
@1 요즘 가발 나오난예?
#1 가발 나오난. 게난 것도 다행이주게.
@1 예.

@2 으.

오월

단오 멩질

@1 겡 오월 단오 멩질 굴아 줍서. 무사 단오 멩질은 허는 거라?
#1 게난 단오, 엿날에 널뛰고 미시거덜 허멍 헷주만은 이 촌에 이 계절 멩질, 멩질도 다 계절 멩질 아니우꽈게?
@1 예.
@2 으.
#1 이제 그 추석도 이제 그 주곡 헤근에 쳇곡식 들어완 허고 헌디. 오월달에는 무신 의미로 헌 멩질이우꽈?
@1 몰라.
#1 무신 코라? 건?
@1 모르쿠다.
#1 계절 멩질도 아니고양?
@1 예.
#1 게난 단오. 게난 연날리곡 기자 널뛰기 허는 걸로 잡안 헤신가?
@1 옛날 머, 머리 감는.
#1 그, 저.
@1 창포물.
#1 창포물 그거 헨에 오월 단오 헤신가?
@1 예.
#1 단오에 전설은 몰르커라.
@1 예. 제주도에 거 단오 멩질을.
#1 예.
@1 그자 멩질.
#1 게난 그 조상 위헹은에 막 헐 그 일은 아닌 것 같은디, 막 우리 집인 경 늦게 경 허멍 경 과세헙디다.
@1 예.
#1 게난 막 조케덜은 막 미운 체들 허멍.
@1 으.
#1 놈 다 설른디 설르지 안헴젠.
@2 (웃음)

유월

@1 유월에 허면은 뭐 특별허게 헌 거 이수과?
#1 유월에는 뭐 이, 저 유월절에 콩 갈곡게.
@2 으.
#1 아이고 우린 농사 많이 지난. 낼이 유월절 아니꽈?
@1 아 내일 유월절 뒐 것꽈?
#1 예, 절기로.
@1 으.
#1 유월절에 콩 갈아. 나 게난 난 오늘 콩 갈앗주. 장 헐 거.
@1 어.
#1 꼭 난 장헐 거 가는 거 훈 뒈 갈아도 아침에 볼 치레도 안 가곡 콩 갈아둥 왓수다. 내일 유월절, 절기 이제.
@1 게난 유월 전 삼 후 삼 헤갖고 콩 간덴 허잖아예?
#1 예.
@1 예.
#1 경헙니다. 초복 새에 팟은 초복에.
@1 으.
#1 이제 그때 허민 풋방울이 훍주게.
@1 아.
#1 예, 난 경헤도 실프난 오늘.
@1 오늘.
#1 삐연 데껴볏수다.
@2 (웃음)
@1 겡 오늘 팟도 갈고.
#1 팟도. 으, 아침에.
@1 으, 겡 유월절 헤 갖고 이제 가면 어, 유월절에 허는 일들이 뭐 뭐라?
#1 이제 그것벳긴.
@1 옛날 조 불리거나 이런 거.
#1 조밧 헐 때는 유월절 뒈민 다 불립니께.
@1 아, 다 끗나, 어.
#1 딱 끗나. 초복에.
@1 으.
#1 물 초복물 유월절물 봅니께. 오널 이제 절기로.
@1 예.
#1 유월절에 옛날에는 절기로 오늘 비 오주.
@1 으.

#1 비 오민 유월절물 봐근에 불리켜 헌 밧은 잘 그 좋은 밧.
@1 으.
#1 좋은 밧은 그.
@1 으.
#1 물 와나근에 유월절 넘엉 초복 새에.
@1 으.
#1 유월절에 못 불린 거.
@1 으.
#1 ᄒᆞ썰 궂이렁헌 밧덜은 유월절 안네 다 불려사 헙니께.
@1 아.
#1 경허민 ᄒᆞ썰 좋은 밧은 이 초복물 봉 허카 헹 허곡 초복. 열흘 후에 초복 아니꽈?
@1 예.
#1 그때 새에 그.
@1 장마 끗낭은에.
#1 좋은 밧덜은 허곡 경헙니다.
@1 장마 끗낭예? 그거 마걷이엔 헤?
#1 예, 마걷이.
@1 마걷이예?
#1 경헹 그때 그 오물락헌 밧덜은 그때.
@1 으.
#1 다른 밧들 물 앚는 밧은 그때 헙디다.
@1 예.
#1 우리 기자 허민.
@1 웨냐면 마 전에 헤불면 물 ᄀᆞᆯ라 불믄 다 죽어.
#1 으, 다 죽어 분덴.
@1 예.
#1 경허난에 유월절물 보곡 초복물 보곡 경헙디다.
@1 으.
#1 똑 어룬덜 ᄀᆞᆯ을 때 물을 보아사.
@1 으.
#1 초복물 봐산다. 유월절물 봐산다 헤도 이거 유월절 뒈도 비도 안 오는디 미신.
@1 게난 유월절물, 그 물은 비라는 거라예?
#1 비, 비.
@1 으.
#1 그 물. 얼마나 ᄀᆞᆯ르느냐.
@1 음.
#1 그거.

@1 그걸로 헤 갖고 이제 허는 거고.

속담

@1 유월에는 어디 앉은 방석도.
#1 또 고쪄앚지 말렌.
@1 예.
#1 어디 웨방 가지 말렌. 예. 엿날에예, 유월에 이사헌 사름은예. 절대 못 살앗젠 헙디다.
@1 음.
#1 이사는 절대 아녀곡. 걸석년.
@1 으.
#1 이 걸석년이엔 헌 해가 잇넨 헙디다.
@1 으.
#1 이 우리 하르부지가 유식헌 하르부지가 잇어나수다게.
@1 으.
#1 게난 우리가 같이 모션 우리 두린 때 살 때, 우리 하르부지가 느네 후제 크멍 살멍.
@1 으.
#1 이 멧 해 중 걸석년이엔 헌 게 잇넨. 이 책력에 보면.
@1 으.
#1 그해에는 절대 아이고 어른이고 이사는 허지 말렌.
@1 걸석년?
#1 으, 걸석년이엔 헌 해가 잇넨 헙디다.
@1 예, 예, 예.
#1 찾아 봅서.
@1 예, 유월에예?
@2 으.
#1 으. 유월이 아니고 그 헤.
@1 아, 해에 걸석년이 잇는 해가.
#1 멧 해 안네.
@1 멧 헤 안네 어.
#1 게난 수산도 어느 집 그 헤에 이사헌 건디 아방 대는 밥을 흔 직 못 먹언 산디 아덜네 대덜은 그렇게 살암스럽게.
@1 으.
#1 잘 뒈 거는 본덴, 게곡 유월달에는 앚은 방석도.
@1 고쳐 앚지 말.
#1 고찌 앚지 말라 헌 거는 어디 웨방 갈 일도 가지 말곡. 부득헌 일 엇인 때는 어디

움직거리지 말라.
@1 으.
#1 경헙니다. 지금도, 지금도.
@1 게난 오늘부터 유월절.
#1 으.
@1 게난 유월절 들어근에 안 가는 거라예?
#1 게난 나도 요번에 이 아파트엣 아이[아파튿따이] 이디 사무 보는 아이 이사헌 말 허관데 야, 빨리 이사허라, 낼모리 이사, 낼모리 무시거. 야, 그때 이사 아년다.
@1 으.
#1 막 웨난에 헨에 요자기 이사헷어. 것도 굴아줘사주게. 육지 아이덜게, 아무 때나 막 이사짐센터에서 완에 요작이 이사헷어.
@1 내일 소서네예.
#1 낼 유월절.
@1 유월절. 예.
#1 유월절이우다게.
@1 예, 이제 소서부떠 이제 한다 이런 식으로.

유월 스무날

@1 그다음에 유월 스무날 삼춘.
#1 유월 스무날은 둑 잡아먹는 날.
@1 예. 둑 잡아먹어난?
#1 엿날, 엿날에 아이구 우린 계속 헤수게. 옛날에 사름덜이게 이, 저 못 먹음으로.
@1 으.
#1 뭐헌 거 아니꽈?
@1 예.
#1 나 우리 셍각엔 거 닮아. 못 먹엉 아이덜이 성장도 못허곡. 그 뭐허민 유월 스무날은게 막 어려와도 둑 잡아먹으민 이제 그 보약으로. 경헨에 헌 거 닮은디예? 것도 한 가지 방세가 잇수다.
@1 으. 무시거우꽈?
#1 막 아픈 사람.
@1 으.
#1 (웃음)
@2 무사? 무사? (웃음)
#1 나가 그 경험은 헷주, 그거.
@2 어.
#1 어딧 사름이 시, 시겨 주니까 나도 헌 거.
@2 으.

#1 옛날에 그 유월스무날은 둑 잡아 먹어근에, 둑 잡아근에 먹어근에 허민 그 보약으로 허는 건디. 헤근에 막 아이덜토 잡아주곡 헌디.
@1 으.
#1 나 그 어린 때는 그 옛날 그 파든병, 파든병 허지 아녑니까? 막. 배 아파근에 둥글언.
@1 무슨 벵?
#1 파든벵.
@1 파든벵이렌 헙니까?
#1 파든벵이렌 허주게. 막.
@1 음.
#1 학교 가근에 막 그 배 아팡 막 하다근에 선셍 다 집이 업어오곡 허멍예 그땐 구신이 곡헐 일이라.
@1 으.
#1 경헌 건디 그 소섬, 저.
@1 우도.
#1 우도 사름이 새 허레 여기 많이 옵니께.
@1 예.
#1 그 집 일 거, 새 허레 허민 우리 하르버지가 그 미시거옌 소섬 친구가 이시난에 그 어룬덜이 우리 집이 왕 살아.
@1 으.
#1 살안에 나 아픈 걸 이젠 보멍. 하이고 이 벵을 고칠 걸 내벳덴.
@1 으.
#1 아니 저 간단허게 고칠 벵을 이거 이추룩 헤근에 어떵 삶이닌 허멍. 학굔 가누렌 가도 학교서 공부 못헤 봉 그자 선셍 집이 업어 오곡. 아이들 버쳐근에게 아이덜 우리 또랜게 어떵 그 선셍덜이 다 우리 집이 업엉 오주.
@1 으.
#1 사는 건디 그 사름이 아이고, 낼 우리 유월 스무날 저 둑 잡아먹는 날 아니녠 허난. 기엔 허난 우리 어무니신디레 아이구 야이라근에 딱 저 방세 헤근에 둑을 잡아주렌.
@1 어.
#1 으, 겨난에 유월 스무날 어떵 방셀 헹 둑을 잡아주느녠. 우린 유월 스무날은 아이덜 죽장 둑은 잡아주는 건디 허난에.
@1 으.
#1 여자는 그 장둑.
@1 예.
#1 건디 진짜 쩨끌락헌 하영 못 먹으난게.
@1 으, 으.

#1 쩨끌락헌 장비에기 헤근에 이제 뚜루 냄비에 든 솟 뚜루 헤근에 숣아근에 헤 불끈 뜨거들랑. 우리 친정집 바로 앞이 큰 물통 잇어나수다게.
@1 으.
#1 어룬덜 저 검질멩 오당 그디서 모욕도 허곡.
@1 예.
#1 빨래도 허곡 허는 통이 잇어낫어. 경허난 저 뒷동산 통도 잇곡 허난에 막 좋켄. 그거 딱 뚜루 아시날 저냑 이제 그 세벡이랑 숣아근에 헤 딱 준비헷당, 헤 딱 뜨거들라근에 그걸 이제 먹으렌.
@1 으.
#1 먹어근에 물통에 가근에 이제 냄비고 먹단 남은 거곡 다 물통에 간에 씨져근에 허민 알아볼 도리가 잇녠.
@1 으.
#1 나, 무시것과? 몰쿠지낭이엔 헌 거 알아지쿠과?
@1 몰쿠지낭.
#1 몰쿠지낭이엔 헌 그 새껍풀이렌 헌 거 물 잘도 쓰주게.
@1 으.
#1 나 그거 다 먹곡. 그런 거 저런 거 춤 제주도에 약은 다 헤봣어.
@1 으.
#1 근디 미신 헐 **도 아녀고 기냥 그치룩 허멍 멘든 거, 진짜양. 그거 헹 먹은 건디 그루후제론 내가 ᄀᆞ자 아파보지 아녓어.
@1 어.
#1 나추룩 건강헌 사름은 엇어. 나 벵원에 흔번 안 다녀.
@2 어.
#1 나 게난 그거 멧 사름 시겨수다.
@1 으.
#1 겨난 우리 그 아이덜토 미시거 허난 한 우리 샛똘 ᄒᆞ썰 저 학교 다니멍 뭐헨 허난 이상헤 붸어, 아이가. 겡 ○○야 어디 아프냐? 허난. 아니, 아프지 아녀덴. 어떵헹 느가 막 성도 내리고 허다. 어디 간 허난 저 부뜨지도 아녓젠. 아 경헌디 이상허다, 이상허다 허멍 사름덜토 우리 집이게 상점이곡 허면 놀레 와근에 경헨 허난 흔번 아방신디레 흔 번 무시거 헌 거 나 헤봐사켜. 헷주.
@1 으, 옛날추룩.
#1 으 옛날 나식으로.
@1 으.
#1 게난 또 우리 그 상점 앞이 지금 그 학교 그 앞이 큰 물통이라나수다게. 옛날에.
@1 예.
#1 게난 이젠 그 닥 헨에 이젠 쪼끌락헌 거 헤도 이제 흔 갑도 못 먹주게.
@1 으.

#1 그 어린 때곡 허난, 나도 경헨 그때 물통에 간 미시거 허난 경 허난에 이거 헤근에 먹으렌 허난에 우리 ○○, 어무니 가의 지금도 ᄉᆞ나이ᄀᆞ치 미시거 허난, 어무닌 미신 어디 간 이상헌 말 들어다근에 하이튼 먹으렌 허건 먹어나봐 허멍 이젠 허난. 먹단 못 먹켄 헌 거 아니?
@1 으.
#1 ᄒᆞ썰 먹언에 못 먹켄 허멍 허난. 아침 세벡이 일련에 딱.
@1 줌자는디.
#1 동쪽더레 돌아 앚젼에 이제 허단 안 뒈난 그 성*물에 간 씻언에 그 냄비 어퍼두곡 헨 기자 왓주.
@1 으.
#1 가이 간호사 지금 성바오로. (웃음)
@1 어.
#1 거시기.
@1 육지에?
#1 서울.
@2 으.
@1 게니깐.
#1 성바오로 저 지금 거시기이우다게.
@2 으.
@1 간호사구나.
#1 간호사 저 무시거.
@1 으.
#1 경헌디 한번 아프지도 아녀.
@1 어.
#1 그거는 딱 방세. 그거 한 가지는. 유월 스무날 ᄃᆞᆨ 잡아먹는 건 이건.
@1 몸보신으로.
#1 영양보충으로 이제 옛날 어룬들은 다 헷주게.
@1 예.
#1 지금도 나도 어제 아방신디 우리 유월 스무날 뒈믄 ᄃᆞᆨ 먹어사큰게 허멍 허난. 삼복에 다 먹어얄 거주게.
@1 으.
#1 초복에 먹곡 유월 스무날 먹곡.
@1 으.
#1 저 낼 저 칠일날 먹곡 헌디. 나 오늘 누구 초대헹 간 먹엇주마는.
@1 으.
#1 경헨 허멍 허난에. 아방은 유월 스무날은 또 먹으렌 헌 거라 허난에. 에, 먹어야주, 난 그냥.

@1 으.
#1 경헌디 우리 그 ○○허고 나는 구걸로예.
@1 예.
#1 성공헤수다.
@2 으.
#1 겐디 가인 막 웃으메.
@1 으.
#1 어무니 저 지금 저 누게 우리 ○이 미시거 헌디, 그건 어떵허연 허코? 느 허지 못헌다, 당췌, 그런 거. (모두 웃음) 제주도데레나 보내라. 나 경 헤 부난. (웃음)
@1 게난 헤난 거 잇으니까예?
#1 잇으니까 생각난.
@2 으.
#1 겡 아이가 어떵은 아년 거 닮은디, 빌빌허멍 미시거 허난에, 허난에. 그거 헤근에 삼계탕 헹 헹 먹을 거난에 헤보카? 느 그런 거 못헌다, 그런 것도 정성 들영 헤사주기자 어떵 헤근에 헤지느니 허난에. 키킥키킥 웃으멍.
@2 (웃음)
@1 아이고야.
@2 맞춰근에 할머니한테 보내사큰게.
#1 그거는예 확실히 헐 만헌 거우다.
@2 아.
#1 유월 스무날 헤 딱 뜨면은.
@1 으.
#1 먹든 안 먹든 그레 돌아 앚앙.
@1 헤.
#1 으.
@1 헤 쪽으로 돌아 앚앙.
#1 경헤근에 거 먹당 남으면은 물에.
@1 으.
#1 그 집안네[집빤네] 들어강 씻지 말앙.
@1 밖에서.
#1 밖에서 물 엇이믄 벳기 물이라도 떵 강 올레 벳깃디 강.
@1 먹는 건 집에서 먹어도?
#1 으, 먹어도. 게 남은 것도 그레 기자.
@1 같이.
#1 집 벳깃디 강 버려도.
@1 예.
#1 경헤사큽디다.

@1 예.
#1 게난 그 소섬 그 어른도 워낙 뭐헌 어른이주게.
@1 음.
#1 게난 그 어른이 아이고 그 간단허게 고칠걸 경헴덴 허멍, 나 자꾸 그 말 곧주.
@1 예.
#1 게난 파든벵이엔 헌 것이 나 그때 헨 지금까지 원 춤 몸 아파근에 병원에 입원허나 헤보지 아녓수다.
@1 으.
#1 나 물리치료도.
@1 게난 배 아프고 헌 거를 파든병예?
#1 예. 엿날에 파든병 저 개우린가 무신.
@1 으.
#1 송벡중이여 무신 게우리영 허멍덜 오죽헤나수가?
@1 배에 들어갖고.
#1 들어 갓젠 허멍. 게도 게우리도 ᄒᆞ나 엇어나곡.
@1 예.
#1 경헤나수다.
@1 겡 그걸 파 들어간다고 헤서 파든병, 파든병 헷구나.
#1 으. 유월에는 그것벳긴 무시거, 밧 불리는 거.
@1 우리 제주 사름덜도 삼복더위 헤신가마씨?
#1 아이고, 삼복더위. 경허난 삼복더위가 대단헷주게. 쵀고 아니우꽈? 엿날에게.
@1 예.
#1 우린 다 그거 껴껏수게게.
@1 삼복에는 또 뭐헹 먹언?
#1 미시거 헹 먹어? 그거 ᄒᆞ썰 한걸허난 둑 잡안 먹엇주. 경 아년 땐 죽으나사나게 검질메곡양. 유월에 지금 밧 불려 놓민 조 ᄒᆞᆫ 이십일만 뒈민 ᄒᆞ민 그거 소끔 시작허민 계속 검질메수게. 사십일.
@1 사십일 동안. 게난 삼춘은 또 노레 부르멍.
#1 예.
@1 으.
#1 검질메는소리 허멍. 겡 접으로 돌아가멍 수눌엉 메곡.
@1 수눌엉 메곡.
#1 예. 경헹 접검질 멩 돈 버슬곡.
@1 아.
#1 경헙니다.
@1 접검질 멩 돈 버실곡.
#1 예.

@1 음.
#1 접 허민 돈덜 내놓젠 허민.
@1 예.
#1 그 어디 일 하영 헤근에 사람 검질 일손 모지레민 접검질 빌주게.
@1 예.
#1 경허민 우리 삼춘네 접검질 메컨 우리 빌엉 멥서양 허민.
@1 으.
#1 느네 멧 사름이니? 허민 우리 ᄋᆞ섯 사름 허민. 게민 ᄋᆞ슷 어느 때 메도렌.
@1 으.
#1 경허민 강 메민 그 일당. 그때 이벡 원, 삼백 원 헐 때 아니꽈게. 겨민 그거 받아 근에 이자 놓앙.
@1 예.
#1 옛날에 그걸로 이자 놓앙.
@1 예, 삼분 벨리, 사분 벨리 허멍.
#1 경 허멍 헨 살아수다.
@1 게난 그 접은, 삼춘네 접은 여섯 명 헐 때 무슨 접이라난?
#1 경 헌 건디 그 접 여섯 명을 치와둰에.
@1 으.
#1 우리가 이제 진짜 춤 저 결혼허기 전에. 전에 이제 막 교육게 그때도 교육을 많이 헙디다. 게민 우리 수산선 이젠 그 저 지금이민 시청이주게.
@1 으.
#1 저 서귀포에, 군청, 군청 허멍 이제 여자 이제 그 새마을 그.
@1 사에이치처럼?
#1 사에이친 우리가 계속 허난 허곡 그 사에이치 말곡 그 우이 그 여성.
@1 새마을부녀훼처럼?
#1 처럼.
@1 으.
#1 그, 저 생활개선.
@1 생활개선회.
#1 생활개선 이제 여자 이제 멧 명을 이제 그 허라 헨에 이제 부락에 공문을 오난. 우리 이제 김 이장님이 돌아가수다, 요자기. 그 김○○ 씨라고 헌디 이제 우리신디 곧는 말이. 야, ○○아, 저 느네 멧 명 헤근에이 생활개선훼덜 허라 경허난.
@1 으.
#1 아이구 생활, 그때는 또 그런 거 허난 겁나.
@1 으.
#1 우리가 어떵 헤근에 생활개선 헹 헙니까? 허난에. 아이구 헤근에 서류만 내근에 저레 드리민 거기서 나와근에 교육도 허곡 미시거 허곡 헤근에 생활크럽이엔 헤근에

생활개선크럽이주.
@1 으.
#1 그 이름이. 경허렌 허난 이젠 시집온 사름이여 미시거여 이젠 지금 우리보담 흔 네 설 우잇 사름이라.
@1 으.
#1 난 우리는 나 또래는 나허곡 누게벳긴 엇곡. 그 우이 지금 우리 아지망네 또래난 우리보담 세 설, 네 설 우이. 그 어른덜 헨 열두 사름이 헤수다게.
@1 으.
#1 생활개선 헤근에.
@1 예.
#1 경헹 헤근에 공 선셍이엔 헌 선셍님은 돌아가베실 거라.
@1 으.
#1 그 선셍님 이제 와근에 막 교육도 허곡. 이 개선, 생활개선 경헤근에 허민 이젠 그추룩허단 그 어른덜은 빼둬근에 우리 멧 사름만 또 검질메근에 돈 버슬어근에 또 허곡.
@1 경헤근에 접검질.
#1 접검질.
@1 으.
#1 경헤근에 허곡. 또 잔치 먹으레 가는 돈도 그걸로 헹 허곡. 경허멍 엿날에 헤수다. 경허멍 허단 씨집 스물여섯에 나가 젤 늦게 시집갓주. 우리 또래에서. 경허멍.
@1 게난 생활개선회 헌 사름들끼리 이제.
#1 지금도예. 지금도.
@1 접을 헷구나.
#1 예, 접을 생활개선회에서가 이제 그것이 크럽이 뒈벳주.
@2 으.
#1 겨난에 생개, 생활개선크럽이엔 곧지 못허민 수산 어른덜은 수산 일류크럽이주. 생계.
@1 으.
#1 생개. 생개크럽덜 생개크럽덜 허주, 생계크럽.
@2 (웃음)
#1 우리 생개크럽이렌 헤서 부부동반 헨에 중국 여섯 번 가오고예.
@2 와.
#1 또 대만.
@2 흠.
#1 중국, 그, 저 장각.
@1, 2 음.
#1 일본.

@1 아이고.
#1 우리 여행은 이, 저 뭐 국내는 일년에 흔번. 콩, 유채, 콩, 유채 갑니께 여기.
@2 예.
#1 콩, 유채 갈앙 콩, 유채 갈아근에 이제 그거 돈 허곡. 콩도 이제 갈고. 수산서 유채도 일등, 콩도 일등헌 사름 고○○입니다. (모두 웃음) 일 하영 헌 사름이.
@1 일 하영 헌 사름.
#1 일 하영 헌 사름이.
@1 일부제예?
@2 아.
#1 경헤도 진짜 우리 그 농협에서 그 유채 비는 기계.
@2 으.
@1 예.
#1 그거 일차로 우리가 산 사람이우다.
@1, 2 아.
#1 나 그때 어떵 헤영 그 기곌 사시녠 허민 그 엿날에 한나라당 교육 잇지 아녀수과?
@1 예, 예.
#1 그때 이제 한○○ 그 돌아가신.
@1 한○○ 어른 알아지쿠다.
#1 돌아가신 이제 도의원님이 그 ○자, 김○○가 우리 사둔이주. 이디 우리 종손 메누리 어멍이난. 새마을교육 이제 그 한나라당 교육 받으레 갈 사람이 나벳긴 엇덴 이제 우리 집이 완 유채 비언에, 탁 유채 이제 빌 시기 아니우꽈게.
@1 예.
#1 경헌디 일주일 그 교육을 받을 사름은 사둔님벳긴 엇이난 어떵 헙니껜. 막 ᄉᆞ정허는 거 아니? 하이구 난양 이제 유채 만 평 이상 갈아논 거난 이 유채 빌 일 때문에 나 못 가쿠덴. 솔직이 ᄀᆞᆯ아살 거 아니꽈. 이제 우리 집 아방은 ᄀᆞ만이 앚안 듣단에 진짜 아방이 좋난 뎅겻주. 경 아녀민 뎅기지 못허주게.
@2 (웃음)
#1 경헌디 ᄀᆞ만이 앚앙 듣단에 농협에 돌아간 거라.
@1 으.
#1 무신고 이젠 간. 양 유채 비레 갈 건디 어디 가옵디가? 허난, 농협에 미시거 알아보레 가오고렌. 뭐 알아보레 가옵디가? 허난에. 그 기계 비는 거 이번 췌초로 이제 한번 알아보켄.
@1, 2 으.
#1 농협에서 그 알아보켄 헨에 이젠 알아봔양, 그 기계가 얼마 엇이 이제 메칠 시민 시범적으로 나왐덴.
@2 어.

#1 겐 나완양 그걸.
@1 사완?
@2 빌언?
#1 아, 사왓지.
@2 (웃음)
#1 유챗 돈 헹 물 걸로.
@2 어.
#1 물 걸로 헨에게 산 완 탁 들여 놓난 이젠 그걸 이젠 비민 기계 ᄒᆞᆫ 사름 비는디 서이 갈릅니다.
@2 아.
#1 영, 영영 갈르는 거.
@1 예, 예.
#1 또막또막 떼놓젠 헌 거. 놈들은 세 개 갈른덴 헙니다. 경헤도 난 놉도 안 빌어. 아방 기자 착착착 비엉 내불민 기자 아방 비엉 ᄒᆞ썰 쉬는 동안 영 허민 그거 다 갈라.
@2 어.
#1 경허멍 이제 헤근에 허난 그거 ᄋᆞ드렛 동안 ᄆᆞᆯ를 거 아니우꽈? 그거 그 작산 걸 사흘에 확 이젠 비엉 내친 거라. 게난 아방이 가렌 허난. 헨에 좋다고 이제 갓주. 교육 받안 딱 제주 공항에 완양 방송 보난에 정주영 훼장 그 죽은 거 딱 방송에 나옵디다.
@2 아.
#1 경헨 그때 이제 헨에 그 유채 헨에 수산서 일등. 경허난 조합장님 유채 공판 여기서 헤수게.
@1 으.
#1 훼장님은 어떵 허난 이 돌아뎅기고 유채 일등 헙디겐.
@2 으.
#1 경허멍 헨 지금ᄁᆞ지 살아와수다, 우린.
@2 아.
#1 아이고.
@1 땅은 게믄 멧 펭이나.
@2 (웃음)
#1 다 놈이 땅.
@1 놈이 땅이든 뭐든.
#1 만 평 이상 헷지.
@1 그니까 만 평 이상 농사지을려면. 겡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칠월까지만 헤보까?
@2 예.
@1 으.

칠월

@1 칠월에는 아까 이제 또 당에 가야 뒈고.
#1 으. 백중.
@1 백중.
@2 으.
#1 밤이 백중허레 가고.
@1 칠석은?
#1 칠석도 갑니께. 건 절간에.
@1 아, 절간에?
#1 으, 절간에.
@1 예, 다른 칠석에는 그런 거 뭐 안 헤마씨?
#1 칠석엔 아녀고. 우리 칠월[칠뤌] 마풀림. 칠석에 강 오민 이디 본향당.
@1 본향당.
#1 ᄋᆞ드레에.
@2 으.
@1 ᄋᆞ드레에.
#1 그날 여드레.
@1 칠월 ᄋᆞ드레예? 마풀림.
#1 마풀림에 그때 가곡. 백중.

백중제

@1 백중제 허곡.
#1 백중.
@1 백중은 어떤 식으로 헤마씨?
#1 백중은 전이는 우리 헐 때는 그 쉐 엇인 사름 밧디 강.
@1 으.
#1 그 밤이 제사 지내나수게.
@1 일반 밧디 강?
#1 예.
@1 아.
#1 경헤근에 다.
@1 아. 쉐 엇어도 백중제를 헤수과?
#1 아, 쉐 엇인 사름은 아니고, 이신 사름은 딱 떡 헹 강은에 그 올려근에게.
@1 예.
#1 겡 백중제 허단 이거 백중제 아년 때가 ᄒᆞᆫ, ᄒᆞᆫ 십, 십년 ᄒᆞ썰 넘어실 거라.
@1 이 동네에선 게믄 쉐 ᄀᆞ꾸는 사름 엇어마씨?

#1 엇수다.
@1 아.
#1 밧 다 농장덜 헤부난. 다 이녁 헹 농장들 헤근에 헤부난.
@1 으.
#1 ᄀᆞ꾸는 거 엇입니께.
@1 ᄀᆞ꾸는 거 엇고예.
#1 ᄀᆞ꾸는 거 엇이난 백중을 설릅디다.
@1 설러 불고. 게도 그 목장 허는 사름들은.
#1 그 사름덜은 헴실 거우다.
@1 헴실 거지예?
#1 예.
@1 게난 백중제 헐 때는 뭐, 뭐 어떤 식으로 가?
#1 떡 헹 가.
@1 떡, 무슨 떡?
#1 조오메기, 조오메기.
@1 아, 상웨떡 안 하고 조오메기 헴구나, 으.
#1 아 엿날엔 그치룩헙디다게. 좁썰ᄀᆞ루 ᄀᆞᆯ아당 조오메기 헤근에 ᄑᆞᆺ 헹 ᄒᆞ나썩 미쳐 근에 허곡 경 아녀민 기자 상웨떡.
@1 상웨떡하고.
#1 헹 가곡. 경헌디 상웨떡 헌 사름은, 이 저 백중엔 베랑 엇입디다.
@1 아.
#1 조오메기나.
@1 조가 그때는.
#1 조가 하난.
@1 어.
#1 묵은 조라도게 칠월[뤌]이난게 쌀 먹는 거 조오메기 허곡 ᄆᆞ믈돌레.
@1 ᄆᆞ믈돌레.
#1 예.
@1 음.
#1 잘허는 사람은 ᄆᆞ믈돌레. 경 아년 사람은 조오메기.
@1 아 ᄆᆞ믈돌레가 잘허는 사람예.
#1 예.
@1 음.
#1 경헙디다.
@1 예.
#1 우리도 저 ᄆᆞ믈돌레 허멍 멧 번 가와수다. 우리 쉐 질룰 때.
@1 음.

#1 경허단 쉐 기자.
@1 다른 거는 안 헤?
#1 다른 건 미신거 헐 거 잇어? 것벳기.
@1 뭐 술 이런 건 안 헤?
#1 술 그건 헷어, 제숙허곡.
@1 으.
#1 술허곡.
@1 제숙은 뭘로 헤마씨?
#1 제숙 저 바닷고기.
@1 바닷고기.
#1 게곡 과일 세 가진 똑허곡.
@1 아, 저기 백중 때도?
#1 똑 같읍니께, 예. 과일허곡 떡허고 경헙니다. 제주는 꼭 따라야주게.
@1 예, 예.
#1 과일허곡.
@1 제주는 보통 무슨?
#1 술.
@1 그냥 일반 술,
#1 예.
@1 소주?
#1 예, 소주.
@1 감주 이런 건 안 허고예?
#1 겨곡 옛날에 감주도 탕 갓어.
@1 아 감주도 헹 가고.
#1 예. 엿날엔예, 엇인 사름들은 술 사지 못허민 감주도 탕 가십디다게.
@1 예.
#1 보리차 헤근에 그 설탕 놩.
@1 아.
#1 감주도 질엉 가.
@1 그걸로 감주라 생각헹예?
#1 질엉 간.
@1 감주 직접 못하니깐.
@2 아.
#1 겨민 우린 영 보민 그거 저 감주 먹게, 먹게 허멍 보민 보리차에 설탕 놩 헌 감주라. 우린 그거 안 봔 술 헹 가는 거 허민 감주 헨 가는 사름도 합니다게.
@1 예.
#1 겡 것도 딱 열두 시 뒈민 지내주게.

@1 으, 밤 열두 시.
#1 으.
@1 겡 보통은 어디 강 헤여?
#1 어디, 이런 난 벳깃디 밧.
@1 예.
#1 공초헌 그 밧이 깨끗허게 이제 사름들 가근에 무신거 이제 자리 아졍 강 꼴아근에 그 열두 시 새에게 누웡도 자곡. 허곡 허민 기자 영 오스륵헌 밧들 찾읍디다.
@1 게난 그런 거는 이제 공동으로 안 헹은에 지만씩.
#1 으, 출령 가민 다 그거 올려놔, 올려놔근에 허민.
@1 올려놩. 공동으로 허는 건 아니지?
#1 공동으론 안 허고.
@1 안 허고 다 자기만씩 입만헤근에.
#1 아니. 그걸 다 올려놓민 한 사름이 그걸 다 헤여.
@1 아.
#1 축 익듯이.
@1 축 익듯이. 아, 올린 거는 각자 올리는데.
#1 예. 허는 사름은 말명 그 심방ᄀᆞ치.
@1 말명ᄀᆞ치.
#1 예, 그 ᄆᆞ쉬에 대헹 거 막 헙니다.
@1 음.
#1 어느 오름에 강 어떵 허곡. 어느 오름에 어떵 허곡 원, 게곡 막 헙디다.
@1 으.
#1 것도 총기 좋아사 허컵디다게.
@1 예.
#1 총기옌 허민 알카. 머리가 좋아사.
@1 예. 그렇게 하곡.

모살뜸 · 물맞이

@1 여기에도 뭐 모살뜸 허레도 뎅겨봅디가?
#1 아이고 건 삼양 허는 거 나 ᄒᆞᆫ번 가와수다마는.
@1 으. 이 동네는 뭐 백중에 그런 건 안 헤봅디가?
#1 아니.
@1 물맞이렌.
#1 물맞이렌 가지.
@1 여기선 어디 가?
#1 저 도내코 가.
@1 아 돈내코.

#1 돈내코.
@1 음.
#1 경허곡 저 어디? 저 서귀포, 소방.
@2 소정방?
#1 소정방.
@1 으.
#1 우린 소정방 하영 뎅겨수다.
@1 으. 언제 간? 그건? 삼춘네?
#1 우린 백중물.
@1 백중물.
#1 백중물 하영 간.
@1 여기는 백중날 저기 당에 안 가니까 그날 가겟구나.
#1 예. 백중물.
@1 백중물에. 게믄 백중물 맞이면 뭐 헌다 허는 이런 말도 잇어?
#1 아이, 기자 뭐 헌다 보담 기자 몸 씨원허게 아픈디.
@1 으.
#1 그 이 다리 아프곡 어깨 아픈 사름들 대중 맞이레 가수게. 게난 우린 그 일허당 미시거 허민 이 어깨. 가민 소정방에 막 물 떨어지난 그 어깨 맞는 거 우린 맞아수게.
@1 으. 경헨 좋안마씨?
#1 우린 멧 사름. 경허난 어떵 좋아신디 말아신디. (모두 웃음) 막 벗들 막 훌려근에.
@2 놀레 가는 거지.
#1 막 가.
@1 으. 먹을 거 쌍 들렁 가곡.
#1 예.
@1 먹을 거 무시거 들렁 간?
#1 아이구. 게도 우린 기자 저 뭐허게 사난에.
@1 으.
#1 (웃음)

제보자 어머니

@1 게난 이 동네서 삼춘네는 유지인 것 같애. 아까 종손칩이영 이렇게 하니까 부자칩이니깐 어렷을 때도.
#1 아니 우리 친정에가.
@1 부자.
#1 우리 어머니가.
@1 으.

#1 우리 어무니가 스물다섯에 홀어멍 들언.
@1 아.
#1 아흔다섯에 돌아가수다.
@2 아.
#1 칠십해를 우리 삼 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간장 탓수가게.
@2 아.
#1 어무니 말이엔 허민 복종 안 허믄 우리 어무니가 수산 일류 유지급이주.
@2 어.
#1 우리 어무니 말이엔 허믄 뭐 남자고 여자 어른덜이고 다 뭐헤낫수다.
@1 으. 집이 다 양반 집이엇구나.
#1 경허곡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어무니네가 열두 동세라. 열두 동센디 우리 어무니가 두 번차.
@2 아.
@1 으.
#1 큰동세는 우리 큰 삼춘이 저 우리 웃장(?)오라바니 그 어무니 그 삼춘이 말씨도 엇곡 ○○이 어멍아 느가 다 알아근에 문딱 어느 정도 굴으라 허민, 성님이 알앙 헙서 허믄 나 미시거 알아지크냐 똑 경허곡.
@2 으.
#1 경허민 기자 미시거 영 헹 산다 허민, 쫙 아랫 동세덜이 지금도 명령 복종이라.
@2 크.
@1 아.
#1 돌아갈 때ᄁᆞ지도.
@1 예.
#1 ᄀᆞ만이 방 안네 잇어도, 진짜 방안네 사람 오지 아녀도 막 돌아뎅기멍 허단 아침이 밥 먹단. 나가 삼 일 앞서 간 보난 잇언에 미시거 험이꽈? 허난에, 미시거 아녕 빨래헨 허곡 널곡 미시거 헷저. 아지망 굴앙 헙센 헙서게 허렌 헙서게 허난, 아지망 엇인 땐 나냥으로 뻘앙 입주 놈 빌멍 허느냐? 허멍 경 굴아 논 건디 뭐 뒷날. 둣날 둣날 아척은 절간에 사십구재 보레 가누렌 허난 우리 아지망 아이고 야, 어멍 느 보구정 헴저 나 절간에 감수다 강 와근에 그레 가쿠다. 나 기지게 본 걸. 그때라도 어멍이 어떵 헹 미신거 헷젠 굴아시민 허주만은 절간에 안 갈 거주마는.
@2 허.
#1 그게 뭐가 잇는 거 같애. 절간에 딱 절간 입구에 나가 운전헹 사름 서이 테우고 헤연 갓는디.
@1 삼춘이 운전헷는디.
#1 야, 가는디 절간 입구에야 카불 도니깐 머리 끗이 으씩 허는 거라.
@2 어.
#1 하, 이제 나가 예감이 이상헨 간 이제 나 내려우멍 양 성님네양, ᄂᆞ령 ᄉᆞ십구재

봠십서, 어떵 헹 어무니가 이상케 나 보구정, 나 기지게 본 건디 보구정 헴젠 허난 이상허다 나가 예감이 딱. 확 차 돌련에 반은 오난. 또 우리 아지망 야 재기 오라. 나 울레ᄆᆞ루 왓수다. 재기 오라, 간 보건 벌써 종명 뒌 거라.
@2 하.
#1 메누리 허곡 밥 출련에 마리에서 이월, 이월달이난. 이월 열읏샛날이난. 열일렛날이 제사난. 헹 허난 출령 영 먹는디, 어떵 헹 난 머리가 희어뜩허다, 허멍 영 헤렌.
@1 으.
@2 하.
#1 거 뿐.
@1 아이고.
@2 아.
#1 경허난 우리 샛어무니넨 이만이주게.
@2 으.
#1 그 이웃집이난.
@1 어.
#1 우리 아지망은 나 머리 어떵 헹 희어뜩허다 허멍 영 누난 샛어멍신디 어떵 헹 어무니 머리 희어뜩허덴 허멍 누워수다 허멍 허난 샛어멍이영 아지망이영 돌아완 오난 벌써 미시거 방드레 이젠 모셔둰 나안티 전화헌다, 우리 집이 아방은 저 전정허레 미깡낭 이월 전정허레 쳇날도 갓주만, 절간 왕 가쿠덴. 게난 그레 다 전화허고. 시에 조케덜신디 허난 나 완 허난 또 올레 들어와간에 ○○어멍인댜? 재기 오라. 이디 와수다 허멍 들어가난 불써 말도 굴아보지 못헤연.
@2 아.
@1 보구정헐 때 딱.
@2 갓어야 뒈는데, 으.
#1 보구정 허덴 헌 건 우리 아주망이 어멍 씨러졋젠 그때 굴을 거주게.
@1 으.
#1 그때 어멍이 무신 어멍이 나 보고정 허덴 곧지 안 헤도.
@1 으.
#1 재기 오렌 허젠 보고정 헴젠 나 아지망한티 막 야단헷주게. 경헤시민 수산서 울레ᄆᆞ루쯤 간 때.
@2 으.
#1 나가 돌아상.
@2 으.
#1 막 우리 어무니가 그렇게 ᄆᆞ음씨도 좋곡 경헌 어른이난 복 좋게 돌아가신 셍이라.
@2 아프지도 아녀곡.
@1 몃 살까지?
@2 아까 구십오 세.

#1 구십오 세. 구십오 세 딱 이월달.
@1 예.
@2 아.
#1 경허난 칠십 년을양 홀로 살아수게게.
@1 게난 혼자 꼬장꼬장 살려면 얼마나 힘들엇을 거라예?
#1 시아방넨 안거리예.
@1 으.
#1 우리 어무니가, 어무니네가 모시젠.
@2 흐.
#1 허난에 어멍은 세 개 헷어. 시어멍은. 경허난 이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세 번차 씨어멍을 헤오젠 허난 그 어디 난산이서가 메누리가 씨어멍을 둘레 오민 가도, 씨어멍이 보통 아닌 메느린디 씨어멍이 이제 가면은 물렴직허민 안 가겠다 헤서 이젠 말이 돌아오난. 우리 어머니 간 그 씨어멍을 둘안 온 거라. 둘아오난 안팟거리 살아수게.
@2 아.
#1 경허난 한번 아무런 말 엇이.
@2 어.
#1 우리 할머니네, 할머니도 삼 남매 나난. 우리 고모도 우리 보단 막 알. 족은아방도 막 알, 우리 보단.
@2 어떵 헤, 세 번째 할머니난.
#1 족은어멍도 막 알. 요자기도 난 경헤도 족은아버지, 족은어머니 허주.
@2 예, 맞아.
#1 고모덜은 다 고모.
@1 예.
#1 경허난 요자기도 고모옌 굴아가난 난 느네 아시카부덴 헤신디 허관디. 무사 아랫사름이 느 고모옌 못 굴아? 웃엇주마는. ○○ 어멍도 우리 어머니가 속을 얼마니 타.
@1 예.
#1 경헤도 산 어른.
@1 대단하신.
#1 대단한 어룬. 게난 우리 어무니 그 뭐를.
@1 다 물려 받은 거지.
#1 물려 받아살 거지.

팔월

@1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칠월, 물맞이는 거까지 헷어예?
#1 으.

@1 오널은 팔월.
#1 팔월.

벌초

@1 옛날 팔월 초ᄒᆞ를 허면 무슨 날이렌 헙니까?
#1 팔월 초ᄒᆞ루 뒈민 촐 빌 거 걱정험벳긴.
@1 으, 옛날 소분덜은?
#1 소분은 이제 팔월 이제 그 멩질 전이.
@1 으.
#1 팔월 초ᄒᆞ를날 그 정헹 허는 집도 잇고.
@1 예.
#1 또 이제 그 초닷새 그 사이에 허는 집도 잇고. 지금도.
@1 지금도?
#1 지금도.
@1 옛날 무사 벌초방학덜 허지 안헤나수과?
#1 옛날에 학교 때, 우리 헐 땐 벌초방학 헤낫주제.
@2 삼춘 마스크 벗엉은에.
#1 으, 우린 헐 때 벌초방학 해낫어.
@2 우리 헐 때도 헤나수게.
#1 지금은 아녀주게.
@2 으.
#1 지금은 안 허여.
@1 예. 지금은 안 허고. 그다음 그 벌초 헐 때에? 벌초는 어떤 순으로 헤마씨? 뭐 가지벌초도 허곡 문중벌초도 헴실 건디.
#1 예. 가지벌초 허민 그 돌아가멍 그 문중벌초는.
@1 예.
#1 그 이 가지마다 한 사람씩 나강 허주. 전부 나가지 아녕.
@2 으.
#1 그 웃대는.
@2 으.
#1 으, 웃대서 어느 가지에서 한 사람 나가곡 어느 가지에서 이제 이 우리 오칩이, 예를 들어서 오칩이도 이 수산 안네도 이제 여라 파가 잇주게.
@1, 2 으.
#1 경허믄 그 이제 저, 이 알동네까지 헤서 한 사람. 이 우리 섯동네까지 헤서 ᄒᆞᆫ 사람. 우리 세 가지 헤서 한 사람씩 나강 큰 웃대 벌초는 헷주.
@1 으, 게난 가지벌초가 먼저 헙니까?
#1 그 웃대벌초가.

@1 웃대벌초로. 여기서는 웃대벌초렌 헤?
#1 우린 웃대벌초가 먼저 허여.
@1 으.
#1 경헤동은에 이 지금도 이제 그 웃대 말아 다음 웃대에도 우리 아들들 나강 허는 벌초도 웃대 문저 헤둰 공동묘지엣 벌초를 막긋데.
@1 막긋데. 음.
#1 몰라, 이딘 경 허여.
@2 예.
@1 삼춘네는 웃대벌초. 그거를 문중벌초렌 곧진 안허여?
#1 문중벌초는 웃대게.
@1 아 웃대.
#1 웃대가 문중벌초.
@1 으.
#1 게곡 이 우리 공동묘지 이제사 헌디는 기자 알대로 헤근에 나중에.
@1 게믄 나중에 그 옛날에 벌초허젠 허면, 이제야 막 공동묘지도 뒈고 허주마는 준비헤야 뒐 게 많아예? 어떤 식으로 헤?
#1 거 건 가정마다 뜰립니다.
@1 으.
#1 그 어떤 집이는 그 제물덜 막 출령 강 절 헤근에 헤둥 벌초를 시작허는디. 우리 오칩이는 그런 것이 없어.
@1 으.
#1 기자 벌초헤두고 다 모여사 절 헤둥 오는 거.
@1 아.
#1 나가 따라다니면서 보니ᄁᆞ. 게니깐 우리 친정 고칩이도 그런 것이 없는디. 이디 수산은 강칩이는 막 준비.
@1 으.
#1 그 막 적허곡 빵떡이라도 이제는 빵떡이라도 상 강 올리곡. 게난 난 아이고 건 나쁘다 거. 견디 이젠 그거 안 헴덴.
@1 아.
#1 그 종손이 이젠 그거를 이제 자식덜신디레 물리기 싫으니까 우리 친구주, 종손칩이 게난.
@1 으.
#1 이디 노인훼장님네 경헌디 이제는 거 없애자.
@2 으.
#1 경 헹 없앤덴.
@1 고헤불엇구나.
#1 게난 우리 가지옌 그런 걸 안 헤연. 기자 절만 헤여 끗나민. 다 벌초헹 다 치와돈

에 절헨게.
@1 요즘 벌초는 무신걸로 벌초 헤마씨?
#1 그 기계로게.
@1 기계로.
#1 기계로 와랑와랑 헤근에 땅 파근에, 서툰 사름은 막 땅 파 불민 테를 다 죽여비어. 경허난 그 막 우로 비렌 ᄒᆞ썰 우로 비렌 허곡. 그 낫으로 비는 것이 제일 잘허는 거주게.
@1 으.
#1 그 영영 엿날 낫으로.
@1 낫으로예?
#1 경헌디 기계는 헹은에 서툰 사름 팍팍팍팍 땅 다 파불민 막 산이 시커멓게 파부는 디가 잇어. 경허민 테가 안 입어.
@2 으.
@1 그렇지, 그렇지.
#1 그렇게 허는 디가 잇고.
@1 게난 그 벌초 가젠 허믄 준비헤야 뒐 거 아니예? 먹을 것도 준비헹은에. 도시락도 쌍 뎅견?
#1 아니 도시락 아니. 우린 다 끗나서 와서 이젠 집이서 헷주, 돌아가멍.
@1 예.
#1 이젠 식당으로.
@1 이젠 식당으로 아 옛날은 집이서 하고?
#1 아니 요 멧 해 전이 우리 헐 때까지는 집이서 헷주. 겐디 우리 이제 조카, 우리 아덜덜 대에 나니깐 자기네가 이젠 준비, 새 시대덜은 집이서 준비허는 것도 귀찮지. 미시거니깐 다 책임 이제 훼장, 부훼장 총무 허주게, 그 일가에서.
@1 으.
#1 허민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점심을 출릴 거 아니? 우리 집이선 나만 이 족은아덜로 제일 뭐라도 묘제도 나만 마탕 허렌 허곡. 벌초 정심도 나만 허렌 허곡 바로 학교 옆이 지금 훼전 잇는 디. 그디가 우리 집이라난디.
@1 아.
@2 으.
#1 우리 집이 벌초허렌 가젠 헤도 다 모영 우리 집으로 왕 오곡 그 기계들토 우리 집이 왕 창고에 다 놧당 시끄레 오곡 허민 에, 가까운 딜로 삼춘네가 헙서게, 헙서게. 겨민 못허켄 허민 에잇 다 모아들민 다 허주게 허멍 조케덜이 막 많으니깐 나가 이제 주목 사민 우리 동세들은 나이 들어불곡 나가 제일 막내니까.
@1 @2 으.
#1 경헤도 나가 대장 허지.
@2 (웃음)

#1 아니.
@1 오늘 일 저기가 잘하니까 일머리가 잇어 갖고.
#1 이, 저 묘제 허는 디도 지금도 나가 대장이라.
@2 어.
#1 다 일가에서 허는디도 나를 우선 불러가주. 야게게, 어떵어떵헹 허민 뒐 거 아니라, 경헤영 허라 허민, 기자 허는 날부떠 전화허기 시작허민 허는 식으로 허는디 이제는 기자 식당으로. 점심 먹을 때.
@1 뭐 벌초 강은에 산담을 잘 손보거나 영은 아녑니까? 그날은.
#1 그런 거 무너져근에 허는 때는 허는디, 이제는 우리 가문에서는 막 웃대 웨로는 다 공동묘지 모셔 부니까.
@1, 2 아.
#1 막 웃대 웨론. 게난 우리가 오대까지는 이제, 그 요 대왕산, 우리 저 이제 이 대왕산이 아니고 물메봉.
@1 물메봉.
#1 물메봉 우리 수산 엿날 수산봉인디 그 바로 물메봉 밑에 우리 이제 그 어룬 그 웃대 오대를 지금 모셧주. 저 어디 서귀포여 어디 저 서귀포여 이신디.
@1 다 모연.
#1 어르신덜 다 그 게난 묘제 헐 때 오대를 묘제 허주.
@1 으, 게믄 일허기가 쉬우켜, 이젠예?
#1 쉬어.
@1 예.
#1 게난 그 문중 그것도 벌초는 이제 새 가지에서 혼 해씩 허다가. 그디 과수원이 천오백 펭이주. 그 산 모신 디가. 건 우리가 또 이제 나가 이제 그 우리 집이 아빠가 개간헨에 과수원을 이제 우리 헌 거니깐 십오 년. 십오 년도 간단헌 거난. 십오 년 이제 심고 뭐헤서 십오 년 헤 먹어서 이제 저 또 새 사름을 허게 뒌디 우리 집이 아빠가 아파 불엇어. 겡 나 서울 뎅이단 뭐헌다 허니깐 어떤 허영 아이고 그 밧을 딴 사름덜이 넹겨줍서 헹 그 허여나난 이젠 그 이디 산을 쓸 건디 그 낭을 멧 그르 멜 건디 이젠 어떵 헐 거니 서귀포 이젠 그 친척 아주버니가 완 헨. 아, 조상님 대 모시켄 허는디 우리 낭 싱것주만은 조상밧이고 헌디 뭐 나가 우리가 뭔 권리가 이수겐.
@1 으.
#1 우에서 산 쓸 만이 공동묘질 만들어도 이제 할 수가 엇덴 허난. 아지망네가 이제 그 미깡을 이제 열어서 십오 년 동안 헤먹을 건디 우리가 이제 산을 쓰게 뒈면 낭을 이제 그 공동묘지 헐 자리 금방엣 거는양 낭을 다 메살 건디 이제 어떵 헐 거냐고. 이제 건 우리 관계허지 말고 헐 만이 헤근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붑서.
@1 으.
#1 경헨 허니까 이제 그 나뭇 갑[깝]이라도, 심은 갑[깝]이라도 주곡, 손헤배상이라도 뭐 우린 그런 거 이제 절대 나는 우린 바래지 아녀쿠덴.

@1 으.
#1 경헨 허난 진짜 춤 일가들이 지금이라도 나나 우리 집잇 아빠더레 고맙덴 허주.
@1 으.
#1 그때 못 헌덴 헤시믄 우리가 십오 년 삭 낸 건디 공동묘질 허면 우리 어떵 헙니까.
@1 그렇지.
#1 우리 이제 정말 엿날에 과수원 처음 이제 막 수산은 과수원으로 막 널르니까, 우리 아녀니깐 막 뭐 허니까 이거 문중밧 십오 년 개간헤서 헤 먹으라 허난. 나가 아방은 안 허켄 허는 거 나가 ᄌᆞ작헹 헤 논 거난 헷단 이제 산을 쓴덴 허난 아방이 미신에, 아방 아파근에 뭐 허는 거 우리가 마음 잘 먹어사 아방 벵 좋읍니덴.
@1 예, 그렇지, 그렇지.
#1 헹 그디 웃대덜 막 모셩 묘제 그 자리서 허면은 이녁 심은 남이니까 잘 뒈는가 못 뒈는가 것도 영 볼 수도 잇고.
@1 예.
#1 건디 그 과수원 헤 먹는 사름인디 이제 그 벌초는 메껴 불곡.
@1 으, 조상전이구나예?
#1 조상전, 조상전.
@1 거니까 조상전이니까 이제.
#1 으.
@1 예, 그추룩하고.

팔월 멩질

@1 이제 팔월 뒈면은 팔월 멩질 헤 먹젠 허면은 준비허는 것도 하고, 출려야 뒈는 것도 하고.
#1 옛날 숟가락 다끄곡.
@1 예.
#1 그 젯그릇덜 다끄고 종손칩이 강.
@1 예.
#1 경허는디 이제는 그것도 엇주.
@1 으.
#1 팔월 멩질에 헌덴 헤도 이제는 뭐 아시날 뭐 쏠 싯져근에 뭐 허는 것들 이젠 다 떡집에 강 메껴 불고곡 이제는 다 헤방헷어.
@1 으. 예전에 그 숟가락 따끄곡 저기 젯그릇 따끄는 건 언제부터 따까수과? 그거는.
#1 그거는 벌초 헤근에 초닷새 뒈민덜 벌초 헤영 쳇일요일날 헤근에, 팔월 쳇일요일날 이제 아이덜이영 다 모여들게 일요일날 이제 벌초 허민.
@1 으.
#1 벌초 끗나민 아무 날이라도 이제 우리 그릇 따가불게 헤근에 큰집이 강 야 우리

옵서 낼모리랑 그릇덜 다까불게 헤근에 가주.
@1 으.
#1 그러면 우리 쫄짜들은 가근에 그 엿날 그 속돌.
@1 예.
#1 그 바당에 가면 알아지카? 속돌이엔 헌 거 헤근에 그 막 가루. 가루 헤근에 그거 산디찍.
@1 예.
#1 찝 헤근에 막 헤근에 막 따끄는 거 아니? 어깨가 다 빠지게 다까. 우리 종손칩인 그 그릇이 막 많주게.
@1 예.
#1 게난 이 저 뭐 떡허는 거 펜.
@1 으.
#1 그런 거, 놋사발도 큰큰헌 놋사발덜 족은 거 허난 그 숟구락도 다 이제 부체마다 수제도 뜰려, 젓가락이영.
@1 예.
#1 경허믄 그거 다 다끄젠 허민 또 이제 웃대 종손칩이 요디 강 그걸 따끄민 또 이제 우리 큰집이가 잇주. 우리 씨아버지네가 사 형제니까. (전화 소리) 겨민 또 그 종손칩이 헤 나면 이제 또 우리 이제 큰집이 우리 씨아버지 형 그디가 이제 제라이 우리 종손. 겨민 우리가 그 종손에 우리가 열두 동세라.
@1 아.
#1 그 집이가 큰동세고 허난. 나가 아홉 번차 뭴 거냐? 기추룩헌 동세덜이 허면은 그 큰집이가 가서 우리 옵서 저 이젠 큰집이 다 가베시메 성님네 집이 그릇덜 온 때 따까붑서 허민 그 성님이 막 뭐헌 어룬. 아이고 ○○ 어멍 아니민 그릇 흔 번 미시거 허지 못헐걸 허민. 무사들 동세들 다 오렌 헹 다 시깁서. 다 시겨근에 다끄게. 경 아녀민 꼴(?)부락헌 자기만 헤보젠 헤도 못허주게.
@1 예.
#1 경헹들 다 모여들엉 그거 헤근에 허면. 춤 고맙덴 죽을 때까지 나인디 고맙덴 헌 동서가 그 동서.
@1 아.
#1 우리 시아주버니도. 딴 동세들은 뭐 헷든지 말앗든지 오렌 허민 오누렌 궂인 체나 허주만은 그래서 허곡. 팔월 멩질 이제 무시거 허곡. 이제는 또 가문이 다 갈라졋주게, 옛날시대. 저 조카덜 시대 나니깐. 이젠 그 큰집도 이제 우리 아주버님네 동세네도 다 돌아가니까. 이젠 다 그 조카가 이제 여기도 안 살고 미시거 허니까 이제 따로 뒈고.
@1 으, 그러면은 이제 팔월 멩질은 그렇게 그릇 다끄곡. 이제 그다음 제물들도 준비헤얄 거 아니? 건 언제적부터 준비헤수과? 예전에.
#1 그 전에는 그 열사흘날부떠. 저녁 때 가근에 그 지금은 뭐 상웨떡, 팔월 멩질은

상웨떡 허는디. 그때도 어려운 때난 상웨떡게, 그 빵으로 밀가루 헤서 허민 그 우린 식구가 많아 부니까.
@1 으.
#1 열사흘날 가서 그 상웨떡을 물주.
@1 으.
#1 다라 두 개 헤근에 물아근에 허민 그걸 그날 저녁 헤서 떡이 부풀어외사 둣날은 헐 거 아니? 경헹 둣날 그거 헨에 찌곡 미시거 허곡 헹. 딱 열사흘날부떠 흔 오후 뒈민 큰집이 가근에 이제 그거 다 상웨떡 물앙 허는 거.
@1 으, 게난 보통 이제 팔월 멩질 땐 상웨떡을 주로.
#1 그땐 상웨떡 주로 헤.
@1 뭐 조개솔벤 ᄀᆞ튼 건 허지 안 허고?
#1 조개솔벤은 여기는 저레는 조개솔벤 허는디. 우리 수산은 조개솔벤이엔 헌 떡 허는 디는 이 큰가름 강칩.
@1 예.
#1 그 집은 다 망헤 벳어. 어룬덜이 경 굴읍니께. 이 조개솔펜 헤근에 허는 집이 흔 읏이 좋지 아년다, 좋지 아년다. 우리 하르버지가 막 친정하르부지가 유식헌 하르부지라.
@1 으.
#1 게민 우리 두린 때. 뭐 허면은 큰가름 강칩 보라, 후젠 느네 살멍 보라, 흔엇이 좋지 아년다. 무사 말이꽈? 그디 멩질 땐이 조개솔펜 헤근에이 간 사름덜이 먹당 남으민 고젱이에 꿩 막 돌아뎅기멍 헌다 남으민 집에 아졍오젠. 고젱이 꿩 돌아뎅긴다, 경헌디 그 집 흔엇이 느네 살멍 보라마는 흔읏이 *** ** 아년다.
@1 으.
#1 한나도 없어, 지금.
@1 음.
#1 경헌디 그 송편 잇잖우꽈.
@1 예, 예.
#1 그 송편도 그 제 허면 어르신들 곧는디 솔벤, 절벤.
@2 으.
#1 그거 허면은 절벤은 별이고 솔벤은 달이엔 허지 아녑니까게?
@1 예, 예.
#1 그것이 옛날부떠 그것을 이제 허렌 헌 건디 저, 그걸 솔벤, 절벤은 허기 싫으민 송편. 팔월 멩질에도 송펜 헤서 그 상웨떡이라도 올리면은 송편이 동글락헤 부니깐 떨어지지.
@1 으.
#1 그러니까 허지 말렌 허는 거주.
@1 으.

#1 경헤도 아이덜 이제 그 막 송펜 만들어 보구젠 허덴 허민 송펜을 헹 올려도 우리 집에는 우리 그 손지 지금 우리 조카 난 아이덜이 막 떡을 만들어 보젠 허난.
@1 으.
#1 송펜은 만들어도 꼭 솔벤, 절벤을 올려나수다.
@1 으, 솔변, 절변 헹 우이?
#1 우이 올려.
@1 으.
#1 솔벤 먼저 절벤 헤서 또 지름떡 헹 올리곡 허는 거 잇잖우꽈.
@1 예, 예.
#1 경헌디 이 송편은 허면은 둥그러난덴.
@1 예, 예.
#1 경허여 안 헤여.
@1 예.
#1 지금은 경헤도 떡 맞촤근에 우리 조케들도 지금 허는 거 보면 게도 우린 이제 관계 엇인 사름이난 아무렇지도 아녓주만은 떡 맞촤근에 허면 송펜 헤다근에 올려.
@1 으.
#1 경헤도 기자 그러려니 허는데 엿날에는 그렇게.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고. 그 여름이라부니까 콩ᄂᆞ물 허거나 뭐허거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려완예?
#1 어려왓주.
@1 예,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헤?
#1 그땐 허면은.
@1 으.
#1 팔월 멩질엔 허면은 호박.
@1 으.
#1 호박을 대중.
@1 아.
#1 예, 호박. 고사리허곡.
@1 익은 호박?
#1 예. 풀고사리들 아, 저 고사리는 제에 빠지지 아년덴 안 헙니까게.
@1 예.
#1 고사리는 원 사시사철 헹 놔두는 거난 고사리 떨어진 거는 아녀니까 팔월 멩질은 호박멩질.
@1 호박멩질.
#1 어른들은 호박멩질, 호박멩질 허난. 그추룩허곡 콩나물 못 사민 채소옌 헤근에 무수채 썰어근에 쌂앙 허는 사름도 잇곡.
@1 으. 양엣근.

#1 또 양엣근도 팔월 멩질에 날 때 안 날 때 허민 양엣근도 허곡.
@2 으.
#1 경헙니다. 경헌디 콩ᄂᆞ물 허는 디는 강 춤 이제난 막 마트에도 풀곡게 막 헹 허곡. 잘 허는 디는 우리 큰종손칩인 꼭 놓아.
@2 으.
#1 놓아근에 경 허곡.
@1 그런게 허는 거고. 그다음에 뭐 고기나 적 같은 건 어떤 걸 헤마씨?
#1 적 같은 거는 그 적은 이 우리 교육 받을 때는 뭐 네 발 돋은 거 하나하면 뒈지고기나 소고기만 허렌 헤도 이디 풍속은 톡 두 가지를 헤여.
@1 예.
#1 그거곡 바닷고기 굽곡. 소고기허곡 뒈지고기허곡 그 적은 딱 헤근에 올리곡 바닷고기는 뭐 거는 뭐헨 올리니까 허곡.
@1 으.
#1 경허곡 고기적 헹 오징어나 헤근에 허는 딘 잘허는 거고게.
@1 으.
#1 경헹 옛날에.
@1 묵적 같은 것도?
#1 묵적은 거 원 떨어 놀 수 엇는 거니까.
@1 으.
#1 경헹 묵적 헹 작살 넹겻다가 탕쉬에 올리는 것도 기곡.
@1 예.
#1 경헙니께.
@1 예, 작살 헹은에 그거 하고.
#1 작살, 으, 묵작살.
@1 뭐 그 팔월 멩질에 술 ᄀᆞ튼 거, 감주 ᄀᆞ튼 것도.
#1 감주는 저 우리 큰집인 꼭 골감쥐 헤여.
@1 골감쥐 헹.
#1 골감주 헹 허는디 이젯 아이덜은 골감쥐 헙니까? 설탕물 탕 올렴주. (모두 웃음)
@1 게영 골감주를 그 팔월 멩질엔 헷어예.
#1 게난 우리 이디 제 허듯 골감주를 꼭 헹 식혜 만들엉. 진짜 그 종손은 잘헤나수다게.
@1, 2 으.
#1 겐디 이제는 뭐 시대에 따랑 검은설탕 헤당 검은감쥐 헹 올리곡 그것이.
@1 거난 지금도 감주 올리는 식으로 헤갖고 설탕물 올렴구나?
#1 예.
@1 아.
#1 그거 잔 들입니께.

@1 으, 거난 뭐 음료수 헤갖고 잔 들이는 게 아니고?
#1 똑 감주를 헤사.
@1 감주를.
#1 쳇 번 잔이 감주 아니꽈게, 술보단.
@1, 2 으.
#1 첨잔 들일 땐 술덜 허는디 처음 잔은 감주라.
@1 아.
#1 경헙니께.
@1 예.
#1 우선 상 앞이 모세상 심을 때.
@1 예.
#1 잔 겁니께. 그거 감주 겁니다.
@1 음. 모세상 헐 때예?
#1 술을 걸지 아녕.
@1 거믄 여기 모세 헐 때는 이 저기 새 헤갖고.
#1 새 허는 디도 잇곡.
@1 새껍.
#1 엿날에는 저 미깡낭 남 이파리. 지금도 그거 허는 디 이십니다.
@1 어.
#1 미깡 이파리 헤당은에 허곡 경 아녀민 그 삶은 그 채수 고사리.
@1 예.
#1 고사리 헹 영 들이침도 허곡. 게난 미깡낭 허는 디도 지금도 잇어.
@1 미깡낭으로도 모세를 헤예?
#1 예, 엿날은 똑 미깡낭 톹아 와수게.
@1 아.
#1 그 우잣에 이십니께게, 등, 그 등이엔 헌 거. 겨민 그거 톹아다근에 똑 모세 놔. 견디 이제는 새 허는 디는 그 춤 무시거나 허는 거주 우리 새 허는 거는 별로.
@1 으.
#1 새 허는 건 헌덴 헙디다.
@1 예, 예.
#1 경헌디 미깡낭썹 아녀면은 이딘 고사리.
@1 고사리로예. 겡 아까 등이렌 헌 게 무신거?
#1 나스미깡게. 지금.
@1 거를 등이엔 굴아?
#1 등이렌 허주. 엿날 우린 등, 등 허멍. 등 타먹으레 가게, 등 타먹으레 가게. 나스미깡.
@1 음.

#1 지금도 나무에 달아진 거 막 시영 먹지 못허주게.
@1, 2 예.
#1 옛날 것벳기 엇어나수게. 등 허주, 등.
@1, 2 등.
@1 게민 미깡이 이 동네 미깡 옛날에 잇엇던 미깡덜은 어떤 미깡이 잇언? 등허고.
#1 등. 댕유지.
@1 으.
#1 등허고 댕유지. 댕유지 이신 집은 이디 뭐 흔 두세 밧벳기 엇엇주.
@1 으.
#1 경헹 막 눈 와사 먹읍니께, 댕유진. 등은 흔 십이월달 이제 넘어근에 일월달에 막 도둑질 허레 간 거주마는 그 저, 거시기는 눈 와나사.
@1 으.
#1 그, 저 댕유진 지금 감기에도 딸려 먹곡 허는 거.
@1 예.
#1 경허민 그때 넘으민 막 맛이십니께. 막 눈 맞아나서.
@1 예.
#1 경 허민 요디허곡 큰가름에 그디허곡 헹 흔 세 밧디쯤 이시민 막 장난패덜 거 타 먹으레.
@1 으.
#1 게당 어룬들안티 나무로 뭐 낭 왕 닥닥 두드리곡 헌덴 헤도 요번에덜토 앚앙 막 옛말 굴앗주만은 등 웨로는 그거.
@1 으, 뭐 산물 같은 건 엇어?
#1 산물.
@1 산물도 잇고.
#1 우리 진짜 친정 우리 큰집이, 큰집이, 친정 큰집인 산물이 잇어나수다.
@1 어.
#1 요만썩헌 거. 겡 멩질 먹으레 가민 안투에 가근에 거 산물을 타먹어낫주게.
@1 으.
#1 겐디 그 산물낭도 이젠 엇수다만은 건 지금 진피.
@1 진피.
#1 거 진피 아니라게.
@1 예.
#1 약 헤근에 허난 거 역불 사단에 심언에 지금 한약방 허는 그 우리 조케네 보냄은 헴수다.
@1 아.
#1 우리 친정에서.
@1 으, 한약방 헴구나. 조케네가예?

#1 ᄉ춘오라방 아덜.
@1 산물로 헤서.
#1 산물 진피, 진피 허멍.
@1 진피로 헤서. 예.
#1 그걸로 막 물류왕 보내메.
@1 감기약.
#1 엿날 낭은 다 기차 벼도. 게난 엿날에는 그 산물 그거허곡 댕유지허고 등벳긴 엇어나수다, 이디.
@1 예.

잡담

#1 경허난 그 미깡낭도 만생. 또 어디 간에 ᄒᆞ나사 헤단 헤신디 그 우리 고칩이 진짜 큰하르부지네 집이. 게난 지금 우리 육촌 오빠가 읍장이주.
@1 으.
#1 경허민 그 오빠네 집이 우리 멩질 먹으렐 가민 막 그 낭이 지금도 큰 차 잇어.
@1 아.
#1 경허면 그 미깡만 진짜 ᄒᆞ나썩 저 타 주민 먹곡 미시거 헌 디, 이젠. 그 후에 그 우리 읍장 오라방이 어떵어떵헹 미깡을 개발헌 거라.
@1 으.
#1 우리 수산 부락에.
@1 음.
#1 경허멍 험 시작을 허난. 수산이 다 퍼진 거 아니꽈? 이, 저 서귀포로 온 거주게.
@1 으.
#1 이제 헨에 미깡 퍼지난 우리도 이제 춤 미깡밧 엇어근에 무시거허민 그 오빠네가 이제 미신거 허민. 난 아기 다섯 개 이제 키우고 미시거 허난에 그 오빠가 야 ○○아 저 우리집더레 어느 때 오라 미시거 헐 거우꽈? 허난 저 미깡낭 ᄒᆞᆫ 멧 개만 헤당 심엇당 아이덜 타주라.
@1 으.
#1 경헨, 경 앗단에 이제 그 진짜 춤 지금 우리 집 짓은 밧디 간 싱것어. 싱건 허난 야, 이것만 싱그민 오빠 이것만 싱그민 약도 못 치곡 어떵 헙니까? 허난.
@1 으.
#1 경허민 느네 약 치곡 허켄 허민 저 미깡낭을 그 밧디 간 보난에 밧이 마직헌 게 좋아라. 저 그때는 극조생을 막 일찍 타먹는 걸로 좋아헤수게게.
@1 예.
#1 경허난 이거 저 오십 개 저 나 헤단에 우리 밧디 싱그젠 허단 줘시메 이거 오십 개 헤다근에 그 밧디 싱거근에 헴시라. 그거 오십 개 헨에 진짜 나 지금이난 나 옛말ᄀᆞ치 그걸로 헨 우리 돈을 범 시작 헷주.

@1 어.
#1 경허난 이젠 그 오빠가 왕 아침이 읍에 감세에 돌아와근에 전정허는 거 탁탁. 막 성급허주.
@1 으.
#1 낭 멧 개 확확확확 끄쳐줘둬근에 허믄.
@1 으.
#1 게믄 뒀저, 기자 약만 쳠시라, 약만 쳠시라. 경헨 허난에 이제 오빠양 허난 저레 낭 더러 싱거살 거 어떵 허코? 허난, 또 흔번 오렌 헨에 가난 당신네 밧디 간에 그 이제, 이제는 지금 우리 일반 조생.
@1 으.
#1 그거 헨에 흔 착 싱그고, 그거 흔 착 싱그고 허난. 그거는 보내민 돈 안 나오곡.
@1 으.
#1 이 극조생은 보내민 돈 나오고.
@1 으.
#1 아이고 이젠 시끄럽덴. (웃음) 이 작목반을 허겐 허난 작목반 헨 요디 이젠 원예 작목반에 이제 허난. 아이고, 놈덜 보낸 건 보민 돈 나오고 우리 거 보낸 거 돈 안 나오난 시끄럽덴 이제 낭 허난 오빠 이거, 양 오빠 이거 돈 나오는 미깡 이거 안 허쿠다 허멍 허난. ᄀᆞ만이 헴시라 그거 이제 극조셍은 이제 뭐 헤 간다.
@1 으.
#1 경헨 헨 뭐 이젠 막 난 장난을 잘 헤난 그 오빠광도 지금 경자생이주. 그 오빠가 경헌디 갑자기 암 걸련 돌아간.
@1 아이고.
#1 진짜 부모 돌아간 거주. 그 오빠가 엇이난.
@1 으.
#1 우리 아버지, 난 아버질 몰란 태어난.
@1 으.
#1 게난 그자 그 오빠가 육촌[존] 이라도 그 오빠 의지로 친정에서 살앗주게. 우리 어머닌 삼 남매, 난 젤 막둥이 일본서 완 아부진 돌아가부난 우리 어머니 들어완에 날 난 거라.
@1 으.
#1 경허난 그 오빠가 야, ○○아 느이 영정헹 허민이 뭐 헌다, 어떵헌다 허멍 그 과수원도 그 오빠로 헨에 진짜 저 몬딱 허고 그럭저럭허멍 진짜 이루성당(?)을 헷주게.
@1 그 오빠 일름은 무신거라?
#1 고○○ 읍장.
@1 고○○. 으.
#1 제주도에 원 봉사에 헌 거에 안 들언 죽언 보난.
@1 예.

#1 지금 비석에 다 올랏주.
@2 아.
#1 게난 우리가 진짜 아이고 오빠 죽언 보난 진짜 춤 놈이 알게 몰르게 다 헌 거 아니? 게난 다 비석에.
@1 예.
#1 라이온스클럽에서 뭐 헨에 허난 완 헌디 비석에 다 그거 올려난 거 보거들랑 경 헌 거 보난.
@1 어디 읍장 헤수과?
#1 성산읍장.
@1 성산읍장 헷구나. 으. 겡 허곡.

돌구경
@1 그다음에 팔월멩질 이제 허면 뭐 메나 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걸로 헨?
#1 메 그게 곤쌀로 헹 허곡. 겡은 바닷고기, 대중 바닷고기 헤수다.
@1 솔레기?
#1 으.
@1 솔레기예? 그날 뭐 팔월 멩질날 뭐 돌 구경 가거나 이런 놀 거나 허는 것도 이수과?
#1 아이, 저 이 집이서덜.
@1 으.
#1 가족들 모영 종손칩이 가민 윳놀이 허는 건 우리 집인 헙디다.
@1 아 팔월 멩질날예? 그건 언제? 밤에? 낮에?
#1 아이 낮이 끗낭.
@1 아 멩질 끗낭? 으.
#1 멩질 끗낭.
@1 으.
#1 그 끗나민 혼 열두 시 넘읍니다게, 한 시. 경헌 때 기자 모여근에 막덜양 그 윳놀이 기자 헹 허단 헐어져 붑니다.
@1 으, 게민 삼춘네는 멩질 허게 뒈면 큰, 족은집부떠 헙니까?
#1 족은집부떠.
@1 족은집부떠 헹 종손이 마지막예?
#1 예. 족은집.
@1 거는 정월 멩질도 똑같아?
#1 똑같읍니다.
@1 으.
#1 족은집부터 헹 큰집이가 마지막으로.
@1 으.

#1 겡, 다 모여들어근에 그릇 다 씻고 다 다까두고 헹 옵니께.
@1 다 끗나면은예? 예.
#1 예, 다 끗나면은. 경허민 남자덜은 윳놀이 놀당 기자 헐어지주게.
@1 으.
#1 경허고.
@1 그 놋그릇들 지금 이신가?
#1 아이고, 다 없애 벳수다.
@2 (웃음)
@1 아고 그 놋그릇.
#1 스뎅그릇에 바꽌.
@1 게니까.
@2 으.
#1 우리 막 굴아수다.
@1 으.
#1 게난 스뎅그릇에 허난 스뎅그릇 그 처음 나난 좋카 부덴 허난 이건 지금 평상시에 밥 먹는 그릇이주. 이거 뭣허레 바꽈시녜 허난. 이젠 또 그 그릇도 아년 세 대 또 나난.
@1 놋그릇덜 사단.
#1 우리 그 종손이 그 우리 시고모가 그 놋그릇 장시를 허멍 왕 추구리난 그거 봐꽈분 거 아니?
@1 으.
#1 경허난 이제 옛날 스뎅사발 헹 밥허난 이젠 그 스뎅사발은 이제 다 밥 먹는 사발이라.
@2 으.
#1 경허난 우린 이제 성님 이걸 무사 영 헙디가? 이거 이추룩 허는 건 아니우덴. 이거 후제 손지들끄지 물리주 이거 뭣허렌 이거 바꿉디겐 굴아도 어떵? 바꽈분 걸.
@1, 2 으.
#1 게난 또 이젠 그 동서 메누리 조케가 이젠 오난 그 사발은 이제 또 스뎅사발 처음엔 막 크게 나와나수다게.
@1 예, 예, 예, 예.
#1 경허난 이제 또 얄브곡 굽 떼불지 아녀는.
@2 예.
#1 스뎅. 요즘 그걸로 다 바꽈수다.
@1 으. 새로운 걸로 헤 갖고 이제. (웃음)

촐 비기

@1 그렇게 이제 팔월 허곡. 팔월에 허면 여기 목장도 많안 촐 비는 일도 하영 헨?

#1 예. 촐.
@1 예.
#1 팔월 멩질 끗나민 촐 무끄레 가는 거. 아이고, 그거 ***.
@1 그 말을 좀 굴아 줍서. (웃음)
#1 촐은 팔월 그 뭐허민 일찍 헐 때도 잇곡 늦엉 하늬ᄇᆞ름 나사. 오늘은 팔월 진짜 나 인칙이 앚앙 굴앗주만 촐 빌 날씨라.
@1 아.
#1 하늬ᄇᆞ름 부난.
@1 아 오늘 하늬ᄇᆞ름.
#1 하늬ᄇᆞ름 팔월[팔뤌]에 쳇 하늬ᄇᆞ름 부는 날 촐 비레 시작허주.
@1 으.
#1 시작허민 낫 앚앙 강 이제 비민 오널 비민 내일 물류민 모리 무끌 거 아니우꽈?
@1 으. 하늬ᄇᆞ름 나니까 확. 여기는 어느 펜이서 오는 게 하늬ᄇᆞ름이렌 헙니까?
#1 이쪽.
@1 이쪽이면?
#1 저 거시기 북쪽.
@1 북쪽.
#1 북풍이 하늬.
@1 북풍 하늬.
#1 이 서쪽은 마파람.
@1 마파람.
#1 이 동쪽은 저 샛ᄇᆞ름.
@1 샛ᄇᆞ름.
#1 마파람은 이 남쪽광 이 서쪽으로 오는 것이 마파름 아니꽈?
@1 예.
#1 북쪽으로 오는 게 하늬바람.
@1 으.
#1 지금 오늘 막 하늬ᄇᆞ름 시원헤수다.
@1 남쪽에서는?
#1 게메 남쪽허곡 이 서쪽으로 비스듬헌 게 마파람.
@1 마파람. 갈ᄇᆞ름은 엇어?
#1 경허민 서갈바람이엔 헌 거는. 서쪽허곡 이쪽허곡 맞이 부쪄근에 허는 ᄇᆞ름. 남쪽허곡 서쪽허곡 다 서쪽으로만 오질 안헹 남쪽 부쪄근에 오는 바람이 이십니다.
@1 예.
#1 서갈ᄇᆞ름.
@1 서갈ᄇᆞ름. 으, 그렇게 하고.
#1 서갈ᄇᆞ름 경허민.

@1 마ᄑᆞ름도 남쪽허곡 서쪽 사이에서 오는 거고.
#1 예, 와.
@1 으.
#1 경헙니께.
@1 예.
#1 바로 마ᄑᆞ름만 경 불민 저, 이 남쪽으로 딱허게 오는 게 이십니다.
@1 예.
#1 그게 마파람. 게민 이 서쪽으로 부쪄근에 영 오민 에, 오늘은 서갈ᄇᆞ름 불언에 원 날이 시원 안 허켜.
@1 그치, 그냥 정남쪽으로 오는 건 마ᄑᆞ름이엔 허지예?
#1 마ᄑᆞ름이엔 허곡. 마ᄑᆞ름엔 허곡.
@1 서쪽 사이가 아니고.
#1 일로 비슷이 같이 오는 건 서갈ᄇᆞ름.
@1 서갈ᄇᆞ름. 예. 아까 삼춘 어, 예, 알아수다. 그렇게 헤서 그 촐 헐 때가 대개 큰일 아니?
#1 큰일.
@1 멧 바리나 헤수과 삼춘넨?
#1 아이고, 몰르쿠다.
@1 (웃음)
#1 멩질 끗낭 촐 무끄레 가젠 허민 그거 실픈 게 엇주게. 우리 이디 씨집인 왕은 이제 춤 뭐헤근에 안 가고 우리 친정에선 어무니허곡 나허곡 우리 오빠 허민 촐 무끄렌 또 가사주게.
@1 예.
#1 가민 그 막 밧이 궂은 밧디 가근에 그거 날르는 거 허민 난 이 밧 줘도 앚지 아녀쿠덴. 주지도 아녀주마는 그추룩허멍 헤여나곡. 이제 팔월엔이 촐 허는 것이 대중.
@1 으, 그 더위에. 게도 하늬ᄇᆞ름 부난 ᄒᆞ끔 선선허긴 허주예?
#1 예. 하늬ᄇᆞ름 불민게 촐 헐 때는양, 이지금 닮지 안헹 요새는 기후 변화로.
@1 으.
#1 그런 뭐가 좀. 그때는 그 철에 따라 바람이 다 골고루 왓주게.
@1 예.
#1 지금은 기후 변화로 막 뭐 허지 아념수과?
@1 게난 봄에 주로 부는 ᄇᆞ름은 무슨 ᄇᆞ름 불어, 봄에?
#1 그때는 마파람.
@1 마파람.
#1 으.
@1 여름에는?
#1 여름에는게 진짜 미신 서갈ᄇᆞ름도 불엇닥 샛ᄇᆞ름만 불민게 시원허주, ᄒᆞ썰양?

@1 으.
#1 경헌디 샛ᄇᆞ름 불민 샛ᄇᆞ름 일뤠 불민 비 온다.
@1 으.
#1 그런 식으로 ᄀᆞᆯ아도 샛ᄇᆞ름 불어가민 이제 ᄒᆞᆫ 메틀 이시민 날 궂엄직허다이 경허멍 ᄀᆞᆫ곡.
@1 으. 샛ᄇᆞ름 불민 비온덴 ᄀᆞᆯ잖아예?
#1 으.
@1 일뤠. 게믄 가을에는 하늬ᄇᆞ름?
#1 하늬ᄇᆞ름.
@1 으, 겨울에는?
#1 곡식도.
@1 으.
#1 곡식 게난 겨울에는 뭐 아무 바람 불어도 기자 넘어갈 거난에 헌디.
@1 으.
#1 이 곡식이 저 헐 땐 산디 ᄀᆞ튼 건 허지 아녑니까게? 여기도게. 허민 하늬바람을 주로 불어줘야뒐 거 아니?
@1 으. 경헤야 곡식도 익곡.
#1 경헤사.

백로

@1 그 옛날 백로 절기에.
#1 백로.
@1 예, 그때 허는 거는 무신거라마씨?
#1 백로에가, 백로에가게 첨, 이 촐이 한창 아니우꽈게. 옛날 백로.
@1 으, 백로 헐 때가예?
#1 백로가 촐 한창.
@1 칠월절.
#1 예.
@1 이제 허면 촐 허는구나?
#1 팔월절.
@1 아 팔월절.
#1 팔월절. 백로가 팔월이난.
@1 으.
#1 경허면은 촐.
@1 으.
#1 경허민 낼 백로여. 기추룩 헷다근에 아이고 하늬ᄇᆞ름 불엇다근에 쳇 하늬분 때랑은에 헤근에 촐 비레 갈 걸로 다 놉덜 다 맞추와.

@1 으.
#1 이녁만 허는 거 아니니까 막.
@1 예, 예, 예.
#1 다 맞추와근에 와근에 거허곡 허민 막 무끌 사름 맞추곡 경 헙니다게.
@1 여기 촐 흔 바리는 몃 뭇을 헤?
#1 서른 개.
@1 서른 개. 낫, 낫으로 비니까.
#1 으. 서른 개. 나도 촐 잘 비어나수다.
@1 으. 촐 빌 땐 노래들도 부르멍 헤?
#1 아이고. 어떤 사름 놉 빌엉 가신디 그 사름 발레 심지젠 나 막 헤난 거 잊어불지 아녀.
@1 으.
#1 발레 심져낫주.
@1 으, 발레 심진?
#1 발레 심진다는 거는양, 뒤에서 비어가당 그 사름을 냉겨쳐근에, 냉기쳐근에 가불믄 그 사름이 나머지 다 비엉 오젠 허믄 막 애먹주게.
@1 어.
#1 거난 것이 발레 심지는 거.
@1 발레 심지는 거. 거난 먼저 가불면, 이.
#1 뒤엣 사람이.
@1 뒤엣 사름 다 헹 가는 거.
#1 다 헹 가사주.
@1 검질멜 때도 경헌덴 허멍예?
#1 검질도양 경 허는 사름 경 허여.
@1 익은역 헹은에 가불면 뒤엣 사름이.
#1 예, 잠깐예.
@1 그추룩헌 거를 발레 심진덴 허고, 검질도 익은역허고 쎈역 이렇게 하면.
#1 것도 발레 심지는 거.
@1 것도 발레 심지는 거.
#1 경허민 그 역은 체로.
@1 으.
#1 이쪽 사름이 꿰부령 그 사름 막 궤롭히젠, 장난으로게.
@1 으.
#1 겨믄 완전 궤롭히젠 허는 게 아니고 장난으로, 이거 영 헤영 쭉허게 메갈 거 아니. 고랑 이거 잇어도 요거를 쪼금 이걸 더 냉겨둬근에 둘아.
@1 으.
#1 게믄 이 사름이 애먹지.

@1 으.
#1 경허민 막끗텐 막 웃으멍 헤근에 도와줄 사름도 잇곡.
@1 으.
#1 또 조름에 뒤엣 사름이 막 성질내근에 쌉는 사름도 잇곡 경헙니다게.
@1 (웃음) 게, 그렇게 허는 걸 발레 심지는 거예?
#1 발레.
@1 게니까 그 뒤에 사름안티 허는 게 발레 심지는 거지예?
#1 발레 심지는 거.
@1 예. 촐 빌 때도 겅하고.
#1 게난 우리 놉 빌언에 간디 우리 셋아부지가 막 촐을 잘 비난에 또 우리 오빠가 또 나보다 흔 술 우이가 촐 잘 비어. 경허난 막 그 촐 비레 갈 때 미시거엔 허난. 우리 놀레 간 안 온 디 둘아난 분 거라. 막 둘아간 허난에 야, ○○이 저 기○이영 저 촐 비는 거 연습헐탸? 나 연습허주. 허나마나 나 오빠 일등허주, 나가 이기주 허멍 허난. 게건 헤보렌. 동네 사름 ᄒᆞ나 빌엉 간 거라. 경허난 죽저살저 막 큰밧 신 디 비어가난 그 오빤 넹기지 못허주게.
@1 예.
#1 넹기지 못허, 나보담 흔 설 우, 촐을 잘 비어.
@1 으.
#1 서울 살단 와도. 경헹 헌 건디 그 동넷 어룬은 뒤에 비는 건디. 양 새에 세운 거주게.
@1 으.
#1 이딘 우리 오빠허고 이딘 그 어룬허고 이딘 난 헌 거주게. 우리 오빤 이리 둘아나분 거고. 사춘이주, 우리 셋아부지 아들이난. 일로 둘아나불곡. 이 어룬은 일로 비는 디 난 일로 둘아나 불고.
@1 으.
#1 우리 고몬 이디 비난 그 어룬은 뭐 넹긴 거 말고 기자 흔디 가불고.
@1 으.
#1 경허난 막끗덴 막 애썬 이젠 허난 강 우린 앚안에. 야, 삼춘 애쓰지 말아근에 빌만이만 비엉 옵서. 우리 낭중에 강 남은 걸랑 둘라불쿠다 허난에. 나 애멕이젠 헷지?
@1 으. (웃음) 게난.
#1 그 어른 요 흔번이 둘아갓주게.
@1 으, 게난 옛날에는 일을 헤도 그렇게 재미잇게예?
#1 쌉질 안허여.
@1 쌉질 안헹은에 서로 도우면서 헷는데 요즘은.
#1 예. 요즘 시대는 몰라. 우린 요즘도 일 안 뎅기난 일 강왕 영헤라 정헤라덜 ᄀᆞᆯ아가믄 아이고, 멋잇게시리덜 허멍 허주 거 뭐꽈? 난 경 ᄀᆞᆯ아 불주.
@1 으. 여기서도 막 그 당근허레도 가곡 헙니까?

#1 아이고 막 난리주게.
@1 으, 놈삐 헐 때도 가고.
#1 막 저 하루에 구만 오천 원썩 얼만썩 헤놓난에예.
@1 아이고.
#1 난리우다, 난리.
@1 게, 헤 봐야 그 저기 그 사람네 남는 게 엇이크라.
#1 일당 나올 게 읏이.
@1 그니까.

구월

@1 그다음에 구월 뒈면 여기 당에도 가야 뒈잖아예? 음력 구월에 여기 당에 안 가?
#1 구월, 우리는 구월에 가는 당이 엇수다.
@1 그러면? 여기 본향은 그때 언제 간다고 헷지? 본향당에 가는 거.
#1 팔월.
@1 팔월에, 음력 팔월에?
#1 아니 칠월[칠뤌].
@1 으.
#1 마풀림 초일뤳날 허면은 팔월 오일.
@1 으, 이번에 팔월 오일.
#1 양력으로. 경 뒐 거우다.
@1 칠월 칠일예?
#1 으, 칠월 칠일.
@1 그때야 마풀림 허는구나.
#1 그때야 마풀림.
@1 예.
#1 경허면은 구월달에는.
@1 곡석 헤갖고 바치거나 그런 건 엇어?
#1 예, 엇어.
@1 으, 게믄 정월하고?
#1 아니. 경허면은 또 이제 그 사 제일, 십일월, 음력.
@1 예.
#1 십일월 십사일날.
@1 아.
#1 그때 갑니다.
@1 이건 사 제일?
#1 사 제일이라고 헤근에.

@1 그 본향에 가는 거잖아?
#1 본향에.
@1 게믄 삼춘, 다시예, 본향에 갈 때 일월에는 언제 가?
#1 초이틀날.
@1 으, 일월은.
#1 음력양.
@1 예, 음력 초이틀날 가고.
#1 초이틀날 또.
@1 두 번째 갈 때는?
#1 이월 영등달 열사흘날.
@1 열사흘날, 영등달 가고.
#1 으, 영등달.
@1 그다음에.
#1 칠월 마풀림.
@1 칠월 마풀림.
#1 초ᄋᆞ드렛날, 팔일날.
@1 칠월 칠일이 아니라.
#1 팔일날.
@1 팔일날예?
#1 팔일날.
@1 칠월 마풀림.
#1 마풀림. 또 본향 사 제일.
@1 으. 본향 사 제일은?
#1 사 제일은 십일월 십사일날.
@1 십일월 십사일.
#1 십사일 경헹 갑니다.
@1 것도 다르다.
#1 딸릅니다.
@1 예, 예.
#1 손당광도 틀려.
@1 그러니까.
#1 경허곡 이 진안당은 자기 가고 싶은 날.
@1 으, 진안당은.
#1 쳇, 쳇 저 정월달 들어근에 쳇 저 쥐날예.
@1 예.
#1 그날. 경헌디 그날은 별로 좋지 아년덴 헙니다. 사람마다.
@1 사람마다예.

#1 첫 쥐일 안 가근에 용날.
@1 용날.
#1 용날이 이 보통으로 가주.
@1 진안할망당은?
#1 예, 진안할망당은.
@1 게믄 진안당은 그냥 자기 생기 맞는 날 가는 거고.
#1 예. 겐디 일월달에 가는 사름은 쳇, 저 쥐날.
@1 쥐날예.
#1 경헹 갑니다.
@1 진안당. 이제 요번에 신술당.
#1 거는 저, 그거는 유월.
@1 으.
#1 초일뤳날.
@1 초일뤠.
#1 예, 또 두 번차 이제 초일뤠에 못 가민 열일뤠.
@1 열일뤠.
#1 또 열일뤠 못 가면은 스무일레.
@1 예.
#1 경허면은 이 어룬들이 굴읍니께.
@1 으.
#1 초일레는 이제 기다리는, 저 기자 우리가 가는 거난 허는디.
@1 으, 할망이 기다리겟지.
#1 할망이 이제 또 안 가면은 안 간 사름 기다릴 때는 이제 앚앙 기다려.
@1 아.
#1 그 십칠일은. 앚앙 기다리당. 또 이제 십칠일 안 가면은 이십칠일에 간다는 때는 누웡 기다린다.
@1 아. 성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웡 기다린다.
#1 누웡 기다린다. 이제 오든 안 오든 허게 뒛저. 경 헹 누웡 기다린덴.
@1 으. 게믄 처음에 갈 때는?
#1 처음에는 기자 우연히 갈 걸로 생각허는 거주게.
@1 으, 으, 그건 그런 말은 엇곡?
#1 안 가면은 없고. 두 번차 갈 때는 앚앙 기다리고. 세 번차 이제 아니 와 가민 누웡 기다린다. 누웡 기다린다.
@1 예.
#1 경허난 이거 가는 사름은 세 번차라도 가야 뒌다.
@1 으, 그래서 이번에.
#1 어룬덜안티 그추룩 헨 들어수다. 게난 우리는 가민 초일뤠에 가주게.

@1 예,
#1 경헤영.
@1 기다리지 안 허게.
#1 으, 아녀게.
@1 으.
#1 경헨 허단 딱 이제 그디 허단 어룬이 이 돌아가부니까 이제, 이 지금 그 심방이 당멘 심방이 뎅김 시작헨에 흔 이 년쯤 뎅기나마나 헨 다 어룬들이 안 뎅겻수다.
@1 으.
#1 경헨.
@1 이번에 또 새로 이제 복원을.
#1 복원 이제, 이제 문화재청으로 이제 뭐 허게 뒈난에 이젠 그디는 엇어진 걸로 우리 생각헌 건디. 그냥 당은 잇다만 생각헨. 허민 이제 집이 큰일헐 때만 그 서편을 모셔놩 헙니께.
@1 예, 예, 예.
#1 서편 당이니까.
@1 으.
#1 모셔놔근에 집의 일 헐 때는 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허젠 허니까 보전허켄 헨 헙디다게. 심방이 나인더레 경 ᄒᆞ관데, 그디 뎅기지 아녀는디 그자 그대로 뭐 헹은 안 뒈쿠과 허난 옛날 헤난 거를 보전을 전부 시켜야만이 그 문화청에서 이제 우리 본향 거 허는 거를 허게 뒈쿠다 허난. 게믄 경허거들랑 헙센.
@1 으.
#1 경헹 허난 주인안티 허락 못 받으니까 이번 헤서 이제 그 검은ᄆᆞ들러레 갈 걸로 허여수게.
@1 아 그러면은 그거를 당을 옮겸구나.
#1 옮길 걸로 이번 축원헤수게.
@1 아. 게믄 검은ᄆᆞ들이.
#1 동짓둘. ᄀᆞ튼 디우다.
@1 검은ᄆᆞ들이 저기 뭐우꽈?
#1 검은ᄆᆞ들이 ᄀᆞ치 뎅기는 디우다게. 갈란.
@1 갈란.
#1 이제 이디 못 간 사름은 그디. 이디 못 간 사름은 그디, 할망이.
@1 으.
#1 할망이 여라이난.
@1 으.
#1 이디 이제 아들허난 이 검은ᄆᆞ들은 그 어멍이 헤나수다.
@1 예.
#1 그 할, 심방 어멍.

@1 심방 어멍.
#1 조○배 어멍인디.
@1 으.
#1 다슴어멍이라.
@1 으.
#1 그 어멍이 검은ᄆᆞ들은 허고 이딘 인배가 헌, 큰당 멘 어룬이 허곡. 경허난 또 이젠 이 당에서 또 이젠 어디 동남 소개틀 할망이 또 이젠 뎅기단. 또 이젠 수산 또 ᄒᆞ나 그런 할망이 잇어. 그디 수산당[-땅]이난 나가 뎅기겟다.
@1 예.
#1 게난 요 요 칠낭궤에 헌 디 왕 모션 다 자기만 허단에 그딘 이제 막 개간헤 부난 없어지고.
@1 으.
#1 똑ᄀᆞ튼 당인디.
@1 예.
#1 경허난 이젠 이 검은ᄆᆞ들이 문화.
@1 문화재 같이.
#1 같이 뒈부니깐 아메도 이 부락 뭐가 뒌 셍이라. 게연 허니까 그디 허가 안 주켄 허난에 이제 그 당을 그레 모셔가쿠덴 이번 재연허멍 헤수게.
@1 그러면.
#1 게난 이젠 잘 뒌 거.
@1 이제 이 신술당은 여기는 엇어지고.
#1 엇어지고.
@1 저쪽으로.
#1 게난 동짓둘 초일렛날 또 그레 갈 거.
@1 으. 동짓둘 초일레예.
#1 초일렛날.
@1 게믄 그때는 검은ᄆᆞ들당에서.
#1 검은ᄆᆞ들 갈 거.
@1 이제 와수다 헤갖고.
#1 예, 모셔가는 거.
@1 모셔가는 거예.
#1 우리 다 그디 와수다.
@1 음.
#1 경헐 거.
@1 예.
#1 요번은 그레 가쿠다. (웃음)
@1 예, 이번엔 가쿠다 이제 하고.

#1 경헤수다.
@1 아까 삼춘, 서편당 헹은에 뭐 식게 허거나 헐 때도 항상 모셔?
#1 허는 집인 헤도 아녑니다.
@1 어.
#1 아녑니다.
@1 그거는 무사 헤신고예?
#1 아니 그 이것이 저 뱀당 아니우꽈?
@1 예, 예.
#1 게난, 이 질레서 이 수산은예 게난 거 조심허렌 허는 거우다게. 수산 어룬덜은 이 질레 차 착 가당 쳐 분 거 잇어.
@1 으.
#1 경허믄 사람마다 뜰립니다게.
@1 예.
#1 그거 척허는 사람 잇고, 아녀는 사람이 잇고. 경허민 이 수산 사름덜은 보통 그거에 그 뭐 허는 사람이 많아.
@1 아.
#1 경허민 그걸 허면은 이제 영 아픔이나 무시거 허민 그거 본 디 때문인가 자기 의심이 듭니다게.
@1 예, 예, 예.
#1 경허면은 그 서편으로 강, 그로 강.
@1 으.
#1 허민은 당장이주게.
@1 예.
#1 경헤근에 그 인배 이신 땐 경헤근에 이제 허곡. 우리 집이도 나도 멧 번.
@1 으.
#1 저 우릿 집의 아방도 그 신이 약허여. 허난에 이젠 저 아이덜 미시거고 허난 그거 봔에 이젠 막 죽어가 가난 이젠 인배인디 완 아 영 정 헨에 헴젠 허난에 아이고 어르신 뭐 헤수덴.
@1 으.
#1 게난 당장 그 저 그 뭐헌 사름이난 쪼그만헌 사름덜신디렌 어르신 어르신 헙니다게.
@1 예.
#1 경헤연 허난 출려근에 저 메틀날날근에 글읍센. 경헨 그디 간 오난 살아.
@1 아.
#1 산 건디 그디가 없어져 부난 또 이젠 누게가 이제 서귀포서 완에 그거 헴서렌.
@1 으.
#1 그디 춪안 완에.

@1 으.
#1 경헨 허난 아이고야 어떵허연 춪아간 헤신고 허건 디. 그것도 수산 아이라.
@1 으.
#1 수산 아이 서귀포에 강 사는 목시질 허곡 허는 아인디 미시거 허난에 그추룩 헷젠 허난 심방 빌언 그디 완에 헹 가구렌 허멍. 가이 게나제나 희사 잘 허는 아이우다.
@1 예.
#1 허건데 잘헴저마는 느 춪아감은 잘헷저.
@1 으.
#1 그 ᄉᆞ시에 강 이디엔 허난 심방도 벳깃디 넌출 에염 이시난 베겻디라도 허겐 허연 헤연 가수게.
@1 으.
#1 허멍 덕 입언.
@1 예.
#1 경허난에 기자 이 수산은 큰굿을 허나 집이 무시걸 빌젠을 허나 허민 이 서편 출려 놉니다. 차롱에.
@1 차롱에 영.
#1 차롱에 기려, 기려 놩.
@1 아 그려낭은에.
#1 그 창호지에 영영 물아놩.
@1 예, 예, 예.
#1 그 환상을 기려.
@1 예.
#1 기령 차롱에 톡허게 놩 쏠 영헤근에 차반지에 놓곡. 요디 술잔 ᄒᆞ나 놩 기려놩 본풀이 헤붑니다.
@1 예. 그 사진 봣던 거 같애. 그냥 뱀 형상.
#1 으, 기려 놩.
@1 만들엉예, 이렇게 헤서.
#1 영 기령.
@1 어. 이렇게예. 어, 아 그거를 서편.
#1 서편.
@1 서편.
#1 뱀 허는 것이 서편 아니꽈.
@1 예.
#1 토산당.
@1 토산.
#1 토산이 다 그거주.

@1 으.
#1 토산에서 온 거 아니꽈?
@1 으.
#1 토산당[땅] 한집. 웃음.
@1 토산당 한집. 게난 그 서편 하는데 토산당 한집.
#1 토산당 한집이렌 헙니께.
@1 예, 여기도예.
#1 토산당 한집이엔.
@1 아 식게 헐 때도 흔 구석에 이렇게 놓고.
#1 흐는 사름도 아녀는 사름은 아녑니다. 이거 그 토산에서.
@1 예.
#1 뭐가 물려온 사름이 잇주게. 경허면 저 아방 어멍으로나 할망으로나 헌 집인 헤도 이디 그거 모신 사름 엇수다. 집이 모신 사름은.
@1 집이 모신 사름은?
#1 칠성엔 헌 건 모사온 사름 하.
@1 으.
#1 어디 가근에 그 저 집이 그 안투에.
@1 예.
#1 그런 저 눌 헤여근에 모사온 디는 할망이 그 친정에.
@1 예.
#1 그런 거 모신 집이 사람이 씨집을 와. 씨집을 오면은 어떵어떵허당 보민 애기를 못 키우나.
@1 으.
#1 무시거 허면은 이제 어디 강 들으민 기치룩 헷젠 허믄 그거 모셩. 이 우리 종손칩이도 경헨에 애길 못 키우난에 이젠 그거 허난 그 안칠성 그거 헤영 꼭 식게 때는양.
@1 예.
#1 그 흐나를 출려근에 차롱에.
@1 예.
#1 떡 흔 정반 놓곡 메 놓곡 술 놓곡 헤근에 자꾸 고팡더레 앗아가.
@1 으.
#1 지금은 고팡이 엇주마는.
@1 예, 예.
#1 경헤영 허믄 우린 씨집 와근에 허민 이걸 어떵 헴신고 어떵 헴신고 허민, 듣주 어머니안티 강. 영 정 영 정 헙디다. 그디 영정 헨에 친정에서 물려완에 그 칠성 물려와실 거여. 경허난에 그 애기 난 어려우난에 그거 헤연 헴실 거여. 느네 종손칩이 그 칠성 잇젠 허는 거 닮아라. 경헤영 허민 그 칠성에 올려난 거는 놈을 안 줘.
@1 예.

#1 이녁 식구만 먹어. 경헤근에 허영 헤도 칠성 헌 집덜이.
@1 으.
#1 경헌디 굿헐 때는 칠성이 모시든 안 모시든 큰굿 헐 땐 안네 다 모십니다.
@1 예, 예. 안네하고. 또 밖에 주젱이 헹은에 밧칠성 허는 디도 잇더라예?
#1 예, 주젱이 창 허는 거.
@1 게민 안에 허는 사람은 밖에도 꼭같이 합니까?
#1 아니.
@1 그건 아니고? 으.
#1 안에 허는 건 거 기자 안네 저 곰팡더레 그 저.
@1 출려놩.
#1 출려놩 그 모시는 거주. 아년 집이도.
@1 게난 그 안칠성 말앙 조왕에도 허는 것도 잇지 안 해?
#1 조왕에도 잇곡. 또 어떤 집인 또 이 나 요자기 강완에 골앗주. 방울 할망도 잇어낫수다.
@1 예.
#1 방울 할망엔 헌 건 그 우리 강 보믄 우리 이젠 요번이 간 디가예. 처음 헌 거는 그 우리 이제 그 칠성당이곡.
@1 예.
#1 그 이쪽으로. 그때 선생님은 안 와봇주.
@1 예. 나는 도의회 갓다완.
#1 우이 영 모신 거 잇잖아.
@2 예, 예.
#1 그거는 족지할망.
@2 족지할망.
#1 으, 그 우이 따로 모신 거는 족지할망.
@2 어.
#1 그것은 허물할망이주.
@1 허물할망. 예 예 예.
#1 족지할망이엔 헌 거.
@1 예, 예, 예.
#1 또 이쪽더레 헌 거는 그 산신으로 출려 논 거.
@2 소고기랑 막?
#1 으, 으. 산신 그거 소고기적 무시거. 글로 이레 헌 거는 그 이제 그 ᄋᆞ드렛당 허곡 이제 같이 출려 논 거라.
@2 으.
#1 경허곡 그 저쪽 구석더렌 방울할망이렌엔 헌 것이 잇어근에, 이 우리 친구 춤 이디 인칙이 문저 온디. 떡을 요망썩 방울을 헹 갓어. 우리 강 보민.

@2 어.
#1 성님 거 미시거꽈? 허민. 방울할망 아니가? 방울할망은 무시거꽈? 허믄. 지네 씨어멍이 애기 그 막 애기 멧 개 놔도 못 키우난. 그 아덜 ᄒᆞ나 허곡 족은각시 허난 똘덜이 ᄋᆞ답인가 아홉인가 기라.
@2 으.
#1 경허난 이제 어디 강 들으난 ᄋᆞ드렛당이여 어디여 막 돌아뎅견 그 아들을 ᄒᆞ나 봉근 거라. 저번 때 노인훼장님이우다, 나영 ᄀᆞ치 허는. 경헤영 그 아들을 봉그난 어디 가난 그추룩허렌 허난 그 할망이 그 방울할망이멍 ᄋᆞ드렛당이멍 무시거 허멍 잘도 헌 거라. 경허난 할망이 못 뎅기난 우리 친구 그 메누리신더레 전득헌 거주게.
@1 예.
#1 경허난 출령 가. 나 요자기도 간 ᄒᆞᆫ디 앚안 성님, 성님 저쪽이 방울할망이우다 기자 허난.
@2 으.
#1 영영 영영허멍 헌디. 이제 그런 허면은 ᄆᆞ음으로만.
@1 예게.
#1 아 저디는 방울할망이 모셔졋구나. 요거는 족지할망이로구나. 요디는 산신이로구나. 이디는 정당헌 디는 토산당 한집. 경 헨에 다 모셔져십디다게. 요번에 제 허레 갈 때 보난.
@1 요번이 갈 때도? 게믄 일뤳당, 옛날 일뤳당 허면은 그 애기들 허물.
#1 허물 나민.
@1 예.
#1 그 일뤳당이라도 ᄀᆞ튼 일뤳당이라도 그 족지할망이엔 헌 딜 가주게.
@1 아.
#1 ᄀᆞ튼 일뤳당이라도.
@1 일뤳당이라도?
#1 경허니까 그디를 없애 부니까 그 족지할망을 그디 모신 거우다.
@1 아 다른 허물.
#1 요 우이 요만이 헌 디.
@1 허물당이 엇어 부니까?
#1 엇어부난 그디 족지할망을 모시난. 우리가 출령 갈 때, 그레 출령 갑니께.
@1 아.
#1 이디 메도 ᄒᆞᆫ 그릇.
@1 멧 군데?
#1 메도 ᄒᆞᆫ 그릇.
@1 으.
#1 떡도 이젠 이디는 차롱에 놩 가도 이디는 두 개. 역불 ᄯᆞ루 놩 메 ᄒᆞᆫ 그릇에. 떡에 술 ᄒᆞᆫ 펭에 쏠 놔근에 제비쏠에, 저 불전에, 놩 딱 출려놔. 출령 강 올립니다.

@2 이 여기가 족지할망?
#1 으. 으.
@2 위에 쪼그맣게예?
#1 헌 데. 여기가 산신.
#1 으.
@2 가운데 본상이고.
#1 본상이고.
@1 여기 소고기영 미나리영 올린 디.
#1 요 끗뎅이는.
@2 이 끗뎅이는.
#1 저 방울할망이 기자 ᄆᆞ음으로 허는 거.
@2 아 요쪽 끝에는?
#1 으.
@2 요쪽 끝에는 방울할망?
@1 그럼 방울할망 헐 때 떡을 동글동글헌 거.
#1 예.
@2 이번엔 겅은 안 헤서라?
#1 떡 심방덜은 안 허여. 가는 사람이.
@1 가는 사람이.
#1 (웃음)
@1 으.
#1 게난 성님 방울할망 저쪽에 신가 엇인가 봐봅서양.
@2 어.
#1 막 웃엇주게.
@1 으.
#1 강 보난 방울할망은 기자 미시거 헤도 뭐 출려놓진 안헤서라마는.
@2 으.
@1 방울할망도 잇곡.
@2 으.
@1 게난 산신 ᄋᆞ드렛당 허는 데는 뭐를 주로 잘 헤주는 거우꽈?
#1 다 ᄋᆞ드렛당은 그것도 기자 똑 칠, 이 거나 ᄀᆞ틉니다.
@1 으.
#1 출령 가는 거든 뭐든 기자 그 가족덜 기자 펜안헤도렌 허는 거.
@1 모든 게예. 맞아.
#1 ᄋᆞ드렛당 가는 거나 이거나 똑 ᄀᆞ뜹니다. 우리 마음 먹는 거든 심방이든 말 곧는 게.
@1 예.

#1 게난 이 가족들 누게 어디 가난 기자 잘허게 헤줍서 허는 거주. 특별헌 뭐는 엇수다. 겐디 이 허물할망은 골아.
@1 예.
#1 아이덜 부스럼 나게 헤주지 맙서.
@2 으.
#1 미시거 헙서. 그런 거 딱 ᄋᆞ드렛당 일뤠에 강 강 와근에 갑니께. 그 족지할망. 아이덜 키울 때.
@1 예.
#1 경헌디 이젠게 그디 설르난 우린 이제 ᄒᆞᆫ 두어 번은 가왓주마는 이디 모셔부니까 막 좋아.
@1 으.
#1 ᄀᆞ치 모시난. 출령 가는 건게 ᄀᆞ치 출리난.
@1 게믄 그 옛날 족지할망은 어디, 어디에 모셔난?
#1 저디 오조리 쪽에 잇어나수다.
@1 아 오조리에. 그것도 여기 지경? 수산 지경?
#1 수산 지경.
@1 그 족지할망 신 동네는 무신 동네?
#1 그디 그디가 울레.
@1 울레.
#1 울레. 우리 친정 밧은 요거고, 요건 고성밧이주.
@1 예.
#1 겐디 바로 이 고성 울담 우이 이추룩 이신디. 우리 어무니신디 저건 무신 당이우꽈? 저디 저 저디만 ᄒᆞ는디. 느네 엇다 후젠 알아진다. 그거 저 일뤳당인디 허물할망당 아냐.
@1, 2 으.
#1 경 골아.
@1 허물할망당.
#1 겨난 아이덜 키울 땐 그디 가는 사름이 막 합니께.
@1 게니깐 옛날엔 허물. 옛날 피부병.
#1 허물 잘 나주게 이 대가리영게.
@1 으.
#1 아이덜 보민 그 학교 가민 이 데가리 막 헌 아이덜이 하나수다게.
@1 게니까.
#1 우리 학교 다닐 때. 경허민 허난 우리도 허민 허물 나게 말아 줍센.
@2 으.
#1 경헹 뎅긴 거. 그것이 족지할망.
@1 예. 거난 당은 없애도 한 군데 다.

#1 한 군데 다.
@1 이 동네 헤난 거난 다 모시는 거네.
#1 ᄋᆞ드렛당ᄁᆞ지.
@1 예, 게믄 그 ᄋᆞ드렛당도 다른 디 잇어낫는데 엇어진 거 잖아예?
#1 예, ᄋᆞ드렛당은 요디. 요디 저 저 거시기.
@1 지금도 잇어?
#1 아니 엇수다.
@1 엇이난 거기다 모신 거예?
#1 검은, 그디는 저 그딧ᄀᆞ라 저 무시거니? 저 효자문. 효자문에.
@1 효자문이 잇는.
#1 효자문 잇는 디가 ᄋᆞ드렛당 잇어나수다.
@1 으.
#1 게난 그 우리 지금 저 누게네 조케네 그 과수원 헤벳주. 다 부수닥질 헨 하우스 덜.
@1 게믄 옛날에 수산 본향할 때 잇잖아예, 본향당 본향제 할 때. 정월초이튿날?
#1 예.
@1 그때도 다 산신 거랑 다 모십니까? 그 안에?
#1 아이구, 아니.
@1 그건 안 하고?
#1 아니 헌디 다 ᄀᆞᆯ음은 헙니께.
@1 아 거느리긴 허고.
#1 그 거느림은 헙니께, 문딱.
@1 상은 출리는 거 아니고예?
#1 상은 출리지 아녕 그 ᄒᆞᆫ 제단에 문딱 헤 놔근에 무시거 허민 그 말명은.
@1 으.
#1 다 헙니께. 처음은 그 본향당 가젠 허민 이 초이틀날은 경 안 헙니다마는. 초이틀날은.
@1 세배허는 거니까이.
#1 세배난 문딱 허는디 우리가 이제 군융굿을 헙니께.
@1 으.
#1 군융굿은 이제 시작헹 저번이 ᄀᆞᆯ앗주만은 헐 때 진안할망신디 왕 처음 감수다, 오늘 굿허레 감수다 헤근에 초헌 드리레 와사 본향에 강 문 엽니께.
@1 으, 진안할망 먼저 들령은에.
#1 먼저 들려근에. 이장 허곡 이제 다 출려근에 그딜 문저 강. 오늘 이제 부락에 영정 헹 굿허레 그레 감수다. 이제 조상님도 이제 그레 옵서 헹 헙니께.
@1 이 수산에는 진안할망당을 정말 크게 생각헴다예.
#1 예, 예, 예.

@1 거기서 그냥 드러냉은에 굿은 안 헤도.
#1 예 게난 관청.
@1 관청.
#1 게난 훈번 이, 저 무속인 완 굿 헤난 셍이라.
@1 으.
#1 막 난리 나수게게.
@1 으.
#1 못 오게 헤삽니께. 그 조용히 비는디, 그런 디 와근에 허게 뒌 거우꽈?
@1 겅허니까.
#1 경헨에 막 문 둘려, 미시거 난리낭. 광고 막 부찌고 허난 이젠 그거 아녕
@1 거기는 할망 정말 조용히 모셔야 뒈는.
#1 게난 그 당이 그 진짜 춤 유명헌 디니까.
@1 예, 예.
#1 이 학교 갈 때 그디 왕 정성들인 사름 안 뒈는 법은 엇어.
@2 으.
#1 우리 볼[뽈] 칠 때도 가믄양.
@1 예. 진안할망신디.
#1 이젠 무심허주, 나가 책임을 지나 우리 노인네로 경기 갑니다게.
@1 예, 예.
#1 요자기도 가와수다마는. 경 거면 알게 모르게 다 아는 거라. 나가 책임인디 진안할망 가근에 영정 헤근에 경기 감시난 할머니 잘 봐주십시오 헤서 이제 막 넘어난 장난으로 경 굴아난 부난 딴 사름덜은 거짓깔이엔. 겐디 우리양 우승기 탄 진짜 이수다.
@2 (웃음).
#1 우승기 두 개 타수다. 성산읍에서 타곡 서귀포 강창익 그 저.
@1 예, 강창학?
#1 지회장 헐 때 우리 사진도 다 이수다.
@1 아.
#1 일등헨에 우승기 타고양, 트로피 세 개 타고, 일등허연.
@1 어. 게난 삼춘 갈 때마다.
#1 노인회로만, 노인회로만.
@1 으, 갈 때마다. 갈 때마다 가근에 저기 헴구나.
#1 아, 엇수다. 갈 때마단 다 못 허여. 갈 때마다 못 헌 때 트로피 타고. 제라히 헌 때는 우승기 탓다고.
@2 (웃음)
#1 진짜.
@1 게니까 마음으로라도.

#1 마음으로라도 진짜양 나 하이고 이거 진짜 춤 경허난 어 회장 각시가 헤야 뒈는디 이거 사무장이 허게 뒈시넨 허민 그 어룬덜은 아히 공치는 책임자난 헷주게 허멍. 경헤도 막 뭐렌 안 골아.
@1 예.
#1 난 막 장난으로 이건 저 이 노인팀으로 가는 거난 이젠 회장 각시가 허는 거주게 허민 나 막 골아 불민.
@1 예.
#1 아, 진짜 무시 못 헙니다.

백로

@1 삼춘 이제는 백로에, 구월에 백로에 허는 거는?
#1 촐 비는 거게.
@1 백로에 아까?
#1 거뿐.
@1 *** 상강에? 상강 허젠 허면.
#1 상강 일시에 저 콩 다 꺼꺼 불곡.
@1 으.
#1 상강** *** 감저 헐 때 감저 다 파 불곡 그거 아니꽈? 추, 곡식덜 다 거둬들이는 거 아니?
@1 으.
#1 경허민 콩허곡 감자는 유월절 그 상강 일시에 다 파지 아녀민 그 구더기 먹어분덴 허멍 헙니께.
@1 예.
#1 상강 일시에 그 일을 추, 추수는 다 마쳐야주게.
@1 다 마쳐야 뒈는 거예? 게난 옛날에 뭐 상강허면 저기 익엇저 설엇저 말앙 눈 감앙 다 비렌.
#1 다 비렌.
@1 예, 그런 말 허지예?
#1 낼 모리 상강인 걸 설민 미시거 헐 거라 다 비어 불주. 경헙니다게. 콩도, 콩도 상강 일시에 선 것덜토 잇어. 보민, 경허민 우리 어머닌 설거들랑 비어근에 저 모두 왓당 담우티라도 걸쳥 내불렌.
@2 으.
#1 그치룩허주게. 경 허믄 몰루주게.
@1 으.
#1 상강일 전이 다 헤들이자.
@1 예. 음력 구월에는 추수허는 기간이구나예?
#1 예, 시월달 상강.

@1 시월.
#1 상강.
@1 상강.

입동

@1 그다음에 이제 입동, 입동헐 때는 뭐 허는 거 이수과?
#1 입동에는 무시거 헐 게 잇어? 김치나.
@1 으.
#1 거시기 새에 김치 다 헤산덴, 맛엇넨.
@1 으.
#1 경헤영 김치허주.
@1 입동에? 아, 그 김장허는 거를 입동에 맞춰 헴구나예?
#1 예,
@1 옛날에는예?
#1 자게 입동 새에 헤 불라.
@1 예.
#1 동지, 동지.
@1 으, 동지.
#1 동지 새에.
@1 으, 동지 새에.
#1 동짓 새에 헤사.
@1 우리 동지 허면은 이제.
#1 동지팥죽.
@1 동지팥죽. 그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
#1 그 여긴양.
@1 예.
#1 그거 허는 사름 엇어.
@1 아.
#1 그것도 헤나민 부정탄덴 헙니께.
@1 예.
#1 절간에 가근에 동지는 허는데.
@1 으.
#1 여기서 허는 사람은 그거 헤근에 죽 쒀근 대문에 착 부지데기곡 헌덴 헙디다.
@1 예, 예.
#1 우린 몰르난. 경허영 허민 그거 헤나면은 해마다 헤산덴.
@1 아.
#1 게난 우린 절간에 다니니까 딴 때는 죽 쒀근에 진짜 춤 그 뭐 만들어 놓곡 헹 아

이들 먹켄 허민 줘도 우린 난 동지엔 안 헙니다.
@1 아.
#1 절간에만 강 헹.
@1 절간에 강 허곡.
#1 으.
@1 겨난 동지에도 이제 액운을 마틀 수 잇다라는 거구나?
#1 으. 경헌덴.
@1 아니, 동지 헹은에 죽 쒀근에 캐우리기도 허고.
#1 영영영 케우리곡 대문뚱에 착 갖당 부지데기렌. 경허민 말** 헌덴 허난. 에이고 우리 메누리 후젠 아녀곡 허민 난 안 허켄.
@1 어.
#1 난 절간으로 강 기자 동짓날 강.
@1 게믄 동지폿죽 안 헹 먹어 삼춘넨?
#1 아니 게난 절간으로 강 먹어.
@1 으.
#1 게민 우리 아이덜은 동짓날은 안 헤줘.
@1 으. 다른 날 헤줘?
#1 다른 날 헹.
@1 으.
#1 게난 막 우리 메누린 어머니 팟죽 쑨 거 맛 좋으난에. 동짓날은 허지 아년다.
@1 으.
#1 딴 날 허게. 헹 먹어.
@1 그것도 부정탈 수도 잇는 거니까 삼춘은 또 안한 거구나?
#1 으.
@1 이 동네 그런 사름덜이 하우꽈?
#1 아니, 엇어.
@1 아, 삼춘은 그렇게 하는 거예? 옛날에?
#1 아 이 동네도 문에 탁 부지데긴덴 허는 디 아녀는 사름 막 많아.
@1 아.
@2 으.
@1 문에 허는 사름도 잇고예?
#1 허는 사름 누게 이시카?
@1 이젠 엇어?
#1 으.
@1 게난 동지 허면 옛날도 폿죽 허는 동지 잇고 폿죽 안 쒕, 안 쑤는 동지도 잇고.
#1 애기동지에는 안 쑤곡.
@2

#1 늙은이 동지에는 풋죽 쑤곡 헌디.
@1 으.
#1 절간에는 애기동지든, 늙은이동지든 다 헙니께.
@1 예, 예.
#1 경허난 뭘 수 이시민 이 집안에서는 동짓날 죽 쑤지 아녀는 게 좋덴 허주게.
@1 으.
#1 경허영 우린.
@2 우린 무조건 죽 헹.
#1 우린 안 쒀봐수다.
@1 으. 아, 젊엇을 때도 안 쒀봔?
#1 예, 우리 어무니네부떠도 저 집이서 경 저 뭐헌덴. 상둘에 죽 쑤지 말라.
@1 으.
#1 상둘엔 헌 건 정월.
@1 예.
#1 삼월.
@1 예.
#1 구월.
@1 으.
#1 상둘 새 것이 상둘엔 안 헙니까?
@1 예, 예.
#1 경헐 때랑 죽 쑤지 말라.
@1 으.
#1 게고 아이덜 어디 나갈 때 죽 쑤지 말곡. 게난 어디 장사허는 사름이 하나가 잇엇어.
@1 으.
#1 나 이거 무시거 말인디. 미깡 장시가 나허고 그 나가 소개헤주고 미깡 장사를 헌 거라.
@1 으.
#1 장사허는 디 이디서 소개 헤ᄃᆞ렌 허민 장사를 헌 건디. 헐 때마다 안 뒈는 거라. 이 사람이. 저 요 어디 저 어디주게. 그 사름이 오○○ 우리 오씬디 오○○엔 헌 사름인디. 확 곧젠 허난.
@1 고성?
#1 그 저, 고성이 아니고 남원 우이 의귀리, 의귀리.
@1 으.
#1 위귀리 사름이라. 경헹 이젠 삼춘 미깡 ᄒᆞ꼼 받아줍서. 허멍 멧 밧디 ᄀᆞ리쳐근에 헹 허민 헐 때마다 안 뒛저 안 뒛저. ᄒᆞᆫ 핸 이젠 우리 친구덜이영 미깡을 타ᄃᆞ렌.
@1 으.

#1 타ᄃᆞ렌 헨 이젠 간디. 이 곳사 어룬네영 이제 막 그, 양 우리 저 미깡 헌디 성님네 미깡 그디 풀고 헤시난에 미깡 타ᄃᆞ렌 허난 ᄒᆞᆫ 메틀만 옵서 강 타게. 갓어. 간 보난 새벡이 그 가민게 간식을 허지 아녑니까게.
@1, 2 예.
#1 간식을 허는디 아침 조반에 간식을 헌 거라. 그 집이 바로 질레 큰 슬레, 저 큰 스라브집이고 바로 도로변이라, 영 헹 들어, 의귀리 들어가민.
@1 으.
#1 경헹, 간디 죽을 쒓어. 죽을 먹엇어. 먹언 미깡 탓어. 또 메칠 뎅기는 디 또 둣날도 간 보난 또 죽을 쒓어.
@2 으.
#1 겡 우리 친구 하나가 야, 나인드레. 경희 어멍. 양허난 이 집인 안 뒐 줄이 잇저.
@2 하.
아이고, 게메 말이우다.
@1 죽 쒀불언?
#1 아이고 게메 말이우다. 난 무사엔 안 허고. 나도 곧젠 허단 지금 헴수다만은 ᄀᆞ만이 기다려보게. 낼도 모리도 ᄒᆞᆫ 댓샌 탈 거난.
@2 으.
#1 낼도 모레도 기다려보게 헷주. 경허난 아 또 둣날도 간 보난 죽을 쒓어.
@1 아침에 편하게 헌다고.
#1 아니 경허난 간식 먹을 거라도.
@1 예.
#1 죽을 쒓어. 경허난 또 나흘 찬 간 날은 또 죽을 쒓어. 아, 이제 나 그땐 이젠 그 누게신더레 우리 죽 먹는 건 아침이 막 좀은 헌디, 장사허곡 허는디 이거 죽을 자꾸 쑤는 건 난 좋아 붸지 아녀다.
@2 으.
#1 나가 경 ᄀᆞᆯ앗주.
@1 예.
#1 게난 그 각시가 아이고 삼춘 경 헙니까? ᄒᆞ관데 경 헤도 장사허는 사름은 이 죽을 잘 안 쑨덴 헌다.
@1 으.
#1 아이고양, 기꽈? 난 그건 몰라수게.
@1 으.
#1 경헨 허난, 경헌디 기자 허는 것마다 기자 저.
@1 안 뒌.
#1 안 뒘수다. 경허난 게메 경허난 자꾸 간식 기자 저 우린 아침 먹언 왐시메 밧드로 가근에 저 무시거 음료수나 ᄒᆞᆫ나 헤영 딱 테우곡 헷다근에 점심 헤근에 먹으민 뒐 걸 아침 먹언 왐시난 경 죽 쑤멍 무시거 안 헤도 좋다. ᄒᆞᆫ 번 죽이랑 쑤지 말라.

@1 으.
#1 나가 경 헷주게. 아이고 경 헙니까? 아이고 경ᄒᆞ민 인칙 ᄀᆞᆯ을 거 아니우꽈?
@2 으.
#1 시상에 경ᄒᆞ고렌.
@1 @2 으.
#1 그 딴 놉덜 빌어도.
@1 아, 게메. 웨냐면 굶엉 왐시카 부덴 헹은에.
#1 기자 우린 먹엉 가는 건디. 경허민 딴 딘 간 때는 먹엉 가민 ᄒᆞᆫ 아옵 시 뒈민 간식 줍니께게.
@1 으.
#1 경헤영 허는 거난 허는디, 아이, 이상허덴 허난. 그 우리 친구가 아이고 경희 어멍아 원 이딘 무사 이치룩 죽만 쒐시?
@2 어.
#1 게메 말이우다. 나가 그 말이우다. 나가 그자 경만 헨. 속솜헙서, 우리 기다려보게.
@1 으.
#1 경헹 나흘 찬 간 ᄀᆞᆯ앗주게. 경허난 하이고 경 헙니까? 경 헙니까? 경허연 ᄒᆞᆫ 번은 그 뿐엔 우리 닷새 가난 무시거 헌 건디 둣해엔 이젠.
@1 죽을 안 쒓구나.
#1 아니 죽은 쒀신디 안 쒀신디. 둣해엔 또 이젠 온 거라. 완 저 미깡 장신 어떵 뒈엄서? 허난, 그자 그럭저럭 헴수다, 허멍. 게난 어떵 무사 왓어? 허난 저 요 고성 저 어디양 미깡낭, 아 미깡 큰 밧 잇젠 헨에 그디 보려 가젠 헨 삼춘이영 ᄀᆞ치 가젠 허멍 ᄒᆞ관. 나 가민 나 알아? 놈이 밧디 미깡 허는 거 알아? 허난, 헤도 ᄒᆞᆫ디 글읍서, ᄒᆞᆫ디 강 보게, 강 보게. 아이, 난 몰라 놈이 것 강 소개허는 디 강 무신 멧 관 나켄 무시거 허민 나 미시거 헐 거난, 아니 강 바려 봄만 헙서게, 헙서게. 헹 간 보난 미깡은 잘 열곡 무시거 헌 밧 우알층 우알층 헌 밧 헤난 ,아이고 미깡을 잘 ᄋᆞᆯ고 좋음[좀]은 허다 허멍 그 뿐 헨 왓어. 경헨 헌 건디 그거 사고렌 허멍 놉덜 대여 줍센. 나 놉도 못 빌곡 무시거 허켄, 아 경허연 헌 건디 그 각시가 완, 아이고 삼춘, 나 삼춘 말 들엉 아침이 나 미시거 안 헴수게.
@2 아.
#1 그 이딧 사름덜은 밥 먹엉 가난 그 삼춘 말 들언에양 빵도 사가고양, 음료수도 사고 헴수다.
@1 어.
#1 경 장서 허는 사름이 죽 쑤는 거 아녀.
@2 어.
#1 절대 경 허지 말라. 앞으로도. 경 이번만이 아니고. 아이구야. 아이고게. 경 헤수게, 경헤수게. 이젠 막 그 사름 막 장사 잘 뒘서.

@2 으.
@1 옛날 **.
#1 아니 경허난 것산디 운이 따난 허긴 헴주만은. 경 정 어디 뎅기는 사름은 죽 쑤는 거 아니.
@2 아.
#1 ᄒᆞ쏠 허민 죽 쒀 불라. 안 뒈민 죽 쒀 불라 헌 말 ᄀᆞᆯ아.
@1 맞아마씸.
#1 게난 그추룩허민.
@1 미역국 안 먹고.
#1 애기덜, 애기덜. 메역국.
@1 으.
#1 어디 간 때 메역국, 우리 육지 볼 치레 대통령배 간에, 식당에서 그 메역국을 나온 거라게. 이상케이.
@1 아.
#1 아침이. 게난 우리 막 다 돌리고 또 계란 카근에도 안 먹으메.
@1 으, 서꺼진.
#1 서꺼진덴.
@1 ᄀᆞ루 칸 거 안 **.
#1 으, 경 헤여. 어이구.
@1 게난 하나 삶 하나하나가 조심조심.
#1 겨난 엿날, 엿날 어룬덜이 지혜가 그렇게 뭐허다는 거. 우리 시대보단, 옛날 어룬덜이 게난 앞으로는 그런 뭐를게 몰르주게.
@2 예.
#1 경허난 아이덜 어디 가젠 헤도 죽 쒕 멕이곡 미시거 허곡 헴주마는. 시험볼 때 뒈가민 메칠 앞서 우린 아이덜 공불 경 못헤도 경 저 어팡지팡은 난 안 헤봣어.
@1 으.
#1 진안할망신디만 강 의지헷주.
@2 아.
@1 예.
#1 진짜. 기자 몸만 건강허게 헤줍서.
@1 으.
#1 오늘 가근에 기자 무사히 뭐허게 헤줍서 허는 거 뿐이주. 운이 이시민 뒈는 거, 운이 엇이민 떨어지는 거. 경 허영 마음을 먹으는 거지. 아, 할머니신디 완에 기도드리난 뒐 거다 허는 마음 먹엉은 안 뒈주게.
@1 예, 그렇지.
#1 경허여, 게난.
@1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

@2 웃음.
#1 건강허게만 잘 뒈라. 그추룩헌 거, 게난.
@1 아이, 거난 삼춘이 이렇게 고울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이야.
#1 웃음. 아이구 첨.
@2 웃음. 젊으셔.
@1 진짜 젊으셔.
@2 예, 정정하시고.
@1 그다음에 삼춘 이제 동지 허면 옛날에, 동지도 그 새 ᄆᆞ심 헌덴 허잖아예? 동지에. 새해 아니? 동지도 옛날엔.
#1 으, 게난 으.
@1 으, 그렇게 얘기하고 그.
#1 게난 동지팟죽에 새알 놩 먹나 먹나 허는 이유가 그 (벨소리) 뭐에서 이신 거 아닌가? 그 이유가 동짓둘에도 그 뭐가 이시난 팟죽에 새알 놩 먹는 거 아니?
@1 게난예?
#1 경 헌 거 같아.

십이월

@1 그다음에 십이월.
#1 십이월.
@1 예, 예전에 아, 엿도 하영 헹 먹엇지예, 옛날예?
#1 아으, 옛날이사 십이월달 뒈민 감저 구뎅이에 묻엇당 써거근에 헌 거 밀리주게. 경허민 짤라, 반착 짤라둬근에 그 엿 헤영.
@1 아, 감저로?
#1 감자. 고구마엿이 그렇게 맛 좋주게.
@1 아.
#1 좁쌀엿보다.
@1 예.
#1 경허민 이디는 대중 그 고구말 파당 그 땅 파근에 눌 헹 눌지 안허여?
@1 예.
#1 눌 헤영 눌면은 그것이 허민 잘 보전허는 사름은 잘 미신. 경헌디 저 눌에 눌면은 이땅 막 썩어 분 디도 잇곡 반착썩 썩은 것이 많주게. 경허민 그거 헤근에 막 엿을, 막 엿 헤근에 그거 접질젠 허민 우리 손목이 다 뒈와져도 그걸 다 내불렌 그 엿을 막 만들어. 만들민 첨 우리 어무닌 진짜 첨 심리가 워낙 츰 뭐 고와 놓난, 그 동서덜이 많으니깐.
@1 예.
#1 우리 어무니가 열두 동세가,

@1 그러니까 열두 동세.
#1 허민 우리 어머니가 홀어멍으로 혼자만 살멍도 그 동세덜을 다 거들어.
@2 으.
#1 거들민 다 이제 형님, 형님 허멍 미시거 허는디 엿을 허민, 멧날 메틀 그 엿 헤근에 딸리곡 그 검짓 조칩불로도 숨곡 어떤 땐 나무 허여근에 무시것도 허곡.
#1 (잡담)
@2 으.
#1 경헤연 허난에, 그 엿을 딸려근에 허민 다 줘.
@2 으.
#1 다 그 동서덜 다 이제 와근에 흔 통썩 아져 가렌.
@1 아.
#1 그추룩 허영 허민 이제 곰팡에 놓주.
@1 예.
#1 허민, 우린 이젠 우리 언니영 나영 우리 오빠영 서이가 쏠 거리레 저냑 허레 가도 흔 숟가락 거려 먹곡.
@2 웃음.
#1 흔 숟가락 거려먹고. 단지가 메기주게. 누게 먹고렌은 아녀곡 메기민 우리 어무닌야 저 엿단진이 고망 터져신고라 판칙 읏어라.
@2 (웃음)
#1 누게 먹어수게, 누게 먹어수게, 허민 또 우리 언닌 ○옥이 먹어수게, 난 ○순이 먹어수게. 이치룩허멍,
@1, 2 (웃음)
#1 그치록헤연 섣둘에는 그거 허는 둘. 썩은둘로.
@1 썩은둘로.
#1 비도 잘 오곡.
@1 으.
#1 썩은둘로 비도 잘 오곡 눈도 잘 오민 그것만 헷주 촌에서. 딴 거 헌 건 몰르곡.
@1 그 남평날이엔 헹은에.
#1 냄평날. 냄평날이 엿허는 날이주게. 냄평.
@1 냄평.
#1 잘 튼냇저. 냄평날이 엿허는 날이주게.
@1 냄평날은 언제를 냄평이렌 헙니까?
#1 몰라.
@1 거는 모르고.
#1 거는 모르고 섣둘에 어느 냄평날이 잇젠.
@1 으.
#1 경 헌 날에는 그 엿을 헤도 둑엿을 헤여도 그 약.

@1 약 뒌덴?
#1 그 날 정헤진 날에는 약, 엿이라.
@1 으.
#1 뒈지 놔근에 엿을 허주.
@1 예.
#1 그 막 파든벵. 옛날에 배 아픈 사름 허민.
@1 예.
#1 나도 멧 번 헷주. 우리 집의 아방이 그 지금은 경 건강헤도 뭐 허니깐 그 뒈지고기 놩 허민 우리 씨어머니가 기자 저 도세기, 남자는 도세기통에 가두은 도세긴덴. 여자가 헤 줘사 먹는 거난 엿이라도 허렌 허멍 시겨줘. 경허믄 그 똑 약으로 멕일 거는 그 냄, 냄평날, 그날.
@2 아.
#1 그날은 허민 그때는 이 집집마다 엿 아녀는 집이 엇어낫수다.
@1 그러니까. 이 동네 엿들을 하영 헷구나.
#1 막 엿 많이 허여. 게민 엿, 엿 사연이 많주 춤.
@1 게믄 엿 사연을 골아봅서.
#1 엿 사연이 많주게. 어느 집이도 엿 헤영 놔두난 다 먹어벤 엇어라. 미신 정월 멩질 떡허영 먹젠 그건 허영 나두주게.
@1 그렇지. 그거 찍어 먹어야 뒈니까.
#1 어, 떡 찍어 먹젠. 경허영 놔두민 어느 집이도 메기라렌 허멍덜 나왕덜 웃곡. 단지가 다 터져벳저 미신. 단지가 깨어졋저 허멍덜 막허는 엿날엔 이 수산, 딴 딘 몰라도 좁썰엿은 별로.
@1 으.
#1 다 감자엿.
@1 아, 감저엿예.
#1 감자, 엿이 막 달주게.
@1 으. 감저엿에 뒈지고기도 놓고, 둑도 놔?
#1 아니, 그것에 아니고. 그 엿기름 짜 놔지고 닥 놔근에 삶앙 거 주곡. 뒈지고기 썰어놔근에 허곡. 또 그거 못헌 사름은 이제 청.
@1 청.
#1 청에 뒈지고기 보까근에 또 그.
@1 으.
#1 기 보호허젠덜 멕이곡.
@1 으.
#1 경허민 우리 어머닌 아이고, 저 좁썰, 흐린조, 흐린좁쏠 헤근에 좁썰헤근에 짜놔근에 영영 영영정헹 허영 허라. 미시거 저 청헌 것보담 엿헤근에 그 뒈지고기 헹 헤근에 헌 것이 아이덜에 낫넨 허멍.

@1 으.
#1 경허멍 막 시겨주곡.
@1 옛날 보기로 그렇게덜.
#1 보기로.
@1 예.
#1 그 힘이 엇어근에 그 파든병도 헤낫주게. 옛날에.
@1 으.
#1 경헤근에 춤 학교 가민 파든벵 돌아오는 아이덜이 수두룩허여. 우리도 학교 뎅길 때. 우리가 이 초등학교 오 회니까.
@1 으.
#1 경허민 선생이 업엉 집이 돌아가는 사름. (웃음)
@1 베 아팡덜들. 아.
#1 경헌.
@1 게난 요즘 말로 허민 장염일 것 같애.
#1 장염인가?
@1 예, 배 아팡예?
#1 배 아팡 막.
@1 옛날 물.
#1 막 둥글곡.
@2 으.
@1 그런 식으로 이제 파근병에도 엿헹은에 멕이고예, 예.
#1 아, 뒈지고기엿은 확실히 건.
@1 아, 좋아?
#1 예.
@1 삼춘도 뒈지고기엿을 헤낫구나.
#1 아이고 나 멧 번 헤나수다.
@1 게믄예, 삼춘 뒈지고기엿을 한 번 멘들아봅서.
#1 뒈지고기예?
@1 으, 골부떠 어떵 놔?
#1 골, 골게 저 물에 놔근에 불려놩. 잡쌀.
@1 뭘로, 골은 여기서 뭘로 멘듭니까?
#1 아니, 보리.
@1 보리로?
#1 예. 보리로 헤근에 그.
@1 거는 맥주보리나 술오리나 마찬가지?
#1 아니, 아니. 맥주보리.
@1 맥주보리로.

#1 맥주보리 헤영 물적져근에 뭐에 놔근에 그 골을 내웁니께.
@1 예.
#1 이디서. 이제는 다 엿기름 사단 헴주마는.
@1 으, 으, 으.
#1 집이서 이젠 물 적졍.
@1 으.
#1 이제 그릇에 놔근에 그걸 이제 순 나게.
@1 으.
#1 경 더꺼놔.
@1 으.
#1 자꾸 물 줘. 콩ᄂᆞ물 키우듯게.
@1 예, 예.
#1 물 주민 그것이 뽀족뽀족 납니께. 나근에 허면은 이젠 그거 이젠 뿔리ᄁᆞ지 나.
@1 으.
#1 나민 그거 이제 햇빗에 물류와. 물류와근에 그거 엿 허젠 허민 그 보리, 묵은보리 이신 사름은 묵은보리로 일찍도 허곡. 경 아녀민 또 그때 놔근에 허민 그 햇보리는 경 빨리 무시거 허지 못허영 그거, 그걸 물류와사 뒐 거 아닙니까?
@1 그렇지.
#1 물려근에 굴아근에 그거 헤근에 이젠 그 엿기름을 이젠 허젠 허민 그거 이젠 물에 헤근에 불리왕. 그다음은 좁쌀. 좁쌀 이젠 밥을 지어.
@1 으.
#1 밥을 지엉 허민.
@1 흐린조팝으로?
#1 흐린조. 흐린좁쌀. 헤근에 밥 지어근에 엿기름 물허영 담근 데레 서터. 서터근에 그걸 이젠 짤 거주게. 짜근에 이젠 그것에 그 ᄒᆞ썰 영 딸리당 즉시 놩은 안 뒈고 ᄒᆞ쏠 멧 시간 딸리다근에 그때는 뒈지고기 술로 놓민은 너미 딱딱허난 ᄒᆞ썰 기름진 걸로 허렌 허주. 경헤영 허민 기자 딸려근에 이제 그 놓아둠수루, 그릇에 놔둠수루 아침마다 진짜 거려 먹어.
@1 으.
#1 훨씬 그걸로 난 진짜 소원 봐수다게.
@1 아 삼춘도 그걸.
#1 나도 경헤나고.
@1 으.
#1 우리 집잇 아방 나 결혼헌 후제도 멧 번 헹 멕여수게.
@1 예.
#1 지금은 막 건강헤도. 이제 아이덜은 그런 일이 엇이난게.
@1 저도 뒈지고기 엿 먹, 어렷을 때 이제 먹기도 헷었는데. 그 골하고예.

#1 으.
@1 보통 허면은 조팝은 어느 정도 헤?
#1 아, 그것이 저 많이 허젠 허면은.
@1 몇 대 몇 이렇게?
#1 아니 몃 대 몃 헌디, 많이 허젠 허민 헤도 좁썰 ᄒᆞᆫ 사발만.
@1 으.
#1 ᄒᆞᆫ 사발만 허면은 뒈지고기 ᄒᆞᆫ 두서 근 허는 거는 뒙니다.
@1 아 좁쌀 한.
#1 한 사발만.
@1 예.
#1 한 사발만 헤영 밥 지엉.
@1 예.
#1 그 밥에, 이 저 거시기 무신게.
@1 골?
#1 골게, 그 엿기름 물 서끈 거 아니우꽈게. 서끈 것에 헤근에 막 문대겨.
@1 예.
#1 막, 막 문질러근에 좁쌀도 까지곡 허게 막 문질렁 처음 짱.
@1 으.
#1 또 물 놔근에 또 짜. 세 번은 짜야지.
@1 으.
#1 그거를 ᄒᆞᆫ 번 짬만 허민 그 물 얼마나 뒙니까게.
@1 예, 예.
#1 경허민 그 물을 이제 또 헤서 진박진박허게 헤서 또 막 이제 문대겨 놩 또 이제 물 영 놔근에 막 또 젓엉 짜.
@1 으.
#1 또 이제 세 번차 허민 막 그걸 이제 빨레 놀리듯 그 엿기름을 막게 쌀영 이신 걸 막 헤근에 **허게 영 물 짜가민 물이 듭뜨불 아녀곡 ᄒᆞ썰게 부영벳긴 안 헙니다게.
@1 예.
#1 세 번차 짜가민. 경헹 허면은 그것에게 ᄒᆞ썰 딸리다근에 이제 놓민.
@1 게믄 엿, 아까 ᄒᆞᆫ 사발 밥 허잖아예?
@1 으.
#1 엿기름은 어느 정도 놔?
#1 엿기름이라근에게 이걸로 기자 ᄒᆞᆫ나 두 개 푼시만 놉서. 경허민 엿기름이 많이 놀수록 저 맛이 잇는디 너무 많이 놓민 썽 못 먹어.
@1 아.
#1 것도.
@1 거난 것도 허민 ᄒᆞᆫ 홉이나 두 홉 이렇게.

#1 으. 게난 이걸로 ᄒᆞ나 정도 ᄒᆞ쏠 남게 놓민 한 사발 헌 거에는 뒈어.
@1 아.
#1 경헤근에 물 타근에. 경 헙니다게. 엿기름 많이 놓면은 못 먹읍니다. 독 헤영.
@1 독 헤영예? 예. 알아수다.
#1 알아수다. (웃음)

신구간

@1 옛날에 그 저기 이사들 가젠 허면 신구간.
#1 신구간.
@1 삼춘네 신구간에 이사도 가봔?
#1 예. 우린 다 신구간에 멧 번 가수다.
@1 아, 이사 갈 때 얘기헤 줍서.
#1 훈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갓구나.
@1 으.
#1 이번 새집 짓엉ᄁᆞ지 가난 네 번ᄁᆞ지 간.
@1 새로 또 새집도 짓엇구나. 신구간 삼춘 이제 신구간은 언제가 신구간?
#1 십이월달.
@1 십이월달예? 음력 십이월 하면 며칠 뭐 이런 말은 엇어? 여기선.
#1 영 보민 자기에 뭐 헤근에 허민 우리 날 봐근에 기자 허는 때문에 몰라.
@1 아. 그냥 신구간에 가는 거예?
#1 으, 신구간에 가는 거.
@1 겡은에 이사헐 때는 어떤 식으로 이사갈 집 구허는 거는 어떤 식으로 허여?
#1 아, 이사갈 집 구허는 거?
@1 으.
#1 이사갈 집사 뭐 우린 뭐 방향 미시거 안 허고 튼방 막은방게.
@1 예.
#1 그런 거 허민 그 해에 갈 수 잇는 디 그자 튼방. 막은방일랑 가지 말라 허는 따문에 그거허곡. 우리 이번 집 짓은 때는 칠월달에 가수다.
@1 아.
#1 칠월달.
@1 유월에는 안 가는 거지예?
#1 안 가는 거난. 게난 저 삼월달에 뭐 허니까 칠월달에.
@1 어.
#1 칠월 칠일날.
@1 그 더운 데 갓구나게. 이제야 이사 간?
#1 아니, 팔년.
@1 팔년.

#1 칠년 째 뒈, 칠년, 칠년.
@1 아.

잡담

#1 칠년. 그디게 훼전 만들젠 허난 도청에서 갑자기 게난 나도 나주. 우리 집이 바로 그 큰밧 부쪈 이신디.
@1 으.
#1 이제 그 수산 이젠 그 훼전을 만들어야 이제 그 발전뒐 거 아니우꽈게, 모든 것이.
@1 어.
#1 게난 우리 이제 김 이장님이 난 장난말로 알안. 그 말 저 말 곧당 보믄 오래켜. 장난말로 알안에게 야 저 훼장님 저 그 집 저 딴 디 강 짓엉 삽서 허난에. 아이 딴 디 강 짓엉 살젠 허민 어디 강 삽니까? 허난. 아이고 저 그 배추 모종 앚당 싱급센 헌 디 막 집터 좋컵디다. 겡 에이고 이장님도 이제 집 짓젠 허민 돈도 엇곡 허멍. 아니 저 거시기 그 미시거 허여근에 저 딴 디 짓젠 허민 다 뒈 갑니다 허난. 무사, 무사마씀 허난. 경헌디 나 장난말로 아깐 곧긴 헤수다만은 집 저 뭐헤근에 그디 훼전을 저 한번 도에서 만들어시민 좋켄 허난에 어떵허민 좋음직 허우꽈? 난 아깐 장난말로 골아수다마는 어떵 허민 좋음직 허우꽈? 허난에. 어이구게, 도에서ᄁᆞ지 그디를 칙량헨에 훼전을 멘들젠 헴수과? 허난에. 게메 경헨에 요번에 완에 말헙디다. 경허난 혼번 영 생각헤 봅서. 그디 헤근에 딴 디 강 집 짓어근에 헐 욕망이나 이시냐? 경허난 나가 그때 아방안티도 허락 안 받곡.
@1 으.
#1 아이구게, 수산 발전헌덴 헹사게 우리가 딴 디레 가불주. 그딜 딱 훼전 만들젠 허는디 우리가 딱 앚아근에 못 만들게 허민 뒙니까? 저디 질 만들 때 누게네 밧 안 내놩 지금 집 가돠져수게. 경헌디 우리 ᄌᆞ손 우리 아들덜 유전꺼리 만들지 않으커메 혼번 생각헤보쿠다 헨에. 아이고 경 헤영 잇거들랑 혼 번은 도에서 탁 집이 들어온 거 아니라?
@1 아이 이젠 허락 받앗다 헤갖고?
#1 아니 겡 아방신디레 우리 집 아방은 두렁청헨에, 아이구게 그때 이장님 골으난 장난말로 알단 보난 아이구 어떵허민 좋을 거우꽈게 허난에. 아방이 무시거? 아니 이디 집 뭐허민 훼전 만들켄 허난 게메양 허멍 헤수다게. 겐디 아덜덜ᄁᆞ지 그 어멍덜 안 떠난 부난 이디 훼전 못 만들엇젠 헌 말은 들엉 안 뒙주. 나가 그말 골은 건디 그만 김 이장은 허락 받은 걸로 이거 도청에서ᄁᆞ지 와수게. 아이 경 허난 이젠 게민 생각헤보쿠다마는 기자 헐 걸로랑 헴십서. 경헤뒁 그날 어둑음에 시에 돌앗주게. 아들덜 다 모이라, 똘덜 다 모이라.
@1 (웃음) 아, 멋져, 멋져.
#1 아이 경허난 이젠 우리 큰아덜신디레 우선 족은아덜까지 다 오렌 헷주. 큰아덜 집

더레.
@1 예.
#1 큰뚤 이디 ᄒᆞ나 이시난 큰뚤ᄁᆞ지 오렌. 뚤덜은 권한은 엇주만은 경헤도 오렌 헷주. 게난 이젠 큰아덜 이만허곡 저만허고이. 아방은 말 곧을 충 몰르난에 무시거 곧진 안 허고, 나가게 이만허곡 저만허곡이 그디이 훼전 만들켄 허난이 이제 후젠 느네라도 어멍 아방 이제 뭐헤 부난 이디 길 뭐헨에 이제 뭐헷젠 허카 부덴 나, 게메양 허난 영허영 오늘 도청에서 오난 오널 이제 뭐허젠 왓저. 어드레 집짓이민 좋으커니 허난. 우리 큰아덜은 게거들랑 저 누룩뭇디 강 짓으민 안 뒈쿠과? 경 헌 건 이녁 찍세에 밧 준 거주.
@1 예, 예.
@2 아.
#1 우리 또 우리 족은아덜은 다 욕심 잇는 거라. 우리 족은아덜 어머니 그 준못 강 짓읍서게. 그디 가민 그 고잡이서. 에, 난 고잡 것덜이랑 벗 안 허켜. 족은아덜 그 짓으렌 헌디 곶압 것들이랑 벗 안 허켜. 경헤누라 훼전 내불카이? 어떵 허코이? 우리 큰아덜이 허켄 허민 헤얍주게 어떵 헙니까게. 게민 집 저 떠나게 뒈거들랑 저 누룩못디라도 강 짓을 걸로 헙서. 경허라게, 경허민 경헐 걸로 허켜이. 경허연 생각을 헤보난에 그 바로 학교 등어리우다게, 집이.
@1 예.
#1 가까운 디주게, 이디게. 그 집이 잇언 허난. 아방신디레 오멍 누룩못디 강 짓으민 웨ᄠᅳ라지곡 그 학교 등어리에 저 강 짓는 게 난 좋암직허다 허난. 아방이 나 충**네ᄀᆞ라 아방이 이짝 밧 ᄃᆞ렌 헨에 짓어보카헨에. 아방이 그디 짓는 지사 경헨 우리 밧디 짓 좋주. 우리 밧디 짓주.
@1 (웃음)
#1 경허난 확 해결헤 벳주게.
@1 아덜네안티 안 허고 딱 이제.
#1 딱 허게 아덜신디 강 뭐허난 기자 느네 후제라도 무시거렌 곧지 말라이. 우리가 이디 강 짓든 저디 강 짓든 알앙 허크메 어머니네 그 집 내놧젠 헹 뭐렌 허지말라이. 딱 허난 막 좋은 디 강 짓엇주게.
@2 으.
#1 경허난게 그디 ᄉᆞ백 평짜리 넘은 디 집 짓어당 그 한라봉 지금 노지 한라봉 헤여. 이벡 평은 딱 허가 마트젠 허난 이백 평 딱 짤릅디다, 완에. ᄉᆞ백 평 짜리 밧인디. 이백 평 이제 아들신더레 이전 허켄 헤놓난. 이전 이녁이 이제 제주시 집 사업자 등록자 잇곡 뭐허난 이젠 온 거라. 그땐 에에 나 읍사무소 강 알아봉 정○ ** 이름더레 헤부켜. 읍사무소 돌아갓주. 이만저만 집 이전 허는디 지금 아이가 열일곱 살인가 기난. 미성년자난 집은 뒈어도 턴 안 뒙니덴.
@1 으.
#1 아 경허민 잘 뒛젠. 이젠 시에 아덜 신디 전화허연 야 정○○이 이름으로 이전 헤

불라. 터랑 허지 못 허켄.
@1 손지.
#1 탁허게 이전헤 줘볏주.
@1 대단헤, 대단헤.
@2 이 집이 손지로 낫어야 뒈는데.
@1 게니깐.

집알이

@1 신구간 헐 때 이사갈 때 선물 허여 가는 거 이십니까?
#1 아니, 저 미시거 이딘양 저디ᄎᆞ룩 막 미시거 안 허여.
@2 으.
#1 기자 갈 때 허민 미신 요새덜은 퐁퐁 좋넨 허멍 그런 거 헹 가는 사름.
@1 으.
#1 기자 그거.
@1 예전에는?
#1 아이구 예전에 이사헐 때 무시거 아무것도 안 헹 가수다.
@1 아니 성냥이라도 초나 이런 거?
#1 기자 우리 갈 때.
@1 으.
#1 우리 앗앙 갈 때에 그런 거 앗앙 가주.
@1 아, 주인이?
#1 으.
@1 으.
#1 경헌덴 헙니다, 밥통 우선 몬저 들르곡.
@2 예.
#1 경헌덴. 경 헙디다. 우리 멧 번 밥솟을 몬저 들렁 가렌 헨게.
@1 불에?
#1 게곡 그거 성냥 놓곡.
@2 으.
@1 성냥 놓곡.
@2 으.
#1 경허렌 헙디다.
@1 예, 그렇게 하고.
#1 게고 이사 나올 때에.
@1 으.
@2 으.
#1 비차락으로 집 씰지 말곡.

@2 아.
@1 옛, 옛날에 이 남죽으로, 남죽은?
#1 젓지 아녕.
@1 뎅긴덴 허멍예?
#1 안 들렁 것도 버려 버여.
@1 어 남죽도 버려 불곡. 경허곡.
#1 우리가 이 집이 살당 가젠 보민 막 추접헤 보이민 아이고게 이거 궂엉 뒈커라, 그 사람 왕 보민 미시거 허민 비차락질 허민 허지 말아.
@1 겅헤도 요즘 다 청소헤줘야 뒈어.
#1 거 아녀는 거.
@1 아녀는 거예?
#1 것도 알아사주.
@1 예.
#1 어떤 사름은 씰엉 가. 씰엉 가면 이녁이 좋카 부덴 헤도 간 사름이 궂입니께.
@2 으.
@1 아, 쓸어버리는 거니깐.
#1 게난 밥솟디 기자 성냥 들이쳥 아져 가는 게 제일 무면(?)허는 거우다.
@1 음. 겡 삼춘네도 밥솟 먼저 가졍 간?
#1 경헤수다.
@1 그다음에 십이월허면 막 추울 때잖아예? 음력 십이월, 저기 소한이여 대한이여.
#1 대한이여게. 경허난 신구간은 진짜 춥 신구간 때라고 어디 움직거리지 아녀곡. 그 또 죽은돌로게.
@1 예.
#1 기자.
@1 신구간 무사 그때는 집도 고쳐도 뒌덴 허멍?
#1 예. 신구간에. 그 날짜에.
@1 그 날짜에. 으.
#1 그 화장실 ?뜬 거 거찌는 거라도 그 신구간에 거찌주 딴 날 거찌민게 미시거 헙니께.
@1 동티낭은에.
#1 동티낭. 화장실은 더군다나 더게. 딴 거 닮지 아녀는 때문에 우리도 아이덜 제주시에서 변기 고치켄 허난 나 신구간에 딱 날 봔 시님신디 강 봔 그날 고찌렌.
@2 으.
#1 오래 못, 오래 안 헤영 헤도 그날은 시작만 헤도. 시작허라.
@1 으, 시작허라.
@2 으.
@1 신구간에 헷구나예? 이 수산도 막 겨울 뒈민 막 추웁니까?

#1 막 추웁니다.
@1 막 추우지예? 게믄 겨울에 허면은 소한, 대한 추위. 그때.
#1 집이서 다 집이서 놀주게. 그런 때사.
@1 뭐 안 허여?
#1 안 허여.
@1 그렇게 하고예. 그다음에 이제 섣둘그뭄날은 뭐 허여?
#1 섣둘그뭄날 무시거 멩질 출리곡 미시거 헙니까?
@1 멩질 출리곡.

생업

@1 으. 그다음 삼춘 여기에 이제 헤야 뒐 게 뭐냐면은 그 농사 허는 거 잇잖아? 예. 옛날에 이 동네서 하영 지엇던 농사가 뭐?
#1 아, 조.
@1 조. 그다음에.
#1 산디.
@1 산디
#1 ᄆᆞ믈.
@1 으. 모믈.
#1 메밀, 모믈, (웃음) 콩.
@1 콩.
#1 그다음에 난 ᄒᆞ쏠 시대가 흘러가난 유채.
@1 유채.
#1 유채, 콩 헷주.
@1 감저는 언제?
#1 감자.
@1 예.
#1 고구마.
@1 예.
#1 고구마양. 감자가 아니고.
@1 감자. 예.
#1 고구마 그 뻿데기 헐 시절 넘으니까.
@1 으.
#1 많이 이제, 이제는 하영 줄어들어수게게.
@1 예.
#1 메밀도 이젠 없어젼 이제 봄에. 이 봄에 메밀 갈암선게.
@1 옛날엔 여름에 헌 걸예?

#1 옛날엔 칠월에 지금 갈 거.
@1 그니까.
#1 겐디 지금 다 익어선게.
@1 으.
#1 게난 모믈 계약허렌 어제 메시지 왓던데.
@1 아, 기마씨?
#1 봄모믈 계약허렌.
@1 아. 봄모믈 계약허렌.
#1 계약허렌.
@1 여기서도 봄에 모믈 갈암구나예?
#1 이, 저 봄ᄆᆞ믈도 계약.
@1 보리는 안 갈아?
#1 보리 무사게.
@1 보리가 엇언.
#1 봄에, 봄에.
@1 보리.
#1 시월달에 보리 가는 거난.

밭일

@1 예, 게믄 하나씩 헤보게예. 우리가 음력으로 일월부터 십이월 허면 음력에, 일월에 농사 허는 일은 무시거 잇어?
#1 일월엔 엇주.
@1 일월엔 엇어예?
#1 으, 놀아.
@1 이월에는?
#1 엇수다.
@1 검질메는 거 이런 거는, 보리검질.
#1 아니, 엇어, 엇어, 엇어.
@1 일월 이월 엇어예? 삼월에는?
#1 삼월달에는 시월에 저 보리 갈앗당.
@1 예.
#1 그때 밟으곡 검질멥니다.
@1 삼월에 밟곡 검질메고예?
#1 예.
@1 예.
#1 검질 밟아.
@1 밟으고.

#1 저 상강 져근에 막 들러질 거 아니우꽈게.
@1 예.
#1 섣둘 추우난. 경헌 거 그때 밟읍니께.
@1 아, 삼월에.
#1 다 녹아 불민.
@1 아.
#1 삼월달에 다 붋아.
@1 으.
#1 경허곡 보리왓디 검질메곡.
@1 보리왓디 검질메고예. 삼월에.
#1 경허영 경허민 또 이제 보리ᄀᆞ슬 이제 오월달더레.
@1 예.
#1 보리ᄀᆞ슬 헐 거 아니우과?
@1 예.
#1 그 보릿그르에 이제 다 갈아.
@1 으.
#1 갈아근에 조들 갈주게.
@1 조는 언제 갈아?
#1 조 유월.
@1 조는 유월, 조 유월에 갈고.
#1 오월 훈 그물어 가근에 가는 디도 잇곡. 밧마다 뜰립니다.
@1 으.
#1 저 궂인 밧은 일찍허곡.
@1 예.
#1 그 좋은 밧은 유월, 유월절.
@1 유월절.
#1 유월절 물 봥 허라.
@1 으.
#1 물 하영 와근에 유월절날 비 옛날엔게 비 많이 오주게.
@1 예, 예.
#1 게민 유월절 물 봥 허라 헌 말은 그 불려놔근에 물이 이제 넘쳐불카 부덴 물 봐근에 유월절날 넘건 허라 헌 건, 조 대중 유월절 넘어근에 불립니다.
@1 아 유월절 넘엉은에 이제 조는 불리고.
#1 초복 새에.
@1 초복 새에. 예.
#1 초복에 헌 건 제일 늦은 농사.
@1 으.

#1 헨에.
@1 마걷이구나.
#1 마걷이.
@1 그러면 아까 이제 그 산디는 언제 갈아?
#1 산디는 사월.
@1 사월에.
#1 으, 사월 허면은 망중에.
@1 오월 망중에는.
#1 오월 망중에 솔가리민 좋넨 헙니께.
@1 아. 산디가?
#1 예.
@1 어.
#1 사월에 갈저, 사월 그물어 강 가는디 어떵허민 오월 망중에 솔가리민 존다 헙니다. 영 나근에 이 솔.
@1 예, 예.
#1 경헌 거 짐작헤져, 우리.
@1 산디 오월 망중에 솔가리민 좋나. 게민 그만큼 저기를.
#1 경헹 이 유월달 이제 조 불려놔둬 산디왓딜로부떠 조밧 계속 칠월덜ᄁᆞ지 검질멜 거.
@1 검질.
#1 사십일 메수다, 사십일.
@1 사십일.
#1 엿날에.
@1 게난 산디는 사월 허게 뒈민 어느 쯤 헤? 초파일날에 뭐 꿰 간덴 헌 말 잇고.
#1 그거는 초파일날 봥 꿰 가는 거.
@1 으.
#1 저 꿰보다는 나중에 갑니다.
@1 아, 꿰보난 나중에 갈고. 사월 중순 이후에 헴구나.
#1 게민 오월게 그 망중에 솔가릴 거난.
@1 솔 가릴 거니까.
#1 이, 저 ᄒᆞ썰 그물어 강 갈주게.
@1 그러겟네.
#1 초파일 넘엉.
@1 예, 예, 예, 예.
#1 나도 우리 산디 계속 갈아수다마는 메틀날 갈아진 것도 모르고.
@1 (웃음)
#1 이젠 다 잊어비언.

@1 그다음에 이제 그 산디 갈면 산디 수확은 언제 허는 거?
#1 구월.
@1 구월에.
#1 예.
@1 으.
#1 팔월구뭄에 허는 건 막 이른 거고.
@1 으.
#1 구월광 시월에 막 헙니다, 먼딱 헙니다.
@1 구월광 시월 산디 수확 허고예?
#1 그때 시월달에 막 물리우주게.
@1 그다음에 조는 수확 언제?
#1 그것도 그 고리에 ᄀᆞ치.
@1 예, ᄀᆞ치 고리에예?
#1 게난 존 옛날에 헤나난 어느 때 그때 허고.
@1 그다음에 아까 ᄆᆞ믈은 칠월에 갈아.
#1 칠월[칠뤌] 제일 끗데. 검질 헤근에 끗데 이제 모믈은 제일 늦은 곡석으로. 안 뒌 디 밧들. 농사 허당 안 뒌 밧을 ᄆᆞ믈 갑니께.
@1 그렇지. 예, 예.
#1 으.
@1 그다음에 콩은 언제 갑니까?
#1 콩은, 콩 일찍 갈민 미시거 허난, 지금 유월절에 나 요자기 갈아수다. 우리 저 흔 뒈.
@1 그때 삼춘 콩.
#1 아시날.
@1 으, 갈앗덴 헷는데,
#1 갈안.
@1 유월절에 콩. 그다음에 콩 간 것도?
#1 그것도 여름에 다 검질 멥니께.
@1 여름에 검질메고예?
#1 구월달에 ᄀᆞ슬.
@1 ᄀᆞ슬은 구월에 허고.
#1 게난 이제 산디허고 조가 엇이난에 이젠 콩만 ᄀᆞ실허는 거. 그땐 겹치난.
@1 아 .
#1 이젠 엇이난. 경허는 거 아니꽈.
@1 유채는 언제 갈아? 삼춘.
#1 유채가 이제 어 콩그르 팔월, 팔월 나민 기자 가는 거 잇곡. 콩 이신 때 콩 구월에 빌 거 아니우꽈? 콩 이신 디 삐엇당 헐 수도 잇곡.

@1 겡 언제 수확허는 거?
#1 그것도.
@1 보통 봄에 수확헷던 거.
#1 아니, 아니, 봄에 아니, 유월, 사월 아.
@1 보리 헐 때 비지 안 헙니까?
#1 보리 헐 때 비어.
@1 보리헐 때예. 게민 그것도 망종.
#1 망종.
@1 망종ᄀᆞ리에. 망종 전에 다 허는 거잖아예?
#1 다 허는 거.
@1 유채 하고. 감저는 싱그젠 허면은.
#1 감저도 이제 거시기에 무시거우꽈? 하지.
@1 으.
#1 하지ᄀᆞ리에 고구마 놉니께.
@1 으.
#1 하지에 놔사 잘 든덴 허멍.
@1 하지에예.
#1 예, 하지예.
@1 그러면 감저.
#1 하지 넘어도 허곡.
@1 감저 허젠 허면 그 감젓메를 놔얄 거 아니예?
#1 예.
@1 감젓메는 언제?
#1 이월달에.
@1 이월에?
#1 이월에, 음력 이월에.
@1 예. 감젓메예?
#1 모종.
@1 예, 모종예. 그러면 감젓메 이월에 놓면. 그 감저꿀 이거 비엉은에.
#1 비엉은에 하지에 놓곡. 하지에 못 논 사름은 오월 멩질ᄀᆞ리.
@1 오월멩질ᄀᆞ리.
#1 두불 세불 끈으멍 오월멩질 ᄀᆞ리에 다 놉니다.
@1 으, 초불은 하지에 시작허는구나.
#1 인칙 놓면은 멧 개 안 들곡. 유월절 ᄇᆞ뎌근에 놓면은 그치룩 오월멩질 거시기 놓면은 마직마직허게 많이 든덴 허주.
@1 예.
#1 하지에 놓민 일찍 논 건 멧 개 안 들어도 막 훍어.

@1 아, 하지엣 거는 훍으고 그리고 오월 멩질ᄀᆞ리에 헌 거는 막 하영.
#1 그런 것이 수확헐 만 허여.
@1 예.
#1 하지에 헌 거는 일찍 놔봣자 수정 하지 아년다.
@1 아 그렇구나. 감저 이렇게 허고. 옛날에 감저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아까 상강 전이 헤야 됀다 헷잖아예. 거는?
#1 보멍.
@1 거는?
#1 시월달에.
@1 시월달에.
#1 뻿데기 허곡 에이고 쯧쯧.
@1 옛날 감저들 하영 헷지예?
#1 몰르쿠다.
@1 (웃음) 보리는 언제 갈아마씨?
#1 보리 시월달에. 시월께 갑니께.
@1 시월에 갈고예.
#1 이젠 잊어불크라.
@1 게곡 계절이 ᄠ나부니까 곡식도 아까 봄ᄆᆞ믈도 허곡.
#1 ᄆᆞ믈 빌 때 보난 이제사 모멀 갈 건디게. 우린 경 ᄀᆞᆯ아.
@1 이젠 이모작 허는 거라.예. 경허곡 꿰는 언제 갈지? 아까.
#1 꿰 팔월 멩질ᄀᆞ리에 이 꿰는 갈아, 막 허젠 허민 꿰허는 거 애먹읍니께. 더웡. 멩질 전이.
@1 으.
#1 칠월달에도 이제 꿰 비는 사름 빕니께게.
@1 예.
#1 사십일종.
@1 으.
#1 무신 종 허멍.
@1 사십일 종, 육십, 육십.
#1 육십일종 허멍.
@1 으.
#1 경허민 막 꿰 허는 게 애먹읍니다.
@1 예. 그거 꿰는 비 오면은 또 안 뒈고예?
#1 게난 우리도 하영 헤낫단.
@1 으.
#1 기자 그 우린 그 가까운 디 널 디가 좋난.
@1 @2 으.

#1 그디서 허멍 헤근에 허민 우리 동세들 모다들엉 허민 기자 혼 말썩 주멍 기자 그럭저럭헤영.
@1 아, 꿰 하영 헷네. 혼 말 줄 정도면.
#1 막 하영 헤수다, 우리.
@1 게니까. 작년에 꿰도 엄청.
#1 농사는 우리 일등으로 헤수다게, 수산서게.
@1 (웃음) 수산서. 게난 농사지은, 농사지은 사름이 아니라.
#1 조합장 허민. 조합장이 나인디레 골아. 훼장님은 농사만 허멍 어느 트멍엔 이디 뎅기곡 헙니껜.
@2 경허난.
@1 농사지으멍이라도 다 저기 허곡. 지난번에 다 헷잖아.
#1 어떵허여게.
@1 요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십일월에 허는 건 엇어?
#1 엇어. 십일월에 허는 거는 미깡 수확. 이제 허여 들어사민 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1 여기는.
#1 농사허는 건양 엇수다, 엇어.
@1 여기는 미깡들을 하영 헷잖아예.
#1 예.
#1 미깡 일이삼사, 일월에 미깡 수확?
#1 일월에?
@1 아니?
#1 아녑니다. 십일월 이십일부떠 시작헤.
@1 음력?
#1 따는 거. 아니, 양력양.
@1 예.
#1 십일월 이십일 뒈민 일찍 허는 사름은 헤갑니께게.
@1 아.
#1 딱 이십일 뒈민.
@1 게믄 언제까지 수확허여?
#1 일월달까지.
@1 일월까지.
#1 저 십일월 이십오일 뒈민 막 밧딧 거 다 철거허렌 헤도 일월달까지덜 헤여.
@1 십이월 그때면 눈 오곡 막 영 허니깐. 이, 이거는 노지 보통 우리.
#1 노지.
@1 이 동네 요즘 어떤 거 지엄수가?
#1 하우스.

@1 이 동네 하우스 하구나.
#1 다 하우스우다.
@1 으.
#1 하우스 레드향, 천혜향, 황금향. 다 하우스우다.
@2 으.
#1 노지 한라봉들 기자 노지.
@1 한라봉 뭐.
#1 한라봉.
@1 레드향.
#1 레드향.
@1 천혜향.
#1 천혜향.
#1 으.
@1 문딱 헴구나. 황금향ᄁᆞ지.
#1 황금향까지.
@1 어제 뉴스 보난 제주도에 미깡 조수익이 일조 넘어젠 허는 뉴스가 이십디다.
#1 올히, 올히는 노지 미깡이 서귀포더레가 엇덴 헴신게.
@1 꼿 안 피엇덴.
#1 안 피언. 나 오늘 또 미깡 풀 거주게.
@1 삼춘네?
#1 으.
@1 삼춘네 무슨 미깡 허멘?
@2 하우스?
#1 아니. 노지.
@1 노지에 거를.
@2 벌써 익어수과?
@1 아, 저.
#1 상인, 상인.
@1 상인한테.
#1 상인. 다 풀아
@1 밧데기로 그냥 한꺼번에.
@2 으, 먼저.
#1 아덜 거. 아덜 찍세 준 거.
@1 아.
#1 작년부떠 아덜 다 멧겨 벼수게. 줘도 일은 우리가 허곡.
@2 (웃음)
@1 게니깐 풀앙 아덜한테 돈 주곡.

@2 뭐야 대체.
@1 도대체가. 웃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집 일기

@1 삼춘 여기에 그 집 이는 거는 이 동네 언제헤?
#1 이지금 집 일 집이 이수과게. 그전에?
@1 옛날에 집 일 때는?
#1 십일월에 새 비어당 일월, 이월에 줄 비엉.
@1 으.
#1 이월에 이는 사름도 잇고, 삼월에 이는 사름도 잇고 헤수다.
@1 아. 이삼월에 집 일어예?
#1 일엉.
@1 여기는 일 년에 흔 번?
#1 예. 일 년에 흔 번.
@1 그러면 창호지 불르는 것도 일년에 흔 번 헙니까?
#1 아니 어떤 딘 일 년에 흔 번 허는 디도 잇고, 멧 년에 흔 번 허는 디도 잇곡 헷주. 이젠 창호지 불르는 디 엇이메. 옛날에.
@1 으.
#1 우리도 창호지 불르는 데 안 살아나난 몰라.
@1 아. 그니까 삼춘네도 젊은 거라, 이젠예?
#1 젊은 거주.
@1 예. 옛날에 그 지게문들 헐 때는 다 허고. 이 동네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집 앞에 이렇게 그.
#1 풍체. 풍체옌 헙니께. 풍체.
@1 풍체도 하고.
#1 풍체 허는 집도 막 하수다.
@2 으.
#1 옛날 미시거 허민 풍체작데기로 매 맞앗저.
@2 으.
#1 경허는 말도 듣고.
@1 예.
#1 요디도 풍체 잇어근에, 우리 어무니신더레 저디 집 앞이 나온 건 미시거꽈? 허민 풍체 아냐, 풍체.
@2 으.
#1 경헌디 역아 가난 아 그 집이 싸완에 풍체작데기로 뚜렷젠 헤라. 무신거.
@2 (웃음)

장 담그기

@1 그다음에 삼춘 장 담는 거.
#1 장 담는 거는게, 거시기.
@1 언제 콩은 언제 숣아?
#1 난 장을 계속 나는 담그는디.
@1 예, 요즘도 담가?
#1 지금도 담앗주. 저, 헌디. 십이월에, 아 음력 십이월.
@1 예.
#1 초에 숣아사 한 달 물류와.
@1 아.
#1 한 달 띄와.
@1 예.
#1 허면은 섣달그믐날 정월달에는 상달에 장 안 둠읍니께.
@1 예, 예, 예.
#1 섣둘그뭄날 딱 떡허레 강 왕 메준 아침에 다 시쳥.
@1 으.
#1 놔둬근에 떡허레 가주. 떡허레 강 와근에 섣달그뭄날 딱 담읍니다, 난. 경허민 또 갈르는 거.
@1 으.
#1 갈르는 거 삼월달.
@1 삼월에.
#1 사월달에 장 안 갈른덴 헤근에 사월 춤 이제 그뭄 새는 갈라사주.
@1 예. 예.
#1 경 헤영.
@1 겨믄 삼 개월 이경은에 헴구나? 장 갈랑예?
#1 딱 섣둘그뭄날 둠아근에 삼월그뭄에 보민 장이게 뭐허민 갈랑. 또 콩 이제 새로 삶아. 이제 이월덜에나 콩 삼월달에 갈를 거난 이월달에 이제 두 둬나 이제 흔 말 허민 이제 두 둬 또 난 따로 삶아. 삶앙 또 밟아, 밟앙 다라에 놩 막 띄와. 청국장ᄀᆞ치.
@1 예.
#1 그렇게 찰찰 허게 띄와지민 막 좋주게. 영 봥 딱 더꺼놔두민 헤영케 그 발효둬면은 장 갈룰 때.
@1 장에 ᄀᆞ치 서꺼.
#1 그 장 서꺼.
@1 서껑.
@2 아.
#1 그축허믄예 장 우 검지도 아녀고 메줏가루 사당 헌 것보단 더 좁니다.
@1 아.

#1 게난 난 장을 멧 집 먹는 중 알아?
@1 으, 열 집?
#1 서울 두 집.
@1 으.
#1 제주시 세 집.
@1 예.
#1 나 허민 다섯 집.
@1 으.
#1 우리 동서 어멍 아방 다 죽어벳주.
@1 으.
#1 게난 그 메누리가 잇어.
@1 으.
#1 조카. 가이 저 신례릿 아이 온 디. 가이.
@1 조케 것까지.
#1 그거 가이.
@2 와.
#1 먹으니까. 작년에는 너 말.
@1 으.
#1 재작년이가 너 말 담앗구나. 또 작년에는 그거에 이제 허연 두 말. 올힌 또 두 말 헷주.
@1 아.
#1 게민 이제 서울서도 손지덜이 시장에 강 상 장 국 허난 못 먹겟덴. 경헴젠 허민 또 보내곡.
@1 @2 웃음.
@1 아, 진짜 어느 시간에 하고 그 일하고.
@2 아이고, 참.
@1 게믄 그 장을 그렇게. 삼춘, 고추장도 담아봔?
#1 어, 나 고추장 요자기 ᄋᆞ답 근 반 둠앗어. 또.
@1 여기 헐 거?
#1 아니 우린 열닷 근 둠안.
@1 으.
#1 다 갈르단 우리 찍세 요만이 헌 통 두 개 넹겨둰 다 담아가 분 거 아니라덜.
@1 예.
#1 서울 보내고 인천 보내고 허난 이젠 담을 만이덜 담아 가렌. 메누리 둘린 나가 담안 이건 두 집이 헐 거여 허난, 우리 큰뚤 완 담으멍, 저 그릇 앗안 완 이녁은 담아 가멍.
@1 으.

#1 어무닌 이건 두통 요리 담아놔수다, 허난에. 그레 내불라 허난, 내분디. 남은 건 게믄 어떵 허쿠과? 허관데. 게건 느 앗앙 가컨 다 앗앙 가라 허연 비니루에 오꼿 다 담아간 분 거여.
@2 (웃음)
@1 아.
#1 요자긴 이젠 우리 먹는 것이.
@1 욕심도.
#1 먹는 것이 엇어.
@1 으.
#1 얼마 엇어 요만이. 고춧가루 막 하난에 우리 대로 심언 허는 거난.
@1 아, 고추도 다 직접 싱그고.
#1 게난 간 딱 뜨난에 ᄒᆞ나 요만이 헌 봉다리 내벼둰 ᄒᆞ나 ᄋᆞ덥 근 반이렌 재료도 십만 원어치 들언게.
@1 으.
#1 큰다라이 이빠이 ᄒᆞ나 헨에 우리 게도 게이트볼 사무장이 홀아방으로 살암주.
@1 으.
#1 그디 ᄒᆞᆫ 통 담아다 주고. 또 오널은 이젠 깻입 절인 거 앚다 주고 아침이 새벡이.
@1 아이고. 여기저기 멕여야 뒐 사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는 고추장은 아무 때나 담그고?
#1 예, 고치장.
@1 그 메주 숣으멍.
#1 유월달만 아니민.
@1 메주 쑮을 때 날 봥 쑮지 안 헤마씨?
#1 날 봥 쑮주게.
@1 언제?
#1 이녁 본명일만 아니민.
@1 아. 가족도 아니고?
#1 애기 본명일도 부득이 먹는 아이덜은 그 아이덜 본명일에도 안 쑮아사.
@2 아.
#1 게고 뱀날랑 허지 말고.
@2 뱀날.
@1 뱀날은 허지 않고예?
#1 뱀날 웨론 헤도 뒈는디 애기덜 본명일날도 헤영 좋지 안 허여.
@1 쉐날은 어떵헌 덴 헙니까?
#1 쉐날은 좋지.
@1 쉐날 좋아? 여기는.
#1 좋아.

@1 다른 데 가면 쉐날 니치름 흘려부난 안 좋덴.
#1 아이고, 첨. 게난 니치름 흘려근에 어떵 훑어 부카 부덴?
@1 아, 여기는 경 안 허고예?
#1 어떵 안 헤. 뱀날만 골려.
@2 뱀날만.
@1 여기는 뱀날만
#1 쥐날 허민 쥐 빠진덴 허민. 쥐만 잘 가두민 뒈주 미신. 우린 헤곡.
@1 아 옛날에.
#1 쥐날 허민 쥐 하난 쥐 빠진덴.
@2 아.
@1 장에다가.
#1 경 골아.
@1 예, 그다음에 옛날에는 윤달에. 윤달에 허는 일은 무신? 윤둘,
#1 윤달, 아니 저 윤달에는 저 거시기 이 집안 고치지 못헌 것덜 이신 거.
@1 예
#1 그런 윤달에는 대중 허젠 허주. 또 옷덜토 그 저 수*, 수의.
@1 예.
@2 으.
#1 그런 것도 윤달.
@1 으.
#1 그런 거 츶주, 윤달.
@1 윤달예. 어쨌든 공달 아니라예?
#1 공달.
@1 윤달은예,
#1 우리도.
@1 게영 삼춘네도 수의 이런 거 다 만들안 놔둰?
#1 아니.
@1 안 헨.
@2 이젠 안 헤.
#1 우리 집이, 우리 집잇 아방이 그런 말 막, 죽어가단 살아남은 헷주마는.
@1, 2 으.
#1 죽거들랑 허렌.
@1 아.
#1 게난 나 곳사 그 말 골앗주게. 그 앚인 그 언니, 언니신더레.
@2 으.
#1 양 언니, 저 시에 저 누구가 막 잘헌덴 허난 우리 이번 윤달 들 건, 우리 동네 아년 사름 ᄒᆞ나 엇어. 우리 친구덜.

@2 어, 다헨.
#1 게도 우리만 안 헷어. 게난 헙디가? 허난 이녁 안 허고렌. 게건 나영 윤달 들거들랑 우리 옵서. 우리 시에 잘 허는 디 이신디 허레 가겐 허난 경헌디 곧는 중이주게. (웃음)
@1 겐디 오늘 내가 윤달 또 얘기헌 거.
@2 어디 잘 허는 디우꽈?
#1 저 동문 시장 말고 서문시장.
@1 어.
#1 한동 여잔디, 난 몰르크라게. 나 전화번호 우리 조켄신디 헤ᄃᆞ렌 허영 허젠. 우리 씨아주방 죽은 때 헤 온 거 보난 바로 춤 기가 멕히게 좋안게.
@1 아.
#1 그 멩주도. 우리 이디 저 포목집이 막 좋덴 헨 우리 친구덜 문딱 헷어.
@2 으.
#1 게난 우리 집잇 아방, 죽지 아년 때 그거 허는 거 막 싫어허주게.
@2 으.
#1 경헨 허난 이 아덜덜 그 장게갈 때 헌 옷도 이 팔월 나민 자꾸 내 놩 쎄우젠 허고 허난 나도 궂곡 허난에.
@1 으.
#1 에, 아방 죽거들랑 장의사 옷이라도 빌엉 허주 뭐. 나 속으로만. 막 죽을 뻔 헌 때.
@1 으.
#1 경허멍 이젠 허연 안 허멍 헌 건디. 에, 이젠 나이도 뭐허고 허난에 윤달 들건 이번 이랑 헤 보젠 오널 그 말 정체 엇이 골으멍 앚은 거.
@1 골아신디 오늘 또 윤달. (웃음)
@1 (잡담)

묘제

@2 사월 첫주에?
#1 사월 첫주 일요일날.
@1 게난 건 집안마다 다르지 안헤예? 묘제허는 것덜은.
@2 예, 예.
#1 게도 묘제는 춤 보통 보민 사월달에. 쳉명.
@1 쳉명에?
#1 쳉명 보젠 허는 거.
@2 아.
#1 엿날 한식 쳉명 그걸 보젠.
@1 예, 예.

#1 경허난 옛날 쳉명날을 뭐헌디 이젠 그날에 일요일이 안 닥칠 수도 이시난에 쳇 일요일로 허주게.
@2 음.
#1 경헌 거 닮아.
@1 게난, 게난 청명에 다 산담들도 고치고 영 허잖아예?
#1 그런 거 허는 거는.
@1 알아수다. 또 뭐 물어볼 거 이시냐?

군인굿

#1 전체로 그 제로 세배로 허곡.
@1 예.
#1 그 넘엉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날 봥. 이제 수산 이장허곡 그 날 봐근에 이제 전체 굿, 군인굿을 헙니다. 군인 간 돌아간 분 굿덜을 허여.
@1 아, 군인 간 돌아간.
#1 군인간 돌아간 사름 명단을 적어놩.
@1 예.
#1 딱 출려놩 굿을 헙니께.
@1 으.
#1 군인굿.
@1 군인굿. 난 군융이라고.
#1 경허난 그걸 이번 우리 초이틀 넘언에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수산 그거 헐 걸로 신청을 헌 건디. 그 우리 이제 날짜 헌 날을 이젠 그것을 못 헤벳어.
@1 으.
#1 완 돈 안 나완 이제 우리가 돈 모안에 그 굿을 헷주.
@1 음.
#1 경허난 이젠 우리 애로점이 많읍디다게. 이거 곧젠 허민. 게난 나가 이젠 문화재청 그, 그 직원 이제 그 우리 노인대학 이제 학장님이 이제 문화재청 이제 이번 들어가수다게.
@1 으.
#1 게난 그 학장님신디 헨에 우리가 애로가 영정 헤연 허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문화재청에 들곡.
@1 으.
#1 저 당이 문화재로 뒈벳수다게.
@2 으.
#1 경허니까 문화재청에서가 도와줜 굿허는 것도 도와줘야주 경 아녕은 우리 이젠 부락에서 젊은 사름덜토 다 육지 사름덜이고 허난 헐 수가 엇이난 연년 행사로 헤야 뒐 건디 이건 이젠 안 뒈쿠덴. 막 이젠 요청을 들어수게.

@1 음.
#1 경허영 허난 이젠 한 번 헤보쿠덴 헨 허난. 이젠 이장이 이제 허락을 헤사 헐 거난 이장신디 간 말허연 이젠 헙센 허연. 이장신디 이젠 말 허연 허난 이제 이편이여 저편이여 허멍 헤도 자꾸 강 궤롭혀도 헤가난 이젠 심방신디 전화엔 이번은 영정허연 이젠 이번은 안 뒈고 다음부떠는 헐 건디 어떵허영 좀직 허우꿴. 이번을 연기헷당 그 돈을 나오건 헙니까? 어떵헙니까? 허난 심방은 경허렌 헙니까게.
@1 그렇지.
#1 자기네 뭐허니까. 그대로 헙서. 게난 우린 이젠 그 돈, 돈 다 받안 이젠 헤수게. 스무 메틀날인가 그걸 헷어.
@1 군인굿을.
#1 일월. 일월 메틀날 이젠 그 군인굿을 돈 받안 헌 후에 돈이 나온 거라.
@1 음.
#1 돈이 나오니까 그 돈을 다 써야 뒐 거 아니우꽈? 안 쓰면은 돌아가거든.
@1 그렇지.
@2 맞아.
#1 우리 행정 자금이니까. 우리 도에 행정 자금 안 쓰민 돌리는 거 아니우꽈게?
@1 예.
#1 경허난 이젠 게민 어떵 헐 거꽈? 이 돈을 나왓으니까 어떵헐 거과? 난 이장이 막 부에난 경허영 허난. 게민 이제 재연허는 걸로 이번도 그 돈 들영 재연헌 거 아니꽈게.
@2 아.
#1 그거든 이번 다 이젠 심방신디 돈이 다 간 거라. 다 재연허는 굿을. 게난 본향당도 굿보민 떡 먹난 헤연 현수막 걸어놓고 헌 것도 현수막 그 돈 나완 헌 거.
@2 으.
#1 그 재연도 그 때문에 헌 거우다.
@1 예, 예.
#1 경허난 올히부떠는 이젠 그거는 그런 대로 허곡. 멩년은 이제 우리 부락에서 돈 안 내놓고 다 이제 기추룩 헨 이제 명단만 쓰멍 헐 걸로 헤야 뒙니다. 경헌 거라. 심방신디도 다짐을 받곡 이장신디도 빨리 일월달에 굿허게 이제 헤야 뒙니다.
@1 으.
#1 이 돈을 이제 그때 서들어시민 그 돈으로 헤근에 헐 건디 이거 이제 허난 이제 막 부락 사람도 못허켄허고 허난 그 전에 받아 뎅긴 돈도 쪼끔 잇고 허난 나가 이제 그거 헤연 헤시니까 앞으로는 경헨 헐 걸로 헤야 뒙니다. 뒈여 갑니다. 또 경 곧는 거라. 뒈어 갑니다마는 헤영은 안 뒙니다. 따끔허게 헤야주. 저번이도 뒈어 갑니다 헤도 경 뒌 거 아니꽈?
@1 으.
#1 나가 경 헷주게. 뒈어 갑니다, 뒈어 갑니다 그 정월달 넘으민 게민 이월달 넹기민

삼월달 뒈사 그 우리가 굿허게 뒈수가?
@2 으.
@1 그렇지.
#1 게난 수산 그 시기에. 그 군인덜도 다 이젠 먹어난 시기에 올 거 아니우꽈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점심 먹어나민 그 시간에 가듯. 경허난에 일월달 넘기고 정월달 넘엉은 안 뒈니까 좋아란 생각 안 헤도 막 헷주게. 심방신디 전화헨에 이장신디 경 곧고 헨에 나도 경 골아수덴. 경허난 심방도 저 윤○ 아방도 그런 대로 알아근에 말도 그런 대로 헤줘야 뒙니덴.
@1 으.
#1 게난 나인디만 전화 자꾸허민 난 어떵헐 거우꿴? 심방도 기자 게나제나 허민 나인디레만 전화허난 이번도게 제물 출령 오는 것도 영정 허영 허난. 우리 부락에선 이녁만썩 출령 가진 못허난 게난 이번 저 출령 오는 건 어떵허연수겐 허난에 자기네가 출령 왐수덴.
@1 으.
#1 경헤도 우리가 가멍 우리도 외면 못허난 이제 우리도 합쳐근에 기자 제물헹 가곡 그자 미시거 헐 거난 그대로 압센. 경허영 허난. 이장이엔 헤근에 멩셋돈 내놓렌 헤도 엇다, 게민 어떵헐 거우껜? 게민 부녀회장이 내놓을 처례꽈? 이건 부락 책임이우다. 부녀회장은 뭐에 못 골으난 져들어간다 져들어온다, 부락 책임이니까 부락에서가 내놔삽니다. 경헌디 재연 헐 때도 이장님이 그런 저런 거 셍각허여 다 메기는 거주 간단허게 멧기는 거우덴. 어른덜인디도 의논도 헤야 뒙니덴, 나 경 골아벳주. 경허지 안 허우꽈게?
@1 멩셋돈은 뭐를 멩셋돈이렌 헙니까?
#1 멩셋돈 안 놔근에 허면은 복 못 받은덴 골읍니다게.
@1 예.
#1 절간에 강 돈 올령 절허듯 쏠사발에 놓는 것ᄀᆞ라 멩셋돈.
@1 으.
#1 게난 멩셋돈도 나 그디 십만 원 올리곡.
@1 으.
#1 또 우리 간 사름덜 기자 만 원썩 내 놓을 거주만 그거 모두완 그거 모둥 이십만 원 올려수다.
@1 으.
#1 경허곡 그 봇주마는 그 제비 뽑는 거.
@1 예, 예, 예.
#1 이녁 만원썩 이녁 돈 내영 제비 뽑고.
@1 건 제비 뽑고.
#1 건 경허곡. 우리 것도 안 내도 뒐 거주마는. 것이 멩셋돈.
@2 이게 멧셋돈.

#1 이 멩세 경허난 그때 봉투 앗아낸에 만 원짜리 올렷지. 그거 우리가 낸 돈. 심방이 올리지 아녑십디게. 게난 그것ᄁᆞ지 전부 멧긴 거라고 이디서 멧길 때.
@1 설령 멧겨도 마을에서는 또 해야뒈.
#1 으, 게난 기자 무심헹 안 뒈니까 우리 조상님인디 그 멩셋돈이란 건 간 사름덜 위헨에 모안에 십만원 올리고 또 멩셋돈 오만 원짜리로 두 개 헨에 봉투 올리고 허난 만 원짜리 올린 거 빤에 ᄌᆞ근ᄌᆞ근 올렷지. 봣지예?
@2 봣어. 봣어. 이거 감주 대신 환타 논 거?
#1 감주 대신 환타 비와선게.
@2 어.
#1 그건 이녁네가 헨 온 거.
@1 예, 예.
#1 나 그때 재연굿 헐 때도 나 우리 집이서 나가 저 감주 다 멘들앙 가곡. 문딱 헷어.
@1 으.
#1 나가 멘들앙 간 거. 진안네ᄁᆞ지.
@1 아.
#1 나 문딱 멘들아갓어. 부녀회장인더레 느 바빵 못허민 나가 헹 가마.
@1 게난 삼춘이 그렇게 허니까 이렇게 곱고 ** 아들덜 잘 뒈고 똘들도 다 잘 뒈고.
@2 이 빵은 그냥 상웨떡엔 ᄀᆞᆯ아?
#1 으, 상웨떡.
@1 상웨떡.
@2 으.
#1 빗떡으로 허지 안 헹 동글락허게 허주게. 이거 하나에 그 심방 나인더레 이거 천 오백 원 받읍데다 허멍 ᄀᆞᆫ는 거게.
@2 잘도 컨게.
@1 크게 헨에.
@2 완전 크게 헷더라고마씨.
#1 당돌레라고. 당돌레, 당돌레 허주. 게난 우리 부녀회장신더레 저이 빵집이 강 맞추고대나 그디 강 맞추대 당돌레로 허렌 허라이. 당돌레로 그딘 쏠떡 안 헹 가는 디 아냐. 상웨떡 헤영 가는 디난 당돌레로 허라. 경헤연에 허난.
@2 이게 이걸 당돌레로 헌 거?
#1 당돌레.
@1 게민 크게 헤 주는 거우꽈?
#1 크게. 당ᄃᆞᆯ레가 크게 허라.
@2 아.
#1 경헨.
@1 게난 여기는 모멀떡을 안 하는구나.

#1 이디 갈 때.
@1 여름에 갈 때.
#1 여름이라 부난 똑 당돌레.
@2 당돌레로.
@1 상웨떡으로 헹은에 당돌레.
@2 그믄 저 돌레떡도 당돌레렌 골읍니까?
#1 으.
@2 겨울에 갈 때는 뭐?
#1 돌레떡도 당돌레로 크게 허렌 허주게.
@2 아, 당돌레 헌 거 크게 허는 거구나.
#1 쫀쫀허게 허민 당돌레 아니주. (우릿 집이 아방 기다리당 버치난 완.
@2 큰 게 당돌레구나.
#1 당돌레.
@2 으.
@1 *** 구치 갈 거구나.
#1 아니, 점심 먹언 나옵센.
@1 게니까 당돌레가 모멀 헤도, 당에 가는 거는. 여름에 상웨떡도 당돌레. 알아수다.
#1 이름이게 당돌레.
@1 당돌레.
#1 기냥 제물 허지 안 헹 당돌레.
@1 으, 당돌레. 여기 다데라는 말은 안 허는구나. 이 동네는.
#1 무신거?
@2 다데떡.
#1 다데가 뭐라?
@1 당에 갈 때 서쪽에서는 다데떡이렌 허거든.
#1 아, 우린 당돌레. 7
@2 당돌레.
@1 예, 알아수다.
#1 알아수다. (웃음)

4. 성산읍 신풍리

- 조사 일시: 2022년 9월 6일, 9월 7일
- 조사 장소: 성산읍 신풍리 복지회관
- 조사자: @ 김성용
- 제보자: #1 김길홍 #2 강상순

조사 마을

@ 시작허쿠다양?
#1 예. 예.
@1 이, 저 신풍리 와시난양, 그 우리 남자 삼춘 저 이 신풍리에 대헤서 혼번 골아줍서.
#1 신풍리에 대한 무신 말 말이우꽈?
@ 그 모든 것을 그냥 신풍리에 대헤서.
#2 신풍리?
#1 아, 신풍리는 뭐, 이제 표선, 성산읍 관내면서 아, 이거 거 표준말로 허믄 안 뒈는 거 아니우꽈?
@ 예, 예.
#2 게난 이디 말로 골으렌.
#1 아이고, 우리 성산 쪽인데예. 성산 쪽에서도 제일 끝에우다.
@ 어.
#1 제일 끝엔데 생활권이 아, 우리 살아나가는 모든 게 우리 표선이가 가깝고. 표선, 어, 이제 하천허고 인접헤 잇으면서도 표선이 생활권으로 뒈어 잇수다게.
@ 그 저 인구수는 멧 명 됩니까?
#1 인구수는 한 사오백 명 됩니다.
@ 사오백 명?
#1 예, 예.
@ 여기 저 성씨덜은 어떤?
#1 성씨는 주로.
#2 김씨허고 오씨주.
#1 오씨하고 광산김씨, 경줏김씨 그 대신 많은 성씨가 오씨하고.
#2 경주김칩.
#1 경주김씨.
@ 으. 혼 멧 년 뒛수가? 이 마을은.
#1 이 마을은 생긴 지는. 이, 표준어로 나오젠 허난 안 뒈는데. 상당이 오렌 그 역사

를 가지고 잇는디. 우리는 뭐, 그냥 말로는 몃 년이라고 대답허기가 아주 곤란허우다.
@ 조선시대꽈, 고려시대꽈?
#1 아메도 고려시대로 봐얍주.
@ 고려시대. 그, 이 마을 그 옛날 이름 이수가?
#1 옛날 이름 많이.
#2 예, 상천리.
@ 양?
#2 상천리.
@ 상천?
#2 상천리.
#1 리, 상천리.
#2 상천리.
#1 냇기.
#2 냇기엔도 상천.
@ 아, 냇기. 냇기, 냇기.
#2 냇기엔도 허곡 상천리엔도 허곡.
@ 아.
#1 상천리는 조끔 저 새로운 세대가 난 거고.
@ 어.
#1 옛날은 냇기.
#2 냇기.
@ 냇기양, 냇기가 어떵 허연 냇기꽈?
#1 이디 흐르는 내, 그 건천이 잇수다게. 그
@ 어.
#1 그 건천을 위주로 헤 가지고. 아, 건천이 물이 잇는 때문에 그 물을 봐 가지고 우리 동네 모여져 사는 건디, 동네가 이루어진 건디. 그런 냇가에 잇젠 헨에 냇기, 냇기 헌 거마씨.
@ 아, 냇기.
#1 으.
@ 거난 여기 저, 보난에 저 하천리허고 신풍리 그 가운데로 헨에.
#1 예, 예.
@ 마을이.
#2 게난 내로 딱 갈라져십주. 내로.
@ 예, 갈라져 나완양.
#2 내로 딱 갈라지난 그자 하천리허고.
@ 예. 겐 이추룩만 허민 뒙니다. 이추룩 나가 질문허민 대답만 허민양.
#1 예. 게곡 이 내로 갈라진 게 이게 경계우다. 표선면허고 성산읍 경계 이디. 겐디

우리 성산읍 경 쪽에서는 우리가.
#2 제일 끄트머리.
@ 아.
#1 표선하고는 가까운데 성산하고는 궹장이 거리가 멀어마씨.
#2 보나마나 우리 열네 ᄆᆞ을 아니꽝게.
#1 으, 열네 ᄆᆞ을.
@ 아, 열네 개 ᄆᆞ을이우꽈?
#1 마을이 열네 개.
#2 예.

오름

@ 그 여자 삼춘양? 그 오름 잇지 안허우꽈? 이 동네. 어떤 오름 이수가?
#2 이 동네 무신 남산망허고.
@ 오름.
#2 아니 남산망.
#1 남산, 신풍리 오름 중에는 남산봉.
@ 남산봉.
#2 남산봉이엔 헙니까?
#1 아 요새 오름을 봉이엔 허는 거라.
#2 엿날, 엿날은 남산망.
@ 어.
#1 또, 저.
@ 남산 뭐마씨?
#2 옛날은 남산망.
#1 옛날은 남산오름. 남산오름. 남산봉.
@ 남산오름?
#1 으. 옛날은 다 오름, 오름.
@ 으.
#1 지금도 오름이엔 허주만은.
@ 거 어느 펜이 잇수가?
#1 요 우에. 요 북쪽에.
#2 저 성읍리로 올라가는 디.
#1 어, 어. 성읍리 그 근방 내려오면은, 이 우회전하는 그 공간인데 그게 신풍리 이름으로만 뒌 게 아니고 일부는 성읍리로 뒈잇수다.
@ 거기 저 낭덜도 싱거졋수가?
#1 예, 예. 솔나무 같은 것도 잇고 뭐, 등산로 헤 가지고 등산도 다닐 수 잇고.
@ 거기는.

#1 그 밑에는 레포츠 공원이엔 헤근에 운동 경기장.
@ 거기 뭐 공동묘지?
#2 공동묘지가 맞수다.
#1 공동묘지는 개인 공동묘지벳기 엇수다.
@ 아, 거기는?
#1 예. 그쪽으로 쫌 내려오면은 웬쪽에, 절로 올 때 저쪽에는 본지오름이엔 헤 가지고 삼달 그 오름인데 거기는 삼달, 신풍, 신천 삼 개리 공동묘지가 이수다. 겐디 지금만, 차 가지고 딴 데로 옮겸수다만은. 거긴 가득차 가지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우리 아까도 말헷주만은 건천으로 저 오른쪽에 하천리는 탈산봉이 잇수다, 하천리는.
@ 탈산봉?
#1 예, 하천 마을에는 달산봉 그게 하천.
#2 것이 하천으로 들어가벳수가?
#1 그건 하천봉, 하천 마을로 뒈엇수다, 건.
@ 그다음에 또 오름덜 엇수가?
#1 그다음에 저 표선리 가면 매오름.
@ 매오름?
#1 표선이 가면은. 거기 매오름이엔 헌 게 여기서 먼 디서 보면은 꼭지가 똥그름허게 뭐.
#2 똑 매 앚인 거 모냥으로 그추룩허난 매오름.
#1 예, 매 앚은 모습 같다 헤 가지고 매오름.
@ 음, 매오름.
#1 예.

물

@ 여기 물도 이수강? 물. 나는물?
#1 생수는 흐르는 건천이고, 지하수벳긴 엇수다.
@ 거난 옛날은 어디 물 떠당 먹엇수가?
#1 내에. 지금예, 내가 어떻게 뒛냐면은 그 옛날 그 물이 많이 흘러져 부니까 넘쳔에 이쪽 마을에도 넘치고 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거 평평허게 다 까불엇는디. 옛날에는 소가 먹는 물이 따로 잇곡, 소가 출입허기 좋게. 사람이 길어다 먹는 물통, 그 우마들이 ᄆᆞ음대로 드나들지 못허게 멘든 통이 잇습니다. 거기 물은 허벅에다 길어다 먹어십주.
@ 겡 어디, 어디 내창에 강?
#2 이제 여기.
#1 요기, 요기 저 우리 하천허고 신풍 경계.
#2 이제는양 그거 볼 수가 엇어.
@ 거 뭐옌 헙니까? 거기. 내창 이름이?

#1 내창 이름이 기자 이 냇기 내창입주게, 냇기. 성읍리서 내려 온.
@ 냇기 내창?
#1 예. 겐디 그거 그전에는 그게 돌도 잇고 암반도 잇고 허니까 오다가 내리면 폭포수 같이 내리기도 허는 건데. 물난리 자꾸 나가니까 지반 공사를 싹 헤 가지고 평평허게 싹 넓이 까 버렷어.
#2 이젠 그런 것이 없어, 엇어져 베수다.
#1 그러다 보니까 옛날엔 개구리도 울고, 뭐 진달래꼿도 피고 허던 게 나무도 없애 버리고.
#2 거기 물 질어당 먹엇수다게, 옛날에.
@ 게메 거기.
#2 예.
@ 가근에 허벅으로 물 질어당 먹엇지양?
#1 예.
#2 허벅으로게 물 질어당 먹언 가당 허벅도 벌러 불고.
@ 어.
#2 허벅도 물 질엉 둥기다근에 탁 돌에 다데기민 탁 깨어지고. 기추룩 허멍 살앗수게. 그 내.
@ 집이 왕 매 맞지 안헷수가, 허벅 벌러근에?
#2 매 맞음은, 이녁만 살 때는 무시것 허주만은 씨어머니영 살 때는 미안헤근에 ᄉᆞ뭇 어떵헐 줄 몰르주게.
@ 게난게. 그 막 욕 헤실 건디.
#2 욕 허지 아니허여. 와싹 벌러도.
#1 (웃음)
@ 그거 허벅 사젠 허민게 돈도 꿰 들지 안헙니까게?
#2 그땐 허벅도 막 흔한헷어.
@ 아.
#2 그때는 대정서 구난에양, 이디 막 옹기장시도 요디 기와집이 막 갖다다 놔근에 풀곡.
@ 집이 지금 허벅 잇수가?
#2 허벅 엇수다, 그런 거.
@ 아무 것도 엇어?
#2 예. 엇어. 첨 ** 말짱 아무것도 엇어.
#1 옛날 ᄀᆞ레.
#2 옛날 ᄀᆞ레 ᄀᆞ는 것도 엇어, 잊어 불고, 원.
#1 온 동네가, 우리 동네만이 아니고 골동품이엔 헌 게 이제 씨까지 다 가버려 빗수다. 다 그 저 수집 상인덜 왕은에 (전화소리) 뭐 돈 멧 푼 안 줘근에 다 거져가 부리니까. (전화소리)

@ 게난 제일 우티가 저 먹는 물 아니꽈양?
#1 예, 예. 아, 먹는 물이 우리 마을로 봥은예?
@ 으.
#1 저 웃동네도 흔 군데 잇고, 중간에도 잇고, 알동네도 잇고 그렇게 뭽니다. 게믄 웃동네 사름은 웃동네 강 길어당 먹고.
@ 아 게난에 내창에 제일 우티가 먹는 물 아니? 양?
#2 아니 멧 곤뎁주게. 마을이 너르난양. 우리 요 앞가름에 헌 디.
#1 우에도 하나 잇고, 중간에도 잇고.
@ 게난 멧 밧디 강 물 질어당 여기 먹어?
#1 아, 게난 웃동네 사름은 웃동네 강 질어당 먹곡, 알동네 사름은 알동네에 가곡.
#2 웃동네ᄀᆞ라 도르수엔 안 헙니까? 도르수.
#1 아 거난 그건.
#2 도르수 우린 앞가름물.
#1 아 지금은.
@ 아 거난 도르수허고?
#2 앞가름물.
@ 앞가름물?
#2 예.
#1 물, 물 그건 물 장소.
@ 게메.
#2 장소, 앞가름물.
@ 아, 거난 그 뭐냐면은 그 먹는 물 다음에는 저 ᄉᆞᆼ키 씻으는 물?
#2 예, ᄯᅮ로 이십주.
#1 따로.
@ 그다음에 저 뭐 서답 허는 건?
#2 것도 경 밑으로 이십니께, 밑으로, ᄯᅮ로.
@ 쉐 먹는 거?
#1 거 ᄯᅮ로 다 이십니다.
#2 다 ᄯᅮ로 ᄯᅮ로 잇어.
@ 게난 제일 우티가 먹는물.
#2 예.
@ 그다음에 ᄉᆞᆼ키 씻는 물?
#2 예.
@ 그다음에?
#2 저 모욕허는 물, 저 밋터레 가민.
@ 모욕허는 물, 그다음에 저 쉐 먹는 물.
#1 아, 주로 분리뒌 게 소, 소 먹는 물허고 길어다 먹는 물이우다게.

@ 으.
#1 빨래 같은 거는 소 먹는 물에서 한쪽에서도 허고.
@ 거 서답이엔 허지 안헙니까, 서답?
#1 예, 서답.
@ 서답.
#1 서답.
#2 빨래.
#1 빨래는 표준말 헤 불고 서답.
@ 서답.

당

@ 경 허고양? 우리 여자 삼춘. 여기 당 이수강, 당?
#2 당 잇수다.
@ 어느 펜이 이수가?
#2 저쪽에.
#1 동쪽에. 여기서 보민 동쪽에.
#2 동쪽에.
@ 동쪽에?
#2 오ᄉᆞ록헌 디라, 오ᄉᆞ록헌 디.
@ 이 지금도 이수강?
#2 지금도 잇어근에 뎅입니께.
@ 아, 뎅겨?
#2 정월 열사흘날, 유월, 이제 저 칠월 열사흘날.
@ 거난 유월 열사흘허고 칠월 열사흘? 당 뎅겨마씨?
#2 아니 이 저 정월, 정월.
@ 게난 정월.
#2 정월 초사흘날허고.
@ 으, 초사흘날.
#2 ᄀᆞ만시라, 나가 잘못 ᄀᆞᆯ앗졈저. 정월 초사흘날허고 이월인가 삼월인가 다 잊어 비엇저, 이젠. 나도 뎅기단 안 뎅겨 부난.
#1 우리도 그건 모르고.
@ 아.
#2 뎅깁니께.
@ 그.
#2 열사흘날.
@ 그 정월 멩질날은 안 갑니까?
#2 정월 멩질날 가는 사름은 갑니다, 세배엔.

#1 세배.
#2 예. 멩질 둣날. 멩질날은 안 가곡 멩질 둣날 세배에 헤근에 갑니께.
@ 멩질 둣날 세배?
#2 가는 사름만 갑니다.
@ 그다음에 저 팔월 멩질날은?
#2 팔월 멩질날은 그런 건 안 가고마씀.
@ 어. 팔월 멩질날은 안 가고. 그 당 갈 땐 떡도 헹 가얄 거 아니꽈?
#2 떡 헤다근에.
@ 무신 떡 헹 갑니까?
#2 저 흔 뒈 헤여근에 표선이 강 골아당 동글랑헌 떡헤근에 만들고예.
@ 도, 도래떡? 옛날 도래떡?
#2 옛날 돌레떡.
@ 으.
#2 그거 만들곡 또 요즘은양? 가민양, 아무 빵이라도 사당 올려.
@ 빵 사당은에.
#2 예, 빵 사당. 막 정성들인 사름은 그 지금도 돌레떡을 헤여마씀.
@ 그 돌레떡은 곤쏠허곡 저.
#2 모믈쏠.
@ 모믈쏠.
#2 예.
@ 헤근에.
#2 모믈쏠허고 곤쏠허곡 헹.
@ 거 당에 가는 그 떡덜은 소금 놉니깡? 안 놉니까?
#2 소금 옛날은 안 논덴 헙니다마는 몰라 원.
@ 옛날 안 논덴 헤양?
#2 예, 안 논덴 헙니다.
@ 무사 거 소금 안 놤신고?
#2 게메, 거 몰를쿠다, 이치는.
#1 거 이치적으로 셍각허믄게 옛날 귀신 쪼까 부는 게 소금 아니꽈게? 뿌리곡.
@ 아, 겅 허난에.
#1 으, 아, 그건 나 셍각이우다마는 경 허는 거 닮아 비어마씨.
@ (웃음).
#2 경 헹 안 놩 앚엉 가, 안 놔.
@ 생각이 정답이 뒐 수가 잇어마씨.
#2 경헤영양 딱 흔 뒈 헤근에 돌레떡 만들앙 지금도 막 정성허는 사름이 나가 뎅기단 이거 흔 오 년 안 뎅겸수다만은 지금도 신풍리 멧 사름 잇어 만드는 사름이. 경 아녀민 페선이 강 기자 빵이라도 사다근에 가졍 가곡.

@ 그 당은 그 저 낭 아래꽝? 그 저 집이우꽈?
#2 집, 집.
@ 집 짓언양?
#2 영 낭으로.
#1 원래 집으로 딱 멘들앙.
#2 예, 소낭밧 영 한가운디 집 짓언.
@ 집 짓엉양?
#2 전기도 다 걸고 이젠.
@ 옛날 당덜 보면은 저 큰 낭이?
#1 예.
@ 밑에나 아니면 큰 돌 밑에 허는디 여기는 집 짓언 헴구나?
#2 예, 이딘양 집 짓언. 집 짓어근에 기자.
@ 아이, 우리 동네도 집 짓엉 헙니다게. 집 짓은 디.
#2 예, 흔쪽에 영 오ᄉᆞ록헌 디 강은에.
@ 이 저 심방 죽어 부난에 요즘은 잘 안 가는 거 닮은디.
#2 우리도, 우리 동네 심방 두어 사름 죽어 부난 저 신례리 사름 헤당은에. 신례린가? 위미린가? 하이튼 그디 사름 빌어당 허는 셍이랍디다.
@ 어. 그 저 돌레떡 이외로 또 가졍 가는 거 엇수가? 당에?
#2 당에 돌레떡 무시거 과일허곡게.
@ 과일허곡 그다음?
#2 돌레떡허곡.
#1 쏘준 안 가져 갑니까?
#2 소주도 아상 가곡. 밥도, 밥도 헹 가고.
#1 밥도 허고.
@ 밥도 헤영 가고?
#2 예, 메도 헤여근에양, 저 정월엔 나민양, 영등하르방이엔 헤근에.
@ 궤기도 궝 갑니까?
#2 영등이 영등할망이엔 헤근에 ᄯᅮ로 요만이 헌 보시에 ᄯᅮ로 거리곡.
#1 쏠 담곡, 쏠도 담곡. 엿날은 지전이엔 헤근에 웨.
#2 예.
#1 창호지도 놓곡.
#2 그거 다게 저 거시기 지전 물랑은에.
#1 물라근에.
#2 딱허게 놓곡.
@ 으.
#2 또 제비쏠이엔 헤근에 흔 관뒈 딱 헤근에.
@ 제비쏠?

#2 예, 여기 제비 뽑는 거.
@ 아.
#2 영 맞추는 거 잇지 아녀꽝게. 딱헹 이 짝수, ᄋᆞ섯, ᄋᆞ섯 개 주민 더 좋덴 허곡.
@ 으.
#2 ᄋᆞ둡 개 기자 짝, ᄋᆞ덥 개, 열 개.
@ 여섯 개는 좋고. 그다음?
#2 ᄋᆞ덥 개, 열 개, 경헤영 짝 맞추는 셍이랍디다.
@ 탁 올령은에 탁 잡는 거 아니우꽝양?
#2 예, 예. 잡앙 영 영 영 세어 봔.
@ 겡 여섯 개는 좋고, 여덟 개는?
#2 몰르쿠다게. 그 좋은 거, 궂인 거 몰라도 하이튼 경헹 제비를 줘마씀. 경 짝 맞으민 손에 모영 놧당 저.
#1 먹으렌 주곡.
#2 임제ᄀᆞ라 이거 먹으렌 헨에.
#1 먹으렌.
#2 씹지 말앙 ᄂᆞ리렌 ᄒᆞ곡. 그추룩 헙니께게, 옛날엔.
@ 요번에 난산리(? 수산리) 보난에 그 심방 헨에 뭐허는 디 가나수다게.
#2 예.
@ 거기도, 이 제비쏠 헨에.
#2 예, 제비쏠 헙니다게. 제비쏠 별도로 ᄒᆞᆫ 관뒈 헤영 가.
@ 남자심방인디 이 청년 회장 이레 옵서헨, 영 헨에. 아이 청년 회장안티 올해 막 좋쿠다 허곡. 그 노인회장안티는 겅 좋지 안허쿠다 허멍 허드라고.
#2 (웃음) 난산리마씀?
@ 으. 일뤳당.
#2 일뤳당? 이딘 일뤳당이엔 안 ᄒᆞ영 본향이엔 헙니다게.
@ 여기는 본향양?
#2 예. 경 허난 정월 열사흘날.
@ 어.
#2 칠월 열사흘날.
@ 그 본향굿도 헙니깡?
#2 본향굿은 아녑니다, 이디.
#1 지금은 아니 허는데. 옛날에는 일 년에 ᄒᆞᆫ 번 큰굿을 헙니다. 큰 굿을 마을 전체로.
@ 큰굿이 본향당, 본향굿 아니꽈?
#1 본향굿인데.
@ 으.
#1 그, 그 우리 어렷을 때 보면은 그, 거 지금 당에서 허는 게 아니라 마을에 무슨

광장 같은 데나 큰 밧테 모여근에예, 큰 천막 쳐 놓곡. 그 대신, 크게 대 세와 놓곡 헤근에 거기서 마을 전체가 다 모영 굿을 헙주게. 지금은 그게 많이 저 없어져 버련에 이제는 뭐 본향에만 다니는 거 같은디. 게근에 삼헌관 다 출려근에 뭐, 뭐 헤근에 이제 큰 뭐 마을 그 펜안허렌 헤근에 큰굿을 헤나십주, 옛날은.
@ 으.
#1 겐데 우리 동네도 옛날은 하천리하고 합동헨에 저 본향당 헨에 굿을 허고 허단에, 그 불탄, 화재가 일어난 불타 부리니까 이제는 갈라서야 뒈겟다 허연 갈라논 지가, 에, 우리, 우리 알아지게 여기 왓수다. 하천리에 잇는 거는 아주 옛날 생견에, 언제 생겻는지도 몰랏는디 신풍리로 모셔와 가지고 신풍리서 하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오니까 이제 흔 칠팔십 년벳긴 안 뒈수다. 하천리는 그 생긴 지가 궹장히 오래고, 우리 합동으로 허는 거는.
#2 나 온 후젠 ᄆᆞ을굿 허는 거 못 봣수다. 나.
#1 그때 엇수게. 우리 어릴 때만 잇엇주. 그거.
@ 으.
#1 게곡 그때는 마을 전체가 무당 그디 본향당 헷주만은 지금은 본향 다니는 사름이 엇어버리니까, 그 마을.
#2 그 대신, 그 대신 이제 포제를 허는 거주게. 포제.
@ 예, 예, 예.

포제

@ 이제 포제에 대헤서 물어보쿠다예.
#2 예.
@ 그, 저 포제단에 대헤서 ᄒᆞ끔 ᄀᆞᆯ아줍서, 아까 포제에 대헤서.
#1 아이, 거, 잘 몰릅니다마는. 포제, 삼춘 ᄀᆞᆯ읍서.
@ 언제, 언제 헙니까?
#1 포제, 포제는예?
#2 으.
#1 입춘 지나근에 처음, 저 처음 그 저 날짜에, 무슨 날이냐민예. 에.
#2 존 날로 날 받앙.
#1 아이, 날, 날이 정헤져 이수다게.
@ 조금 생각헹 말허곡양?
#1 예.
@ 여기 포제단은 어디 이수강?
#1 포제단은 요, 요 북쪽에, 성읍리더레 가는 디, 여기.
@ 성읍 들어가는, 성읍 들어가는 디?
#1 예.
@ 지금도 헙니까?

#1 아이 지금도 뭐.
#2 으, 일 년 흔 번 딱 정월 난에.
#1 철저허게 헙니다, 거기 가서.
#2 정월 낭 멩질 지나미는.
#1 전날 가민 젯상, 저 뭐 아주, 아주.
@ 정월 멩질 지낭?
#2 예, 정월 멩질 딱 지낭.
#1 예, 멩질 지나근에. 입춘 지나곡 정월 멩질 지낭.
@ 입춘허곡 정월 멩질 지나근에. 거기 저 포제헐 때는 저, 거기 금기허지양?
#1 예. 전날 가근에 제단 청소허곡, 물 떠다근에 깨끗하게 씻곡. 또 요 돌아가멍 아무나 뒷날까지 돌아, 돌아가지 못허게 것ᄀᆞ라 뭐옌 헙니까?
#2 숫.
#1 숫 치곡.
#2 숫 딱허게 메곡.
#1 웬숫 이제 새끼.
@ ᄉᆞ가 줄 아니꽈예?
#1, 2 예, 줄.
@ 으.
#1 것도 웬손으로 꼬운 줄.
@ 웬손으로 꼬운 줄 치고.
#1 예.
#2 요샌 꼬앙 헴신가?
#1 아 지금 뭐 줄도 나이론줄로 쳠실테주.
#2 나이론줄로 헴실 테주.
#1 예. 옛날엔 그렇게 헷는디 지금은 뭐 어떵 치는 줄.
@ 옛날 거, 옛날 거.
#1 옛날은 경 헙니다.
#2 게난 옛날에는양? 이 마을 안네 사름 많이 안 뎅이는 디로 오ᄉᆞ록헌 집으로, 집ᄒᆞ나 빌엉은에 헷주만은 이젠 그것이 안 뒈난.
@ 멩글안양?
#2 이젠 공동으로양.
@ 마을에서 멩글앙 허는 거지예?
#2 예. 멩글멍말멍 저 우리 이제 학교 폐업, 폐지뒈 부난.
@ 어.
#2 게난 그디 영헹 거기서 출립니다.
@ 아.
#1 마을 안네 무신.

#2 삼일, 삼일 정성.
#1 마을 안네 무슨 사망자가 잇거나 이러면은 제를 이제 포기허고, 이제 연기허고 그럽니다.
@ 으.
#1 겐디 뭐 요사이는 뭐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벨로 없주마는 옛날은.
@ 비린덴 헹양?
#1 아이고, 저, 절대 무슨 일이 엿날은 저 뭐 산모덜 애 낫덴 헤도 제를 이제 연기헤 버립주. 안 지내근에.
@ 거기 이제 뭐꽝? 저 초헌, 아헌, 종헌관이 이실 거 아니꽈?
#1 예, 예.
@ 초헌관은 어, 누게, 누게가 헙니까?
#1 초헌은 마을에서 추천헹 저 뽑앙마씨.
@ 마을 회의헤근에?
#1 예, 마을회에서 제관덜 전부 뽑읍니다. 여기는. 겡 딴 마을 ᄀᆞ뜬 디는 뭐 좀 줄여근에 멧 사름만 헤근에 헌덴 헙디다마는 우리 동네는 원칙 그대로 다 채왕 다 헙니다. 뭐 집례, 대축 뭐, 아헌, 아헌관 전부 싹 출려근에 동창, 서창 다 허고.
@ 음. 그 포제단에 올리는 음식덜은 어떤 음식덜이 이수가?
#1 아, 옛날같이 뭐 뒈지는 그냥 쌩차로 창자만 빼둥 올리곡. 뭐 잡아근에 뭐 삶거나 그런거 아녕.
#2 제물은 기자.
#1 제물을 저 무스거니.
#2 시리떡 이렇게 영 조그만헌 거 헤근에.
#1 아니 저 뭐 생[쌩] 걸 많이 올립니다. 뭘 많이 올립니다게, 메조, 뭐옌 허느니?
@ 흐린조?
#1 흐린조, 모인조.
@ 으.
#1 피.
@ 으.
#1 또 쌀.
#2 다섯 가지 그거 놘.
#1 네, 네 가진가 헤여근에.
@ 여기서 곤쏠도 올려얄 거 아니꽈?
#1 예게.
#2 곤썰.
#1 도량서직. 이제 생각남수다, 도량서직이엔 헤근에. 벼 도, 그, 피 량, 또 서 좁쌀 서.

@ 어.
#1 아 피 직 경헤근에. 도량서직이엔 헤근에 그거를 여기 옛날 같이 뭐, 저, 핍쏠 풀곡 그런 디 피가 없으니까 거 대신으로 사다근에 헙니다.
@ 게난 도세기 잡아근에 올리곡.
#1 예, 도세기는 잡아근에 창자만 빼뒁 올려낭.
@ 생채로?
#2 산채, 산채.
#1 제지내난 다음에 처리허는 거고.
@ 으, 그다음에 떡은 시리떡.
#2 시리떡 그거.
@ 침떡이엔 허지 안헙니까? 여기선.
#1, 2 예.
@ 침떡?
#2 경헤영 기자.
#1 통채로.
#2 그거 베지도 아니허영 통채로 그자.
@ 요즘 저 생일날 허는 식으로.
#2 예, 예, 예.
@ 통채로양?
#2 케이크 ᄒᆞ쏠 큰 케이키마니 헌 거로 허영. 경 헤영 쩡 허는 셍이랍디다.
@ 그거 허곡.
#2 게난 그거 밥게, 네 가진가 다섯 가진가.
@ 밥, 밥도 올립니까?
#2 밥, 그거게.
#1 아까 도량서직 밥.
@ 그 저.
#2 멧 가지 허는 거. 옛날에 피쏠 이시난 피쏠 헷주만은 요즘사.
#1 아, 경허난 지금 말허는 게 피쏠 엇어 부난.
#2 피쏠 엇으난
#1 대용으로, 대용으로.
#2 찹쏠 헴실 거라.
#1 대용으로.
@ 음.
#2 출리는 건 안 봐수다게, 우리.
@ 출리는 건?
#2 예.
@ 남자 삼춘이 하영 봐실 건디? 남자도.

#1 아 나도.
@ 여자도 갑니까?
#2 여자 경 딱 빈 사름벳긴 전인 안 가십주게.
#1 옛날에는.
@ 여자덜은 안 가실 거라, 옛날에.
#1 옛날에는.
#2 요즘은 여자도 갑니다마는.
#1 옛날에는 포제 준비허는 디도 딱.
@ 남자가.
#1 가정에서 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잇는 주부 한 사름벳기는 못 드나들엇는디.
#2 거기서 제물헐 사람.
#1 이제는 뭐 부녀회에서도 가근에. 바로 제관, 제지내는 제관엔 못 들어가도 바꼇디서 돕기도 허고.
@ 남녀평등 시대난.
#1 예, 예. 이젠 여자.
@ 옛날은 남녀평등 시대가 아니라낫어.
#1 여자덜은, 여자덜은 그런 데 원 근처에도 못 가게 헤십주.
@ (웃음)
#2 당추 못 가게 헷주. 홀어멍도 가지 못허게 허고.
@ 으.
#2 경 헤신디 이제는 가민 그 사름덜 밥헹 멕이젠 허민, 심바람 허젠 허민 부녀회덜 다 가마씨.

문화재

@ 그다음에양? 그, 이 마을 문화재 이수강? 모슨 걸궁 ᄀᆞ뜬 거?
#1 뭐 그런 거 엇어.
#2 옛날엔 잇어낫주마는.
#1 옛날에야 많이 잇어십주. 옛날엔.
@ 걸궁.
#1 예, 옛날에는 많이 헷수다, 집집마다 다 돌아뎅기면서 이제.
@ 그다음에 이디 뭐 관광객덜 와근에 영 구경가는 딘 엇수가?
#1 구경가는 디는 저기, 저 어디 어멍 아방 잔치 ᄆᆞ을이엔 헤근에 우리 문화, 문화재 멍말멍 관광객덜 거기 많이 옵니다.
@ 뭐, 혼인, 혼인지.
#1 옛날에는 저.
#2 혼인지가 아니고.
#1 저 옛날에는 그 저 전통혼례도 헤나고 헷는데 요샌 매 년은 안 헴수다마는. 뭐,

멧 년 전에는 혼례식도 가끔 헷수다.
@ 어디, 뭐 어느 펜이우꽈?
#1 청소년 수련원이엔 헤근에 거기 저 에, 잔치마을이엔 헨 잇수다.
@ 아.
#1 거기서 저.
@ 게 관광객덜도 옵니까?
#1 예, 관광객덜도 많이 옵주. 게고 청소년 수련원이 넓으니까 뭐, 학생덜토 이제.
@ 아, 청소년수련원.
#1 예, 예. 수련원에도 오고.

제보자 정보
@ 아이고, 거 대단헌. 그 저 어릴 때부떠 낳고 자란 과정 흔번 말해줍서.
#1 어릴 때에는 여기서 태어낫는디 그, 뭐 그냥 지금같이 애들이 노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노는 놀이기구엔 헌 게 엇엇수다.
@ 거난.
#1 경허민 매날 저 요기 송악총이엔 헤근에양.
@ 그거 저 굴그락.
#1 수리대에, 수리대에 헹 그걸로 송악 타다근에 놩 빵빵 쏩는 그, 쏩는 놀이.
@ 아, 여긴 송악이엔 헴고나. 우리 동넨 굴고락, 굴고락.
#1 굴고락이엔 헙니까? 여기 저 벡담 우에?
@ 예.
#1 열어근에 꼿 피어근에 동글동글헌 송악 그거.
@ 뽕뽕 허주게.
#1 빵빵 그거 놓는 거허고. 그다음은 왕대 요 토막 짤라근에예. 저 끗테 구멍 뚤러근에 이제 욜로 헤근에 물총.
@ 어.
#1 물총 헤영 그거 뿜어근에 그냥 아이덜 우터레, 얼굴더레 막 쏘앙 그추룩 허면은, 어떤 애들은 좀 하지 말앗으믄 좋켄헌 해들은 옛날 울고불고 허멍 어멍신디 곧곡 막 그런, 그렇게 놀아십주. 그거벳긴 장난감이 엇수다. 그다음인 펭이 돌리는 거.
@ 어.
#1 그다음에 쪼끔 시대가 멧 년 좀 우리 커가면서 저 총까락치기. 총까락 헤근에 어디 탄피 줏어다근에양, 그게 구멍 요만헌 원 기려놩 거기다 놩, 그거 거리, 어디서든지 거리 멧 메다 놩 거기서 찍어근에 내쫓는 거.
@ 으.
#1 그런 놀이를 많이 헤수다게. 게곡 그다음은 떼, 빠찌치기. 여기 놔근에 종이 꼬부려근에 그 놔근에.
#2 무사 그 느렝이총이엔 헤근에 그거 영 맞히는 거.

#1 또 셍이총.
@ 셍이총.
#1 그건 조끔 더 컨에 셍이총.
#2 그런 것도 허고.
#1 직구리, 직박구리 맞추레도 그거 가졍.
@ 게난 어릴 때 노는 거 말헴신디.
#1 으.
@ 학교 뎅길 땐 검질은 안 메봅디가?
#1 아, 방학, 방학이 사십 일 여름방학을 허는데, 방학이라는 게 우리는 엇엇수다. 어무니 아부지 쫓아근에 김메레 뎅이다 보며는 사십 일 다 가버리면은, 그때야 낙시, 고망낙시 이제 가면은 흔 메칠 뎅이당 그자 학교 다니고, 그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라는 건 몰라십주. 공부가 그때는 뭐, 우리 초등학교 뎅길 때는 제라헌 초등학교 다녓주만은 중학교는 고등공민학교랏수다. 표선 고등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일 학기 들어간에 이 학기 때야 중학교 승격을 받앗는데 그때는 어렵게 다녀십주. 우리 운동화 신언에 곧 중학교 다녀보질 못헷수다.
@ 아 그때 저 고무신게.
#1 고무신도 신어보지 못허고 우리.
#2 초, 초신.
#1 초신. 아버지 삼아준 초신. 내가 헌 거는 조리. 그 조리도 그때는 아까와근에 갓다와근에 놀지 못허카 부덴 그거 조리도 이런 데 품엉 맨발로 갓당 학교 들어갈 때 초신 신고, 경.
@ 그 저 결혼은 언제 헷수가?
#1 결혼은 고등학교 졸업허고 흔 이 년 후에.
@ 거민 빨리 헷네.
#1 빠른 펜이우다. 그 당시는 보통 이십, 저 스무 살 지나면 스물다섯 살 내에는 거의 다 헷으니까.
@ 자식은 어떵 뒘수가?
#1 자식은.
#2 다슷 개꽈? 우슷 개꽈?
#1 아니, 첨, 첨 상당이 아픈 질문인데. 내 아주 젊을 때 마누라 일러 가지고예, 자식도 다 잃고, 아이도 병원 생활만, 병원 생활만 허단에 이제 나와서 여기, 여기 한 십 멧 년 돌아뎅기단 나 여기 완 살앗수다게. 경 헤노난 지금 딸만 세이고 너이랏단 딸 하난 보내버리고. 요 요 한 두 세 둘 뒛수다만은. 똘만 셋이우다, 지금.
@ 그 부모님 고향은 어디우꽈?
#1 우리 부모님도 여기우다. 원래 토벡이우다, 여기.
@ 그 결혼헐 때 결혼사진은 찍읍디강?
#1 그 당시는 결혼사진이엔 헌 게, 나 결혼헐 때는 읏엇수다. 겨고 그때는 그 후에는

추럭, 추럭 타고 결혼헷는데, 우리는 말 타고 헷고.
@ 물양?
#2 가까우난 하천리난.
#1 아이 멀어도 물로 주로.
@ 물 탄에.
#1 으, 물 탄. 가마 타고. 색시는 가마 타고 신랑은 물 타고. (중략)
@ 거난에 그 ** 낳고 자란 과정 영 굴아줘 봅서, 훈번.
#2 무신 어린 때라부난 알아지쿠강게.
@ 게메, 그때도 우리 남자 삼춘은 뭐 이것저것 놀이 허멍 하영 지내고.
#2 우린 엿날엔양 그 바당가에난양, 경 학교 가렌 헤근에 강 오민 여름방학엔 막 바당에만드러 살곡 노픈 디 상은에 바당디레 털어지는 디. 털어지는 거. 그런 거 연십 허멍 허당보난 흑교도 못 뎅기고 물질헨에 기자 무레질허멍 살앗수게. 해녀질 헤근에.
@ 물질양?
#2 예.
@ 물질 허난에 상군이꽝, 중군이꽝, 하군이꽝?
#1 중군, 하군이 어디 잇수강게, 그때.
@ 아이, 막 지픈 바당 가민 상군이엔 허더라고.
#2 지픈 바다에 가민 상군허고, 저 물건을 하영 헤내사 상군.
#1 잘 헤낸 사름.
#2 잘.
@ 하영 안 헙디가?
#2 보통, 보통.
@ 보통?
#2 예. 보통이난 육지 물질도 막 돈 벌레 다 가오곡.
@ 그 남자덜은 물질허는 사름이영 결혼허민 막 좋아헌덴 허더라고양? 옛날은.
#2 요새난 경헴주마는 옛날사 물질헨 돈 벌언 살아졋수가?
@ 아니 꼭 올 때는 저 먹을 거.
#1 옛날사, 옛날사 물질허는 아주망허고 결혼헌 사름 펜안ᄒᆞ게 살앗주.
@ 게메, 게난에 전복이라도 ᄒᆞ나 잡아 왕 주곡.
#2 먹는 건 헤도 돈은 안 뒈십주게. 돈은 안 뒈서.
@ 그때도 저 뭐는 돈은 줫덴 헙니다, 메역양?
#2 메역 물리왕.
@ 메역 물류와근에.
#2 메역 헤여근에 이만썩 부쪄근에 훈 칭에 얼마, 백 근에 얼마 허영.
#1 게난 우리 동네도 저 메역 ᄌᆞ물아다근에 그걸로 밧 산 사름이 많으우다.
@ 메역이 제일 하영 줫덴.
#2 그때는 미역.

@ 지금은 저 톳도.
#1 톳도.
@ 풀곡 허주만은.
#1 톳도, 톳도 엇수다, 우리 바다에.
@ 그다음에.
#2 이지금, 이지금은 저 수협에서 물질허민 농사졍은에 저 무신거 받는 거 잇지 안허우꽈?
#1 거기 보믄 뭐 지원허는 게 많읍주.
#2 예. 경허난 지원허는 것이 막 하는 셍이라.
#1 직불제도 주곡 다 허난, 수협에도.
@ 그다음에양? 결혼식은 어디서 헤수가?
#2 우린 이 집.
@ 집이서?
#2 집이서 헷수다.
@ 집이서.
#2 예.
@ 게민 여기 시집오젠 허믄 태흥리에서 좀 머난에.
#2 그땐 차 탄, 차 탕 왓수다.
@ 차 탕 와서마씨, 그땐 차 잇어나수가?
#2 차 잇어낫주게.
@ 아.
#1 그때 요새ᄀᆞ추룩 그런 게 아니고 보통.
#2 요새추룩 좋은 차가 아니고.
#1 옛날은 추럭으로 허는 사름.
#2 추럭 닮은 차게.
@ 추럭 닮은 차.
#2 봉고차 닮은 거.
@ 아, 차로 헷구나. 저 결혼사진은 안 찍엇고?
#2 무사 안 찍을 말이우꽈? 찍엇주.
@ 집이서양?
#2 집이서 다 찍엇주. 우리 마당에서 헷수다, 마당에서.
@ 게메, 펭풍 쳥?
#2 예.
@ 펭풍 쳥양?
#1 그 당시 차로 결혼식 헌 사름은 다 사진 찍은 사름이고.
@ 으.
#1 물 타근에 허는 사름은 사진 못 찍은 사름이고.

@ 못 찍은 사름이고. 그 결혼사진 이수강?
#2 엇수다 이젠. 아무것도 엇수다.
@ 다 던져 불엇구나?
#2 데싹복.
@ 아 그런 거 막 저 이 사진 찍엉양? 지금 뭐허젠 헙주게.
#2 아, 그런 거 시민 허주만은 엇수다게. 뒈싹복닥을 멧 번 헷수가? 집을 두 번 짓으난, 두 번 짓으난 기자 다 어디로사 가벼신디, 문딱 처치헤 빗주.

일월

정월 멩질

@ 그다음에양, 그 이 세시풍속에 대헤서 영 물어보쿠다. 그 우선 그 정월 가근에양? 이 정월 멩질, 이 정월 멩질에 대헤서 혼 번 굴아줍서, 정월 멩질, 우선 저.
#2 우리가 그 지금 제지내는 거?
@ 예, 거난 나가 물어보쿠다양? 그 정월 멩질 그 저, 때 그 저 떡 허지 안헙니까양?
#2 예.
@ 그 정월 멩질날은 무슨 떡 헙니까?
#2 우리 저 집이서 송편 헙니다. 송편.
@ 송펜?
#2 예. 동글랑헌 것도 잇고, 좀 송펜.
@ 송펜.
#2 으, 그런 것도 허고.
@ 저 침떡 그런 건 안 허여?
#2 시리떡은 저 사당 허곡. 집이서 안 쳥.
@ 아.
#2 집이서 안 쳐근에 기곗방에 강.
@ 그다음에 솔벤, 절벤은?
#2 솔벤, 절벤은양 제사 때만 이제 맞추어당 헙니다.
@ 아, 저 멩질 땐 안 허곡마씨?
#2 예.
@ 거난.
#2 멩질 땐 헤 주지도 안허여마씀.
@ 식게, 식게 때만 솔벤, 절벤 허고.
#2 헤주지도 안 허여, 기계에서.
#1 그거예? 아까 제사 그 떡 말을 나온 따문 저가 말씀드렴수다만은. 옛날에는예, 아까 저 말씀헌 대로 솔변 절변 그거 다 헤근에 친떡 헤근에 허고.
@ 으.

#1 요사이 완에 간소화허는 때문에 이젠 줄여 가지고 이런 저 헤빈 셍이우다.
#2 예.
@ 옛날은 경 헷수다.
#1 옛날은 그거 다 헷수다. 그거 뭐 표시허는 게 하늘, 별, 땅 헤 가지고 다 몰앙 거.
@ 으.
#2 아니 게난 누구나마 강 보믄양, 떡칩이 강 보민 이 멩질에, 팔월 멩질에나 정월 멩질이나 다 흔 뒈씩 골앙 집이 강 허곡.
#1 게난 이제는 다 맞추어당 헴주만은 옛날은 다 집이서 헷수다게. 옛날.
@ 아, 거난 ᄀᆞ루만 골아당은에 집이서 헷수다게.
#1 예, 예, 예.
#2 무사게 시리떡에게, 그 시리에 놩 쳐근에.
#1 게곡 요사이에는 표선이나 이런 그런 읍 그런 디 강은에 떡 ᄀᆞ루 골앙 오곡 헷주만은 옛날엔 이 마을에 방앗간 잇엇수게.
@ 예.
#1 기계에, 그 떡ᄀᆞ루 ᄀᆞ는 기계 잇어 부난에 그 기계에서 골아다근에 집이서 다 떡을 헷는데. 그때는 친떡허곡 아까 말대로 그 뭐 절변, 솔변 그거 다 헤연 헷수다.
@ 으.
#1 멩질 때도 제사 때고 다.
@ 그다음에 저 묵도 허고.
#2 묵도.
#1 아, 예, 묵 허고.
#2 메밀묵은 건 당연헙주게.
@ 묵.
#1 적도 다 허고.
@ 그다음에 저 탕쉬도 허지양?
#1 예, 탕쉬도, 메밀 탕쉬, 고사리 탕쉬.
#2 탕쉬를 무사 아녑니까?
@ 그 탕쉬 안네 무신거 놉니까?
#2 탕쉬 안네 미시거 놉니까?
#1 거 묵 쪼가리도 놓곡.
@ 아이 게난 탕쉬 허면은?
#2 탕쉬 고사리.
@ 고사리. 그다음?
#2 무시거 콩ᄂᆞ물.
@ 으.
#2 아 옛날엔 그 무시거 묵탕이엔 놓주마는 요즘은 그거 아녑니께.
@ 이 팔월 멩질은 저 양엣근도 헤여양?

#2 양엣근.
#1 옛날, 옛날에사.
#2 지금도 헙니다, 지금도.
#1 양엣근집이엔 헤근에 가루에 거 가루에 막 무쳥 양에 썰어놔근에 집으로.
#2 것ᄀᆞ라 무시거옌 ᄀᆞᆯ읍니까?
#1 집이주, 집.
@ 나중에 물어볼 거고.
#2 이지금도 양엣근 허는 사름은 헙니다.
#1 예, 지금도.
#2 호박도 보깡 놓곡. 호박도.
@ 그다음에 저 제숙?
#2 제숙.
@ 적.
#2 솔레기.
@ 팔월 멩질날 저, 여기는 저, 적을 뭐, 뭐 헙니까?
#2 소고기적허곡, 뒈지고기적허곡 ᄒᆞ는 사름은 문어 사당도 적 허고.
@ 문어, 문어 뭐옌 헙니까? 제주도말로?
#2 문게.
#1 문게.
@ 문게. 게난 문게.
#2 문게 사당.
#1 제주도말로 ᄀᆞᆯ으렌 허는 거주, 게난.
#2 문게 사당은에 그거 적 헙니다.
@ 뒈지고기는?
#2 뒈지고기도 허고.
@ 돗궤기 아니?
#2 도세기,
@ 돗궤기. 도세기궤기.
#2 도세기궤기, 쉐궤기.
@ 쉐궤기.
#2 예.
@ 그거 허곡. 우린, 우리는 문게옌 안 헤근에 우리 동넨 물꾸럭이엔 헙니다, 물꾸럭.
#2 물꾸럭.(웃음)
@ 물꾸럭.
#1 아 겨곡 저 북쪽에 가믄 저 문게옌 헷다근에 막 욕 듣는 사름 잇어. 아 문씨가, 문씨 가문에서는 옛날 그런 말 잇엇주게, 문게옌 곧지 말렌.
@ 문게. 그다음에 저 여긴 저 옥돔을 솔라니엔 헙니까, 솔레기엔 헙니까?

#1 솔레기.
#2 솔레기.
@ 솔레기도 궝 올리곡?
#2 예.
@ 궈근에양?

세배

@ 그다음에 세배 허지양, 세배?
#1 예, 세배는 무조건 헙주게.
#2 세배?
@ 정월 멩질날.
#1 예.
#2 정월 멩질에 요즘은 하영 떨어지는 거 닮아.
@ 예, 이젠 단체로들 헴수게.
#2 으.
@ 마을 단체로덜 허고.
#2 옛날은양 우리도 아덜덜 친구덜 딱 정월 멩질 나민양, 우리 저 옵니다게. 겐디 이젠 작년부떤 안 뎅겨.
@ 작년, 훈 이 년 전부떠 코로나 때문에덜양.
#2 예, 원, 일절 안 뎅겨.
@ 이젠 권당도 엇수다, 권당도 엇어.
#1 아이 게난 저 지금도 말씀헴수다마는 권당이엔 헌 게 엇수다게. ᄉᆞ춘 간에도 이녁만씩 제사도 지내곡 따로 헤 버리고 그런 시대가 됌수게. 제사도 이제는 어멍 아방을 이제 ᄒᆞ룰에.
@ 합제.
#1 합제 헤 불곡.
@ 합제덜 헤 불곡.
#1 합제헤 불고.
@ 이거 원.
#1 게난 옛날 풍습이, 옛날 풍습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엇수다게.
#2 죽으민 ᄯᅮ시게 산소에서 다 헹 와 부난에게.
#1 게곡 이제 뭐 삼우제도 무신 헴수가게? 삼우제도 산소에서. 초제.
@ 몽땅 헤 불엄서.
#1 홈치 헤근에 그냥 끗내 버립니다.
@ 그냥 거기서 상복덜 다.
#1 예, 예.
@ 벗엉덜 태왕 둉은에 와 부는 모양이라. 이거 안 뒛수다.

#1 이젠 유교법이라는 게 완전이 이젠, 이젠 없어져 벳수다.
@ 아, 우린 상식까지 헤신디, 아버지 돌아가신 때.
#1 옛날에 상식 다 헤수게. 우리도 헷수다.
@ 아 게난에 어머니, 어머니도 상식 허곡.
#1 으.
#2 아 그거 상식.
@ 우린 저 삭망도 다 헤수다게.
#1 아 우리도 삭망.
#2 삭망까지 허믄 삼 시 밥 헤놔사 헐 거 아니우꽈.
@ 삭제 허고 망제 헙주게이. 게난 초ᄒᆞ루, 보름 다 헤서마씨.
#1 우리는 보름은 아녀고 초하루는 삼 년 상 다 헤수다. 초하루.
@ 게난 그 삭제.
#1 예.
@ 그 삭제허고 망제 합쳐근에 삭망.
#1 예, 맞수다게. 초하루 삭, 보름 망 헤 가지고 두 번 ᄒᆞᆫ 둘에 두 번씩 삭제를 헷는디.
#2 우리도 친정이서, 친정이선 보민 담베 피우는 사름이민 담베 밥 먹, 올려나민 담베 피왕.
#1 담베도 피왕 올리곡.
#2 피왕 올리곡.
@ 어, 경 허고.
#1 대소상 땐 경 헷수다게. 대소상.
#2 대소상 때 안 허영.
#1 제사 때도 올리고.
#2 상식 허난양? 매날 밥 헤 놓 때마다.
@ 으.
#1 경 헷수다.
#2 예, 우리 할머니 돌아가난양 기추룩 헙니다.
#1 상식이엔 헌 게 딱 살아잇을 때 대접허는 모습 그대로 허는 거니까.
@ 예, 그렇게 허는 거.
#1 경 허니까 담배도 올리고 다 헷수게.
@ 그 저 멩질 때 국을 뭐옌 헙니까?
#2 갱국.
#1 갱.
@ 갱국. 갱, 갱국.
#2 갱국. 갱국.
@ 밥은, 밥은?

#2 갱국.
@ 밥은?
#2 밥은 메.
@ 어. 메허고 갱 올리고.
#2 예.
@ 거난 국은 보통 무슨 국 끌립니까?
#2 보통 바닷고기도 낄리곡 소고기 국도 낄리고.
@ 게난 바당궤기는 종류가 무슨거?
#2 솔레기, 대강 솔레기, 돔 ᄀᆞ뜬 거.
@ 어.
#2 저 여름엔양? 오일장마엔 벤자리가 막 좋아, 벤자리.
@ 어.
#2 벤자리 알아지쿠가?
@ 예. 그.
#2 벤자리 알도 베곡양, 오월돌 나민 막 솔져.
@ 우린 벤자리, 우리 어머니가 변씨난양 막 별명으로 불러나수다.
#2 예, 벤자리 헤다근에 우리 그걸로 갱 끌영 허고 헙니다, 오월돌 나민.
#1 아이 중문이옌 허난 제주도 풍습 다 아는 사름입주, 무신 모를 게 이수강.
@ 아, 거난 이거 연구를 하영, 오래 헌 사름이난양 다 압니다.
#1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름입주.
@ 게난에.
#2 우리 친정 하르버지네가 중문이엔 헙니다게, 강칩이.
@ 아, 강칩이.
#2 예, 중문이.
@ 알아주는 집안입주, 강칩이. 그, 이 멩질날 저 상 난 집이도 가근에 저 인사허곡 허지양?
#2 이젠 그런 거 엇입니다.
@ 옛날은?
#2 예, 옛날은 잇엇주.
@ 옛날은 그 동네마다 그 돌아뎅이멍.
#2 상 이시민 그디 상 놓민 그레 세배, 세배 강 헹 와신디, 이젠 그런 거 엇입니다.
#1 그거는 상당이 오랜 말이우다. 요사이는 뭐 젊은 사름덜은 그런 거.
#2 ᄒᆞᆫ 십 년, ᄒᆞᆫ 십 년.
#1 십 년만 뒛수가? 무사?
#2 십 년 전인 헤수다.
@ ᄒᆞᆫ 십 년벳기 안 뒛어.
#2 십 년벳긴 안 뒌 거 닮수다.

@ 십 년, 이십 년 경 뒘수다.
#1 상당이 오랫주.

정월 대보름

@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대헹 말허쿠다예? 그 정월 대보름 때 뭐 밥도 헤연 먹엇수강?
#2 아이고, 우린양.
@ 정월 대보름.
#2 저 육지 사름덜은 그런 거 갖추주만은 제주도 사름덜은 거 갖추지 아녑니다.
#1 아 제주도도 하는 사름 물론 허는 사름 잇주만은 우리 신풍리는 보름이엔 헌 걸 헤본 적이 엇수다.
#2 예.
@ 연날리기?
옛날도 엇엇수다.
@ 연날리긴 안 헤봣수가?
#1 옛날도 먹고 살기 힘든디, 그거ᄁᆞ지.
#2 엿날은 우리, 우리 저 처녀 땐 쏠 모여다근에 ᄀᆞᆯ아다근에 떡 치는 거, 그디 일름 쓰곡. 집이서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시리떡 치민.
@ 정월 대보름날?
#2 예. 그건 헤나수다. 우리 처녀 때.
@ 거 어떵 허는 거우꽝, 그거?
#2 거 어떵 헙니까게. 집이서 엿날에 시리떡 이시난게, 앚져근에 밀ᄀᆞ루 허여근에 영 그 고냥 벵ᄒᆞ게 막앙 불 때여근에 시리떡 안 쳐나수가?
@ 예.
#2 경 헹 치는 거.
#1 그게 뭐냐면은 옛날 그.
#2 경 헤연 우리 그 장.
#1 자식덜 운세덜.
@ 밀ᄀᆞ루로도 헙니까?
#2 아이, 밀ᄀᆞ를론 못 허여.
#1 쏠로, 쏠로.
#2 밀ᄀᆞ를론 솟 전 막는 거.
@ 막는 거, 막는 거.
#2 예. 시리 탁 앚지민 글로 짐 못 나게.
@ 못 나가게 막는 거?
#2 예, 뱅허게 막는 거.
@ 거난 저 쏠로 헤야 헐 거 아니우꽈, 곤쏠?

#2 곤쏠로 헹은에 굴아다근에게, 그거 우리 장난으로 막 경헤낫수다, 우리.
@ 영 그 뭐꽝? 아까, 손으로 뭐 헤여근에?
#2 ᄀᆞ루 굴아다근에양 경헹 시리떡 막 밀어근에 ᄒᆞᆫ 칭 놔근에 이녁 일름 쓰곡.
@ 으.
#2 또 ᄒᆞᆫ 칭 놔근에 또 이녁 일름 쓰곡.
@ 으.
#2 그추룩 허멍 옛날에 우리 장난으로 헤나수다게.
#1 우리, 우리 나가 생각나는 건 그 ᄀᆞ루 굴아당 헌 게 아니고, 쌀, 쌀 헤근에 사발에 쪼끔씩 놔근에 밥헐 만큼 헤연 솟디 놔근에 아들이 삼형제, 아들이나 자식이 서이민 서이, 세 그릇 헤근에 표시헤근에 그릇에 써 놓면은.
#2 거 산메 찌는 거, 그건 산메 찌는 거.
#1 예. 쪄근에 하면은 그 쌀에 오곳이 밥이 뒈면은.
@ 으.
#1 그 사름 상당이 운이 좋덴 허곡. 그 밥이 이제 멧 개 쌀이라도 뛰어낭은에 밥이 뒈 버리면 좀 그거는.
@ 점 지는 거네이?
#1 점 지는 거 비슷한, 그런 부모들이 그런 거 헨 거 기억이 납니다.
@ ᄒᆞᆫ 번 더 굴아줘 봅서, 그.
#2 게난.
@ 영.
#1 쌀을 세 사름, 자식이 세 사름이믄.
@ 으.
#1 쌀을 세 그릇에 놩.
@ 으.
#1 이제 솟디다 놩 밥을 찌는 식으로 찔 거 아니우꽝?
@ 으.
#1 거 그릇채 찌면은 제대로 쌀이든 뭐든 사발 자체가 깨끗허게 밥 지어서 나오면은 그 자식은 상당이 운이 좋덴 허곡.
@ 으.
#1 그디 뭐 밥이 잘못헤근에 쌀이 튀어나근에 밥이 흐리거나 허면은 아, 좀 병이라도 생길까봐 좀 두려워허곡 그렇게 헤나십주.
@ 아, 그런 것이 잇어나구나게.
#2 우린 이제 묘제 출릴 땐.
#1 산메 찝니까?
#2 예, 산메, 사발로 하나 산메 찌곡. 또 낭푼이로 하나 산메 찌곡, 묘제 출릴 때.
#1 묘제 출릴 때.
#2 예. 이지금은 경 헹 갑니다, 우린.

@ 그 쉬엇당 허쿠다양.

액막이

@ 에, 그다음에양? 그 액막이 알아지쿠강? 액막이에 대헤서 흔 번 골아줍서.
#2 액막이게.
#1 액막이 으.
@ 방사탑. 방쉬, 방쉬.
#2 방쉬, 방쉬.
@ 으.
#2 둑 헤다근에게 방쉬허는 거토 잇고.
@ 언제쯤 방쉬헙니까?
#2 그건 언제쯤이멍말멍.
@ 정월달에?
#2 저 본향에 가민 그 액맥이로 그 둑을 헹 가는 사름 이십니다.
@ 무신거마씨?
#2 둑.
@ 둑.
#2 으. 옛날엔 둑 기자 아졍 가민 그디 가근에 액맥이로 헤영 야가지 확 끊어근에 그디 어디레 데껴 비어뒁 옵디다게.
@ 아.
#2 옛날에. 겐디 요즘은 숣앙 가. 둑을 숣앙 가.
@ 아.
#2 싹 헤다근에 그 저 잡은 거 사다근에. 그추룩 헹 허는 생이랍니다, 요새.
@ 그 옛날 무신거냐 저 나룩찍으로 헤근에 그디 막 돈도 놓곡 헤근에.
#1 아, 그건 바다에.
#2 그건 바당에 배 띄우는 거.
@ 음.
#1 바다에 가근에 허는 거.
#2 배 띄우는 거. 겐디 이디 그런 건 엇고.
@ 옛날은.
#2 지 드리는 건 잇주, 지. 해녀덜 바당이 가민 요왕님안테 요만썩 헹 저 그 종이에 싸근에 밥 그레 거려 놓곡, 고기 놓곡, 경 뱅뱅 감아근에 실로 뱅뱅 헤근에 그거 두 개민 두 개, 저 세 개민 세 개 헤근에 경 헹 강 요왕제 드립니다, 허영.
#1 그건 제지내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배 놓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옛날에 여기 살다보면은 바다에 뎅이는 그 여자분들 그 병원엔 가도, 그때는 뭐 병원도 별로 엇주마는 그때는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뒈고 허면은 굿을 헹 낫는 사름이 잇엇수다게. 게니까 거 허게 뒈면은 여기서 안 뒈면은 바닷가에 강 넓은 그 뜰에 강은에 막 추는굿

을 허여마씨. 게 추는 사람은 멀쩡헌 환잔데 움직이지도 못험직헌 여자분덜이 가근에 추는 거 보면은 날라다녀마씀. 이런 저 바다에 그, 그 엉성헌 바위 틈도 막 맨발로 막 날라다닐 정도로 막 추고 허다근에 흔 삼 일 잇당 다 기진맥진 헤여근에 드러누울 정도 뒈면은 이제 다 끗난 걸로 생각허영 배 놔야 뒈켄 헤영은에 이제 배 놓앙 밥도 놓곡 뭐 쌀도 놓곡 헤근에 배 띄와근에 내보내면은 그 귀신이 떨어져근에 잘 전송헹 나가 부니까 이제 병 나은다 허연 옛날부떠 그 배 띄우는 게 잇엇수다게.
@ 으.
#2 찝으로 만들아수다게.
#1 예. 찝으로 멘들아근에.
#2 배 멘들앙.
@ 게난 액맥이 아니우꽈양?
#1 예, 액맥이게.
#2 액맥이주.
#1 경 헤근에 그거 귀신이 그 여자안티 잇던 귀신이 그축 배에 태워근에 보내버리면은 그 여자가 경 낫는다 헨에 옛날에 그거 많이 헤십주.
@ 그 거욱대, 방사탑에 대헤서 알아지쿠가? 방사탑.
#2 아, 그건 난 잘 몰라.

포제

@ 그다음에 아까도 굴앗주만은 그 포제에 대헤서 한 번 더 굴아줍서.
#2 포제?
#1 포제마씸?
@ 우선 그 금줄 메지양?
#1 예, 예. 거 제, 제지내는 장소에는 금줄 맵니다.
@ 거 금줄이엔 허지양?
#1 예, 금줄.
@ 금줄.
#1 예.
@ 거 뭐 뭘로? 뭘로 나룩찍으로?
#1 옛날엔 찝을, 찝을 웬숫, 웬숫이엔 헤근에, 웬쪽으로 꼬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줄 쳣는디 요사이는 뭘로 허는지 몰르쿠다.
@ 으. 그다음에 붉은 흑도 뿌리지양? 춘흑.
#1 아, 우리 지방에는 흑도 빨간 거 뿌리는 게 엇수다. 그거 이때까지 내가.
#2 집이, 집이 토신제 헐 때는 그거 흑 뿌리지 안헙니까?
@ 아, 토신제이, 토신제는 뿌리지양?
#2 옛날엔 뿌련.
#1 아, 우리도 우리도 그 집안마다 틀리거든마씨. 그런 거는.

#2 뿌려, 뿌려.
#1 겐디 우리는 그추룩.
#2 곱닥헌 거 내영 바닥에.
@ 그다음에 제관, 제관에 대헤근에 흔번.
#1 제관은 저 그대로 다 출립니다. 삼헌관허고 알자, 뭐 대축, 집례, 동서창 또 뭐.
@ 동서창이 뭐꽝?
#1 동쪽에서, 동쪽에 잇곡 서쪽에 잇어근에 국궁 그 보통 포제헐 때 국궁배 헤근에 배렌 헤근에 그거 소리를 지릅주게.
@ 어.
#1 게민 흔 착, 서착에서는 또 이제 대답허곡 그런 거 잇수다. 게난 제를 지낼 때 이제 삼헌관안테 국궁배 헤서 절허라. 흥 허믄 서쪽에서 흥 허믄 일어사라, 일 흥 제헹 일어사라 헤근에 그런 걸 이제 말로써 허는 겁주. 경 헹 제관덜은 거기 그 소리에 따랑은에 절허렌 허믄 절허곡 일어사렌 허믄 일어사곡.
@ 그다음에 그, 이것이 마을제지양?
#1 마을제.
@ 이것이양? 포제가양?
#1 예, 예.
#2 일 년에 흔 번.
@ 예. 마을제양?
#1 예. 건 요사이 뭐 어느 마을에서도 다 헴실 거우다. 겐디 좀 간소화허영 허느냐, 원칙대로 제대로 출려서 허느냐가 거 문제주, 다. 우리 동네는 제라허게 출령 허긴 허는디 딴 동네 같은 데는 한 오 명만 가지고도 제지내곡 경 헌덴 헴수다게. 겐디 우리 동네는 제관 다 출령 헙니다.
@ 그 제물 잇지 안허우꽈양? 그 제물은 마을 사름덜 다 가졍 갑니까?
#2 아니. 거기서 출려, 그 집이서.
#1 딱 한 군데서 출리는 거주.
@ 게난 사름마다 가졍 가는 것이 아니고.
#2 예, 삼일 정성인디 아, 그거 딱 그디 강 그디서 출려.
@ 그 집이서양?
#1 으, 집이서.
@ 그 저 포제 허는 디서?
#1 예, 예.
@ 다 출렴구나양?

당제

@ 그다음에 그 아까 말헷주만은 당제에 대헤서 흔번 말헤 줍서. 당제는?
#1 당제.

#2 당젠 어떵게, 당제.
#1 당은 제 안 헙니까?
#2 제, 무사 제 안 헤?
#1 본향당, 본향당.
#2 본향당, 본향당게.
#1 그거에 대헌 거.
@ 게믄 그 여자 분덜만 가지양?
#2 여자 분들만.
@ 으.
#2 남자들은 안 가고.
@ 어. 가근에 올려근에 뭐, 나는 안 가봐신디 어떵 허는 거우꽈?
#2 가민양, 영 헹 제단에 가민 뭐 사진도 엇곡 아무것도 엇어마씸.
@ 으.
#2 그디 가민 무시거 영 비석 ᄒᆞ나 세와져신디.
@ 으.
#2 그디 강 쫙허게 이녁 아졍 간 거만썩 착착 놔. 게민 착착 놓민 ᄎᆞ례대로 그 놓은 ᄎᆞ례대로 ᄒᆞ나썩 착착헤 강. 그 사름이.
@ 심방이?
#2 그 사름, 심방이 그 사람이 ᄒᆞᆫ나썩 딱딱 헤근에 제비 뽑으멍, 운수보멍 영 내조까 뒁 다음 허곡 또 다음 허곡.
#1 아, ᄎᆞ례ᄎᆞ례로?
@ 그 제물덜은 뭐, 뭐 가졍 가?
#2 제물덜은 ᄀᆞᆫ지 안헙디가게. 그 돌레떡.
@ 으.
#2 밥, 밥 ᄒᆞᆫ 그릇. ᄯᅳ시 족은보신 저 거시기 영등하르방 거옌 헤근에 저 쪼끌락헌 보시에 ᄯᅳ로 허곡. 솔레기 궝 가는 사람. 게 아니민 계랄 세 개 숣앙 가는 사람. 경 헤영 떡, 사과, 배, 미깡 경 헹 앗앙 갑니다.
@ 아.
#2 겡 지전. 지전 ᄉᆞᆯ앙 고냥 보롱보롱 나게시리 지전 그거 헤근에 ᄒᆞᆫ 권 헤근에 ᄒᆞᆫ 열댓 개 헤영 ᄉᆞᆯ곡. 다슷 개는 딱 꼽아근에 ᄉᆞᆯ을 거.
@ 그 제물 담앙 갈 땐 뭐 구덕에 담앙?
#2 예, 구덕.
@ 무신 구덕?
#2 ᄎᆞᆯ리, 다 ᄀᆞᆫ대구덕 잇수다, 이딘.
@ ᄀᆞᆫ대구덕.
#2 ᄀᆞᆫ대구덕에 놩 졍 가.
@ 졍양?

#2 예. 차로 가는 사름은 차로 가곡 졍 가는 사름은 졍 가곡.
@ 걸렝이로 헤근에?
#2 예.
@ 걸렝이로 졍양?
#2 걸렝이꽝게?
@ 걸렝이주.
#2 질팡이주게.
@ 아, 우린 걸렝이엔 허여, 걸렝이. 질팡 여기?
#2 질팡이주기, 질팡.
@ 아, 우리 동네선 걸렝이.
#2 저 베엔도 허곡 베.
@ 어.
#2 우리 동넨 베, 베.
#1 질빵, 질빵.
#2 질빵, 질빵.
@ 아.
#1 겐디 다 틀려, 우리 이 저 이쪽, 이쪽.
@ 아, 우리 동넨 걸렝이, 걸렝이.
#1 이쪽 말허고예?
#2 애기 업는 거ᄀᆞ라 걸렝이엔 허주.
@ 아이 그냥 걸렝이엔. 모든 게 걸렝이라.
#1 겐디 저 북제주군엔 가면 우리 이 남쪽 말허고 틀린 말 많읍니다. 가고 싶다 허는 것도 가지 그립다 허고.
@ (웃음) 가지 그립다.
#2 저 대정드레 경 헙니께, 대정.
#1 아, 게메 저 어디 고산더레 저 애월더레.
@ (웃음)
#1 말 틀려.
#2 대정드레.
#1 틀려. 우리 학교 뎅길 때도 보믄 거기 애들허고 틀려, 우리 말은.

안택

@ 그다음에 안택에 대헤서 물어보쿠다양? 여기 저 칠성제 헙니까?
#2 칠성제 아녑니다.
@ 아니, 게난 식게 때?
#2 식게 때 허는 집인 허여마씨.
@ 칠성제이?

#1 칠성제가 아니고.
@ 거 고팡?
#1 고팡에서 옛날엔 헤수다.
#2 고팡에. 옛날에 거.
#1 옛날엔 헤낫수다.
#2 농사 잘 뒈렌 그거 앚다 놓는 거고.
@ 어.
#2 칠성이엔 헌 거 허곡 틀린 거 닮안게.
@ 칠성은 저 뭐 허는 사름 있어. 집 뒤에.
#1 거 칠성눌.
#2 칠성눌.
@ 응, 그 ᄂᆞ람지.
#1 예, 예. ᄂᆞ람지, 칠성눌.
#2 주젱기.
@ 주젱기.
#2 주젱기 헤근에.
#1 어어.
#1 그것도 지금도.
#2 지금 멧 사름 잇수다.
#1 모시는 사름덜 멧 사름 이십니다.
@ 게난 고팡에는 여기서는 뭐옌 헙니까? 고팡제? 식게 때.
#2 아니 그자 안네, 안네 헙니다, 안네, 안네.
@ 안네, 안택, 안네.
#1 안네.
@ 안네양?
#2 예.
@ 안네, 안네 강 놓라[노라].
#2 안네.
@ 거난에 식게 헐 때 보면은 본상 잇고.
#1 으.
@ 그다음에 그 안네.
#1 고팡 안네.
@ 고팡 안네.
#1 예.
@ 놓고. 그다음에 문전제?
#2 문전제.
@ 예. 문전제 허지양?

#2 예, 우리 문전제 헙니다.
@ 식게 전이양?
#1 문전제는 하는 디도 잇고 안 허는 디도 잇수다.
#2 식게 전이 허주게.
@ 식게 전이.
#2 식게 다 끗낭 허는 집이도 잇젠 헙디다, 신풍리에.
@ 아.
#1 그런 집이도 잇어?
#2 아, 요 ○○이네 경 헨덴 헴수게게.
#1 게난 허긴 헤도.
#2 제지내젠 허민양 제지내기 전에 문전제 헤둬근에.
@ 그 그것이 원칙인 거 닮은디?
#1 게난 그것도 다 집안 가문가례엔 허는 거라. 집안마다 틀려.
@ 이, 저 안네 노는 거허고 문전제는 상 놔근에 헙니깡?
#2 아니, 안네는 차롱에 기자 놩 허곡.
@ 으.
#2 문전, 문전은 바로 상 놔근에게.
@ 놧당은에.
#2 예, 상 뚜로 딱 싱것당 문전제 허주. 우린 경 헙니다마는 몰르쿠다.
@ 그 저 문전제 헤난 다음에 저 조왕에 들렁 강은에 조왕제도 허지양?
#2 조왕제멍말멍. 그것이 안네 거.
#1 조왕제옌 헌 게.
#2 그것이 안네옌 헤근에.
#1 그게 안네제가 조왕제주.
#2 그거.
@ 아니 거난에 문전제 헤난 거 헤근에 조왕에 가근에.
#2 아 문전제 헤난에 우 걷은 거 헤근에 예, 예.
@ 경 허지양?
#2 예, 우리 경 헙니다.
#1 나 이거 들음도 처음이여.
@ 아이, 조왕에.
#2 문전제 헤근에 막끗덴양 싹싹 헤근에 조왕신디 가민 그 씽크대 우이 영영 놧당은에.
@ 예.
#2 처리헙니다게. 우리 경 헙니다, 예.
#1 어떤 디 보믄 물빡 숭눙이엔 허영. 물빡 숭늉.
#2 물빡 숭눙도 헙니다, 우린.

#1 그건 어떤 거우꽈? 물빡 숭눙은?
#2 제 문딱 지내나민양, 제 문딱 지내나민 흔불 싹 걷어근에.
#1 거 물빡에 놔?
#2 예게, 낭푼에, 낭푼에 놔근에.
#1 난 건 들음만 헤놓난.
#2 그거양 군줄덜 군줄덜 나시엔 헙니께. 조름에 그 좇아온 사름덜 찍세 헤영.
@ 그거 헤근에 어디 강 버립니까?
#2 그거 기자 영 올레레 영 내껴 붑니다.
@ 올레ᄀᆞ시?
#2 예. 올레레 기자, 숭늉 내지 안헙니까?
@ 아, 우리도 겅헙니다마는.
#2 예, 숭눙 내듯 기자 영헹 내붑니다.
@ 이, 저 조그만헌 그릇에.
#2 우린 낭푼에 요만인헌 낭푼에 헙니다.
@ 아 그거 헤근에 전부?
#2 예. 막끗덴양.
@ 예.
#2 전부 헤 놔근에. 박숭눙, 것ᄀᆞ라 박숭눙.
@ 그거는 올레 강 ᄀᆞ시허곡.
#2 예.
@ 그다음에 그 조그만헌 거. 거는 지붕더레 올리지양?
#2 옛날엔 지붕더레 올렴주만은 요새사 지붕더레 올립니깡게.
@ 지붕더레양?
#2 예. 지붕더레 안 올령 우리 흔 짝더레 영 하단.
@ 옛날엔 지붕더레 올려서양?
#2 예, 옛날엔 지붕더레 올령.
#1 옛날은 초가집 헐 때는 다 지붕더레 올려수게.
@ 지붕더레 올리곡.
#2 예, 요샌 알러레 헙니다, 알러레.
@ 아, 거난에 우린 아직도 저 옥상에 가근에 버려.
#2 아, 기우꽈?
#1 그게 원래 옛날.
#2 게난 우리도 요새 기냥 박숭눙은 헙니다게, 그거.
#1 아 우리는 원래 우리 집안에 물빡숭눙이엔 허는 자체를 안 헤부니까, 몰르는 거고.
@ 거 우박 숭늉?
#1 물빡, 물빡.

@ 물빡 숭눙.
#1 으.
@ 아, 우리는 그 밥사발에 헤근에 헤여. 문딱 헤근에 겡 올레ᄏᆞ시.
#2 올레ᄏᆞ시 ᄀᆞ추룩 경헤근에 헙니다, 우리도.
@ 올레ᄏᆞ시양?
#2 우리도.
@ 음.
#2 관셋물 허기도 허고게.
@ 으.
#2 관세물.
@ 관셋물은 거 식게 허기 전이.
#2 예게. 손, 손.
@ 손 씻는 거고. 싯는 척 허는 거지예?
#2 예게, 싯는 척 허는 거주, 수건 놔근에.
@ 깨끗이 허는 척 허는 거주.
#1 으.
@ 관셋물 맞수다, 거.
#2 관셋물입주게.

보리밧 붋기

@ 보리밧 붋아봅디가?
#2 보리밧?
@ 어.
#2 보리밥 먹엉 커신디.
@ 게난 보리밧 붋아봔?
#2 보리밧?
@ 으.
#2 붋아 봣주게, 옛날에게. 보리밧 불라주민게 ᄉᆞ뭇 염녠 허멍 불라낫주.
#1 눈, 눈 와근에 ᄀᆞ슬믄.
@ 사람으로 불라수과? 어디?
#2 사름으로 ᄌᆞ근ᄌᆞ근헹 불르주게, 사름으로.
@ 쉐나 물로는?
#2 아이 그런 걸로 안 허고. 사름으로 ᄒᆞᆫ 파니썩 ᄌᆞ근ᄌᆞ근 꼭꼭 불랏주.
#1 그것토 겨울에, 그 저.
#2 눈이나 오곡.
#1 막 곳아근에 땅이나 영 들러질 때는.
@ 들러지민.

#1 예, 그때만 붋앗주. 경 아녈 때.
#2 불라지민 좋덴 헙니께. 옴안.
#1 게메.
#2 보리가 옴안.
#1 붋아주민 뿌리가 튼튼허덴 허는 거니까.
#2 튼튼헤. 옛날에 조 갈아근에 남테로 불리듯기.

걸궁

@ 그다음에 걸궁에 대헤근에 흔번 굴아줍서.
#2 걸궁에 대헨 건 몰르쿠다, 우리 두린 때 우리 친정에서 보민 막 걸궁 허영 집집마다 뎅이곡 ᄉᆞ뭇 영 총 쏘레 뎅이곡, 무시것도 허곡 허는 건 헤나신디 잊어 비언 몰르컨게, 두린 때.
#1 아, 저 걸궁 그 이게 마을 그 무슨 청년덜 단체로 헤근에.
#2 집집마다 뎅기멍 무시거 허민.
#1 걸궁 헤근에 헷는디. 연습헤, 그것도 연습 미리 헷다근에 집집마다 돌아뎅기면서.
#2 가믄 뭐 줍주게. 뭐 줘.
#1 가근에게 이제 그 당시는 줄 게 주로 보리, 보리쌀. 그 무슨 금액으로 주는 건 엇곡. 전부 그런 물품으로 헤근에 주면은 그거 걷어다근에 마을에 경비로도 쓰고. 음 그렇게 헷던 거우다. 옛날엔 거 우리 어릴 때 쪼금 멧 년 헤나고는 그게 엇어져베수다. 그거 하면은 총 가진 사름은 이제 총 가진 걸 위장하곡, 우장 쓰곡 뭐 위장헤근에 뭐 그런 식으로 헨에 헷는디.
#2 막 ᄆᆞᄉᆞ와, ᄆᆞᄉᆞ와.
#1 집집마다, 집집마다 다 돌아뎅겨.
#2 우리 두린 때 보믄 막 ᄆᆞᄉᆞ와.

입춘

@ 그다음에 이 절기 중에양, 그 입춘.
#1 음.
@ 입춘에 대헤근에 흔번 우리 여자 삼춘 굴아줍서, 입춘.
#2 입춘이 뒈민게. 새철날 뒈민 놈의 집이 안 가곡.
@ 어.
#2 놈의 집이 그날은 막 멩심헤영 안 갑니다, 이지금도. 지금도 막 멩심허여. 옛날엔 남저덜은 들어가민 쏠밥 헤영 곤밥 헤영 주국. 여자덜은 가민 물 꿰왕 치대기곡, 잿물 꿰왕.
@ 물 꿰와근에?
#2 으, 잿물 꿰왕.
#1 그건 무신, 무신 따문에 여자덜안티 물 꿰왕 데껌수가?

#2 그거 풀 하영 나카 부덴, 풀 하영 나카 부덴.
#1 검질 짓넨.
#2 검질 짓넨 허여근에.
#1 밧디 여자덜, 여자덜 뎅기믄 검질 짓넨 헤근에.
#2 물 꿰와근에 치대기곡. 남자들은 가민 곤밥 헤근에 궤기 굽곡 헤근에.
#1 잘 예우허고, 대접허고.
#2 경 주곡. 경 ᄒᆞ는 건 봣수다.
@ 다른 건 엇수가?
#2 다른 건 무시거 잇수강게? 튼내지쿠가?

방에

@ 그다음에, 이 정월달 뒈민은 방에 부쪄봣지예? 방에.
#2 방에?
@ 으, 저.
#2 엿날에 불놀이.
#1 예, 목장지에 가민.
@ 방에.
#1 쉐 키우는 디 그디 강 방에덜 많이 놧수다, 옛날은. 옛날엔 방에 안 놩은 쉐 키울 수가 엇엇수다. 무사냐믄 진드기도 죽여야 뒈고 허는데,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화입 금지 시키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건디. 그때는 계속 들에는 방에를 계속 부쪄수다. 그때 옛날에는.
@ 촐, 촐 비젠양?
#1 예, 촐도 비고.
#2 촐도 비곡, ᄆᆞ쉬덜토 그거 뜯어 먹엉.
#1 진드기 같은 것도 죽이고.
#2 뜯어먹고.
#1 지금도예, 이 들에 가면은, 이 골목길마다 농장에 가젠 허믄 다 가시덩쿨인데 그 때는 그런 가시덩쿨이엔 헌 게 전연 엇엇수다게. 지금.
#2 지금 ᄀᆞ득앗주게, ᄀᆞ득앗어.
#1 지금은 꽉 참수게.
@ 옛날은 겅헤도 짇을커 엇이난 짇을커 허멍게.
#1 으.
@ 다 헤왓주게.
#2 굴묵 땔 거. 웃음. 솟디 땔 거.
#1 겨곡 옛날 동산에 가믄 다.
#2 짇을커.
@ 옛날 우리도.

#2 잘 알암신게, 짇을커엔.
@ 아 옛날 우리도 저 뭐냐 저 소낭밧디 가근에 솔썹.
#2 솔입 걷엉.
@ 솔입 긁엉 오곡.
#2 굴묵 짇곡.
@ 어. 그다음에 저 소낭 썩은 거 낭토막덜 헤 오곡.
#2 화릿불로 불 솜앙.
@ 쉐똥 줏어오곡, 물똥 줏어오고.
#2 건 걸름 헤근에 유채 갈곡 보리 갈곡. 경 허멍 살앗주게, 옛날사.
@ 이젠 밧.
#2 엿날에 비료 잇곡 무시것 허고 잇수가?
@ 거난 방에 부치는 것도양? 이제 저 헌 것이 들불축제. 들불축체가 그 방에 부치는 걸 재현헌 거라.
#1 예, 맞수다게. 새별오름, 새별오름.
#2 새별오름.
#1 으, 지금도 새별오름 들불축제에 관광객덜 많이 오지 안헙니까?
@ 아, 예. 막 개발.
#1 거 우리나라에 좋은 축제 하나로 남는 거주. 첨 저 제주도에.

이월

영등

@ 아,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양, 그 영등.
#2 영등할망.
@ 영등할망.
#1 영등할망.
@ 영등할망에 대헹 흔번 굴아줍서.
#2 영등할망 영등 나갈 때 거 지 드리는 거? 그거벳긴 더 잇수가.
@ 예. 영등할망 언제 들어옵니까? 영등 할망은?
#2 정월 보름에 들어강 이월 보름에 나간덴 안 헙니까?
#1 영등, 영등할망이.
@ 언제 들어와?
#2 정월 보름에 나왕 이월 보름에.
@ 어.
#2 열나흘날.
#1 거 한림항으로 들어왕.
@ 어.

#1 제주도 각 어촌계 그 저 한 바퀴 돌아앚앙 소섬으로 나간덴 허는 겁주.
#2 열나흘날은 소섬 강.
@ 한림항으로 들어왕 소섬으로 나간다.
#1 소섬으로 제주도.
@ 으.
#1 그 사이에 이제 각 뎅기멍 뭐 무시거.
#2 셍복도 떼어 먹곡.
#1 떼어 먹곡 허당 보민 빈껍데기, 빈 ᄀᆞ메기가.
#2 아, 거 희안허여.
#1 영등할망이 왕 다 먹언 나가분 거옌 허고. 그거 안 먹엉 나가면은 돌아보멍 아, 좀 요거 춤 뭐옌, 뭐옌 표현헐 지 모르겟네, 좀.
#2 아니, 아이튼 영등하르방 헐 때 나가민 저, 전복껍데기가 빈 거 잇넨 허영.
#1 아이 거난.
@ 영등할망 올 땐 막 추웁니깡? 뭐헙니깡?
#1 그땐 비가 옵주게. 비가.
@ 비가 와양.
#2 게난 비가 자주 오민 아이고, 이 영등하르방 비, 비 썽 왓저.
#1 으, 언제민 나가 불 건고?
#2 또 비가 아니 오민 아이고, 영등하르방 나가사 비 온덴 허곡.
@ 영등하르방이엔 헙니까, 할망이엔 헙니까?
#2 영등하르방이엔 허여, 우린.
@ 영등하르방?
#2 으.
#1 영등하르방이엔도 허고 영등할망이엔도 허고.
#2 영등하르방이엔 허여.
@ 하르방양?
#2 아이고 영등 하르방 비 졍 왓저 허멍.
@ 아, 게난 보통은 영등할망이엔 잘 헤여.
#2 할망옌도 허곡 하르방옌도 허고.
@ 아, 이때 영등할망 온 때 금기사항 이수가?
#2 그런 거 엇수다. 영등하르방 들어왓젠 뭐 금허는 거 엇주게.
#1 으, 먹지 말렌 헌 거 엇어.

경칩

@ 그다음에 그 저 경칩에 대헹 알아지쿠가? 경칩?
#2 경칩 우수?
#1 경칩이엔 헌 거 무사 저 날이 ᄯᅳᄯᅩᄒᆞ영은에 개구리가 튀어나온덴 허는 거 아니우

꽈?
@ 예.
#1 절기 중에 하나.
@ 으.
#1 겐디 그거 알곡 모르곡 헐 게 엇입주게. 그자 보통 우리 이야기허는 게 경칩에는 개구리가 이제 따뜻헨 봄 나가니까 튀어나오는 거 정도나 알고 잇주.
@ 아, 춘분에 대행은 잘 모를 거고.

삼월

한식 명절

@ 그 옛날 한식 명절 헤납디가?
#1 한식 명절이 잇덴 말은 들어도양 우린 헤보진 안헷수다.
@ 한식?
#1 한식 하는 사름은 잇수다, 하는 사람은 잇어.
@ 한식날은 무신 걸 먹읍니까?
#1 한식날은 뭐 찬 음식 먹는 거 아니라마씸. 그 말 그대로.
@ 으.
#1 게난 거 우린 헤보진 안헷수다게. 한식이 잇덴 말은 들엇는데.
@ 여자 삼춘은?
#2 한식게, 한식이 우리 게난 요새양 보민 저 제지낼 때.
#1 으.
#2 제지낼 때 한식날도 허곡.
#1 한식날 제를, 명절을 허는 거주게.
#2 으.
#1 한식 명절.
#2 우린 저 산에 가근에 저 일 년에 흔번.
@ 한식날 저 묘제?
#2 묘제, 묘제, 묘제.
@ 어, 묘제 헙니까?
#2 어. 우리.
@ 한식날?
#2 한식날도 허고, 식목일날도 허고.
@ 청명 때 허지 아니 허여?
#2 아니.
@ 한식, 청명이 거의 비슷허지예?
#1 예, 예. 비슷헤.

#2 비슷허주게.
@ 게난 묘제 헴구나?
#2 묘제 헙니다, 우린.
@ 그 저 무신것도 허지양? 산담도 손질허지양? 청명 때?
#2 청명 때 나 산담 손질헐 거 엇수다.
#1 아니, 이신 디, 이신 디 허물어진 디는 다 손질허여.
#2 예게, 허물어진 딘 다 저.
#1 그때, 그때가 뭐 신이 뭐 저 사는 디 어디 천당에.
#2 올라강 귀신이 엇덴 허는 거.
#1 올라간 때난.
#2 엇덴 허는 거.
#1 집도 청명 때는.
#2 손실이 엇다 허여근에, 손실이 엇다 허여근에.
@ 으.
#1 신이 내려온 때 아니고 저 천당에 올라가 분 때난 아무 걸 만져도.
@ 산담양?
#1 예.

곡우

@ 그 곡우는 뭐 잘 모르지양, 절기? 곡우?
#2 건 잘 몰르쿠다, 삼춘이나.
#1 아, 그거 뭐 곡우엔 허는 게 뭐 곡식 풍성허게 잘 뒈렌 비 오는 걸 말허는 거주.
@ (웃음)

사월

사월 초파일

@ 그다음에 우리 여자 삼춘이 이거 잘 알거라, 사월 초파일에 대헤근에 흔번 굴아줍서.
#2 사월 초파일날 부처님안티 강 기도허는 거 무시거 그거?
@ 그다음에 그 저 무시것도 허지 안헙니깡? 아기덜 머리도 까끄고.
#2 옛날엔 그 초파일 오민 머리 고양 나렌.
@ 으.
#2 애기덜. 초파일날 멘짝 가끄민 머리 고양 나곡 저 허렌 가끄는 거. 그거벳긴 몰르주. 초파일날.
@ 절간에 감수가? 사월 초파일날.
#2 아이고, 옛날엔 막 뎅기단 나 강 절 못 헤부난. 무릎팍 아팡 절 못 헤부난 안 뎅

견.
@ 사근에 절 허민 뒈주.
#2 게고 나 뎅기는 딘 막 먼 디라부난 관음사라부난.
@ 어디?
#2 관음사.
@ 아이고 멀리도 뎅겸저.
#2 그거 흔 이십 년 뎅여신디 이젠, 원.
@ 어떵 허연 그디 가게 뒌 동기가 이실 거 아니라?
#2 동기가예, (웃음) 그자 가구정 허난 절간 믿으커랑 큰 디 가라 허난에 기자.
@ (웃음)
#2 그디 뎅김 시작허난 뎅기단.
@ 절이 그디 크긴 헌 디우다.
#2 예. 옛날엔 걸언 가왓수다, 걸언.
@ 이야, 여기서?
#2 삼천당. 삼천당에서 걸언.
#1 옛날에야.
#2 아니 시에ᄁᆞ장 가민.
#1 삼천당에서 그디 걸언. 관음사, 구비구비.
@ 산천단도 멀어.
#1 예, 멀고말고, 아이고.
#2 막 멀어. 요즘은 차가 황황 뎅염주만은 그땐 차가 엇어마씀.
@ 이젠 시내버스도 뎅겸수게게.
#2 이젠 시내버스도 뎅겸구나?
#1 예, 시내버스 계속 뎅겸수다.
@ 관음사 코스 그 저 등산덜 많이 가고 허난에.
#2 흔 십 년 안 뒛주만은 그때는 자가용 시민양? 절간에 가는 사름 문딱 세왕 시꺼다 줍니께.
@ 그때는 차도 하나도 안 뎅길 때게. 이제는 저 탐라교육원 생기고 영 헤놓난.
#2 아, 이젠 질도 막 넙게 헷주만은 그때는 소롯질, 웨질.
@ 그렇주마씸.
#2 예.

오월

단오 멩질

@ 그다음에 입하, 소만 이거는 뭐 엇일 거고. 단오 멩절 헤낫지양?
#2 옛날엔 단오 멩질 헤나십주게.

@ 으.
#1 옛날엔 다 헤수다.
#2 멧 년 안 뒀수다. ○○이네 헐 땐 이거 흔 십 년 뒈나마나 헷수다.
#1 아이 오래긴 오랫어.
@ 오래뒌예.
#1 오래긴 오래수다.
#2 아니 ○○이, ○○인양 막.
@ 흔 이십오 년 뒀어.
#1 이십오 년도 더 뒀수다게. 단오 설른지가.
#2 우린 설러비도 ○○인 막 헷수다, 그때.
@ 단옷날 뭐 헤나수가?
#2 단오는 멩질ᄀᆞ추룩 멩질 헷주게.
#1 그자 멩질허는 식이주, 무슨 어디.
#2 그자 밥헤 놔근에.
#1 육지 어디추룩 무신.
@ 아니 옛날 뭐 그네 뛰기여 강강술래여.
#1 아이, 그런 건 엇엇수다. 그런 건 엇수다.
#2 신풍린 그런 건 엇어나실 거라.
#1 육지선 그런 거 많이 헷는디 여기서는 그런 거 엇어.
#2 이 촌에는 그런 거 엇어낫주.

망종

@ 망종에 대헤근에 잘 알지양? 망종에 대헹 흔번 ᄀᆞᆯ아줍서, 망종.
#2 농사짓는 거 망종에 대헹 ᄀᆞᆯ아붑서.
#1 망종에 대헌 건 몰르쿠다, 우린 농사도 안 짓고 허여 부난에.
@ 아 망종 허면은 보리도 그때 다 빌 거 아니우꽈?
#2 보리, 유채 다 빌 거주게.
@ 어.
#2 다 비믄 따시, 따시 농살 허젠 허민 조도 갈곡 감저도 놓곡.
@ 거난에 그.
#2 하지, 하지 뒈어 가민.
@ 보릿그르에 뭐 갑니까?
#2 감자. 고구마.
@ 어, 감저.
#2 그거 하영 헷주게, 옛날엔 감잘 하영 놧주게.
#1 지금은 이제 근삼이 같은 뭐 제초제를 많이 치는 때문에, 뭐 보릿그르에도 뭐 못 헷주만은 옛날은 보릿그르 나게 뒈면 그 저 뭐야, 에, 그디 나는 게 뭐지?

#2 저.
@ 보릿그르에 절완지.
#1 아니, 아니.
#2 제완지 말고.
#1 제완지 말고 뭇, 뭇.
#2 뭇이꽈?
#1 뭇 알아집니까, 뭇?
@ 뭇?
#2 아이 못사는 시대에 뭇 헤단 먹어난 거.
#1 아, 게 뭇 알아집니까?
@ 뭇은 잘 모르켜.
#2 아.
#1 지금 들에 보면은 노란 꼿 피는 그게 잇는디.
#2 노란 꼿이 아니고양.
#1 노란 꼿이주 노란 꼿.
#2 아니 저 색깔 꼿이주게, 저 색깔 꼿.
@ 예, 예.
#1 아, 아, 노란 꼿이 아니고 파란색.
#2 예, 파란 색깔, 바지 색깔.
#1 그거 그거 허믄, 그거 이제, 이제 혼번 갈아 어프면은 비가 오민 그 하얗게 나옵니다, 거. 하얗게 나오면 그걸 줏어다가 바다에 가민 페라는 게 잇어마씸, 넙페.
@ 으, 넙페.
#1 넙페 뜯어다근에 이제 에 조제허는 방법은 잘 몰르겟는데 그거허곡 버무려 가지고 항아리에 담앙.
#2 부억에서.
#1 항아리에 담앙은에 부억에는 옛날 그 초가집 있을 때는 지금ᄀᆞ추룩 무슨 뭐 싱크대에서 밥헤 먹는 게 아니고 아궁이에 불 때영 헤 먹을 때니까, 재를 많이 밀려놓은 게 잇지 안허우꽈? 거믄 그 잿더미에 불 그 열이 잇을 때, 거기다 묻어둰 혼 일주일 잇당 꺼내보면은 그게 뭇이 익어. 익곡 그디 넙패로 인한 물이 생기면은 그거를 우리 밥 대신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언 살아난 생각이 납니다게. 어릴 때. 게서 그 보릿그르 뒈면은 그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까도 말헷주마는 그 그렇게 줏어난 다음에는 그 그르에 고구마도 심곡 경 헷어.
@ 거난 망종 때는 보리는 다 빌 거 아니우꽈양? 선보리도, 망종 때.
#2 다 빕주게, 그땐 선 거 엇주게, 그때는.
@ 그, 거난에 그 보릿그루에는 감제 싱그고.
#1 감제 싱그고 또 뭐 밧, 밧벼도 그디 늦은.
@ 산디, 산디?

#2 산디.
#1 늦은 산디 갈아십주기. 늦은 산디.
@ 산디.
#1 예.
#2 산디, 조.
#1 음, 조도 갈고.
#2 콩도 허고.
@ 이 신풍리는 논이 없지양?
#1 논이 엇수다.
@ 논이 없고.
#1 예.
@ 거난 산디 주로 갈앗네, 산디.
#1 옛날에는.
#2 산디.
#1 산디, 산디도 거 우리 산디 헤도 산디밥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허고 그 제사 때나 쓰곡.
#2 아이 삼춘네사 저.
#1 제사 때나.
#2 삼춘넨 저 곤밥을 하영 먹엇주게.
#1 에에.
@ 먹어실 거우다게.
#2 기곗방, 하르방 기곗방 허고.
@ 오현고등학교 나올 정도면 그 당시에.
#2 예. 삼춘넨 그때 막 잘 살아 놓난에.
#1 아이, 잘살지도 못헷주마는 쌀밥은 제대로 먹어보질 못헷고. 그냥 고구마, 고구마 조팝에 고구마 썰어 논 밥을 주로 먹엇주, 우리 어릴 때. 우리 아버지네 정미소 헐 때는 우리 막 컨에 학교 뎅길 때 아니우꽈? 어릴 때 요만이 헐 땐 주로 고구마에 저 좁쌀밥에 고구마 썰어논 걸로 주로 먹고 살앗주. 무신 지금ᄀᆞ추룩 그때 쌀밥 먹을 말이우꽈?
@ (웃음)
#1 그때 우리 좀 큰 때 정상, 저, 저 성년뒌 때주. 쌀밥 먹을 정도 뒐 때는.
#2 조팝에 감자 놓곡 느젱이 놓곡 헤근에.
#1 예. 게고 톨밥[톨빱]을 많이 먹엇수다, 우리 어릴 때.
#2 ᄆᆞ믈 느젱이 놔근에.
#1 톨밥.
#2 팍팍 풀민.
#1 톨밥 알아졈수가?

#2 푹삭허여.
#1 톨 뜯어당은에 그거 저 밥헤근에 그거 저 허민 소화가 안 뒈엉은에 변 보면은 톨 그 자체 그대로 나와 부는 거.
@ 지금도 경 허여. 저거 소화 안 뒈는 거 닮아, 저거.
#1 지금. 그거 우리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은 거우다게.

하지

@ 하지에 대헤근에 훈번 골아줍서. 하지.
#1 어떵 허연 다 절기마다? 그거?
@ 이거 그거, 그거 허렌 헌 거.
#1 그거 허렌 헌 거우꽈?
@ 다른 것이 아니라 하지?
#1 하지, 하지야, 무슨, 뭐.
#2 하지 뒈민 모든 일이 다 시작이 뒈고.
#1 시작이 뒈는 거꽈? 더워근에 무신 더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꽈? 하지가.
#2 다 농사 다 지을 거 아니꽈게? 그때게.
#1 좀 쉴, 쉴.
@ 하지 때가?
#2 하지 때가 농사 질.
@ 낮이 가장 길주게.
#1 게메 쉴 때 같은데 좀 쉬어.
#2 하지가양 유월 이십일 아니꽝게.
@ 어.
#2 유월 이십일이난 하지 뒈민 농사가 다 끗나.
#1 몰라, 난 그것도 모르쿠다마는.
@ 하지 뒈믄 농사가 거의 끗나.
#2 예, 다 끗나는 거, 밧디 농사 다 지는 거.
#1 아, 우린, 우리 어릴 때는 모르겟는디 지금은 우리 뭐 아무 농사도 안 지어 놓니까. 그 무슨 농사짓는 거 모르겟네. 고구마도 안 허고.
#1 하지 뒈민 이제 다 이제 감저도 놓곡 콩도 갈곡.
#2 아, 그런 걸 전연 안 헤보니까.
#1 당근도 안 갈아보고 뭐.
@ (웃음)
#1 감자도 안 헤보고, 단지 귤 ᄒᆞ나 쪼끔 허단 그걸로 끗나 버리니까.
#2 하지 뒈민 여름 농사 다 시작헐 걸, 다 끗낭.
#1 그걸, 그걸 하나도 안 헤봣네.
@ 음, 하지.

유월

유월 스무날

@ 그다음에 유월로 와근에 둑 잡아먹는 날 알아지쿠가?
#1 유월 쑤무날.
#2 유월 쑤무날.
@ 유월 쑤무날 어떵 허연 유월 쑤무날?
#2 무사 어떵 허난 유월 쑤무날 둑 잡아먹엄신고, 진짜. 거 몰르커라.
#1 거 제일 한가헐 때, 일 다 끗나고, 막 일 다헤 놔둬 제일 한가헐 때.
@ 경 허난에이, 한글허난에.
#1 예.
#2 몸보신, 몸보신도 허고.
#1 게난, 게난 이때까지 지친 몸 좀, 좀 회복시켜주자 헨에 그 둑 잡아먹엇젠 **, 큰 효과가 잇는지 엇는지 모르지만. 주로 그때도, 그때는 닭 집의서, 그 지금은 양계장에서 헤고 집이서 닭을 못 키우주만은 그때는 집이서 다 키울 때니까, 그냥.
@ 둑, 둑.
#1 둑 키울 때니까.
#2 둑 집이서 키와근에.
#1 애덜, 애덜.
#2 잡으민 얼마나 맛좋읍니깡게.
#1 겐디 애덜안테 한 ᄆᆞ리씩. 큰놈은 큰 놈, 작은놈은 작은 놈 잡아 가지고 그때 한 머리씩 다 줘십주.
@ 한 마리씩 다 줜.
#1 한 머리씩 다 먹을 때, 집이서 다 키워 가지고.
@ 둑텅에 헤서 빙아리도.
#2 둑세기도 내우곡.
@ 깨왕은에.
#1 게곡 우리, 우리 어릴 때 흔.
#2 아이고, 둑세기.
#1 우리 젊을 때는 서리를 많이 다녀수다. 우리 젊을 때, 한창 놀레 뎅길 때는 그냥.
@ 그때는 도둑이 아니라 서리라.
#1 서리. 지금, 지금도 육진 가민 서리엔 허는디, 지금 제주도에서만.
@ 이제는 도둑이라, 이제.
#1 지금도, 도둑. 그때도 도둑. 말로 도둑, 서리가 아니고 도둑인데. 누게 ○○가 그걸 젤 잘 헤수게. 걸 몰랏던디 어떻게 허냐면은.
#2 뒈지고기 못 먹는덴 헙디다, ○○.
#1 손에다 장갑을 껸에 겨울엘 닭에 둑시렁통에 올라가민은, 둑집이 들어가면은 손을

따뜻하게 헤근에 막 추운 데 손을 강 요렇게 대민 닥이 뚜뜻헌 디 찾앙 딱 올라앉은 거여. 게민 난 몰랏는디 그 사름.
#2 아, 경헌덴마씀?
#1 으, 경 허면은 둑 올라앉을 때 목을 푹 잡아근에 들르민 소리도 안 나곡 주인도 모르게 잡아올 수 잇덴 허는 거라.
@ (웃음)
#1 뚜뜻ᄒᆞ민 거기, 뚜뜻ᄒᆞᆫ 디 춪아근에 닭이 딱 올라 앚아. 그거 많이 허고. 우린 뭐 직접 잡아보진 안허고 그 사름 조름에 쫓아뎅기멍 그냥.
@ 그냥 얻어먹엇구나양?
#1 얻어는, ᄒᆞᆫ두 번 얻어 먹엇는디 내중에는 우리 멧 사름이 이거는 나쁜 짓이다 허믄 안뒌다 헨에, 안 헤. 그때 습관이 뒈어 가지고 안 허지도 안허고 그자 딴 디서도 허곡.
@ 게서 그때 그거 둑 잡아먹는 날 그거 잡아왓구나?
#1 아니. 아니.
#2 아니. 아니 그건 펭상시에 아무 때라도.
#1 그자 방에서 놀다가.
@ 어, 장난친 거로구나.
#1 방에서 남자덜 멧 명 놀다가, 야, 오늘 어디 누게네 집이 둑 많이 잇더라, 그거 ᄒᆞᆫ 머리 잡아당 먹자 헨에.
@ 거 잡는 것도 힘들 건디 거?
#1 아, 그러니까 아까 나 말헌 식으로 그 사름은 요령이 잇어 가지고 닥을 요렇게 유인허면은 요기 따뜻하게 헹 강 유인허면 요기 탁 올라앚은 때 잡는덴 허는 건디. 우리는 안헤 보니까 모르고.
@ 그거 털도 뽑아야 뒈고 그.
#1 아, 집이 갖다놩 허는 거는 털 뽑는 거 거 간단허게. 옛날은.
#2 물 팔.
#1 옛날은 나도 그걸 몰랏다가 그때 알앗는데 물 팔팔 끌령 탁 ᄃᆞᆼ갓당 꺼내민 그자 뜯어져.
#2 문달문달 뽑아. 문달문달.
#1 손으로 박 뜯으믄 ᄒᆞᆫ 번에 다 뜯어지는 거.

삼복

@ 그다음에 삼복에 대헤근에 말씀헤 주십서.
#2 삼복더위 말헤붑서. 삼춘 난 몰르쿠다.
@ 삼복?
#1 삼복, 삼복더위는 뭐, 초복, 중복, 말복을 삼복이라고 부르는 건디.
@ 예.

#1 초복에는 뭐 보통 그 삼복더위 때마다 영양 보충허는 사름덜 잇긴 잇수다게. 둑도 잡아먹곡 다 허긴 허는디 우리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똑 삼복이라고 헤 가지고 둑 잡아당 먹곡 허는 건 아니고.
@ 평상시에 먹으니까.
#1 예, 요사이는 그냥 삼계탕이엔 헤근에 주로 요렇게 포장뒈근에 요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그 잇지 안허꽈? 비싸지도 아녀곡. 그런 거나 나오면은 그냥, 우리 이거 복 때니까 먹어야 뒈켜 허영 한 번씩 먹고. 뭐 그 삼복이엔 다 춪아먹는 사름은 춪아먹주마는 우린 거 그다지 뭐 춪아먹거나 그러진 안헙니다.
@ 보신탕덜도 먹어, 요즘.
#1 아이, 보신탕도 먹긴 먹는 거지. 보신탕은 요새 원 우리는 그거 입을 대지도 안헙니다. 보신은. 뭐 중간에도 뭐, 뭐 그거 어디 하천리 같은 디는 그거 많이 허긴 허는디. 우리는 별로 달갑지가 안허영 먹질 아예 안헤 버립주. 지금도 하천리 지금 헴실 거우다. 지금도 헴실 거우다.
@ 식당?
#1 예, 지금도 헴실 거우다. 거기.
@ 식당 이서마씨?
#1 예, 예.
#2 보신탕.
@ 아.
#1 옛날은, 옛날에는.
#2 껄리지 안헴신가, 껄리지 안헴신가?
@ 아이, 아이.
#1 걸리진 안헙니다. 옛날 거 육개가 잇고 애완이 잇는데. 육개는 허용을 헷단 잡암주마는, 요사이는 몰르쿠다마는.
@ 이 정부에서도 저거 못허, 차단 못허는 모양이더라고.
#1 우리도 옛날은 나 훈두 번 어디 저 친구덜 가자 헤연 갓더니, 나는 맞지를.
@ 동물협회에서는 막 반대허는 디.
#1 아, 반대헐 뿐이꽈? 그 기가 멕히주, 알면은 사름 취급을 안 헐 정도로 지금 뭐 난리가 날 거.
@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좋게 안 봐.
#1 예, 예. 거 때문에 좋게 안 보는 거.
#2 그거 잡아먹는 따문.
#1 겐디 이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엇수다게.

조 불리기

@ 그 이제 조 갈면은 조 불리지 안헙니까양?
#1 예.

@ 그 조 불리기에 대헤근에 흔번 골아줍서.
#1 즈 불리는 거는 옛날예, 테우리엔 헤근에, 테우리엔 헤근에 말을 많이 키우는 사름덜이 흔 이삼십 만원(?)씩 이삼십 마리씩 몰아뎅이멍 조팟을 불렷수다게. 경 허게 뒈면은 그, 그 지주는 이제 그때 보통 밥을 헤다 드리는 게 미역에다 계랄 풀어놔근에 국 끌려다 주는 게 제일 그땐 최고급으로 생각을 헷수다게. 경 헹 그 테우리엔 헤근에 그 분안테 대접허곡, 또 그, 그 댓가로는 그냥 일을 대신 강 헤주던가, 뭐 쌀이라도 멧 말 갖다주든가 하는 식으로 헨에 불렷고. 그 테우리가 차차 없어져 버리니까예, 그때는 뭘로 헷냐면 말테우리라고, 말.
@ 물, 물.
#1 물.
#2 물.
#1 물. (웃음) 겐디 저 그게 안 나와. 물, 물 대신 남테엔 헤근에예.
@ 남테.
#1 거 알아졈수게예?
@ 예.
#1 큰 통에다.
@ 영 헤근에.
#1 이 말자국 모냥으로.
#2 둥그려근에.
#1 딱 박아 가지고, 그걸로 끌어서 이제 다졋수다, 밧을.
@ 게난.
#1 안 다지면은 이제, 조, 조 열매가 여물지도 않고 부실헤 버리는 때문에예. 거 염게 허렌 다진 건디.
@ 쉐로 불립디강, 물로 불립디강?
#1 물, 주로, 여기는 처음에 물로 다 헷수다.
@ 물로.
#1 물로 다 헤당 물 숫자가 줄어드니까 소 반 말 반, 그렇게 헤수다.
@ 그 물 여러 ᄆᆞ리 와근에 불리지양?
#1 예, 흔 삼, 흔 이십, 이십 마리 정도.
@ 그 저 물.
#1 많으면 흔 삼ᄉᆞ십 마리.
@ 물은 거 뿔도 엇인디 물덜 어떵 헤근에.
#1 암말 ᄒᆞ나, ᄒᆞ나만 거 걸령은에 끗으면은.
@ 으.
#1 밑에는 다 따라와마씨.
@ 아, 물이?
#1 예, 예. 물이예.

@ 대장물만 잡으면 뒈겟구나.
#1 예, 예. 소는 안 그러는데 일단 들에 풀어놓아도.
@ 아니 거난에 나 생각에는 이 물은 뿔이 없다 말이우다.
#1 예, 예.
@ 게난에 이걸 어떵허영 연결시킬 건가?
#1 주둥이로.
#2 ᄒᆞ나만, ᄒᆞ나만 심엉.
#1 머리로 헤근에 요, 요 주둥아리 욜로 허지 안헙니까? 소ᄀᆞ추룩 뿔에 걸리는 게 아니고. 게민 그거 하나 녹대를 씌와 놓면은, 녹대 하나만 앞 사람 ᄒᆞ나만 끌면은 말덜은 녹대를 안 씌워도 뒤ᄯᅮ라다니고 ᄒᆞ나씩 도망가켄, 도망가는 놈은 밑에 쫓아뎅겨근에 막는 사름덜이 잇수게게.
@ 어.
#1 게민 일로 가가믄 어러러러 일로 가고, 일로 가믄 일로 어러러러 허민 딱 그 ᄒᆞᆫ 군델로만 모영.
@ 으.
#1 따라다니게 뒈어잇수다. ᄒᆞ나씩 이제 도망가는 놈은 막아오다 막아오다 안 뒈민 그냥 아예 떨어내 버리고.
@ 거난 물로도 불리고.
#1 예.
@ 그다음에 쉐로는 안 불려 봅디가?
#1 쉐로도 없는 사름은 쉐로도 헷수게.
#2 쉐도.
@ 쉐도 이제 뿔 영 연결시키민 뒈어.
#1 예, 예. 물을 보통 이 저 자갈 물려근에 승마허는 식으로 영 물리는 식으로 요게 영 머리로 헤근에 영 입주뎅이 욜로 물 끈을 허고, 소은 뿔으로 허고.
#2 옛날에 도세기걸름 내어근에 보리 삐여근에 불릴 때 쉐로.
#1 으.
#2 쉐로 하영 헷수다.
#1 으. 그때 쉐, 쉐로도 허고 물로도 허고. 도세기거름은 다 그추룩 헹, 옛날은 그거.
#2 경 헹 보리 기냥 갈앙 헤영 먹엇주.
@ 아 그때는 저.
#2 돗통에 걸름 빼엉.
@ 그때는.
#2 그디 보리씨 삐엉.
@ 그때 쉐로 헷어, 쉐로.
#2 어, 보리씨 삐엉 이젠 쉐스렁으로 일르멍 쉐 영 ᄒᆞᆫ 멧 바쿠 돌령 골로로 가게시리.
@ 옛날은 그, 옛날 이 수제비, ᄌᆞ베기ᄀᆞ치 영영 헤근에 헹은에.

#1 예, 예.
@ 그.
#2 걸름 헐 때?
@ 으.
#1 아니 진짜.
#2 아 톧아 놓지 아녕 심엉 탁탁탁탁 영 털민 짝 풀어지주게.
@ 아, 우리 어머니는 옛날 이거 ᄌᆞ베기ᄀᆞ치 영.
#1 영 터는 거는 그건 메밀 칼 때. 메밀, 메밀 저.
#2 그거는 불치걸름 헤영.
@ ᄆᆞ멀은 불치로 허여.
#2 불치걸름 헤영 영 줍아놓주마는.
#1 그건 영 띠어 놓는 거고. 불치 놀 때 이렇게 띠어 놓는 거고.
#2 불치헐 때 이걸로 영영.
#1 돗가레는 그자 영영 손으로 털엉은에 막 영 골로로 저 뿌려 놓는 거고.
@ 게난 남테로도 허고양? 조 불릴 때.
#1 조 불릴 땐 남테.
#2 조 불릴 땐 남테로 하영 헷주.
#1 처음에는.
#2 산디 불릴 때 허곡 조 불릴 때.
#1 으.
@ 저 무신거로 안 끗어 봅디강?
#1 무시거?
@ 섬비.
#1 끄서귀도 헙니다, 끄서귀.
#2 아 끄슬귀, 끄슬귀.
#1 끄서귀.
@ 여긴 끄서귀옌 헙니까?
#2 끄슬귀, 우린 끄슬귀.
#1 끄서귀.
@ 끄슬귀, 우린 섬비, 섬비.
#1 여긴 끄서귀엔 허여.
#2 우린 끄슬귀.
@ 그걸로도 영 허지양?
#1 예, 그거 나무 요렇게 이파리 잇는 거 영 여꺼근에.
#2 거 씨 묻어지렌 경 허주게.
#1 사람이 어깨 메고.
@ 부채 모냥으로 영 뒌 거 헨에?

#1 예, 예. 거 우리 여기선 끄서귀옌 헙니다. 끄서귀.
@ 거 씨 묻어지게이?
#1 예, 예.
#2 씨 묻어지게.
@ 그 씨 묻어난 다음에 불릴 거 아니우꽈양?
#1 으. 아니, 아니 불리질 아녀고.
#2 불리지도 아녀곡.
#1 그걸로 끗엉 내불주.
#2 끗엉 내 불주.
#1 메밀 칼 때.
@ 조, 조.
#1 조 불릴 땐 불리는 거고. 조 갈 때도 불리지 못허믄 그냥 내붑니다.
#2 끗엉 내 불곡.
#1 응, 끗엉만 내붑니다. 저 소 엇고 물 엇인 사름덜은 그자 끗엉만 내 불어.

유월절

@ 그다음에 소서, 대서 이거는 잘 뭐헐 거고. 유월절. 유월절에 대헤근에 훈번 골아 줍서.
#2 절이게, 유월절 뒈민 절이 다.
@ 유월절 뒈민 저 감저 싱급니까?
#2 예.
@ 감저양?
#2 으.
@ 유월절에 감저 싱그고.
#2 유월절 뒈믄 모든 농사가 다 허는 거주게. 콩도 갈곡.
@ 유월절에?
#2 으, 유월절에.
@ 유월절이 언제쯤이우꽝? 유월절.
#2 유월절이 언제, 언제.
#1 (웃음) 난 모르쿠다.
#2 유월, 오월 아멩헤도.
@ 유월.
#2 오월 그뭄이나, 어떵 오월.
@ 유월절이난에 유월 헌 거 아니?
#2 유월절이난 유월, 으.
#1 유월절?
#2 유월절 뒈난 유월절 뒈 가민 모든 농사가 다 시작허는 거.

@ 그 저 겨울농사양?
#2 여름농사, 여름농사.
@ 여름농사가 시작허는 거 유월절은.
#2 유월절 뒈민.
@ 저 감저도 싱그고.
#2 감저도 싱그곡게.
@ 그, 그다음에 감저 싱그곡 조 갈곡?
#2 조 갈곡, 콩 갈곡.
@ 으, 뭐, 뭐 갑니까?
#2 팔월, 팔월 보름 뒈민은 양력 팔월 보름 뒈민 모멀 갈곡.
@ 게난에 유월절에 가는 농사가 뭐, 뭐 잇어?
#2 고구마, 옛날엔 고구마.
@ 감저.
#2 감자, 조.
@ 그다음에? 조.
#2 콩.
@ 콩.
#2 그거뿐이주, 이디선. 제주도선.
@ 그다음에 그 고구마, 감저, 감젓줄 멩글아야 헐 거 아니우꽈양?
#2 감저는 어떵 허영 모종을 노느냐 허면 이월 나면은.
@ 이월?
#2 이월.
#1 봄에, 봄에.
@ 봄에양?
#2 이월, 이월.
#1 봄에 뒈엉.
#2 그디 구뎅이 쫙 파 가지고 걸로 묻어. 경 헹 감저 ᄌᆞ근ᄌᆞ근ᄌᆞ근 묻엉 비니루 탁 더꺼근에 모종은 경 헹 키와.
@ 게난 감저 밑에 걸름은.
#2 지금 말허는 건?
@ 걸름 꼴아얄 거 아니우꽈?
#1 고구말 말허는 거주. 저기 묻는 건 감자마씨, 감자.
@ 아니, 아니. 지슬.
#2 감자, 감자.
@ 감젯줄, 감젯줄 내우는 거.
#2 감젓줄.
#1 지금 고구마?

#2 감젯줄 어떵 키우느닌?
#1 아, 난 난 감자 묻는 거.
#2 감젯줄 어떵 헹 키우느닌?
#1 고구마, 고구마.
@ 게난에 이제 저 감젯구뎅이에 감저 저.
#2 쫙허게 파근에 쉐걸름 헤다 놔근에.
@ 으.
#2 그디 ᄌᆞ근ᄌᆞ근 묻어.
@ 그 저 흑 좀 놔근에?
#2 경 헤영 그 우허영 흑 허영 묻엉.
@ 으.
#2 또 그 우터레 감자 놔근에.
@ 으.
#1 흑 더펑 그다음 비니루 더펑.
#2 비니루 더프민 감저모종이 뭉칼뭉칼 나오주게, 게민.
@ 그 감젓줄은 멧 센티 정도 뒈면은 거 짤랑 싱거?
#2 아이 그때는.
#1 길믄 길수록 좋수다.
#2 길민은 이만썩 길민은 두 개도 끈곡.
#1 세 개도 끈곡.
#2 세 개에도 끈곡.
@ 게난 흔 삽십 센티 정도 영 허지?
#2 그때 삼십 센치? 삼십 센치 더 뒈어.
@ 아이 끊을 때? 막 긴 거는?
#1 끊을 때에 그 잇다 보면은 이만이 긴 것도 요렇게 놓곡. 또 두 번 이렇게 짤르지 아니헌 상태에서 놀 수 잇고.
@ 아니, 아니, 짤라야 뒌덴 허데.
#1 게메 짤르.
#2 세 번 끊을 것도 잇어. 세 번.
@ 끄트머리에 그 금 그 저.
#2 둘리난 감저가 끄트머리에 둘리난.
#1 게난, 게난.
#2 게난 뒐 수 시민 족은 거.
@ 으.
#2 족게. 게난 지금 육지 사름덜은.
@ 흔 밧디로만 난 덴 허더라고.
#2 으, 육지 사름덜은.

#1 육지 사름덜은 바로 찔르고.
#2 요만썩헌 거 요만썩헌 거 허영 꼭꼭 집엄주게.
#1 여기서는 요렇게 옆으로 놓곡.
@ 옆으로.
#2 옆으로 기자 영 심검주. 게곡 엿날은, 엿날은 막 질게 헤근에 끊어. 세 개에, 세 개도 끈곡 두 개도 끈곡.
#1 게난 옛날은 이렇게 저 여기 사름덜은 이렇게 직립으로 싱그진 아녀고. 그냥 옆으로.
@ 육지는 그냥 싱급니까?
#1 예. 육지는 다.
#2 육지는 기자 꼽아, 기자.
#1 꼽아.
#2 기자 꼭꼭꼭꼭.
@ 경헤도 웨냐면 그.
#2 주랑주랑헹 둘아져.
@ 흔 밧디서만 허니까.
#1 게난 그디서만 노는 거고. 우릿 줄론 요렇게 허면은 요쪽 짤른 부위로서도 많이 달리지만.
@ 생산량은 육지 사름덜이 많겠다. 영 헹 꼽으니까. 우리는 좀 길게 영 허고.
#1 질게 헤근에.
@ 길게 헤도 흔 밧딜로벳기 안 나거든.
#1 아니, 아니. 경헤도 중간에 잇다근에 뿌리 쪽 달려도.
#2 달려.
#1 달려도.
#2 요만이 허민 중간에 쭉허게 달려.
@ 달리는 것도 이수과?
#1 으, 달리는데.
@ 끄트머리벳기 안?
#2 아으 다슷 개, 여슷 개, 일곱ᄋᆞ답 개 둘라, 둘리기 뒈민.
@ 아.
#1 겐디 성실허진 안허여, 뿌리만이.
#2 잘 둘려, 옛날에는 감저 잘 둘려나신디 요즘은 나가 감절 놔 보난에 삼 년을 놔도 안 뒈여. 게연 올린 안 놘.
@ 그 감젓줄 놔 가민 그디 그 뭐냐, 뭐옌 헙니까? 그.
#1 구감.
@ 구감 으 구감.
#1 구감은.

#2 끈어난 거, 구감.
@ 으, 거기 옆이로 돋아난 건 새감.
#1 새감.
@ 양?
#1 새끼 감자, 새감.
@ 새감 거 맛도 없어, 거.
#2 맛도 엇어.
#1 심심헌 거, 심심허고.
@ 구감은.
#2 옛날은게 도세기 지룰 때 그 구감 다듬아당 막 쏢앙 도세기 쳐줘낫주게.
@ 어.
#1 겐디 구감도 영 벌른.
@ 먹을 거 엇인 거. 그것도 솖안 먹어낫수다, 우리.
#2 솖앙도 먹고 도세길 주루 먹어낫어 도세기.
#1 구감.
@ 맛이 없어 줄기 나나난.
#2 줄기 나나민게 물 칠칠칠허영.
#1 게난 구감도 이제 열 많이 안 받은 거는 그냥 짤라논 거 어떤 거는 맛잇는 거 잇고. 어떤 거는 원 물만 찔찔 나근에 버려 부는 것도 잇고, 경 헙주게.
@ 아, 수고헷수다. 오널은.
#1 끗나수가?

칠월

칠월 칠석

@ 그 우리 여자 삼춘양. 그 칠월 칠석에 대헤근에 흔번 굴아줍서, 칠월 칠석?
#2 칠월 칠석에 아는 것이 셔사 굴아주주.
@ 게메 아는 것이 그냥.
#2 칠월 칠석 허민게. 그자 말 그대로게 거 칠석 무시거 다른 거 아니우꽈?
@ 거 어디 저 절간에도 갑니까?
#2 절간에 강 칠성 기도 헙주게.
@ 칠성?
#2 예, 칠성 기도.
@ 칠성 기도허고. 그다음에?
#2 그다음엔.
@ 뭐 다른 건 엇고?
#2 무시거 다른 건 엇곡.

#1 아니 이제 가정집에서.
#2 무시거 그런 거.
#1 칠성눌 가근에 그런 거 칠석날 안 헙니까?
#2 예, 그런 건 엇입니다.
#1 아. 아니 딴 사름들은 강 칠성눌 가근에 손보곡 뭐 허지 안헙니까, 칠석날?
#2 아니, 칠성눌 잇엉 허는 사름은, 보민 봄이.
#1 아 봄이 거둡니까?
#2 봄이 그거 눌 골아 앚앗닥.
#1 아, 칠석날 허는 게 아니구나, 난 칠석날.
#2 칠석날 하는 거 아니랍디다.

백중제

@ 게면은 백중 알아지지양? 백중.
#2 백중은게 ᄆᆞ쉬 하영 허민 뭐 어디.
@ 으, 게난.
#2 ᄆᆞ쉬 테우리.
@ 테우리코사옌 대헤근 ᄒᆞᆫ번 골아줍서.
#2 백중은 거 허민게 열나흘날게, 저.
@ 열나흘?
#2 열나흘날 허주게.
@ 으.
#1 원래는?
#2 칠월.
#1 백중날이 십오일인디.
#2 열나흘날 헙니다, 열나흘날.
#1 여기 저 여기서는 저 열나흘날 미리 준비헷당 그, 그 백중날 허는 그 행사에 대헌 거는 나.
@ 어.
#1 일에, 행사 보단 일에 대한 거는 내가 쪼금 압니다. 웨냐믄 어릴 적이라도 송아지도 키워낫기 때문에예. 송아지가 송애기덜 키워낫기 때문에 아는데. 그날은 소 가진 분들은 한 밧데 다.
#2 모야.
#1 모이렌 헤근에양 그 주인이나 소들이나 다 한 군데로 모여 놉주게. 한 군데 모여 놔근에 망아지나 ᄆᆡᆼ셍이나 송애기나 보면은 잡아 무껑, 그 불을 한 군데 나무로 막 불 피어근에 낙인이엔 헌 낵인, 쒜로 헤근에 이름 판 거를 불에 구웡. 발갛게 달구어지면은 그 ᄆᆡᆼ셍이나 송애기 잡아 눌려놩, 그 집안마다 틀립니다. 요기 저.
#2 궁둥이로 탁 헤근에.

#1 저 어떤 집안은 언문 고 자로 헤근에 찍는 사름 잇고, 딴 디로 오 자, 낮 오 자 허는 표시가 잇곡 그건 집안마다 다 틀려근에 그거 헹 찍어근에 표시헤 두는 거주. 그 이유는 어디 저 방목을 헷을 경우에 그거는 소, 송아지나 망아지가 커도 거 지워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디 저 잊어 버릴 때 찾젠 허면은 표시로.
@ 일러 불카 부덴이?
#1 예, 예. 그거 찍어 놓는 겁주.
@ 일러 불카부덴.
#1 예, 꼭 그 백중날은 그거 헙니다.
@ 그 저 가근에 저 코시는 안 헙니까?
#2 무사 안 헙니까, 허주.
#1 코시, 코시라는 게.
@ 으.
#1 그때 송아지, 송아지는 귀를 짤릅니다.
@ 으.
#1 귀, 귀 하나를 짤라근에 그거를 그, 그 낭불에 구워근에 껍질 벳겨근에 그것도 올리곡. 이제.
@ 어디에 올려?
#1 아 게난.
#2 기자양.
#1 기도허는 식으로.
#2 기자 영 기자 다라에양 기자 떡 헹 갑니다. 떡. 떡 헤영 가는 사름도 잇곡. 둑 헹 가는 사름도 잇고.
#1 초석에 밥하고 겡 갓당 올리곡.
@ 떡도 허고예?
#1 떡도 올리곡 떡은 저 옛날 뭐냐믄.
@ 상웨떡?
#1 아니, 상웨떡 아녀고. 좁쌀 오메기.
#2 오메기?
@ 어.
#1 주로 오메기떡에 팟쉬 무쳉 가근에 그거 올리고.
@ 풋, 풋.
#2 풋, 풋.
#1 풋쉬. 풋쉬 올려강 떡으로 그거 올리곡, 송아지 귀 표시헤난 거는 이제 그 낭불에 구워근에 저 털 영 영 벳겨가면은 술만 나왕 가죽까지 더 벗어지민 그것도 접시에 놩 올려마씨. 그것도.
@ 거난 아까 낙인이엔 헙니까, 낵인이엔 헙니까?
#1 낵인, 낵인.

#2 냑인, 냑인.
@ 냑인. 그 글자가 무슨 글자 파마씨?
#2 아까 굴앗수게.
#1 게난 집안마다 다 틀립니다. 바를 정 제로 하는 사름이 잇곡.
@ 바를 정.
#1 또 언문 고 자, 우리 여기 오칩, 오씨 집안에는 언문 고 자를 합니다. 그냥 고 자. 한자 말곡. 게곡 낮 오 자 허는 사름도 잇고, 집안마다 다 틀립니다. 가문가례 다 틀려.
@ 아.
#1 그 표시 보고.
@ 집안에 따라근에 그 냑인을 찍는구나.
#1 예, 예. 경헹 그 냑인 보고 저 어디 여기서 ᄀᆞ뜨면은 태흥리 그 목장이나 남원이 목장이나 아니면 성읍리 목장에 이제 찾으레 사름덜 동원헤영 가면은 그 냑인 보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안 춪더라도 냑인 봥 아, 신풍리 오칩의 소다.
@ 쉐, 쉐.
#1 예, 쉐, 오칩의 쉐다.
@ 어.
#1 오칩의 멍셍이여. 그걸로 춪읍니다.
@ 어. 그걸 저 우리 테우리코시양?
#1 예.
@ 그 마불림젠 안 헙니까, 마불림제?
#1 마불림제는 저는 처음 들엄수다마는양.

물맞이

@ 그다음에 저 백중날 바당에도 가지양?
#2 안 갑니다게, 백중날.
@ 백중날.
#1 예, 여기서.
@ 아, 우린 저 백중날 바당이 가근에 물맞이는 거?
#1 아, 그건 헙니다.
#2 아, 물 맞는 거. 물 맞는 것사 뭐 갑니께게.
@ 백중날.
#2 예, 예. 돈내코도 가고 저디.
@ 아, 우리 동네도 바당에 물 내리는 데가 잇주마씨.
#1 산물, 산물 내리는 디, 돌구멍으로 내리는 물.
@ 그 물 맞이면은 허멀 안 난뎅 허멍.
#1 더위가 가신덴 허곡, 허물 안 난덴 허고.
@ 백중날 가지양?

#1 예, 갑니다, 백중.

모살뜸

@ 모살찜 헤 봅디강?
#2 모살뜸?
@ 으, 이딘 모살찜이꽝, 뜸이꽝?
#2 뜸.
@ 으, 모살뜸.
#2 으.
@ 헤봅디강?
#2 안 헤봣수다. 이딘 모살뜸 허젠 어디 이수과?
@ 거 모살뜸은 무사 헴신고야?
#2 게난 무사 헙니깡게. 그거 오만 벵게 그거 다 허영 빠지렌 그거 영 파근에 묻어근에 ᄉᆞ뭇 얼굴만 내벼둬근 숨빡 묻엉 어디꽈? 그 동이.
@ 저디 삼양.
#2 검은, 삼양 그 검은몰레.
#1 검은 몰레. 표선도 해수욕장에덜 그냥 전문적으로 찜질은 안 허는디. 놀레 간 사름덜 기자 다 들어앚이긴 헙니다.
#2 표선이 몰레는양 ᄉᆞ악ᄉᆞ악 찔러불어예.
#1 찔러불어마씨.

물맞이

@ 물맞이, 그 물맞이레 뎅겨 봣지양?
#1 예.
@ 물맞이.
#1 옛날 어른덜은 물맞이 많이 뎅겻수다, 돈네코.
@ 돈네코?
#1 예. 그.
@ 여기서도 돈네코 감니까?
#2 돈네코도 가곡, 소정방도 가곡 헙니다.
#1 예, 거기 가근에 한.
@ 돈네코허고 소정방.
#1 오 일씩 육 일씩 거기 자면서 물맞안 왓어, 옛날 어른덜.
#2 돈네코는 경 헷주만은.
@ 아까도 말헷주만은 물 맞이면은 어떤 효과가 잇어마씨?
#1 효과는 잇덴.
#2 둑지 아프나 허리 아프나 허민게 그 비니루 써근에 물맞이민.

#1 물맞이민 효과가 잇덴 헤근에.
#2 효과가 잇덴 허여마씸게. 효과가 잇젠 허영 경 물 맞으레 경 이디서도 저 갓닥왓닥 헷수다, 이디선. 소정방에는.
#1 게난 여기서 사, 한 사십 일 동안 조팟 검질메곡 다 검질메멍 막.
@ 검질 다 메난 다음 감구나?
#2 예, 다 메난 다음에.
#1 똠떼기, 똠떼기도 막 나곡 허면은 그디 강 똠떼기도 딜여.
@ 똠떼기.
#1 똠떼기 그디 강은에 똠떼기 치료가 잘 뒌덴 허멍 헙주게. (웃음)
@ 똠떼기엔 헙주게.
#1 예. 똠데기우다게.

입추 · 처서

@ 그다음에 입추, 입추에 대헤근에 흔번 골아줍서.
#1 입추야 무사 가을 들어가는 건디.
#2 가을 들어가는 거.
@ 으.
#1 입추에 대헌 거는 벨다르게 할 말이 엇수다게. 입춘 거 무시거 헙니까?
@ 처서?
#1 처서는 뭐 그냥 이제 선선헌 때, 가을 들어가는 그런 느낌 받는 건디, 처서도 마찬가집주게, 절기, 절기라는 거뿐이주, 뭐.
@ 처서 뒈민은 풀이 다 자라지양?
#1 처서 뒈가믄.
#2 풀이 안 자라주.
@ 안 자라.
#1 안 자레기 시작헌덴 헙주게.
#2 안 자레.
#1 풀이.
@ 겅허난에.
#1 자라는 것이 멈춘다.
@ 거난에 처서 지나근에 벌초덜 허곡.
#1 예, 예, 예. 그거 지낭 벌초도 허곡, 옛날 목초도 비곡.
@ 처서 지나근에.
#2 촐, 촐, 촐도 비곡게.

꼴 장만

@ 촐, 촐예.

#2 팔월 중 뒈어 가민게 촐 비지 안헙니까게.
@ 팔월 멩질 때 촐덜 빕주게.
#1 예, 예. 멩질, 주로 멩질 고비에 헙니다. 멩질 추석 명절 지낭도 허곡 전에도 쪼끔 허곡, 절기에 따랑은에.
#2 절기에 따라근에 추석 전이도 허곡.
#1 쪼금 빠를 때도 잇고 쪼금 늦을 때도 잇고.
@ 촐 비어 봅디가?
#1 아, 빔 뿐이우꽈? 우리. 이 저, 저, 지붕만씩 헤다근에 물 키우곡.
@ 촐은 뭘로 비어마씨?
#1 낫으로 빕니다.
#2 낫으로.
@ 낫?
#1 예.
@ 호미?
#2 호미 닮은 낫 잇수다. 진진헌 거.
#1 호미 그런 낫이 아니고예?
@ 거 뭐옌 허여?
#2 낫.
#1 낫.
@ 낫이엔 허여?
#1 예.
#2 진진헌 거 영 사근에 영 영 작작.
@ 아, 여기선 진진헌 걸로 헴구나.
#2 아니, 진, 낫이 진진헙주게, 진진헌 거.
@ 아 게난 우리는 그냥.
#1 예, 그거.
#2 아 그건 좀호미로 비는 거.
#1 그거 여기서 말허는 게예. 호미 지금 말허는 그 낫은 요렇게 좀호미이엔 헤근에 요렇게 잡으면은.
@ 좀호미?
#2 예.
#1 좀여, 좀. 이 좀으로 잡앙.
#2 산디, 산디 간 디 산딜 비나, ᄆᆞ물을 비나, 콩을 비나.
@ 아, 좀호미?
#1 좀으로 이거.
@ 족은 건 좀호미.
#2 예.

#1 그걸로 허는 거고.
#2 낫.
#1 낫은 한 발 나무 헤당 구멍 똘라근에 낫을 질게 대장간에 강 멘들어당 그거 끼와근에 힘으로 후리는 겁주. 요 예초기 허는 식으로.
@ 어.
#1 예초기 허는 식으로.
@ 촐 빌 때 무슨 ᄇᆞ름 붑니까?
#2 하늬ᄇᆞ름 불주, 무신 ᄇᆞ름 불어.
#1 하늬ᄇᆞ름 불면은 시원허고, 잘 물르고, 좋고. 마바름 불면은 더웁고.
@ 마ᄑᆞ름이엔 헙니까? 마바람이엔 헙니까?
#1 마ᄑᆞ름.
#2 마ᄇᆞ름.
#1 마ᄑᆞ름.
@ 마ᄑᆞ름.
#2 바람을 ᄇᆞ름이엔 허니까, 일단은예.
@ 마ᄑᆞ름.
#1 예.
@ 게난 하늬ᄇᆞ름 불민 촐 비곡.
#2 잘 물릅주게, 잘 물르곡 소도 잘 먹고.
#1 아이 저 마ᄇᆞ름 분 때나 하늬ᄇᆞ름 분 때나 샛ᄇᆞ름 분 때나 촐은 비는데.
@ 으.
#1 하늬ᄇᆞ름 분 때가 제일 시원허곡, 사름 뭐 스트레스 안 받아근에 스트레스가 아니고 사름 피곤허지도 않고 일허기가 좁니다게. 겨곡.
#2 또 쉐도 잘 먹곡.
#1 예.
#2 쉐도 잘 먹고.
#1 마ᄇᆞ름 불 때는예, 이제 어떤 때는 샛ᄇᆞ름 불곡 마ᄇᆞ름 불 때는 ᄒᆞ루 비어논 거 물르지 아니허영 기자.
@ 촐, 촐 비어근에 메칠만이 그, 저 무끕니까?
#1 다음날 뒷날.
#2 아니.
#1 뒷뒷날.
2 하늬ᄇᆞ름 불민 바로 뒷날에 무끄고.
#1 하늬ᄇᆞ름, 하늬ᄇᆞ름 불면은.
@ 겅허영 무끄민 집이?
#2 무끄민게 그거 허영 모영 그디 영 눌어놧당 마차로 헤근에 시껑 왓수게게. 엿날에 마차로.

#1 아주 옛날에는 그걸 무끄면은 그냥 요사이 사름덜은 차에라도 그냥 덤벙덤벙 실으민 뒈주만은 그게 차분이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는 많이 실으지는 못허니까예, 소허곡 말로 우리 어릴 때는 운반을 헷수다게. 경허면은 훈짝에 잘하면 훈 열다슷 단씩 허면 서른 단.
@ 거난 촐은 훈 바리가 멧 뭇이라?
#1 서른 단.
#2 서른 단이 훈 바리.
@ 서른. 훈 바리가 멧 뭇?
#1 서른 단.
#2 서른 단이.
@ 서른 단?
#1 예, 그게.
@ 훈쪽에 열다섯 단씩이네.
#1 예, 예. 경헤서 소에.
#2 경허믄 훈 바리 시꺼오는 거주.
@ 조는 훈 바리가 멧 뭇이라?
#2 조는 ᄋᆞᆫ슷 단.
#1 조는 ᄋᆞᆫ슷 단, ᄋᆞᆫ슷 단.
@ 여긴 뭇이엔 안 허영 단이엔 헙니까?
#2 예, 단이엔 헙니다, 우린.
#1 그거는 우리 방언으로도 다.
#2 훈 단, 두 단.
#1 훈 단 두 단.
@ 보리는 멧 뭇이라? 훈 바리가.
#2 난 몰르쿠다, 거.
#1 보리는, 보리는 우리.
@ 몰르고?
#1 예, 몰르겟는데 그거는마씸.
#2 아니, 그것도 그것일 거우다, 스무 단이 훈 바릴 허나.
#1 게난 그, 저 무게에 따랑 다릅니다.
#2 새도 열 단이면 훈 바리 헙니께게. 촐도 열 단이민 훈 바리.
#1 촐은 딴 무슨 곡식보단 가벼우난 서른 단이 훈 바리고.
#2 새도 서른 단이 훈 바리라.
#1 예, 예, 예. 건 줄게 무꺼근에.

팔월

벌초

@ 남자 삼춘 그 벌초 갓다왓일 거우다마는.
#1 예.
@ 벌초는 언제 헙니까?
#1 벌초마씸?
@ 으.
#1 벌초는 뭐.
#2 그거.
#1 요사이, 옛날에는 그냥 벌초 그냥 날 정헤근에 안 허영 그 시원헌 날로 택헷주마는 요새는 보통 공무원덜토 많고 헤부난에 공일날을 주로 택헨 헴수다게.
@ 거난 팔월 초ᄒᆞ루?
#2 아이고, 팔월 초ᄒᆞ루 너무 일릅니다게.
#1 전에도 허는 사름이 잇곡.
#2 일요일날.
#1 요번 같은 경우는 태풍 불어근에 못헐 정도 뒈난에 이제 구일날 낼 모리 아시날 떡 허는 날 강 헤살 겁주.
@ 막 늦게 허네.
#1 아 일찍허는 사름도 이십니께. 게난 원래는 벌초, 흔 이 추석 때 허는 게 원래는 명질 제삿상에 갈 때에 그때 풀이 이만큼 자랑은 벌초허는 보람이 없는 거 아니우꽈. 게난 어느 정도 가까왕 허는 게 좋다고 봅주게.
@ 게난 처서 지나면은 대부분덜 허여마씨.
#1 예, 예. 다 헙주, 다 헙니다. 게난 보통, 보통 그.
#2 팔월 기자 이십팔일.
#1 예, 집집마다 다 틀립주. 저 구월 초에 첫 주에 허는 사름 잇고.
#2 구월 초 낭 쳇 주에.
#1 두 번째 주에 정헌, 정헌 날로.
@ 음력으로 헤얍주게. 저 팔월 멩질 전이 헤야 뒈니까.
#1 아, 겐디 요사이는.
#2 아니, 아니, 양력으로 요샌 다 써 부난.
#1 요사이는 양력으로 헴수다, 구월.
#2 양력으로 써 부난 기자 양력으로 헙니다게. 구월 쳇 일요일날 허는 사름.
#1 주로 구월, 구월 첫 공일날.
@ 아 양력으로 허여.
#2 문딱 기자 일허는 사름덜.
#1 요디 집안은 헙니다.

#2 요디 일허레 저 뎅기는 사름덜이라 부난 일요일날 맞추젠 허민 어떨 말이우꽈?
#1 개인 벌초 저 흔 사름씩 허는 거는 지네가 알아근에 아무 때나 허고.
@ 모둠벌초?
#1 모둠벌초 허는 거를 경 정헤 버려마씸.
@ 구월 첫째 일요일날.
#1 첫째, 게난 첫째 허는 날도 잇고. 구월, 구월 둘째 허는, 정헤 부는 일가도 잇고. 모둠벌초는 다 경 정헹 헤붑니께.
#2 대강.
@ 그 벌초헐 때 그, 저 뭐냐, 묘제허는, 묘제도 헙니까?
#2 묘제허는 집이 이십니다.
#1 벌초헐 때 묘제 안 허곡, 저.
#2 아이, ᄒᆞ는 디가 잇수다게.
#1 ᄒᆞ는 디가 잇어마씨?
#2 예.
#1 보통.
@ 허는 디가 잇고.
#2 예. ○○이네도 어제 그지게, 요자기 그 태풍 부는 날 기직아시날이냐?
#1 보통 봄에 허는디.
@ 청명 때양?
#1 예, 보통 그때.
@ 음력 삼월?
#1 으. 그때 주로 딴 디덜은 묘제 허는데 거 뭐 집안마다 허는 거니까.
@ 이제는 그냥 벌초 허멍도 허는 디가.
#1 예, 예 요사이는 편허게 다 편허게만 허젠.
#2 아이 요새 멩질도 공동묘지 강 허는 디 이수게.

팔월 멩질

@ 그다음에 우리 그 팔월 멩질, 팔월 멩질 때에는 그 어떤 떡은 어떤 거 헙니까?
#2 멩질 때 떡은 무신 벨다른 떡 엇입니다, 그자.
@ 팔월 멩질.
#1 옛날, 옛날은 여기서, 뭐.
#2 기자 송편 기자.
#1 송편은 우리 집안엔 송편이엔 헌 거 별로 안 헷수다. 명절 때도 어제께 말한 대로 저 떡 치고.
@ 솔벤, 절벤?
#1 예, 경 허고 뭐 허단 지금은 간편허게 기자 뭐 어디 떡방앗간에 강 허는 게 아니고 떡집이 강 맞촤다근에 헤분 거난. 주로 내가 알기로는 팔십 프로는 떡집이서 맞춰

단에 헴실 거우다.
#2 에, 옛날엔, 빙떡, 전기 지져수게, 전기.
#1 예, 전기도 허곡.
#2 전기 지져근에 기자 영 홀아방으로 헨 올렷주. 요새ᄀᆞ추룩.
@ 빙떡이 전기?
#1, 2 예, 전기.
@ 아.
#1 메밀전기.
#2 메밀전기 지져근에.
@ ᄆᆞ멀, ᄆᆞ멀.
#1 ᄆᆞ멀가루로.
#2 ᄆᆞ멀전기.
#1 ᄆᆞ멀로.
#2 전기 지져근에 기자 영.
#1 그거는 약식으로, 약식으로 허는 사름이고, 제라허게 허는 사름은 저, 특히난 문목시 같은 사름은 제대로 출령 허주, 전기 안 헙니다.

달구경
@ 그 팔월 멩질 때 밤인 둘도 구경헷지양?
#2 (웃음)
@ 둘구경?
#2 둘이예, 경 밝을 때가 잇곡, 아니 밝을 때가 이시난게.
@ (기침)

백로 · 추분
@ 그다음에 백로, 백로에 대허영 알아지쿠가?
#1 백로.
#2 백로 뒈면은 다 끗난 거 아니우꽈? 여름.
#1 아, 그거 잘 모르겟네마씀.
@ 예. 추분?
#1 추분은 팔월 중이난에, 그 이제 절기에 대헌 거는 그 지금 넘어가가민 특별허게 하는 게 엇수다게.

당제
@ 그다음에 당제, 당제?
#1 당제렌 허는 절기가 잇어마씨?
@ 구월달에 당제?

#1 당제엔 헌 건 우리 들어봄도 처음이우다.
@ 당에 강 제 허는 거?
#2 구월돌엔 엇수다.
#1 당에 강 제허는 거? 아, 아, 당제.
#2 당제 예.
#1 그 저 구월달엔.
@ 거 뭐냐 시만곡대제?
#1 그런 건 우리 동네에서 들어봄 처음이우다, 건.

상강

@ 그다음에 백로, 상강에 대헤근에 흔번 골아줍서. 상강.
#1 상강은 거 뭐 첫서리 내린다는 건데, 뭐 서리는 내릴 때도 잇고 안 내릴 때도 잇는 거니까 그냥.
@ 상강 때 무신거 헙니까, 저 농사일로?
#2 아 그때는 모든 거 다 거두와 들이 때 아니우꽈?
@ 아.
#1 특히나 메밀.
#2 고구마나 뭐.
#1 특히나 메밀, 늦가을에 메밀 거둬들이곡.
#2 다 해. 상강일 뒈민 다 끗나는 거마씀.
@ 으.
#2 산에 그때 상강 뒈민 서리에 든덴 헙니께게.
#1 예, 첫서리 어린덴 헙니다.
#2 첫서리 얼민양 세 번짜 ᄒᆞ민 이레 해변ᄁᆞ장 다 내려온덴 헙니께. 상강 오민 그때는 가을 추수가 다 끗난 거.
@ 맞수다.
#2 예.
@ 입동. 이건 뭐.

십일월

동지

@ 동지 잇지 안허우꽈양?
#1 예.
@ 동지.
#1 예.
@ 동지 헐 때 풋죽, 풋죽 쑤지 안허우꽝양?

#1 어, 옛날에는 동지 헐 때 픗죽 많이 쒕 먹엇수다.
@ 동지 때 픗죽 쑤는 이유가 알아지쿠과?
#2 게, 벵 걸리지 말렌. 감기 ᄀᆞ뜬 거 걸리지 말렌 경 허는 거 아니우꽈?
@ 픗죽?
#2 옛날은 픗죽 쑤민 사발에 거령 가근에 올레 강 이레착 저레착 헤뒁 먹넨 헙니다.
#1 게고 벽에도, 벽에도 부찌고.
@ 올레코시 헤둬근에?
#2 예. 게 모든 벵, 잡귀가 들어오지 못허게, 싹허게시리.
@ 그 픗죽 어떵 쒀마씸?
#2 픗죽 어떵 헹 쑵니깡게. 픗 숢아근에 걸름 걸러둬근에 쑤는 사름도 잇곡, 기자 쑤는 사름도 잇고 것도 ᄋᆞ랏 질이우다. 엿날 할망덜은 기자 문닥문닥허여.
#1 손으로 줍앙.
#2 경 헤근에 쑤주만은 요즘은.
@ 거난에 픗죽 쑬 때는 픗이 막 강허난에 픗을 우선 저 뭐꽝?
#1 쓺아야주게.
@ 저 숢아야지양.
#1 일단 숢아놩.
@ 숢앙 놔뒀당.
#2 놔뒀당.
@ 거난에.
#2 둣날 아침인.
@ 곤쏠.
#2 에, 곤쏠. 산디쏠.
@ 으, 여기선 산디쏠.
#2 예, 산디쏠.
@ 거 놔근에.
#1 경 헹 팔팔 끌릴 겁주게.
#2 옛날엔 경 헷수게. 요즘은 저 무시거 다 뒈난양. 픗 숢앙도 싹 걸러둬근에양, 경 헤근에 춤 새알도 놓곡 쓰주만은 옛날은 새알이 어디 잇수가?
@ 거 픗죽 쑤는 그 순서 흔번 말헤 봅서, 우리 여자 삼춘.
#2 아이 픗 숢아근에게 경 헤근에게 틈자민 그거 문닥문닥헤 놔근에 저 산디쏠 그레 시쳐 놔근에게 끌리민게 픗죽 뒐 거 아니우꽈?
@ 그 픗죽 쑬 때 소금 놔근에 간 맞춥니까?
#2 다 쑤어놩 소금 막 저 간 놉니다, 먹을 때. 게 아니민 쏠이 안 풀어진덴 헙주게, 소금 놓민.
@ 게난 다 쒀난 다음에?
#2 예, 다 쒀낭 먹을 때 뒈민 소금 놩 맛 보멍 헤근에 영 다 쒀지민 저 사발에 거령

강 이레착 저레착 헤둬근에 경 헤근에.
@ 그 돔비로도 죽 쑵니깡?
#2 돔비도게, 돔비도 기자 집이서 일반 무시거 먹을 땐 쑵니께게.
@ 픗 말고양?
#2 예, 둑죽 쑬 때 돔빈 하영 쑵니다.
@ 아, 저, 둑죽 쑬 때.
#2 아, 건 녹디로구나, 녹디.
#1 건 녹두.
@ 으.
#2 녹디, 녹디.
#1 녹디.
@ 으, 맞아, 저.
#2 픗 엇이민 그.
@ 둑죽은 녹디.
#2 예. 픗 엇이민 그거, 저 돔비 쓰는 거 아니우꽈? 돔비. 픗, 픗 것도 ᄉᆞ춘 아니꽈게, 그거.
@ 예, ᄉᆞ춘이주. (웃음)
#2 예.

집 일기

@ 그 집 일어봅디강?
#1 예. 집 일어봣수다.
@ 집 일 때 그 우선 저 줄을 놔야 뒐 거 아니우꽈양?
#1 예, 예.
@ 그 줄 놓는 것을 뭐엔 헙니까?
#1 에.
#2 줄, 호렝이 말이꽈?
#1 호렝이 요렇게.
@ 호렝이.
#2 호렝이, 호렝이.
#1 호렝이 거 줄 놓아가지고 영.
@ 새.
#2 예, 거 호렝이.
@ 영 영 허는 거 뭐라? 앉아근에?
#1 호렝이.
#2 그 새게. 새 멕이는 거주게.
@ 양?

#2 호렝이로 흔 사름은 영 영 비민 앚앙 새 허영 솔솔솔.
@ 으, 그거.
#2 줄, 줄이엔 헙니께, 줄.
@ 아 거난 영 영.
#1 그거 허영 얽을 때 허는 거는.
#2 줄, 줄.
@ 아이 게난 여기 하르방이 영 앚아근에 여기 코 헤근에 영영 돌리는 거?
#2 줄이엔 헙니다. 호렝이, 건. 건 호렝이.
@ 돌리멍 또 뒤터레 영영 가멍 줄.
#2 예, 줄, 건 줄.
#1 거 호렝이 말고 그 호렝입주만은 거 이름이 잇는디 감는 거, 큰 거, 이디 탁탁 박아 놔근에.
#2 아, 그거는 어울릴 때.
#1 어울릴 때.
@ 으.
#2 어울릴 때.
#1 게 어울릴 때 허는 거?
#2 어울릴 때.
@ 어울릴 때 허는 건 뭐라?
#2 두치기, 두치기.
#1 (웃음) 그 난 나 잊어변 잘 몰라.
@ 두치기?
#2 예, 두치기. 아으, 튼내쳠수다, 두치기.
@ 두치기.
#1 으, 아까 호렝이엔 헌 건 가는 줄 흔 줄 헐 때 허는 거고.
#2 뒤치기 마무리 허는 거난 앚아근에 영 기영 영 영 어울립니께게. 영 영.
@ 줄 놀 땐 뭘로 놔?
#1 줄 놀 때 감는 건 호렝이고.
@ 아으, 게메 줄 놀 때 그?
#2 줄 놀 때 새, 새.
#1 새.
@ 새로 허지 안헙니까?
#2 예, 새, 새.
#1 각단, 각단.
#2 각단, 각단.
@ 각단으로 허지 안헙니까?
#1 각단.

#2 새는 집 이는 거.
#1 각단이주.
@ 으, 새는 집 일 때.
#1 예.
#2 각단.
#1 겐디 각단이엔 헌 게 엇이민 새로도 빕니다게.
@ 거난 그 큰 줄이 잇곡 족은 줄이 잇지 안허우꽈양?
#1 예, 예.
#2 집이 크민 막 집이 크고. 줄이.
#1 아이, 영, 영, 영 길이로는 큰줄.
@ 으.
#1 영 가로는 짧은 줄.
@ 짧은줄, 쫍은줄.
#1 경 헤여근에 거 숫자 세영.
@ 으.
#1 여기 쫄른줄이 멧 개.
@ 훈 멧 개 들어갑니까? 집 ᄒᆞ나에?
#1 큰줄이 멧 개 헤근에 큰 줄은 보통 앞에 훈.
@ 삼칸집.
#1 앞뒤 헤근에 훈 열 줄? 열 줄.
#2 열 개 넘어 듭니다.
#1 열다섯 줄, 열 개로 허면 열다섯 줄 늘리곡. 요 가는줄은 거의 다 곱배기로 보믄 뒐 거우다.
#2 요만썩 사이에 허난에.
@ 으.
#2 훈 스무 개 들어갈걸.
@ 집 ᄒᆞ나에양?
#2 예. 아니 질로나 ᄀᆞᄅᆞ나.
#1 아이 영 질로 허는 거는 숫자가 족곡. 영 ᄀᆞᄅᆞ 허는 것이 많이 들어.
#2 ᄀᆞ루 허는 것이. 우리 영 앚은 상태에서 이 집 훈젠 ᄒᆞ민 영 쫄르곡.
@ 훈 스무 갠 들어감직허다.
#2 예, 스무 개 들어갑니다.
@ 앞면 뒷면으로.
#2 예.
#1 아무튼.
#2 스무 개 아니민.
#1 요렇게 들어가는 것보단 요렇게 들어가는 숫자가 많으우다.

@ 그다음에는?
#1 ᄀᆞ틀 수는 엇수다. 집 길이허곡 폭이 잇어놓니까예.
@ 집 언제쯤 입니까?
#2 삼월달에 일주게, 삼월달에.
@ 삼월?
#2 예, 삼월달에 집, 봄 나면 기자.
#1 봄 나민 헙니다, 봄 나민.
#2 봄 나민 ᄒᆞᆫ 삼월ᄃᆞᆯ 나민.
@ ᄇᆞ름 엇일 때양?
#1 예, ᄇᆞ름만 자면은.
#2 것도 존 날로.
#1 예.
#2 궂인 날 허민양.
@ 그 존 날이 어떤 날이라?
#2 좋은 날로 헤사 허주, 궂인 날 허영 허민. 저 불이라도 나근에 부떠불카 부덴.
@ 뭐 띠 봐근에?
#2 궂인 날 헐 때는 저 지붕 우이서 오줌 싸곡.
@ 무신 날 허여?
#2 아메도 그 존 날 헴주, 날짜로게 허민.
#1 그때 옛날 어른덜은 영 영 손 꼽아근에 갑자을축 헤근에.
@ 게메.
#1 무슨 손 엇는 날, 뭐 그런 거 판단허연 허는 건디, 그추룩헤근에 봐근에 허곡.
@ 존 날이?
#1 그추룩, 그추룩 모르는 사름은 날 안 봐근에 일어 놩 물박에다 물 부어놔근에 지붕 우이 다 끗난 다음에.
#2 던지곡 그자 그디서 오줌 쌍 영 뭐 허곡 헌덴 헙디다.
#1 예 물바가지 헤근에 버려 붑니다.
@ 그 집 일 적에 ᄒᆞᆫ 멧 사름 필요헙니까?
#1 집 일 때는 인원.
#2 아이고.
#1 인원 뭐 서너니 사름.
#2 대여슷 사름 뭽주.
#1 예, 요 줄 메는 사름 아래서, ᄒᆞᆫ.
#2 이짝으로 심곡, 이짝으론 잡아뎅기고 허젠 허민 둘허곡.
#1 저쪽 이쪽 허고. 저쪽 이쪽 허곡.
#2 지붕 우에도 새가.
#1 우에도 우에도 허면은.

#2 빙허게 돌젠 허민 오래난에 둘리 서이 들어갑니다게, 지붕 우이, 양.
@ 지붕 우이 서이?
#2 서이.
#1 많이 들어가고, 아니 사람이 잇는 디는 많이 들어가곡 족을 때는 훈.
@ 그다음에 밑에서는 새, 새 올리고.
#1, 2 새 올리곡.
#2 양펜이 사근에 멜, 줄 메는 사람.
@ 줄 메곡.
#1 예.
#2 게믄 둘리 딱 맞아.
@ 훈 여섯 명은 들어가겠네양?
#2 경 뭽주게, 여섯 명도 뒈곡 집 족으매 가주게, 집.
@ 거 수눌엉덜 허지양?
#1 수눌엉도 허곡, 할머니덜 혼자 잇는 사름은 돈 줭 빌어당도 허고 헷수다게.
@ 음. 여기는 집 저 멧 번 입니까, 일 년에?
#2 훈 번벳기 더 입니까?
#1 일 년에 훈 번마씨.
@ 훈 번?
#1 훈 번.
@ 아니 게난 북군더레는 이 년에 훈 번인디.
#1 예, 거긴 장마가 별로 엇이난예.
@ 으.
#1 우엣 거 새가.
#2 일 년에 훈 번.
@1 일 년에 훈 번.
#1 예.
@ 여긴 새 어디 강 헹 와?
#1 저 산에, 저 밧테 강은에. 옛날은예, 성읍 ᄀᆞ튼 디, 안좌왓 ᄀᆞ튼 디 가면은 새를 생산허는 새밧이 잇수다. 그디 가면은 사다근에 상, 밧데기로 사는 사름도 잇고, 초석 짜는 그것도 거기 강은에 사근에.
#2 아 옛날엔 지금 닮지 아녀난 이디 해변도 새가 들엉.
#1 그거는.
#2 이녁 밧 이신 사름은 들어, 경헤근에.
#1 게고 이 집안에서도 우리도 지금 농사짓는 밧덜이 새밧이 많아낫수다. 게서 이젠, 이제 다 비료도 나오고 허난예, 그거 개간허멍 헨에 농사짓는디 그거 다 새밧이라나 수다게, 옛날은. 그거 비어다근에게 집 다 일고.
@ 그 줄 영 멩글 땐 올레에서 헷지양?

#1 예.
#2 올레서.
#1 올레벳긴 긴 디, 긴 딜로 헐려니까, 올레.
#2 올레 길민게 올레레 쭉허게.
#1 마당이선 이 길이가 안 나오니까, 주로 올레서 헤수다.
@ 그 저 줄 무꺼난 다음에 나머지 잇지 안허우꽈양?
#2 북데기, 북데기.
@ 그거 헤근에. 북데기옌 헙니까?
#2 북데기.
#1 북데기.
@ 북데기 헤근에 뭘 헤수가?
#2 거 불 때엇주게, 무시거 헙니까? 거.
#1 검질 밥헤 먹엇수게, 부억에서, 솟디서.
@ 불 때언?
#1 예.
@ 으.
#2 불도 때곡 옛날엔 마당에 세멘 아녀난 마당에도 영 꼴곡.
@ 마당에도 꼴고.
#2 예, 흑밧디.
@ 북데기.
#2 옛날에 어웍도 비어당 마당에 꼴곡, 조남뎅이도 마당에 꼴곡 헤나수게, 그 옛날엔.
@ 조남데기?
#2 조남뎅이.
@ 남뎅이? 조남뎅이?
#2 조남뎅이.
@ 으. 그 조 남뎅인게 저 뭐 쉐 줘나지 안헤수가?
#2 쉐 주민게.
#1 쉐 먹단 남은 거.
#2 쉐 썹만, 썹만 먹읍니께. 남뎅인 안 먹고.
#1 게난 앞잇 거 걷어다근에.
@ 그거 저 뭐냐 돗통엔 안 놓지양?
#2 조, 조남뎅인 안 놉니다.
@ 아.
#1 겨곡예.
@ 안 썩어근에.
#1 잘 썩지 안허는 따문에 그건.

#2 보리나 저 산디나 ᄆᆞ멀이나 허는 건 들어가도 조남뎅인 안 들어가.
#1 억세 부난.

십이월

장 담그기

@ 그다음에 요거 잘 알암직헌게, 여자 삼춘. 장 담그는 거? 장은 언제 담읍니까?
#2 장은 언제 담읍니까게, 섣둘 그뭄날 담주.
@ 섣둘그믐날?
#2 예.
@ 섣둘그믐날양?
#2 예. 육지는 정월 그믐날 담암젠 헙디다만은. 우리 제주도는 섣둘그믐날 뒈민.
@ 장 담그는 과정만 말헤 봅서, 젤 처음에 뭘 멩글아야 뒐 거?
#2 뭐 헙니까, 소금.
@ 아니 처음에 저.
#2 아, 저, 콩.
#1 콩 솖아근에.
#2 콩 솖앙.
#1 메주를 헤야주게.
#2 메주를 요만썩 헹 만들앙.
@ 콩 솖앙양?
#2 예.
@ 콩 솖아근에 그거 저 콩을 잘 뭘 영 헤야뒐 거 아니우꽈? 뭘로 헤수가?
#2 경 허민양. 옛날엔 방에 잇지 아녀우꽝게.
@ 예.
#2 그걸로 찍주만은 요즘은, 요새.
#1 마다리에 놩 붋아.
#2 마다리에 저 요소포. 요소포에 딱허게 놩 졸라 무껑 기자.
@ 요소포?
#2 예, 비료포.
@ 음.
#2 그것에 헤근에 솖아근에 불르민 뒙니다.
@ 발로?
#2 예.
@ 발로 붋아?
#2 게믄 발로 버물지도 아녀.
#1 그거 아주 옛날 우리 어릴 적이는예. 그런 생각, 마다리에 놔근에 붋곡 허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2 방에 지엇주.
#1 방에엔 허는 거 잇지 안허우꽈?
@ 으.
#1 저 동글랑헌 통 돌멩이 까까근에 멘든 거허곡 베꼇디 나무로 헤근에 튀어나지 못허게 막아 논 디 거기 그 방아로 찧엉. 그걸 찧어근에 찧어진 거는 이제 걷어내곡 또 놩 찌곡, 찌곡, 찌곡 게근에 그걸로 이제 메주를 만들앗수다게.
@ 예.
#1 그걸 멘들아근에 이제 뭐, 이 잘 알주만은 그걸 이제 어디 놔근에, 방안에 놔근에 틔와놩.
@ 메주 멩글앙?
#2 멩글앙.
@ 메주, 메주를 뭐에 무꺼?
#1 찝에, 찝에.
#2 옛날엔 거시기 산디찍.
#1 으.
@ 산디찍?
#2 예, 산디찝이 방쉬옌 헙니께. 잘 뜨고.
#1 잘 뜨주, 그게.
#2 예, 경 헨 산디찍 헤근에 둘아메는 사름이 잇고. 경 아녀민 저 무신 그릇에 놔근에, 옛날엔 저 대구덕 잇지 안허우꽝게?
@ 으.
#2 그것에 영 훈 도리, 훈 도리 담앙.
@ 멩텡이에 허는 사름도 잇어낫어.
#2 예. 경 헹 놔근에양 훈 일주일만 시민 것이 곰펭이 필 거 아니우꽈? 게믄 그때 내놩은에 계속 물리는 거라. 훈 두 둘을 계속, 메날 내놧다가 들여놧다가.
@ 이제 헨에 메주 멩글앙 이제 뭐에 담아? 거 담아야 헐 거 아니우꽈?
#2 항에, 항에.
@ 항에?
#2 예. 항, 옛날 항.
@ 으, 항.
#2 그것에게 소금 우리 장 담는 것도 여랏 질이난 기자 물, 콩 훈 말이민 물 얼마.
@ 아, 메주 얼마민 뭐 아니?
#2 게 콩, 말로 헙주게, 메주가 아니고.
@ 으.
#2 콩 두 말이민, 두 말이민 허벅으로 ᄒᆞ나.
@ 허벅으로 ᄒᆞ나?

#2 예. 경 헹 놔근에 저 잘리 만들아근에 소금 놩 영 영 둥급니께. 둥그민 저 춤 요만이 저 오백 원짜리 동전만이 계랄 놔근에 트민 간 맞앗젠 헙니다게. 경 헤근에 허민 그거 정도 뒈민 소금을 자꾸 놔. 반 정도 계랄이 트면은 이거 소금이 족앗구나 허영 또 놓곡 또 놓곡 경 요만이 터가민 경 헤근에 경 헨 장 담안 먹엇수게, 옛날은.
@ 장 담으민 이제 뒌장허고
#2 분리 분리.
@ 그 간장을 멩글아야 뒐 거 아니우꽈?
#2 분리, 분리.
@ 분리헤야지양?
#2 예.
@ 그냥 뭐 메주만 다 긁어내어?
#2 메주만 싹 꺼내어근에.
@ 으.
#2 그것만 막 문닥문닥헤영 뚜로 항아리에 딱 담곡.
#1 그건 뒌장이고. 그건 뒌장이고.
#2 간장은 간장 항아리에 또 요만이 헌 것에 딱 놔근에 경 헹 부리 무껑 놩 놔두민, 막 벳디 놩 놔두민 즞앙 간장이 저 상그랑허게시리 저 소금ᄀᆞ추룩 우이 터마씀. 간 맞이민. 기축헹 놨다근에 삼 년이고 ᄉᆞ 년이고 먹엇수게게. 옛날엔 장만 시민 반찬으로 헨에.
#1 주로, 주로.
#2 주로 먹어수게게.
#1 주로 뭐 뒌장이주, 뭐 여름철엔 오이하고 뒌장, 반찬이.
#2 콩입 튿엉 놓곡 양엣근 끊어다 놓곡 헹 경헤근에 먹엇주, 무슨.
@ 게난 일 년에 흔 번씩 장 담감수가?
#2 일 년에 흔 번씩 담읍니께. 이젠 하영 안 담읍니다.
@ 그 옛날은 장황이 잇어낫어양?
#2 장황.
@ 그 저 정제 뒤에.
#2 정제 뒤에예. ᄎᆞ남, 춤, 춤남 거 알아집니까?
@ 양?
#1 춤낭.
#2 춤바디, 춤바디.
@ 춤바딘 뭐라?
#1 춤.
#2 저 거시기 무시거니? 저.
#1 옛날 물을예.
#2 저 물 귀허난.

#1 물을 저기서 질어다, 길어다 먹는 게 아니고, 어디 집 주위, 주변에나 어디 이시민 큰 나무가 잇으면은
#2 동박, 동박낭이라도 시민.
#1 그거 새 갖다근에 이렇게 무꺼놩.
@ 아.
#1 머리 닿은 거 같이 글로 항아리나 받앙 물 졸졸 나게 받는 게 춤.
@ 으.
#2 춤물, 춤물 그거 받아근에게.
#1 그거 받아근에 식수로도 많이 썻수다게.
@ 나무로 헤여근에 영 그.
#2 새 영영 머리ᄀᆞ추룩 영 허영 알론 쫄아지게 허곡. 낭더레 원목더레 영 무끄민.
@ 항.
#2 그디 항더레 물 졸졸 내릴 거 아니우꽈, 그추룩 헹.
@ 여긴 물이 귀허난양?
#2 귀헤낫주게, 옛날엔.
@ 우리 동넨 생수 이시난에이 아침 새벡이 가근에 물 질어오고.
#1 그딘 다 흐르는 물 근처에 잇곡 허난.
#2 아이고, 우린 굴른 물 먹어수게게.
@ 게난 우리 동넨 생수가 이시난.
#1 예, 예, 맞수다 그쪽더렌 서귀포 쪽더렌 생수 잇고.
@ 거난에 생수 이시난에 그 사름덜 막 갈 땐 안 가고. 아침 새벡이 강 그 생수 떠다근에 놔둿다근에 장 담고. 식게 때도 경 허여.
#2 아, 놈 아니 진 때, 일찍.
@ 예, 아침 새벡이 강 허는 거.
#2 완전히 그딘 저 무시거 헌 딘게.
#1 서귀포 그쪽더렌 다 산물이 나난에 허고, 이디는.
@ 거기 저 물 젤 잘 나는 디가 강정천 아니우꽈게?
#1 예, 예, 맞수다게. 그딘 물이 나난 허고 여기는 물이엔 헌 건 저 굴른 물벳긴 엇입주게.
@ 게메, 굴른 물, 경 헤근에 허는 것이 아까 춤물?
#1 예. 거 춤 받는다 헙니다, 여기서.
#2 춤. 춤 받는 거.
@ 춤 받는다.
#1 으.

납평날

@ 그다음에 남평날 알아지쿠가, 남평날?

#1 남평날이엔 헌 날은 뭐냐면 옛날 그거 기억이 좀 새롭게 그 어른덜 말헌 거 같은디 엿 멘들앙 먹는 날.
@ 엿 멩글앙 먹는 날이우꽈, 남평날이?
#2 남평날.
#1 예, 남평날이. 옛날에 엿 멘들아근에 먹는 날.
#2 맞수다, 맞수다게.
#1 엿을 고아 먹는 날입주게, 그날이. 그거 그 이유는 잘 몰르쿠다마는 나 생각에는 아까 풋죽 쒕 먹을 때 그 무슨 저기서 어디서 뭐 병 ᄀᆞ뜬 거 물러가렌 허는 식이고, 엿도 마찬가지라마씸. 그런 뜻에서 멘든 거라마씨. 그날을 정헹.
@ 엿 멩글안 먹어봅디가?
#1 아, 엿은 많이 먹읍주.
#2 아이고게, 멘들아나낫수다.
#1 우리 어머니네 요런 저 쪼그만헌 단지에 담아근에 고팡에 몰래 갖당은에 보리쏠 항아리에 딱 묻어두면은 우리는.
#2 몰래 강.
#1 몰래 강 이제 숟갈로 퍼 먹어근에, 퍼 먹어나믄 쑥 들어가 불지 안헙니까? 게민 그거 다 평평허게 뒈면은 톡 더퍼둰 나오면은 어머닌 와근에 뭐옌 허느냐 허면 이딘 어디 쥐새끼덜 들어나시냐 이거 무사 이치룩 골라 비어시니? 헤근에.
@ (웃음)
#1 (웃음) 경 헹 우린 그딘 안 먹엇수덴 헷당 뒷날은 또 그디 강은에 안 먹을 수가 엇어, 맛 봐 놓면은. 그때는 단 게 귀헤시난예.
#2 단 거 귀허난 저 주로 집이서 엿 만들아근에.
#1 주로 엿 만들아근에.
@ 무슨 엿 멩글안 먹어수가?
#1 그때는 고구마엿도 잇고예.
@ 고구마엿도 허여?
#1 예, 예. 고구마엿도 잇고, 또 좁쌀, 차좁쌀. 그 흐린좁쌀엿도 잇고. 여러 가지 엿이 한두 가지가 아닙주게.
#2 이신 사름은 독도 잡아 놔근에 놓고.
#1 독엿도 헤 먹고 건.
@ 꿩?
#2 꿩도 허고.
#1 꿩엿도 허고.
#2 꿩도 우선 허고게.
@ 지다리도 헤 봅디강?
#2 아이 그런 건 안 헤보고.
#1 지다리 ᄀᆞ뜬 거는 여기 동네서는 개로 사냥허는 사람 멧 사람 잇엇수다마는 우린

먹어보진 안헷수다.
@ 아이, 지다리가 좋덴 허여.
#1 예.
#2 막 지다린 지방질이 궹장이 많이 잇어.
#1 저 누구네 거 헤수게게. 저 이디 강 회장 큰 성네, 개 허영 굴 속에덜 가근에 개 둘앙 강.
@ 그 지다리가양 엄청 비싸덴 헙디다.
#1 예, 비싸기도 허고 그 지방이 그렇게 좋덴 헙디다게, 그게. (벨소리)

신구간

@ 그다음에 신구간, 신구간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양? 신구간. 신구간은 언제가 신구간이우꽈?
#2 섣달.
#1 그것 에, 대한 후, 대한 후 칠 일 후 뭐옌 헌 게 잇수다마는. 기억이 잘 안 남수다. 거.
@ 대한허고, 이 저 입춘 사이?
#1 예, 대한 후 메칠 기간 뒁 그 사이에 또 지낭 칠 일 간인디 그걸 나도 기억이 안 남수다. 거 다 알긴 알앗수다마는양.
@ 그 신구간, 신구간 때 뭐 헙니까?
#1 신구간 때 이사헙주, 주로.
@ 으.
#1 날 봐근에, 손 없는 날이엔 헤근에양. 구신 안 부뜨는 날로 헤근에 이사 가는 겁주.
@ 그다음에 돗통도 고치지양?
#1 돗통은 저, 돗통 고치는 거는 그때도 허주만은 보통 그 청명 ᄀᆞ튼 때도 손 없덴 헤근에 헙니다. 올렛담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청명에도 허고.
@ 집도 고치고?
#1 예, 예. 신구간에도 허고.
@ 신구간에?
#1 예, 주로 허는 게 신구간입주.
@ 저 집도 고치고양?
#1 예, 예.
#2 거 모든 무시것이 다 하늘광더레 다 올라가 불민.
#1 예, 예, 예.
@ 거난 신구간.
#2 어, 뭐 탈이 엇는 거주게, 탈이 없넨.
@ 뭐가 없넨? 탈이 없덴 허여근에?

#2 예, 예, 탈이 엇어근에 무시걸 헤도.
@ 그 집에, 거난 무신 집에 이것저것 막 고치곡 허지 안헙니까양?
#2 예. 게난게 신구간 들면.
#1 것사 옛날, 옛날 초가집 이실 때 퉤기헤근에 흑질 헌 거 털어지면은 그런 것도 흑질도 밟아근에 퉤기 우에도 부찌곡 헙주게, 그때가 다.
@ 퉤기가 뭐꽝, 퉤기?
#1 퉤기는 옛날 초가집 지어 가지고 지금은 나무로 이런 벽을 멘들지 안헙니까?
#2 옛날은.
#1 초가집 헐 때는 대나 나무로 헤근에.
@ 여껑이.
#1 여꺼근에.
#2 여껑은에.
#1 거기 흑을 밟은 흙을, 저, 저 뭐야.
#2 앗당 볼라.
@ 볼라.
#1 첨.
#2 손으로 볼랏저, 손으로.
#1 새나 뭐 헤근에 찝을, 찍을 놔근에 붋앙. 찝 아니민 잘 안 부뜹주게.
@ 붋아근에?
#1 예, 경 헹 그 찝으로 헤근에 우이.
#2 주로 산디찍 놧주 산디. 산디찍.
#1 산디찝.
#2 질기게.
#1 작두로 썰어근에. 경 헤근에 이제 부찌는 겁주. 경헹 그거 떨어지면은 보통 장마 때가 뒈가믄.
@ 보리낭도 놧지양, 보리낭?
#1 예, 보리찝도 놔수다.
#2 보리찝도 놓곡게, 예.
#1 경헷당.
@ 여긴 보리찝이엔 헙니까, 보리낭이엔 헙니까?
#2 보리찝.
#1 보리찝이엔 헙니다, 여기선.
#2 보리찝.
#1 옛날부떠.
@ 우린 보리낭, 보리낭.
#1 보리찝이, 보리찝 허게 뒈면 보리낭 허민 몰라도 보리찝 허면 표준말로 속허주만은 우린 옛날부떠 보리찝이엔 헷수다. 건.

이사

@ 음, 이사 갈 집 구헤납디가? 아이덜이라도?
#2 이사갈 때 말이우꽈?
@ 어.
@ 예. 이사갈 집 어디 간 구헷수가?
#2 어디 감이우꽈, 아이덜 빌엉 주젠 허민 어디 집 빌어근에 가근에.
@ 거는 이사헐 때 젤 처음 뭘 아졍 갑니까?
#2 이사헐 때 쳇 번 가민 기자 풋허곡 저.
#1 소곰.
#2 소금허고 가졍 강 작작 뿌려근에 헤영 싹허게시리 씰어내둬근에 경 헨 들어갓수다, 우린.
@ 거난 젤 처음 무신거 물건 가졍 갓수가?
#2 물건 가져갈 때는 헤영 먹는 거 아졍 가주 무시거 아졍 갑니까?
@ 아이 저 무신거 옛날 요강 먼저 가져가는 사름도 잇덴 허고.
#2 아이 요강 가졍가는 사름은 옛날 씨집갈 때 그 요강 단지 놔근에 앗앙 간 속담아니우꽈게? 거는.
@ 아 거난 저 무신것도 곽도 가졍 가고.
#2 성낭?
@ 으.
#2 그런 건 엇엇수다, 우리 시대엔.
#1 아니, 그.
#2 우리 아이덜 헐 땐 그런 거 엇어.
#1 저 뭐야.
@ 이불도 먼저 가졍 가고 뭐 그런 거 엇수강?
#2 솟 문여 간덴 허주, 솟.
@ 솟?
#2 예.
@ 솟 먼저 가고?
#2 솟 문여 가근에.

집알이

@ 집 그, 저 이사가면은 새집 짓엉 이사가면은 거 뭐옌 헙니까, 집알이?
#2 문전제?
@ 아니, 문, 집 알려야 뒐 거 아니우꽝, 집알이옌 헙니까?
#1 뭐.
#2 집 안네.
#1 집알이엔 허는 게 아니고.

@ 이사가면은, 이사가면은 왕덜 영.
#2 집들이?
#1 집들이.
@ 으, 집들이.
#1 아 저 표준말로 집들, 표준말론 집들인디 딴 우리 옛날말론 이수가 그거?
#2 난 몰르쿠다, 그건.
@ 으.
#1 아니, 이사온 디서 손님덜 와근에 뭐 어떵 옛날에는 성냥도 ᄒᆞ나 싹 가졍 오곡.
@ 거난에 그 집알이 헐 때 선물은 그디 성냥?
#2 성냥도 아졍 가곡.
#1 성냥 ᄀᆞ뜬 거, 비누 ᄀᆞ뜬 것도 뭐 영 아졍 가곡.
@ 그다음 초?
#2 초도 가졍 가고.
#1 그런 거, 그 당시는 헐 게 그런 거벳기 할 게 없엇으니까.
#2 초 ᄀᆞ뜬 건 초상날 때 앗앙 가지 안헙니까?
#1 초는 조문갈 때.
#2 예. 초상 나민 어디 그거 가졍 강 올려근에 절허영.
#1 으.
@ 거난 집알이 헐 때는 보통 성냥?
#2 옛날에, 옛날에.
@ 으.
#1 성냥, 그때 화각. 성냥이 아니고 화각.
#2 화갑, 화갑.
#1 화갑.
@ 화갑.
#1 화각.
#2 겡 옛날에 불 ᄀᆞ찌 일어나렌 그 성냥갑, 화갑.
@ 화각이우꽝?
#1 화갑.
@ 화갑? 으.
#2 화갑 앗앙 오라 허주게, 화갑.
#1 화각이 아니고 화갑이여, 화갑.
#2 화갑 앗앙 오라.
@ 으.
#1 옛날엔 그거 성냥 안 낫을 때는, 화갑 안 낫을 때는 불을 몬지락불, 저 부억에 당가놔수게. 옛날 우리 어른덜 보면은 그 화갑 나오지 안헐 때.
#2 놈의 집이 저 불 빌레 뎅기고.

#1 예, 몬지락불 담아근에 돌 꼭 지둘롸근에 뭐 일주일씩도 쓰곡 모자라민 옆집에 불 담으레 가곡.

소한 · 대한

@ 소한, 대한에 대허영 혼번 골아줍서.
#2 소한, 대한은 삼춘이 잘 알주.
#1 아, 잘 알고말고 헐 거 잇어. 소한은 말 그대로고 추울 때곡 대한은 뭐, 뭐 더 추울 때 아니우꽈?
@ 거난 이런 말 잇지 안허우꽈양?
#2 소한에 나가민 대한에.
@ 소한에 나간 사름 춪지 말라.
#2 춪지 말라.
@ 이거 무슨 말이우꽈?
#1 게난 그만큼 춥다는 겁주.
#2 춥덴 허는 거주.
#1 그 추위에는 나간 사람이 견디지 못허영 돌아오질 못헌덴 허는 뜻입주.
#2 제일 추운 때, 추운 때 아니꽈?
#1 소한, 대한에 나간 사람은 뭐 춪지 말라.
#2 춪아보지 말라 허난 추운 때주게, 완전이 거난.
#1 겡 그 말 끗데 옛말 같이 혼마디 허겟는디양. 옛날에는 이 그 혼, 혼 삼사십 년 뒛는디 우리 동네도 요기 저 어디 시에서 왕 버스로 내려왕 요 삼달사동(?)에서 내령 눈 묻으면은 거기서 집을 빌던가 뭐 정착헤 불어시민 뒈는디. 성읍리 올라가단 죽은 사름이 많으우다게. 게 그런 뜻이겟주마씀. 그런 대소한에 그축 나가면은 뭐 요새, 요새ᄀᆞ찌 차도 잇는 것도 아니곡 혼자 뎅기당 길 일러근에 우리 동네 요기서, 요기서도 신천리서 올라오다서도 죽언에 우리 메칠 찾으멍.
#2 도로공사허멍.
#2 메칠 찾으멍 헷는디양. 눈에 빠젼에 죽곡. 게난 그만큼 눈이 많이, 옛날엔 많이 묻엇지 안헷수가게? 지금허고 틀령.
#2 게난 추운 디 나가민.
#1 못 돌아온덴 허는 거.
#2 못 돌아온다. 옛날엔 눈도 하영 오곡.
#1 눈이 엄청나게. 뭐 지금ᄀᆞ치 지금은 그 눈 와보지, 여기 혼 번도 아니 와보고.

섣달그믐

@ 그 섣달그뭄에 대헤근에 혼번 골아줍서, 섣달그뭄날 뭐 헙니까?
#2 섣돌그뭄날 무시거 헙니까? 섣돌그뭄날? 섣돌그믐은게 듯날은게 초ᄒᆞ루 아니우꽈?

@ 예.
#1 멩질 헤먹젠 떡허곡.
#2 섣둘그믐날게.
@ 섣둘그믐날 게민 떡도 허고.
#2 떡도 허고.
@ 으.
#2 벨다른 거 엇인 거 닮은디 난. 섣둘그믐날.
#1 섣둘그믐날 무슨 특별헌 행사는 엇고 그자 제사 준비허는 거 그겁주게. 제사 준비.
@ 멩질 준비.
#2 일 년, 일 년 열두덜 다 가는 날이엔 헤근에.
@ 특별헌 뭐는 엇구나예?
#2 예, 특별헌 뭐는 엇수다.
@ 예, 좀 쉬엇당 허쿠다.
#1 경헙서.

생업

밭일

@ 그 이제 밧일에 대헤서 물어보쿠다양? 밭에 허는 일양. 그 옛날은 여기 저 밭일에는 어떤 것들 잇어나수가?
#1 농사지을 때, 옛날은 소로 밧 갈곡.
@ 아 거난에 그 저 이런 뭐 조농사도 허고, 그다음에 이런 농사 종류덜?
#1 농사 종류는.
#2 산디게, 조.
#1 예, 예. 산디.
#2 ᄆᆞ멀. 감자.
#1 ᄆᆞ물, ᄆᆞ물.
@ 예.
#1 그런 것덜입주, 뭐.
@ 거난 여기서 제일 하영 허는 것이 뭐라마씨?
#1 제일, 제일 많이 헷던 게.
#2 유채.
#1 유채.
#2 유채 보립주.
#1 유채.
#2 유채, 보리.

#1 고구마. 고구마는 아주 옛날에는 없엇는데 요 중간에는, 이, 저 뭐냐 바닷가 쪽으로 공장덜 많이 잇는 바람에 생감으로덜 많이 풀곡 헨에 그거 주 소득원이랏수다, 우리. 이 우리 지역에는.
#2 뻿데기도 허곡.
@ 어.
#1 절간, 절간, 뻿데기. 맞아, 절간이 아니고 뻿데기.
#2 뻿데기.
#1 뻿데기 헤근에 저 농협에 팔아근에 그거 소득 보고.
@ 그.
#1 봄엔 유채.
@ 요즘엔 어떤 것덜 헴수가, 이제는?
#1 이제는 주로 감귤. 또 전업, 전업으로 허는 사름은 무, 성산읍 농협은 무우, 당근.
@ 놈삐.
#1 놈삐, 무우. 놈삐.
#2 이 가정에서 농사허는 사름은 벨로 엇입니다. 문딱 세 줜. 밧 삯 줭은에 경헤영 농사를아니허여마씀.
@ 다른 사름안티 줘근에?
#2 예, 세 줘비언.
#1 젊은 사름덜 완전 기업농 뒈볏수다, 멧 만 평씩 헹.
@ 아, 이제는 저.
#2 농사를 아니허영. 세 받아근에 기자.
@ 세 받앙, 흔 평에 얼마 받암수가?
#2 흔 평에 천오백 원짜리도 잇고 이천 원짜리도 잇고.
@ 아, 비싸다양?
#2 흑끔 존 밧은 이천 원.
#1 저 게니까 이거 토지에 따랑.
@ 우리 미깡도 천 원벳기 안 받암신디.
#1 아, 미깡은 여기서 천오백 원.
@ 천오백 원?
#1 평당.
#2 우린 천 원썩 헨 헤나수다게.
#1 아 천오백 받는 사름도 싯고, 천 원씩 받는 사름도 싯고. 또 놈삐밧 가는 밧도 좋은 디는 이천오백 원.
#2 삼춘네 밧 좋으난 얼마 받암수가?
#1 우리 이천오백 원 받암서, 우린. 이천오백 원 받고, 저, 저.
@ 놈삐가 더 받암수다예?
#1 예, 놈삐가 더 받읍니다. 미깡보다.

@ 미깡보단예?
#1 예.
@ 어.
#1 놈삐는 그냥 해마다 이거저거 돌아가멍 농사지을 수 잇어도 저 미깡은 해거리 헤불고 허는 때문에.
#2 미깡은 약값 비싸서.
@ 음. 이 저 조는 언제 갑니깡?
#1 여름에.
#2 유월절.
#1 유월절에.
#2 예, 유월절.
@ 유월절에?
#2 예.
#1 유월절.
#2 유월절 ᄇᆞ드민.
#1 보통 유월절 그 물 맞는 때 쪼끔 지나자마자 조 ᄇᆞᆯ려근에.
@ 보리는 언제 갈아마씨?
#2 보리는 시월ᄃᆞᆯ에.
@ 보리는 시월?
#2 예. 고구마 다 파두곡.
#1 거 겨울 농사난.
#2 예, 고구마 다 파두곡 콩도 다 헤들이곡 헤둬근에.
@ 그다음에 콩은?
#2 콩도게 그, 그때 뒈민 헙니께, 다.
@ 언제?
#2 하이튼 다 것도 시월 초주.
#1 콩 가는 건 유월 아니꽈?
#2 아니 헤여들이는 거?
@ 아니, 아니.
#2 가는 거?
@ 가는 거.
#2 아, 그것도 그, 그 ᄃᆞᆯ이우다게.
@ 언제?
#2 유월절게.
#1 유월절.
@ 예. 산디는?
#2 산디는 ᄒᆞᄊᆞᆯ 일찍 갈아마씀.

#1 아 늦은 건 보릿그르에도 갈곡.
#2 산디는 ᄉᆞ월달에 인칙 갈아.
#1 으, 인칙 갈고, 늦은 건 보릿그르에도 갑니다.
@ 음, 감저는?
#2 감, 감저는 늦엉 놓곡.
@ 언제?
#1 감자?
#2 감자, 고구마.
#1 고구마?
@ 으.
#1 고구마는 그것도 마찬가지 여름 농사난에 것도 유월절.
#2 유월절, 유월절 기자 아시날 듯날 헤 갑니다.
#1 그 전후.
#2 예. 유월절 ᄇᆞ디민 모든 농사를 다 시작헤삽주.
@ 조는 언제 거둬들여마씸?
#2 시월ᄃᆞᆯ에.
#1 가을에.
@ 보리는?
#2 보리는게 오월ᄃᆞᆯ에 허지 안헙니까?
#1 오월.
@ 오월달에. 콩은?
#2 콩도 시월ᄃᆞᆯ. 구월 말광 시월 초.
#1 예.
@ 산디?
#2 산디도게.
#1 산디도 가을에.
#2 그 가을에.
#1 시월ᄃᆞᆯ에.
@ 이 귤은 그, 저 꼿 언제 피어마씨?
#2 오월에.
#1 꼿은 사월에 피지 안헙니까, 사월에서 오월 사이.
@ 언제 거둬들여?
#1 여기 보통 십일월.
#2 십이월달 아니꽈?
#1 십일월 ᄒᆞᆫ 이십오일 지나야.
@ 어.
#1 극조생은 시월, 시월 십일경에.

@ 여기도 극조생 갈암수가?
#1 아, 많이 헙니다.
@ 극조생마씨?
#1 극조생은 시월 흔 십오일경부떠, 십일 전부떠 따는 사름은 따고.
#2 십일경.
#1 그 노지는. 또 노지 아닌 일반 조생은 십일월 흔 이십오일 정도 뒈야 시작헙주게.
#2 이렌 노지가 하주양 하우스가 벨로.
@ 아, 여기는?
#1 예, 노지가 많읍니다.
#2 노지가 합니다, 이딘.
@ 저.
#1 그레는 전부 하우스 아니꽝?
@ 전부 하우스덜, 요즘은.
#2 아이 저 가마리만 넘으민 저 가시리나 어디나 다 기 아니꽈?
@ 그 노지허고 하우스 차이가 흔 십 배 차이난덴 허더라고.
#1 아이, 소득도 그러고, 예.
@ 으, 소득이.
#2 밧도 그러고.
#1 게난 여기도 젊은 사름만 허주. 우리 나이든 사름은 염두도 못 냅니다, 그거는. 왜냐믄예, 태풍이나 오곡 헐 때 줄 메곡 뎅이곡, 못 헙주게. 위험허영.
#2 맞수다게. 소득 올리는 것도 열 배.
@ 으.
#2 맛도 열 배.
#1 그것,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 많이 헤주난에 여기 젊은 사름덜토 하우스 헴주. 경 안허민 하우스 못헙니다.
@ 그 여기는 놈삐 하영 허난에 놈삐는 언제 저.
#1 지금 파종헴주.
@ 모종 싱급니까?
#1 지금 파종헴수게, 지금.
@ 지금이?
#2 팔월 십일일 뒈민 파종헙니다.
#1 일찍 헌 사름도 잇곡. 지금 요번 태풍에 맞은 사름덜토 파종 헤근에.
@ 그 놈삐는 수확이 좋아마씨?
#1 아, 다 수확입주.
@ 수확량이 좋아?
#1 예, 예. 겐데 그게 게, 게난 품질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우다게. 게 놈삐가 상품에 가야 까격도 받는 거고. 너무 커도 안 뒈고, 모든 게 그게 아니우꽈?

#2 족아도 안 뒈고.
#1 미깡도 크민은 파치.
@ 으.
#1 무우도 크민 파치, 너무 작아도 파치.
@ 뭐 영 갈라진 거도 파치옌 허데예?
#2 예, 것도 파치.
#1 그것도 파칭. 아주 거 뭐, 먹는 데는 어떻게 지장이 엇는데.
#2 멘들멘들헤사.
#1 매끈헤도 뿔리 두 개로 갈라지민 파치.
#2 비니루, 비니루 하나 봉지 하나에 열세 개, 열세 개 담으민 그것이 상품. 스물두 개, 스물세 개 헤가민 것이 중품데레 가 붑니께, 하품데레.
@ 그 저 씨는 어디 간 사단 헴수가?
#1 예, 사당 이 공급헙니께.
#2 다 어디 나오는 셍이랍디다.
#1 농협에서 그 다 신청허민 거기서 공급 다 헤줍니다, 품종이든.
@ 거 저 외국에서 오는 거라양?
#2 외국이서 왐주.
#1 외국이서 허는지 거는 우리 뭐 잘 모르쿠다, 잘 모르쿠다마는. 보통 거 씨도 그냥 옛날ᄀᆞ추룩 씨 헹 뿌리는 게 아니고 봉지에 다 씨.
#2 비니루에 부쩡, 씨 부쩡.
#1 부쪄근에. 딱 줄로 나와 버리면은 기계로 그거 다 나가근에 자동으로 심게끔 뒌 모냥입디다.
@ (웃음) 아아.
#1 아주 편리허게.
@ 아 비닐에.
#2 비닐에 씨 톡톡 부쳥.
#1 멧 개씩 딱 담아근에.
#2 딱 요만씩 헹 부쪄근에 톡톡 부쩡 감앙.
#1 게면은 미는 거 영, 영 저 무슨 도르레 닮은 거로 영 밀엉 가가민 그거 담앙 놔가민 자동으로 탁탁탁탁 심어지게 그렇게, 난 헤보진, 농사를 안 헤봣수다마는 다 그추룩 헙디다. 나 영 구경허는 거 보난.
@ 이 저 어저께도 물어봣수다마는 그 감젓줄, 그 모종.
#2 예.
@ 모종 허젠 허면은 그 감제씨를 이제 감제구뎅이에서 파야뒐 거 아니우꽈? 언제 팝니까?
#2 감젓구뎅이에 씨를 엿날은 이만큼 헤근에 묻엉 감젓구뎅이 눌 눌은 그거추룩. 눌엉 놧당은에 이월ᄃᆞᆯ 나민게 음력 이월ᄃᆞᆯ 나민 그 구뎅이 팡 묻읍니께게.

@ 음.
#2 쉐걸름 구뎅이 이만인 파 놩, 쉐걸름 꼴아놩 그 우이 흑 더퍼근에 감저 짝허게 놩 또 흑 더펑. 경 헹 이거 파니로 짓엉은에 하영 놓젠 허믄.
@ 경 허믄 그거 이제 감젓줄은 언제 끊어?
#2 거 오월돌, 오월돌 유월덜.
@ 음, 유월절에 끊어야겟네예?
#2 예.
#1 보통 유월절이우다, 농사는 다.
#2 그때 헙니께, 그때.
#1 유월절 기준으로 헤서.
@ 감젓줄 끊어근에 졍 갓수강? 이 저 구루마로 헨 가수강?
#2 아니, 졍도, 졍 뎅겻주, 하영. 베로 헨 젼 뎅겻수게게.
#2 옛날.
#2 구루마 헐 때사.
#1 아주 그 옛날에는 거의 다 할머니, 젊은 사름덜이 지언에 날랏고. 그 후에 조금 발전뒈난에 이제 뭐 마차에도 실어 가곡.
#2 경운기로도 실어 가고.
#1 경운기[경우끼]는 막 늦은 후에 헤 간 거고.
@ 마차 다음이주게.
#2 #1 (생략)
@ 거난에 이제 감젓줄 놔난 것이 구감양?
#1, 2 구감.
@ 그다음에 그 옆이 난 것이?
#1, 2 새감.
@ 구감 숣안 먹어봅디가?
#2 아유, 물 질질.
@ 으?
#1 맛 좋는 건 맛 좋고.
#2 물 질질. (웃음)
@ 게문 먹어난 다음에 나머지는?
#1, 2 도세기.
@ 도세기 강 허곡.
#2 도세기 하영 숣안 줘주, 우린.
@ 새감은?
#2 새감 무신 심심헌 게 먹어집니깡게.
@ (웃음)
#2 생차로 쪽쪽쪽 그창 먹주.

#1 애덜, 아이덜 장난감입주, 새감은.
@ 그 귤 가지치기 언제 헙니까? 전정?
#1 봄에 헙니다, 봄에.
@ 봄에양?
#1 예.
#2 삼월 십오일 뒈민.
#1 삼월달 들어서면은 귤 달려난 나무는 한해 받으카 부덴 쪼끔 늦게 허곡. 경 저 열어나지 안헌 거 해걸이 헌 거는 삼월 초만 뒈민 헙니다게. **
@ 그다음에 그 전정은 아까 삼월달에?
#1 예.
#1 삼월.
#2 삼월 말.
#1 삼월 시작허믄 흔 ᄉᆞ월 십오일까지 허는 사람이 이수다.
#2 ᄉᆞ월 초ᄁᆞ장 허는 사름이.
#1 십오일까지 허는 사름도 잇어마씨, 늦게 허는 사름덜은예.
@ 그다음에 아까 ᄀᆞᆯ앗주마는 귤은 수확이 십이월, 아 시월 말에서.
#2 십이월 말.
@ 시월 말에서 십이월 말?
#2 예. 요즘은 일월, 일월둘ᄁᆞ장 탑니께마는 경허민 낭이 안 뒈주게.
@ 빨리 타는 것이 좋아?
#2 예, 낭이 못 젼디엉. 게난 십이월둘 안네 어쨋든간에 다 마무릴 헤사주.
@ 게난 이제는 여기, 이 동네는 전부 과수원허고 놈삐?
#2 예게.
#1 예, 주 작목이 놈삐우다.
@ 놈삐.
#1 예.
@ 과수원보단도?
#1 과수원은 많이 폐원허는 상태고마씨. 나이 들어간 사름덜 뭐 허덴.
#2 미깡 갑[깝]도 안 가곡 허난게.
#1 예, 서의 사름덜 와근에 임대허긴 허는디.
@ 거면은 이제 여기서 놈삐는 언제 갈아?
#1 지금, 지금 갑니다.
@ 예.
#2 팔월 십일부떠 갑니께게.
#1 지금.
@ 팔월?
#2 예.

#1 미리 일찍 간 사름도 잇고.
@ 팔월 십일?
#2 예, 팔월 십일부떠 지금ᄁᆞ장 이제 막 갈암수게, 이제.
@ 수확은 언제 허곡?
#2 수확은 것도 마찬가지, 십이월.
@ 십이월?
#2 십일월, 예, 십일월.
#1 십일월 허다근에 일월ᄁᆞ지 갑니다. 일이월ᄁᆞ지 갑니다.
#2 일이월ᄁᆞ지 감이라게? ᄉᆞ월ᄁᆞ장, 오월ᄁᆞ장 감수게.
#1 예, 예, 예. 게민 거 꼿대 사도 꼿만 꺼꺼둬근에 바로 헐 수 잇고.
@ 꼿대 사민 안에 미시거 ᄀᆞᆺ아 불지 안허여?
#1 옛날 여기서 심는 무우덜은 속[쏙]도 ᄀᆞᆺ아불곡 실 들어근에 먹지도 못허곡 허는디 요사이는 저, 막 새지 안헤근에 그거만 꺼꺼 버리면은 다 먹을 수 잇는 것 같읍디다.
#2 요즘은양 무우밧디 뎅겨보난 놈삐 갈민.
@ 으.
#2 저 ᄒᆞᆫ 새싹 ᄇᆞ들ᄇᆞ들ᄇᆞ들 나민 딱 부뜨게, 땅에 부뜨는 약이 잇고, 또 부떳다근에 ᄒᆞᆫ 열흘 잇다근에 또 그것이 약 치민은 와글와글와글 놈삐가 다 일어나마씀.
#1 으.
#2 나가 구 사장네 거 뎅겨보난. 경 헹 놈삐 드는 거랍디다게. 엿날허고 틀련.
@ 으.
#2 완전이 개발이 뒈언양, 놈삐가.
#1 겨울에 동상도 안 걸리게 약 잇고.
#2 예, 동상 안 걸리게 허곡, 동도 ᄯᅮ시.
#1 안 나게 허는 또 안 나게 허는 약도 잇고.
@ 아이고.
#2 경 허는 약이 잇어마씀.
@ 이 농업기술들이.
#1 완전히 과학농.
@ 상당히 발전헴구나.
#1 완전이 과학농이주.
#2 이 구 사장 ᄀᆞ뜬 사름은 ᄒᆞᆫ ᄋᆞ덥 번 아옵 번 집니께. 밧 ᄒᆞ나에.
#1 그 사람 지금 구 사장엔 헌 디지예.
#2 예. 구 사장.
#1 육지 사름, 육지서 완에 과학농을 허는데 전부 인부만 빌어근에 자기는 가만히 앚곡 지시만 헤근에. 그 분이 그렇게 헌 지가 난.
#2 이십 년.
#1 ᄒᆞᆫ 십년 이상.

#2 십년 넘어실 거우다. 올히ᄀᆞ장 허민.
@ 돈 하영 벌엇구나양?
#2 하영 요 혼 삼년 전이 하영 벌엇수다. 무신 이십 억이여 삼십 억이여 허멍.
@ 아이구.
#2 그때 벌어간에 ᄉᆞ뭇.
#1 여긴 여긴 개인이 허는 사름도 이십 억 버는 사름덜 많은디 뭐.
@ 크게덜 헴구나양?
#1 기업농이우다. 젊은 사름덜.

바다일

@ 그다음에 바당일에 대헤서 알아보쿠다양? 바당일. 우리 여자 삼춘 바당일은 어떤 것덜 잇수가?
#2 바당에 어떤 거 이십니까게. 전복, 소라, 성기, 귀.
@ 으.
#2 성기가 아니고 엿날은 귀주게, 귀.
@ 귀? 성게?
#2 성게ᄀᆞ라 귀.
@ 으, 귀.
#2 예, 귀.
@ 아까 그 저 소라옌 헙니깡? 구젱기?
#2 구젱기. 구젱기.
@ 으?
#1 구젱기.
#2 구젱기.
@ 구젱기. 그다음에?
#2 조개. 오분작ᄀᆞ란 조개.
@ 오분작을 여기선 조개옌 허여?
#2 예, 우린 조개옌 헙니다.
@ 아, 오분작?
#2 조개, 조개 떼레 가겐 허멍.
@ 그다음에 메역도 허고.
#2 메역도 허고.
@ 그다음?
#2 그것뿐이주. 이젠 무시거 남수가? 바당에 안 감수게.
@ 톨?
#2 톨도 엇고. 엿날에 톨 민짝헤나신디.
#1 옛날은 톨, 넙패.

#2 이젠양 다 바당이 오염뒈 놓난.
@ 가시리?
#2 가시리도 엇곡. 넙패도 엇고, 넙패.
#1 게메 넙패도 엇고 톨도 엇고.
#2 패도 엇고 넙패도 엇곡.
@ 아 거난 옛날 바당일?
#2 예, 옛날, 옛날엔 바당이 가민 조개 풀 덤방허민 그거 영 헤쓰멍 조개 떼엇수게게. 게 그런 거 원 엇이난 조개도 엇어가고, 풀도 엇고 다 엇어져 감수다, 이젠.
@ 막 바당이 막.
#2 바당에 허영.
@ 막 오염뒛구나.
#1 막 오염뒌 완전이 백화현상 아니우꽈.
#2 완전이 헤영.
#1 그 양식장 때문에 많이 피해덜 봠주게.
@ 게난 우리 패류에는 게난 구젱기 잇고이?
#2 구젱기 잇고 전복.
#1 귀 잇고. 귀는 여기덜.
#2 귀.
#1 저 해녀덜 많이 잡읍니께.
#2 귀.
@ 그다음에 보말, 보말은 어떤 보말덜 잇수가?
#2 보말은 수두리옌 헌 건양 훍은훍은헌 게 좀 두껍고.
#1 요렇게 꼭대기 이렇게 길쭉길쭉허고.
#2 소라 비스름허게 커가.
@ 수두리 잇고. 그다음에?
#2 그것ᄀᆞ라 수두리옌 허주.
#1 수두리. 그다음은.
#2 보말은 게 멘뜰락허게시리 헤근에 동글동글동글.
@ 또?
#2 껍데기 얄루와마씀.
@ 게메.
#1 문두께엔 헌 게 잇고.
#2 춤ᄀᆞ메기 잇고.
@ 문두께?
#1 문두께.
@ 문두께. 그다음?
#1,2 춤ᄀᆞ메기.

@ 춤ᄀᆞ메기 그다음?
#2 그다음게 무시거 그것벳긴 더 잇수가? 희여뜩헌 건 핫주.
@ 그 희여뜩허는 거 이름 ᄒᆞᆫ 번 ᄀᆞᆯ아봅서.
#2 거 무시거꽈? 저 가마귀, 무시거옌 허느니?
#1 가마귀조개?
#2 가마귀부리옌 허느냐? 무시거. 뭐냐 겡이. 무시거 벨망.
@ 응?
#2 벨망, 벨망.
@ 벨망?
#2 벨망이엔 헌 거 잇수다, 오물오물오물헌 거 육지서 말허민 따까비. 따까비 알아지쿠가?
@ 으.
#1 돌에, 돌에 까만 거.
#2 그것이 벨망.
#1 돌에 까맣게 딱딱 부터 잇는 건데.
@ 전복도 보면은 수첨복 잇곡 암첨복도 잇지양?
#2 예, 예.
@ 그 어떵 구별헙니까?
#2 그 수첨복허고 암첨복은 이 껍덕으로 영 안덴 헙니다. 껍데기 암커는 둥글랑허게 시리 암커는 껍데기허고, 수커는 ᄒᆞ쏠 영 소랑허고.
@ 아.
#2 경 헌덴 헙니다.
@ 그.
#2 전복껍데기.
@ 전복은 어디, 어디 뭐 언덕 아레 부떵 이십니까?
#2 엉덕 아래에도 부뜨곡, 옆에도 부뜨고. 옛날엔 물 우이서도 영 눈질레기 허민 돌에염에 착허게 부뜬 것덜이 잇곡 허주마는 요즘은 엇덴 헴수게게, 전복도. 생복, 생복.
@ 음.
#2 전복이 아니고 생복.
@ 자 구젱기는? 구젱기는 뭐.
#1 구젱기가 소라난에.
@ 게메 그 ᄀᆞᆺ디도 잇지양?
#2 지금 구젱긴 잇는 셍이랍디다.
#1 거 잡아다 놩 키와근에.
#2 게난 이제 시월 일일날 건 잡읍주게. 여름에 ᄒᆞᆫ 두 ᄃᆞᆯ 간은 금지허여마씀.
@ 게난에 그다음에 메역?

#2 메역은 봄에 삼월달에 나주게.
@ 삼월달에 메역은 납니까?
#2 ᄌᆞ물주, ᄌᆞ물아. 정월만 나민 메역이 하나씩 난덴 헙니께.
@ 어디 정월?
#2 예. 음력으로 정월 나민 하나씩 난덴 헙니께게.
@ 예, 거민.
#2 겡 옛날에 섣둘에 나민 정월 멩질에 메역채를 헤여 먹어신디 요즘은 그 정월에 메역이 엇덴 헴수다게.
@ 거난에.
#2 다 오염뒈어 분 거지.
@ 삼월 뒈어도 메역이.
#2 삼월 뒈어 가민 ᄒᆞ쏠 메역이 커 가도 경 메역이 흔허질 안허덴마씀.
#1 게난 저 해녀덜 헤다근에 국 끌령 먹을 정도도 미역이.
#2 엇덴마씨, 엇덴.
#1 엇덴 헴수게, 전혀. 나질 안헤여.
#2 비양도는 하영 나는ᄀᆞ라 우리 아덜덜 비양도 친구 이시난 잇당 ᄒᆞᆫ 서너 네 덩어리썩 이만썩 헌 거 허영 놧다근에 ᄌᆞ물아근에 보내어마씀.
#1 작년은 표선이도 미역 잇젠 헨게.
@ ᄌᆞ물덴 허지양?
#2 ᄌᆞ무는 거.
#1 ᄌᆞ무는 거.
@ ᄌᆞ무는 건 영 캐는 거 아니?
#1 예, 캐는 겁주.
#2 캐는 거.
@ 으.
#2 메역 ᄌᆞ물레 가게 허영.
@ 으, 메역 ᄌᆞ무는 거.
#2 예, 메역 ᄌᆞ물레 가게 허주.
@ 메역 ᄌᆞ물레.
#2 예. 메역 캐레 가겐을 안 허영. 메역 ᄌᆞ물레 가게. 물에 들레 가게.
@ 물에 들레.
#2 으.
@ 물망 알아지쿠강? 물망?
#2 물망 압주게. 쥐물망도 알고.
@ 뭐라 건? 거 먹읍니꽝?
#2 먹엄주게, 그거.
#1 물망채도, 채도 헹 먹곡.

#2 도세기 잡으민 무사 도세기 헤근에 물망국 안 끌립니까?
@ 아, 그 물망, 그 물망이구나게.
#1 예.
#2 예, 그것이 물망 아니우꽈?
@ 뭄, 뭄이?
#1, 2 뭄.
#1 뭄이 물망입주.
#2 겐디 우리말론 물망.
@ 물망, 여기서는 물망양?
#2 예, 그것도 잘 나단 엇덴 헴수게.
#1 맛도 궨찮고, 뒈지국 끌려놓민 맛잇어.
@ 물망.
#2 시흥린 하영 요 멧 년 전이도 나나신디.
#1 제주도에도 많이 나는 지역이 잇어마씨. 지금도.
#2 시흥린 하영 나낫수다, 시흥리.
@ 그다음에 여기는 옥돔을 솔라니옌 헙니까, 솔레기옌 헙니까?
#1 솔레기.
#2 솔레기.
@ 솔레기양? 이 솔레기 간 잡아봅디가?
#2 솔레기 어떵 허영 잡읍니까? 솔레기.
#1 사당만 먹주.
#2 사당 먹주, 먼바당이 강 솔레기 나까오는 건디.
#1 저 펄, 펄바다에 가야, 멀리 가야.
#2 긎딘 엇입니께, 솔레긴 긎디 엇어. 먼바당에 가사주.
@ 먼 바당에이?
#2 예. 돔 ᄀᆞ뜬 거, 뭐 벤자리 ᄀᆞ뜬 거는 잇주마는 솔레기는 먼바당에 가사벳긴.
@ 이런 멩질 때 ᄀᆞ뜬 때 솔레기국 끌리지양?
#2 예. 솔레기 굽곡, 낄리곡.
#1 소고기, 쉐고기국도 끌리곡.
@ 그다음에 자리, 여기 자리 납니까?
#2 자리 납니다, 예.
#1 저 표선서, 표선서 나근에 많이 팔레 옵니다.
#2 그디 나끄레 구릿 나끄레 갓당 자리도 나깡 옵니다.
@ 구리?
#2 으.
@ 구리 나끄레 갓당 자리도 나깡 오고. 자린 나끄는 것이 아니라 거리는 거 아니?
#1 아니.

#2 아니.
#1 겐데 낙시허는 사람덜이 바다에 낙시 갓당.
#2 잘 문덴 헙니다.
#1 그 딴 고기 안 잡히면은 그 자리를 일부러 나끕주게. 쪼그만헌 낙시가 잇어마씨.
@ 아, 자리 나끄는 낙시가 잇구나?
#1 예, 예. 자그만헌 거, 그거 가면은 자리 나끌 때는 저 여기 관뒈로 흔 두 개 정도. 많이 나끄는 사름은 흔 거저 흔 말 정도 나끕니께.
@ 관뒈 허면은 어느 정도 됍니까?
#1 옛날, 옛날게 흔 말이 네 관뒈 아니우꽈? 쌀 뒈는 게, 요만이 나무로 짠 게, 그걸 말허는 겁주.
@ 아이 거난, 이 자리덜 보면은 뒈로 풀아양?
#1 뒈, 뒈로.
#2 관뒈로.
@ 관뒈로.
#2 자리뒌 족아.
#1 쪼글락허게 일부런 멘든 거. (웃음)
#2 자리뒌양 고봉으로 올령 허는디 족아마씀.
@ 거난, 이, 저 궤기 종류들은 바당에 뭐, 뭣들 잇지?
#2 무시거 구릿, 닷찌.
@ 양?
#2 닷찌. 우럭, 무시거 돔.
@ 어렝이?
#2 어렝이.
@ 그다음?
#2 코셍이, 돌우럭.
@ 모살치?
#2 모살치.
#1 모살친 엇입니다, 여긴.
#2 모살치 잇어낫수다.
#1 옛날에 하나썩.
@ 모살 이신디 잇는디.
#1 모살이 별로 엇수다, 이딘.
@ 모살치. 그다음에?
#2 ᄇᆞ들락도 잇어나고.
@ ᄇᆞ들락.
#2 ᄇᆞ들락, ᄇᆞ들락 알아집니까?
@ 예, 보들레기.

#1 무사 제주 사름이야 다 알주마는, 장어, 장어도 잇곡.
@ 그다음에, 이 해초, 해조 종류는 아까 말헌 메역허고 그다음에?
#2 메역허고게 톨허곡 것벳긴 더 잇수가?
@ 물망?
#2 물망.
@ 그다음?
#2 그다음 패, 저 넙패 ᄀᆞ뜬 것도 잇어낫주마는 엇수게. 넙패엔 헌 거 잇어낫수다. 막 밀어둬근에 숢아근에 ᄆᆞ믈ᄀᆞ루 놩 끌령 먹는 거.
@ 아이 거 넙패국은 맛 좋아.
#2 알아, 알아집니까?
@ 나도 먹어나수다.
#1 예.
#2 예, 예. 그것이 원 엇어졋수게 이제.
@ 우리 큰형수가양 그 상군이라낫수다게.
#2 으.
@ 옛날 나 어린 때 메역, 그 구루마로 헤근에 실러와나고.
#2 으.
#1 그거.
@ 이 망사리도 상군이난 워낙 큰 거.
#2 테왁도 큽니다, 상군 허민. 상군은.
#1 넙패는 가루 놔근에 진자 맛 좋주.
@ 경헤근에 집이 와근에 담우티 이거 메역귀 영 헤근에 영 널어.
#2 맞수다게.
@ 경 헤나십주. 아 게난 뭐도 잇다, 저 해조류에는 가시리.
#2 가시리.
@ 으.
#2 빨간 거, 빨간 거, 가시리.
#1 게난 까칠까칠헌 거.
#2 그거 엿날에 풀 쒀근에 창문 불를 때.
@ 방 불를 때.
#1 방 불를 때.
#2 방 불를 때도 그거 풀 쒀근에 허고.
#1 그 풀이 좋주게.
#2 그거양, 국 끌령도 먹어봣어.
@ 아, 거난 요번에 가파도 가니까.
#2 예 국 끌령 먹어.
@ 그 가시리로 반찬도 멩글아십디다.

#2 국 끌령 먹읍니다.
@ 그거 우뭇가사리로는 저 우미 만들앙 먹고.
#1 예, 예.
#2 그건 우미도 잇구나. 우미.
#1 우미.
@ 으, 우뭇가사리양?
#1 그것도 우리 바당에 많이 나낫수다마는 이젠 그것도 안 나마씨.
@ 그다음에 아까, 이 패 종류에는.
#2 가시리, 물망.
@ 전복허고, 전복허고 또 아까.
#2 구젱기.
@ 으, 그다음? 껍데기 이신 것덜?
#2 껍데기 이신 거, 전복게. 전복, 벨망, ᄀᆞ메기, 수두리, 보말.
@ 으.
#2 춤ᄀᆞ메기, 문드닥지, 게들메기이엔 헌 건.
#1 게들레기, 게들레기.
#2 게들.
@1 집게를 말하는 거.
#2 ᄀᆞ메기 나와 불민 그디 대신 들어간 거.
#1 집게, 거.
@ 그 메역은 아까 언제 채취헌덴 헤수가?
#2 그때 삼월둘 나민 막 헤나수다.
@ 그 저 메역 채취허는 날이 잇지양?
#2 물게, 물때, 물때 맞추앙.
@ 물때?
#2 예, 물때 맞촤근에 경 헤근에.
@ 삼월달 물때 맞추아근에?
#2 예, 물때 맞추아근에 여기선 다섯물이나 여섯물이나 헤근에 딱허게 멧 시에 내려오라 허영 해녀덜 ᄒᆞᆫ번[ᄒᆞᆫ뻔]에 강은에 ᄒᆞ주, 이녁만썩 가지도 아녑니다.
@ 지금은 저 메역 강 함부로 허지 못허지양?
#2 메역이 엇덴 헴수다, 홈부로 허지도 못허주만은. 메역이. 해녀덜토 엇덴만 허멍 아니 헤오난에.
@ 으, 여긴 바당이, 여기 그 신풍리 바당 잇수가?
#2 바당 이십주.
@ 아.
#2 삼달허고 저 신천리허고 경계에 우리 신풍리가.
@ 바당 넓어마씨?

#2 족아마씀.
@ 으.
#2 바당이 제일 족아.
@ 톨도 그 채취허는 날이 잇지양?
#1 톨이 안 남수다, 안 남서.
#2 톨이 채취. 아이, 게메 채취허는 날 잇어낫수다.
#1 옛날엔 잇어나수다.
#2 물 딱 헹 싸면은 것도 헤근에 공동으로 헤근에 몰리우곡.
@ 몸은? 몸은 채취허는 날 잇어낫수가?
#2 몸은 엇어나수다.
@ 몰망.
#2 몸은 기자 닥치민 헤당 먹곡.
@ 으, 거난.
#2 놀 불엉 올리민 그거 줏어다 먹곡.
@ 몰망이 톨이 더 비싸다는 거네이? 메역허고. 그다음에?
#2 이 소섬은 하영 난덴 헙디다, 이제. 우미도 하영 나곡, 소섬은.
@ 그 메역이나 저 톨 이런 거 허가허는 기간 잇지양? 허채.
#2 허채, 허채.
@ 허채.
#2 허채. 허지헐 거, 메역허지 헐 거 영 허영 굴읍니께, 메역허지. 톨.
@ 허지?
#2 예.
@ 메역허지?
#2 으.
@ 허채가 허지옌 헴구나양?
#2 우린 메역허지옌 굴읍니다.
@ 으.
#2 경 안 헤낫수가? 메역허지.
#1 맞수다게, 허지.
#2 아이고, 내일은 메역허지헌덴.
@ 금채, 금채.
#2 금채는 몰라.
@ 저 메역허지 말라는.
#2 금지, 금지.
@ 금치?
#2 금지.
@ 금지?

#2 으, 메역금지.
@ 메역금지.
#2 으. 아이고, 메역금지 헷젠 바당에 내려가지 말렌. 것ᄀᆞ라 금지. 메역금지, 바당금지헷저 헤근에.
@ 이 외에 그 어떤 바당일덜 이수강?
#2 무시거?
@ 바당에서 허는 일덜?
#2 바당에 요즘 허는 일이.
@ 바당 직허레도 뎅겨봤지양?
#2 바당 직허레 지금도 해녀덜 뎅겸수게.
#1 지금도 감시옌 헙니다, 바다 감시.
@ 아.
#2 밤이 어떻게 허느냐 허민양? 이거 무시거과? 이거 다. 전기다마 이만이 딱 놔근에 잡으레 밤이 온덴 헴수게게.
@ 아니 여기 게난 이디도 지켬구나.
#2 예게. 우리 해녀덜 직허러 갑니께. 밤이도.
#1 밤이도?
#2 예. 이 겨울내낭 지켜수게, 우리.
@ 아 여기도 저 해녀덜 잇수강?
#2 아고 해녀 잇수다게. 이디 무뚱에 앚은 사름덜 해녀 아니우꽈?
@ 아.
#2 해녀 요새 금지. 딱 이십일 금지난에. 요새 안 뎅겸수다. 바당에 내려가질 못허게 헴수게, 일반 사름덜은.
@ 보말도 못 잡게 헴구나양?
#2 예. 고기 잡으레 내려가도 올라가렌 막 헤 부난. 고기잡으레 내려가도 고기만 나끄는 것이 아니라 소라 이시민 그걸 몾아근에 뭣헌덴 헴수게, 먹곡. 보게뜨에 담앙 앚앙 오고. 고기 잡으레 가질 안허영.
@ 너무 헌 거라게.
#2 경 헤 부난 못 가게 헴수게.
(부분 생략)
@ 이 속담. 이런 그 농사에 대헌 거 속담덜 이수강?
#1 우리 그런 속담 잘 모릅니다, 농사에 대헌 거는.
@ 바당일에 대헌 속담은?
#2 바당일에 대헌 속담 거 무시거 이젠 잇수가?
@ 아, 게도 옛날 어른덜 헷던 말덜?
#2 에, 어른덜 헷던 기억 나쿠가게. 옛날엔게 고동 잡아도 누게 사가지도 아녀곡 허난 잡앙 젓도 헹도 먹곡. 썰어놔근에 제베기도 헹 먹고 옛날은.

@ 무시거 헤근에 제베기 헹 먹어마씨?
#2 구젱기 잡아다근에 저 밀체베기, 밀 집이서 갈앙 굴아근에 그거 놔근에 우리 두린 땐양 그거 막 주로 먹엇수다, 태흥리서.
@ 거 잘 먹어신게마씨.
#2 예게.
@ 그 구젱기로.
#2 우리 태흥린 막 바당이 널러 부난양. 막 바당이 좋수다게.
#1 태흥리는 바당 넓으니까.
#2 바당이 널르곡 바당이 좋으난.
#1 해산물도 많고.
#2 예, 짝 나가민 이만썩헌 구젱기가.
#1 다덜.
#2 시뻘겅헌 구젱기.
#1 으, 바당도 야트곡.
#2 뭇으민 구젱기 알이 이만씩, 구젱기 알이 이만씩. 그런 거 잡으믄 씹지 못허여마씸.
@ 그 껍데기도 막.
#2 두껍고.
@ 두껍고예.
#2 옛날엔 돈 못 사난에 그거 헨에 우리.
#1 젓갈허고. 젓갈 담앙 먹엇주.
#2 젓 헤근에.
#1 전복젓갈. 소라젓갈.
@ 아, 태흥리는 거 구젱기로도 적갈 허여?
#2 아, 이디도 젓갈 헙니다.
#1 여기도 젓갈 헙니다, 여기.
@ 하영 난다는 거네.
#1 족아도 걸로 적갈.
#2 아이, 구젱기 경 안 나진 안헙니다. 구젱긴 나마씀. 멧 키로썩 잡읍니다.
@ 아 거난 물꾸럭은 우리 헤여.
#2 이디도 물꾸럭 헙니다.
@ 우리 문게엔 허는 거 닮안게.
#2 예. 이딘 문어 허영은에 막 헙니다.
@ 게고 이제는 저 뭣도 허더라고 이제. 이 저 전복. 족은 것덜.
#2 예.
@ 그거 헨에.
#2 소고기 대신 그거 허는 사름도 잇수다, 신풍리도.

#1 요사이는 그런 전복이 무슨 바다에서 잡은 게 아니고 육지서.
#2 양식.
#1 양식허는 바람에 기냥 싸게덜 많이 들어옵주게, 들어오니까 그냥.
#2 난 게난 들은 말인디 소고기가 비싸난 그 전복을 사다근에 소고기 대신 적갈 헌 덴 헙디다.
@ 그 저.
#2 신풍리 그런 사름 잇어마씀.
@ 전복허고 오분제기 구별헤지쿠광?
#1 헤집주게. 구별 못헙니까?
#2 구젱기허곡.
@ 어떵 구별허여?
#1 아, 그 껍데기부터 자체가 틀리우다게.
#2 자체가 틀리고 맛도 틀리고.
#1 맛도 틀리곡.
@ 어떵 틀려?
#1 살 두끼도 틀리곡.
@ 어떵 틀려? 껍데기가?
#2 조개는양 더 이상 크질 아녀. 그 조개는.
#1 예, 껍데기가 겨곡 매끄럽고.
#2 껍데기. 매끄럽고.
#2 으. 전복은게 막.
#1 전복은 저 우툴두툴 우이 허지 안헙니까.
#2 두툴두툴허고 큽니께게, 커. 암만 큰덴 헤도 전복은.
@ 아, 거난 오분제기가 매끄럽구나.
#1 예, 예.
#2 예, 문뜰문뜰허게.
@ 그다음에 전복은 우툴두툴허고.
#1 껍데기 자체가 거칠고.
@ 으.
#2 술도양 조개는 술도 통통허고.
#1 통통허고 작아도 통통허고 맛도 좋곡.
#2 경 헙니께. 조개죽. 전복죽보단 조개죽이 알아줘마씀.
@ 아, 여기는 오분제기를 조개엔 헴구나.
#2 예. 조개.
@ 아.
#2 오분제기엔도 허곡게.
#1 우리도 오분제기엔 헙니다. 이디서. 우리 옛날.

#2 조개.
#1 그 그디 그물 치레 가근에 허민 그건 그자 또.
#2 예, 옛날엔 가믄 **
#1 계속 나오는 게 오분제긴데.
#2 이만이헌 낭푼이로 ᄒᆞ나썩 잡아낫수게.
#1 여라 개 먹지, 어른덜은 여라 개 못허게 헙주. 야, 오분제기 많이 먹으믄 눈 어둑어분다이 영.
@ 게난 그 난 저번에 그 교수가양 전복허고 오분제기 구별허는 걸 ᄀᆞᆯ아줍디다게.
#1 예.
@ 게난.
#2 어떵 ᄀᆞᆯ아줍디가?
@ 거기는 그 구멍 뚤러진 거.
#2 아.
#1 거 전복.
@ 구멍이 세 개에서 네 개 뚤러진 건 커도 그건 전복이고 오분제기는 쪽아도.
#2 구멍이 ᄋᆞ라 개.
@ 일곱 개에서 여덟 개라.
#2 아 그건 몰라마씀.
@ 그거 헤봅서, 거난 구멍이 그 오분제기는 쪽아도 그 뚤러진 거양? 뚤러진 거.
#2 구멍도 족주게, 족아.
@ 게메 뚤러진 거.
#2 예, 예.
@ 이 뚤러진 것이 일곱 개에서 여덟 개. 저 전복은 커도 구멍 뚤러진 것이 세 개에서 네 개.
#1 에.
#2 경 뭰구나.
@ 예, 게민 그것이 정확허여.
#1 그 교수님이 그 연구허연 발표헌 거니까 정답이네 그게.
@ 정답, 그건.
#1 정답.
@ 그 모양만 본 것이 아니라 그거는.
#2 실지로 그거는.
#1 게난 우리는 그 생긴 모양만 봐근에 판단헌 거우다, 지금.
#2 구멍 멧 개 난 거는 못 알아보고.
@ 여러 갠데.
#1 으.
@ 뚤러진 거, 뚤러진 거.

#2 뚤러진 거, 고망 베롱베롱허게.
@ 베롱베롱.
#2 바우로 벵허게.
@ 으. 그 뚤러진 것이 전복은 커도 세 개에서 네 개. 저 오분제기는 일곱 개에서 여덟 개.
#2 겡 그거 다시 흔번 봐사허켜.
#1 어디 오분제기 잇어야 보주.
#2 난 강 볼 수 이십니다.
#1 태흥리 강?
#2 아니 ○○ 각시가양 성기 잡아 오민.
#1 아 오분작도 잡아 옵니까?
#2 어쩌다가 헤영 옵니다게.
#1 아 오분작 보기도 심든디.
@ 거난양 전복만 봐도 알아져. 전복은 뚤러진 것이 세 개에서 네 개 다 뚤러졋어.
#2 뚤러진 고망도 크고.
@ 예.
#1 게고 우트레 튀어나고.
@ 예. 금기어 이시민 알아지쿠가, 금기어?
#1 금기어?
@ 예, 뭐 어디.
#1 아니.
@ 요번에.
#1 먹지 못허는 고기를 말허는 거우꽈?
@ 아니.
#1 금기어면.
@ 금기허는 그 말.
#1 경.
@ 뭐 어디 저 뭐우꽝? 그 저 줄, 뭐 무신거 저 뭐냐?
#2 뭘.
@ 어디 가지 말렌 헌 말.
#1 금기어.
#2 아, 줄, 저 숫, 숫.
#1 숫줄.
#2 숫, 숫.
@ 으, 거난에 어디 저 입춘날 어디 가지 말라.
#1 아, 숫줄, 숫줄.
@ 그런 것들.

#1 올레에, 올레에 영 밧줄 쳐근에 들어오지도 못허곡 나갈 사름도 어디 안 나가곡, 소님도 못 들어오게 허는 거, 아 거.
#2 줄, 줄. 줏, 줏.
#1 줏줄이엔 헙니다, 줏줄.
@ 아니 거난에 게난.
#1 그 말, 그 말을 말씨를 금허는 건 줄 알안, 금기어옌 허난.
@ 아 그런 어디 뭐 들어오지도 못허게 허는.
#1 예, 예. 새철날 ᄀᆞ튼 때도 어제도 이얘헷주만 새철날도 여ᄌᆞ덜은 그레 들어오지 못허게 쳐불곡 경 헙니다. 남자들은 가면 환영허고.
@ 새철 드는 날양?
#1 으.
@ 그 웨에 뭐, 뭐 없지양?
#2 우리가 압니까?
@ (웃음) 이제 다 끗낫수다.
#1 아이고.
@ 수고헷수다.
#1 수고헷수다.

5. 표선면 하천리

- 조사 일시: 2022년 7월 16일, 7월 17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김성용
- 제보자: #1 강영택 #2 김임순

조사마을

@ 오널 그 하천리 와신디양.
#1, 2 예.
@ 그 이 하천리에 대해서 혼 번 골아줍서, 남자 삼춘이.
#1 하천리는양. 원래 저 어, 묵은가름이엔 헨 그 어, 뭐냐 허면은 마을이 잇어낫수다. 그 우에. 하천리 조금 우에 올라가민 묵은가름이엔 헌 디 잇는디 거기서 옛날에 마을이 형성뒈엇다가 이제 그 내려오면서 냇기. 냇기로 이제 이게 연결이 뒈 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 게난 제주도 말로만 굽서양.
#1 예. 냇기.
#2 냇기.
#1 냇기로 이제 헨에 이젠 그렇게 헤왓는디. 그 역사가 아, 확실히 나 자세히 기억이 입력이.
@ 몰라도 좋수다게. 예.
#1 역산 확실히 어, 자세히 모르쿠다마는. 어.
@ 아는 대로만 굴읍서.
#1 경 헨에 아까 곧다시피 그 묵은가름이엔 마을이 거기서 옛 어른덜이 거기서 살다가 그 후에 이제 ᄎᄎᄎᄎᄎ 내려오는 게 냇기로, 냇기엔 헌 그 뭐 이수다.
@ 내낀 뭐꽝?
#2 내, 하천리엔 헌 것이양.
#1 내천, 이.
#2 사투리로 냇기가 잇고 표준어로 하천이가 잇어마씀.
#1 아, 여기 하천리 천미천이, 이게 이제 뻗어잇수다. 성읍리로 내려왕은에 저 밑으로 내려간, 큰 제주도서 그 이, 어.
@ 두리 그 제일 길주양?
#2 예.
#1 예, 제일 길어마씀.
#2 폭도 넙곡, 넓고.

#1 천미천이.
#2 아, 폭이 넓어마씨.
#1 홍수가 터지민예, 여기서 물 내려가는 게 제주도서 젤, 젤 큽니다.
@ 예.
#1 다리도 제일 넓, 길고.
@ 거난 한라산 어디서 내려와마씸?
#1 한라산 그 성판악 쪽으로 헹은에 이제 그.
#2 제동목장.
#1 제동목장으로 허영 이제 내려옵니다게, 물이.
@ 아.
#1 성읍리로 헹은에, 성읍리 하도 물이 쎄니까 그 성읍리 영주산 바로 옆으로 헨에 저수지 만들안 그 크게 물, 호수 만들아졋수다게. 그 호수 그 물을 에, 농용수로, 이제 그게 하천이로 물이 내려와서 따시 농용수로 우리 이용헴수다게, 그 물을.
#2 농민들.
#1 농민덜.
#2 공짜로마씸.
#1 예.
#2 신청하신 분은 공짜로 이제 헤주고 이제.
#1 상당히 거.
#2 이제 저 수고비만, 이제 시설허는 수고비만 농가에서 부담허곡 물은 이제 무장 이제 공짜로 주고, 또 하천이 또 본향이엔 헌 디가 잇수다게.
@ 예.
#2 본향이 참 쎄우다.
@ 여기 저 성, 그 무슨 성씨가 제일 합니까?
#1 강씨허고 송씨마씀.
#2 예.
@ 강씨허고 송씨양?
#2 예.
#1 강씨허고 송씨가 제일 많으우다.
@ 그다음엔?
#1 그다음에는 뭐.
#2 뭐 양씨도 쪼곰 잇고.
#1 고씨도 잇고.
#2 건 뭐 쪼끔씩.
#1 쪼끔, 쪼끔씩 잇수다.
#2 제일 많은 송씨, 아니 저 강씨허고 송씨.
@ 게난 둘이 말헐 때양.

#1 예. 흔 사름은 말허지 말고.
@ 예. 나가 남자 삼춘, 여자 삼춘 허커메.
#1, 2 예.
@ 끼어가민 나중에 듣지 못헹양.
#1 (웃음)
#2 아, 맞수다.
#1 맞수다.
@ 게난에 겅 허고, 그 아까 그, 저 하천리 옛날 이름이 뭐라마씸?
#2 냇기.
#1 냇기마씨.
#2 아, 나 골아졈저.
@ 냇끼양?
#1 옛날 그 책이 그 나와 잇는디. 그 유래가 문딱 기록뒌 나와수다. 그 책에, 책자에. 거 흔번 보멍.
@ 아이 뒀수다.
#1 보멍 얘기.
@ 건 나중에 보고양.
#1 예.

오름

@ 그다음에 그 이 동네 그 오름 잇지양?
#1 이 동네 오름.
@ 오름 뭐, 뭐 이수강?
#1 어, 달산봉. 달산봉 이제 이디 큰 높은 오름이.
@ 당산봉이꽈 다산봉이꽈?
#1 달산봉. 달산봉.
@ 닷산봉?
#2 달.
#1 당이 아니고 달산봉. 예. 달산봉인데 그 아주 큰 오름 잇는디 거기서 오름 전면 서쪽에는 하천리 공동묘지를 조성헤 가지고, 어, 그 면적이 한 상당히, 멧 평은 확실히 모르쿠다마는 면적이 상당히 널르게 공동묘지를 조성헤 가지고, 에, 그거를 이제 운영헤 오다가 멧 헤 전부떠 그 후손들이 에, 다 어디 육지로, 이제 다 나가 살고 또 고향을 떠난 사난 사름 많고 허니까 벌초 시에 그 후손들이 와서 벌초들 불편허고 하니까, 어, 그 자연장 조성허게 뒌마씀. 군에 신청헨에 자연장을 조성헤서, 허가받안 자연장들을 이제 곤데곤데 이제 그 설치헤서 그 어 다 자연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족 단위로, 예? 경 헨, 거 지금 조성헨 지금 허고 잇고. 저 공동묘지 조성뒌 곳도 지금 그 이후에 뭐 거기 가서 모시는 건 아직 좀 줄어든 것 닮수, 닮아마씀. 거난 에,

자연장 헌 후에.
#2 동쪽엔 초등학교. 마을 초등학교 오름 잇잖아?
#1 아 게난 자연장이 그렇게 경헹 각 지역, 각 뭐냐 가족, 가족 단위, 그 친촉 단위예, 경 헨 이제 자연장이 조성뒈 가지고 거기서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양지공원에 가서 이제 모시고, 헤서 그 지금 공동묘지가 지금 활용이 안 뒈고 잇수다, 지금. 크게, 아주 그 오름에, 달산봉에 조성이 뒈엇는데.
@ 화장헤근에 헴수가?
#2 아니우다.
#1 아 옛날에는 화장을 안 헨에 생장으로 헨에 다 모셧수다게.
@ 예.
#1 겐디 자연장을 헤서 가족공동묘지를 만들안 그 셍겨가니까 화장을 주로 많이 헴수다. 화장허곡 또 양지공원에 강 또 모시는 분도 잇고. 이제.
@ 거기 멧 평 뒙니까, 거기?
#2 아이고 거기, 평수는 알아지커라?
#1 그 공동묘지가 우리 마을에서 어, 한 오천 평 넘을 걸로 보는데. 그 저 오천 평이 넘을 거라.
#2 만 평 뒈, 만 평.
#1 훈 만 평 가까이 뒐 거우다.
@ 그거 저 사름 죽으민 순서대로 묻엄수가?
#2 예, 번호대로.
#1 그게양, 저, 어떻게 뒈냐면은 오름이 이렇게 비슷허지 아녑니까예?
@ 예.
#1 게민 이 밑으로 묻어가젠 허민 다음에 묻질 못허니까 우에서부떠 번호를 딱, 번호 순위로 이제 차각차각차각차각.
@ 맞수다게, 우이로 묻어와야.
#1 질서 정연허게 잘 뒛어마씀.
@ 아.
#1 게난 제주도에서 최고 잘 뒈엇엇는디. 그게 어, 뭐 벌초레도 후손들이 와서 벌초를 다님도 불편허고 뭐 허니까 아까 얘기허듯이 자연장 이제 조성허는 방법으로 많이 개선뒈수다. 게난 거기 공동묘지에 지금 잇어도 어 활용을 지금 못허는 입장이우다, 지금.
@ 예.
#1 거 뭐 헤 봐야 한두 사름 정도.
@ 다른 그 오름은 또 어디 이수가?
#1 딴 오름 하천리에서.
#2 동쪽이난.
#1 뭐 특별허게 뒌 오름은.

#2 아이, 동쪽엔 학교오름이잖아. 달산봉이라도.
#1 달산봉 오름 옆에다가 학교림이라고예, 것도 오름이 작은 오름 잇는디.
@ 그 오름 이름은 뭐옌?
#2 뭐 것도 저 달산봉인디.
#1 달산봉에 속헌 거우다.
#2 달산봉이우다게.
@ 으.
#1 명칭은 학교림으로 헨에 그거 지금 어 관리허고 잇고.
#2 마을에서 이렇게 갈라준 거 닮아마씀. 저 자, 학교 오름으로 헨에.
@ 으.
#2 한쪽은 마을 주민 관리허곡, 한쪽은 이거 명칭이 기자 학교로 헨에, 옛 어른덜이 경 헌 거 닮수다.

물

@ 이 마을에 물 그 이수가? 물?
#2 예, 물.
@ 아 거난 엿날 물?
#1 옛날 물이 잇어나수다. 옛날에.
@ 나는물이꽈?
#2 아니우다.
#1 아니, 봉천수로 헤 가지고.
@ 으.
#1 그 비 오민 골라 가지고, 내창.
@ 으.
#1 그 냇기 그 내려가는 그 지금.
@ 굴헝지에 잇구나.
#1 굴헝지에 돌빌레 트멍에.
#2 예, 막 물통들이 컷수다, 모욕허곡 막 허고.
#1 그 여기서 말허민 에, 그 먹는물이 그 바로 우에, 쪼끔 우에.
@ 내창 우에양?
#1 예 내창 우에 쪼금 우에.
#2 내창에 다 구분이 다 잇엇수다.
#1 통, 통이.
#2 먹는물, 모욕허는 물 이추룩 헹은에.
#1 예, 통이 다 잇어나수다. 거난 그 먹는물은 그 우에 잇고, 또 밑으로 바로 요 밑에 가민 소 먹이는 물이 또 통이 저 잇어나수다. 쉐물 멕이는 그 통이 잇고.
#2 여름엔 또 아이덜토 모욕허고.

#1 모욕도 허고.
@ 아, 그추룩 허영, 나지도 않은 물도 그추룩 오래 가?
#2 예, 예, 막 오래 갓수다.
@ ᄀᆞ물아도?
#2 예, 완전히 오래 가. 내창 설계허멍 다 ᄆᆞᆺ아 부니까 이제 물이 엇어져수다.
@ 아, 거난 이거 저 내창 ᄆᆞᆺ을 것이 아니주게.
#2 예.
@ 거 이제 그거 살리멍.
#1 예.
#2 맞수다.
@ 자연 그대로 살려야 뒈는디.
#1 경은 안 뒈는 원인이 뭐냐면은 물이 워낙 크면예, 아, 집이 다 들엄수게, 집이 다 들엉 뭐 홍수 터지듯이 부락에 다 들어왕 물난리 다 나고.
@ 물난리가 가장 큰 이유가 도로우다, 도로.
#2 맞수다.
#1 어.
@ 이 도로 허여근에 그 물질을 잘 영 헤근에.
#1 예.
#2 물꼬를 만들아야 뒈는디.
@ 내창으로 보내야 뒈는디.
#1 예.
@ 그냥 거 모른 사름덜 헤근에 그냥 내 부니까. 이 굴렁진 밧드로 다 들엉은에.
#2 예, 자연으로 다 따라가 부난에.
#1 게난 이젠 그 송사헨에 그 이, 저 내창을 널게 만들안에, 그전에는 그게 없이 허니까, 물 내려오면은 그 물이 크면은 마을드레도 들어가곡.
@ 으.
#1 또 이웃 부락드레도 들어가나수다게. 뭐 신천리레도 물이 넘엉 들엉 가나고. 거난 수방 공사허연 우선 급헌 딜로 신천리 그레 가는 길을 수방공사헨에 노프게 돌담을 싼에 이제 거 막아 놓곡. 또 신풍리레 들어가는 물은 또 그 신풍에서 또 내려오게시리 아주 길게시리 영 헨 그 수방 공사 헨 막아 놓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 하천리로 담아지는 거라. 게민 이제 하천리서 이제 또 이쪽 길, 이 서쪽으로 헨에 또 이게 막아진 거라, 수방 공사허영.
@ 거 넘칠 수밖에 엇수다게.
#2 예.
@ 웨냐민 거 물질이라는 게.
#2 굴헝진.
@ 자연적으로 영 내리게끔 헤 줘야 뒈는디. 막 쎄멘트로 헤근에 막아 불고 뭐 헤부

니까.
#1 경 허민양. 물이 경, 경 헨 모다젼에 물이 오기 시작허니까 쪼끄만 비가 와도 이거 홍수라, 이거. 완전이 뭐 이거.
@ 거 맞수다게.
#1 이거 사름 보이지 못헐 정도로양, 물 높이가 경 높아나수다게. 게난 그게 그추룩헤 가니까.
#2 제동목장에서 내려오곡, 저 어디.
#1 여러 군데서 내려 옵주.
#2 성읍리, 성읍리 우에.
@ 가시리?
#1 가시리.
#2 예, 가시리는 저 토산더레 내려가고.
#1 가시리.
#2 제동목장에 물이 큽주게.
@ 아, 목장에이.
#2 제동목장 물이 일로 돌려 불고 헤 부니까 이제 저 대천동에서 내리는 물도 이레 다 내려 불곡.
#1 으.
@ 옛날보단 물이 더 크구나.
#2 아이고, 엄청 큽니다.
#1 엄청 커마씨.
#2 경 허난 이젠 경 물 내려오는디.
@ 문제네.
#2 요 우에는 이제, 이 공사 아녈 때는.
@ 다른 디 막아 부난에 일로 빼 부니까.
#2 예.
#1 다 일로 내려완. 게난 그.
#2 먹는, 수도 아니 걸 땐 먹는물이엔 헌 건 요디 멩간이엔 헌 물이, 물을 질어단 먹어수다게.
@ 어디, 어디 멩간이?
#2 거 요디에 멩간이엔 헌.
#1 내창, 내창. 통.
@ 먹는물양?
#1 예, 먹는 물통이.
#2 예. 내 오민.
@ 아니 게난 물통을 만들엇구나?
#2 아니, 자연으로.

#1 자연적으로 만들아진 거라, 막 깊어.
#2 자연적으로 만들아진 것이 저 먹는물은 멩간이. 요디 쉐 멕이곡, 소 멕이, 쉐 멕이곡 아이덜 강 여름에 강 몸 곰곡, 남자덜토 강 몸 곰곡 허는디.
@ 게난 제일 우이가?
#2 멩간이.
@ 먹는물.
#2 예.
@ 멩간이.
#1 멩간이.
#2 예, 거기서.
@ 그다음에는 ᄉᆞᆼ키 씻으는 디 물 잇어야지?
#2 ᄉᆞᆼ키 씨치는 디는 ᄒᆞ끔썩 ᄒᆞ끔썩 빌레에 ᄀᆞᆯ른 물.
@ 서답허는 딘?
#2 예, 세답허는 디는 ᄒᆞ끔 더 내려오민 요 다리 읖이 또 저 물통 잇엇수다게.
@ 거 서답헤난 다음에 모욕허는 물통이구나?
#2 예. 경허민 또 그 물통 내려가민 요 저 큰샘물이엔 헌 디는 이제 남자덜토 모욕허곡 ᄉᆞ나이덜토 모욕허곡.
@ 거 뭐 저 칸 막아야 뒐 거 아니라.
#1 칸은 미신.
#2 옛날엔 칸이 어디 이수과? 그대로 살마다 바랑에덜 모욕허곡.
#1 (웃음)
#2 두린아이덜은 저 가가비 잡아다근에 구엉 먹곡 거기서덜.
@ 가가비?
#2 예.
#1 가가비, 가가비.
#2 가가비.
@ 아, 개구리.
#2 개구리, 옛날엔 가가비옌 헤수게.
#1 가가비엔 헷주.
@ 여긴 가가비옌 헷구나.
#2 예, 예, 요즘은 개구리엔 헤근에 표준어로들 헴주마는
@ 맞수다.
#2 그축 헤근에 그디서 모욕헤영, 게민 또 비 오민 그 물이 또 내려가민 요디 어겅물이엔 헌 물이 또 잇수다. 게민 그디선 겨울들민 아까 모욕헤난 디 또 쉐도 겨울에, 쉐도 집이 메난에 쉐도 물 멕이고, 그디 강 물덜 멕이고, 겡 그 큰샘물서 내려강 어겅물이엔 헌 물에서 이제 또 아이덜 모욕허곡,
#1 쉐 물 멕이곡.

#2 쉐 멕이곡, 남자덜 모욕허곡 또 글로 ᄒᆞ끔 내려가면은.
#1 또 먹는물 만들안.
#2 또 먹는물 어겅물이엔 헌 디 분대(?)헤연 옆이 먹는 물이 또 잇고. 또 그레 내려가면은 이제 저 빗개물 물엔 헤여근에 이제 세답도 허곡. 이제 여자덜 모욕도 허고. 그디서 그추룩 헨디 저 중동[중동]엔, 이제 그건 상동이고. 또 중동에 내려가민 구시물통이엔 헌 디가 또 잇수다.
@ 구시물?
#2 예, 구시물통이서, 거기서도 모욕허곡.
@ 으.
#2 이제 웃통엔 물 질어당 먹곡. 허벅에 물구덕에 베로 헤근에 지어당은에.
@ 구신물도 그, 저 나는물은 아니지예?
#2 아니우다.
#1 아니.
#2 하천린 나는물 엇수다.
#1 나는 물은 엇고.
#2 다 우에서 내려오는 물.
#1 내려오는 빗물.
#2 그축헹 또 내려가민 또 올란이엔 헌 디 또 물이 잇수다. 막 지펑, 그딘양 암만 ᄀᆞ물아도 물 안 ᄀᆞ뭅니다.
@ 게난 여긴 나는 물 엇이난에 논은 엇네이?
#2 예, 논 엇수다.
#1 논 엇수다.
#2 게난 거기 또.
@ 거난 저 나룩 대신에 산디.
#2 산디 갈안.
#1 어 산디.
#2 예, 산디 갈안덜 그거 헤당 ᄀᆞᆯ아당 먹곡, 또 보리 갈앙 헹 먹곡. 조 불, 조 불령 조 헹 먹고.
@ 예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거고양.

당

@ 여기 당 잇수가? 당?
#2 예, 본향당.
#1 본향당.
@ 당양?
#1 예, 요 바로 우이 이수다.
#2 제일 큰 디 그것이.

@ 거기, 거기 낭 잇수강?
#1 소남덜.
#2 낭덜.
@ 돌 이수과?
#2 복닥낭이영 원 잡낭 다 이수다.
@ 복닥낭?
#2 예.
@ 복당낭이 어떤 낭인고?
#2 영 헹.
#1 이파리.
#2 쫙 퍼진 거 잇수다.
@ 복닥낭.
#2 예, 그거 꼿 피민양, 벌덜 막 저 무시거 알덜 잘 만들곡 허는 복당낭.
#1 화분.
#2 화분. 겡 그디 허면은 저 당이 제일 쎄어마씀, 이 남군이서.
@ 게난 저 당은 메칠날 갑니까?
#2 당은 일 년에 저 정월 저 초ᄒᆞ룰날, 초.
@ 정월 멩질날?
#2 예, 정월 멩질날 초사흘날 세배 가곡양, 또.
@ 초사흘날 세배 가고?
#2 세배 가고, 또.
@ 멩질날도 가고?
#2 아니, 초, 멩질에가 정월 초사흘날이 그 멩질 점 세배가는 겁주게, 본향에.
@ 으, 으. 초사흘날.
#2 이월 열이틀날, 열사흘날로 가단에 심방이, 여기 당멘 심방이 돌아가셔수다게.
@ 아.
#2 죽어 부난 이젠 또 저 가시리 이제 남자 심방이 완에 몸 메여신디. 그 사람이 이제 여라 군데 헤부난에 이젠 열사흘날로 다니는 건디, 열이틀로 이월 열이틀날로 뎅겨근에 거 영등에마씀. 영등에 허곡, 또 칠월 또 저 열사흘날 가민 마풀림.
@ 으.
#2 경 헤근에 겡 그걸로 저 세 번 헹 끗마씀.
@ 여자 삼춘 잘 알암신게.
#1 하이고 잘.
@ 현재도 이수가?
#2 예, 지금도 다닙니다, 우리.
@ 다녀마씨?
#1 지금도 다녀.

@ 다념수가?
#2 예.
@ 거 갈 때 무신거 헹 가?
#2 갈 때마씀?
@ 으.
#2 무시거 저 헤영헌 저 산디ᄀᆞ루 ᄀᆞᆯ아당은에 저 무시거 돌레떡 만들고.
@ 돌레떡.
#2 예, 솔레기 구워 놓곡.
@ 솔레기.
#2 예, 따시 곤밥헤 놓곡.
@ 여긴 솔레기엔 허네예?
#2 예.
@ 우리 동넨 솔라니옌 허여.
#2 예, 이딘 솔레기옌 헙니다. 솔레기 구워 놓고.
@ 으.
#2 또 지전 저 석 장썩, 석 장 ᄆᆞᆯ아 놓고.
@ 지전, 저 얼마짜리?
#2 그것은 이젠 이천 원 감수다. 혼 권에, 스무 장이 혼 권이난.
@ 아 그 저.
#2 백지.
@ 백지?
#2 예.
#1 백지, 백지.
#2 이젠 경허고 또 석 장은 또 소짓종이로 이제 석 장 놓곡. 또 이제 초상님안티 이제 그 저 지전이영 ᄀᆞ찌, ᄀᆞ찌 올립니다게. 저, 지전 저 혼, 혼 자 정도 ᄇᆞ려놔근에 그거영 지전이엔 헤근에 세 개 놔근에 그건 술레ᄒᆞ곡. 또, 풀찌거리엔 허여근에 저 잔뜩 혼 발 발아근에 또 그거 초상님안틴 걸곡, 그추룩 헤여근에 강 옵니다게.
@ 나도 요기 요번에 일요일날?
#2 예.
@ 일요일날이 아니고 요번에 수요일날인가? 수산일리, 수산.
#2 예, 예.
@ 그 일뤗당.
#2 아, 일뤳당.
@ 일뤳당 갓다왓어.
#2 아, 여기도 그 전이는 일뤳당 잇어나신디 이젠 안 다닙니다.
@ 거난 유월 일뤳날 헌덴 허더라고.
#2 아.

@ 거난 일뤳당이엔 헴덴.
#2 아, 여기도 경 헨에 뎅견, 옛날엔 뎅겨나수다마는 나도 시집완에 얼마 안 뎅견, 얼마 안 뒌 그디 뎅겨나고. 또 열이틀당이엔 헌 디도 잇어나수다게. 이제 거기도 이제 다녀나고 허단, 다 그런 것이 새 식 나가난에 엇어젼 그자 저 본향에 흔 밧디만 다닙니다.
@ 본향에 이제 흔 밧디만예?
#2 흔 밧디만예. 또.
#1 영등.
#2 영등에는 바당에도 갑니다.
#1 바당에, 바당에.
#2 여기서 이제.
@ 여기 무신 바당 잇어? 하천리에 바당잇어?
#2 아, 잇수다, 바다.
@ 바당 잇어마씨?
#2 예, 예, 경 헨 이젠.
@ 아, 영 오단 보난 성읍 밑에랑게.
#2 성읍리 밑에라도양.
@ 표선 우이고.
#2 상, 중, 하로 뒈수다게.
#2 하천리 일리.
#1 여기는 상동.
#2 여기는 상동.
@ 으.
#2 중동에는 중동. 저 하동에 일주도로변은 하동.
@ 바당 옆이도 잇구나?
#2 예, 예, 저 바당 일주도로 옆인 하동이고 삼 개 동으로 나눠졋수다, 하천리가. 경 허난에 이제 그 바당에 갈 때는 영등에는 저, 이제.
@ 영등은 메칠부떠 메칠 사이꽝?
#2 영등은 정월, 할망덜 곧는 거 보민 정월 보름에 들어와근에 이월 저 보름에 저 소섬으로 헹 나가근에 배 놔근에 헌덴 허는디.
@ 어.
#2 우리는 이디선 알기론 영등 열이틀날 ᄆᆞ슬 가근에, 원래 열사흘날 갈 건디 아까나 그 저 남자가 몸멘[모멘] 사름이 하영 헤부난 열이틀날로 가근에 이제 여기서 웃, 이, 저 본향이서 큰 당에서, 여긴 하르방.
@ 어.
#2 알 당은 할망이우다게.
@ 아.

#2 게난 하르방인디 몬여.
@ 저 바당에는 할망?
#2 할망.
@ 아, 여기는.
#2 예. 여기는 이제 본향, 저 아래는 이제 고첫당 할망 경헙니다게.
@ 아 거난 여기는 저 옛날 그 남자덜은 쉐 멕이레 잘 뎅엿주게.
#2 예, 예.
@ 거난 경 허고, 저기는 해녀덜 이시난에 할망.
#2 예, 할망, 할망 허고.
@ (웃음)
#2 이제 그추룩 헹 ᄒᆞ면은 저 정월달엔 안 가고. 이월엔 이제 저 영등에.
@ 으.
#2 영등에 들어왐젠 헤근에 이제 또 본향에 가근에 봐놩 또 아래도 이제 우이ᄀᆞ추룩 똑ᄀᆞ트게 출령 강 지 쌍 가근에 이제 한 사람이 저 몸지 하나 드리곡, 저 요왕지 하나 드리곡, 그추룩 헹 한 사름 앞이 두 개썩 헹 강 디리곡 아래도 똑ᄀᆞ뜨게 출령 가근에 허곡.
@ 예.
#2 또 칠월에 마풀림에도 이제 그추룩 양쪽에 우이 가낭 또 아래 가곡 경 헙니다.
@ 이 세시풍속양? 다음에 달마다 헐 거난에.
#2 예.
@ 그때 말허민 뭴 거우다양.
#2 아.
#1 아.

포제

@ 게난 그다음에 그 우리 남자 삼춘안티 이디 포제단이 잇수가, 포, 포제단?
#1, 2 포제단 잇수다.
@ 헙니깡, 여기서?
#1 예, 저.
@ 언제 헤마씨?
#1 어, 정월, 정월 멩질 지낭은에 에 첫정일에.
@ 첫정일 허면은 메칠이꽈?
#2 메칠이 정헤지지 안헌 거.
#1 그 딱 메칠날이엔 정헤지진 안 허고, 그 육갑을 헤근에 날짜를 봐서.
@ 어떻든 정월 멩질 지나근에?
#1 예, 보름 안네 지, 지내는 거난양.
@ 밤에 헙니깡? 낮에 헙니깡, 포제는?

#2 새벡 흔 시에.
#1 밤이 헙니다, 밤이. 게난 열두 시에 강 제지내엉. 게난 포제단을 에, 저 우에 그 목장 바로 옆이다가 걸 만들아놧는디.
#2 조용헌 딜로. 조용허곡 깨끗헌 디.
#1 포제단을 똑 얘기허는 거 보니까 옮길 것 같애요, 보니까. 거기 주변에 그 밧 주인들이 뭐 이의제기 헤 오는 거 같애 가지고. 겡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엄서 마씀.
#2 그거는 옮겨 봐야 확실헌 걸 알 거고.

문화재

@ 그다음에양 마을에 그 문화재가 이수강? 우리 걸궁 ?뜬 거?
#1 마을에 문화재, 걸궁은 성읍리가 많이 이실 거고.
@ 여기는?
#1 우리, 우리는 문화재 지금까지 헤도 문화재 헹 뭐 어디 걸궁을 허나 뭐 그건 아녀 봐수다.
#2 옛날에 저 보리 발르기는 쪼끔 헤 봣주.
#1 보리 밟기.
@ 보리 붑기.
#2 예, 보리 붑는 거.
#1 저 비루 엇일 때난에.
@ 으.
#1 보리가 그, 보리 그 파종허젠 헤도 어 비료.
#2 돗가레.
#1 엇어부난 돗통에 그 거름을 만들아.
#2 돗가레엔 허멍.
#1 거름을 이제 퍼내엉, 이제 그 마당에다 놩 소로 이제 막 불령은에 그.
#2 보리씨.
#1 보리씨 삐곡 헹 불령.
#2 돗가레 내엉.
#1 비류 엇이게 그걸로 유지헤수다, 옛날에.
@ 돗걸름 불를 때 물로는 안 불르지양?
#2 예, 물론 아녀봐수다.
#1 거의 다, 거의다 쉐로 불랏수다.
#2 쉐로 예.
#1 겡 쉐로 불랏는디. 몰라 물 이신 딘 물로 불라신딘 몰라도.
#2 우린 물로 허는 거 안 봐수다.
#1 우리 헐 땐양 쉐로 불랏수다, 우린.

@ 예.
#1 경헹 그 허민 그 돗가레가 기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돗가레착이엔 헌 게 이수다. 그게. 더 굴읍니까?
@ 그 정도는 뒀수다.
#1 예.

제보자 정보

@ 그다음에 그, 저 낳고 자란 과정 ᄒᆞ끔 굴아 줍서?
#1 에, 그때는 그 부모네가 막 살기 힘들고 어 자식을 많이 낫수다, 우리 부친이. 팔 남매를 낫는디 나가 장, 큰, 큰 뭘로 헨 이제 헨에 그 뭐 토지도 엇고, 뭐 돈도 엇고 허니까 상당히 살기가 어룹게 그때는 살아수다. 솔직이 말해서. 게서 그게 막 자랄 때까지도 뭐 학교도 뎅기는 데도 춤 상당이 어렵고, 게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정도만 영 나올 정도로.
@ 어디까지 나와수강, 삼춘?
#1 아니 나는 난 초등학교, 아니 중학교ᄁᆞ지벳긴 못 나왓수다마는.
@ 중학교양?
#1 예. 그때에도양 그 고등학교 가젠 허니까 형편상 가질 못허게 뒌에 어 춤 경헨 그런 일이 잇어나수다. 경 헨 허고.
#2 생활은 아부지가 돌 담 다면서 그걸로 벌어단에 애기덜 팔 남맬 키와십주. 재산도 엇어 불고.
@ 게난 우리 여자 삼춘은 여기 시집 언제 와수가?
#2 아.
#1 시집?
#2 사륙년, 아니 사륙년이 아니고 천구백육십팔년.
@ 으.
#2 천구백육십칠년 십이월 이십일일.
#1 십이월. (중략)
@ 그 여자 삼춘 그, 저 뭐 어디서, 출생지 어디꽝?
#2 아, 출생지마씀?
@ 으.
#2 성산읍 신풍리마씀.
@ 옆이네 바로.
#2 예.
@ 동네 결혼헤신게, 양?
#2 예.
#1 연애결혼헷습니다.
#2 연애결혼헨에 시집, 장게왓수다, 어릴 때.

@ 서로 다 좋은 모양인게마씀.
#1 예.
@ 학굔 어디까지 나와수가?
#2 학교는 게난 풍천초등, 풍천. 신풍리는 신천허고 같이 허연 지금도 학교 헷주만은 풍천교라고 잇수다.
@ 으.
#2 게난 풍천교에서 졸업을 못 헷수다.
@ 무사?
#1 다니단.
#2 다니단.
@ 일만, 일만 헷구나?
#2 예, 동셍덜 밑을로 나놓난.
@ 멧 남매우꽈?
#2 저 오남맨디.
@ 오 남매.
#2 예. 게난 밑엣 동생, 옛날에는 애기 둘단 보난에 어멍은 물질 가근에 메역 ᄌᆞ물아 오곡 헤여사 이제 먹엉 사난, 그 애기 둘단 보난에양.
@ 으.
#2 학굘 못헨 삼학년ᄁᆞ지벳기 못 다녓수다.
@ 다 그땐 경 헷수다게. 이제야 다 공부덜 시켠. 다 저 아이덜은 다 육지 보낸 거 닮안게예.
#2 우리마씀? 예.
#1 다 서울 간 살암수다.
#2 오 남매라도 다 서울 가고, 미국두 이제 강.
@ 거난 공부 다 잘 시켜신게.
#1, 2 예.
@ 부모들이 저 어렵게 사난게.
#2 아이고.
@ 이 자식은 키와보겟다 헨에.
#2 아부지가예, 공부에 베우는 건 너무나 한이 맺현.
@ 잘헤수다게.
#1 (중간 생략)
@ 거난 아들 둘?
#2 아들 둘, 뚤 셋마씀.
#1 (중간 생략)
@ 그다음에 결혼식은 어디서 헤수가?
#2 우리마씀?

@ 으.
#1 마당이서.
#2 초집이.
@ 마당이서?
#1 집 마당이서.
#2 예, 마당에서 헤수게.
@ 마당에서 저 보리낭 꼴안에?
#2 예, 족두리 쓰곡 우리 들어올 땐 ᄂᆞ람지 페완마씨.
@ ᄂᆞ람지 페우고.
#2 예.
@ 그다음 펭풍.
#2 펭풍 둘르고.
#1 펭풍 뒤에 헹 사름덜 영 둘러주고.
#2 관복 입곡.
@ 관복?
#2 난, 신랑은 관복 입곡 난 한복 입곡.
@ 막 멩심헷저.
#2 난 또 무신 차로 온 중 알암수가? 요즘 저 짐 시끄는 제므시, 요줌은 그런 제므시 엇어예양.
@ 엇어.
#2 옛날에 제무시 차 탄 왓수다, 시집올 때.
@ 게메 걸엉 안 와도 다헹이주, 무신 신풍리서.
#2 예, 게난 그때도 저 이런 택시 같은 건 힘들어십주게.
@ 엇어, 엇어낫수다.
#1 택시, 엇어.
@ 옛날 그 전에는게 물덜 타근에덜 허곡.
#2 예.
@ 건디 거 저 관복허곡 허민양, 그 집이, 집안이 궨찮은 집안이우다게.
#2 예, 경헌가마씀? 게난 기자 관복 입곡 난 기자 한복 입곡 기자 헨에 족도리 쓰고 헨에 왓수다.
@ 게메, 사진 찍읍다강? 사진?
#2 예.
@ 사진?
#2 예.
@ 지금도 이수강?
#2 어디 이실 거우다.
#1 아니, 앨범에 이십주, 뭐.

@ 아.
#1 거 보쿠가?
@ 아니 그 그거 낼라근에 좀 한걸허글랑.
#1 경 헙서.
#1 춪앙 놔두쿠다.
#2 춪아 놔뒀당.
#1 준비헹 놔뒀당 나가 주쿠다.
@ 저 뭐냐, 사진 찍어근에 강 허면은 저 이런 이제 박물관 ᄀᆞ뜬 디.
#2 예.
@ 갑주게.
#1 예.
@ 그다음에 우리 여기서 헐 건양. 그 세시풍속이우다게.
#2 예.
@ 달마다.
#2 예.

일월

정월 멩질

@ 정월부떠 뭐 이월, 삼월.
#2 예.
@ 저 십이월ᄁᆞ지. 게난 우선 정월에 대헤서양, 물어보쿠다양, 그 정월 멩질에 대헤서 ᄀᆞᆯ아 줍서.
#2 정월 초ᄒᆞ룰날 정월 초ᄒᆞ룰날 멩질 허곡.
@ 예.
#2 옛날엔 멩질 먹으레덜 막 뎅겻주마는 이젠 코로나로 헨에 안 뎅겸수게.
@ 예, 예.
#2 게난 이녁만썩, 이녁만썩 허는디 다 지내나민 마주막엔 종가집이 가근에 서로 세배허고양.
@ 으, 세배.
#2 또 일 년 동안 또 그 문중에서 회 메곡. 총회 메고.
@ 아, 그저 멩질날 헴수가?
#2 예, 멩질 끗나민 정월 멩질날.
@ 아.
#2 그추룩 헤근에.
@ 우린 정월 멩질 끗나근에.
#2 예.

@ 그다음 주 일요일인가 영 허여.
#2 아. 우린 여긴 경 안 헙니다.
@ 종가집이 강 헤불엄구나.
#2 게난 이젠 그 코로나 허기 전에는 다 멩질 먹으레 다녀수다게. 게 다니단 이제 코로나 당헤 부난 각자 이제 허곡 마지막이랑 종가집이서 이제 세배도 허고 이제 총회도 메곡, 또 임기 다 됌면 이제 벗는 사름은 벗곡 쓰는 사름은 쓰곡, 경헹 허자 헨에 종가집이서 이제 그추룩 헤근에 헴수다.
@ 그 하나 뭐 물어보는데양? 식겟날 펭풍 잇지 안허우꽈양, 식겟날은 그 풍경 이신 저 면을 영 앞에 헴수강? 글씨로 뒌 것을 앞에 헴수가?
#1 그걸예, 그걸 알아야 뒈어마씀. 풍경은 이 축하 이런 결혼식 때 풍경을 허곡.
@ 으.
#1 제사 때는 글을, 글을 앞으로 놩, 글을 영, 그걸 앞으로 놩은에 상을 심읍니다, 영. 양쪽 지지 아니헷수가, 한쪽에는 글로 뒀고, 한쪽에는 풍화로 헨에 뒈지 안헷수가? 게난 그거는 이 화촉이나 이런 때 허는 거고, 이런 제사 때는 거, 글로.
@ 아 게난 나가 웨 물어봠시냐 허민양?
#1 우린 경 헙니다. 딴 디 어떵허는 지 몰라도.
@ 식게 때는 글로 허는 것이 당연헤양.
#1 예.
@ 그 멩질날?
#1 예.
@ 그 풍경 사진 쪽으로 앞으로 허는 집안이 이십디다게.
#1, 2 아?
@ 멩질날은.
#1 그거는.
#2 집안마다.
#1 집안마다 좀 틀릴런지 모르쿠다마는.
@ 가문가례데.
#1 가문가롄디. 그걸 뭐 영 헷다고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고.
@ 거난 식겟날은 글을 앞에 영 허고.
#1 예.
@ 저 멩질날은 저
#2 풍경으로.
@ 풍경허는 집안이 이선에.
#1 아, 멩질날 풍경으로 허는 집안이 잇어마씀?
#2 건 그 집안에.
#1 집안에 따라서.
@ 여기는 다 글로 헴구나예? 멩질날로.

#2 예.
#1 예, 글로 합니다, 다.
@ 경헤근에 물어보는 거마씸.
#1 풍경은, 이 결혼식 때나 이런 뭐.
#2 돌잔치.
#1 돌잔치나 뭐 이런 또.
#2 행사 때에게.
#1 행사 때에, 아니 그 저.

멩질 떡

@ 멩질날 무슨 떡 헙니까?
#2 우리마씀? (기침) 저 무시거, 저 헤영헌 저 쏠, 저 산디쏠 골아근에 저 픗 놓곡.
@ 으.
#2 그추록 헹 허곡 또 이제.
@ 뭐 친떡?
#2 친떡.
@ 친떡양?
#2 예. 친떡허곡 또 송펜.
@ 송펜.
#2 예.
@ 송펜은 저 팔월 멩질날 허는 거 아니?
#2 아니우다, 이딘.
@ 아니, 정월 멩질에도.
#2 예.
@ 송펜 헤여?
#2 정월 멩질에도 허곡 팔월 멩질에도 허곡 헙니다.
@ 이딘 솔벤, 절벤은 안 헙니까?
#2 아 솔벤, 절벤은 이제 첨 허고 싶은 사름은 제사 때.
@ 으.
#2 제사 때 이제 그런 때 허주, 멩질에는양. 대강 보면은 그걸 허는디 이젠 또 떡집이 강 보민 다 사당 허곡, 빵떡 사다근에 허고 허는 집은.
@ 옛날에 상웨떡도 헷지양?
#2 상웨떡 허는 건 팔월 추석에.
@ 아, 팔월 추석에.
#2 팔월 추석에 만들아근에 헙니다.
@ 상웨떡?
#2 예, 헤나수다. 빗상웨로.

@ 으.
#2 또 옛날엔 여름에 식게 헐 때도 이녁 냥으로 헤근에 만들아근에 저 헤나수게. 상웨떡. 빗상웨. 경 허주만은 요즘은 경 못견디게 경 헴수가?
@ 맞수다. 아, 거난 옛날 걸로 굴아줍서.
#2 예.
#1 옛날 걸로 굴아야주.
@ 옛날 걸로양?
#2 예. 옛날 걸로 굴암수다게.
#1 지금 시대에 곧지 말앙.
#2 예.

정월 대보름

@ 그 저 정월 대보름.
#2 예. 그건 엇수다.
@ 정월 대보름 뭐 안 헙니까?
#2 그런 건 뭐 안 헙니다.
@ 거 무시거 안 헙니까? 그 저 연, 연날리기.
#2 아니 헙니다게.
@ 것도 안 허고.
#2 예.
#1 옛날에 거, 저 쪼끔 헤낫는디 지금은 연날리는 디 엇수다, 엇어.
#2 옛날에는 집에 아이덜 이시민 막 연 하르방덜이 연 만들아주마, 연 만들아주마헤 여근에 아졍 가근에 정월보름날 연 만들앙 띄우멍 헷주마는 요즘은 이딘 그런 거 엇수다.
@ 농사 길흉 점치는 거 안 헙니까? 정월 대보름날?
#2 정월보름날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 농사 길흉?
#2 아니.
@ 점치는 거.
#2 예, 일뤠, 저 그 새해 나면 이제 일 년에 한 번씩 이제 교회 다니는 사름은 교회 강 하곡, 또 저 아까 그 당에, 본향에 다니는 사름덜은 일 년에 이제 좋은 날로 날 받아다근에 농사도 잘 뒈게 헤줍센 허곡, 이제 집안 건강을 헤 줍센 허여근에, 일 년에 흔 번 문제엔 헌 거, 올레코시엔 헌 거 헙니다.
@ 음.
#2 지금도 우리 헙니다.
@ 올레코시?
#2 예, 올레코시엔 헤근에.

@ 안택이주, 안택?
#2 예, 안택일은 안네 저 칠성 모신 사름덜양.
@ 게난 그 올레코시도 그거에 속허여.
#2 예, 그거 올레코시 헐 때는.
@ 나중에 이거 물어보쿠다양.
#2 예.

액막이

@ 방사 후 액막이에 대헤서 흔 번 굴아줍서. 방쉬, 방쉬.
#2 방쉬는 우린 안 헤봣수다.
@ 정월달에?
#2 예, 안 헙니다.
@ 액막이?
#2 예, 아니 그거 액막이는예.
@ 으.
#2 그 올레코시 허레 올 때, 문전제 허레 올 때에 심방이, 그 우리가 액멕이를 출려 놉니다게. 낭푼에 쏠 놓곡, 이제 독 흔 ᄆᆞ리 사다 놓곡 헤여근에 옛날엔 헤신디. 이젠 독을 ᄑᆞ는 디가 엇수게.
@ 으.
#2 독을 ᄑᆞ는 디가 엇어 부난 소고기 사다근에양, 저 심방에 그거 허렌 허영 그걸로 돈이영 올령.
@ 액막이양?
#2 예, 그것에 시마지 흔 통 놓곡, 쏠 이제 흔 낭푼 놓곡, 이제 또 거기는 돈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의껏예, 그거 놓곡 헤여근에 액멕이 헙니다게.
@ 방사탑 알아지쿠가, 방사탑?
#2 그건 몰르쿠다.
@ 거욱대?
#1 거 지방마다, 지역마다 틀려 부난.
#2 예. 마을마다 틀리는 거 닮아.

포제

@ 그다음에 포제?
#2 예, 아까 포제는 일 년에 한 번.
@ 포제에 대헹 굴아 줍서양. 우선 포제 때 금줄 멥니까?
#2 어디?
#1 아, 제관.
@ 금줄, 금줄.

#1 제관, 제관 방에. 제관 방 입구에만 메곡.
#2 아니.
@ 제관 방?
#1 예.
@ 그 제관은 어떤 사름이 헙니까?
#2 아니, 제관이 저 초헌관, 아헌관, 뭐꽈? 또 아래.
@ 초헌관, 아헌관.
#2 아헌관.
#1 종헌관.
#2 종헌관, 그 세 그추룩 뽑으면, 초헌관 뽑은 사름네 집이는 그때ᄁᆞ지 집이 저 금줄을 멥니다. 숫을 메어.
@ 메칠 동안? 숫을?
#2 예, 것ᄀᆞ라 ᄉᆞ, 금줄이엔 아녕.
#1 숫 메는 거.
#2 숫 메는 거우다게. 옛날에는 숫 메는 거.
@ 숫 메는 거?
#2 예, 금줄이 아니고, 여기 다른 디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것ᄀᆞ라 숫, 숫 메는 거 헙니다. 또 제사가 만일에 이제 그 동네에, 저 장이 낫다, 그러면 이제 부정헐 거 아니우꽈?
@ 으.
#2 게민 올래에 저 숫 메불라. 영 헙니다게. 예, 그거 숫 메불곡, 게민 또 아헌관 쓴 사람이 그 준비를 다 헤마씀. 저 포제에 쓰는 제물덜을.
@ 제물들을?
#2 예.
@ 아헌관이?
#2 아헌관 부인이 그걸 다 헙니다.
@ 아헌관 부인이양?
#2 그거 허면은 아, 저 본향에도 정월 초승에.
@ 으.
#2 거 제관덜 이제 초헌관, 아헌관.
#1 종헌관.
#2 종헌관 헤근에 이제 저.
@ 우리 여자 삼춘 잘 알암저.
#1 하이고.
#2 그 사람들 이제.
#1 그런 거 잘 압니다.
#2 지전에, 백지에.

@ 혼자 헤도 뒈쿠다.
#2 이제 딱 써근에 그걸 본향에 갑니께.
@ 예.
#2 정월 초사흘에, 게민 다른 사름도 아니 헤주곡 심방덜 제일 문여 헤줍니다. 저 포제허는 초헌관이 왓젠 허민. 게민 거기서 이제 제관덜 이름, 나이, 이제 다 놔근에 이제 저 초상안티 이렇게 메칠날 이제 포제 올렴수다. 이 사름덜 제관헤근에 이제 영헴수다 헤근에 또 저 축 익는 사람이영 이제 거기 총책임자영 헹 이름 다 올리민, 이제 심방이 이제 그거에서 공연 올리멍 이제 무사허게 이제 포제를 잘 지내게시리 이제 헤줍서 허곡, 마을에 이제 그동안 이제 부정 아니허게시리 사름도 도로(?) 호적 비어지지 말게시리 헤줍센 헤근에 다 갓다 옵니께. 초헌관 각시가.
@ 그 붉은흑 뿌립니까?
#2 양?
@ 츤흑, 붉은흑, 뿌리지 안허여?
#2 그건 모르쿠다.
#1 붉은흑은 이제 가정집에.
@ 토신제 헐 때.
#1 토신제헐 때.
#2 예.
#1 그때 뿌리고 그 웨에는.
@ 포제는 안 뿌리지?
#2 예.
@ 으.
#2 포제는.
@ 토신제 헐 때양?
#2 집안에 토신제 헐 때만.
#1 토신제 헐 때 그.
#2 츤역.
#1 츤역 헤당은에.
@ 예.
#1 흔 이삼 일 전에 헤당, 딱 그릇에 놧당 그레 영, 제지낼 그, 그 제지낼 곳에다가 영 펜펜허게 영 놔놩 새 잇지 안허우꽈, 새? 그 곱닥헌 새 흔 단 비어당 놔뒀당은에 그 우터레 꼴앙은에 그레 제물덜 놩.
#2 으, 삼일 전부터.
@ 음, 새 우티?
#1 새 우이 저 제물.
#2 저 토신제 지낼 때마씨.
#1 토신제, 토신제.

#2 토신제 지내는디.
@ 아.
#1 아까 토신제 말허난 곧는 말이우다게.

당제

@ 잠시 쉬엇당 허쿠다양?
#2 예.
@ 그다음에 아까 당제, 아까 당제에 대헤서 ᄒᆞ끔 골아줍서, 당제.
#2 당제는 그거우다게.
@ 아, 거난에 당에 가는 거. 아까 말헷주만 다시 ᄒᆞᆫ 번 더.
#2 저, 당에 정월 저 초사흘날 저 세배 가는 거양.
@ 초사흘날양?
#2 예. 세배 그 전이는 초이틀날로 헤여나신디.
@ 으, 으.
#2 이제 심방덜토 애기덜게 세배 오지 안헙니까게. 경 허난 이틀날 세배 받곡 사흘날 날 이제 본향에 세배 오라 헨에 헤수다게. 경헨에, 경ᄒᆞ민 그자 정월 초사흘날 기자 그날은 기자 집이 출련에 멩질 헤먹어난 떡양? 친떡 ᄒᆞᆫ 빗 놓곡.
@ 으.
#2 또 술 ᄒᆞᆫ 사이다 놓곡.
@ 으.
#2 또 이제 솔레기 ᄒᆞ나 구워 놓곡, 이제 아까 이제 지전 석 장 물아 놓곡, 물아 놓곡 이제 소지 종이 석 장 놓곡.
@ 으.
#2 또 이제 초상 나시 손수건 이제 ᄒᆞᆫ 자 시마지 ᄇᆞ려 놓곡. 또 풀찌거리엔 헌 것이 이제 잔뜩 ᄒᆞᆫ 발 발아근에 이제.
@ 풀찌거리 거 어떤 거우꽈? 풀지거리.
#2 풀찌거리엔 헌 건 시마지도 좋곡, 이제 물건 포목집이 가면 이녁 ᄆᆞ음에 든 걸로양.
@ 으.
#2 딱 석 자. 석 자, 이제 석 자 세 치 헤여근에 그걸 헤당 허민 다 끗나민 그걸 다 술아마씀.
@ 술아?
#2 예, 다 술아마씨.
@ 그 돌레떡은 안 헹 갑니까?
#2 돌레떡, 아니 멩질, 저 정월 멩질에는 그 세배갈 때는.
@ 으.
#2 초상안티 올려난 거.
@ 으.

#2 올려 난 거 그자 친떡 헹 강 허곡. 아까 나 곧지 아니헙니가? 이월 열사흘, 열이틀날 갈 때는 이제 돌레떡 헤놓고 솔레기 ᄒᆞ나 구워 놓곡, 이제.
@ 아까 메칠날?
#2 저 정월 초사흘날은 세배. 멩질상에 올려난 떡 그대로 헹 가곡.
@ 으.
#2 이월 초, 저 이월 열이틀날은 이제 돌레떡 헤 놓곡.
@ 돌레떡은 두 가지 아니? 산디로도 허곡, ᄆᆞ멀로는 안 헙니까?
#2 아니, 아니. 대강 ᄆᆞ멀로도 헹 가는 사람이 이십니다마는 건 드뭅니다.
@ 그냥 산디로?
#2 예, 산디쏠로 이제 헤영 가는 것이 하마씀. 게난 그걸로 돌레떡 만들앙.
@ 거 소금 놉니까, 안 놉니까?
#2 안 놉니다.
@ 안 놔양?
#2 예, 소금 안 놓곡 이제 솔레기 ᄒᆞ나 구워 놓고. 이제 또 그 아까 지전 석 장 물라 놓고, 또 기자 소짓종이 이제 석 장 꼬부려 놓고.
@ 우린 멩질날 가메, 멩질날.
#2 아, 그디는?
@ 으.
#2 어디꽈?
@ 저, 중문 색달.
#2 아, 경허난에 그건.
@ 멩질날양, 그, 저 제 끗나면은 그 당에 가.
#2 아, 지역마다 틀리난, 게난 이딘.
@ 당에 갈 때 말 안 곧더라고.
#2 어, 겨난 이젠 우린 그 당에 가젠 허민양, 뒈지고길 못 아져뎅입니다.
@ 당에는양?
#2 예, 뒈지고기가 제일 부정헌 때문에.
@ 돗궤기, 돗궤기.
#2 예, 도세기궤기.
@ 으.
#2 도세기궤길.
@ 옛날말로?
#2 예, 도세기궤기 이제 그걸 못 아졍 가근에, 원 일절 삼 일 전이는 먹지 말아야마씀.
@ 으.
#2 그, 그디 가젠 허민 정성을 헤사 허는 덕분에.
@ 으.

#2 경 헹 그추룩 헹 가근에 또 그디 이녁이 이제 농사진 거 이제 미깡이나 이제 사과허곡 배허곡 세 가지 이제 헤여 아져 가고. 또 영등에 갈 때는 또 영등이엔 헤여근에 똑ᄀᆞ뜨게 출려도 보시메가 잇수다. 영등하르방 메라고.
@ 그건 나중에 이월달에 굴을 거양.
#2 아, 예.

안택

@ 그다음에 안택에 대헤서 말헤줍서, 아까 그 저.
#2 안택.
@ 안택 허면은 세 가지에, 칠성제.
#2 예.
@ 그다음에 문전제.
#2 예.
@ 그다음 올레코시.
#2 아 게난 그거 여기는 그 올레코시를 ᄒᆞ나로 헙니다. 문전코시엔 헤영은에.
@ 칠성젠 안 헙니까?
#2 칠성제엔 헌 거는 안네 칠성 이신 사름이예?
#1 모신 사람.
#2 칠성 이신 사람 잇고 칠성 엇인 사람이 이서예.
@ 거난에 그 저 식게 때.
#2 예.
@ 여기는 그 본상 옆이 그 고팡에.
#2 예.
@ 그 저.
#2 안칠성, 안칠성.
@ 거 안 헙니까?
#2 우린 안 헙니다, 그거 엇이난.
@ 그건 안 허여?
#2 예. 게난 여기도 그거 이신 사람은 이제 문전제에도 허곡, 올레코시엔도 허곡, 그건 하나라양. 하난디 칠성이 안칠성이 이신 사름은 그 날을 봐야 뒈어양.
@ 으.
#2 그 시도 봐야 뒈어양. 게난 그것이 안칠성이 어떤 거냐 허면은 이제 집 안튀에, 안튀 주지 ᄒᆞ나 놔근에.
@ 아 그 주젱기 놔근에 허는 딘 잇어, 건.
#2 예, 그것이 안칠성 아니우꽈게.
@ 아니, 고팡, 고팡에, 식게 때.
#2 아니, 게난 그거 허는 사름도 잇곡, 안칠성에 모시는 사름도 잇어마씨.

@ 고팡제.
#2 예, 게난 베낏디 허는 사름은 그걸 허젠 허믄 일 년에 흔 번 그 주지를 굴아야 뒈어양.
@ 주젱이?
#2 예.
@ 여긴 주지렌 헴구나?
#2 예, 여기서는 주지옌 헙니다.
@ 아.
#2 ᄂᆞ람지 둘러근에 눌 우이에.
@ 으.
#2 ᄂᆞ람지 둘렁 제일 꼭대기 더프는 주지.
@ 우리, 우리 동넨 주젱이.
#2 아 여기선 주지엔 헙니다. 게민 그 베낏디에 안네는 무시거 모시는 중 몰릅니다. 우린 엇어부난.
@ 으.
#2 몰른디 거기 이신 집이는 주지가 잇어양. 주지가 이시난 그 주지를 굴 때에 그 올레에 철갈이 문전제 허고, 또 올레코시 허곡 그게 다 하나라마씀. 하난디 그거 이신 사름은 그 주지를 굴 때 시간을 보는 때문에.
@ 으.
#2 그 시간을 봐근에 허곡, 그거 엇인 사름은 올레코시나 문전제나 아무 때라도 심방 올 때 헙니다.
@ 아, 우린, 그 문전제 허지양? 문전제.
#2 게난 문전제가 그거. 아 제사 때?
@ 예, 식게 때.
#2 예, 제사, 식게 때 문전제 헙니다.
@ 문전제양?
#2 예, 예. 멩질 때도 허곡. 게난 문전제 문여 지내놩은에 제사 허는 거.
@ 그렇지.
#2 예, 우리도 경 그건 헙니다.
@ 문전제 헤난 다음에 그 헤난 거 코시허지 안헙니까?
#2 예.
@ 저.
#2 ᄒᆞ나는 쳇 번 흔 거는 베낏딜로 내지 허고.
@ 조왕이엔.
#2 아 ᄀᆞ만 십서. 아 게난 쳇 번 문제를 지낼 거 아니우꽈?
@ 으.
#2 우리 여기 식으로 굴으쿠다양.

@ 으.
#2 첫 번 문제를 지내나민 이제 숭늉 헤근에 이제 다 합치지 안헙니까? 톧아놩.
@ 으.
#2 게민 그거 베낏딜로 강 모시곡, 양?
@ 으.
#2 깨끗헌 딜로. 또 두 번째는 또 저 우 제반 걷어근에 이젠 그건 또 저 조왕으로 강 헙니다.
@ 조왕에양?
#2 예.
#1 서쪽에도 경 헙니까?
@ 예, 우리 조왕에 거 허고.
#1 아.
@ 그 문전제 헤난 거양, 우리 동네에서는 저 지붕에 올립니다, 지붕에.
#2 아, 게난 그 지역마다 틀려부난.
@ 여긴 어디에 헙니까?
#2 우리는 베낏디 깨끗헌 디 화단에 강 헙니다.
@ 아.
#1 우린 옛날 초가집 때는양, 지붕 우이도 올렷수다.
#2 예.
#1 근디 지금 지붕 우이 올리는 사름 엇수다.
@ 아이 거난 저 옥상에 올라가근에 그 옆이 강 영 비와.
#1 지금도 비와?
#2 아, 그 쓸레이트집이라도마씀?
@ 예, 아 쓰레트집은 그냥 올리믄 뒈곡.
#2 아.
@ 저 옥상 뒌 디는 옥상에 올라 강 영.
#2 여기는 그런 건 엇수다, 이제 어디.
@ 으.
#1 숭늉 헹은에 지붕 우이 그 전인 올려나수다게.
@ 예.
#1 겐디 지금은 거 안 헤마씀.
@ 아, 이제는 뭐 아파트덜 막 허난에.
#1 예.
@ 아파트도 보면은 영 보믄 식게 헤난 집 알아져. 영 입구에 사발 영 놔근에 영 비우는 사름도 잇곡.
#2 으, 맞수다, 아파트 ᄀᆞ뜬 디는 경헐 수벳기 엇수다, 우리는.
@ 입구에 헤근에.

#2 예, 예. 화단이 잇어부난. 저 그 화단데레 강은에 저 술짝허게 비웁니다.
@ 거난 이제는 저, 우리 그 저 장인 장모 저 양지공원에 모셔신디. 거 아파트 식으로 뒈어 부니까 일층에서부떠 칠, 팔층까지더라고.
#1 예, 맞수다.
@ 거 누구안티 절 허는 건지, 원.
#1, 2 (웃음)
@ 알지도 못허고.
#2 경 헤도 이녁 초상은양? ᄌᆞ손이 다 압니께, 아이고.
@ 완전 아파트라, 아파트.
#2 아파트라도 까막눈으로 다 ᄌᆞ순덜 압니께, 초상덜은.
@ 게난 거기도 부부 놓는 디가 잇고.
#1 으. 그.
#2 맞수다, 경 만들아져야 뒐 겁주게, 예.
@ 요멘이, 요만큼.
#2 예.
@ 요만헌 헤근에.
#2 단지 두 개 놀 거, 예.
@ 으. 그 이십 년 후에는 옆이 산에 가근에 비와 분덴 허드라고.
#1 경헌덴 헙디다.
@ 돈 얼마 삼만 원인가 미신거 헤근에.
#1 비우는 갑[깝]이?
@ 예, 경헤근에 영원히 그디 풀밧디 던져내 분덴 헙니다.
#2 으. 것도 좋은 거우다게. 자연으로 돌아강.
@ 이젠 저 보민 수목장덜 많이 헙디다게.
#2 예, 수목장이 좋아양.
@ 수목장. 수목장.

보리밧 붋기

@ 그다음에 보리밧 붋는 거?
#2 예.
@ 보리밧 붋아낫지양?
#2 예.
#1 하이고.
@ 여기는 보리밧 붋아야 뒐 거라예?
#2 지금, 지금은 안 헴수다만은.
@ 여기는 뜬땅 아닌가?
#1 여긴 뜬땅이난.

@ 뜬땅이난 붋지 아녀면은 보리가.
#1 붋지 아녀민 보리가 안 뒈어.
@ 안 뒈지양?
#2 예, 상강 져나민 다 부꺼 비엉양, 곳아 비엉.
@ 게민 뭐 빌어당은에 붋암수강?
#2 아이고, 옛날에는 기자 동네에서 기자 저 멧 집이 어울엉 불르당 것도 헤도양, 멧 헤 못 헤봣수다.
#1 혼 두어 헤 헷주.
#2 두어 헤 허당 설러 빗주.
@ 보리밧.
#2 예, 경 허단에 원 무시거.
@ 쉐로는 붋으지 아녑니까?
#2 안 헤봐수다.
@ 사름으로양?
#2 예. 사름으로 기자 돗가레 뿌리난에 그 기자 골고루 나난에, 기자 그거 헹 불라낫주. 것도양 멧 헤 못 불릅디다. 나믄.
@ 보리, 보리 하영 헤나수가?
#2 보린 하영 안 헤낫수다. 우린양, 밧이 엇어 부난에.
@ 우린 완전 보리, 보리만 허단 보니가.
#2 그렌 보리가 잘 뒈는 디 아니우꽈게.
#1 땅이 화산토가 아니고.
#2 우린 화산토라 놓난양 보리 안 뒈어마씀. 피기 전에 다 베불엉 다 저 사라져붑니다.
@ 여긴 옛날 저 감저 많이 헷지양? 고구마.
#2 예, 고구마 헤영 뺏데기 헤영. 우린 저 애기덜은 하고, 우린 재산 엇고 헤 부난양, 다 뺏데기 허멍 헤여근에 낮인 팡 시꺼 가곡 밤인 기계로 두가시가 썰곡 둘밤이.
@ 게메 그 겅허난 아이덜이 잘 뒌 겁주.
#2 예, 아이덜이 착헤마씸게.
@ 그걸 알안에.
#2 예, 아이덜이 아방안티 귀차귀 혼 번 안 맞앙 살아수다게.
@ 자식덜 안 뒈민 이거 이거, 춤.
#2 예, 그것도 고마와마씀. 고셍헌 보람이 잇어.
@ 예, 경 허난에 재미나게 농사도 짓곡 허주.
#2 예, 맞수다.

걸궁

@ 걸궁에 대헹 혼 번 굴아줍서, 걸궁?

#2 걸궁엔 우린 안 나가봐수다.
@ 아, 게난 혼 번 영 본 짐작이라도.
#2 기자 나가근에 그 종이로 이제 송낙 모자 써근에 기자.
@ 송낭?
#2 그 무시거 헐 때양, 보리 불를 때에 그거 혼 번 헤낫수다.
@ 걸궁을?
#2 예, 걸궁ᄀᆞ추룩 장기 두드리곡 꿩과리 치곡 허멍 헨에 혼 이년 헤보단에 그것도 단합이 안 뒙디다게. 경허난 기자 그축 허멍 그자 걸궁 식으로양, 경헤근에 허단, 혼 이년 허단 것도 설러집디다.

입춘

@ 입춘에 대허영 혼번 ᄀᆞᆯ아줍서, 입춘.
#2 입춘은 이제, 여, 여자는 이제 놈의 집이 못 가는 거. 놈의 집이 가민 이제 옛날엔 양젯물 꿰왕 들렁 데껴 분덴 허영.
@ 양? 양젯물?
#2 예, 양젯물 꿰왕 데가리레 던져분덴 허고, 도.
@ 무사 경 ᄀᆞᆯ아수가?
#2 여자 가민 이제 검질 짓넨.
@ 아.
#2 농사 안 뒈고. 또 이제 부제 돈, 저, 돈 하곡 밧 하곡 재산 좋앙 부제로 사는 사름은 오민 헤영헌 산디밥, 곤밥 헹 주곡, 경 헤나수다. 우리 다른 사름은 몰르쿠다만은 우린 못 사난양, 우리 씨어머니가 경 허는 걸 나가 봐수다. 게난 무사 어머니 곤밥 헴수가? 허난에 아이고, 저 어룬이, 잘 살아 부난에 우리 집이 와신디 오래간만이 와신디 밥 헹 안네사 허느녜 허멍 곤밥 헨에 혼번 안네낫수다, 산디쏠로.
@ 산디쏠로.
#2 예, 게난.
@ 곤밥 아무나 안 헤 주는디.
#2 예, 경허난 저 부제칩 사름이난에 새철, 새헤에 농사 잘 뒌덴. 그런 식으로 저 곤밥을 헤영.
@ 음, 그 사름 닮아근에 농사 잘 뒌덴 허는구나.
#2 예, 그 복을 좀 얻어근에 잘, 저 농사를 잘 뒈곡.
@ 어.
#2 또 여자는 이제 놈의 집이 가민 검질 짓곡 농사 아니 뒌덴 옛 어룬덜 이제 양젯물 꿰왕 데껴, 저 데가리더레 치대겻젠, 우리 저 씨어머니가 살 때 그 말 들어나수다.
@ 아이고, 잘 알암수다게.
#1 (웃음)
#2 난 우리 어머니 ᄀᆞᆯ은 말로.

잡담

@ 나도 이거 조사도 각 마을로 하영 돌아다니곡 헤신디 많이 알암신게마씨.
#2 (웃음)
#1 그런 건 철저해마씀.
@ 아니 처음이 아닙주게.
#2 맞수다게.
@ 이것저것.
#1 잘 들읍서, 뭐.
@ 게난 이거 헤근에 이거 워드 쳐근에양, 다 책으로도 나오곡 헹은에 다.
#2 예. 게난 안 뒌 거랑게 편집허멍 짤라 붑서게.
@ 아니, 아니, 이건예.
#2 예.
@ 에, 허면은, 만약에 기침 소리 허면 기침 소리까지 적어줘야 뒈어.
#2 아.
#1 아.
@ 이제 서로 웃은다 허면 웃는 거까지 적어줘야 뒈어.
#2 아, 경허는 거꽈?
@ 예, 이건 정확허게.
#2 난 처음이라 부난 아니 그 영화에나 뭐 보면 안 뒌 거는 테레비 보면 안 뒌 거는 편집허멍 짤라 불주게. 경허멍 아 나 헌 거 안 나왐신게. 거 안 뒈 부난 편집헨 짤라 벳주.
@ 아, 그거허곤 틀려.
#2 아, 게메 경ᄒᆞ건 그말 들어봔 나가 곧는 겁주게.
@ 여긴 그대로.
#2 아.
@ 건디 영 보면은 사름 이름이 나올 거 아니우꽈양?
#2 예.
@ 사름 이름은 나중에 좀 그 개인동의서 그런 것이 필요헤 가지고 똥그라미 똥그라미로 허여, 사름 이름은.
#2 아, 김 자민 김 안 나오곡 영 자민.
@ 예, 똥그라미 똥그라미.
#2 똥그라미 헹 나오곡.
#1 게난 이름을 안 밝혀?
@ 예, 안 밝힙니다.
#1 아.

우수

@ 그다음에 우수 알아지쿠가? 절기. 우수에 대헤서 흔 번 굴아줍서.
#2 우수는 여기, 그런 건 안 샙니다.
@ 우수날 뭐 비옵니까?
#2 아니 그런 것도 원 우수 지나가는 걸 몰르게 삽니다. 우수 지나가민 지나감신가 허주, 그자.
@ 경 뭐 어떵 우수에 비 오민 농사 잘 된다 그런 말도?
#2 그런 말도 엇어마씀.
@ 그냥?
#2 예.
@ 넘어가는 거?
#2 경 허곡 비가 만헤서 그 헤에 비가 많이 오지 아녑니까양? 많이 오민 아이고 올린 정월날에, 정월날에 저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에 나오지 안헙니까. 경 허면은 정월 초ᄒᆞ룰날에 이제, 아, 정월 ᄎᆞᄒᆞ룰날이 아니고 그 정월 들어근에 이제 진ᄉᆞ일에 이제 걸쳐서 비가 이제 그 헤에 많이 오면 이제 뱀날에 뱀이 저, 용날에 올린 용이 멧 갠고, 비가 하영 왐저. 또 비가 안 오면 올린 용이 ᄒᆞ나만이난 ᄀᆞ물암신가, 옛 어른덜 경 곧는 거 들엇수다. 겐 이런 땐양 우수나 무시거 그런 것에는 아니, 곧는 거 아니 들어봣수다.
@ 음.

방에

@ 방에 알지양, 방에?
#2 예, 방에 짛는[지는] 거.
@ 방에 부찌는 거.
#2 예, 방에, 아, 방에 지는 것이 말고.
@ 방에 그 산에 불 부찌는 거.
#2 예, 산에 방에 부찌는 거.
@ 옛날 거 하영 부쪄수다게.
#2 예.
@ 촐 잘 뒈게.
#1 촐 무슨.
#2 촐 저 무슨거 촐 저 묵은 각단. 방에 아니 부뜨민 묵은 각단 나민 낫 안 든덴 헤영 강 부쪄근에 새 고사리, 새 풀이 나민 낫, 낫, 저, 촐 비젠 허민 낫 잘 들렌 헹 부쪄낫수게, 방에덜. 겐디 이젠 헴수가? 못 허게 헴주.
@ 아, 게난 그거 방에 부찐 디 강 불 꺼 봅디가?
#2 아니 불 끄레 안 가봐수다. 그디 고사리 거끄렌 가낫수다, 방에 부뜬 디.
@ 게난 요즘 보면 저 들불축제.

#2 예.
@ 거 방에 부찌는 걸 거 재연헌 겁주게.
#2 예, 맞수다게. 겐디 이딘양 기자 이녁 뎅기멍 헹 누게가 불 짇어 벼근에 방에 놧주. 개인으로 가근에 우리 밧디 가근에 저 새 풀 나젠 불로 부찌는 사름은 엇수다.
@ 옛날은 역불로 부찌기도 헷어.
#2 예, 경 헤주만은 이딘 그런 걸 안 헤봣수다. 겐디 그때 뒈가민양 자연으로 어딜로 누게가 부찌는디 부쪄근에 다 카마씀. 동넷 사름덜 가근에 우리 방에 놓레 우리 촐왓디 강 새 풀 나게 묵은 각단 다 타불게시리 불 나게시리 가게 강 다 불 부찌젠 헌 사름은 못 봣수다.
@ 그 뭐냐 저 (기침) 여기 목장 잇수가? 목장?
#2 예. 목장 다 풀아 볏수다.
@ 돈 줘가난 풀아 불엇구나.
#2 예.
#1 옛날은.
#2 목장은양 하우다. 생계동산목장 잇어, 넙건이목장 잇어, 구메기목장 잇어, 목장이 세 개라도 커마씀. 게난 거 다 저 풀안.
#1 목장조합이서 풀아부니까.
#2 우린 조합에 우리 아부지가, 시아버지가 그런 옛날에는 큰아덜만 들어나난 우리 아버지는 세 번째난 그런 것도 저 들지 못허난에 목장에 얼마 받앙 푼 중도 몰르고, 돈덜 하영 받앗젠덜은 헙디다마는 우린 그런 것에 관련이 엇수다.

이월

영등

@ 그다음에 이월로 가쿠다양.
#2 예.
@ 영등에, 아까 영등에 대헤서 잘 굴앙게마는 영등에 대헤서 혼번 굴아줍서.
#2 영등에는.
@ 우선 그 기간은?
#2 양?
@ 영등 기간?
#2 영등 기간 혼 둘.
@ 거난에 정월.
#2 저 정월 보름에 들어와근에.
@ 으.
#2 이제 이월 보름에 나간덴 허곡, 비가 하영 오면은 부제칩 메누리 들어왓젠, 둘앙 들어왓젠 허곡, 벳만 과랑과랑 나민 아이고 가난헌 메누리 둘앙 와부난 날만 영 좋암

저 허곡, 그추룩덜 헙니다, 이디.
@ 영등.
#2 예.
@ 그 어디서 들어옵니까, 영등은?
#2 영등은 어디 그거 들어오는 건 몰르곡, 나갈 때는.
@ 나갈 때는?
#2 나갈 때는 이월 보름날 우린 여기서 이월 열이틀날 영등에 ᄆᆞ슬캉은에 저 허주만은, 소섬에서는 이월 보름날 저 배 놓곡 헹 거기서 헹 보낸덴 헙디다.
@ 소섬에서 보냄구나.
#2 예. 거기서 또 어디 시에서는 영등굿 사라봉에서 허지 안헙니까?
@ 영등굿 허여마씨.
#2 예, 방송 허는 거 보면은.
@ 영등굿 그 저.
#2 굿당 잇지 안허우꽈?
@ 그디도 잇고.
#2 예.
@ 거기. 보전 지역.
#2 여기는. 방송허는 거 보민 영등굿 헴젠 방송은 나오는 건 봣수다마는 여기선 기자 그 ᄆᆞ슬카근에 거기서 기자 심방이 공연 올려근에 그자.
@ ᄆᆞ슬카근에, ᄆᆞ슬캉은 뭐우꽝?
#2 ᄆᆞ슬카는 것이 아까 당에 가는 것이 ᄆᆞ슬캄이엔 헙니다.
@ 아, 당에 가는 거.
#2 예, 당에 감젠 안 ᄀᆞᆯ앙 ᄆᆞ슬캄젠 경 ᄀᆞᆯ읍니께.
@ 아.
#2 또 본향에도 감젠 허곡.
@ 아.
#2 이름이 경 뒈부난 ᄆᆞ슬캄젠양, 저 ᄆᆞ슬 어느제 갈 거니? 경 헹 들으민 메칠날 갈 거우다. 야 본향에 어느 때 갈 거니? 허민 어느 때 갈 거우다 허고. 기자 그 두 가지 난양. 저 이 말 ᄀᆞᆫ는 사름도 잇곡 저 말 ᄀᆞᆫ는 사람도 잇곡. 게고 이젠 옛날ᄀᆞ추룩양 젊은 사름덜은 안 뎅경, 기자 흔 칠십오 세 이상벳기 안 다녕수다. 팔십오세도 잇고, 팔십세ᄁᆞ지벳기.
@ 으.
#2 막 줄여젼예.
@ 맞수다게. 이때 영등제 금기사항은 엇수가?
#2 영등제 금지사항, 무신.
@ 금기사항.
#2 엇수다게.

@ 엇어?
#2 예.
@ 뭐, 뭐 허지 말라 뭐 그런 거.
#2 엇수다.
@ 그런 건 엇고.
#2 예. 게난 저 텃밧디 콩이나 무시거 씨들이민양 이제 영등하르방 나가기 전이 심그면은 저 컵에나 보시에나 영등하르방나시 씨를 문여 놔둬 경 헹 콩이라도 싱그민 콩은 잘 뒈고 그걸 영등하르방 직시 안 놔둬은 그 콩이 잘 안 뒙니다.
@ 으.
#2 모든 이제 농사가.
@ 그거 좋은 말이우다게.
#2 예.
@ 그런 거.
#2 경허난에 게민 우리도 이제 텃밧디 이제 강낭콩이라도 이제 싱그젠 허민 이제 구젱기닥살이나.
@ 여기 텃밧이엔 헙니까? 우영팟이엔 헙니까?
#2 우연팟이엔 헙니다.
@ 예.
#2 예, 우연팟이 이제 콩이라도 이제 봄이 싱그젠 허민 이제 그 영등하르방 나가기 전에 농살 허젠 허민 영등하르방 직세에 구젱기닥살 소곱에라도 콩 혼 방울을 놓곡. 또 다른 거라도 허젠 허민 다른 거라도 이제 무신 저 컵이라도 놔근에 문여 하르방 나시 씨를 드려둬사 그 콩을 밧디 심어사 뒈주, 경 아녀믄 안 뒙니께. 다른 딘 몰르쿠다마는 우리 이 지역인 경 헙니다.

삼월

한식 멩질

@ 이제 삼월로 가쿠다양.
#2 예.
@ 한식 멩질 헤납디강? 한식, 한식 때 뭐헤마씨?
#2 한식 때 저 벌초허레 산에 가는 거 아니꽈? 그건 쳉명도, 쳉멩옌도 허곡 한식옌도 허잖읍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 아니, 아니 그다음 삼월 앞에 안 헤졋네.

경칩 · 춘분

@ 경칩.
#2 예.

@ 경칩에 대헤서 흔번 굴아줍서.
#2 경칩은 우리 그런 거 안 헙니다.
@ 개구리가 뭐 깨 난다 뭐.
#2 예, 그건 방송에는 뭐 경칩이 지나민 개구리가 나왓젠 허주마는. 여기는양 시골이라도 그런 것에 전문으로 연구허는 사름덜이 엇어 부니까, 그자 개구리 나와시민 나와신가, 저 주넹이 뎅겸시민 뎅겸신가 허주, 경칩 지나부난 이제, 경헤도 그 철은 절기는 무시 못 헤양.
@ 예.
#2 그거 지나면 개구리도, 이제 개구리는.
@ 아까 개가비?
#2 가가비.
@ 가가비.
#2 예. 가가비는 이제 장마 때.
@ 으.
#2 장마 때도 이제 요즘은 물통덜 다 뭬와 부난 허주만은 옛날엔.
@ 거 멩마구리 아니? 건.
#2 예.
#1 멩마구리허고 틀립니다. 가가비허고 멩마구린 틀려.
#2 예, 가가비는 이제 두꺼비가 가가비가?
#1 아니, 개구리가 가가비.
@ 개구리.
#2 아, 경허난.
#1 개구리가 가가비.
#2 이제 가가비, 그 민물에덜 가가비 하낫수다게. 게민 아까 나 앞이 굴은 거, 요디 큰샘물이엔 헌 디 강 보민 막덜 돌 에염이덜 모다져근에 비와 가민 각각각각각각각 헤가민 ᄉᆞ나이덜 엿댓 술 여남은 술 난 아이덜이 그것 강 돌로 던져근에 잡앙 거기서 구웡 먹으멍 가죽 벳기멍.
@ 다리, 다리?
#1 다리.
#2 예, 다리 구웡 먹으멍덜 옛날에 경 헤낫수다게. 경헌디 이제 저 그추룩 허다근에 저 경칩 지나면은 이제 질레 가가비도 ᄒᆞ나썩, 이젠 잘 못 봐양?
@ 으.
#2 경허민 이제.
@ 농약 막 헤 부난게.
#2 예, 농약 헤 부난, 게난 이젠 춤 절기는 무시 못 허다, 그런 것덜 뎅겨가민. 그자 우리만 기자 경 중얼거리주, 여기서 그런 무시거는 한식허거나 경칩에나.
@ 그 춘분에 대헤근에 굴아줍서.

#2 춘분에도 그런 것도 안 헙니다.
@ 춘분도 잘 모르고양?

한식 멩질

@ 그다음에 삼월로 가근에양?
#2 예.
@ 한식, 아까 멩질에 대헌 거?
#2 예, 한식에는 이제 산에 벌초허는 사름덜양. 이제 봄벌추 허는 사름도 잇고 또 산에 무시거 문직을 사름덜양, 무시거 이제 낭이라도 끊곡 무시거 허곡. 또 집이도 이제 저 신구간에 이제 허지 못허민 쳉멩에 이제 낭을 ᄒᆞ나 끊으나, 담을 ᄒᆞ나 영 옮기나, 이제 어디 세멘이라도 이제 벌러진 디 이시민 세면ᄀᆞ루라도 볼르나, 이제 쳉멩엔 또 그런 거 헙디다.
@ 이때 묘젠 안 헙니까?
#2 묘제마씀?
@ 으.
#2 아, 묘제는 여기 그 집안마다 틀립디다. 이제 벌초허레 갈 때에 묘제 출령 강 허는 사름이 잇고, 또 아니 우리 집안에 삼월 초열흘날 날짜를 이제 정헤젼에.
@ 음력 삼월 초열흘날예?
#2 예, 헙니다마는 이제 내년부떠는 이제 삼월 들어근에 양력으로 이제 쳇 일요일날 이젠 다 근무덜 허게 뒈부난양, 일요일날로 올리 결정은 헷수다마는 이제 그추룩 헤근에 헙니다.
@ 게난 우리 동네도 저 묘제는 음력 삼월 뒈어근에 헙니다게.
#2 예.
@ 삼월 초ᄒᆞ루부떠 그뭄까지.
#2 예.
@ 게난 우리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묘제를 세 번 먹어야 뒈어마씨, 세 번.
#2 아, ᄒᆞᆫ 집안이 세 번?
@ 막 웃대 허는 디 ᄒᆞᆫ 번 먹고, 그다음에 중간.
#1 예.
@ 그다음 우리 가족.
#2 예, 게난 다 묘제꽈? 묘제 시제도 잇수가? 묘제도 잇고 시제도 잇지 아녑니까?
@ 시제는 시월달에 허지 안헙니까? 시제?.
#2 아니, 시제는 시월달에 아녀고, 묘젠, 묘제는 우리 집안엔 경 헤낫수다. 묘제를 허다가 그 묘젯날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ᄌᆞ순덜이 가기 힘드난 집에서 이제 지내는 거는 이제 시제로 허자. 그추룩 헨 시제로 허단 이젠 또 자연 공동묘지를 만드난 이젠 또 벌초허는 날로 묘제 지냄수다마는.
@ 우리, 우리가 저 김해김칩입주게.

#2 예?
@ 김해김씨.
#2 아, 김해김씨꽈?
@ 예.
#2 나도 김해김씬디.
@ 그 무슨 좌정승공파꽈?
#2 아니 우린 어디서, 저.
@ 삼연파?
#2 저 삼연파.
@ 삼연파?
#2 게난 멧 대꽈?
@ 우리 김수로왕에 우리 칠십삼 대.
#2 난 이십이대 주손인디.
@ 아, 여기서?
#2 예.
@ 저 입도?
#2 예. 입도 이십이대.
@ 나가 입도 이십육인가 경 뒐 거라.
#2 이십육이우꽈? 아니 나보다 밑에로구나게. (웃음)
@ (웃음)
#2 그건 그러우다마는.
@ 그 청명, 그 한식 청명 때 그 저 이런.
#2 아까 굴은 게 그거 아니우꽈?
@ 예, 산 가근에 영 돌보곡양.
#2 또.
@ 산담 손질도 헙니까?
#2 산담, 예. 산담 클어진 것도 손보곡. 옛날에는 그 이젠 다 이묘 화장덜, 이묘헤 볏주만은 아니 헷을 때는 영 산이 고망 나지 안헙니까? 쥉이 파 비엉.
@ 으.
#2 경 허민 이제 큰아덜 메누리가 가근에 이제 치마에 흑 팡 그디 강 그거 메꾸멍 헤낫주마는 이젠 그건 쳉멩에 헤낫젠, 우리는 안 헤봣수다마는 주위 사름덜이 경 헌덴 곧는 걸 들어신디 우리 안 헤봐수다.
@ 음.

사월

사월 초파일

@ 그다음에 에 초파일, 사월로 강양?
#2 예.
@ 사월 초파일에 대허영 굴아줍서.
#2 사월 초파일에는 절간에 다니는 분들은 강 등 싸곡양.
@ 으.
#2 등 싸곡 또 절간에 안 다니는 분들은 또 등 안 싸고 경 헙니다.
@ 그 절간에 뎅겸수가?
#2 우리는 절간에는 아녀고 이제 조그만헌 암자에 다녀낫수다게. 암자에 다니단 그.
@ 여기 잇수가?
#2 돌아가셔 부난 이젠 안 다념수다.
@ 으.
#2 게난 오직 이제 본향 ᄒᆞ나만 믿언 다념수다.
@ 암자민 저 아흔아홉골 쪽에도 잇어이?
#2 아, 아니 여기는 집에서 암자로 헨에 보살 할망, 예.
@ 아, 집에 개인이 허는 뭐가 잇구나.
#2 예. 개인 할망이 헤낫수다게. 애기덜 보고.
@ 으.
#2 경헌디 잇당 그 저 보살님도 돌아가기 전에는 ᄉᆞ월 초파일날 등 싸마씸.
@ 으.
#2 사월 초파일날 등 싸곡 또 칠월칠성에 가곡. 또 동지에 강 또 동지 죽 쒕 먹곡. 경 허단에 그 보살님이 돌아가셔 부난 설러비엇수다.
@ 음. 이때 어린애기덜 이발도 허지 안헙니까양?
#2 옛날 애기 때는 머리 잘 나렌 저 초파일날 대가리 멘짝허게시리 까까볏수게.
@ 까깡양? ᄉᆞ월 초파일날.
#2 예. ᄉᆞ월 초파일날 까끄민 머리 잘 난덴 허멍덜 허는디.
@ 것도 아니.
#2 게난 우린 헌 아인 헤보고 아년 아인 안 헤보고 허난.
@ 마찬가지 아니?
#1 마찬가지.
#2 마찬가지 닮수다.
@ (웃음)
#2 예, 기자 옛 어른덜 기자.

입하 · 소만

@ 입하, 소만에 대헤근에 흔 번 굴아 줍서.
#2 소한마씀?
@ 소만.
#2 소만이 뭐꽈?
@ 이 절기주게.
#2 예.
@ 게난 잘 모르지양?
#2 예, 그런 거.
@ 입하, 여름, 여름 오는 거.
#2 예, 아녑니다, 아무 것도.
@ 입하.
#2 게난 옛날에는 저 무시거꽈? 저, 아고, 그 유월절이 뭐꽈?
@ 망종.
#2 아니 그건 옛날에 망종에는, 어.
@ 이거 나중에.
#2 아, 그때 뒈엉 굴으쿠다. 그런 거 엇이 삽니다, 이디.
#1 딱 지금 춪지 아니허여.
#2 그때도 안 춪앗수다게.
@ 으?
#2 그때도 안 춪앗수다.

오월

단오 멩질

@ 그다음에양, 단오 멩질 헤나수가?
#2 단오 멩질은 헤낫수다.
@ 어, 그거에 대헹 흔 번 굴아 줍서.
#2 단오 멩질은 기자 그것도 팔월 추석에나 ᄀᆞ치, 똑ᄀᆞ뜨게 헷수다.
@ 단오.
#2 예, 게난 그때는 단오 멩질은 먹으렌 안 다니고.
@ 으.
#2 먹으렌 안 다니고.
@ 집이서만?
#2 이녁 집이서만 기자 헨 지내단에 뭐 설러 불겐덜 친촉덜이, 설러 불겐 헨에들 설러 벳수다.

망종

@ 망종에 대헹 ᄀᆞᆯ아 줍서.
#2 예, 망종옌 옛날 어룬덜 망종 넘으민, 저 망종 넘은 보리 엇넨 헤여근에 망종 전이 보리ᄀᆞ슬들 다 헤수게.
@ 게난 선 보리던 익은 보리던 망종 넘으민 다 비렌 헤수게양?
#2 예, 망종 넘으민 보리 엇넨 허고. 또 보리ᄂᆞ릇에 이제 춤 그 ᄉᆞ월에 ᄂᆞ릇이 잇지 안허우꽈게? 게민 늙신네 저 보리 망종에 노인덜 돌아가신, 늙신네 돌아간다 허멍 헌 말은.
@ 으.
#2 아침에 추웡 추워근에 돌아간덴 허곡. 망종 넘기 전에 보릴 다 헙주게.
@ 거난 이 계절 바뀔 때 사름이 많이 돌아가셔.
#2 예.
#1 보통 옛날엔 그런 현상이 많이 뭐.

하지

@ 그 하지에 대헤근에 ᄀᆞᆯ아 줍서?
#2 예, 하지에는 저 웃드르 가근에 밧 ᄇᆞᆯ리는 거양? 조, 밧. 하지 이제.
@ 하지 때 조팟 ᄇᆞᆯ립니까?
#2 예, 저 막 웃드르 가근에 ᄀᆞᆭ인 밧덜.
@ 으.
#2 ᄀᆞᆭ인 밧덜 이제 하지에 가근에 조 ᄇᆞᆯ리곡, 피도 ᄇᆞᆯ리곡 헤낫수다게.
@ 으.
#2 경허곡 이제 또 ᄒᆞ끔 존 밧덜은 이제 유월절 전 삼일양.
@ 으.
#2 유월절 이제 전 삼일로 헤여근에 고구마도 이제 그때 놓곡. 조도 이제 그때 ᄇᆞᆯ리곡, 저 존 밧덜은. ᄀᆞᆭ인 밧은 하지에 ᄇᆞᆯ리고, 이제 하지에 산디도 이제 갈고. 이제 유월절 넘으민 이제 고구마도 잘 안 들곡 ᄒᆞ루가 틀리게시리 이제 고구마도 허고. 유월절 넘어가, 유월절 뒈민 이제 좁씨도 이제 족박에서 튄덴 헤근에, 에 땅에 들어가민 제기 난덴 허멍, 옛 어룬덜 ᄀᆞᆫ는 거 들엇수다.

유월

둑 잡아먹는 날

@ 그다음에 유월달에 강양.
#2 예.
@ 둑 잡아먹는 날 잇지 안허우꽈?
#2 유월 열아흐렛날, 아니 유월 스무날.

@ 유월 스무날.
#2 예.
@ 거기에 대헹 흔 번 굴아줍서.
#2 그땐 뭐 검질메레 가근에 아이덜신디레도 아이고 제게 메라, 재게 메라, 유월 스무날랑 둑 잡앙 주마, 둑 잡앙 주마 허멍 헤근에, 둑 그땐 집이덜 하영 질루난에양.
@ 으.
#2 수정 하민 기자 서너 무리 잡아근에 기자 헹 먹어십주.
@ 게난 이때는 저 둑이 하지 안헌 때난게, 둑 잡아먹는 날 따로 정헌 거 닮아.
#2 예, 경허난 돈 엇엉 사지도 못허고.
@ 아까 여자 삼춘도 말헷주만은. 오널 초복인디 삼계탕 먹는 날.
#1, 2 (웃음)
@ 거 아무 때 먹어도 뒙니다게, 이젠.
#2 아니, 그건 나 기자 굴음이엔 굴앗수다마는.
#1 옛날은 그, 하여간.
#2 유월 스무날, 유월 스무날 막 기다렷수게, 아이덜 밧디 강.
@ 경, 경 헙니다.
#2 밧디 강 검질 메멍도양.
#1 요즘에 왕 그런 게 엇주, 옛날엔 경.
#2 굴각지 심엉 검질메난.
@ 그거 먹어보젠게.
#1 예.
#2 예, 굴각지 심어근에 게나제나 혹, 저 돌 줏아가민.
@ 굴각지가 뭐라?
#2 검질메는 것ᄀᆞ라 저딘 호미엔 헙니까? 이딘 굴각지엔 헙니다.
@ 굴겡이.
#2 굴각지이엔도 허곡 굴겡이엔도 헙니다.
#1 이딘 굴각지엔도 허곡 굴겡이.
@ 굴각지.
#1 굴각지. 사투리로.
#2 굴각지.
#1 건 제라헌 사투리우다. 굴각지.
@ 아, 굴각지.
#1 명언이라.
#2 굴각지.
@ 굴겡이.
#2 굴겡이, 우린 여기선 굴각지. 호미, 쉐스렁, 궹이 그추룩 헙니다.
@ 호멩이는 안 들어봣지양?

#2 호멩이는 거 육짓 거 아니꽈?
@ 게메.
#2 예.
@ 경상도.
#1 호미.
#2 호멩이, 육짓 거 넙작헌 거.
@ 으.
#2 예.
@ 그다음에 삼복, 아까 말헷주만은 초복, 중복, 말복에 대헹 혼 번 골아줍서.
#2 그건 넘어가는 중 몰릅니다. 요즘 사름덜이난 초복에 둑 먹곡, 중복에 먹곡, 말복에 먹곡 헷주만은 옛날엔 말복 지나민양 저 미시거는 헷수게. ᄆᆞ믈 칼앗수다[카라쑤다].
@ ᄆᆞ멀 갈안[카란]?
#2 예, 메밀.
@ 모믈?
#2 요즘은 메밀이엔 허주, 옛날엔 ᄆᆞ멀.
@ ᄆᆞ멀, ᄆᆞ멀.
#2 ᄆᆞ믈 갈앗수다.
@ ᄆᆞ멀 갈안양.
#2 저, 이제 그거 저 그거 끗나면은 말복 지나면은 이제 ᄆᆞ믈 파종 이제 헤사주, 그 전이는 이제 저 안 뒈어마씀.
@ 아, 근디 이제는 모멀도 두 번 갈더라고.
#2 예, 봄ᄆᆞ믈 이제 갈고.
#1 가을ᄆᆞ믈.
#2 가을 거 갈고 경 헷수게.
@ 경 헴서.
#2 예.
@ 모멀이 빨리 뒙주게.
#1 예. 속성, 속성 작물이난.
#2 게난 그 저 봄에 가는.
@ 경 허난에 구황 작물이엔 허여.
#2 예, 봄에 가는 거는 저 무시거 조생. 조생 아니우꽈?
@ 막 저.
#1 조생, 만생.
@ 거 보조헤줌덴 헙니다.
#2 예.
#1 아, 경 허는 모양 닮읍디다, ᄆᆞ믈 가는 디.

@ 모멀 하영덜 갈암서.
#2 올린양, 막 하영 갈앗수다, 우리 동네도 막 하영 갈안. 겐 그 그루에 이제 무수 갈아도 뒈곡, 당근 갈아도 뒈곡.
@ 게난 나 들은 말인디 모멀크르에는 풀이 엇덴 허데이?
#2 예, 하도 줓게 갈안에양.
@ 으.
#1 풀 못 나게 만들아.
#2 풀 못 나게시리 하도 ᄌᆞ직허게 갈아놓난에.
@ 게메.
#2 비어놓난에 기자 그걸로 한 또 저 트럭차로 앗단 밧 갈아 부난 노타리 쳐 부난 복삭헤십디다.
@ 예. 검질이 안 난덴.
#2 예.

조 불리기

@ 조 불리는 것에 대헹 골아줍서.
#2 조 불리면은 이제 그 하지에는 웃드르 밧디 가근에 그걸로 불리곡. 또 물 엇인 사름은 삼테 잇지 안허우꽈?
@ 삼테, 저 머. .
#2 삼테기.
@ 저 뭐게.
#2 나무로.
#1 나무로 만든 거.
#2 낭으로 만든 삼태기.
@ 저 섬비.
#2 아 여기는 삼테기옌 헙니다.
#1 삼테.
@ 삼테기, 삼테기가양,
#1 삼테.
@ 표준어가 골체우다, 골체. 겐디 그 섬빈데, 섬비.
#2 그거는.
#1 섬비?
#2 섬빈지 골첸지 그건 몰르는디.
@ 끙게, 끄는 거?
#1 아, 끄는 거, 끗엉은에 저 밧.
@ 표준어로 그 끙게, 끙게.
#2 아 그거는.

@ 섬비.
#1 섬비?
#2 그거는.
@ 여긴 섬비엔 안 허영 삼테기이엔 허여마씨?
#2 삼테기로 저, 물 이신 사름은 물로 불리고.
@ 으.
#2 엇인 사름은 그걸로 헤근에.
@ 그거 끗엉게, 돌 우티 두 개 놔근에.
#1 예.
#2 돌?
@ 사름으로.
#2 아니우다.
#1 아니 물에도 영 헹 저.
#2 그것이, 그것이.
#1 질메 메영은에.
@ 아 거난 돌을 영 놔야.
#2 아니우다게. 돌 안 놓곡양.
#1 벵벵 돌멍 그.
#2 이추룩 헙니다, 이추룩.
@ 아.
#2 이렇게 낭인디예? 이디가 다 쌀을 박아 가지고, 삼테기우다.
@ 삼테기가 아니라.
#1 영 타이아.
@ 아이.
#1 저 말목 다 박아진 거.
@ 으.
#2 예, 그건 우리 이디선 삼테기옌 헤낫수다.
#1 뱅뱅 돌믄 그걸로 눌러지는 거.
@ 삼테기.
#2 예, 게난 그 물 엇인 사름은 그걸로 불리곡.
@ 맞아.
#2 물 이신 사름은 그 테우리.
@ 흑 더퍼지는 거게. 섬비.
#2 예, 테우리옌 헙니께.
@ 낭, 낭으로.
#2 그건 끄스기.
#1 끄세기.

#2 끄세기.
@ 끄세기옌 허여?
#2 예, 여기선 끄세기옌 헙니다.
@ 끄세기.
#2 예, 낭덜양, 짝짝.
@ 저쪽에 섬비.
#2 아.
#1 게난 지역마다 말이 좀 틀려.
#2 예, 남 가지 신 거 끊어다근에 이레 영 놔근에 영 헹 무끄민 퍼지지 아녑니까?
@ 으, 맞아.
#2 영 헹 퍼졍 요딘 쫄아지게 무끄곡 요디 또 안으로 이제 ᄀᆞ른대 ᄒᆞ나 놔.
@ 으.
#2 놓곡 우이도 ᄀᆞ른대 ᄒᆞ나 놓곡 헹 딱 무끄민 그거 끗어가민양.
@ 우티 돌 두 개 놔근에?
#2 아니 돌 안 놔.
#1 돌 안 놔도.
#2 그것만 헤도 버칩니께.
#1 버쳐, 버쳐.
@ 아.
#2 또 소낭 가젱이[까젱이] 꺼꺼당 허민 더 잘 뒈는디 버쳐.
@ 으.
#2 또 대강 무시걸로 허느냐면은 볼레낭.
@ 으, 볼레낭.
#2 예, 볼레낭 끊어당 그걸로 하영 헤낫수다게. 경 헤근에 또 산디 갈아도 그걸로 끗곡, 또 이제 그 저 초복에는 이제 밧 굿인 디덜. 밧 굿인 디 가근에 이제 그거 불리곡 허주만은 유월절 지나면은 유월절 뒈면은.
@ 유월절은 메칠이꽈?
#2 유월절이 칠월 칠일날 아니우꽈? 양력으로. 거 지적뒛수다게.
@ 유월.
#2 유월절이 예 칠월 칠일이가 소서.
@ 으.
#1 카렌다 안 봐도 기자 뭐 착착허게.
#2 칠월 칠일이 소서우다게.
@ 소서 때가 유월절?
#2 예, 유월절.
@ 아, 소서가 유월절.
#2 예, 소서가 유월절이우다게.

@ 대서는?
#2 대서는, 대서는 칠월 메틀인고? 아, 팔월 메틀일 거우다.
@ 다 십오 일 차이주게.
#2 예.
@ 항상 절기는 십오 일 차이.
#1 십오일 차이.
#2 예. 그거 계산헤보민, 그런 것엔 저.
#1 날짜가.
#2 여긴 엇인가?
@ 소서.
#1 예.
@ 소서, 소사가 유월절?
#2 예.
@ 양력 칠월 칠일.
#2 예, 칠월 칠일이 허곡 또 이제 저 뭐꽈? 저.
#1 대서?
#2 아니, 대서 말고, 저.
#1 중복?
#2 신구간 헐 때, 저 아니. 이월, 이월 사일날 드는 것이 뭐지?
@ 입춘게.
#2 아, 입춘, 입춘이 이월 사일날허고, 양력으로 경 다 박아지지 안헤수가?
@ 아, 하루 차이라, 삼, 사 뒐 때가 잇어.
#2 예.
@ 삼일 아니민 사일.
#2 예, 경 허난 항상 일월, 일월 사일날.
@ 큰둘, 족은둘 헤근에.
#2 이월 사일날이 저 항상 입춘으로 뒈고.
@ 예, 게난에 그 절기는 양력입주게.
#2 예, 양력.
@ 양력으로 다 허는 거난에.
#1 으.
@ 거난 유월절은.
#2 칠월 칠일.
@ 양력 칠월 칠일이.
#2 칠월 칠일이 소서가 유월절.
@ 아 소서가 유월절.
#2 현대식으론 소서고.

@ 음.
#2 옛날식으로 허면은 유월절.
@ 그렇구나. 거난 조 불릴 때, 그, 저 사름으로도 불리고?
#2 사름으론 사름으론 못 허고. 아까 굴은 끄스기 잇지 아녀우꽝?
@ 으.
#2 끄세기나 이제 궂인 밧은 강.
@ 끄세기 허면은 우리 동네선 섬비.
#2 아.
@ 그거나.
#2 예, 그거나 이제 또 웃드르 밧 가근에 이제 불릴 때는, 밧 궂인 거양? 자갈밧이나 이추룩헌 디는 그 저 삼테기 아졍 강 끗곡.
@ 삼테기?
#2 예, 또 잘사는 사름덜은 물 빌어다근에 불리고.
@ 물 빌어당?
#2 예, 그것도 물 허는 사름ᄀᆞ라.
@ 쉐, 쉐로는?
#2 쉐로는 잘 안 불립니다.
#1 쉐론 잘 안 헤.
@ 쉐로는?
#2 예.
#1 불리는 거 물.
#2 게난 그 저 물로 밧 불리레 뎅기는 사름ᄀᆞ라 테우리옌 헙니께.
#1 테우리.
#2 밧 불리레 뎅기는 사름.
@ 거난 물은 뿔이 엇이난에 거 어떵, 어떵 무꺼근에 불려?
#2 아니, 게난 ᄒᆞ나만, ᄒᆞ나만 무껑 대장만 끗엉.
@ 아, 대장만 끗이민 졸졸 좇아왐구나?
#2 예, 대장만 끗으민 녹대 잡으면 물 무제미 씌와근에.
#1 뒤에 ᄆᆞ는 사름이 잇주게.
#2 예, 녹대 심으면 이제 그거 ᄒᆞᆫ 사름 이끄곡, 뒤에서 이제 막뎅이 심엉 이제 그 밧 불리는.
@ 다울리곡?
#2 예, 밧 다울리지 아녀도 자동으로.
#1 아니 막뎅이만 들르민 물덜이 딱.
#2 밧불리는 소리허멍 이제 자동으로 다 뒈.
#1 어러러러헤 가민 물 도망가지 아녀.
#2 우린 안 헤봣수다만은양.

@ 으.
#1 경 다 허여. 옛날엔.
@ 그 어떤 딘 저 이 쉐로도 불려마씸, 쉐.
#2 아.
@ 우리 동네는 물 엇이난에 쉐로 불려.
#2 아, 게난 그 지역마다양, 난 우리 지역엣 것만 골으쿠다게.
@ 맞수다게.
#2 예, 그것만 질문헙서.
@ 겅 허난 여기 온 겁주.
#1 (웃음)
#2 예, 그 지역에 말랑 곧지 맙서게.
#1 이 지역엣 것만 허여.
#2 우리 허는, 우리 하천리 마을에 허는 것들, 이웃 마을도 몰르쿠다게. 우리 사는 동네, 우리는 하천리 상동, 중동, 하동이난 상동이서 허는 것만 나가 들으민 골아 안네쿠다.
@ 신풍리 거허고도 다르고.
#2 신풍리는 옆이난에 나 어린 땐 시집와 부난에 몰르쿠다.
@ 다음에 신풍리 갈 거.
#2 아, 신풍리 갈 거꽈?
#1 (웃음)
#2 아.
@ 나가 맡은 지역이 의귀리, 하천리, 신풍리라.
#2 아.
@ 게난에, 게난 유월달까지 이제 헷수다양.
#2 예.
@ 게난 오늘은 이 정도허곡 내일 허쿠다양.
#1 내일 칠월달부터 허쿠과?
@ 예.

칠월

칠월 칠석

@ 시작허쿠다양. 오늘은 저 칠월에서부터 시작허쿠다.
#2 예.
@ 저 칠월 칠석에 대헤서 말헤 줍서.
#2 칠월 칠성에 절간에 다니는 분들은 절간에 갑니다게. 게주만은 우리도 나 어제 골앗주만은 그 보살 할망네 집이 뎅길 때는 칠월칠성에 가근에 기자 불전 올리곡 절허

곡 헤뒁 밥 먹어아졍 옵니다게. 열 시 뒈민 불공헤여. 원 그거곡, 절간 안 다니는 사름덜은 원 칠성이 무시건 줄 몰르고. 경허단 그디 다니단 설러 부난양, 칠성은 이젠 잊어벳수다.
@ 칠석.
#2 칠월칠성.
@ 예, 예.
#2 그날 절간에 가는 날 아니꽈?
@ 아, 예, 예.
#2 게난 절간에 다닐 때에는 헷주만은 절간에 아니 다니난양 칠월칠성 넘어가는 중도 몰라, 밧디 뎅기당 보민.
@ 예.

백중제

@ 그다음에 백중제 알아지쿠과?
#2 예, 무사 몰를 말이꽈? 백중 허면 쉐 질룰 때에 저 돌레떡덜 헤 놓곡, 헤 아져근에 저 밤이 요 어디 동산이 강덜 쉐, 쉐는 이제 ᄀᆞ꽝 와근에양.
@ 으.
#2 바령밧이엔 헤근에 저 빈 밧디 가두왕.
@ 으.
#2 가두왕은에 이제 그디 가두아 놔뒁 고운 동산으로 가근에 이제 제숙 헤놓곡, 옛날엔 그 빵떡양? 상웨떡. 그거 이제 만들아 놓곡, 헤여 아졍 강덜 저 쉐 이신 사름끼리겡 저 동더레 이제 벌여놔근에 젯자리 페와놔근에 이제 훈 열훈 시 뒈민 훈덴 헤도 훈 열 시 뒈민 제지내여근에 나눠 먹엉덜 옵니다.
@ 오전?
#1, 2 밤.
@ 밤 열한 시.
#2 예, 열한 시라도 훈 열 시쭘엔. 게난 요즘덜은 기자 집이서 방목을 헴주만은 옛날에는 저 쉐가 하놓난.
#1 목장.
#2 이 집 저 집 헤영 모다놔근에 ᄀᆞ꽛수게.
@ 그걸 저 테우리코시엔 헙니까?
#2 예, 테우리코시는 밧 불리는 것ᄀᆞ라 테우리코시엔 허곡. 이거는 기자 이 집 저 집 헤근에 훈 ᄋᆞ남은 집이 모다놔근에 돌아가멍, 오늘 우리 ᄀᆞ꾸민 강 보는 사름ᄀᆞ라 쉐 ᄀᆞ끄민엔 헙니다게. 나 ᄀᆞ꾸민 또 이 집인 또 내일 ᄀᆞ꾸곡.
@ 으.
#2 또 모린 또 다른 집서 ᄀᆞ꾸고.
@ 돌아가멍?

#2 돌아가멍 영 ᄀᆞ꾸다근에 이제 또 옛날에는 그 걸름도 엇이난에 빈 밧, 그 쉐똥 싸 놓민 걸름 허젠양. 경 헤근에 그 밧 ᄒᆞ나 빌어근에 그디 ᄀᆞ꽝 오민, 그디 디물리앗당 또 새벡인 가근에 이제 내놩은에 또 강 ᄀᆞ꾸곡 헙니다게.
@ 으.
#2 경 허다근에 칠월칠성, 아니 백중날은 이제 그추룩 밤이 가근에덜 다 제숙 헤놓곡, 상웨떡양, 그거 헤놓고, 메 헤놓곡 헤놔근에 제지냅니께, 백중 하르방신디.
@ 아.
#2 겡 제지냉 그디서 갈라 먹엉덜, 나눠 먹엉 옵니다.
@ 으. 그 저 마, 마불림제 알아지쿠가, 마불림제?
#2 마불림제는 몰르쿠다.

물맞이 · 모살찜

@ 몰르고. 나도 잘 모르는디. 우리 백중날은 바당에 물 맞으레 가낫주마씨.
#2 예, 예, 가나수다덜. 여자, 저 낮이덜은 강 저 ᄀᆞ메기, 해녀덜은양? 그때 백중 때 가민 물도 차가왕 물도 맞곡.
@ 으.
#2 또 ᄀᆞ메기도 해녀덜은 ᄀᆞ메기 막 납니다게. 게민 그 ᄀᆞ메기도 잡앙 왕 숢앙도 먹곡.
@ 그 물 맞으는 이유가 뭐꽈? 백중날.
#2 물 맞이렌 허면은 옛날 어룬, 요즘은 저 신경통이여, 무시거여 허주만은 옛날엔 비 옴직 허믄 막 몸살허영 허리도 뻣곡, 무릅도 뻣곡 허민 강 그디 강 씨원헌 산물에 강 커 앚이민 ᄒᆞ끔 낫넨 허여근에 허곡 또.
@ 허물 안 난덴?
#2 아니, 아니. ᄒᆞ끔 그 아픈 디가 ᄒᆞ끔 풀어졍 낫넨.
@ 으.
#2 그추록 허곡 또 여우 잇인 사름덜은 저 돈네코, 돈네코 저 물 맞이레 가는 사름덜은 가신디 우린 안 가봣수다, 갈 시간이 엇언.
@ 나도 저 백중날 그 우리 저 사당대죽.
#2 예.
@ 옛날 먹을 거 엇이난에 사당대죽 영 끈창 그거 벳겨근에 씹어 먹으멍.
#2 아, 저 대축?
@ 그 저 뭐게, 사당대죽.
#2 사당대축, 사당대축, 예.
@ 대축이엔 헙니까?
#2 예, 여기선 사당대축.
@ 우린 대죽, 대죽.
#2 아, 사당대축이고 또 비치락 만드는 건 저 저 무시거 대축, 저, 저 미시거 대축,

대축이엔 허고. 또 옥수순 또 옥수수옌 허곡 경 헙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엇어근에 기자 옥수수 ᄒᆞ나만 장이 가근에 모종 사당덜 싱경 대축부레기 헹 먹엄주만은.
@ 모래찜 헤 봅디강?
#2 안 헤봣수다.
@ 모살찜?
#2 예, ᄒᆞ끔 여우 것도양, ᄒᆞ끔 잘사는 어룬덜은 저 함덕. 함덕 저, 저 모래찜덜 허레 갓다 오고렌덜 ᄀᆞᆯ아도 우리 안 가봣수다.
@ 삼양, 삼양.
#2 예, 함덕도 잇고 삼양도 가고.
@ 으 저 검은모래.
#2 예.
@ 검은모살. 거 뭐에 좋덴 헙니까?
#2 그거 신경통에 좋덴 헙디다.
@ 신경통.
#2 예.
@ 아까 물맞이는 헷고.
#2 예.

입추

@ 입추에 대헤서 알아지쿠강?
#2 입추는 무시거 헐 것이 잇수가?
@ 가을 들어온덴 허는디.
#1 가을 들어온덴 허영.
#2 그건 원 안 헙니다.
@ 처서, 처서는 알지양?
#2 처서도 기자 밧디 가주양, 그런 거 안 챙깁니다.
@ 옛날 보민 그 저 벌초헐 때는 그 풀 다 자라근에 처서 지나야 풀 다 자랑은에 그 때 벌초헤야 뒌덴 허멍.
#2 예, 벌초는 팔월달 뒈어사.
@ 처서 지낭.
#1 처서 지낭.
#2 예, 처서에, 예, 옛날도 검질, 이제 처서 지나민 ᄒᆞ끔 이제 서느러움도 허곡, 검질도 이제 제완지도 발이 이제 저 모다지곡, 곡석발은 나가곡 벋어지곡 헌덴 할망덜 ᄀᆞᆯ아낫수게게.
#1 기억도 좋다 원. (웃음) 잘도 말허는 거 보민. 원 첨.
@ 잘 알암신게.
#2 예, 들어봅서, 나 아는 디ᄁᆞ진 ᄀᆞᆯ아 안네쿠다.

팔월

벌초

@ 그 팔월.
#2 예.
@ 벌초에 대허여근에 갈아줍서, 우리 남자 삼춘이.
#1 팔월 뒈면은 이제 문중벌초를 헙니다게, 문중 벌초. 문중벌초 허면은 이제 그 집안, 집안 가정에서 허는 거를 이제 문중회에서 모앙은에 한꺼번에 웃대로부떠 그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벌초를 헙니다. 하루, 하루 헤가지고. 그때는 벌초 시에는 그 외부에서 나갓던 분덜토 그 벌초 때 시간이 나는 분덜은 참석을 허곡. 그렇지 아년 사름은 지방에 잇는 사름들 벌초에 참여헤서 뭐.
#2 그것도 구월달 뒈민 쳇 일요일날.
#1 으, 우리는 구월달 들엉 첫 일요일날로 정허영.
#2 첫 일요일날로 정허지 아녀민.
@ 모둠벌초옌도 허지양?
#2 예, 저 문중벌초옌 헙니다.
@ 문중벌초?
#1 모둠벌초옌 아녀고 문중벌초옌 헙니다.
@ 문중벌초예? 모둠벌초를 문중벌초.
#2 예, 여기선 문중벌초옌 헙니다.
#1 아직도 우리 문중벌초가 헴수다게.
#2 예.
@ 그 이때 성묘도 헙니깡?
#2 성묘 아녑니다.
#1 성묘는, 성묘는 뭐 특별허게 허지 안허여마씨.
@ 육지서는 허는디양.
#2 예.
#1 특별나게 허질 안헙니다.
#2 게난 우리는 지금 저 벌초헐 사름덜이 다 육지에 간, 젊은 세대는 나간에 살아부난 벌초헐 사름덜이 엇이난 이제 웃대부떠 다 이제 헤단 자연장 만들안에 다 한 곤데 다 모셧수다게. 한 군데 다 모셔 부니까 이제, 봄, 이제 여름, 이제 가을 그축헤근에 그디 다 관상용 돌아가멍 다 싱그니까 이제 봄에도 이제 웬란 심으니까 그거 관리허곡 다 나무 짤르곡 우리 벌초 때만 허지 아녀근에예, 이제 삼 개월에 혼 번씩 다 정돈 다 헙니다. 이 또 팔월, 이제 또 저 구월 들민 첫 일요일 이제 벌초 식으로 헤여근에 또 저 우리 큰 가지는 신풍리에 싯주게, 신풍리에는 다 이묠 안 헤 부니까, 이제 그디 이제 벌초 갓다 오곡, 우린 또 우린 저 자연장이서 이제 정돈덜 허곡. 여자덜은 검질도 다 메곡.

@ 문중벌초 헤난 다음에 가족 벌초 허지양?
#2 아니 우린 기자 같이 헙니다, 같이.
@ 그날?
#2 예, 그날.
#1 하루에.
#2 하루에 다 헙니다.
#1 가족 벌초도 그자 문중벌초 끗나민 바로 가지별로 아재 강은에.
@ 아.
#1 경 가지별로 가면 신풍이.
@ 우린 이틀에 헤부난에 하 이거, 이틀 와야 뒈어.
#1 신풍리 궨당덜은.
#2 예, 우리도 경허난 그걸 합쳣수게.
#1 경 허다근에.
@ 막 지치덴 헤근에 산이 하 부난에.
#1 예, 맞수다게. 산이 하민.
#2 산이 하불고양.
#1 또 옛날에는.
#2 젊은 아이덜이, 벌초헐 아이덜이 낫질 안 헹 이젠 요즘은 다 예초기로 다 허지 안헴수게, 예초기 헐 아이덜이 엇엉 가는 거라.
@ 엇엉, 잡질 못허영게.
#2 예, 경 헤 부난 여기 신 사름덜, 다 노인덜 뒈 가 부니까 자연장 만들안에 다 이묘헤단 화장헤단에 다 만들앗수다게.
@ 우린 이묘를 아직 못 허연.
#1 아.
#2 아.
@ 경 헤부난에 ᄒᆞ루 허기가 힘들어.
#2 아이고, 힘듭니다.
@ 막 먼 디도 산 잇수다게.
#2 그추룩 막 먼 디도 다 서터졋수게게.
@ 옛날은 그 저 산터 존 디덜만 헤 놓난.
#1 맞수다게, 산터 보젠양, 저 좌보미, 그 좌보미오름으로 저 가면은 저 성불오름.
#2 솔오람, 아니.
#1 잊어 불언.
@ 오단 보난 성불 오름도 잇언게.
#1 성불 오름도 잇곡.
#2 예, 이젠 그 손지오름.
#1 손지오름.

#2 수산 아레 손지오름.
#1 그추룩 먼 디 강은에 그 저 옛날 웃대 어룬덜이, 그때는 정시 데려 아졍은에 강 좋은 산터 거 이제 보면은, 강 그디 강 모셔 놓면 벌초는 이제 에 ᄌᆞ손들이 가젠 허니까 옛날은 다 걸언 뎅겻수다. 뭐 저 차도 엇곡.
#2 어욱밧 헤치멍, ᄀᆞ루 질렁.
#1 어떤 뭐 오두바이나 이런 것도 엇고 헤 놓으니까. 걸언에 우리 하천이서 손지오름ᄁᆞ지 걸언에.
#2 수산, 수산 밑에.
#1 수산리에, 그디ᄁᆞ지 강 벌초를 헤서마씀. 그때는.
#2 아 손당 밑에. 수산 밑에가 아니고.
@ 우리도 막 먼 디 갑니다게. 저 애월 그 옆이 그 솔도.
#1 거 오죽 먼 디우꽈게. 솔도.
@ 우리 동네에서 솔도 가젠 허민양, 목장에서 걸엉.
#1 으.
@ 가근에 산 하나 헤근에, 산 두 개벳기 못허여. 오당은에 뻰또 쌍 강.
#2 예게.
@ 그때 뭣 반찬은 자리젓벳기 엇엇주게.
#2 자리젓도 부제칩이난 자리젓이우다.
#1 자리젓도 그 당시에는 좀.
#2 아이고, 뻰또는 무신 차반지에, 저 점심 쉐 ᄀᆞ꾸레 밥 쌍 가는 저 차반지. 그거에 놩 뚜러메 아졍은에 가근에.
@ 차반진 뭐라? 뭘로 멩글아?
#1 밥차롱.
#2 그거 대마씀.
@ 대나무로?
#1 대로, 대나무로 멘들앙.
#2 대로 만들아근에 저 밥차반지엔 헤근에.
#1 경 헹 이 똑 뚜러메어.
#2 뚜러메어 아졍은에.
#1 뚜러메엉 강.
#2 강 벌초 헤 아졍은에 오곡 허단 이젠 힘드난에양 다 흔 밧딜로 다 모셔다 놧수다.

팔월 멩질

@ 그다음에 백로 알아지쿠강? 백로? 아. 저 이건 나중에 허고. 팔월 멩질에 대허영 ᄀᆞᆯ아 줍서.
#2 팔월 추석은 허멍 말멍 그자 친족덜 돌아가멍 먹단에양, 그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자 자기만썩 지내겐 헤연 이녁만썩 개인만썩 지냄수다.

@ 그 팔월 멩질 헐 때 무슨 떡 주로 헙니까?
#2 아, 그때도 기자 백설기허고 송펜허고.
@ 송펜?
#2 예.
@ 백설기허곡?
#2 으, 백설기허고 송펜. 솔레기 굽고, 콩ᄂᆞ물 고사리.
#1 전기는 아녀는가? 전기.
#2 아니, 전기는 겨울에나 허는 거주.
@ 그때 저 무시것도 허지 안헙니까, 빙떡?
#2 겨울에, 여름.
@ 여긴 전기에 허여?
#2 팔월, 예.
@ 여긴 전기엔 헤여?
#2 예.
#1 전기.
@ 전기, 빙떡을양?
#1, 2 예.
#2 팔월 추석에는 전기 허민 쉬엉 안 뒙니다.
#1 쉬엉 안 뒈지.
@ 우리 동네 유일허게 영빈이엔 허여, 영빈.
#2 아, 전기ᄀᆞ라예?
@ 예.
#2 여기는 전기엔 헙니다.
@ 전기.
#2 예.
#1 전기엔 허단에 쪼금.
#2 전기엔 허곡 이젠 ᄒᆞ꼼.
#1 ᄒᆞ쏠 뭐헤 가난 빙떡이엔.
#2 ᄒᆞ꼼 뭐헨 가난 빙떡이엔도 허곡.
@ 으.
#2 서귀포 쪽더레 가민, 시에나 가민 빙떡이엔 허고.
@ 으.
#2 우리 하천리에서는 전기엔 헙니다.
@ 예.
#1 거 전기 지지라. 우리 ᄒᆞ나 먹어보게, 영.
#2 물랑허게시리.
#1 물랑허게시리.

@ 옛날엔 솟뚜껭이에서 지지지 안헷수가?
#2 예게, 솟뚜껭이서, 솟뚜껭이서 지지곡 또 까스 엇이난에 저 낭께기 봉가다근에 그걸로 ᄒᆞ나 또 경 아녀믄 깻집.
@ 으.
#2 깻집으로 헹은에 솟뚜껭이서 전기 지졍은에 차반지 어퍼근에 놈삐 놔근에 물아근에.
@ 경헹 막 불치 날리민 안 뒈난게.
#2 예. 경 허멍 허곡. 그것에도양 솔레기 잇어사 맛 좋아, 정기는. ᄆᆞ멀ᄏᆞ루에는 전기저, 솔레기가 잇어사.
@ 이 뀃낭이 아주 저 불 잘 부떠.
#2 예, 연기도 안 나고.
@ 저 여기 갈치 궈도 맛 좋곡.
#2 맛 좋곡.
@ 어.
#2 원, 저 무시거, 고기에 재 안 부떠근에.
@ 예, 예.

백로 · 추분

@ 백로 알아지쿠강, 백로?
#2 곳사 백로 곧은 거 아니꽈?
@ 건 팔월 멩질.
#2 추석. 게난 백로는 여기 그런 걸 안 지냅니다.
#1 백로엔 별도로.
#2 뭐 안 헙니다.
#1 허진 안헙니다마는.
@ 추분?
#2 그런 것도 안 헙니다.
@ 음.

구월

@ 그다음에 구월달로 강양?
#2 예.
@ 어제께도 말헷주마는 그 당제에 대헹 곧아줍서, 그냥.
#2 구월에는 당에, 저 옛날에는 구월엔 헤근에 토산당이엔 헌 거 다녀나수다게.
@ 예.
#2 구월 열이틀날이엔 헤영. 겐 뎅기단도 것도 설러 불곡.

@ 게난 당제 헐 때 무신 떡 헤근에?
#2 그것도 기자 돌레떡. 돌레떡 허곡 기자 저 솔레기나 구워 놓곡. 기자 저 그땐 채소 같은 것도 안 헤 놓곡.
@ 술, 술도 가졍 가지양?
#2 예, 술은 가졍 가곡.
@ 사홉?
#2 아이, 사이다 ᄒᆞ나.
@ 사이다 ᄒᆞ나.
#2 예, 사이다 ᄒᆞ나 그거 허고.
@ 신문지에 영.
#2 또 경 허곡 또 지전 물라 놓고.
@ 음. 지전?
#2 예, 지전 물라 놓고 소짓종이 이제 석 장 놓곡. 그추룩 헤근에 헹 다니단에.
@ 뭐 군대구덕에 헨 갓수가?
#2 예, 군대구덕에 베로 헨 지어 아져근에. 경 허난 이젠양 그거 저것도, 일뤳당이엔 헌 것도 잇어낫수다게.
@ 일뤳당예.
#2 예, 일뤳당이엔.
@ 요번에 수산일리에 갓다 완.
#2 예.
#1 아.
#2 그 열이틀에 다니는 토산당, 그 당은 이 저 무시거 도세기 잡아먹는 당이라양. 경 허난 그것도 어디 저 동이서 어디 하도에서 이레 물려왓젠 헤연에 헤보당 그것도 엇어 불고. 또 칠월당은 이제 칠월 칠일날 가난 당은 이제 그건 베미양, 베미 헤여근에 그 당에 다녀낫수게. 그것도 이젠 엇어져 불고. 게난 기자 딱 본향 ᄒᆞ나만. 본향이 이제 웃본향이 이제 그추룩 가곡, 아레 이제 본향에 가곡, 그것만 일 년에 기자 두 번 경 헹 다닙니다.

상강

@ 그다음에 그 상강에 대헤근에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
#2 예?
@ 상강, 상강.
#2 상강에도 무시거 안 헙니다.
@ 상강.
#2 이딘 그런 거 원.
@ 상강에.
#2 옛날에는 상강에, 고구마 상강 지나면은.

@ 으.
#2 이제 산에 서리 한라산에 서리 내린덴 헤근에 고구마덜 이제 팝네께. 이제 고구마 이젠 다 컷저, 이제 상강일 넘으난 고구마덜 파겐 허멍 고구마덜 팡 이제 뺏데기도 허곡 또 놀차 시끄는 사름은 전분 공장에도 시끄곡 그추룩 헤영 상강이엔 허믄 그자 그거 고구마 파는 시기라고 생각헙주, 시작.
@ 그다음에 시월은 별로 없네이. 입동, 뭐 소설 이런 거 모르지양?
#2 예, 그런 거 안 헙니다.

십일월

동짓날

@ 그다음에 동지날 그 풋죽에 대허영 흔 번 골아줍서.
#2 동지는 이제 그것도 ᄒᆞ끔 옛날엔 그런 것덜토 엇수다만은 절간에 가민 동지죽 쒀근에 새알 놓곡 헹 줍니다게. 경 헤근에 그거 헹 먹곡. 집이서도양, ᄒᆞ끔 여우 잇엉 잘사는 어룬덜은 풋 쑮앙 죽을 쒕 먹곡. 또 경 아년 사름덜은 아녀곡. 또 아이덜은 또 놈삐 끊어다근에양 가운디 홈 팡, 홈 파근에 영 헹 홈 품민 욜로 고망 뚤르곡 일로 고망 뚤르곡 헹, 씰 내엉 둘아메엉 그디 콩방울 놔근에 허면은, 콩 나민 콩, 올리 콩농사 잘 뒈켄 허멍 우리 두린 땐 헤낫수다마는, 요즘은 그거 아녑니다.
@ 거난 지금도 풋죽 쒄 먹엄수강? 동짓날?
#2 예, 우리 쒄 먹엄수다.
@ 우선 풋죽 어떵 쑵니까?
#2 풋마씀?
@ 으.
#2 풋 이제 그거 기자 물른 거 풋을 숨젠 허민 오래어양. 게난 흔 서너네 시간 당갓당, 당갓다근에 물 팔팔 끌리민 놔근에 쒕 허면은.
@ 둥갓당이엔 헙니까, 당갓당이엔 헙니까?
#2 여기서는 물에 당갓당.
#1 물에 둥갓당.
#2 물에 둥갓당, 당갓당.
#1 여기서 말은 둥갓당.
#2 예, 둥갓당.
#1 당갓당이엔도 허고 둥갓당이엔도 허고.
#2 예, 둥갓당도 허고, 물에 또 할망덜은 저레 물에 크라 경도 허곡양. 경 헤근에 당갓다근에 기자 흔 서너 시간 당갓다근에 물 또 팔팔 끌려근에 그거 놔근에 허면은 빨리 쒀져마씨. 게민 숣으민 기자, 기자 저 낭푼에 건져 놔근에 기자 손으로 기자 문작문작문작 문대겨 놔근에 그자 그레 쑤다보민.
@ 껍데기도 ᄀᆞ찌 놔근에?

#2 예, ᄀᆞ찌 놩 헹 쑤다근에 이제 ᄒᆞ끔 짜락짜락허민 저 산디쏠ᄀᆞ루, 그 우터레 춥쏠ᄀᆞ루라도 ᄒᆞ끔 영 놓면은양 풀풀헙니다게, 경 허곡 또 저.
@ 산디쏠 놓곡.
#2 산디쏠, 산디쏠 물에 컷다근에 또 그것도 놩 ᄀᆞ찌 영 쒀도양 ᄀᆞ루가 안 놓민 죽이 짜락짜락헤여.
@ 으.
#2 게민 ᄀᆞ루 ᄒᆞᆫ 서너 수까락 ᄒᆞ꼼 영 폭허게 뿌리면은 그것이 풀풀헤근에 맛 좁니다. 경헹 다 쒀진 중 알민 소금 놔근에 간 허영 먹고.
@ 저, 이 사름 죽으민은 사돈덜 픗죽 썽 가양?
#2 예, 옛날엔.
@ 거 무사 그추룩 픗죽 썽 가신고? 거.
#2 그거는 이제 픗죽을 무사 쒕 가신 허면은 그것이 ᄒᆞ끔 저 방쉬로. 방쉬로 허곡 또 이제 사둔칩이엔 헤근에 똘이나 메누리나 허면은 그것이 옛날부떠도 이제 사둔이 돌아가시면은 픗죽 쒕 가는 거는 그것이 의무 생인ᄀᆞ라마씀. 경 허단 요즘 새 사름덜 나난 라면으로 헨 헴수다.
@ 라면?
#2 예. 라면으로덜 헹 안 헴수게.
@ 라면 멧 개 놓곡, 봉○.
#2 예, 그거 ᄒᆞ나 놓고.
@ 놓곡. 옛날은 담배도 놘게마는 이젠 담배 안 허더라고.
#2 아이.
#1 지금 안 헤.
#2 이렌 담배 안 헙니다. 그런 거 안 헙니다.
@ 옛날은 담배 놔낫수다게.
#2 아, 그쪽엔 몰라도 이쪽엔 안 헙니다.

지붕 일기

@ 그다음에 집 이는 건 언제 헙니깡?
#2 집 이는 거는 이제 봄 나근에 저 섣ᄃᆞᆯ 그물어 가면은, 동짓ᄃᆞᆯ, 섣ᄃᆞᆯ 스무날만 뒈민 강 새 비어다근에양. 새 비어당 이제 놧다근에 이제 섣ᄃᆞᆯ 그물아 가민 이제 줄 비엇당 새해 나민, 봄 나민 포그랑허민, ᄇᆞ름도 아니 불곡, ᄇᆞ름 불어 불민은 그 집을 못 일 거난 포그랑허게시리 ᄇᆞ름 잔 날, 이제 동네 사름덜 수눌어당, 빌어당 수눌어다근에 집 일엇수게. 경허난 늦게 일면은 삼월ᄃᆞᆯᄁᆞ지 가곡, 경 아녀믄 ᄒᆞᆫ 이월.
@ 여기는 집 멧 번 입니까?
#2 일 년에 ᄒᆞᆫ 번.
@ ᄒᆞᆫ 번?
#2 예.

@ 제주신 이 년에 ᄒᆞᆫ 번 인덴 허더라고. 여긴 마가, 장마가 많이 지난인가?
#2 경허난 그건 몰르쿠다마는.
#1 장마는.
#2 그때는 거기는 새가 어려와부난 거우다게. 여기는, 그때 여기는 새덜 밧디 밧 딜인, 새 들인 사름덜이 합주게. 저 각단은, 각단이엔 헌 건 새보다 쫄른 거.
@ 쭈른 거 각단.
#2 그거 비어당 줄 비어근에 게난.
#1 줄용.
#2 예, 옛날 어룬덜이 새 비어당 줄 저 비민 올리 일은 다 헷저 허곡, 여자덜은 콩 헤근에 숣앙 메주 허민 올리 일은 다 허여난 이제 새해 나민 헐 거여 허멍 헤낫수게.
@ 그 새는 여기서 ᄒᆞᆫ 바리가 멧 뭇이꽈?
#2 서른 단.
@ 서른 단?
#2 예,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
@ 서른 단이엔 헙니까? 뭇이엔 헙니까?
#2 여기선 ᄒᆞᆫ 단, 두 단 헙니다. 게난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
@ ᄒᆞᆫ 바리.
#2 ᄒᆞᆫ 바리.
@ 예.
#2 예.
@ 그 각단은 멧 뭇?
#2 각단도, 각단도 그 줄 비는 것도 서른 단이 ᄒᆞᆫ 바리.
@ 아, ᄒᆞᆫ 바리.
#2 예. 곡석은 보리나 밀이나 저 스무 단이 ᄒᆞᆫ 바리고.
@ 으.
#2 따시 조는 ᄋᆞᆫ슷 단, ᄋᆞᆫ슷 단이 ᄒᆞᆫ 바리고.
@ 거믄 양 옆이 세 뭇벳기 못 허겟네.
#2 예, 조는 ᄋᆞᆫ슷 단이 ᄒᆞᆫ 바리. 산디, 산디허곡 보리는 스무 단이 ᄒᆞᆫ 바리.
@ 아.
#2 경 헙니다.
#1 참 잘 아네, 원.
@ (웃음)
#2 아니게 농민이 농사지멍 살아신디게.
@ ᄒᆞᆫ 바리.
#2 예.
@ 잘 알암수다게. 여긴 저 ᄒᆞᆫ 말지기가 멧 평이우꽈?
#2 백 평마씀.

@ 흔 말지기가?
#2 예, 이딘 흔 말지기가 백 평으로 생각헙니다.
@ 백오십 평 허는 디도 잇더라고.
#2 그거는 저 애월 쪽에가 백오십 평 헌덴.
@ 이백 평 허는 디도 잇고.
#2 아, 그건 몰르쿠다.
#1 모슬포 쪽인가.
@ 그 말지기가 씨 뿌릴 수 잇는 양 아니우꽈양?
#2 예.
@ 거난 여기는 땅이 안 좋다는 거네이.
#2 안 좋수다게게. 화산 땅 아니꽈?
@ 백 평이면은 흔 말을 백 평에 뿌려야 뒌다는 거라.
#2 예, 뿌려야 뒌다는 겁주.
@ 게난에 땅이 안 좋다는 거라. 나지 안 허영.
#1 땅이, 흑, 땅이, 저 화산회토라부니까 이 저 땅이양 껌고.
#2 보리도 잘 안 뒈고양, 대산이도 잘 안 뒙니다, 이디.
@ 미깡낭은 잘 뒈지양?
#2 미깡낭은, 미깡낭도양 관리험에 달린 거마씀.
#1 관리험에.
@ 맞수다게.
#2 관리헤야.
@ 잘 멕여야 뒈.
#1 다 잘 뒈는 게 아니고.
#2 다 잘 뒌 게 아니고. 겐디 보리ᄀᆞ뜬 거는양 암만 잘 헤도 땅이 안 좋면 안 뒈어마씨. 밧 내무리니까.

장 담그기

@ 요거 잘 알커라, 여자 삼춘, 장 담그는 거?
#2 예.
@ 그 장 담글 때 우선 저 뭐부떠 시작헤근에, 콩, 메주부떠 헤근에 말헤 줍서.
#2 예, 메주, 콩 헤다근에 솖앙.
@ 으.
#2 이제 저 옛날엔, 요즘 저 우리는 무신 뭐꽈? 마다리에 놩 비료포 ᄀᆞ뜬 거라도 판찍허게 시쳐둬근에 메주 솖아근에 그레 건졍 놔근에 부리 딱 무꺼근에 소금 흔 줌 속허게 뿌려근에 그걸 뒈싸놩 불르곡 ᄂᆞ뒈싸놩 불르곡 불르당 보민 민딱헙니다게.
@ 으.
#2 민딱허민은 이제 다라레 비와 놔근에.

@ 으.
#2 이제 저 보리쏠. 보리쏠 이제 보리쏠 저 콩이 흔 말이민 보리쏠 이제 뒈약세기로 이제 흐나만 헤다근에 뿌려. 경 헤근에 달루와근에 메주 이젠 뽕끈허게 흔 말 허면은 흔 읏슷 개 만들면은 좁니다게. 이디선 넉 뒈가 흔 말이라양.
@ 으.
#2 게난 읏슷 개쭘 헹 만들앗다근에 이제 장 담을 때는 소금물 카근에, 항아리에 카근에 이제 계, 둑세기를 이제 그디 들이치민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 둑세기가 올라오면 이제 그레 메주 싯져근에 놓면은 그 장은 백 프로 맞은 거마씀.
@ 둑세기로 맞촘구나.
#2 예, 둑세기, 소금물을 카근에양. 항에 캉 놧당, 둑세기를 딱 놓민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 이제 계란이 저 둑세기가 소랑허게 들어간, 저 동글동글허게 뜹니다게. 게민 우이 꼭대기가 이제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만 나오면 그디 이제 메주 저 그 판찍허게 다 싯져근에 틔왕, 물류왕, 싯졍 그디 놩 허면은 그 장이 간이 딱 맞아마씨.
@ 그 저 메주 담아근에.
#2 예.
@ 이제 그 멧 개월 후에 그거 꺼내근에 뒌장 멩급니까?
#2 그거 흔 이십 일만 뒈민 헤영케 틉니다. 뚜슨, 그것도 온도 차이가 뒙니다게. 뚜슨 디 놔사주. 아레 저 신문 꼴앙. 신문 꼴앙 요즘은 여기 볏집이 엇어부난에양. 사이에 또 신문 흔 징 꼴곡, 또 그 우에 메주 놩 그 우에 또 신문 놔근에 이제 박스 같은 디 놔근에 더껑 놔두면.
@ 거난 거 메주 멩글앙 영 허는 거고.
#2 예.
@ 그 장 담그는 거 메주 놔야 헐 거 아니우꽈, 장에?
#2 예.
@ 소금물 영 알맞게 헤근에.
#2 예, 아까 나 그 말 골안.
@ 그걸 이제 뒌장헐 때는 간장허곡 분리헤야 뒐 거 아니꽈?
#2 분리헐 거 아니꽈?
@ 멧 개월 후에?
#2 소금 헤 놩 그거 두 둘.
@ 두 둘?
#2 예, 두 둘이면은, 저 석 둘. 석 둘. 석 둘 뒈면은 그걸 갈라. 장물은 장물대로 갈르곡 뒌장은 뒌장대로 갈르곡, 그축 헤근에 이제 그 뒌장을 이제 저 메주ᄀᆞ루엔 헌 거 잇수다. 그거 허곡 또 누룩ᄀᆞ루, 게민 그거 사다근에 이제.
@ 서껑?
#2 예, 서껑. 경 헤근에 그걸 소금 흐끔 뿌리곡 헤근에 헹 놔두민 그것이 이제 뒌장이엔 헤근에 막장이엔 헤영.

@ 뒌장이고.
#2 예, 뒌장이곡 또 간장은 또 그거 걸러근에 이제 삶아. 이제 기자 놔두민 멀껑허니까 그것에서 이제 삶아근에 이제 요즘은 삼다수 병이 하난양 그것에 질어근에 일 년이고 이 년이고 삼 년 놔둬도 끽딱 안 헙니다. 난 그추룩 헹 보관헹 아이덜 오민 기자 드렌허민 그것 주곡 헙니다.
@ 절간에 가민 그 담앙덜 풀기도 허긴 헙디다마는.
예.
@ 장 담그는 날은 아무 때나 담지 안허지양?
#2 아니우다.
@ 무슨 날?
#2 맑은 날만 담으민 뒙니다.
@ 아, 무신 띠, 무슨 날은 담지 말렌 허곡, 그런 거 엇수가?
#2 메주 숧는 날이 중요헙니다.
@ 아, 메주?
#2 예, 메주 숧을 때는 뱀날, 용날 숧으민양 메주가 안 떠. 게난 뒐 수 이시민 양날이나 토끼날이나 이제 쉐날이나.
@ 게메.
#2 대강 이제 또 대주가 이제 허면 대주 띠를 보던가, 그추룩 헤근에 숧으면 이 뱀날에 저 용날에 허면 메주가 안 뜹니다.

십이월

@ 남평날 알아지쿠가?
#2 건 몰르쿠다.
@ 남평날.
#2 건 몰르쿠다.
@ 남평날.
#2 건 어느 둘이우꽈?
@ 십이월, 남평날.
#1 이 지역엔 남평날은 안 헤난 거.
@ 잘 모르고양?
#2 예.
#1 잘 모르고.

신구간

@ 신구간에 대허영 골아줍서.
#2 예, 신구간은 대한 넘어근에 일주일 아니우꽈?

@ 대한 후.
#2 대한 넘엉, 대한 지낭.
@ 대한 오 일.
#2 오 일이우꽈? 아, 오 일부떠꽈?
@ 입춘 전 삼 일.
#2 예, 입춘 전 삼 일. 입춘은 이월 삼일날.
@ 예.
#2 이월 사일날 허고. 경허난 무신 그때는 이사덜 허곡, 또 우연네 낭이나 끊을 거 이시민 끊곡양. 무시거 자파리헐 거 이시민 자파리 허고.
@ 돗통도 고치고.
#2 예, 돗통도, 돗통은양 잘 함부로 못 고쪄.
@ 게메.
#2 예, 경 허는 겁주. 또 그 신구간에 또 집도 이제 이모델링허는 딘 또 이모델도 허고.
@ 아이덜 공부시켜부난 이사갈 집은 어떵 구헷수가?
#2 이사갈 집은예. 그땐 우리 하도 못 살아 부난에 미깡도 아녀곡 헐 때난 우리 저 큰아덜 시에 일고 시험은 보난에 그땐 빵빵이 돌련 헷수다게. 게난 일고 뒈난에 등록금 낼 돈이 엇어 부난 우린 그땐 미깡넘 밧도 아녀곡 허난 저 공천포엔 헌 딜 ○○공장 잇수다. 그디 이제 저 나 다년에 흔 둘 허난에 이제 이십팔만 원 받아젼게 시에간에 방세[방쎄]가 일 년치 삼십삼만 원 주언에양 그때 빌언에 저 이녁 냥으로 자취생활 허멍 공부헷수다.
@ 어디 간 빌언에?
#2 저, 여상 앞이.
@ 여상 앞이?
#2 예.
@ 거기 경 방 비싸진 안헐 거라.
#2 쩨끌락헌 디.
@ 아이, 좋진 안헌 디주.
(부분 생략)
@ 다 경 헷수다게.
#2 못 살아부난에양.
@ 나도 저, 저 제주시 완 방 빌언에 살멍, 난 저 ○○ 나왓수만은.
#2 ○○마씀?
@ 예.
#2 예.
@ 헤근에 나도 고셍 하영 헷수다. (부분 생략)
@ 그다음에양 그 이사헐 때 제일 먼저 가졍 가는 것이 뭐꽝? 이사헐 집에.

#2 이사허레 갈 땐 옛날에는 저 무시거꽈? 요강.
@ 으, 젤 먼저 가져가는 것이?
#2 요강허고 저 세멘기[세멘끼].
@ 으.
#2 세멘기에 요강 앚엉 가근에 소금허곡 풋허고 콩허곡 아졍 가근에 작작 저 동더레 부떠 문여 뿌림 시작허민 동서남북 확확 뿌려둬근에 저 술 흔 사이다 아졍 가근에 또 그거 헤영 입에 물엉 파파 헤둬근에 경 헹 이사헤낫수다, 아이덜 학교 뎅길 때에.
#1 거 아주 옛날.
@ 예, 예.
#2 옛날.
@ 그런 걸 듣젠 허는 겁주.
#1 아주 옛날이우다게.

집알이

@ 그다음에 그 집알이 그, 저 이사헐 때 선물은 무슨 걸 헤낫수가?
#2 무신 선물을 헙니까?
@ 가졍 갈 거 성냥? 옛날 이사허는 집.
#2 이사허는, 아 저, 이사허는 집이 저 부지로 가는 디마씀? 그땐 무시거 아졍.
@ 성냥? 초?
#2 이 동네는 이사헤여근에 저 ** 촌에난양, 이사허는 디 가곡 무시거 허곡 아녑니다. 촌이난. 게난 이사허는 딘 우리 가보질 아녀수다.

소한 · 대한

@ 그다음에 소한 대한에 대허영 알지양?
#2 소한 허면은 뭐 대한이 집이 강 얼어부떠근에 저 돌아오지 못헷젠 할망, 하르방덜 기자 곧는 소리만 들엇수다게. 게난 대한 뒈민 소한 뒈민 얼어. 이거 대한이고 신구간이고 허난에 이제 ᄀᆞ찌 겹쳐 놓난 얼어 허멍 허당 보민 그 절기 뒈가민 얾도 허여양? 대강 보면은 그때.

섣둘그믐

@ 그다음에양, 섣둘그믐에 대허영 ᄀᆞᆯ아 줍서.
#2 섣둘그믐에는 무시거 멩질헐 준비나 허곡, 이제 저 세배헐 거 이제 아이 아방 이제 후루메나 뿔아근에 다리곡 동전 둘곡 그거나 준비헤여근에 멩질 헹 먹을 거 허주. 옛날에는양, 바쁘질 아녀난에 바쁘질 아녀난에 경 그런 거 기자 동전도 ᄒᆞ루 둘곡, 뿔국. 그추룩 허멍 다림도 허곡, 경 허멍 허곡. 요즘덜은 바쁘난에 세탁소에 강 메껑들 이녁 냥으로 헴수과?
@ 게난 멩질 준비허는 날이구나양?

#2 예.
@ 잠시 쉬엉 허쿠다.
#2 경 헙서.

생업

밭일

@ 시작허쿠다양.
#2 예.
@ 그다음에 그 저 밧일예.
#2 예.
@ 그 달마다 밧일이 틀리지 안허우꽈양?
#2 예.
@ 그 뭐 보리농사 뭐 그런 것덜. 그다음에 뭐 과수원, 논일, 여긴 논 엇이난에.
#2 예, 논도 아녀고 이젠 보리도 아녀고 조도 아녀고.
@ 음.
#2 기자 미깡낭 ᄒᆞ나만 헴수게.
@ 예, 거난에 옛날 그 농사에 대헤근에 ᄒᆞᆫ번 ᄀᆞᆯ아줍서.
#2 옛날엔 보리도 갈곡 유채도 갈고.
@ 으.
#2 보리 갈아낭 그르에 이제 쉐로 잠데로 밧 갈앙, 이제 큰비 작작 와나민 이제 삼마 줏으레양.
@ 으.
#2 삼마 줏어당 이제 헹 풀곡. 또 놈보단 이젠 큰비 와나민 놈보단 이제 일찍 강 줏젠 이제 트럭차로 그땐 아녀난 쉐로 잠데로 헨에 갈민 비와나민 삼마가, 크게 비와나민 삼마가 헤영 ᄒᆞ여양.
@ 으.
#2 게민 그거 줏어다근에덜 막 다듬앙 ᄒᆞᆫ 관뒈 얼마 허영 풀곡. 또 유채그르, 유채 갈아근에 이제 유채 비어나민 이제 유채 그르엔 또 삼마가 엇어양.
@ 거난 여기서 허는 농사는 보리허고.
#2 보리허고 유채.
@ 유채.
#2 예.
@ 그다음?
#2 고구마.
#1 조.
@ 산디?

#2 산디.
#1 아 산디도 헷구나, 참.
#2 산디도 일부 헤수다.
@ 콩?
#2 콩도 ᄒᆞ꼼. 하진 하영 안 헨 기자 ᄒᆞ끔썩.
@ 어, 조허고양?
#2 예.
@ 그다음 지, 이제는 전부 과수원?
#2 이젠 다 과수원마씨.
@ 이제 보면은 하우스에는 뭐 뭐 헴수가?
#2 하우스 안네?
@ 으.
#2 하우스 안네 천혜향허고 레드향마씨.
@ 레드향?
#2 예.
@ 한라봉은 안 헴수가?
#2 예. 한라봉은 안 허고, 하우스가 기자 이천 평, 기자 할망 하르방 자파리 허기 좋게시리 허고.
@ 아이고, 이천이면 큰 겁주.
#2 예, 노지 이제 또 ᄒᆞᆫ 천오백 평, 천오백 평.
@ 우리 조카가 ᄒᆞᆫ ᄉᆞ천 평 허여.
#1 하우스를?
@ 예.
#1 거 많이 헴수다양.
#2 젊은 사름덜사게.
@ 노지는 나 물려받은 거 헨에 헴고. 아이 거난 하영 못허고양, ᄒᆞᆫ 칠백 평 정도 헴수다게. 그다음엔 나머지는 저.
#2 임대 줘비언?
@ 조케안티.
#2 예, 헤 먹으렌 헨.
@ 예.
#1 하우스마씀?
@ 아이 노지, 노지.
#2 칠백 평이민 할망 하르방이게 손 자파리.
@ 노지, 노지.
#2 게메, 노지. 그것도 요즘은 이 년에 ᄒᆞᆫ 번이난양.
#1 헤거리 헤 불곡 허민.

#2 또 여는 헤라근에 셍인안티 풀아 불고.
@ 아이 거난 저 뭐꽈, 그 저 간벌.
@ 예.
#2 간벌 헤부난에 막 널찍헤연.
#2 널직헤도 이제양 삼 년만 지나민 팍 어울어져 붑니다. 처음엔 차 뎅겨지주만은 막 끗뎬 리아까 다녀집니다.
@ 미깡 하영 안 올아.
#1 (웃음)
@ 그다음에 조는 언제 갑니까?
#2 조는 이제 유월절 전 삼 일로 갑니께.
@ 유월절이?
#2 예.
@ 그 조 헤난 다음에는?
#2 조크르에는, 이제 저, 조크르엔 옛날에는 산딧그르 헤여근에 돗가레 놩 보리 갈앗수게.
@ 보리?
#2 예.
@ 조크르하고 산디크르는 보리?
#2 예, 보리 갈아나민 그 보릿그르에 이젠 또 고구마 놔.
@ 아, 보릿그르에는 감저양?
#2 예.
@ 감저.
#2 감저 놔근에 거기서 헤근에 이제 돈 이신 사름덜은 공장에 파멍 풀곡.
@ 으.
#2 돈 엇엉 헌 사름덜은 이제 그거 다 시꺼 날랑 뺏데기 허민 돈 하난에. 경헹 또 뺏데기 만들고.
@ 으.
#2 경헨 헷수다. 우린 동감저론 안 풀아봐수다 뺏데기로만 헨.
@ 거난에 보리는 저 감젓그르에양?
#2 예.
@ 보리는 감젓그르에 갈곡.
#2 아니, 보릿그르에 감저 놓는 거. 보리 갈아나면은 보릿그르에 감저 놔놩.
@ 아, 감저.
#2 예. 감저 놔놔민 또 보릿그르에 저, 이제 감저 놔놔민 감젓그르에 이젠 유채도 갈곡, 이제 저 보리도 갈곡.
@ 으, 보리도 갈고.
#2 게난 기자 바꾸멍썩 기자.

@ 으.
#2 올리 흔 헤에 이거 헤나민 내년인, 또 요디 보리 갈아나민 또 요디 유채 갈곡 바꾸멍.
@ 으.
#2 밧 이신 사름덜은 바꾸멍 갈곡, 밧 엇인 사름은 기자 놈의 밧 반작허민양, 이제 삼분에 일 갈라가는 사름도 잇곡 바르반득이 갈라가는 사름도 잇고.
@ 그다음에 감저 모종.
#2 예.
@ 감저꿀.
#2 예.
@ 감저 모종양?
#2 예.
@ 거 언제 심급니까?
#2 예, 감저 모종은 영등하르방 들어오기 전에 놉니다. 경허난에 그것도 그때 놀아사 이제 것도 진작 나는 것이 아니난양.
@ 거난 감저 모종할 때?
#2 정월달에, 예.
@ 뭐 헤야 뒈어? 젤 처음에 돗걸름?
#2 젤 처음에 옛날에는 구뎅이 파근에, 막 구뎅이 팡 그디 걸름 놔근에 우테레 흑 더퍼근에 감저 모종을 놔낫수, 놔수다게, 그땐 놔근에.
@ 쉐걸름으로도 놧지양?
#2 예, 쉐걸름, 쉐걸름도 놓고. 쉐걸름도 ᄒᆞ끔 썩은 건 놓곡 너미 와상헌 건 썩어 베어.
@ 열 받앙.
#2 열 받앙 썩어 베어. 게난 ᄒᆞ끔 ᄒᆞᆨ 뒈듯 잘 썩어사.
@ 으.
#2 썩어사 이제 구뎅이 영 파근에 판찍허게.
@ 파니로양?
#2 예, 싹허게 갈레죽으로 파니 만들앙 그레 걸름 꼴아놩 또 갈레죽으로 그 우이 흑 다 더펑 경헤 놔사 감저 더껑 비니루 더꺼수게.
@ 거난 감저 놔근에 또 이제 흑 더펑?
#2 예, 아니, 아니. 흑을 하영 더퍼사 감저를 그대로 손으로 영 파멍은에 이거 놓멍 헤수다.
@ 아.
#2 예, 놈은 어떵 헤신지 몰라 나 허는 식은.
@ 걸, 걸름 헤근에.
#2 걸름 우터레 이제.

@ 흑 하영 놓면은.
#2 예, 흑 하영 놔야.
@ 헤근에 놔근에양.
#2 걸름허곡 감저허곡 이제 사이에 흑에 중간 잇어사주. 걸름에 감저 놔 불민 감저 다 썩어 부난.
@ 훈 뻠, 훈 뻠 정도?
#2 예, 감저 놓는 간격이 예, 훈 뻠 정도.
@ 훈 뻠 정도.
#2 게난 너미 드물게 놓민 감저꿀이 뭉칼져 불면은 하영 놓질 못허고. 좇게 놔사 감저꿀이 ᄀᆞ늘아사.
@ 으 ᄀᆞ늘아야.
#2 붓게 놀거라 부난양, 하영 저 좇게 놔사.
@ 좇게이.
#2 족은 건 또 두 개썩, 세 개썩 부찌멍 놓고.
@ 어, 경헤야 감저줄이 좀 ᄀᆞ늘게.
#2 ᄀᆞ늘게 나사 하영 놓곡 드물게 나 불민 뭉칼뭉칼헤여근에 붓질 안 헤여. 또 경허고 너미 걸어근에 끊엉, 저 가운디 두 개로 끊엉 놓면은 초불 ᄒᆞ나로 논 거보단 잘 안 뭽니다게. 감저는 꼭대기만 드는 거난.
@ 게메.
#2 예. 그축헤영.
@ 꼭대기양?
#2 예, 게난 그자 그거 유월절 전 삼 일 헹.
@ 훈 삽십 센티 정도?
#2 예, 기자, 기자 요 정도. 요 정도민 제일 수확도 하고.
@ 경허민 끗뎅이 허면은 영 이제 뭐냐, 이렁에 영 손으로 영 헤근에.
#2 아니.
@ 묻엉.
#2 그거 갈아나민 갈민양, 옛날, 요즘은 트럭차난에.
@ 어디에 온다는 거꽈, 이 끄트머리?
#2 끄트머리는 아무 쪽으로라도 훈쪽으로 가게 헤야주.
@ 게메 훈쪽으로 쭉 가는디.
#2 예, 그건 순서가 엇수다게. 동더레 서러레 순서가 엇어마씀.
@ 거면은 끄트머리민 여기에 온다는 거라?
#2 예, 순 간 디.
@ 순 간 디?
#2 예. 게면은 등치기허곡, 등치기광 등치기 부떠 불면은 감저가 잘 안 뭽니다게.
@ 으.

#2 게난 순허고 등치기허곡.
@ 사이를 좀 떼야겟네이?
#2 사이에, 사이에도 너미 사이 떠 불면은.
@ 안 뒈곡.
#2 저 수확이 엇어. 게난 여기다 요것이 순이 온 거 아니꽈? 영 영 놓면.
@ 으.
#2 요것에 ᄒᆞ끔 베슷허게시리 엇갈리지듯허게 놔사 수확이 하주. 그대로 영 영 영 놔 불민 수확이 하질 안헤마씨. 게 또 파니도 이제 너미 훍어 불면, 커, 이제 너미 커불면 수확이 얼마 안 나고.
@ 으.
#2 이제 ᄒᆞ끔 좀지룽허게 허여근에 순 살아근에 이제 꼬들꼬들헤가민 이제 제초제. 고랑에 막 검질 나놓난양? 제초제 헤여근에 또 중경헤사 헙니께, 고랑 올령.
@ 고랑 그, 저 잠데로 헤영 올렴지양?
#2 예, 옛날에는 그.
@ 쉐로 헤근에.
#2 쉐로 헹 올려낫수다마는, 하영 헐 땐 헷수다만은 허당 보민 쉐도 다 발로 불라불고, 다 멜라져 불곡 허난에 제초제 치멍 헨 내비엇수다.
@ 으, 그런디 감저 검질은 하영 안 나니까게.
#2 아이고, 하영 납니다.
@ 에이, 그 저 감젓줄 영 더퍼졍양.
#2 줄 벋어지기 전에 납니께.
@ 으, 전에.
#2 게난 그거 허기 전에 감저순만 살앙 ᄒᆞᆫ 삼십 센치썩만 올라오민 제초젤 고랑에 헤여사. 아니 헹은양 검질 민짝 납니다. 그추룩 헤도 이제 경 허당 보민 저 제초제 잘못허당 보민 감저 다 죽여먹여 불곡. 게난 멩심허게시리 헤여근에, 헤여사 그 순을 살아사 감저 들 거난에. 경 헹 또 꿀 놓당, 초불 꿀 놓당 모자리민 또 그거 키왕 또 두불 꿀 놓곡.
@ 그다음에양? 이디 귤 허니까 그 가지치기, 전정, 전정, 전정 언제 헙니깡?
#2 전정은 이월, 삼월. 이월, 삼월.
@ 아, 이건 남자 삼춘이 영 ᄀᆞᆯ아 줍서.
#2 예, ᄀᆞ찌 헙니다게.
#1 전정은 보통 통상관례, 뭐 요즘은 다 뭐 이월 말이나 삼월 초 뒈민 다 헙니다게. 허는디 나무 수세 따랑은에 일찍 헐 때도 잇고 늦게 헐 때도 이십니다. 그 수세 따랑, 수세가 약하면 전정이 좀 늦어지고.
@ 수세가 이파리지양?
#1 예. 예.
#2 예. 이파리가 왕상헹 존 낭은 일찍 전정허곡.

#1 으.
#2 또 작년이 잘 올아난 낭은, 약헌 낭은 좀 늦게 허곡.
@ 아.
#2 경 헤야주. 일찍 헤불민양, 저 서리 맞안, 추워근에 순이 잘 안 나.
@ 아, 거난에 수세가 좋은 건 일찍허곡.
#2 예.
@ 경 좋지 안헌 건.
#2 예, 잘 올아난 낭은 ᄒᆞ끔 늦게 나, 허여사.
@ 아, 건디 나도 전정 헨에 헴수다마는.
#1 예.
@ 작년에 올아난 디양, 낭 좀 멩글젠.
@ 예.
#1 물척물척 끊어 불엇어.
#2 아이 너미 강전정헤 벳구나.
@ 아 건디.
#2 조장순만 나근에.
@ 그거 죽더라고.
#1 그거예?
@ 멧 개 죽어 불언.
#1 그 무착무착 기찻다는 거는 몸뚱아리를 기찻다는 겁주.
@ 으.
#1 게난 기치면은 이 기친 부위를 물* 나오민 요샌 톡신베스트 이시난.
@ 아니 영, 영 영 불르는 거 이십디다.
#1 예, 그게 톡신베스트우다게. 그걸 발라주면 그 부위가 이제 그 썩어 들어가지 않곡 말르는 것도 덜 허고 헙니다게. 만일에 굵은 가질 짤랏을 땐 필히 그걸 발라줘야 뒈어마씨. 안 발르민 안 뒈어.
@ 불라도 죽더라고.
#1 아, 경헙디가?
#2 수지, 수지병으로 가 버린 거주.
#1 게난.
#2 수지병.
#1 수세가 약허곡 경헌 상태에서 무착무착 기차 불면은.
#2 당장 죽읍니다.
#1 그건 뭐 더 약헤져마씀.
#2 하영 올아난 낭은.
@ 으.
#2 예.

#1 게난 하영 올아난 수세가.
@ 아이 거난에 그 이 년까지 감서.
#2 예, 아이고, 멧 년 갑니다.
@ 아이.
#2 낭이 빌빌허게 노랑허게시리 순도, 그런 것엔 또 꼿이 잘 없주.
#1 훼복뒈기가.
#2 꼿이 엄청 야려.
#1 훼복뒈기가 좀 힘들어.
@ 와도 읏문 거 엇어. 다 털어져 불언.
#2 예, 다 털어져 불어, 낭만 못 견뎡.
@ (웃음)
#2 웃음. 겐디 전정도 교육시키레 다닙니다.
@ 이거 낭 하나면은 그 가지 멧 개 살렴수가?
#2 낭에 따랑 헤사주.
#1 그거는 가지.
@ 세 개?
#1 가지 멧 개 거, 나무 저, 연수에 따랑, 예를 들엉 뭐 멧 년생, 삼사 년생이냐, 경 아녀민 어, 십 년 이십 년생이냐에 따랑은에 그 가지를 헌디 딱 멧 개를 지정허영 허질 아녀고, 나무 영 수영(수령) 보멍.
#2 나무 보면서.
#1 수영 보면서 아, 요건 방향이 요렇게 헤서 햇빗도 잘 받곡 그디 또 바람도 잘 들어가게 허젠 허면 아, 요거 이 나무 전체에서 아, 요거 어떻게 하면은 어 바람도 잘 들고 헷빗도 잘 받고, 바람도 잘 들어가곡. 또 이렇게 헤야만이 순 하날 나도 자기 몸 가림을 허기 위헤서는 순을 다 끗으로 내보냅니다. 나무 성질이란게.
@ 으.
#1 게면은 이 순을 내보내면은 그 순 내보내민 그 키와야 뒐 거. 순이 나민 또 이파리가 나고, 이파리가 나면은 이제 그 우이 꼿도 피곡 뭐 이렇게 허는디. 이게 이제 봄순, 여름순, 가을순 이렇게 세 번 나지 아녑니까? 경 헹 세 번 나면은 뒐 수 이시면은 이제 착과허는 데는 봄순에서.
@ 봄순.
#1 착과헤야, 시켜야 헤거리가 쪼금 덜 헌다는 겁주. 게난.
#2 남이 건강허영.
#1 여름순에 착과를 시키민 무조건 헤거리가 뒙니다, 그거는. 건 헤거리 뒈 불민 따시 훼복허기도.
#2 낭도.
#1 일 년을 쉬어야만이.
#2 낭도 시들어 불고.

#1 따시 또 그 역할을 허젠 허민 또 순을 또 받아야, 봄순 여름순을 받아야, 아, 따시 열매를.
@ 거난 여름순은 다 쫄라불어야겟네양? 전정헐 때.
#2 예, 봄에.
#1 뭐.
#2 상황 보멍. 살릴 수도 잇곡 또 키우는 낭은 놔두고.
#1 게난 그 나는 여름, 여름순은 거의 뭐.
@ 짤라 불어?
#2 구십 프로.
#1 아니, 짤라 불다시피 헙니다게. 거난 봄순 위주로 착과를 시기다 보면 어 봄순에서 그 예비지가 나와마씀, 봄순에서. 꼿도 피고, 또 순도 나고.
#2 내년에 헐 나무 꼿이라는 게 예비집주게.
#1 경헤서 어 그렇게 헤야만이 경영 결과를 좀 줄일 수 잇지 안허느냐, 난 그렇게 생각헙니다. 게난 뭐 허는 거, 뭐 남이 농가에서 영 과원에 영 가보면 뭐 본인들이 직성에 따랑 다, 생각에 따랑 다 허고 잇겟지만은 뭐 나가 보건데는 아 이거는 좀 수형이 잘 잡혓나 못 잡혓나 우선 그걸 보고, 아, 수세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보곡 헤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도 헐 수 잇고 그렇게 헙니다게. 게난 나가 영 헹 봄순 위주로 착과를 시키다 보니까 해거리가 쪼끔 덜허고.
@ 덜 헤양?
#1 덜허곡 겨울살이도 견디는 데 큰 어려움이 엇고.
@ 으.
#1 여름순에 착과를 시기면은 겨울 지나민 삭데기 뒈어 붑니다. 삭데기. 이파리가, 나무가지가 봄, 여름순에서 착과 뒈나민 양봉도 못 허는 거라. 이게 다.
#2 이파리가 노랑헤비영.
@ 아이 겐 나가 작년에 여름 순에, 여름 순이 잘 나십디다게.
#1 예.
@ 겐 아 미깡 그 은 거 보난에 여름 순에도 지락지락 읋앗어.
#2 예.
@ 겐 나가 그 여름순을, 흔 서너 개 난 것을, 여름순에 읋리젠 허면은 ᄒᆞ나만 놔둬근에 다 끊어 불어야 뒐 건디, 그 하영 읋량 먹젠 헨 놔두니까, 읋긴 잘 읋앗어. 건디 꼬다마 뒈 불언, 꼬다마.
#2 예, 다마가 줄안.
#1 맞수다, 그거 게난 적과를 안 헤주민 그런 현상이 옵니다.
@ 예.
#1 여름순에 착과를 시기민양 다마가 일정허면서도 줄아.
@ 게메, 그 꼬다마 뒈언양, 아이고 첨.
#1 꼬다마 뒈민은 상품도 안 뒈곡 요거.

#2 남은 남대로 못 견디곡.
#1 남은 남대로 못 견디곡.
#2 힘들어 불곡.
#1 뭣 헤 불곡, 또 훼복허기가 그렇게.
@ 지난번에 경 헨 나가 절실히 느껸양, 이번에는 저 여름순에 욜릴 건.
#2 다 짤라 불언.
@ 거 하나, 하나만 살련.
#1 아.
@ 하나만 살련 허니까 아 이제 뭉칼뭉칼헷어.
#2 예.
@ (웃음) 아 거 베우멍 허는 겁주게.
#1 맞수다.
#2 맞수다게.
#1 처음엔 경 헙니다게.
#2 베우멍 허는 거주.
#1 헤보멍 경험자덜안티 또 소견도 듣곡 헹.
@ 거난 가끔 가당 영 보면은 이 미깡낭 전정 잘헌 디 차 세와근에양.
#1 보아마씀?
@ 예, 유심히 봅니다게.
#1 아.
@ 아이고, 이거 어떻게 헤신가? 그거 보민은 쫌 알아져.
#2 맞수다게.
@ 관심 잇게 보면은.
#1 게난 우선 나무는양 헷빗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 맞수다게.
#1 예, 그거 허곡 바람도 물론 잘 들어.
@ 예, 뷰름도 잘 들어가야.
#1 잘 들어가야 뒈고. 딱 막아지민 나중엔 밑에는 사가지 뒈 불곡 이제 허니까 헷빗과 바람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잇게끔 만들어줘야 뒈어.
#2 그것이 기술자우다.
@ 경 허고 또 하나 헌 것은 버드나무추룩 영영헌 가진 다 짤라 불고.
#2 예, 늘어진 거.
#1 늘어진 거.
@ 예, 늘어진 가지는 꼬다마더라고.
#1 꼬다마 맞수다게.
#2 필요 엇는 거.
@ 이거 다 끊어 불곡 과짝과짝 올라간 거.

#2 예.
#1 게난 올라간 것도 그레 내불면은 도장성이 잇어 가지고 이제 열매도 잘 안 달려 마씀.
@ 음.
#1 이게 ᄒᆞ끔 이 진입성으로 헤 가지고 ᄒᆞ쏠 이게 조끔 요렇게 ᄒᆞ썰 이제.
#2 비슷득허게.
#1 가지 쪽으로 영 벋어져야, 이파리가 어 그 열매도 이제 정상적인 열매가 달리곡. 이추룩 진입, 일직선으로 영 올라간 거는 도장성이 생경은에 열매가 안 달리곡 순만 납니다게.
@ 거난 그 봄순덜이 경 크지도 아녀고 요 정도씩 쪽쪽쪽 낫더라고.
#1 봄순?
#2 잘 낫수다게.
#1 거 봄순 잘 나시민 이제 여름순도 납니다게. 여름순도 나올 거난.
#2 지금도 남실 건디?
@ 예, 예, 요번에 약헐 때 보난에 요멘씩 나선게 그 귤굴나방.
#2 예.
@ 그 서껀에 다이센허고 귤굴나방 헨에, 서껀에.
#2 십오 일에 ᄒᆞᆫ 번만 치면은.
@ 예, 십오 일에 ᄒᆞᆫ 번.
#2 예, 게민.
@ 그건 베완, 십오 일에 ᄒᆞᆫ 번.
#2 예.
@ 장마철에는 순간적으로 날 존 날 헤근에 허고.
#2 예, 경 헙니다게.
#1 게난 여름순 관리허곡 봄순 관리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봄순 관리는 에, 뭐 귤굴나방 방제니 뭐 이런 거 관여 엇이 키울 수가 잇는디.
@ 으.
#1 여름순은 까딱 잘못허민.
@ 귤굴나방 잇더라고.
#2 아뜩 잘못허민.
@ 귤굴나방.
#1 예, 그 귤굴나방 들엇다 허민 관리, 저 방제허기가 좀 힘들어져마씨.
#2 시기가 놓쳐 부난.
@ 여긴 관리 잘헤십디다
#1 예.
@ 요 앞이.
#1 예.

#2 예, 저거 어린 낭 키우는 거.
#1 게난 어린 낭도 귤굴나방 생기면은 나무가, 이 크는 데도 막 지장 잇고.
#2 남 모양이 엇어.
@ 나중에 저거 궤양병 뒈 불어.
#1 나중엔 귤굴나방 뒈민 궤양병 뒈 불고.
@ 궤양병도 뒈고.
#2 예.
#1 그게 문제라마씀.
#2 그것이 병균 뒈는 거주.
#1 거난 여름순 관리를 잘 헤야 나무가 훼복뒈고 뒙니다게.
@ 거난 이, 저 ᄇᆞ름 하영 부는 디가 궤양병 잘 걸리더라고.
#1 예, 맞수다.
#2 맞수다.
@ ᄇᆞ름 하영 부는 디.
#2 ᄇᆞ름 부딪형.
#1 게난 궤양병 드는 것도 장마 전에 이제 태풍이나 이럴 때 보민, 태풍 올 때는 어, 바로 오기 전에 치지 못허면 바로 지난 다음에 궤양병 약을 다이센허고 ᄀᆞ치 서껑 쳣주만은.
@ 난 안 허고양, 하영 안 걸렷길래 거 다 톧아 불어수다게.
#2 예.
#1 톧아도 뒙니다. 궤양병균이란 게 남에 부떳을 때는 점령이 뒈는디, 떨어지민 그 바로 떨어지민 거기서 죽어 부려마씀. 걸린 이파리에 그 균이 걸린 게. 이파리 떨어진 게 게난 뭐 경 아니민 다 따베도 뒈어마씀. 옛날에는 그 분시 몰랑은에 다 태왓수다, 태왓어.
#2 타다근에 줏어다근에 베겻디 강.
#1 어디 흔 쪽에 몯앙 다 태워 불어신디..
#2 다 불태와신디.
#1 아, 이제는 그 나무에서.
@ 그냥 털어촤 불면 뒈겟구나.
#2 예.
#1 무조건 그건 그자 떨어져 베도.
#2 낭을 따 불민 뒈마씨.
#1 이제 균이 뭐 딴 디레 뭐, 물방울에 의헤서 튀어도 옮기질 않다 허는 말입주.
@ 예. 그다음에양.
#2 예.
@ 이 보리, 조는 언제 수확헙니까?
#2 조는 시월달.

@ 시월달.
#2 예.
@ 보리는?
#2 보리는 이제 흔 ᄉᆞ월, 오월,
@ 망종 때?
#2 망종, 망종 전이.
@ 망종 전이.
#2 예.
@ 콩은?
#2 콩도, 아 가는 거마씀?
@ 아니, 수확, 수확.
#2 수확, 그것도 흔 시월달.
@ 어, 산디는?
#2 산디도 그자 시월 초에 뒈어 가민.
@ 감저도 시월?
#2 게난 감저도 이제 시월.
@ 상강 전이?
#2 예, 상강일 넘으민.
@ 상강 넘엉?
#2 예.
@ 감저는?
#2 예, 감저 허민 상강일 이젠 상강일 넘으난 감저 다 컷저, 이젠 감저 파겐 허멍덜 막 놉덜 맞추멍 헤근에 뺏데기덜 허곡 헙니께.
#1 상강일 전ᄁᆞ지는 감저가 큰덴 헨 기다리는 겁주, 상강일.
#2 예.
@ 그다음에 귤은 뭐, 하우스 귤은 언제 헙니까?
#2 이월달 뒈사 탑니다. 예, 하이튼 설에 나가니까.
@ 으, 노지 귤은 십이월 초?
#2 예, 그거는 빨리 타민 십일월 이십일 경에도 타고.
@ 조생, 극조생덜은?
#2 극조생덜은 십월 흔 이십일 뒈가민 탑니께.
@ 으.
#2 경허곡 또 조생은 또 한 십일월 한 이십일, 십일일, 십일 정도 뒈가면은 사장 산 간 것덜은.
@ 이 극조생은 저 뭐냐, 저장성이 엇인 거 닮아예?
#2 저장 못 헙니께, 건.
2 으.

#2 건 기자 타멍 기자 바로.
@ 맛도 엇인 거 닮고.
#2 맛 좋는 건 맛 좁니다.
@ 아.
#2 저 일남일루엔 헌 건 맛이.
@ 일남일루.
#2 예, 그거는 맛이 엇어도양, 이제 사장덜은 그것이 다마가 좋아양.
@ 으.
#2 다마가 좋곡 또 후속실에 또 들어가야만 그때는 밀감이 좀 산도 빠지곡 맛이 잇는 때문에, 좀 말랑지고. 경헌 때문에 거 후속실에 들어가민 그 색깔은, 일남일루는 잘 난덴마씀. 경 헤부난 사장덜은 그걸 완전 선호허여마씀.
@ 으.
#2 경헌디 요즘 또 유라조생덜 나난에 유라조생덜도 사가고. 유라조생은 또 경 많진 아녀우다마는.

바다일

@ 그다음에 바당일?
#2 바당일은 해녀 아니난.
@ 바당일은양 게난, 영 들은 풍월로 영 말헙서양.
#2 예.
@ 바당일은 어떤 것덜 이수가?
#2 바당에는 어촌계 헤.
@ 메역.
#2 메역허고 우미, ᄀᆞ메기, 구젱기, 셍복.
#1 톨.
#2 톨. 하천린 또 톨이양 바당이 안 좋난산디 동근톨이 엇엉 납작톨이 이수다게. 게난 그걸.
@ 납작톨은 어떤 톨이꽈?
#2 톨이 몽클몽클허지예? 게주만 납작헌 톨은 납작납작헙니다게, 톨이. 게난 납작톨, 납작톨 헙니다. 게난 그거.
@ 어느 것이 더 좋은 거라마씨?
#2 몽클몽클헌 것이 좋은 겁주게.
@ 좋은 거?
#2 예, 그것이.
@ 거난 그 저 메역.
#2 예.
@ 채취는 언제 허여마씨?

#2 메역은 대강 옛날에는 삼월, 음력 삼월 흔 열흘, 삼월 보름 물끼에. 삼월 보름 물기에 엿날에 메역 ᄌᆞ물앗수다게. 난 물질헐 중 잘 몰라 부난.
@ ᄌᆞ눈다는 말이 무슨 말이꽈?
#2 ᄌᆞ문다는 것은 해녀가 들어가근에 메역을 망사리에 담앙 오는 것이 ᄌᆞ무는 거옌 헙니다.
@ 아.
#2 해녀들이. 강 그 여기, 다른 디선 몰르쿠다만은 여기선 메역 ᄌᆞ물레 가게, 메역 ᄌᆞ물레 가게 경 헙니다게, 게난.
@ 그 메역 채취허는 거네이?
#2 예, 채취허는 것ᄀᆞ라 여기서는 메역 ᄌᆞ물레 가는 거. 경허난 이젠 나도 이제 그때완에 물질 흔 삼 년 ᄒᆞ단에 이제 애기도 나고 헤가난에 물질 잘 허지도 못허고 헤 부난에양 설러벤에 기자 밧디 일만 허난에.
@ 바당ᄀᆞᆺ디서만 헷구나?
#2 예, ᄀᆞᆺ디서만 헨에.
@ 상군은 아니고?
#2 상군은 아니. 경허난 이제, 경허단 또 경헨 설러 볏수다. 물질 설러 벼뒨 그자 애기도 또 서방도 이제 씨집완에 석 ᄃᆞᆯ만이 군대 가부난에 그 애기 씨어멍네영 살멍 애기 키우곡 허멍 허젠 허단보난에.
@ 애기만 뭐헤뒨 군대 가불엇구나.
#2 예, 경허난.
#1 고생 많이 헤십주. (웃음)
@ 웃음. 게난 메역 저 헤치허는 날 따로 잇지양?
#2 예.
@ 그 공동으로 허는 날.
#2 공동으로, 공동으로 헤도 이녁만썩 가져옵니께. 어느 멧, 멧 월 물, 저 메칠날 물끼에는 멧 물날은 메역 허치 헴저 헙니다게. 메역 허치 허민 해녀들 가근에 들엉 ᄌᆞ물아 와. 경허난 잘허는 사름덜은 막 구루마로들 막 강 마줌헤 오고, 마줌덜 남자덜 강 지게 졍 가근에양 그걸로 져내영 헤 오곡 허멍 헷주만은, 난 물질 헐 중 몰라 부난 메역 헨 나오난에 뚜러메 아젼 왓수다.
@ 거난 하영 못 헷구나.
#2 하영 못 헤. 톨파리라 놓난.
@ (웃음) 거 망사리 보민 알아진덴 허연게.
#2 예게, 망사리.
@ 상군은.
#1 크고.
@ 망사리도 막 크고.
#2 예, 크고. 톨파리는 기자.

@ 바당 곳디 강 허는 사름은.
#2 곳디 허는 사름은 퉷박세기.
@ 톨도 공동 채취허지양?
#2 톨?
@ 으.
#2 톨은 그거 기자 저 바당에 사는 사람이 풀아 붑니다, 어촌계로. 경헤 불민 그 사근에덜 이녁 채취헤근에 푸는 사름도 잇곡, 걸름으로 쓰는 사름도 잇고.
@ 옛날은 메역이 가장 비쌋구나양?
#2 메역이 봄 나민은 그것벳기 헤영 먹엉 살 것이 엇수게. 또 가난헤 놓난 메역 주물아다근에 풀아근에양 메역 전두금도 쓰곡. 또 유채 갈민양 유채 전두금도 헤다근에 저 뭣고? 밀ᄀᆞ루도 저 유채 전두금에 태와다 주민 그거 앚당 먹엇당 또 유채로도 아져가곡, 옛날에 살기가 다 힘들엇수게게.
@ 그 구젱기 잡아봅디가?
#2 예.
@ 구젱기.
#2 예, 전복도 잡아 보곡, 궤기도, 그건 처녀 때. 처녀 때 전복도 잡아 보고, 구젱기도 잡아 보고 소살로 궤기도 쏘아 보고 헷수다.
@ 그 수첨복허고 암첨복 잇지양?
#2 예.
@ 거 어떵 구별헙니까?
#2 수첨복은 옴팡헙니다, 이디가. 이것이 옴팡허여, 요디가.
@ 으.
#2 옴팡, 옴틀락허곡. 저 수첨복은 베짝허여.
@ 배짝?
#2 예, 이것이 저 얇아. 저 암첨복은 뭉클락허곡.
@ 으.
#2 그거는 쫄랑허게시리 게난 몰르쿠다, 우리 헐 때는 그추룩 큰 것도 안 잡아 보고 허난에 나 생각이 기자 경 헌가 헴수다.
@ 그다음에 보말?
#2 보말, 보말도 잡아 보고, 수두리 그건 오월 장마 때양? 장마 때에, 지금이주게, 오월 장마 때 바당이 강 보민 감태 이신 디엔 감태보말이엔 헹 막 모다집니다. 감태 먹젠.
@ 막 큰 거꽝?
#2 보말? 보말 요만씩 헌 거.
@ 거 수두리 아니?
#2 아니, 이거보담 큰 것도, 수두리는 안 올라옵니다. 그건 물에서만 잇곡.
@ 장마철에?

#2 예, 그건 여름에도 물에서만 잇엉 해녀덜 지금도 그건 수두리는 잡곡.
@ 으.
#2 보말은 돌 일렁도 잡곡, 또 이제 저 장마 때에, 또 마타살이엔 헌 것도 잇수다.
@ 마타살이?
#2 예, 마타살.
@ 마타살?
#2 그거는 쉐에서 새끼. 제일 작은 거. 거무룽헌 건디, 불그룽헌 건디.
@ 쉐? 쉐가 뭐라.
#2 쉐엔 헌 것이 마타살이엔 헌 거우다. 이디는 마타살이엔 헙니다, 그것ᄀᆞ라. 경헌디 그것도 장마에는 막 몯아집니다게. 장마엔 몯아졋다근에 장마 끗나면은 엇어, 어디 가분 중.
@ 먹보말 알아지쿠가? 먹보말.
#2 예, 먹보말은 쪼끌락헌 게 납작헌게 새카망헌 거.
@ 먹보말?
#2 예, 수두리는 큰 거고.
@ 메옹이?
#2 메옹이는 저 그 마타살보단 큰 거. 불그룽, 안네 불그룽헌 거.
@ 메옹이 그 영 허민 좀 뭐 허여. 맵조롱, 맵조롱허지양?
#2 예, 맵조롱허여.
#1 그 쉐옌 헌 건가?
#2 예, 쉐옌 헌 거.
@ 쉐.
#1 저 어른 그거 고기 나끄레 강 잘.
@ 메옹이가 쉐라?
#2 예, 그것이 족은, 족은 것이 마타살이엔 헙니다게. 게난 여기서도 그 메옹이ᄀᆞ라 쉐엔도 헙니다.
@ 음. 그다음에 여기서는 옥돔을 솔레기양?
#2 예, 솔레기.
@ 솔레기.
#2 예, 또 검은우럭은 페우럭이엔 허고.
@ 검은우럭?
#2 예.
#1 페우럭.
#2 페우럭.
@ 페우럭. 그다음에 여기 뭐 자리, 자리도 하영 남실 거고.
#2 예, 자리도 나곡 또 저 구릿.
@ 구릿?

#2 예.
@ 구릿 뭐옌 헌다만은?
#1 벵에돔.
#2 벵에돔.
@ 으, 벵어돔.
#2 예.
@ 벵에돔.
#2 옛날엔 요즘이나 벵에돔이엔 허주만은 옛날엔 구릿이엔 헙니께게. ᄇᆞ들락.
@ ᄇᆞ들락, ᄇᆞ들레기.
#2 예, ᄇᆞ들락, 예.
@ ᄇᆞ들락, ᄇᆞ들레기엔 헹.
#2 우린 ᄇᆞ들레기엔 안 허영 ᄇᆞ들락이렌 헙니다.
@ ᄇᆞ들락.
#2 어렝이.
#1 춤ᄀᆞ메기도 잇곡.
#2 춤ᄀᆞ메기, 문닫게.
@ 문닫게 뭐라?
#2 딱제기 씌와진 거, 파랑헌 거. ᄀᆞ메기 소곱에 보면 딱지 쩨끌락헌 건디 딱지 씌와진 거. 구젱기ᄀᆞ추룩 딱지 씌와진 ᄀᆞ메기 잇지 아녀우꽈?
@ 으.
#2 그거는 문닫게.
@ 아 문닫게.
#2 예, 또 보말껍데기ᄀᆞ추룩 쩨끌락헌 거 더퍼진 거는 춤ᄀᆞ메기.
@ 그, 건 뭐냐, 저 닥살로 영 뒈어잇어이, 안에?
#2 예, 그것이 문닫게.
@ 문닫게.
#2 예.
@ 비늘 닮은 것덜은 아니고.
#2 비닐 닮은 거는.
@ 그 저 뭐냐 닥살 닮은 거로.
#1 닥살.
#2 예, 비닐, 비닐 닮은 거는 춤ᄀᆞ메기.
@ 으.
#2 또 먹보말도 그거보단 ᄒᆞ끔 뚜꺼운 거. 또 들읍서.
@ 게믄, 게난 보말 종류가 뭐, 뭐?
#2 보말, 수두리, 보말, 먹보말, 문닫게, 춤ᄀᆞ메기, 다섯 갠게마씀.
@ 다섯 개.

#2 예, 또 메옹이.
@ 으, 메옹이.
#2 메, 메옹이허곡 저 마타살 그거 두 개고.
@ 거난.
#1 또.
@ 이 저 뭐냐.
#1 군, 아니 군벗[굼벗] 말고.
#2 군벗, 벨망.
@ 군벗 잇고 멜망도 잇고이?
#1 벨망.
#2 벨망. 여기선 벨망이엔 헙니다.
@ 우린 베망, 베망.
#2 아, 여기선 벨망이엔 헙니다.
@ 벨망이.
#2 벨방, 군벗.
@ 우리 동네 벨망, 아 저 베망.
#2 아, 여긴 벨망.
@ 허멀 난 디 영 부찌는 거.
#1 어, 맞아.
#2 예, 벨망. 게난 그거 떼여근에 배에 그 씰 닮은 거 안 빼둥 먹으민 배에 허멀 난덴 허멍 헤낫수게.
@ 그거 헹 부찌면은 그거 뽈아먹넨 헤근에.
#1 으, 뽈아먹넨.
#2 게난 그건 여기선 벨망이엔 헙니다. 또 군벗, 쒜군벗, 물군벗.
@ 그 저 메역 ᄀᆞ뜬 거 그 뭐냐, 금채 기간 잇지양? 금허는 기간.
#2 예.
@ 건 언제부떠 언제라마씨?
#2 그것이 동지 넘으면은 옛날엔 메역 난덴 헙니께.
@ 예.
#2 동지 넘으면은 메역 나면은 이제 ᄀᆞᆺ디덜 가근에 막 나가민 톧아양. 톧으면은 이제 섣둘은 뒈어 가곡, 정월 뒈어 가면은 이제.
@ 겨울에 크는 거네예?
#2 예, 대썹만썩 나가민덜 톧아가면은 이제 해녀덜 이제 감시헤나수다.
@ 돌아, 저, 영 조 짜근에.
#2 조 짜근에 그 물때마다 메역 톧지 말렌, 그추룩 허멍 헤낫수다.
@ 겅헤근에 저.
#2 삼월 나민.

@ 공동 채취 헤난 다음에는 허락허고?
#2 예, 공동 채취 헤나민 헤 가도.
@ 헤 나니까양.
#2 그땐 헤나난에 그추룩.
@ 밧디 이, 저 밧디 저 농작물 헤근에 그냥 내분 것덜 줏어 가듯이.
#2 예, 그런 식이주.
@ 그다음에 속담 잇걸라근에 아는 거 영 골아줘 봅서.
#2 속담은 아는 건 무시거 엇수다.
@ 그냥.
#2 저 어른 골아 줍서.
@ 금기어라든가?
#2 예?
@ 금기허렌 헌 말이라든가.
#2 금기어가 뭐꽈?
@ 뭐 허지 말렌 헌 말.
#2 아, 속담은 알아지크라. 깝자기 들으난에. (웃음)
@ 옛날 할망덜 헷던 속담덜?
#2 아이고.
#1 무시거 속담이.
#2 생각헤 봅서, 저 어른.
@ 아이 거난, 뭐 할망 하르방덜 뭐 막 곧는 말덜 잇지 안허꽈?
#1 게메, 그것이, 아 갑자기 그런.
#2 생각 안 난에.
#1 생각이 안 나는데.
@ (웃음) 그러면은 이걸로 헤근에 끗 허쿠다.
#2 경헙서.

6. 표선면 가시리

- 조사 일시: 2022년 5월 26일, 6월 3일, 11월 2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최연미
- 제보자: #1 안정생

조사마을

@ 그 여기 마을에 대한 어떤 내용들 하고 그다음에는 이 동네에 잇는 것들, 뭐 오름이라든가.
#1 음.
@ 이런 거 여쭤보크라예. 농사짓는 거랑예? 게난, 막 어려와 허거나 걱정허지 말앙.
#1 음, 그 무시거 저 오름 ᄀᆞ뜬 거, 무시거.
@ 예.
#1 그자 일름 영.
@ 예, 예. 게난 이 마을에, 이 마을에 혹시 가시리.
#1 응.
@ 가시리 말고 옛날 다른 이름도 이섯수과?
#1 옛날엔 가스름.
@ 옛날엔 가스름?
#1 으, 옛날엔 가스름 헌디. 이 저 사태 넘은 후제 기자 가시리.
@ 음. 사태 넘언 다음에 저기 가시리예?
#1 예.
@ 가스름이라신디.
#1 그, 그 전에는 가스름.
@ 가스름. 그다음에는예? 이 마을에.
#1 음.

오름

@ 그 아까 오름들 잇어도 잇어낫덴 헷잖아. 오름들 잇덴 헷잖아예?
#1 오름?
@ 요거 뭐꽈?
#1 요거, 요 ᄇᆞ딘 디 거부떠 몬여 ᄀᆞᆯ으카?
@ 예. 예, 예.
#1 갑선이오름.

@ 갑선이오름.
#1 예.
@ 또 무슨 오름 이수과?
#1 또 읃디 가민 저 설오름.
@ 설오름, 예.
#1 음. 또 우트레 가면은 저 따라비.
@ 따라비. 아, 따라비도 가시리 거구나예?
#1 예, 예, 예.
@ 예. 그다음? 따라비오름.
#1 또 그보담 우트레 가면은 저, 거 목장 안네.
@ 예.
#1 그것도 저 가시리 목장이난에.
@ 예.
#1 사슴이. 사슴이라고 허는디 일름이 두 가지라.
@ 예.
#1 엿날 말로 영영 헤영은 사슴이고.
@ 예.
#1 지금 저, 대록봉.
@ 대록봉?
#1 예. 거 저끗디 오름 ᄒᆞ나가 그거는 저, 저짝 목장더레 잣, 젯, 잣담 저쪽에 신 거 주마는.
@ 예.
#1 그거는 소록봉, 이펜이, 이 우리 목장 안네 신 거는 대록봉.
@ 대록봉. 아, 대록봉, 소록봉?
#1 예. 대록봉은 오름이 좀 큰 거니까 대록봉이고.
@ 큰 거니까.
#1 저쪽엣 건 조곰 족으니까 소록봉이고.
@ 아, 기구나예.
#1 예, 예.
@ 그다음 다른 오름 엇수과?
#1 다른 오름, 아이고, 저, 요쪽이.
@ 예.
#1 저, 번널오롬.
@ 번널오름.
#1 음.
@ 번널오름, 그다음?
#1 또 저 벵곳오롬[벵곧또롬].

@ 벵곳오름. 아이고, 잘도 하다예. 벵곳오름예?
#1 예. 벵곳오롬.
@ 벵곳오름. 또?
#1 음, 그거, 그거벳긴 엇어.
@ 그니까 가시리하고 세화리 사이에 잇는 오름은 무시거꽈?
#1 가시리광 세화리 사이에, 저 이디서 베려지곡 ᄒᆞ는 오름이 저, 가세오름.
@ 가세오름?
#1 음.
@ 그 가세오름은 가시리 저.
#1 가시릿 건 아니.
@ 저 세화 거?
#1 예, 세화, 원 세화릿 오름이주.
@ 아.
#1 거, ᄒᆞᆫ 쪽드렌 토산이 부뜨고, ᄒᆞᆫ 쪽드렌 세화리가 부뜨곡.
@ 겨난. 이름은 가세오름이라예?
#1 예, 가세오름.

물

@ 게난. 어, 그다음엔 어 여기에 혹시 나는물 이수과?
#1 음?
@ 물, 솟아나는 물?
#1 물, 솟아나는 물?
@ 으, 이수과? 가시리에?
#1 우리, 이, 이 가시린 엇곡.
@ 예.
#1 그 가세오름 어느 쪽인 나, 보진 안 헤도 그 어느 쪽이 세미물이라고.
@ 예.
#1 땅으로 솟아올르는 거.
@ 어, 그디예? 가세오름에예?
#1 예.
@ 맞수다. 나 그디 한 번 간 적 이수다.
#1 예, 가세오름.
@ 가세오름엔 잇구나. 여긴 엇고예?
#1 예, 예.
@ 그믄 여기서는 물 어딧 거 떠다 먹어수과?
#1 예, 여기서는 어디 물, 어딧 거 먹느냐고?
@ 음, 음. 그전에 수도 엇인 때.

#1 그전에는.
@ 응.
#1 냇물.
@ 겐 무신 내창에 잇는 물? 어디 내창에 물?
#1 냇물, 이제 산으로 내려온 냇물. 그전에는.
@ 그 내 이름 알아지쿠과?
#1 아이고, 일름은, 그 내가 그레도 가곡 저레도 가곡. 이 가시리트레 들어오는 물ᄀᆞ라는 산내엔 헷일 거라.
@ 산내.
#1 산내ᄒᆞ곡. 또 갈려 가근에 가시리트레 오곡, 저 성읍리트레 가곡 ᄒᆞ는 내가 시난에. 성읍리트레 가는 것도 산내. 이 가시리트레 오는 것도 산내.
@ 산내 아.
#1 경ᄒᆞᆫ디 지금은.
@ 예.
#1 원, 내에 뭐 내에 물 사용ᄒᆞᆯ 일도 엇곡 먹지도 아니허곡.
@ 물은 계속 나오고?
#1 예. 물은 이젠 그 좋ᄒᆞᆫ 물을, 생수를 먹으니까.
@ 음, 맞수다게.
#1 으, 미릇엔 물은 먹지도 아니ᄒᆞ곡 원 쓰지도 아니ᄒᆞ곡 원 그거는 아니ᄒᆞ는 거난에.
@ 미릇에 물?
#1 음. 미릇 건.
@ 아.
#1 겨곡, 그자 지금은게 기자 생수 ᄒᆞ영 기자 먹는 것두 그거고, 쓰는 것두 그거고.

당

@ 게난. 그다음엔예? 가시리에 혹시 당 이수과? 당.
#1 아이구, 당 ᄋᆞ라 개 잇주.
@ 그 당 이름들 ᄀᆞᆯ아줍서.
#1 이거 아멩헤도 영 ᄒᆞᆫ 때에 보젠 산디.
@ 게난, 게난예.
#1 이 마을에서 저 이장님이영.
@ 예.
#1 이거 문 당 일름 문 ᄒᆞ멍 다 영 책 만들고 헤연에.
@ 예, 예.
#1 이거 나신디도 책을 ᄒᆞ나 주언에 가져다 놘. 이거.
@ 아이고, 잘하셧수다게, 예.

#1 겨난, 이것덜은 이거, 이거 심방, 단궐.
@ 게난 그 당 이름 ᄀᆞᆯ아줍서.
#1 음.
@ 무신 당, 무신 당 이수과? 그냥, 삼춘 생각나는 대로.
#1 으, 생각내는 대로 허주.
@ 예.
#1 제일 큰당으로부떠 ᄀᆞᆫ주, 저.
@ 예, 큰당. 본향당이꽈?
#1 저, 구성물당[땅].
@ 구성물당, 예. 예. 그다음?
#1 으. 거 쓰고?
@ 예.
#1 또 이 가시리 안네, 저 닥남우연.
@ 닥남연?
#1 으, 닥남우연.
@ 아 닥남우연.
#1 예, 닥남우연. 그 엿날에 허물할망당이라.
@ 아, 이건 허물할망당?
#1 음.
@ 또?
#1 또 저 또 ᄒᆞ쏠 저레 가민은 저 승지물당[땅].
@ 승지물당.
#1 예.
@ 지금 다 잇지예? 당들예?
#1 아, 다 싯주.
@ 예, 그다음?
#1 또 저 안자리트레 가면은 속곱집당.
@ 속곱집당.
#1 음.
@ 예.
#1 당, 당은 거저 뒌 거 닮고.

포제

@ 예. 그다음에 혹시 어, 여기 가시리에도 포제 헤낫수과?
#1 아이고, 포제ᄒᆞ곡, 지금에 일 년에 ᄒᆞᆫ 번 포제, 설오름이엔 헌 오름 썻지이?
@ 예, 예.
#1 설오름에가 그 포제 지내는 오름이라.

@ 설오름에 포젯단 아직도 이수과?
#1 예, 예. 포젯단 싯주.
@ 음.
#1 경 ᄒᆞ곡. 거 일 년 구물젠 ᄒᆞ면은 음력으로 정월둘이 나면은.
@ 예.
#1 ᄆᆞ을제 헤여근엥에 그 오름에, 그 산에 올라가근엥에 제지내곡.
@ 음.
#1 그디 젤 지내젠 출리젠 ᄒᆞ면은, 하이고, 저 엿날에는 기자 장소가 엇으난에 어디 잘사는 큰집으로 ᄒᆞ영 집을 빌어근엥에 거 포제라고.
@ 예.
#1 제 일름은 포제.
@ 예.
#1 포제라고 일름을 지와근엥에 헤영 막 제관덜 ᄆᆞᆫ 뽑아근엥에.
@ 음.
#1 ᄒᆞᆫ 번 제지내젠 ᄒᆞ면은 그 제지낼 그 집을 정ᄒᆞ민 그 집이서 ᄒᆞᆫ 사흘 밤 사흘은 살아야.
@ 맞수다.
#1 ᄁᆞ딱 올레벳깃디 나가지 못ᄒᆞ게, 그 뎅경 부정이나 ᄒᆞᆯ 건가 뭐 헤영, 거기서 살아근엥에.
@ 음.
#1 사흘 밤 사흘 차는 저 산에 올라가근엥에 제 때 뒈면은 그 제를 지내여동 내려오는 거라.
@ 음.
#1 게난.
@ 지금도 그걸 헴서마씨?
#1 으, 지금도 헤.
@ 해마다?
#1 예, 지금도 헴주게.
@ 아, 기구나.
#1 겨난 저디 그 마을 포제 그거 ᄒᆞ곡. 이디 구성물당이라고 ᄒᆞᆫ 디이.
@ 예, 예.
#1 저디 그 저 포제는 남저당이고.
@ 예.
#1 이 저 구성물당이엔 ᄒᆞᆫ 건 여저당이고.
@ 아. 겡 구성물당에도 자주 감수과?
#1 응, 이디는 저, 정월 구뭄에.
@ 정월 구뭄에?

#1 정월 구뭄날 춤, 내낭 가민 다 출려근엥에 저 막 정성들이 출려근엥에 그디 문 지엉 가근엥에, 그디서 거 심방이 와 가지고.
@ 음.
#1 춤, 그 제물헤영 문 올려놓곡 굿을 헤여.
@ 게난, 거긴 제물로 그 개인적으로 제물 준비헴수과? 아니믄.
#1 으, 으. 개인적으로 준비헤.
@ 게민 삼춘 그때 그 제물 준비할 때.
#1 으.
@ 아, 구성물당 지금도 허멘, 저 당 지내레 갑니까? 제지내레?
#1 으, 으.
@ 거민 할 때, 뭐, 뭐 준비헹 갑니까?
#1 무시거게, 저 음식?
@ 예, 음식.
#1 저 원, 그 메. 밥은 으레 건 ᄒᆞ는 거난.
@ 예.
#1 밥ᄒᆞ고.
@ 메ᄒᆞ고.
#1 떡.
@ 떡은 미신 떡?
#1 돌레떡.
@ 돌레떡.
#1 돌레떡. 저 엿날에는 모물떡도 ᄒᆞ곡.
@ 예.
#1 그 산디떡도 ᄒᆞ곡. 두 가질 ᄒᆞ질 아녀곡, 두 가지 중에 아무 거라도.
@ 하나.
#1 헤영 헤여신디. 엿날엔 어려우난에 거고. 이제는 모물떡ᄒᆞ는 디도 벨루 엇곡.
@ 음.
#1 좋은 쏠 헤여근엥에 거 돌레.
@ 돌레떡으로?
#1 예, 돌레떡으로 허영 ᄒᆞ곡.
@ 음.
#1 저 쏠도 놓곡.
@ 예.
#1 돈 놓곡.
@ 예.
#1 또 제숙. 머리곶인제숙 구워 놓곡.
@ 머리 곶인 거?

#1 예.
@ 주로 무시거마씨?
#1 메 ᄒᆞ여근엥에.
@ 머리 곶인 고기는 무시거?
#1 셍성.
@ 셍성으로? 음.
#1 저, 또 계랄이나 숣앙 가는 디도 잇곡.
@ 아. 계란 삶앙 가는 디도 잇고.
#1 음, 음. 겡 헤근에 그자 마음껏 막 정성 들여근엥에, 이 그디 가젠 ᄒᆞ면은.
@ 예.
#1 뒈야지고기도 메칠 앞사부터 금지헤영 먹지 못ᄒᆞ곡, 거 부정헌 거라고.
@ 예, 맞수다.
#1 예. 경 헹 막 이, 이녁 냥으로 이녁 춤, 마음껏 힘들이 정성을 막 잘헤여.
@ 음.
#1 잘헤영 ᄒᆞ곡. 싹ᄒᆞ게 몸도 깨끗ᄒᆞ게 모욕ᄒᆞ곡.
@ 음.
#1 거기 갈 때 이제는 한복 아니 헤도 입엉 가는 거 같아구나마는, 우린 늙으난 거 설러불 건 때 오래난.
@ 음.
#1 ᄒᆞ는구나만은, 옛날에는 거기 가젠 ᄒᆞ면은 첨 한복 싹ᄒᆞ게 출리곡. 그디 갈 때에 군대구덕 고운 거 헤영 거 제물이여 뭐 ᄉᆞ못 제숙이여. 제주, 저 술도 ᄒᆞ곡.
@ 음. 제주.
#1 으.
@ 제주론 뭐 헤수과?
#1 음?
@ 제주는 무신 술 헤수과?
#1 술겐 저 소주.
@ 그냥 소주?
#1 사다근에.
@ 소주 사당?
#1 음.
@ 소주 엇일 땐?
#1 엇일 때 엇어.
@ 아. 엇일 때 엇어.
#1 음.
@ 아, 기구나.
#1 엇일 때 엇어.

@ 아, 기구나예.
#1 겡 ᄒᆞ영 원 ᄆᆞ음 정성.
@ 마음 정성.
#1 ᄆᆞ음껏 정성을 잘헤여야.
@ 맞수다예.
#1 으. 경 ᄒᆞ민 그디서 막 굿ᄒᆞ곡.
@ 음.
#1 거 문 넹겨 놔근엥에 말짜이는 액맥이도 ᄒᆞ곡. 혼 사름, 혼 사름 막 문 산 받아보곡. 이제 좀 액이라도 나쁜 사름덜은 문 액막아 주곡.
@ 음.
#1 막 천이영 ᄉᆞ못 돈이영, 쏠이영 많이 아졍 가근엥에.
@ 음.
#1 막 놓멍.
@ 으.
#1 ᄉᆞ뭇 춤 그자 정성껏 기자 이녁 막 액을 궂인 액은 문 막곡 문 ᄒᆞ는 거.
@ 음. 이것도 정월에 헤수과?
#1 음?
@ 이것도 정월에 헤수과?
#1 그때, 그때.
@ 정월에? 포제 헐 때?
#1 아니, 포제가 아니고. 포제는 저디 강 하르방 제가 포제고.
@ 아니, 시간.
#1 구성물당이 홀 때.
@ 아니, 시간. 날짜가.
#1 아, 날짜가. 그날, 그날 그때.
@ 게난 포제 헐 때 구성물당도 허는 거?
#1 아니, 아니. 혼디 아니.
@ 혼디 아녀?
#1 구성물은 날짜를 정헤졍, 음력으로 정월 구뭄날.
@ 정월 구뭄날.
#1 어. 정월 마지막 날.
@ 음.
#1 그날이 날 덕이 좋앗던.
@ 아, 정월 구뭄, 아까 얘기헸다.
#1 궂엇던.
@ 음.
#1 으, 그날이 결정뒌 날이고.

@ 음.
#1 저디는 저, 날짜를 봐서 뒐 수 시민은 정해일이 좋은 날짜라.
@ 맞아.
#1 정해일로 저 날을 택헤여근에 가곡.
@ 음.
#1 또 정해일이.
@ 예.
#1 그때 곧 넘어나 가불면은 따시 돌아오젠 허민 저 간에 멀 거난.
@ 으.
#1 또 뭔 딴 요일로 ᄒᆞ여도.
@ 으.
#1 날짜 봐근엥에 좋은 날로 ᄒᆞ여지민.
@ 음.
#1 저 ᄆᆞ을에 포제 넘곡 구성물당에 넘곡 헤여 불민, ᄆᆞ음이 헉삭ᄒᆞᆫ덴 ᄒᆞ주.
@ 아.
#1 막 그 제덜들을 지내젠 허민 ᄉᆞ못 정성ᄒᆞ곡 무시거 어디 뎅경 궂인 거나 봐지카, 미시거 허카.
@ 음.
#1 걱정 뒈곡 막 ᄒᆞ는 거라 부난.
@ 게민 그 구성물당에도 숫 멥니까?
#1 음?
@ 숫, 숫 메여?
#1 아이구, 저 숫은 아니 메주.
@ 안 메여.
#1 으. 숫 아니 메여.
@ 아, 기구나. 게민 심방은 어디서 빌어 옵니까?
#1 심방은, 이 ᄆᆞ슬이 심방이 섬 시민, 이 ᄆᆞ슬 심방ᄒᆞ영 ᄒᆞ주만은. 이 ᄆᆞ슬은 심방도 엇곡, 목수도 엇곡.
@ 음.
#1 경 ᄒᆞᆫ ᄆᆞ슬이라.
@ 아이구, 게민 저 산 자전 헐 때도 목시 엇이민 어떵 헴신고예?
#1 아이구, 뭐 무신, 이 저 집 짓일 때 무시거 ᄒᆞᆯ 땐, 전부 다 웨방 목시주.
@ 아, 기구나.
#1 이 ᄆᆞ슬은 집 짓는 사름 없어.
@ 음. 아니, 산자전 볼 때.
#1 아, 저 정시, 그건.
@ 게난 정시.

#1 정시도 빌어당벳기 이 ᄆᆞ슬은 엇어.
@ 엇어?
#1 으. 정시, 그건.
@ 정시. 맞아, 맞아. 목시가 아니라 정시.
#1 정시, 정시.(웃음)
@ 맞아예.(웃음) 정시.
#1 음, 음, 음.

문화재

@ 기고예. 그다음에는 그럼 이 마을에서 혹시 문화재 같은 거 이수과? 마을에.
#1 없어. 문화재는 저 성읍.
@ 성읍에 이서예? 맞아예.
#1 음, 음.
@ 근데 여기 보난 무신 뭐, 뭐드라? 무슨 미술관? 자연 무슨 미술관인가 뭐 이선게 마는.
#1 아, 그거는 원.
@ 그냥 웨방 사람들이 왕 헴수광? 학교, 옛날 학교 헤난 자리에 무신거산디 헴선게 마는.
#1 그건.
@ 초등학교 헤난 자리에.
#1 아, 초등학교 헤난 자리?
@ 예.
#1 아이구, 그거 저 미술관.
@ 게, 그.
#1 그거 무신 사진작가 무시거 헌 사름 살암주.
@ 아, 이 가시리 사름 아니?
#1 가시리 사름 아니.
@ 아, 기구나예? 어, 좋수다. 그다음에는예, 어.
#1 그디 완. 초등학교 헤난 디 집은 그대로고 그 자리에 헤연에 거 웨방 사름 집을 비왕 내붐 보단은 낫으난 오랑 살렌을 아메도 헌 거 ᄀᆞ따.
@ 맞수다게.
#1 이 ᄆᆞ을에서가.
@ 아, 예.
#1 게난, 오라근에게 살멍, 막 사진 그리곡 뭐 그디 관광객덜토 오면은 막 꽉 차게 돌아가, 막.
@ 아, 기구나예? 음.

제보자 정보

@ 그다음에는예? 어 삼춘.
#1 음.
@ 어, 아까 이제 그 감저 먹으멍 ᄀᆞᆯ은 소리 잇잖아예?
#1 으?
@ 감저 먹으멍 우리끼리 헌 소리.
#1 으.
@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라고 헷을 때, 삼춘, 어디서 태어나수과?
#1 아, 아, 아. 아, 태어남을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 예.
#1 음.
@ 어디서 태어납디가?
#1 아이고, 나는 세상 태어날 때도 이 ᄆᆞ슬이고.
@ 예.
#1 이 ᄆᆞ슬서 크고.
@ 예.
#1 이 ᄆᆞ슬서 이 ᄆᆞ슬에 시집간 살고. 딴 ᄆᆞ을에 그 사태 만난 때에 잠시 잠깐 피난 뎅김뿐이주. 딴 ᄆᆞ을에 간 살아본 적이 엇어.
@ 알앗수다. (벨소리) 게민 삼춘, 학교.
#1 아이고.
@ 학교 어디까지 다녀수과?
#1 학교가 무시거라. 학교랑 못ᄒᆞ고데곡 강습소에라도 ᄒᆞ쏠 뎅겨나시민 경헤도 ᄒᆞ쏠 무시거 영허영 ᄒᆞ주마는 판찍. 그런 거 저런 거 아녀곡. ᄉᆞ태 넘은 후제.
@ 예.
#1 이디 오랑 살젠 ᄒᆞ난에. 에, 강습소, 이 ᄆᆞ슬에서 쪼금 헤여낫어.
@ 음.
#1 어디 난 아니 헤나도.
@ 음.
#1 쪼끔덜 영 마을에서 영 헹 허난에 강습소엘 막 날ᄀᆞ라도 나오라고만.
@ 음.
#1 나오라고만 허난에, 말뎬 허단 그 애기 두 개 ᄃᆞᆯ곡 갈 정도가 아니난에게.
@ 맞수다.
#1 말뎬 영 ᄒᆞ단에 우리 그 춤, 지네 아빠 여불 때에 그 뱃속에 셔[서]난 것가 그게, 그게 애기랏주게. 애기게. ᄒᆞᆫ읏이 걸어뎅이도 못ᄒᆞ는 애기난에.
@ 맞수다게, 진짜.
#1 아이구, 그걸 ᄃᆞᆯ곡 헤여근엥에 거 우잇 걸라근엥에 그때 세 설이난, ᄒᆞᆫ 네 설쯤 뒈여 가난에 ᄒᆞ쏠 춤 역아 가곡.

@ 맞수다예.
#1 아이구, 그 시절에 뭐 삿바가 싯는가 뭣이 잇는고. 하도 오렌 허난에 삿바도 안 채우고 그자 옷 ᄒᆞ나 입지는 체ᄒᆞ고 ᄒᆞᆫ 번 둘앙 갓어, 둘앙 가난. 아, 그놈의 애기가 오줌을 싸 부난에이, 아이구, 누게 반갑덴 ᄒᆞᆯ 사름 셔[서]? 다 미워ᄒᆞ주 ᄒᆞ난.
@ (웃음)
#1 게난 그때 오라 비언에 원, 따시 원 안 가봣어.
@ 음, 안 가불언예.
#1 원 안 가부난에 나냥으로 나 일름도 잘 원 그릴 중 몰라낫주.
@ 음.
#1 몰라낫는디. 춤, 강습소에도 ᄒᆞᆫ 번 아이 가보곡 헤도, 기자, 기자 이녁 냥으로 기자 이땅 춤 무신 둑발ᄀᆞ찌 개발ᄀᆞ찌 그려봣닥 말앗닥. ᄒᆞ쏠 시간이 난 땐 영 헤보곡, 경 아년 땐 말곡 ᄒᆞ멍 ᄒᆞᆫ디. 기자 지금은 그, 저 노인 일자리 헤여근엥에 일ᄒᆞ레덜 뎅기곡 ᄒᆞ난, 그런 디 가면은 매일 자기 냥으로 자기 일름을 써야.
@ 아.
#1 그, 거기서 그 온 직원이 썽은 안 뒈여.
@ 아.
#1 그 본인 솜씨를 붸와얀다고.
@ 게난, 우리처럼 아까 싸인 꼭.
#1 막 영 엥기려도.
@ 맞수다, 맞수다.
#1 그, 그 솜씨를 허라고 영 ᄒᆞ난.
@ 맞수다, 맞수다.
#1 게난, 그런 거 ᄒᆞ쏠 엥기려 가곡 ᄒᆞ난에 이젠 그런 디 강 기자 춤, 엥기리는 거. 이녁 그 일름 제 엥기려. 그런 건 그려져.
@ 기구나.
#1 (웃음) (중략)
@ 예. 다시 허커라예?
#1 음.
@ 그다음엔 나이가 멧 살 뒛수과?
#1 아이고, 나이는 구십칠 세.
@ 아흔, 아흔일곱예? 아이고, 진짜 어떵 그축 곱닥허게 나이 들어신고예? 띠는? 무사.
#1 아이고, 곱닥. 이 가죽을 봐봐.
@ 아이구, 겅헤도 진짜.
#1 겡헤도 저 오늘도 노인정에 가난에 저 남제덜 영 강 싯단에. 삼춘, 무사 불럼딘? 삼춘은 원 점점 젊아간에 어느 때도록이나 살아지쿠겐. (웃음)
@ 게난, 진짜.

#1 게권데 나.
@ 잘도 잘도 고와난 거 닮아마씨.
#1 아이구, 나 철년말년 살젠 영 ᄒᆞ누렌.
@ 으.
#1 춤, 한창 ᄀᆞ찌사 살젠 ᄒᆞ는 아덜 메누리도 보내여두곡 난 철년말년 살젠.
@ 띠는 무시거꽈? 띠.
#1 으이?
@ 띠, 띠.
#1 띠?
@ 으, 무슨 띠?
#1 호랑이띠.
@ 호랑이헤치.
#1 으.
@ 호랑이.
#1 음. 그자 호랑이난 범, 범띠.
@ 범띠?
#1 으, 으, 으.
@ 그다음엔 출생지는 아까 저기 그냥 가시리고예?
#1 으.
@ 알앗수다. 그다음엔예? 삼춘네 어무니, 아버지는 뭐 허멍 살아수과?
#1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겐 게 이디 살앙이사 무시거만썩 기자 농사지멍 살아낫주만은, 저 우리 아버지도 젊은 때 돌아가 불곡, 그 우리 ᄉᆞ태 만난에 나가 가도 오도 못ᄒᆞᆯ 때엔 우리 어머니가 셔[서]낫어.
@ 아.
#1 어머니 시난 어머니 의지로 그 아이 두 개 ᄃᆞᆯ앙 그것덜 키우곡 헹 살앗주, 헌디.
@ 음.
#1 ᄉᆞ태 넘으난에 멧 해 안 살안에, 아이고, 육십도 못 살안에 오십아홉에 어머니도 오꼿 돌아가 비여서.
@ 음. 어머니도 원래 가시리 분이엇수과?
#1 음. 원래 가시리. 지금 저 어저께 ᄀᆞᆯ은 그 오○○ 씨가 우리 어머니, 저 오빠 아덜.
@ 음. 그 오○○ 어른도 포제 같은 디 자주 헤나수과? 그 제관으로 가나수과?
#1 아이구 저 가주게. 옛날엔이.
@ 음.
#1 일 년에 ᄒᆞᆫ 번썩 제관을 뽑으멍 ᄒᆞ난에 기자 저, ᄉᆞ뭇 영 황당헤영 춤 각시나 죽어나 불곡 무시거 막 황당ᄒᆞ게 아니 ᄒᆞᆫ 디는 다 그자 돌아가멍.
@ 음.

#1 훈 해썩 훈 해썩 그 제관을 뽑으멍 문 헤여낫어.
@ 게난. 포제 헤난 거랑 나중에 그분안테 가근에 물어보젠. 포제 출려난 거.
#1 아, 물어보젠?
@ 예, 예.
#1 으, 으, 포제 출리는 것도이.
@ 예.
#1 우린 출려보뎐 아녀난 몰라도, 출리는 것도 그자 그 큰제니까 하간 거 저 과일 ᄀᆞ뜬 거 드는 거 더 들주. 그자 제서 출릴 때추룩 출렴실 거라.
@ 기지예.
#1 우리 출려보든 아녀난 몰라.
@ 몰라예.
#1 음. 그자 그 도세기 잡앙 전ᄆᆞ리로 ᄒᆞ여근엥에 훈방울[혼빵울] 떨어불 거 없이 오꼿 전ᄆᆞ리로 ᄒᆞ여근엥에 그 장소에 시꺼 가민 뒈여.
@ 맞수다.
#1 경 헤영 ᄒᆞ곡. 그자 그디 저 하간 제물이영 메영 하간 거 제서 출릴 때추룩 그자 곱엇이(?) 문딱 출려.
@ 음. 혹시 옛날에 사진 찍은 거 이수과?
#1 사진?
@ 예. 아이들 사진이나 삼춘 사진.
#1 아이구 엿날에.
@ 흑백사진.
#1 엿날에 그자 집이서 사진 찍엉 놔두는 건 엇엉 헤여두 그자, 저 어디 구경이나 여행이나 가곡 훈 때덜 찍은 거 셔[서]난 헤여도. 아이고, 그거 놔뒀자 무시거 씰데기 엇은 거 허멍 문딱 술아 불곡 다 없이 헤이 불고 ᄒᆞ난, 저 나가 죽엉이나 쓸 사진, 큰 사진.
@ 영정사진?
#1 그것벳긴 없어.
@ (기침) 아이고, 옛날 애기덜, 애기덜.
#1 아이고, 엿날 애기덜 사진은 무신 사진.
@ 흑백사진 엇수과?
#1 음. 사진 엇어.
@ 운동회 때라도 찍어난 거.
#1 사진 엇어. 저 역은 후제덜은 지네대로 영 산 후젠 사진덜이영 막 훌터졍 찍엉 헷자, 그것사게 날 줭 내 이디 아졍 오는가?
@ 맞수다.
#1 아져 오질 아녀주게.
@ 맞수다.

#1 우리 그 증순이주. 그 아덜네에 손녀 손자난에 흔 거.
@ 게난 증손지.
#1 그 증손덜 그 애기덜. ᄉᆞ뭇 사진덜 볼나위엇이 문 찍곡, 거 아덜네 가족덜 문딱 영 헹 찍어근엥에, ᄉᆞ뭇 문 저 가꾸보찌 출리멍 문 ᄒᆞ곡 헤엿자이, 아이고, 그거 아져 다근에게 무시거 허젠 나 아지느닌. 어머니도 ᄒᆞ나 앗다근엥에 겁서, 아이고 첨, 나 그거 걸엉 무시거 허젠 거느니? 니네나 걸라. 난 말다, 말다.
@ 알앗수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허크라예?
#1 음.

일월

정월 멩질

@ 정월 뒈믄, 정월 멩질이 잇잖아예?
#1 음.
@ 근데 멩질 출리젠 허믄 멩질 전이덜.
#1 음.
@ 무신 준비할 것들이 막 잇잖아예?
#1 아이고, 멩질 전이 그자 하간 거 멩질에 쓸 거 준비게.
@ 게난 그 쓸 것들 뭐, 뭐 준비헤나수과?
#1 아이고, 무시거 들언게. 기자 밥ᄒᆞ곡 떡ᄒᆞ곡.
@ 게난 떡허젠 허민 미리 가 가지고 무신 쏠도 골아사 뒈고 그런 거.
#1 아이고, 엿날에는.
@ 예.
#1 설멩질에는 저, 지금은 나룩이엔 ᄒᆞ여도.
@ 산디.
#1 산디.
@ 예.
#1 산디 헤여근엥에 산디 헤영 그거 장, 장만ᄒᆞ젠 ᄒᆞ면은.
@ 예.
#1 비영 무꺼다근엥에 산디도 홀트는 클이 서.
@ 예, 맞수다.
#1 그거 헤근에 영 홀트멍 허여근엥에 막 마당에 영 헹 널어근엥에 도께로 영 영 두드리멍. 그 산디 방울 막 동구랑 예쁘게시리 문 멘들아근엥에 바싹 물류와근엥에. 그 질가에 보민 둥구리는 맷돌.
@ 예.
#1 물ᄀᆞ레라고 흔 것이 있어.
@ 물ᄀᆞ레예.

#1 으.
@ 마을 여러 사람 쓰는 거?
#1 방에는 서너이 사근에 영 영 ᄒᆞ는 거 방에고.
@ 아니, 물, 물ᄀᆞ레?
#1 물ᄀᆞ레는 서너너이 영. 이거 이거 맷돌이민 영 도는 거, 도는 거.
@ 예.
#1 그디 가근, 그런 디 가근엥에 ᄀᆞᆯ아.
@ 예. ᄀᆞᆯ아.
#1 ᄀᆞᆯ아근엥에 쌀을 멘들아서 그 ᄊᆞᆯ을 시쳥 물에 컹 ᄌᆞ눌롸근엥에 따시 또 방에.
@ 예. 방에에 ᄆᆞᆺ아.
#1 방에에 ᄲᆞᆺ으면은 ᄀᆞ루 북삭ᄒᆞ게 허영. ᄲᆞᆺ다근엥에 거 ᄀᆞ는체 헤영 체질에 헤근엥에 영 영 헤영 ᄀᆞ룰 쳐 앗아둬근엥에, 또 우잇 건 또 놩 ᄲᆞᆺ곡 ᄒᆞ멍 헤근엥에 그거 헤영 그 ᄀᆞ루 장만 헤근엥에 친떡도 ᄒᆞ곡 ᄃᆞᆯ ᄒᆞᆫ 착 솔펜도 ᄒᆞ곡.
@ ᄃᆞᆯ ᄒᆞᆫ 착.
#1 동글레기 젤벤도 ᄒᆞ곡.
@ 절벤도 ᄒᆞ곡.
#1 온갖 것을 ᄆᆞᆫ ᄎᆞᆯ리곡.
@ 그난 그건 멩질 전날? 전에? 멩질 전날?
#1 으, 저 멩질 전날 ᄆᆞᆫ ᄎᆞᆯ려사.
@ ᄎᆞᆯ려사.
#1 그 멩질날 아척이는 그 차례상을 ᄎᆞᆯ려야 ᄒᆞᆯ 거난.
@ 맞수다.
#1 경 헤근엥에 ᄒᆞ곡.
@ 저 제주는 어떵 준비헷수과?
#1 응?
@ 제주?
#1 제주?
@ 응, 제주, 술. 술 허는.
#1 거 엿날엔 술도.
@ 예.
#1 술 ᄒᆞ엿다근엥 집이서 그 고소리라고 ᄒᆞᆫ 거 ᄒᆞ영 술 다까근엥에.
@ 음.
#1 그걸로 ᄒᆞ영 썻주만은.
@ 무신, 무신 ᄊᆞᆯ로 헤영?
#1 ᄊᆞᆯ.
@ 예.
#1 ᄊᆞᆯ ᄒᆞ여근엥에게.

@ 게난 고소리에서 술 빼젠 허민 무신 쏠로 헤수과?
#1 아이구, 쏠은이, 저 흐린좁쏠도 ᄒᆞ영 홀 때도 싯곡.
@ 예.
#1 곤쏠로 홀 때도.
@ 이시곡예?
#1 신 사름은 곤쏠로 ᄒᆞ곡.
@ 음.
#1 엇은 사름은 ᄒᆞ쏠 서숙쏠이라도 허영 ᄒᆞ곡.
@ 음.
#1 경 헤근엥에 ᄒᆞ곡.
@ 그다음은 채손? 채소.
#1 채소?
@ 예.
#1 고사리ᄒᆞ곡.
@ 예.
#1 콩ᄂᆞ물ᄒᆞ곡.
@ 콩ᄂᆞ물도 옛날, 콩지름 질왕 헤수과?
#1 아, 엿날엔 콩지름 질왕.
@ 질왕예?
#1 콩지름 질롸근엥에 그거 ᄒᆞ영 삶아근엥에 영 뭣덜 문 놓곡 헤근엥에 헹 보깡.
@ 게난. 그다음에 고사리ᄒᆞ곡, 콩지름ᄒᆞ고 또?
#1 콩지름 ᄒᆞ곡 또 저 묵을 ᄒᆞ면은이.
@ 아니 채소, 채소. 채소 중에 고사리ᄒᆞ고 콩지름ᄒᆞ고 또?
#1 아, 저 그거는 저 ᄒᆞᆫ읏이 여라 가지 아녀. 고사리ᄒᆞ곡, 콩지름ᄒᆞ곡 묵메물ᄒᆞ곡 ᄒᆞ민은 뒈여, 그건.
@ 아, 묵, 묵.
#1 묵도이.
@ 예.
#1 저, 묵메물 홀 거 요 지레기썩만 ᄒᆞ게시리 헤여근엥에.
@ 아.
#1 또 이것추룩 솔랑솔랑ᄒᆞ게 썰어근엥에 올릴 때면은.
@ 예.
#1 고사리, 콩ᄂᆞ물에 ᄒᆞᆫ 접시 안 올려서, 그건 딴 접시에 헤여근엥에.
@ 아, 음.
#1 저 다섯 개썩.
@ 다섯 개씩.
#1 그 숫자를 세여근엥에 영 소랑소랑허게 헌 거 다섯 점썩. 그거 헤영 놓곡.

@ 그거 헹 놓고. 그다음에는예?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헷수과? 정월 멩질에 떡.
#1 정월 멩질에 떡은게 문친떡ᄒᆞ곡.
@ 무신 떡?
#1 저.
@ 문친떡?
#1 응, 응. 곤쏠로 거 친떡이영.
@ 예, 침떡예.
#1 솔펜이영 젤벤이영 은절미영.
@ 솔벤. 예. 절벤이랑, 은절미예?
#1 으.
@ 그다음엔?
#1 경 헤근엥에.
@ 우찍은 안 헤수과? 우에 영 지름떡.
#1 아이 그걸이, 그거 다 출리젠 ᄒᆞ면은이 중궤, 약궤라고이.
@ 예, 중궤, 약궤.
#1 중궤는 영 소랑ᄒᆞ게 만들곡.
@ 예.
#1 약궤는 네귀방장ᄒᆞ게 만들곡 헤영 중궤 약궤ᄒᆞ곡, 저 우찍ᄒᆞ곡.
@ 예.
#1 또 과질ᄒᆞ곡.
@ 과질?
#1 응.
@ 과질까지. 음.
#1 경 헤근엥에 ᄒᆞ곡. 팔월 그거.
@ 지금 정월 멩질에 대헤서만 나 물어봠서예? 팔월은 쪼꼼 잇당 물어볼 거.
#1 어, 어, 어. 경 헤여게.
@ 정월 멩질에.
#1 그 시기가 ᄯᅮ나부난에 음식은 ᄀᆞ뜬 음식을 못 헤여.
@ 못 헤여. 게난. 정월 멩질엔 문친떡, 솔펜, 절벤, 은절미, 중궤, 약궤, 과즐. 또 무시거 이수과?
#1 으. 그거민.
@ 그거민 뒈고.
#1 으, 그거민 뒈엇주.
@ 그다음에 저 적, 적갈은?
#1 적갈, 소고기 적갈.
@ 예. 쉐고기예?
#1 뒈야지고기 적갈.

@ 예.
#1 바닷궤기 굽곡.
@ 바닷궤기 무시거? 바닷궤기.
#1 셍성, 셍성.
@ 그냥 셍성으로예?
#1 음, 음. 셍성 헤영 굽곡 또 그 채소.
@ 예.
#1 저, 고사리.
@ 예.
#1 콩ᄂᆞ물.
@ 예.
#1 묵메물.
@ 예. 그건 아까 다 굴앗고.
#1 어, 어. 곧곡, 쓰곡 헤어시민 그건.
@ 뒀고. 그다음엔 뒈야지고기, 쉐고기, 바닷궤기 셍성.
#1 으, 으, 으.
@ 하고. 그다음엔 저 과일은 무시거 헤수과?
#1 과일은 저, 뭐 곳곳이 수정을 다 헤야헤.
@ 아, 옛날엔.
#1 아이고 옛날엔 다 못 헤여.
@ 무시거 헤수과?
#1 옛날엔 다 못 헤영 그 옛날에 헤난 거 우리도 잘 다 알지도 못ᄒᆞ주겐 헤영 아이고, 삶은 어렵곡 헤영 ᄒᆞ민, 무시거 과일도 ᄒᆞᆫ 가지도 헤영 ᄒᆞ곡 두 가지.
@ ᄒᆞᆫ 가지, 주로 ᄒᆞᆫ 가지만 헐 땐 뭐 헤수과?
#1 ᄒᆞᆫ 가지만 헤여도겐 기자 올려근엥에 기자.
@ 게 ᄒᆞᆫ 가진 무시거? 뎅유지?
#1 제지내민 기자 그거 ᄒᆞ는 거.
@ 게난 ᄒᆞᆫ 가지가 무시거? 옛날에 올렷던 거.
#1 저.
@ 뎅유지?
#1 엿날에는 뎅유지여 소유지여 무시거 헤낫주마는.
@ 음.
#1 이제 그런 거 독ᄒᆞ영 안 먹어.
@ 안 먹어. 게 옛날에 뎅유진 올려낫지예? 뎅유지벳기 엇일 땐예?
#1 으, 으. 경 ᄒᆞᆫ디 이젠 독ᄒᆞ여 부난, 거.
@ 맞수다.
#1 먹지도 아녀고 허지도 아녀.

@ 게난 삼춘, 옛날 헤난 거 굴아주민 뒈여.
#1 으?
@ 옛날 헤난 거 굴아주민 뒈여.
#1 옛날.
@ (웃음) 옛날 헤난 거.
#1 으. 경ᄒᆞ건 뎅, 뎅유지영 써.
@ 뎅유지하고 소유지?
#1 으.
@ 소유자 얘기헴신가?
#1 소유지랑 쓰지 말주게. 뎅유지만.
@ 알앗수다. 뎅유지만 헤시난예?
#1 으, 으.
@ 뎅유지 헷고. 그다음에?
#1 뎅유지ᄒᆞ곡.
@ 그다음엔 그다음에 상.
#1 산물이엔 ᄒᆞᆫ 것도 싯긴 허여.
@ 아, 산물예?
#1 으.
@ 그리고 삼춘.
#1 음.
@ 그 멩질허기 전에 이제 멩질허젠 허민 ᄎᆞ례 돌아와야 멩질상 찰리젠 허난, 새벡이 혹시 국멩질 따로 허는 거 엇엇수과?
#1 음?
@ 떡국멩질이나 국멩질?
#1 아이고, 저 떡국도 ᄒᆞ주.
@ 아니, 새벡이. 그니까 멩질날.
#1 으.
@ 이제 자기 차례가 와사 상 찰릴 거 아니꽈예?
#1 으, 으, 으.
@ 그 차례 전이 새벡이.
#1 게메 엿날에 그거 허여난.
@ 게난.
#1 헤나고 지금도 허는 딘 ᄒᆞ여.
@ 그거를 무시거렌 굴앗수과? 걸.
#1 떡국.
@ 떡국멩질? 떡국.
#1 떡국.

@ 떡국.
#1 으, 으, 으.
@ 떡국을, 떡국을 떡국 멩질이엔 헤수과? 그냥 떡국이렌만 헷수과?
#1 그자 떡국이엔만 허민 ᄒᆞ주.
@ 아.
#1 그자 저 차례 전이 떡국 끌령 먹는 거옌 ᄒᆞ여도 뒈곡.
@ 그냥. 그건 멧 시쯤에?
#1 그것도 ᄒᆞ면은이.
@ 예.
#1 끌리면은 상에도 올리곡.
@ 올리고예?
#1 그 차례 허기 전에.
@ 음.
#1 거 사발에덜 영 영 거령 올렷다근엥에 내려와.
@ 맞수다. 제지내기 전 올렷당 내려왕 그다음 다 나눠먹는 거지예?
#1 어, 어. 먹음은 ᄂᆞ놔 먹는 거.
@ ᄂᆞ놔 먹고예?
#1 으, 으, 으.

멩질상

@ 그다음엔? 이제 그 멩질날 이제 상을 차릴 거 아니꽈예?
#1 음.
@ 상을 차릴 때, 그 떡 놓을 때 ᄎᆞ례 ᄀᆞᆯ아줍서. 맨 밑엔 떡 뭐 놔수과?
#1 떡 놓는 그릇?
@ 아니, 떡을 이렇게 놓면.
#1 으.
@ 처음에 뭐 놔수과? 떡을. 다 따로따로?
#1 아. 저, ᄯᆞ루ᄯᆞ루 헤사주마는 그 솔펜, 절벤, 은절미 그거 ᄒᆞ는 거는 ᄯᆞ루 아녀.
@ 음.
#1 그 사라에.
@ 맨 처음.
#1 이것이 사라면은.
@ 예.
#1 맨 처음에는 친떡.
@ 어, 친떡.
#1 다음에는.
@ 다음에는?

#1 은절미.
@ 음. 은절미.
#1 또 다음에는 젤벤.
@ 젤벤.
#1 또 다음에는 솔펜.
@ 솔펜.
#1 솔펜 우이는 우찍.
@ 우찍.
#1 저 또 그.
@ 중궤, 약궤는 어디다 놧수과?
#1 중궤, 약궤ᄒᆞ고 과질ᄒᆞ곡은.
@ 예, 따로?
#1 따른 그릇 헤여근에 헤야주. 준떡 올리는 디 다 못 헤여.
@ 알앗수다. 경 헷고예.

멩질옷

@ 그다음엔 그 조 멩질허기 전에.
#1 음.
@ 멩질옷들 만들아낫잖아예?
#1 어, 멩질옷덜 문 ᄉᆞ뭇 만들앗주.
@ 멩질옷들 삼춘이 직접 만들아수과? 아이들 거?
#1 아이고, 아이고 춤, 아니.
@ 안 헤연?
#1 음.
@ 못 헤연?
#1 아이구, 경 ᄒᆞ곡 나 홀 때에 아이덜 거 그거 멘들곡 무시거 홀 정신이 신가? 삶이.
@ 맞수다게.
#1 경ᄒᆞ난에 그자 입단 게나 뿔앙만 입져도 뒈주.
@ 맞수다게.

세배

@ 어, 그다음엔 세배허레 다녓잖아예?
#1 음, 음.
@ 어, 세배허레 다닐 때는 소나이덜만 다녓수과?
#1 세배ᄒᆞ레, 세배ᄒᆞ렌이.
@ 예.

#1 멩질, 그자 ᄎᆞ담 ᄒᆞ는 집이덜 ᄎᆞᆺ앙 가면은 거기 신 분한티 다 세배ᄒᆞ곡.
@ 예.
#1 상에 절헤여도근엥에 거기 신 분안티 다 그자 절ᄒᆞ민 세배ᄒᆞ는 거고.
@ 세배는, 세배허는 거는 메칠 정도 헤수과? 동네까지 다 허젠 허민. ᄒᆞᆫ 메칠 걸려수과?
#1 멧 사름 정도 ᄒᆞ느냐고?
@ 아니, 메칠? 메칠 동안?
#1 아이고, 엿날엔 사흘ᄁᆞ장 헷어.
@ 사흘ᄁᆞ지 헨예?
#1 음. 지금은 아녀난 허주, 엿날엔 사흘ᄁᆞ장 헷어.
@ 게난. 그다음에 아까 그 저 떡, 이렇게 친떡이니 은절미니, 젤벤, 솔벤, 우찍 놧잖아예?
#1 으.
@ 처음에 상 차릴 때 상 위에 맨 처음에 무시거부터 올렷수과?
#1 무시거 더 올릴 게 셔?
@ 처음에 상 찰릴 때. 맨 처음에 뭐 놔? 메하고 밥부터?
#1 아, 아. ᄎᆞ담 올리는 거?
@ 예, 예.
#1 아니, 아니. 밥, 밥ᄒᆞ고 국은 영 ᄒᆞ당 보민 젤 막끗 때사 올려.
@ 처음엔 무시거?
#1 젤 초담에는이.
@ 예.
#1 젤 초담에 상을 짝허게 영 페와 놔근엥에.
@ 예, 예.
#1 ᄒᆞ면은 저 잔부터 문여 걸어.
@ 잔부터 먼저, 으.
#1 문저 잔에.
@ 예.
#1 젤 처음은 술을 아니라서 감주를 잔에 비와서.
@ 예.
#1 저, 요 닮은 종제기 닮은 것에 비왕.
@ 예.
#1 잔대에 놔근엥에.
@ 예.
#1 그 상드레 올려.
@ 올려, 예.
#1 올리곡.

@ 그다음.
#1 수제 걸곡.
@ 이제 수제 걸곡.
#1 수제 걸곡 ᄒᆞ영 놔둬근엥에.
@ 예. 그다음.
#1 이젠 거 떡을 궤멍 올리기 시작을 허여.
@ 올려. 게 떡을 올려난 다음엔?
#1 떡 올려난 다음에 그자 그 고기도 올리곡, 그 떡 올린 다음에는 그자 거기 올릴 거 그자.
@ 그자?
#1 그거고 저거고 그자 ᄌᆞ근ᄌᆞ근 그자 영 궤멍 문 올려가.
@ 아, 기구나.
#1 떡만 문여 올리민.
@ 올리고예.
#1 음, 음.
@ 예, 예. 알앗수다.

정월 대보름

@ 그다음엔 이제 정월 멩질 세배까지 다 끗나민 보름이 뒈잖아. 정월 보름에.
#1 음.
@ 정월 보름엔 무시거 헤수과?
#1 (웃음) 정월 보름에는이.
@ 예.
#1 오곡밥 헤여 먹곡.
@ 예.
#1 게, 우린 허여보진 아녓어.
@ 게난.
#1 헤여보지 아녀도 말만 들어도 경 ᄒᆞ곡.
@ 예, 예.
#1 우리 저 일ᄒᆞ레 뎅길 때 ᄒᆞᆫ 번 저 육짓 사름 사장 헤영 저 공장 짓언 ᄒᆞ는디. 요 포제 지내는 오름 앞이 집덜 짓언에 그디서 막 하간 거 ᄒᆞᆯ 때에, 그디 일ᄒᆞ렐 뎅겨보난에, 육짓 분들은이 참 정성을 잘헤여.
@ 음.
#1 그 정월 보름날 대보름날에 거 오곡밥을 ᄒᆞ영, 거 그디 삶은 시에 사난이.
@ 예.
#1 시에서 그 아척이 오멍, 그 자기네 마누라가 문딱 출령 주난, 아졍 오라선게만은. 오곡밥 ᄒᆞᆫ 거 아젼 오란 우리도 줜 먹어남은 헷어.

@ 음.
#1 아 저 우리 ᄒᆞ여보던 아년.

연날리기

@ 겐 보름엔 게민 저기 삼춘넨 안 헷덴 허고. 애기덜 혹시 막 연날리거나 겅 안 헷수과? 연, 연. 하늘에 연날리는 거.
#1 아이구, 연날리는 거 ᄒᆞ주겐, 무사 아녀 ᄒᆞ여게.
@ 게.
#1 ᄒᆞ쏠 ᄋᆞᆨ은 아이덜.
@ 역은 아이덜?
#1 음.
@ 게믄 막 연 집이서 만드는 거 집에 왕 막 만듭니까? 삼춘네 아덜덜.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덜덜 대에 나가난에 그런 거 없어.
@ 아, 기구나예.
#1 ᄒᆞ질 아녀.

점치기

@ 그다음엔 정월 대보름날 이제 다른 마을덜 보민.
#1 음.
@ 막 떡점 지고 헤신디, 떡점 같은 건 안 졋수과?
#1 아이고, 엿날엔 떡점도 지곡, 돈점도 지곡 막 허엿주만은.
@ 예.
#1 안 헤여, 안 헤여.
@ 안 헤여.
#1 이젠 그런 거 통 설렁 안 헤여.
@ 아니 겐 옛날에.
#1 게메, 엿날 헷자, 지금 ᄒᆞ젠 ᄒᆞ민 지금 사름덜이 알지 못헤도 못헤여.
@ 게난. 아니, 게난 옛날에 헤낫수과?
#1 엿날엔 헤여낫주게.
@ 삼춘도 헤봔?
#1 아니.
@ 안 헤봔?
#1 우린 그것 저것 경 문 출령 살질 아녀난에.
@ 어. 기구나예? 음. 그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그런 거 안 헤도 그 그냥 그 집안들, 자기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마씨?
#1 아, 그자 저 딱 제서 홀 제서 ᄒᆞ주. 그자 정월 보름이라고 허영 제서나 무시거 그런 거 허진 아녀고.

@ 안 헷수과?
#1 음, 음.
@ 아, 기구나예? 그리고예, 그다음에 정월 보름엔 안 헷고.

액막이
@ 그다음엔 그 혹시나.
#1 으.
@ 그 정월에 보면 그 뭐렌 헤야 뒙니까? 액막이로 헤 가지고는 전부 다 아까 무신 저.
#1 아이고.
@ 그디 강?
#1 그거이.
@ 예.
#1 엿날에나 지금이나 허영 그런 날짜 봐근엥에 좋은 택일.
@ 예.
#1 그 집이 온 식구 날, 저 ᄉᆞ주를 다 영 헤영 보멍 형 다 그거 저 생기 맞추와 가지고.
@ 예.
#1 어느 날 내여근엥에 좋은 날로 날짜 정헤근엥에.
@ 예.
#1 막 잘 출령 엑맥이 헤여.
@ 어디서, 집이서? 마당에서?
#1 으, 집이서, 집이서. 집이서 영 문전에서 영 ᄒᆞ여.
@ 겡 그때 헐 때.
#1 음.
@ 아까 문전제도 하잖아예?
#1 음.
@ 그축 할 때, 무신 제사 문전제 말고 또 뭐헤수과?
#1 음?
@ 문전제, 그니까 액막이 헐 때.
#1 으, 으, 으.
@ 문전제 아까 헷덴 헷잖아예?
#1 으.
@ 문전제만 헨?
#1 아, 저, 그 액맥이.
@ 조왕제 같은 건 안 헨?
#1 어. 아이구, 그 조왕제도 어쩌다가 ᄒᆞ는 사름 흠사 ᄒᆞ여신디 ᄒᆞ여도, 우린 그건

봐보도 아녀ᄒᆞ고.
@ 음.
#1 ᄒᆞ난 그런 거 몰르고.
@ 칠성제도 안 허고?
#1 아이고, 칠성제도 ᄒᆞ는 딘 헤여.
@ 어, 가시리서 칠성제 허는 딘 허고.
#1 으. ᄒᆞ는 사름은 ᄒᆞ곡 아녀는 사름은 아녀.
@ 혹시 칠성제 허는 사람들 어떵 헤나신지 혹시 들어나수과?
#1 아이구, 잘 듣지도 아녀곡.
@ 음.
#1 몰르곡게.
@ 몰르고.
#1 음, 몰르고.
@ 가시리에도 칠성제 허는 사름은 헷지예?
#1 아이, 가시리에서는 칠성제 무신 ᄒᆞᆫ읏이덜 경 아녀실 거라. 저 문전제덜은 많이 헤여.
@ 게난 그 문전제.
#1 이젠 아녀도, 전인 많이 헤여.
@ 그 문전제는 정월에서 정월 보름 헤수과?
#1 음, 음.
@ 언제?
#1 이 저, 정월로 시작ᄒᆞ면은이.
@ 예.
#1 정월에도 ᄒᆞ곡 이월에도 ᄒᆞ곡.
@ 음.
#1 건 날짜만 좋은 날짜 택ᄒᆞ민.
@ 텍허민 뒈는 거.
#1 삼ᄉᆞ월에ᄁᆞ장 헤여.
@ 음.
#1 겨곡, 경 ᄒᆞᆫ 때는이 심방 빔도 하이고, 매 집이 ᄒᆞ다실프게 ᄒᆞ여 놓난이.
@ 음.
#1 경 ᄆᆞ음대로 재기 확확 ᄒᆞ지도 못허여.
@ 아.
#1 그 문 택일ᄒᆞ멍 허영 심방을 빌젠 ᄒᆞ면은 심방 빔도 어려와.
@ 어려왕예.
#1 음, 음, 음.
@ 올레코시도 헤나수과?

#1 아이고, 올레코시 홀 때에 이디도 ᄒᆞ고.
@ 허는 거. 문전제 헤나민 올레코시 허고.
#1 으, 으. 원, 문전제, 올레코시 거 부떵 ᄒᆞ는 거.
@ 고팡제도?
#1 그거는 이디 홀 때에 그자 그레 영 거령 놧당 앗아 부는 거.
@ 앗아 부는 거. 거려 놧당. 문전젯 거 헌 거예?
#1 어, 어, 어.
@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일월달에예?
#1 음.

당제

@ 이제 포제가 아까 헷엇고예? 그다음엔 아까 당제가 잇엇덴 헷잖아예?
#1 으. 포제 다음에.
@ 구성물당허고 포제.
#1 포제 다음엔 당제.
@ 당제예?
#1 음.
@ 당제가 그믄 저 구성물당제 얘기허는 거지예?
#1 음, 음, 음.
@ 예. 그거는 이제 다 하고.

보리밭 밟기

@ 그다음에 그때, 일월에예?
#1 음.
@ 밧. 밭에.
#1 음.
@ 정월에 밭에, 보리밧디서 정월에 뭐 허는 거 엇엇수과?
#1 아이, 그건 엇곡.
@ 보리밟기는?
#1 게메. 보리밧디라도.
@ 게 보리밧디 막 보리밟으렌 안 가낫수과? 정월에.
#1 저, 영 헤영, 지금도 영 보민은 테레비에서 육지 사름덜이나 ᄒᆞ는 거 보주.
@ 음.
#1 여깃 사름은 보리 붋곡 무시거 ᄒᆞ는 건 아니ᄒᆞ여.
@ 보리농사들은 하영 헷지예?
#1 아, 농사사 하영 ᄒᆞ주.
@ 하영 헤신디 보리밟기는 안 헹 그냥.

#1 으, 저.
@ 이딘 뚜뜻헌 마을인 거 닮다예?
#1 지경이 널르고 허여 부난에이.
@ 으.
#1 그거 헤영, 그거 보리밧디 붋곡 무시거 ᄒᆞ젠 ᄒᆞ민 사름덜 지쳥 살지도 못ᄒᆞᆫ다.
@ 맞수다. (웃음)
#1 (웃음)
@ 기구나예.

걸궁
@ 어, 그다음엔 어, 이 가시리 마을에서는 걸궁 엇엇수과? 걸궁?
#1 걸궁?
@ 예.
#1 엿날에 걸궁 헤여난.
@ 헤난.
#1 음, 음, 음.
@ 그게 언제쯤이엇수과?
#1 아이고, 그거 거 ᄉᆞ태.
@ ᄉᆞ태 전이.
#1 나젠 ᄒᆞᆯ 때 ᄒᆞ난에 ᄉᆞ태 나건 때가 저, 칠십사 주년이라, 지금.
@ 게난.
#1 게난 그 전에.
@ 그 전에?
#1 으.
@ 해방 뒈근에?
#1 으.
@ 음.
#1 그 전에 ᄒᆞ는 거 봐낫주.
@ 음.
#1 봐낫주. 원, 그루후젠 원, 없어, 없어.

입춘
@ 음, 기구나예. 그다음엔 정월에는 보면 입춘이 들잖아예?
#1 음, 음, 음.
@ 입춘에는 뭐 헤나수과?
#1 입춘에는 아무 것도 아녀. 입춘날에 저, 여저들은 놈이 집이 가지 아녀곡.
@ 예.

#1 남저는 이웃칩이라도 가면은 ᄉᆞ뭇 저 밧 갈아주곡 ᄉᆞ뭇 일ᄒᆞ여 줄 장남 오랏젠 ᄉᆞ뭇 곤밥ᄒᆞ고 궤기 끌령 준덴 허여나곡.
@ 음.
#1 여자는 놈의 집이 가민 물 꿰왕 치데기곡.
@ 음.
#1 겡 헤낫어.
@ 게믄.
#1 여자 놈이 집이 가민이 재숫가리 나쁘곡 거 농서도 잘 아이 뒈곡, 밧디 그 풀만 막 처나곡 ᄒᆞ덴. 막 욕ᄒᆞ곡.
@ 검질 하영 난덴.
#1 음, 음, 음.
@ 거 다른 건 엇엇수과? 뭐 무신 긴 거, 끈 가졍 다니지 말렌 헌다든가.
#1 무신거 헌 거?
@ 긴 거, 뭐 긴 거 뭐 가졍 다니지 말렌. 진 거 가졍 다니지 말렌.
#1 어, 긴 거 가졍 뎅이민 그런 거 많이 뎅인덴.
@ 어, 진 거 가졍?
#1 어, 경 ᄒᆞᆫ디, 그런 거 ᄒᆞᆫ읏이 뎅리라 말라 헤도. 아이고, 저 경도 ᄒᆞ여근엥에 거 입춘날엔 저 베도 아져 뎅기지 말렌 ᄒᆞ곡은 헤여낫어.
@ 기지예? 배 가졍 다니지 말렌.
#1 음, 음.
@ 또 다른 건 엇엇수과?
#1 다른 건 무시거 엇어.
@ 무신 바농질 허지 말렌 헌다든가.
#1 음. 다른 건 무신거 벨로 엇곡, 기자.
@ 빨래 숧지 말렌, 이런 말은 엇엇수과?
#1 빨래?
@ 예. 빨래 숧지 말렌.
#1 아, 빨래 숧지 말라, 무시거 ᄒᆞ라 그런 건 잘 못 들언 이신디. 기자 거 무신 베끗겡이 ᄀᆞ뜬 노끗겡이 ᄀᆞ뜬 그런 것들 ᄒᆞ쏠 멩심헤영 아져뎅기지 말렌. 경 ᄒᆞ여도 멩심ᄒᆞ영 춤지 못ᄒᆞ여근엥에 그날은 노는 날로 헤여근엥에 저런 산에라도 가근엥에 막 낭 걷엉 졍 오곡. 벨 어떵 헤영 안 아졍 뎅겨?
@ 맞아. 아이고.
#1 아젼 뎅겨사주.

방에

@ 여긴 또 농사도 짓고.
#1 ᄋᆞ게.

@ 저기 저 뭐 웆드르난 저 쉐들도 막 몰이영 쉐영덜도 질롸실 거 아니꽈예?
#1 음.
@ 게민 그때 그 저 오름에 막 불 안 부쳐낫수과?
#1 아이고, 무사 불 아이 부떠. 그땐 저 막 저 방엣불 영 부쪄근엥에 그 질로 부뜨기 전에.
@ 예.
#1 방에선이라고 저 막 ᄆᆞ을 사름 문 나사근엥에 영 포그랑ᄒᆞᆫ 날엔 허영 영 부찌멍 영 조름에 꺼가멍 ᄒᆞ영, 거 방엣불을 그레저레 부뜨질 못ᄒᆞ게.
@ 음.
#1 막 허여낫주.
@ 음.
#1 허여낭 헤도, 경 허당도 어쩌다가 재수가 궂이민 불이 놀아근엥에 저 막 산불이 위험ᄒᆞ곡 헤낫주마는. 방에 아이 부쪄 건 때가 막 오래라고 ᄒᆞ난, 그런 것도 잊어 불고.
@ 음. 방에선? 방에선?
#1 음, 방에선.
@ 방에선. 알앗수다.
#1 막 포근헌 때쯤은 영 어수름에덜쯤 아이고, ᄉᆞ뭇 저 방에선 허레덜 문 나오렌 ᄒᆞ멍. (웃음)
@ 경 헷수과?
#1 음.

이월

영등

@ 이젠 정월에서 이월에 넘어가민.
#1 음.
@ 영등 들잖아예?
#1 음.
@ 영등 들믄 그땐 어떵 헤나수과?
#1 아이고 저 영등은 여기서는이, 영등 그자 원 그자 시지부지.
@ 음. 게도.
#1 ᄒᆞᆫ읏이 무신 이디, 이디도 저 이디서는 아니 헤여도.
@ 예.
#1 거 육지서 영 헤근에 영등굿이엔 ᄒᆞ는 거 테레비에서 보믄 헴서.
@ 테레비에서만 봔예?
#1 막 ᄉᆞ뭇 크게 출령 놔근엥에 막 ᄒᆞ는 거.

@ 음.
#1 게도 이디 사름덜은.
@ 웃드르난, 음. 뭐 특별하게 영등에 뭐 금하는 것도 엇엇고예?
#1 어, 음, 음. 금ᄒᆞ는 건 읏어.
@ 그렇구나예?
#1 저, 무시거 허영 ᄒᆞ면은 저 그 당에라도 간 때에이.
@ 예.
#1 그 영등이 들어오랑 나가지 아니헌 시기에쯤은.
@ 예.
#1 저, 메 헤영 갈 땐 메 두 그릇 거령 가졍 갈 거라도 영등 들어오랑 신 땐 세 그릇을 헤여.
@ 아.
#1 영등 내시 ᄒᆞᆫ 그릇들 헤영 가.
@ 그 어디 갈 때? 당에 갈 때?
#1 당에, 당에라도 갈 때.
@ 아, 그 영등 나가기 전에.
#1 으, 영등 내시 ᄒᆞᆫ 그릇 아졍.
@ 아, 기구나예.
#1 경 헤영 ᄒᆞ주. 영등 내시 무시거 ᄯᅮ루 출리진 아녀.
@ 출리진 아녀고예?
#1 음, 음, 음.
@ 그렇구나예.

농사

@ 그믄 그 이월에는 농서 가뜬 거, 농서 뭐허는 거 엇엇수과?
#1 이월엔 농서ᄒᆞ는 거 엇주게. 저, 농서철이 뒈어사주게.
@ 뒈사주.
#1 이월엔 농시ᄒᆞᆯ 때가 아니라 부난.
@ 아니라 부난, 음.
#1 음.
@ 구감은 언제 심엇수과?
#1 응?
@ 구감. 감저 구감.
#1 감젓 구감?
@ 예.
#1 영등ᄃᆞᆯ은 넘주. 저 거시기. 거, 그거, 그거 일름을 잊어 비엇저. 거 봄 나가면은 거 감저 모종이영 놀 때에, 그거 무시거영 그 농, 그런 농서ᄒᆞ는 시기 일름이 이서.

@ 경칩마씨? 경칩이나 추, 춘분?
#1 아니.

삼월

청명

@ 청명?
#1 쳉멩, 쳉멩, 쳉멩.
@ 청명. 게믄 이제 청명으로 넘어가크라예?
#1 으, 으, 으. 쳉명, 쳉명.
@ 어, 청명에는 뭐 헤수과? 아까, 감저 심엇수과?
#1 어, 저 우린 아니 허주마는.
@ 예.
#1 게고, 이디서 누게 딴 사름덜토 흔읏이 아녀 ᄒᆞ주만은 저, 감저 서너 개썩 댓 개썩 놧다근엥에 허영 먹는 거라도 ᄒᆞ는 사름덜은.
@ 음.
#1 저 엿날에는 쳉멩이 뒈면은 감저 종자를 놔나신디.
@ 예, 예.
#1 이 근간은 거 쳉멩 아주 먼 때에 놔.
@ 아.
#1 일찍 놔.
@ 일찍 놔.
#1 으.
@ 아, 이젠 비니루 속에 놓난. 비닐 더퍼 놓난예?
#1 으, 비니루 더프곡 ᄒᆞ난에 증승도 안도 꿰곡 ᄒᆞ난에.
@ 맞수다.
#1 일찍 놓곡, 일찍 놩 좀 인칙 놩 크면은 줄 끊엉 놀 때도 또 일찍 놓곡.
@ 일찍 놓고. 아, 기구나예?
#1 경 ᄒᆞ민은 감저도 일찍.
@ 일찍 나난, 아.
#1 일찍 들어.
@ 음. 청명하고 곡우하고, 곡우는, 곡우 때는 뭐 헷수과?
#1 무시거?
@ 곡우. 비가 오는 곡우. 아, 그냥 넘어가쿠다. 곡우렌 헤 가지고 이제 청명하고 곡우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는 거잖아예?
#1 음, 음.
@ 일단 게도 청명 때 감저 놓고.

한식 멩질

@ 한식 멩질은 안 헷수과? 한식 멩질?
#1 한식 멩질 옛날 헷자 설러건 다 막 오래고.
@ 아, 옛날에 한식 멩질 어떵 헙디가?
#1 아이고, 한식 멩질 홀 때 우리 두린 때부떠 설러 부난에.
@ 아.
#1 우리 ᄒᆞ여보지도 아녓어.
@ 아.
#1 어떵 ᄒᆞ곡대곡. 저, 영 생각만 헤도.
@ 음.
#1 다른 멩질 ᄒᆞ는 거나 출림은 ᄀᆞ뜨게 출리곡.
@ 음.
#1 그자 거 한식이라고 쳉, 쳉멩이나 한식이나 ᄒᆞᆫ 거는 여기 지금, 여깃 말로 ᄒᆞ영은 간식이라, 간식.
@ 아, 간식. 음.
#1 설 멩질은 조반이고, 팔월 멩질은 정심이니까.
@ 음.
#1 조반광 정심.
@ 사이.
#1 순간에 간식이라.
@ 간식 정도로 간단허게예?
#1 으, 으. 간단. 아명헤도 간단히 출려.
@ 게, 한식 땐 경 헹 멩질 간단허게 출려근에 어디 강 제라도 지내나수과?
#1 아이, 그게 집이서, 집이서, 집이서 넹기주게.
@ 한식은. 음, 기구나예.
#1 으, 집이서게 냉기주.
@ 한식은 뭐 밥, 찬밥 먹고 헌덴 헷잖아예?
#1 아이구, 찬밥은 무시거겐? 집이서 헤영 출리민게 기자 메 ᄒᆞ영 ᄯᅮ뚯ᄒᆞᆫ 거 거령 올렷다근에 제지내여도근엥에덜 먹는 거난에게. 이녁 그.

봄 벌초

@ 그다음에 청명에는 감저도 심주만은 산에 저, 산에 가지 안 헤나수과?
#1 쳉멩에 저, 봄벌초라고 벌초도 ᄒᆞ곡.
@ 봄벌초도 하고.
#1 어, 어. 벌초도 ᄒᆞ곡, 저 벌초ᄒᆞ레 가젠 ᄒᆞ면은 과일이영 제주영.
@ 제주영.
#1 빵이라도 좀 사 놓곡.

@ 아, 그 봄에 허는 데도 강 간단허게 제지냇구나예?.
#1 으. 경 헹 가근엥에 잔 걸어근엥에 그자 영 ᄒᆞ여둬근엥에.
@ 음.
#1 저, 벌초ᄒᆞ여둬근엥에 허곡.
@ 음.
#1 그자 그거 헤여난 건 거기서덜 갈라 먹곡.
@ 갈라서 먹곡에?
#1 음.
@ 그 청명 시기에 쉐나 물들 목장에 안 올려수과?
#1 아이, 목장에 올렷주.
@ 목장 올리는 게, 게난 언제엿수과? 그게.
#1 음?
@ 목장에 쉐 올릴 때 그때가 언제꽈? 멧 월?
#1 저, 그거 목장에 올릴 때에게 쳉멩 ᄀᆞ리에 올리는 거주. 그 봄이 낭 ᄯᅮᄯᅳᆺ헤여 가곡.
@ 풀 나가민.
#1 이 저 드르에.
@ 예.
#1 거 푸성거리가 막 나근엥에 쉐덜 영 끈어 먹게 뒈여 가민 올리는 거.
@ 올리는 거, 맞아예.
#1 음.

사월

사월 초파일

@ 어, 그다음엔 이제 사월에 가면 초파일이 잇잖아예?
#1 으, 초파일 잇주.
@ 초파일 때는 무시거 헷수과?
#1 초파일 들민게 그자, 그자 이디 그자 사는 사름덜은 그자 무관심ᄒᆞ게 살아도게 아이구, ᄉᆞ뭇 부처님 오는 날이엔 ᄒᆞ멍 절간에덜은 ᄉᆞ뭇 막 제덜토 ᄒᆞ곡, 등덜 막 둘곡.
@ 삼춘은 절에 안 다념수과?
#1 아이 다녀.
@ 안 다녀?
#1 음, 음, 음.
@ 기구나예?
#1 음, 음.
@ 주로 절에 가멍 혹시 사람덜 주로 무시거 헹 감신지 봐나수과?

#1 어, 무시거 헤영 가는 것토 그것도 보도 아녀고 몰르고. 이녁이 뎅기질 아녀 부난.
@ 아녀 부난.
#1 뎅기지 아녀 부난.
@ 알앗수다.

고사리 꺾기

@ 그다음엔 그 사월 뒈면 저 ᄒᆞ꼼 그 ᄯᅳ뜻헤지기도 하고예? 그다음엔 고사리는?
#1 고사리는 저.
@ 삼월에 꺼끄레 다녓지예?
#1 으, 쳉멩에 고사리 나는 거.
@ 청명에예?
#1 으, 음. 저, 삼월 쳉멩에, 이월 쳉멩에는 고사리가 나근엥에 고사리를 먹곡.
@ 음.
#1 삼월 쳉멩에는 나지 아녕 못 먹고.
@ 음.
#1 삼월 쳉멩이 들면은 절이 조끔 늦나고.
@ 아, 게민 이월 청명에는.
#1 이월 쳉멩에는 쳉멩에 고사릴 새 고사릴 먹곡.
@ 먹고.
#1 삼월 쳉멩엔 아니 낭 못 먹고.
@ 음, 기구나예?
#1 금년 이 넘어간, 이 고사리 철이 삼월 쳉멩이주.

보리 검질메기

@ 예, 게민 이제 어, 보리가 막 컴실 건디.
#1 보리?
@ 사월 뒈면.
#1 으.
@ 보리는 이제 보리 검질은 언제 멤수과?
#1 보리 검질도 막 엿날에 메단, 아니 메난, 엿날에 정월 이월 뒈면은 메여.
@ 정월 이월 뒈면. 초벌 검질?
#1 음.
@ 초불을 정월에 허곡?
#1 아이고, 초, 두불끄장이사 메어져? 그자 정월로부떠 메여 가면은 기자.
@ 으, 이월까지?
#1 거 이월르레 가 가는 거주.

@ 어, 보리검질은예?
#1 으, 으, 으.
@ 보리, 그믄 보리 언제 그 보린 저, 보리 빕니까?
#1 보리 수확은.
@ 예.
#1 저, 이 유채 수확헌 조름에 헤여.
@ 예, 그게 언제꽈? 유채 먼저 허고.
#1 그게 저 유채 수확ᄒᆞ는 게 ᄀᆞ만 시라. 그 저 지금 그, 것ᄀᆞ라 무신 날이엔 ᄒᆞ는고? 저 유채 수확ᄒᆞᆯ 때에.
@ 망종?
#1 아니.
@ 하지? 입하? 소만?
#1 아니. 현충일인가?
@ 아. 현충일?
#1 음.
@ 현충일.
#1 그때, 그때에 유채는 막 수확을 ᄒᆞ는디.
@ 아.
#1 보리는 그때 수확 못 헤여.
@ 어, 유채 끗난 다음엔 보리 헷구나예?
#1 으, 으, 으. 보리가 좀 떨어져.
@ 떨어져? 응. 게난, 보리 수확을 할 때 무신 망종 전이 보리는 비어사 뒌다, 이런 말 엇엇수과?

오월

망종

#1 아이구, 저, 올보리는 망종 전이 비고.
@ 예.
#1 늦인보리는 망종 넘고.
@ 올보리는 망종 전이고?
#1 으.
@ 늦은보리는?
#1 망종 넘어사.
@ 늦은보리는 어떤 보리꽈?
#1 늦게 뒌 거게.
@ 아.

#1 보리가 잘 뒈면은 좀 빨리 뒈여.
@ 음.
#1 보리가 안 뒈여 가면은 늦임도 ᄒᆞ여.

하지

@ 하지에는 뭐 헷수과? 하지.
#1 하지는 저, 이제 하지 돌아오람서.
@ 게난.
#1 하지는 천성이나 거 이십 메칠날 정헤진 날인디.
@ 이십이일날. 양력으로.
#1 으, 으. 정헤진 날인디, 하지 들면은 지금은, 이 저 농서들을 아녀난 그거주. 엿날에 농서홀 때는 이 저, 영 난드르터레 밧덜이 조끔 굵인마롱ᄒᆞᆫ 밧덜.
@ 음.
#1 그런 밧디는 그 씨 들이는 걸 좀 일찍 허여야주.
@ 아.
#1 경 ᄒᆞ난에 그 하지가 뒈면은 그런 밧디는 씨 들인다고.
@ 뭐, 조?
#1 으, 조.
@ 조.
#1 경 ᄒᆞ곡. (기침) 저 조 헌 밧디, 막 좋은 밧은 유월절 넘을 때ᄁᆞ장 씨 들이고.
@ 게난예. 유월절 중심으로 그 전이 하거나, 늦게 허거나 헴구나예?
#1 으, 으.
@ 게 조불릴 땐, 어 어떵 조 불리, 조는 불려사 뒐 거 아니꽈예?
#1 으.
@ 보릿그르 갈아근에 헐 때 초불 갑니까? 두불 갑니까?
#1 저, 두불이 뒈야주.
@ (기침) 두불 가는 거를 무시거렌 ᄀᆞᆯ아수과?
#1 으?
@ 두불 가는 거.
#1 쉐로.
@ 쉐로 갈 때 두불 간덴 허는 게 아니라 무신 말이 이신디? 어떵 헌덴.
#1 저, 밧가는 건 무신 저, 그자 가는 거옌 아녜근에 번ᄒᆞ는 거.
@ 맛수다게. 게난 번헌덴 허잖아예? 번헌덴.
#1 어. 번ᄒᆞ는 거. 무신 저 두불 가는 거. 초불은 번ᄒᆞ는 거, 두불은 가는 거.
@ 가는 거. 으. 보리 겅 헹. 유월절. (기침)
#1 으 저, 보리 검질은 그자 저, 이월ᄃᆞᆯ만 뒈여 가면, 정월 그믐 이월 뒈여 가면은 메는 거.

@ 내는 거. 아니, 조 불리는 거.

유월

유월절

#1 조 불리는 거?
@ 예.
#1 조 불리는 거는 저.
@ 유월절. (기침)
#1 유월절 전이 거저 ᄒᆞ곡. 저, 영헌 우잣디나 좋은 밧덜은 유월절 넘엉도 ᄒᆞ곡.
@ 넘엉 헤도 뒈곡예?
#1 으. 음, 음.

둑 잡아먹는 날

@ 그다음에 유월 들면 그 둑 잡아먹는 날 잇지예?
#1 유월 쑤무날.
@ 으, 유월 쑤무날.
#1 으, 겨난, 지금은 유월 쑤무날 그런 걸 아이고, 지금은 복날에 잡아먹어, 복날에.
@ 게난.
#1 초복, 중복, 말복.
@ 맞수다.
#1 그런 때가 잡아먹는 거.
@ 게난 초복, 중복, 말복. 그 삼복인데?
#1 어, 어.
@ 초복 때가 둑날이꽈? 아니잖아예?
#1 게, 초복에가 하영 잡아먹을 게라.
@ 잡아먹어? 음.
#1 중복, 말복 뒈여 가민은 ᄒᆞ쏠 두루 ᄒᆞ곡.
@ 두루허고예?
#1 음.
@ 기구나. 아, 삼춘네는 둑 잡아먹는 날, 잡앙 먹어나수과?
#1 (웃음)
@ 독은 질롸낫지예?
#1 어, 엿날엔 질루면은이.
@ 예.
#1 질뢍 영 아이덜ᄀᆞ라도 아이고, 훈저 이거 재게ᄒᆞ라. 훈저 ᄒᆞ면은이, 저 거 둑 잡아먹는 날ᄀᆞ라 저 유월 쑤무날이엔을 ᄒᆞ난.

@ 예.
#1 유월 쑤무날 뒈민 저, 둑 잡아먹을 거이. 둑 잡아먹을 거.
@ 언제, 언제부터 질롸수과?
#1 언제부터 질롸시닌?
@ 예.
#1 아이구, 둑은게 정이월 나근엥에 ᄒᆞ쏠 ᄃᆞᆺ아가민 그 알 나근엥에 영 깨왕.
@ 음.
#1 깨와근엥에 ᄒᆞ민, 너무 언 때는 그 빙아리를 잘 키우지 못ᄒᆞ고.
@ 음. 정이월에?
#1 으. ᄯᅮ뜻ᄒᆞ게 ᄃᆞᆺ아가민은 빙아리가 잘 크고.
@ 예.
#1 경 ᄒᆞ난에게 ᄒᆞᆫ저 ᄒᆞ라, ᄒᆞᆫ저 ᄒᆞ민은이 저 유월 쑤무날은 둑 잡앙 먹을 거난, 둑 잡앙 줄 거. 둑 잡앙 줄 거.
@ 음, 게.
#1 그추룩 ᄒᆞ연.
@ 음, 경 헷지예?
#1 음.
@ 그다음 이젠 초복에 하영 잡아먹고. 중복엔 무시거 헷수과?
#1 중, 원, 중복이나 초복이나 말복이나 기자 복날이난게 기자 먹는 거.
@ 먹는 거예? 음.
#1 음.
@ 아까 조 불리는 건 유월절, 빠른 건 유월절 전이허고 유월절.
#1 어, 좋은 밧은 유월절 넘엉도 허고.
@ 넘엉 헤도 뒈고예?
#1 으.
@ 그다음 조 불릴 땐 그 물들 무꺼 가지고 한꺼번에 막 헌다든가 허잖아예?
#1 음.
@ 겅 헐 땐 어떵 헙디가?
#1 조 불리는 것도이, 거 아주 엿날에는.
@ 예.
#1 남테라고, 남트먹 헤근엥에게 그 물발자국ᄀᆞ찌 만들아근엥에.
@ 맞수다.
#1 사름으로, 베 걸령 사름으로 영 끗엉.
@ 음.
#1 헤여낫주마는 저 우리 농사ᄒᆞᆯ 시절에는 쉐영 물이영.
@ 게난.
#1 많이 헤여근엥에 많이 ᄒᆞ는 사름덜이 시난에 그거 영 빌령.

@ 음.
#1 빌려근엥에 빌엉 거 밧을 불리곡, 씨 들이곡 헤영 ᄒᆞ곡.
@ 음.
#1 그 영 ᄒᆞᆫ 건 저, 일이라도 대신ᄒᆞ멍 물어 내곡.
@ 음.
#1 경 헤근엥에 ᄒᆞ는 거.
@ 게난. 그 물, 물들끼리 이렇게 무끄는 걸 뭐렌 ᄀᆞᆯ앗수과?
#1 물 들이믄 물무제미.
@ 무제미 헤근에.
#1 으.
@ 물무제미 헤근에.
#1 물무제미.
@ 맨 앞에 산, 그 물무제미 부리는 사람을 어, 뭐렌 ᄀᆞᆯ아수과?
#1 테우리.
@ 게 테우리가 어디 사근에 헷덴 그런 말 안 헷수과? 뭐 무신 선상헤 가지고 라든가.
#1 아이고, ᄉᆞ믓 거 소리 좋은 사름은이.
@ 예.
#1 밧 불리젠 ᄒᆞ민 문ᄌᆞ산이 문 부쪄근엥에 소리를 오죽 허여?
@ 음.
#1 우린 그런 거 원, ᄒᆞ지도 못ᄒᆞ곡 ᄒᆞ여보도 못ᄒᆞ곡 ᄒᆞ난 그거주. 하이고, 남저들이, 밧 불리레 들어사면은, 먼 디서 소리 들엉은 막 잘ᄒᆞ는 거 닮곡.
@ 음.
#1 ᄇᆞ디게 보민은 그 소리만 떼울렛주 ᄒᆞ는 건 아무 거 닮지도 아니ᄒᆞ곡.
@ (웃음)
#1 기영 ᄒᆞ는 사름덜토 만ᄒᆞ곡 게난.
@ 음. 다 테우리들이 겅 헤수과?
#1 어, ᄉᆞ믓이 삭ᄒᆞ게시리 거 테우리 들어사면은 ᄎᆞᆷ, 을랄을랑 소리 좋은 사름은 ᄆᆞ쉬가이 바로 질로 펭펭 돌아오게시리.
@ 음.
#1 소리 경 잘헤가민 ᄆᆞ쉬가 그 소릴 들어근엥에 말을 잘 들어.
@ 음. 그래서 조도 불리고.

소서 · 대서

@ 소서, 대서에 뒈근에 소서, 대서 땐 어떵 헷수과?
#1 무시거 땐?
@ 소서, 대서. 막 더울 때?

#1 아, 아이고 더워도 ᄒᆞ주 어떵 ᄒᆞ여.
@ 게난. 특별나기를 소서나 대서에 뭐 특별나게 뭐 헌 건 엇수과?
#1 아이고, 특별ᄒᆞ게 ᄒᆞᆫ 건 엇어.
@ 그때 검질은?
#1 검질 못 메어도 ᄒᆞ주게.
@ 음.
#1 검질이 ᄉᆞ뭇 검질이 이만이 헤여가도이.
@ 예.
#1 못 메어도 그 제서를 출려사주겐 헤영 ᄒᆞ곡.
@ 음.
#1 거 제서가 돌아오라 가민이 경 이만이ᄒᆞᆫ 검질이 섬직ᄒᆞ민 ᄒᆞᆫ저ᄒᆞᆫ저 부지런히 그걸 어떵 ᄒᆞ여도 ᄒᆞ쏠 영 이기당을 제서 전이 ᄒᆞ여사.
@ 음.
#1 거 너무 검질이 짓어가곡 ᄒᆞ면은 곡석도 얼먹엉 잘 뒈지 아녀곡 ᄒᆞ난에.
@ 음.
#1 미릇부떠 막 명심헤근엥에 헤여사.
@ 음.

칠월

칠월 칠석

@ 그다음엔 칠월에 들어 가지고예, 칠석날은 뭐 헤수과?
#1 칠월 칠석?
@ 예.
#1 칠월 칠석에 절간에 뎅이는 사람은 절간에나 영 가곡.
@ 가곡.
#1 음. 저, 집이서는게 ᄒᆞᆫ읏이 무시거 별다르게 ᄒᆞ지 아녀.
@ 헌 거 엇고예?
#1 음.

백중제

@ 백중 땐 무시거 헤수과?
#1 백중 때는 막 저 떡이영 밥이영 궤기영 막 출려근엥에 저 목장이.
@ 예.
#1 밤이 목장, 저, 목장이 가근엥에덜 막 이따근엥에.
@ 예.
#1 거 열두 시가 거저 뒈여 가면은.

@ 예.
#1 거기서 싹허게 문 제벌여근엥에 제지내곡, 문 갈라 먹곡 헤여근엥에 내려와.
@ 밤 열두 시에?
#1 어, 밤 열두 시에.
@ 콤콤헐 때, 으.
#1 저 먼 목장에 강 ᄒᆞ는 사름은 낮이도 허여.
@ 낮이도 허고.
#1 거 너무 멀어 부난에.
@ 멀어 부난, 음. 백중제 할 때 그 저 제물들은 뭐, 뭐 헤수과?
#1 저, 백중제 홀 때도겐 그자 엿날엔이, 그 밀 굴아근엥에 상웨떡 헤영.
@ 상웨떡 헷지예?
#1 어.
@ 더울 때난예?
#1 둑 저, 겡이영 그 떡ᄒᆞ곡, 밥ᄒᆞ곡, 저, 고사리도 ᄒᆞ곡.
@ 음.
#1 둑 잡곡.
@ 둑 잡곡.
#1 음, 경 헤근엥에 저, 혼읏이 여라 가지 복잡ᄒᆞ지 아녀.
@ 음. 둑 잡은 거는 생걸로, 아니면 숢앙?
#1 숢앙.
@ 숢앙.
#1 숢아근엥에 헤영 가면은 그거 헤영 싹ᄒᆞ게시리 그거 제헤여나면은 아이고, 거 백중 먹으레 아이덜이영 오죽 하영덜 가. ᄒᆞ민 그 문 둑궤기 헤근에 영 치지멍 영 ᄒᆞ끔썩 ᄒᆞ끔썩 그치멍 그 아이덜이영 문딱 갈라주곡덜 문. 떡도 갈라주곡 밥도 문 혼 직썩이랏자 문 갈라먹곡.
@ 갈라먹고예, 맞수다.

모살찜 · 물맞이

@ 그다음엔 그 백중에 혹시 모살찜허렌 안 다녀봐수과? 모살찜허레?
#1 아녜여, 아녀.
@ 안 다녀봔? 여긴 아멩헤도 웃드르난 달르다예?
#1 웃드르라 부난에이.
@ 게도 물맞이렌 가실 거 아니?
#1 아이구, 엿날에 물맞이레이.
@ 예.
#1 백중물이엔 헤영 ᄉᆞ믓 울름창헤영 이디서이 성널물 맞이레도 가곡.
@ 성널물?

#1 으.
@ 건 어디 이신 거꽈?
#1 아이고, 성널, 저 거자 할락산. 이디서믄 할락산 넘어간 디주.
@ 아, 게믄.
#1 경 ᄒᆞᆫ디 가면은 메틀썩 살멍 맞앙 와.
@ 으. 게믄 성널물 맞아 가지고 막 무슨 벵 낫앗덴 말도 이서낫수과?
#1 아이구, 저 낫아.
@ 아, 낫아.
#1 낫아.
@ 음.
#1 경 ᄒᆞ곡 또 저, 서구포 저 돈내코라고 ᄒᆞᆫ 디.
@ 음. 돈내코까지?
#1 으, 돈내콘 성널보다 ᄇᆞ딘 디.
@ 아, ᄇᆞ디꽈?
#1 어. 또 저, 서구포서 저 돈내코 말아 또, 또 ᄒᆞᆫ 밧디.
@ 절물?
#1 으? 그 또 일름 또 잊어 비언에.
@ 절물? 절물, 요기.
#1 아, 절물도 싯고.
@ 예.
#1 또 저 거 절물도 말아.
@ 정방폭포?
#1 아, 정방폭포. (웃음)
@ 아. (웃음) 그디까지 가나수과?
#1 아니, 저 나는 정방폭포 ᄀᆞ뜬 딘 아이 가봔. 돈내코도 ᄋᆞ라 번 가보고.
@ 음.
#1 거 초담인 돈내코물도 내무레영이 경 ᄒᆞᆫ디 물 맞앙 좋으리엔 ᄒᆞ영 그 성널, 성널.
@ 성널까지.
#1 거기를 ᄋᆞ라 번 가왓주.
@ 음.
#1 거기 강 물맞이민이 그자 그디 강 밤 살아근엥에 머지면서 맞곡. 가멍오멍 ᄒᆞᆫ 댓 세 살앗저.
@ 그 성널물 가젠 ᄒᆞ민 갈 땐 어떵 가수과? 걸엉?
#1 걸엉. 갈 때 올 때 걸엉이주. 무신 차, 찻질 서근엥에 차 탈 거라.
@ 게 사나흘 살젠 허민 먹을 건 어떵 헙니까?
#1 먹을 것도겐, 하이고, 거 보릿개역 ᄒᆞ여 놓곡, 쏠 아지곡, 반찬, ᄉᆞᆼ키, 문 내영 졍 강. 냄비영 문 아졍 강. 그디 강 밥허영 먹으멍.

@ 줌은 어디서 자곡?
#1 그 돌엉덕에.
@ 예.
#1 돌엉덕에 헤여근에 저 이불 더끌 거영 문 아졍 가근엥에.
@ 아이고 기구나예.
#1 음. 듯은.
@ 어딘고? 성널물이 그.
#1 듯은 철이난에이 밤 자는 거 고생 안 헷저.
@ 안 헤근에예. 게도 막 모기도 물곡 헤실 건디.
#1 거, 성널이엔 흔 디가 젤 먼 디라.

입추

@ 그다음은예, 입추가 뒈잖아예?
#1 입추?
@ 예.
#1 음, 입추는 뭔 절기라.
@ 게난, 입추에는 뭐 헤수과?
#1 입추에 무시거 안 헤여. 아니 ᄒᆞ곡이. 지금 이디.
@ 조 검질은 그때쯤에.
#1 어, 검질은 멜 때라. 저, 지금 절기 일름이이.
@ 예. 처서?
#1 거시기라. 유월절은 소서.
@ 예.
#1 저, 칠월절은 추분.
@ 예, 추분. 예.
#1 팔월절은 백로.
@ 예.
#1 경 헹 그 절기도 일름이 다 싯는 거난에.
@ 게난, 예.
#1 거 입추엔 흔 거는 칠월절일 게라.
@ 음, 칠월. 맞수다. 칠월에 입추.
#1 음.
@ 입추 때는 검질 뭐 메는 거.
#1 검질메여 검질.
@ 어디, 조팟디 검질? 콩밧디나 조팟디 검질?
#1 음, 콩밧이영 조팟이영게. 하이구, 검질은 농사ᄒᆞ민 농사흔 밧디 다 메어사주게.
@ 음.

#1 감저 놓민이, 마끗데사 멤은 헤도 감저밧디 ᄀᆞ뜬 디도 메어사.
@ 감저밧디 검질도 메고.
#1 으. 다 메여사.
@ 감저가 언제쯤 나와수과?
#1 감저 놓문, 감저도 저 그 유월절 거저 뒈여 가면은 쪼꼼 먼 때부떠 놈 시작헤여.
@ 음.
#1 경헤영 거저 뒈도록 놓곡, 또 마끗데라 가근엥에 이끼 못 출령 못ᄒᆞᆫ 사름덜은 유월절 넘어도 여간 놓곡.
@ 음.
#1 한창 놓문 유월절 전이 한창.
@ 한창 놓고예?
#1 음.
@ 음, 기구나예. 아이고, 칠월까지 헤서예?
#1 음.
@ 오늘은 칠월까지만 허쿠다. 막 삼촌 지칠 거 닮아.
#1 으, 경허영.

팔월

벌초

#1 이거 영 놓믄 불펜ᄒᆞ난 나 요레 강 앚이카?
@ 아니우다. 뒈수다. 펜안허게 앚입서.
#1 이거 뒈어?
@ 예. 궨찮수다.
#1 음.
@ 그, 지난번에 칠월까지 헤서예?
#1 음.
@ 게난 이번에는 팔월에 들어 가지고 벌초허잖아예? 벌초헐 때, 혹시 모둠벌초도 헴수과?
#1 몰른 벌초?
@ 모둠벌초.
#1 모둠벌초?
@ 예.
#1 건 문중벌초렌 ᄒᆞ주.
@ 문중벌초.
#1 저, 무신 나사 그런 거 저런 거 허랴마는 우리 아덜이영 손지영덜 그런 거 ᄒᆞ주. 문중벌초, 문중 궨당덜 문 나사근엥에 ᄒᆞ는 거. 그거 ᄒᆞ여두곡. 그거 ᄒᆞ여난 끗데면

이녁 묘에덜.
@ 허고예?
#1 그추룩 ᄒᆞ고.
@ 게난, 문중벌초 헤난 거 언제 헤나신디 셍각남수과?
#1 하이고, 그거 날 정허여근엥에 ᄒᆞ주만은 날을 딱 정ᄒᆞ질 아녀고 영 헹 보면은 저, 지금은 양력으로 세난에, 대부분 구월둘이난에.
@ 아니, 음력으로.
#1 아, 음력으로?
@ 예.
#1 음, 그거 팔월[팔뤌]이난에 팔월 보름이 그 추석이난.
@ 예.
#1 그 추석 전에 너무 미르세 허여도 그디 풀이 막 솟곡 ᄒᆞ는 따문에, 경 ᄒᆞ곡 저, 그 직장 뎅이는 아이덜이영 ᄒᆞ영 ᄒᆞ젠 ᄒᆞ면은 일요일을 춪아사.
@ 아, 경 헷수과?
#1 일요일을 춪아근엥에 저, 거 팔월둘 나민 멧 차, 멧 번차 일요일.
@ 예.
#1 그거를 딱 정허엿다근엥에 그때 뒈민은 비가 와도 웬만이 비가 온 거는 ᄒᆞ여야.
@ 헤여? 음.
#1 음.
@ 그 문중벌초 헐 때 산 멧 개꽈?
#1 하이고, 산 멧 개산디, 우리 종손칩이영 막 산 하고 헤부난에 몰라.
@ 몰라?
#1 으.
@ 게도 ᄒᆞ루민 다 헙니까?
#1 으, ᄒᆞ루에 다 ᄒᆞ주게. 저 권당덜게 문 나사민은.
@ ᄒᆞᆫ 멧 명쯤 뒙니까?
#1 멧 멩 뒈는 것도 잘 몰라. 권당 웨방 사는 권당덜이영 문 오면은 다 ᄒᆞᆫ 딜로만 끌르질 아녀근엥에 영 멧 명썩 헤근엥에 묘도 어느 쪽에 어느 쪽에 더러 갈랑도 허영. 문 헤여져 가민 싹ᄒᆞ게시리 ᄀᆞ찌 문 뭉쳐져.
@ 음.
#1 뭉쳐져근엥에 저, 저물앙도 아녀난에게. 정심 식사 ᄒᆞ곡 ᄒᆞ여근엥에덜 문 헤여져 근엥에 나사.
@ 음.
#1 겨난, 산이 멧 자리쯤 뒈는 것도 우린 몰라. 원 뎅겨보도 아녀곡 봐보도 아녀곡 ᄒᆞ난에.
@ 게난 아덜만 가근에양.
#1 음.

@ 성씨는 무시거꽈?
#1 응?
@ 그 저 문중벌초하는 성씨. 김씨꽈? 양씨꽈?
#1 아, 성씨?
@ 예.
#1 저, 김씨, 문중벌초거 우리.
@ 김씨?
#1 예. 그자.
@ 혹시 문중벌초헐 때.
#1 으.
@ 제지낼 것들도 가져갑니까?
#1 으, 차례.
@ 차례지냉은에 벌초하고.
#1 으.
@ 산마다 가근에?
#1 아메도 저 차례는 산마다 헴실 게라.
@ 음.
#1 경 에, 산마다 ᄒᆞ곡, 영 쭉ᄒᆞ게 그 벌초를 ᄒᆞ여근엥에 아메도 어느 산으론 문 허영 모여지면은 그 차례 ᄒᆞ여난 음식덜.
@ 예.
#1 그 음복덜토 ᄒᆞ곡.
@ 음복도 허고예?
#1 음.
@ 기구나.
#1 저, 우리 그 가보도 아녀곡, 가지 아니 ᄒᆞ여도, 원 그 ᄎᆞ례가 경 뒈영.
@ 음.
#1 경 ᄒᆞ는 거 ᄀᆞ따.
@ 음.
#1 그 문 아이고, 그 문중벌초엔 그 춤 종손이 벌초 돌아오라가도 막 신경을 쓰곡.
@ 음.
#1 또, 그디 저 영 종손 뒈영 ᄒᆞ면은 저 뭐야, 그 봄이 제지내는 거. ᄀᆞ만 시라, 그 거. 원 잊어 비엇저, 그거.

묘제

@ 묘제? 묘제?
#1 묘제, 묘제. 아이구, 첨. 그것도 잊어 비연. 거 묘제도 출리젠 ᄒᆞ곡덜 ᄒᆞ면은 막 신경 썽 출려사.

@ 봄인, 묘제는 봄에 헴수과?
#1 으, 삼월에.
@ 삼월에?
#1 으.
@ 무신 날?
#1 아이, 저 무신 날이멍 말멍 묘제는 딱ᄒᆞ게 정헤진, 날짜를 정헤 놩 ᄒᆞ는 거난. 삼월 삼일이엔 ᄒᆞ던가 오일이엔 ᄒᆞ던가.
@ 음.
#1 칠일이엔 ᄒᆞ던가. 딱 날짜 정ᄒᆞ면은 훗해도 나면은 그날.
@ 음.
#1 또 훗해도 나민 그날.
@ 아, 겅헴구나게.
#1 음, 경 헤영. 그때 저때 안 헤영 그자 날짜 정헤여 불어.
@ 묘제 지낼 때도, 그 묘제 지낼 땐 산은 어디, 어디 강 헙니까? 것도 산마다 다?
#1 원, 거 벌초ᄒᆞ는, 벌초ᄒᆞ는 산이 문 ᄒᆞ질 아녀고.
@ 예.
#1 거 엿날산으로 제서 아니 ᄒᆞ는 산이 묘제 지냄주.
@ 묘제헴구나. 아예 ᄒᆞᆫ꺼번에예?
#1 음, 음.
@ 음. 기구나.
#1 겡 ᄒᆞ난, 막 완전 엿날산이영덜 ᄒᆞ는 거.
@ 헴구나예.
#1 음.

개인벌초

@ 게믄 삼춘네는 저 묘, 그 문중벌초 헤난 다음에 개인벌초 허잖아예?
#1 음.
@ 개인벌초는 산 멧 개 강 헙니까?
#1 아이구, 개인벌초 산은 ᄒᆞᆫ읏이 하지 아녀주. 저 우리 산은.
@ 응.
#1 우리는 저 거 큰 가지가 아니란에.
@ 예.
#1 거 알댓가지고 ᄒᆞ난에.
@ 예.
#1 우리 대에는 뭐 저, 씨하르방, 씨할망네ᄀᆞᆨ장도 다 그 큰가지레 들어가 불면은.
@ 아.
#1 우리는 저, 씨하르방 씨할망ᄀᆞᆨ장도 아니혀. 기자 저 씨어머니, 씨아버지부떠.

@ 예.
#1 경 헤영 ᄒᆞ곡. 거 문중벌초 말아 그런 벌초도.
@ 예.
#1 저, 아주 옛날 산 아니는.
@ 예.
#1 거 영 저 종손네영 ᄀᆞ찌 강 홈도 ᄒᆞ곡.
@ 아, ᄀᆞ튼 날 그냥 그때 확, 이시믄 ᄀᆞ찌 헤불엉예?
#1 음, 음, 음.
@ 기구나예?
#1 경 ᄒᆞ곡 딱 저, 이녁 벌초만은이, 멧 자리 아녀. 우리도 영 ᄒᆞ면은 씨어머니 씨아바지.
@ 예.
#1 우리 저 씨아지방ᄒᆞ곡.
@ 예.
#1 우리 냄펜네 ᄒᆞ곡.
@ 예.
#1 그거.
@ 그거예?
#1 으, 으.
@ 아이고, 그때 헐 때도 산에 벌초헐 때마다 산 저, 제지냉 헷수과?
#1 식게.
@ 아니, 벌초헐 때마다.
#1 벌초홀 때?
@ 예.
#1 아, 게, 제멍 말멍 그자게.
@ 그냥 제주 뿌리고?
#1 저, 제주ᄒᆞ곡 빵이나 조꼼 사곡 헤영 강 그자 영 잔 드리곡 ᄒᆞ영, 경 헤근엥에 그자 벌초 영 시작헹 ᄒᆞ는 거.
@ 경 헷구나.
#1 음, 음.

팔월 멩질

@ 게 이제 벌초 끗난 다음에 이제 팔월 멩질 헐 거 아니꽈예?
#1 음, 음.
@ 팔월 멩질에는 어떵 상, 상차리젠 허민 무시거 무시거 준비헷수과?
#1 아이구, 팔월 멩질에도게 기자 다른 때 멩질이나, 설 멩질이나 마저 ᄀᆞ뜨게시리게. 과일에 들엉은 기자 사과, 배, 미깡.

@ 예.
#1 기자 저 포도 ᄀᆞ뜬 것도 ᄒᆞ곡.
@ 예.
#1 수박도 ᄒᆞ곡.
@ 여름이난.
#1 음. 그자 신 가지 제물로 그자 춤 출려지민 막 곳곳이 ᄒᆞ영 놓곡.
@ 음.
#1 떡도게 그자 거 상ᄎᆞ릴 떡. 춤 요자기도 ᄀᆞᆯ앗주만은 친떡 치곡.
@ 예.
#1 준떡덜 헤여근엥에 그레 겸ᄒᆞ영 우티레 헤영 문 올리곡.
@ 음.
#1 과질도 사곡 그자 그것저것 기자 문 사 놔근엥에 ᄒᆞ는 거.
@ 음. 그 친떡하고.
#1 게, 저.
@ 준떡덜 무시거, 무시거?
#1 저 준떡 이제는.
@ 예.
#1 저 옛날치룩 안 헹.
@ 아, 옛날에, 옛날에.
#1 아, 게메, 옛날에는이.
@ 예.
#1 친떡 치면은 친떡 다음에.
@ 예.
#1 인절미도 ᄒᆞ곡, 솔펜도 ᄒᆞ곡.
@ 예.
#1 젤벤도 ᄒᆞ곡.
@ 예.
#1 거 춤 저 멩질 때 ᄀᆞ뜬 땐 중궤, 약궤랑 못허여도.
@ 음.
#1 저 준떡을 문 경 ᄒᆞ엿주. 우찍도 ᄒᆞ곡.
@ 우찍도 허고예?
#1 으.
@ 근데 여름이난 겨울하고 달라 가지고, 추석 땐 또 다른 거 떡허는 거 엇엇수과?
#1 다른 거곡 아이고, 춤 그 옛날에겐.
@ 상웨떡 안 헷수과?
#1 무사 아녀? 어렵곡 ᄒᆞ민이.
@ 예.

#1 밀 헤여근엥에 저, 정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에 밀ᄀᆞ루 ᄀᆞᆯ아근엥에 그거 저 쉰다리 ᄒᆞ영 그거 ᄆᆞᆯ앙, 피와근엥에 상웨떡.
@ 예.
#1 상웨떡 ᄒᆞ영도 친떡 대신 올려근엥에 저 제지내곡 헤여난.
@ 저 멩질 때예?
#1 음.
@ 팔월 멩질 때예?
#1 음.
@ 친떡 대신에 상웨떡 헤낫지예?
#1 음, 음.
@ 아이고, 겅 헷구나게.

달구경

@ 어, 그다음에 혹시 팔월 멩질날 무신 특별나게시리 뭐 달구경을 한다든가, 사람들이영 앉아가지고 무신 떡점이라도 지든가, 이런 거 안 헷수과?
#1 아니.
@ 아니연? 음.
#1 거 저 경 ᄒᆞ여난 집안도 심사 헤신디 몰라도.
@ 음.
#1 우리는 경 아녀고.
@ 음.
#1 그자 팔월 멩질 전날은 기자, 뒷날 차례 ᄒᆞᆯ 거 춤 떡이나 ᄒᆞ곡, 그것 저것 영 ᄎᆞᆯ리주.
@ 음.
#1 저 ᄒᆞᆫ읏이 무신 경 별다르게 아녀.

꼴 장만

@ 음. 겅 헷구나예? 어, 그 팔월에는 벌초들 하영 헷지예? 아니 벌초 헤져라. 촐비레 다녓지예? 촐?
#1 어?
@ 촐.
#1 촐을 ᄒᆞᆯ 철이라부난.
@ 게난.
#1 절이 일른 때는 멩질 전이부떠 촐을 시작헤여.
@ 멩질 전이부터?
#1 으. 촐을 시작ᄒᆞ면은 ᄀᆞ리가 경 뒈곡 날씨가 이추룩 좋음[좀]이나 ᄒᆞ민은, 거 멩질 전날 ᄀᆞ뜬 때도 남저덜은 ᄒᆞᆫ읏이 크게 ᄒᆞᆯ 일이 엇이난에, 이녁네 만이라도 강 촐을

비영 놓면은, 멩질날은 멩질 헤여 먹으면, 아이고, 거 여자덜은 그걸 가근에 무꺼얄 거주게.
@ 게난.
#1 무껑 날랑 눌어살 게주. 경 헹 ᄒᆞ곡. 절이 늦인 때는 저 멩질이 촐 시작 아년 때도 셔[서].
@ 아, 멩질이 빨를 때.
#1 으, 으. 절이, 절이 저 늦이면은 이 멩질은 빨라 붸곡.
@ 예.
#1 저, 무시거 밧디 거 농서ᄒᆞᆫ 거나, 무시거나 ᄒᆞ영 익어 가는 거는 좀 느려.
@ 느려. 음, 기구나. 어, 기구나예. 그 촐 헐 때.
#1 음.
@ 혹시나 뭐 별다른 일은 엇엇수과? 막 옛날엔 막 그 진것들도 막 나오고 하면.
#1 아이구겐, 그 촐 ᄒᆞᆯ 때이.
@ 예.
#1 그 춤, 여저들이사 촐 빌 때 어떵 헤여난 거 알아지랴마는, 그 낫, 낫, 저 촐 비는 거 낫이주.
@ 예.
#1 지레기 이만은 ᄒᆞᆫ 거.
@ 예.
#1 헤여근엥에 영, 영 비는디.
@ 예.
#1 어쩌다가 잘못 걸리민 그런 것도 기차 붐도 ᄒᆞ는 수가 잇곡.
@ 음.
#1 또 기차 불곡 무시거 아니 헹 헤여도 그게 어디사 뎅기당 어떵사 영 ᄒᆞ는디, 그 뒷날 촐 무끄레 간 때.
@ 예.
#1 촐 무끄당 보민 우린 경 ᄒᆞ여보도 아녀곡, 딱 이녁 눈으로 봐보도 아녀곡 헤엿구나마는, 거 어떵 ᄒᆞ다가 눈에 껄령 본 사름덜이영은, 촐을 영 영 영 께 틀언에 영 헨 무껀에, 아이 무꺼 놘에 영 무껀, 무끄멍 내 불면은 뒤에 사름이 들어상 ᄆᆞᆫ 거 날라다 놓주.
@ 예.
#1 아이, 날르는 사름이 그거 촐단을 간 날르젠 허난, 그 진걸 ᄀᆞ찌 께 틀언에 그거 무끈 거. 아이고, ᄉᆞ뭇 이거 큰일낫젠 ᄒᆞ멍 ᄒᆞ영 그추룩 ᄒᆞᆫ 것도 봐나고렌 ᄒᆞ곡 헤여도, 우린 말만 들엇주 봐보던 아녀고.
@ 아이고, 게도 다헹이여예?
#1 겨난, 그것이 저, 숭시 ᄀᆞ뜬 일이주. 이 영허영 께 틀곡 무시거 ᄒᆞᆯ 때에 파들락 흠이라도 ᄒᆞ곡, 물어 붊이라도 ᄒᆞ곡.

@ 게난.
#1 홀 건디. 그 ᄀᆞ찌 들엉은에 그 촐에 ᄀᆞ찌 엄불령 께 틀엉 그걸로 촐을 무꺼져 놓난.
@ 아이구야, 세상에.
#1 그때사 얼마나 가슴 털어져실 거니.
@ 게난예.
#1 으.
@ 막 그거 물어 가지고 무신 일 잇거나 경은 안 헤낫수과? 동네에서.
#1 음, 음. 저, 그거 물련 사름덜도 셔낫주게. 그거 물리면은이 그거 타는 사름은 참, 춤 죽어내여.
@ 음.
#1 경ᄒᆞ곡 그거는 벵원에 가도 ᄒᆞᆫ읏이 필요가 엇곡, 거 여기서 그자 바로 조약으로 ᄒᆞ여근엥에 거 무신 방쉬를 ᄒᆞ여근엥에 ᄒᆞ는 사름이 셔[서]낫어.
@ 어떤 방쉬를 헨에? 방쉬를 어떵 헤영?
#1 그거 어떵 ᄒᆞ는 거 우리 봐보진 아녀도이.
@ 음.
#1 무신거 저, 새뿔리이.
@ 예.
#1 새뿔리ᄒᆞ곡 무시거 어떵 ᄒᆞ여근엥에 그 원, 그걸 붸왕 알진 못ᄒᆞᆫ덴.
@ 음.
#1 놈 알게, 놈 알아듣게 ᄀᆞᆫ진 아년덴.
@ 예.
#1 이녁이 입속으로 무시거엔 종종종종ᄒᆞ게 ᄀᆞᆯ으멍 ᄒᆞ여근엥에, 그건 아메도 새뿔리에, 원, 새뿔리에 따시 뭣에 ᄒᆞ엿어. ᄒᆞᆫ 가진 아니라.
@ 예.
#1 헤영 ᄒᆞ민. 그걸로 아메도 영 그 물어분 디 영 쏠쏠 씰멍.
@ 예.
#1 그 입속으로 무시거옌 ᄀᆞᆯ으면은 ᄆᆞᆫ 저끗디 앚인 사름도 못 알아 든녠.
@ 음.
#1 그거 ᄒᆞ는 딘. 게난 그건 어디사 강 베와 온 것산디.
@ 음.
#1 경 ᄒᆞᆫ 사름이 저 이 ᄆᆞ슬에도 둘리나 셔[서]낫어.
@ 음.
#1 저, ᄒᆞ나 사름은 막 젊은 사름인디 그, 그 방쉴 ᄒᆞ여근엥에 춤, 누게가 실술 헤영 그추룩 ᄒᆞᆫ 일 당ᄒᆞ민 그자 그 사름신디 강 경 방쉬헤 주민 좋넨 ᄒᆞ멍 ᄒᆞ영. ᄒᆞᆫ 사름 막 젊은 때 죽어 불고.
@ 음.

#1 ᄒᆞ나 사름은, 이 올레에 나가민 올레질 저펜이 집인디, 그디도 경 잘 헤여나신디, 그딘 나이도 ᄒᆞᆫ, ᄒᆞᆫ 칠십이 좀 넘어실 거라.
@ 음.
#1 ᄒᆞ곡 헌디. 요 작년에사 죽어 불고.
@ 음.
#1 게난 이제는.
@ 예.
#1 그런 일이 낫자, 어디 강 방쉬 빌엉 ᄒᆞᆯ 디도 엇어.
@ 엇어, 진짜예.
#1 으.
@ 하기야 무신 병원에.
#1 그자 뒈나마나 그자 벵원에 가근엥에 기자 약이나 불르곡게. 어떵 치료ᄒᆞ는 수벳기 엇주마는.
@ 맞수다.
#1 벵원에 강은 커신 구완을 못ᄒᆞ여.
@ 게난예, 경헌덴 헙디다.
#1 아이구, 그 어디 뎅기당 그걸 ᄒᆞ면은이, 원 걸어오질 못ᄒᆞ영 저게 옳게 누게 어디 사름이나 들리민 업엉이나 끗어오주이.
@ 게난예.
#1 원, 걷지도 못ᄒᆞᆫ덴 헤여.
@ 게난, 맞수다게.
#1 독이이 그렇게 독ᄒᆞ영.
@ 예.
#1 어디 이 종에쯤 어디 헹 물면은 다리가 덩글랗게 막 붓앙 ᄀᆞ딱을 못ᄒᆞᆫ덴 ᄒᆞ여.
@ 게난.
#1 그게 저 독이 쎈 게주.
@ 게난예, 독이 쎄근에예.
#1 으.

백로 · 상강

@ 그다음에는 절긴데 팔월에 들 때도 잇고 구월에 들 때도 이신디예?
#1 음.
@ 백로나 상강 땐 어떵 헤수과?
#1 응?
@ 백로나 상강 때?
#1 상강제?
@ 상강, 상강 때.

#1 산간제?
@ 상강, 상강 들민 뭐 헤수과?
#1 아, 상강일?
@ 예.
#1 상강일 뒈면은.
@ 예.
#1 그 가을에 상강일이 들어오는 거주. 들면은 백로는 저 팔월둘ᄀᆞ라 백로엔 ᄒᆞ곡, 저 그 상강일은 들어오면은, 상강일이 들면은 조 ᄀᆞ뜬, 콩 ᄀᆞ뜬 무시것이 저, 다 비게 뒈여근엥에.
@ 예.
#1 선 거 엇이 비여진덴.
@ 예. 선 거 엇이.
#1 그거 가을에 저 가을걷이 ᄒᆞ는 거.
@ 음. 가을걷이, 그니까 조도 비고 콩도 비고.
#1 음, 으, 으.
@ 저 감저는마씨?
#1 게난 ᄎᆞᄎᆞ. 음?
@ 감저.
#1 감저는 ᄎᆞᄎᆞᄎᆞᄎᆞ 그 상강일이 뒈면은 그 젤 먼여는 조부떠 ᄒᆞ곡.
@ 예.
#1 또 그 조 헤여난 다음에 콩도 ᄒᆞ곡.
@ 예.
#1 그다음 뒈면은 모멀도 비곡. 산디도 비곡.
@ 예.
#1 그다음에 모멀도 비곡.
@ 음.
#1 감저는 젤 마끗데.
@ 마끗데.
#1 저 감저는 상강일 전후 삼일에 저 만히 큰덴 ᄒᆞ주.
@ 음.
#1 경ᄒᆞ난 기자, 상강일이 뒈여 가민 기자, 그거 저거 먼 ᄒᆞ여사컬. ᄒᆞ여사컬 ᄒᆞ여.
@ 헤사컬 허멍.
#1 응.
@ 겅허멍 이제 상강일 뒈어 가민.
#1 음.
@ 혹시 마을에서 그 곡식 잘 뒌 거에 대헤 가지고, 뭐 제를 지낸다든가 이런 거 엇엇수과?

#1 아이, 그런 건 엇어.
@ 이런 건 엇엇수과?
#1 음, 음.
@ 아, 기구나예. 백로, 상강 땐 이제 다 그거 하고예?
#1 음, 음.

시월

@ 그다음엔 이제 시월에 들잖아예?
#1 음.
@ 어, 시월에는 주로 뭐 헤수과? 게민. 음력 시월이라예.
#1 음. 시월둘 뒈여 가면은.
@ 예.
#1 무시거 홀 것이 벨로 엇주. 지금은 겨을, 여름 엇이 일을 ᄒᆞ여야 ᄒᆞ주만은.
@ 응.
#1 그 시절에는 시월둘 시월 동지.
@ 입동 들엉, 입동 들엉.
#1 으, 시월 동짓둘이 뒈여 가면은.
@ 예.
#1 막 추워지곡.
@ 게난.
#1 거, 구월 말이나 뒈여 가면은 저, 농사헌 거 거둠두 허영 ᄒᆞ주만은, 보리 갈곡.
@ 맞아.
#1 농서를 또 문 헤야.
@ 헤사잖아.

띠 장만

@ 새는 언제 빕니까? 집 일 새.
#1 새는 그 가을걷이 문딱 ᄒᆞᆫ 끗데.
@ 게난.
#1 으, 그거는 완전 겨을에.
@ 입동, 입동 지낭? 소설.
#1 으. 입동 지낭.
@ 지낭은에?
#1 음.
@ 어, 입동 지나 가지고 동지 전이 새 빕니까? 동지 지낭 새 빕니까?
#1 새 비는 거?

@ 예.
#1 저, 동지 전이도 비곡 지낭도 비곡 ᄒᆞ주.
@ 허주예?
#1 으.
@ 새도 비곡, 그다음엔 각단은 또.
#1 각단은 기자 그 새 ᄒᆞᆯ 때 ᄀᆞ찌 허영.
@ ᄀᆞ찌?
#1 그 줄 ᄒᆞᆯ 거.
@ 게난 줄 헐 거.
#1 그거 저, 새 ᄒᆞᆯ 때 그거 ᄀᆞ찌 부쩡 ᄒᆞ는 거.
@ 게, 여긴 가시린 웃드르난.
#1 음.
@ 저, 새나 각단이나 합니까?
#1 아이고.
@ 게 어떵 저 준비헤수과?
#1 엇엉. 엇엉 저 밧이 하근엥에 새밧이영 신 사름은, 새왓디 굴렁에 밧 좋은 디렌 새 민짝ᄒᆞ곡, 배달르레 힘 엇인 딘 영 ᄒᆞᆫ 건 각단이엔 ᄒᆞ곡 ᄒᆞ는 거난이.
@ 게난.
#1 ᄒᆞ곡, 저 이녁 밧 엇은 사름은 거 새도 놈이 새 가근엥에 비엉.
@ 예.
#1 비어줘근엥에 영 갈라근엥에 저, 갈라주면은 아져오곡. 또 경저영 못ᄒᆞᆫ 사름은 사사.
@ 사사.
#1 응. 사사.

집 이기

@ 게난 삼춘네는 일 년에 ᄒᆞᆫ 번씩 집 일엇수과?
#1 으. 경 ᄒᆞᆫ 집이나 저영 ᄒᆞᆫ 집이나 아무 집도 초가집은 일 년에 ᄒᆞᆫ 번 일어사.
@ 음.
#1 일 년에 ᄒᆞᆫ 번 아니 일면은 태풍 불어도 막 불려남직ᄒᆞ곡 안 뒈여. 무서와.
@ 음.
#1 게난 일 년에 ᄒᆞᆫ 번은 똑 일어사.
@ 그 각단으로 줄 할 때.
#1 음.
@ 각단으로 줄 뭐 헌덴 헙니까?
#1 줄 놓곡 비곡.
@ 줄 놓고 비고.

#1 그 영 영 ᄒᆞ는 건 비는 거옌 ᄒᆞ곡.
@ 예. 호렝이로 영 영 허는 건 비는 거렌 허고.
#1 호렝이로 비는 거옌 ᄒᆞ곡이.
@ 예.
#1 저, 거 놓는 거는이.
@ 예.
#1 에그, 영 헹 ᄒᆞ민 이것이 각단이면은이.
@ 예.
#1 영 헤영, 영 영 헤영 영 ᄒᆞ민 요레 호렝이를 꿰여 가지고.
@ 예.
#1 꿰영, 영 헤여근엥에 이 손으로 영 영 허멍, 이거 새껍 영 영 허멍 이레 쭉ᄒᆞ게 그거 문 잇우와 가는 거.
@ 음.
#1 경 ᄒᆞ민은 집 저, 집 일젠 ᄒᆞ민은.
@ 예.
#1 줄을 비어사 ᄒᆞ는 거난에 줄 딱허게 맞추와근엥에 이디 고젱이 찔르곡 저디 고젱이 찔르곡 헤여근엥에 거, 집이 ᄒᆞᆫ 거리면은 긴줄, ᄍᆞ른줄 두 가지로 비어살 거지이.
@ 게난예.
#1 긴줄로 문여 비면은, ᄒᆞᆫ 거리에치 긴줄 문딱 허여지면은 영, 영 어울려.
@ 영, 어울려?
#1 으. 어울려.
@ 음.
#1 어울릴 때는 요 뒤에서 영 놓아난 사름은, 요디 그 영 저 호렝이 닮은 거.
@ 예.
#1 그거는 영 ᄎᆞ례로 데우지 아녕 어울릴 땐 영 웨우 데우는 거라.
@ 아, 웨우 뒈여.
#1 영 요디 앚아근엥에 데우곡.
@ 음.
#1 두 사름은 저디서 호렝이 꿰어근엥에 영 데우곡.
@ 음.
#1 ᄒᆞᆫ 사름은 이거 영 저, 두 가달을 이레 영 어울릴 게난에 이거 영 심어근엥에 어울려 가곡.
@ 어울려 가곡. 음. 게 삼춘네는 저, 그거 누게가 누게영 헷수과?
#1 아이고, 우리 그자 그거는이 어른도 ᄒᆞ곡 아이도 ᄒᆞ곡 허영.
@ 음.
#1 저, 우리는 그거 ᄒᆞᆯ 때도 난 그 호렝이 헤영 영 비는 건 아니 허여. 영 놓는 거.
@ 놓는 거 헤영.

#1 놓는 거. (웃음) 하르방 ᄒᆞ는 거 ᄒᆞ주.
@ 어.
#1 저, 비는 거는 아이도 비곡 어른도 비곡.
@ 음.
#1 늙은이도 비곡 헹 그건 헤여지곡.
@ 음.
#1 놓는 거는 아이도 못 놓곡겐 ᄉᆞ뭇 늙은이도겐 졸바르 놓지 못ᄒᆞ곡 ᄒᆞ는 거난에.
@ 음.
#1 경허난 기자 ᄒᆞ쏠 영 젊은이로 헤영 우리 그거 놓는 것도 잘 놔져.
@ 아이, 경 헷구나예?
#1 음.
@ 어, 게민, 그 입동이나 소설 지낭은에 저 새 비고예?
#1 으, 경 지나민 새 비곡, 집 일곡.
@ 일곡. 집 이는 건 게믄 동지 다 지낭은에?
#1 아, 그거는 기자 일찍 출려지민 그 일찍이라도 그 설 전이라도 일곡.
@ 예.
#1 또 어떵어떵 헤영 못ᄒᆞ면은.
@ 멩질 지낭?
#1 설, 설 넘곡이. 이 ᄒᆞ쏠 봄기가 나근엥에 ᄒᆞ쏠 ᄃᆞᆫ은 철 뒈여도 일곡.
@ 허곡. 아, 경 헷구나예?
#1 게난 그거 똑 어느 때 ᄒᆞᆯ 거 마련이 엇은 거난에.
@ 음.
#1 그자 일찍도 일곡 늦어도 일곡.
@ 늦어도 일곡예. 기구나예?
#1 음.

십일월

동지

@ 그리고 십일월에 동지가 이신디, 동지 땐, 동지 땐 어떵 풋죽은 쒕 먹어수과?
#1 아이고, 풋죽 쒀 먹어질 땐 쒀 먹곡 잊어분 땐 말곡.
@ 말곡.
#1 어, 경ᄒᆞ곡 저, 신 사름덜은 풋죽도 쒀 먹곡, 영 허영 ᄒᆞ곡. 저 엇엉 어렵게 사는 사름덜은 그런 거 생각 아니 ᄒᆞᆯ 수도 잇곡.
@ 잇곡. 그 풋죽 쑬 때.
#1 음.
@ 어떤 디 보민 풋죽에 감저도 놩 쒓덴 헤신디.

#1 감저사 놩 쑤어? 저 ᄀᆞ루 몰아근엥에 저베기 톧아 놩은엥에.
@ 저베기 톧아 놩 헌 건 막 후제 헌 거고.
#1 어, 어.
@ 옛날에.
#1 그자 감저 놓는 거는 그거는 그자 그 알질르레 ᄒᆞ여실 테주. 아멩헤도.
@ 아, 이 동넨 겅 안 허고예?
#1 음, 음.

대설

@ 겅 허고. 그다음엔 이젠 시월에 아까 소설이 이시민 십일월에는 동지도 잇곡, 대설이 이서예? 대설.
#1 음, 음.
@ 대설 땐 뭐 헤수과?
#1 무시거 ᄒᆞᆯ 때?
@ 소설 말고 대설.
#1 대설?
@ 예.
#1 아이고, 그때는이 막 추우난에.
@ 추우난, 예.
#1 무시거 일두 못헤여.
@ 못헤여예.

장 담그기

@ 근데 저 콩, 콩, 그, 콩은 상강 때, 상강 때 콩 비엇잖아예?
#1 상강, 상강일 넘어사.
@ 상강일 넘엉 저 콩 비민, 바로 콩 숢앗잖아 뒌장 허젠예?
#1 음, 음.
@ 콩 숢은 거 언제 뒌장은 담갓수과?
#1 장, 언제 ᄃᆞᆼ그느냐고?
@ 예.
#1 장도 저 거 설 전이 돔가.
@ 설 전이 게난.
#1 으.
@ 섣달그믐에?
#1 으, 저 섣ᄃᆞᆯ그뭄날은 날 아니 봐근엥에 돔아도 아무 숭폐 엇이 장이 맛 좋넨 헤여.
@ 기지예?

#1 음, 게난 대부분 섣둘구뭄에 둠는 사름이 하고.
@ 게난 섣둘그믐에 장도 담가살 거, 멩질 준비도 헤살 거.
#1 음.
@ 잘도 바빠시켜예?
#1 어, 저 무시거 돈 버슬레 강 버슬어 오는 일은 엇어도 그것 저것 그것 저것 놀 때가 읏어.
@ 놀 때가 엇어.
#1 경 ᄒᆞ곡 경 헤영 살젠 ᄒᆞ민, 눈 오당 ᄒᆞ쏠 그쳥, 베지ᄀᆞ랑헤도, 저 산에 가근엥에 낭이라도 걷엉 져당 짇젠.
@ 게난예.
#1 ᄒᆞ곡 놀 때가 엇어.
@ 놀 때가 엇어예? 진짜예.
#1 음, 음.

십이월

납평날

@ 어, 그다음엔 음력 십이월에 들면 혹시 엿도 둠강 먹엇수과? 엿.
#1 약?
@ 엿, 엿.
#1 엿?
@ 예.
#1 웃음. 그것도 신 사름은 ᄒᆞ곡, 엇은 사름은 튼내지도 못ᄒᆞ곡.
@ 엿 헤봅디가?
#1 안 헤봐서.
@ 안 헤봔? 음. 납평날 엿 안 헤보고. 그다음에는예?
#1 음.

신구간

@ 어, 이사헐 때, 신구간. 신구간이 오잖아예?
#1 음.
@ 신구간에 이사헤 봅디가?
#1 아이구, 어디 무신 경 이사 ᄒᆞᆫ읏이 ᄒᆞ영 뎅겨보지 아녀난에.
@ 음.
#1 지금이난에 ᄉᆞ뭇 신구간 때 뒈영, 춤 책에도 이ᄉᆞᄒᆞ는 날도 문 나오곡 ᄒᆞ영 ᄒᆞ주만은 거 엿날엔이, 기자 신구간 때 뒈면은 이서ᄒᆞ는 사름은 ᄒᆞ주겐. ᄒᆞ여도 이사ᄒᆞ는 게 경 쉽질 아녀.

@ 아녓지예?
#1 음.

집알이

@ 이사헐 때 혹시나 이사헌 집이 저 그 집들이 헐 때는 가 봅디가?
#1 아이, 그 집들이헐 때 그 이서가 그자 그거 집들이난에.
@ 예.
#1 이서허민 이섯밥 헤여 먹으면은 그게 집들이.
@ 게, 집들이난 그 이삿집에 집들이 헐 때 무사거 산 들러 가낫수과?
#1 아이고, 경 ᄒᆞᆫ 디는이 무시거 무신 돈 부지ᄒᆞ곡 무시거 아니 ᄒᆞ여도, 거 이서헌 집이 무시거 ᄒᆞᆫ 디 갈 때는 저 초 ᄀᆞ뜬 거.
@ 예.
#1 씰 ᄀᆞ뜬 거.
@ 예.
#1 그것이이.
@ 예.
#1 춤, 훤ᄒᆞ게 그거 촛불 싸지곡 씰은 멩 질게 ᄒᆞ곡.
@ 예.
#1 ᄒᆞ는 거난에 대부분 그런 거 많이 아졍 가.
@ 아져 가고예.
#1 으.
@ 음, 기구나예.
#1 그것이 방법으로 거 좋은 거.
@ 방법으로 좋은 거예?
#1 음.
@ 그리고 여기는, 이 저 이 집은 언제 짓엇수과?
#1 아이구, 어느 때사 짓어신디. 놈 짓언에 살단 거난에 뭐 어느 때사. 이거 ᄉᆞ태 넘은 후제 짓은 게난에.
@ 예.
#1 아이, 이거 짓건 때도 저 ᄒᆞᆫ 오륙십 년 뒈어실 테주.
@ 아, ᄉᆞ태 넘엉 짓엉, 남이 짓은 걸 사근에 와수과?
#1 어, 남, 놈 짓언에. 놈 짓으난, 영 헨 우이 설멩이(?) ᄒᆞ고이, 영 문만 헷주. 안넨 이런 거 저런 거 원 아니 헤연에 이 안네 ᄒᆞᆫ 너덩이고, 재우 우 더꺼지고. 이 문도 나 저 이디 산 온 후제 이거 멧 번 ᄀᆞᆯ안에 헤엿주. 그때는 저 나무허곡 우터렌 유리 ᄒᆞᄊᆞᆯ ᄒᆞ곡 헌 거여. 막 열두 더끄지두 못ᄒᆞ영이, 열젠 헤도 막 힘 내여사곡. 더끄젠 헤도 막 끗어사 더끄곡. 기추룩 ᄒᆞᆫ 디 ᄒᆞ연에 산 오랏주. 사도 경 ᄒᆞᆫ 때사게 돈도 멧 푼 가지도 아녀곡. 산에 오란 살멍, 살멍 기자 이땅 요 방도 ᄒᆞ나 꾸며, 또 살당 요것

도 ᄒᆞ나 ᄒᆞᄊᆞᆯ 영 영 막아. 또 살당 요 천아반도 새로 박아. 멧 번사 ᄒᆞ여신디 몰라.
@ 잘헷수다게, 게도게.
#1 음.
@ 게도 이 집에 이사 올 땐 처음에 무시거 들렁 옵디가?
#1 에이고, 그 ᄉᆞ태 넘언에 저, 언만 오래지 아녀곡겐, 그때 무시거 들르국 무시거 ᄒᆞ곡, 들를 게 무시거 잇어게? 살렴도 엇고 ᄉᆞᆯ도 엇곡, 그 ᄉᆞ태에 문딱 멜쓰곡 헤연. 그때 언만 오래지 아년 때난에이. 아무 것도 엇은 때.
@ 게도 무신 솟이라도 ᄒᆞ나 들러오곡 허는 거.
#1 으, 경 헌 때 아이고, 솟은 들르는 체 헷주. 쩨끄만헌. (웃음) 아이고 솟 엇인 못 살게난에게.
@ 맞수다게.
#1 요디, 지금 요 부억 헌 디 저 화덕 ᄒᆞ여선게.
@ 예.
#1 화덕 ᄒᆞ난에, 그자 그 아궁디레 헤연에 쩨끄만헌 냄빈 아니고, 경헤도 솟 새끼 쩨끄만헌 거 두 개 헤연에 앚지곡 헤연. 헤연 ᄒᆞᆫ꼼, ᄒᆞᆫ꼼 살단, 그 화덕이영 문 튿어둰에 이젠 저, 보일라 ᄒᆞᄊᆞᆯ ᄒᆞ는 체 헤엿단. 보일라 헤여도 나 복력이 엇으난산디 원, 지름보일라 헤신디 언만 아니영 판나곡 ᄒᆞ멍 헤연에 원, ᄂᆞ시 장드럽게 ᄒᆞ지 못ᄒᆞ곡. 경 헨 ᄒᆞ단 버쳔. 또 이젠 거 지름보일라 헤엿단 설러 비어둰에 따신 원, 뭔 보일라 사 헤져신디 원 오래여 부난에 잊어 불고. 아, 초담은 연탄보일라 허엿단, 오래 살아가멍 또 지름보일라 허엿단, 또 그것도 어떵 헨 자꾸 판나곡 ᄂᆞ시 못ᄒᆞ난에 튿언 치와둰에 그맨 원 어떵사 헤여져신디.
@ 게 지금은 뭘로 뒀수과?
#1 지금 아무 것도 아년. 요디만 저 이디 아레 저, 그.
@ 전기?
#1 전기 자판긴지.
@ 예, 예.
#1 무시 건디 ᄒᆞ연에 저 막 추운 때민 그거 키여.
@ 음.
#1 키면은 그자 어의에 왈락ᄒᆞ게 덥주. ᄒᆞ영 헤도 난 하도 저 뽓젱이로 ᄒᆞ난에 매트 ᄒᆞ영 ᄁᆞ난에이, 그자 ᄯᅮ뜻헤여근엥에 ᄒᆞ민 얼지 아녀민 살곡. 눈이나 오랑 막 추운 때는 그 보일라도 키곡 매트도 키곡 ᄒᆞ민, 어의에 저 방이 막 ᄃᆞᆺ아. 경 ᄒᆞ면은 보일라 건 저 전기세 하영 날 생각헨게.
@ 음.
#1 거 보일란 꺼도근엥에 저 매트만 꽂곡.
@ 음.
#1 경 ᄒᆞ멍 사난에, 저 ᄒᆞᆫ읏이 무신 겨울 넘어도 지름깝이영 ᄒᆞ나 전기, 전기세영 ᄒᆞ나 헤영 ᄒᆞᆫ읏이 하영 나지 아녕, 나만이고 ᄒᆞ난에게 기자 ᄒᆞᄊᆞᆯ 키엿당 ᄯᅮ뚯헤가민 꺼

불곡 ᄒᆞ난에겐. 무시거 언만 올르질 아녀난에.
@ 아, 예. 어, 그리고 그래서 그 신구간에 여기 갈 때는 씰이나 초나 헹 가고예?
#1 음.

소한 · 대한

@ 그다음엔 그 음력 십이월 뒈면 그 섣달 뒈면.
#1 음.
@ 소한 대한 잇잖아예?
#1 어, 섣둘이 뒈면은 초담은 소한.
@ 예.
#1 다음은 대한.
@ 소한 대한에 대헤 가지고 뭐 곧는 말 엇수과?
#1 음?
@ 소한 대한 뒈민 뭐 소한이 저, 뭐 대한네 집 가고, 그런 말 엇수과?
#1 아이, 무사 그런 말들은 엇어. 게곡, 이 저 달력에 영 문 나오난에게.
@ 게, 뭐렌 골아낫수과? 옛날 속담에.
#1 엿날?
@ 예.
#1 엿날은 소한 대한이엔 ᄒᆞᆫ웃이 안 골앗주.
@ 아니, 게난.
#1 엿날엔 저 무신 절, 무신 절은 헤어낫어.
@ 음.
#1 ᄒᆞ여도 그거 문 잊어 불곡. 그 엿날 조꼼 영 영 벗어져 가난에, 소한이여, 대한이여. 저, 소한이 대한보다도 더 추우난에 소한 집이 대한이 놀레 갓다가 하도 눈이 많이 오고 ᄒᆞ난에 집이 오지 못ᄒᆞ연, 거기서 얼어 죽엇젠도.
@ 예, 또 다른 말은 엇수과? (웃음)
#1 엇어.
@ 대한이 소한이네 집 놀레 갓단 눈 하영 와부난 얼어 죽엇덴.
#1 으, 으. 집이 오지 못헨.
@ 오지 못헨예.
#1 얼어 죽엇덴. 겨난 저 소한 때가 더 춥는 거.
@ 게난, 무신 소한 때 나간 사름 찾지 말라, 이런 말은 엇엇수과?
#1 어, 소한 때에 나간 사름 찾아보지, 대소한 때 나간 사름 찾아보지 말라고.
@ 무사 겅 골아신고예?
#1 얼엉 돌아오지 못헹 죽어 불엇덴.
@ 못헹 죽어불엇젠.
#1 으. 게난 ᄒᆞᆫ 가지가 아니고 대소한.

@ 음.
#1 대소한 때 나간 사름이랑 찾아보젱도 말렌.
@ 음.
#1 언만이나 추워사 경 홀 거.
@ 게난마씸게. 게난, 섣달그믐 뒈근에 이제 멩질 금방 어, 멩질인디, 그믐 지나면 초ᄒᆞ루 멩질이잖아예?
#1 음.
@ 그믄 그때 이미 보리가 막 싹 나수과?
#1 보리 싹은이.
@ 예.
#1 그거 간 우린 메여보던 아니 헤여도 거 일찍 일어나근엥에 그 보리 싹을 강 메여 보면은이.
@ 예.
#1 보리가 새 발이 싹이 나면은.
@ 예.
#1 보리가 잘 뒌다고.
@ 보리 발이 세 개?
#1 아니, 세 개가 아니고, 새 거, 새 거. 허영헌 발이 나와.
@ 아, 아, 아.
#1 허영헌 발이 나와.
@ 아, 새 발이 나오민.
#1 어.
@ 보리가 잘 뒌덴.
#1 음, 보리가 잘 뒌다고.
@ 저, 멩질에.
#1 어, 멩질날 아척이.
@ 아, 기구나. 멩질날 보리 멩 새 발 나시믄 보리가 잘 뒌다.
#1 새벡이, 새벡이.
@ 아, 아. 멩질날 새벡이 보리 뽑앙.
#1 음. 뽑앙 보민.
@ 예.
#1 이 뿌리에 새 뿔리가 나오면은 잘 뒈여.
@ 잘 뒌다.
#1 음.
@ 아, 겅 헤낫구나예?
#1 음, 음.
@ 알앗수다. 아이고, 이제 거기까지 헷고예.

#1 음.
@ 영 헤서 이제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섣달그믐까지 다 헤수다.
#1 다 헤서?
@ 예. 아이고, 고셍헷수다. (웃음)
#1 아이고, 저, 그쪽도 고맙고, 아이고.

당
@ 예, 삼춘.
#1 응.
@ 가시리에.
#1 응.
@ 이신 당 이름들 ᄀᆞᆯ아줍서.
#1 어, 당 이름으로부떠 ᄆᆞᆫ여?
@ 예, 예.
#1 구성물당.
@ 예
#1 닥남우연.
@ 예.
#1 그걸랑 저 당 일름일랑 그거고.
@ 예, 그거 잇고. 아니 아까 두 개 더 잇어신디. 그건 무시거, 무시거엿수과?
#1 그거는 ᄒᆞ난 저 안자리옌 ᄒᆞᆫ 디고.
@ 예.
#1 ᄒᆞ난 가시리라도 저레 올라간 디고.
@ 그 올라간 디 이름은?
#1 승지물.
@ 승지물. 그게 당 이름이구나예? 승지물당예?
#1 으, 물, 물가에 그거 시난에.
@ 아, 기구나. 기구나. 그다음에는예?
#1 음.
@ 어, 가시리에.
#1 음.
@ 오름이 ᄋᆞ슷 개 잇덴 헤신디예? 그거 ᄒᆞ나씩 ᄀᆞᆯ아줍서. 가까운 디서부터.
#1 오롬?
@ 예.
#1 요거, 젤 가까운 디난.
@ 게난.

#1 갑선이.
@ 갑선이? ᄒᆞ꼼 큰 소리로. 갑선이오름.
#1 어, 나. 크게 곧지이.
@ 예.
#1 갑선이오롬.
@ 그다음?
#1 설오롬.
@ 예.
#1 따라비.
@ 예.
#1 사슴이.
@ 예.
#1 번널오롬.
@ 예.
#1 벵곳오롬.
@ 예. 고맙수다. 그다음엔 물 잇잖아예? 물예?
#1 물?
@ 예, 막 ᄀᆞ물 때 가 가지고 떠오는 물 이름은 무시거꽈?
#1 그거, 목지궤야.
@ 예.
#1 시건이.
@ 예. 그다음에 흔히 잇던 내창물 이름은?
#1 으, 그 저 보미수.
@ 예.
#1 구세기물.
@ 예.
#1 나목도.
@ 예.
#1 주젱이.
@ 예. 맞수다. 아이고, 고맙수다. 게난.
#1 물은, 물 일름은 ᄋᆞ슷 밧디나 ᄀᆞᆯ앗어.
@ 예. 겅 헷수다. 진짜.
#1 음.
@ 아이고, 알앗수다. 고맙수다예.
#1 예, 예.

7. 표선면 토산2리

- 조사 일시: 2022년 7월 8일, 7월 13일
- 조사 장소: 토산2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미진 @2 김순자
- 제보자: #1 김성섭

제보자 정보

@1 (중략) 삼춘 이디서 태어낭 이디서 자랍디가?
#1 으, 아니, 나 일본서.
@1 일본서 태어난. (잡담) 삼춘 게난 일본서 태어난에 이디 멧 살 때 완마씨?
#1 여기 오기 전? 가만 잇어봐. 나가 ᄋᆞ답 설쯤 와신가?
@1 아.
#1 아 일곱 설쯤 왓다.
@1 일곱 살 때쯤에. 으.
#1 완에 일본, 일본 조선국민학교 일본시대에 다녓지.
@1 아, 기구나예.
#1 일본 시대, 일본 시대 우리 일학년 마치니깐 해방뒈어.
@1 아 일학년 마치난.
#1 으.
@1 음.
#1 니뽄허곡 조또 와루.
@1 아이고 일본말도 잘 곧곡.
#1 이, 이름만 조또 와루. 와가리마수.
@2 와가리마시다.
#1 조또 조금 알 수 잇단 말이야.
@2 조또 와까리마쓰.
@1 으.
#1 소대스.
@2 소대스네.
모두 (웃음)

조사마을

@1 이 마을 옛날 이름은 뭐마씨?
#1 옛날 이룸?
@1 으.

#1 옛날 이름도 토산이지.
@1 옛날 이름도 토산?
#1 으.
@1 삼춘이 아는 그 옛날 더 옛날에도 토산이엔 불러나수과?
#1 원래는.
@1 으.
#1 토산이 여기 잇지 않고 저 요쪽 우에 가믄 저 토산일리 가는 쪽에 묵은가름이라고 잇어.
@1 묵은가름.
#1 거기가 성읍리 저기 헐 때 여기가 이 면소기랏어.
@1 아.
#1 옛날에. 요쪽, 요쪽에.
@1 게믄 옛날에 이 토산이?
#1 으, 면소지라.
@1 면소재지라낫구나예?
#1 으, 면소재지.

오름

@1 이 저기 토산에는 오름은 미신 오름, 미신 오름이수가?
#1 망오름 하나벳기 엇어, 망오름.
@1 망오름 ᄒᆞ나벳기 엇수과?
#1 으.
@1 음.
#1 가시오름이라고 저기 잇는데 거는 세화리허고 선흘 합동.
@1 아 합동.
#1 으.
@2 가시오름?
#1 으, 가시오름.
@1 오름은 요거 두 개. 으.
#1 으.
@1 망오름은 혹시?
#1 오름은 저 봉망산 잇어, 봉망산. 건 공동묘지.
@1 아 그딘.
#1 그딘 산이 짜그만한 거. 봉, 봉. 봉이야 봉.
@1 아.
#1 봉이라고 허지, 이렇게.
@1 예.

#1 그거 봉망산이라고 그래.
@1 아 거기를 봉망산이엔 굴읍니까?
#1 으, 게난 거기 다 영향 가니까 봉망산 간덴 허잖아.
@1 으. 북망산 아니고 봉망산?
#1 으, 이 토산은 봉망산이라 그래.
@1 아. 그딘 공동묘지로 다 조성뒈수과?
#1 공동묘지로. 개인, 개인 부지는 개인이 묻곡.
@1 으.
#1 거긴 전부가 산이라. 저, 묘, 묘.
@1 묘예? 음. 건 토산이 이신, 여기 토산이릿 거꽈, 아니민 어디 다른 디영 ᄀᆞ치우꽈?
#1 면, 면.
@1 면. 표선면 거?
#1 으, 면, 면.
@1 표선면 공동묘지?
#1 표선면 공동묘지랏어 옛날에.
@1 게믄 주로 큰 오름은 망오름 ᄒᆞ나구나예?
#1 으, 망오름 ᄒᆞ나.
@1 망오름은 옛날부떠 망오름이엔 굴아수과?
#1 으, 망오름. 웨 망오름이냐믄 거기 저, 저, 뭐, 공천. 봉화 올리는 거 올리잖아.
@1 예, 봉화 올리는 거.
#1 으, 그게 잇어.
@1 아, 경허난 망오름이구나예?
#1 으. 망을 보는 오름이란 거지.
@1 아. 삼춘 어렷을 때도 그런 거 봐납디가?
#1 뭐?
@1 그기 뭐 불 올리고 허는 거.
#1 불 올리는 건 안 봣지.
@1 아 그런 건 안 보고?
#1 거기 지금 터도 잇어.
@1 아 터도 잇고예?
#1 으.

물

@1 이디 저 토산이리에 물은 나는물이영 뭐 물통이영 이런 거 여러 개 이수과?
#1 여기 가믄 산여리통.
@1 산여리통.

#1 으, 산여리통이라고 저 바다, 바다, 바다이서 나오는 물이 잇어.
@1 예.
#1 옛날 그 물 먹곡 으, 그랫지.
@1 아 여기 토산 사름들은 여기서 물 하영 질어당 먹어수과?
#1 으, 전부.
@1 전부.
#1 저 위에 세화리 사름한티도 그디 마차 끌고 가서.
@1 물 하영 나는 디구나예?
#1 물 콸콸 나는 디.
@1 아.
#1 막 물 막 차.
@1 어.
@2 물맞이레도 뎅겻덴 허멍 거기.
#1 으?
@2 물맞을 때도 산여리통에 가서.
#1 으, 물맞이레, 물맞이레. 여름에는 표선면 사람, 이 근방 사람 전부 와.
@1 으.
#1 물맞이레. 물이 하도 차. 이 오 분도 못 앉어.
@2 오 분도 못 앚아예.
@1 그믄 요기가.
#1 그 거기 우에가 이 암석으로 영 둘러 쌓여서 굴로 뒈어 잇거든. 아래.
@1 아, 예. 겡 삼춘도 그디 물 질레 다녀 보고?
#1 으. 우리는 여기서 여름에 전부 물허벅 졍 강 그디 강 질어당 먹잖아.
@1 예.
@2 산여리통에서예?
#1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면은 고망물이라고 헤, 고망물이.
@1, 2 예.
#1 그게 이, 저 발 붓는 병.
@1 발 붓는 병?
#1 으, 발 붓는 병 허는 거라, 발, 발.
@2 으.
#1 발 붓는 병 잇잖아.
@1 예.
#1 발이 붓는 거.
@1 예.
#1 그런 병을 유발헌 거라, 그게. 그게 균이 잇는 거지, 그러니까.
@1 그 산여리통에 물이?

#1 으, 으.
@1 발 붓는 병을.
@2 치료허는 거?
@1 유발허는 거, 치료허는 거?
#1 유발허는 거.
@1 유발허는 거?
#1 으, 으.
@1 그믄 이 동네 사름 발 붓는 병.
#1 아 발 붓는 병 많이 헷지.
@1, 2 아.
#1 옛날에. 나도 예전에 국민헉교 다니는데 난 아홉 설, 읏답 설부떠. 게믄 여기서 저 세벡이 둑 울면 밥 먹곡 이제 발은 맨발에.
@1 예.
#1 이 일주도로는 신작로 자갈 끽는 디 맨발로 허거든?
@1 예.
#1 맨발로 가다가 저 표선이 거기 가면은 옛날 조리라고 잇어, 조리.
@1 예.
#1 찝으로 만든, 이 찍찍이.
@1 예.
#1 그걸 거기다 감춰 놓는 거라. 표선 거기 가면. 강 놀다가 거기서 그 줄을 신곡 학교 가는 거라.
@1, 2 아.
@1 학교 들어갈 때만?
#1 으, 학교 들어갈 때만. 겡 나오단 굽정.
@1 굽지곡.
#1 감추고 또 집이 오는 거라.
@1 어.
#1 경허곡. 그렇게 헤서 헷는디 나도 그 저 오학년 뒈니까 이 다리가 막 부은 거라.
@1 예.
#1 겡 학교 못 다녓잖아.
@1 아. 그거, 그거.
#1 경헤서 조금 쉬엇다가 신흥국민흑교 다녓어.
@1 아.
#1 일학년 신흥 국민학교 다녓가지고.
@1 그건 그난 그냥 다리 붓는 병 말고 다른 이름은 엇인 거과? 무슨 병이꽈?
#1 다리 붓는 병이라고 거 이름이 잇어.
@1 아.

#1 병원이서 물으민 다 알아.
@1 아.
#1 다리 붓는.
@1 그 삼춘 말고, 삼춘, 다른 사람들도 이 동네 사름들 그 병을.
#1 거의 많이 걸려.
@1 아.
@2 게난 다리 붓는 병은 고치젠 허믄 어떵 헤여?
#1 게난 그다음에는 그거, 그거는 그 전에는 병원도 엇곡 허니까이. 쉬어야 뒈, 쉬어야.
@2 쉬어야 뒈.
#1 으. 쉬, 쉬곡. 이 머*로 허믄이 이게 피가 내려오니까 붓거든, 부어. 겡 쉬면은 안 붓는 거라.
@2 아, 너무 무리헤갖고.
@1 물통 때문에 균이.
@2 균이 잇덴?
#1 으, 검사허니까 그 후에 그, 그 의사들이 검사허니까 균이 잇는 거라.
@2 아.
#1 그, 알아. 의사들 알아 다리 붓는 병이 뭐냐면 알어.
@2 예, 예. 그난 산여리통에 그런 세균이 잇엇구나게, 예?
#1 근디 일반적으로 제주도 그 산물, 알아?
@1 예.
#1 나오는 물이 거의 거라, 거.
@2 아.
#1 거의 그 병 잇어.
@2 그 병 잇어예?
@1 음.
@2 예, 알아수다.
@1 그럼 이 산여리통 말고 다른 물은 엇수과?
#1 다른 물 엇지.
@1 그면 쉐 물 멕이는 물이라도.
#1 쉐 물 멕이는 거 그쪽이, 산여리통, 그, 그거 말곤 그 지역 전부 그 물이라.
@1 아 ?튼 물인디예?
#1 그디 물이 흘러가기도 허고 이쪽으로도 막 나오고 허니까.
@1 예.
#1 그쪽은 궹장히 넓어.
@1 음.
#1 소 물 멕이는 따로 잇어.

@2 음 먹는 물 잇고, 쉐.
#1 먹는 물 따로 잇고 소 물.
@2 모욕허는 물도 잇고.
#1 모욕헌 물도.
@1 음.
#1 모욕허는 디 잇고.
@1 음.
#1 음.
@2 삼춘 여기는 웃토산, 알토산 이런 말 안 헙니까?
#1 헙니다.
@2 허지예? 아까 거난 여기는 알토산?
#1 알토산.
@2 으 알토산에서 제일 유명헌 게 산여리통이구나?
#1 바닷가는 산여리통.
@2 예 그게 유명헌 거예?
#1 으.
@1 음.

당

@1 이 동네에 당도 이수과?
#1 당?
@1 응.
#1 당은 웃토산이 잇어, 웃토산이.
@1 음. 웃토산에.
#1 으. 웃토산에 토산 땅이라고 옛날에 잇엇지.
@1 예, 이젠 엇고?
#1 아 지금이야 어디 그런 게 잇나.
@1 (웃음) 예.
@2 게도 본향제 이런 거 안 헤? 본향굿?
#1 그런 건 허여.
@2 본향굿 허잖아예?
#1 으.
@2 그건 어디 강 헙니까? 본향굿은?
#1 저기 저.
@2 바당 동네?
#1 으, 바닷가 저기. 지금도, 지금도 허는 건 허여.
@2 게난 그 본향굿, 본향당 굿 헐 때 정월에 허지 아녑니까? 무사. 정월, 정월에.

#1 그런, 그런 본향굿이 아니고.
@2 으.
@1 음.
@2 해녀들?
#1 아니 이, 저 산 사름이 저 그, 그거 뭐 좀 아이들이 잘 뒈고 그런. 저 신안티 비는 거 잇잖아.
@2 예, 예.
#1 그런 거, 그런 거 막 흔 삼 개월에 흔번씩 허여.
@2 아.
#1 일 년에 세 번쯤 헐 거라.
@2 일 년에 세 번쯤예?
#1 으, 으.
@2 그, 거 위치는 어디?
#1 거 위치는 저, 저쪽 아래 저, 저기 저 호텔 잇지?
@2 호텔 이름이 뭐우꽈?
#1 요디, 요디 뭐 여디 호텔 일름 몰라 여기? 이디.
@2 큰 저긴가?
#1 으, 큰.
@2 아고 이름이.
@1 ○○○ 말고?
@2 ○○○ 아니고.
#1 ○○○ 말고 요 토산 이디 바로 나가믄 잇잖아.
@1 아.
@2 아, 그 저기 호텔 옆이 이수과?
#1 박○○헌 거. 박○○가 허다가 팔아먹은 거 잇잖아.
@1, 2 어.
@2 어쨌든 거기에 당이 잇다라는 거지예? 거기서 한 석 달에 한번씩?
#1 그, 그 호텔 앞에 바닷가에.
@1 아.
@2 바닷가.
#1 바닷가에.
@2 할망당이구나?
#1 으, 으, 으 할망당. 경헌디 거기 옛날 그 보일 엉덕 아래 헷는디. 그 호텔 지어가지고 막 물내리고 허니까. 이쪽 어디 천막치고 쪼그맣게.
@2 음.
#1 그 지금 심방이라고 잇잖어, 심방.
@1 예.

@2 심방.
#1 심방도 잇다가 다 죽어불고 심방도 없어.
@2 음 이제 이 동네 심방이 엇구나.
#1 태흥리 사름이 와서 헌다고 허드라고.
@2 태흥리.
@1, 2 음.

포제

@1 포젯단은?
#1 으?
@1 포젯단은 어디 이수과?
#1 포젯단은 망오름에.
@1 아, 망오름에.
#1 으, 포제단 망오름에 잇어.
@1 포제는 웃토산, 알토산 ᄀᆞ치 헙니까, 따로따로?
#1 따로따로.
@1 다 따로따로예? 음. 근데 단은 ᄀᆞ튼 단 씁니까?
#1 으?
@1 단은 ᄀᆞ튼 단 아니지예?
#1 아니, 따로 단이 잇어.
@1 아 따로따로예. 음.

문화재

@1 이 동네 문화재가 무신 문화재가 이신고마씨?
#1 문화재는 별로 없어.
@1 별로 엇어? 뭐 자랑할 만한 거. 우리 알토산은 이게 자랑이주, 영허는 거 엇수과?
#1 그런 건 요새, 요샌 뭐 특별히 자랑헐 건 없어.
@1 으, 특별히 자랑헐 건 없고예.
@2 인심은 어떵하우꽈?
#1 요새, 요새 하우스 허는 게 자랑이지.
@1 하우스.
#1 거의 다 하우스 허니까.
@2 이 동네는 하우스 헴수과?
#1 전부 하우스 헤.
@2 다 미깡?
#1 으. 미깡 뭐 아이, 뭐 아이 허는 거 없어. 뭐 망고, 뭐, 막 여러 가지 헤.

@1 아 미깡만 허는 게 아니고?
#1 음.
@2 겡 삼춘네도 하우스 허멘?
#1 나는 나이 먹으니까 못 허주, 하우스.
@2 아들이라도.
#1 아들은 난 일 나눈 적 엇어.
@2 으.
#1 아들 하나 봉가줘.
@2 아들 하나 봉가줘?
#1 으.
@1 (웃음)
@2 아들 하나 봉가드립니까?
모두 (웃음)
#1 뚤은 하.
@2 뚤은 하?
#1 으.
@2 뚤은 멧?
#1 뚤은 넷.
@2 요즘은 뚤이.
#1 아들도 두 개 잇어.
@1 에이고 이시멍은에.
@2 무사 막 엇덴 헤 가멍.
@1 제주도에 엇인가?
#1 게믄 엇는 거지. (웃음) (잡담)
@2 큰할망은 뭐헴수과?
#1 아, 집이 잇어.
@2 뭐 허멘?
@1 ᄀᆞ치 안 오고 무사?
@2 게난 ᄀᆞ치 손심엉 오주만은게.
#1 미시거 잇어.
@2 우리 만나면 우리 말 들어볼 거 이신디.
#1 어디 놀러 뎅길 때나 ᄀᆞ치 뎅기지, 뭐, 뭐.
@2 말씀도 잘하시지양? 삼춘보다 더 잘할 거 닮아, 큰할망.
#1 (웃음) 말 잘하는 게 어디 잇나.
@1 (웃음)
@2 아고게 멩질 허는 거 이런 것들이야 여자 삼춘이야 더 잘 알 거 아니?
#1 으, 그렇지.

@2 예? 멩질 허는 거.
#1 그거는.
@2 집에 종손이우꽈, 혹시?
#1 으?
@2 집에 삼춘네 집이서 지금 멩질도 허곡 다 허고 다 허여?
#1 으.
@2 이제도?
#1 으.
@2 게믄 그거 여자 삼춘이 다 출려?
#1 으.
@2 아고야. 메누리가 안 왕?
#1 으?
@2 메누리가 출리는 게 아니고 여자 삼춘이 출려?
#1 그렇지.
@2 세상, 무사 제사 안 물립디가?
#1 으?
@2 식게 무사, 식게 멩질 무사 안 줜? 아들안테는.
#1 밧 주기 실프난.
모두 (웃음)
@2 아. 야, 삼춘 멋지다. 건예 나중에야.
@1 맞아, 죽을 때까지 가정 잇어야 뒈는 거라.
@2 멋지다, 멋지다.
@1 (웃음)

일월

정월 멩질

@1 정월 멩질부터 순서대로 들어갈게예. 정월 멩질 헐 때예.
#1 으, 으.
@1 삼춘은 정월 멩질 이제 낼모레 정월 멩질이여 허민 뭐부터 준비허여야 뒙니까?
#1 뭐부터 준비허여?
@1 으.
#1 제물부터 준비헤야주.
@1 제물은 무신거 준비헐 거꽈?
#1 아, 제물게 사과, 배, 뭐, 고기.
@1 으.
#1 아 거 제물, 제물 들어갈 거 다 알 거 아녀? 거 제물이 뭐, 뭐 ᄒᆞ나두 개냐.

@1 여기 토산, 알, 토산에서 허는 거.
#1 생선, 생선 허믄이.
@1 예.
#1 오투미, 오투미, 생선, 생선, 생선이.
@1 생선 오토미.
#1 여기 생선이엔 허는 거 잇잖아, 알아져?
@1 예.
#1 조기 그런 거 말고.
@1 오토미, 오토미로예. 오토미가 생선.
#1 도미, 도미. 그거 진짜.
@1 그게 진짜 생선예?
#1 으, 으. 그거.
@1 예.
#1 그거 다른 거 뭐, 뭐 무신 다 아는 거 아녀. 뭐 쌀, 사과, 배, 뭐 그런 거 들어갈 거 아니?
@1 순서대로 골아보게예.
#1 으.
@1 자 사과, 배, 또 다른 생선, 다른 과일은 무신 과일 헙니까?
#1 다른 과일?
@1 으, 미깡? 사과, 배.
#1 미깡 날 땐 미깡 허고.
@1 으, 미깡 날 때 미깡 허고.
#1 미깡 아녈 때는 사과, 배가 보통.
@1 두 개만 헤?
#1 저.
@1 삼종은 헤야 뒐 거 아니?
#1 감도 허고.
@1 감. 으.
#1 곶감이.
@1 곶감으로 헙니까, 그냥 감으로 헙니까? 단감.
#1 곶감.
@1 곶감으로예. 으. 사과, 배, 감 세 개 허고. 오종 헐 때도 잇지 아녀꽈? 다섯 개 헐 땐 뭐헙니까? 게믄.
#1 보통.
@1 과일은 세 개만 헤?
#1 으, 보통 세 개 헤.
@1 보통 세 개, 예.

#1 게곡 상이, 상 두 부체씩 허민 상 ᄒᆞ나 놓민 거 그렇게 놓고 뭐뭐 놓민은.
@1 으.
#1 거 밥을 두 그릇이난 네 그릇, 그릇 네 개 놔야뒈잖아.
@1 예.
#1 떡 놔야지, 적갈 놔야지. 뒈지 적갈, 소고기 적갈.
@1 으.
#1 묵, 묵.
@1 적갈은 쉐, 소고기 적갈허고 뒈지 적갈 두 개 헙니까?
#1 으. 두 개고.
@1 뭐 상어나 문어 안 헙니까?
#1 그런 거 안 헤.
@1 그런 거 안 헤예. 그다음 아까 묵은 어떵 헹 헙니까?
#1 묵은 ᄆᆞ밀묵.
@1 ᄆᆞ밀묵.
#1 으.
@1 것도 꼬지에 뀁니까?
#1 으, 꼬지에 꿰어.
@1 어.
#1 전부 고지에 꿰어.
@1 전부 고지에 꿰어.
#1 으.
@1 게난 이 묵은 후라이판이서 지진 건가 아니면 쑨 건가?
#1 쑨 것도 잇곡.
@1 예.
#1 바쁠 때는 저, 이, 저 후라이판이서도 허고. 정월 멩질이나 팔월 멩질은이 쒀서 헤.
@1 아 집이서.
#1 쑤어서.
@1 사모님이 직접 쑤어마씨?
#1 쑤어가지고 딱 고지에 꿰어가지고 참기름 불르면서 쫙 구워야 뒈.
@1 그 굽는 건 삼춘이 헤시큰게예.
#1 어, 남자덜이 허지.
@1 예, 화리, 화리에서?
#1 으 화리에서.
@1 겡 삼춘도 그렇게 헤난 거 아니꽈예?
#1 아 나 지금도 헤.
@1 지금도 화리에서 굽니까?

#1 으.
@1 아 집에서?
#1 숫불로.
@1 숫불로?
#1 으.
@1 어, 그 묵은 어떵 쑵니까? 네귀방장허게 썹니까? ᄒᆞ꼼 영, 영 ᄐᆞ라지게 썹니까?
#1 묵은?
@1 으.
#1 ᄒᆞ꼼 ᄐᆞ라지게 썰어.
@1 ᄒᆞ꼼 ᄐᆞ라지게 썰어?
@2 나비적 헴구나예? 삼춘 집은.
#1 으.
@1 그거 나비접이엔 ᄀᆞᆯ읍니까?
#1 나비묵.
@1, 2 나비묵.
@1 으, 나비묵. 나비묵이엔 허는구나예. 게믄 삼춘이 저 묵도, 묵이영 뒈지고기, 소고기 적을 화리에서 헐 거라예.
#1 으.
@1 그믄 그거 허젠 허민 그거 순서대로 준비허는 과정부터 ᄀᆞᆯ아봅서. 어떵 어떵 어떵 헤근에 구웁니까? 처음부터.
#1 아 소고기나 뒈지고기나게, 딱딱 적 헐 만큼 이렇게 썰어가지고 양념헷다가. 으, 내일 헐 거믄 아시날 양념헷다가 뒷날 아침에 그 썰어논 거 고지에 꿰어가지고 굽잖아.
@1 고기도 삼춘이 썹니까?
#1 고기? 고기는 우리 집사람이 썰어.
모두 (웃음)
@1 아니 써는 것도 남자가 헙디다.
#1 아, 썰 때도 잇지, 썰 때도 잇지.
@1 옛날에, 옛날에 삼춘이 헤나수과?
#1 으, 바쁘면은 썰어야지. 전날, 전날 저녁에 허기 때문에 대게는 집사름이 허는데.
@1 으.
#1 바쁘게 허게 뒈민 남자가 썰어야지.
@1 으, 이 꼬지도 옛날 대낭 까까근에.
#1 으, 대낭 거.
@1 예? 것도 삼춘이 직접 까까근에.
#1 으, 까까근에 요지금 파는 거, 이, 고젱이 아녀. 옛날은 대 헤서 넙작넙작허게, 으.

@1 그니깐예 거 다 까깡 미릇 준비헤야겟네마씨, 게믄.
#1 그렇지 그거 다 만들엉.
@1 거 언제쯤 준비헹 놔둡니까? 그건.
#1 그거는 아무 때라도 대낭 끊엉 만들엉 딱 놔두민 뒈.
@1 아 미리 만들엉 놔두는 거구나예?
#1 으. 만들엉 통에 딱 놔두민 뒈잖아.
@1 으, 게믄 그거.
#1 지금도 묵은, 묵은.
@1 으.
#1 그 꼬치로 안 헤, 대나무로 허지.
@1 아.
@2 적고지에, 으, 삼춘이 만든 거.
#1 적고지에 헤야지 그 고젱이로 허민이 묵이 딱 떨어져나가.
@1 아 너무 얇아가지고?
@2 토글랑허니까.
#1 아, 묵이 물렁지니까 이게 가느니깐 튀어나와 버리니까.
@1 아.
#1 이거 넘어가믄 안 튀어 나오잖아.
@1 으.
@2 납작허고예?
#1 틀어져 버려, 그거 허믄.
@1 게민 쉐고기허고 뒈지고기 저 양념헤논 거예. 저 여자 삼춘이 딱 갖다줜예.
#1 으.
@1 그믄 이제 그 이거 뀁서 줄 거 아니꽈예.
#1 뀁서 안 헹 나가 꿰지. 말 곧을 게 뭐가 잇어.
@1 거믄 어떵 헹 끼웁니까? 촌례촌례 몃 개나 꽂아? 다섯 개?
#1 다섯 개.
@1 다섯 개. 어, 흔나에 다섯 개씩 끼우는구나예. 으, 그건 생고기꽈 숢은 고기꽈?
#1 생거[쌩거]. 생거, 생거.
@1 생거예? 뒈지고기도 생거?
#1 으, 다 생거.
@1 다 생거.
#1 다 생거 헤서 허지.
@1 겡 생거 헤근에 그거 바로 화리에 허믄 안 익지 아녑니까?
#1 아니 바로 화리에 안 헤.
@1 거믄?
#1 화리 안 헹 저 요새는 지지지.

@1 후라이판에?
#1 후라이판에.
@1 후라이판에 지져놩 그다음에 화리에도 한번 헤마씨?
#1 건디 요샌.
@1 이젠 안 헤.
#1 옛날은 화리에서 헷어.
@1 옛날에 화리 헐 때 어떵 헤수과?
#1 옛날 화리에 생차로.
@1 생차로 헹 화리.
#1 게믄 오래 걸리지.
@1 게난 막 오래 걸리지.
#1 그거 진짜 맛이라.
@2 불고기네, 완전.
@1 으.
#1 기름칠 헌 게, 거 조금 오래여. 요즘 판대기 허난 막 쉽잖아, 막 빨리 .
@1 예, 예.
#1 거긴이 굽긴 막 오래어.
@2 게난 묵도 지름 불르멍 굽곡.
#1 으, 지름 불르멍 굽곡.
@1 화리, 돌화리마씨?
#1 돌화리, 옛날에 돌화리.
@1 으.
#1 요즘은 돌화리 아니고. 요 쒜판 헤근에 ᄑᆞ는 거 잇잖아, 그런 거.
@1 예, 예. 옛날 삼춘 돌화리에 헐 때 헤난 말 들어보젠마씨.
#1 돌화리.
@1 돌화리에 허민 무신거 영 우에 걸쳐근에 무신거 걸칩니까?
#1 아, 저 거시기 적쒜.
@1 적쒜 ᄒᆞ나? 두 개?
#1 두 개.
@1 두 개.
#1 으.
@1 두 개 놩 그다음에 꼬지에 뀐 거를 위에 몃 개나 놉니까?
#1 영 고지에 뀐 건 이렇게 이렇게 논 거 아냐.
@1 게난 돌화리에 몃 개나 올라가?
#1 돌화리에?
@1 으.
#1 돌화리도이 동그란 거 잇곡.

@1 동그란 것도 잇고.
#1 이렇게 이렇게 네귀방장헌 것도 잇어.
@1 삼춘네 집이 잇어난 거.
#1 우리는 네귀방장헌 거.
@1 네귀방장헌 거예. 그믄 그거에 이 적갈 몃 개나 올라갑니까?
#1 그거는 일단 하영 올라가.
@1 하영 올라가. 으.
#1 옛날은이 마루 상방이라고.
@1 예.
#1 마루에 그 불 때는 거 잇잖아?
@1 봉덕?
#1 으, 으. 이렇게.
@2 부섭.
@1 부섭.
#1 부섭이 잇는 거라, 부섭이.
@2 부섭이렌 헷구나예?
#1 불때곡 그믄 불때는 옛날은 그 부섭에다 숫불 살랑.
@2 적쒜에 헤근에.
#1 그거 굽잖아.
@2 아, 이 토산에도 마루에 부섭을 놧구나예?
#1 어, 부섭 놓앗지. 옛 토산이린 완전이 양반촌이어.
@2 양반예.
#1 양반촌이라.
@2 그리고 여긴 또 비도 하영 오고 허니까.
#1 양반촌이여. 이딘 시시헌 동네가 아니라고, 여기.
@1 (웃음)
@2 경허난 와수게. 양반촌인 거 아난에. (웃음) 그다음.
@1 아까 생선은. 오토미 헌덴 헤신디, 오토미는 저 상에 올릴 때 어떵 헹 올려마씨? 영 어펑 헙니까, 영 가르쌍 헙니까?
#1 거는이 가문마다 틀려.
@1 아, 삼춘네 집이는?
#1 이렇게 올리는 디도 잇고이. 이렇게 어펑 올리는 디도 잇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1 이렇게?
#1 가르쌍 놔.
@1 이렇게.
#1 배쓴 거 영 놔.

@1 배로 물고기가 이거민예? 배로 갈르는 거우꽈, 등으로 가르는 거우꽈?
#1 배로.
@1 배로 갈라?
#1 배로 갈르지, 배로.
@1 배로 갈랑 그다음에 영예?
#1 으, 으.
@1 저 속예, 속엣 게 보이게 위로예? 영 헹 상에 올리는구나예.
#1 등에 가르는 건이 요즘 큰 고기 허믄 등으로 가르는데.
@1 아.
#1 등으로 가르는 건 아니, 원래. 배로 갈라야 뒈.
@1 배로 가르는 거예?
@2 겅 배로 갈라도 이렇게 하늘 향허게.
#1 으.
@2 어펑 놓지 않고예?
#1 경 놓는 집안 잇곡 이렇게 어펑 놓는 집안도 잇고.
@2 우리집은 영 어펑 놉니다.
#1 어펑 놔? 그건 조금 잘못, 조금 안 뒌 집이어.
모두 (웃음)
@2 아이고 우리 집도 뼈대 잇는 집이우다. 경허지 맙서. (웃음) 가문가례.
#1 으, 맞아, 가문가례. 으, 너도 조금 알긴 아네. 가문가례 말도 알고.
@1 삼춘 게믄 밥허고 국은예? 삼춘 아까 저 두부처난 밥 두 개, 국 두 개 올리는 거우꽈? 삼춘네 집이서 멩질 헐 땐?
#1 으.
@1 밥은 뭐 쏠밥 헐 거고예?
#1 으.
@1 옛날엔 저 쌀 엇이난 산뒤로 헤근에.
#1 산디도 헷고. 뭐 산디쌀 엇이믄 보리밥도 헷고 그랫지.
@1 상에 올리는 것도?
#1 아 엇이믄 어떵 헐 거라.
@1 게믄 국은 무신 국 끌여근에?
#1 국? 국은 요즘은 생성국 끌려 놓곡 소고기국도 끌령 놓주만은이 옛날에는 메역국이지.
@1 아 멩질날, 정월 멩질 헴서예?
#1 으.
@1 정월 멩질날에 밥허고 국 올리는디, 엇이믄 미역국이라도예? 미역은 저 그냥.
@2 바당에 가믄 이시난.
#1 바당에 튀어나오잖아.

@1 (웃음) 예.
#1 미역은 *****.
@1 그믄 탕쉬는 미신거 헐 거?
#1 탕쉬는 뭐헤게, 고사리, 콩나물.
@1 으.
#1 그거지 뭐.
@1 두 개만?
#1 고사리허곡 이 콩나물허곡.
@1 으.
#1 으, 그거 또 묵허고.
@1 묵허고? 묵은 어떵 헤근에 허는 거꽈?
#1 묵은 준준허게 썰어가지고.
@1 썰엉 어떵 놔?
#1 종제기에 놔근에 묵, 묵 따로 고사리 따로 콩나물 따로, 세 개.
@1 아 탕쉬추룩 묵을 따로 놓는구나예?
#1 으, 세 가지, 세 개 따로따로 놔.
@2 아 하나에 세 가지를 올리는 게 아니고 삼춘네는 따로따로 접시를.
#1 따로따로 세 개.
@2 따로따로 세 개 헤근에 세 종을 허는 거구나.
#1 다른 디는 막 합쳐근에 ᄒᆞ나에 놓는 모냥이네.
@2 예.
@1 문전에, 문전에는 흠치 놓곡.
#1 아 문전에는 ᄀᆞ치 놔.
@1 본상에는 따로따로 놓고.
#1 따로따로 올려.
@1 으. 그믄 우에 콩나물 고사리 위에 그거 묵 영 썰엉 안 놉니까?
@2 거 따로 올리지.
@1 그니까 따로 올리니까 우에 올리진 아녑니까?
#1 우에 안 올려.
@1 우에 안 올려예? 따로 그냥예?
#1 으. 고사리.
@1 으, 콩나물.
#1 콩나물.
@2 묵적시.
#1 고사리, 묵, 콩나물.
@1 순서대로.
#1 이렇게 따로따로 놓곡.

@2 으.
#1 그 문전에는 거 고사리허곡 콩나물허곡.
@1 반씩.
#1 세 개 놩, 세 개 놔근에.
@1 묵까지 세 개 놔.
#1 ᄀᆞ치 놀 걸로 올리고.
@2 게믄.
#1 경헌단 말이여.
@2 삼춘 게믄 묵 구운 거 잇잖우꽈? 묵적 헌 거.
#1 으.
@2 거는 어떵 올려?
#1 어, 건 적.
@2 적에.
#1 적에 소고기, 뒈지고기.
@2 거믄 것도 다 따로따로?
#1 세 개, 으, 세 개.
@2 삼춘네는 다 따로따로 접시를 올렴구나예?
#1 으.
@2 어, 우린 합쳥 올리거든.
#1 합쳥 올려?
모두 (웃음)
@1 이제 떡.
#1 으?
@1 떡.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올립니까, 상에?
#1 거이 정월 멩질 ᄀᆞ트믄이 저 솔편, 저 은절미 뭐 다 세 가지 다 허지. 문친떡 치곡.
@1 문친떡 치고, 문친떡 치고, 솔변, 절변 허고.
#1 솔변, 절변, 인절미.
@1 인절미 허고.
#1 으, 우에 또 뭐 뚱그렁허게 놓는 거 잇잖아.
@1 그건 미신거우꽈?
#1 건 나 몰라.
@2 우지시.
#1 으?
@2 우지시, 우찍. 우지시.
#1 아 건 우지시냐? 건 나 몰라.
@1 뭐 기름떡이엔 헙니까?

@2 기름떡.
#1 으, 쪼그만허게.
@1 쪼그만허게?
#1 쪼그만허게 동그랑허게.
@2 작게.
@1 아.
@2 고장떡.
#1 떡 영영영 허민 떡 영 동그랑허게 영헹 다 올리민 그 연결 부위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또 놔.
@2 어, 여러 개예?
#1 으, 떡이 영허믄 동그랑허게 영 떡 두 개 영 ᄌᆞ끗디 놓아갈 거 아니라?
@2 예.
#1 게믄 요, 요 사이에 그걸 논다고.
@2 떡과 떡 사이에.
#1 사이에, 으.
@2 예, 예, 예. 겡 지금도 그추룩 헤마씨? 삼춘네?
#1 으.
@2 아 여자 삼춘 만나야크라.
@1 게난, 삼춘이 직접 만들 거 아니? 집이서예? 옛날에 직접 집이서 헤수게.
#1 으, 집이서.
@1 이젠 맞추와근에 헤도예? 옛날 만들어난 말 들어봐야뒈크라.
@2 여자 삼춘을 만나야쿠다.
@1 (웃음)
@2 삼춘네 집이 가야켜.
#1 아 겐디 그, 뭐, 뭐 나가 잘 아는데?
@2 아니 아까 떡 이름도 몰르멍.
모두 (웃음)
#1 떡, 인절미.
@2 게믄예 그 펜데에 헤갖고.
#1 으? 펜.
@2 펜데에 떡을 올려얄 거 아니우꽈?
#1 으.
@2 펜데 허면 맨 밑에는 무시거 올릴 거?
#1 문친떡.
@2 문친떡, 멧 빗?
#1 으?
@2 멧 빗 올립니까?

#1 두 빗.
@2 두 빗. 두 빗 우에 게믄 문친떡 올린 다음 그다음 무스거?
#1 그다음 올리면은?
@2 저거지, 은절미.
#1 동고레기.
@2 동고레기, 절벤.
#1 으, 아니, 저 네귀반득헌 거 잇잖아.
@1, 2 은절미.
#1 은절미.
@2 은절미 멧 개?
#1 은절미 멧 개? 멧 개 놓나, 떡이 길이에 맞게.
@2 길이에 맞게 은절미 놓곡.
#1 으.
@2 은절미 그 우에는?
#1 동그렝이.
@2 절벤.
#1 동그렝이, 동그렝이.
@2 여긴 동그렝이.
#1 으.
@2 절벤을 우리 삼춘은 동그렝이렌 골암구나게. 동그렝이.
#1 다음에는 이런, 솔벤, 이런 거, 솔벤.
@2 솔벤. 동그렝이 다음에 솔벤.
#1 으.
@2 것도 적당히 숫자 맞춰 허곡.
#1 으. 솔변 그 연결 부위에 아까 별떡을 놓는 거야.
@2 별떡 놓고.
#1 거뿐.
@1 으.
@2 이제 나왐신게 벨떡.
@1 이젠 벨떡, 으. (웃음) 문친떡은 풋 논 거꽈, 안 논 거꽈?
#1 풋 논 것이 많아.
@1 아 문친떡은 풋 논 거예?
#1 으.
@1 저 시루떡인데 풋 논 거예?
#1 으, 으.
@2 거난 문친떡 헐 때는 옛날 감저도 썰엉 놔수과? 그 안에.
#1 감저?

@2 으.
#1 감저는 안 놓고 호박.
@1, 2 호박으로 허고.
@1 호박 놔도 픗 논 거꽈, 아니면 픗 대신에 호박만 논 거꽈?
#1 호박은.
@2 속에 놓는 거고.
#1 호박은 거 떡 소곱에 놓는 거고, 우에 떡 문친떡 우에 거시기.
@2 쉬.
#1 쉬 잇잖어, 쉬.
@1 예.
#1 쉬 사이에 픗을 놓는 거지.
@1 아, 픗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우꽈?
#1 흔 불 깔아 놓곡. 으, 호박 논 그 문친떡을 흔 빗 놓아 놓곡. 그 우에 픗 놓고 흔 빗 놓고 흔 빗 놓민 경 시루떡을 치는 거 아녀.
@1, 2 예.
#1 으, 것도 열두 단이라야 뒈, 열두 단.
@1 열두 단?
#1 으, 시루떡.
@1 걸 열두 단을 한다고마씨?
#1 으.
@1 시루 하나에?
#1 으.
@1 어. 이게 열두 단이나 올라가는가.
#1 엄청 올라가.
@1 시리가 완전 큰 거다.
#1 으, 크지.
@2 흔 말치를 헴구나.
#1 큰 대장 집은 그렇게 헤.
@1 어.
#1 칭칭이, 거 ᄒᆞ나ᄒᆞ나.
@2 게난 완전 흔 말 큰 시린게예?
#1 그렇지 큰 거 허지. 종손이민이 자손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어나민 또 갈라서 보내주기도 허곡 허니까.
@2 맞아 두 시리 떡 허는 디도 잇고.
@1 삼춘네 집이 종손칩이꽈?
#1 아니야.
@1 종손칩은 아니? 으.

@2 이 토산이 종손칩은 누게네 집?
#1 으?
@2 종손은 누게네우꽈?
#1 우리? 우린 섯동네 잇어.
@2 이 알토산에?
@1 으. 그 멩질날은 무사 식겟 허는 그 조상들 상 밥을 다 올립니께?
#1 으.
@1 우리 집이 식게를 열 번 허민예? 그 메영 갱을 스무 개, 아니 열 개는 다 올려야 뒐 거 아니우꽈예?
#1 겐디 그게 엿날은 고조ᄁᆞ지 모셧거든, 고조ᄁᆞ지. 요즘은 고조 안 모시고.
@1 옛날에 고조ᄁᆞ지 몸실 때예?
#1 으.
@1 밥하고 국을 게믄 췌소한 여섯 개는 올려야 뒐 거 아니우꽈? 두부처씩 허민예?
#1 거기 경 여섯 개, 여섯 개.
@1 네 개, 여섯 개 정돈 헤얄 거 아니우꽈예?
#1 밥을?
@1 예.
#1 밥 ᄋᆞ슷 개만 놔? 밥 ᄒᆞᆫ 열 개, 열두 개도 뒈지, 뭐.
@1 밥 한.
#1 고조ᄁᆞ지 고조, 증조.
@2 그렇지 아버지, 부모, 할아버지.
#1 다 잇잖아.
@1 그니까.
#1 형제간 죽어 불믄.
@1 그믄 멩질 때 밥을 다 흠치 헹 올립니까?
#1 으.
@1 상에 다 ᄒᆞᆫ 사름씩 헹 올리지 안헹 다 겸헤근에 반찬이영 이런 거 적이영 그런 거 다 겸헹 올립니까? ᄒᆞᆫ 상씩 안 허고?
#1 아이 ᄒᆞᆫ 상, 부부는 ᄒᆞᆫ 상에 허곡.
@1 부부는 ᄒᆞᆫ 상 허고.
#1 뭐 ᄒᆞᆫ 사람만 허는 것도 잇겟지.
@1 으.
#1 ᄒᆞᆫ 사름 허는 거는. 거는게 상이 크면은.
@2 겸상헤서?
#1 상 이쪽 ᄒᆞᆫ 상 놓곡 요쪽에 또 둘리 놀 수도 잇지만은. 상이 보통 한 상이란 게 부부상이라, 부부.
@1 부부가 ᄒᆞᆫ 상예?

#1 으.
@1 할망 한 명 더 잇어도 세 명 헤도 흔 상. 족은 할망.
#1 흔 상에. 그런 건이 상이 크곡 족곡 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잇어야지.
@1 으.
#1 부부 허는 상이 잇어야 뒈고, 삼부처 허는 상이 잇어야 뒈고.
@1 그믄 큰 상에 허는 게 아니라 상 족은 거를 여러 개 놉니까?
#1 아이 세부처면은 큰상 ᄒᆞ나에 세 개.
@1 아니 나 말은 고조 하르방도 식게도, 아니 고조 하르방도 헤야 뒈고, 증조 하르방도 헤야 뒈민 이거를 상 ᄒᆞ나에 놩 ᄀᆞ치 출립니까 아니민 다 따로따로 출립니까?
#1 따로 헤야지.
@1 상은 ᄒᆞ난디, 반찬이 ᄯᅳ로ᄯᅳ로? 적이영 탕쉬.
#1 다 따로따로.
@2 거난 상도 따로따로 헌 거지예?
#1 흔 부부, 두부처는 딱딱딱 ᄯᅳ로 헤, 세부처민 세부처 따로따로 허고. 전부 따로 헤. 흔 사람 이시믄 흔 사름 따로 헤야 뒈는 거여.
@2 삼춘 세부처면 상을 세 개 펴야겠네?
#1 아이 그니까 상이 큰 거 헤가지고.
@2 아 큰 걸 헤갖고 두부처 모실 수 잇고예?
#1 셋을 논다고, 흔 상에.
@2 큰상에서 세부처 걸 놓는 거예? 알아수다.
#1 세 사름.
@1 예, 예, 근데 더 많으면예? 제사를 열 번 허면 이게 한 네부처나 다섯부처 거를 헤야 한다. 그러면 상을 흔번에?
#1 제서는 흔 분, 흔 분 것벳기 없잖아게.
@1 아니 멩질 때, 멩질.
#1 멩질.
@1 멩질 헐 때 상을 출리젠 허민. 하나에 다 출립니까, 아니면 치와둰 흔번 더 출립니까?
#1 전부 쫙 출려 놓지.
@1 아 쫙 출려놔.
@2 이 집에는 두 번 출리는 모냥이여.
@1 예, 두 번 하는 집도 잇어요.
@2 어.
@1 이거 치워두고 다시 또 상차려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할망 하르방이 너미 하.
#1 경허난 그건이 그, 그 자손이 집 짓은 때 잘못 짓엇어.
@1 아니 종가칩 같은 데예?

#1 종가칩 원래 그렇게 사름 많은 디는 집이 제삿방을 막 이렇게 길게 지어 논다고.
@1 크게, 으.
@2 집을 잘못 짓엇네예.
#1 으, 집을 잘못.
@1 집을 잘못 짓언.
#1 절로 이디꺼지 헤야지.
@2 제삿방을 따로 헤갖고.
#1 딱 만들어 놔.
@1 아, 예. 알아수다, 알아수다.
#1 그렇게, 뭐 종가집이 그 계획적으로 안 허민 뒈겟나?
@1 혹시 삼춘네 국멩질도 헤나수과?
#1 으?
@1 떡국멩질 이런 것도 헤나수과?
#1 떡국멩질?
@1 으.
#1 우리는 떡국멩질 허는 디가 잇어. 그 우린 떡국멩질 안 헤.
@2 그 떡국멩질은 언제 허는 거?
#1 으?
@2 떡국멩질은 언제 허는 거우꽈?
#1 우린 떡국멩질 안 헤.
@2 안 허여.
#1 떡국멩질은 안 헤.
@2 이 동네 허는 사람 잇덴 허멍.
#1 아, 잇어. 잇어.
@1 멧 시쯤에?
#1 멩질 떡국, 떡국 먹어근에 제사만 지내고 떡국 먹고 끗내는 디가 잇어.
@2 아 떡국만 먹엉?
#1 우리는 떡국은 안 먹어봔.
@2 옛날식으로 밥으로예?
#1 밥으로 전부 그 멩질 밥 다 헷지.
@2 맞수다, 맞수다.

과세

@1 그믄 세배 드리렌은 옛날에 많이 다녀수과?
#1 으, 다녓지.
@1 으.
#1 작년, 혼 이년 전까진 다녓어.

@1 으.
#1 건디 요즘은 안 다녀.
@1 코로나.
#1 코로나 따문에 그렇고 코로나 따문에 전부 축소뒛어.
@2 모든 게예.
#1 제서 지내는 것도 일가가 다 잘헷는데, 일 다 각자, 각자.
@2 삼춘네도 경 헴구나예?
#1 각자.
@1 으, 게난 삼춘넨 멩질 멧 밧디나 먹어나수과? 옛날에는.
#1 엿날은 우리 열 밧디.
@1 게믄 저녁 어두워 부쿠다예?.
#1 지금은, 아 어둑지, 어두워, 어두워. 겡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허잖아. 코로나 따문에. 우린 안 먹어.
@1 세배 드리레 가민 세뱃돈도 주곡 헙니까?
#1 세뱃돈은이 세배 드리레 돈 주는 사람은 엇고.
@1 으.
#1 가족끼리 세배, 형제 간끼리 조카들 오믄 세뱃돈 주지, 세배 허레 가믄 세뱃돈 주는 게 없어.
@1 옛날에 삼춘네 어렷을 때 세배 드리러 가면 뭐 먹을거라도 줘나수과?
@2 과세 뎅길 때.
#1 그런 거 엇어.
@1 그런 거 없어? 뭐 감주라도, 떡이라도.
#1 어린아이들은 세배 드리러 안 다녀.
@1 아.
#1 으, 집안 멩질 헐 때 다 모이니까 거기서 세배 드려 불믄, 거기서 세배 줄 사름 다 줘불면. 그 어디 아이덜토 어디 나가지 않고.
@1 아.
#1 어룬 어디 모임 세배 드리러 가도 그런 거 엇고.
@1 으.
#1 거 없어.
@2 예.
#1 다 그, 술이나 으, 흔 잔 먹고 싶은 사람 먹는 거고. 실픈 사람 안 먹지.
@2 대접헤도 거의 남자 어른덜이 뎅기는 거잖아예?
#1 요즘은 세배 말고 장난 데.
@1, 2 예.
#1 장난 데 그, 저 가잖아, 인사드리러.
@2 으.

#1 멩질 때.
@1 예.
#1 그런 디 가면은 이제 그런 집은이 그 소님들 대접허면서 따로, 음식을 따로 멩질 지낸 다음에 나둬.
@2 예, 예.
#1 그래서 그런 걸로 대접허지, 다른 건 없어.
@2 꼭 상 집에 놓면은 멩질 때 세배 뎅겻어예?
#1 으.
@2 예.
@1 멩질은 안 출리고 과세만 가민 뒙니까? 상칩이는? 상 출린 집인?
#1 상 잇는 집인?
@1 으.
#1 상 잇는 집은 배만 허면 뒈지.
@1 어, 명절 헤서 같이 차리진 않고?
#1 아 그 사람들이야 상 차령 허겟지.
@1 으, 멩질 먹으레 열 밧디 뎅기민 상 논 집이 친척 집 하나 잇다, 열 집 말고. 또한 집에 가면 그 집이 먼저 가근에 절헤둬 멩질을 먹읍니까? 아니민 이 상칩은.
#1 상은 제일 나중에, 멩질 다 끗난 다음에.
@1 아. 맨마지막에.
#1 거의 밤중에, 밤이라.
@1 으.
#1 밤에. 밤에 드리니까 ᄀᆞ치 멩질 먹으러 뎅기는 사름 ᄀᆞ치 상 잇는 집으로 가거든.
@1 으.
#1 경허믄 그 상 메는 집은 옛날은 감주라고.
@2 으.
#1 으, 골 헤가지고 끌인 감주 잇잖아. 그런 거 딱 만들엇다가 술 허곡 만들엇다가 감 먹을 사람만 대접허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그래.
@2 으, 맞수다, 맞수다.

정월 대보름

@1 이디 토산은 정월 대보름에 뭐 허는 거 잇어난 거 이신가마씨? 엇어마씨? 대보름에 허는 거 엇어?
#1 대보름 엇어.
@2 옛날에 여자들 보면은 쏠 모앙은에 떡, 보름떡들 치지 아녑니까? 떡 잘 익엇저, 설엇저 헤갖고 점치는 거.
#1 보름에?
@2 예. 여자 삼춘 헌 거 안 봣구나.

#1 그런 거 없어.
@2 없어예? 액막이들은 허지 안헤수과? 액막이.
#1 액막이는 거, 거, 액막이엔 헌 건 요새 심방네 헐 때 그때 ᄀᆞ치 허지.
@2 그니깐 ᄀᆞ치 헐 때도.
#1 ᄀᆞ치 헤근에 바다에 떡 헹 가근에 막 이, 종이 ᄆᆞᆫ 바당에 드리치고 그렇지.
@1 으.
#1 그게 액막이지.
@2 그게 액막이예.
#1 심방 헹 심방 빌엉 헐 때.
@2 으.

연날리기

@1 연날리기 이런 건 안 헨마씨?
#1 으?
@1 연, 연 띄우는 거.
#1 아 연날리기 헷지. 연싸움도 허고.
@1 건 언제쯤에 허는 거우꽈?
#1 건, 건 정월, 정월 멩질 끗나민.
@1 멩질 끗나민.
#1 으.
@1 삼춘 연사움도 잘헤나수과?
#1 으 잘헤낫지.
@1 거 어떵 허민 이기는 거우꽈? 연싸움은.
#1 아 연줄 헤당 이걸 끊엉 이렇게 흔들민 연줄이 끊어졍 나가는 거지.
@1 그 잘 끊어지젠 허믄 연줄에 뭐 멕여야 뒌덴 허멍마씨.
#1 거, 거세기. 뭐, 저 곱이란 거 잇저, 곱.
@1 곱?
#1 으, 곱이. 곱이렌 헌 거 잇어, 영영 헌 거.
@1 기름?
#1 그거 이름 몰라.
@1 아니, 기름이냐고 곱이?
#1 아, 기름진 거. 그, 저 벌, 벌 뭐 주셍이 잇잖아, 밑이.
@1 아 밀랍.
#1 밀랍, 밀랍. 그거, 그거.
@1 아 그걸로 헙니까?
#1 으, 그걸로 헹 들여.
@1 그걸 곱이엔 굴읍니까?

#1 으. 그, 밀랍, 밀랍이 뭐냐, 밀랍.
@1 거 표준어론 밀랍이고. 이디 토산잇 말? 밀랍이 맞아? 뭐 무신 저 사기 깨근에 뭐 유리 같은 것도 멕인덴 헨게만은. 그건 안 헤봅디가?
#1 그것도, 그것에 미쳥 허는 거여.
@1 아 그것에 미쳥 허는 거?
#1 으, 으.
@1 더 잘 부뜨렌?
#1 으. 그것에 미쳐서 그거 영 손에 영 놓곡 그 밀랍허고 영영영 헤가믄 그거 ᄀᆞ치 부떵, 부뜨는 거지.
@1 아. 그 밥풀로 헹은에 하는 거 아니고?
#1 거 밀랍이영 ᄀᆞ치 부뜨민 다 부떵 들어가.
@1 으.
#1 그, 저 접시 깬.
@1 접시 깨근에.
#1 접시 깨근에 허든가. 것도 손도 위험헤.
@1 게난 어떵 헹 뭐 싸근에 헤야 뒈큰게마씨예?
#1 그렇지.
@1 겡 그거 잘 사기, 아까 접시 깨근에.
#1 그러믄이 밀랍허고.
@1 으.
#1 그, 그.
@1 사기그릇 깬 거.
#1 이렇게 이 종이.
@1 험벅?
#1 험벅에 이렇게 가서 연줄을, 연줄을 일로 이렇게 나가게 허는 거라.
@2 예. 험벅에 거 놔근에 영영 연줄 줍아뎅기멍 허는 거 아니라예?
#1 으, 이렇게 뎅기믄 다 연줄이 나간단 말이여.
@1 아, 게믄 삼춘이영 ᄯᅮ난 아이 둘리만 허는 거꽈, 아니믄 마을 대 마을로 싸움으로?
#1 건 모이민 사름 법, 시절에 따라. 혼자만은 허는 건 별로 엇고. 여라이 나가지.
@1 으.
#1 가족도게 아이덜 아가고, 으, 으, 아방도 나가고. 경헤가믄 동네 사름 나오고 그러는 거지.
@1 으.
#1 뭐가 모이렌 헹 모이는 거 아니잖아. 날려가민 거 보면서 나가는 거지.
@1 으, 어디서 날려수과? 이딘.
#1 여기는이 옛날 집이서 보면 동산이 많아.

@1 어.
#1 옛날 동산 많아.
@2 동산에 올랑.
@1 음. 오름은 ᄒᆞ나벳기 엇덴 헤신디 동산은 많이 이수과?
#1 아, 도로가 이거 지금 펜펜헤근에 다 까까서 허니까 그렇지. 전부 동산이랏어.
@1 아.
#1 옛날 마차 허믄이 마차 짐 실렁 올라가지 못허는 동산 천지랏어.
@1 으.
@2 이 동산 일름은 뭐우꽈? 이, 이 동산, 집 짓은디 동산.
#1 당동산.
@1 당동산.
@2 당동산 여기?
#1 으.
@2 여기 어디 게믄 당 잇어낫구나.
#1 당동산이란 얘기는 웨 얘기허면.
@1 으.
#1 나 유래를 얘기허믄 옛날 어룬안테 들엇는데. 요 사무소 바로 요쪽에. 조금 노픈데 잇어. 거기에 이, 저 이렇게 돌 이렇게, 돌 ᄒᆞ나가 뭉쳐 잇엇어.
@1 아.
#1 그게 뭐냐면 그 사름덜이 위허는데 그,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임진웨란 때에 일본 놈덜 말이여.
@1 으.
#1 그 일본 놈들이, 이, 이 제주도에 침입헌 거라. 건디 토산 여자가 그 산여리통이라는 데 그디 가서 빨래를 허고 잇엇던 거라.
@1 예.
#1 빨래허고 잇엇는데 일로 헹 들어오잖아. 일로 와서 잡을라고 막 도망나온 거라.
@1 으.
#1 도망가난 막 그 놈이 쫓아온 거라. 당동산 올라가지고 자결헹 죽여 불엇어.
@1 아이고.
#1 그 일본 놈이.
@1 으.
@2 그 영혼을 저기 헌 거구나게, 예?
#1 그, 그.
@2 여자가.
#1 여자가 죽엇는데. 거기에 뭐냐면은 뭐 이만헌 뱀 새끼가 나타낫어.
@2 으, 으.
@1 뱀?

#1 으. 게서 그거를 그.
@2 모신 거지.
#1 뭐 헤난 모냥이라. 겡 당동산이라고 헤.
@2 거난 여기에서 그 유래뒈나 보다예? 이 토산에.
#1 당 이런 거? 아니, 아니.
@2 그건 아니고?
#1 그건 옛날부떠, 저 웃토산.
@2 웃토산이고.
#1 이거는 이 동네서만 헷던 거.
@2 이 동네서.
#1 그 죽은 사람 가족들이 이렇게 헤난 모냥이라.
@2 거난 돌아가셧는데 거기에서 이제 뱀이 나타나니까 영혼으로 헤근에 이렇게 위로헌 거구나게.
#1 으, 그런 거 같애. 그런 말이 잇어. 게난 그게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래.
@2 거난 이 동네도 이런 말들을 전헌 거구나예? 전설처럼.
#1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잡을려고 도망허다가 잡혀서 죽엇더라고 헌 말 잇어.
@2 으, 여기를 이 동네서는 당동산.
#1 으.
@2 게난 이런 동산이 한 거 아니라예?
#1 저기 저쪽, 일주도로 저기 저쪽 가면 막 이렇게 노픈 동산이라.
@2 여기도 완전 높읍디다? 이렇게 여기도 높으잖아. 여기 까까도.
#1 이디 조금 노프지만은 이런 거 별로. 막 노픈 동산 막 까까서, 이 펜펜헌 거.
@2 예, 예.
@1 겡 연은 미신 연 어떤 거, 어떤 거 멘들아근에?
#1 가오리연이.
@1 가오리연. 그다음?
#1 또 네모난 거 잇잖아.
@1 거 미신 연이엔 골읍니까?
#1 난 몰라.
@2 쟁연?
#1 또 아 그거 두 개.
@1 두 개.
#1 거의 두 개라.
@2 예 우리 표준어 하면 방패연예?
#1 으, 잘 아네, 방패연 맞아.
@1 이디서 골아난 말?

#1 돌아다니멍 들어서 아는 모냥이라.
모두 (웃음)
#1 방패연 맞아. 나 지금 머리가 컴퓨터가 다 차불어가지고 들어갈 디가 엇는 거라.
@2 게난 난 젊으난 ᄒᆞ꼼 남안.
모두 (웃음)
@1 경허고 이때 혹시 뭐 보리 같은 거, 보리점 헤근에 보리 뽑아가지고 보리 뿌리가 몃 개민 뭐 올해 어떵 허켜 영, 이런 식으로 점치고 허는 거 잇어나수과?
#1 엇어.
@1 엇어. 으, 혹시 이 동네 방사탑이나 거욱대 막 이런 것도 이수과? 방사탑.
#1 방사탑? 그거는 뭐야?
@2 거욱대, 거욱대.
@1 탑, 저기 돌로 막 영 쌓아근에 탑추룩 쌓아근에 허는 거.
#1 그런 거 없어.
@1 그런 거 엇수과? 음.

포제

@2 포제 헤근에 제관도 헤수과? 삼춘.
#1 으?
@2 포제.
#1 으, 제관 헷지.
@2 제관 헷지예? 포제 대헤근에 잘 곧아줍서.
@1 낼 모리 포제여 허민. 이제 뭐부떠 준비헤야 뒙니까? 낼모리가 아니구나 정월에 딱 날부떠 잡아야 뒐 거난예? 어떵 헹 날 잡읍니까?
#1 총훼서. 총훼서 날 잡고, 제관 선정허고.
@1 으.
#1 으, 게서 그런 삼흘 전에 천 메곡 다 헤근에 사람 ** 못 허게 허고 제물이영 허는 거지 뭐.
@1 여기, 여기서 헤수과? 제청은 이디꽈?
#1 으?
@1 이디서 사름덜 자? 제관덜?
#1 옛날은 그 초헌 집이서.
@1 초헌 집이서.
#1 으.
@1 초헌은 어떵 헹 정허는 거라?
#1 초헌은 아, 거 보라게, 저, 육십 세 이상 뒌 노인 점잖은 분이 허는 거지.
@1 맨날 똑ᄀᆞ튼 사람 허는 게 아니라 바꾸멍 헙니까?
#1 아이, 한번 허민 끗.

@1 한번 허믄 끗?
#1 으, 짝짝 내려오면서 헤.
@1 그믄 밥 멕이곡 허는 거 초헌 집이서 다 헹 멕여야 뒈? 삼 일 동안?
#1 으.
@1 그믄 저 여자 삼춘이 죽어지켜예?
#1 초헌 집이서 멕이는 게 아니라 제관이 다 헤서 멕여.
@2 여자들이 뎅기지 안허니까.
#1 으, 제관이 다 헤서 허여. 겡 거기 경쟁이 부뜬 다고이. 제관 허젠 허믄 그 마누라가 그 반찬이영이 막 잘 출려야 뒈. 막 경쟁적으로 반찬헹 간다고.
@1 어.
#1 거 잘못 ᄎᆞ리민 안 뒈.
@1 그믄 제관이 몃 명이나 뒈니까?
#1 제관? 아이 거 제관이.
@1 표제 허젠 허믄 몃 명이 잇어야 뒈니까?
#1 훈 십이 명.
@1 십이 명.
#1 십이 명. 초헌, 아헌, 종헌이. 동서창, 대축 또 집사, 또 뭐야 알자 뭐 다. 훈 열두 사람 뒈.
@1 으, 그믄 열두 사람 밥 먹는 거는 어떵 헤근에 순서대로 출려가는 거라?
#1 건 제관 마누라가 남편들 출려 가야 뒌다니까 저 제관 집에.
@1 거난 훈 사람 것만 출려갑니까? 열두 사람 다?
#1 자깃 거.
@1 아 자깃 것만씩.
#1 자기 남편 거, 자기 남편 것만 차려가지, 자기 남편, 자기 가족 거.
@1 으, 게믄 그거 여자가 그디 들어가믄 안 뒌덴 허멍마씨.
#1 아니, 그 들어가는 건 무리 아니라.
@1 밥 먹는 거, 밥 갖다주는 건 어떵 안 헤?
#1 아멩 안 헤. 경 깨끗헌 사름이 가지, 경 부정헌 사름 감서?
@1 (웃음)
#1 경헹 그디 가면은 그러니까 전부 딱 같이 먹는데 반찬 누가 많으냐 이거, 이거 경쟁허는 거라.
@1 누게네 집인 잘 출려왓저 경 헤?
#1 으, 게민 보통 열두 가지, 열다섯 찰령 오는 사람 잇어.
@2 삼춘은 뭐 헤봅디가? 초헌 헨?
#1 아 난이 초헌도 헤보고 집례도 헤보고 다 헤봣지.
@2 다 헤봣지양? 삼춘 초헌 헐 때도 밥 출령 간? 우리 여자 삼춘이?
#1 어, 그렇지.

@2 뭐 출령 와십디가?
#1 우린 열세 가지 헹 갓어.
@1 와.
@2 아깐 열두 가진디, 삼춘은 열세 가지.
#1 아, 난 집롄디 열세 가지 헹 가야지.
@2 초헌보다 더?
#1 초헌, 아헌, 종헌 그다음 집례 아녀.
@2 예.
#1 나는이 막, 막 어린 때 ᄒᆞ썰 ᄋᆞ망질 때 집례 시켯단 말이여. 나 막 ᄋᆞ망져낫어.
@1 (웃음)
@2 지금도 ᄋᆞ망진디? 겡 열세 가지 출령 가불언?
#1 경쟁헤, 경쟁. 막 헤간단 말이야. 뭐 바당에 전복이니 해삼이니 뭐, 이거 여러 가지 막 반찬 다 강 봉가와.
@2 게난 주로 바당.
#1 그렇게 헤야 그 제관 마누라가 뒈는 거여. 경 아무나 제관 마누라 뒈는 중 아나?
@1 (웃음)
@2 거난.
@1 제관 마누라 허민 좋은 게 뭐꽈?
#1 으?
@1 제관 마누라가 좋은 게 뭐꽈?
#1 아이, 제관 마누라 거 제관 아무나 차리는 중 아나.

포제 제물

@1 (웃음) 그믄 포제 제물은 무신거, 무신거 헙니까?
#1 제물?
@1 으.
#1 제물 뭐, 거 다 알지, 그냥.
@1 제일 대표적으로 큰 거 무신거우꽈?
#1 밥이 쌀밥, 조팝, 피밥. 피이. 피 알지?
@1 세 개.
#1 밥 거.
@1 하나 더?
#1 세 개.
@1 세 개민 뒈?
#1 세 개벳기 없어. 나 원 세 개 이상 알지 못허켜.
@1 밥은 이거 허고. 그다음?
#1 그다음 뭐?

@1 밥으로 헙니까, 쌀로 헙니까?
#1 쌀로, 쌀로.
@1 쌀로예? 으. 그다음?
#1 그다음 뭐, 뭐 반찬, 뭐, 뭐.
@1 미신 반찬으로 헙니까? 채소는.
#1 저기 제지내는 딘 그런 건 없어.
@1 없어?
#1 뒈지, 뒈지 흔 마리 잡곡.
@1 뒈지 흔 마리 안 짤른 거 그냥 통으로?
#1 거 통으로 올리지 어떵 헹?
@1 내장만 빼근에? 으.
#1 으.
@1 요즘엔 뒈지 머리만 올립디다.
#1 그거는 가짜고.
@1 가짜고.
#1 진짜는 다 통차 올려야 뒈.
@1 뒈지 통차 올리고예? 그다음 또?
#1 뭐 올릴 거야, 그다음 저 메허고 저, 저 탕쉬허곡.
@1 거난 탕쉰 무신 탕쉬 헐 거우꽈?
#1 탕쉰 제삿상 똑ᄀᆞ타.
@1 아 똑같애? 다 삶아근에 무친 거마씨? 생거 안 하고?
#1 으?
@1 건 생거 안 하고 다 삶아?
#1 건, 건 생거 안 헤. 건 아니.
@1 건 그냥 쌂아근에 무쳐마씨? 제사 때영 똑ᄀᆞ치?
#1 겡 뒈지 내장도 다 가져가.
@1 으, 어디 가져가? 재단에?
#1 아 나중에 다 올려. **ᄁᆞ지 문딱 가져와.
@2 다 따로따로 헤.
@1 아.
@2 피도 이렇게 올리고.
@1 으.
#1 피도 올리고 다 헤.
@1 으, 게믄 아까 이거 쌀, 쌀하고 뒈지하고 탕쉬허고 요것만 헙니까?
#1 것벳기 헌 게 잇나?
@1 으, 술은?
#1 아 술도 잇지, 술은.

@1 으.
#1 술 감주 잇고.
@1 술도 잇고 감주도 잇고 두 개 다 헙니까?
#1 으?
@1 술도 하고 감주도 헤?
#1 으.
@1 음. 술은 소주로 허고?
#1 으.
@1 감주는? 요즘 감주 안 나오난 미신거 헴수과?
#1 겡 제사 지내젠 저 술허고 감주는 다 허는 거 아니야.
@1 아 두 개 다 허는 거.
#1 감주 문저 허곡 술은 허곡 허는 거 아냐.
@1 아.
#1 술 문여 허는 디가 없어. 감주 먼저 헤야주.
@1 먼저 감주 허고.
#1 나중에 술 허는 거지.
@1 음. 거난 이젠 감주 집이서 안 허난 감주 대신에 미신걸로 헙니까?
#1 감줄 웨 집이서 무사 안 헤?
@1 만듭니까?
#1 만들지.
@1 여자 삼춘이 이제도 만듭니까?
#1 그렇지.
@1 아이고.
#1 거 만들어야지, 게믄.
@1 이제 여든이 넘어신디.
#1 겡, 저, 저, 저디 음료수 상 허라고?
@1 요즘 경 헙디다?
#1 건, 그건 불합격이야.
@2 불합격.
@1 (웃음)
#1 으.
@2 골감주 헤근에.
#1 불합격이지.
@2 골감쥐 헹양?
#1 으, 그렇지 그렇게 헤야지. 그것도 멩질이라고 지내나?
@2 예, 잘헴수다.

포제 금기

@1 포제헐 때 금줄은 메칠 동안 메는 거마씨?
#1 으?
@1 손 메는 거.
@1 손 메는 건 언제부터?
#1 삼일.
@1 삼일? 삼일 전에?
#1 으, 그 전엔 경 헤낫는데. 이제는이 그거 ᄒᆞ루 전이 헤근에 그날 밤이 헹 끗나.
@1 으. 그 저기 초헌 집에만 멥니까? 마을에도 막 메고 영 안 하고?
#1 요즘은 초헌 집이서 안 허고 훼관에서 허잖아.
@1 예, 거믄 훼관에만 메?
#1 훼관이만.
@1 옛날에는?
#1 옛날에는 그 초헌 집이만 메지.
@1 초헌 집이만. 마을 들어오는 입구에도 메고 막 경 헤낫덴 헙디다?
#1 에에.
@1 경은 안 허고.
#1 경은 안 헤.
@2 이 동네는 포젯단이 엇구나예?
@1 아까 잇덴 헤신디.
#1 포젯단 잇지.
@2 건데? 아 포젯단 강 제사 허는데, 준비는 마을 훼관에서 헴구나?
#1 으.
@1, 2 으.
#1 ᄆᆞ을훼관.
@1 미신 붉은 흑 뿌리고 영도 헤나수과? 그런 것도 안 헤.
#1 으.

당제

@1 으. 그 정월에 심방 빌엉 허는 당제 같은 심방 이신 디 강 허는 당제나, 본향제 이런 것도 헤나수과? 옛날엔.
@2 본향굿.
#1 본향제.
@1 본향굿.
#1 아니 나 어린, 우리 헐 때는이.
@1 으.
#1 본향제일 그건 모르겟는데. 저 밑에 강 헌다게, 밑에 강.

@2 바당 쪽에?
#1 으. 그 바당가에 가서 그디 뭐 자식에 대한 뭐, 뭐 빌곡. 그 뭐 헹 강은에 바당에 강.
@2 지 들이치고.
@1 여자 삼춘은 그거 허는 데 가낫지예?
#1 어, 지금도 가.
@2 으.
@1 여자 삼춘 만나야뒈크라, 아멩헤도. (웃음) (잡담)

올레코시

@1 그 옛날에 요즘은 안 헤도 옛날에 정월에 집에서 막 문전코시여 뭐허는 것도 헤나수과?
@2 올레코시.
#1 올레코시 헷지.
@1 옛날에예?
#1 으.
@1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올레코시, 올레코시 날짜 심방 정헤근에 장둑 사다근에 허는 들이멍 허는 거 아냐, 올레코시.
@1 어. 삼춘네 집이도 헤낫구나예?
#1 어, 헤낫어, 옛날에.
@2 올레코시는 언제 헙니까? 보통.
#1 보통 정월 보름 새에 헤여.
@2 정월 보름 새에. 겡 올레코시 헤난 다음엔 저 방쉬 헙니까? 그거 헤난 거 헹 삼거리 강 영 놓곡 헹.
#1 아니.
@2 액멕이 안 헤? 그때.
#1 그때 안 헤.
@2 그 올레코시가 문전제이우꽈? 문전코시 허는 거.
#1 건 느네 동네서나 허는 말이고 우린 그런 거 안 헤.
@2 삼춘넨 올레코시.
@1 이 동네선 올레코시옌 헷구나예? 으.
@2 집안 잘헤주게 헙서 허는 거예?
#1 올레코시 허는 거.
@2 일 년에 흔번?
#1 으. 정월달에.
@1, 2 정월달에.

도체비귀신

@1 혹시 뒤 뭐, 뭐지? 뒷할망 뭐 이런 거.
#1 으?
@1 칠성 모시는 거예.
@2 밧칠성.
#1 칠성?
@1 그런 것도 헤나수과?
#1 그런 거 허는 사름도 잇어.
@1 어.
#1 도체비구신 헌 거 잇잖아.
@2 예.
#1 도체비구신도 잇어.
@1 건 어떤 거꽈?
#1 도세기구신도 거, 거 우리는 모르는데 그거 믿는 사름 잇어.
@1 어.
@2 이 동네도?
#1 이 동네도 믿어난 집이 잇어. 요 터가 잇어, 요디.
@2 어, 터가 잇어예?
@1 그건 어떵 헤근에 아까 그믄 그 밧칠성이영 다른 거꽈? 도체비귀신은?
#1 도체비귀신은 틀린 거.
@1 어떵.
#1 그거는이 잘 모시믄 아주 막 잘뒈고이. 잘못 모시믄 금방 망허곡 허는 귀신이라.
@1 아 그것도 무신 영 어디 모시는 디 이수과?
#1 거, 그 집안 뒤에 이렇게 뭐 놓아근에.
@2 주젱이.
#1 주젱이. 주젱이 딱 세와근에 그 모시는 집안이 잇어.
@1 아.
#1 요디 몃 군데 잇어낫어.
@1 음.
#1 지금도 허엿주만은.
@1 으.
#1 도체비귀신 잇어.
@1 도체비귀신 모시는 디도 잇고. 그다음 아까 밧칠성 모시는 디도 잇고? 똑ᄀᆞ튼 건가?
#1 칠성?
@1 으.
#1 칠성 허는 사람도 잇지.

@1 칠성 말고 뒷할망. 똑같은 거 닮다예? 도체비구신이영예. 뒤에, 뒤에 헤근에 주젱이 헤근에 허는 거예?
#1 으, 거 뒷집할머니 허는 데 이시냐?
@1 뒷할망.
#1 뒷할망, 으.
@1 똑ᄀᆞ튼 거 닮다.
#1 으, ᄀᆞ튼 거 닮아.
@1 으.
#1 여긴 도체비구신.
@1 도체비구신.
@2 게믄 그 도체비구신이엔 허잖아예?
#1 으.
@2 그다음에 그 고팡에, 그 궤팡에.
#1 고팡에?
@2 예, 거기에도 뭐 허지 아녑니까? 식게 허거나 헐 때.
#1 그런 집안 잇어.
@2 아 삼춘넨 안 헤?
#1 불싸는 거.
@2 불싸는 거.
#1 으, 불싸는 거 허는 집안 잇다고.
@2 삼춘넨 안 헤.
#1 우리, 우린 집안은 안 헷는데 그런 거 허는 집안이 잇다 그래.
@2 게믄 삼춘네는 식게 허젠 허면 상을 몃 개 싱급니까? 조상 거 하고 식게헐 때.
#1 조상 거.
@2 조상허고, 문전제도 허잖아예?
#1 문전제 허주, 문전제.
@2 문전제 히고.
#1 문전제는 그, 저, 조상 모시고 허는 그 심부름꾼 대접허는 거란 말이여.
@2 예 문전에서 허는 거고. 군줄들.
#1 으?
@2 군줄 나시.
#1 군줄, 으, 모시고 온 사름 나시허는 거.
@2 그렇게 허는 거. 그거 두 개만 헨 삼춘네는?
#1 으.
@2 아니면은 저기 조왕에 헐 거라도 따로 이렇게 출리지 아녑니까?
#1 어, 부억에 허는 거, 부억에 허는 거 잇어.
@2 부억에 허는 거. 부억에 허는 거는 누게가 출려 그거는?

#1 것도 마찬가지.
@2 하나 더 출려?
#1 ᄒᆞ나 더 출령.
@2 으. 상을 따로 출리는 거라예? 부억에 하는 것도예?
#1 부억에 놓는 거는이, 보통이.
@2 으.
#1 이런 소코리.
@2 예.
#1 소코리에 딱 하나 사다근에이. 밥허곡 메허고 사과, 배허곡 적허곡 뭐 떡 뭐 고기 딱 하나에 헤영.
@2 으.
#1 하나에 헤영 놔.
@2 그건 어디에 놔? 부억 어디에?
#1 부억에.
@2 그냥 부억에 놉니까? 조왕할망 나시? 으. 겡 그거는 부억에 그냥 출령 놔두는 거라예? 그 제삿방에 출리는 게 아니고.
#1 으. 제사방에 출려근에 부억에 갖다 놓는[노는] 거지.
@2 아 출리기는 제삿방에서 출리고.
#1 으.
@2 겅 놔뒀당 저 부억드레 조왕에 가져가는 거구나?
#1 으, 다 상 싱근 다음에 그거는 부억에 상은 저 그 제삿방에서 다 출리잖아.
@2 예.
#1 문제영 다른 거. 게민 다 끗낭 그때엔 그거 저 부억에 가져다 놓지.
@2 으.
#1 부억에 가져다 놓믄 그거 누게 제관들이 간섭 안 헤. 여자들이 그거 자기 다 알앙 다 허고 끗내 버리지.
@2 으.
@1 상에 놩 절허고 영은 ᄀᆞ치 절허고는 안 헴구나예? 그 젯상에 계속 놔두지 아녀는 거라예?
#1 안 놔둬. 거긴 절허는 법도 엇고 코시만 허는 거라.
@2 코시만예.
#1 으, 코시만 허는 거.
@1 으. 그건 무신거옌 무신 상이엔 무신거옌 안 굴읍니까? 우린 안네여, 안네상이여 영 허는디.
#1 안네상이 맞아.
@1 이디도 똑ᄀᆞ틉니까?
#1 으.

@2 근데 삼춘네는 이제 안네상을 고팡에 안 넣고 부억에 조왕.
#1 으, 부억에 놔, 부억에.
@2 음. 요즘 고팡들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1 으, 으.
#1 옛날에는이 부억이 그 솟 헤가지고 이 막 검둥이, 연기 나오잖아 그때 고팡에 논 거야.
@2 예.
#1 놀 데 엇으니까.
@2 놀 데가 엇으난예?
#1 원래는 부억엣 건데.
@2 예.
#1 거기 그 막 문지 나곡 닥, 닥도 부억에다가 이런 디다가 올려가지고.
@2 맞수다.
#1 그거 막 똥싸고 거 허는 디 아냐, 그러니까.
@2 고팡에.
#1 고팡에 논 거지.
@2 으.
#1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지 원래는 부억에 논 거라.
@2 예.
@1 정월에.
#1 거 맞은 거 같지?
@2 (웃음) 예 맞은 거 닮수다. 안네, 으.

보리밭 밟기

@1 삼춘 정월에 보리밧도 붋아나수과?
#1 보리밧?
@1 보리밧. 밧 불르는 거.
#1 아 거는 건 시간 이시믄 불르는 거고.
@1 으.
#1 시간 엇으면 안 불르는 거고 그래. 밧 불리믄 건 좋지.
@1 으.
#1 게난 이 여러 가지 농사허는 사름이 거 보리밧 불리지 못헤.
@2 아니 게도, 아니 여기에 막 겨울 뒈믄 막 곳일 거 아니? 땅들 곳아 불민 어떵헤? 보리 빨리 막 들러질 거난.
#1 곳아 불민 거 뒈어?
@2 어. 일이 핫구나?
#1 불르믄 거 잘 크고 저, 저 곡식이 옴지. 읏물지, 건데.

@1 으, 일부러 강 허진 않고.
#1 으, 일부러 경 허진 안허여.
@1 으.
#1 좀 한가헌 사름 잇주만은.
@2 예.
#1 다른 농사지곡 헌디.
@2 아들이라도.
#1 건, 건 저 강화도에서 허는 짓이야.
@1, 2 (웃음)
#1 요샌 경 안 헤.
@1 아니 그디서 연 날리라 영. 연날리기 그디 강은 안 허고?
#1 아니.
@1 아니.
#1 여기는이 보리 겨울엔 보리, 유채.
@2 예.
#1 유채를 많이 헷잖아, 유채.
@2 유채를.
#1 보리 많이 안 헷어.
@2 이 동넨 땅이 별로 안 좋앙은에 보리농사가 안 됐구나.
#1 유채, 유채.
@1 유채 하영 헤수과?
#1 유채 갈앙 그거 팔아근에 고구마 심곡 허지.
@1 보리 안 헨.
#1 조, 조.
@1 조를 하영 허고.
#1 산디.
@1 으.
#1 ᄆᆞ물 그런 거 헷지.

걸궁

@1 걸궁도 헤나수과 옛날에?
#1 걸궁?
@1 으.
#1 걸궁은 헤낫지.
@1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1 아 건 몬 다, 다, 다 자기 나 표선이 걸궁 많이 헤.
@1 으.

#1 표선이.
@1 으.
#1 표선이 완전 전문적으로 잇어, 걸궁.
@1 으.
#1 거 허는 사람 다 잇어.
@1 이디 토산인 엇수과?
#1 토산이는 그 잇어근에 또 소질 잇는 사름 그디 뽑아당 ᄀᆞ치 허곡 헤.
@1 아 표선이서 왕 이디도 다 ᄀᆞ치 허는 거꽈, 게믄?
#1 아니 표선이만 영헹 표선면 그게 멘 교류가 뒈는 거라, 멘, 멘.
@1 예.
#1 그럼 그거 보레도 가곡. 또 그런 소질이 잇는 사름은 또 동네 왕 뽑앙 가기도 허곡.
@1 아.
@2 요즘 민속단처럼 헴구나예?
#1 그런 조직이 잇엇어.
@2 예.
#1 음.
@1 집집마다 돌아다니멍 막 꿩과리 치고 영은 아녀고?
#1 에, 그런 거.
@1 그런 건 엇고?
@2 동네 자금 모으젠 허면?
#1 자금?
@2 동네 청년들게, 동네 자금 모으젠 허면 걸궁들 허지 안헤수과? 집집마다 뎅기멍 꽝메기 치멍.
#1 에에.
@2 그런 건 안 헨?
#1 자금 뭐 **** 자금 줄 사름 돈 줄 사름도 엇고.
@2 으, 그렇주예.
#1 경은 안 헤. 겨곡 저 그거 빌엉 허멍 저 돈 줄 사름 그렇게 별나게 사는 사름 엇엇어.
@2 맞수다.
#1 으.
@1 입춘에.
#1 먹을 게 엇엇어, 뭐, 뭐 바다에 강 저 톨, 톨 헤다근에 여기 지금.
@2 물룻에.
#1 물룻 아네.
@2 예게.

#1 물룻.
@2 예.
#1 그거 헤근에 그거 보리 궈근에. 보릿ᄀᆞ스락 속에 묻어근에 구워근에 그거 헹 막 모가지 아픈 거 헤근에 먹엇잖아.
@2 삼춘도 그 물룻 하영 먹엇구나양? 페, 페 헤당.
#1 으, 그거 하영 먹엇지.
@2 하영 먹언예?
#1 거 미신 보릿개역 ᄒᆞ썰 놔근에 먹는 체 헤근에.
@2 게난 그때 하영 먹으난 건강헌 거 아니우꽈?
#1 난 드릇, 드릇ᄂᆞ물허고 드릇마농 하영 먹으난 건강헷어.
@2 드릇ᄂᆞ물, 드릇마농 하영 먹언?
#1 으.
@2 약, 약이네. (웃음) 먹을 거 엇어 부난 드릇ᄂᆞ물 경 먹엇구나게.
#1 으. 경 아 우리 막 그루후젠이 막 십 년 뒌에 보릿, 보리 영 피어당 거 오물락오물락 캐어근에 불에 구워근에 그거 헹 먹곡.
@2 먹고.
#1 뭐 전분 주시 그것도 헤당 먹엇잖아. 밀ᄀᆞ루에 서꺼근에.
@2 애써수다게.
@1 경헤도 영 건강허게.
#1 그땐 라면 엇엇어.
@2 라면 엇엇저.
모두 (웃음)
#1 에이구 춤.

입춘

@2 새절 드는 날.
@1 삼춘 새절 드는 날은 미신거 허는 거꽈?
#1 으?
@1 입춘.
#1 입춘?
@1 으.
#1 입춘은 우리 뭐 안 헤.
@1 뭐옌 부릅니까? 새절 드는 날이엔 안 ᄀᆞᆯ읍니까?
#1 입춘은 어디 절간에 간 사름은 거, 거 빌어당 그거 부찌고.
@2 으.
#1 뭐, 뭐 입춘날 뭐 허는 거 없어.
@2 남자들은 놈이 집 가도 허는디, 여자들은 놈이 집.

#1 여자들은 안 나가지.
@2 으, 뭐렌 굴읍니까? 여자들 나가면.
#1 여자들 안 나가. 남이 집 안 가지.
@2 막 욕헙디다?
#1 욕허지, 여자가 들어가민.
@1 (웃음)
@2 무사 경 욕헴신고게.
@1 무사 입춘날은 욕예 놈이 집이 가민 욕헌덴마씨?
#1 지금은 가도 욕 안 허는데.
@1 으.
#1 그, 그, 그 예가 잇기 때문에 이게 막 여자들도 안 가잖아.
@1 으.
#1 지금 가서 욕허는 사름 없지.
@1 예.
#1 욕허는 사름 지금은 없어.
@1 이젠 몰라근에.
#1 지금은 욕허는 사름 엇는디.
@1 옛날엔 무사, 무사 오지 말렌 허는 거마씨?
#1 여자?
@1 으.
#1 여자는 입춘 깨끗헌 날 아니냐게.
@1 아.
#1 고생은 여자들이 허는 거 아냐.
@2 검질 짓넨도 굴안게예?
#1 검질 짓은 때게, 검질 짓은 디 가니까 거 무슨.
@2 예게, 아이고. 참, 이월 넘어가 붑서.

방에

@1 방에 부찌는 거. 산에 불 놓곡 영 안 헤나수과?
#1 방에 놔.
@2 으.
#1 방에 목장에 방에 놧지.
@2 언제 놉니까, 그건?
#1 목장에 봄에, 봄에.
@1 봄에.
#1 으.
@1 으.

#1 거 소, 소 길루젠 허민 거 방에 놔야지.
@1 으.
#1 게민 나가서 방에 놓지.
@1 방에 놓민 그거 어떵 어떵 헹은에?
#1 그디, 그디 부뜨민 꺼부민 뒈는 거지.
@1 몃 명이 강 ᄀᆞ치 홈치.
#1 소 잇는 사름 다 가.
@1 아 소 잇는 사름 다 가?
#1 으.
@1 음.
#1 아 겡 소 잇는 사람은 자기 안 가믄 방에 누가 부쪄주나? 소 잇는 사름 다 가지. 방에 부찌는 날 정헤서.
@1 어, 거믄 이디선 어디 가근에 방에 부찌는 거꽈? 쉐.
#1 아, 영아리목장, 영아리, 저 우이.
@1 물영아리?
#1 물영아리 옆에 영아리라고 잇어.
@1 아, 예.
#1 영아리가 이거민 물영아리.
@1 예.
#1 겡 영아리가 우리 목장이여.
@1 아 토산리 목장이꽈? 거기가?
#1 으.
@1 거믄 그디 가근에 방에 부쪙.
#1 방에 부쪄.
@1 예.
#1 방에 거 담도 다울 거 이시믄 담 다웁곡.
@1 으.
#1 막 경헹 밥 쌍 먹곡 허주, 뭐 헹 오나.
@1 음. 잘못헹 어디 불 옆에 부떠 불곡 영은 안 헙니까?
#1 그런 건 철저히 허여, 허지.
@1 아.
#1 건 우리가이 그 *** 뎅기당은에 ᄒᆞᆫ 사름 두 사름 가근에 지녁으로만 부찌다근에 그렇게 나는 거지. 그 가는 사름 전부 가니까.
@1 어떵 안 허고.
#1 어떵 아녀.
@2 방에는 무사 부쪔서마씨?
#1 으?

@2 방엔 무사 부찌는 거?
#1 방에 부뜨는 건이 다른 디서 넘어오는 수도 잇고. 또 거기 어디 소님들 돌아뎅기 다근에 으, 무슨 사냥허는 놈들이 헤근에 불 놔부는 수도 잇고.
@1 아니, 무사 허는 거마씨? 그건.
#1 무사 허는 거?
@1 무사 부찌는 거냐고, 불. 방에 무사 부찌냐고.
#1 진드기. 진드기 구허고.
@1 예.
#1 방에 부찌믄 재가 들어가니까 풀이 잘 크잖아.
@1 아.
#1 비료 안 헤도. 비료 안 헤도. 거름도 뒈고 추움도 죽곡.
@1 으.
#1 그래서 부찌는 거. 그 잡풀이 가시, 가시도 살아잇는 거 다 태워야 그 새로 나오면은 소도 먹곡 거 풀도 잘 나고 허잖아.
@1 으 경헹 부찌는 거예. 건 매해 부찌는 거우꽈?
#1 매해 부찌는 수 잇고, 일이 년에 한번 부찌는 수도 잇어. 가시가 많이 나가지고이 풀 날 디가 별로, 가시가 막 엉켜져 불면 풀 날 디가 엇으면 걸 태와야 뒈니까 경 매해 부찌는 건 아니고.
@1 아 매해 하는 건 아니고예? 음.

이월

@1 이월달에는 이디 저 바당도 이시난 혹시 영등 이런 영등 하르방 왓저, 영등 할망 들어왓저 영헌 말헙니까?
#1 으, 헤. 영등, 영등, 영등 들어오고 나가고 허는 거 알아.
@1 언제 들어왓당 언제 나가는 거우꽈?
#1 이월 십오일에 들어왕 이월 말에 나가는가?
@1 이월 십오일에 들어왕 보름 안에?
#1 보름 동안에 미신, 겡 바당에 딱 가보민 알아져.
@1 어떵 알아집니까?
#1 조개들이 전부 거, 거 빈 껍질이라.
@1 아, 거 들어온 때?
#1 으, 영등할망 들어오민 다 그거 다 까먹는다고 허잖아.
@1 음.
#1 그 전이는 빈 게 별로 엇는디.
@2 영등.
#1 그 왓다가믄 빈 게 많이 생기는 거라. 궹장히 많이 생겨.

@1 영등할망이꽈, 하르방이꽈?
#1 영등할망이지.
@1 할망예? 음. 그믄 그때 뭐 굿도 허고 허는 거꽈? 영등굿?
#1 아니, 아니.
@1 경 안 하고.
#1 그런 거 없어.
@1 해녀들도 안 헤?
#1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알지 그런 건 없어. 위허는 건 없어.
@1 아 다른 동넨 영등굿도 허고 막 헨게만은.
#1 으.
@1 이 동네는 그런 거 안 하는구나예?
#1 음.
@2 게도 여기 물질허는 해녀들도 이신디 안 헴수다예?
#1 으?
@2 해녀굿은 헤? 잠녀굿?
#1 해년 잇어, 해녀. 해년 거 안 헤.
@2 그런 거 안 헤예?
#1 응.

삼월

한식 멩질

@1 옛날엔 한식 멩질도 헤나수과?
#1 한식?
@1 으.
#1 한식도 헤낫지, 옛날은.
@1 그냥 멩질 출리는 거추룩?
#1 한식도 헷고, 백중도 헷고. 단오 헷고. 다 헷는데 이젠 안 허잖아.
@1 으, 옛날 헐 때 말 골아줍서. 옛날 헐 땐 어떵 헤나신지.
#1 옛날 할 때 한식은.
@1 한식 안 헤나수과, 삼춘넨?
#1 저 백중.
@1 예.
#1 백중은 거 밥헹 차려근에 목장에 가잖아, 목장. 목장에 가서. 거 백중은 목축을 위한 제라. 목축을 위한 제.
@1 으, 한식은 안 헤낫구나예?
#1 으. 한식은 그전인 헤낫는데, 우린, 난.

@1 삼춘넨 안 헤낫고?
#1 으, 우린 안 헨.
@1 이 저 한식.
#1 단오도 헷고.

청명

@1 청명에는 산담도 손질허곡 영 헌덴 헨게만은.
#1 그렇지 산.
@1 청명에.
#1 보수, 보수도 허곡.
@2 으, 봄벌초.
#1 다 청명에 허는 사람, 단오에 허는 사람 헤, 벌초.
@1 아.
#1 팔월에, 팔월에 허는 사람은 거 흔번에 허는 사람이주만은. 봄에 청명이나 단오에 한번 허곡 팔월에 허고.
@2 팔월에.
#1 건 집안마다 틀려.
@2 예.
#1 그 성의 잇는 사람덜은 흔번 허곡. 또 흔번 허는 사람은 허고.
@2 산담들도 그때 잘 보수허고예?
#1 으, 산담 보수. 청명에 많이 헤.
@1 무사 청명에는 산담도 손질허고 영 허는 거마씨?
#1 건 깨끗헌, 청명이라고 깨끗허잖아.
@1 아 청명이 깨끗헌 날이꽈?
#1 으. 겨곡 신도 잘 안 다니는 날이고.
@1 아 신도 잘 안 다니는 날이고, 청명이?

묘제

@1 으. 거믄 혹시 묘제도 삼월달에 헙니까?
#1 으?
@1 묘제.
#1 묘제 삼월달에.
@1 아.
#1 묘제 삼월달에.
@1 삼춘네도 묘제 삼월에 헙니까?
#1 묘제 삼월달에 전부 헷는디. 이제까지 옛날 조상분들 전부 헷는데.
@1 으, 어디 강 헙니까?

#1 아 우리 산에 가서 허주만은.
@1 어. 어느, 어느 산에 강?
#1 아 조상산에.
@1 산이 다 ᄀᆞ치 모여져 잇어마씸?
#1 아니, 아니 각.
@1 다 따로따로 이시믄.
#1 아 우리 저, 저, 저 구좌읍 거 어디, 저 손당 그디 모돵 간단 말이여.
@1 그니까.
#1 조상제, 입도조.
@1 음.
@2 김녕.
#1 김녕. 고살ᄆᆡ.
@2 고살미.
#1 거기 간단 말이여, 우리. 나 이 표선면 광산김씨 부훼장 헨.
@2 아 헤수과? (잡담)

쉐 ᄀᆞ꾸기

@1 삼춘 쉐도 질롸나수과?
#1 으.
@1 그믄 저 쉐.
#1 옛날은이 쉐 질뢍.
@1 으.
#1 그걸 풀아가지고 밧을 삿단 말이야.
@1 어.
@2 여기 쉐 하영 길롯구나.
#1 쉐로 다 밧 사고. 돈이 어디 생길 디가 잇나, 소, 소.
@1 어.
#1 소로 다 없는 사람은 소로 길뤄가지고, 이제.
@2 벵작소들.
#1 그거 모아근에 이 밧 나오믄 밧 사고 그러지. 부자들은 밧을 풀아먹곡.
@2 으.
#1 부자들은. 부자덜은 밧 설남은 개씩 잇는 사람들은 만날 놀음이나 뎅기곡 놀레 뎅기민 거 못사는 사람은 소 길롸가지고 그거 소 한 마리믄 밧 ᄒᆞ나 산단 말이여. 게난 이 부자가 굴라지는 거라. (잡담)
@2 삼춘 아까 영아리가, 이 저기 알토산 목장이렌 헷잖아예?
#1 으.
@2 게믄 여긴 영아리에 쉐 올려실 거 아니?

#1 으.
@2 언제 올립디가?
#1 아 봄에 풀 나면 올리지.
@2 거난 보통 청명에? 아니면은 여기서는?
#1 아 더, 더. 더 늦어야 뒈.
@1, 2 더 늦어야 뒈. 으.
@2 겡 언제 올령 언제 내려?
#1 물은 일찍 올리고. 물은 일찍 올리는디 소는 조금 잇다가. 집에, 집에 다 촐 멕이고 헹 나가지.
@1 음.
#1 마른 촐.
@2 마른 촐예. 겡 그 목장에 올령 내불어?
#1 옛날엔 내불엇는데이.
@2 예.
#1 옛날에 내불민이 직허는 사람 없으니까 뭐 소가 읏름에 더우면 막 숲으로 들어가잖아. 숲으로 소 못 찾는 사름 잇엇어. 겡 그런 도둑놈덜은 거 잡아먹어 불민 완전 솔 일러 부는 거 잇어. 근디 목감이라고 잇어, 목감.
@2 으, 목감.
#1 목감. 목감이 잇어가지고 그 소를 봐주지. 소를 봐줘.
@2 목감이 봐주믄 목감한테 쉐 봐주는 갑 주고.
#1 갑[깝] 주고.
@2 삼춘네도 겅 헤난?
#1 으. 소 메엉 경 헤여.
@1 여긴 뭐 번쉐 헤근에 쉐 멕이레 가고 영은 안 헤수과?
#1 으?
@1 번쉐 헤근에, 당번 헤근에 쉐 멕이레.
#1 아, 게메 ᄀᆞ꾸레, ᄀᆞ꾸레 소 ᄀᆞ꾸레.
@1 소 ᄀᆞ꾸레.
#1 소 ᄀᆞ꾸레 뎅겨.
@1 으 건 어떵 헹 허는 거꽈? 멧 집이나? 음. 멧 집?
#1 소, 건 동네 그 산에서, 산에서 그 처음 봄에 풀 잘 안 나고 우연엔 풀 안 나고, 이딘 헐 땐 그때 ᄀᆞ꾸레 뎅기주.
@1 으.
#1 ᄀᆞ꾸레 뎅기믄 거믄 소, 소 하나에 흔 사람씩 헹 당번 헹 뎅기지.
@2 으.
#1 게민 보통 두 사람이 두 사름이 흔 그루 헹 뎅겨.
@1 두 사름이 흔 그루.

#1 으 갓다오민 두 사람이 ᄒᆞ루 가고오곡 또 다음 두 사람, 경 두 사람씩.
@1 으. 쉐 멧 마리나 모영은에 ᄀᆞ치 갑니까?
#1 보통이 오십 머리.
@1 두 사름이 오십 마리를 다?
#1 으, 으, 으.
@1 어.
#1 겡 앞이 상 가곡. 뒤에서 물곡. 이거 다 골목길이니까.
@1 예, 예.
#1 경허믄이 그디 가면은이 거 재미진 거 이시메. 숫쉐, 숫소. 숫소들은 쌉는 거 보민 재미져.
@1 어떵 싸웁니까?
#1 아, 암쉐가 많으니까 다 ᄎᆞ지 헐라고 쌉지.
@1 뿔로?
#1 뿔로.
@1 거 미시거옌 ᄀᆞᆫ는 거 엇수과? 찔레 뭐, 이런 거.
#1 찔레, 찔레 헌다고 그래. 건디 거기서 다 처음 간 땐이 다 부떠, 숫놈끼리. 부떠 가지고 이긴 놈이 대장이라.
@2 지네끼리 대장 정허는.
#1 겡 다음 가면은.
@2 안 싸와.
#1 지믄 안, 안, 안 싸웁지.
@2 으.
#1 그러믄 대장이 암소도 다 ᄎᆞ지라.
@1 으.
#1 그때는 또 새끼 낼 때지.
@2 으.
#1 이제 암소가. 그러니까.

사월

사월 초파일

@1 사월 초파일엔 무신거 헤신고마씨?
#1 ᄉᆞ월 초파일 저, 저 절간 가는 날 아니야.
@1 으, 거난 여자 삼춘.
#1 부처님 오신 날.
@1 예, 여자 삼춘 절간도 가수과?
#1 으.

@1 으. 이딘 어느 절간 다닙니까?
#1 저 제주시 다녀.
@1 아이고 시엣끄지 갑니까?
#1 으.
@1 어디 감수과?
#1 여디 표선이서 허다가 신천이서 허단 신예 갓단 그 사름이 그디 가신가? 그디 가.
@1 겡 옛날 이디 표선이 이실 때는 미신 절이라나수과?
#1 무슨 절간이냐고?
@1 응.
#1 나 절간 이름 몰라.
@1 이름 몰라.
#1 난 안 가고.
@1 아 삼춘은 ᄀᆞ치 안 가고.
#1 으, 난 안 가.
@1 초파일날 아이들 머리 까까주곡 영도 헤나수과? 머리 까끄민 머리 곱게 난덴 허멍.
#1 그러니까이. 그런 집안도 잇주만은 예를 들믄 머리 길믄 까까.
@1 머리 길믄 까까.
#1 경 허는 날이 없어.
모두 (웃음)

오월

단오 멩질

@1 삼춘 아까 ᄒᆞ끔 ᄀᆞᆯ아신디. 단오 멩질은 어떵 헹 허는 거꽈?
#1 단오 멩질 거 보통 멩질이영 마찬가지.
@1 정월 멩질이영 다른 점이 엇인가마씨?
#1 다른 거 없어.
@1 떡을 혹시 다르게 하거나.
#1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
@1 음, 똑같아?
#1 다르게 헐 저르도 엇고.
@1 으.
#1 똑ᄀᆞ찌 헤 똑ᄀᆞ찌.
@1 음. 멩질 먹으레도 뎅기고?
#1 아 건디 단오 멩질은이 보통 자기 집만이 허여.
@1 자기 집만 헤여, 먹으레 뎅기지 아녀고예.

#1 자기 집만.
@1 이거 단오 땐 무사 멩질 허는 건고마씨?
#1 그거는 나도 그 유래는 모르겟어.
@1 어.
#1 아니, 거 웨냐믄 또 하이튼 그 유래가 난 어떤지 몰라.
@1 아 삼춘 몃 살 때까지 이거 단오 멩질 헤진 거 닮우꽈?
#1 단오제?
@1 으.
#1 아이 건 엇어진 지 멧 년 안 뒈어. 십, 흔 십오 년?
@1 이천 년대 이후까지도 하션마씨?
#1 으, 헷어.
@1 삼춘 육십 뒐 때까지도 헨?
#1 으. 아, 흔 오십 대까지 헤실 거여. 흔 삼십 년 뒌.
@1 한 삼십 년 뒈신게예? 음.
#1 경 뒛어.
@1 허단에 무사 설러 붑디가?
#1 다른 집안 ᄀᆞ트게 설러 불고. 이 근방에 전부 단오를 안 헤가더라고.
@1 으. 겡 삼춘네가 제일 마지막까지 헤수과?
#1 아니, 아니.
@1 아니? 건 아니?
#1 마지막에 헌 사름도 잇어.
@1 어.
#1 여기 저 진도에서 왕 산. 진도?
@2 예.
#1 그디서 왕 사는 사람, 박씨라고 잇지, 박씨. 그 사름들은 막 늦게까지 헷어.
@1 아. 제주도 사름 말고 육짓 사름들이 오래 헷구나예?
#1 으, 궹장히 오래 허드라고.

유월

유월 스무날

@1 그다음에 유월. 유월달에는 미신거 헤신고마씨? 옛날에.
#1 유월덜엔 뭐, 뭐 유월달에 뭐 자잘허게 뭘 헐 말이라. 헐 게 엇지.
@1 (웃음) 뭐 삼계탕도 먹고 헤얄 거 아니우과.
#1 으?
@1 삼계탕도 먹곡 헤얄 거 아니우꽈? 닥도 잡아먹곡. 유월 스무날.
#1 아 건, 건, 유월 스무날 닥 잡아먹나.

@1 삼춘도 옛날에 어무니가 닥 잡아근에 주고 헤나수과? 어렷을 때.
#1 그렇지, 그랫지.
@1 으, 집이서 둑 질룰 때.
#1 으, 둑 잡앙 먹언. 유월 스무날은 둑 잡아먹나.
@1 어. 집이서 어무니가 둑 잡아줄 때 이제 삼계탕 먹으레 간 때 말고예. 옛날에 집이서 헐 때는예? 닥 한 마리 헹 식구가 다 나눠 먹읍니까, 흔 사람이 흔 마리씩 잡아줍니까?
#1 아이, 건, 건 저 식구에 따라근에이 먹을 만큼 잡아. 사름 수 맞춰 잡는 것도 아니고.
@1 으, 으.
#1 먹을 만큼이 잡아. 겡 나눠 먹는 거야.
@1 아.
@2 무사 먹엄신고예? 무사 둑 잡앙 먹어신고?
@1 엿날에 검질메고 막 지치니까 거 기력 훼복허렌 잡아먹는 거 아냐. 뭐 대추도 넣곡 마늘도 넣곡 뭐 놔서 끌여서 먹는 거 아녀. 몸보신허기 위헤서.
@2 몸보신예? 여름에.
#1 일헤서 막 햇빗 난 디 일헤서 몸이 허약헤지니까 그래서 걸 흔번 헹 먹는 거지.
@2 으.
#1 그건이 다른 건 없어. 닥 잡앙 먹는 날이렌 정헤서 먹는 거 아냐.
@2 으, 유월 스무날예?
#1 요즘ᄀᆞ치 아무 디서나 먹을 수 잇는 것도 아니고.
@1 음.
#1 건 옛날에.
@1 초복, 중복, 뭐 말복 영 헙니께, 예?
#1 으, 맞아.
@1 그때 제주도에서는 미신거 허는 거 이수과? 이디 토산이서 헤난 건?
#1 우리 집안은이 그 초복, 중복, 그 개고기 먹는 사름덜은 초복, 중복 그 개고기 먹잖아.
@1 아.
@1 아.
#1 거 먹는 집안이 잇어.
@2 제주도도 겅 먹언예? 제주도에서 겅 먹언?
#1 제주도에서도 경 허는 사람이 잇어.
@2 예.
#1 겐디 제주도에도 육지에서 사름이 많이 들어오니까 육지 사름들이 거 많이 먹잖아.
@1 으.

#1 겡 그 사름들 먹는 거 보고 따라 먹는 사름도 잇주만은이 제주도 사름은 원래 그거 잘 안 먹어.
@1 음.
@2 우리는 유월 스무날 둑 잡앙 먹어.
#1 둑 잡앙 먹어. 요샌 뭐, 요샌 나가믄 뭐, 얼마니 좋은 거 잇으난. 매날 매날 먹고 싶음 대로 먹지, 뭐. (잡담)

조 불리기

@1 자 유월달에 조도 밧, 영 조팟도 붋아야 뒈예? 건 어떵 헹 허는 거마씨?
#1 옛날엔이 물, 물, 물 소, 데련에, 저 이 물로 헷잖아, 물로. 그, 그거 나 노래 잘 불러. 어려어려어려어어어어어 허어허어허어허어 어허 하멍.
@2 우와 소리 좋다.
#1 나 노래 잘 부른다고.
@2 예, 그 조 불리는 소리를 처음부터 끗까지 쫙헤봅서.
#1 거 잊어 불엉 헤지크냐게? 어려어려 허는 것만 알아.
@2 으.
#1 어려어려어어어어어어어 어잇 어잇 허멍 경허는 거지.
@2 요 산에 놀던 새야, 저 산에 놀던 물아. (잡담)
모두 (웃음)
#1 나이 노래 정말 잘헤낫어.
@2 아니 잘헴신게.
@1 목청이. 으. (잡담) 조 불릴 때 삼춘 아까 하는 거 보난. 삼춘이 물 물아근에 영 헤난마씨?
#1 으, 물 앞에이 그 줄 ᄒᆞ나 헤근에 영 물 쫙헤근에 영 앞이 사근에 앞이 사민 영 돌리면.
@1 으.
#1 조름에서 ᄒᆞᆫ 사람이 어려어려어려어어어어어어어 흐어 받는 거라.
@1, 2 예.
#1 밧을 불려.
@1 삼춘 거난 앞이 사수과? 뒤에 사수과?
#1 앞이도 사곡.
@1 뒤에도 사고.
#1 으, 뒤에도 사고. 앞이 산 땐 우리 부친이 아부지 사민 나가 뒤에 사고.
@1 아.
#1 또 나가 앞이 상 허믄 또 우리 동생들은 또 뒤에 상 물곡.
@1 그 말은 삼춘네 물이꽈 아님 다른 디서 빌령 오는 거꽈?
#1 우리 물도 잇곡.

@1 으.
#1 또 다른 물도 빌엉도 허곡 허여.
@1 으. 물테우린 아니고?
#1 으?
@1 물테우린 아니고?
#1 물테우린 자기 물테우린 ᄉᆞ방에 널어진 게 물테우리고.
@1 으.
#1 우린 자기 것만 허니까 물테우린 아니고.
@1 예. 그 조 불리기 전이 그 밭에.
#1 그거 다음 테우리. 저 거세기 남테우리.
@1 으.
#1 남테우리라고.
@1 남테?
#1 남테.
@1 나무로 헌 거?
#1 으, 거 남테우리라 헤.
@1 남테우리라고 허는구나예?
#1 으, 것이 나무 딱딱딱.
@1 말ᄐᆞᆨ 박아진 거예?
#1 으. 그거 헤서 좀 소나 물이나 메왕 둥그렷지.
@1 어.
#1 소말 메왕은에.
@1 으. 그믄 먼저 소, 소 먼저 아, 말 헤근에 먼저 밧 불라난 다음에 그다음에 남테우리로 또 ᄒᆞᆫ번 더 허는 거과?
#1 아니, 아니. 거 쉐로나 물로 못 헐 때 남테우리로 허는 거지. 거 아무나 허면 뒈는 거.
@1 으. 건 무사 불리는 거마씨?
#1 땅이 굳어, 굳어젼. 여기 제주도 바람이 믄 병디 아냐, 병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면 그게 흑이 막 날리잖아게.
@1 으.
#1 그니까 거 흑을 날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다지는 거라.
@1 으.
#1 보리밧 불리듯이.
@1 아. 삼춘네 밧 말고 놈이 밧도 불라줘수과?
#1 놈이 밧도 불라주지.
@1 어.
#1 일반 사름은 그 품 받앙 허지.

@1 아 품 받아근에.
#1 으, 품 받앙.
@1 삼춘네 그거 헐 땐 얼마나 받앙 돈 얼마 받읍니까, 곡식으로 받읍니까?
#1 건이 건 둑, 둑도 받앙 먹고 경 헌다게. 돈으로 허는 게 아니라.
@1 아. 그 테우리 아 그거 밧 불리기 전이 그디 밧디 제도 지내고 영 헙니까?
#1 제? 밧디 뭐허레 젤 지내냐 말이여.
@1 아 제사지내고 경은 안 헙니까?
#1 그런 거 없어.
@1 그믄 그 밧 불라주는 삼춘네안텐 뭐 그 밧 임제가 맛 좋은 반찬 하영 헹 가졍 옵니까?
#1 으. 밧, 밧 밧갈아주민은 정심도 헤다주고 허지.
@1 공짜로 밧 갈아줘?
#1 아이 거 돈 받아.
@1 돈 받아.
#1 으.
@1 삼춘.
#1 돈 받아. 돈 받곡 정심은 또 잘헤야지 먹곡 허지. 정심은 잘헤준다.
@1 미신 반찬 헤줍니까? 잘헤주는 건.
#1 잘헤주는 건이 별로 없어. 생선국 곤밥허고 또 뭐 바다에 해삼이나 미신 전복이나 그런 거 잡앙 그 해녀들은 그런 거 반찬 헤다주고.
@2 어. 바당에 전복도 헤주고.
#1 전복도 헤다 주렌 허민 헤다 줘.
@2 예, 밧 갈 때?
#1 으. 자기가 잡는 거니까.
@2 그렇지, 옛날에야 바당에 전복도 하시난예? 예.

유월절

@1 유월절은 무슨 언제가 유월절마씨? 유월절.
#1 유월덜?
@1 유월절.
#1 유월절?
@1 으.
#1 아 유월절은 저, 그 하지. 그
@1 하지?
#1 게 유월절 아니?
@2 소서.
@1 으.

#1 아 소서가 유월절.
@2 소서.
#1 소서가 유월절.
@1 유월절엔 뭐 허지 말라 영도 굴읍디다만은.
#1 유월절에 뭐 허지 말렌?
@1 으.
#1 허지 말렌 헌 거 엇어.
@1 그믄 유월절 전이 무신거 헤야 뒈는 거 이수게.
#1 고구마는 유월절 전이 심으렌.
@1 고구마?
#1 으.
@1 아 고구마는 유월절 전이 심어야 뒈어.
#1 으, 유월절 전이. 유월절 넘으면은 거 다 죽어 부니까 유월절 전이 보통 싱그렌 허는 거여.
@2 그다음엔 막 더워부난예?
#1 더워근에 감저꿀이 살지 아년단 말이여.
@1 아. 조도 유월절 전이 헤야 뒐 거 아니우꽈?
#1 조는 조금 더 일찍 허지.
@1 ᄒᆞ끔 더 일찍예?
#1 으. ᄆᆞ믈은 팔월달에.
@1 ᄆᆞ믈은 팔월에 허고.
#1 으.

칠월

@1 칠월에는, 칠월달에 칠월 칠석 헤신디 그때 미신거 헤난 거 이수과?
#1 칠월 칠석?
@1 으.
#1 없어, 없어.
@1 없어, 없어.

백중제

@1 백중에, 아 아까 백중제 헌덴 굴아신디.
#1 백중젠 허여.
@1 백중젠 어떵 헤근에 허는 거꽈?
#1 백중젠 거 뭐 제사지내는 모냥으로 헹 가근에 산에 목장 가근에 소 잇는 디 가서 지내지.

@1 그믄 아까 영아리 그디 가근에 지냅니까?
#1 으, 으, 으. 아 영아리도 허곡 소가 여기 잇으믄 소도 여기서 허고. 목장에 소가 잇을 때만 목장에 가는 거지.
@1 아. 집에 그믄 쉐, 쉐막에 쉐 메민 어디 강 제지내?
#1 거 집, 그 날짜엔 집이 쉐 안 메어.
@1 아.
@2 집에 어떻게 메어?
#1 집에 풀이 많은데.
@1 음. 게믄 아까 강 제지내젠 허믄 무신거 무신거 제물은 헹 가는 거꽈?
#1 제물은 제사 지내는 거 똑같애.
@1 똑ᄀᆞ치 헹 가?
#1 으.
@1 밥이영 국이영. 반찬은?
@2 국은 안 허지 아녑니까?
#1 국 헤, 국 허는디 거시기 이 저 메물 ᄀᆞ튼 건 안 헤.
@2 으.
@1 메물 ᄀᆞ튼 건 안 허고. 밥허고.
#1 생선 하나 굽곡.
@1 생선 하나 굽고.
#1 으.
@1 적갈도 헤?
#1 아 적갈도. 아 적갈도 허는 딘 허여.
@1 허는 딘 허여.
#1 헹 가근에 코시만 헤둰 밥 먹는 거.
@1 음. 시간은 몃 시쯤에 허는 거우꽈? 백중제.
#1 백중제? 거 보통 아침 가.
@1 아침이 가?
#1 으.
@1 겡 제는 언제 지내?
#1 으? 제는 뭐 그디 가믄 도착허믄 제지내동 와부는 거지 뭐.
@1 아 그냥 그믄 아침이 가믄 정심 그디 강 먹엉 오는 거꽈?
#1 아 게난.
@1 새벽이 안 지내고?
#1 새벽이 안 지내.
@2 자시에, 자시, 자시에.
#1 으?
@2 열두 시에 허지 안헤? 자시에. 밤에.

#1 밤에? 안 헤. 낮이.
@1 으, 그냥 낮에. 엿날에도 경 헤나수과? 옛날 삼춘네 어릴 때도. 아부지영 살아실 때도 겅 헤나수과?
#1 게난 그딘 보통 저 목장에 강 헌단 말이야, 그때.
@1 그니까 그때는 언제쯤 헤난 거 닮우과? 깜깜헐 때 헤수과, 붉을 때 헤수과?
#1 그디 아침이 밥 먹어근에 멘들아근에 올라가당 보민 거의 낮 뒈불주게. 영아리가 걸엉, 걸엉 가젠 허믄 몃 시간이나 걸리나게.
@1 으. 그때도 겅 헤낫구나예? 옛날에 어렷을 때도예?
#1 으, 경허민 저, 저 차반지에 그 저 제물 메와졍 가근에 걸엉 가근에 허는디 무신. 뭐 차 탕 다녓나, 걸엉 강 헷나. 걸엉 강 허난 일찍 가야지.
@2 여기서 영아리까지 가젠 허믄 어느 정도 걸려마씨?
#1 거 이야 그 저 남조로 거디 아냐게. 여디서 올라가젠 허믄 흔 두 시간 이상 걸려.
@2 두 시간 이상.
#1 으.
@2 건 오름 올르젠 허면.
#1 꼬불꼬불 가당 보민.
@1 이, 저 백중제 헐 때 이녁 집 이녁만씩 가는 거꽈? 놈이 집이영 ᄀᆞ치 안 가고?
#1 그레 강 보민 간 사름 잇잖아.
@2 다 각자.
#1 소 잇는 사름들은 다 각자 간다고.
@1 아. 제물은 다 각자, 각자가 준비 헹 가?
#1 으 각자 준비헹 가.
@1 공동으로 안 하고예?
#1 으, 공동으로 안 허여.
@1 음. 뭐 특별히.
#1 뭐 소 잇는 사름도 그거 아녀는 사름도 잇고.
@1 음 허는 사람도 잇고 안 하는 사람도 잇고.
#1 으, 으, 으.
@1 음.
#1 다 허는 것이 아니고 허는 사람 잇고 아녀는 사람 잇어. 거 허기 싫엉 안 험보단도 엇어근에 아녀는 사름도 잇어.
@2 그렇지.
@1 예.
@2 제 출릴 거 엇엉예? 게믄 그 백중제 헐 때예? 강은에 영 말명 헤야 뒐 거 아니우꽈? 그 속솜헹 제만 지내, 아니면은 테우리들안티 말헤여? 쉐안티 말 골아?
@1 우리 물 잘 키와줍서 뭐 이런 거 아녑니까?
#1 아 그런 말은 헤여.

@1 겡 뭐옌?
@2 뭐옌 굴읍디가?
#1 으?
@2 뭐렌 굴읍디가.
#1 금년엔 어떵 헹 잘 우리, 우리 소들 잘 돌봐줍서 헹 곤지, 뭐옌 곤느냐 말이야.
@2 누게안티?
#1 아 그 구신안티.
@2 구신안티? 게민 뭐렌 불러, 저기안티?
#1 뭐옌 불르지 안헤.
@2 그냥 불르진 않고?
#1 으.
@2 겅헤둬근에 이제.
#1 으, 으 경헤근에 한번 절도 허여. 경헤근에 영 코시 헤근에 그레 비와둥 그거 먹어오지.
@2 아.
#1 간단허게 헤, 간단허게.
@2 절은 한번만 하는구나?
#1 으. 간단허게.
@2 예.
@1 제물 특별허게 허는 건 엇어마씨?
#1 없어, 없어.
@1 백중에는?
@2 다른 데는 상웨떡 헌덴 헨게만은. 상웨떡 헤근에 간덴 허멍.
#1 그건 상웨떡이 많이 가.
@2 예.
#1 웨 거는이 먹어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으.
@2 여름이니까예?
#1 그저 그저 올령 그게 많이 헷어, 상웨떡.
@2 상웨떡예?
#1 으.
@1 요즘엔 안 헙니까? 요즘엔 안 헴수과?
#1 요즘은 상웨떡 허는 디 엇어.
@1 아니 백중제.
#1 백중제?
@1 으.
#1 요샌 소 질룬 사름이 엇잖아.
@1 아니 삼춘 언제까지 헙디가?

#1 아 우린 소 길룬 지 오랫어.
@1 아.
#1 훈 삼십 년 이상 뭼서.
@1 백중제 헤난 지도 오래뒛구나예?
@2 이 동네 쉐 키우는 사름 이수과?
#1 이 동넨 엇고 웃산에 잇어.
@2 아 웃토산에 잇고.
#1 웃산에 소 크게 길룬 사람 잇어.
@2 아 그 사람은 헴시켜예? 게믄.
#1 아 지금도 헴서, 거기는 헴실 거여. 막 크게 헤여 소.
@1 아.
#1 훈, 훈 백이삼십 두씩 길뤄.
@1 지금도 그 허는 디 이실 건가마씨?
#1 그 사름이 그 목장 쭉 임대헤서 헤낫지. 영아리 목장을 임대헤서 이제 그 목장이서 소 놓곡 헷는디. 지금은 영아리 목장 팔아불엇으니까. 팔앙 서울 사람이 삿으니까 지금은 못 빌겟지만은.
@2 아 웃토산엣 거 풀아불엇구나?
#1 으, 풀아 벳어.
@1 음. 아니 요번이 누게, 작년엔가에예 헴덴, 헷덴 허멍은에 그거 사진 보내줜게만은.
#1 가시리나 웃드르에는이 개인적으로.
@1 아 허는 사름들.
#1 두세 마리씩 기루는 사름 잇어.
@2 예, 예.
@1 아니 백중제 허는 사름덜.
#1 겡 그런 사름들은 허고 잇겟지.
@1 으.
@2 그때 저 누구, ○○○ 선생.
@1 그 백중제 갈 때 닥도 숣앙 가신게마씨, 닥.
#1 으, 그런 것도 헹 가는 사름 잇어.
@1 으, 삼춘넨 안 헤보고?
#1 난 안 헤봣어, 우린.
@1 그다음에.
#1 둑 그디ᄁᆞ지 잡앙 강 허는 게 잇어냐?
@2 으, 먹을 것도 엇이난.
#1 자기 먹을 것도 엇인디.
@2 먹을 것도 엇인디.

@1 이 백중 때예? 여기서는 삼춘 그, 뭐 심방들 뭐 마불림제엔 헹은에 헨게만은 그런 거 들어봅디가?
#1 그런 거 없어.
@1 그런 거 없어?
#1 여기 ᄆᆞ슬카는 거, ᄆᆞ슬카는 거, 그거 바당에 강 허는 거벳긴이 또 막 부락마다 다 틀려.
@1 으.
#1 서화리 쪽은 거기 가믄이 그 그거, 그거 헐 땐이 뒈지고기 못 먹는 디가 잇어.
@1, 2 예.
#1 그런 것도 잇어.
@2 부정 탕, 뒈지고기 먹엉 부정 탕.
#1 뒈지고기 못 먹는 그런 것도 잇어.
@1 맞아마씨.
#1 으.
@1 아까 ᄆᆞ슬칸덴 굴안게만은 ᄆᆞ슬카는 게.
@2 당에 가는 거.
#1 ᄆᆞ슬가는 거 지들이고 거 비는 거 아냐.
@1 아.
#1 음.
@1 당에 가는 게 ᄆᆞ슬카는 거구나예?
#1 으. 그 심방 허는 디 가는 거.
@1 심방 허는 디 가는 거.
#1 으, 가족들 영 안부 물어보고.
@1 으.
#1 또 바당이 강 제 드리곡 허는 거 아니?
@1 음.

모살뜸 · 물맞이

@1 혹시 이 동네도 여름에 모살뜸 허곡 헙니까? 모래찜?
#1 모살찜? 없어. 모살찜 허는 디도 엇고.
@2 모살 바당이 엇구나, 여긴예?
#1 모살 바당 표선이 잇는데. 그거는 모살이 못 쓰는.
@2 예, 허영헌 거.
#1 모살이 까닥 몸에 다 찔러 버리는 모살 아니야. 부드러운 모살이 아니라.
@1 어디 모살찜 허레 삼양해수욕장 가봅디가?
#1 안 가봣어.
@1 안 가봔마씨? 헌덴 말만 듣고?

#1 으.
@1 물맞이렌 갑니가?
#1 물맞이레 서귀포 가지.
@1 어디 갑니까? 이딘.
#1 서귀포.
@1 서귀포 어디?
#1 저 돈내코도 가고 저 정방폭포 가고.
@2 소정방도 가고.
#1 소정방 그디 강 맞, 맞는 거. 저 돈내코도 가고.
@2 돈내코도 가고예?
@1 삼춘도 가봅디가?
#1 가봣지.
@2 으.
@1 언제쯤에?
#1 아 우리 ᄒᆞ썰 젊은 때.
@1 ᄒᆞ썰 젊은 때. 으, 무사 물맞이레 가는 거마씨?
#1 부지런히 안마헤주는 거 아냐. 안마, 안마.
@1 예.
#1 안마헤주는 거.
@1 음.
#1 안마 요즘ᄀᆞ추룩 안마 허는 디 많거나 허민 뭐, 뭐 요새는 병원마다 거 잇지만은 그때는 없잖아.
@1 으.
#1 물맞이레 가민 몸 좀 풀리는 거라.
@1 아.
#1 아 경허곡게 젊은 때는 또 두가시도 요작이 물맞곡 그디 강 좋은 거 먹곡 또 ᄒᆞ룻밤 어디 강 자당 올 수도 잇고.
@1 여행가는 거네이.
#1 으, 여행가는 거 마찬가지라.
@1 음.
@2 겡은에 우리 삼춘허고 여자 삼춘허고 같이 뎅겻구나? 여청 삼춘허고.
#1 그럼.
모두 (웃음)
@2 돈내코도 한번 갓당, 소정방도 한번 갓당.
#1 난 저, 저 태국이니,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뭐, 뭐 구 개국.
@2 아홉 개 나라.
#1 뎅겨왓어. 구박 십일 뎅겨왓어.

@1 아.
@2 구박 십일. 멋지다.
#1 혼자만 간 거 아니지예?
@2 할망.
#1 마누라영 갓지.
@2 마누라 데령 갓지예?
모두 (웃음)
@2 구박 십이일. 아 멋지다. 산여리통에는 물맞이레 안, 허레 안 갑니까? 여름에?
#1 요즘은 안 나.
@2 요즘 안 나.
#1 요즘은이.
@2 물 안 나멘?
#1 아 물 잇는데.
@2 으.
#1 더 좋은 디가이.
@2 잇엇는데 안 나와. 옛날 웃토산 가난 저기 물통, 물맞을 때 산여리통 갓다왓덴.
#1 으.
@2 여기 동넷 사름도 하영 갓지예? 여름에예?
#1 웨방 사름이 많이 와.
@2 아 이 동네 사름은 저 웨방 가고.
#1 아 우리 동네 사름은 그 만날 가근에 그디 물 아침저녁 가근에 더웡 가근에 허니까 수박도 냉장고 엇이니까 거기 강 컷다근에 가져당 먹곡.
@2 음.
#1 거기 강 금방 크민 어메나 싹 시원헤여.
@1 음.
#1 게니까 ᄉᆞ방 사름은 자꾸 가니까 안 가곡.
@1 으.
#1 거기 웨방 사름들 오는 따문에 거디 장사가 잘 뒈낫어.
@1 어.
#1 개고기 ᄑᆞ는 사람, 뭐 식당이 막 여러 개 잇어낫어.
@1 음.
@2 산여리통 옆에.
#1 으, 그디 막 몰려.
@2 예.
#1 경 또 그 식당 안 헹이 지네 동네, 뭐 개미 무시거 도세기니 잡아와근에 이디 왕 막 단체로 와근에 막 물맞곡 ᄒᆞ루 묵엇당 놀당 가곡 허는 거라.
@2 음.

#1 유명헤, 유명헤.
@2 유명헤예.
@1 옛날.
#1 이, 이쪽엔 이 물만헌 물이 엇주게.
@1, 2 아.
#1 서귀포 가야 잇지.
@1 옛날 물 맞이레 갈 때는예? 무신거 먹을 거 가졍 가실 거 아니꽈, 그디 뭐 식당이 이신 것도 아니고.
#1 먹을 거 가졍 갈 게 뭐 잇나? 옛날에. 뭐 가져갈 거 잇어?
@2 개역.
@1 경 ᄒᆞ룻밤 자젠 허민 경헤도 먹을 게 잇어야 뒐 거 아니꽈?
#1 식당이서 밥 먹고.
@1 (웃음) 식당 엇일 때 간 거 아니구나, 이실 때 갓구나.
#1 아 서귀포 시장 엇인 때도 잇엇나?
@1 (웃음)
#1 우리 젊은 때부떠 식당 잇엇는디.
@2 삼춘도 젊수다.
#1 으?
@2 젊엇어.
#1 나?
@2 예게, 식당 이실 때 뎅겨시난.
#1 지금도 젊엇어.
모두 (웃음)
@2 지금도 젊은 거 맞고.
#1 어이구 첨.

팔월

벌초

@1 팔월에 벌초도 헤낫지예? 지금도 헙니께?
#1 지금도 허여.
@1 벌초는 어떵 어떵 헤근에 헙니까?
#1 옛날은게 낫, 낫 이렇게.
@1 서근에 허는 거?
#1 으, 이렇게, 이렇게 허는 거.
@1 낫.
#1 그거 가지고 헷주만은 지금은 다 기계 아니라? 다 기계로 다 허지.

@1 이젠 경허고, 옛날에 헌 말 골아줍서.
#1 옛날은 낫으로 헤, 낫으로.
@1 벌초 가젠 허믄 그 낫도 갈아야 뒐 거 아니우꽈?
#1 다 갈아야지. 호미영 낫이영 전부 전날 갈앗다가 가지. 옛날은 아침 바쁘민 밥 먹어근에 저 저 어디니? 저 대천동.
@1 으.
#1 거 옛날엔 어떵 헹 산동네 막 우염에만 하르방 다 묻어 부니까 아 거기ᄁᆞ지 걸엉 가젠 허민 새벽이 걸어야 그디 강 ᄆᆞ쉬 헹 온다고.
@2 몃 자리나 헙니까? 벌초 허는데.
#1 우리, 우린 서른 자리.
@2 서른 자리면.
@1 나눠서.
@2 게난 벌초 허젠 허면 가지벌초도 이실 거고.
#1 가지벌초 잇지.
@2 그다음에, 그.
#1 문중벌초 잇고, 자깃 거, 자기 가지벌초 잇고 문중벌초도 잇고.
@2 문중벌초 잇고. 게믄 뭐부떠 헙니까?
#1 건, 건이 보통 자기 가족부떠 허여.
@2 자기.
#1 가지벌초부떠 헤야 그 가족들이 ᄒᆞᆫ번에 모일 거 아냐. 모여서 헐 거 아냐.
@2 으. 문중벌초는 나중에 허고예?
#1 으. 나중에 헤. 경헐 수밖에 없어.
@2 문중벌초 허젠 허믄 몃 명이나 모여? 삼춘네는 식구가 한 거 닮은게, 보니까.
#1 지금은 다 돈 줭 헤여. 문중 자금 만들앙.
@2 아.
#1 돈 줭.
@1 옛날 헐 때는?
#1 옛날엔 나가서 헷지.
@1 그니까 멧 명 정도 모여나수과?
#1 그니까 나오는, 나오는 놈들은 나오고.
@2 으.
#1 안 나오는 디는 안 나온단 말이여.
@1 으.
#1 경헹 돈 주기 시작허니까 돈 줘서 나오면 돈 준다 헷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나오던 놈들이 또 아 나오면서 손주ᄁᆞ지 다 데령 나와.
모두 (웃음)
#1 아 이러니 난 거 반대헷거든. 아니 자손이 조상 벌초 허면서 돈 주는 법이 어딧

냐.
@1 그니까.
#1 그건 말도 안 뒌다고. 아 젊은 놈들이 흔번 그 문중에 보레 안 뎅기믄 아 차비 안 나오니까 돈 줘서 하자고 결정헌 모양이라.
@1 으.
#1 아 겡 강 보니까 돈 준덴 허더라고. 느네 거 뭣허는 짓이냐고.
@1 으.
#1 나가이 조금 우리 형님도 잇주만은 내가 우리 왕이거든. 나 말이믄 꼼짝 못헤.
@2 예.
#1 그니까 그거 안 뒌다고.
@1 응.
#1 아 이거 결정헌 거 어떵 헙니껜. 아 경헨에 경허라 헷는디. 아 겐디 그게 나오당 나왐시믄 좋은디 원 안 나와 자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손주들끄지 데령 나온단 말이여.
@2 얼마 줘 흔 사름이?
#1 십만 원 주지.
@1 오 세네.
#1 게니까.
@2 지금도 그런 식으로?
#1 응. 경허니까 아니 이게 꼴이 사나운 거라. 아니 돈 안 줄 때는 안 나오다가 돈 주렌 허니까 손주끄지 데령 돈 벌러온다 이 말이여.
@1 옛날엔 벌초 안 나가민 벌금 내곡 헤나신디.
#1 벌금 내렌 벌금, 벌금 그 놈이 벌초 안 허는 놈이 돈 내겟어?
모두 (웃음)
@1 경헤도 어디 멀리 갓당이라도 벌초헐 때는 다 와야 뒌덴 허멍은에.
#1 경헹 벌금 낸덴 헤봐야 그, 그런 것들은이, 저 어디, 저 도웨지 가서 그건 자신이 못 나오니까 그걸 내주지만은, 이 저 안 간 놈은이 벌금 안 내곡 거시기 안 뎅기는 거라.
@1 으.
#1 그런, 그런 ᄀᆞ튼 종자라도 그런 종자도 잇단 말이여.
@1 예. 갈 땐 뭐 밥 먹을 것도 쌍 갑니까? 상에, 그 산에 제지낼 것도 쌍 가고?
#1 아니.
@1 벌초엔 제는 안 지냅니까?
#1 안 지내. 우린 묘제 허니까 안 지내.
@1 아.
@2 묘제로 헤 갖고.
#1 묘제 허믄 끗나.

@1 음. 삼월에 한번 허민 끗나?
#1 묘제 한번 허민 벌초허는 딘 아무 것도 안 헤.
@1 음 거믄 묘제헐 때 삼월에 가근에 무덤에서 산에서 다 절허곡 헤근에.
#1 으, 으.
@1 제물 올리고 영.
#1 으, 제물 올리고 거기서 제지내, 산마다.
@1 으. 그믄 벌초헐 땐 그냥 강 일만 헹.
#1 으, 으, 으.
@1 밥 먹엉 집이 오는 거구나예? 식당에 강 밥 먹엉.
#1 그디 강 무시거 올리곡 거 먹곡 허당 보믄 거 산 얼마나 많은디 그거 다 허겟냐? 경헹 끗낭 와근에 국수 헹 먹어. 식당이 강. (기침)
@1 삼춘네 가지벌촌 산 멧 자리나 허는 거꽈?
#1 가지벌촌 우리, 우리 가지는 보통 흔 열댓 자리벳기 안 뒈어.
@1 으. 그믄 팔월 초하루는 문중벌초꽈? 보통 팔월 초하루에 벌초 헤나수게.
#1 거는이 보통, 저 보통 집안이 경 허는디. 저 각 집안마다 틀려.
@1 예.
#1 팔월 쳇 주 일요일.
@2 으. 건 정헤졋구나.
#1 팔월 일일이 아니라 쳇 주 일요일.
@1 이젠 경 허는디, 옛날엔 팔월 초하루에 허지 안헤수과?
#1 그렇게도 헤낫주. 그렇게 팔월 초하루에도 허곡. 팔월 뭐, 뭐 이틀로 오일날까지 경정 허는 디가 잇는데. 그게 공무원덜이 많아 노니까 이제는 팔월, 팔월 쳇 주 일요일. 그게 보통 많아.
@2 삼춘네 집안이 공무원이 하구나?
#1 으?
@2 공무원이 하구나, 삼춘네 집안이.
#1 공무원 벨로 엇다게.
모두 (웃음)
#1 아니 우리는 직장 안 뎅기는 사름 어디 엇냐, 직장 거의 다 무슨 직장이든지 봉급이 많고 적으냐가 문제지 직장 안 뎅이는 사름 잇나. 직장 안 뎅이는 사름은 건 사름이 아니지.
@1 아니 옛날에 벌초 방학 헤근에 팔월 일일날 우리 학교도 안 가고 헤나신디.
#1 으, 으, 으. 벌초 방학 헤낫주.
@1 예 기지예? 그때 팔월 초하룻날에 헨에 벌초 방학 헤낫주마씨.
#1 벌초 방학 헤낫을 거여.
@1 겡 이젠 그거 다 엇어젼에, 다. 일요일날예?
#1 으. 게난 이제는 학생들까지 벌초 허렌 헐 수 엇잖아.

@1 으.
#1 엇어진 거주.
@1 이때, 이때 산에 갈 때는 뭐 산담도 잘 영 다곡 영도 헙니까?
#1 산담?
@1 산담 몰아져시민.
#1 산담 몰아지민 닿아야지. 산담 닿아.
@1 그 벌초헐 때?
#1 경 벌초 잘못, 잘못 담 쓰러지는 수도 잇곡.
@1 으.
#1 다 그 쓰러지믄 그때그때 닿아.
@1 으. 저 벌초 안 헌 산 보민 막 욕헌덴 허멍예? 식겐 안 헤도 벌초는 헤산덴 굴안게만은. 삼춘네도 경 헙니까? 벌초 허는 걸 막 중요허게 여기드라고예?
#1 벌초는 헤줘야주게.
@1 거난 골총 뒌 산 보민 막.
#1 골총 뒌 산 제사 안 지내는 사름. 아 건 옛날 사름은 아니주만은 가까운데 들어간 사름이야 벌초영 제사 안 헐리가 잇나?
@1 아니 그니까 벌초가 더 중요허다 영 헌 말로.
#1 으, 으, 으. 아 건, 건 맞겟지. 벌초가 더 중요허지, 제사보다는. 아 게 낭 벙덩허잖아게. 그니까 제사는 못 지내도 벌초는 헤야지.
@1 으.
#1 그, 그 자기네 밧디 산 벌초 못 헌 거 잇이민 그 밧 임제 벌초 헤줘.
@1 아 놈잇 거라도? 놈이 산이라도?
#1 벌초 헤줘. 그거는 헤줘도 나쁜 게 아니거든.
@1 으.
#1 거는이 귀신이 알아도 좋은 거고. 근데 남이 산 벌초 안 헤도 자기 산 벌초 허멍 그 우트레 칠헤 부는 사람 잇잖아?
@1 으.
#1 산이 옆이 잇으믄. 자기 산 벌초 허면서 풀 그 우트레 치데겨부는 그런 놈은 벌 받는다고.
@2 그렇주. 벌 받아야주.
#1 그런 디 잇어. 그런 디 잇어, 그런 사람들 잇어.
@1 으.
#1 산 막 데깍허게 잇으믄이 풀 던질 데 엇이믄 그 먼 디 강 그 우트레 치대경 가는 놈들이 잇단 말이여.
@1 으.
#1 막 못 뒌 놈덜이여.
@1 그니까예.

팔월 멩질

@1 팔월 멩질, 지난 번엔 벌초까지 얘기헷고예?
#1 벌초?
@1 벌초 헌 말까지 들어보고예. 오늘은 팔월 멩질부터 물어보젠예. 팔월 멩질 헐 때 허젠 허민 준빈 무신거부떠 준비헙니까?
#1 준비?
@1 으.
#1 팔월 멩질 준비는 뭐 바로 제사지내는 거나 똑ᄀᆞ치 준비허지. 견디 보통 저 송편 허지, 송편.
@1 아 팔월엔 송편 헙니까?
#1 으, 송편.
@1 음. 솔벤, 절벤 안 허고?
#1 그런 거 안 헤. 송편을 많이 헤.
@1 아. 남자들은 헐 일이 뭐 이십니까? 팔월 멩질 돌아왐저 허민. 여자들은 막 바쁜디.
#1 여자들은 제사상 준비허는 거 남자들 같이 헤야지.
@1 삼춘 미신거 도와줍니까?
#1 전 지지는 것도 허고.
@1 삼춘이 직접 전도 지젼마씨?
#1 아 그렇지. 그 ᄀᆞ치 헤야지.
@1 와. 미신 전 지져수과? 옛날에는.
#1 옛날에? 옛날은게 뭐 소고기허곡 뒈지고기벳기 더 잇어게.
@1 으.
#1 다른 거 없지. 겨곡 저 바닷고기적갈이?
@1 미신걸로 헙니까, 바닷고기는?
#1 그거는 무슨 뭐 바다 그 큰 고기덜 잇잖아. 저 뭐니.
@2 상어?
#1 삼치나이.
@2 상어.
#1 삼치. 상어는 아니고.
@1 삼치도 헙니까?
#1 저, 저. 대정 많이 나는 거 뭐?
@2 방어.
#1 방어, 방어, 으, 그런 거 큰 거 헤근에 적 허는 거주게, 그거.
@1 소고기, 뒈지고기.
#1 솔변 절변 뭐 허는 거는이 정월 멩질에.
@2 정월 멩질에.

#1 정월 멩질에 허고. 팔월에는 송편 ᄀᆞ튼 거 헤, 송편.
@2 팔월에 송편 허는데 그 송편 일름은 이 동네서 뭐렌 헙니까?
#1 송편 이름을?
@2 으.
#1 송편 이름 뭐야, 송편이엔 허지.
@2 조개솔벤?
#1 솔벤, 솔벤.
@2 조개송편.
#1 아니.
@2 아니? 그냥? 어떵 생겨수과?
#1 어떵 생겻어? 이렇게. 이렇게 생견, 이렇게.
@2 아 반달처럼?
#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헤서. 아 밀어가지고 여기 저 팟도 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 아녀.
@2 예. 만뒤떡 식으로 허는구나?
#1 으. 그 옛날은이 ᄆᆞ밀, ᄆᆞ밀, ᄆᆞ밀 송편으로 헤낫어.
@2 ᄆᆞ밀 송편?
#1 ᄆᆞ밀 송편, 건 크게.
@1 으.
#1 건 막 커. 팔월 요즘은 그 쌀로 허는 건이 작은데 그거는 막 크게 헤여. 이렇게, 이렇게 크게.
@2 예.
@1 그것도 송편이엔 ᄀᆞᆯ읍니까?
#1 거 송편이엔.
@1 다른 이름으로 ᄀᆞᆫ는 말 엇어?
#1 건 엇어.
@1 음. 그 멩질 헐 때 차례상은 그믄 정월 멩질 헐 때예? 상이영 다른 게 송편밖에 엇수과? 다른 거 엇어마씨?
#1 아니 게난 그 저 문친떡 헤근에 그 우이 송편을 올리는 거 아냐.
@1 아.
#1 우리 적 두 개 올리고.
@1 예. 문친떡 두 빗 허곡.
#1 두 빗 올린 그다음 송편으로 이렇게.
@1 송편 놓곡.
#1 이렇게, 한 뒈로 놓곡 쫙. 이렇게 두 개씩 ᄒᆞ나 영 놔가지고 우에 또 ᄒᆞ나 걸쳐.
@1 음. 송편을?
#1 으.

@1 겡 그 우에 우찍 안 넣고? 우찍.
@2 우지시.
#1 건 거시긴 안 놔.
@1 아 팔월 멩질 헐 땐 안 놔?
#1 으, 정월 멩질 헐 때 작굿떡 다 헐 때에만 그걸 놓지.
@1 어.
#1 그건 안 놔.
@1 작굿떡 다 헐 때?
#1 정월 멩질 작굿떡 다 헐 때 솔벤, 절벤 다 헐 때. 그거, 그거.
@2 우지시를 놔가지고.
#1 별떡을 놔가지고 그 이렇게 논 다음에 그 명절에 허는 거, 그걸로 허는 거지.
@1 아, 겡 작굿떡이엔 헌 말은 무신 뜻마씨?
#1 작굿떡?
@1 으.
#1 아 솔벤, 절벤 미시거 잇잖아. 동그랑헌 거 소랑헌 거 네귀방장헌 거.
@1 예, 그거 다 합쳐근에 작굿떡이엔 곧는 거구나예?
#1 으, 그거 작굿떡이엔 전부.
@1 아. 겡 팔월 멩질엔 작굿떡 안 허는 거?
#1 으, 경 안 헤. 정월 멩질에만 헤여.
@1 아. 탕쉬는?
#1 탕쉬는? 탕쉬는 뭐 고사리허곡 나물.
@1 미신 나물?
#1 콩나물.
@1 콩나물허고.
#1 콩나물허고 그거벳기지, 미신.
@1 두 개만 허여? 세 갠 안 헤?
#1 ᄒᆞ나는 묵.
@1 ᄒᆞ나는 묵, 아 맞아, 묵 헌덴 헷지예?
#1 으, 묵.
@1 뭐 호박이나 뭐 양에나 이런 것도 안 헤?
#1 거 헤여.
@1 건 탕쉬 아니꽈?
#1 거 허여.
@1 거 허여.(웃음)
#1 거 양에.
@1 양에예?
#1 으, 양에는 허여. 양헤도 허고, 호박도 헤.

@1 으.
#1 호박도 허는디 그거 허게 뒈믄이 그 ᄀᆞ치 서껑 세 개만 놔.
@1 ᄀᆞ치 서껑 놓는 건 훈 그릇에 영 세 개 서껑 놓는 거꽈? 아니민 어떵 헌덴 헌 말이과?
#1 겡 그건 양에만, 양에만 고사리에다가 저 양에 놓곡.
@1 어.
#1 또 그 양에허곡 호박 경 놀 수 잇어.
@1 두 개 반반?
#1 어. 게곡 묵은 ᄯᅮ로 허고.
@1 묵은 ᄯᅮ로 허고. 그거 하영 헤지믄 반씩?
#1 고사리허고 양에허곡.
@1 콩ᄂᆞ물 허고.
#1 콩ᄂᆞ물 호박 서끄는 건 안 좋잖아.
@1 건 안 좋아?
#1 거니까 양에 허는 딘 ᄀᆞ치 호박허곡 ᄀᆞ치, 그디 세 개 놓는.
@1 콩ᄂᆞ물에 양에 저 호박은 무사 안 좋은 거마씨?
#1 건 동글락허게 간 헌 거니깐 별로 안 좋잖아.
@1 하난 동글락헌 거 하난 가늘곡 안 좋아?
#1 으. (웃음)
@1 어. (웃음) 이때 팔월 멩질 때도 놈이 집이, 아 친척네 집이 저 멩질 먹으레도 갑니께예?
#1 으.
@1 세밴 안 헤도예?
#1 세밴 안 허고.
@1 세밴 안 허고예? 겡 종손칩이 제일 말짜 가는 거?
#1 제일 마지막에.
@1 으, 게민 삼춘네 집은 몃 번째꽈? 몃 번째 삼춘네 집이 와?
#1 우리 집이는 세 번짼가?
@1 세 번째? 으. 겡 먹엉, 삼춘.
#1 그니까 처음 허는 집만 먹곡 그다음에도 안 먹잖아.
@1 으.
#1 먹엇으니까 겡 그 감주나 훈 잔씩 허곡. 다 지냉 가근에 경헤가믄이 나 때 가믄 중간이 허는 집이 뭣고, 그다음에 제일 나중에 종손칩이 가서 앚아서 또 술도 훈 잔 먹곡 밥은 안 먹고.
@1 으.
#1 술, 안주나 먹곡 그 방상훼 얘기이? 방상훼 허는 얘기들이 거 다 미리 헐 게 이실 거 아냐, 그런 얘기허곡 헤.

@1 아.뭐 까스치기도 허고?
#1 아 그런 건 안 헤.
@1 그런 건 안 헤?
#1 그런 오락은 안 헤.
@1 아 의논만예?
#1 으.
@1 의논헐 거 이시믄 의논허고.
#1 오락은 별로 안 헤.
@1 아 저디서 헙디다? 저디 박아진 디선 헙디다.
#1 아 저딘 우리 노인당 그 사름덜이 허는 거고. 멩질 때는 별로 안 헤.
@1 아. 뭐 윳놀이 이런 것도 안 허고?
#1 그런 것도 안 허고.
@1 으.
#1 웨냐면 건 저 작은 집안, 작은 집안 단솔헌이 자기 가정만 그런 디는 지내고 헐 게 없으니까 뭐 고스돕도 치고 윳도 놀곡 허는데. 이 우리 큰 방상은이 그거, 그거 못 헤, 거. 헐 시간이 없어.
@1 아.
#1 으, 그 영 흔 열세 군데 지내다 보믄 거 해가 거의 가는데.
@1 열세 군데나 먹읍니까?
#1 그렇게 뒈.
@1 어.
#1 으. 그 보통 열 촌이. 열 촌ᄁᆞ지 허잖아, 열 촌ᄁᆞ지.
@1 ᄀᆞ치 멩질 먹는 디.
#1 열 촌ᄁᆞ진 한계, 열촌 넘으면은 거 빼지곡.
@1 으.
#1 열 촌ᄁᆞ진 거의 한 집안으로 허잖아.
@1 으.
#1 그니까 열 촌이민 뭐 가문이 많은 디는게, 뭐 집안이 막 많으니까. 흔 열세 군데지.
@1 으.
#1 경 뒈어.
@1 팔월 멩질 때 밤에 돌구경도 가곡 헙니까?
#1 그런 건 안 헤여.
@1 뭐 모영 놀곡 영 허는 건 엇어마씨?
#1 엇어.
@1 으, 이디 어디 토산봉에 올르곡 영 헹 강 달 보레 가고.
#1 아니.

@1 안 헤. 옛날에도 안 헤나수과?
#1 옛날에도 없어.
@1 삼춘 결혼허기 전이.
#1 그런 거 없어.
@1 그런 거 없어?
#1 으.
@1 (웃음)
#1 돌구경 마당이서 허는 거지 뭐, 돌구경 헐 거 잇나.
@1 아이 경헤도 특별허게 큰, 크게 팔월 보름에는 달도 크고.
#1 팔월 보름 집이 동산 올라가근에 영 보믄 더 좋지 미신.
@1 (웃음)
#1 어디, 어디 올레 그보담 더 좋은 데 어딧나.
@1 아니 처녀, 총각들 모영도 놀곡 헌덴 헙디다?
#1 아 건, 그건 처녀, 총각들이 허는 거.
@1 거난 삼춘 결혼허기 전이.
#1 그건 우린이. 경, 경 펜안허지 안헷저. 뭐 먹을 것도 엇엉 허는디. 연애허레 미시거 뭐 잇어근에 뭐 사곡, 뭐 허곡 뭐 돈이 잇어야 뭐 연애허러 뎅기지. 뭐, 여자 찾아강 뭐 아무 것도 안 사주고 뭐, 뭐 헐 수 잇나?
@1 삼춘.
#1 없잖아. (잡담)
@1 팔월에 뭐 백로, 추분 막 이런 거 잇는데 특별허게 허는 거 이수과, 이 동네?
#1 백로에는 백중을 말허는 거여. 그거 백로라는 거 백중.
@1 백중 잇고, 그다음 백로 따로.
#1 게메 백로 건 절긴데.
@1 예, 예.
#1 절긴데 거 백로 에염 따르는 거 엇곡. 팔월 그때 보민이 저 뭐 행사허는 건 그 백중 제사지내는 것벳기 없어.
@1 으.
@2 게난 팔월 멩질 때는 막 바쁜 철 아니꽈? 막 바쁜 철 아니? 팔월 멩질 기간.
#1 팔월 멩질엔 좀 바쁘지, 바쁘주.
@2 예, 뭐 허멍 바쁩니까? 그때는.
#1 아 소 길루는 사름은 촐, 촐 베야지.
@1 으.
#1 그거 따문 다 질롸야지. 그, 바빠.
@2 게난 멩질 먹어근에 막 저기 촐 비레도 뎅겨난?
#1 으, 촐 비레 뎅겨. 게곡 멩질 먹엉 또 ᄆᆞ밀도 비러 가야잖아, ᄆᆞ밀 갈레.
@2 으, ᄆᆞ밀도 갈곡.

#1 으, ᄆᆞ밀도 팔월달에 갈아, ᄆᆞ밀. 겡 농촌이서 헐 게 많아.
@1 으.
#1 경 놀레 뎅길 시간이 없어.

구월

@1 그 음력 구월에 당에도 가곡 합니까?
#1 당에?
@1 예.
#1 당에는이 보통 가. 막 그 달달이마다 잇어, 달달이.
@1 아 달달이.
#1 으, 달달이. 게난 달달이 가는 사름이 잇고. 거 종류가 여러 가지라.
@1 예, 예.
#1 그 당에 가는 것도.
@1 무신 종류, 무신 종류 이수과?
#1 그난 그게 그 자기 허는 그런 거 헐 때는 가는 거지.
@1 으.
#1 보통 매달 잇어. 매달에 잇어, 그런 거.
@1 으, 특별히 그 시월달에, 음력 구월에 크게 헤근에 ᄀᆞ치들 허는 건 엇고?
#1 그런 거 없어.
@1 그런 거 엇어예?
@2 게도 본향당에들은 갈 거 아니?
#1 겡 본향당이엔 헌 게 그거지, 그거. 본향당이란게, 그게. 그 본향당이 뒈지 먹는, 뒈지고기 못 먹는 본향도 잇고. 으, 으. 아 뭐 이상한 본향당이 많아 종류가.
@2 으, 게믄 토산이 당이 멧 개나 이수과?
#1 당은 ᄒᆞ나.
@2 당은 ᄒᆞ나?
#1 으.
@2 어디에 잇어? 그 당은.
#1 그, 저 ○○○.
@2 어디?
#1 ○○○ 호텔.
@2 으, ○○○ 호텔. 지난번에 본 거. 으, 으.
#1 그 앞이 잇어.
@2 아.
#1 게곡 뒈지고기 안 먹는 저 당은이 세화리에 잇어, 세화리서.
@2 으.

#1 세화리.
@2 세화리. 게믄 이딧 사름덜이 세화리 가?
#1 으 그거 믿는 사름은 그디 가지.
@2 아.

상강

@1 음력 구월에 백로여 상강이여 영 허는디 이때 특별허게 하는 거 잇어마씨?
#1 없어.
@1 상강에 뭐.
#1 상강은 거 절기 따라서 이제 상강 뒈민 각 고구마 캐는 거 아냐.
@1 아 상강 뒈민 감저 캐러 갑니까?
#1 으 상강 전이 캐는 거라고.
@1 아.
#1 상강 전이 크니까 상강 뒈면 고구마 딱 판다고.
@1 아.
#1 으, 고구마 파. 그 백로 미신 상강 미신.
@1 절기예?
#1 으, 절기 전부 그 농사 관계된 거여. 하지.
@1 예. 농사는 ᄒᆞ꼼 이따 한꺼번에 다시 물어보쿠다예?
#1 그 유월절이란 게 저 거시기 아냐. 그거는 그때 뒈믄 고구마 심는 거야.
@1 아 유월절에 심엉.
#1 심엉.
@1 상강 뒈민 파는 거.
#1 상강 뒈민 파는 거지.
@1 어, 어.

십일월

동지

@1 십일월에는 동지에는 미신거 헙니까? 동지
#1 동지는 그때 팟죽 쒀 먹는 거 아니?
@1 팟죽 쒕 먹읍니까?
#1 으, 으. 유월, 유월 스무날 ᄃᆞᆨ 잡앙 먹고이.
@1 예.
#1 동지엔 풋죽 쒕 먹는 거라.
@1 풋죽은 무사 쒕 먹는 거마씨?
#1 건 병, 병을 예방허는 거라.

@1 아 병을 예방허는 거?
#1 준병 없애는 거.
@1 풋죽 먹으민 준병 엇입니까?
#1 으, 귀신도 못 들어오게 허고.
@1 아 귀신도 못 들어오게 허곡. 으.
#1 그 풋은 귀신을, 귀신을 예방허는 거.
@1 아, 삼춘네 어렷을 때 풋죽 쒕 먹어난마씨?
#1 으, 풋죽은 뭐, 풋죽 쒀 먹을 거 딱 헹 놧다근에 쒕 먹어.
@1 어, 그 풋죽 안 쑤는 동지도 잇덴 헙디다?
#1 풋죽 안 쒀 먹는 디도?
@1 동진데 풋죽 안 쑤는 동지.
#1 안 쑤는 동지?
@1 으.
#1 풋죽을 안 쑤는 동지?
@1 으.
#1 거는 몰, 몰르는 사름덜이여.
@1 건 몰르는 사름들이여? 무신 애기동지여 영허민 그때 풋죽 안 쒀 먹는 거여 영 굴안게만은 그런 말 안 들어봅디가?
#1 아니.
@1 그런 건 엇어? 으.
@2 삼춘 그 풋죽 쒕은에 어머니나 할머니나 집 주위에 이렇게 뿌리진 아녑디가? 풋죽 쑤는 날.
#1 안 쒀.
@1 안 쒀.
@2 올레 강 저 뿌리지 아녀?
#1 거이 저 절간 ᄀᆞ튼 디서 와가지고,

올레코시

#1 이, 저 올레코시.
@2 예.
#1 정월ᄇᆞ름에 올레코지 헤나면 풋을 가지고 막 뿌려.
@2 아 올레코시 끗나민?
#1 으, 그니까 그 풋은이 그 구신을, 이.
@2 방지허는 거.
#1 으, 방지허는 거여. 그러니까 그 올레코시 헤나믄 다 영 풋 아져당 문 뿌려.
@2 으. 삼춘네도 올레코시 헤낫구나예?
#1 옛날엔 헤낫지.

@1, 2 으.
#1 지금은 안 헤.
@2 게난 올레코시는 무사 허는 거우꽈?
#1 올레코시?
@2 으.
#1 올레코신 그 해, 그 해게 뭐 집안에 좀 무사 헤달라는 거 아녀. 경헹 그 나쁜 구신 오지 못허게 허고 경 비는 거지.
@2 으. 게믄 그때는 누게가 왕 헤? 삼춘넨 헐 때는 누게가 왕은에 올레코시 헤?
#1 건 옛날에는이 심방들이 우린 불교 믿으니까 절간이서 왕 헤여.
@2 아, 스님이 와근에 허는구나.
#1 으, 스님.
@2 어느 스님? 어느 절간? 어느 절간?
#1 우리 절간, 우리는 이 표선이서 허던 사름이 저 시에 갓어. 게난 그 시에서 왕 헤여. 겐디 이제 나이 먹엉 안 허지만은.
@1, 2 예.
#1 흔, 흔 이 년 전ᄁᆞ진 헷어.
@2 아 해마다 안택 헹 올레코시 헷구나? 스님 모셩예?
#1 으, 스님 모셩. 근디 우리 이제 나이 먹엉 안 허지만 그 사름 그디ᄁᆞ지 허는 사름은 지금도 불러당 허는 사름 잇어.
@2 게믄 연초 뒈면은 그런 올레코시들은 이 동네 허는 집이가 잇구나예?
#1 으, 으.

팥죽 쑤기

@1 풋죽에는 뭐 새알심 ᄀᆞ튼 것도 놉니까?
#1 으.
@1 똥그랑허게, 뭐예? 쏠, 쌀가루 막 헤근에.
@2 걸 뭐렌 ᄀᆞᆯ아마씨?
#1 몰라 동그랑땡?
모두 (웃음)
@1 그거 엿날에도 놩 먹어수과, 이제사 넣는 거꽈?
#1 옛날에도 놩 먹엇어.
@1 옛날도 놩 먹어서?
#1 으, 그게 옛날엔 없으니까 잇을 땐 넣고 없을 때는 또 안 넣고 그래.
@1 으. 음력 십일월에 저 뭐.
#1 음력 십일월에?
@1 예, 예.
#1 그때는이 뭐 가을걷이 허다 보믄 막 바빠.

@1 어.
#1 지금은이 완전히 바빠, 그딘.
@1 으.
#1 지금 과수원 때문에 완전히 그딘 수확철 아녀. 십일월부터 일월끄지이.
@1 어.
#1 일월끄진 쉴 틈이 없어. 매일 바빠.
@1 옛날에 삼춘 미깡 밧 허기 전이예? 그때 십일월 때예.
#1 그때는 추석 끗나민 놀앗지. 겨울에.
@1 예.
#1 겨울에 놀앗어, 헐 게 없으니까. 놀앗지 그때는.

지붕이기

@1 그 집, 지붕예?
@2 집 이는 거.
@1 집 이는 것도 헤나수과? 그건 언제 몃 월달에 허는 거마씨?
#1 삼월달에.
@1 아 삼월달에.
@2 일 년에 한번?
#1 봄에, 봄에.
@1 봄에. 일 년에 훈번 헙니까?
#1 으, 일 년에 훈번.
@1 일 년에 훈번. 게민 그거 허젠 허민 어디 강 새도 비엉 놔두곡 헤얄 거 아니우꽈예?
#1 그렇지, 새, 새왓 헤근에 자기 새왓이 잇던지.
@1 으.
#1 경 아녀민 남는 거 사든지 그래야주.
@1 그럼 그거 언제쯤 비엉 장만헹 놔두는 거우꽈?
#1 아, 건 십일월 경에 다 비주.
@1 음력 십일월?
#1 다 자라근에이 완전히 다 자라믄 거 비엉 무껑 눌엉 놔야주게.
@1 어. 말려가지고? 아니면.
#1 말려서.
@1 예.
#1 말려야지 경 말리지 아녀민 퉤비 헤불렌? 퉤비 뒈분단 말이여.
@1 예.
#1 말리지 아녕 허는 건 퉤비.
@1 어.

#1 퉤비로 쓰는 거라.
@1 그럼 그, 새밧디, 새왓디서 물려근에 무껑 가졍 옵니까? 아님 집이 와근에 어떵 허는 거라?
#1 새왓, 보통이 집이, 새는이 집에 왕 눌엉 놔둬.
@1 아. 집이 시껑 와근에.
#1 또 그 집 이는 새가 잇고.
@1 예.
#1 또 각단이엔 헌 거 잇어, 각단.
@1 예.
#1 그 짧은 거, 새보담 짧은 거. 그거 비어가지고 각단이엔 헤가지고 무꺼가지고 그거는 줄 헤, 줄. 줄, 줄 새끼 거 각단으로 줄을 멘든다고, 새로 허는 게 아니라.
@1 아 줄 내젠 허민 각단도 잇어야 뒈고.
#1 으, 각단으로 줄 내곡. 새는 이런 일곡.
@1 으. 각단은 ᄒᆞ꼼 쫄른 거꽈?
#1 으, 쫇은 거, 쫇은 거.
@1 그건 저 새밧디 ᄒᆞ꼼.
#1 새밧디 조금 춤 그 베*지. 땅이 좋지 아년 데 그게 나잖아. 새허곡 같이 큰데 거름이 땅이 나쁘니까 크지, 얼마 크지 아년 거지. 새는 잘 크고.
@1 예.
#1 게민 새는 새대로 비곡 각단은 각단대로 비어 가지고 각단허곡 새는, 새허곡 각단은 잘 집이 헤다 놧근에 줄을 걷엉 줄 내엉. 줄 다 만들아 논 다음에 집 이는 거 아녀.
@1 으. 삼춘 집도 일어수과?
#1 으, 집 일어낫지. 집 잘 일어.
@1 그믄 그거 허젠 허믄 어떵 어떵 허는 거우꽈?
#1 으?
@1 집 일젠 허민 어떵 어떵 헹 허는 거?
#1 아, 집 어떵 일어? 집이 올라근에 새 영 쫙쫙쫙 펴근에 쫙 펴놩 알로부떠 딱딱 이 집이, 집이, 집이 이렇게 잇으면.
@1, 2 예.
#1 새로 헤근에 이렇게 여기, 여기 모서리, 집이 이렇게 모서리가 이디 영 잇잖아.
@2 예.
#1 집 모서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ᄆᆞ루 잇고. 이렇게 이렇게 잇잖아.
@1 예, 예, 예.
#1 게니까 요디로 여기를 잘헤야 뒈, 여기.
@2 아, 상ᄆᆞ루 밑에?
#1 여기. 여기, 여기, 여기.

@2 거기를 뭐렌 헙니까?
#1 요건 상ᄆᆞ루고이. 이건 가진데.
@2 예.
#1 이 가지 요 높은 디 그디를 잘헤야 뒈.
@2 음.
#1 비 안 샐 게 헐려면. 그 전이 여긴 편편허게 페움만 허민 뒈고. 이 모서리는이 새를 요렇게 헤야 뒈, 요렇게.
@2 양쪽으로 벌려서.
#1 이렇게. 이 모서리를 이렇게 모이곡 이거는 쫙 페와지게.
@2 예.
#1 경헤서 쫙 우트레 페와가야 뒈. 이 아래를 ᄆᆞᆫ저 깔곡. 이 모서리는 인제 이렇게 이렇게 페와 가멍 우트레 쫙 올라오는 거라. 여기 쫙 올라오고. 게서 상ᄆᆞ루는 또 이제 여기도 허고, 여기도 허고 그렇게 헤 놓고 상ᄆᆞ루는 또 쫙 꼴아가지고 이렇게 또 싹허고.
@2 맨 마지막에 상ᄆᆞ루 더프는 거라.
#1 으. 경헤서 무끄는 거는 이렇게 ᄒᆞᆫ번 무끄곡, 이렇게 한번 무끄곡이. 여기도 한번 무끄고, 요렇게 한번 무끄곡.
@2 앞가지부떠 쭉 무껑.
#1 으. ᄒᆞᆫ 번 이렇게. 이디도 ᄒᆞᆫ번 이렇게.
@2 으.
#1 그다음 여기도 ᄒᆞᆫ번.
@2 으.
#1 여기도 한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2 으.
#1 겨민 이게 이렇게 이렇게 뒈지. 이렇게, 이렇게.
@2 예, 예, 예.
@1 어.
#1 이렇게 엉겨지니까 이게, 이게 잘 안 불잖아.
@1 어.
#1 이것도 ᄒᆞᆫ 밧딜로 쫙허곡 ᄒᆞᆫ 밧딜로 쫙허면 이게 엉키질 안헤.
@1 예, 예.
#1 이게 이거 ᄒᆞᆫ번 허고 ᄀᆞ로 ᄒᆞᆫ번 세로 ᄒᆞᆫ번 허는 게 이게 엉키게 허는 거라고.
@1 어.
#1 엉키게 경헤야 잘 쫙 눌러지잖아.
@1 예. 겡 엿날에 보통 삼간집이잖아예? 보통 옛날은 삼칸집 정도 아니마씨?
#1 으, 으.

@1 삼칸집 허젠 허민 새는 어느 만이 들어가는 거마씨? 집 일젠 허믄.
#1 그 보통이 보통, 에, 흔 바디가 삼십 전이거든?
@1 예.
#1 흔 삼칸집은 흔 다섯 바리쯤 들 거라.
@1 다섯 바리쯤 들어. 더끄는 새만예?
#1 으.
@1 그믄 각단은 어느 만이 잇어근에 줄은 어느 만이 만드는 거우과?
#1 각단이야 그건 줄, 줄 놓는 것에 따라 다르지. (기침) 줄은 막 솔지게이 솔지게 놓는 수도 잇곡.
@1 으.
#1 으, 또 ᄀᆞ늘게 놓는 수도 잇고.
@1 예.
#1 겡 각단 보멍 걸 놔 가는 거지.
@1 어떤 게 좋은 거라? 솔진 게 좋은 거꽈, ᄀᆞ는 게 좋은 거꽈?
#1 아 솔진 게 좋주만은 모자람직 허믄 ᄀᆞ늘게 놓는 거지.
@1 아 각단이 모자람직 허민.
#1 으, 겡 허단 모지르민 새도 헹 새도.
@1 각단 부족허민 새로도 허곡.
#1 삼칸집이민 가롯 줄이 멧 개 세로 줄이 멧 개 딱 나와.
@1 몃 개정도 들어갑니까?
#1 으?
@1 멧 개 정도? 대충.
#1 그거이. 그거 대략 가로가 흔 삼십 개. 세로가 흔 열다섯 개 정도. 세로가 흔 스무 개, 가로가 흔 서른 개 뒐 거여.
@2 건 너무 쪽은디? 너무 족은디?
#1 뭐?
@2 너무 족아마씨.
#1 족아?
@2 예게.
#1 아니 삼칸집이민 그 정도민 뒐 거여.
@2 아이고.
#1 가로가 많이 들어.
@1 으.
@2 가로가 진줄이우꽈? ᄍᆞ른줄?
#1 아니, 세로가 진줄이지.
@2 세로가 진줄이지예? 진줄은 멧 개? 멧 개 필요헤?
#1 게메 진줄이 흔, 흔 스물다섯 개 정도 뒐 건가? 저 가로는 흔, 흔 오십 개 들겟다

이?
@2 그렇지.
#1 아니 흔 마흔 개 들겟다.
@1 으.
#1 가로가 많이 들지.
@2 어쨋든 쭈른줄, 쭈른줄이 하영 드니까. 어쨋든 지붕이 기니까양?
@1 으.
@2 그다음에.

장 담그기

@1 이때 저기 뒌장도 담급니까? 장 담그는 것도 이때 헙니까?
#1 뭐?
@1 뒌장.
#1 뒌장?
@2 콩 언제 숢읍니까?
#1 뒌장 어떵?
@1 음력 십일월에 뒌장 메주도 쑤곡 뒌장도 준비허곡 헙니까?
#1 거 장 담가 놔근에 뒌장 빼내곡 간장 빼내는 거지.
@1 예, 게난 메준 언제 정도 숢아? 몃 월달쯤에?
#1 메주?
@1 으.
#1 거 ᄀᆞ만 잇어봐, 메주.
@1 거 봐 할무니 잇어야 뒈크라. 여자 삼춘이 잇어야 뒈크라. 다 물어보렌 헨게만은. (웃음)
#1 것도 날 봥 담아.
@1 예, 맞아 날 봥 담아예?
#1 개날에 많이 담지.
@1 아 개날에 하영 담급니까? 으, 무사 개날이 좋은 날인가?
#1 몰라 거 개날, 소날 경 담아.
@2 소날은 안 담을걸, 니치름 흘려부니까. 물날 담주.
#1 물날?
@2 예, 쉐날은 안 헙니다게.
#1 거, 몰라. 좋은 날이엔 헌 건 쉐날이곡 개날이곡 헤난에. (웃음)
@2 삼춘네는 보통 개날 헷구나?
#1 으, 우리 개날 헤.
@2 개날 헨예? 으. 복명도 잇을 수도 잇고.

납평날

@1 그다음 음력 십이월에 엿 담가 먹어, 엿도 만들어 먹어수과? 꿩엿이여 둑엿이여 뭐 이런 거.
#1 그런 거.
@1 안 헹 먹읍디가?
#1 꿩도, 꿩도 잡지 못허는디 뭔 꿩엿을 헹 먹는 거라? 거 옛날에, 거 엇어. 어디 꿩코 놩 ᄒᆞ나 잡으믄 저 멘들 때, 멘들 때 그거 헷다근에 경.
@1 지난 번에 다리 물렷던 거 같은데. 다리 물린덴 헌 거 아니꽈?
#1 으?
@1 꿩 각으로 헨 올린 덴 헤난 거 아니꽈? 꿩 어떵 헹 올립니까?
@2 멩질 때 어떤 식으로 올련?
#1 아니 저 이렇게 앞다리 뒷다리 싹 헤근에 헤다근에 저 간 헷다근에 물렷다근에 궝 올리지.
@1 궝예?
#1 물렷당.
@2 아 패쌍 물령 놔뒀당 나중에 궝은에 올렷구나예?
#1 으.
@1 그믄 엿 담그는, 엿 만드는 날 영 허는 건 엇수과? 이날은 엿 허는 날이여 이렇게 하는 말은?
#1 엿은이 거 거시기로 헤, 밀, 밀. 밀이나 보리나 그 저 거세기 놔근에.
@2 골 놩.
#1 골 놩, 골 놩. 으, 골 놔근에 그걸로 딸려근에 엿 만들어 먹는 거지.
@1 예, 게난.
#1 아 그거는 헹 먹어.
@1 거난 겨울에들 헹 먹는 거 아니?
#1 으, 겨울에 헤 먹어.
@1 예? 그거 허는 날 엇수과? 뭐 납평날이여 이런 말 안 써?
#1 그런 거 엇어.
@1 납평날이여 그런 말 안 들어봔예?
#1 건 날 보멍 안 헤여, 좀 그런 거 헐 시간이 잇곡 허면은 그거 헤서 좀 영양보충으로 헹 먹는 거지.
@1 으.
#1 미신 날 보멍 허는 거 아녀. 날 봥 헤 먹는 디가 잇겟지.
@1 예.
#1 부락마다 풍습이 틀리니까. 여기는 여유가 잇어근에 경 헤먹어지믄 보신용으로 ᄒᆞ썰 헤 먹는 거고, 경 날 보멍 아니.
@2 삼춘은 보신용으로 무슨 엿 헤줍디가? 여자 삼춘이. 뒈야지고기 놩 헤? 아니면.

#1 뒈야지 아니. 옛날에 우리 어무니 헐 때 그 뭐, 뭐. 그, 그 보리 그런 거벳기 안 헷고.
@2 으.
#1 우리 마누라허고 살면서는이 오합주를 헹 먹어, 오합주.
@2 오합주는 어떤 식으로 헹 먹는 거마씨? 오합주가 완전 몸보 뒈는 건데예?
#1 오합주는 몸보신 뒈게 잘 뒈는 거여.
@2 뒈게 잘 뒈는 거잖아예? 오합주엔 뭐뭐 넣읍디까?
#1 오합주는이 그 사름도 뭐 허냐면은이 꿀.
@2 꿀.
#1 참기름, 계란, 또 저 생강. 생강이. 겨곡 저 누룩. 경. 그거 오합주여.
@2 으. 이것만 놩은에 허면은 술이 뒈는 거?
#1 이거 계란 삼십 개, 또 꿀 반 뒈. 으, 참기름, 참기름 거 사이다 병으로 반 정도 넣주. 겨곡 생강 혼 두 부리. 또 누룩, 누룩 약간. 누룩 엇이믄 막걸리 혼 병. 그게 얇으면은 쌀밥 조금 놓면. 건, 건 병으로 놓는 건, 쌀 홉은.
@2 쌀 홉은.
#1 쌀 홉은 병으로 고들밥 쎄게 헤근에 약간 허는 거. 그것만 놓면은 막걸리 놓앙은이 물이 양이 많아. 물이 많으니까 그 고들밥 조금 놓면은 막 얍지 아녀주게. 겨면 이거를 담아가지고 한 삼 일 이시믄 조금 올라와. 올라오기 시작허믄 그거를 좀, 혼, 혼 그거 먹젠 허믄 혼 보름 혼 거의 혼 이십 일로, 이십오 일 먹어.
@2 으.
#1 저 컵으로 반 컵 정도만 먹으면. 한 컵 먹으면이 꿀이 잇기 때문에 독헤여, 독헤여.
@2 으.
#1 목이 좀 저 아프듯 허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반 컵 정도 먹으믄 좋아.
@2 반 컵 정도.
#1 매끼에.
@2 매끼에. 게난 어떵 그거 먹으니까 몸이 어떵 뚜납디가?
#1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지금 몸이 건강한 거라.
@2 게난 그걸 해마다 헹 먹언?
#1 아 그렇주, 아니, 해마다 허는 게 아니라 아, 먹고 나면은 또 이거 한 삼사 개월에 한번씩 헤 먹지.
@1 아.
@2 아 게난 그렇게 오합주를 몃 년이나 먹읍디가?
#1 오합주를?
@2 으.
#1 아 몰라, 몃 년이사 먹어신지. 우리는 기자 일 년에 두 번 정도 먹는디, 두 번 정도.

@2 일 년에 두 번 정도.
#1 으, 으 이젠 계란 많고 허니까.
@2 예, 예. 게난 아예 삼춘이 그냥 멘들암구나? 여자 삼춘이 멘들아주는 게 아니고.
#1 나가 멘들주, 나가 딱, 딱 꿀도 사오곡 다 사오민 아, 거 나냥으로 까근에 탁탁탁 서껑 먹는 거 아냐. 누룩 대신 누룩 재웡 놧는데, 누룩 놓니까 거 누룩 수지가, 누룩 수지가 거 뭐 쌍, 쌍도 놓곡 기자 내엉도 놓는데. 쌍 놔야뒈, 쌍. 게도 저 생강도 쌍 놓곡이.
@1, 2 으.
#1 겡 쌍 놧다근에 그거를.
@2 건져 불고?
#1 뭐 흔 쭉 놓다가 나중에 이제 건져낸다고 먹을 때는.
@2 으.
#1 견디 나는 저 무슨 보약이 무슨 보약, 보약도 다른 것도 많이 헤 먹는데. 나는 보약 먹어도이 표가 안 나. 먹으나 마나야. 이 몸에 어떤 반응이 없어.
@1 으.
#1 저 계란도 먹으민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엇는디 그게 좋은 거 같애, 나가 볼 때.
@2 오합주가예?
#1 게곡 이 방송에도 계란, 계란 그건 좋다고 허잖아. 계란은. 계란은 먹으민 좋다고. 몸은 계란이 좋은 거라, 계란이.
@1 게난 오합주는 그냥 담가놓기만 하면 며칠 지나가지고 먹을 수 잇는 거마씨? 담그면 며칠 지나근에 먹는 거?
#1 아 삼일만 지나민 먹어, 삼일.
@1 삼일만 지나민?
#1 으, 삼일만 지나민 이 목에 올라오니까 계속 먹는 거라.
@1 아. 계란은 까근에 놓는 거꽈 통채로 놓는 거꽈?
#1 깡.
@1 계란 까근에?
#1 까근에 막 젓어가지고.
@1 아. 누게가 경 골아줘근에 먹기 시작헨?
#1 그 느네들 남편들 흔번씩 헤불어. 참 좋나.
@1 (웃음) 게난 삼춘.
#1 경 남편들, 남편 능력도 잘 뒈곡 헤.
@2 우리 어머니가 아부지안테 젊엇을 때 오합주 헤줘나수다. 단지에 요만이 헤갖고.
#1 오합주 헤나서?
@2 예.
#1 으.
@2 참기름, 기름이 둥둥둥둥 떵 노랑허게.

#1 으, 경 트주게. 오합주 좋은 거여. 그거, 그거는이 뭐 별로 이 몸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좋아.
@1 으. 겡 삼춘은 그거 누구안티 들언에 먹기 시작헤수과? 누게가 좋덴 골읍디가?
#1 으, 아니, 아니. 그 저 방송에서 허드라고.
@1 방송에서.
#1 방송이서 계란 헤서 그렇게 드러 먹으민 좋다고.
@1 아.
#1 게서 난 그걸 이제 그건 뭐, 뭐, 건이 저, 저 방송이 허는 거 보니까이 그 노란자만 또 이렇게 구워 먹는 것도 잇더라고. 구워서 먹는 거이?
@2 구워서 먹는 거.
#1 으, 으, 으. 게난 나 그거 헨에 계란이 좋은 걸 알아. 게서 아 요것에 꿀도 넣곡 뭐도 놓곡 허민 좋겟다 헤서 멘든 거지.
@1 어. 누게가 골아준 게 아니고? 으? 누게가 영 헹 만들어 먹으라 뭐 얼마나 놓곡 영 누게가 골아준 게 아니고?
#1 건, 건 나, 나대로 헹 먹엇어.
@1 어.

신구간

@1 신구간, 신구간에는 미신거 허는 거우꽈?
#1 신구간, 신구간은게 이사허는 건데.
@1 으.
#1 이사허는 건디 뭐, 연초에 이사갈 일이 잇나?
@1 아. 거믄 이사 안 허민 다른 거 뭐 헐 거 엇수과? 신구간에.
#1 신구간엔 저 뭐 뭐 뭐 집안에 집 고치는 거.
@1 으, 으.
#1 집 고치는 거 신구간에 허지.
@1 집 고치는 거 신구간에 허고, 또?
#1 아이 거 뭐, 뭐 탈남직 헌 거. 거 신구간에 구신이 안 다니는 헤, 날 아니여. 안 다니는 기간 아녀.
@1 어.
#1 그니까 그때 뭐 헐 거 잇으믄 다 허는 거라. 뭐, 담, 담덜 같은 거, 우연에들은 저, 집 담 씨러진 거 다웁곡. 뭐 변소간에도 뭐 그 담 씨러진 거 ?튼 거 그때 다곡 다 허지.
@1 으.
#1 거 그런 날 아니면은 탈 본다고 허잖아. 신구간 아니민. 잘못허믄.
@1 으.
#1 그런 거 허는 거야.

@1 그거 촌엔 이사 갈 일이 별로 엇주만은누게 시집 장게 가곡 허민 집도 새로 준비헤주곡 헙니께. 그믄 어떵 집 새로 짓어근에 허든가 뭐 어디 다른 집이 살게 뒈면 이사 간 사람들 이실 거 아니우꽈?
#1 으, 그렇지. 그런 사람들 날 봐근에 신구간에도, 신구간에도 날 존 날 잇지. 그런 날 봐근에 가는 거지.
@2 신구간은 언제우꽈?
#1 신구간?
@2 으.
#1 아 뭐야 천, 아니 뭐니 여자들 못 뎅기게 허는 날. 입춘. 입춘 전, 입춘.
@2 전.
#1 으, 입춘으로 뭐 칠일인가 아니야.
@1 으.
@2 일주일 동안? 으.
#1 입춘 전 삼일 입춘 후.
@2 대한 후 오일부터 입춘 전 삼일.
#1 입춘 전 삼일. 전후 삼일.
@2 입춘 전 삼일까지.
#1 으, 삼사일. 게난 칠일이라.
@2 예, 일주일 동안예?
#1 입춘 전후 칠일.
@1 이디 토산이서예? 이사, 이사 가는 사름이 잇언에예? 이사 갈 때는 집은 어떵 헹구헤마씨?
#1 뭘 어떵 헤?
@1 이사 갈 거.
#1 이사 갈 때 어떵?
@1 집 어떵 알아봐?
#1 집 어떵 알아봐?
@1 으.
#1 집 어떵 알아보멍, 뭐, 뭐 집을 사거나. 이제 빌려줄 사름 잇으믄 빌거나 경허는 거지.
@1 으.
#1 세주거나이? 옛날에는 집 빌엇주만은 기자 빌려줘, 빌령 살아. 새 안 주곡.
@1 아 돈 대신에 다른 거라도 주지 안헤? 놈이 집 강 빌엉 살젠 허민?
#1 살젠 허민게 미안허믄 둑이라도 흔 마리씩 잡아당 숣앙 주민 뒈지 뭐.
@1 아.
#1 옛날 산소도 둑 흔 ᄆᆞ리 잡아다주민 줫어. 돈 받곡 그러지 안헤.
@1 어.

@2 산 쓸 자리를 둑 한 무리에 여기 산 써도 뒈어?
#1 산 써도, 산 써도 그냥 아는 사름은 그냥 줫어.
@2 으.
#1 경허민 뭐 저 영장 끗나나민 뭐 거 무신 제물 헹 가근에 주거나 둑 한 무리 주거나 경 헷지. 고맙덴 경 인사허는 거뿐.
@2 으.
#1 거 집 짓을 때도 올레 ᄀᆞ튼 건 막 줫어.
@2 으.
#1 돈 안 받곡. 집도 기자 기자 공짜로 주곡 돈 안 받어. 돈이 요즘 돈 받는 거라, 요즘. 요즘은 집 빌어주믄 다 돈 받지.
@1 예.
#1 겡 한, 한 이십 년 십오 년 전도 안 받앗어. 기냥 빌려줫어.
@1 삼춘 부제칩이난 삼춘이 빌엉 살진 안헤실 거 닮곡. 누게 빌려줘봅디가?
#1 집 안 빌려줘봔.
@1 안 빌려줘봔? 밧거리라도 누게 다른 사람 왕 살렌 안 빌려줘봔? 안 빌려줜?
#1 경 농촌에는이 집이 세 거리쯤 잇어야 뒈.
@1 세 거리?
#1 으.
@1 어떵 어떵 세 거리꽈?
#1 안커리 잇고이. 영 창고 잇곡 경 헤야 뒈. 거 산 사름이 뭐, 뭐 지저분 헌 거 많아.
@1 으.
#1 거 데며 놓젠 허민이 우리 저 지금 집이 세 갠데 삼거리 세 갠데 꽉 차.
@1 으. 그믄 요디 안거리, 요 옆이 이신 건 무신거옌 골아?
#1 밧거리.
@1 밧거리, 요기 이신 디 밧거리. 그 앞에는?
#1 창고.
@1 창고가 앞에 잇고 밧거리가 옆에 잇구나예? 거난 요기 안거리, 요기 밧거리, 요딘 창고.
#1 으, 견디 나는. 밧거리옌 헌 게 나가 처음 지엇던 집이고 이십, 이십, 아 십팔 평짜리.
@1 으.
#1 이거 이 편이 잇는 이거는 내불민 큰 거 이거.
@1 안거리 짓엇구나예?
#1 안거리 짓엇어. 이쪽에 창고 짓고. 이거 모지레니까 뒤에 또 비닐창고 잇곡.
@1 비니루창고도 잇고. 미신거 담앙 놉디가? 경.
#1 거기는 미깡 ᄀᆞ튼 거. 미깡, 미깡 따민 창고에 잇주만은 거기다 또 집이서 또 택

배허젠 허믄 창고에 미깡을 데며놔야 뒐 거 아녀. 박스 데며야지, 거 뭐 데밀 거 많아.

밀감 작업

@2 건 택배 직접 헴구나예?
#1 택배질 허지.
@1, 2 으.
#1 택배도 허곡, 밧데기도 풀아 불고.
@2 밧데기도 풀곡. 멧 평, 멧 평이나 헤수과? 삼춘넨.
#1 나 오천 평.
@2 노지만 오천 평 허멘?
#1 으, 노지만 오천 평.
@2 하영 헴수다예? 그거 다 저 극조생이우꽈?
#1 으?
@2 뭐, 뭐 허멘?
#1 일반 조생.
@1, 2 일반 조생.
#1 으.
@2 오천 평 다 일반 조생?
#1 으.
@1 거믄 몃 월달쯤에 따는 거꽈, 그건?
#1 으?
@1 언제 땁니까 그건?
#1 십일월달에, 십일월달. 십일월, 일월끄지 헌다니까.
@1 어.
#1 밧데기 푼 거는 아 상인 **들이 익어 부난 짤라 불믄이 상인들이 사는 밧데기는 이 저장용이라 저장용. 경헤놓니까 이거는 막 내불면은이.
@2 낭 막 나빠져.
#1 낭이 다 죽도록 내부는 거라.
@2 어.
#1 상인들이 이거 따당 헐 수 엇으니까 밧데 겨민 당도도 높아지고이. 낭은 죽든 말든 으, 이거 저장용으로 사는 거란 말이라.
@1 어.
#1 경헹 우린 그런 사름안틴 안 풀아.
@1 어.
#1 우린 가졍 가는 사름 잇어. 딱 십이월, 십이월 이십일끄지 전부 따당 가지.
@1 으.

#1 그 우린 그런, 그런 저장용으로 사는 사람 안 풀아줘, 안 풀아.
@2 낭이 다.
#1 낭이 거 죽지 죽어.
@2 맞수다.
#1 으. 거 안 뒈.

집알이

@1 게도 누게 집들이 헐 때나 이럴 때 가민 미신거 들렁 갑니까? 누게네 이사 갓저 헹 집들이 허레 갈 때 요즘엔 다 돈으로 다 부주 허주만은 옛날에는예? 뭐 상 가곡 허지 안헤수과?
#1 으.
@1 무신거 상 갑니까? 처음에.
#1 집들이 헐 땐 부지도 허여, 부지도.
@1 이젠 부주 허는디 부주 허기 전에. 돈으로 부주 허기 전에.
#1 돈으로 부주 허기 전에 뭐 음료수 ᄀᆞ튼 거 사가주.
@1 음료수 ᄀᆞ튼 거 사가수과? 으.
@2 성냥이나 이런 거?
#1 겐디 요즘은이 성냥 사가지. 성냥 사 가. 으, 초도 사 가고.
@2 초도 사 가고.
#1 겐디 요즘은이 부주를 안 헤.
@2 안 헤예?
#1 집들이 허믄 막 욕헤여. 사람들 막 욕헌다고. 그거 뭐 집 짓엉 산덴 집 지으렌 부주 받곡 뭐 헴젠 헌덴 안 뒈.
@2 아 이젠 안 헤예?
#1 욕헤여, 욕헤여. 그런 얘기 다 안 헤.
@1 뭐 소한이여 대한이여 영허는 절기에는 뭐 어떤 얘기가 이수과? 허는 말? 뭐 소한에 나간 사름은 뭐 춪지.
#1 소한에 나간 사름은 그, 춪아, 건, 건 죽는 거라. 춪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1 으.
#1 소한에 나간 사름. 거난 나가지 말렌 헤. 소한에 나가믄 죽는다는 이거야.
@1 무사 죽어?
#1 추웡.
@1 추워근에. 으, 뭐 소한이가 뭐 대한이.
#1 소한, 대한.
@1 으. 대한이가 소한이 집에 놀레 갓단 뭐 어떵 헷저 이런 말도.
#1 경 죽은 사름 많아.
@1 어.

#1 그때는 눈이 많이 오니까.
@1 예.

속담

@1 섣달그믐 날에는 줌자지 말라 영 허는 말도 헨게만은.
#1 뭐?
@1 섣달그믐.
#1 어떵?
@1 줌자지 말라 눈썹 흰다, 뭐 영, 아니?
#1 줌자지 안헹 뭐허란 말이라?
@1 (웃음)
#1 말도 안 뒈는 소리. 건 그런 동네가 잇겟지.
@1 토산리선 경 안 곧는구나예?
#1 으. 경 안 허여.

윤달

@1 윤달엔 무신거 헙니까? 윤달.
#1 윤달? 윤달에는 윤달도이 것도이. 무슨 저, 이 저 것도 귀신 안 온덴 귀신 안 뎅긴덴 허긴 허여. 윤달엔.
@1 어.
#1 윤달엔 뭐, 뭐 출려주곡 허는 사름들이 잇어.
@1 예.
#1 그런 거 잇긴 잇어.
@1 음. 뭐 호상도 준비헹 놔두고?
#1 으?
@1 죽을 때 입을 옷도 준비헹 놔두고?
@2 저승옷. 수의, 수의, 저승옷.
#1 것가 수의, 수의는 윤달에 준비허는 사름도 잇겟지. 으, 견디 우리 동넨 건 자기 ᄆᆞ음대로 허여.
@1 삼춘 수의도 헹 놔둡디가?
#1 우리 사름 헤나실 거라.
@1 여자 삼춘 거영.
#1 으, 으.
@1 언제쯤 헹 놔둬수과?
#1 건 나 몰라, 여자가 알지.
@1 거봐, 여자가 아는 거.

#1 건 여자가 알지.
@1 예.

생업

밭농사

@1 게민 농사짓는 거를예? 삼춘 일월달부떠 차근차근 몃 월달엔 무신거 허고, 몃 월달엔 무신 씨 뿌리곡 영 허는 거를 혼번 차근차근 골아줍서. 농사짓는 거. 옛날 미깡 나오기 전이.
#1 농사?
@1 예, 제일 처음에 무신거부터 씨를 헹 준비헹 씨 뿌립니까?
#1 겨울에 이 가을에 보리. 보리 비어야잖아. 오월에 비는 거 아냐.
@1 보린 멧 월에 씨 뿌리는 거꽈?
#1 십일월덜인가?
@1 십일월달에?
#1 십일월달에.
@1 예, 씨 뿌령.
#1 십일월 봄에 오월달에 수확허는 거 아냐, 보리.
@1 으.
#1 겨니까 보릿고개엔 헌 게 바로 그거지. 일 년에 혼번 보리, 다 먹어 버리믄 보리 다 익을 때꼬지 이 먹을 게 엇다는 거지.
@1 아.
#1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거 아냐.
@1 예.
#1 보리 나올 때까지 어룹다는 얘기야. 저 버흔 걸 다 먹어 불면, 먹어 불면 보리 익을 때까지 먹을 게 엇다는 거지. 게서 보리 이제 눌로 헤가믄 이 베어다가 불에 구워근에 그거 헤근에 뭐 죽 줏엉 먹곡 허는 거 아냐.
@2 게난 경 헌 거 물보리를 여기서는 뭐렌 불릅디가?
#1 물보리?
@2 으, 서포리? 옛날 익기 전에 그거 비어다근에 말령은에 골앙 죽도 쒕 먹곡 헷잖우꽈.
#1 으.
@2 게난 그 보리를 무슨 보리렌 골아?
#1 그 보리?
@2 익기 전에.
#1 그 청보리?
@2 청보리?

#1 물보리, 물보리?
@2 여기서는 청보리라는 건 요즘 나온 말이고.
#1 청보리는 저, 저.
@2 가파도에서.
#1 가파도에서 나온 말이고, 요즘에이.
@2 으, 이 동네서는? 삼춘네 그 보리 헤당 먹엇잖아양?
#1 몰르켜.
@2 으, 튼내면 굴아주고.
@1 처음에 보리 씨 삘덴 무신거영 ᄀᆞ치 서껑은에 허는 거꽈? 걸름 무신거 허영?
#1 돗걸름.
@1 돗걸름으로, 으.
#1 돗걸름으로 돗걸름 꺼내가지고 보리씨 삐엉 소나 물로 불려.
@1 응.
#1 불령 막, 막, 막 불령, 불려근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망탱이이?
@2 망탱이.
#1 으, 으. 망탱이 돗걸름 망탱이 잇어. 그거 헤근에 이제 이레 담아. 소에 저.
@2 질메 헹.
#1 질메 헤근에 거기다 양쪽에 흔짝씩 시꺼근에 다시 시꺼 가는 거 아니?
@1 으.
#1 마차 나오기 전에.
@1 으. 겡 밧디 시껑 가민 어떵 씨 뿌리는 거꽈?
#1 보리? 그건 이제 거디 이, 저 거세기 바구니 담아근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끄는 모냥인게.
@1 어.
#1 돗걸름을 이렇게 끌어놔야 뒈.
@1 예, 예.
#1 밧 갈앙 고랑에다가 그걸 끌어 놓는 거지.
@1 고랑에다가?
#1 으.
@1 음.
#1 영 밧 갈아가민 고랑에다가 싸싸싹 그거 끊어서 집어 넣는 거지.
@1 아.
#1 사람이 뒤에 쫓아가면서.
@1 예. 겡 그거 돗걸름 서끈 보리씨를 그디 고랑에다 한 다음에 어떵 헤? 뭘로?
#1 저 거세기 그 끄슬퀴면 뒈, 끄슬퀴.
@1 끄슬퀴.
#1 끄슬퀴 나무로 헤근에 이렇게 가운데 영헤근에이 끗는 걸 만드는 거라.

@1 예.
#1 사람이 끗는 거지.
@1 아, 사름으로.
#1 사람으로 영영. 건 밧 영 긑앗으믄 이렇게 허는 거라.
@1 으.
#1 겨민 이거 다 묻어지잖아.
@1 아.
@2 골보리로 헤근에 갈앗구나예?
#1 으?
@2 골로 갈앗구나예? 골로.
#1 골로, 골로.
@2 골로예.
#1 골로 가는 것도 잇고 그 뒤로 막 뿌려놔근에 갈아근에 소로 갈앙 허는 거 잇고.
@1 으.
#1 골로 가라야 그게 제라허게 잘 뒈어.
@2 아 골보리가? 예.
#1 겨가지고 소로 갈아 불면은이 막 깊게, 깊게 묻어지는 게 잇고, 거 안 묻어지는 거 잇고 헤서이. 거 안 좋아.
@1, 2 으.
#1 골로 갈아야 좋아.
@1 게믄 이거 보리씨 삐어근에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헹 내불어도 뒙니까? 무시거 헤야 뒈지 안헤? 보리밧도 볼르곡 검질도 메고.
#1 검질 헤도 보리.
@1 볼르진 안헤?
#1 볼릴 예외가 없어.
@1 어.
#1 볼라지민 좋주만은 볼르믄 좋지 볼르믄 보리가 옴곡. 견데 거 볼릴 시간이 없어.
@1 거믄 검질은 언제쯤에 멥니까? (전화소리)
#1 검질이야, 거.
@1 멧 월달쯤에 메는 거라?
#1 (잡담) 아 검질, 검질메는 거야게 검질 나오면은 검질 메는 거주게. 게곡 중간에 검질, 검질 안 나는 약 잇지이 그거 허기 전이 다 검질멧어.
@1 게난 제초제 허기 전이 약을 맨날, 약허기 전이 검질메레 가실 거 아니꽈?
#1 으.
@1 막 추울 때 검질멜 거 아니?
#1 추울 때 메지, 추울 때 메지.
@1 예.

#1 추울 때 메어.
@1 멧 번이나 메사 뒈어? 보릿검질은?
#1 보릿검질 한번 메민 말아. 거 도로 올라오민 거 검질도 안 나고.
@1 어.
#1 겡 십일월에 보리 갈앗어예?

유채

@1 그다음엔 봄엔 뭐 허는 거 엇수과?
#1 유채.
@1 유챈 멧 월에 씨 삐는 거꽈?
#1 유채는 봄 이거 이월덜, 삼월덜 뿌릴 거여.
@1 아. 이월, 삼월에 유채. 유채 씨는 그냥 삐민 뒙니까?
#1 그냥 삐어.
@1 그냥 삐어.
#1 으.
@1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이렇게.
@1 으.
#1 밧 갈아근에 이렇게 이렇게 뿌려근에 싹 끗어 불어.
@1 것도 끄슬퀴로?
#1 으, 끄슬퀴로.
@1 거믄 그 유채밧디 검질은 안 메도 뒈어?
#1 유채밧디도 검질메야지.
@1 으.
#1 웨냐믄이 거이 씨를 어떻게 뿌리냐가 문제지. 씨를 많이 뿌리면 거 소꽈야 뒈. 더러 내불어야 뒈. 그래서 씨를 잘 뿌리면 그런 사름에 따라 틀려.
@2 거난 유채는 언제부터 갈아수과? 이 동네.
#1 이 동네?
@2 으.
#1 어이구 오래.
@1 삼춘 몃 설 때부터?
#1 우린 어릴 때부떠 유채, 유채를 헷어.
@2 어렷을 때부떠? 그게 황금작물예? 돈 뒈는 거.
#1 으, 돈 뒈는 거 그거야, 유채. 유채, 뻿데기, 절간.
@1 으.
#1 고구마 절간.
@1 그믄 이 유채는 이삼월에.

#1 보리 갈아근에 보리 저 풀곡.
@1 이삼월에 뿌리민 언제 거둬들이는 거마씨? 유챈.
#1 유채는? 유채는 육칠월?
@1 육칠월?
#1 지금, 지금 걷을 때여, 유채.
@1 으.
#1 이딘 유채를 안 가니까 그렇지 유채 지금 꼿 편에 지금 다 익엇을 건데.
@1 예.
#1 지금 삘 때라.
@2 지금? 보리 헐 때 비지 아녑니까?
#1 보리허고 거. 보린 오월달에 삐니까 유월덜에. 보리, 보리 끗나믄 유채 비어.
@2 아 보리 끗나근에?
#1 보리 끗나가민 보리허곡이 유채 거의 비슷헤여.
@2 그러니까.
#1 수확은. 보리도 비 오곡 장마치민 썩곡.
@2 유채도.
#1 유채도 썩곡 허잖아.
@1 으.
#1 장마지면.
@2 으, 이제 장마철이니까.
#1 장마철이니까 보리 날 때도 뭐허나?
@2 예.
#1 유채도 나 버릴 때 많고. 겨니까 조금만 강 뭐 헤야.
@1 유챈 어떵 헤근에 픈는 거꽈?
#1 으?
@1 유챈 어떵 헹 어디다 픈는 거라?
#1 유채?
@1 으.
#1 유챈 농협 수매허잖아.
@1 농협 수매허기 전인?
#1 수매허기 전인 야매허는 사름 잇어, 야매허는 사름.
@1 어.
#1 유채 기름 빠는 사름덜 사다가 기름 빠.
@1 유채는 기름 헐 걸로 헤근에 픈는 거꽈?
#1 기름 허는 거, 기름. 유채기름.
@1 유채기름.
#1 으, 겡 저 우리도 유채기름 빠다 많이 먹엇지.

@1 예.
#1 으, 유채기름 빠다가. 참기름 잇으믄 좋주만 참기름 엇으믄 유채기름 상. 요즘은 뭐, 무신 기름이 천 가지주만은. 그때는 유채기름허고 참기름뿐이라.
@1 예.
#1 유키름허곡, 유.
@1 유?
#1 유허곡 동박.
@2 예.
#1 동박기름, 것밖에 엇어잖아.
@2 삼춘 유채 안 간 거는 언제부터 안 갈안?
#1 유채 안 간 거?
@2 예.
#1 유채 안 간 건 밀감허기 시작허니까.
@2 밀감 허기 시작허니까? 게난 밀감은 언제부터 하영 헌 거 닮수과?
#1 밀감 서귀포는 잇주만은. 나는이 나가 제일 부락에서 나가 일 번, 밀감 농사헌 거.
@1, 2 아.

제보자 일생(잡담)

@2 멧 설에 헨? 삼춘.
#1 나 서귀포농고 뎅겻거든.
@2 으.
#1 농고에 뎅기니까 그 농고 교장 아덜이 우리영 동창이라.
@1 으.
#1 그디이, 그, 저 농업이, 농업. 그디는이 이 일반 밀감이 아니고 나스미깡, 나스미깡. 지금 말허는 가마귤. 나스. 하귤이엔 헌 거, 나스미깡. 그것이 가네가 헷어. 겡 거 아방 몰르게이 친구안티 거 다니는 아이 싱건 허단에. 그다음에 이제 딱 그건, 그건 집이 먹는 용으로 헷고. 그다음에 나가 군대 갓다와서 군대 갓다와서 나 오급 공무원 시험 봣어.
@1 어.
#1 서귀포에서. 부○○이네이 그디 ᄀᆞ치 오급 공무원 시험본 사름이라. 근디 나 합격헷어, 그때. 합격헷는데 우리 동네서 저 우리 나영 동창인데 우리가 나이가 위라. 근디 일이 전분공장. 전분공장을 허면서 나허곡 막 같이 허자고 헌 거라.
@2 으.
#1 게서 이제 그거 공무원 그만두고, 이제 거기 나가 거기 훼사에 전무로 들어가고 그 사름이 사장허곡 난 전무헷잖아. 경헤서 이제 공장을 헷는데 공장 허다가 이 사장으 놈**가 저 시에 가서 말이여. 그 오일팔 변방 강 죽어 빗어.

@2 으.
#1 으, 죽어부니까 어쩔 거야, 이제. 나가 다 알앙 허겐 허니까 경헨 그 사장 죽어부니까 사장 대신 일본 교포가 그 사장 술을 사게 헤가지고 그 일본 교포가 사장허곡. 나가 전무이사 그 교포는 일본서 잇고. 나는 사장 겸 전무 허멍 이거 헷잖아.
@2 게난 전분공장을 오래헷구나? 삼춘.
#1 으.
@2 으, 겡 나중에이 것도 나중에 그 중국에서 전분을 상 해결뒈긴 헷는데, 나중에 이 사름 안 뒈가지고 나 그거 풀아버리고. 이 밀감나무 사당 심엇어, 처음에. 으, 전분공장 허면서 시엣 사름들 그게 저 여공들이 신효에 잇엇어, 신효.
@2 신효에서.
#1 신효 여공들이 많이 왓어. 신효, 토평, 신효. 그디 여공들이 이딧ᄁᆞ지 와서 일헷지.
@1 으.
#1 그 여공들 오빠들 그 밀감 허는 거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묘목 사근에 이 나가 처음 헷주.
@2 그때가 삼춘 처음 멧 설?
#1 그때 나가 스물아홉에 헷으니까이.
@1 으.
#1 내가 ᄒᆞᆫ 서른 뒛겟지?
@1 삼십육 년생이라고 하셧으니까, 으. 서른 살이면 육십육년. 서른댓이면 한 칠십 년 뒛겟네.
#1 ᄀᆞ만 잇어봐, 지금 ᄒᆞᆫ 오십 년 헷어, 오십 년, 밀감나무를.
@2 밀감나무를?
#1 저 낭도 오십 년생이고.
@2 예.
#1 경허곡 또 그거 허면서 묘목을 헷어, 묘목.
@1 아.
#1 묘목 장사. 저 육지에서 생기나무 씨를 한 가마 불러 가지고 밧디다가 묘종을 놧지. 묘종 놔가지고 우리 공장에 그, 저 사장 그 조카가 하천이 잇엇는데. 한천이 강○○라고. 헷는데 그 사름이 여기 파견 나와 잇엇어.
@1 예.
#1 그 사름 이제 파견 나온 거뿐이라,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파견 나온 거라. 겡 그 사름허고 이제 ᄒᆞ나 심어가지고 그 묘종 놔가지고 그걸 묘종 밧디 심어가지고 접 부쪗지.
@1 예.
#1 접 부쪄서 묘목 장사 묘목을 풀앗어.
@1 으.

#1 묘목 풀앗어, 묘목 하영 풀앗어.
@1 돈 하영 벌어시크라마씨.
#1 그땐 멧 푼 안 가져 가잖아게.
@2 게믄 이 동네 감귤 조성허는 거는 삼춘이 묘목 하영 팔앗구나?
#1 이 동네 그건 나 헌 묘목은이 칠십일 년도.
@2 칠십일 년도.
#1 칠십일 년도에 헷으니까 칠십이 년, 삼 년 그때 풀앗주. 그때 나무목은 그때 풀앗어.
@2 그 묘목은 어디까지 풉디가? 이 동네만 풀안? 아니면 딴 동네?
#1 이 동네만 아니고 저, 저 그 감협으로 신청헤연, 시청헨 그디서 신청받은 것만 모앙 내가시녜게.
@2 감협으로 헤갖고?
#1 으, 감협으로 헤가지고. 겡 감협 가입도 헷어, 가입도. 묘목 팔려고. 경 헹 이제 감협이서 신청받으면 그 사름들이 이디 왕 메어 가는 거라.
@2 으. 거난 초창기에 감귤 묘목도 허고.
@1 으.
@2 감귤 농사는 완전 끗내줘겟네예?
#1 감귤 난 박사.
@2 그러니까 박사난.
#1 우리 동네서 나보다 감귤, 우리 처남쯤은이 거 서화리 우리 처남들은 다 헤건디 나보고 감귤 박사라고 그래.
@2 예. 경헐 거 닮아.
#1 엥간하면 다 알잖아. 농사짓엉 허는 거 그것도 이주만은 참고지 다 경험이, 경험이 잇어야 허는 거야.
@2 맞수다.
#1 경험에 의한 거라야지. 농사짓는 거는 그거는이 참고자료야, 참고자료.

감귤농사

@2 게믄 감귤 낭 싱그는 거는 어느 철에 싱급니까?
#1 삼월덜에.
@2 삼월에 싱거.
#1 삼월에 심지.
@2 게믄 언제 멧 년 뒈면은 수확이 가능허여?
#1 일 년생을 처음 강 심으면 삼월에 심으면. 이 년을 거기서 키우고, 그 자리에서.
@2 예.
#1 키우고 일 년 후에는 또 옮겨 심어야 뒈.
@2 아.

#1 그걸 그대로 놔두면 뽄대가리 나빠서 안 뒈.
@2 옮겨.
#1 옮경 심어서 또 삼 년을 키와서 또 옮겨 심는 거라.
@2 아.
#1 겡 그때 정식으로 하는 거야.
@2 그럼 오 년생 헤야 정식으로.
#1 으, 정식으로.
@2 예.
#1 경헤야 나무가 정상적으로 요즘 하는 것들은 그 묘목 허는 사람들 일 년에 싱거 가지고 그대로 순 나면은 그대로 놔두는 거야.
@1 응.
#1 그대로 놔두면 이게 우로만 막 크고 만약에 파보면 이제도 이거라.
@1 뿌리가.
#1 이거 싹 들어가지고 잔뿌리가 없어. 게믄 나무가 심어 놓면 살지 안헤.
@2 게믄 수확허는 건 멧 년?
#1 거난 거 안 뒈는 거야.
@2 으, 두 번을 옮겨 심어야 뒈예?
#1 두 번 옮겨 심어야 뒈.
@2 겡 정식 허면 언제부터 수확은 허여?
#1 정식 허면 오 년 뒈면 성년 뒈면은 이 년 뒈면은, 칠 년 뒈면은 열기 시작헤.
@2 아 칠 년부터예?
#1 으, 칠년부터 열기 시작헤.
@2 게믄 그 칠 년 동안은 감귤 농사 허면은 투자만 헤야 뒈컨게양?
#1 그렇지.
@2 으.
#1 투자허거나 그 가꾸는 거뿐이지 미신.
@2 예.
#1 돈 뒈는 건 엇잖아.
@2 게믄 삼춘은 첫 수확헐 때 그 얼마 돈 듭디가? 옛날에 감귤 대학나무렌 골아신디.
#1 대학남?
@2 으, 미깡 처음엔 엄청 비쌋잖아예?
#1 으, 비쌋주.
@2 예, 겡 그때 그 첫 수확헤근에 그 팔앗을 때 그 느낌. 미깡 헹은에.
#1 미깡 아 그 무신 그깟지꺼 뭐, 뭐. 대학나무 대학나무라고 헷주만은 거 우리 어린 때ᄁᆞ지는 옛날에 대학나무지.
@2 으.

#1 겐디 많이 헌 사름들은 돈 많이 벌엇지. 많이 헌 사람들은. 건디 하여간 아이들 대학 보낼 정도가 뒈니까 그 돈 가지고. 미깡 수확헤근에 대학교 보냇주 무신. 그거 엇이믄 대학 보내지나, 못 보내지. 그거 잇으니까 뒈는 거 맞어.
@2 예. 경헹 지금도 오천 평허고. 지금 오천 평 헌덴 허멍, 미깡만.
#1 으.
@2 거 다 삼춘네 밧?
#1 아 나 또 과수원 만들어가지고이 풀아 먹은 것도 멧 평 뒈어.
@2 어.
#1 훈 이천 평 뒈어.
@2 게난 그 옛날에 과수원 만들 때에 얘기헤줍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수과? 여기 다 자왈이고 막 영 헷을 건데, 밧들. 미깡 심그젠 허면 좀 까다롭잖아예? 다른 낭보다. 그 만들 때 어떵 헹은에 싱거수과? 옛날에 뭐 자귀로 땅 팡은에 싱건, 뭘로 헨에 싱건?
#1 삽으로 판, 삽으로.
@2 삽으로. 그때 얘기 골아줍서.
#1 그때 처음에 농사지을 때 감귤 나무는이 처음에, 처음에는 그렇게 헷거든. 어떵 헷냐믄.
@2 구뎅이 파근에.
#1 땅을 깊게 파서 거기에 퉤비를 넣고, 으, 으. 그렇게 헤서 거 심으라고 대게 헷어.
@2 예.
#1 근디 요즘은 그거 아니라. 그자 땅 싱그, 미깡낭 그거 싱글 정도만 땅 파근에 우이 폭을 흑 더끄믄 뒈는데.
@2 으.
#1 웨냐믄이 삽으로 다 파근에 거기다 거름 팍 하영 놓곡 그디 또 흑 놓곡 그렇게 헤서 이제 경헤근에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막 잘 뒈. 그게 맞긴 맞는데 경허젠 허믄 엄청나게 힘들잖아.
@2 아 게도 구뎅이 이만큼 파지 아녑니까게.
#1 구뎅이 막 크게 파. 거름 막 담아놓곡, 으, 그루후젠 흑 더퍼 놓곡 헤근에 그 우에 낭 놔근에.
@2 보리낭도 꼴곡. 보리낭으로 더끄주.
#1 미시거?
@2 보리낭으로도 더끄지 아녑니까.
#1 보리낭?
@2 예.
#1 보리낭으로, 보리낭으로 더꺼지믄 좋지.
@2 으.
#1 겡 잇으믄 더끄는 거고 엇이믄 마는 거고. 겐디 요즘은 그거 아니라. 아주 막 간

단헤.
@2 예.
#1 게난 이제 거 나무뿌리, 뿌리 못 쓸 정도만 묻혀놓곡 나중에 우로 길뤄주면 뒈.
@2 으.
#1 경헹 비료를 잘못 아래 주면은 잘못 줘가지고 심으면 뿌리가 써거, 안 뒈. 게난 비료 주지 말고 심어 놓곡 우로 줘야 뒈, 우로.
@2 비료를에?
#1 나무가 크면서 우로 먹게. 거 어린 나무 거 비료 하영 놩 주민 뿌리 헤영 뿌리가 비료에 닿으민 열나서 죽어. 죽는 수가 잇어. 게난 경헐 필요가 없어, 지금은.
@1 으.
@2 감귤.
#1 간단허게 싱그고 간단허게 비료만 주는 거라.
@1 예.
@2 그다음에.
@1 그다음에 또 다른 거 무신거 헤수과?
#1 으?
@1 유채 말고 또 다른 거. 감저도 헤실 거 아니우꽈예?
#1 고구마.
@1 예, 그건 몃 월달에, 몃 월달에 어떵 헹 허는 거꽈?
#1 고구마는 유월달에.
@1 유월달에 어떵 헤?
#1 하지에 갈앙 심는 거라.
@2 하지에 심어.
#1 유월절에 갈앙 심는 거라.
@1 유월달에 심는 거예? 그믄 심기 전에.
#1 묘종 놔.
@1 묘종 몃 월에 놔?
#1 묘종은이, 묘종은 한 유월덜에 흔 삼월덜에 놓을 거라, 삼월덜에.
@1 이거 양력이지예?
#1 으, 양력 삼월덜.
@1 양력 삼월에 묘종 놔.
#1 묘종 놩 묘종 키왕.
@1 묘종 키와.
#1 키와근에 아, 거 유월절 뒈가믄 심는 거지. 유월절 전이 심어야 뒈.
@1 아 유월절 전이 심어야 뒈.
#1 으, 유월절 뒈믄게 막 벳 나니까 유월절 전이 심거야 뒈.
@1 아.

#1 유월절까진 감저 다 심거야 뒈.
@1 어. 어떵 어떵 헹 심는 거꽈, 그건?
#1 밧 갈아근에.
@1 예.
#1 파니 만들앙 거기다 심는 거지.
@1 묘종 영 어떵 요만씩 짤라? 어느 만씩?
#1 옛날은 요만씩 짤랑 심엇는데이. 길왕 요만썩 짤랑 심엇는데이, 지금은이. 짤라근에, 짤라근에 이거는 파니가 이렇게 뒈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엇는데.
@1 예.
#1 우로 이렇게 심엇는데 이젠 경 안 심어. 이렇게 심어.
@1, 2 아.
@2 아 그냥 짤른 쪽으로 헤갖고 그냥 심는 거구나?
#1 으.
@2 건 무산고예?
#1 그렇게 헤야 감저가 잘 들어.
@2 아.
#1 이, 이.
@2 옛날은 옆으로 헹 심그지 안헤수과?
#1 영 헹 심그믄이 요쪽만 드는데 지금은 요 길면 짤라서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게믄 이게 또 많아.
@2 감저가 더 하영 들어.
#1 하영 들어.
@2 어.
#1 이게 드는 디가 여러 군데 드는 거라.
@1 으.
#1 순을 짧게 헤 가지고.
@2 줄을 짧게 헹예?
@1 어느 만이 짧게? 순 어느 만이 허게?
#1 아이 요정도, 요정도 헤근에 꼭꼭 심으면 뒈.
@1 어.
#1 이레 벋어가는 순도 이거, 이거 끊지 않고 그디 찔러 불어.
@1 거믄 어느 짝으로 찔러야 뒈고 이런 거 이수과? 짤른 쪽으로 찔러야 뒌다 뭐 이렇게.
#1 아니 ᄎᆞ례로 찔러야지.
@1 그니까 어느 게 ᄎᆞ례라?
#1 아이 감저에서 나온 게 일 번 아니라? 일 번.
@2 그렇지.

#1 꼭겡이가 막번 아니야? 그니까 여기 짤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1 어.
#1 요건 ᄎᆞ례 대로, 꺼꺼불믄 안 뒈거든. ᄎᆞ례로.
@2 그렇지, 그래야 순 나지.
@1 예.
@2 뿌리나게.
#1 이거 벋어가믄 일로부터 싱거, 끊어근에. 벋어가는 순은 꼭겡이는 안 짤르고.
@1 예.
#1 꼭꼭 찔르믄 뒈. 거믄 수확이 많이 나는 거여.
@1 그믄 이건 몃 월달에 수확허는 거꽈?
#1 아 상강 뒈민 수확헌덴 헷잖아.
@1 아 상강 뒈민 수확허는 거예.
#1 으, 상강ᄁᆞ진 고구마 크니까.
@1 예.
#1 크니까 그때 뒈민 고구마 다 큰 거라.
@1 어. 이거 뻣데기 헤근에.
#1 그니까 전이가 심을 때 유월절에 유월절 전에 심으면 고구마가 굵곡.
@1 예.
#1 유월절 지나면 고구마가 막 줄아.
@1 아.
#1 건 빨리 살기 위헤서 막 순이 막 여라 개 나놓니깐, 여라 개 나놓니까 고구마가 잘아, 잘아.
@1 으.
#1 이젠 뭐 거 제대로 헌 거 얼마 안 나와.
@2 유월절 전에.
#1 유월절 전에 싱거야 굵은 게 많이 나오지.
@1 예. 그믄 이거는 수확헤근에 뻣데기 멘들앙 납품허곡.
#1 뻣데기 헐 때는 전분공장 엇은 때.
@1 어.
#1 전분공장이 없을 때는 뻣데길 헷는데. 전분공장 들어갓저, 전분공장.
@1 그냥, 말리지 안헹 그냥.
#1 으. 전분공장에 다 ᄑᆞ는 거라.
@1 어.
#1 요만씩 헤영.
@1 어.
#1 뻣데기는 전분공장 허기 전이.
@1 허기 전이? 으.

#1 뻿데기 헤근에 다 거 농협으로 수메헷잖아.
@1 어.
@2 게난 삼춘은 이제 전분공장 헷으니까 그 감저 팡은에 전분공장 만드는 과정 한번 굴아봅서. 어떤 식으로 뭡니까?
@1 감자 상 오민.
@2 감저 허면은, 수메헐 거 아니?
#1 으.
@2 게믄 전분공장에 강 어떵 헤야 전분 만들어지는 거?
#1 가민이 거 가민이 감저 영 들어가는 디 잇어. 게민 거 세척허는 디가 잇어.
@2 세척.
#1 세척허는 디 감저가 씨쳐졍 나가면 그다음이 감저 가루로 갈아.
@2 으.
#1 갈아서 이제 저 땡끄로 내보내.
@2 탱크로.
#1 으. 전분 땡끄로. 땡끄로 내보내믄 그디서 땡끄서 침전시켜. 침전시켱 물만 빼두곡. 거 내중에 빼내면서 전분 만드는 거지.
@2 겡 그다음에 또 말령은에.
#1 으. 전분 말리는 상자가 잇어.
@2 으.
#1 겡 그거를 허는 사름들이 여공이야.
@2 예.
#1 전분 땡끄서 이렇게 이렇게 허면은 이게 침전허면 물을 쫙 빼면 이게 딱 갈라질 거 아냐.
@2 예.
#1 게민 이것을 또 이 끄내는 사름.
@1 으.
#1 이렇게 끄내는 사름 잇어. 끄내는 사람들이 남자덜이 끄내어.
@1 으.
#1 끄내믄 여자들이, 여자들이 그걸 이제 여자들은 이제 또 상자, 상자 잇어. 전분, 말리는 상자.
@2 예.
#1 거기는 말리는 장소가 잇곡. 게믄 그게 여자들이 이걸 이렇게 끄내면서 이렇게 손으로 딱딱딱 벌려내어. 손으로 딱딱 벌려내어, 손으로. 손으로 딱 벌러내엉 딱헤놓민 것도 상자 놓는 디 강 올려 놓민 물르민 전분이 뒈는 거라.
@1 으.
#1 겡 헤다근에 파는 거지.
@2 게믄 전분 허면 옛날 전분 주시들은 어떵 헤수과?

#1 전분 주시는 저 이 사람들이 저 뒈지 사료로, 뒈지 사료로 와서 실러가, 뒈지 사료로. 전분 주시통이 따로 잇주게. 그믄 그디 나가믄 그걸 이제 사름들이 퍼 가주. 뭐 마차를 끌어오든 퍼가근에 뒈지, 뒈지.
@2 것 주는 걸로?
#1 뒈지, 그 뒈지 헤다가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저 보리, 보릿가루나 이 뭐 가루 보리 ᄀᆞ튼 거 서꺼가지고.
@2 보리 서껑에?
#1 뒈지 잘 먹잖아.
@2 게난 우리 막 그 먹을 거 엇인 때는 전분 물련에 그걸로도 떡 헹 먹엇덴 헙디다.
#1 먹엇어. 전분가루 거 주시를 말려서.
@2 예.
#1 말려서 다른 가루에 서터서 먹엇단 말이야, 그때. 그 보릿고개에.
@2 보릿고개에.
#1 보릿고개 헐 때. 보릿고개 헐 때 그거 뭐 없으니까 무슨 가루 약간만 이시민 거기서 서꺼가지고 불려와가지고 식구 배를 채왓단 말이여. 겡 바다에 가서 톨, 톳도 캐곡. 또 밧디 가믄 물릇이라고 잇어 물릇.
@2 물룻이.
#1 물릇이. 그것 또 캐어. 그거 좀 독헤.
@2 으.
#1 그거 허여, 그거, 그거 항아리에 놔가지고 저 보리ᄀᆞ시락이.
@1 예.
#1 보리ᄀᆞ시락을 그거 영 쎄와근에 불 때면 그 물릇이 쌂아 지는 거라.
@1 어.
#1 그 항아리를 전부 묻는 거라이.
@1 예, 예.
#1 ᄀᆞ시락 쏘곱에. 경헤근에 그거 불 부찌면 쭉 타면서 그거 익어. 그면 그걸 이제 톨허곡.
@1 으.
#1 톨허곡 또 보릿개역. 보릿개역이 보릿개역 멘들어서 톨로 보릿개역 서터근에 거 버무령. 경헹 먹는 거야.
@1 으.
#1 겨곡 드릇마농.
@1, 2 예.
#1 드릇ᄂᆞ물 그거 캐다 먹곡.
@2 예.
#1 겡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지.
@2 게난 삼춘도 하영 먹언?

#1 나도 드릇ᄂᆞ물, 드릇마농허곡 드릇ᄂᆞ물 캐레 많이 뎅겻어.
@1, 2 으.
#1 우린 뭐, 뭐 여름에 어릴 때부떠 검질멧잖아.
@1 예.
#1 검질메는소리 잘헤, 나 잘헌다고.
@2 으.
#1 검질메는소리.
@1 아무도 엇이난.
@2 아무도 엇이난 검질메는소리 한번 헤봅주.
#1 검질메는소리? 이 선소리옌 헌 게 잇어. (기침) 선소리 허는 게 나 선소리야.
@1, 2 예.
#1 게민 후소린 다른 사름덜이 허는 거라. 아아아아아아야아 에에에에양에에헤이요오 앞멍에에에랑 나아가아고옥 뒷멍에에랑 가아아라아아 허민 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 에헤에에에야 에헤에이요 허는 거라. 선소리 허곡 후소리 허곡.
@1, 2 으.
@2 게민 그거 또 이어갈 거 아니? 아까 건 일 절이고.
#1 으?
@2 아깐 일 절. 이 절은?
#1 이 절이렌 헌 거, 이 절이엔 헌 건 엇는 거. 선소리 허는 사름이 막 지어내면서 허는 거야.
@2 삼춘이 지어내멍 헤봅서.
#1 지어내멍.
@2 시작. 아양부떠.
#1 아아야앙 에에헤에양 에헤에효오 앞멍에 그게 아까 헌 거고. 검질지잇곡 골올 너어른 밧앗데에 아아아아에에 경 허멍 막 지으멍 허는 거야.
모두 (웃음)
#1 청청 하늘에 뭐 수심도 많고요, 요내 가슴에 스승도 많다 아앙 허멍도 허곡.
@2 그것까지 쭉 이어근에 불러 봅서, 이엉.
#1 에에.
모두 (웃음)
@2 수심도 많고 이런 말이 필요하지.
#1 게난 거 선소릴 허는 사람이 다 불르멍 허는 거.
@2 뒤에 후소리는 아아야아앙만 허민 뒈는 거고.
#1 후소린 아아야 그것만 허민 뒈고.
@2 으.
#1 선소리 허는 사람은 거 아양아양 헐 때ᄁᆞ진 그 선소리 부를 거 다 생각허멍 다 불러야 뒈는 거여. 게니까 여기서 저ᄁᆞ지 나가 불민 훈 멧 시간 걸리는디 그디ᄁᆞ지

불러야지.
@2 겡 삼춘이 선소리를 하영 헷구나.
#1 나 선소리 나 노래 잘 불러, 선소리 헷단 말이야.
@2 아 게난 그 선소리 헌 거를 훈 십 절ᄁᆞ지 쫙.
#1 에이 시끄러.
모두 (웃음)

조 볼리기

@2 감저 허곡, 옛날엔 조 하영 볼리지 아녀수가? 조 하영 볼리지 아녀수가, 조.
#1 겡 조팟디 헷주게.
@2 게난 조 언제 싱그는 거라? 조 볼리는 거.
#1 조 볼리는 건, 조 볼리는 건. 조 볼리는 거는 유채, 유채 지어나민. 보리 허곡 유채 비어나민 조 볼리는 거, 조 볼려.
@2 으, 어떵 볼려?
#1 조허곡 산디허곡.
@2 예.
@1 씨 어떵 삐는 거꽈? 이건. 이건 씨 어떵 삐는 거꽈?
#1 씨?
@1 으.
#1 씨 손으로.
@2 으 손으로 삐어.
#1 이 망텡이. 씨망텡이 이거 영헹근에 영영 쫙쫙.
@1 으.
#1 이걸, 이걸 잘 뿌려야 뒈.
@1 어떵 허는 게 잘 뿌리는 거라?
#1 요러, 이거이 이거 줴서이. 이렇게, 이렇게.
@1 으.
#1 이거 욜로 이렇게, 이렇게.
@2 게믄 조 볼리젠 허면 밧을 문여 갈아얄 거 아니우꽈?
#1 아 밧 먼저 갈아야지.
@2 으, 밧 간 다음에.
#1 밧을 먼저 갈아.
@2 예, 그다음 씨 뿌려?
#1 이거, 이거 좁씨 삐엉.
@1, 2 으.
#1 좁씨 삐엉 물로 볼리거나. 처음은 물, 쉐로 볼렷지. 겡 그다음에는 남테. 으, 남테로.

@2 삼춘.
#1 거난 영영영 헤근에 영영영영 헤근에이? 또 그 저 끄슬퀴로이, 끄슬퀴로 그 저 물이나 소나 메와근에 쫙 한번 끗어.
@1, 2 으.
#1 경헤근에 그다음에 물로 불리는 거라, 불려. 여긴이 저 병디라이 바람이 쎄기 때문에 이걸 안 눌러 놓민 이거 다 불리믄 거 또 이게 제대로 크지 못헤. 경헹 딱 불리는 거라.
@1 으.
#1 불려.
@2 그 조 불리는 일이 막 큰일이켜양?
#1 그렇지. 조 불리는 게 남테우리 허면이 곤밥허곡이 반찬 잘헹 갖다 줘.
@1 으.
@2 무신 반찬 헤다 줘?
#1 무신 반찬, 무신 반찬게.
@2 독세기 반찬?
#1 곤밥에 미신 뭐, 뭐, 뭐 바릇궤기 허믄 뒈지, 무신.
@2 바릇궤기 헹예.
@1 삼춘은 테우리도 헤나수과?
#1 테우리는 난 허지 안헷어. 아 우리 밧디 헐 때, 아, 우리 농사헐 땐 나가 테우리지.
@1 아. 끄슬퀸 미신 낭으로 헹 멘드는 거우꽈?
#1 끄슬퀸 뭐 뭐 가시낭 뭐, 뭐 많아. 거 이파리 많으민 뒈어.
@1 어.
#1 이렇게 딱 이파리 많앙 잘 끗을 게 허민 뒈지.
@1 으.
#1 그 이파리 엇는 건이 이렇게 뒈니까 잘 안 뒈. 이파리 많은 거 헤근에, 딱헤근에 가운디 딱 이 나무 놔근에 딱 얽어 메어근에 끗는 거지.
@2 게난 그거를 쉐 ᄌᆞ름에 메엉은에.
#1 으, 쉐 조름에, 물 조름에 걸어메곡.
@2 물 조름에, 사람이 안 허고예?
#1 아, 거 사람이 허는 수도 잇어, 사름이.
@2 사람이 허는 수도 잇고.
#1 밧 불리젠 허믄 경 끗어가는 냥 불리젠 허믄 사름도 허지.
@2 으. 게난 물 조름에도 끄슬퀴 내엇구나.
#1 게난 불릴 밧이 많으면 ᄒᆞ나 골령 메와근에 끗지만은 그게 많지 아녀면은 이게 사람이 끗곡. 그 뒤우로 불려, 불려가는 거지.
@2 예.

#1 겡 건 보멍 허는 거, 보멍.
@2 보멍 허는 거예? 맞수다.
@1 게믄 검질도 메살 거 아니우꽈? 조도.
#1 검질메멍 선소리 허멍 검질멘덴 헌다니까.
@1 조 검질메는 게 처음에 뭐 소끄는 건 힘들덴 허멍마씨?
#1 으?
@1 소끄젠 허민.
#1 소끄젠 허민?
@1 어떵?
#1 소꽈, 소꽈. 거니까 흔 열 사름, 열흔 사름 앚지잖아. 검질메는 데. 흔 파니에 흔 사름씩이. 겨니까 선소리 허는 사름이 앞이 나가면 뒤엣 사름이 따라 오질 못 허잖아. 경허는 게 잘 못 허는 사람이 검질메는 게 아니라 막 묻어 불여. (웃음) 묻어 불어. 검질메엉 조를 사꽈야 뒈는디 거 묻어 부는 거라 묻어 불어. 메야 뒈는데.
@1 예.
#1 묻어 불민 아 뒷날은 가믄 싹 거 다 올라올 거 아냐.
모두 (웃음)
#1 겡 누가 검질 잘못 멘 거 다 알아져.
@1 어.
#1 으, 알아져.
@1 검질도 잘 메는 사름은 무신거?
#1 잘 메는 사름은 잘 메어.
@1 뭐 잘 메는 사름, 뭐 못 메는 사름 헤근에 익은녁이여, 선녁이여 영허는 말도 헤수과?
#1 으, 익은녁. 익은녁이, 익은녁이 잘 메는 사름.
@1 아 익은녁이 잘 메는 사름.
#1 으.
@1 선녁은 못 메는 사름?
#1 게, 선녁은 못 메는 사름.
@2 게민 익은녁은 어느 펜이 앚입니까?
#1 이 오른쪽에.
@2 오른쪽에.
#1 오른쪽에.
@2 오른쪽부터 쭉 메어가는 거우꽈? 왼쪽으로?
#1 파니가 쫙 잇으믄 오른쪽에 이건 익은녁.
@1 일 번.
#1 여긴 쎈녁.
@2 으.

#1 게믄 영 앚으믄 싹 나가는 거 아냐.
@2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1 으, 경헹 저쪽으로 가고. 게믄 쎈녁에도 잘 나가는 사름 잇어.
@1 쎈녁?
#1 잘 메어도 잘 못 메는 척헤근에 쎈녁에 앚는 사름도 잇어.
@1 아. 익은녁, 쎈녁이구나예? 선녁 아니고예. 거믄 익은녁 헌 사름은 막 먼저 나가불 거 아니우꽈예?
#1 익은녁 헌 사름이 문저 나가지.
@1 그면 어떵 헤? 옆잇 사름 자인 조름에 못 쫓아오민?
#1 못 쫓아오민 그니까 묻녠 허는 거라니까.
@1 (웃음)
#1 묻는 거라.
@1 어디 강 ᄒᆞ꼼 영 옆잇 사름이 도와주고도 헤?
#1 도와주지 안헤. 자기, 자기 파니만 쫙쫙 나가지 경헹 또 그러니까 못 메면.
@2 묻으멍 같이.
#1 점점 넓어지는 거라.
@1, 2 어.
#1 문여 나간 사름이 다 싹 냉기곡 나가거든.
@1 으.
#1 자깃 거, 자깃 거 자기 고랑은 전부 떨어진 사름안티 다 멧기고 나간단 말이야. 거민 떨어진 사름은 계속 떨어지는 거야.
@1 일 더 하큰게, 예?
#1 으. 경허니까 겨니까 빨리 나가젠 막 묻곡 막 나가는 거지.
@2 게믄 우리 저기 검질메는소리, 사대 허는 사람은 어디 앚아?
#1 으?
@2 검질메는소리 허는 사름은 어디 앚아?
@1 선소리 허는 사름.
@2 선소리 허는 사름.
#1 선소리 익은녁, 익은녁.
@2 아.
#1 익은녁 헤근에이 그 사름은이 조금 족영 메곡 쫙쫙 나가는 거라.
@1 으.
@2 빨리 가젠 헤부니까.
#1 노래허멍 쫙쫙 나가 불민이 또꼬망에 막 쫓아오멍 저 후소리 허지 또 도독질허멍 냉기멍 도망가는 사름은 도망가지. 게민 떨어지는 놈은 많이 헌 사름은 이만이 헤부는 거라. 파니가 이만이 헤불어. (웃음)
@2 게난 삼춘이 검질도 잘 멧구나?

#1 나?
@2 익은녁 허니까.
#1 검질 잘 메지. 검질 어떻게 메냐면이 파니가, 파니가 이렇게 잇잖아. 이렇게 조가 고작허게 낫잖아. 게믄이 이걸이 이렇게 이렇게 허믄 안 뒈, 이디 팍, 이디 팍, 이디 팍, 이디 팍 이렇게 잡아불어야 뒈.
@1 으.
#1 여기 한번 팍, 저기 허믄 팍.
@2 소끄는 거를.
#1 으. 경 허는 게 소까지는 거라, 조가. 겡 이거 멜 줄 모르는 사름은이 이걸 하나씩 허믄 떨어지는 거거든. 여기 흔번 팍, 저기 흔번 팍팍, 팍팍.
@2 하영 나니까.
#1 으, 팍팍 메여동 기냥 가는 거여.
@1 으.
#1 게믄 중간에 검질 떨어졍 잇곡, 검질 떨어졍 잇곡.
@2 게난 초불 서끄곡 두불 서끄곡.
#1 게니까 검질이 별로 엇잖아, 팍팍 메부니까.
@2 예.
#1 겐디 그걸 못하고 이걸 떨어져 불믄 묻어 불거나 경허믄 안 뒈지. 게난 흔 주먹씩 팍팍 뜯어, 팍팍.
@1 으.
#1 경허믄 우린이 항상 일 등 헤. 팍팍 흔 줌썩 메거든.
@1 으.
#1 겡 고랑에 강 떨어진 놈덜안티 메껴불곡. (웃음)
@2 겡 조 불련. 조 불령은에 메칠만에 소끕니까? 소끄는 건 메칠만에 소꽈?
#1 그거는 메칠만 헌 게 없어.
@2 으, 어느 정도?
#1 조, 밧디, 밧이 좋으면 빨리 크고, 밧이 궂이면 조가 빨리 안 크잖아.
@1 으.
#1 겡 크는 거 보면서 허니까. 건 며칠이란 건 한계가 없어. 기한이 없어. 건 밧디 따랑 틀려.
@2 예.
#1 나중에 게난 우연팟은이 다른 데보담 우연팟은 제일 나중에 허는디 그건 문저 헌다고. 우연팟은 거니까.
@1 으, 맞아.
#1 우연팟은 거니까. 경헌다게, 거, 뭐 불령 며칠이란 게 없어.
@1 으.
#1 커 가는 거 보멍.

@2 수확은 언제?
#1 수확은? 아, 피어 가지고, 이.
@2 멧 월달쯤에?
#1 익으면 숙잖아. 숙으면은 조 보면서 수확허게 뒛다 허믄 허는 거지. 문저 불린 딘 문저 익는 것도 아니고.
@2 으.
#1 건 익는 거 보면서 수확허는 거.
@2 게난 대강 어느 정도에? 몃 월달 정도에?
#1 아 그거, 팔월, 구월쯤 뒐 건가?
@2 구월?
#1 으. 구월 그, 가을, 그거, 그거 수확철이라.
@2 예.

콩농사

@2 콩은?
#1 으? 콩?
@2 예.
#1 콩은, 콩은 뭐 별로 많이 안 갈아근에.
@2 언제 갈아?
#1 장 담을 콩이나.
@2 콩은 언제 갈아?
#1 것도 마찬가지 저 ᄉᆞ, 보리 헤난 디도 갈고이 유채 헌 디도 갈고 그래.
@2 으.
#1 경허단 뭐 오류월달이지.
@2 으. 게믄 감저 싱글 때쯤 헙니까?
#1 으, 콩도 갈곡 감저도 싱그곡 헤가는 거라.
@2 으.
#1 전부 그때 오뉴월달에 전부 보리 수확허곡 유채 수확헤둰 가을 농사 다 허는 거. 겡 다 ᄆᆞ믈만 팔월달에만 가는 거.
@2 ᄆᆞ믈은 팔월달.
#1 으, ᄆᆞ믈은 팔월, 다른 건 콩, 뭐, 산디, 조 거 다 그 오뉴월달에 간 거.
@2 산디는 조보다는 빨리 불린덴 헨게마씨.
#1 아, 조보다 조금 메칠 조금 빨라.
@2 뭐 저기.
#1 산디 기간이, 기간이 조보담 걸리니까.
@2 아.
#1 산디가 조금, 조금 일찍 헤여.

@2 예.
#1 조금 일찍 게메 산디 그렇게 많이 안 갈아.
@2 뭐 한식 때쯤 헌덴 허멍.
#1 건 멩질 헹 먹젠 거 산디로 헹 먹젠 그거 산디 ᄒᆞ꼼 가는 거주. 산디는 많이 안 갈아.
@2 으.

메밀농사

@2 ᄆᆞ믈은 팔월에 간덴 수확은 언제 허는 거우꽈?
#1 팔월, 그건이 구월달에. 구월 ᄒᆞᆫ덜이민 다 뒈어. ᄒᆞᆫ ᄉᆞ십일, ᄉᆞ십일이믄 다 뒈어, ᄆᆞ믈은.
@1 으.
#1 금방 펴서, 금방 꼿 펴서 금방 ᄋᆞ무는 거라라.
@1 으.
#1 ᄆᆞ믈은 상당히 빨리 커.
@2 예.
#1 으. 빨리 커.
@2 또 농사가 뭐 잇지?
@1 이거 말고 또 다른 농사 미신거 헤수과?

기타 농사

@2 퓟.
#1 거 뭐 없어.
@2 퓟은 언제 갈아? 퓟.
#1 퓟도 퓟도 마찬가지 콩 마찬가지.
@1 으. 깨?
@2 으, 깨.
#1 꿰는 꿰는이 꿰는 인칙 갈아, 인칙 갈아. 꿰는.
@2 사월 초파일쯤에 간덴 허멍.
#1 사월 초파일 경에 갈지. 으, 그ᄀᆞ리에 갈아. 건 인칙 갈아.
@2 그 고리에 갈면 언제 수확허는 거지? 꿰는?
#1 그거, 그건이 이제 이제 칠월달. 칠팔월. 그거.
@2 요즘 막 꿰 헴십디다.
#1 거이 지금이 막 폇는디 거 꿰는 저거 아주 위험헌 거라, 장마 치민이 헤 먹지도 못허고 저거. 또 태풍 불어도 안 뒈고. 저거 완전히 위험헌 농사라.
@1 아.
#1 솥에 들어가야 먹는 거지, 솥에 들어가기 전엔이 먹을지 말지 모르는 거.

@1 먹을지 말지 모르는 거? 솟디 들어가야 먹는 거.
#1 지금, 지금 막 꼿 피엄서.
@2 예, 막 꼿 피엄십디다.
#1 막 꼿 피는데. 거 요 지금 장마 안 지낫잖아.
@1, 2 예.
#1 장마 들어가민이 칠월 소네기가 잇어, 소네기.
@1, 2 예.
#1 소네기철이 잇어. 그거 그때 이제 자꾸 비 와 불믄.
@2 써거 불곡.
#1 뀌는이.
@1 아.
#1 진짜 못 헤 먹어.
@2 솟디 들어가야 먹는 거구나?
#1 으. 요샌 저 그거 하우스덜이 잇으니까.
@1 예.
#1 거기에 집어놔가지고 허는 사름도 잇고 또 허니까 그렇지 저 안 뒌다게.
@1 으.
@2 여기 뭐 저기 배추나 무나 이런 놈삐 같은 건 안 납니까?
#1 그거는이 저, 저, 저기고 여기는.
@2 그런 건 안 헤? 으.
#1 밀감, 밀감만 다 헤부난 그거 헐 맛이 없어. 단, 저 토지는 잇는데 여기 사름이 엇곡. 어디 육지 가서 사는 사름덜 토지.
@1, 2 으.
#1 그거는 저쪽 사름덜. 저 구좌 쪽 사름덜, 성산 사름덜 그 사람들 와근에 임대 내근에 무수.
@2 아.
#1 더덕 그런 거 허여.
@2 이 동네 사름이 허거나 허진 안헤예?
#1 으. 이 동네 사름 엇어.
@2 게믄 이 동네 지금 토산은 몃 명, 인구가 몃 명 정도 뒙니까? 대략 몃 가옥인가?
#1 인구가 흔 삼백, 삼백 멧 명 뒈나?
@2 옛날 원래 여기 토산 주민들.
#1 으, 으.
@2 그 사름덜이.
#1 토산 주민 이젠이 웨, 웨지서 온 사름덜 많아. 삼분의 일은 여기서 온 사름이라. 삼분의 이는 본토백이고.
@2 예. 게믄 그 본토백이들은 주업이 뭐우꽈?

#1 감귤.
@2 감귤.
#1 으.
@2 대부분 다 감귤?
#1 으, 다 감귤.
@2 감귤 안 허는 집은 엇어?
#1 감귤 안 허는 사람은 엇어, 거의 다 감귤이라.
@2 어.
#1 전부 감귤이라.
@2 이 동네 주업은 감귤이렌 헤예?
#1 아 감귤이지.
@2 감귤도 잇고 다른 디 보난 망고도 심고 막 헤선게만은.
#1 그거, 그거 감귤 소끄나, 망고도 잇고이 뭐 많아. 여기 품종이 궹장히 많아.
@2 귤 종류도 많고.
#1 귤 종류도 많고 여기는 없는 종류가 없어. 품종이 잇는 거 다 잇어.
@2 으. 그래서 바쁘구나예? 이 동네.
#1 어, 뭐 품종은이 하여간 세상에 나온 품종은 다 잇다고, 토산에.
@1 (웃음)
@2 게믄 일년에.
#1 웨국, 웨국 저 과일 종류도 다 잇고.
@1, 2 으.
@2 게믄 이 동네 일 년 수확이 잘도 하쿠다예? 연 버는, 버는 마을 수확이.
#1 표선이서 토산이 제일 사는 부락이라.
@2 아 기우꽈?
#1 으.
@2 표선이 아니고?
#1 표선이? 표선이는. 토산이 제일 잘 사는 부락이야.
@1 어. (잡담)

바다일

@1 삼춘 바당일도 헤납디가?
#1 으?
@1 바당일.
#1 바당? 바당일은 안 헤.
@1 바당일은 안 헨?
#1 어린, 어린 때 고기 나끄레 다녓지, 바당에.
@1 으.

#1 고기 나끄레 다니는 거뿐이지 업으론 안 헷어.
@2 이 동네 어부 하는 사름도 이수과?
#1 어부 허는 사름 잇엇지, 옛날에. 이젠 없어.
@2 한 명도 엇어?
#1 어부 허는 사람 아무도 없어.
@2 어.
#1 저, 뗏마 헤가지고 저 어렝이 나끄레, 낚시 뎅기는 사름은 잇어도 어부는 없어.
@2 전업으로 어부 허는 사람은 없어예?
#1 그전엔 어부가 많앗는데 전부 밀감 허지, 어부 안 헤.
@2 물질 안 헤?
@1 해녀들.
#1 해녀 물질 허는 사름 잇어.
@2 으, 멧 명 정도 뒈는고? 여기는.
#1 한 십 명인가? 십이 명인가?
@2 하진 아녀다예.
#1 으. 나이 많은 사름들이주, 뭐. 아 저 해녀 대학 나온 사름덜 세 사름 잇어.
@1 아.
@2 해녀 대학.
#1 해녀 대학 나온 사름. 거 여기 왕 가입헤가지고. 근디 그 사름들 잘헤.
@2 음.
#1 잘헤.
@2 여자 삼춘도 물질헤? 여자 삼춘도 물질헤난?
#1 으, 헤낫어. 헤낫어. 거의 여자들 헤낫어. 우리 나이 또래 마누라덜 거의 다 헷지. 거의 다 헷는데 이젠 나이 많고 돌아가 불고 허니까 이제 젊은 사름은 이제 거의 대학생들. 대학생허곡 우리 동네 사름은 ᄒᆞ난가 베와서 허곡.
@1 으.
#1 해녀 거 힘든 거여.
@1, 2 예.
#1 으, 거 힘든 거.
@2 요즘 해녀들 무슨 일헴신고?
#1 젊은 때 힘 잇을 때 허는 거지.
@2 요즘 해녀들은 무신거 잡암수과?
#1 으?
@2 요즘 해녀들은 뭐 잡암신고? 바당에 강.
#1 소라.
@2 소라.
#1 성게, 그리고 뭐.

@2 요즘 성게.
#1 보말.
@2 보말.
#1 수두리, 그런 거지.
@2 으. 요즘도 물질들은 헴구나예?
#1 헴주. 헴서, 헴서.
@2 삼춘 바당일 안 헷덴 헤부난 바당 건 못 물어보큰게.
@1 으.
#1 바당에 뭘 물어볼 건데?
@2 게난 바당에 옛날 삼춘네 메역도 허레 마중도 갓지양?
#1 으.
@2 메역은 언제?
#1 해녀들 잡으믄 메역 헹 헷지.
@2 어느 달에 허는 거우꽈?
#1 아 거 삼월달에.
@2 삼월에. 삼월에 허믄 언제까지 헙니까? 삼월에 허믄 언제까지 저기 메역 ᄌᆞ물아?
#1 삼월에 메역, 메역 그거 삼월달에 허믄 다 끗나버리지.
@2 으.
#1 그거 끗나믄 물령 메역 풀앗지.
@1 으.
#1 수협에 받곡.
@2 수협에서 받고.
#1 야매허는 사람 받곡.
@2 물망도 이 바당 하영 나?
#1 물망, 물망은 그렇게 많이 안 나.
@2 아.
#1 옛날엔 많이 낫는데, 이젠, 이젠 물망이엔 헌 건 없어. 메역도 이디 안 나 이젠.
@2 메역도 안 나고.
#1 메역도 안 나고.
@2 톨은?
#1 톨도 안 나고.
@2 톨도 안 나고.
#1 메역도 안 나고, 톨도 안 나고. 겐디 메역쉐는 잇어.
@2 메역쉐.
#1 으, 메역쉐도 잇엇는디 것도 엇고.
@2 우미는 안 납니까? 여기?
#1 우미?

@2 으.
#1 우미는 그 전이 조금 나낫는데, 이, 이따가 조금 나는 디도 잇고 허는 모냥이라. 거 어려운 모양이라.
@2 으.
#1 그 전인 많이 낫는데.
@2 이쪽에, 저 동쪽 바당허곡 뚜나근에 이쪽 잘 안 난덴.
#1 저 구좌 쪽 가민 우민 많이 허지.
@1 예.
#1 구좌 쪽에 톨도 많이 나고.
@2 경허드라고예?
#1 여기는 이, 저 양어장 때문에. 양어장이고 토산은 이 바다가 이쪽 안으로 들어왓잖아.
@1 예.
#1 이렇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조류가 이렇게 흘르고 이렇게 물이 흐르지 아녀는 거라. 영 고여. 물이 고이니까 바당이 썩는 거라.
@1 아.
#1 으, 겡 산이서 그 오염된 물 막 큰, 이 내창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고이니까 바당이 썩는 거라, 썩어. 게곡 양어장 헌 물도 썩엉 나가곡. 게니까 바다가 흐르는 데는 그게 흘려서 나가는데. 여기는 바다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 흐르지 않으니까 고이는 거야. 게서 안 뒈는 거.
@2 안 뒈는 거예.
#1 겡 김녕 쪽, 저 성산 쪽 거긴 바다가 이렇게 흐르잖아.
@1 예.
#1 쫙쫙 흐르니까 경 뒈는데 표선 쪽도 조금 흘러. 겐디 여긴 쫙 들어왓잖아. 뭘로만 흘러가지 여기는 고이는 거라. 게서 안 뒈는 거.
@2 게믄 해녀들이 수확들이 하진 안허켜예?
#1 으, 얼마 안 나와.
@2 얼마 안 나와예? 주로 허는 게 소라허고 보말허고 성게구나? 이 동넨.
#1 겐디 상군은 또 여기가 또, 또 좋아. 상군은이 해삼.
@2 아 해삼이 하영 나는 디.
#1 해삼 붉은 해삼이.
@2 예.
#1 붉은 해삼 소섬 저 앞바다 저 아래 깊은 디 가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1 어.
#1 건 상군 훈두 사름벳기 안 뒈.
@1 어.
#1 거기 숨비는 사름은 별로 없어.

@2 거기 그 해삼 나는 밧은 무신 밧이우꽈? 거 어느 지경에?
#1 이, 저 이, 이 하천이 내려가서 그 모래, 모래로 쭉 내려간 딘데 거기, 거기 해삼이 많이 난다 그래.
@1, 2 으.

기타

@2 예. 삼춘, 옛날 삼춘 젊엇을 때 산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하고 어떵 ᄐᆞ나우꽈? 모든 사람 사는 게.
#1 뭐?
@2 옛날 어렷을 때, 젊엇을 때 지금 나이들엉 사는 거 이렇게 뒈돌아봥 비교헤 보면 삶이 어떵 헨? 어떵 바뀌언? 세상이.
#1 삶이 어떤 때가 좋으냐?
@2 예.
#1 그야 뭐 말헐 거 잇나, 지금이 좋지.
@2 지금이 좋고, 무사? 이젠 늙어수게.
#1 늙으니까이 이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 수가 엇는데. 그냥 버흔 옷이나 앚앙 사난 좋지.
@2 버흔 거 잇으난.
#1 먹는 거 좋곡. 이제 모자란 거 아무것도 엇잖아.
@2 예, 맞아예.
#1 아무 것도 엇엉. 건디 나가 늙엇으니까 그렇지. 젊으니까 젊은 사름은 이렇게 뒈믄 안 뒈는 거. 이 세상 맞게 살아야지. 맞게 베우곡 뭐 헤야지. 우리는 지금 어디 가믄이 우리 물건 사는 거 안 뒌다니까, 안 뒈어. 뭐 가민 뭐 이거 누르라, 저거 누르라 허잖아. 전화도이 어디 통화허젠 허믄 가민이 나오믄 어디 누르세요, 어디 누르세요, 어디 누르세요, 어디 누르세요 허민 그거 어떻게 다 누르냐 말이여. 그래도 안 뒈는 거라. 겡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아니고.
@2 젊은 사람들.
#1 게난이 난 어디 가도 비싼 거 먹곡 품질을 모르면 비싼 거만 사고. 경 허는 거야.
@2 으.
#1 품질을 잘 모르잖아. 그면 비싼 거만 사는 거야, 비싼 거만. 또 전화는 그자 이거, 이거 걸곡 받곡 허는 거뿐 헐 필요도 엇고. 해마다 뒐 수도 엇곡 잘못허민 고장나고 안 뒈.
@2 게도 삼춘 교육도 받곡 영 헴신디도예? 그난 삼춘네 헐 때 고등학교 나온 사름 없잖아, 이 동네는.
#1 대학교 나온 사름도 잇지.
@2 삼춘네 또래?
#1 으.

@2 이 동네는 교육열이 높앗구나?
#1 대학교 나온 사름 많아. 서울대학 간 사름, 한양대, 뭐, 서울대도 많아. 고려대학도 잇어.
@2 삼춘네 또래가?
#1 으.
@2 이 동네 지금 사는 사람들?
#1 이 동네 사는 사람, 옛날 고려대학 간 사람들은 엇고. 표선이 쪽에 잇엇어, 표선이 쪽에. 고려대학교, 성읍리도 고려대학교 서울 출신 잇고. 우리 처남도 팔십팔 센데 한양대 나왓어, 한양대.
@2 처남이? 겡 뭐헴수과?
#1 아 퉤직헤시난 분당에 살아, 분당.
@2 팔십팔 센데 한양대 나완?
@1 뭐 헤나수과? 젊엇을 땐 무신거 헤수과?
#1 교사.
@1 아 선생님?
#1 으, 선생.
@2 옛날도 그렇게 교육들 시켠예? 여긴 교육열이 높앗던 거 같애, 이 동네는.
@1 공부 못 헌 사름도 하나수게.
#1 아니 조금만 허믄 공부 시키려고 헷지. 겡 난 고등학교 졸업헷주만은 쪼금만 헤도 보내젠 헷어. 견디 어려우면은 형제 간 많고 어려우면은 못 보내지. 겨니까 난 도둑질 헷지.
@2 거난 전분 공장도 허곡게 공무원 시험도 합격하고.
#1 나 인생을 완전히 재밋게 살앗저.
@2 어떻게 살아야 재밋게 사는 거우꽈, 인생을?
#1 아 나 하고 싶은 대로, 서울도 강, 전국 나 안 가본 디 없어.
@2 여행을 좋아헴구나예?
#1 여행도 허고이 미깡 장사 허멍 각 시장에 돌아뎅기멍 다 헤시녜게. 겡 사기도 당헤보곡. 사람이 헌덴 헌 건 거의 다 헤봣어. 사람이 헌덴 헌 건 다 헤봣어.

8. 남원읍 의귀리

- 조사 일시: 2022년 5월 16일, 5월 17일
- 조사 장소: 의귀리 복지회관
- 조사자: @ 김성용
- 제보자: #1 김병수, #2 오양수

조사마을

@ 시작허쿠다예? 그 여기 그 저 의귀리, 의귀리 와신디양? 그 의귀리에 대헹 혼번 남자 삼춘 혼번 골아줍서.

#1 글쎄 그 의귀리는 그 역사는 여기 설촌ᄒᆞ건 디는 뭐 중간, 에 여기서 춤 흔히 말허는 이 저 경주김씨가 그 춤 김만일 그, 그때부떠 형성뒌 걸로 이, 허는데. 그전에도 사람 살앗는디 그, (기침) 흔적은 뭐 어디 찾아볼 수 엇고. 어떻든 그 전에 살아난 거는 확실헌 것 같다고 엿날 어른덜이 구전으로 전헤 오고 잇수다게. 게난 이 저, 김만일 그, 할아버지가 이, 약 천오백 년대 그 사람이니까.

@ 그 여기 와서.

#1 예.

@ 산 거라마씨?

#1 예. 경허니까 그 후에 형성뒌 걸로만 이 부락지에는 역사엔 나와 잇지요.

@ 아, 거믄 역사가 혼 천오백년 뒘신게양?

#1 아니, 천오백년, 저, 무슨 아니 저.

@ 천오백 년대에 왓다는 말이우꽈?

#1 천오백 년대에.

@ 예.

#1 게난 그전에도 사름 산 거는 확실헤.

@ 으.

#1 왜 잇느냐 허믄, 이 근처에 그 이, ᄋᆞ척이랄까? 그 저 즉 말허민 아이 무덤도 잇주만은 그 방묘가 있어.

@ 으.

#1 방묘는 이거 대게 고려말 이조 초기에 그 형성뒌 거든요. 겐 그런 방묘덜이 신 걸로 봉은 그 전에 사람이 살아낫다는 걸.

@ 게고, 남자 삼춘양, 뒈도록이면은 제주도 말로.

#1 예.

@ 표준어 쓰지 맙서양.

#1 예.

@ 이때는 그냥 굴아지는 대로 굴으믄 뒙니다.
#1 (웃음)
@ 그 앞뒤 생각허지 말아근에양. 그, 그니까 한 천오백 년대에 김만일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설촌을 헷구나예.
#1 설촌을 헌 걸로 지금 현재.
@ 음.
#1 뭐 이 저 마을지에도 나오고 잇수다.
@ 아, 거난 여기 저 성씨덜은 주로 어떤 성씨덜이 살아마씨?
#1 뭐, 물론 설촌헌 그 경주김씨 자손덜이 많고. 그다음은 군위오씨, 그다음은 또 제주양씨, 고씨, 우리 광산김씨. 이렇게 순으로.
@ 으.
#1 겐디 우리 광산김씨가 한 세 번, 아, 세 번차쯤 들어왓엇는데. 우린 뭐 흔엇이 번성허질 못헤 가지고 약 뭐 한 이십여 호 기자 정도벳긴 안 뒈니까.
@ 아. 거난 제일 많은 성씨가 경주김씨마씨?
#1 예, 지금 현재로는 경주김씨, 오씨가 비슷헙니다. 뭐, 얼마 차이 잇다고 보질 아녑주.
@ 아, 거난 이 동네 영 보면은 이 오씨덜이 하마씸.
#1 아이고, 오씨 많으우다.
@ 이 남군 쪽에.
#1 예, 이, 뭐, 군위오씨 춤 우리 하르버지네영 거의 같은 시기에 여기 입촌을 헷는데도 그렇게 이, 자손이 많이 번성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자손이 번성칠 못헤 가지고.
@ 아. 그다음에 그 이 의귀리 그 옛날 이름 뭐, 뭐엔 헤나수가?
#1 겔쎄, 그거는 뭐, 그전에는 그 이 옷귀엔 헌 이름이, 옷귀엔 헤낫는디. 옷귀, 옷귀.
@ 옷?
#1 동옷귀, 서옷귀 영 헷엇는데.
@ 옷게?
#1 옷귀.
@ 옷귀. 거난, 거난.
#1 귀한 옷이 잇다는 뜻으로 헌디 그 말이 바로 지금 의귀리엔 헌 말이주.
@ 거난에 엿날 사름덜은 옷귀옌 안 헤근에 옷게, 옷게 헷구나양?
#1 옷귀, 동옷귀엔 헷주. 동옷귀. 저 우리 그 아버지네나 할머니네 말허는 거는 그 동옷귀, 서옷귀는 저 지금 남원이리가 거 같은 이린디 동리, 서이 헤 가지고 그 엿날은 구분헷던 모냥이라. 것도 아멧자 천구벡 년대쯤에 그렇게 헷는데 그르후에 행정구역상 뭐 저기는 남원이리로 뒈 불고, 이, 여기는 그자 동리, 동의귀리가 의귀리.
@ 게난 어제 오단 보난에 이 저 수망리허고 막 가까완게양?

#1 예, 수망리허고 가까와마씀.
@ 그다음 저쪽에는 저 한남리양?
#1 예.

오름

@ 예. 막 가까웁디다게. 그다음에 그, 우리 여자 삼춘안티 물어보쿠다양? 여기 오름덜 하지양? 여기.
#2 의귀릿 오름?
@ 예, 이 근방에 이신 오름덜.
#2 뭐 의귀릿 오름사 뭐 넉시오름허고 어, 민오름.
@ 민오름마씨?
#2 요기, 여기 민오름.
@ 어. 아 제주도도 보민 민오름이 하.
#2 거 민오름이엔 헤낫수다만은 난 여청 할망이난 졸바로 몰르쿠다게.
@ 그난.
#2 이 근처에 물영아리도 잇고게.
@ 그다음?
#2 에, 요디 뭐.
@ 영 튼내와봅서, 혼번.
#2 건 한남리[할람리] 지경인데 머체왓이엔 헌 건. 요 한남[할람], 머체왓.
@ 머체왓마씸?
#1 예, 머체왓.
@ 머체왓이꽝, 머치왓이꽝?
#2 머체왓이엥 헤낫수다게. 게난. (웃음)
@ 어, 머체왓.
#2 이 오름, 이 이디 가까운 딘 나 잘 몰르쿠다게.
@ 요, 요 앞에 이신 오름?
#2 민오름, 춤 넉시오름.
@ 양?
#2 넉시오름.
@ 넉시오름, 요 앞에양? 요 앞이.
#2 받아 앚은 거.
@ 예.
#2 넉시오름허고 요 바로 뒤에 민오름허고 영 우알 ᄀᆞ찡ᄒᆞ게 뒈 잇수다. 저 목장에, 목장에 민오름이 잇는디. 거 의귀리 오름이고 확실히 몰른 건, 뭐 오름 알아진 건 요디 가민 물영아리 수망리.
@ 수망리 쪽에 물영아리?

#2 예.

믈

@ 어. 그, 여기 그 물 잇잖우꽝? 물양?
#2 예, 예.
@ 여자 삼춘양? 게난 보통 이제 보면은 저 마을 이, 저, 형성 과정 보면은 이 물 이신 디가 마을이 잇주마씨. 물을 먹어야 뒈니까.
#2 예게, 먹는물.
@ 예. 게난.
#2 먹는물.
@ 거난 여기에 물 이신 디가 어디 어디 잇수가?
#2 어디, 선데기소엔 헌 디 잇고예.
@ 선두레소?
#2 선데기소 큰물 잇수다, 요지금. 그 우엔 박데기수.
@ 박제기수?
#2 박데기수.
@ 으.
#2 요건 선데기순 요만 쪽에 잇수다. 쪼금 올라가민.
@ 으.
#2 큰 수. 욜로 ᄂᆞ려가민 창세미수. 또 그 전이 ᄌᆞᆫᄌᆞᆫ헌 물덜은, 이 가까이 지어 먹단 물덜은 요디 저 ᄌᆞ반이물이여 신나물이여 허멍 막 내창에 물 먹어수다게.
@ 게난 나는물이꽝? 그냥 고인물?
#2 그자 내 내치민 ᄀᆞᆯ라앚앙 먹곡.
@ 게난 나는물은 아니고?
#2 나는물은 엇수다.
@ 나는물은 엇고양?
#2 나는물은 엇고.
@ ᄀᆞᆯ른 물양?
#2 ᄀᆞᆯ른 물이라도 창세미소, 뭐 저 이 선데기소는 물 ᄲᅳ뜨질 아녀마씸.
@ 어.
#2 다른 디 다 ᄀᆞ물아도 그대로 잇어.
@ 게난 오단 보난 여기 내창 이선게만은. 그 내창에도 ᄀᆞᆯ르는 물 엇수가?
#2 내창에 ᄆᆞᆫ딱 요디 ᄀᆞᆯ른 물, 저반이물이여, 또 기자 먹는물마씀, 먹는물만. 잇엇는 디 ᄆᆞᆫ딱, 요지금 ᄆᆞᆫ딱 까까부난 물 안 ᄀᆞᆯ릅니다게.
@ 아, 게 서답은 어디 강 허여?
#2 빨래?
@ 으, 서답, 서답.

#2 엿날은 요디 개튼물이엔 헌 디. 요디 진물. 경 헤근에 막 일헹 와도 그거 강 몬 모욕허곡, 그디서 뭐 빨래허곡 허단 이젠 갑자기, 갑제기 춤 이녁 집만씩 수도 걸어 놓고 헤놓난 이젠 내창에 뿔레 안 갑니다. 엿날엔 내에서만 살아수게, 모욕허곡.
@ 게난마씨.
#2 일헹 강 컴컴헌디 모욕허곡 빨래하곡, 아이고.
@ 그 저 ᄉᆞᆼ, ᄉᆞᆼ키 씻어야 헐 거 아니우꽈? ᄉᆞᆼ킨 어디 강 씻어?
#2 뭐, ᄉᆞᆼ키?
@ ᄉᆞᆼ키게, ᄉᆞᆼ키도 씻어당 국헹 먹어얄 거 아니우꽈?
#2 ᄉᆞᆼ키 엿날엔 그 모욕허는 물에 씻으레 가수다.
@ 아이, 모욕허는 디 저기 ᄉᆞᆼ키 씻엉 뒙니까?
#2 엿날엔 경 헤수다.
@ (웃음)
#2 물이 엇입주게. 물이 엇어근에. 경헤근에 어디 ᄒᆞ썰 곤물 이시민 ᄒᆞ썰 헤우는 체 마는 체 헤근에 엿날 어느 하가에 ᄯᅮ로, ᄯᅮ로.
@ (웃음).
#2 개튼물이엔 헌 디 큰물 이신, 이시난 그 우쪽으론 남ᄌᆞ 어른덜 모욕허곡. 알쪽으론 여자 사름덜 모욕허곡 빨래허곡 경 허멍 엿날에 살아수다.
@ (웃음) 그, 저 뭐냐 그, 여기.
#2 에이고.
@ 여기 당 잇지예? 당?
#2 예.
@ 당.
#2 당 잇수다. 이디.
@ 어디쯤에 잇어마씨?
#2 요디 쪼끔 그디ᄀᆞ라 물진밧이엔 헙니다.
@ 물진밧.
#2 물진밧당. 엿날은 저디 널당에도 당 잇어난 디, 저딘 엇어지고예.
@ 널당?
#2 예. 저, 요지금은 요 물진밧디 당 헤연에 영 집 지언에.
@ 집으로 뒌 거우꽝? 무신 돌 앞이꽝, 낭 앞이꽝?
#2 아이, 엿날엔 돌 굴, 짝 굴 ᄒᆞ나 의지헤근에 그레 ᄒᆞ단 이젠 집 지언 뎅염수다.
@ 궤, 궤이?
#2 이젠 궤. 밑에 잇곡.
@ 으.
#2 집 조그만허게 지언에 그자 글로 당에 다니는 사름덜은 다니고예.

당

@ 거난 집으로 뒌 당도 잇구나양?
#2 그 당에 집 짓엇수게. 그 당, 엿날엔, 엿날부떠 허단 디, 그 터에 집을 짓엇수게.
@ 아, 영 보민은 저 집 짓은 디 당, 집 짓은 당이 잇고. 그 저 이런 그 낭, 폭낭 ᄀᆞ뜬 거, 막 큰 거 헌 디 당이 잇고.
#2 그거 수망리, 요지금 큰 당양?
@ 으.
#2 저 엿날 어른덜, 우랏할망 우랏할망 허멍 큰 폭낭에, 큰 폭낭 이신 디, 아이덜토 막 엿날은 허물 납니께게. 허멀 나민 문 죽어가가민 그디 강은에 무시거 강 빌어주곡 허멍 허단 이젠 크게 집 짓엇수다, 그디도. 예.
@ 겡 지금도 당 뎅입니까?
#2 하이고 그 당에 뎅입니다.
@ 언, 멩질날마씨?
#2 엇수다. 저 어, 겨울에는 음력으로 동짓달 열읏새날.
@ 어.
#2 열, 아니 열ᄋᆞ드렛날이고예. 또 수망리는, 수망리는 어, 할망당[땅]이라고 헤서 초일렛날.
@ 초일뤳, 정월마씸?
#2 아니, 저 유월.
@ 유월 초일뤠.
#2 예, 유월 초일뤠, 유월 초열읏새, 경헹 뎅입니다게. 수망리 어른덜은 이땅 요 물진 밧당에도 오곡. 그자 그 엿날 할망덜이영 그자 ᄒᆞ쏠 우리 닮은 사름은 이지금도 못젼 디민 수망리도 가곡 경, 경 헙니다.
@ 아, 거난에, 거난 유월 아까 일뤠하고.
#2 음력으로.
@ 일뤠하고 열엿새.
#2 저 열여드레.
@ 열여드레. 그 가는 이유가 뭐라마씨? 유월달에 가는?
#2 그건 몰르쿠다게. 엿날부떠 그걸 경 허난에 기자 그날로 계속 뎅입니다. 일레, ᄋᆞ드레 허멍 엿날에 뎅이단 이젠 아주 간단허게시리 열ᄋᆞ드렛날만 갑니다.
@ 아 게난 우리 동네 보면은 우리 집으로 뒌 당이우다게.
#2 예.
@ 그 보면은 멩질 끗낭, 멩질 끗낭에 당에 갑디다.
#2 이딘 끗나질 아녀고. 가는 날이 저.
@ 멩질 저, 이 저 뭐냐?
#2 정월?
@ 정월 멩질허고.

#2 으.
@ 그다음에 저, 뭐 팔월 멩질.
#2 건 북군허고 남군하고 아멩헤도 틀립주, 틀리곡.
@ 아, 겅, 당.
#2 예.
@ 거난 지금도 다니고양?
#2 요지금도 뎅이는 사름덜, 막 ᄒᆞ쏠 많이 뎅입니다게.
@ 어.
#2 이 심방덜은 다 돌아가 벼도 그자 요지금.
@ 여기, 여기도 심방 잇수가?
#2 여긴 엇수다. 의귀리, 의귀리 삶은 헙니다. 저 엿날은 태흥리 심방이여 무시거여 허멍 헌디, 의귀리 저펜이 살암수다.
@ 그 사름이 저 당에 왕은에 뭐헙니까?
#2 예, 그 사름이 옵니다.
@ 아.
#2 가게 뒈면 깨끗이 왕 청소허곡.
@ 아.
#2 막 잘허는 심방이 잇수다.
@ 아.
#2 대대로 ᄂᆞ려온 디예. 아무나 못 들어가.
@ 아 거난 거, 거 물림헌덴 헙디다게. 그 심방들은.
#2 대대로 ᄉᆞ뭇 엿날부떠.
@ 그 미신 칼, 칼인가 뭐는 그걸 꼭 헤야둰덴 허드라고.
#1 (웃음)
@ 칼허고 거 뭐꽈? 이 동전 닮은 거? 거 뭐.
#2 예게, 엿날부떠 그것사 돈 담은 거 데끼곡. (웃음) 칼 닮은.
@ 그거 물림허는 거옌.
#2 예, 예. 물림허곡 또 받을 사름 엇이민 저 시에 ᄆᆞᆫ 박물관에도 ᄆᆞᆫ 앚당 바찌ᄀᆞ렌 덜 허고.

포제

@ 아. 그다음에 우리 남자 삼춘 그, 여기 저 포제 헙니까? 포제?
#1 포제는 엿날은 계속 잘 헷엇는데. 거 칠십 년대 뭐, 뭐 의례준칙이여 무시거여 허멍 ᄒᆞ여가니까. 또 그 당시 딴 디도 다 그때덜 그 소멸이 뒀는데. 우리 동네에도 좀 부락 책임자가 이 종교인이 뒈다 보니까 그게 어떵 어떵헨 설러져 버렷어.
@ 언제쯤 엇어져불엇수가?
#1 ᄒᆞᆫ 칠십 년대.

@ 칠십 년 전에 엇어져 불고.
#1 예, 칠십 년 전이 엇어졋는데. 그, 그전에는 춤 아주 열심이 잘 헷주. 그 ᄉᆞ삼사건 그 어려울 때도 다 쏠 ᄒᆞᆫ 줌썩 내놓멍 다 그걸 저, 저 포제를 다 헷는데 그때는 그거 아녀민 이 사람이 막 쥐 받을 걸로만 그 인식이 뒈어 가지고.
@ 그 포제는 멧 시 정도에 헤여마씨?
#1 아, 포제도 그 저 새벽 ᄒᆞᆫ 시에. 저 새로 ᄒᆞᆫ 시, 열두 시에 ᄒᆞ게 뒌 거주.
@ 자시에양?
#1 예, 자시에, 자시에 ᄒᆞ게 뒌 거난 거 춤 겨울에 추운 때쯤은 그거 뭐 춤 고셍 아닌 고셍입주. 아주.
@ 포제 헐 때는 남자덜만 갑니까, 여자덜도 갑니까?
#1 아이, 여자 안 가.
@ 여잔 안 가고양?
#1 예, 여잔 안 가고, 남자덜만.
@ 무사 여잔 안 갑니까?
#1 그런 데는 이 여자덜은 참석 아년다고 헤 가지고. 집이서 음식 준비는 춤 여자. 주인집이니까 여자덜 안 들엉은 홀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남자덜, 남자덜만 가.
@ 요즘 ᄀᆞ뜨면은 성차별헴덴 허멍 헐 건디.
#1 아니, 요사이도 뭐 그 저 뭐, 이 저 향교에도 엿날은 안 뒛는디. 이젠 향교에도 그 저 여자, 그 저 뭐가 잇어마씀양? 게 나도 그 향교에 ᄒᆞᆫ 둬 ᄒᆞᆫ 멧 번 봣는데.
@ 여기, 여기선 향교 어디 다닙니까?
#1 아, 여기는 저, 저기.
@ 정의?
#1 저 성읍리 뭐 다니난, 어디.
@ 맞아, 정의현이난.
#1 이 보면은 이젠 여자도 참예허고, 뭐 그 딴 디도 보면은 뭐 이 큰 그 저 서원 ᄀᆞ뜬 디나 무신거 제사헐 때도 다 그 여자도 이젠 참예허는 모냥이라.
@ 아, 게고 저 포제헐 때 무신거 올립니까?
#1 아, 뒈지 생체 헤근에 올리는 거주게.
@ 뒈지, 거난에.
#1 그 저.
@ 우리 남자 삼춘 뒈도록이면 제주도 말로. 도세기.
#1 도세기.
@ 예.
#1 저 ᄒᆞᆫ 기자 지금 ᄀᆞ뜨믄 ᄒᆞᆫ 십오 관 정도 뒌 거 헹 잡아근에.
@ 생체?
#1 셍체. 저 내장은 빼 불고 헤근에 춤 희생이엔 허주, 희생 거.
@ 희생?

#1 희생.
@ 어.
#1 소변이 그 저.
@ 어, 희생.
#1 어, 희생. 희생이엔 헤근에 그게 그 딱 제물을 보관, 저 전날 저 잡아근에 그 보관인가, 츰 이 놔둿다근에, 놔둿다근에 그 세벡 제 때가 뒈가면은 거 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주. 게난 여기서 한 이 키로 정돈 뒌, 아, 이 키로 정도, 이 키로 정돈 뒌딘 디, 이 동산 올라가다 보면은 뒌딘 디. 이젠 그 포제 지내던 디도 그게 이 엿날은 이 부락성(?)이랏는디. 이 엿날 그 집지기, 향사를 짓기 위헤서 돈이 없으니까 걸 매각을 헤분 거라. 게니까 이젠 거 개인밧이 뒈어 가지고, 그 오꼿 과수원 허멍 다 치와부리니까 이젠 흔적도 없어.
@ 아, 어느 근방에 잇어낫수가?
#1 아, 저, 의귀리 경낸디 여기서 흔 이 키로? 이 키로 정돈 뒐 거여.
@ 아. 그, 그 흔적은 잇수가?
#1 아이, 흔적이 게난 과수원 허멍 다 치와 불엇젠 허난.
@ 아,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불엇구나.
#1 다 밀어 빗주, 뭐. 그 당신 포크레인도 엇일 때난 무시거 기자 사름 등짐으로. 기자 헨에 무시거 헨에 우리 알건디도 그 제단이엔 허면은 경헤도 깨끗이 헤근에 이 저 세멘이라도, 뭐 엿날 세멘이 잇어시랴마는. 게 돌이라도 어떻게 좀 가끈 돌로라도 헤시민 헐 건디 그렇지도 않고. 거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기자 뭐 츰 납삭헌 돌, 기자 흔 멧 개 영 놓고. 따시 영 담 둘른 거뿐, 그 정도주.
@ 어.
#1 뭐 제단이엥 헷자 그거 뭐 벨 거 아니. 츰 게난 거 엿날도 삶이 어려와다보니까 그 어느 하가에 그 츰 돌 가까근에 그 제단 만들곡 헌 츰 뭐가 엇어, 엇어 놓니까 그런 걸로 난 봐지는데. 츰 아까도 그 당 말을 헷주만은 당도 의귀리 내 저 뭐 한 너댓 밧디 잇엇어. 잇엇는디 것도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 저 큰 폭낭 밑에 대개는 다 큰 폭낭 밑에.
@ 예.
#1 그 아까 굴은 물진밧디엔 헌 디도 그 엿날은 큰 폭낭 잇어낫주게.
@ 으.
#1 폭낭이 잇엇는데.
@ 폭낭이나 큰 돌.
#1 예. 돌은 아니고 그디가 거 궨가? 나 흔 번 봐난 기억은 잇는디 게난 그디 지금 헨 헴구나.
#2 큰 궤 막 쏘곱이 들어간 디.
#1 아 막 들어간디꽈?
@ 어.

#1 그 ᄉᆞ방이 그 저 굴덜이 많은 디주게. 그 저 우리 밧, 동녁 밧도 그 굴 잇어나난 그디 그 저 누게 춤, 저 굿허멍 거기서 막 헤낫는디.
#2 거, 서월끄지 가멍 허가 마타단 짓엇덴 헌 거라.
#1 게난 그 집은 그 어디 부락에서 헤 준 건 아니고, 이 마을에서 헤 준 건 아니 아닌가. 개인적으로 헤단 헌 건가?
#2 저 심방 놉 빌언 짓엇수게.
#1 아, 심방이. 경 헤실 테주. 아, 그디는 잘 뒈는디, 저 널당은 이제는 폐쉐헤 분 모냥 같애. 이 엿날에는 이 우리 동네에도 그 심방 허던 그 사름덜이 잇엇는데. 거의 이젠 멸족뒈다시피 허고, 또 근세에 들어서 그게, 이 그당시 천대를 받아나니까 그 자손덜 잇어도 ᄒᆞ젠도 아녀고. 오히려 그걸, 오히려 피허젠만 헤놓난 이젠 심방이엔 헌 사름은 이젠 없어요, 우리 동네. 뭐 아무 동네도 마찬가지주마는.

문화재

@ 그 의귀리 문화재 잇수강, 문화재?
#1 문화재엔 헤도 뭐 별다른 게 없어. 그전에는 그거 뭐, 지경은 한남리[할람니] 지경이라낫는디, 그때 그 우리 어린 때 보면은 나 거 기억나는 게 대정현감 송두옥, 뭐 영세불망 기념비엔가 하이튼 그거 잇어낫는디, 그기 비석인 한, ᄒᆞᆫ 열댓 기가 잇어낫는디.
@ 어.
#1 거 어떻게 그 사삼사건 난에, 재건헨에 저기가 저 비석도 참 비각도 잘헨 셉고. 아주 돌로 가까 가지고 춤 돌도 그 어디서사 헤단 헌 건디, 그것도 허젠 허난 엿날 대정현감 글로 ᄒᆞᆫ 번 넘어간 거, 다 그걸 선정비로 세왓으니까게. 아이 거 잘헤 놧는데 그 ᄉᆞ삼ᄉᆞ건 헨, 난에 성 안에 살단 다 벳기 나가게 뒈니까 그걸 갓다가 기자 춤 뭐 집에도 써 불곡 그자 그때는 춤 엇이니까.
@ 게난 지금은 엇구나양?
#1 에, 지금은 없어. 게 저 일부 남은 거를.
@ 복원도 안 허고.
#1 아니, 그 자꾸 그, 이 춤 이 문화재 그 관리에서 자꾸 조사가 와낫어, 중간에. 완헌디 그때 한 기가 남앗는디 한 기 남은 게 지금 저 남원이리에 운주오름 옆이 가서 그 세완 이실 걸로 아는데.
@ 어디마씸?
#1 저 운주오름 남원이리. 거 저 한남리레 내려가다 보민 그 산 밑에.
@ 어.
#1 그 비석이 잇어.
@ 어.
#1 잇는데 그때는 그 비석이 여라 기가 잇어낫는데. 원 거 엇고, 원 그루후에 뭐 물론, 뭐 이 비석이 뭐 요 근처에도 쫌 ᄒᆞᆫ 기 잇어낫는디. 건 우리 두린 때, 뭐 어릴 때

난 뭐, 국민학교도 아이 다닐 때 보민 그거 잇어낫는디. 지금은 그것도 흔적 엇고, 원.
@ 어. 거난 이거 뭐냐, 이 저 초등학교.
#1 예.
@ 초등학교는 옛날 터꽈?
#1 예. 그거 저 여기가 그 이 저 남원읍에선 이 남원, 위미, 의귀가 젤 먼저 헷는디. 여기는 거 사십이년도에 의귀가 이 저 학교 짓엇수다게.
@ 아.
#1 학교 짓엇는데.
@ 이것도, 뭐 초등학교도 하나 문화재네, 이건.
#1 아니, 게니까 그 집이 아니주게. 지금 현재. 그땐 그 저거 아멩 헷자 뭐, 학교 짓젠 허민 그게 뭐 일이 년대로 그거 설계가 뒈고 무신거 허는 게 아니라 놓니까[노니까] 그때도 실지 돈이 어디 십니까게. 그 당시 일본 건너가서 뭐 춤 헌 사름은 돈이 좀 셍겻주만은 이 촌에서는 돈 날 일이 없거든.
@ 거난 엿날은 이거 돌집아니우꽝게.
#1 엿날에 돌집이에 그, 게난 ᄉᆞ삼ᄉᆞ건에, 그 ᄉᆞ삼ᄉᆞ건 전에 그때 삼 교실인가 사 교실 짓어낫어. 게난 우리도 그 당시 천이백 평짜리 밧을 ᄒᆞ나 풀아 가지고 삼백 원을, 삼백 원을, 삼백 원을 그 저 배당이 뒈어 가지고 거 밧 ᄒᆞ나 풀앙 기자 허니까 걸로 끗이여. 겡 그 학교가 ᄉᆞ삼사건 뒈니까 이 남원국민학교는 타 버리고. 아, 여기는 잇엇단 말이여. 아 게난 이걸 튿어단 남원리 간 짓어 놓니까 그때도 그르후에 그때는 좀 이딧 사름덜 멕을 못 쓸 때라 놓니까.
@ 게난 사삼 전에는 학교가 잇엇는데.
#1 예.
@ 그 소실뒈 가지고 다시 뭐 뒛구나양?
#1 아이, 소실뒌 게 아니고. 폐교 뒈니까.
@ 예.
#1 그 사삼사건으로 학셍을 못 다니니까.
@ 어.
#1 그게 남원린 국민헥교 소실이 뒈불고. 그러니까 이제 남원리 사름덜이 이걸 튿어단에 그 남원국민학교를 짓은 거주.
@ 거난 그, 사삼 이후에는 여기가 학교가 또 엇엇다는 거네?
#1 아니, 그러니까 그 사삼사건 나니까.
@ 으.
#1 이젠 그 저게 한 오십사, 아니 오십 년, 오십이 년쯤에, 이 저 뭐 오십일 년쯤에 이 분교를 셍겻어, 분교. 남원국민학교 의귀분교, 경 헷는디. 그땐 뭐 분교엔 헤봐야 춤 무시거게 이 저 안 뎅기는 아이가 반이고, 게곡 경 헤 가지고 또 그 어려움에도 그 가교사를 집을 짓젠 허니까 그때 교실 두 개를 헤댄, 초집으로 짓엇는디 춤 그 나

무를 어디 간 헷느냐믄 저 한남 목장에 그 절도엔 헌 디 간 그 우리 아버지네 세대 그 낭을 목대 허여 오는 거 보믄 그 큰 나무도 막 좋은 것덜이랏어, 춤말이지. 그거 잇어시믄 진짜 문화재가 뒐 건디.
@ 게난 특별헌 문화재는 엇구나예?
#1 예. 특별헌 건 엇수다게.
@ 아.
#1 겐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산 거주.

제보자 일생

@ 그다음에 이 제보자에 대헤서 좀 굴아줍서. 그, 어, 이건 남자 삼춘도 말허곡 여자 삼춘도 말허곡. 우선예, 그 낳고 자란 과정.
#1 으. (웃음)
@ 거면은 나이, 그 출생지, 학력, 거난 낳고 자란 과정 흔 번 말헤 봅서.
#1 뭐, 뭐, 뭐 나뿐이 아니고 딴 사름도 또 마찬가지. 뭐 그 같은 시대야 거의 비슷헌 생활덜을 헤실 건데. 뭐 나도 뭐 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춤 엿날은게, 뭐, 춤 그 춤 어려운 세상이주, 춤. 그레 가지고 낫는데. 춤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말은 곧는데. 에, 열ᄒᆞ나 애기 난에 재우 네 개 살앗다는 거라.
@ 열ᄒᆞ나, ᄒᆞ나?
#1 예, 열ᄒᆞ나 애기 난에 네 개 살앗는데. 그, 나 우에 우리 형님 잇고, 우리 누님 잇고, 나 밑에 동셍이 ᄒᆞ나 잇어. 겐 네 식구랏어. 그 ᄉᆞ삼사건 직전에도. 경 헨 우리 형님은 그 ᄉᆞ삼사건 직전에 결혼을 헤 가지고, 결혼을 헤고. 또 결혼 생활도 뭐 순탄치 아니헷지. 뭐 그 황황헐 때 곱으레 뎅긴다 덴다 허다 보면은 그 춤 살 시간이 별로 없엇어. 그래 가지고 산으로 피난인가 곱으레 춤 가부니까.
@ 멧 년도에 결혼헙디강?
#1 아니 나는, 아니, 우리 형님이, 우리 형님이.
@ 아.
#1 우리 형님이 한 사십칠 년도에 결혼헤실 거라게.
@ 아, 게난 남자 삼춘은마씨?
#1 나? 아, 나는 저 이 육십년도에 허고.
@ 게난 멧 술, 육십 년도에?
#1 예, 게난.
@ 좀 늦게 헌 편이네양?
#1 아이, 아이 늦게도 안 헷어. 뭐 나 스물네 술에 간 거난.
@ 아.
#1 그 저, 그래서 그 우리 형님네는 뭐 그런대로 춤 예비검속도 당허고 그렇게 허단 춤 돌아가시고. 뭐 춤 남은 건 우리 삼 남매여. 겐디 우리 아버지, 어무니 계시는데 그때는 농사옌 헤봐야 이 비료가 엇인 때라 놓니까 춤 여기 척박헌 땅에 곡식이 잘

안 뒈 가지고 춤 삶이 춤 뭐 우리뿐이 아니고 놈도 다 마찬가진 생활을 헷는데 그래도 부잣집에 좋은 밧덜을 가진 사름은 그래도 먹고 사는 디는 걱정이 없엇는데. 춤 이 저 밧이, 뭐 요새는 좋은 밧, 궂인 밧이 엇어 가지고 뭐 아무 밧이라도 허면 농사도 잘 뒈곡 뭐 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아이랏주게. 춤 좋은 밧, 가름팟만 가진 사름은 그래도 생활이 윤택허고. 경 아닌 사름은 춤 늘 일만 허고 고셍만 뭐 춤 실컷 헨에 그래 가지고, 에, 저가 춤 아까도 말헷주마는 육십사년도에 결혼을 헤 가지고 그 때는 그 우리 아버지도 계실 때고. 그래서 그때부떠는 내가 그 주가 뒈 가지고 이 농사를 허니까 아무래도 그 또 비료 이 수급도 잘 뒈고 허니. 잘 뒈멍말멍.
@ 예.
#1 그때까지도 막 비료 사기가 힘들엇는데.
@ 학교는 어디까지 나옵디강?
#1 아이, 난 중학교까지벳기 안 나와수다.
@ 중학교양?
#1 예, 경 헤 가지고.
@ 중학교는 저 남원중학교?
#1 예, 남원중학교. 남원중학교도 초기라 놓니까양. 춤 말이 아니랏수다게, 실지가. 이 남원, 아무디도 마찬가지주마는 뭐.
@ 게고 저 자식은, 지금?
#1 아이 게난 아까도 말헷주만은 삼 남 이 녑주게.
@ 예.
#1 삼 남 이 년데. 아이덜은 다 저, 서울더레 가불고. 우리 막내 하나 여기서 나영 같이 기자 농사허는 중입주.
@ 막내아덜?
#1 예.
@ 가이가 더 유리허컨게마씸.
#1 아이, 지금은 오히려 효자라, 실지.
@ 아, 최고 효잡주.
#1 최고 효자우다게. 아이 나가 못젼딘 일 이시민 가이ᄀᆞ라도 헤ᄃᆞ렌 허고. 춤 특히 나 또 벌초.
@ 으.
#1 벌초는 뭐 우리 아이덜 돈은 뭐 잘 보냅니다게. 이 돈 관계는 뭐 춤 착착착 뭐 잘만 허는데.
@ (웃음)
#1 아 이놈덜이 ᄂᆞ려와근에 경헤도 ᄒᆞᆫ번 궨당덜안티라도 속암젠도 ᄀᆞᆫ곡 ᄀᆞᆯ으렌 헤봐도 아 바쁘덴 허멍 안 내려오니 이것도 춤, 또 우리 아시 아덜도 마찬가지라. 두 개가 다 서울 가부니까.
@ 메누리덜이 문제우다게.

#2 (웃음)
@ 내려가지 못허게 헴수게. (웃음)
#1 게난 안 내려올 것 같애. 영 보니까.
#2 메누리덜토 육지 메누리 허고 허난 더.
@ 더 허주게.
#2 예.
#1 여깃 아이[따이]도 가민 안 ᄂᆞ려오젠 헐 건디게. 이디 오민 어떻든 못젼디거든.
@ 다 육지 메누리꽝?
#1 예, 거 우리 아시도 형젠디 거 다 육지 메누리.
@ 다 육지 가 불곡?
#1 예, 게 놓니까 당추 뭐, 아, 이거는 곰곰이 셍각헤 보민. 아 이거 벌초도 이젠 작년 재작년ᄁᆞ진 내가 뎅기멍 뭐, 주 뒈어 가지고 헷엇는데. 이제는 오히려 걸어다니질 못헐 정도가 뒈가니까. 아, 작년이도 춤 이거 벌초는 거 누구 아무나 아니헤주는 따문에. 아이 우리 아이가 중국 아일 빌언에 벌초 거 헌덴 헤봐야 낮전이민 둘리가 헐 거난. 허주마는 그렇다고 우리 아이만ᄀᆞ라 허렌 헐 수가 없어. 경헤 가지고 우리 아이덜 뭐 돈은 잘 보냅니다게, 돈은 잘 보내는데.
@ (웃음)
#1 아 거 돈이 문제가 아닙주게.
@ 맞수다게. 게난 여기서 태어낫지양?
#1 예, 예. 이기서 태어나고.
@ 태어나고.
#1 이기서 이제 갈 겁주. 뭐. (웃음)
@ 음. 우리 또 여자 삼춘 낳고 자란 과정 영 ᄀᆞᆯ아봅서.
#2 저도 이 의귀리서 요지금 식당. ○○○라고 ᄒᆞ는 식당 잇수다.
@ 아, 게난 저 오늘.
#2 거기서 태어낫수다.
@ 오멍, 그 저 김○○ 교수 형이 여기 ○○○○ 식당 잘 헴덴 허멍, 거기 훈번 들려보렌 허멍.
#2 (웃음)
@ 경 헙디다게. (웃음).
#2 예게, 난 요디서 태어나고 또 저 동쪽 ○○○○ 이주금 식당에서 살고. 이디서 의귀리서 태어난 의귀리서 갈 겁주.
@ 게난에 언제 결혼헙디강?
#2 나 스물둘에난 멧 년산디 나 모르쿠다.
@ 스물둘에?
#2 스물둘에고 요주금게 팔십다섯이곡 허난.
@ 아이덜은?

#2 죽을 고셍 다 허멍 살앗수다게.
@ 아이덜은 멧이우꽈?
#1 아덜이 게 삼남매. 춤 삼형제.
@ 아덜만 셋?
#2 예, 예.
@ 아, 거난 다 저 제주시 간 살암수가?
#2 음, 저 셋아덜허고 작은아덜은 시에 살고.
@ 으.
#2 큰아덜은 여기 나영 혼디 영 살멍 식당허고.
@ 으, 으. 게메, 그거 오늘 오멍 경 굽디다게. (웃음) 나 ○○이 어머닌 줄은 셍각도 못 허고.
#2 아이고, 게메마씀.
@ (웃음)
#2 게도 그자 난 우리 아덜덜은 그자 나도 못나도 허난 제주시 안네만 춤 사난, 춤 제주 안네만 사난 그자 자꾸자꾸 봐지난 그걸 행복으로 살암수다.
@ 경헴 헴수다게. (웃음) 그 학교는 어디까지 나옵디강? 여자 삼춘.
#2 아이고, 여기서 사 학년끄지 헨양. 막 ᄉᆞ삼ᄉᆞ건 나부난에 ᄉᆞ뭇 곱으멍 대멍 살단에, 막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서른이고 우리 어머니는 서른ᄒᆞ나난 아버지는 그 ᄉᆞ삼에 어디 간 줄 몰르곡. 엄마영 살멍 에, 아빠 어디 가시닌 허멍 우리 엄마 문딱 그때 시국에 문 취조받앗수다. 문 남편덜 어디 가시니? 이디 두드려 부난 나 저 어멍의 홀목이 꺼꺼부난 나만 성 다레도 돌 지레도 온 세상일은 다 허멍 크난 이 모냥이우다게. 겡.
@ 경헤도 자식덜 훌륭허게덜 키우난에.
#2 아이고, 훌륭허멍.
@ 우리 남자 삼춘허고 여자 삼춘.
#2 훌륭허멍 말멍 기자 그런대로 그자 그자 ᄉᆞ뭇 옆디레 걷지 안헨에.
@ 더 못헌 사름덜도 살암수게.
#2 아이고, 감사합니다.
@ (웃음).
#2 아이들 뭐 나 말 골으민 대답덜은 혼번토 아녀곡 하도 하도 못젼디게 나도 그 김칩이, 난 오씬디 김칩이 간 하도 고셍헤 놓난. 다 아난산디 나 막 욕헤도 원 대답도 아녀곡 착헙니다, 아이덜.
@ 그다음에 그 남자 삼춘양? 그 부모님 잇지 아녀우꽈양?
#1 예.
@ 부모님도 고향.
#1 예, 예, 예.
@ 고향이 어디우꽈? 의귀리?

#1 아, 우리 저 팔대조, 팔대조 이하 여기 다 살암수다.
@ 의귀리.
#1 고향을 떠난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도.
@ 어떤 일을 헤수가?
#1 아, 농삽주, 뭐. 어떤 일 뭐여, 여기야 다 농사주. 경허고 그 한창 그 일제 때 그 일본 가근에 춤 그디 가서 그, 춤 뭐 노동일을 헤도 우리 아버진 일본 훈번 못 가봣어. 우리 할머니가 계셧기 때문에. 게곡 그 아이덜 때문에 농사를 헐 사람이 없어 놓니까. 그래서 일본 훈번 못 가보고렌 허면서 자꾸 곧는디, 그 당시 일본 가근에 뭐 돈 벌민 뭐 춤 밧도 많이 사곡 부자 뒌 사름이 참 많는데. 우리 아부진 뭐 일본도 안 가고 거 우리 할머니가 계션, 늙은 할머니가 계셧기 때문에 갈 그 힘이 없엇어. 가불민 안 뒈니까, 우선.
#2 아이고, 살아난 셍각을 허민. 저도 이디서 사학년 헨에 이디 초간막살이 헨 살멍, 누게가 막 존 디 강 애기 ᄒᆞ쏠 돌아도렌 허난양. 간 서귀포 간 보난. 금융조합 이사, 이사네 집이 간 똘도 선셍, 아덜도 선셍 허난양, 나 그디 간 ᄒᆞ쏠 공부헨에 이 밤 야간이라도 난 아니 가젠 허는디 이주금 한창 공부헐 때난 다섯 술 난 아이 돌레 간에 나 ᄒᆞ쏠 공부만 베완 왓수다.
@ (웃음)
#2 어룬덜이 막 좋난에 밤이 나 아니 가켄 헤도 야학허는 디 재우 그 조합이서 ᄉᆞ뭇, 저 동문, 학교, 동문통산디 어디산디 밤이 돌아 가멍 헨. 게도 그 어룬덜이 착허난 나 그디 간 ᄒᆞ쏠 공부도 벱고 경 정 허멍 아이고, 또 해녀 베완에 해녀질 허레, 스물, 스물, 열아홉에 가오고, 스물에 가오고 죽을 고셍 다 허멍 나 컨 이때ᄁᆞ지 살암수게, ᄉᆞ뭇 오래오래 살아졈수다게.
@ 그 부모님은 저 여기꽈?
#2 예, 양부모 다 이디우다.
@ 다 의귀리양?
#2 예, 게난.
@ 으.
#2 씨아버지넨 유공자난 이조금 다 저 충혼묘지에 씨어머니네영 문 모시고.
@ 우리 아버지도 그 유공잔디 충혼묘지 안 가켄 헨에.
#2 예.
@ 헨에.
#1 겔쎄, 뭐 충혼묘지 가면은 이거 내가 굴아사 뒐 말인가마는 어떻든 나라에서 다 관리를 헤 주니까 막 편험은 헙주게.
@ 예, 거난에 우리 아버지는 저 화장허는 거.
#1 싫어하여서?
@ 아이, 아이 안 허켄 허멍.
#1 (웃음) 겔쎄.

@ 마을 공동묘지.
#2 예.
#1 본인 ᄆᆞ음대로 그렇게 뒈만지민 막 좋은디. 뭐 후손들이 아, 엿날 어룬덜 거 좋은 터 봉그멍덜 다 영 저 묻엉 놔두거덜랑 파다근에 기자 술아 불곡 대곡 헤 불민 게난 그 춤 이 믿을 수가 엇수다, 이녁 ᄌᆞ손도.
@ (웃음)
#2 게난 선생님은 어디 제주시꽈?
@ 아이, 저 어디마씸, 저.
#2 서쪽?
@ 어디 중문 색달.
#2 아, 저 남군인게.
@ 예. 그다음에 결혼식양? 남자 삼춘. 결혼식 어디서 헷수과?
#1 그때는 경 어디 식당 봉그멍 결혼헐 형편이 아니고 저.
@ 그땐 게난 집이서?
#1 아, 집이서 헷주게. 집이서 헤근에게 이 저 게도 그 우리 대부떠는 이 저 화물, 화물차, 그땐 차가 어디 잇엇어. 꼭 화물차나 저 잇당 트럭들 뎅기는 거, 걸로 헷엇는데.
@ 거난 다 동네에서 헌 겁주게.
#1 예, 예. 게난 그 당시도 막 가까운 디는 이 말로 춤 탕 가근에 뭐 그 데끼라고 허는데. 그 저 신부 실러 오는 그 뭐가, 가마가, 가마. 가마 타고 춤 씨집을 왓는디, 왈 때주. 겐디 우리는 이 태흥리고 허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고 허니까 다.
@ 태흥리?
#1 태흥리.
@ 누게마씸?
#1 아, 우리 집 사람이.
@ 아, 태흥리꽈?
#1 예, 태흥이린디.
@ 거난 그 데려올 때 뭐, 어떵 데려옵디가?
#1 아이 게난게 택신가 춤 그 화물차로 헷는디. 우리가 그 에, 거 아이고 나 육십사 년도에 결혼헷는디 흔 육십오 년도부떠는 그 당시 또 시발택시가 잇엇어.
@ 으.
#1 게영 그때부떠는 시발택시로, 게도 ᄒᆞ끔 그 ᄎᆞᄎᆞᄎᆞᄎᆞ 이 생활이 나아져 가니까. 이 결혼허는 방식도 틀리고. 그때부떠는 이 저 새각시도 이 동네서 ᄒᆞ끔 영 허면 춤 면사포도 쓰곡 헷주. 그 전에는 면사포도 엇곡, 기자 그 엿날식으로, 면사포 쓸 능력이 잇어? 당추 뭐 춤.
@ 사진, 사진은 찍읍디강? 결혼사진?
#1 아이 사진 뭐 어디사 가신디 거 뭐, 원.

@ 사진은 찍긴 찍고양?
#1 아, 사진 물론 찍엇주게, 그때.
@ 그땐 영 병풍 쳔에 헤수가?
#1 펭풍 쳥.
@ 펭풍양? 펭풍 쳔에. 거난 그 결혼식 끗나면은 집이서들 놀앗지양? 그 허벅 두드리멍덜.
#1 예. 그때는 그런 풍습이 잇엇주.
@ 으, 허벅 두드리멍, 막, 막.
#1 것도 생각헤 보믄 이젠 춤. 우스울,
@ 뭐냐?
#1 뭐, 축하헤 준다고 헤 가지고.
@ 상ᄆᆞ루에 왕 메곡 허멍. 가문잔치도 헷지양? 가문잔치.
#1 아, 물론이주. 가문잔치도 요 흔, 요 흔 칠팔 년 전까지 다 가문잔치 헷주.
@ 가문잔치.
#1 으. 그, 이 춤 이 전문 그 저 집도 나오곡 저 전문 업체덜이 잇어놓니까 이젠 그 가문잔치 허는 게 엇어졋주. 오히려 그때가 더 졍겨웟어.
@ 맞수다게, 거난에.
#1 이 일가도 다 와근에 도와주민 일가도 춤 일가 닮아베곡. 지금은 아주 당ᄉᆞ춘이나 아니민 그 저, 뭐야, 잔치 그 피로연 허는 디 가봐야 정처없어. 오히려 저 뭐 더 소비나 시켜 불지.
@ 게난 그때는 오일 잔치 허지 안헷수가? 오일?
#1 뭐, 오일 잔.
@ 게난에 가문잔치 전날, 은 도세기 잡는 날.
#1 예.
@ 도세기 잡앙 그다음에 그 뒷날은 그 저.
#1 예, 그 저 이 손님덜 받앗주. 손님 받은 것도 흔 칠십 년대 이후에야 허엿주. 그 전에는 거 당일 잔치.
@ 가문잔치곡. 그다음에 당일 잔치 허곡.
#1 그 저 도세기 아침이 무시거 저 흔 이십 관. 잘헤사 흔 이십 관짜리 잡아근에게 그거 헤근에 무시거 국, 돗국물 숣아근에 그디 저 뭐 ᄆᆞᆼ으, ᄆᆞᆯ망인가 그 뭐 엿날 ᄀᆞ뜨믄 뭐 무슨.
@ 몸게 몸.
#1 저 단지ᄂᆞ물. 그거 놔근에 끌리민 춤 그렇게 맛이 좋앗엇는데. 지금은 뭐 아이덜 그런 거 베려보지도 아녀곡 허주만은 얼마나 그거 맛이 잇엇수가? 춤 지금 벨 그뭐 춤 호텔 음식도 그보단 맛 저, 없어.
@ 아이 거난 그때는 먹을 게 엇언.
#2 베고플 때나.

#1 먹을 게 엇어 놓난게.
@ 먹을 거 엇일 때난게.
#2 예.
@ 주민 맛 좋은 거.
#1 (웃음) 춤, 거.
@ 먹을 거 엇일 때난.
#2 먹을 게 엇일 때난.
#1 게곡 그 당시 지금추룩 경 잔치 먹으레도, 이 저 잔치 먹으레 가젠 헤도 부줏돈이 없어 가지고. 겡 아녀민 여자덜은 쏠 아졍 가는디.
@ 보리쏠 두 뒈게.
#1 으, 뭐 두 뒈 아졍 가는 디도, 혼 말 아졍 가는 디도 잇곡. 그 뭐 경우에 따라근에 뭐, 이 저 그땐 산디쏠. 곤쏠 건 특별 부쥐, 춤 어디 사돈칩이나.
@ 제주돈게, 곤쏠 뒈는 디가 강정 웨로는.
#2 예.
#1 아니 그 산디쏠. 여긴 이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산.
@ 여긴 산디쏠 하영 헤실 거우다예?
#1 예. 산디쏠.
@ 웃드르난에.
#1 예.
#2 산디만 갈앗수다.
#1 산디 하영 헨에 저 그 산디쏠 엇엉 제사 헐 정도는 아니랏어. 이 농가마다.
@ 거난 그때도 기자 보민 그 멩텡이에.
#1 예.
@ 보리밥.
#2 예.
@ 퓻 놓곡 헤근에 헤영.
#1 하이고 거 퓻 놓민 오죽 맛이 좋아.
@ 곤, 곤밥은 뭐 좀 나이드신 분 이시면은 혼 사발 영 놔근에 주곡양? 나도 옛날 그 어릴 때 저, 우리 어머니 따란에 잔치 먹으레도 하영 간에 욕허난에. 밥 먹으레 왓덴 허멍 허난. 그 나가 혼자 데령은에 갑니다게. 나 그런 디 잘 뎅이난에. (웃음)
#2 멩텡이에 밥허곡.
#1 아이고, 그거 엿날 생활이 지금 아이덜광은 이거 원시생활이나 같으덴 헐 거주. 춤.
#2 비니루가 시카? 멩텡이 이디예?
#1 멩텡이에 놓민, 그거 지금 아이덜 그거 밥 주민 먹으카? 안 먹어. (웃음)
#2 안 먹주, 무신. (웃음)
@ 게난 그 멩텡이가 좋긴 허여마씨. 저 뭐냐 저 짐 안 들어왕.

#1 예, 짐 안들어와근에 변허진 안헙니께.
@ 예. 하, 거난 옛날 사람덜이 지혜가 아주.
#1 지혜보단도게 엇이난 허는 거주.
#2 엇이난, 그릇이 셔수과게?
#1 그릇이 엇언 잘 허민 그릇이엔 헌 거.
#2 냉장고가 셔시카?
#1 이 저 남박, 저, 큰 그것도 이 종가칩이나 뭐허믄 그 나무 큰 나무 헤 가지고 거 파 가지고. 지금 다라나 마찬가지. 그렇게 헤서 사용헷주. 거 아무 집이나 엇엇어, 그것도.
#2 에이고, 걸어온 생각허민.
@ 계속 말헙서.
#1 경허곡.
@ 그다음에양? 그 여자 삼춘. 그 결혼식 아까 뭐헷주만은, 집이서양?
#2 집이서 헤수다,
#1 다 집이서 헷주.
#2 아이고. 게도 그땐 저 이 의귀리 전체로 걸궁. 걸궁 흔 일주일 헷어, 한남리[할람리], 수망리 문 돌아뎅기멍 헨에 돈 버슬어단 그땐 의귀리서 족두리. 영 썽 가는 족두리 셔나수다. 써낫수다. 그거 사완에 그거 쳇 번으로 씌울 출 몰란에 거꾸로 노다 허멍 썬, 게도 그건 썬 가수게. 사돈이랑마랑 하도 신랑칩이가 하도 가난헌 집이난 어느 하가에 밥도 굶으멍 살앗주. 사난 살앗수다, 춤.

일월

정월 멩질

@ 이제 정월에 대헤서 좀 알아보쿠다.
#1 예.
@ 이 정월부터 저 섣둘끄지 이제 좀 알아볼 거 이선예. 그 우리 여자 삼춘 정월 멩질에 대헤근에 흔번 골아줍서.
#2 정월 멩질에게, 정월 멩질 헤 먹엉 어떵 말이꽈? 헤 먹으민.
@ 정월 멩질은.
#2 음력으로 허난 좋읍니다게.
@ 아, 거난에 저 정월 멩질 허젠 허민 오일장에 강 옛날양?
#2 예, 옛날은 경 헷수다.
@ 아이덜 옷도 사오곡.
#1 (웃음)
#2 아이고, 놈이 밧데 강 검질메어근에 장엔 가져수가게? 그거 헤근에 무시거, 장에 가근에게 무시거 그 고기도 ᄒᆞ쏠 사곡. 허, 옛날 아이 옷도 안 산 살앗수다.

#1 아이고.
@ 게난 그 음력 그 정월 멩질?
#2 예.
@ 그 전에는 저 양력으로 허지 안헤수가양?
#2 양력으로 허단 음력으로 돌아왓수게.
@ 혼 이삼십 년 뒈서양?
#2 예.
#1 노태우 때부떠 헌 거난.

멩질 떡

@ 아, 그 정월 멩질 허젠 허면은.
#2 예.
@ 이 떡헤야 뒐 거 아니우꽈, 떡?
#2 떡ᄀᆞ를 굴아당, 쏠 혼 뒈 사당, ᄀᆞ를 군 거 집이서 물에 둥갓당 강 ᄀᆞ루 삐져당은에 집이서 무시거 ᄒᆞ쏠 멘들아수다게.
@ 거난 정월 멩질 땐 무신 떡 헷수가?
#2 그땐 부제칩은 잘헷주만은 우리 가난혼 사름은 정월 멩질이난에게 무시거 이제는 방엣간에 강 친떡도 맞추곡 헴주만은 그땐 미신 조개 솔펜이엔 허멍, 조개솔펜이나 쪼금 헹.
@ 조개송펜?
#2 예.
#1 (웃음)
#2 그땐 우린 경 출리지 안헨 헷수다게. 떡이나, 빵떡이나 ᄒᆞ쏠 ᄒᆞ곡 허멍.
@ 어.
#2 이젠 시리떡이여 이거여 저거여.
@ 그때 저 빵떡은 긴 거? 저 상웨떡? (전화 소리)
#2 예. 상웨떡.
@ 상웨떡양?
#2 예, 길게 ᄒᆞ쏠 헤근에, 경 헨에 올려수다. 그때 친떡 가늠이 엇이난.
@ 게난 그 섣둘그믐날 그 저 옛날 저 온돌방에서 그 밀ᄀᆞ루 반죽허영은에.
#2 예, ᄒᆞ쏠 ᄯᅮ뚯ᄒᆞ게 놧당.
@ 이불 더꺼근에 영.
#2 예, 예, 잘알암수다.
@ 놧다근에.
#2 예.
@ 그 저.
#2 경 헹 솟디.

@ 반죽헌, 그디 막걸리 놔수강? 소다 놔수강?
#2 그땐 음, 막걸리 막 퍼지지 아년 때난 막걸리도 ᄒᆞ쏠 놓곡 소다.
@ 소다양, 소다?
#2 무신 준준헌 저 쏠방울 ᄀᆞ튼 소다 풀아수다. 그거 헹은에 허믄. 잘 허믄 피곡.
@ 그, 게난에 조개송펜허고 멩질이제 허젠 허민.
#2 겡.
@ 조개송펜, 그다음에 묵도 헤야헐 거 아니우꽈?
#2 묵도 저 요샌 두부여 무시거 헤도 그.
@ 그땐 ᄆᆞ멀묵? 여긴 ᄆᆞ멀 하영 허는 디난.
#2 ᄆᆞ믈, 어디 ᄆᆞ멀 하영 헤수가? 강 ᄒᆞ쏠 사다근에 ᄆᆞ멀묵 쒀근에.
@ ᄀᆞ레 ᄀᆞᆯ앙? 그때.
#2 아니, ᄀᆞ레, ᄀᆞ레, 아니 그땐 저 이녁집이 ᄆᆞ믈이나 시민 막 거푸멍 그거 쏠 봉그주마는 ᄒᆞ쏠 묵 헐 거만 사오곡 밀ᄀᆞ르 대중 상 헤수다.
@ 으.
#2 경헨 묵 지져수게, 지짐도 허곡 쑴도 허곡 허멍 묵 허곡.
@ 게난에 청묵, 청묵도 헷지양?
#2 예, 청묵도 헤여수다.
@ 청묵허곡.
#2 청묵은 요새사 헴주, 엿날엔 청묵 허지.
@ 청묵은 저 지진묵.
#2 예, 지진묵. 홀 힘이 엇엇수다. 알도 못 허곡.
@ 그 묵, 묵은 넉 점 끼웁지양?
#2 묵 넉 점 낍니다. 이디.
@ 넉 점.
#2 예.
@ 넉 점, 저 대, 대, 대 헤다근에.
#2 예.
@ 적꼬지 멘들앙.
#2 대 헤영 적꼬지 멘들앙 께곡. 이 고기 ᄀᆞ뜬 건 다슷 개나 일곱 개나 끼고. 고기적은양 경헤연.
@ 옛날은 춤 솔직이 저 이 돗궤기적도 보말만씩 헷주. 보말만씩.
#2 예.
@ 흔 근 허면은 옛날 식게 헷덴 허난.
#2 예.
#1 (웃음)
#2 준준허게 옛날은 네귀반듯 썰엉 허곡 요새는 ᄉᆞ뭇 이만썩.
@ 막 크게 헤근에.

#2 예. 다게 식게 식에 따랑 잘 헴수게. 옛날 하르방덜 얻어 먹도 못헷주.
@ 그다음에 적, 적 허곡, 적은 저 돗궤기 적이나 허곡.
#2 예게, ᄒᆞ썰 부제칩은 그때 엿날엔 쉐 추렴도 허민 ᄒᆞ끔 사당 ᄒᆞ는 체 허곡. 그것 벳긴 촌에게 무신 고사리나 헤영 올리고, 콩ᄂᆞ물 허고.
@ 콩ᄂᆞ물 허고.
#2 어, 무채 허곡. 무채나 뭐 미나리나.
@ 웨, 호박 나올 때 호박도 허고.
#2 (웃음) 호박도 허곡. 예게, 촌에 다 허는 거난.
@ 그다음에 저 곤밥 올리곡.
#2 예. 곤밥, 곤밥 허멍. 이젠 쏠밥이여 무시거옌 헤도 그땐 곤밥 헤연 올리곡.
@ 그다음에 국은?
#2 국은 무신 그자 고기국. 아무 고기라도 헤근에 그땐.
@ 여긴 고기엔 헙니까, 궤기엔 헙니까?
#2 엿날엔 궤기엔 헤나수게. 이젠 고기엔 헤도.
@ 게난 옛날말로 헙서, 옛날말로.
#2 예, 궤기, 궤기.
@ 궤기국. (웃음)
#2 궤기국 끌리곡.
@ 으, 갱이엔 허잖읍니까, 갱?
#2 갱, 갱마씀, 갱국.
@ 음, 갱국.
#2 예. 갱국 헙니다.
@ 갱국 그다음에 밥은 메엔 허고.
#2 메밥. 첨, 메.
@ 예, 메.
#2 메, 메.
@ 밥은 메.
#2 갱국, 메.
@ 그다음에 그 뭐 거의 올라온 거 닮다.
#2 예, 엿날엔 경 요새ᄀᆞ찌 지지미도 무시거 엇어나수다게. 그거만 헷주.
#1 아이고.

세배

@ 웃음. 그다음에 그 세배?
#2 세배.
@ 세배 헷지양?
#2 세배덜 ᄌᆞᆫᄌᆞᆫᄒᆞᆫ 아이덜 하영 오민 ᄌᆞᆫ돈 바꽈다근에 ᄒᆞ나씩 ᄒᆞ나씩 문 주곡, ᄎᆞᄎᆞ

살아가는 방상이 우린 널러부난에 아이덜은 한한허연.
@ 그때 돈 줘졋수가?
#2 돈 줫수다. 아이들은 저 정월 멩질엔 밥은 안 먹어도 돈 받으레덜 뎅기곡.
@ 우리 동넨 옛날 그 재일교포가 와신디, 멩질날. 이 신권 천 원짜리.
#2 예.
@ 그거 헨에 세베 오민 하나씩 주니까양.
#1 (웃음)
@ 아이들이 흔 번만 가민 뒐 건디.
#1 (웃음)
@ 돈 받젠 두 번도 가곡 세 번도 가곡.
#1 아무 딘 어떵게.
@ (웃음) 돈덜 받아보젠.
#1 겐데, 이거 끼어들어서 안 뒐 건가? 이 뭐야, 그 당시는 그거는 그 어떻든 칠십 년대 후에고 칠십 년대 전에는 뭐.
@ 돈 엇지양?
#1 세벳돈이 어디 잇어? 당추. 세벳돈 전혀 없엇어.
@ 건디 세베헌 사름덜 그때 저 뭐.
#1 경허믄 그 감주, 골감주 헤근에.
@ 어른덜안티 탁베기, 탁베기 헤근에.
#1 아 탁베기. 것도 부자칩인 탁베기 헹 ᄒᆞ는디. 이 대개 감주 헤근에 흔 잔씩 기자드리는 걸로.
@ 감주.
#1 게난 그, 그때는 이, 이 저 장례 문화가 이 저 아주 뭐 고도로ᄒᆞ게시리(?) 헐 때니까 거 첨 우리 아버지도 그 육십팔 년도 그, 저 일이일 사태 때 첨 돌아가셧는데. 그때까지만 헤도, 그때는 그래도 이 저 밥은 굶지 안헷어. 이 보리밥은 뭐 저 육지는 보면은 상당히 그 어려와 가지고 놈이 집도 살곡 무시것도 헷젠 허는디. 이 육십 년대 나니까 이 저 여기는 그렇게 이 제주도는 경 굶을 사름은 벨로 없엇는데.
@ 으.
#1 그때 돌아갈 때가 첨 뭐 거 돈이 잇어요게. 여기 헤 봐야 그 당시 절간, 절간이젤 쭈욱 개시랏주. 것도 여기는 또 무우말렝이, 생기리 좀 헤 가지고 부업으로 헤 가지고 좀 뭐 헤 가지고 돈이 첨 없어 가지고. 나도 그 장사를 지내나니까 아, 빗이 한 이십만 원 생겻어. 아 거 빗 이십만 원.
@ 그 당시마씨?
#1 예. 하, 이거 생각을 허니까, 히야 이걸 어떵 헹 물 건고 헷는디. 지금만 헤도 돈 이십만 원이엔 허믄양, 거 우습게 봅주게.
@ 그렇주마씸.
#1 그때 돈 이십만 원이민 지금 저 한 뭐 이천만 원이엔 허믄 뭐 과언이 아니주만은

오히려 이천만 원보다 더 어려와수다, 지금 돈 이천만 원보다.
@ 겅헤수다게.
#1 예, 게난.
@ 나가 처음 선셍허멍, 처음 봉급 받은 것이 천구백팔십사년 삼월 일일날 선셍 들어가시난에, 그.
#1 팔십사 년도에?
@ 예, 그때 헨에 이십오만 원 받앗수다. 이십오만 원, 그당시.
#1 팔십사 년도믄 막 한참 후옙주. 첨 거 팔십사 년도에는.
@ 아, 거난 올해 이월달에 명예퉤직 헤신디.
#1 어.
@ 삼십팔 년 헷어마씨.
#1 아, 삼십팔 년.
#2 아이고, 좋은 선셍님 잘 헷수다.
@ 나 겐에 그 저 겅헤도 교장으로 끗나시난에.
#2 아이고, 춤 큰, 크게 잘헨 나와수다게.
#1 어쨋든 성공적이우다. 게난 그 당시 봉급이 보통 삼십만 원이민 아주 고급 공무원이랏수게.
@ 예, 맞수다게.
#1 예. 뭐 거, 대기업덜은 뭐, 그당시 대기업이엔 헤 봐야 뭐 벨로 엇엇주마는. 뭐 흑교 공무원 봉급허고는 틀리긴 허주만은.
@ 맞수다게.
#1 뭐, 지금은 보믄 첨 이 곱베기 이상 차이가 나곡 영 허는 거 가튼디.

차례상

@ 그다음에양, 그 차례상 이제 헐 거 아니우꽈양? 차례상 헐 때 그 뭐냐 그 저, 이 숫 놓곡 그 우티 이제 뭐 향 피우지 안허꽈양? 상?
#1 아니 거 숫불 헹은에 상 피우주게.
@ 상 피웁곡.
#1 지금도 경 헹 허니까.
@ 그다음에 고사리, 고사리 놔근에 거 무시거우꽈, 거.
#1 건 모사, 거 모사옌 허는데.
@ 모사. 어.
#1 거 고사리 놓게 뒌 게 아니고. 띠, 새, 우리말로 그 집 이는 새.
@ 으, 새.
#1 그거하고 모래, 그 모사주게, 모사. 겡 그걸 놓는 건디. 거 모래는 안 놓고 나도 지금도 거 뭐, 고사리.
@ 제주도는 모레 안 놔.

#1 아, 게메 엿날은 그 추례는 그건디. 그 모랜 무사사 놔신지 몰라도. 게난 나도 지금도 우리 제 허게 뒘믄 저 드르에 가서 지금 새 그 봉그기가 상당이 어려와 가지고.
@ 원래는 고사리 대신 새 놧구나?
#1 아, 여기 지금도 새 놔, 거 원래가 거.
@ 지금도 새 놔마씨?
#1 예, 예. 이 고사리 놓는 디는 보믄 기자 새도 거기 도시에서 허는 사름.
@ 이 고사린?
#1 아이 고사리 아니. 거 읏이난 그거 놓은 거주. 그자 빈 물은 놓진 못허고.
#2 고사리 숢은 거?
@ 으, 숢은 거.
#1 아이 고사리 헤근에 놩덜 그 저.
@ 졍 간덴 허멍.
#1 저 거시기.
@ 지게 모양으로 뒌 거.
#1 숭눙, 저 숭눙인가 무시거. 아 숭눙이엔 허느냐? 그 저 모셋, 모세, 모세 그 저, 거주게.
#2 모세옌 허멍 옛날에 ** 엇이 봐신디.
#1 게난 모사주, 모사. 건데 우리도.
#2 요샌 안 헴서, 우린.
#1 지금도 아, 거 우리 아이덜은 당추 생각을 아니허연, 나가 강은에 역불 강은에 제삿날은 가근에 샐 뭐 흔, 흔 네, 흔 너다섯 개만 헤근에 흔 두 세 도막만 허면은.
@ 아, 거 새로 허는구나?
#1 예, 새로 헙니다. 저거 이 저 고사리로 허게 뒌 게 아니주.
@ 그리고 저 멩질날도 그 차롓상에 촛불 킵니까?
#1 아니, 촛불은 키게 뒌 건디.
@ 낮이니까 안 키는 거 아니우꽈?
#1 낮이니까 별로 안 키주.
@ 이제는예?
#1 게고 옛날은 어렵게.
#2 제헐 때?
@ 예.
#1 어렵게 살아나니까.
#2 우린 킵니다, 이주금도.
#1 아이 켜지민 존 건디.
@ 아, 멩질날?
#2 예, 멩질날 킵니다.
#1 아이 저.

@ 켜마씨?
#2 예.
@ 낮이라도양?
#2 낮에 아칙이 해 올라와가민 낮이 뭴 겁주게.
@ 게니까. 아, 우린 식게 때 웨론 안 헤.
#2 아.
#1 아, 저 밤에나 키주. 아이 낮에도 키게 뒈게 뒌 거주, 춤.

새벡국

#2 게곡 차례상에.
#1 옛날 어른덜 보믄.
#2 떡국, 떡국 헹 아칙이.
@ 아, 여기 떡국 헤마씨?
#2 떡국 헤영 차례 넹겨뒁 또.
#1 지금도 경 헙니까?
#2 예, 우린, 우린 헙니다.
@ 아, 아침에 떡국?
#1 지금도 경헴구나.
#2 새벡이양?
@ 으.
#1 엿날은 경 헷는디.
#2 떡국 헨디, 이젠 저.
@ 굴아봅서, 아침에 떡국?
#2 떡국 허곡 저 적허곡 고사리 헤영. 새벡이.
@ 으.
#2 어두룩헌 때 제냉겨놔근에 또 해 올라와가민 또 메허곡 갱국이엔 헹 문 ᄎᆞ례로.
@ 게믄 두 번 허는 거네?
#2 두 번에 허단 요즘은 우리 저 이젠 이젠 아이덜 젊언, 저 무시거 헤 가난 이젠 ᄀᆞ찌 올립니다, 떡국.
@ 떡국도 올려마씨?
#2 예, 요지금 올립니다.
@ 멩질날마씨?
#2 예, 예.
#1 아 거게.
@ 아, 거 특이허다이? 우리 저 그 메허고 갱벳기 안 올려.
#2 게곡 이 다른 딘 문 설러비엇젠 헤도 우리, 우리 아이덜은 요지금은 올립니다게. 흠치.

@ 밥, 밥은?
#2 밥도 영 헹, 게 상에 영 놓민, 엿날엔 두 번에 허단에.
@ 으.
#2 이젠 밥 올리민 그자 떡국도 그 에염더러 짝허게 흔디 올려마씨.
@ 떡국도?
#2 예, 예.
@ 밥 옆이 떡국 놓곡마씨?
#2 예, 예, 경 헙니다게, 저 뚜로 허단에양? 실퍼 가난.
@ 게민 두 그릇 먹엉 가야겠네.
#2 (웃음)
@ (웃음)
#1 (웃음) 멩질날사 하영 먹을 거주. (웃음)
@ 으.
#1 겐디 것도 집안 그 가례니까.
@ 전날 떡국 헹 먹녠 허드라고.
#2 아니우다게, 저 아칙 새벡이 차례.
#1 저 멩질, 멩질날, 그 떡국, 이 정월 멩절은 저 떡국으로 차려주는 거난게.
@ 아.
#1 떡국이 곳사도 그 저 고사리 놓넨 헌 게 아니고, 그건 엇이니까 고사리 놓는 거고.
@ 으.
#1 그 실은 그 띠, 띠만 헤근에 놓는 거 잇어.
@ 아 거난 새, 새?
#1 응.
@ 새.
#1 게난 난 지금도 그, 거 어디 강 헤와도 띠를 헤와야.
@ 아.
#1 이 뭐 엇이민.
#2 춤 정성이 지극허우다.
#1 이 밀감낭썹 허는 딘 밀감낭썹은 건 약 헤나고 헤부니까 그거 좋질 아니허주게.
@ 아이고, 거난 자식덜이 잘 뒌 거 닮은게.
#1 에, 경 헷젠 잘뒈니까마는.
@ (웃음)
#1 아 절대 난 그 저.
#2 옛식이난게.
@ 아, 그거 영 헤근에 잘 안 뒈진 안헙니다게. 잘 영 헴시민.
#1 하이고, 거.

@ 다 정성입주, 정성.
#2 예. (중략)

정월 대보름

@ 그다음에양, 그 정월 대보름 잇지 안허꽝?
#2 예.
@ 정월 대보름날 여기서 뭐, 무슨 오곡밥 헹 먹엄수가? 뭐 헴수강?
#2 에이고, 허는 딘 헴실 거우다만 우린 오곡밥 아니고 기자 영 굴으믄 무시거, 정월 보름날은 저 불교에 가 붑니다. 강 그디 글로 강 뭐 액막고.
@ 절간에?
#2 둘맞이 불공엔 허멍. 절간에 가불곡 이디서 아니, 허는 딘 헴실 거우다. 오곡밥이여 무시거여 허멍. 육지는 다 그런 거 헙니다마는 허는 딘 헴실 거우다마는 원 난 게 을름으로 그런 걸 아니헤 봣수다.
@ 그다음에 이날 연날리기 헤나수가?
#1 아이고 거 헷주게.
@ 정월 대보름날.
#1 어, 아니 뭐 연날리기 대회는 아녀고.
@ 으.
#1 우리 때, 우리 어린 때만 헤도 연 그 만드는 걸 궹장이 저 좋아헷어. 게곡 우리도 우리 이 ᄉᆞ삼사건 직전에 그 우리 동네 거 연 멘들아근에 첨 잘 멘드는 사름이 잇엇어. 허민 그 조름에 쫓아 뎅기멍 그걸 배운 거라.
@ 아.
#1 그래 가지고 첨 헷는디. 연은 막 좋아헷는디 그때는게 ᄒᆞᆨ셍들이 겨울방학 때 헐 게 엇거든게. 첨 어디 꿩, 꿩코 노레나 뎅이곡 생이 잡으레나 뎅기곡 헷지. 뭐 공부허는 사름은 헷주만은 그땐 공부헐 여건도 엇고 학교를 뭐 반 이상 안 다니니까, 저 홀 일이 엇주.
@ 게난 연, 연싸움 헤 봅디강?
#1 예?
@ 연싸움?
#1 아이, 그런 건 우린 아녀보고.
@ (웃음)
#1 그런 건 아녀고. 연날리는 거는 뭐 재미로 헷주.
@ 보리밧디 가근에.
#1 보리밧도 허곡. 그땐 그 나무덜이 벨로 엇인 때난 이 연날리기도 좋앗주. 겐디 지금은 이 나무들 많아 놓난 안 뒈겟어.
@ 숙대낭이 하도 한게.
#1 게고 아까도 굴앗저만은 그 정월 멩절에 그, 이 어른들 시민 우리도 그 어린 때 세배

가면은 그때는 어디 돈 있어? 그 저 오십 년대나 육십 년대 초에까지만 헤도 칠십 년대까지만 헤도 돈이 엇어 놓니까 돈 줄 생각은 허지 않고. 그냥 잘허민 떡이나 잇당 주곡 경 아녀민 감주, 골감주라고 헤 가지고 그거 혼잔씩 주는 거라. 기자 그 겅헤도 그 당시는 그 동네 세배 안 가민 욕허곡게. 게난 부모도 가렌도 허곡 또 또 오고.
#2 막 어룬신디랑 가는 거주. 아이덜사.
#1 그 우리도 우리 아버지 이 돌아가면은 상례, 그 정월 세배라고 헤 가지고 이, 저 자꾸 세배 오주게. 그 저 혼 이틀간은 와. 이틀간은 오주게. 게믄 다 헤근에 무시거 춤 손님덜 대접헐 거 춤 우둥일까 떡국일까 기자 경허멍 헷는디. 지금은 참 그런 뭐도 엇어져 불고.
@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엇어져 불언.
#1 예. 저 그땐, 그땐 부모 이시민 상당히 춤 그 경제적으로 어려와수다게. 게 삼년상을 치르젠 허민 그 삼년상만 치르는 게 아니고 삭망 삭제 이거 한 달에 두 번 똑 헤야뒈. 그 얼마나 힘들 때우꽈? 거 춤 그 어려운 때.
@ 맞수다.
#1 아 겐에 우리 어머니는 저 요 구십이 년도에 돌아갓는디 그때만 헤도 간소화허난 이 저 대상은 안 헷어. 소상만. 기자 소상까지만 헷는디 우리 어머니 돌아간에 제우 소상 넘으니까 그다음부떠는 소상도 아녀곡 뭐 헷는디. 하이고 그때 그 우리 어머니 돌아간 땐 경헤도 혼 둘에 혼 번 정도 그 삭제를 헷는디. 아 그 육십 년대 칠십년대는 이건 뭐 혼 둘에 두 번 씩. 야 춤 나 그 우리 집사름 하영 고셍헤수다게.
@ 그 이 정도 허고예, 그 정월 대보름날 그 농사 그 길흉 점치기도 헙니까? 농사 잘 뒈고 안 뒈고? 그런 건 엇어마씨?
#2 ** 어드레?
@ 길흉. 거난에 잘 뒈고 안 뒈고 점치는 거?
#1 그런 거는 아녀고.
#2 그런 거는 엇입니다.
#1 또, 이, 지금은 이 종교가 하도 많아 놓니까 그, 그런 예가 없는디. 엿날에는 이 저 아까도 당허곡 기자 이 저 집안에서 젤 중요시 허는 게 정월달 나면은 이 저, 토신제.
@ 으.
#1 집안에서 그 토신에게 고허는 제.
@ 게난 그거 이제 조금 이땅 물어볼 거고양? 양?
#1 예.

액막이

@ 그다음에 그, 어, 방사, 액막이, 이 정월달에 이 저, 우리 동네선 저 방사를 저 뭐엔 헙니다마는 방쉬, 방쉬 알아지쿠강?
#2 방쉬?

@ 으, 정월달에.
#2 어디 강 방쉬 헤 부는 거?
@ 으.
#1 옛날 그 저, 무신거, 방쉬옌 헤근에, 막 기 올리곡, 그 저 배 멘들아근에 놓곡 헌 게 우린 어린 때 기억나, 그거.
@ 그거, 그 방쉬에 대헹 혼번 말해 봅서.
#2 아이고.
@ 옛날 그 저 뭐냐 찍 헤근에 그 안네 밥도 놓곡 돈도 혼 천 원짜리 놔근에.
#1 춤 옛날 추접헌.
@ 그 저 던져부는, 그 방쉬옌 헙주, 방사.
#2 그런 건 안 헤 봐신디. 엿날에 뎅기단 그런 거 봐남은 헷수다.
@ 으.
#2 무시거 허수에비ᄀᆞ찌 헹 무시거 막 데껴 불곡. 그레 돈도 ᄒᆞ쏠 놓곡 헹 데껴 불민, 뎅기당 액 궂은 사름 그거 보민 아프덴, 아팟덴 헤낫수다.
@ 으.
#2 이젠 그런 거 엇어마씀. 몰르주.
@ 게난에.
#1 것도 나쁜 짓이주게, 실제가.
#2 예. 막 질 에염에.
#1 혼 펜으로 셍각허민.
@ 그건 어떵헨 정월달에 그걸 막 헷어양?
#1 겐디 그때 정월달론 안 생각헤지고.
@ 정월달.
#1 나 그 제일 셍각나는 게 지금 그 요 펭풍물로 저 우리 희○네, 그 형님네 집으로 저 서레 가는디. 그 어릴 때 우리 거 묘제 먹으레사 갈, 아부지 조름에 그자 ᄀᆞᆺ앙 그거 제법 걸어질 때주. 보믄 그디 헤영허게 그걸 저 이 저 베 만들엉 찍으로 헤근에 막.
@ 방쉬양?
#1 예, 헤낫어.
@ 여긴 방사엔 헙니까? 방쉬엔 헙니까?
#1 방쉬.
@ 방쉬.
#2 방쉬 헤근에.
#1 거 방장이엔 허주, 여기서 방장.
#2 방쉬, 방쉬, 몰르쿠다.
#1 방장이엔 허주, 방장.
@ 방장이엔도 헤마씨?

#2 방장?
#1 으, 방장, 아이 어디 방장 헤서라 허멍 방장이엔 헷어, 방장.
#2 무시거 상지착에덜 놩 어디 문 무신 데껴불엉 내 불민.
#1 어어, 아이 추잡허여.
@ 여기 저 방사탑은 없지양?
#1 없어.
@ 방사탑양?

포제

@ 그, 그다음에 그 아까 좀 물어봣수다마는.
#2 (기침)
@ 그 포제, 아까 포제예. 포제에 대헤서 그 말씀헤 봅서. 그 저 그 포제헐 때 금줄도 허지양?
#1 아이 물론이주. 게난 그.
#2 포제집 마련헤영.
@ 으.
#2 그 집이서 흔 일주일 밥 먹곡, 이 저 무슨.
#1 이 저.
#2 히어뜩헌 사름 뎅기지 못허게 딱 막읍니다게.
@ 금줄로양?
#2 예. 금줄, 금줄로 허곡, 또시 그디 부정헌 사름 뎅기카부덴 그디 문 밥덜 헤영 날라나수다. 밥도 그디서 못 허민 또 이녁집이서 헤영 거, 포제헐 사름만 멧 멩 헤근에 그 흔 밧디서 막 ᄉᆞ뭇 정성을 들여수게.
@ 그 저 뭣도 허지양? 그 출흑, 붉은 흑, 것도 뿌리지양?
#2 건 몰르쿠다, 난. (기침) 촌흑.
@ 그.
#1 미신, 뭐?
@ 흑, 흑 뿌리는 거?
#1 그건 없어.
@ 그건 엇고양? 그다음에 제관은 누가 헙니까?
#1 게니까.
@ 포제헐 때 제관?
#1 그게 문제. 이 제관은 저거 이 문중, 이 집안별로 다 추천을 허는데.
@ 예.
#1 그 수정이 많은 집안은 자기네만 허젠 허곡.
#2 (기침)
#1 또 족은 집은 흔 번 헤 보지 못허곡, 이런 이 집안싸움이 막 격파뒈어낫어. 이놈

으 이 포제 따문에. 게 가지고 이거 츰 그 조절험이 상당이 힘들어낫는데. 츰 그때 그 보면은 이 우선 이 삼헌례 추급을 제일 중요시 허주게. 그 제사에는.
@ 으.
#1 삼헌. 게 삼헌 허곡 축문 허곡, 그 저 뭐야, 예축이난 그 축 익는 사름허곡 경헤근에 그걸 젤 중요시 허는디, 그걸 어느 집안에서 허느냐가 문제. 게 우선 특히 초헌을 어느 집안에서 허느냐, 요거 제일 선정허기가 그 당시에 힘들엇어. 게난 이 순번으로 그자 ᄎᆞ례ᄎᆞ례로 헤 가는디 경헤도 또 뭐헌 집안에서는 웨, 뭐 우리 거 그 사름 허민 어떠느냐고 영 곧는 수가 잇어 놓니까 이게 이제 ᄒᆞᆫ 가지 뭐는 이 집안, 저 집안싸움 이거벳긴 안 뒈난 그럭저럭 기자 이젠 설러분 거주. 뭐, 엇어져 분 거주.
#2 엇어져 부난.
#1 하, 엿날에야 오죽 집안끼리 그 세력다툼을 헷수가게? 실지 츰.
#2 신흥리렌 막 정성들영 헤여.
#1 신흥이리나 남원이나 헴주.
#2 의귀리만 그때 저 우리만 ᄀᆞᆯ암주. 교훼 뎅기는 훼장.
#1 아이 뭐, 저 아이 헌 디 합니다. 그건 관계엇수다게.
#2 게난 그거 확 설러부난. 문 제단 짓어놓곡 설러 빗수게.
#1 ᄒᆞ젠 허단 못헷주.
@ 그 저 제물을 누가 헙니까? 제물.
#1 아, 제물은. 그 돈을 우리 돈을 각 호에 다, 이 저 것?라 무시거옌 헌다마는 그걸 다 받아. 그 쏠로 ᄒᆞᆫ 뒈썩. ᄒᆞᆫ 뒈썩 아니믄 두 뒈썩 영 받아근에 그걸 풀아 가지고 그 제수용을 장만ᄒᆞ는 거주.
@ 아, 쏠 받아다근에.
#1 예, 예. 그 당시 무신 누게 희사헤줄 사름도 엇곡 츰.
#2 느나 엇이 받앙.
#1 다 받앗주.
#2 (웃음)
#1 돈 잇어게? 게난 그 제청을 허젠 허민 거 아무 집이나 아녀곡 또.
@ 게난에 그 담당은 이장이 헤수강?
#1 아니. 초헌이 우선 책임이주게. 이, 저, 이 향회를 허민. 지금 저 이민총훼를 허면은.
@ 으.
#1 거기서 그 어른덜이 다 그 초헌은 이번은 어느 집이서.
@ 초?
#1, 2 초헌.
@ 아, 초헌?
#1 으. 아헌은 어느 집이서 종헌은 어느 집이서 허고 또 그.
@ 마을 총훼에서 결정헤마씨?

#1 총훼, 그러니까 그, 저 이 포젯, 포젯 모임이라 헤 가지고 그 대개는 젊은 사름덜은 안 가도 이 어른들은 많이 가주게. 게믄 거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주. 그, 그당시는 이 이장네 집이서 허질 않고 그 영입뜸(?) 집이서. 영입뜸 집이서 게난 그 어른을 모신다는 뜻으로 그 영입뜸집이 가면은, 첨, 그 가면은게 거기서 허다 못행 영 술 혼 잔이라도 영 허젠 허민, 거 아무 집이나 허질 못허주게. 그 실시. 게난 춤 그 영입뜸도 이시민 첨, ᄒᆞ끔 첨, 첨, 거 아무나 못허게 뒌 거주마는 게나제나 엿날 예로 봐서는 다 경헷수다.
@ 아까 그 포제는 어느 집이서 헌덴 허는디 일주일 동안?
#2 예, 포제 모임.
@ 모임.
#1 저.
@ 모임을.
#1 일주일은 아니고 혼 사, 삼 일은 정성ᄒᆞ곡. 뭐 사일 째부떠는 모이는 거주.
@ 거기서 경헹 다 결정덜 허곡?
#1 아니, 거기서.
@ 몸, 몸조심을 허는 거네예?
#1 아, 그렇주.

당제

@ 그다음에 아까 물어봐신디 여자 삼춘, 그 당제. 그 당에 갈 때 뭐 가졍 갑니까?
#2 웃음.
@ 당제.
#2 당, 당제, 저, 엿날은 사도 아녀곡 집이서만 만들엇젠 헙디다마는 이젠.
@ 돌레떡?
#2 고급빵으로 사곡. 요지금도 돌레떡, 저 헙니다.
@ 돌레떡, 돌레떡 허지양? 돌레떡이엔 허지 안허우까양?
#2 예, 돌레떡도 동글랑허게.
@ 동글랑헌 거.
#2 예, 그거 허영 그거 허곡.
@ 그 소금 안 넣은 거.
#2 속[쏙] 아이 논 거.
@ 으.
#2 예게, 그거, 그거 허영 갑니다.
@ 모멀허곡 곤쏠허곡 헌 거.
#2 예, 예, 그거 헤근에 곤, 곤쏠로도 만들곡, 모멀, 모멀로도 만들곡 그자 그 시기에 따랑 허곡.
@ 조로도 멩글아나수과?

#2 예?
@ 조.
#2 조론 아니헷수다.
@ 모멀허고 곤쏠예?
#2 예, 예, 예. 경 헤근에 그자 영 상자에 놔근에 그디 무시거 하영은 아니허고.
@ 그 당에 갈 땐 말을 하영 안 굴아양? 무사 말 안 곧는고?
#2 모르쿠다, 우린 분시.
@ 여자, 여자덜 영 허영 저 곤데구덕에 영 헹 갈 때 보면은 말 안 해.
#2 (웃음)
#1 그 뭐, 그런 저 뭐가 잇긴 허는 모냥인디.
@ 말 안 굴아.
#1 우린 뭐 거 겪어 보지 못허난.
#2 아이구, 요지금은 경 아녑니다. 이 저 바당에 가는 사름덜은 경 헌덴 헙디다마는 난 몰르쿠다.
@ 거난 그 술도 올립니깡? 당제 헐 때?
#2 술 혼 펭 아졍 갑니다. 술 혼 펭.
@ 게난 떡허고.
#2 떡허고. 그거 허곡 그자.
@ 그다음 돈?
#2 으, 돈도 그자 ᄒᆞ끔 놓곡 쏠, 액멕이쏠이엔 허멍양? 사름 좋나 궂이나 그자 액 잘 받앙 갑센 허멍 쏠이나 혼, 혼 사발썩 놓곡 헹 갑니다. 무시거 하영 아녑니다. 그레 불전, 불전인디 돈 ᄒᆞ쏠 놓곡 헤영. 당에 하영 무시거 아졍 가질 아녑니다. 엿날엔 둑 혼 사름 춤, 혼 집이 둑 ᄒᆞ나씩 아졍 가낫수다. 이젠 그런 것도 엇어졋주마는.
@ 아, 그 당에?
#2 예.
@ 둑도 가졍 가?
#2 예게.
@ 산둑?
#2 예, 산둑. 저 장둑으로.
@ 장둑으로양?
#2 예, 그거 사라지건 디가 오래지 아녀수다. 경 허믄 그거.
@ 아 뭐냐 처음 들엄저. 장둑 가졍 가는 거.
#2 예, 아졍 가나수다. 그디 대주가 막 어떵 아프나 궂덴 허민 그런 거 다 아졍 가민 문 그 심방인디 무신 사름인디 그걸 문 액막곡 허멍. 그거 그자 옛날.

칠성제

@ 여기 저 칠성제 헙니까?

#2 칠성?
@ 칠성제?
#2 제 헐 때?
@ 으. 거난 식게헐 때, 그?
#2 예, 놉니다게.
@ 저 고팡더레.
#2 예.
@ 칠성제?
#2 그런 거 놓는 집도 잇고 안 놓는 집도 잇고.
@ 허여마씨?
#2 예, 헙니다.
@ 아, 지금도 허여마씨?
#2 이지금도 헙니다.
@ 아.
#2 아니 우리 용○이네도, 우린 저디 허난 이젠, 아이고 그 식당 헤부난에 무시거 고팡도 엇고 아무것도 엇이난 헤도 저.
@ 옆더레 헤근에.
#1 (웃음)
#2 그자 이거 점 저거 점 헤근에 저 ᄒᆞ나, ᄒᆞ나 놉니다. 그 집안네[집빤네] ᄒᆞ나 놓는디, 요지금도 고팡에영 허멍 안방에 노는 집은 문 놓넨 헙디다, 칠성이영. 엇는 집인 아니허곡.
@ 예, 아 우리도 헙니다마는.
#2 예, 예.
@ 우리도 거 본상 옆이 문전제 헐 거 허고 저 칠성, 그 거난 고팡에 허는 거.
#2 예, 그거.
@ 놓곡 헤근에.
#2 그걸 아무데나.
@ 협주마씨.
#1 여기가 우리 두 번째 고모 손잡주게.
@ 으.
#1 손녑주, 손녀니까.
#2 (웃음)
#1 그 우리 그 고모부가 일찍 돌아가 부니까 첨 거 믿을 디가 없어 가지고. 우리, 우리 집을 많이 믿엉, 저 의지헷주. 의지헌 거주, 어떻든. 무신 살려주나 무시거 헌 건 아니고 의지허멍 사니까 그런 거는 거의 비슷헙니다게. 비슷헌 디 우리도 그 고팡에 놓곡 그 우리 어머니네 헨 내려온 거니까.
@ 계속 내려오주마씨.

#1 예, 그걸 지금도 저버릴 순 없어. 그레 가지고 우리 형님제를 그 우리 아이보고 저 요 흔 삼년 전이 ᄒᆞ렌 헷어. ᄒᆞ렌 허니까 저 나 문제 허곡 그건 아니허쿠다 허멍, 아이고 거 좋다, 거 제발 허지 말라. 거 그거 시작헤 놓민 권히 거 뭐가 뒈니까, 그대로 제사만 잘 지내라. 경헨에 춤 헷는디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엇어져야 뒙니다게.

문전제

@ 문전제도 허지양?
#1 예, 예.
@ 문전제는?
#1 문전제도 지금도 영 보믄 아니 허는 디도 잇는 것 같애. 그 보믄 그.
#2 문전젤 무사 아니헙니까게.
#1 아니, 아니 허는 딘 아니헴수다게. 게 곳사 우리 아이 곧듯이 아니 허민 뒈는 거난, 헤도 뒈곡 아니 헤도 뒈고. 그자 우리도 엿날 그 저 믿을 디가 엇이니까 우리 조상덜토 요거나 허민게 집안이 펜안헐까 가족이 펜안헐까 이렇게 헤 가지고 그자 ᄒᆞ던 것이 그 뭐 전래가 뒌 거지, 이거 똑 헤야 뒌다는 거는 아니고.
@ 으, 식게 멧 분 전에 헙니까? 문전제?
#1 아이 거 문전제 끗나면은 뭐, 제사, 본제사로 들어가주. 어떤 디는 제사 끗나근에 허는 디도 셔.
@ 아이고.
#2 것도 저 ᄎᆞ례우꽈?
@ 그거 잘못뒌 거우다.
#1 게난 저 문전에 헹.
@ 식게 전에.
#1 예, 전에 헤야 ᄎᆞ렌 ᄎᆞ례주.
@ 예, 게난 우린 흔 십오분 전이 흡니다마는.
#1 아이 게난게 십오분 전에 헤근에 그자 그거 설르곡 담곡 허당 보민 십오분 뒐 거 주게.
@ 지금도 열한 시 사십오 분 뒈면은 문전제 허곡.
#1 예.
@ 열두 시 딱 뒈면은 본제 허여.
#1 거, 경헤도 거 엿날 집안이우다. 엿날 첨 내려오는 춤 아주 가문가례옌 헙주마는, 어떻든 뭐 첨, 명문가우다게, 게나제나.
@ 아 게난 우리 아버님이 저, 이 저 향교 다니고 허니까.
#2 예, 경허난.
#1 아, 경허난 경헌 거우다게.
@ 돌아가셔도 우리가 쭉 받아근에 헙주게.

#1 아이, 우리도 열두 시에 허다가 아, 그 아이덜이 막 이거 실허헤 가지고, 게믄 저 뭐.
@ 당일제.
#1 당일제여 무시거여 허지 말아근에 게민 흔 삽십 분 줄여 가지고 열흔 시 반 뒈거들랑 흐겐 허멍은에 흐연, 춤. 겐에 우리 춤 제관이엔 헤야 뭐 우리 동생이주, 원. 경허민 첨 우리 아이덜은게 서울 잇어부난 이디 참여 못 허곡, 아이 요사이는 또 우린 또 거 족은아덜에 손자덜이 하이고 할아버지 뭐 이거 당일제 헤야지 이거 당추 이거 안 뒈겟수다 허멍, 요 좀 몰련 안 뒈쿠다. 좀 못잔 안 뒈쿠덴 허면서 하도 데몰 허는 거라. 지금. (웃음) 게도 나 좁좁허연 이거 기자 그대로 잇는디, 뭐 언젠가는 놈의 대동 헤야 헐 거주.
@ 그다음에 그 식게 끗나면은 올레코시 허지양?
#1 에, 그런 거 없어.
@ 아니, 저 뭐냐 그 다 영 튿아놔근에?
#1 아이, 그런 거 없어.
#2 숭눙.
#1 아, 그것사, 아 그건 저 숭눙 헤근에 어디 저 깨끗헌 디레 비우든 이 저 옛날에 저 지붕 우이 많이 올렷주.
@ 지붕 우티 올리곡, 그다음에 전부 헌 거?
#1 아 그거.
@ 전부 사발에 헌 것은 올레 간에 영 케우리지 안헙니까?
#2 그런 거 엇어.
#1 아이.
@ 그거 안 허여?
#2 숭눙만 헙니다.
#1 게난 그거 집안, 집안마다 다 틀리난게, 거.
@ 어.
#2 (잡담)

보리밭 밟기

@ 그다음에 이디 보리밧, 그 뜬밧덜 잇지 아녀꽈? 보리밧 밟기 헤니수가?
#1 예, 엿날은 헷엇는데. 엿날 그 나, 이 ᄉᆞ삼사건 직전에 거 우리 요기 살 때 보믄 그때 청년덜이 지금 그자 흔 백 세 뒌 사름덜이주. 겐디 흔 스무남은이 와서 불라난 거 기억나, 그루후에는.
@ 뜬땅양?
#1 예, 저 불르지 아녀고.
#2 보리 막 불랏주.
@ 그거 흔번 굴아봅서, 보리 불르는 거?

#2 아니, 보리 이딘 땅이 나쁘난 부껌젠 허멍.
@ 으.
#2 엿날 우리 두린 때 불르라, 불르라 허난 막 불라낫어. 판 흔 판썩 허영.
#1 (웃음)
@ 것도 수눌엉 헤수강?
#2 아이고, 수눎도 허곡 가족 이녁 식구만도 허곡 허멍 불라낫수다. ᄒᆞ쏠 두린 때.
@ ᄒᆞ쏠 두린 때민 흔 멧 술 뒐 때우꽈?
#2 아멩헤도 흔 여남은. 여남은 술 나, 여남은 술 나난 그거 알암주. 엿날 아이덜은 두려낫수게게, 멍청허게 커부난.
@ 보리밧.

걸궁

@ 여기 걸궁 헙니깡? 걸궁?
#2 아이구, 헤나건디 오랫수다.
#1 걸궁 헤난.
@ 그거 흔번 말해봅서, 걸궁,에 대허영.
#2 걸궁게, 엿날에게 이디 이 ᄉᆞ무실도 엇일 때. 걸궁 허겐 허멍 막 모자 써근에게 이 집 저 집 무신 삼방 구석 네 구석이엔 허멍 그 집이 강 막 굿ᄀᆞ치 허멍 허믄 돈도 주곡 쏠도 주곡 허멍 헨에 이디 저 거시기 짓어낫수다. 이디 그 무시거엔 허느니, 상산디 이찍.
@ 향사.
#2 상산디 저 그 ᄉᆞ무실인디.
#1 사무실.
#2 ᄉᆞ무실 쪼꼴락허게 짓어낫수다, 엿날에.
@ 거난 걸궁 헐 때는 북도 치곡?
#2 아이고, ᄉᆞ뭇 북치곡 고기 나끄는 사름 뭐 장귀 치는 사름 ᄉᆞ뭇 한복 입어근에 줄줄이 사근에 문 허곡, 막 쉬정 하게 헨 헤낫수다.
@ 건디 북, 북이 그때 잇어, 잇어낫어마씨?
#2 북 잇어낫수게. 이 시국난 후제난게. 요디 강게 북, 장귀 문 치곡 고기 나끄고.
@ 거 영 총, 총도 들르곡.
#2 총 들르곡 막 우장 써근에 걸벵이질 다 허곡 허멍 걸궁 흔 메틀 헤수다. 나도 이디 걸궁 막 흔 메틀 춰 허난 춤은, 걸궁춤은 막 잘 춰집니다. (웃음) 아이고.
@ 지금도 춥니깡?
#2 양? (웃음)
@ 지금.
#2 아니, 걸궁게게 다닥다다닥 허멍게 그 반주에 맞촹 걸궁춤은 ᄯᅮ로 잇어마씀. ᄒᆞ나 둘 셋 허믄 착착허멍. 영 허민 영 헐 땐 고개 숙이곡 영 헐 땐 발 들르곡 허멍, 아이

고 ᄌᆞ미나게 그때 헤낫수다. 흔.
@ 게난 집집마다 막 돌아뎅겻구나양?
#2 예, 집집마다 돌아뎅기멍 하간 동녕 받아근에. 쏠도 받곡, 돈도 주곡 ᄒᆞ쏠, 돈 신 집이 가민 돈도 주곡, 쏠도 흔 사발썩 거려 놓곡 허멍 동녕바치질ᄀᆞ치 잘 헤줘.
@ 아까 동녕바치허고 걸벵인 같은 말 아니우꽈?
#1 같은 거.
@ 걸벵이, 걸벵이질 아까 ᄀᆞᆯ안게.
#2 그거 헤근에 이 문 쏠 받앙 지곡 허멍 헤낫수다. 그때 ᄉᆞ뭇.
#1 그 걸궁 허게 뒌, 그 ᄉᆞ삼사건 전에도 우리 헤난 건 알아지는데.
#2 ᄉᆞ삼사건 전이 아니.
#1 아니, 게메 ᄉᆞ삼사건 전이 그, 저 헤낫수다게. 헤낫는데 ᄉᆞ삼사건 후에 그 왜 걸 그때 많이덜 헷느냐 허믄 그 사무실이 그래도 잇어야 뒐 건디, 이 향사엔 헌 거 엇엇주게. 게 가지고 요걸 헤 가지고 우리 집을 짓어 보자, 경헨에 ᄒᆞ게 뒌 게 그 걸궁이랏주. 게 가지고 그때는 매 집이 다니면서 ᄒᆞ면은 에, 그땟 돈 얼마? 그때 흔 육십, 흔 육십이 년도 아니면 삼 년도일 거라게. 아, 육십삼 년도, 육십삼 년 이 집이 짓엇고. 흔 육십 년도쯤 뒈실 거라. 경 헨에 이젠 그땐 나도 걸궁, 우리 집이 완에 허니까 이천 원 희사허연, 이천 원. 이천 원 거 족은 돈 아니랏수다, 그때. 경 헤 가지고 헤서 이걸 춤 짓고. 최고 많이 기부헌 사름덜이 만 원. 만 원이민 지금 돈 천만 원 더 뒐 거우다게, 실지. 에, 그런 사람이 흔 댓 사름 뒈고, 대ᄋᆞ슷 사름 뒈엇주, 그 당시에. 거 지금도 저기 그 방명록이 이실 거라마는. 경 헨에 그 집 짓언에, 그 집에서 짓으니까 그때 당시 이 고구마 수매, 그 절간고구매나 유채 수매 허레 와근에 그 검사원덜 ᄀᆞᆯ은 거 보믄, 햐, 이 집 이 남군에 이치룩 영 집 잘 지은 디 엇덴 허멍, 첨, 경도 ᄀᆞᆫ는 거 들어낫는디.

입춘

@ 그다음에양? 절기 그 정월달에 그 입춘이 잇주마씨, 입춘.
#1 으.
@ 그 절기는 이제 양력으로 헙니다게. 절기는 양력.
#1 아, 절기가 양력이 맞주게. 그거 원 양력.
@ 예, 예, 예. 게난 입춘, 입춘에 대허영 흔 번 ᄀᆞᆯ아줍서. 입춘.
#2 거 새철이엔 허는 거?
@ 예, 새철마씀게.
#2 거 무시거옌 ᄀᆞᆯ으니? 새철 들민 새해 난 거주.
@ 거난.
#2 새철 드는 날 어디 저 엿날엔 여자덜은 놀레도 못 가곡 그 놈이 집.
@ 그 날양?
#2 남자 오민 막 곤밥 헤주곡 무신 욕도 아녀고.

#1 (웃음)
#2 여자 가민 막 검질 막 짓넨 허멍 욕허명 둘려 불곡 헷젠 허멍, 할망덜 곧는 거 들어수다게.
@ 검질, 검질 짓넨 헤근에?
#2 예, 예. 남잔 가민 막 고맙덴 허곡. (웃음)
@ 요즘도 보면은 저 입춘날.
#2 예. 어디 ᄒᆞ쏠 멩심허영.
@ 입춘굿덜 헙주마씨. 여기.
#2 입춘굿?
@ 예, 입춘굿.
#2 건 어디 바다에나벳긴.
@ 저 관덕정에서.
#2 아, 관덕정에서.
#1 그쪽에선 허주.
#2 예, 헙니다. 저 테레비에 ᄒᆞᆫ 번 봣수다.
#1 이, 저 우리 동네는 그런 건 없고.
@ 그날 특별히 뭐 음식 같은 것도 엇고양?
#1 그런 거, 그런 건 엇곡. 춤 아까 곧듯이 그 여자덜 기자 남의 집 방문허는 거 금허는 거. 경허고 이 한남리[할람니] ᄀᆞ뜬 경우는 거 음력으로 이월 십육일날인가? 이 당에서 아까 그 당, 아 잘 헤놧어, 거기. 춤. 그 저 문화재로 지정뒈언에 거 한남리서 거 아주 큰 행산디, 거기서 그 저 한남리는 굿허고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2 으, 한남리는 정월 굿 헌덴 허여.
#1 거 춤 아까도 ᄀᆞᆯ앗주마는.
#2 한남리허고 신흥리.
#1 그 여기서 우리 동네서 허는 거는 그 당시는, 이 제일 큰, 일 년에 큰 행사가 토신제 지내는 거. 이게 제일 많앗는디 이젠 그것도 엇어져 불고. 그 예로 우리 아버지가 이 저 한문에는 막 유식헷어요. 그래 가지고 하이고 매날 와근에 그 *제만 헤 ᄃᆞ렌 허민, 아, 귀차녀 가지고 그거 첨, 그 당시는 뭐 이 아이덜토 제 먹으레 가는 걸 막 좋아허곡 뭐 헐 때주마는. 것도 ᄒᆞ루 이틀 처냑이라야지, 맨날 왕 ᄉᆞ정ᄒᆞ민 거 안 가지도 못 허곡.
@ 몸 조심헤야 뒈고.
#1 하이고 그거 춤 경헤 가지고.
@ 딱 주는 건 하나 아니우꽈게. ᄃᆞᆨ다리 하나 허곡, 저 떡.
#1 게 무시거 받앙 오는 것도 그거 그디 강 제지내난 거 얻어먹는 거. 원 거뿐이라.
#2 아니.
#1 받앙 오는 건 없어.
#2 아니, ᄃᆞᆨ다리 ᄒᆞ나 허곡 무시거 아져가낫수다, 나도. 놉 빌엉 저 아침부떠.

@ 거 떡허고.
#1 거 저, 벨로 우리 아부지, 우리 아부지 헐 땐 저 어려울 때덜이주게, 육십 년대덜이난.
@ 게 그거 조팝허곡 곤밥.
#1 아이 그거 뭣이, 오곡밥, 오곡밥 다 허는 거주게.
#2 세 가지, 세 가지 밥 허주.
#1 그 첨 경 헤근에 춤 허면은 아이고 우리 아부지 산 때 귀차녀 가지고.
#2 것도게, 유식허난 경 헷주, 아무 집이나 경 뎅겨수가?

우수

@ 그다음에양 우수, 우수에 대헤서 뭐 골을 말 잇수가?
#1 전혀 그런 거 없어.
@ 그날 뭐 비 오면은 뭐 곡식이 잘 뒌다, 뭐 이런 식으로.
#1 아니, 겔쎄 우리 동네선 그런 거 관심은 없어. 뭐 첨, 이 ᄉᆞ월달은 우수 보고, 절기로사 그 농가월령가에도 잇주마는, 그런 거는 없고, 이 청명 뒈면은. 청명 ᄉᆞ월 오일날.
@ 예. 그건 나중에 알아볼 거고양?

방에

@ 그다음에양, 오널 그 마지막으로 그 저 방에 부치는 거 잇지 아녀꽈, 방에?
#1 예.
@ 요즘 저.
#1 산불?
@ 그, 저 옛날 신철수 군수 만들안에 그 저 들불축제 헴수다마는.
#1 예.
@ 엿날 방에 부치는 거. 이거 방에 불 부뜨민 끄레 하영 다녓지양?
#1 아이, 거야 뭐 방에 놓은 디 뭐.
@ 그때 무사 방에 막 놔수강? 그땐.
#1 아이게, 쉐 질루기 위헤서.
#2 진도기 읏게.
#1 게난 그 뭐 학술상으로는 뭐, 방에 부쪄 불민 땅이 뭐 무시거 유실뒈곡 뭐 저, 산성화 뒈곡 뭐 헤도 거 전혀 거짓말. 그 진두기가 엇어, 진두기가 덜 해. 이, 저 문, 그 풀이 잇으믄 거기서 서식, 그 전년도 게 서식헤 가지고, 저 진두기가 더 ᄒᆞ곡, 또 쉐 먹는 디도 상당이 싫어 허곡게, 거.
@ 그니깐.
#1 경 허니까 방아를 부쳣주.
@ 방에 부쳣잖아예.
#1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당시 한 정월달만 뒈민 이 동북쪽이라 서북쪽더레 밤에는

훤허여. 그게 어디냐믄 지금 그 저, 저 목장. 거 말, 말 목장.
@ 으.
#1 그 근처에서 부뜬 불이, 이, 이월달쯤 뒈민은 저기 훤해. 이 전깃불 그 헌 것보다 더 훤허여.
@ 아, 옛날 우리 어릴 때도 방에 끄레 하영 가나수다게.
#1 아이고, 하영 가랴 우리 춥.
@ 저 소낭썹 꺼꺼근에 막 두드리멍.
#2 문 나오렌 웨곡 헤나수다.
@ 예, 예.
#1 게난 그때는, 이 저 나무가 짓지 아니허곡 순전 풀이니까 언마 어렵질 아녓는디.
#2 소에도 ᄉᆞ뭇 소에도 던드리헤낫주.
#1 게난 지금ᄀᆞ찌 산불 낭은 저 사름 죽어, 거 안 뒈어.
@ 옛날은 거 역불로 강은에 그 부쪄뒁 오고.
#1 아 역불, 역불.
@ 그 뭐꽝 어욱 그거 허영 무껑은에 강, 영 뭐꽈? 거.
#1 화승, 화승이엔 허주.
@ 화승, 화승으로 헤연.
#1 엿날 어룬덜 거 뭐 첨, 우리 아부지 산 때도 그런 거 헤근에 옛날 불씨가 그걸로 전헌 거라. 이, 저 불 담으레도 갓주마는. 이웃집이 불 담으레 뎅기고, 우리도 불 담으레 뎅겨수다.
#2 미우젱이 헤근에 뺑뺑 ᄆᆞᆯ아근에.
#1 경허믄 그거 헤근에 이 저 불씨 전허주게. 이, 저 어디 드르에 촐왓, 촐 비레 갈 때나 어디 저 뭐 무슨 행사가, 저 미신 집안에 행사 그 산소에 미신 행사가 이실 때 그거 헹 가근에 불쏘시개 허는 거주.
#2 거ᄀᆞ라 화승이엔 헷어, 화승.
@ 어, 화승양?

이월

영등

@ 오늘은예, 거 이월달 그 영등할망에 대헤서 ᄀᆞᆯ아줍서. 그 저 언제 들어와마씨? 영등할망?
#2 정월 보름날 왕 삼월 보름날 나가는가? 나 확실이 몰르쿠다게.
@ 우리 남제 삼춘은 영등할망 들어오는 때 알아지쿠가?
#1 영등할망 저 뭐야, 이월 초에 이월 초ᄒᆞ룰날 들어와근에 삼월 보름날 나가는디.
#2 잘 알암저.
#1 십육, 십육일날은 이 개시습이라 헤 가지고 비가 내려. 그런 전설이 있어. 그런

속설이 잇어.
@ 게난 이월 초?
#1 이월 초. 영등할망.
@ 그다음에 나갈 때는?
#1 나갈 때는 이월 보름. 게 십육일날은 개시습이라고 헤서 그 영등할망 들어왕 나가분 걸 깨끗이 싯는다는 뜻일 테지, 아무래도.
@ 으. 거 얼로 들어와마씨, 영등할망?
#1 거 얼로 들어오는 건, 거, 뭐 기자 엿날 그 속설이니까 뭐 영등할망이 잇는지 없는지 건 뭐 확실이 뭐 증거가 엇어 놓니까. 거 내려오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자 속설이지. 뭐 여기 그 영등할망엔 헤근에 무슨 우리 농사가 잘되곡 삶이 펜안허곡 허는 거는 뭐 엿날 어룬덜 믿질 않던데.
#2 게도 다른 딘 막, 막 그 위헤근에 막 굿 허곡 막 헙니께.
@ 경 헙니다게.
#2 영등굿이엔 허멍, ᄉᆞ뭇.
@ 게난 그 날씨가 좀 뭐헤양? 영등할망 들어오민 뭐.
#1 아, 게난 그 초ᄒᆞ를날 비 오면은 그 내내 비온덴, 아니 지금도 뭐 그 이월, 그 영등할망 들어오기 전에도 영 여기서 대개 보믄 음력 초ᄒᆞ를날 날씨가 좋지 아녀믄 하, 비가 자주 와, 보믄. 그런 속설이 있어. 건, 뭐.
@ ᄇᆞ름도 하영 불곡.
#1 예, 아니 ᄇᆞ름 불고 아니 불고 허는 거는 몰르고.
@ 으.
#1 이 비는 많이 와, 확실히.
@ 이때 영등할망 들어오민 금기사항은 이수과?
#1 글쎄, 여기서는 뭐, 그런 거는 난 느끼지 못허고. 어른덜토 그런 건 뭐 기자 말로만 영등할망 들어오난 이축 비 왐젠 곧곡 뭐 첨 거 삼월 보름날 나가민 뭐 개시습이엔 허곡 허난 뭐 거 그런 정도주.
#2 게난 이월 보름날, 초ᄒᆞ를날 와근에 이월 보름날 나갈 수가 이수과? ᄒᆞᆫ 둘 살앙간덴 아니헷는가? 삼월 보름날 나가민, 물 잘 싸민 집이 앚앗단 사름덜은 바릇찹으레 안 가민 도독질 헹 먹젠 앚암젠 허멍 물 잘 싸.
@ 게난 그 기간은 확실허지 못허구나양?
#2 게메, 몰르쿠다게. ᄒᆞᆫ 둘이, ᄒᆞᆫ 둘 아닌가? 이월 보름 뒈민.
#1 하여튼.
#2 나도 확실히 몰르쿠다게.
#1 (기침)
#2 그것에 대헌 건. 들어낫주마는 잊어비언에게.
#1 게난 개시습이라고 허여, 게가 뭣산디, 이 개엔 헌 거는 바다 개를 말하는 걸 거라, 저게.

#2 바다에 강 몬 잡아먹언 가불민게, 저 바다에 대헌 할망이주.
@ 저, 겡이?
#1 아이, 개, 갯것이엔 헌 게 거 우리말, 엿날 저 순수헌 그, 저 그우리말일까. 엿날 그 첨 이 저 뭐야, 속언디, 저 갯긋이엔 헌 건 여기선 보통 바다를 말허는 거주.
@ 예, 갯긋.
#1 갯긋디 사는 사람. 그 뭐, 개긋이엔 헌 건 아멩헷자 해변, 그 직집 그 이 곳변에 사는 사람을 말헴실 거라.
@ 갓 변, 갓 변예?
#1 예.

경칩 · 춘분

@ 그 이월달 그 경칩허고 춘분 잇주마씸게, 양?
#1 예.
@ 이 경칩에 대헤서 알아지쿠과?
#1 경칩에 뭐 엿날 어른덜 뭐 경칩인 개구리 잡고 뭐, 깨어난덴 허는디.
@ 여긴 개구리엔 헙니까?
#1 개구리엔 허주. 무시거?
@ 개구리양?
#1 개구리.
@ 게난. 개가비?
#1 경칩에? 보통 눈이, 눈도 막 와. 첨 추웁주, 추워. 저거 경칩 그 이월 중순이냐? 아니, 이월 중순이냐 경 뒈믄게.
@ 춘분에는 뭐 헙니까? 춘분.
#1 춘분, 뭐 그런, 이, 저 여기는 제일 중요시, 그 계절적으로 중요시허게 여기는 거는 입춘이고, 춤 거 어제도 갈아신디. 입춘허고.
@ 예. 춘분은 별다른 거 엇구나예?
#1 예, 벨다른 거 없고. 저 처서 뒈면은 좀 건더와진덴 허곡. 그자 그런 정도주 뭐.
@ 으.
#1 뭐 그것에 대헤서.
@ 이때 뭐 저 모종 갈진 안헙니까? 춘분 때? 이때도 겨울이라양?
#1 겨울이주게. 삼월 이십일 일이민, 하여튼, 이 제주도니까 그렇지 엿날 그 비닐하우스나 엇인, 엇은 때야 당추 저 육지 ᄀᆞ튼 덴 막 눈 쌓이고 저, 땅이 막 얼건디. 여기도 삼월달엔 땅 막 얼어. 겡 기자 이 엿날 우리가 감젓 모종을 놓면은 보통 청명에 놓는디. 청명이면 ᄒᆞᆫ ᄉᆞ월 오일이주.
@ 예, 그때 조금 이시민 그 청명 나올 거양?
#1 예.

삼월

한식 멩질

@ 그 한식 멩질 헤나수가?
#1 아, 엿날은 헤낫다고 허는데. 우린 그거 뭐 본 적도 엇고.
@ 우리 여자 삼춘, 한식 명절.
#2 한식 오월 멩질?
@ 아니, 아니. 한식, 한식.
#2 아, 아.
#1 청명 뒷날.
@ 청명이영 거의 비슷허우다.
#1 ᄒᆞ루 차이우다. ᄒᆞ루 차이.
#2 그런 명질 몰르쿠다게.
#1 건, 건 아니 몰르쿠다게. 엿날에 헤낫젠 허대, 거, 저 엿날 어룬덜.
@ 게난 거 잘 모르고양?

청명

@ 그다음에 그 청명, 청명 때 뭐 헙니까?
#1 아, 청명 때는 초상 산소, 사테, 즉 말하자면 테도 그 안 뒌 디 입지곡.
@ 사테?
#1 사테엔 헤실 거라. 그게 바로.
@ 테 영 입히는 거?
#1 예, 테도 입히고 산담 ᄀᆞ튼 것도 다 잘 정리허곡, 또.
@ 산담 정리헴구나양?
#1 예.
@ 청명 때?
#1 아니 거, 어떻게 잘못뒌 거는.
#2 좋은 날이난.
#1 좋은 날엔 거, 귀신이 없는 날이라 허여 가지고. 거곡 보통 저 천리 ᄀᆞ뜬 거, 이 저 산담, 이 새로 신축, 저 신축허는 거. 그런 거는 많이 헷지.
@ 산담?
#1 예.
#2 쳉명에 풀이 ᄆᆞ른 ᄒᆞᆫ ** 밧도, 풀도 그때사 나곡 허난.
#1 저 풀, 저 물은 뭐 그때 뒈민 뭐 허주. (잡담)

곡우

@ 이것이 예민헤가지고. 웃음. 그다음에양 곡우에 대허영 알아지쿠가?

#2 아이 곡우도 뭐 저거 뭐 말 그대로 허민 뭐 첨 뭐 곡우, 청명 곡우 절기로다 헤근에 그 농가월령가에도 잇주마는 그때 뒈믄 뭐 씨를 뿌린덴 허는 거 아니라?
@ 씨 뿌리는 거양?
#1 예. 에, 엿날 어룬덜 보믄 곡우 뒈면, 곡우 보통 뭐 하지 뒈면 뭐, 산디 불린덴 허고.
@ 게난 그건 나중에 절기 다 물어볼 거난양?

묘제

@ 그다음에 그 묘제는 언제 헙니까? 묘제?
#1 묘제는 보통 삼월달, 음력 삼월.
@ 음력 삼월양?
#1 어, 게난 보통 영 허는 거 보면 삼월 삼짓날이라 헤 가지고 삼월 삼일날.
@ 음. 게난 청명 때 허진 안허고양?
#1 아니, 청명 때도 가주게. ᄒᆞ당 보민 청멩이 뒈주.
@ 아, 허는 사름도 잇고?
#1 아니, 음력으로 그 늦을 때는 청명이 오히려 더 가고. 그 일헐 때는 청명 전이도 허고.
@ 음.
#1 이 음력은 갓다왓다 허는 거라부난게.
@ 게난 묘제는 음력 삼월에?
#1 으, 음력 삼월, 여기서. 요새는 뭐 양력으로 딱 정헤놩 뭐 오월 오일날 헌다, 뭐 ᄉᆞ월 오일날 뭐, 청명날 헌다 허멍 경 허는 집안도 잇는데. 엿날은 음력을 기준으로 헷기 때문에 이 묘제나 제, 제향은 전부 음력. 지금은 뭐 양력으로, 실은 양력으로 헤야 맞인 건디.

사월

사월 초파일

@ 그다음에 그 우리 여자 삼춘, 그, 사월 초파일에 대헤영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
#2 사월 초파일날은 무시거 난 알암수가마는 그자.
@ 절간도 가고?
#2 절간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엔 허멍 막덜 갑니다게. 등도 ᄃᆞᆯ곡. 등, 등덜 딱ᄒᆞ게 ᄃᆞᆯ앙, 쉬정마다 ᄃᆞᆯ앙은에 ᄒᆞ쏠 궂은 사름은 초가 그 막 캉 ᄂᆞ리곡양, 경 허는 겁디다. 나도 잘 몰르쿠다게. 경헌디 이젠 촛불이 위엄허난 다 전기로 ᄃᆞᆯ암수게.
@ 그다음에 이날 저 뭣도 허지양? 그, 저 어, 물애기덜, 저, 뭐, 이발도 허지양?
#1 머리 가끄는 거.
@ 머리 가끄는 거.

#2 아, 저 거시기 절간에서?
#1 아니.
#2 아, 초파일날에.
@ 초파일날.
#2 초파일날 애기덜 머리 멘들락허게 가까 부는 거. 것도 엿날엔 헤나수다. 모르쿠다, 이젠. 헤염실 거우다, 요즘도, 애기덜토.
@ 게난 날 안 봐근에 그때.
#2 예, 예.
@ 그 베 이신 머리 그냥.
#2 예. 무주건 곳아붑니께. 그 애기덜이나 ᄒᆞ썰 역은 아이덜토 곳아나수다, 그날엔. 좋은 날이엔 허멍, 초파일날.
@ 이번.
#2 초파일날 세 번을 깎넨 골아낫주.
#1 머리가 잘 난다고 헤 가지고.
#2 삼년에, 삼년 애기 머리 곳으민 막 좋넨 허멍 엿날 어룬덜 골으난.
@ 뭐 다른 건 허는 거 엇지양?
#1 초파일날 엇어, 별로.
#2 아이고, ᄌᆞ세히 몰르쿠다게. 딴 건 기자 엿날 애기덜 초파일날 머리 가끄곡 절간에덜 그자 가는 어룬덜은 절간에 강 불공허곡 허멍.
#1 게난 이거 초파일 뭐, 크리스마스 영 말을 허는데. 엿날은 살기가 어려와 놓니까. 이 절에 다닐 그 저, 영 좀 시간이 엇엇주게. 먹고 살기가 바쁜디, 그디 갈 수가 셔? 경허다 보니까 이 근처에선 별로 절에 가는 예가 엇엇어. 겐디 이제 ᄒᆞᆫ 칠십 년대 나가니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잇어 가니까 그 절간도 가곡 ᄎᆞᆷ 예배당도 가곡. 기자 뭐 천주교도 가곡 헷주. 그전에야 뭐 살기가 바쁜디, 어떵허연 그디 갈 수가.
@ 이때가 농촌에 막 바쁠 때주게.
#1 아이, 바쁘고. 굳이 가젠 허민 경헤도 요 미신 쏠이라도 ᄒᆞᆫ 점 잇엉은에 아졍 가곡 헤야 뒈는 건디게. (웃음)
#2 초파일날 단단허게 날이 좋넨 허멍, 이 만곡, 곡석덜이 좋넨 허멍덜, 여자 첨, 엿날엔 골아나고.
@ 견디 이상허게 초파일날이 날이 좋아.
#2 (웃음)
#1 초파일 엿날게, 거 뭐.
@ 비 오당도 그치곡.
#2 꿰도 좋곡 하간거 좋넨 허멍덜.
#1 제일 좋을[졸] 때주게, 제일. 이 오월달이니까게.
#2 기자.

입하 · 소만

@ 그다음에 입하에 대헤서 알아지쿠강, 입하? 여름이 온다는 건데. 거 별다른 거 없지양? 소만?
#1 글쎄 소만, 그런 거, 절기는 엇고. 여기서 엿날 어룬덜 뭐, 이, 저 뭐야? 산디 부중이 저 언제 허나? 저 입하, 저 하지 전이 허주게.
@ 산
#1 이, 저, 이 산디쏠 잇지 아녀게.
@ 아, 산디, 산디.
#1 어, 그거, 이, 저게 약 한 오월 이십일경에 ᄒᆞ는 건, 저 밧을 불리는데, 오월 이십일 소만 뒐 건가? 그, 저.
@ 소만.
#1 예, 게난 그때 저거 산디 불리곡. 저 하지는 유월 이십일이난.
@ 아, 산디도 불려마씨?
#1 아이고, 산디 여기서 불려낫주게, 옛날에. 겐 헨에.
@ 난 조만 불리는 중 알아신디.
#1 아니, 아니 산디도.
#2 이딘 산디벳긴 무신.
#1 게난 그때 그 산디도 안 불려도 저건 뿌리가 강허게 저 막 벋으니까 자빠질 우려가 없는 건디 그때도 첨 멍청허게 저거 불린 거주. 거 안 불려도 아무렇지도 아녀는 거, 저거. 게 우리 세대 우리가 요 칠십 년대까지도 우리 그 산디 농사를 헤낫는데, 그때는 기자 끗언 내불엇주, 끗언 내벼도. 끗어뎅김도 거 뭐 불리거나 안 불리거나 똑같아.
@ 아, 여긴 산디도 불려낫구나.
#1 불려낫주게.
#2 그걸로 헹 제사도 허곡 헷수게. 무신, 무신 나, 논이 이수가? 미시거 이수가? 아무 것도 엇이난 산디 대충 헤수다게.
@ 거난 소만 근방에양?
#1 예. 그자 ᄒᆞᆫ 오월 이십일 경에 그자 그 농사를 헤십주.

오월

단오 명절

@ 그다음에 그 여자 삼춘, 단오 명절 헤봅디가? 단오 멩절.
#2 단오 명질 헤봐수다게. ᄒᆞ단 설러 부난.
@ 언제, 언제까지 헙디강?
#2 그거.
@ 대충.

#2 대충 놈덜 설러가난 확 설러 불지 안헤수과?
#1 그게, 그 유신헌법이 발표뒈어 가지고 뭐 가정의례 간소화.
@ 가정의례준칙.
#1 그거 헤나지 안헤서게. 그때 그 게나제나 설, 저 뭐 압력은 그렇게 놓진 안헷는디. 게난 뭐 첨 십 분에서 떡으로 그자 뭐 기자 아니허는 거주, 아니허는 거.
#2 느나 엇이 허단 확 설러 부난.
#1 아, 게 놈의 집이 헤가믄 에, 나도 허저 이런 식이랏어. 헨에 저거 칠십 년대 초까지는 헷는데.
@ 으.
#1 칠십 년대, 이 중반 뒈가니까 안 헷주.
@ 그때 저 막 저 무신거 구덕도 막 털곡 헤낫주게.
#1 이, 뭐.
@ 어디 뎅기지 못허게.
#2 예.
#1 실지, 아이고 나 그때 생각만 허믄. 이 큰일 나도 이 우동 흔 사발을 못 허게 헷어, 그 당시. 게난 그 춤 주인 뒌 상주나 그 주인 뒌 사름은 아, 그 사름이 찾아오믄 뭘 드려야 뒐 건데 드릴 게 없어. 경허믄 첨 서로가 거 난헤. 게난 조문 가기도 그렇곡 또 안 가기도 그렇고.
@ (웃음)
#1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영장허는 날은 뭐 잘헤도, 잘 출려도 좋다 이거주.
@ 게난 칠십 년대 초반까지는.
#1 예.
@ 헷고양?
#1 으, 다 헷어.
@ 겡 단오날은 뭐 헤마씨?
#1 아, 무시거여, 제일 바쁜 농번기주. 농번기난 보리 비레도 가곡, 첨 벌초 허레도 가곡, 대개 이 저 봄벌초 많이 헷어, 이 근처에서는.
@ 옛날 보민 저 육지서는 막 그네뛰기도 허곡.
#1 아, 그건, 좀 여유잇는 지방들이난 그렇주, 여기는.
#2 그런 저런 거.
@ 제주돈 엇어낫어양?
#1 아이고, 제주도는 살기 힘들어 놓난게.
#2 살지 못허난. 오월 단오, 오월 단오 험은 헤낫주만은 미시거 일허레만 둘앗수다. 명질 흔 직 헤 둥은에.
#1 제일 바쁜 때주게. 보리ᄀᆞ슬 때, 그거 뭐.

망종

@ 그다음에 그 망종에 대헹 흔 번 골아줍서, 망종. 저 보리, 보리 비지양? 이때.
#1 보리가 저 망종에 못 먹을 보리가 없나 곧는 거주. 그 망종.
@ 망종에 못 먹을 보리가 없나?
#1 으, 엇넨. 게난 유월 저거 육, 칠일 경 망종이 드는 건디.
@ 으.
#1 지금 망종이 저 오월절이주, 오월절.
@ 저 현충일 근방이 듭니다게.
#1 예, 예. 게난, 게난 거 양력을 유월 칠, 팔일. 저, 이 절기가 오육[륙]칠 늦엉 팔일이라. 그, 초, 팔. 계속, 그거만 계산허민 뭐, 저 뭐 처서여, 미신, 미신거여. 아 처서는 건 미릿 넘고.
@ 건 가을이고.
#1 예. 게난.
@ 이때 거난 보리 비어근에.
#1 아이고, 보리가 거의 대개 엿날 그 것보리 헐 덕에. 것보리 헐 적에는 그때까지 갓는디.
#2 겉보리 줄보리.
#1 그, 이 새로운 품종, 저 살보리 ᄀᆞ뜬 거 그 저 맥주맥 ᄀᆞ뜬 거 나오니까 헷지. 지금은 거의, 이 저, 저저 오월 이십일, 저 해변이는 지금 시작헷어. 견디 이 여기는 좀 늦어. 흔 일주일 늦어.
@ 아메도 웃드르난.
#1 예, 웃드르난 이 겨울 곡식은 ᄃᆞᆺ은 딜로부떠 먼저 익곡. 이, 저 가을 곡식은 뭐 추운 딜로만 먼저 익넨 허는 따문에. 이렇게 헤 가지고 그런 뭐가 잇주.
@ 아.
#1 최고 바쁜 때가 보리ᄀᆞ슬인디.
#2 보리도 해변더레가 잘 뒈주. 여긴 잘 안 뒈나수다. 웃드리 땅이 굵은ᄀᆞ라 잘 뒈는디 오름 밑으로나.

하지

@ 조끔 크게 헙서. 그다음은 하지, 하지?
#1 하지는 밧 불리는 거. 산디그루 불린다고.
@ 하지 때?
#1 이 저 밧 ᄒᆞ끔 굵인 밧. 난전밧. 지금 말로. 난전밧은 그 하지에 불린덴 허주.
@ 밧, 밧 굵인 것이 난전밧이꽈?
#1 난전이엔 헤근에 여기선 헤. 게난 뭐, 뭐, 거 어려울 난 제산디 무슨 난 제는 몰르는디 어떻든 그것도 난전이엔 허여, 여기선.
@ 음.

#1 그 글자는 잘 모르겟는디. 무슨 난 제산디. 아메짜 거 어려울 난일 거라게, 그거.
#2 난전밧딘 게 조 ᄀᆞ뜬 거, 무시거 ᄒᆞ썰 나쁜 걸로.
#1 아이, 게난 저.
#2 씨도 ᄒᆞ쏠 나쁜 걸로.
#1 품종이게 가름팟디 허는 거 닮지 아녀근에 그자 그추룩 허는 거주.
@ 이때 저 보리 허면은 개역도 헹 먹을 거 아니우꽈?
#1 아니, 게난게, 보리ᄀᆞ슬 허민게, 비오믄 뭐 저 집집마다 저 보리 보끔이엔 허여 가지고 헤낫주. 칠십 년대ᄁᆞ지만 헤도.
#2 아이고, 집이서 보깡, 집이서 요러콤 요러콤 ᄀᆞᆯ안 먹엇수다.
@ 게메 게난 솟두껭이 우티서 영 보까근에.
#2 예. 헌 솟이나 솟두껭이, 솟뚜겡이나 허영 보깡.
#1 아이고, 거 우리 저.
#2 ᄀᆞ시락도 쳐 이신 거 먹언 살앗수다.
#1 어린 때주마는 그거 막 춤 기분 좋아 가지고. 첨, 어떻게사 어려운 때산디. 아이고.
#2 아이고.
@ 아이 나도 옛날 저 보리밥 허민 보리밥 허민 딱 맞아, 개역 저 버무려근에.
#2 예.
@ 그거 먹어수다.
#2 그거 경 허민 맛 좋아나수다.
#1 아 지금도 우리도 거 이따금 사당 먹어지는디. 그 개역 여름 음식은, 간식으로 막 좋은 거.
@1 웃음.
#2 좋읍니다게, 보리난에, 그거 춤.
@ 아이 게난 난 개역이나 이 남군 쪽에는 저 관광지 가면은 순다리 풀더라고, 순다리.
#1 순다리도 ᄑᆞ는 디 잇주.
@ 아이, 순다리 풀암선게. (웃음) 옛날 이 보리헐 때.
#2 보리밥 허영.
@1 보리헐 때 순다리 먹어낫수다게.
#1 아이, 그때 그.
@ 낭그늘에 강 놔두민 그거.
#1 밥이 변헤 가면은 이게 발효시켱 먹는, 누룩 놔근에 발효시켱 먹는 거주게. 거 뭐 우리 먹으렌 그거 알주, 춤.
#2 엿날엔 냉장고도 엇곡 그자 밥헤영 쉬어가민 순다리엔 허멍덜 막 먹어낫어.
#1 발효시키민 그게 그 균이 엇어지는 모냥이라. 워낙 그 변헌 거는 안 뒈주마는.
@1 누룩.

#2 누룩 뻣앙.
@1 누룩균이 잇는 겁주.
#1 발효뒈니까. 이 막걸리나 마찬가지난. 거, 츰 그 엿날 어룬덜토 어떻게사 발견헤신지.
@ (웃음)

유월

둑 잡아먹는 날

@ 그다음에 둑 잡아먹는 날 잇지양?
#2 예. 유월 스무날[쓰무날].
@ 예, 유월 스무날.
#2 하도 일헤연 지쳣덴 허영 막 잡아먹어낫덴 헙디다게. 잡아도 먹읍니다, 요지금도.
@ 아, 게난.
#2 사다근에.
@ 거난 집집마다 둑 잡안 먹엇수가?
#1 아 그때 경.
#2 아 이신 집인 잡아 먹곡 엇인 집인 말고.
#1 육십 년대, 칠십 년대 경 둑, 매 집이 둑 잡아먹을 정도는 못 뒈언.
#2 매 집이 안 헷, 조금 사는 집이. 병아리 하영 키운 집이.
#1 둑 많이 질룬 집인 허고. 우리도 유월 쓰무날엔 헤근에 잡아먹지 못허고 이 앞으로 이제 첨 나온덴 헴구나 허민. 백종 때, 백중 때, 그때는 뭐 두어 ᄆᆞ리 잡아근에 기자 우리 ᄒᆞᆫ 서너네 식구, 우리 다섯 식구가 먹어낫는디.
@ 어떵 허연 유월 쓰무날 둑 잡아먹는 날 헤신고양?
#1 게메 유래가 보믄, 엿날도게 농사에영 막 지치민 유월 스무날 정도 뒈민 농사가 끗날 때주게.
@ 아.
#1 끗날 때난 그 쉬는 트멍을 이용헤서 거 보충을 허자고 헤서 아멧자 헌 걸 테주. 뭐 그날 잡아먹엇다고 헤 가지고 꼭. (웃음) 뭐 영양가치가 더 이시나 헌 건 아닐 걸로 나도 생각헴수마는.
#2 일만 매날 허단에 ᄒᆞ쏠게 틈나난에게.
#1 이젠 다 허니까.
#2 ᄒᆞ쏠 보충 시기곡 허젠 연양식으로 거, 그 매 집이 둑덜은 질루우난에게 존존헌 비에기덜 잡으멍 먹으멍, 먹엇젠 헙디다. 나도 잘 모르쿠다만은.
@ 게, 둑 질루와나수가?
#2 예, 질루와나수다.
#1 아이고, 둑. 그땐 둑 질루와야 ᄒᆞ나 못헹 성냥이나 아이덜 노트 ᄀᆞ튼 것도 사주

주. 그거 아니믄 당추 뭐 돈 나오는 디가.
#2 둑세긴 뭐 먹어수과? 아까왕 풀앙 살앗주. 씰도 사곡 바늘도 사곡 그거 풀아사. 아무 것도 엇인 때게, 이디게 밀감도 아녀곡 헐 때난. 아이고, 춤 못젼디게 살아수다.
@ 아이, 게난게.
#2 아이덜토 흔 번 안 헤주곡.
@ 이 둑세기 갑[깝] 보민 옛날 둑세기 갑[깝]이나 지금 둑세기 갑[깝]이나 마찬가지라.
#1 (웃음)
@ 옛날 둑세기 갑[깝] 비쌌수다게.
#1 빗나주게, 엿날은 뭐. 거 우리도 그 학교갈 때 둑세기 ᄒᆞ나 아졍 강 그 백로진가 무시거 ᄒᆞ나 사낫저. 흔 장. (웃음) 둑세기 옛날 귀ᄒᆞ게.
#2 둑세기가 잇어수과?
#1 아무나 경 뒈질 안헷주, 저.
#2 아이덜 소풍 갈 때도 둑세기 ᄒᆞ나허곡 밀ᄀᆞ루 막 놓아근에 그거 헤주민 ᄉᆞ뭇 ᄒᆞ끔 계란이카부덴덜 허멍 먹어나수다.
@ 아이고, 난 소풍 그 둑세기 반찬 안 헤주난에 소풍 못 가낫수다.
#1, 2 (웃음)
@ 그때 둑세기 반찬벳기 엇엇수다게.
#2 예게.
@ 그 둑세기 하나 놔근에.
#2 예.
@ 세우리 놔근에 막 그.
#2 예, 하간거 잡탕..
@ 늘려근에, 세우리영.
#1 메역 ᄀᆞ튼 것도 놓곡.
@ (웃음)
#1 거 나 팔십 년대 서울 그 경복궁을 그 관람을 갓는디 그 학생들이 많이 간에 정심을 먹엄서. 자세히 영 봣주. 보니까 그때도 그 서울 아이덜 둑세기허고 이 뭐 헌 아이덜은 소고기 그 저 보까 가지고 헹 가고. 그자 그런 정도대, 보니까.
#2 겡 이 서울광 이 농촌광은.
#1 팔십 년대는 저 여기 둑세기덜 귀허진 아녀수다게. 팔십 년대는.
#2 이신 집인 잇고 없는 집인 엇곡.
#1 여기도 미깡이 나감 시작허니까.
#2 예, 맞아.
#1 그 저 둑세기 ᄀᆞ뜬 건 경 저 귀하게 생각을 안 헷주.

삼복

@ 그다음에 삼복양, 초복, 중복, 말복. 그 삼복에 대헤서 흔번 굴아줍서.

#1 초복은 뭐 농사가 다 끗난 시기니까.
@ 으.
#1 그 큰비, 초복이 닥치민 큰비가 내리곤 허니까 장마가 끗난다는 뜻이엇주. 즉 말허면. 허곡 뭐 그거 헤 가지고 그자 초복 와근에 비 나사 그때ᄁᆞ장 밧 불령은 막 늦어. 이 조팟 ᄀᆞ뜬 건 늦고. 뭐 그자 농사가 다 끗날 시기주게.
@ 중복은?
#1 중복이나 말복은 뭐, 말복은 또, 이, 저 ᄆᆞ믈농사.
@ 어.
#1 ᄆᆞ믈농사, 이 말복에 허데. 게 말복이 대개, 이 저 한 팔월 십오일 경에 십사일이나 십삼일, 기자 이 정도 드니까, 겐디 그 요 저 ᄒᆞᆫ 팔십 년대. 아, 칠십 년대부떠는 그자 팔월 십오일날 저, ᄆᆞ믈 갈민 좋넨 허멍 그날이 제일 많이 갈앗수다.
@ 말복 근방에?
#1 예, 말복 근방에.

조 불리기

@ 그 아까도 말헷주마는 그 조 불리기에 대헤서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 조 불리기. 어디 목장이 강 쉐 갖다단 헤수가?
#1 아이.
@ 물 갖단 헤수가?
#1 아, 게난 그 조 불리는 것도 이 밧에 틀려, 틀려. 이 나쁜 밧은, 난전은 초불 갈아근에 불리젠 허민 이 좀 ᄒᆞ끔 이 파니가 생겨 가지고 울퉁불퉁허주게. 울퉁불퉁허면은 막 불리당 보면은 참 그, 저 심드는디, 이 불리기도 걷젠 허민게 울퉁불퉁허민 걷기도 힘들고 뭐 헷는디. 이 가름팟 농사는 이 초불 갈아놩 두불 갈민 막 흑도 부드럽고 또, 이 불리기도 좋아. 경허믄 그런 점이 잇엇고. 이 어, 보통은 기자 ᄒᆞᆫ 두어 집 쉐덜 어울려, 쉐나 물이나 어울려 가지고 불리는 디도 잇고. 또 즉 말허믄 영업적으로 그자 큰, 한 이십 마리 정도 헤근에 ᄒᆞ는, 그 테우리라 헤 가지고. 경 헤 가지고 저 밧 불려 주면은 거 쉐 헤근에 물아오면은 그 임자는 안 불리곡. 춤 그날은 거 아주 곤밥으로 참 잘 출령 먹는 날이주. 그거. 쉐 임자는. 게곡 밑에 그, 저 식구덜이 밧은 불리는 거주. 게난 거 ᄒᆞᆫ 번만 허는 게, ᄒᆞᆫ 밧디만 허는 게 아니고 ᄋᆞ라 밧디 스무남은 ᄆᆞ리 허면은 많이 불려.
@ 으.
#2 이 집 저 집 강 막 불려줘수게.
@ 거난 쉐 ᄒᆞᆫ 멧 ᄆᆞ리 정도?
#1 아니, 대게 저 물이 밧 불리면 좋는디, 쉐보담. 쉐는 이 뜨고. 이 ᄒᆞᆫ디 이 물이 불리긴 좋는디 어떻든 물이, 이 저 사태 후에는 별로 많지 아니허연 쉐로 헷주, 쉐로.
@ 사삼사건 이후에는?
#1 예.

@ 보통 쉐로?
#1 예. 우리도 그 쉐 헤다가 둬 집잇 거 어울려근에 불려낫는디, 이거 놈의 거 빌언은 아녀보고, 우리도.
@ 무사 그 저 조 불려신고양?
#1 아니, 그게 아까 골앗주마는.
#2 뿌리가.
#1 산디는 뿌리가 그 강허게 헤근에 이 메기도 힘들어. 겐디 조는 그 뿌리가 막 나쁘주게. 나쁘민 여기 화산회토라 놓니까 땅이 이 굳질 못헤 가지고 흔들려, 흔들려. 흔들민 그 졸바로 뒈질 안허주. 그래서 거 불린 거주. 보니까 거 땅 강헌 더레도 많이 불렷대. 보니까 이 제주시도 그거 땅 밧 불려난 말덜 막 허여. 지금도 나오고. 게난 거 제주시 ᄀᆞ뜬 땅은 안 불려도 뒈는 땅덜이주게. 이 여기 성산이나 이 남원은 안 불령은 안 뒈나고. 겐디 그것도 막끗뎬 이 우영 ᄀᆞ뜬 조그만헌, 팔십 년대니까 거의 여긴 농사는 접어들고. 저 농사는 아니허는디 그 이따근에 저 감저 놔봔 그르쯤은 불리젠 허믄 거의 끗엉 내비곡, 그때 거 뒈믄 뒈엇어. 많지 아니헌 것이난산디.

소서 · 대서

@ 소서, 대서에 대헹 알아지쿠과?
#1 소서는 뭐?
@ 막 더울 땐 디.
#1 더울 때주게. 더울 때난 소서에, 아 소서가 저 메칠이주. 소서가 저 거시기 칠월 흔 칠팔일경 아닌가?
@ 유월, 유월.
#1 유월절이주, 유월절.
#1 게난 칠월, 저 오, 육, 칠, 팔 요 삼 일간이라. 이 저.
@ 유월절이꽈?
#1 으, 유월절이주. 그때 한창 감저 놓곡 밧 불리곡 헷주게. 가름팟.
@ 게 유월절엔 무시거 허곡마씨?
#1 유월절 ᄀᆞ리에 그러니까 칠월, 그, 저 유월절 이삼일, 전후 이삼일이엔 헤여.
@ 으.
#1 전후 삼, 사일, 삼일이엔 허여. 전후, 그르 유월절 후에 삼일, 전에 삼일 허는디. 후는 조금 늦고. 어떻든 유월절 전이, 이 고구마도 심으면은 고구마도 잘 들곡. 또 농사도 제일 적기라낫는디 지금은 아무래도 좀 일럼실 거라. 일렁은에 흔.
@ 그때가 장마철이꽝?
#1 장마철이주게.
#2 유월절 넘엉 허민 막 벳이 막 뜨거왕 죽어 분덴 허주, 고구마가.
#1 유월 칠월 흔 십일이 뒈가민 장마 끗낫을 수도 잇주. 경허난.
#2 그때 뒈가민 걷어.

#1 고구마를, 이 여기 칠십 년대 육십 년대는 많이 놧는디.
@ 여기 감저옌 허지 안헙니까?
#1 아, 감저옌 허주, 뭐, 고구마옌 헌 거는 육짓말이고. 우리는 감저.
@ 게메, 게난 제주도말로.
#1 감저주, 저, 감자가 아니고.
#2 감저, 감저.
#1 감저 저 저거 일본서 들어올 때 감저옌 헤낫어. 겐디 그 여기도 칠십 년대니까 이.
@ 거난 유월절 전이 감저허고.
#2 농사 다 끗나.
#1 하이튼 유월절 뒈면은 그날이면은 거의 끗낫다고 봐야주. 춤 워낙 그, 춤 이 저 밧도 못 갈곡 쉐도 엇곡 헌 사름은 춤 늦엉도 헐 수도 잇주.
@ 게난 소서 근방이네양?
#1 예. 소서. 소서에 그 유월절에 원 헌덴 허는 거주, 원.
@ 소서 허고.
#1 소서 허민 칠월 육일, 칠일, 팔일 경 뒈주게. 삼 일간.

칠월

칠월 칠석

@ 그다음에 어, 여자 삼춘, 칠월 칠석에 대헤서 흔 번 골아줍서.
#2 칠월 칠석은 나 잘 알아지쿠가? 무신 저.
@ 알아지는 대로. (웃음)
#2 별이 일곱 개 헹 올라온덴 말 아니꽈? 나 몰르쿠다게. 경헤영 칠석 불공이라고 헤근에 막 절간이서 불공허곡 헙니다. 칠월.
@ 칠월 칠석에.
#2 칠월, 칠월 칠석 헤근에. 그땐 흔 삼 일간 절에도 무시거, 난 분시도 몰르게 그자 뎅김만 헷수다만. 절간에서 그거 큰 무시걸로 칠석 불공이라고 헹 막 헙니다게, 칠월 칠석.
@ 절간 뎅겸수가?
#2 뎅겸수다. 그자 뭣도 몰르곡.
@ (웃음) 어디 이 근방에마씨?
#2 예, 요기 영춘사옌 헌 디 토산 그 오름 저레.
@ 아.
#2 그디게. 저.
@ (잡담)

백중

@ 그다음에양, 그 백중제. 백중에 대헤서, 우리 남자 삼춘?

#1 아 저, 백종은, 이, 보통은, 이 마소. 이 쉐물 길루는 사름덜 허고 그 웨로는 별로 안 했어, 안 했는데.

@ 백중제.

#1 어, 백중제는 뭐 집이서 허는 사름도 잇고. 그날 그 목장에 가서 허는 사름도 잇고 허난 뭐, 거 이녁 집 형편에 따라 그 당시에 헷주.

@ 아, 거난 쉐물 질루는 사름덜.

#1 어, 쉐물 질루는 사름들만.

@ 아.

#1 그 저 우리도 쉐 안 질루니까 춤 그때 설러 불엇는디. 이 저 여기서는 보통 이 쉐 길루는 사름허고, 이, 저 아까도 굴앗주마는 절 ᄀᆞ뜬 디서는 상당히 백중제라고 헤 가지고 크게 허는 것 같애, 영 보믄.

#2 크게 헙니다, 백중제, 백중제엔 허멍.

#1 게난 여기선 아까도 굴앗주마는 유월 쓰무날이 아니고 우리 경우로는 그자 백중제 허민 둑 두어 ᄆᆞ리 잡앙 그날 식구덜 기자. (웃음)

#2 아, 우린 요자기ᄁᆞ지 쉐 질루왓주만은 쉐 질루는 어룬덜만 문 모다놔근에 막 산으로양.

#1 아, 그것이.

#2 산으로 가근에 막, 막 크게 헤수다. 막 그날 정심 출려 가, 돌아가멍 우리도 끗나건 디 오래지 안헷수다. 쉐 질루완에 ᄒᆞ쏠 돈도 버실멍 살앗주, 그때.

@ 그 아까 말헷주마는 쉐 질루는 거양? 테우리코사.

#1 으.

@ 이 백중제 허곡.

#1 아이, 게난 아니 테우리코사는 그 밧 불리레 오민 밧 불리는 그.

#2 임저.

#1 임제가 그 어른나시 아주 정성들여근에 정심을 헤다 저 주는 거라.

@ 아 그것이 테우리코사꽈?

#2 예.

#1 으, 코사가 아니고 테우리 나시 대접허는 거.

#2 테우리 점심, 점심.

#1 지금 말허믄 우리 저 밥 사주는 거나 마찬가지.

@ 아, 거 저 나도 잘 모르는디 이거 마불림제. 알아지쿠가?

#1 마불림제는 저거, 저 그전에는 뭐 불교에서 쓰는 말 아닌가?

@ 으.

#1 아니 마불림제엔 헤근에 거 허긴 허는디. 저 그러니까 저거 백중날 저거 허는 헹사일 거라게. 몰르긴 헤도. 이 백중 허는 사름은, 축산허는 사름은 그날 제사 아이 허

는 사름이 엇수다게. 요사이는 저 공동으로 가근에 목장으로 강 헌덴 허주만은. 그때는.
#2 엿날은 집집마다.
#1 예, 집집마다 목장에 강도 아녀고. 저 쉐막 도에서 그자 (웃음) 출려놔근에 그자.

모살찜

@ 저 모살찜 헤봅디가?
#1 모살찜 나, 저 엿날에 거 육십, 육십사년돈가? 저 공천포 간에 흔 사나나흘 살멍 그디 헤난 기억이 잇는디.
@ 언제마씨?
#1 육십삼년돈가?
@ 아, 게난에.
#1 육십사년.
! 그 멧 월달에?
#1 아이 그거.
@ 백중 때?
#1 팔월달이주, 팔월달.
@ 팔월달에.
#1 팔월달, 거 뭐 최고 더운 때.
@ 거 모살찜 허민 뭐가 좋아마씨?
#1 글쎄, 뭐 아니 그거 뜨거운 모래 헤근에 탁 더프면은 그게 뜨거운 모래니까 그 전신이 아멧자 저 뭐가 뒈 가지고 조 혈액순환이 잘 뒈는 것 같애, 영 보니까.
#2 옛날엔 막 다녀낫주.
#1 경헌디 이제는 뭐 거 모래뜸 무시거.
@ 여자 삼춘도 다녀 봅디가?
#2 난 안 뎅여수다. 그디 뎅길 저르가 셧수과?
#1 우린 공천포 한번 가오고.
#2 막덜 가는 사름은 매날 가곡.
#1 아이고, 엿날도 그 할망덜.
#2 머리만 내놩.
#1 허리 아픈 할망, 뭐 다리 아픈 할망, 신경통 잇는 할망덜은.
#2 매날.
#1 다 가낫주, 첨.
@ 지금도 보민 저 삼양.
#1 삼양.
@ 삼양해수욕장이 검은모래우다게.
#1 예.

@ 거기덜 막 가더라고, 검은모래.
#1 이 저 공천포도 검은모래라낫주. 겐디 이젠 보니까 모래가 없대.
@ 거기 검은모래가 좋은 거 닮아양?
#1 햇빗을 더 받으니까게, 그게.
@ 아, 검은모래가 더 받아마씨?
#1 아니게, 검은 게 햇빗을 더 받아근에게.
#2 이 옷도 뜨거우난게, 그거 검은모래.
#1 그런 멀 거라게.
@ 어.

물맞이

@ 그다음에 물맞이레 가낫지양? 백중날. 물맞이.
#2 물맞이레 가낫수다. 비료 막 물, 서귀포 저 천지연에, 아니 이 펜이 정방폭포산디.
@ 소정방폭포?
#2 예. 그디 이 촌에서도 가근에 물맞이민 좋넨 허멍, 머리 아프민 비료푸대 꺼꾸로 썽 막 헤나수다. 물 ᄉᆞ뭇 종일 맞아 간 눠다가 데엇다가 허멍. (웃음) 막 친구들 하영 헹 가근에. 물맞으레 멧 번 가옴은 헤수다.
@ 게난 우리 어릴 때도 백중날 가낫수다게.
#1 백중날 그거, 그 ᄀᆞ리에덜 갓수다.
#2 그 ᄀᆞ리에덜 가는 거.
@ 백중날 그때 먹을 거 엇이난에.
#1 (웃음)
@ 저 뭐 집이 간, 간 저 뭐 사당대죽.
#2 사당대죽.
@ 사당대죽 쫄랑.
#2 뽈아 먹는 거.
@ 뽈아 먹으멍.
#2 예, 예.
@ 베껑은에.
#1 거기는 어디? 저 해수욕은 어디 간?
@ 색달리.
#1 색달리? 그, 저.
@ 하얏트 호텔 앞이. 하얏트.
#1 아, 물나는 디가 잇구나?
@ 그 물 내려오는 디양? 바당에 털어지는 폭포가 잇수다게.
#1 아.
@ 거기 가근에,

#2 예.
@ 완전 돌멩이 던지는 기분이라.
#1 아, 경 헐 거주게. 겔쎄 저거 원. (웃음)
@ 관광단지가 다 색달리 아니꽈?
#1 색달리 지경.
#2 색달리.
@ 그 물 맞이민 어디, 어디 좋덴 헙니까?
#2 아이고게, 누게 압니까? 신경통도 좋곡, 머리 아픈 디도 좋곡, 누엇다가 데엿다가 허멍 그디 강 종일 그거 썽 아프게 맞앙 와나수다. 어떵사. (웃음) 그추룩 허멍 메칠 썩 뎅겨낫수다. 그디 맞으민 아픈 거 다 좋넨 허멍.
@ 허멀도 안 난덴 헤양?
#2 게메마씀. 모든 게 깨끗이 좋넨 허난, 간. 무시거 알안 뎅여수가? 엿날엔 버데 홀령도 가곡, 물 맞이레 우리.

입추 · 처서
@ 그다음에 남자 삼춘 처서에 대헤서 말헨게. 입추허고 처서에 대헹은에 혼번 골아 줍서.
#1 뭐 그 엿날 어룬덜 처서 뒈면은 검, 저 검질도 울멍 돌아간덴 혼 말이 잇는디. 즉 말하면 그게.
@ 울멍 돌아간덴마씨?
#1 으, 검질도 그때 뒈민게. 그거 팔월 십삼일 경에 이 처서가 뒈는디, 팔월 말 뒈가민 검질도 덜 나긴 허여. 이, 저 제일 잘 날 때가 유월허고 칠월달인디. 그때 뒈믄 모든 게 이 열매 맺기를 다 모든 곡식이 허게 뒈난 기자 그 검질, 저 검질도 울멍 돌아간덴 그런 말도 잇고. 또 이 처서 뒈민 아멩헷자 밤에는 좀 선드러운 디가 잇나고 헤가지고 허는디, 처서에는 안 뒈고 처서 넘엉 기자 한 십이일이나 십오일 정도 이시면은 좀 아멩헷자 밤 날씨는 틀려.
@ 그 여기까지 헹은에양?

팔월

벌초
@ 자, 그러면은 저 벌초에 대헤서 혼 번 골아 줍서? 벌초?
#1 벌초는 뭐 웃댓산은 자손덜이 가서 같이 허는 산도 있고. 또 거기 그 이 제전인가 뭐 그 뭐 밧이 있으면은 뭐 벌어 먹는 사름이 허곡. 뭐 그러는 거난, 거는 뭐 팔월.
@ 초.
#1 팔월초, 그 저 거시기게, 이 팔월절 들민, 팔월절이 저 구월 칠일인가 그 육일인가 그 정도 뒈는디.

@ 게난 음력 팔월 초?
#1 으.
@ 예?
#2 초.
#1 초에 허는디 어떻든 팔월[팔뤌] 그 저 절기가 들어사 엿날은 그 초상에 대한 관심이 잇엇는디 요샌 뭐 여름에도 허곡, 뭐.
@ 아, 게난 옛날, 옛날 걸로.
#1 아 엿날 거는 그때, 그때 허고. 에, 엿날 웃대 하르방덜은 돈이 이신 하르방덜은 저 그 제월전 내 놓민 좌전이나 크고 뭐 허면 그거 벌어근에 벌초허렌 허는 식으로 허곡. 경 아니 헤근에 엇인 디덜은 그런 대로 벌초를 헷는디.(부분 생략)
@ 벌초는 흔 멧 촌까지 허여마씀?
#1 아, 멧 촌이나마나 뭐 십대민 십대 ᄌᆞ손 이하는 전부가서 헐 거고. 뭐 그거는 거 촌수 따질 게 아니고, 직계, 직계덜 나눵 허주.
@ 메칠 헙니깡? 벌초?
#1 아, 벌초는 엿날은 걸엉 다니젠 허면은 보통 이삼일을 헷주게. 우리도 저 이틀론 못 헤낫어, 근디. 아, 요새사 자동차 잇곡, 또 경 허곡 파다근에 돌 ᄒᆞ나만 세왕 허곡 허난 요새사 벌초엔 허영 헐 거라.
@ 거난 흔 이틀은 헤야 헐 거 아니라예? 가족벌초 헤야 뒈고.
#1 어, 흔.
@ 그다음에 먼 조상덜.
#1 먼조상덜은 대개는.
@ 문중벌초.
#1 이 아무디도 보면은 문중벌초가 엇어지고 다.
@ 누게가 허여마씨? 문중벌초.
#1 아 게난 뭐 종손이 알아근에 헴주마는 이제 앞으로 그게 문제 뒈여, 저게.
@ 종손은 무슨 벌초허는 종손이우꽈?
#1 아이게, 엿날 그 재산사 물렷주마는 다 언제 그거, 거 뭐 우리 아버지가 물렷지, 내가 물려시녠 허멍 아니허켄 허믄 방법이 업지뭐.
@ 이젠 묘제덜도 아니 허젠 헹들 큰일낫수다.
#1 아이고, 겔쎄. 저 아며믄. 제사 아니 헌 건 좋아. 벌초만, 저 벌초만 허, 잘만 허민 뭐 제사 아니헌 건 그거는, 놈 보는 거 아니난 뭐. 그자 춤 흔번 웃엉 설러불 거주마는.
@ 그 저 벌초날 묘제 헴수가?
#1 아니, 그건.
@ 묘젠 언제 허여마씨?
#1 아 삼월달에.
@ 아이 벌초날 허는 사름덜토 잇더라고.
#1 아니 벌초날 허는 사름덜도 잇는 모냥이대, 보니까. 그날 ᄌᆞ순들 가근에 ᄀᆞ찌덜

헤근에 제 올리곡.
@ 문중벌초렌 헙니깡? 모둠벌초 헙니깡?
#1 아이, 이 모둠벌초나 문중벌초나 똑ᄀᆞ뜬 말이주게.
@ 으.
#1 모둠벌초엔 헌 게 그 자손들로써만 강 허는 거지, 그, 저 방계 ᄌᆞ순들은 아니 와당추. 방계 ᄌᆞ순들 올 리가 잇어?

팔월 멩질
@ 그, 팔월 멩질에 대헤근에 우리 여자 삼춘 ᄒᆞ끔 ᄀᆞᆯ아줍서.
#2 무시거 멩질. 멩질에 어떵마씸?

멩질 떡
@ 거난 팔월 명질 이제 떡은 어떵헌 떡을 허는가?.
#1 하이고, 요새 ᄆᆞᆫ 새 사름덜 멧겨 부난.
@ 팔월 멩질에.
#1 네, 팔월 명질에 떡 잘 출령 헙니다. 방엣간 강.
@ 무슨 떡?
#2 예?
@ 무슨 떡 헹?
#2 엿날 ᄀᆞ뜨민 문친떡.
@ 양?
#2 친떡.
@ 침떡.
#1 엿날엔 문친떡이엔 헷수다.
@ 문친떡?
#2 예. 저 쏠 친떡ᄀᆞ라 엿날은 경 ᄀᆞᆯ아나고. 이제는 뭐 방엣간에 강 얼마치, 멧 뒈, 흔 말 경 헹 맞추앙 앚당 헴수게. 뭐 앚다줌도 허곡.
@ 여기 저 솔벤, 절벤도 헙니까?
#2 솔벤, 절벤 헙니다. 이지금도 헙니다.
@ 그거 팔월 멩질엔 안 허지양?
#2 팔월 멩질엔 그냥 제ᄉᆞ 때에나 그런 거 솔벤, 절벤, 무신 인절미 허멍 허곡. 팔월 멩질엔 간단허게 헙니다게.
@ 조개송펜?
#2 조개송펜게. 조개송펜이고 아무 그자. 조개솔펜 말아도 그 ᄯᅮ시 큰, 저 큰집인 절벤 솔벤도 허는 집 이십니다, 요지금 예.
@ 절벤, 솔벤, 그다음 묵.
#2 예.

@ 묵허곡 적허곡.
#2 적허곡.

달구경

@ 음. 엿날도 저 달구경 헤낫수가? 둘, 둘구경?
#2 둘? 팔월 명질에사게 엿날은 막 우리 클 땐 ᄉᆞ뭇 둘구경허곡 팔월 멩질날 막 들라퀴멍 놀레 뎅겨낫수다. 이젠 경 안 헙니다.
@ 뭐 허멍 들라퀴어?
#2 강강술레 허멍. (웃음) 진짜 우리 클 땐, 그땐.
@ 여기도 강강술레 허여?
#2 아니 헤나수다게. 우리 ᄒᆞ썰 클 때.
@ 강강술래 허곡. 그다음에 고무줄?
#2 예, 고무줄도.
#1 고무줄사.
#2 우리 클 때 헤낫수다게.
#1 하이고, 거 아니 헤난 사름 잇어?
#2 배뛸락.
@ 배뛸락. 그다음에?
#2 요렇게 허민.
@ 팔월 멩질날양?
#2 예, 경, 경 허멍. 그땐 우리 구식으로, 아이덜토 하곡 허난. 요지금은 경 다 고망만썩 살아 부난양 나들이도 아이 헙니다.
#1 아.

백로 · 추분

@ 그다음에 백로, 백로 추분에 대헤근에 우리 아는 거 이수과? 남자 삼춘.
#1 백로엔 헤봣자 무시거 뭐 여기서는 백로 때 뒈믄 태풍 많이 온다고 헤 가지고. 저, 태풍 많이 올 때주게. 구월 말쯤 뒈 가민게. 구월 말, 구월 ᄒᆞᆫ 이십 일 경에 뒐 거난. 백로가.
#2 하영 와 가민 병 걸린덴 ᄀᆞᆯ아낫어.
#1 저 태풍, 태풍 걱정헷주, 백로.
@ 태풍 걱정. (웃음)

구월

당제

@ 그다음에 그 구월달에 당제 헷지양?

#1 에, 건 없어. 여기는 그렇게 뭐 아니허고. 이 그때는게 집안에 무슨 가환이나 들면은 가볼 디가 엇이민 기자 일단 심방 개인적으로 빌어당은에 당에 강 비는 거. 경 집이서 빌곡. 그런 거라낫주게. 경 허민 그게 춤 뭐, 이 저 정신이나 이상 뒌 것 ᄀᆞ트믄 좋을 건디. 이 소곱에 병 잇는 것사 그거 헤봣자, 그거 춤. 뭐 ᄀᆞ만이 앚이렌 그거 엿날 어른덜 헷주. 당추 뭐 이치에 맞진 아니헌 거주게, 사실.

상강

@ 그다음에 상강에 대헤근에 ᄒᆞᆫ 번 ᄀᆞᆯ아줍서, 상강.
#1 아이 첨 일칙도 ᄀᆞᆯ앚주만은 뭐, 이 망종에 못 먹을 보리 엇곡, 또 상강 뒈근에 못 먹을 곡식 없넨 엿날도 ᄀᆞᆯ안게, 상강이 거의 ᄀᆞ슬 거의 저 끗날 무렵이주.
@ 거난 상강은 서리 내릴 때 아니꽈예?
#1 예. 서리 상 쩨난게.
@ 예.
#2 엿날은 감자줄도 문딱 죽어낫어.
#1 아이 게난 그때 뒈민 이 곡식을 다 헤 들엿주.
@ 상강 전이덜 다 곡식은 다 헷구나양.

시월

입동 · 소설

@ 그다음에 입동허고 소설에 대헤서 ᄒᆞ끔 ᄀᆞᆯ아 줍서. 겨울이 이제 온다는 거.
#1 게난 그 엿날은 뭐 요 중간ᄁᆞ장도 경은 아니헤낫는디 엿날은 소설 방둥이라고 헤 가지고.
@ 소설 방둥?
#1 으, 저 이 소말을 그자 그대로 놩 내부는 거. 경 허믄 그땐 곡식 읏일 때니까.
@ 아, 거 소설에?
#1 예, 소설이엔 허믄 저게 동짓달이난게 농사 다 끗나곡 돗걸름밧 헤 불곡 허당 보민, 뭐 쉐 어디 강 먹을 게 엇거든. 대개 이.
@ 다 풀엉 내불어?
#1 예, 아니 다 풀진 아닌디, 송아지 ᄀᆞ뜬 거. 송아지 ᄀᆞ뜬 건 다 내 불곡 그자 어미 쉐덜은 집이 매어근에 촐 주곡 헐 때주.

십일월

동지

@ 그다음에 그 동짓달양? ᄑᆞᆺ죽 쒕 먹지 안헙니까양?

#2 예.
@ 그거 여자 삼춘 그 동지날 풋죽 쒀 먹는 거에 대헹 골아줍서.
#2 아이고, 게메, 거 알아지쿠가? 풋죽 쒀근에 난 경 아니헤봣수다마는, 홀 저르도 엇곡. 우리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민 풋죽 그날 쒀근에 막 사발에 담앙 뎅이멍 막 뿌려 낫수다. 잡귀 묻는 날이엔 허멍. 경허곡.
@ 먹진 안허곡 뿌려 불어?
#2 아니 뿌려놔근에 먹읍니다.
@ 아, 코시구나, 코시.
#2 예, 코신지 방쉬산디. (웃음) 이 절간에도 풋죽 쒕 막 그날은 먹읍니다, 예.
@ 으. 이 동지날양?
#2 예, 동지날. 거 무신 뜻으로사 경 헴신지 모르주.

띠 장만

@ 이 동지 근방에 저, 집일지 안헙니까?
#1 여기는 저, 봄 나야 일어.
@ 어쨋든 집 이는 것에 대헹.
#1 동지는, 동짓덜은 집일 새.
@ 어.
#1 새를 준비허는 거주.
@ 아.
#1 저, 동짓둘에 집은 못 일고, 바람도 쎄고.
@ 강 새, 새.
#1 새를 헤 와야게 줄도 놓곡.
@ 각단, 각단도 헤오고.
#1 어. 게난, 이 동짓덜은 새 허레 뎅겻주.
@ 새허고 각단양?
#1 예.
@ 새는 지붕 이는 거 아니우꽈예?
#1 예.
@ 그다음에 각단.
#1 그게 어려와, 그게 어려와낫어, 옛날은.
@ 각단은 줄 놓는 거.
#2 각단은 ᄒᆞ쏠 쫄른 거.
#1 ᄒᆞ쏠 쫄른 것덜.

장 담그기

@ 게고, 이때 동지 때 장도 담그지 안 헙니까? 여자덜은?

#2 동짓둘에.
@ 그 장 담그는 거에 대헤서 흔 번 굴아봅서. 장 담그는 거. 아, 거난 동짓덜 지낭이라도 장 담그는 거에 대헤서. 순서대로 영, 우선 메주 헤야 뒐 거고.
#2 메주 동짓덜 나민게 숢곡.
@ 저 메주를 그때 콩 숢읍니까?
#2 예, 저, 콩, 저 새콩 허영은에 허당 보민 동짓덜에 숢읍니다.
@ 숢앙.
#2 예. 경허고, 정월에도 담곡, 삼월에도 담곡 그 흔 엇입니다.
@ 아, 거난 콩 숢아근에. 그거 저 붋아야 뒐 거 아니우꽈?
#1 예게. 붋으나 뭐 찍으나.
@ 방에로 헤수과?
#1 아이고 요새는 저 기자 막.
@ 마다리 푸대 놔근에?
#2 마다리 푸대 헤근에 곱닥허게 발 불라근에 헙니다게, 경 허곡 또 기계.
@ 엿날은?
#2 엿날은 방에로 허고, 방에, 예.
@ 그거 헤근에 손으로 멩글앙.
#2 손으로 영 동글락허게 아무렇게나 멘들앙 막 똣은 디 놩 띄와근에 뚜시 뷰름에 막 물류와근에 장 둠는 날은 흐썰 날 봐근에.
@ 무슨 날 장 담급니까?
#2 장 둠는 날은 이녁 식구에 무시거 들지 아년 날.
@ 무시거 들지 아년 날?
#2 아니 소띠는 소 대주나 허민 아니 담곡. 그자 무신 대주 물날이여 개날이여 이제 허멍 춤 할망덜 경 헤낫수다만은.
#1 엿날은 개날, 개날을 제일 최고로 세엇주.
@ 아, 개날이 장 담그는 날.
#1 아니, 장 둠는 것도 개날이고. 보통, 이 저 무시거 허는 데는 개날만 춪앗어. 뭐 개가 경 좋은 디.
#2 개 춤. 웃음.
@ 게난 개날만 춪아근에. 그 저 메주 이제 틔우젠 허민은 뭘로 무꺼낫수가?
#2 아이고, 요새는, 요새는 요렇게, 요렇게 뭐 스타킹이여 무신.
@ 아 엿날 거, 엿날 거.
#2 엿날은 멩텡이.
#1 저 밑에,
#2 멩텡이.
#1 밑에 놓아근에.
#2 콩찍. 콩찍 놓멍 헤낫수다.

#1 이 산디찍 더프멍.
@ 아 게난 층계층계로?
#2 예 층계층계로.
#1 저 발효가 잘 뒈지. 저 나룩찍 놔근에 그 무시거 발효시키듯이.
@ 콩찍으로이?
#1 산디찍, 산디찍으로.
@ 아 산디찍.
#2 산디찍이나 콩찍이나 헤낫수다게. 게민 하양케 구름 ᄀᆞ찌 뜨민.
#1 콩찍은 그렇고 산디찍이 많이 사용헷지.
@ 조직. 조. 조직이 좀 궨찮을 건디, 좀.
#1 아니, 아니. 그건 아니 산디찍이 열이 잘 나주게, 열이 잘 나. 저 홍어 ᄀᆞ뜬 것도 허는 거 보믄 저 나룩찍 놩 허지 아니 허여? 그 똑ᄀᆞ튼 원리라.
@ 거난 보통은 나룩찍으로 허는디 여기는 산디찍으로양?
#1 게 산디찍이나 나룩찍이나 거의 ᄀᆞ타, 열 나는 데는.
@ 쫄라, 산디찍은?
#1 아이고, 좋은 밧딘 이만이도 허고.
@ 아.
#1 건 뭐, 쫄른 밧딘, 난전밧딘 거.
@ 그 밧에 ᄯᅮ랑 다르구나.
#1 아, 그렇주, 그거야.
@ 거 영 무꺼근에도 영 돌아메지 안헙니까양?
#1 예.
#2 경 헤낫수다. ᄒᆞ썰 이 잘 살아져가난. 엿날엔 아무렇게나 허영 띄와나고.
@ 경 허영 이제 장 허면은 소금물로 허지 아녑니까?
#2 예, 소금물 헹 담급니다.
@ 소금물.
#2 예.
@ 어느 정도 놉니까?
#2 소금물은 기자 무신 소금물 헤근에 계란 톡 놓민 오백 원 동전만이 이만허민 장 맛 좋넨, 이 그것에 기준헹 허는 셍입디다게. 난 아멩이라도 헨 먹엇수다마는.
@ 거난 이 장도 보민 잘 담그는 사름이 잇어.
#2 예, 잘 맛 좋게 허는 사름 잇곡. 어떤 집인 맛도 엇엉 그자 버리는 디도 잇곡 헤여낫수다.
#1 (웃음)
@ 저 영 보난에 나도 장난삼아 ᄒᆞᆫ번 헤봐신디. 저거 아파트 베란단 안 뒈겟더라고. 저 햇빗 안 들어완양?
#1 어떠난사 헤사신디, 남향집에.

@ 남향집인 들어오긴 허는디양? 아메도 햇빛이 약헤서.
#1 아파트에선 모든 게 시원칠 아니허주. 이 저 어떻든 장항은 햇빗을 좀 맞아야. 경헤야.
@ 널직헌 디서양?
#1 쉬는 것도 거 헷빗 맞아가민 좀 저.
#2 짜?
#1 졸려졍 짜주.
@ 거난 뒌장 걷으면은 그다음 그 장물 뒈는 거우꽈?
#2 예게. 훈.
#1 장물 똘라빗어.
#2 훈 두어 달 잇다근에 장물을 메주에 영 걸릅니께. 걸렁 밑에 물은 장물로 먹곡, 그 콩, 메주는 또 뒌장으로도 먹곡, 그레 무시거 맛 존 거 서끄젠 허민 하간거 밀ᄀᆞ루 ᄀᆞ뜬 거 그레 틔와근에 요지금도 풉니다. 서텅도 먹곡, 그자도 먹곡 헙니다게. 게난 요새덜은 장 베랑 돔암수가? 안 헹 ᄑᆞ는 것덜 사당주. 엿날엔 경 헨 살아수다. 장맛 좋젠 허민 까망케 장물도 ᄉᆞ뭇 엿 ᄀᆞ찌 맛 좋곡.

납평날

@ 그다음에 그 납, 납평날?
#2 납평이 무시거우꽈?
@ 납평날 이수다. 납평, 남평날, 남평날인가? 남평날이엔 허지 안헙니깡?
#1 그런 건. (웃음)
@ 납평날?
#1 납평이엔 헌 말은 뭔 말인고?
@ 잘 모르쿠과?

신구간

@ 그다음에 신구간에 대헤근에 훈 번 ᄀᆞᆯ아줍서.
#2 ᄀᆞᆯ읍서.
#1 신구간이엔 헌 거는 거 묵은 해허고 새해 사이에.
@ 예.
#1 그러니까 십이월 음력으로 십이월 말 정도 뒈는 거주. 입춘 전이난. 거 헌디 그때는 구신이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헤 가지고 구신이 없는 걸로 생각헤 가지고 그 우연네 뭐 나무가 끊을 거 이시민 나무도 끊고, 또 이 집도 수리헐 거 시민 또 집도 수리허곡, 또 뭐 변솟간도 고치젠 허민 고치곡 그자 그런 거 허고. 대개 엿날은 이 저 이묘, 이묘 ᄀᆞ뜬 걸 많이 헷주. 그 추운 디. 게 신구간이엔 구신이 하늘로 올라가 부려근에 없나고 헤 가지고 그게 춤 관련.
#2 요주금ᄁᆞ진 신구간 ᄎᆞᆺ입니다. 이서도 가곡, 이사.

#1 우린 거 이젠 완전이 잊어 불고.
@ 그 저 이때 그 이사덜양?
#2 막 헙니다.
@ 허지 안헙니까양?
#1 예, 많이 허주.
#2 제주도만 경 헴젠 허멍.
@ 그 이사 갈 집은 어떵 구헤수가? 엿날 그 저 아덜 이사허젠 허민은 강, 어디 강 봐? 옛날에 그 지관 엇일 때난.
#1 지관안티 강 들어근에 헷주, 뭐. (웃음)
#2 ᄒᆞ썰 짐작 헤시카?
#1 동네 유식헌 어른덜신디 그디 강.
@ 들어봐근에?
#1 예.
#2 ᄒᆞ쏠 대충 어디 강 들어봐근에.
#1 ᄒᆞ꼼.
#2 ᄒᆞ는 체 헤나수다, 엿날엔 아이덜.
#1 뭐 지관신디 강 들은 정도는 아니고.
@ 게난 제일 처음 이사갈 땐 뭐, 뭐부떠 가져갑니까?
#2 아이덜 헐 때?
@ 아, 거난 처음에 이사갈 때 무신 가져가는 것덜 잇지 안허여?
#2 엿날에는 요강 아졍 가나수다. 요강에 불 담앙 간덴 허영.
@ 어.
#2 경 헤난 거벳기 우린 모르쿠다. 우린 이사 뎅겨수가?
#1 성냥을 대중 가졍 가낫주.
@ 성냥.
#2 성냥허곡.
@ 요강.
#2 으. 경헤연.
@ 요강 안에 성냥 담앙양?
#1 몰라, 요강.
#2 안네 전이. 엿날엔 불 담넨 헨게 저 요새는 무신 그런 저런 거 ᄀᆞᆯ렴수가? 그자 성냥 이사허는 디 성냥도 아져가곡.
#1 건디 요샌 완전 요샌 이사헌디 성냥 아졍 가봅서. (웃음) 건 현대에 맞지 아니허는 거, 건 엿날식이난.
#2 엿날 실[씰]도 사가곡 헷어. 이사 먹으레 가멍.

집알이

@ 집알이는 거 어떵 헙니까? 이사 가멍 알려야 뒐 거 아니우꽈?
#2 무시거?
@ 이사 가믄 알려근 집들이, 집들이.
#1 엿날사.
#2 아, 집들이? 집들이게게 가민게 손님들 가민 무시거 ᄒᆞ쏠 안네는 거 말이우꽈? 음식? 음식게.
@ 아이 그, 뭐, 가민 뭐 음식은 당연히 줄 거고.
#2 집들이 헙니다게.
@ 집들이 허민 보통 그때는 무슨 선물 뭐? 뭐 가졍 가?
#2 앚엉 가는 건 엇고.
#1 요사이는 뭐 거 다 느나 헐 것 없이 저 봉투 담앙 가는디 엿날 육십 년대, 이 우리가 성안에 살아서 저기 갈 때는 이서엔 헤근에 이녁 식구만 가근에 기자 밥헤근에 기자 먹는 거.
@ 성냥 그런 건 안 상 갓수가?
#1 하이고, 그거 상 갈 경 돌아볼 정도가 못 뒈엇어, 그때는.
#2 아이, 영 친목으로 무시거 저 이사헐 땐 우린 성냥허고 실 ᄀᆞ뜬 거 상 가낫수다.
#1 아니, 게난 그거는 이 저 ᄒᆞᆫ 칠십 년대 뒈난 그거 허고, 육십 년대 전이사 첨 얼마나 어려왓수가게?
#2 ᄎᆞ례로 못 헨 살아수다.
#1 오십 년대, 아이고, 어디 저 이서.(웃음)

소한 · 대한

@ 그다음에 소한, 대한에 대헤근에 말헤 줍서. 소한, 대한?
#1 뭐 최고 추운 때난 뭐, 무시거 뭐 헐 게 셔. 집이 앚앙 저 낭불 살랑 기자, 기자. (웃음) 사랑방 뒐 거주. 부섭에 앚이면은. 부섭에 불 살르믄, 그자 거나벳긴 그자 춤.
#2 대한은 너미 춥다고 대한에 나간 사름 춪지 말렌 헤나수다. 그건.
@ 게난 소한에 나간 사름 춪지 말라?
#2 아니, 대한.
#1 대한.
@ 소한이꽈? 대한이꽈?
#1 소한에 나간 사름 대한까지 제일 추운 시기난게.
#2 소한, 대한 허난에 대한이.
@ 게난 소한에 나간 사람 춪지 말라꽝? 대한에.
#2 대한, 대한에.
@ 대한에 나간 사람 춪지 말라꽈?
#1 글쎄 건 난 잘 모르겟는데.

@ 엿날 그 막 추운 때 경 헨에.
#2 어른덜 곧는 걸 보민 대한이엔 골아낫어.
#1 춥다는 뜻으로 뭐 헌 거주, 무신. 저 무신 경헨 나간 사름 다 죽는 것도 아니고.
#2 게메, 추운, 춥덴 헌 말입주게. 막 눈도 오곡, 옛날엔 눈도 많이 왓수다.
#1 하이, 눈이 어떻게 많이 와신디, 첨.
#2 일로 제주시 걸언 가단 눈에 맞안, 빠젼 죽은 사름도 잇어.

섣달 그믐
@ 그다음에 그 섣달그믐날, 섣둘그믐날 뭐 헤마씨? 섣둘그믐날.
#1 (웃음)
#2 섣둘그뭄.
@ 멩질 전날 아니?
#2 무시것도게, 멩질 출리곡게, 섣둘 그믐날은 저녁도 잘헹 먹녠 골아나수다.
@ 잘 헹 먹녠마씨?
#2 예.
@ 게 뭐 헹 먹읍디가?
#2 아이고게, 무시걸 헹 먹읍니까게. 이 촌에서사 아는 거주게. 아멩게 무신 채소만 먹단 그날은게 고기로라도 헤근에게 이 둘이 그물엇다 헤근에 잘 먹넨 헤나수다.

생업

밭일
@ 그다음에양? 그 이제 밧일[받딜] 쪼금씩 물어 보쿠다양? 그 밭일은 삼월달부터 허지양?
#1 밭일은.
@1 밭일은.
#1 뭐 거.
@ 삼월달 옛날 보면은.
#1 엿날은, 이 비료가 엇곡 걸름이 엇어 놓니까. 이 뭐여 흑역시[흥역씨]라고 헤 가지고. 그 정이월 나민 정월달 나면은 그 어디 밧구석을 파근에 그 흑을 강 객토허는 거라, 이 전부.
@ 예.
#1 경 헤둥 오면은 그래도 농사가 좀 뒈고.
@ 예.
#1 경 아니허영 그자, 뭐, 뭐 비료가 엇이니까게. 걸름이 엇이니까 뭐 곡식이 뒈어게? 그게 대중이랏주, 이 정이월에, 객토사.
@ 게난 저 삼월달 뒈면은 이제 봄 뒈면은 뭐 갑니까?

#1 삼월, 이 저 음력 삼월 뒈가민게 저 이 뭐 개간.
@ 처음, 처음 가는 거?
#1 가는 거는 없고, 삼월달에. 이 개간, 이 새왓 가는 거.
@ 어.
#1 그때 많이 허주, 삼월달에. 삼월 초에.
@ 그다음 뭐 갈아, 그다음?
#1 아니, 새왓 갈아근에 첫해는 피나 뭐 히어뜩헌 거 헤근에 갈앙. 그 뒷해는 그거에 갈면은 또 ᄆᆞ믈 ᄀᆞ뜬 거 갈주. ᄆᆞ믈 갈민 ᄆᆞ믈도 좋아.
@ ᄆᆞ멀은 가을에 갈지양?
#1 아니 팔월 십오일날 가는 거난 그건 뭐.
@ 팔월 십오일.
#1 그다음은 그 ᄆᆞ믈ᄀᆞ르에 산디가 허믄 산디가 최고 좋아.
@ 저 산디?
#1 으, 아 그건 좋아.
@ ᄆᆞ멀ᄀᆞ르에?
#1 예, 어떻든 새왓 갈앙 산디가 제일 최고 수확이라.
@ 그다음에 보리 갈아난 다음에는 저.
#1 게난 그.
@ 저 감저 심그지양?
#1 개간헌 밧이.
#2 조 갈.
#1 경 보리 갈 정도 뒌 밧덜이 아이주게. 뜬땅덜게, 뜬땅덜 저 화전에 ᄒᆞ끔 영 변두리레 헤근에 갈앙덜 헤낫주.
@ 아, 거난 보리는 언제 갑니까?
#1 아, 보리야 십일월 초에 갈주게.
@ 보리는 십일월 초에 갈고.
#1 음. 저 여기는 십일월 초에 갈고, 그자 한 십 일경에 갈고. 이 남쪽더레 남원쯤엔 가민 ᄒᆞᆫ 이십 일.
@ 거난 보리 끗나민은 감저 심급니까?
#1 아이게, 물론이주. 보리가 거.
@ 보리 끗나민 뭣덜 심거마씨?
#1 아이 감저, 조 ᄇᆞᆯ, 아까도 뭐 유월 이십일 뒈민 뭐 궂인 밧은 뭐 조 ᄀᆞ뜬 거 뭐, 무시거 ᄇᆞᆯ리곡. 또 유월, ᄒᆞᆫ 아 저 칠월 초 뒈면은 감저 놈이 한창이랏주.
@ 옛날 유채도 하영 헷지양?
#1 유채는 그 칠십 년대. 칠십 년대에 뭐 우리는 유채 뭐 많이 아니헤봣어. 그거 뭐요 어디 그 당시 구좌읍더레 가면은 유채 멧 말 허ᄀᆞ라, 멧 말 허ᄀᆞ라 막 자랑덜 허엿는디.

@ 공판도 헷수다게, 우리 동네서.
#1 아, 여기도 공판헷어. 유채 우리도 우린 여기는 경 하영 헌 사름 엇고. 저 구좌읍 더레 그때 평대, 한동더레 가보니까 그, 저 칠십 년대 초에. 뭐 육백 말 허ᄀᆞ라 칠백 말 허ᄀᆞ라 헌 사름이 하대. 게난 야, 그거 얼마나 힘든 거꽈? 실지 그 유채.
@ (웃음) 털기도 심들어마씨. 도께로 털젠 허민.
#1 저거 첨 그축 일헹 그때 살아시난게. 게 수입이 그거벳긴 엇어 놓니까.
@ 여기 과수원은 언제부떠 헤수가?
#1 과수원은 육십 년대 말부떠.
@ 육십 년대 말? 빨리 헌 편이네양?
#1 아니, 여기가 이 저 해변에보단 빨리 헷어.
@ 빨리 헷어.
#1 거 우리 아덜이 육십육 년생인디. 거 나는데 토평 가근에 이 밀감 묘목, 그거 참 좋아베엇는디. 그거 육백 원썩. 거 육백 원이면 그때 저 절간감자 ᄒᆞᆫ 가마니. 그걸 줘에 서른 본을 삿는디, 아이고 지금추룩 그 쉐라도 아졍강 마차로라도 강 끗엉 올 건디. 거 지엉 앚언 버스에 그때 버스 운전수도 좋으니까 아, 그걸 버스에 시껀 요 위미리에 왕 내련에 오는디 요 **** 하늬ᄇᆞ름이 불어 가지고 게 거 다섯 본 죽어 불고. 겐 스물다섯 본을 살앗는디, 종내기가 막 좋아 가지고 이 저 조생.
@ 아.
#1 경 헤 가지고 그 낭 덕 봣주, 참 나.
#2 의귀리선 우리가 일등으로 헷주. 막 우십게 헤가난 웃언에 저 사름덜 미쳣젠 허멍. 이디 과수원 뒈느넨 허멍. 우린 씨누이네가 저 예춘 일등 부제로 살아수다게. 게난 제서 먹으레 이디 가시어멍 제 먹으레 오민.
#1 그자 미깡낭만 싱그렌 허곡.
#2 과수원을 허라, 과수원을 허라. 이디 과수원 뒙니까게 허멍 허민. 이제부떠 헤산다, 헤산다 허멍 일 년생 사단에 ᄑᆞ리 약허는 걸로 요디, 요디 ᄉᆞ뭇 약 헨에 그거 싱그난 매 사름이 웃어도양 그거 세금도 ᄒᆞᆫ 멧 년 안 내고 딸 중도 몰라도 어떵어떵 따멍 그걸로 ᄒᆞ썰 살아수다게. 저거 문 기치지 아녀민 벤으로 알주 허멍덜 동넷 어룬덜 막 웃어도.
#1 톱, 톱집에 산덴 허멍 헤낫주. 웃음. 견디 춤 그거 아이고. 게난 여기도 보믄 이 가름이 젤 빨르곡, 가름 사름덜이. 이, 저 알동네 ᄀᆞ튼 디는 춤 뒤졋주. 뒤졋는디 춤 ** 산 때 ᄀᆞᆯ은 말이 잇어. 그때 그 칠십 년대는 그때 통일베가 나올 때주게. 게난 통일베 헤근에 혼합곡 헤근에 그 압맥.
@ 으.
#1 거 헤근에, 이, 저 헷는디. 알동넨 강 보민 보리밥을 먹는데, 이 가름에 왕 보민 그 밥을 먹넨.
@ 그 가름에가 어디라마씨?
#1 가름에 허면은 이 동네.

@ 아.
#1 이 동네, 이 저 이 ᄉᆞ방이 이 동네주게. 경 허멍 ᄀᆞᆯ아낫는데. 이제 쫌 그 어른도 그자 저 가불안 거 뿐이고.
@ 아까 그 조는 유월절에 갑니까?
#1 유월절 저, 칠월, 양력으로 칠월 초.
@ 양력으로.
#1 건 좋은 밧. 궂인 밧은 유월 ᄒᆞᆫ 이십 일경에 가는 거고.
@ 빨리 갈아야 뒈겟네양?
#1 예. 궂인 밧은 빨리 갈아야.
@ 보리는 아까 십이월?
#1 십일월 초.
@ 십일월 초에. 겅 헤근에 망종 뒈미는.
#1 망종 전이 다 걷주. 하여튼 저 유월 일일 뒈민, 여기 남원리는 그 당시 오월 ᄒᆞᆫ 이십오일이민 막 한창이랏는디.
@ 으.
#1 여기는 이 근처는 유월 일일 뒈야 한창 뒈여.
@ 그다음에, 이 저 콩은, 콩은 언제 갈아마씨?
#1 콩은, 콩농사는 여기 별로. 경 하영 허지 안허여.
@ 아 거난 가는, 가는 시기가?
#1 그게, 아 저것도 그 저 유월 그자 초에 가는 거주.
@ 경 헹 가을에 거둬들일 거 아니꽈양?
#1 예.
@ 빨리 뒈는 편이우다양? 콩은?
#1 아, 콩은 빨리 뒈는 셈이주. 겐디 콩이 지금 ᄀᆞ치 경 뒈질 안헤낫어, 엿날에 춤.
@ 산디는 아까?
#1 오월 ᄒᆞᆫ 이십 일경에 가나.
@ 오월 이십 일경이면 유월절?
#1 으,
@ 것도.
#1 아니, 아니. 유월절이 아니주, 오월 이십오일이민 저 거시기 곡, 아니 저.
@ 곡우?
#1 곡우가 아니고.
@ 아까.
#2 하지에 보리 거린덴 헤낫주, 산디.
@ 예?
#1 망종에 솔가린덴 헤낫주.
@ 으?

#1 망종에 솔가린덴 허난 오월 이십일 정도에 파종허는 거주.
@ 오월.
#1 오월 이십일로 막 늦엉은 유월 일일.
@ 하지 정도 뒈켜이?
#1 하지 정, 하지?
@ 망종.
#1 아니, 아니. 오월 이십일, 거 하지는 유월 이십일이고.
@ 으.
#1 저 오월 이십일 경에 산디는 갈아낫주. 겡 산디 불림이엔 허주. 산디 감이엥은 안 허여, 여기서. 다 불려나니까.
@ 산디는 아까 멧 월달? 산디?
#1 오월 훈 이십일 경에.
@ 이십 일 경. 그다음 감저는?
#1 감저는 뭐 그자 유월 일일부떠 그자 유월 훈, 칠 팔, 오일 내에 놔야 뒈.
@ 아이 거 심그는 거?
#1 아, 심그, 저, 모종 놓는 거?
@ 아이 줄, 줄.
#1 아, 그러니까 그 칠월 칠일. 아, 칠월.
#2 유월절.
#1 유월절이 훈 칠월 칠, 팔일이 뒈거든. 게믄 그 안네 심거야 뒈어.
@ 모종은?
#1 모종은 훈 청명에 놓곡.
@ 청명에 모종 놔근에.
#1 으, 게난 이 비니루 엇일 적에는 잘 크질 못혯어. 겐디 비니루가 육십 년대, 것도 육십 년대 말.
@ 아, 그때 비니루 헨 헤수다.
#1 비니루 헨에 헷는디.
@ 최촐 거라, 비니루 헌 건.
#1 저 아메짜 재게 크주게.
#2 막 빨리 나곡 빨리 큽니다게. 에고.
@ 그다음에 그 아까 그 귤. 전정이, 가지치기? 언제 헙니까?
#1 뭐, 이월 훈, 아니, 아니, 삼월 초부터 허는 거난 뭐.
@ 삼월 초양?
#1 예, 이월 훈 이십오일부떠 요새는 이 저 하우스 잡감덜 헤부난. 이월달에덜 많이 헤.
@ 나도 이거 나가 직접 헴수다게.
#1 예.

@ 전정을. 이 훈 서너 가지만 베완에 헴신디.
#1 웃음.
@ 옛날 그런 말 허드라고. 요 구지 하나면은 요 가지 네 개, 네 개 살려근에 이걸 영낭을 네 개 멩글렌.
#1 네 개 내지 세 개 내지 네 개. 그게 젤 정상이주.
@ 경헤근에 귤 나무를 세네 개 만들면은 그 가운데 트고.
#1 겔쎄, 그.
@ (웃음)
#1 우리도 그 춤 아까도 골앗주마는 육십 년대 말, 그때 그 남군 농촌 그땐 농촌지도소엔 헤낫주. 이 지금 지도소 헷다가. 강○○이 구 하르방 완에, 이제도 그 하르방 인기랏주. 전정허멍 허는 거 우리도 보멍 헤낫는디.
@ 그다음에양? 이 귤 수확, 귤 수확은 이거 뭐.

바다일

@ 그다음에 바당일에 가근에양? 그 구제기허고 전복은 언제 잡읍니까?
#2 그것.
#1 여기 사름덜은 전복 잡으레 뎅기진 못허고.
@ 어.
#2 아무 때라도 잡는 거 아니꽈게? 물에 들민.
#1 이 바릇 카게엔 허주. 바릇 카게. 바르옌 헌 건 바다를 말허는 건디.
@ 으.
#1 이 저 우리 속어로는 그 할망덜 그, 저 아지망덜 헤근에 오널 바릇 카게 허민, 거 가면은 그게 뭐 매날 뎅기는 것도 아니고. 거 춤 훈 둘에 훈 번 정도 뭐 훈 두어 번 정도 뎅기는 사름도 잇곡. 원 안 가는 사름도 잇고 허민. 그자 ᄀᆞ메기 ᄀᆞ뜬 거 희어뜩헌 거 잡아당 그때 허는디, 그때 해변 사름덜은 매일 가다시피 허주.
@ 으.
#1 게믄, 이 그 당시 우리 어린 때 해벤이 강 밥 먹는 거 보고, 우리가 먹는 거 보믄 차이 잇어. 건 바당이라도 가믄게 ᄀᆞ메기도 잡아당 먹고, 거기 무시거도 헤다근에 반찬을 허는디 여긴 그게 엇어 놓니까.
@ ᄀᆞ메긴 보말 아니꽈양?
#1 예, 보말. 거 맛잇임도 허고게, 그거 국 끌리민 지금도 난 막 좋아헤지는디.
@ 보말.
#2 이젠 ᄀᆞ메기도 엇수다. 다 잡, 못 잡게 헙니다.
@ 바당 직허는 사름덜?
#2 예. 못 잡게 헙니다.
#1 저 어촌계서 관리헤 놓으니 말이여. 저것도 춤 저것도 잘못뒌 거라. 어촌계 회원만 뭐 헤 먹게 뒌 거라놓니까, 어째서 그 그렇게 뒀나?

@ 바다에 가면은 저 우리 주로 먹는 거 뭐, 뭐 이수강? 메역허고.
#1 메역허고 톨이랏주 뭐. 그당시 무신.
@ 톨허고. 그다음에?
#2 성게허고. 성게 잡앙 메역에 막 싸멍 먹읍니께.
@ 몸?
#2 몸허곡.
#1 물망 아니?
@ 물망.
#1 물망, 톨, 미역 원 이거 세 가지.
@ 음. 메역은 언제 헙니까?
#2 삼월달에.
#1 메역은게 삼월 보름날 뭐 최고옌 허는디. 어떻든 이월달로부떠 오월 사이에 허는 거난.
@ 멧 월부떠 멧 월부떠마씨?
#1 이월 중순부떠, 이월 중순은 좀 일르주. ᄒᆞ민 오월 중까진 헤여. 오월 이십일경까지 헤여. 엿날 막 늦엉덜 헤나지 안헷수가게?
#2 요지금ᄁᆞ지.
@ 삼사월이 한창이네양?
#1 한창인디.
#2 예.
#1 그거 어떵어떵 그 여라 사름이 모영 허당 보믄 의견이 틀령 좋은 날씨에도 채칠 못 허게 허곡.
@ 으.
#1 거 쌉당 보민, 이, 저 여기는 의귀, 수망, 한남[할람], 남원리엔 헤 놓으니까.
@ 여긴 바당 이수가? 의귀리?
#1 아니, 그 엿날엔 같이 헤낫주게.
@ 이젠 못허게 헙니까?
#1 아, 이제는 어촌계원 아니믄 뭐 해당이 엇주, 그건.
@ 지금은 못 허겟네양?
#1 가젠도 아녀고 허젠도 아녀고 저, 뭐.
@ 어.
#1 무관심헨 내 분 거. 내 부난, 이젠 어촌계 관리라 놓난, 어촌계 아닌 사름은 못 어는 모냥이라. 게난 저것도 잘못뒌 거주, 어딘가.
@ 우리 색달 바당은 막 크우다.
#1 아, 거 저 거 따로 잇구나? 바다가.
@ 그 관광단지 앞이가 전부 색달 바당이우다.
#1 아 거, 색달 그 저 지경이로구나.

@ 예.
#1 바당끄지 갓구나.
@ 예, 중문 색달 해변.
#1 그 회수는 없지 아녀?
@ 엇수다, 그딘.
#1 게메 회수는 우리 의귀리 닮은 딘게.
@ 우린 막 넓어. 그 저 산쪽엔양, 천백도로 그 휴게소가 색달 산 일번지라.
#1 아.
@ 거기까지 쭉.
#1 색달리 경계구나.
#2 엿날에 진정리가 옷귀 바당이렌 헙디다.
#1 게난.(웃음)
#2 바로 앞이, 바로 앞이.
@ 그다음에, 이, 저 물망, 물망도 허는 날이 잇지양?
#2 아이고, 웃드리 사름은 이젠 아니우다게.
@ 아 거난 옛날?
#1 엿날, 엿날사 그자 바르카민 거 헹 오주게.
#2 메역도 허고.
#1 게난 그때는, 이, 뭐게 관계, 관곌 안 헤난게. 그자 헤가 좋은 데로 헹 오고. 메역만 못 헹 오는 거주, 메역만. 이 톨, 메역 저 물망은 그건 자유로 헷주.
@ 톨은, 거난에 물망은 언제 허여마씨?
#1 물망이야 아멧자 그 정이월달에 헤사 이 부드럽주게. 이, 저 이 막 씨가 지나가민 메역이나 모든 게 막.
@ 이월, 이월?
#1 예.
@ 이월달에?
#1 이월, 삼월.
@ 이월, 삼월?
#1 으.
@ 톨?
#1 아, 톨도 마찬가지.
@ 이삼월? 게난 메역허고.
#1 다 거의거의 비슷허주.
@ 비슷비슷허구나.
#1 아, 톨은 ᄒᆞ끔 겨울에덜 그 전엔 허민 거 첨.
#2 톨이 남수가? 이젠. 옛날은 톨이 잇어나신디.
#1 아, 엿날사 잘 낫주만은 지금사 뭐.

@ 이제 막 오염뒈연게.
#1 오염뒈놓난.
#2 메역 헐 때 헷수다, 톨도.
@ 어.
#1 거 요 작년이 저 곽지 간 보니까 하 그딘 해변가에라도 보니까 톨도 하고 메역도 잘 낫대, 그거 역불 그 관광객덜.
@ 아니, 아니, 그 근방이양 궨찮아마씨, 나도, 나도 옛날 그 앞에 간에 비니루로 세 개 헤와낫수다게.
#1 그거 못허게 헐 건디 보믄. 관리인덜 이실 건디?
@ 아, 몰르게.
#1 야, 저거 보멍 야 여기 사름덜 관리도 안 헴신가 허멍. (웃음)
@ 그다음엔, 이 궤기 종륜 그 엿날 보민 어떤 것덜이 잇어나수가?
#1 하, 옛날 우리도 궤기 나끄레 뎅겨낫주마는.
@ 궤기 나끄레 뎅길 때.
#1 어렝이, 북바리 그자 그거주 뭐.
@ 어렝이, 북바리?
#1 북바리 따시 저 페감젱이엔 헹근에 지금 우럭이주. 지금 말로.
@ 자리도 잇고.
#1 아, 자리는 그건 저 테위로 강 거려오민 그것도 엿날 얼마 거리지도 못허곡 허민.
@ 엿날은 자린 거려낫어양?
#1 거려낫주게.
@ 멜허고. 그 여기는 저 돔을 옥돔이엔 헙니까? 솔라니옌 헙니까? 솔레기옌 헙니까?
#1 여기서 우리 동네서는 생선이엔 허곡. 생선.
@ 생선.
#1 그 이 남원리 ᄀᆞ뜬 디, 태흥리 ᄀᆞ뜬 디 그 생산지에서는 뭐 옥돔이엔도 허, 아 옥돔이엔 헌 거는 거 표준말이고.
@ 으.
#1 그 솔라니, 솔라니엔 허주. 솔라니.
@ 솔라니?
#1 으.
@ 저 성산포엔 솔레기엔 헌덴 허더라고.
#1 난 이디 솔라니, 솔라니. 이 옥돔이엔 헌 건 우리 표준말이고.
@ 이건 언제 강 잡아? 이건 항상 잡는 거지양, 이것도?
#1 아이, 아니라, 그때도 이 사월, 음력 사월인디 오월 말 뒐 거주. 그때까지 그때 뒈가민 뭐 진독내가 어떤 것산디 몰라도 진독내 난덴 허멍.
@ 벤자리가 요즘 나오는 모양이라양?
#1 벤자리사 그거 여름에 대개 많이 나오잖아. 벤자리하고 셍성허고는 뭐.

@ 아니 게도 옥돔만인 못허주마는 괜찮아붸어마씨. 그다음에 저 옛날 우리, 우리 여름 때 뒈면은 그 우리 백사장에 강 우리 아버지 그거 많이 나까왓어. 그 저 모살치. 모살치 알아지쿠강?
#1 몰라. 모살치가.
@ 모래 위에서 나는 거, 아주.
#1 글쎄. 그건 이 ᄉᆞ방인 기자 어렝이허고 북바리. 북바리도 이젠 북바린 엇어져 불고.
#2 엿날엔 무신 보들락도 잇젠 허멍 막.
#1 보들락은 지금도 잇고. 이 남원리 안녁 바당이엔 헌 디 엿날 그 북바리가 그렇게 잘 나나낫는디 이젠 ᄒᆞ나 엇는 모냥이라. 씨젼 저것도.
@ 그 요런 것덜 이제 요즘은 보면은 허채, 그 허락허는 기간이 잇고 금지허는 기간이 잇지 아니허꽈양?
#1 예. 게난 엿날은 아까도 말헷주마는 메역을 그 제일 중요시헷주게. 소득원이 제일 높은 거니까. 게난 그 이월 ᄒᆞᆫ 이십오일로부떠 거 오월 말까지 허는디 그거 한 삼 개월쯤 허는디. 그게, 이 여러 부락이 모이다 보니까.
@ 으.
#1 이 좀게 싸움도 나곡 그럭저럭허당 보민 제때에 못 허고 또 바다도 쎄민 못 허곡 고 허당 보난 경 가는 건디.
#2 걸로 부자뒈는 사람도 잇어.
#1 게난 그 메역 많이 헤근에 헌 사름은 부자뒛주게. 해녀덜 잘 허는 사름은. 메역 그자 ᄒᆞᆫ 해만 허믄 밧 ᄒᆞ나썩 살 때난.
@ 그때는.
#1 아이고 춤 거난 그 육십 년대는, 이 물질 못허는 여자덜은. (웃음) 저 별로 인기가 없엇어. 물질 잘헤사 인기가 잇엇주. 게난 그 춤.
@ 지금도 경 허는 모양입디다.
#1 에이고, 지금은 당추.
#2 아니, 요지금엔 해녀덜 잘허는 사름 그걸로 살아.
#1 아니 그거는.
@ 남자가 제일 좋아헌덴 허더라고.
#1 아니 남잔 ᄀᆞ만이 앚으민.
@ 풀지 못헌 거 가져와근에 영 주민 먹곡.
#1 아이고 술 잘 먹는 사름, 그 우리 친구가 거 남원이 잇는데 그 각시가 물질 잘 허여. 하여튼 지 말로도 안주 잘 출령 먹고렌은 골아. 거 해녀 강 잡아오니까게.

속담

@ 그다음에 그 이, 저 뭐 밧일허고 바다일에 일허멍 그 속담 잇수가? 속담?
#1 속담은 거 알아지크라? 이 저, 속담, 속담은 잇주. 잇어도.

@ 밧과 관련뒌 거.
#1 그 대개 보민 이 보리ᄀᆞ슬 막 바쁜 때쯤은 가시아방 봐도 저 뒤로 절헐 정도엔, 뒤로 절헐 정도엔, 게믄 막 바쁘다는 뜻이주, 즉 말허믄. 가시아방이믄게 공손히 앞으로 강 절을 헤야 헐 건디, 뒤로 강 그자 인사헐 정도 허는 거주.
@ 금기어 뭐 이신 거 알아지쿠가? 금기어.
#1 금기는 뭐, 금기는. 글쎄이.
@ 입춘날 뭐지.
#1 아, 금기는 뭐 여자덜 뭐 입춘날ᄁᆞ지 놈의 집이 뎅기지 말렌 허곡, 그자 그거주.
#2 (웃음) 경 ᄀᆞᆯ아나수다.
#1 이젠 뭐 것도 필요 없고.
@ 에, 수고했습니다. 마치쿠다.

9. 남원읍 신례1리

- 조사 일시: 2022년 5월 23일, 5월 24일, 5월 25일, 10월 25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최연미
- 제보자: #1 양완호 #2 정순자 #3 정문자 #4 김명자

조사마을

@ 어,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신예리 이 마을에서 어, 마을에 대헤 가지고 저가 멧 가지 물어보크라예?
#1 예, 예.
@ 이 마을에서 옛날에 신예리 이름을 혹시 다른 이름이 이섯수과?
#1 예촌.
@ 예촌.
#1 그 전에는 호촌.
@ 호촌.
#1 어.
#2 어. 호촌도 이서낫구나.
@ 예촌이 먼저꽈? 호촌이 먼저꽈?
#1 호촌이 문저.
@ 아, 호촌이 먼저예.

오름

@ 어, 그다음엔 이 신예리 오름이 이수과?
#1 오름? 이생이오름.
@ 미생이?
#1 이생.
@ 이생이? 아, 이승악?
#1 어, 이승악, 이승악.
@ 그걸 옛날엔 뭐렌 골앗수과? 이승, 이생이오름?
#1 이생이오름, 이생이오름.
@ 이생이오름예?
#1 생길이오름도.
@ 아, 이생이오름도 잇고 생길이오름도 또 이수과?
#1 예.
@ 아, 생길이오름은 어디 이수과?

#1 이 바로 이, 이 동북쪽에.
#2 이 바른 우이. 가까운 디주게.
@ 아. 그다음 다른 오름은 엇수과?
#1 다른 오름은 엇주. 으, 이디서 불르는 건 예춘망이엔 저 앞잇 거, 저 예춘망이엔 헹은에 저 하예리 지경이고.
@ 예춘망?
#1 으. 게난 예춘이난 예춘망이주게.
@ 으.
#1 게난에 하예리.
@ 하예리하고 경계?
#1 으. 아이, 아이.
#2 아이. 하예리.
#1 경계가 아니고.
#2 저 바닷가에.
#1 바닷가에난에.
@ 바닷가에. 예춘.
#1 게난 그 하예리는 하예춘이고.
@ 예.
#1 신예리는 상예춘이고.
@ 아.
#1 예춘 ᄒᆞ민 그 쌍 헤여근에 지금은 저디 하예춘은 하예리.
@ 예.
#1 상예춘은 신예리 영 ᄀᆞᆯ앗주.
@ 아, 경 헷구나예?

물

@ 그다음 여기 나는물은 이수과?
#1 나는물은 엇주.
@ 나는물은 없고. 아, 솟아나는 그 물이 엇어예?
#1 어, 물이 엇어.
@ 게, 옛날 물 어딧 거 떠당 먹엇수과?
#1 냇물.
@ 내창에 물?
#1 으.
@ 내창물?
#1 으.
@ 내창물? 그 내창은 무신 내창마씨?

#1 쉐귀내.
@ 세기?
#1 어.
@ 쉐기내?
#1 어.
@ 세기내에서 물 떠당 먹엇수과?
#1 어, 어.
@ 아, 세기내에서. 어, 그다음엔 어, 요번에 보난 당이 잇덴 헨게만은?
#1 세기내가 아니고, 쉐, 쉐, 쉐귀내. 귀, 귀.
@ 쉐귀내? 아, 세귀. 음.
#1 으.

당
@ 그다음엔 여기 혹시 그 당 이수과? 당?
#1 당, 일뤳당.
@ 일뤳당 으.
#2 일뤳당 이젠 폐지 뒈어서양?
@ 게도, 일뤳당인데 지금 일뤳당이 아직도 어, 사람들은 드나들엄수과?
#2 몰라. 요샌 벨로.
#1 혹 아니 드나들엄젠도 못 홀 게고 그건 몰르주게.
@ 어. 게도 아직도 그 일뤳당은 그냥 잇지예?
#1 어, 당은 그냥 잇고.
@ 음.
#1 그걸 일뤳당을 남밋디라고도 ᄒᆞ주. 남밋디.
@ 남밋디? 으.
#1 게난 큰 남 잇는난 그 낭 아래 강 잇단에 남밋디.
@ 아, 남밋디. 큰 낭 밋데 잇덴 헤 가지고.
#1 예.

포젯단
@ 아, 경헷구나. 포젯단도 잇지예?
#1 포젯단, 예, 오케이.
@ 포젯단은, 포젯단은 어디 이수과?
#1 이, 저 바로 이 우녁에. 저, 저 상산ᄆᆞ루엔 헌 디.
@ 아, 상산ᄆᆞ루에.
#1 어. 상산ᄆᆞ루에 포젯단.
@ 포젯단. 근데 포젯당은 포제가 언제까지 헤수과?

#1 정월 정일.
@ 정월 정일날?
#1 예.
@ 어, 기구나.
#1 어, 초정에.
@ 초정에.
#1 초정이주게.
@ 예.
#1 정월 초정이엔 헌 거 정월 낭은에 쳇 번째 정일.
@ 예.
#1 정묘일라든디 정상일이라든지 그 정일.
@ 그 정일예?
#1 응.
@ 지금 포제는 지금도 헴수과?
#1 아니.
@ 언제까지 헷수과?
#2 오래 뒈서양?
#1 어, 동○이 이장 때난에 이거.
#2 아이고, 잘도 오래 뒛저.
#1 에헤헤, 아이구, 모르키여. 흔 삼, 오십 년?
@ 오십 년 전에? 그면은 한 천구백칠십 년까진 헷저예?
#1 칠십 년끄지. 칠십 년. 어, 어 칠십 년, 아니, 아니. 칠십 년끄지 아이 간 거 닮다.
@ 으.
#1 오십 년 더 뒛저.
@ 게 무사 안 헴수과?
#1 어?
#2 오십 년 더 뒈시카양?
@ 무사 안 헴수과? 이젠.
#1 바빤. 이 저 웨냐 허면은 옛날에는 겨을에 한걸헷주마는 허데.
@ 예.
#1 미깡낭 허기 시작허난 겨울에 다 구뎅이 파레덜 가 불거든.
@ 아, 미깡낭 허기 시작헤 부난.
#1 못 헷거든.
@ 포제를 못 헷구나.
#1 게난에, 웨냐 허면은 제관을 맡기질 못허여. 아무도 제관 뎅기켄 안 ᄒᆞ거든게. 간 흔 사흘 담아 불민 어떵 헐 거라? 이제 과수원 담도 다와야 뒐 거, 구뎅이도 파야 뒐 거.

@ 맞수다.
#1 아, 이렇게 헤도 겡 헨에 아 이거 영 홀 벗에난에 아녀켄 허여도. 역불롤랑 허지 말겐 헨에덜.
@ 아, 경 헹 안 헴구나예?
#1 어.

문화재

@ 음. 그다음엔 여긴 그 신예리엔 보니까 문화재가 보난 두 개 이선게만은.
#1 문화재?
@ 예. 그 여기에 잇는 문화재. 신예리.
#1 어.
@ 어떤 거 어떤 거 이수과?
#1 문화재엔 헨에 특별히 뭐?
@ 아.
#2 여기 저디 생잇올레, 그디도 문화재로 올라가지 아녀시카양?
#1 초가? 그거 문화재라고는 헤야 뒐 처린가? 초가집?
@ 예, 예.
#1 어, 초가집.
@ 초가, 누게, 어디에 이수과? 그건.
#1 이 저 부쪽에 양금석 초가집.
@ 거믄 거기는 누가 관리헤마씨?
#1 금석이 죽어 부난 그, 그 집이서덜 관리헴실 테주. 그 집안에서. 금석이 돌아가 부난에, 금석이 처가 이시난 처가 관리헴실 테주.
@ 음. 여기 문화재가예? 딱 두 개 이서신디, 저가 지금. 음.
#1 두 개, ᄒᆞ난 뭔고?
@ 아, 그거는 또.
#1 아, 문화재란 게 그, 그게 대옥낭.
#2 으, 맞수다.
@ 대옥남?
#1 대옥낭이엔 ᄒᆞᆫ 게 이서낫는데.
@ 예.
#1 그건 사라져 버련.
@ 대옥, 대옥낭은 무신, 어떤 나무꽈?
#1 무환자나무.
@ 아, 무환자나무?
#1 으, 그게 그 저, 저, 알이 대옥 닮아. 대옥이지.
@ 예.

#1 무환자가.
#2 요만이헌 거 열주게. 그것이.
@ 예.
#1 으, 그걸로 헤근에 저, 저, 목걸이 헤근에 영 헹 뎅이면은 벵 아이 든덴 헨에 무환자나무라.
@ 아. 겅헹 무환자나무꽈?
#2 아, 기꽈? (웃음)
#1 으.
@ 으.
#2 그 낭은 춤 유명헤낫수다게.
#1 으, 게난 무환자.
@ 그믄 그 무환자나무가 엇어져 분 거마씨?
#1 어.
@ 무사?
#2 늙언, 늙언.
#1 어, 늙언에. 한 오백.
@ 아, 자기대로 죽어 불언?
#1 훈 오륙백 년 뒈. 오륙백 년.
@ 아, 겅 헷수과?
#2 (웃음)
#1 아주 옛날, 아마도 이 설촌허기 전이부터 자연적으로 그디 나오라나실 테주.
@ 언제까지 이서낫수과? 그거.
#1 에.
#2 그거 엇어져 분지도 ᄒᆞ썰 오래.
#1 어느제ᄁᆞ지 확실히 알 수도 있엇는데.
@ 게난 삼춘네 어른 뒌 다음에마씨?
#1 어.
#2 아이구, 다음에주게.
@ 아, 기?
#2 나도 알아지는디.
#1 으, 으. 우리가 봐나시난. 우리가 그 무환자나무에 영 곱아나시난게.
#2 예게.
#1 무환, 이만이훈 게.
#2 영 허난 속 구련 겁데기만 영허연 훈착 이서낫주게.
#1 들어갓주.
@ 으.
#2 게난 그디 강 영 ᄒᆞ민.

#1 게난 그 도로 확장허멍 이디 바닥질 세멘ᄒᆞ곡 헤부난에 이게 죽어 불엇주.
@ 견디지 못헷구나예?
#1 으.
@ 아낍다예? 으.
#2 그때 보호허멍 헤낫주게.
#1 훈 천[철] 년, 천 년 뒈실 거라. 그거.
@ 아이고, 그 정도랏구나예? 음.

제보자 정보

@ 그다음에는예? 어, 삼춘.
#1 으.
@ 그 신예리에서 나고 자라고 장게가고 이제까지 살앗덴 헷잖아예?
#1 어.
@ 어, 혹시 학굔 어디 나와수과?
#1 위미리 학교.
@ 게난 젤 끝에. 마지막으로 나온 학교.
#1 아, 위미리 끝에 걸로 끗.
@ 위미리 중학교?
#2 위미리 중학교 엇엇어.
#1 위미심상소학교.
@ 위미.
#1 심상소학교.
@ 심상소학교. 음.
#1 으.
@ 그믄 삼춘 그때 위미심상소학교 다닐 땐.
#1 일제, 일제.
@ 일제 때.
#1 예.
@ 그때 혹시 그 학교 짓은 어른 알아지쿠과?
#2 어이쿠.
#1 어.
@ 누게꽈?
#1 이관석.
@ 이관석?
#1 으. 교장.
@ 아, 교장 말고 그 마을 저, 거기에 막 많이 뭐 헌 사름.
#1 어, 마을에?

@ 무신 혹 저 김 벨감이렌 헤 가지고 혹시 기억남수과?
#1 어, 김 별감네 그, 저, 그. 으. 김 벨감네 그디 저, 저, 저, 음, 그디가 이섯고.
@ 그 김 벨감 어른네가 혹시 그 소학교 짓는 데 좀 많이 영향을 주지 아녀수과?
#1 어려 부난 모르는데.
@ 아, 두려 부난 몰라 불어?
#1 그디 학교 짓는 디 매날 놀레 가주.
@ 아, 기구나. 음.
#1 어.
@ 그 어른 기억나마씨?
#1 뭐 기억나주게.
@ 아, 기구나예. 알앗수다. 겅 허고, 삼춘네.
#1 어.
@ 부모님은 뭐 헷수과?
#1 우리 아부지네?
@ 예, 아부지네.
#1 아부지네 뭐 똥 줍곡 밧 갈곡.
#2 (웃음)
@ 그 아버지네도 신예리에서 나고 자라수과?
#1 어, 어, 어.
@ 아, 어머닌마씨?
#1 어머니도 경 ᄒᆞ곡.
@ 아이고, 기구나게. 음. 혹시 삼춘네 결혼할 때, 하기야 그때 당시는 지금하곤 달라도.
#1 어.
@ 혹시 결혼할 때 연애결혼 헤수과? 중매결혼 헤수과?
#1 우리 중매.
@ 중매결혼헨. 혹시 결혼헐 때 사진 같은 건 찍어수과?
#1 사진? 찍엇는 지 거 일러 비엔.
@ 잊어 불언?
#1 어.
@ 그, 그때 사진 안 찍어도.
#1 어.
@ 혹시 그 옛날에 찍은 사진들 한두 장이라도 이신가마씨?
#1 엇어, 엇어.
@ 엇어? 음. 이서시민 좋으켜마는. 어쨋든 알앗수다.
#1 그 이서도 어디 찾아져? 어디사 신디.

일월

정월 멩질

@ 그다음엔예?
#1 어.
@ 어, 아까 그 저희들이 카메라 키기 전에 말씀드렷잖아예? 멩질 때 멩질 준비허젠 허믄. 지금 거 아니라예? 옛날에.
#1 어, 어.
@ 옛날에 그때 멩질 준비할 때 어, 어떤, 어떤 거 준비헤수과?
#1 그디 남자들은.
@ 예.
#1 아, 준비야 뭐 공동으로 헐 테지. 남ᄌᆞ, 여ᄌᆞ 홀 것 엇이. 근데.
@ 게난 무시거?
#1 대게.
@ 으.
#1 제숙. (벨소리)
@ 예.
#1 지금 말허면 제숙. 떡 말곡.
@ 예.
#1 제숙 허는 건 남자가 준비헤야 뒈고.
@ 게난 무시것들? 제숙 허젠 허민 무시거, 무시거?
#1 셍성.
@ 셍선? 셍성?
#1 셍선게, 셍선.
@ 게 무시거 그 셍선?
#1 바다.
@ 으, 맞수다. 셍성.
#1 ᄒᆞ곡게, 육류게게. 뒈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거.
@ 맞수다.
#1 어, 그거.
@ 게 도야지고기나 쉐고기나 허젠 허민.
#1 어.
@ 도세기를 잡앗잖아예?
#1 어.
@ 쉐도 잡아수과?
#1 쉐 잡은 건 안 들어보고. 도세기, 도세기는.
@ 도세기 잡앗지예?

#1 어, 어.
@ 도세기 잡아근에 어, 어떵 헤수과? 게민 그거 추렴헤수과? 어떵 막.
#1 아, 추렴허영 아니 허주.
@ 게민.
#1 추렴이엔 헌 건 일반, 헹 막 먹어 부는 거고.
@ 예.
#1 에, 그건 저 생물.
@ 아, 생물.
#1 그런데 우리말로 생물인디 생물은 맞질 아녀고. 선물이라고 헤야 뒐 처린가? 그 생물이엔 흔 건 우리 바로 순수헌 이게 아주.
@ 생 거?
#1 퉤화뒌 말이고.
@ 예. 아, 게난 퉤화뒌 말로 굴아 줍서.
#1 게 생물이주게.
@ 예. 생물.
#1 생물인디.
@ 으.
#1 실지로 알앙 보난 생물이 그걸 맞질 아녀.
#2 (웃음)
@ 예.
#1 생물은 맞질 않고. 어, 그 생물 헤영은엥에.
@ 예.
#1 이 ᄒᆞ나 사 가지고.
@ 예.
#1 나놩.
@ 예.
#1 나놩은엥에 영.
@ 아, 나누민 동네 나놔수꽈?
#1 여라 사름이 나놔.
@ 여라 사람이 나놩.
#1 열 사름이민 열 사름. 다슷 사름이민 다슷 사름 영 헤영은엥에 영 모두왕. (웃음)
@ 음. 겅 헹은엥에 제사를.
#1 그추게.
@ 한 메칠 전에 도세기 잡아수꽈? 멩질.
#1 삼일 전에 헤야주게.
@ 삼일 전에예?
#1 으.

@ 그믄 삼일 전에 셍성도 준비하고, 도세기도 잡고.
#1 어.
@ 그다음엔 다른 건 엇수과?
#1 다른 건게 제주 준비ᄒᆞ곡.
@ 제주 준비라는 건 술마씨?
#1 술.
@ 게, 술은 누게가 그거 만들앗수과?
#1 남저가. 만드는 건 여ᄌᆞ가 만들고.
@ 술을 만들젠 허믄 주로 어머니들이 헤수과? 아니믄 동네 누겐가 헨 놔둔 거?
#1 아이, 어머님네, 자기 그자.
@ 자기대로?
#1 저, 집에서 이, 저 가세에 맞게시리 ᄒᆞ곡.
@ 으.
#1 어, 감주 ᄒᆞ곡.
@ 감주 ᄒᆞ고.
#1 어. 골감주.
@ 골감주 ᄒᆞ고예?
#1 으, 으.
@ 게민 그 조가 제주 허젠 만들젠 허민 메칠 전부터 그 술을 다까수꽈?
#1 제주를 만들젠 ᄒᆞ민 ᄒᆞᆫ ᄃᆞᆯ 전부터 헤야 뒈어.
@ ᄒᆞᆫ ᄃᆞᆯ 전부터.
#1 ᄒᆞᆫ ᄃᆞᆯ 전부떠 헤야. 어, 제주 그 익어야 뒐 거난에.
#2 그것이 숙성 뒈어야.
@ 게난.
#1 그걸 빠거든게.
@ 맞수다. 무시걸로 헤수과?
#1 아, 기냥 청주로도 ᄒᆞ고.
@ 아니, 게난 그 재료 뒈는 거?
#1 어?
@ 쏠이나 뭐 그게.
#1 그거 소주 내젠 ᄒᆞ민 고소리.
@ 그거 고소리 아니라 그 술 만들젠 허믄, 뭐.
#1 오메기떡으로 허여사주게.
@ 좁쏠.
#2 보리, 보리.
@ 좁쏠오메기떡 만들엉?
#1 어, 좁쏠 오메기떡 허고.

#2 청주 허곡.
@ 청주 허곡. 그다음엔?
#2 또 소주[쏘주]는 보리쌀도 헤근에 영 틔와근에.
@ 보리쌀 틔와근에?
#2 으, 틔와근에 술 둠앙. 경 헹 숙성뒈어야 고소리로 빠거든게.
@ 게, 그 아까 보리로 헌 건?
#2 소주.
@ 소주고 오메기로 헌 건?
#2 청주.
@ 청주고.
#1 그것도 잇고.
@ 예.
#1 오메기로 헨에 청주 허당 남으면은.
@ 예.
#1 남으면은 이거 주셍이가 잇자녀게. 탁베기지.
@ 예, 주셍이론 탁베기?
#1 으.
#2 죽 닮아, 죽 닮아.
#1 으, 탁베길 가지고는 이게 쏢앙은에게 소주 만들어. 소주 뺄 거.
@ 아, 또 탁베기론.
#1 으.
#2 아, 탁베기로도 빼어나수과?
#1 청주 멘들아낭 저 우로, 울로 굴른 건 이제 우에 뜬 건 거 청주고.
@ 으, 청주고.
#1 나머지는 이제 소주.
@ 소주 만들고.
#1 으, 빼고.
@ 으, 경 헷구나예?
#2 그건 완전히 고급 소주주. 그걸로 뺀 건양?

국멩질

@ 그믄 그 멩질 헐 때 어, 그거 다른 마을 보당 보난 국멩질이엔 헤 가지고. 떡, 저기 그 멩질 하기 전에, 새베, 새벡이.
#1 으.
@ 어, 무신 뭐 간단하게시리 떡국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무신.
#2 아.
@ 국수를 먹든가 헤서나신디 여긴 겅 안 헤나수과?

#2 그런 거 허는 집 허고 안 허는 집 잇고?
#1 그 어느 집안이라나신고?
@ 북군.
#2 허는 집인.
#1 북군 아니, 어느 집안? 북군에 어떠헌 집안에?
@ 어떠한 집안에,
#1 그거는.
@ 국수멩질, 국수멩질.
#2 양. 차례 지낼 때?
#1 아니, 아니, 아니,
#2 아니우꽈?
#1 아니. 국 종류. 그거는 만약에 그거 헷다고 보민 그건 큰집이.
@ 아, 기꽈? 으.
#1 큰집인디 웨 그걸 헤야 뒈냐 허면은. 족은집이서 다 멩질 헤사 큰집이 마지막으로 오기 따문에.
@ 예.
#1 그 전에.
@ 예.
#1 그거 헤근에 이거 ᄒᆞ쏠 요기라도 헤야 뒐 거 아니?
@ 예.
#1 그래서 그거 ᄒᆞ는 걸로 보고.
@ 예.
#1 족은집이는 그게 엇거든게.
@ 아.
#1 경허곡.
#1 저, 더럭, 어, 대흘하, 대흘하고예? 삼양에 작년에 갔을 때 보난.
#1 어, 어.
@ 어, 국멩질이렌 허거나 아니면 국수멩질이엔 헤 가지고 새벡이
#1 어.
@ 그거 따로 이제 먼저 제지내기 전에 간단하게 헤 가지고 이제 나눠 먹는 게 이십디다게.
#1 아, 어, 어, 어.
@ 남군에는.
#1 그렇지.
@ 이쪽에는.
#1 우선 경 헹 나놔 먹엉은엥에 그 조끔 요기 헤 가지고 멩질 준비를 허거든게.
@ 맞수다, 맞수다.

#1 아, 아.
@ 여기는.
#1 아무 디도 우리도 뭐 기영 헤낫는디.
@ 예.
뭐 그럴 때도 잇곡. 아녈 때도 잇고.
@ 아녈 때도 잇고. 만일에 경, 경 허게 뒈면 무시걸 어떵 헹 먹어나수과?
#1 아, 그거 다 보통 기자 그거 딸령은엥에게 저.
@ 무시거 딸령?
#1 그때.
#2 형펜에 따랑, 헹펜에 따랑.
#1 뭐 도야지고기민 도야지고기, 소고기민 소고기 뻴 딸리던지.
@ 예.
#1 아니민 저 거시기 어, 멜치.
@ 예.
#1 그거 헤당은에 딸리던지 그거 뭐 구미에 맞게시리 헤근에.
@ 구비에 맞게 딸려근에 거기다 미시거 놩 먹어수과?
#1 국에?
@ 예. 메밀국수 아니민 밀가루국수 아니민 떡국?
#1 메밀국수가 핫주.
@ 메밀국수가 핫지예?
#1 음.
#2 옛날에난양, 메밀을 하영 허난.
@ ᄆᆞ밀. 여기는?
#2 ᄆᆞ믈.
@ ᄆᆞ믈. ᄆᆞ멀로예? ᄆᆞ멀로예?
#1 으, 으.
@ 겅 헤낫구나예.

차례상

@ 그다음에 이제 그 멩질 때 어, 멩질날 돌아온 거 아니꽈예?
#1 어.
@ 제숙도 제주도 이제 다 준비헤근에 멩질을 차리는데.
#1 예.
@ 어, 멩질 찰릴 때 어, 그 차례상 차리젠 허면.
#1 어.
@ 차례상 우에는 무시거 무시거 올라가나수과? 상 우이, 상 우에.
#1 저, 게, 우선 메ᄒᆞ곡.

@ 예, 메허곡.
#1 겡ᄒᆞ곡.
@ 겡ᄒᆞ곡. 겡은 뭘로?
#2 것사 아무 고기라도 놩 헷주기, 그때사.
#1 고기.
@ 그냥 저 쉐고기나 아니믄 저 바다 생선?
#2 아무거나 헷어.
#1 아, 쉐고기나 바닷고기나.
@ 아, 그거 놩. 겡 메역으로?
#1 메역도 ᄒᆞ곡 무우도 놓곡.
#2 놈삐도 놓곡.
@ 메역도 ᄒᆞ곡 무우도 ᄒᆞ곡마씨? 그다음엔 메ᄒᆞ곡 겡ᄒᆞ곡 그다음에?
#1 아, 그다음엔게.
#2 적갈허곡.
#1 저, 채소덜게.
@ 적갈ᄒᆞ고. 채소는 뭐, 뭐 헷수과?
#1 고사리 우선 ᄒᆞ곡.
@ 예.
#1 미나리ᄒᆞ곡.
@ 예.
#1 어, 기타, 뭐.
#2 콩나물이영 그자 미신.
#1 콩ᄂᆞ물.
@ 옛날엔 콩ᄂᆞ물이엔도 안 헷지예?
#2 콩지름. (웃음) 콩지름이엔 헷주.
#1 콩지름이주, 콩지름.
@ 콩지름도 집에서 길랏덴 헷잖아예?
#2 으, 놓아.
#1 어, 집에서 질롸.
#2 우리도 질롸나서.
@ 콩지름 질루젠 허민 ᄒᆞᆫ 메칠 전부터 질롸나수과?
#2 아이고, ᄒᆞᆫ 십 일 전이부터 헤사주.
@ 미나리는 어디 시민 허고?
#1 미나리?
#2 이 뒤에 잇다근에.
#1 미나리는 그 이딘 ᄃᆞᆺ은 디난 미나리 그거 허젠 ᄒᆞ민 일부로 키와사.
@ 일부로 키와사.

#1 으, 으.
@ 아, 겅헷구나예? 게민 콩ᄂᆞ물ᄒᆞ고 고사리하고 미나리 하고, 그다음엔 채소 다른 거 엇엇수과?
#1 다른 거 그디다가 저기.
#2 무우채 허고.
@ 무우채허고 맞아.
#2 거벳기 엇어난.
#1 무우채 썰어 놓고.
@ 그 놈삐도 채 썰 땐 어, 그 채 썬 거를?
#2 쏢앙.
@1 쏢아수과?
#2 으, 쏢안.
@ 살짝 솖앙?
#2 으.
#1 솖앙 기름 치곡 꿧ᄀᆞ루 놓곡.
#2 솖앙은에 무쳥게.
@ 깻ᄀᆞ루 무쳥예?
#2 지름이영 하간 깻ᄀᆞ루영 놩.
@ 게난.
#1 간 헤근에.
@ 기꽈? 그다음에 떡은 무시거 무시거 헤수과?
#1 떡?
@ 예.
#1 솔벤, 절벤.
@ 솔벤, 절벤.
#1 인절미.
@ 인절미.
#1 하, 첨.
@ 인절미, 인절미, 인절미 옛날에 인절미렌 ᄀᆞᆯ앗수과?
#2 인절미엔 헷주.
#1 인절미.
@ 아, 인절미엔 ᄀᆞᆯ앗어?
#2 제펜, 제펜도 ᄒᆞ곡.
@ 제펜도 허고예.
#1 어, 제펜.
#2 옛날엔 그 중궤, 약궤도 막 옛날엔 헤서양?
#1 으.

@ 게난 중궤, 약궤도 헷잖아예?
#1 중궤, 약궤는 큰일 때 대소상이나나 헤엿고 이딘 보통 그거 아녀.
@ 멩질 때, 정월 멩질 때 중궤, 약궤 안 헷수과?
#1 안 헷어.
@ 아, 큰 제사 헐 때? 대상, 소상 헐 때만 중궤, 약궤 헷수과?
#2 으.
#1 어. 그 크게 대소상 헐 때나 그거 허주.
@ 대소상 헐 때. 중궤, 약궤는 그때 헷고에?
#1 그, 그땐 옛날에 헷주. 내려오단 그게 중궤, 약궤가 그거 이 과자 나기 전에 그거 헷주.
@ 음.
#1 게난 그런 거 저런 거 남 시작허난 쭉 그 아주 약헤젼.
@ 음, 겅 하고예? 겅 헹 멩질 찰리고. 멩질 찰릴 때, 그다음엔 맞아. 저, 과일 같은 건 무시거 무시거 헤수과? 옛날에?
#1 옛날에?
@ 예.
#1 뎅유지 ᄒᆞ나.
@ 뎅유지 ᄒᆞ나.
#2 과일이 엇엇주게.
@ 사과나 배가 엇어부난?
#1 어.
#2 그땐 엇엇주게, 엇언.
@ 뎅유지 ᄒᆞ나예?
#1 으.
#2 뎅우지도 철에 따랑 ᄒᆞ나썩 올리곡. 요새추룩 하영은 올려졋어?
@ 것도 귀헤 가지고예.
#1 어. 저 뎅유지 ᄒᆞ나, 큰 거 ᄒᆞ나. ᄒᆞ나 올리주.
@ 음. 겅헷구나예?

과세

@ 어, 겅헹 그다음엔 멩질상을 찰리면 그 세배를 다녓잖아예?
#1 어.
@ 세배 다녔던 거, 어떤 식으로 다니고 어, 어느, 어느 집이 다니고 헌 거 골아줍서.
#1 세배를 다니는 건 우선 끗나면은 동네에 젤 어룬덜.
@ 예.
#1 문여 다니고.
@ 예.

#1 또 그땐 상에 놓면은.
@ 예.
#1 상에 우선 다니고.
@ 예.
#1 어, 그다음엔 뭐, 이웃집이덜 기자 이웃 형님네, 아저씨네.
@ 응.
#1 이런 데덜 뎅이곡.
@ 경헹 총 멩, 세배는 한 메칠 정도 허민 끗나수과?
#1 메칠? 멩질, 멩질날은 그럭저럭이고, 뒷날부터 다니민 ᄒᆞᆫ 삼 일 걸렷주.
@ ᄒᆞᆫ 삼 일예?
#1 예.
@ ᄒᆞᆫ 삼 일이민 게도 웬만헌 딘 다 다녓수과?
#1 다 다니고. 에, 처가칩이 가젠 ᄒᆞ민은, 뒷날 갓다오젠 ᄒᆞ민 삼 일 더 걸릴 사름도 있을 거, 잇엇일 게고. 각각일 테주, 뭐.
@ 그 세배 어, 다니문 두릴 때.
#1 어.
@ 이제 아부지네영 ᄀᆞ찌 다닐 거잖아예?
#1 어.
@ 다니믄 그 세뱃돈 같은 건 어떵 헤수과?
#1 아, 옛날엔 돈이, 세뱃돈이 엇엇어.
#2 돈이 어딧어?
@ 게, 아무 것도 안 줘수과? 먹을 건?
#1 아, 먹을 거 가민,
#2 감지 주주게.
#1 감지나 주곡. 엇이민 기냥 보내곡 허주, 무신.
@ 기냥 보내고예? 음 경헷구나예. 한 삼 일 헷덴 허고예? 그다음에.
#1 그, 어른덜은 가믄 뭐 탁베기 이시민, 첨 청주, 청주나 ᄒᆞᆫ 잔.
@ 어른들은?
#1 으. ᄒᆞ곡. 감지나 ᄒᆞᆫ 잔 ᄒᆞ영은에 ᄒᆞ곡. 그거주, 뭐.
@ 음. 게민 청주나 감주나 이런 거 하영 헹 나둬야 뒈켜예? 멩질에.
#1 아이구, 넉넉히 헹 나둬야 뒈주.
@ 아니게 난 젤 궁금한게, 전화도 없잖아예? 그믄 이제 세배허레 갈 거잖아예?
#1 어.
@ 게믄 누게산디는 우리 집도 와야 뒈잖아예?
#2 (웃음).
@ 그런 것들은 어떵 맞춰신고마씨?
#2 웃음.

@ 그런 것들을.
#1 뭐, 온 사름덜?
@ 예.
#1 어, 다 저, 그 아무 집이나 가질 아녀주게 .
@ 게, 아무 집이나 가진 아녀긴 헤도.
#1 어.
@ 난 세배허레 가살 건디 누게산디 우리 집에 왓을 때.
#1 어.
@ 서로 만나지 못헐 거잖아예?
#1 어, 어, 어.
@ 경 헐 땐 어떵 헤수과?
#1 아, 어떵 헤여. 못 만나민 못 만나는 대로 ᄒᆞ영은엥에. 다음 이제 만낭, 질에서라도 만나근에 인사.
@ 게난. 지금사 전화 이시난 세배허레도 안 다념수다마는.
#1 어.
@ 이, 엇일 땐 막 다녀시멍.

정월 대보름

@ 어, 그다음에 멩질 끗나면 어, 그 정월 대보름이 오잖아예?
#1 어, 어.
@ 지금사 대보름 아메나 지내주만은, 옛날엔 대보름 땐 뭐, 뭐 헤수과?
#1 대보름 때에 우리 일제시대에 헤난에, 일제시대에 아이구, 그 생각은 못 헷주. 당추.

액막이

@ 무신 연날리기 같은 것도 안 헷수과?
#1 어?
@ 연날리기. 연 날리는 거?
#1 엿날에?
@ 예.
#1 엿날에 대보름 때 뭐 그 나그네 춪임이엔 나그네 춪는 사름덜 이서나시카?
@ 나그네 춪는 사름들마씨?
#1 나그네엔 ᄒᆞᆫ 거.
@ 예.
#1 그 무당덜 헤근에게 올레코시나 ᄒᆞ곡.
@ 예.
#1 영 헤나지 아녀신가 몰라.

#2 경 ᄒᆞ는 집인 ᄒᆞ곡, 못 ᄒᆞ는 집인 아녓수다.
#1 아, 게난 못ᄒᆞ는 집은 잘사는 집이라야 ᄒᆞᆯ 거주.
@ 무신 막 떡점 같은 거 허지 안헤수과?
#1 떡점?
@ 예. 막 여자 어른, 여자 그 처녀들 모영, 비바리들 모여앉아 가지고 무신 영 떡점 허멍 그.
#1 아, 그런 풍속은 엇어.
@ 아, 엇엇수과? 신예린. 그러면 보름에 대헤서는 특별나게시리 그 지냇던 것들이 없이 지내고예?
#1 으.
@ 어, 그다음엔 그 일월에 보름 명, 멩질 막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그 방사하거나 액막이. 그니까 아까 그 나그네 불러근에 굿도 하고 겅 헤낫잖아예? 그렇게 할 때 그 불렁 굿허거나 이렇게 할 때 어, 어떤 식으로 헤수과?
#1 어떤 식이라고 허기가?
@ 게난 집에서 헤수과? 아니믄 어디 아까 그 당이라도 가가지고 헤수과?
#1 아이, 그 저.
#2 매집이 허질 아녀난게.
#1 매집이 아녕 그, 저 올레, 올레코시, 올레코시 헤영은엥에 올레에서 영 헤영은엥에.
@ 올레코시?
#1 올레코시. 액막이엔 헤근엥에 독 ᄒᆞᆫ ᄆᆞ리 헤당은에게 바치곡 영 헤여낫젠 헌디 우린 아녀봣어.
@ 음, 아. 기구나예.
#1 어. 우리 집인 아녀봣어.

포제

@ 음. 그 포제헷던 건 기억나지예?
#1 예.
@ 제관이라도 헤나수과?
#1 예?
@ 삼춘이?
#1 어, 어.
@ 어 그 포제할 때.
#1 예.
@ 어, 금줄 같은 거 헤수과?
#2 원, 줄, 모양, 모양 헤난 집이만.
@ 줄 무끄는 거.

#1 줄, 포제 뭐 드르팟디서 허는디 금줄 멜 거 무시거라?
@ 아니, 그거 허게 뒈면 그, 저 어디 포젯단 같은 디. 아니면 그 저 사람들 한 곳에 막 모여근에 제관들 헐 때까지 허잖아예? 게믄.
#1 그런 거 없어.
@ 그런 거 전혀 엇엇수과? 아, 한 곤데 모아 가지고 그 몃 날 며칠.
#1 몃 날 며틀 허는디게, 몃 날 며틀 허는디게 금줄 메언에 미시거 헐 거라? 사람들 갓 다리왓다리 허는디. 금줄이엔 허는 건 부정헌 사람들 못 오게시리 금줄 허는 건데.
@ 예, 예.
#1 포제 ᄒᆞ민 이제 만약에 여디가 초헌을 마탓다.
@ 예.
#1 허민, 이디 초헌 칩이덜 다들 오거든게.
@ 예.
#1 게, 초헌 집이 다, 이제 위문이라 홀까 다들 온단 말이여.
@ 예.
#1 게, 그 사람들 왓다갓다 ᄒᆞ는 디 포제 어디 금줄 엇어.
@ 아, 그 초헌 집에 사람들, 제관들 모이민.
#1 으.
@ 왓다갓다 헤마씨? 그냥. 아, 집안에만 잇는 게 아니고?
#2 아니, 딴 사름덜이 그디 놀레 오주게.
@ 아, 놀레 와도 뒈나수과?
#1 으, 으.
#2 으, 무시거 먹을 것들 아지곡 헹 가.
@ 아, 겅 헤나수과?
#1 떡덜 아지곡 헹은엥에게.
@ 남자 어른들만?
#2 으.
@ 여자도 와지고?
#2 아, 여잔?
#1 아 여자도 아니, 음식은. 음식 따라 가는데 여자가 따라가야 뒈주.
@ 아, 기구나예?
#2 밥을 제관칩이서 그 모이는 집이 이녁만썩 다 자기대로 헤 가.
@ 그믄 그 포제 치는 그 차례를 골아 줍서. 제관들 모영 잇당 이제 무슨 날 잡앙. 날 잡는 건?
#1 초정에.
@ 초정일에 헤 가지고.
#1 으.
@ 예.

#1 이제 초정이면은 이제 초정일 삼 일 전부떠.
@ 예.
#1 이제 제관들 흔 집에 헤근엥에.
@ 예.
#1 그디서 이제 관리를 허거든. 어디 가지 못허게.
@ 예.
#1 에, 거기서 이제 집이서 때 헤주민 그디서 때 먹곡 헤근에 흔 삼 일 잇당은에.
@ 예.
#1 에, 초정 새벡일 둥기젠 ᄒᆞ민, 우선 초정 아시날부떠 그 어두와 가가민 젯단에 가근엥에.
@ 예.
#1 그디 강 대기헷당.
@ 예.
#1 새벡 뒈민은 제 올리는 거.
@ 어. 그 제 올릴 때?
#1 예.
@ 제 올리기 전이 무신 뭐, 흑이라도 뿌린다든가 이런 건 엇엇수과?
#1 아, 그런 건 엇고.
@ 으. 제를 올릴 때 제물은 뭐, 뭐 올려나수과?
#1 우선 뒈야지 잡아야 뒐 거고.
@ 예. 뒈야지 잡앙 통째로 헷지예?
#1 어. 도량서직.
@ 무시거마씨?
#1 도량서직.
@ 도량서직? 그건 무신 말이꽈?
#1 도엔 헌 건 베에 저 나룩허고.
@ 예.
#1 량이엔 헌 건 거시기 대죽허곡.
@ 예.
#1 저 거시기.
@ 예.
#1 거 몰라. 그, 저, 저, 저 훑어근에 떡허는 거 잇잖아? 그 량.
@ 예. 수수.
#1 으, 서직에는 피.
@ 예, 피 맞아.
#1 어.
@ 예.

#1 직이엔 헌 게 그거 미신 그것도 피 종류일 테주만은. 우리 제주도엔 엇이난에. 그거 어디 저 이게 저 북방에서 내려오는 풍속이난에.
@ 예.
#1 그 곡식도 북방에서 나오는 거.
@ 아, 기구나예.
#1 음.
@ 아까 지도 한 가지 피 종류꽈?
#1 어? 직도 피 직이난에.
@ 피 직?
#1 어.
@ 아. 직. 도량서직.
#1 으. 도는 베 도. 량은 저.
@ 대죽.
#1 어.
@ 서는 피.
#1 어.
@ 직은?
#1 직도 역시 피 직이엔 허여시난 뭐 그 종률 테주.
@ 맞아예. 예, 알아수다.
#1 가을에 나는 건.
@ 그믄 도세기 통채로 잡앙 올리고 생걸 올렷지예? 도세기도예?
#2 곶인 차 올리젠 ᄒᆞ민 곶인 거 숣아져게? (웃음)
@ 그난.
#1 통째로. 아이, 거 저 포제는 문딱 생 거.
@ 게난 배나 대죽이나 피도 다 생걸로?
#1 아니.
@ 그건? 게민 이건 어떵 헤수과?
#1 메.
@ 메로. 다 서껑 메 만들앙?
#1 으.
@ 음. 아 그다음엔 뭐 또 잇어나수광?
#1 거 다 알아지크라?
#2 아이구, 정신이 너미 잘 좋수다.
@ 좋수다, 진짜.
#1 그거 올려다가. 그거 올리고 그거 저 도량서직에다가 요 베 노는 이제 훼로 헹 올리곡. 뭐.
@ 훼?

#1 포, 훼. 훼, 뭐 채소.
@ 훼는 그 저 바다물고기로 헷다는 말이꽈?
#2 양, 메역채.
#1 훼는 그 저, 거시기. 음, 소천엽이라던지.
@ 아.
#1 소간이라던지.
@ 아, 것도 생걸[생걸]로?
#1 으, 생걸[쌩걸]로.
@ 음. 아, 그런 것도 올렷구나예?
#1 으, 으.
@ 그다음엔 채소는 아까 고사리, 미나리, 콩나물 그런 거?
#2 그디도 그런 거. 그디도 헤나수과? 그런 것도?
#1 고사리 ᄀᆞ뜬 건 엇주.
@ 게민 채소에서 고사린 안 허곡. 게민 뭐 헤나수과? 포제 할 때?
#1 그거 저 거시기 백근이엔 근, 백근이엔 홀 처린가? 그 흰 채소 올린덴 허는 게, 무우채 헨에 올린 걸로 봐지는데.
@ 아, 무우. 놈삐.
#1 하양헌 거.
@ 아, 흰 걸로. 음.
#1 그 오색 영 헹 곶추와 보젠, 오색.
@ 예. 오색 곶추젠 허면은 채소로 오색 곶추는 게 아니라, 아까 쉐 그 간이나 천엽이나 이런 거.
#1 으, 으.
@ 다 합쳐근에 다섯 가지 색깔을.
#1 으, 으, 으.
@ 아, 기구나예? 하얀 건 무우로 하고.
#1 그디 빨간 거 들어잇을 테고. 까만 거 들어 이실 테고.
@ 아, 예.
#2 빨간 거, 간은 빨강헌 거난에.
@ 게난. 겅 하고. 제물에 그면은 어, 바당에 건 아무것도 안 올렷수과? 포제 할 때.
#1 바당에 거?
@ 예.
#1 에, 그.
#2 메역 헤나신가양? 메역채.
#1 그 이 저기 그 생복 ᄀᆞ뜬 거?
@ 예.
#1 그 특수헌 거난에. 그건 옛날엔 그런 거 아녓주만에 근간에 오랑은 그런 것도 올

리단에.
@ 올리단. 어.
#1 어떤 데 보난에 그거 바당엣 거 허지, 뭐 청결치 못허다라고 헤서 걸 또 중지헨에 기냥 옛날대로.
@ 음. 옛날대로예? 으, 알아수다.

당제

@ 그다음에는 그 당에 제지낼 때, 그 어쨋든간 정월이나 이월 삼월까지는 당에 강들 제들 지냇잖아예?
#2 몰라. 이디 사름덜은.
@ 아, 기꽈?
#1 어.
@ 본향당에 강 제 안 지내수과? 아까 일뤳당에 강.
#2 아니.
#1 아, 일뤳당에.
#2 제 안 지내.
#1 그거는 개인적이주.
@ 게난 개인적으로. 게니까 개인적으로 제지내는.
#1 개인적 제옌 헌 거 엇어.
@1 아.
#1 기냥, 기냥 그거 도서물창에 메 흔 그릇 헹 강은에 기자 영 케뿌령 기자 오는 수가 잇는디.
@ 음.
#1 요자긴 넘어뎅이단 보난에, 넘어뎅기멍 질엠에 뒈어 잇주. 그 아래 막 다여져서 잇어.
@ 음.
#1 게난에 개가 누워사나신디 사름 그게 아니고.
#2 사름 뎅겨난 흔적은 베랑 엇입디게양?
#1 아니, 아니. 낭썹이 딱 꼴아젼 잇어.
@ 음.
#1 이, 저 아레 누원 잇어. 바닥에 이거 다려졍 잇어.
#2 으. 낭.
#1 게난에 이거 아, 지금도 이거 사름 뎅겸신가? 난 생각헷주.
@ 음.
#2 사름 뎅길 거우다게.
#1 게난 그거 옛날에는 밧광 밧 사이에 이만큼 쭉 헹 가는디.
@ 예.

#1 지금은 요거 주차장으로 싹 헤여 불엿주.
@ 아.
#1 게난 요 주차장으로 헤연 욜로 요영 넘어오게 뒈어 잇어.
@ 음.
#1 영 허영 알로 쳐 놩.
@ 음.
#1 겐디 넘어 오멍 이걸 바리게 뒈어 잇주.
@ 음.
#1 게난 이게 기자 낙엽이믄 영 상 잇어야 뒐 건디.
@ 게난.
#1 이거 바짝 영헌 거 보난에 나 그때 느낌은 아, 지금도 사름 뎅겸구나, 헌 거 생각헷주.
@ 음, 기구나예? 음. 아, 뭐 특별나게 정월이나 이월에 개인적으로 강, 빌레 그냥.
#1 아, 그거는, 그건, 그건 몰르고게. 건 가인이 허는 거니깐 건 모르고.
@ 아, 기구나. 안 가보고마씸? 삼춘넨 안 가보고? 어머니네도 안 가보고? 응. 알아수다.

안택

@ 그다음에는예? 어, 그 정월에 보면 또 칠성제나 문전제, 아까 올레코시 아까, 저 뭔 헌덴 헷잖아예?
#1 예.
@ 어, 주로 칠성제 하는 집도 잇엇수과?
#1 에, 에.
@ 엇언? 문전제는?
#1 문전제엔 헌 건 특별히 ᄒᆞ는 것도 엇고. 그 저기 아까, 아까 무사 그걸, 그걸로 끗나는 거주게.
@ 음.
#1 거 문전제는 멩질 때 ᄒᆞ는 게이고.
@ 멩질 때도 문전제 헷잖아예?
#1 어, 어.
@ 문전제 허멍 올레코시도 헤수과?
#1 아니.
@ 안 헨? 그냥 문전제까지만?
#2 문전제는.
#1 아, 올레코시, 문전제 헤시민 올레코시 이중으로 헤근에 뭐 허젠?
@ 맞수다예. 아, 그다음에 경헤도 그, 저 무시거꽈? 제사할 때 제지내기 전에 부억에서 하는 거 뭐렌 굴읍니까?

#1 제지낼 때 부억에서 허는 거 미시거 잇어?
@ 정제에서 허는 제. 아니믄 저 그, 고팡에 허는 제는?
#2 그건 칠성에 놓넨 흔 거주.
#1 고팡에 허는 거.
#2 그건.
@ 칠성제? 그것만?
#1 아니, 아니.
@ 것도 안 하고? 칠성제는 이 마을엔 안 허고?
#1 우리 집이는 안 헤나시난 건 몰르고.
@ 모르지. 맞아예? 으.

보리밭 밟기

@ 어, 그다음에 일월에는 어, 농사지은 거 뭐 잇엇수과?
#1 저을에 농사짓는 건 엇엇주. 저을에 무신 농살 짓어?
@ 게도게 보리라도 밟을 거 아니꽈?
#1 에?
@ 보리, 보리밟기.
#1 보리밟기 어떵?
@ 일월에, 정월에 안 헤수과?
#2 에, 안 헷어.
#1 아니, 가을 틀민 헷주. 정월엔 보리가 나근에 이만이 커야 뒈주.
@ 정월에는.
#1 어.
@ 게믄 보리밟기는 주로 언제 헤수과? 보리 밟는 거?
#1 보리 붋는 거?
@ 예.
#1 어, 이월, 삼월. 양력 이월, 어, 정월둘에 헷주, 정월둘에.
@ 정월달에 헷잖아예?
#1 으, 으.
#2 베랑 불랏어? 이딘 뚯은 디난. 베랑 안 불랏어.
#1 아이, 거 옛날에 헷주게, 옛날에.
#2 예.
@ 게, 보리 밟을 땐, 보리.
#1 으.
@ 주로 사름이 강 붋아수과? 아니면 물이나.
#1 아이, 아이. 사름으로 불라.
#2 사름 불라사지.

#1 것도 웨 붋느냐 허민 그땐 울긋 땅이 곳앙 영 올라, 올라오라 불주게.
@ 게난.
#1 게난 이걸 눌러 주는 건디 갓다리왓다리 흔 멧 번 ᄒᆞ민 그거 눌떠지민 뒈는 거.
@ 아, 기구나예.

걸궁

@ 어, 그다음엔 또 정월 멩질 끗난 다음에 정월 보름쯤 헤 가지고.
#1 어.
@ 여기서 그 걸궁 같은 건 안 헤수과?
#1 걸궁 ᄀᆞ뜬 건.
@ 아예 한 번도 안 헤봔예?
#1 으.
@ 저, 일제 강점기, 일제 때 지낭은에 그 저 사삼 전이도 안 헤수과? 아, 안 헷구나예?

입춘

@ 게민 정월 그다음에는 이제 입춘이 잇잖아예?
#1 에, 에.
@ 입춘 때엔 어떵 헤수과?
#1 입춘에 때는 뭐 이상 엇주.
@ 무신 게도 대문에 뭐 썽 부치지도 안허고마씨?
#1 그거.
#2 그거 베랑.
#1 저, 에 일제시대에 그것 없어져 부려, 저 웨 ** 사삼사건 나, 육이오 터져.
@ 으.
#2 그 전엔 두려 부난게.
#1 그 후젠 삶이엔 ᄒᆞ단 보난에 이제 또 그, 이제 그 과수원 헨에 그거 ᄒᆞ기 시작헤연 ᄒᆞ난에 그 붓 심는 사름들이 극히 드물엇주게.
@ 음. 아, 기구나. 그래도 여기는 막 양반촌이난 입춘 때 입춘대길 헤 가지고 그런 거 막 부칠 거 닮은디.
#1 부찜도 헷주. 부찜도 헤주만은 그게 뭐 대수럽질 그렇게 생각을 아녓주게.
@ 아, 겅헷구나예?
#1 으.
@ 음.
#1 입춘대길 그거 부찌민 어떠난, 거 입춘대길 부찌민은 아, 그 사찰에덜 가면은 절간에덜 가면은 이만썩헌 것들 나눠주주게.
@ 아, 기꽈? 아, 절간에 가면은.

#1 그거 대리헹 부쪄 불민 뭐. 이, 집이 신 사름들은 그것.
@ 음. 아, 직접 썽 부친 게 아니라 절간에 가면 주면 부쳐낫구나예?
#1 음, 그거.
#2 지금도 줍니까?
@ 지금도 부치는 사름은 엇수과?
#1 입춘대길? 절간에?
@ 아니, 지금도 입춘대길, 집에.
#1 에, 거 엇어.
@ 이젠 아무도 안 부쳐?
#1 에, 에.
@ 아, 기구나? 으.

이월

@ 그다음에는예? 그 음력 이월 들민.
#1 으.
@ 저기 영등 들잖아예?
#1 예, 영등굿. 이, 저 영등굿이엔 헌 게.
@ 예.
#1 바닷가에서 영등굿인지 몰라도 이 웃드르엔 영등굿이엔 헌 게 엇주.
@ 아, 안 헴구나예? 경헤도 특별하게시리 어, 영등 때 뭐, 따로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도 전혀 엇엇수과?
#1 에당추, 엇어.
@ 그믄, 우수가 지나고 이제 그 경칩이니 춘분이니 오잖아예?
#1 에, 에.
@ 그땐 미시거 헤수과?
#1 그런 절기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엇어.
@ 아, 춘분에 가 가지고 뭐 산담이라도 손질한다든가 그런 거 엇엇수과?
#1 그거 ᄒᆞ는 사름덜 가인으로 ᄒᆞ는 거야 뭐 거 알아져?
@ 맞아예.
#1 개인으로 허는 거사 뭐.
@ 음, 기구나예?
#1 춘분.
#2 매 집에 ᄒᆞ는 게 아니난게.

삼월

#1 그 이제 청명에덜 강은엥에 뭐 제도 ᄒᆞ곡 산담도 손질ᄒᆞ곡, 테도 손질ᄒᆞ곡. 영덜 헤낫주.
@ 건 청명에 허는 거지예? 청명에예?
#1 청명.
@ 게난 음력 삼월 나근에예?
#1 예.
@ 혹시 한식, 혹시 한식 멩질은 안 헤수과?
#1 옛날 옛적엔 ᄒᆞ다가.
@ 게난 옛날 옛적에 어떵 헤수과?
#1 어, 옛날에게 ᄒᆞ다가 거 우린 한식 멩질 아이 먹어봣어.
@ 아, 안 먹어 봔. 아, 게믄, 기구나, 그믄 일제 때도.
#1 우리 난 일제시대 난 사름이난에 이제 일본놈덜 오기 시작ᄒᆞ난 그런 거 일체 엇엇주.
@ 아, 기구나예?
#1 어.
@ 그 청명 땐 아까 산담 강 손질이나 허고 겅 허고예?
#1 어, 청명 ᄒᆞ고, 거, 청명 한식에 천리도 ᄒᆞ곡 그것도 ᄒᆞ곡.
@ 맞수다.
#1 에.
@ 혹시 곡우 때는 뭐 따로 농시짓는 준비 같은 건 안 헤수과?
#1 아니, 곡우 넘어가는 지도 몰르고, 곡우가 뭔 처레도 몰라.
@ 아, 기구나예?
#1 (웃음)
@ 여기 경헤도 소, 쉐 같은 건 질루지 안헤나수과?
#1 물?
@ 예, 물이나 쉐나.
#1 에.
@ 거 질룰 때 어, 그때 뒈믄 쉐덜 어떵 그 목장으로 보낸다던가 그때 허지 안헨마씨?
#1 청멩에 보냇주. 청멩에.
@ 게난, 청명에 보냇잖아예?
#1 에.
@ 청명에 보낼 때 주로 쉐는, 어, 여기 목장은 어디라나수과?
#1 이디 신예리 목장이랏주.
@ 게, 신예리 목장에 다 그디 보내수과?
#1 에.

@ 따로 그 쉠 봐주는 사름도 잇고마씨?
#1 돌아가멍 봐낫주.
@ 아, 여기서는 돌아가멍 봣수과?
#1 에, 에.
@ 한 멧 ᄆᆞ리쯤 이섯수과?
#2 아이.
#1 아이고.
#2 것사.
@ 게도.
#1 에. 췌, 하이고 옛날에사 뭐 흔 ᄆᆞ리.
#2 집마다 이시난에.
#1 흔 집마다 잇곡. 쪼금허민 흔 집이 흔 대읏슷 ᄆᆞ리덜토 잇고. 몰덜토 잇곡 흔디. 몰덜토 백 수ᄁᆞ지 잇어근에 기냥 할락산에 기냥 봉 내부는 사름덜토 잇어나고.
@ 음.
#1 어, 그 중간에 허단에 이 경운기가 나기 시작ᄒᆞ난에 쉠가 엇어져 불엇주.
@ 아, 경운기가 나기 시작허난.
#1 예, 예.
@ 맞아예. 경운기 난 거 혹시 언제쯤 경운기 난 거 혹시 기억남수과?
#1 그것도 안 나고.
@ 안 나고.

사월

사월 초파일

@ 그다음에는예? 이제, 어, 사월 들어 가지고.
#1 예.
@ 초파일이 잇잖아예?
#1 예.
@ 여기서 게도 초파일에는 저기 많이 절에들 갓지예?
#1 예.
@ 초파일에는 주로, 어, 집에서는 어떤 거 잇엇수과?
#1 집이서 허는 거 엇주게.
@ 아이들 무사 머리 까까주고.
#1 에, 에. 그런 거 옛말.
@ 머리 안 까까수과?
#1 에에.
@ 거 이상허다? 옛날에 그 옛날에 초파일날 아이덜 머리 빡빡 안 까까줘나수과?

#1 까까줘난 거 그.
#2 그건, 곳난애기덜 쳇번 머리 곳을 때.
#1 어, 어, 어.
@ 그때만.
#2 으, 그것만 경 헷주. 다른 땐.
#1 맞주게, 쳇 번, 쳇머리 까까줄 때 초파일 가까줘.
@ 기구나예?
#1 어, 어.
@ 그다음엔 초파일 때 어, 절에 갈려고 하면 어떤 것들 준비허멍 가나수과?
#1 절에 갈라고 허민.
@ 예.
#1 옛날에덜은 저 쏠덜 아졍 가나실 게고, 지금은 현찰.
@ 아니게, 옛날에.
#1 옛날에 쌀이나.
@ 쏠?
#1 쌀덜 쏠 아졍 가실 거여.
@ 그 쏠덜도게 그때 가져 가젠 허믄 곤쏠들 잇엇수과?
#1 으. 곤쏠.
@ 아, 여기서는.
#2 밧디.
@ 여기서는 산디?
#2 산디.
@ 산디를 헤 가지고?
#1 으.
@ 여기 산디 하영 헤나수과?
#2 하영 헤낫주게.
#1 그 하멍 말멍, 거 쓸 만이 헤낫주. 떡헤영 먹젠 헤도 ᄒᆞ고.
#2 제서 때도.
@ 음.
#1 그 멩질ᄒᆞᆯ 때 그 특별히 먹젠 ᄒᆞ민은 ᄒᆞ는데.
@ 음.
#1 산딘 ᄒᆞ젠 ᄒᆞ민 다른 거보다 좀 까다로와.
@ 까다로와.
#1 에, 에. 그래서 많이 ᄒᆞ진 못ᄒᆞ주게.
@ 아, 기꽈?
#1 으.
@ 음. 게 삼춘넨 산디 헤나수과?

#1 산디 헤낫주게. 집집마다 허엿주게. ᄒᆞ쏠썩.
@ 음. 기구나예. 집집마다 ᄒᆞ쏠썩. 그리고 초파일날 산디 같은 거 가져갓고예? 그다음엔 그 사월 뒈민 입하하고 소만 잇어낫잖아예?
#1 어.
@ 그땐 뭐 헤난 거 엇수과? 농사라도.
#1 입하, 소만?
@ 예.
#1 입하는 이거 지, 지금 지나갓주.
@ 예, 예.
#1 입하에 산디 갈지 아녀신가?
@ 입하에 산디 갈아수과?
#1 아니, 입하, 아니, 아니, 그 틀렷저. 입하엔 불써 산디 낫저. 가는 거 엇고.
@ 음. 아, 기꽈? 입하 소만에 특별히 허는 거 엇엇수과?
#1 게난 이 우선 보리 수확을 헤비야 따시 농사를 지을 거난게.

오월

오월 단오

@ 거난 이제 보리 수확에 들어가크라예?
#1 어.
@ 그다음에 오월에 들어근에 단오가 잇엇잖아예?
#1 어.
@ 옛날에 단오 멩질도 헤낫잖아예?
#1 어.
@1 단오 멩질은 주로 어떵 헤나수과?
#1 단오 멩질이야 보통 뭐 보통으로 ᄒᆞ지, 뭐. 특별히 무신 족으나 하나 허여.
@ 겡 단오 멩질도 어, 정월 멩질처럼 출릴 건 다 출려수과?
#1 예, 에.
@ 어. 기믄 단오 멩질은 자기 식구들끼리만? 권당들 같이?
#1 세배 아이 뎅길 뿐이주, ᄀᆞ트, ᄀᆞ트메.
@ 세배 아니 뎅길 뿐이주, 권당덜은 다 모영 헷구나예?
#1 어.
@ 그렇구나예, 음.
#1 ᄌᆞ순덜이야 다 모여사주기게.

망종 · 하지

@ 아, 기구나예? 그다음에 오월에 보면 이제 망종하고 하지 이신디.

#1 으.
@ 이제 보리가 다 익어 가지고 그 거둘 때잖아예?
#1 으.
@ 보리 거둘 때가 언제엿수과?
#1 망종에 보리ᄀᆞ슬흔덴 ᄒᆞ주.
@ 망종에 보리ᄀᆞ슬헌덴 허는데, 혹시 그 망종에 보리ᄀᆞ슬허지 않으믄 안 뒌다는 어떤 그 저 속담 같은 거 엇엇수과?
#1 망종에 그전이 아니 헤 불면은 비 오라근에 보리가 저 꺼꺼져 불어.
@ 아, 그때 안 비여 불민.
#1 으.
#2 너미 익으민 낭뎅이가 힘이 엇엉.
#1 꺼꺼진 냥 비 오라가민 그게 밧디서 기냥 나 불어. 싹이, 싹이 터 불주게.
@ 아.
#1 온도가 노프기 따문에.
@ 음.
#1 씨가, 씨가.
@ 게믄 망종 전이 보린 다 거둬야 뒈쿠다예?
#1 으.
@ 하지에는 어떵 헤수과?
#1 하지에ᄁᆞ지도 보리덜 잇엇주, 잇엇어.
@ 잇엇수과?
#1 음.
@ 게믄 어, 보리농사 헤 가지고 그다음에 그다음 보리밧디 보릿그르 갈아 가지고 무시거 심엇수과?
#1 보릿그르 갈앙은엥에 뭐 고구마도 심고.
@ 그게 언제꽈?
#2 조도 불리고.
#1 고구마 심기 전에 그 조 불렷주, 조.
@ 게, 조 불렷잖아예?
#1 으.
@ 게 조 불리는데 망종, 망종 전이 웬만허믄 망종에서 하지 전이 보리를 다 수확허잖아예?
#1 예.
@ 그 조는 그 후에 어느 정도 조를 헤수과?
#1 하지 전후엔덜 헷주게.
#2 하지, 하지에 산딧그르 불린덴 헷어양?
#1 으.

@ 음, 기구나. 그믄 조 불리젠 허면 보릿그르 헤난 그 보릿그르 저, 밧을 갈잖아예?
#1 어, 어.
@ 갈 때 흔 번만 갈앙 헷수과?
#1 어, 보릿그르 흔 번이민 뒈주.
@ 흔 번만 갈아?
#1 어.
@ 그 흔 번 가는 걸 뭐렌 골앗수과?
#1 초불.
@ 그냥 초불만. 초벌갈이만, 초불만 갈아근에 바로 그냥 조, 조 갈아수과?
#1 어. 두불밧이엔 흔 건 아주 좋은 밧디서 두불밧이엔 헹은엥에. 막 두불, 초불 갈앗당.
@ 예.
#1 두불밧은 늦게 ᄒᆞ주게.
@ 아, 예.
#1 왜 일찍ᄒᆞ민 웃자라 비여.
@ 아.
#1 어, 겡 헹 초불 안 갈민 또 아이 갈아놔 두민 풀이 무성허여.
@ 으.
#1 게민 그걸 더퍼 놔뒀당 다른 웃드르 밧디 다 헤정 마지막으로 두불밧 그, 두불 거 마지막으로 헤영은에 좋은 밧디덜은 헤영은에 그거.
@ 아. 그믄 조 갈젠 허면 조 갈기 전에 어 그 제석할망 제사 같은 건 안 헤수과?
#1 아이, 엇어. 그런 거 없어.
@ 음. 제석제 허는 디도 잇어낫젠 허지 안헤수과?
#1 아, 그런 거 엇엇어. 제석제 헷젠 헌 딘 엇엇어.
@ 그 조 갈젠 허믄 강 그 밧디 보릿그르 갈젠 허면 주로 쉐로 갈앗잖아예?
#1 으.
@ 게민 그디 강 보면은 그 저 그.
#2 밧 가는 거?
@ 아니, 아니. 그 제석할망밥사발이엔 헤 가지고 영 생긴 뭐 잇어나지 안헷수과? 속에 까만 알멩이 영영영영영.
#2 잇어, 잇어.
#1 으, 으.
@ 그걸 무시거렌 골아수과?
#2 제석할망밥사발이엔 우리 검질메멍 보민 그거 나오는디.
#1 그게 즉 말허자민 저 거시기 초기 종류 아니라? 그거.
@ 맞수다, 맞수다.
#1 초기 종륜디 에, 그 잘 걸롸난 밧디 그게 나지, 아무 밧디나 안 나주게.

@ 잘 걸롸?
#1 걸롸서, 걸름 많이 헤나민.
@ 걸룬 밧. 잘 걸룬 밧.
#1 으.
@ 잘 걸루젠 하면 무시걸로 걸뤗수과? 쉐똥 같은 거?
#1 어.
@ 음.
#1 저디 해벤이렌 물망덜 놓고.
@ 아, 물망덜 갖다근에.
#1 어.
@ 그것 놩 밧을 가는 거라예?
#1 어.
#2 요샌 그것도 바당에서 썩엉 춤 처치허지 못헹 헤도 그땐 것도 어려왓주.
@ 맞아예. 음. 맞수다예.
#2 문딱 헤가는 따문.
@ 겅 헹 그 저기 초기 같은 거예, 제석할망밥그릇이. 게서, 아니 영 보민 어떤 마을에 보면 제석할망밥그릇에 그 까망한 것들이 하영 이시믄 이제 풍년이 뒈고. 이제 그 까망헌 게 이젠 얼마 엇이믄 이제, 으, 비가 안 온덴 물른덴 허면서 그런 말도 잇언 게만은.
#1 아, 그것도 경험이주. 거 다 자연의 이치니까.
@ 예.
#1 자연의 이치니까 그것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주게.

유월

유월 스무날

@ 아까까지 하지까지 하고예?
#1 으.
@ 그다음에 이제 유월에 들어서민 어 둑 잡아먹는 날 잇잖아예? 유월에.
#1 유월 쑤무날?
@ 유월 쑤무날. 맞수다. 으, 그날 무사 둑 잡아, 둑 잡아먹는 날엔 헴수과?
#1 농서 짓곡 하도 지쳔에 보신허젠들.
#2 (웃음).
@ 맞수다, 맞수다. 음. 게 삼춘네도 둑 잡안먹젠 허민 그 둑은 사당 먹어수과? 질뢍 먹어수과?
#1 질뢍 먹엇어. 둑 잡아먹젠 ᄒᆞ민 정월둘에 비에기 께와사. 정월 비에기라 헤서.
@ 정월 비에기로.

#1 어.
@ 음. 경 헹 어, 둑을 잡아먹을 땐 그 멧 ᄆᆞ리 정도 잡아먹어수과?
#1 일인당 혼 ᄆᆞ릴 테지, 뭐.
@ 일인당 혼 ᄆᆞ리?
#1 아니민은 뭐 큰 둑이면은.
@ 예.
#1 정월 비에기라사 혼 사름 먹지?
#2 예. 늦엉 깨왕은 혼 사름 못 먹어, 족앙.
#1 어, 게난에.
#2 정월.
@ 아, 멧 달 키운 거꽈? 게믄. 정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1 으, 반년[발련].
@ 아, 육 개월을 질롸도. 아, 옛날엔 놓앙 키우난 확 안 컷구나예? 음, 기구나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닥, 둑 잡아먹고, 유월 쑤무날.
#1 으, 으.
@ 삼복이 뭐꽈? 삼복.
#1 삼복게.
@ 예.
#1 에, 삼복더위.
@ 예. (중략) 아이,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 그거 굴으는 거라예?
#1 예.
@ 헷을 때 유월 쑤무날은 초복, 중복, 말복 중에서 어디에 헤당 됌수과?
#1 쑤무날이 헤당 일이 아니주게.
@ 기꽈? 초복은 언제꽈? 게믄.
#1 에, 그 정헤지질 안헷주. 갓다리왓다리허주게.
@ 아. 기꽈?
#1 이건 절기면서도 절기가 아니난 이십ᄉᆞ절이 아니주게.
@ 맞수다.
#1 이십ᄉᆞ절이 아닌디.
@ 둑 잡아먹는 날은 여기만 이신 거잖아예? 제주도만예?
#1 어?
@ 유월 쑤무날 둑 잡아먹는 건 제주도만 이신 거잖아예?
#1 으.
@ 그믄 초복 땐 무시거 허고, 중복 땐 무시거 허고, 말복 땐 뭐 헤수과? 그런 건 엇엇수과?
#1 췌소 한도로 이 농ᄉᆞ는.
@ 예.

#1 초복 전이 헤야.
@ 아, 농서는.
#1 마지막으로 초복에.
@ 아.
#1 게 초복날ᄁᆞ지는 헤도 뒌다. 마지막으로. 그 이하는 붤써라 이건 지나간 거난.
@ 음.
#1 자라질 못헌다는 거주게.
@ 아. 그믄 초복 때 허믄, 초복 전이 허는 게 조 갈고.
#1 으.
@ 그다음?
#1 아, 아. 조는 안 뒈어. 고구마 ᄀᆞ뜬 거.
@ 아, 아니면 초복이 마지막이다 헷을 때.
#1 예.
@ 그 전에 이미 조도, 콩도 다 갈아진 거잖아예?
#1 갈아진 거주.
@ 저 게면은 이제 초복 그걸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이 고구마?
#1 으.
@ 고구마 그 줄기.
#1 어, 줄기 따문에 에, 고구마 크진 아녀도.
@ 예.
#1 잘 아니 들어도 뒈긴 뒈난에.
@ 예, 어, 초복 전이 헤근에.
#1 으. 이 우에 나오랑은에 허는 거.
@ 예, 예.
#1 땅 우에 나오라난 거, 이 곡식들은 안 뒈거든.
@ 아.
#1 사름도 매한가지 아니라게?
@ 으.
#1 사름도 뭐 ᄀᆞ리에 낭은에게 오유월에 이제 낭은에 이제 자랑은에게 ᄀᆞ리에 이제 수확을 헤져야 ᄒᆞ는디.
@ 맞수다, 맞수다.
#1 사름도 한창 공부헹은에게 보통 고시 합격 헷주만은 써먹지 못헹 죽어분단 말이여.
@ 아.
#1 그런 넋이라.
@ 아, 겅허난 초복 전이 땅 우에 나오는 곡식은 다 헤야 뒈고.
#1 어.
@ 이제 감저 같은 건 땅속에서 허는 거난 이제.

#1 으, 그 마지막이고.
@ 마지막이고.

칠월

#1 다음 허는 건 ᄆᆞ물이주.
@ 아, 기구나예?
#1 ᄆᆞ물이 마지막.
@ ᄆᆞ물은 게믄 언제 헴수과?
#1 에, 양력 팔월 십오일이민 벌써 나야 뒐 거난 팔월 ᄒᆞᆫ 십일 경에.
@ 음. 게민 팔월 십일 경이면 칠월 칠석 그 그르에 허는 거꽈?
#1 음, 입추. 입추가 칠일날이난에.
@ 예.
#1 칠일 경에 헤야뒐 거주. 칠일 그 팔월 초 뒈어가민 허키여.
@ 팔월 초. 음. 그때 뒈면은.
#1 음.
@ 다 이제.
#1 대서가 넘엉은에 팔월 초 뒈고.
@ 그때 뒈민 그때 못 헤도 ᄆᆞ물은 갈아야 뒈는 거예?
#1 으. 예. (웃음) 에, 마지막으로 ᄆᆞ물농서 ᄒᆞ민은 이제 그 이제 늙은이덜 아이 나민 ᄆᆞ물농서헷구나? 영 허멍덜 ᄒᆞ멍 우스개들 헷주. (웃음)

조 ᄇᆞᆯ리기

@ 기구나예? 그다음에는 그 조 ᄇᆞᆯ릴 때.
#1 으.
@ 주로 뭘로 ᄇᆞᆯ려수과?
#1 조 ᄇᆞᆯ릴 때?
@ 예.
#1 무신거로 ᄇᆞᆯ려? 쉐영 ᄆᆞᆯ이영.
@ 헤근에.
#1 에, 몰아당 이껑.
@ 예, 이껑. 이제 서로 이렇게 이껑.
#1 서로 저 야게 줄라메근엥에.
@ 예.
#1 ᄒᆞ나 확 돌려가민 딱 돌아오게시리 헤영.
@ 아. 경헤 가지고.
#1 경 헤영 아니 돌아오는 ᄆᆞᆯ ᄆᆞᆯ착ᄀᆞ무데기민 잘 듣거든.

#2 (웃음)
@ 무시거 허민마씨?
#2 때리민.
#1 때리민.
@ 아, 음. 아까 때리는 걸 뭐렌 굴앗수과?
#1 물착ᄀᆞ무데겨 불어.
@ 물착.
#2 물착 ᄀᆞ리데겨.
@ 아, 물착ᄀᆞ리데기민.
#2 회초리로 착 허게.
#1 ᄀᆞ무데경.
@ ᄀᆞ무레기면.
#1 ᄀᆞ무데경.
@ ᄀᆞ무데경.
#1 으.
@ 아, ᄀᆞ무데경, 물착ᄀᆞ무데경.
#1 으.
#2 (웃음).
@ 아이고, 잘 굴아줫수다. (부분 생략) 그 조 불릴 때는 겅 하고. 저기, (웃음) 소영 물이영 아까 이으는 걸 뭐렌 굴읍니까?
#1 녹대.
#2 연메영.
#1 녹대 헤영.
@ 녹대 헤영? 녹대?
#1 어.
@ 녹대 헤여근에 빙 돌게 하당 말 안 들어가민 물착, 물착ᄀᆞ무데겨근에.
#1 어.
@ 말 듣게 헤영예? 그면은 그 다음에 조 불릴 때.
#1 저, 그거는 ᄒᆞᆫ 멧 개만 홀 때에 서로 연결시켱은에 ᄒᆞ는 거고. 야게 줄매메영 이녁 녹대로 연결시기고.
@ 예.
#1 막 많이 홀 때는 그런 거 없이 기자 아래 테우리 ᄒᆞ나만 딱 선두에 세우민은 쫙 ᄒᆞ게 돌아오거든.
@ 예.
#1 게민 뒤에서 모는 사름. 저디서 이제 들이모는 사람 헤 가지고 여라이 테우리덜 헤 가지고.
@ 그믄, 맨 앞이 서는 테우리, 서는, 그거를 뭐렌 굴앗수과?

#1 테우리게.
@ 아, 테우린, 테우린데 맨 앞에 사는 걸?
#1 으.
@ 뭐렌 굴앗수과?
#2 테우리가 앞이 삿주게.
@ 앞이 사는 말이 잇잖아예?
#1 선상물이엔 헤. 선상물.
@ 선상물예?
#1 으. 선상물엔 이젠 잊어 불엇저.
@ 뭐 잇어예?
#1 으. 선수, 선생이라. 선수. 앞머리에 사는 거.
@ 선상에?
#1 선수머리, 선상. 그 헹은에 그 중심으로 헹은에 확. 그 물덜토 영리허니까.
@ 예.
#1 훈 멧 번 헹은에 훈련ᄒᆞ민 뒈거든.
@ 예.
#1 물착ᄀᆞ무데경 매 아이 맞젠 ᄒᆞ면은.
#2 (웃음).
@ 게믄예, 그다음엔 소서, 대서엔 뭐 헤수과?
#1 대서에?
@ 예. 소서나 대서에?
#1 소서, 대서에 특별히 ᄒᆞ는 거 엇어.
@ 그때 소서 대서쯤 뒈면 조는 어느 정도 커수과?
#1 그 대서 때 뒈민은 두불검질 멧어.
@ 두불검질.
#1 초불은 벌써 소꽜고.
@ 예.
#1 조, 뭐여 대서라. 팔월, 칠월. 아, 그 초불검질 멧구나.
@ 초불검질, 그때? 대서에?
#1 으.
@ 소서에? 대서에?
#1 초불검질, 그 저 씨소끔.
@ 음, 씨소, 씨소끔.
#1 묘종 바짝ᄒᆞ게 조여 나민은 ᄒᆞ나ᄒᆞ나 소꽈 줘야 뒈.
@ 소꽈 줘야 뒈는 거예?
#1 훈 뽐에 ᄒᆞ나썩 놔근에. 딱.
@ 근데 이제 막 조가 막 안 날 때도 잇잖아예?

#1 예, 예, 예.
@ 그믄 안 나믄 막 하영 난 디 거 소꽈다근에 심는 거꽈?
#1 어. 심는 것가 잘 뒈주.
@ 경헷지예?
#1 어.
@ 건데 밧 전체가 잘 안 나민 놈의 밧디 것도 ᄒᆞ꼼 소꽈주렌 헤근에 헤나수과?
#1 아, 경 홀 수가 잇주.
@ 경 홀 수가 잇잖아예? 음.
#1 얼마던지 ᄒᆞ여. 거 뭐 손헤 안 가고게. 서로게 이웃 밧디 거 홀 수가 잇주게.
@ 경헷구나예? 그다음엔 그 조 갈고 이렇게 할 때, 그 콩 같은 건 막 크게 안 헤근에 그 조밧 고랑에 사이사이에 막 가는 걸 뭐?
#1 어, 어. 에염으로 돌아가멍게.
@ 에염으로 돌아가는 걸 뭐렌 골앗수과?
#1 에염으로 돌아가는 게, 아이고, 잊어 불엇저.
@ 뭐헨 싱것덴 허잖아예?
#1 예. 대죽도 싱그곡, 콩도 싱그곡.
@ 게난 콩도 싱그곡.
#1 으, 으, 으.
@ 거 생각 안 남수과?
#2 나 그런 거 몰라.
@ 허긴 헤낫잖아예?
#2 (웃음)
#1 돌아가멍 그 영 ᄒᆞ민.
#2 고랑에 영 ᄒᆞ나썩 놓는 건 그자 고랑콩 헷젠 ᄒᆞ곡.
#1 어, 건 고랑콩이고.
@ 고랑콩? 고랑에 심어시난 고랑콩 헷젠?
#1 으.
@ 음.
#1 에염에 돌아가는 거는 건 모르주.
@ 음, 알아수다. 거 나중에 영 셍각헹 놔둡서예?
#2 (웃음).
#1 그거 생각헷자 그건 이름이 엇인 거 닮다. 고랑콩 잇어도.
@ 아, 기꽈?

칠월 칠석

@ 어, 어저께 그 유월 둑 잡아먹는 거까지 하고 모멀 마지막 농사로 모멀 심는 것까지 헷잖아예? 그럼 지금부떤 칠월부터 여쭤 보크라예? 칠석에 대헹 골아줍서. 칠석?

#1 칠월 칠석?
@ 예.
#1 저, 농가에서 허는 건 엇곡. 농가에는.
@ 뭐 아무 것도 안 헤수과?
#1 예.
@ 제도 안 지나고?
#1 으.
@ 아.
#4 무사게, 칠석제 안 지내어?
@ 이디 ᄀᆞ찌 앉아도 뭽니다.
#4 칠석제엔 헌 게 무신 ᄆᆞ쉬 질루는 사름덜.
#1 에?
#4 칠석, 백중.
#1 칠석이 백중이라?
#4 아니. (웃음)
#1 거 어떵 어지리는 소리라.
#4 유월이라. 유월.
@ 으, 백중은 이제 칠월에 백중은 이수다 뭐. 백중에 대해선 다시 여쭤볼 거라예?
#1 으.
@ 백중에서 따로예? (부분 생략)
@ 어, 게믄 칠석에 대헤 가기고는 별도로 제지내는 건 엇고예?
#1 으.
@ 농사 지내는 것도 엇곡?
#1 으.
@ 농사 지내는 것도 엇고예? 거믄.
#1 농사야 거기서 거의 끗낫주.

백중제

@ 끗나시난예? 심는 건. 그다음엔 백중 땐, 백중젠 어떵 보내수과?
#1 백중제라고 헤 가지고.
@ 예.
#1 에, 백중제 특별히 뭐 백중제엔 헤근에 헐 게 아니고 백중코시. 백중제.
#4 ᄆᆞ쉬 허는 사름덜.
#1 이, 저 축산허는 사름덜, 에, 개인적으로.
@ 개인적으로.
#1 개인적으로 밤이 초정에 가민 저 목장에덜 곤 동산에 강은에 간단히.
@ ᄆᆞ쉬 하는 사름덜?

#1 예.
@ ᄆᆞ쉬, ᄆᆞ쉬덜 허는 사람들예? 개인적으로?
#1 으.
@ 목장에 가근에?
#1 으.
@ 그 목장이 어디 잇덴 골아수과?
#1 신예리 목장.
#4 신예리 목장이.
#1 으. 신예리공동목장.
@1 공동목장에서예?

모살찜

@ 그다음에는 그 백중 때 뒈민 어, 가근에 그게 모살찜 헌다든가 물맞이레도 가잖아예?
#1 아. 백중에.
@ 신예리에선 어디 가나수과?
#1 공천포 가낫주.
@ 공천포에 가 가지고?
#1 영등물.
@ 영등물에 가근에.
#1 그디 모살도 잇곡 영등물에 강.
@ 게 강 어떵 헤수과? 모살은? 모살.
#1 모살은게 팡은에.
#4 파근에 들어눕고게. 얼굴만 내와둰 문딱 묻어불엇주.
@ 으. 모살침예? (부분 생략) 칠월달 뒈 가지고예?
#1 으.
@ 어, 칠석에는 뭐 헤수과?
#1 칠석? 개인적으로 허는 건 엇고.
@ 엇고예?
#1 으.

백중제

@ 그다음엔 백중제에 대헤 가지고 말씀헤 주시쿠과?
#1 백중제에 이제 그, 어, ᄆᆞ쉬 질루는 사름덜.
@ ᄆᆞ쉬 질루는 사름덜.
#1 예. 그 목장에 가 가지고 거 개인적으로 근데 장소가 잇는 건 아니, 정헤져 잇는 것도 아니고.

@ 으.
#1 뭐 요 어디 곤 동산이나 어디.
@ 무신 동산?
#1 곱닥헌 동산.
@ 아, 곱닥헌, 곤 동산?
#1 으.
@ 가근에 개인적으로예?
#1 으. 그거도 잇고. 그 내에 가면은 그 저 뭐 산신제라고 헤 가지고 산제 지내는 디덜이 잇주. 그런 디드레 가 가지고.
@ 그 내는 어디 잇수과?
#1 세기내 우깍.
@ 세기내 우깍에?
#1 으, 이생이악 앞에.
@ 앞에. 음. 게믄 이제 어, 그 백중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내고.

모살찜
@ 어, 모살찜 헤난 거 골아 줍서?
#1 모살찜은 백중에 가면 옛날에는 공천포 가 가지고 물도 맞곡.
@ 예.
#1 모살 팡은엥에.
@ 예.
#1 솔박이나 그 뭐를 그디 그릇들 이시난에 아, ᄒᆞ나 아졍가민 ᄒᆞᆫ 사름 아졍 가민은 막 여러 헐 거난게.
@ 솜박, 솔박?
#1 솔박이나.
@ 으.
#1 솔박이엔 허주.
@ 예, 솔박 가졍 가.
#1 아니면은 삽.
@ 삽도 가져가고?
#1 으. 거의 삽덜 아졍 가주.
@ 예, 겅 헤근에 물은.
#1 겡은에 손으로 기냥 걷엉은에 기자.
@ 허고예? 물은?
#1 물은 그냥 막 나는 디 거. 아무라도 들어앚앙.
@ 물은 아까 영등물이엔 헤수과?
#1 예, 예.

@ 공천포에 영등물예?
#1 으.
@ 공천포에 영등물은 그 모살 이신 가운디서 막 나는물이꽈? 아니민 이쪽에서 막.
#1 모살 이신 디, 모살 가운데.
@ 가운디? 으. 그게 영등물이꽈?
#1 예.
@ 음, 경 헤 가지고, 이 모살찜이나 막 그 영등물에 물맞이거나 헤 가지고 뭐 아픈 거 막 낫기도 헤수과?
#1 누게 벵 낫앗저 헌 말은 못 들엇고.
@ 예.
#1 야튼 이치적으로 그거 벵 그렇게 나상이사 그거 어떻게 뒈라고. 낫기야 낫으니까 조금 올 때는 몸도 게붑고 이렇게 허니깐 허는 거주기.

입추 · 처서
@ 기지예? 어, 게민 이제 칠월 뒈면 이제 입추하고 처서가 오잖아예?
#1 예.
@ 그때 주로 무시거 헤수과?
#1 어, 입추에는 아니면은 언젠고? 날짜로?
@ 날짜로는예? 어, 음력으로는 칠월인디 양력으로는.
#1 팔월 칠일.
@ 팔월 칠일마씨?
#1 으.
@ 그때쯤 땐 뭐 헤수과? 게민.
#1 팔월 칠일은 뭐 허는 게 엇주. 뭐, 행사엔 헌 거는 뭐 그때사 행사는 전혀 엇는 거지. 그 만약에 잇더라 헤도 이거 오죽 바쁜 때라. 그 검질멜라고 헤서.
@ 그땐 검질, 어디, 무신 어디 검질메수과?
#1 조팟디게.
@ 아, 조팟디. 초불 아니민 두불? 두 번? 두불? 그때.
#1 팔월 칠일이면은 저 이른 밧디레는 두불 뒈는 게고.
@ 예.
#1 이때ᄁᆞ지 초불 아이 메영은 안 뒈주.
@ 아, 기구나예. 음, 그믄 조밧디 검질메고 다른 농산 엇엇수과?
#1 농사는 엇엇고.
@ 검질메는 것만? 콩밧디도 그때쯤은 막 검질 짓을 땐디.
#1 아, 그렇주.
@ 기지예? 콩밧디도 검질메고예?
#1 예에. 아, 이때쯤 다른 농사엔 흔 건 이건 입추 때에, 쯤에 이거 모물을 갈아실

테주, 아마.
@ 음. 입추 때 무시거 갈아마씨?
#1 모물게.
@ 모물?
#1 으.
@ 아, 칠월에 와근에. 유월 끗자락에 간 게 아니고?
#1 음. 입추 때. 게난 팔월 십오일 뒈민 그때에 팔월 십오일 해방일 아니라고?
@ 예.
#1 그때 가민 모물 굽이 거렷주게, 좍 낭 오랑 이만씩 모물 모종이 나왓주게.
@ 아, 양력 팔월 입추, 추석, 팔월 보름쯤 뒈민?
#1 에, 에.
@ 그 팔월 보름은 음력, 양력이지예?
#1 으, 양력을 기준헤서.
@ 양력이지예? 웨냐면 음력 팔월 십오일은 멩질, 저, 추석이난에?
#1 으, 그런 디도 잇고 저 서르레 가민 또 팔월 십오일쯤에 갈앙은엥에. 팔월 말일쯤 드레 이디 ᄎᆞᄎᆞ 이디 지형에 따라 가지고 ᄯᅮ나.
@ 으, ᄯᅮ나?
#1 게난 이디서 동드레는 빨리 갈고.
@ 여기, 신예린?
#1 신예린 바로 팔월 어 전후 헤서 허곡. 저 서르게 가면 늦뒈는 모냥이라.
@ 음.
#1 저 늦뒈여.
@ 서르레가예?
#1 예.
@ 처서에는 그믄 뭐 헤수과? 처서에.
#1 처서?
@ 예.
#1 백중 처서난에 음, 처서엔 절기상으로 뭐 ᄒᆞᆫ 디가 엇주.
@ 무시거 허는 건 베랑 엇지예?
#1 어, 어.
@ 음.
#1 뭐 이때도 뭐 검질, 따른 게 ᄒᆞᆯ 거 잇어? 어떤, 어, 지금은 봄이 여름이 춤 까까난 농서들 그걸 관리ᄒᆞ는 것벳기사.
@ 관리허는 것벳기예?
#1 어, 어.
@ 게난 이제 어, 입추가 팔월 아까 칠, 팔일 경이면 처서가 한 팔월 이십삼사오일 경 뒈키여예?

#1 으, 으. 이십삼일 경.
@ 이십삼일 뒈민 그때는.
#1 으.
@ 어, 검질.
#1 으.
@ 또 나민 또 메고?
#1 으, 음. 게난 팔월 ᄒᆞᆫ 둘은.
@ 예.
#1 저, 농사헤 논 거 그 관리.
@ 관리.
#1 음, 관리.
@ 그, 그것이 음력으론 칠월 뒐 거예?
#1 아, 그렇주.
@ 경 뒐 거지예? 게믄 이제 좋수다. 게믄 이제 입추하고 처서는 농사헤 놓은 거 관리하는 거고.

팔월

@ 이제 팔월에 들어가믄예?
#1 촐 헤사주게.

벌초

@ 어, 벌촌 어떵 헤수과?
#1 팔월, 저, 그 겨울에 멕일 촐.
@ 촐도 허주만은 벌초, 벌초.
#1 벌초 팔월 초ᄒᆞ룰날부떠 시작허주.
@ 어 음력 팔월 초ᄒᆞ룰날부터예?
#1 으, 으.
@ 여기서는 벌초할 때 저, 모둠벌초는 안 헤수과?
#1 무사 아녀.
@ 게 모둠벌초는 어떵 헤수과? 어떤 식으로? 모둠벌초허젠 허면은.
#1 팔월 ᄒᆞ룰, 팔월 초ᄒᆞ룰날 ᄒᆞ는 사름덜토 잇고.
@ 예.
#1 그 각 집안마다 ᄯᅮ나메. 팔월 초이틀날 ᄒᆞ는 사름도 잇고.
@ 아, 예.
#1 사흘날 ᄒᆞ는 사람덜토 잇고.
@ 예. 삼춘넨 언제 헤수과?

#1 우린 사흘날 헤여.
@ 사흘날 헨?
#1 팔월 초ᄒᆞ룰날은 웨 못ᄒᆞ느냐 허면은.
@ 예.
#1 그때는 초하루 삭망덜이 잇거든.
@ 초하루 아, 삭망, 으.
#1 으. 삭망. 삭망 헤영은에게 ᄒᆞᆫ 다음에 뭐든지 못ᄒᆞ고.
@ 예.
#1 초이틀날은 어느 집안에 또 제사가 잇어.
@ 아.
#1 게난 못 헨에 초삼일날로 모둠벌초를 헷어.
@ 아, 예.
#1 아 게난에, 집안마다, 집안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일자가 변경뒐 수가 잇는 거주게.
@ 예. 그러면 벌초는, 삼춘넨 초사흘날 허고.
#1 그런 거 잇고 또 어떤 집안에는.
@ 예.
#1 팔월절 들어야 허여.
@ 팔월제를 지낸 다음?
#1 팔월절을.
@ 팔월절? 어, 팔월절은 어떤 거꽈?
#1 팔월절은게 음, 팔월절은 백로주.
@ 예, 백로.
#1 ᄋᆞ, ᄀᆞ만 잇자. 어, 팔월절이 백로.
@ 예.
#1 백로 들어야 벌초덜 일부러 ᄒᆞ는 사름덜토 잇고.

팔월절

@ 예. 그 팔월절은 게난 어떤 식으로 헤수과? 백로는 어떵 헤근에 지내수과?
#1 백로 ᄀᆞ튼 거 거 헹사는 없고.
@ 헹사는 엇고.
#1 으, 으.
@ 게민 팔월절엔 헹사는 엇고 그때 벌초를 헷다는 거꽈?
#1 음. 집안에 따라서.
@ 집안에 따라서.
#1 음. 그전에 빨리 ᄒᆞ면은 잡초 무성ᄒᆞᆫ다고 헤 가지고 팔월절 들어야 벌초를 ᄒᆞ는 디가 잇고.

@ 아, 기구나예? 음.
#1 음.
@ 어, 그믄 이제 모둠벌초할 때는 삼촌넨 한 어, 몃, 멧 멩쯤 모다나수과?
#1 아, 우린 뭐 얼마 방상은 허지 아녀난 우리사 ᄒᆞᆫ 십 명 정도, 잘 가사.
@ 잘 가사.
#1 예.
@ 음. 옛날에 벌초헐 때 막 저 여자분들도 ᄀᆞ찌들 음식헨 가나수과?
#1 아, 여자 갈 수도 잇고.
@ 예.
#1 이, 여자들 가, 여자들도 갓주게.
@ 밥, 점심은?
#1 밥이사게 그디서 누게 아무라도 정헤근에 헤 멕이민 뒈는 거주게.
@ 그거 헐 때 주로 어떤 밥, 음식 뭐 뭐 출려낫수과?
#1 음식게 뭐 보통 음식이로. 보리밥, 여름에는 보리밥, 겨을에는 뭐. 여름에 무신 다른 거 ᄒᆞᆯ 게 잇어? 보리벳기야. 보리쏠벳기사.
@ 음, 겅헷구나예? 으, 그때 혹시 벌초할 때, 어, 벌초하기 전에 성묘도 지내수과?
#1 아.
@ 그, 그때는?
#1 간다히 헹 성묘. 으.
@ 산마다 가근에 전부 다 간단하게 묘제 한 다음?
#1 아, 그거 잇고. 큰산만 헹은엥에 간단하게 제주나 ᄒᆞᆫ 병 ᄒᆞ곡. 뭐 과일 이시민 과일 헤근엥에 간단히 제지내주.
@ 아. 겅 헤근에 이제 벌초 시작허는 거구나예?
#1 어, 벌초 시작.
@ 큰산만.
#1 으.
@ 그다음에는 이제 벌초가 끗나고 촐도 ᄒᆞ주만은 일단 촐은 ᄒᆞ꼼 잇당 허기로 허고예?
#1 예.

팔월 멩질

@ 멩질 잇잖아예? 팔월 멩질.
#1 팔월 멩질.
@ 예. 팔월 멩질 어, 팔월 멩질 준비허젠 허민 뭐, 뭐 준비 헤나수과?
#1 팔월 멩일 준비?
@ 예.
#1 정월멩질이나 거의 비슷허주.

@ 거의 비슷헤? 게믄 팔월멩질 때도 흔 열흘 전부터 무시거 뭐 저 콩지름도 질루기 시작허고 이렇게?
#1 으, 그때는 콩지름.
@ 여름이라 부난 안 뒐 건가?
#1 음, 그건 겨울에덜 헷고. 콩지름은 뭐 우리 알거니는 그르후제 집이서 놓는 게 아니고.
@ 아이 게난 옛날에.
#1 아주 옛날에.
@ 예, 삼춘네 아인 때.
#1 으레 콩지름 놓는 기억은 엇곡.
@ 으. 여름에, 팔월에.
#1 팔월에.
@ 아, 기구나예?
#1 으.
@ 게믄 상에는 뭐, 뭐 넣어놔수과?
#1 상에?
@ 예. 예를 든다면 콩지름 엇이난. 고사리는 이실 거고.
#1 어, 고사리 이실 게고.
@ 예, 그다음.
#1 어, 그때라 가가민 거, 야채들 나오는 게 양엣근.
@ 아, 양엣근, 예.
#1 어, 그거 헤당은에 그 아주 고급으로 놓주.
@ 예.
#1 그거ᄒᆞ곡. 에 고사리. 어, 그때라 가민 무우덜토 나오고 ᄒᆞ민 무우 놓곡 그추룩 헤낫주.
@ 예, 놈삐?
#1 놈삐.
@ 놈삐덜, 음. 놈삐하고, 양엣근하고.
#1 그거 미나리.
@ 고사리하고 미나리하고.
#1 미나리 ᄀᆞ뜬 건 거 뭐.
@ 그냥 저, 이 물고기는마씸?
#1 물고기는?
@ 예.
#1 팔월 나민 옛날에는.
@ 예.
#1 갈치가 막 하영 나주게.

@ 아, 예.
#1 아, 이 지방에는 갈치를 써낫어.
@ 아, 상에 갈치 올려나수과?
#1 으, 갈치 올려낫어.
@ 음, 토막 쳥?
#1 토막 쳥. 거 토막 쳥은에 어, 이제 그 저 찌짐인가 뭐 찌져 가지고.
@ 예, 튀겨 가지고.
#1 튀경.
@ 아, 이렇게 지지미처럼 이렇게 아 튀겨 가지고?
#1 으, 으, 으.
@ 으, 맞수다예? 맞아.
#1 으. 게난 이디는.
@ 요즘 잔칫집에 나오는 식으로?
#1 이 저, 그 보제기 지금 말허민 어부들이나.
@ 예.
#1 기냥 잇던 사름덜이나 그 갈치를 주로 헨에.
@ 아.
#1 워낙 하영 나곡 뭐 또 허니까.
@ 음.
#1 그걸로 뭐 주로 허연 헤낫고.
@ 예.
#1 또 멩심헤영 ᄒᆞ는 사름덜은 또 뭐 셍성.
@ 예.
#1 셍성은 그 갈, 팔월 나가민 물러. 우리가 헤 보니까 물러 가지고 구워가민 문 찰찰찰.
@ 몰리지 못헹예?
#1 몰리지 못허영. 그러니까 그 우럭.
@ 음.
#1 우럭, 그 멩심헤영 헷당 우럭 ᄒᆞᆫ 멧 ᄆᆞ리 ᄒᆞ곡.
@ 우럭 음.
#1 그게 좋은 거주. 그 우럭이.
@ 예.
#1 그 먹는 거, 고기는 언만 엇어도.
@ 예.
#1 상허지 아녀게.
@ 아.
#1 상허지 아녀니까.

@ 겅허난 겅 헷구나예?
#1 으, 우럭으로 헨에. 그거 ᄒᆞ고 갈치도 ᄒᆞ곡 헨에. 도야지 잡곡 경 헤근에.
@ 아, 예, 예. 저, 뭣도 헤수과? 도세기도, 당연히 도야지도 당연히 잡주만은 저 쉐고긴 어떵 헤수과?
#1 팔월에 소고기 잡는 건.
@ 엇엇수과?
#1 엇엇주. 우린 소고기 잡는 건 못 보고.
@ 음.
#1 이 저 멩질에 소고기 잡는다는 건 제주도에서 아주 극히 드문 일이주.
@ 음. 그러면은 이제 팔월 명질도 잇고.

백로 · 추분

@ 그다음엔 백로가 잇고 추분이 잇어예?
#1 음.
@ 백로 땐 무시거 헤수과?
#1 에, 백로가 뒈면은, 이 저 구월절?
@ 예, 예.
#1 어, 농가에선 그때 작업으로는 추수가 들어가야. 아, 팔월 촐 ᄒᆞ고.
@ 예.
#1 촐 끗데 백로가 들어가면은 시월, 구월, ᄎᆞᄎᆞ 이, 저 그, 저 가을 준비.
@ 예.
#1 에, 그거 들어가야주.
@ 게난 가을 준비론 무시것이 잇어수과?
#1 가을 준비라고 헐까? 월동 준비를. 어, 이제 헹은에 그 조금 활동허는 사름덜은 겨을에 이제 화목 준비.
@ 예.
#1 짇을커.
@ 예.
#1 그, 저.
@ 짇을커?
#1 어, 짇을커. 겨을에 이제 땔감.
@ 예.
#1 그걸 뭘로 땔감 ᄒᆞ느냐면은 검질 비레 가게 헤. 검질.
@ 예.
#1 영헤 가지고 저 헤당은에 무껑근에.
@ 예.
#1 웨 그걸 허느냐면은 그 재를 얻기 위헤서, 재.

@ 재 쓰젠예? 불치 허젠.
#1 어, 불치, 거름 허젠.
@ 으.
#1 그것덜을.
@ 불치 헤근에 무시거에 쓰젠마씨?
#1 불치에는 불치 용도는 막 하주, 뭐.
@ 무시거 잇어나수과?
#1 에, 그 문딱 모엿당은에 우선 모물 갈 때 불치가 주로 쓰고.
@ 아, 예.
#1 어, 감저 심을 때도.
@ 음.
#1 그 고구마 심을 때.
@ 예.
#1 그것도 이제 갈앙.
@ 감저 헐 때도 불치 쓰고.
#1 불치 쓰고.
@ 지슬 헐 때도?
#1 으, 지슬 홀 때도 물론 뭐.
@ 불치로?
#1 뭐 불치 이시민 뭐, 조 불릴 때도 그디 우트레 불리멍 불치 뿌려 놓면은.
@ 으.
#1 조가 씨가 잘 사고.
@ 잘 살고예?
#1 으, 여물, 여물 올매도 좋고.
@ 아, 게믄 짇을커로, 짇을거로는 그 낭보다는 검질을 더 하영.
#1 검질을 많이 ᄒᆞ주.
@ 아, 겅헷구나예?
#1 어. 검질을 많이 때야 불치가 많이 나오니까.
@ 하영 생기난예?
#1 으.
@ 아, 맞수다게.
#1 에, 그디 헷당은에 이제 그 우에 이제 해벤이 ᄀᆞ튼 사름은 해벤이 강은엥에 그 패.
@ 예.
#1 이제 그 넙패 ᄀᆞ뜬 거.
@ 예.
#1 아이, 아니민 곤 물망 ᄀᆞ뜬 거 *꺼당 그거 버무려 가지고 눌떵은에 발효시겻당.
@ 음.

#1 거 띄왓당.
@ 예.
#1 겅헷당 그걸로 헤영 농사지엉.
@ 게난 그 발효라는 말은 요즘 신식 말이고.
#1 어.
@ 옛날엔 그걸 뭐엔 골아나수과?
#1 기냥 틔왓당게 ᄒᆞ주.
@ 틔왓당?
#1 으.
@ 불치영 저.
#1 물망이영.
@ 갯것이 강 물망이영.
#1 서꺼근에 놔두면은.
@ 줏어당 서꺼근에 틔왓당예?
#1 으, 튼단 말이여.
@ 트민.
#1 으, 북삭ᄒᆞ게 트주게.
@ 북삭허게 트민.
#1 게민 아주 좋은 거주, 거.
@ 아, 기구나예?
#1 자연 걸름으로.
@ 게민 밧 하영 허는 사람은 잘도 어지간히 하영 헹 놔둬야 뒈켜예?
#1 밧 하영 ᄒᆞ는 사름은 다 못ᄒᆞ고. 그거 영 봥은에 아주 저 에, 걸름이 모지레영 영 뭘 헴직ᄒᆞᆫ 밧디덜은 그거 놓고.
@ 예.
#1 경 아인 밧덜은 못 놓주.
@ 못 놓지.
#1 좋은 밧디사게.
@ 맞수다.
#1 어, 역벌이곡 뭐 헤근에 수익이 언마 아이 남직ᄒᆞ민 그거라도 놩은엥에 보충헤 줘야 ᄒᆞᆯ 거주게.
@ 맞수다.
#1 박헌 밧덜은.
@ 아, 박헌 밧들은, 음.
#1 어.
@ 음, 기구나예? 어, 그래서 백로 추분에는 이제 그 가을 준비를 헷다는 거고예?
#1 예.

@ 아까 그거 거름이니 뭐니 허젠 허민예? 게민 그다음엔 이제 어, 추석 때는.
#1 어.
@ 이제 차례상은 뭐 멩질이나 마찬가지 하는데 이제 저 콩지름은 안 헷다는 거잖아예?
#1 아, 그때는 뭐 아녀고 혼 거 아년 거 그런 거 보담도.
@ 맞수다.
#1 우리 지역에는 콩지름 집이서 논 기억은 없주.
@ 엇어마씸?
#1 어.
@ 으.
#1 그, 건 뭐 콩지름은 싸고 ᄒᆞ니까 장에 가민 뭐.
@ 게난.
#1 우리, 우리 어린 때도 장에 가민 잇자녀게.

꼴 장만
@ 게난. 촐은 언제부터 비기 시작헤수과?
#1 팔월부떠, 팔월 초.
@ 팔월 초부터? 음.
#1 으, 팔월절 넘기 시작허민.
@ 헤가 시작헤근에예?
#1 어, 하늬 나기 시작ᄒᆞ민. 하늬.
@ 하늬ᄇᆞ름 불기 시작허민 촐 비기 시작허는 거꽈?
#1 예.
@ 게민 어, 하늬ᄇᆞ름 이제 멩질이영 막 겹칠 거잖아예?
#1 으.
@ 멩질 땐 촐 비는 거 때문에 어떵 헤수과?
#1 에.
@ 게도 멩질은 다 헐만이 헌 다음에 촐 비레 가수과? 촐 비당 멩질 헷잖아예?
#1 어, 촐 비엉 멩질 ᄒᆞ곡게. 촐 끗나민 뒷날 따시 촐 비레 가야 뒈주게.
@ 다시 가야 뒈잖아예? 게도 멩질은 다 헤여근에예?
#1 으. 게 멩질 허영 뭐 ᄒᆞ루 뒈민. 그자 *** 어떵 멩질이라고 헤 가지고 다른 거 끗내동, 거 새.(웃음).
@ 맞수다. 삼춘네 그믄 촐은 어느 정도 헤나수과?
#1 우리?
@ 예.
#1 촐. 혼 이천 평?
@ 아, 촐밧을 헤근에?

#1 에. 촐밧 헤영.
@ 아, 그거 비민 저기 눌로 하게 뒈민 멧 눌? 바리로 하게 뒈면?
#1 어, 바리로 아인 그거, 그거 알아져?
@ 알아져? 눌로 멧 개쯤? 눌로.
#1 눌 ᄒᆞ나에 눌주, 뭐, 큼직ᄒᆞ게시리 헤 놩은에.
@ 눌 ᄒᆞ나로?
#1 버스만이.
@ 음. 겐 그때 쉐하고 물하고 멕이젠 ᄒᆞ민 게도 어느 정도 필요헤나수과?
#1 쉐 ᄒᆞ나 멕이젠 ᄒᆞ면은 아이고, 하영 들어낫을 거라, 그거 이제 오래 부니까. 우린 쉐 ᄒᆞ나 두 개 세 개ᄁᆞ지 헤난, 세 개 네 개ᄁᆞ지 헤낫는디.
@ 예.
#1 촐, ᄒᆞᆫ 이천 평 내지 ᄒᆞᆫ 삼천 평 뒌 건디. 우린 해벤 밧디라 놓난에 촐이 좋질 아녀.
@ 음.
#1 으, 그걸로 그자.
@ 음. 해벤 밧이면 저 공천포 쪽에 밧이?
#1 아이, 아이. 이 ᄒᆞ쏠 우이, 우이라도 어, 그게 좋질 아녀.
@ 겅 하영 안 헤나수과?
#1 음.
@ 기구나예?

구월

@ 거믄 이제 추석도 지나고 촐도 다 비어지믄 이제 구월에 넘어갈 거잖아예?
#1 으.
@ 음력 구월에.
#1 으.
@ 어, 구월에 하게 뒈면 당제 같은 거 안 지내나수과?
#1 당제옌.
@ 것도 안 헤고. 그냥 개인적으로 헐 사름만 허고?
#1 아이.
@ 헐 사름도 안 허고?
#1 당이 잇어사주게.
@ 당 먼저 잇엇덴 헤수게?
#1 아, 일뤳당 그거 그런 제는 엇엇주.
@ 아, 기구나예?
#1 그거 그, 이, 단체로 제지내면은.

@ 으.
#1 그 즉 말이라면 제렌 ᄒᆞ면 ᄒᆞᄊᆞᆯ 범위가 범위라고 ᄒᆞᆯ까, ᄒᆞᄊᆞᆯ 요샛말로 ᄒᆞᄊᆞᆯ 엎드령은에 영 ᄒᆞᆫ 건디.
@ 음.
#1 제는 뭐 개인적으로 헹은엥에 밥 ᄒᆞᆫ 사발 제숙 영 헹 아졍 강은엥에 헷당 오라 불곡 ᄒᆞ는디, 그걸 제엔 ᄒᆞᆯ 수가 잇어?
@ 맞수다예. 음.
#1 어.

팔월 멩질 떡
@ 기구나예? 아까 아고, 팔월에 맞아 참, 추석 할 때 떡은, 멩질, 저 정월 멩질 헐 때나 똑같이 헤수과? 떡. 추석 때는 또 따로 다른 건 안 헤난마씨?
#1 추석에라고 벨도 엇곡.
@ 게도 여름에는 떡 잘 피난 상웨떡 같은 거 허지 아녀수과?
#1 으, 상웨떡.
@ 겨울엔 상웨떡 안 헤도 여름엔 헤낫잖아예?
#1 예, 예. 상웨떡 주로 허여.
@ 상웨떡 주로 하고.
#1 음.
@ 다른 떡 무슨 절벤이니 솔벤이니 것도 다 허고마씸? 추석 때도?
#1 어, 그거 허는 사름들토 잇고.
@ 예.
#1 으, 그, 건 반드시 그건 기본이니까.
@ 아, 솔벤, 절벤, 제펜이 다 기본예?
#1 으.
@ 음. 경헹 거기다가 여름이난 막 ᄒᆞ꼼 더울 때난 상웨떡 ᄒᆞ나 더 허는 거예?
#1 으, 으.
@ 기구나예? 어, 그다음에는 이제 상강이 오잖아예? 상강 땐 어떵 헤수과? 농사 같은 거.
#1 상강 때 뒈여가민 그민 벌써가 추수가 들어가는 거.
@ 예. 무시거 산디 추수? 조도?
#1 조도 ᄒᆞ고. 산디 추수, 감저 그디 파덴다 산디 헌다, 그.
@ 그거에 혹시 뭐 속담 같은 거 엇수과? 뭐 상강 전이. 그런 말 엇어수과?
#1 어, 그런 건 엇고.
@ 음.

시월

입동

@ 게민 이제 시월에 접어들멍 이제 입동이 오잖아예?
#1 으.
@ 입동에는 농사는 게믄 어떵 헤수과?
#1 돗걸름밧 허주.
@ 돗걸름?
#1 돗걸름밧.
@ 돗걸름밧? 미리 준비허는 거마씨? 보리 갈젠 허믄?
#1 아니, 준비허는 게 아니라 돗걸름밧 허민 보리 갈아야 뒈주, 그때.
@ 아, 상강 지낭 보리 갈아수과?
#1 으.
@ 상강 때 갈아수과?
#1 아, 가을 지나면은 바로 돗걸름밧덜 헷잖아게. 그 돗, 에, 그 추수 끗낭 허민 그 추수헤난 끗데.
@ 예.
#1 조크루.
@ 예. 조크루 갈아근에.
#1 으, 갈앙은에게 보리.
@ 예. 아, 상강 지나자마자 돗걸름밧 헤근에 바로 이제 그거 저 조크루 갈아근에 거기다가 보리 뿌려수과?
#1 으, 조크루 갈안 그 돗걸름밧이엔 헌 게 보리 가는 거.
@ 보리 가는 거. 음. 돗걸름밧. 집 보리 가는 거예?
#1 으. 돗걸름이엔 헌 게 돗통에 걸름.
@ 맞수다, 예.
#1 돗통에 걸름 내영은에 그디 보리씨 서꺼 가지고 영 허는 거.
@ 음.
#1 게난 이 그건, 이 남군 풍속들이고.
@ 예.
#1 북군엔 보난에 기냥 돗걸름을. 이딘 소마귀 거름을 돗통에 갖다놩 거기서 쎅여 가지고 다시 돗걸름 그 내여근에 불령.
@ 예.
#1 경 헹 헷는디. 북군더레는 벳기, 바로 벳기 내엇당은에 틔왓당 바로 쉡씨를 피원에 그 우터레 그걸 뿌령은에 ᄒᆞ는 거고.
@ 음, 그 차이가 ᄒᆞ꼼 잇저예?
#1 예. ᄒᆞ꼼이 아니라 대단히 크주, 뭐.

@ 음. 이제 상강 지나고 이제 입동 뒈면 이미 다 뭐 뒈고.

소설

@ 소설엔 어떵 헤수과?
#1 소설?
@ 예. 대설, 소설 할 때?
#1 소설끄지 그 내내 그 저.
@ 계속 돗걸름밧?
#1 돗걸름밧 그때 뭐, 그 일, 그 일 개월은 뭐 돗걸름밧덜.
@ 아, 계속 헷구나예?
#1 어, 어. 밀도 갈곡 보리도 갈곡.
@ 음. 밀도 그때 밀도 갈아수과?
#1 으. 밀.
@ 여기도 밀 헤나수과?
#1 밀, 옛날에 밀덜 헤낫지.
@ 아, 경 헤낫구나예?
#1 밀 헤난게 상웨떡 ᄒᆞ젠 허민 밀.
@ 아.
#1 그 밀로 헤야뒐 거 아니라게.
@ 아, 기구나예?
#1 으.
@ 음, 기구나.

십일월

동지

@ 그면 이제 십일월로 넘어가면 십일월엔 어, 동지가 잇잖아예?
#1 으.
@ 동지 땐 무시거 헹 드셔수과?
#1 풋죽게.
@ 풋죽예?
#1 으.
@ 풋죽 할 때 어, 풋죽은 꼭 쒀 먹어수과?
#1 꼭 쒀먹은 건 아니고.
@ 예.
#1 아이들도 영 잇곡 헹은에 ᄒᆞ썰 튼내지면은.
@ 예.

#1 그 여러 가지 식솔들을 위허라든가.
@ 예.
#1 그 뭐 허영은에 풋죽을 쒓는디.
@ 예.
#1 경 정 ᄒᆞ당 보민 뭐 바빵은에 거 동지 넘어가는 줄도 몰르주게.
@ 게도 동지 때사 무사 바쁩니까?
#1 어?
@ 동지 때 뭘로 바쁩니까?
#1 동지 때?
@ 예.
#1 어떻든 바빠.
@ (웃음)
#1 그 돗걸름밧 ᄒᆞᆯ 때.
@ 예.
#1 헤여 놓민 그때 문딱 돗걸름덜 그땐 가마귀덜이.
@ 예.
#1 떼가마귀덜이 오랑은에 그 다 줏어먹어 불어, 씨.
@ 아. 보리 파 먹어 불엉.
#1 보리씨.
@ 보리씨를, 예.
#1 예, 돗걸름 쫙 뿌령은에 갈면은.
@ 예.
#1 다 묻어지질 않거든.
@ 예.
#1 게놓난 약간만 묻어지난에 그걸 가마귀덜이 왕은에 문 줏어 먹어 불어.
@ 아.
#1 게난 그걸 못 줏어먹게 일일이 뎅기멍 그거 발로 헤영 붋으멍 이제 그 문 막아야지.
@ 음.
#1 에, 그게 아주 바쁘주, 뭐.
@ 아, 그 동지 때도 동지 뒈민 그것들 허노라고.
#1 으.
@ 게도 풋죽을 쑤문, 풋죽 쑬 땐 혹시 무시거 놩 풋죽 쒀나신지?
#1 풋죽 이디서는 우리는 무시거 놩 쑤는 거. 풋죽 풋 숣앙은엥에 걸러 가지고 뭐 쏠이나 놘에 영 쑴벳기 무시것.
@ 게난 쏠도 옛날엔 막 산디가 귀헷잖아예?
#1 으.

@ 게도 풋죽에는 산딘 놩 먹어수과?
#1 아, 이 풋죽에 산디 아이 놓민 보리 놓을 수가 잇어?
@ 기지예?
#1 예, 예.
@ 감저 같은 건 안 놔나수과?
#1 아, 그런 건 아니.
@ 아, 기꽈?
#1 풋죽엔 감저 아니, 그런 건 엇고.
@ 안 놩예?
#1 으. 감저 놔시민 아메도 그 특미가 이실 테주, 아마.
@ 게난.

대설

@ 그다음에 이제 소설도 지나고 이제 대설이 오잖아예?
#1 으, 으.
@ 소설, 대설 뒈 가지고 무슨 저 속담 같은 거 엇수과? 대설에?
#1 음.
@ 무신 소설에 나간, 나간 사름 춪지 아년다라든가 이런 말 엇어수과?
#1 음, 그런 말은 이실 게여.
@ 게난 그런 거 굴아줍서, 어떤 말들 잇어신지.
#1 어, 그거뿐.
@ 그거뿐.
#1 에, 에.
@ 미시거렌 굴아수과?
#1 미시거? 소설에, 대설에 나간 사름 춪지 말라? 소설에 나간 사름 춪지 말렌 헷주.
@ 겡 무사 경 굴아신고예?
#1 소설, 아, 아. 소설과 대설이 눈이 하영, 춥다는 거?
@ 예.
#1 춥다는 거.
@ 게 추우면 나간 사름을 춪앙 와살 건디 무사 춪지 말렌 헤신고예?
#1 대설은 위험허니까.
@ 위험하니까.
#1 으, 겡허니까 춪지 말렌 ᄒᆞ는 건 그 소설, 대설에는 나들이를 허지 말라.
@ 나들이를 허지 말라는 뜻이구나예?
#1 결국은 답은 그렇게 나오는 거.
@ 어디 ᄆᆞ실 가지 말렌예?
#1 으.

@ 음, 기구나예? 어, 그다음에는 이제 막 동지 때.
#1 예.
@ 가장 바쁜 사람들이 여자 분들인디 그 장 담아야 뭴 거잖아예? 혹시 뒌장 담가난 거, 어머니네 담가난 거 봐나수과? 장 담가난 거. 장 둥가난 거?
#1 으, 으, 으.
@ 혹시 메주 언제 쑮아난 거 알아지쿠과?
#1 메주, 여, 여튼 그, 그 ᄀᆞ리에 허주. 동짓ᄀᆞ리에.
@ 동짓ᄀᆞ리에.
#1 예.
@ 동짓ᄀᆞ리에 뒌장을 담아수과?
#1 어.
@ 소금에 물 컹?
#1 으, 으, 젱월 나기 전에. 정월 나기 전에.
@ 언제, 언제 헤수과? 메주 언제 숢아수과?
#4 응?
@ 메주.
#4 메주?
@ 예. 콩 숢을 때?
#4 콩 숢을 때게 그게 동짓둘ᄁᆞ지 가게?
@ 아니, 그니까 콩은 언제 숢아수과?
#4 그 콩은 시월둘 새 콩 낭은에, 시월둘 나믄 숢기 시작ᄒᆞ믄게.
@ 숢고. 그믄 장 둠그는 건?
#4 장 둠그는 거? 묵은헤에, 십이월달에.
@ 게난 어, 게난 동지 때예?
#4 어, 어.
@ 양력으로 십이월이주만은, 음력으론?
#4 양력으로, 음력으론 그축헹 담곡 또 이 장 담는 거 딜이 엇어.
@ 아니, 옛날엔?
#4 엿날, 게메 엿날에 지금은 아무때 봄 나도.
@ 담그주만은 엿날엔 게믄.
#4 저 거시기 하이튼 시월달로 시작헤근에 콩 숢앙.
@ 예.
#4 묵은헤 장 담아.
@ 묵은헤에? 새해 오기 전에?
#4 으, 으. 새해 오기 전에.
@ 그난 멩질 오기 전이예?
#4 으.

@ 멩질 오기 전이예?
#4 정월 멩질 오기 전이 ᄆᆞ녀 장 돔아.

십이월

납평날

@ 그다음에는예? 어, 멩질 오기 전이 장도 담그고. 그 동지 지나 가지고 이제 십이월, 섣달 오잖아예? 섣둘 오잖아예?
#1 으.
@ 섣둘에 오면 혹시 남평날엔 헹 들어봐수과? 납평날 혹은 남평날.
#1 어, 어.
@ 그날은 무신 날이꽈?
#1 남평날이 무신 날이라나신지 모르크라.
@ 엿, 듣긴 들어낫지예?
#1 예.
@ 엿, 엿 둥그는 날 아니꽈? 엿. 여기서 엿 같은 거 안 헤나수과?
#1 남평날이란 게 들어나긴 들어낫는데 그거 무슨 행사 무스거 ᄒᆞ는 거보단도 그날 뭐 허지 말렌 막연히 피허는 날이 아닌가?
@ 무시거마씨?
#1 피헤여, 그날은 피허영은에, 남평날을 피허여 가지고 뭐 헌다라고 허는 거.
@ 피한다? 뭘 피한다? 뭘 피헤마씨?
#4 몸을 피헌다 허는 말 아니?
#1 아이, 몸 피허는 것이 아니라, 행사.
#4 행사를.
@ 아, 그날은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
#1 아, 그, 그 글쎄 그건 나는 사가, 나 가인 생각이고.
@ 음.
#1 게난 그, 그런 언어 자체가.
@ 예.
#1 그, 그 속어에 속허지. 이젠 그런 언어 자체가 없지? 아마. 곳사 미시거?
@ 납평, 남평.
#1 납평.
@ 예.
#1 납이민은.
@ 예, 납일, 납일, 납일에. 그니까 섣둘 납일에.
#1 납일이민 원숭이를 말허는 게 아닌가?
@ 예. 맞수다.

#1 원숭이.
@ 예, 맞수다.
#1 예, 원숭이날.
@ 예, 예, 예.
#4 그날을 피헌다. 무시거 ᄒᆞ썰.
#1 피헌다주.

신구간

@ 피헌덴예? 음, 게민 그다음엔 이젠 신구간 잇잖아예?
#1 어.
@ 신구간은, 신구간엔 뭐 헤수과?
#1 신구간에?
@ 예.
#4 신구간에 ᄒᆞᆯ 일 핫주.
#1 저 집 고찌는 거.
@ 집 고치는 거, 또?
#1 방 고찌는 거, 구들 고찌는 거.
@ 예, 방, 구들 다 고치고예?
#1 어, 어, 어. 이 주위에, 집 주위에 ᄒᆞ는 거.
@ 예.
#1 또 천리ᄒᆞ는 거.
@ 아, 천리도 신구간에 헤수과?
#1 으, 천리도 이제 택일 못헤영 그도 저도 못ᄒᆞ곡 이제 첨 바쁜 사름덜은 신구간에 확 헤 불주. (웃음)
@ 아, 맞수다예. 음. 음, 아, 삼춘네도 신구간 때 이사헤나수과?
#1 우린 이사헌 때 신구간 아년.
@ 아니, 그 옛날에.
#1 옛날에도 그 이사ᄒᆞ곡 말곡 무시거 ᄒᆞᆫ엇이 돌아뎅겨서게?
@ 게, 이사 안 헤근에 그냥 ᄒᆞᆫ 집에만 계속 살아수과? 아버지, 어머니 살던 집에 계속 살아수과?
#1 아, 아니. 그건 아니고. ᄒᆞᆫ 번 이사헷저. ᄒᆞᆫ 번은 이사헷주. 건, 건 이디 과수원헨에 과수원 관리실을 멘들젠 ᄒᆞ난 이디 오란 살기 시작ᄒᆞ난 그자 살아 불고.
@ 아, 기꽈? 이 집은 언제 짓엇수과?
#1 ᄒᆞᆫ 이십 년 뒀어.
@ 이십 년뒌예? 음.
#4 이십 년?
@ 게난 이신 집에다가 튿어뒨 거기다 집 짓은 거꽈?

#1 으, 으.
@ 게난 특별히 막 이사 갈 일은 엇어시켜예?
#1 으?
@ 특별허게 막 어디 이사 갈 일은 엇어시켜예?
#1 예, 예.
@ 근데 만일에 이사를 가게 뒈면, 아무튼 간에 새로 집을 짓든 무시거 잠깐 어디 잇당 지은 집에 들어오든 들어올 때, 어, 무시거부터 가져 갑니까? 새 집이 들어갈 때.
#1 솟단지.
@ 솟단지, 음. 무사 솟단지부터 가져가는 거꽈?
#4 솟단지.(웃음)
#1 솟단지, 우선 그게 우선이주.
#4 그거 우선이주. 성냥도 아져가주.
@ 성냥도?
#4 게.
@ 맞아, 성냥 잇어사.
#4 솟단지.
@ 솟단지 밑에 놩 불부찔 거난예.
#1 아이, 솟단지 가민 솟에 따른 거사 다 가져가주게.
@ 맞수다.
#1 솟단지 소곱에 성냥도 놓곡 헹은에.
@ 아, 솟단지 소곱에.
#1 그거 따라가민 푸는체도 따라가곡, 쏠 장만ᄒᆞ는, 이 이거.
@ 또?
#1 또 그거주게.
@ 그거주게.
#1 우선 솟단지 그거 문여 ᄒᆞ곡. 사름 못 가민, 이제 솟단지.
@ 예.
#1 푸는체 젤, 저, 건 ᄒᆞᆫ 집이 ᄒᆞ나 잇주, 여라 개 잇는 게 아니난에.
@ 음.
#1 푸는체는. 솟은 요거 요거 잇주만은, 푸는체는 딱 ᄒᆞ나라.
@ 맞수다.
#1 게, 푸는체 그거 가벼운 거 우선 아져당 걸면은 그거 이사 간 거.(웃음)

집들이

@ 음. 기구나예? 그다음엔 이제 이사를 간 집들 보면은 집들이를 하잖아예?
#1 으, 으.
@ 집알이, 집들이예?

#1 예.
@ 옛날엔 이사, 그 신구간에 이사를 하면 집들이렌 헤수과? 집알이렌 헤수과? 옛날엔.
#1 옛날에 이디서, 집들이, 집들이엔 헌 말은 신식 말이고.
@ 예. 그전엔 뭐렌 골아수과?
#1 그전에는 새집 짓언 잔치헴젠 헷저.
@ 잔치헴젠예?
#1 새집 짓언 잔치헴젠. 뭐.
@ 음.
#1 오케이? 또 집들이? 집들이엔 ᄒᆞ는 건 지금 요즘 말들이고.
@ 지금 허는 말이고예? 게민 그 집, 새집 짓엉 잔치헐 때 무시거 가졍 가나수과?
#1 아, 가져갈 게?
@ 예.
#1 아, 건 돈 봉투 ᄒᆞ는 사람덜토 잇고 옛날에는 그 이, 저, 촛불 초.
@ 초, 음.
#1 초, 그거덜토 가져나고 우선. 에, 뭐 쏠 말이나 헤영은에 영 가까운 친척이나 친헌디는 쏠덜 가져가곡, 영 헤영.
@ 음.
#4 초가 우선.
@ 초가 우선예?
#4 어, 성냥하고 초가 우선.
@ 성냥허고 초허고예?
#1 으.
#4 그게 선물이지.
@ 음. 아까 소한 대한에서는 특별나게시리 그냥 그 소한에 나간 사름 ᄎᆞ지 말렌 그 말밧긴 엇고예?
#1 으.

생업

밭일

@ 겅허멍 이제 그 어, 섣달이 끗난 저기, 마지막 신구간으로 허면서 이제 그 십이월이 끗날 거라예?
#1 으.
@ 어, 끗나면 이제 특별나게시리 이제 여기 그 신예리에는 밧일들도 잇고, 물론 나중에는 미깡낭 심곡 헷지만, 귤나무 심기 전에는 주로 무신 무신 농사 잇엇수과?
#1 농사지을 거 엇주게.

@ 아니 게난, 귤낭 허기 전이.
#1 으.
@ 아까 보리하고 조하고.
#1 어, 거.
@ 그다음 콩하고 이런 것들예?
#1 예.
@ 그때 농사지을 때하고 그거 지낭은에 이제 귤낭 할 때하고.
#1 어.
@ 어, 비교해 보면 어, 어떤 게 더.
#1 경제적으로?
@ 경제적으로든.
#1 살림살이든?
@ 예, 예.
#1 어떻게 차이 나느냐?
@ 예, 예.
#1 훨씬 낫주. 멧 배.
@ 지금 저, 귤낭 허는 것이마씨?
#1 예. 당췌 귤낭 아니면은.
@ 예.
#1 지금도 초집에 기냥 살아실 거.
@ 아, 예.
#1 음.
@ 그전에는 게민 이제 밧디 일헐 땐 이젠 그 콩이든 조든 이렇게 헐 때.
#1 으.
@ 초집을 지을 때라도.
#1 으.
@ 초집 하나 짓젠 헤도 마을 사람들이 왕 다 ᄀᆞ찌 짓어줘잖아예?
#1 어, 어.
@ 이제 귤낭 허멍은 이제 집들도 반듯반듯허게 짓으멍.
#1 으.
@ 그냥 목시 빌고 이제 뭐 빌고 헤근에 집을 짓엇잖아예?
#1 으.
@ 게믄 그때 초집 하나라도 짓젠 허민 막 사람들 모다졍 짓을 때하고.
#1 어.
@ 지금하고 사는 거 비교는 어떵 허우꽈?
#1 지금이 훨씬 낫주.
@ 훨씬 낫아마씨?

#1 그때에, 초집을 ᄒᆞ나 짓젠 ᄒᆞ민 목시 빌어가민 허기 전에.
@ 예.
#1 멧 년부떠 낭을 장만헤야 뒈여.
@ 음.
#1 이제 고지도 강은엥에 기차 오곡.
@ 예.
#1 낭밧디 강 뎅기당은엥에 이제 낭 사멍 다, 요건 뭐 지둥ᄀᆞ슴이여, 도릿ᄀᆞ슴이여, 뭣 상모루ᄀᆞ슴이여, 허영.
@ 음.
#1 그 일일이 ᄒᆞ나썩, ᄒᆞ나썩 사당 ᄒᆞᆫ 멧 년 모돠놩 이렇게 헹 짓고.
@ 예.
#1 어, 영 헤.
@ 게난 그런 거 하나씩 하나씩 모둘 때 다 ᄀᆞ찌 또 마을 사람들이.
#1 아이, 그건 개인적으로 헤야뒈. ᄆᆞ을 사람들이 모다주는 건 그건 아주 옛날이고.
@ 게난, 아주 옛날에.
#1 아주 옛날이고.
@ 게난.
#1 그 우리가 알기론 개인적으로 헤야 뒈주게. 그거 ᄆᆞ을 사람들 다 ᄒᆞ젠 ᄒᆞ민 그디 ᄆᆞ을 사름덜 ᄒᆞᆫ나에 봉사ᄒᆞ당 보민 이녁 살림은 어떵 허라고.
@ 아, 마을마다 그런 것도 ᄒᆞ꼼씩 달르다예?
#1 으, 으, 으.
@ 보면은 이제.
#1 아, 그런 데덜이 잇구나.
@ 예게.
#1 그 ᄆᆞ을마다 헷다는 거는.
@ 으.
#1 흑질ᄒᆞᆯ 때.
@ 게난 흑질헐 때.
#1 어, 흑질헐 때는 모다들엉덜 ᄒᆞ는 거고, 으 그 저 물도 이제 냇물 질어당 멀리헤영 운반허젠 허민, 그땐 뭐.
@ 으.
#1 그땐 뭐 운반수단이라는 게 짐으로 짐벳기는 져난 게 엇잖아게.
@ 음.
#1 니아까도 엇일 거.
@ 맞수다.
#1 이 영 마차도 엇일 거, 뭐 자동차도 엇일 거 허난에 순 이제 여저덜, 부인덜 그거 물 ᄆᆞᆫ딱 져다오저 ᄒᆞ민, 동네 이 이제 이 신예리도 이제 ᄒᆞ면은 이 신예리 반 부락,

반은 다 동원시경은엥에 헤엿단 말이주.
@ 맛수다예.
#1 또 서리 ᄒᆞ영은에, 그, 이 저 서슬ᄒᆞᆯ 때.
@ 아, 서슬. 지붕.
#1 서슬을 허젠 ᄒᆞ민은 집을 헤 놩은엥에 다 여껏거든.
@ 예.
#1 에, 대나무라든지 헤근에 짤랑은에 거기에 흑 ᄇᆞᆯ르게, 헤야 축벡을 멘들 거난에.
@ 맞수다.
#1 그거 ᄒᆞᆯ 때 또 동네서 모다들곡 방상에서 모다들곡 헹은에 그거 헤영 뒷날은 흑질.
@ 음. 기구나예. 아, 그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 조나 보리, 콩, 산디, 뭐 감저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이제가 중간 중간에 저가 이렇게 여쭤보면서 언제 갈고 언제 수확하고 헤신디.
#1 으.
@ 어, 문제는 이제 그 감저 같은 거는 모종은 어떵 헹 마련헤수과?
#1 무시거?
@ 감저, 감저. 고구마.
#1 집이, 집이서.
@ 집이서 어디 놔뒀당?
#1 우잣디. 우영팟이엔 헤근에 우잣디에 우영팟.
@ 우영이든 우잣이든.
#1 요샌 텃밧이렌 허주.
@ 예. 요샌 말 안 ᄀᆞᆯ아도 좋수다. 게난 옛날 말로. 우잣디.
#1 으. 우잣디 놩은엥에.
@ 예.
#1 어, 그디 쉐걸름 퍼다 놓곡 헹은엥에 잘 걸롱.
@ 예.
#1 기냥 놓앗당은에.
@ 게난 그 쉐걸름 놔근에 할 때 그 저 감저 심젠, 그 감절 어디다 놧당? 어디 보관헷당? 아까 시월에.
#1 어, 구뎅이 팡은엥에 감젓구뎅이.
@ 예.
#1 감젓구뎅이엔 써게.
@ 아, 지금 다 녹음 뒘수다, 예.
#1 감젓구뎅이에 놓앗당은에.
@ 예.
#1 그 감저, 그 겨을내낭 감저 먹곡.

@ 예, 구뎅인 어디 팟당?
#1 우잣디.
@ 것도 우잣디 놩?
#1 예.
@ 음.
#1 에, 가끔 잇당 날르지 못헹 밧디도 파는 수가 잇주만은.
@ 으.
#1 대충 거의 아마 우잣디 헷당.
@ 으.
#1 으, 가까우니까, 겨을에.
@ 예.
#1 거 헤당은에 쪄먹기도 ᄒᆞ곡.
@ 음.
#1 그걸로 헹은에 그 감저가 제주도에 삶을, 고구마가 그 제주에서 사름을 살렷젠 ᄒᆞᆯ 수가 잇어.
@ 맞아예.
#1 에, 고구마가 좋은 것은, 이 태풍 불면은 해수가 탁 올라오라 가지고 작물들을 다 츤물 헤 불면은 다 죽어 불거든.
@ 예.
#1 게난 고구마는 그거는 영향을 조금 덜 받나, 이거.
@ 아, 땅속에 이시난?
#1 땅소곱에 이시난에.
@ 으.
#1 경ᄒᆞ고 끗어도.
@ 예.
#1 고구마는 그렇게 끗진 아녀.
@ 아.
#1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는 고구마 그거 허면은 그렇게 숭년이 들지 아녀주게.
@ 음.
#1 그, 저, 다른 조 ᄀᆞ뜬 거는 경ᄒᆞ곡 이제 그 고고리 피영은에 영 나오라갈 때.
@ 예.
#1 일본 사름덜은 그것ᄀᆞ라 니하꾸도오까엔 헹은엥에 이백십일 날.
@ 예.
#1 걸 막 무서왕 허는디 그 ᄇᆞ름이 태풍이 불엉은에 싹 씰어 불거든.
@ 예.
#1 모 나오단 거 요렇게 나오는 거 싹 씰어 불민은 이게 크질 못헹은엥에.
@ 음.

#1 어, 컷자 조코고리 요만씩흔 거 흐믄 그거 수확이 얼마 엇엉 완전히 저 허는데.
@ 아까 뭐 꼬끄렝이?
#1 으.
@ 꼬끄렝이만씩?
#1 으, 으. 조코고리.
@ 아, 조코고리만씩.
#1 으, 으, 으. 조코고리 나오젠 헌 때게 그 씨, 그, 딱 아다루허주게.
@ 아, 그때가 이제 태풍 불 때꽈?
#1 어, 태풍 그 중에도 그게 아주 무섭다곤 헤 가지고 일본 사람들토 그 니하꾸도오까엔 아주 막 무서워헤낫주.
@ 음, 니하꾸도꼬.
#1 도우카.
@ 도우카.
#1 이백십 일.
@ 이백십 일.
#1 으, 이백십 일. 그, 그 기준을 나도 지금ᄁᆞ지도 몰르크라. 언제부터 세여 가지고 니하꾸도오깐지 그건 모르고.
@ 음.
#1 으 입춘부떤디, 언제부떤지 건 모르고. 니하꾸도오까, 니하꾸도오까 헤근에 우리.
@ 이백십 일이민 한 달에 삼십일씩 계산헷을 때 칠월달, 칠월 말이나 팔월 초에 불엄저예?
#1 어, 오케이.
@ 아, 겅 헤근에 이백십 일이구나.
#1 그 태풍이 젤 무서운 게, 그해, 어, 어린 때 헌 거는 따시 순 날 수가 잇지만은 흐데, 이건 완전히 순 나오랑은에 고고리 핌 시작헌 거 때려 불면은 따시 순 나지도 못허고 기냥, 기냥 가부는 거난에.
@ 예.
#1 그래서 숭년 져 가지고.
@ 음.
#1 에, 이제 그때 흐면은 여기는 저 뭐냐 저 모관 땅들에는 땅이 굳어 놓니까.
@ 음.
#1 물 골랑은에 다 죽어.
@ 죽어 불고예.
#1 뿌리가 다 썩어 불고.
@ 썩어 불고.
#1 경 헹은에 숭년든덴 허는 거주.
@ 음.

#1 겐디 감저는 그런 여냥이 없다 이거여.
@ 없으니까, 맞수다예.
#1 감저만 먹엄시민 목숨은 구명ᄒᆞ니까.
@ 맞수다예.
#1 으.
@ 그다음엔 그 이제 귤나무를 시작하니까.
#1 음.
@ 언제쯤 헤수과? 시작은?
#1 귤나무 시작이 저게.
@ 예.
#1 육이오 끗나 가지고.
@ 예.
#1 그 육이오 때는 당장은 생각도 못ᄒᆞ고.
@ 예.
#1 어, ᄉᆞ삼사건엔 더 그 후제. 거 일본 사름들이, 여긴 일본 사름들이 완에 문여 시작을 헤시난에.
@ 음.
#1 어, 그걸 많이 보면서 헤엿는데 그 일본 교포들 잇는 사름덜은 묘목을 사당은에 그때부떠 조끔 ᄒᆞᆫ 멧 천 평 심기 시작헷거든.
@ 음.
#1 이 서호리레. 여기는 당추 추워서 귤나무는 안 뒌다.
@ 음.
#1 저 홍리나.
@ 예.
#1 저 서호리레 ᄀᆞ뜬 디 ᄯᅳᆺ헌 지방에서만 뒈는 걸로만 생각헷주.
@ 예.
#1 어, 경헨 그디 사름덜 한창 헤 가니까, 여기서도 ᄎᆞ츰ᄎᆞ츰.
@ 음.
#1 헤가니까 뒈는 거라.
@ 음. 삼춘은 언제부터 헙디가?
#1 에, 우리는 중간쯤에.
#4 오십칠 년, 오십칠 년.
#1 중간, 중간.
@ 오십칠 년? 음.
#4 우리 아이덜이 다슷 설 때 나무, 나무 싱건에.
@ 음.
#4 미깡 반 관.

@ 음.
#4 저 흔 밧, 거시기 흔, 흔 관도 아니.
@ 음.
#4 흔 오벡. 저 무시거 반 관 포따리 헨에 짊어젼, 옆집이 받으레 와시난 풀레 가난.
@ 아.
#4 딱 오십, 오십오 년 헨에.
@ 낭 멧 개에?
#4 으?
@ 낭 멧 개에마씸?
#4 낭 준준흔 것이 저 모종 사당 싱건에게 그거.
@ 그것에 난 걸로.
#1 으.
@ 아, 그게 천구백오십칠 년?
#1 어, 오십칠 년에 그때.
#4 오십칠 년 뒀저.
#1 반 관 풀아 가지고 아이 겨을 옷 우알 삿어.
@ 아이고, 잘도 비싸낫저예?
#4 성제, 성제.
#1 어. 아 경ᄒᆞ난에 그거 먹을 수가, 먹을 수가 잇어게?
@ 누게가 사 먹읍니까게. 사 먹는 사름?
#4 하이고.
#1 받앙 가민게 육지 가민은 그게 금깝이지.
@ 아이구야.
#1 으. 그때 그 사레 온 사름이, 이, 저 그 뭐 나 아는 사름덜 오란에, 그 지금 말허자면은 공무원들토 고급공무원덜 다 부인덜이엇어. 말젠 보난에.
@ 예.
#1 저 문 정보를 알아 가지고 오란 싹 거둰에 간 저 이 서울더레 가건 보낸에 잘 받아 갓주.
@ 아이고 세상, 반 관 헤신디 아이덜 옷 두 벌을 산.
#1 겡 미깡이 영 하영 난 영 떨어질 중 그때 꿈에도, 생각도 못헷어. 그때 굴으멍 미깡 막 싱그면서 그래도 요영 싱그면은 보리쏠 흔 말 깝은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헤서. 최저 보리쏠 흔 말 깝은 줄 것이다.
@ 게난.
#1 경 헤엿는디 그게 아니라. (웃음) 워낙 하영 헤놓니까.
@ 게난, 아까 우리가 농사지엇던 이야기에 대헤서 정리를 좀 헤보게예?
#1 예.
@ 어, 조는 언제 갈아수과?

#1 저, 유월절 뒈기 전에.
@ 유월절 뒈기 전에예?
#1 에.
@ 보리는 언제 갈안마씨?
#1 보리, 시월둘 뒈어야. 아이, 시월둘, 저, 거시기 저, 양력으론 십이월둘 뒐 거여.
@ 겡 음력으로?
#1 음력으로 갓다리왓다리 허난 음력은 몰르고.
#4 시월달예?
#1 하이튼 십이월둘 들엉은에 우리가, 에, 십이월둘 들어 가지고 보리 끗낭 이제 ᄒᆞᆨ교엘 갓어.
@ 보리 끗낭?
#1 저 보리, 돗걸름밧 끗나민은.
@ 예.
#1 그게 끗나면 십이월 말일 뒈주.
@ 예.
#1 그때 강 보면은, 가다가 보면은 그 보리 그 걸름덜 막으민, 걸름 막음엔 ᄒᆞ주. 걸름덜 막는 밧덜이 이서낫주게.
@ 예.
#1 음. 게난 십이월둘 내내.
@ 보리를 갈안예?
#1 보리를 간 거주. 게난에.
@ 상강, 상강 전이, 상강 전이 조를 수확헤수과?
#4 아, 저기 헷지.
@ 상강 전이 수확 조를 허민 그 조가 저 보리, 조그르 갈아근에 거기다가 보리 갈앗덴 헷잖아예?
#1 으.
@ 게난 상강 전이민, 상강이 약력으로는 한 시월 이십삼일이고,
#1 아, 상강.
@ 음력으론 구월이난.
#1 상강이면은 상강이면은 그때부떠는 완전이 스돕이주.
@ 음.
#1 모든 저, 작물덜이.
@ 예.
#1 꼿은, 저 양봉ᄒᆞ는 사름덜은 상강 아시날ᄁᆞ지 밀엔 헤근에 꿀 빠다가 상강 후제는 스돕이라.
@ 예.
#1 밀이 없어.

@ 예.
#1 어, 그때부떠 겨을이 들어오는 거 아니?
@ 예.
#1 겨을 들어오민 그때부떠.
@ 보리 갈기 시작허는 거마씨?
#1 아니, 아니. 수확이지, 수확. 여름 곡석 수확. 곳사 ᄒᆞ꼼 좀 틀려신가?
@ 그니까, 조가 상강 전이 수확을 하고.
#1 아니, 아니. 조 상강 후제.
@ 아, 조 상강 후제 헤수과?
#1 으, 으.
@ 상강이 양력으로 시월 이십삼일 경이라예.
#1 시월 이십삼일.
@ 조는.
#1 게민 음력으론 구월둘이 뒈는 거주.
@ 구월달 뒐 거.
#1 으.
@ 게민 음력으로 구월, 시월달에 게민 조 수확헤수과?
#1 으.
@ 음력으로 시월달예? 아, 경헷구나.
#1 게난 여기는 그런디.
@ 예.
#1 다른 지방덜은 저 에, 동이 한남리[할람니]라든지 이디서 저디 사는 사름덜 일로 오민.
@ 예.
#1 우린 불써 ᄀᆞ슬 다 헷어 영 곧주게.
@ 예.
#1 에, 게난에 또 저영 서르레 가보민 우린 ᄀᆞ슬 다 허영 돗걸름밧 헤엿는디 밧디 보민 ᄆᆞ물들이 기냥 아이 빈 냥 잇어.
@ 아.
#1 저 화순드레 영 강 보민 그긴.
@ 음.
#1 그영 차이가 나는 거.
@ 어.
#1 어, 어. 제주도에 너른 디라.
@ 음. 게난 보리는 상강 지나 가지고 돗걸름밧 헷다는 거잖아예. 십이월 그 양력 십이월까지예?
#1 으.

@ 돗걸름밧을?
#1 으.
@ 음, 겅 헷고. 그다음엔 콩은 언제 갈앙 언제 수확 헤수과?
#1 그건 저 일반적으로 다른 작물덜이나 ᄀᆞ뜨게.
@ ᄀᆞ뜨게 허민 언제?
#1 그, 이, 저.
@ 유월절 지낭?
#1 유월절이지?
#4 예, 유월절 전이도 갈곡, 유월덜 ᄉᆞ방에.
#1 그 유월절 전후에 갈아야 뒈여.
@ 콩은예?
#1 예. 너미 일찍 갈민은.
#4 열매가 엇곡.
#1 저 부실헤여.
@ 아, 일찍 갈면은.
#1 어, 열매 그 저 방울은 훍뒈 무게가 없어.
@ 음.
#1 또 너미 늦으민은 방울은 ᄋᆞ망지대 얼만 열지를 못헤여.
@ 아.
#1 그 콩은 아주 예민헌 거주게.
@ 게난.
#1 일정을 잘 잡아야주.
@ 겡 산디는 언제 갈아수과?
#1 제일 문저.
@ 제일 먼저민 산디도 마찬가지로 유월절 지낭?
#1 아니, 아니.
#4 한참 전이 갈아사주.
@ 보리.
#1 뻐꾹새 울민 산디 갈주, 뭐.
@ 무시거마씨?
#1 뻐꾹새 울면.
@ 요즘 뻐꾹새 우는디.
#1 게민 지금 산디 갈 때라.
@ 아. 산디는 뻐꾹새 울면.
#1 게 나도 언젠지 몰라. 나도 뻐꾹새 소리 들으멍 산디밧 불려시난에.
@ 음. 뻐꾹새를 옛날에도 뻐꾹새렌 ᄀᆞᆯ아수과?
#1 으, 뻐꾸기게.

@ 뻐꾸기예?
#1 뻐꾸기 울으믄 산디 불려야.
@ 아, 뻐꾸기 울면은 산디 간다.
#1 으.
@ 아까 고구마는 그 감저씨 그걸 뭐렌 골아수과? 구감?
#1 어.
@ 구감은 언제 심엇수과?
#1 구감?
@ 예.
#1 청명에.
@ 청명에?
#1 음.
@ 청명에 심엉 저 무시거는?
#1 사월둘 청명 뒈어 가면은. 어, 옛날엔 헷는디 지금은 뚜나주.
@ 뚜나지예?
#1 그때는 청명 뒈어야 그.
@ 게민 그 저 고구마, 구감 심어근에 이제 고구마 그거 싹을 뭐렌 골아수과? 꿀?
#4 어, 어, 꿀.
@ 고구마꿀?
#1 꿀.
@ 고구마꿀은 게민 언제 심어수과?
#4 야, 지금.
#1 저, 거시기. 곳사 칠월, 유월절이엔 헷지이?
@ 예, 예, 예.
#1 유월절 전이 싱거사.
@ 아, 유월절 전이 싱거사.
#1 으. 근디 그 저, 거시기 다른 농서처럼 아주 예민헤여.
@ 예민. 맞아. 아, 기구나예, 으. 귤이야 그냥 낭 싱그민 거기서 나는 거난예?
#1 으.
@ 귤낭, 귤은 보통 그전엔 언제 수확헤수과? 막 이것저것 나기 전이.
#1 아, 아, 그거는.
@ 처음에. 온주니 뭐니 할 때는, 와세.
#1 완전히 익젠 ᄒᆞ면은.
@ 예.
#1 십이월 말일 뒈어사.
@ 겅 헷지예? 옛날엔예?
#1 예, 예, 예. 게난에 그 요샌 조생이엔 ᄒᆞᆫ 게 빨리 익는덴 ᄒᆞ는 거주.

@ 예.
#1 빨리 익는 것도, 익는 중에도 아주 재기 빨리 익는 것이 잇는데 극조생 잇고.
@ 극조생 잇고예?
#1 으, 그게 나와 가지고 헷주, 옛날에 기냥 보통 귤은 십이월둘 십이월 말 뒈어야.
@ 경헷지예?
#1 예, 게난 동지 뻬빠로 맞아사.
@ 익어시난예?
#1 익언.
@ 어, 귤은 언제 가지는 칩니까?
#1 으?
@ 가지, 가지치기.
#1 가지치기?
@ 예. 귤낭.
#1 아, 아. 전정.
@1 전정 맞아, 맞아.
#1 전정. 그 저 지방마다 조금 뚜나.
@ 겡 여기.
#1 여기는 이월 이십오일 뒈면은.
@ 양력?
#1 어, 양력 이십오일 뒈어 가면은 빠른 사름덜은 저 해벤이 뚜뚯훈 디는 치고.
@ 예. 그때 막 순 낭, 순.
#1 아, 순 나기 전이 헤여.
@ 전이 쳐부는구나예?
#1 으, 으으.
@ 음. 알아수다. 귤은 그렇게 하고예.

바다일

@ 그다음엔 여기 신예리라 부난 웃드르라 부난.
#1 으.
@ 혹시 바다에 가 가지고 뭐 그 무신 보말이나 저 구젱이나, 이런 구젱기 이런 건 허레 안 가봐수과?
#1 무사 아이가?
@ 음. 언제 주로?
#1 이디덜. 그 옛날에 우리 홀 때는 언제 주로 가왓주. 구젱기 그런 거 보말 잡는 거는 뭐 언제든지 가난에.
@ 예.
#1 어, 주로 이제 그 저 봄 나가민은 뜨뜻헤 가면은 강은엥에 구젱이도 깆디서 영 잡

아오고.
@ 예.
#1 보말도 헤당 영 잡아당 먹곡, 영 헤여.
@ 음. 공천포 바당 강?
#1 공천포든 저 이디 가민은 공천포도 가곡 뭐.
@ 망장포도 가고?
#1 망장포, 망장폰 아이 강 위미리서 잘.
@ 위미리, 위미리에 가수과?
#1 으. 위미린 우리는 몰르는데. 이딘 바닷가가 ᄒᆞ쏠 가까우난 공천포 주로 가고.
@ 음.
#1 저 우에서는 아마 다른 데들 가온 모양이라, 에.
@ 음. 게민 겅 하고예? 그다음에 어, 메역이나 몰망이나 톨 같은 것도 허레 가나수과?
#1 어, 어.
@ 그니까 몰망인가? 몰망은 걸름허젠 허믄 막 몰망 강 헷덴 헷잖아예?
#1 으.
@ 게 그건 언제쯤 강 헤수과?
#1 팔월[팔뤌]에.
@ 팔월에.
#1 응.
@ 먹는몰망은 언제 헙니까?
#1 먹는몰망은 봄에 헤지 아녀신가? 봄에.
@ 봄에.
#1 이 앞에는 못 먹는 몰망이 언마 엇어.
@ 게민 여기 신예리에서는 메역이나 그 어, 톨이나 해체하는데 ᄀᆞ치 강 안 헨마씨?
#1 무사 아녀. 해녀들 강은에 ᄀᆞ찌 허주게.
@ 여기도 해녀 잇어나수과?
#1 으, 으. 해녀덜 잇어.
@ 아.
#1 해녀덜토 잇어나고 보제기덜토 잇어나고.
@ 아, 잇어나수과?
#1 음.
@ 혹시 그럼 그때 해녀 헷던 어른 혹시 지금 살아계신 분 계시꽈?
#4 핫주게.
#1 지금?
@ 하?
#4 하.
@ 아, 그믄 한 삼춘 또래도 이수과?

#4 우리 또래도 해녀들 핫어.
@ 지금도?
#4 음.
@ 게민 한 번 그거 알아봐야 뒈켜.
#1 음.
@ 게면 겅 하고. 그다음에 궤기 나끄레 그 주로 아까 우럭, 추석 헐 땐 우럭 헷덴 헷잖아예?
#1 으.
@ 셍성은 이제 막 물러 부난예?
#1 으, 으.
@ 음. 자리 뜨레도 당연히 가겟지예?
#1 자리?
@ 예, 배 타는 사름들은.
#1 아, 그때에 근데 우리 욱은 후젠 보제기덜이 엇어 불고.
@ 예.
#1 어, 자리 뜨레덜 가나실 테주. 게난에 아, 물론 가낫다고 봐야 뒈주.
@ 혹시 그게 언제 떠나신지 알아지쿠과?
#1 봄 나가면은 자리 뜨레 가주.
@ 봄 나가민, 지금 나난예?
#1 으, 으.
@ 게민 일단 저가 그 바당에서 일하는 분 저기 만나 가지고 하기로 하고예? 어, 그 다음엔 혹시 신예리에서 그 특별나게시리 뭐 어떤 날은 밖에 나가지 말라라든가 아니민 그 숫 멜 때, 언제 숫 메나수과? 무신 일 때문에? 숫 멜 때?
#1 어, 정월둘에.
@ 예, 정월둘에?
#1 에, 나그네 춪젠 ᄒᆞ민 올레 숫 메영은에, 웬숫 메영은엥에 금헤낫주.
@ 정월에예?
#1 으. 금줄.
@ 금줄예?
#1 으.
@ 숫 메고. 그다음엔 특별나게시리 기억나는 속담 엇수과? 어른들 막 뭐 말헷던 거?
#1 우리 기억이 아이 나네.
@ 기억이 안 남수과?
#1 으.
@ 알앗수다. 그러면 이제 그 열두 달까지, 이야기 끗나시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예?
#1 으.

일월

@ 지금부터 어 바다 일에 대헤 가지고 저가 여쭤보쿠다예? 그 바다에서 주로 추, 막 얼 때 음력이라예? 저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예? 일월달에는 어떤 거 헤수과?
#3 일월달이민 정월이라신가?
@ 예, 예, 예.
#3 그때는 추우니까 저, 이 눈이 많이 와난 때는.
@ 예.
#3 해숨.
@ 아, 해숨?
#3 해숨을 주로 ᄒᆞ고.
@ 음. 해숨하고예?
#3 또 그다음에는.
#2 해숨이엔 안 ᄀᆞᆯ앙 미엔 ᄀᆞᆯ아살 거주게.
#3 미엔 ᄀᆞᆯ아살 거. 옛날은.
#2 으.
@ 아.
#3 옛날도 해숨이엔은 ᄀᆞᆯ앗주.
@ 해숨이엔 곧고. 미는 그 해숨 그 창자 얘기허는 게 아니꽈?
#3 아니. 기자 미, 그것이 그거.
@ 해삼도 미렌 ᄀᆞᆯ앗수과?
#3 그 정월 들엉은 이제 아침 일어낭 막 상강진 때는.
@ 예.
#3 아, 오늘은 바당에 가민 해숨이 만히 나키여 헤근에.
@ 음.
#3 그때는 고무옷도 안 입고.
#2 (웃음)
#3 완전 그 춤 대단헷주게.
@ 맞아.
#3 게난.
@ 그때 그 옷 이름 생각남수과?
#3 그때 속곳이엔 헌 거 입고.
@ 속곳 맞아예.
#3 물적삼 하얀 거 입고 하얀 수건 쓰고.
@ 쓰고예?
#3 경헷주게. 게난에 우리 어머니가 한남리[할람니] 어룬이난 물질을 못허난에.
@ 음.

#3 막 을큰헨게게.
@ 음.
#1 해벤이 살멍 그것도 아녀민 뒈느녠 허난에.
@ 음.
#3 어머니, 무사 아녑디가? 허난. 난 하도 하르방 강단 쎄부난 못헷저 허멍.
@ 음.
#2 옛날엔 못허게 헷주게.
#3 으, 양반칩 똘덜은 무신 경 곤작사지 못헷저. 못허게 허난에 아년. 그걸 못허크냐, 그거 막 히믄 잘헌덴. 게난 열, 열일굽 술 뒈난에 이젠 그걸 배우젠 허난. 진짜 가민 곤물만 퍼 먹곡 진짜 죽을 지경이라도게.
#2 (웃음)
#3 놈덜토 다 허는 거고. 해벤에서 허는디 첨, 헴시민 뒈주 허는 것이 열일굽부떠 베우난에 그 우리 마을에 첨, 어촌계장님이라도 헌 어른덜이 막 그 유식헌 어른들이난에 물건도 받곡, 소라 점북도 돈 그땐 하영 안 가도 받곡, 메역도 허민 받곡 허민 나ᄀᆞ라 애기야, 애기야, 나 똘아, 나 똘아 허멍 경 막 날 애껴주더라고.
#2 (웃음)
#3 게민 우리 집이 헤지건 아져 오라, 아져 오라 헤민. 그 아져 가면은 그 어촌계장이 하도 엄허곡. 딴 사름은 첨 이기지 못헤도 그 어룬은 해녀를, 그때 ᄒᆞᆫ 멧 백 멩 다 이겨근에 그 열일굽 뒈근에 헤근에 그 소라 점복을 허민 똑 거기를 가져 가난. 그 어촌계장이 이젠 돌아가셧주만은 나ᄀᆞ라 이제 조합에를 가입허라 허난에. 조합이 뭐?
@ 그 조합 가입헐 땐. 어촌계장 이실 때?
#3 으.
@ 저, 막 거의 이쪽에 ᄒᆞ끔 나이들 때 아니꽈?
#3 아니, 그 열일굽에 헨에 재우 베와가난 ᄒᆞᆫ 열ᄋᆞ답 술 뒈어가난에.
@ 그때도 어촌계장이 잇엇수과?
#3 아이구. 잇엇주게.
@ 음.
#3 게난 그때 그 고기 쏘우는 작살.
@ 음.
#3 그거 헤근에 ᄒᆞ민 그것도 ᄒᆞ곡 ᄒᆞ민 그 막 애껴줘게 그 어른덜이.
@ 그 작살로도 일월에도 작살 사용허멍 궤기 쏘아수과?
#3 그, 그건 항상 저 필수품으로 가졍 다녀.
@ 게민 그때 막 추울 때는 작살로 무시거 쏘아수과?
#3 문어. 문어도 봐지민 그것만.
@ 게난 삼춘, 문어가 아니라.
#2 물꾸럭.
#3 물꾸럭.

@ 물꾸럭.
#3 문게, 문게.
@ 문게, 음.
#2 (웃음)
@ 그다음에 소라가 아니라.
#2 구젱기.
#3 구젱기.
@ 구젱기예. 경 헹 골아줘예.
#3 으.
@ 일월에는 해숨, 미하고예? 그다음엔 작살 가졍 뎅기멍.
#3 작살 가졍 뎅기멍 저 문게.
@ 예, 문게 잡고예?
#3 으, 저 고기도 봐지민 저 쏘웁고.
@ 쏘고.
#3 으.
@ 게민 그 물궤기덜은 어떤 궤기덜 쏘아수과?
#3 궤기는 옛날엔 바당에 막 핫어. 요즘은 엇어도.
@ 음.
#3 그 저 북바리여, 뭐 우럭이여, 논젱이여, 골객주리여, 막 고기가 핫주게.
@ 음. 기구나예? 음.
#3 경 ᄒᆞ민 족아근에 춤 무시거 헤도 막 어른덜안티 그런 사랑을 만히 받앗어. 이 해녀질 허멍.
@ 음.
#3 게난 그 어촌계장네 집이 가면은 어머니 아버지허고 그 계장님이 ᄒᆞ루 해녀질 ᄒᆞᆫ 거를 가져 가지 말라. 무시거 ᄒᆞ쿠가 ᄒᆞ민, 조합에 들어주마 허난 그때는 두리난에 조합이 뭣산디 뭐, 뭐가 뭣산디 몰라. 조합이 무시거꽈? ᄒᆞ민, 아이고 저 ᄒᆞ루 ᄒᆞᆫ 것만 가져가지 말민 느 조합에 가입허민 씨집가도 제주도 안네 살앙은 그대로 저 헤여지는 거난에 무조건 ᄒᆞ루 헤치랑 받아가지 말라 허난. ᄒᆞ루 헤친 돈이 얼마나 뒈신디.
#2 (웃음)
#3 그 ᄒᆞᆫ 물끼 그믐인 받으레 가는디 돈을 낭중에 조합에 가입허구렌 헌 것이 이제 내낭 조합에 뒌 거라게. 게난.
@ 멧 년이꽈? 다 합치난?
#3 다 합치난, 이 거 나 팔십이주게. 이 지금. 팔십이난에, 해녀질은 끗나건 디 오래고 아파가고, 이 예춘 씨집와 부난에 못헷수다게.
@ 음.
#3 경 ᄒᆞ난 경 졍 헨에 예춘을 씨집완에 살아가는디 그 처년 때는 그 물질을 아녀민

생활을 못홀 정도게.
@ 음.
#3 하도 그때는 생활덜이 어려우난.
#2 음. 그 시절엔, 그 시절엔 경 헷주게.
#3 응, 그축 헤근에 첨, 어머니안티 그 교육을 받안에 그 물질을 베완에, 신예리, 이제 첨 예춘이엔 헌 부락을 씨집을 오난. 원, 예춘선 물질ᄒᆞ는 사름도 엇곡 헤봣자 가근에 무시거 ᄒᆞ꼼 헤민 동네서 멧 뭐 ᄒᆞᆫ 가지썩 아져가 봐도 마트는 사람은 족덴 헤도 ᄒᆞ루 헌 건 ᄒᆞ나도 엇어 비어.
@ 아.
#2 엇어, 엇어.
#3 겡 헷주. 첨 저 성님 알거니.
@ 음.
#3 그추룩 허멍 헤도 기자 그 돌돌돌돌 털멍이라도 기자 기축 헹 오민 그거 풀앙 가근에 쏠도 강 ᄒᆞᆫ 뒈 사곡.
@ 음.
#3 애기덜토 첨 키우곡. 그추룩 허멍 큰 모냥은 안 뒈도 ᄒᆞ루ᄒᆞ루 생활이 경 뒈어 갑디다게. 뒈어 가고 그.
@ 음, 게민 일월에 해ᄉᆞᆷ 잡곡 그 저 그땐 작살 보고, 작살이렌 안 헤근에 다른 소살 뭐 이런 말 안 헤수과?
#3 소살게 소살.
@ 겐, 소살 가졍 갓잖아예?
#3 소살ᄒᆞ고 빗창.
@ 빗창도 가져가고예?
#3 빗창은 저 전복 떼는 거.
@ 게민 일월에도 전복 떼 졋수과?
#3 아이고, 전복은 아무 때라도 바당에 강 봐짐만 ᄒᆞ민 뗏주게.
@ 게민 어, 일월에는 어, 저기 그 메역이나 물망, 톨 이런 건 안 헤수과?
#3 저 일월둘에는 엇언. 그 이삼월 나가사 물망, 톨.
@ 음.
#3 겡 헨 헷수다게. 겡 헨에 춤 씨집오기 전이 열일곱에 베완에 열아홉 술 뒈난에 이제 옛날에 육지, 처녀들이 막 그 돈 벌레 나가수다. 제주도서.
@ 삼춘도 가나수과?
#3 가낫주게.
@ 어디?
#3 저 강기목이엔 헌디. 지금 구룡포, 포항.
@ 음.
#3 그 강기목이엔 헌디, 아주 바당에 엄흐게 지픈 디라. 물도 막 냇가치룩 치곡.

@ 음, 그 포항에 잇는 데꽈?
#3 으. 포항으로 가민 그 포항 그 도대엔 헌 디 가민 그 공군부대 춤, 구만이엔 헌 디가 잇더라고.
@ 음.
#3 그 우리나라 구만 헌 디가.
@ 음.
#3 그디 가민 그 공군덜토 그디서 잇어근에 해녀질헐 때, 일요일날은 왕 막 사름덜이 영 그 첨, 장난도 치곡 해산물 잡은 것도 먹곡. 그추룩ᄒᆞ멍 첨 재미지게 두 해를 갓다와신디.
@ 음.
#3 해녀 모집헌 사름은 누게냐 허면은 저 거시기 한림.
@ 음.
#3 한림 그 백○○ 씨엔 헌 사름, 우리 제주도 분이.
@ 음.
#3 육지 간에 그 살면서 봄 나민 해녀 모집허렐 ᄂᆞ려 옵디다게.
@ 게민 제주도 전 지역에 원하는 해녀들은 다 데련 간마씨?
#3 아니, 그 앞으로 가는 해녀.
@ 음.
#3 나 앞으루 가게 허면은 우리가 여라 사름이 가겐 헤도 이녁 뜻에 맞인 사름 조름에만 갓주게.
@ 아, 경헷구나예?
#3 응, 그난 백○○ 씨라고. 그때 간 보난에 첨 머리도 헤영 ᄒᆞ고 그 백두남 씨가 이제 첨 돌아가벳주만은 아주 좋아. 우리 제주도 분이고 육지 강 살아도. 겡 나가 가면은 비온 날도 매날 그 바당에 가곡, 여기서 잘사는 집이서 간 애기덜은 올 때까지 먹을 식량을 다 가졍 갓주만은 난 솔직헌 말로 그런 능력이 엇인 사름이랏주게.
@ 음.
#3 겡 ᄒᆞ민, 집이 가지 말라게. 애기야 가지 말라. 나영 살앙 가지 말라. 기다리는 사름도 엇곡 가지 말아근에 우리영 살라, 살라 허멍 헤도. 그땐 어머니벳기 좋은 사름이 엇언게게.
@ 맞수다게.
#3 경 ᄒᆞ난 첨.

이월

@ 그 경ᄒᆞ고. 이월 영등 날 땐.
#3 으.
@ 영등 날 땐 물에 안 들지.
#3 영등, 그때 우리 두린 때는 영등 헐 때는 그 영등굿엔 허멍 무당덜 막 굿허주게.

@ 게난 그때 물에 안 들엇지예?
#3 물에 안 들주 경 헌 땐.
@ 영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여수과?
#3 그 영등은 영등 이월달엔 허민 날짠 흔엇이 정헤지 아녕 그냥 그 둘에.
@ 이월 초하루에 할망 들어왓당 열나흘에 나간덴 헙디다만은.
#3 응, 경 헌덴 ᄒᆞ주만은 그것ᄁᆞ지는 잘 몰라.
@ 게민, 게민 그때 영등 날 때 어, 막 심방허고 헤낫잖아예?
#3 으.
@ 바당에서예? 그때 혹시 기억남수과?
#3 기억나주게. 그축 헐 때 굿허는 디 가민 그 심방덜이.
@ 예.
#3 이 저, 좀수옌 헷주, 해녀 해녀 허는 말은 이제사 난.
@ 맞수다.
#3 좀수덜 ᄒᆞ곡, 보제기덜.
@ 예.
#3 어부덜ᄀᆞ라 보제기덜은 이제 멧 설, 멧 설에 궂다.
@ 음.
#3 게난 이제 바당 요왕님안티.
@ 음.
#3 이제 바찔 걸 바찌라 허민은.
@ 음.
#3 이녁 그 소원을 풀어근에.
@ 음.
#3 게, 밥도 싸고 기자 궤기도 튿아놩 싸고, 돈도 놩 싸곡 헤근에 바당에 문 바찌주게.
@ 음.
#3 바쪄근에 막 영 헤근에 소원 빌곡 그축 허멍 그런 거 지냇지.
@ 그때는 어느 바당에 가근에.
#3 어느 바당. 우리가 주로 허는 바당. 이 저 위미리 바로 앞이.
@ 위미리 앞이. 아, 저 공천포 가지 안헤영.
#3 아, 공천폰 저 씨집온 후제.
@ 아, 씨집온 후제.
#3 으.
@ 아, 위미리 바당 가근에.
#3 으.
@ 그믄 이월에는 이제 영등 들 때문에 물에 못 들고. 그믄 삼월 나가민 들기 시작헤시켜예?

#3 아니, 영등둘에 이월둘에도, 그 굿ᄒᆞ는 기간만.
@ 빼고?
#3 메틀 빼근에 다 헷주게.
@ 그때는 게민 무시거 나수과?
#3 그땐 구젱기도 잡곡.
@ 예.
#3 기자 메역도 ᄒᆞ꼼 날 때 톧곡.
@ 음, 톧곡.
#3 가민 가끔 다 물망도 봐지민 먹는 거 허곡.
@ 아, 이월 나민 물망도 막 남구나예?
#3 어. 이월 나가민 메역도 막 나가주게.
@ 기구나예? 게믄 이월 나가고, 삼월 나가민 삼월 때도 마찬가지꽈?
#3 이월 그뭄 나민, 그뭄광 삼월 보름 새는 뭐를 허느냐면은 메역 허지. 메역 허지. 딱 금헷다가.
@ 예.
#3 금헷다근에 아무 날, 아무 날부떠 메역 허지헐 거여 허민.
@ 허지헐 때는 어, 좀녀들 말고 저 뱃사람들 말고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강 헷수과?
#3 어, 마중. 마중 가근에 미역 저, 해녀, 좀수덜 헹 나오민 지게로 막 져 날랏주게.
@ 져 날랏지예? ᄒᆞᆫ꺼번에예?
#3 응, 져 날라근에 오민.
@ 그게, 메역 허지가 삼월, 이월 말부떠?
#3 이월 그믐, 음력 이월 그믐날로 삼월 보름이 대목이라.
@ 아, 기구나예?
#3 으. 게, 날이나 궂이민 밀려가도 날씨가 좋면은 그 순간에 만히 ᄒᆞ주게.
@ 예. 그때 메역하고 그다음엔 허지한 게 메역 말고 다른 건 엇수과?
#3 으, 메역. 어, 메역 많이 ᄒᆞ곡, 또 다른 거 물망 ᄀᆞ뜬 건 그땐 하도 하 놓난에 막지 아년에.
@ 음.
#3 이녁 시간 낭 ᄒᆞ고 싶으민 ᄒᆞ곡.
@ 예.
#3 그땐 소라도 겅 금허지 아녓주게.
@ 아.
#3 이녁 시간만 나민 기자 구젱기도 강 잡아근에 먹구젠 ᄒᆞ민 먹국 풀구젠 ᄒᆞ민 풀곡.
@ 풀곡예?
#3 이제나 이축 헴주.

@ 톨도예?
#3 톨은 기자 어촌계에 든 사름덜은 저 개탁에 작업엔 헌 건 적 ᄆᆞᆺ으레 오라.
@ 무시거?
#3 저 바당에 검질메레. 적이엔 ᄒᆞᆫ 거 곶인 잡풀 케레.
@ 아.
#3 경 헹 가곡. 그 조합원덜만.
@ 바당 속에 잇는 잡풀 검질?
#3 으, 그게 케곡. 또 저 봄 나가민 그 톨 케레 가곡. 게민 톨 헤근에.
@ 한번만 더 ᄀᆞᆯ아줍서, 바당에 나는 검질을 뭐렌 ᄀᆞᆯ아서마씸?
#3 저, 거시기 잡풀. 바당에 잡풀.
@ 잡풀, 아까 적?
#3 적, 적 ᄆᆞᆺ곡. ᄀᆞᆯ갱이로 강 적 독독 두두리멍 적 ᄆᆞᆺ곡.
@ 적, ᄆᆞᆺ는 건 무신거옌 얘기허는 거우꽈?
#3 저 무시거 이 발 찔러 불곡 ᄒᆞ는 것들 잇주게.
@ 아, 적 ᄆᆞᆺ아 불어.
#3 어.
@ 아, 적 ᄆᆞᆺ곡.
#3 그거 ᄆᆞᆺ곡 뭐 지충 ᄀᆞ뜬 거, 뭐 우리안테 필요엇인 건 다 뽑아 불주게. 경 헤사 메역도 잘 나곡.
@ 맞수다, 맞수다.
#3 저 그때 사름 먹는 것만 내우젠 그런 건 다 메 빗주게.
@ 게난예. 게민 그다음에 어, 삼월 낭 경 하고.

사월

@ 이제 사월 뒌 저 막 이젠 봄 막 깊엇잖아예?
#3 으.
@ 그땐 뭐 헤수과?
#3 그땐 우리 가구젠 ᄒᆞ민 가근에 밀메역도 나민 ᄐᆞᆫ아당 먹곡, 구젱기.
@ 무신 메역?
#3 밀메역. 봄 나가민 그 밀메역이엔 ᄒᆞᆫ 거 두불 메역 낭 ᄌᆞᆫᄌᆞᆫ헌 것이 잇주.
@ ᄌᆞᆫᄌᆞᆫ헌 거.
#3 그것도 헤당 먹곡 구젱기도 잡아당 먹곡 생복도 잡아당 먹곡.
@ 음.
#3 그추룩 헤수다게.
@ 그다음엔 그러면 봄 지나가지고, 어, 단오 같은 것도 헤나수과?
#3 단오 ᄀᆞ뜬 건 그, 기자 저 물른밧디서 ᄒᆞ는 거난. 옛날 조상덜, 단오 멩질덜덜 헷주게.

@ 헷지예?
#3 으.
@ 그믄 여름 나면은 유월, 칠월 여름 날 땐 뭐 헤수과?
#3 여름 날 때는 우리 해녀가 주로 ᄒᆞ는 건 저 물망.
@ 물망, 아, 물망은 여름에도 막 낫구나예?
#3 으. 여름이가 주로 헷주게. 그때.
@ 아.
#3 고지기여, 뭐 는지기여 그런 거 나민, 옛날엔 돈 엇이민 그거 헤다근엥에 물류와 근에 꼴아근에 고구마도 심곡.
@ 맞수다.
#3 막 뭇아근에 보리도 갈곡.
@ 맞수다, 맞수다.
#3 그축 헷수다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와수가?
@ 겡, 이제 여름 나가민 어, 물망도 하고.

팔월

@ 그다음엔 어, 추석 때쯤 뒀을 땐 무시거 헤수과?
#3 추석 때 뒐 때는 벨로 바당에 강 추석에 강 뭐 헤당 허지 않은 거는 이녁 스스로가 구젱기나 잡아당 ᄒᆞ곡.
@ 음.
#3 가근에 기자 춤 제수 좋민 전북도 떼곡 ᄒᆞ주만은 경 아녀민.
@ 으.
#3 여름엔 반찬거리벳기 강 헤 오지 못ᄒᆞ주게.
@ 그 여름 날 때, 막 장마진 때 막 특별나게 나는 건 엇엇수과?
#3 장마에 가민 저 구젱기 저 ᄒᆞ곡, 또 전복ᄒᆞ곡 물꾸럭이 잘 나와. 장마 때.
@ 장마에 물꾸럭?
#3 으. 문게, 문게.
@ 문게.
#3 경 ᄒᆞ난 해녀덜은 밧디 일ᄒᆞ당이라도 기자 시간만 나곡 바당만 불민 가낫주게.
@ 가낫지예?
#3 바당만 가민 돈 십 원이라도 나곡 물른밧디선 아무 것도 엇이민게.
@ 백중 땐 뭐 헤수과? 백중 때 바당에선.
#3 백중 땐 바당에 벨루 가지 못헤여.
@ 음.
#3 바당이 막 쎄주게. 백중 절기여, 처서 절기여, 칠월[칠뤌] 절기여 ᄒᆞ멍 여름 나민 막 바당이 쎄여, 쎄여.
@ 쎄여.

#3 으.
@ 게믄 이제 추석 나고 하늬ᄇᆞ름 불 땐 뭐 헷수과?
#3 하늬, 하늬ᄇᆞ름 날 때도 벨로 바당에서 홀 게 엇어. 그 하늬ᄇᆞ름 나가민 여름엔 구젱기가 물 ᄯᅳᄯᅭ훈 땐 곳에 올라왓다근에 ᄇᆞ름 나가민 막 깊은 바당덜에 ᄂᆞ려가 분덴 ᄒᆞ주게. 구젱기가.
@ 아, 구젱기가. 아, 기구나예?
#3 으.
@ 아, 기구나.
#3 으, 기축, 기축 헤낫수다게.
#2 ᄃᆞᆺ은 디 감으로게, 것도.
#3 으.
@ 바다 깊은 데가 ᄃᆞᆺ아가지고.
#3 으. 여름엔 ᄃᆞᆺ은 디레 올라왓당.
#2 여름엔 ᄃᆞᆺ은 더레 곱아벰주게.
#3 이 저 팔월[팔뤌], 구월 나가민 지픈 디레 또 ᄂᆞ려가 불어.
@ ᄂᆞ려가 불엉예?
#3 으.
@ 겅 하고예. 그 엿날에도 김장 같은 건 ᄃᆞᆷ갓잖아예?
#3 으.
@ 그때 그 바당에 가근에 그 베추 ᄃᆞᆷ그고 헤나수과?
#3 나, 씨집와사 그걸 봣주게.
@ 그걸 ᄀᆞᆯ아줍서. 그거.
#3 씨어머니가 완 보난에.
@ 예, 예.
#3 아, 가멩이에 저 그 옛날은 속앚인베추도 엇엇주게. 베치ᄂᆞᄆᆞᆯ도 엇이민.
#2 퍼데기베추.
@ 맞수다.
#3 퍼렁ᄒᆞᆫ 베치ᄂᆞᄆᆞᆯ 헤근에 아, 씨집오난 석 ᄃᆞᆯ 사난 저 애기 아방은 군인가부난에. 아, 큰큰ᄒᆞᆫ 가멩이 헤근에.
#2 (웃음)
#3 저, 거세기 퍼렁헌 베치 헤근에 막 담앙 얽어근엥에.
#2 졍 가.
#3 져근에 가. 어딜 가느냐 ᄒᆞ민 저 망젱이 헌 디가 잇어.
@ 예.
#3 아, 그디 가근에 이젠 물토강이 헤근에 막 놔근에 돌 헹 지둘르라, 지둘르라. 어머니, 이거 무시거 할 거꽈? ᄒᆞ민.
#2 (웃음)

#3 짐치 홀 거 아냐 ᄒᆞ민. 어멍 무신 짐치도 이추룩 헙니까? 우리 어무니넨 소곰에 ᄃᆞᆷ갓당 ᄒᆞ는디 무사 이디ᄁᆞ지 완 헴수과? ᄒᆞ난. 아이고 영 ᄒᆞ민 소곰도 안 들곡 좋나 ᄒᆞ멍. 아, 기축 ᄒᆞ멍 ᄒᆞᆫ 댓 새 ᄃᆞᆷ가. 그디 가근에.
@ 메칠?
#3 ᄒᆞᆫ 댓 새.
@ 음.
#3 ᄃᆞᆷ강 놔두민 그것이 누리룽ᄒᆞ게 죽주게.
@ 음.
#3 죽으민 그디서 깨끗이 씻엉 와근에 이제 집이 와근에 그땐 뭐.
@ 양념이 셔?
#3 무신 양념은 무시거 셔서게? 그자 고칫ᄀᆞ루나 ᄒᆞ곡, 확실히 알아지는 건 마늘.
@ 음.
#3 콥대사니. 그거나 놓곡 헤근에 항아리에 헤근에. 요새 무신 냉장고여 무시거여 헴주만은 항아리 헤근에, 저 밧 아레 헹 놔두민 여름 나도 그자 앗아내민 기자 퍼렁ᄒᆞᆫ 것도 막 맛 좋곡. 감저 쳐근에 그거 앗아내민 영 놀레 온 사름광도 ᄒᆞᆫ디 먹으멍 맛 좋덴 먹곡, 그축 ᄒᆞ멍 살앗수다게.
@ 음.
#3 게난 옛날 먹는 건양 감저뻿데기 헹 먹곡.
@ 음.
#3 놈삐 썰어근에 생기리 헹 먹곡.
@ 음.
#3 경 ᄒᆞ멍 살앗주. 요새ᄀᆞ치 맛 잇다 엇다 헤수과? 엇언 못 먹엇주.
#2 (웃음)
@ 맞수다. 그 저기 바당에 다닐 때 혹시나 뭐 그.
#3 나 이거 바당에서 ᄆᆞᆫ 저 장애뒌 거라. 이거 ᄆᆞᆫ 수경으로 ᄆᆞᆫ 쩨여 비연.
@ 아, 겅 헤 불언? 거 무시거꽈? 저 입춘 때쯤 뒀을 땐 바당에 다닐 땐 뭐 금하거나 아니면 조심하렌 헌 그런 말 엇엇수과?
#3 입춘엔 조심허라 말라 말은 안 들어보고.
@ 음.
#3 그거 그 말ᄁᆞ진 못 들어봣수다.
@ 음. 그믄 막 입춘에도 막 바당에 물질허레 가곡 헨마씨?
#3 입춘ᄁᆞ진 안 헷주.
@ 입춘에는?
#3 으. 안 헷어.
#2 옛날엔 아무 것도 허지 말렌 헤낫주.
@ 게난 그 아무 것도 허지 말렌 헐 때 그냥 입춘이난 아무 것도 허지 말라, 겅 한 게 아니라.

#3 입춘날은 여저가 오면은 ᄉᆞ뭇 막 욕ᄒᆞ주게. 그 집이 막 검질 짓넨 ᄒᆞ멍 막 욕ᄒᆞ멍 ᄃᆞ울리곡.
#2 (웃음)
@ 게난 그런 거.
#3 어.
@ 여자 놈의 집 가민 검질 진다.
#3 으. 남전 가민 곤밥 헹 주렌 ᄒᆞ곡. 여전 가민 검질 짓넨 ᄒᆞ멍 막 욕ᄒᆞ멍 ᄃᆞ울리주게.
@ 음.
#3 기축 헤신디. 이제도 입춘날은 여저덜이 좀 조심헹 뎅기주. 경 아무데나 가진 못헙니다. 미안헤근에.
@ 음.
#3 기자 젊은 사름덜은 입춘 무시거 안 헤근에 막 가주마는 우리ᄁᆞ지는 그때 헤난 거 생각나근에 조심헤근에 몰랑이나 가주, 알앙은 안 갑니다게.
@ 음.
#3 겐디 요즘은 기자 입춘날 오일장을 잘 들어양?
@ 음.
#3 게민 장엔 잘 가져. 그날 돈 쓰민 일 년 내낭 돈 쓸 일만 난덴 ᄒᆞ멍 그날 돈도 쓰지 말라.
@ 음.
#3 옛날 어룬덜.
@ 돈 쓰민 돈 들 일 한덴?
#3 일 년 내낭 돈만 쓸 일 한덴.
@ 음.
#3 입춘날 돈 쓰민.
@ 음.
#3 또 입춘날 베 아졍 가근에 무시거 등짐으로 져나민 여름 나민 베염이 하영 뎅긴덴 ᄒᆞ멍 베도 졍 뎅기지 말라.
@ 음.
#3 옛날 어른덜은 막 그런 ᄐᆞᆫ아진 것이 하낫수다게.
#2 바눙질도 ᄒᆞ지 말라.
#3 바눙질도 ᄒᆞ지 말라.
@ 무사?
#3 게 몰라게 무사산디게.
#2 (웃음)
@ 게난 그런 것들 잇잖아예?
#3 으.

@ 특히 입춘 때.
#3 으.
@ 뭐 바눙질도 허지 말라, 그거 진 거 가졍 다니지 말라 이런 것들 헷엇잖아예?
#3 으.
@ 그거 말고 다른 것덜 영 엇수꽈? 바눙질도 허지 말라 잇엇고, 또?
#3 입춘 때는 기자 조용ᄒᆞ게 살곡 잘사는 집의 남저나 오민 ᄉᆞ믓 제수 좋겐 ᄒᆞ멍, 뭐 들어옵센 ᄒᆞ멍 곤밥이라도 헹 안네렌 막 헷주만은 곤밥은 경 아무 디나 나와게?
#2 에구, 곤쏠은 오죽 어려왓어?
#3 게난. 기축 ᄒᆞ멍 옛날은 춤 동네 인심.
#2 경 ᄀᆞᆯ아낫주.
#3 인심도 경 좋곡.
@ 음.
#3 춤 요 우리 신예린가 이 예춘은 냇물을 먹엇주게.
@ 음.
#3 수도도 그땐 엇언 냇물을 먹으민 내에 ᄂᆞ물이라도 헹 가민 ᄒᆞ꼼 도라 ᄒᆞ민. 아졍 갑서. 엇이민 또 ᄒᆞ꼼 줍서 헹 빌엉 오곡 헤신디. 요즘은 무신 인심도 하나 엇곡.
@ 게난예. 그 내창에 나오는 그 물 이름이 무슨 거꽈?
#3 저.
#2 물은 남서게? 이제.
#3 우리 먹어난 물?
@ 예.
#3 우리 먹어난 물?
@ 예.
#3 벨레냇도엔 헤낫주. 벨레냇도.
@ 벨레냇도?
#3 으.
@ 벨레냇도.
#3 요 서녁 펜이 물 먹으민. 벨레냇도, 벨레냇도 허멍.
@ 음.
#3 못 살크란게. ᄀᆞ물아 부난 물도 다 ᄇᆞ따불고.
@ 힘들엇지예? 맞수다. 아, 그리고 그 바당에 다니멍 어, 그 손지들안티라도 꼭 그 얘기는 헤 주고 싶은 뭔가 특별한 일 이시민 ᄀᆞᆯ아줍서.
#3 바당에 뎅기멍 손지덜은 나지도 아닌 때곡 우리.
@ 아니, 지금 손지들안테 할망 바당에 다닐 땐 영 헤낫저.
#3 에, 에. 것덜 원 ᄀᆞᆯ을 시간도 엇곡 모여 앚지도 못ᄒᆞ곡.
#2 ᄀᆞᆯ아도 듣젠도 아녀곡. 현댓 아이덜.
#3 기자 당추 이해도 가지 아녀고. 우리 애기덜은 알앙.

@ 음.
#3 이제 큰아덜이 오십ᄋᆞ답.
@ 음.
#3 족은아덜이 오십ᄋᆞ슷이주게.
@ 음.
#3 게민 이것덜은 알아근에 어머니, 저 물꾸럭 심어단에 죽 쒄 주난양 어머니 잡아준 물꾸럭이 젤 맛좁디다.
#2 (웃음)
@ 음.
#3 우리 큰아덜이 ᄒᆞ는 말인디, 이제 시에 살암주만은. 저 추자돈 강 물꾸럭을 먹어 보민 어머니 잡아준 물꾸럭 맛이엔 똑ᄀᆞ뜨곡양.
@ 음.
#3 그다음엔 먹어봐도 어머니 잡아준 물꾸럭 맛이 아닙디다. 우리 아덜은 이제도 그 말을 ᄀᆞᆯ아.
@ 음.
#3 어머니 그때추룩 물꾸럭 강 문게 못 심어 오쿠과? 허멍 그축ᄒᆞ민.
@ 음.
#3 이제 문게 심으레 가지느냐게. 나 경 ᄀᆞᆯ아낫주게.
#2 아이고, 게메.
@ 음.
#3 기자 애기덜을 기축 곧곡. 경ᄒᆞ민 기자 저 우리 아저씬 그때 젊으난 막 기분 좋아 근에 술 먹엉 와근에 막 ᄉᆞ뭇 이것도 나 거여, 저 것도 나 거여. 막 재미지게 살앗수다. 우리.
#2 (웃음)
@ 어, 그 바당에 들 때 뭔가 막 위험한 일은 안 닥쳐낫수과?
#3 위험한 일은게 그때 춤 재수가 엇이민 그 삼성절이엔 ᄒᆞᆫ 절이 잇엇수다.
@ 음.
#3 절. 바당에 갑자기 막 쎄여근에 절이 세 번은 완전히 뒈싸복닥ᄒᆞ게 갑자기 쎄주게.
@ 음.
#3 그때 재수 엇이민게 사름 흡쓸령 죽은 사름도 잇고.
@ 음.
#3 춤, 벵신 뒈는 사름도 잇어신디. 나가 이거 ᄒᆞᆯ 때는 우리 족은아덜, 이제 오십ᄋᆞ슷 난 아덜 임신헨 팔 개월 만에, 여름에 물망 ᄒᆞ레 갓단. 물망 ᄒᆞ레 갓단.
@ 음.
#3 절을 세 번만 꺼끈 때는 알아젼게, 정신이. 알아집디다마는 ᄋᆞ답 번을 꺼끕디다.
@ 아이고.

#3 읏답 번 꺼끄난양, 물이 빠짝 쌋단 물이양 완전 페뜨(?)끄지 올라완.
@ 아.
#3 올라완 보난에양 이디 수경이 아무도 엇인 거라. 와꾸만 잇언에.
#2 아이고.
#3 이디 문 체젼에. 이디 문 페적 아니꽈?
@ 아.
#3 게난 이디 그때 모이렌 헨에.
#2 해벤이 왕 박아벳구나.
#3 아이고 경 흔난양 그 숭시ᄀᆞ찌 경헨. 게난 이추룩 영 흔난 피가 경 콸콸콸 흔난, 뛔미레 갈 거주만. 뛔미 가민 누게 알아줍니까? 이디 오난게 씨어멍은 엇고게. 어둑도록 앚아시난 씨아방 와시난. 아이고, 아버지 나 영 헷수다 흔난. 아이고, 이거 어떵 흔 일이니? 흔멍. 씨어멍 오라시난. 검질메레 가시민 경 아녈 거 아니라 흔난. 해가 딱 이만흔 때주게. 우리 씨아방 저 아이구, 저, ○○네 집이 글라, 글라 헨 가난. ○○가 막 욕헙디다게.
@ 음.
#3 놈의 일이곡 헌 걸 이치룩 헌 거 나 당추 나 손 보난 송 의사신디 갑센. 겐 송 의사신디 가난 그때 칠백 원입디다. 벵원비가 이거 문 체연.
#2 아이고, 그때 돈 칠백 원 족은 돈이 아니라.
@ 음.
#3 칠백 원이난양, 돈게 이백 원인가 삼백 원 아졍 간에 이디 문 헤싼에게, 그때 촛불도 베롱흔 그 저 오 촉짜리라, 전기. 경 헨에양 돈 ᄉᆞ백 원 엇언 다신 가보지 못헷수다.
#2 하이고.
#3 경 흔 세상을 살안. 이거 문 페적, 놈 어디 가민 청보 때문 헤시카 부덴 헤도. 이거 나 저 해녀질 흔단 이거 열두 바눙 준 디고 일로 읏답 바눙 이거.
@ 그때 삼승절 만난에 여덟 번 꺼끈 거?
#3 어, 읏답 번 꺼끈 거.
@ 음.
#3 게난 공천포 이레 걸언 올라왓주게. 벳 과랑과랑 나는디.
@ 그땐 공천포 바당 갓을 때?
#3 응, 이디서 걸엉 가곡 걸엉 오곡. 저 하르방은 군인 가 불곡.
@ 하이고. 겅 헷구나예?
#3 경 헨, 경 헨 살앗수다게.
@ 아이고, 고맙수다. 바당 일을 예춘이라 부난 어떵 헐 건고 헤신디다가 해결하게 헤줜 고맙수다.
#3 (웃음) 나 알아지는 건 굴앗수다만은 몰르쿠다, 딴 사름덜은 무시겐사 굴을 디.

10. 남원읍 하례1리

- 조사 일시: 2022년 6월 2일, 11월 2일, 11월 3일
- 조사 장소: 제보자 자택
- 조사자: @ 최연미
- 제보자: #1 현영송 #2 허정순

조사마을

@ 우선 하례일리에 대헤서 어 두 분안테 여쭤보겟습니다. 우선 이 마을이 원래 이름은 뭐여수과?
#1 하예춘.
@ 하예춘.
#1 으, 하예촌.
@ 하예촌.
#1 예.
#2 가메기ᄆᆞ루.
#1 가메기ᄆᆞ루. 우리, 우리 가메기ᄆᆞ루옌 허민 뒈주. 촌말로 가메기ᄆᆞ루.
@ 가메기ᄆᆞ루예?
#1 예.

오름

@ 어, 그다음엔 이 마을에도 혹시 이 어 하례일리에도 오름 같은 거 이수과?
#1 오름이 아이고 걸쉐오름.
@ 것쉐오름?
#1 예, 우리 바로 우리, 이 우리 마을 우리 부락 우녁 펜이.
@ 것쉐오름?
#1 어, 걸쉐오름.
@ 예, 그거 하나밧기 엇수과?
#1 예. 그거벳기 엇어. 저 우엔 뭐 물오름 ᄀᆞ뜬 거 잇주만은 화전에.
@ 화전에?
#1 으.
@ 화전에 물오름은 하례리 거?
#1 예. 하예리 강. 그디 가근에 촐 비곡 검질 비곡 허는 헤난 디.
@ 아, 그랫구나예? 물오름예?
#1 예, 물오름.

@ 물오름 잇고.
#1 그 우리, 우리, 우리 지경이난 우리가 관리허는 거주게.
@ 맞수다.
#1 그디 나무 심고 다.
@ 으.
#1 낭 심고 다 헌 디.
@ 경 헷구나예.
#1 예.

물

@ 혹시 그믄 여기엔 어, 나는물 같은 거 엇수과?
#1 나는물은.
#2 산이물.
#1 산이물은 요디 잇어.
#2 나낫주만은.
#1 요디.
@ 게난 저기 어디꽈? 망장포엣 거까지.
#1 망장포.
@ 그거도 다 포함뒌 거. 망장포도 하예리라 부난.
#1 예. 저 공세미허곡.
@ 예.
#1 하예리허곡 경계에.
@ 예.
#1 내가 잇어.
@ 예.
#1 게난 그, 그 바당에서 흔 벡 메다 올라오면은 거기서 산이물이영 물 나나신디.
@ 예.
#1 요 중간에 그 저 지금 롯데공장 생겨 부니까.
@ 예.
#1 거기가 완전이 나는물 이서낫주게.
@ 아.
#1 그딘 뭐 일 년 내내 물이 나.
@ 음. 옛날에는 하예리선 그디 물 갓당 먹엇수과?
#1 아니, 아니.
@ 게민?
#1 냇물.
@ 냇물 어디 거? 미신 내?

#1 큰내.
@ 이름이 큰내?
#1 예, 하례 큰내.
@ 하례 큰내. 근데 하례 큰내에선 그축 계속 물이 나와수과?
#1 아이, 그디 통하게 물이 이섯주게.
@ 아. 물 몰라 불민?
#1 지금은 지하수로 문딱 빼 부난에 물 엇는데.
@ 아.
#1 엿날에 우리, 수도 허곡 뭐 엇인 때는 거기 일 년 내내 강 모욕허곡, 물이 이만이 ᄀᆞ득앗어. 지금은 비오민 그 내가 치는디.
@ 예.
#1 내치민 삼일이민, 사흘이민 문딱 빼져 불어.
@ 엇어져 불엉예?
#1 으, 게난 그 지하수 안 뺀 땐 물이 일 년 내내 이만히 헷어. 우리, 우리 키 훈, 세 배 네 배.
@ 음. 아직도 그 물 뭐 골라난 거기는 그냥 잇고마씸?
#1 그냥 잇고.
@ 어.
#1 지금도 훈 곤디선 남내소라고.
@ 남내소.
#1 남내소.
@ 예.
#1 그디 막 깊어.
@ 아, 기구나예.
#1 그기는 뭐 멧 년 뭐냐 ᄀᆞ물아도.
@ 예.
#1 물이 그냥 이서. 지금도 물 이빠이라.
@ 아, 겡 그디물 떠다근에?
#1 아니, 그 물은 먹지, 그딘 사름 못 가.
@ 못 가?
#1 위험헤. 빠지민 그디 우리 어른덜은 촌 말로 창이 터진 디렌 허주게.
@ 음.
#1 그딘 가민 나오지 못헤. 뭐냐 나오지 못ᄒᆞᆫ덴 ᄒᆞ여.
@ 음.
#1 남내소라고, 그 우리 저 소문난 디라.
@ 기구나.
#1 남내소.

@ 그 남내소가 보이긴 합니까?
#1 어, 보이지. 겉으로.
@ 겉으로예?
#1 그 지금 우리 하예리, 그 뭘로 헨에 저 청년덜 막 저 ᄒᆞ고 잇는데.
@ 음, 아, 기구나.
#1 음.
@ 게믄 언제 한 번 그디 저 가근에 사진.
#1 으. 하예리 마을. 으, 하예리 마을 가민 그 청년들 모아 가지고.
@ 예.
#1 그 뭐 ᄒᆞ는 거 많이 잇어.

당

@ 예. 그리고 여기 혹시예? 저 사람들 막 그 기도하거나 비는 당 이수과? 당?
#1 당, 엿날은 이서낫는디.
@ 지금은 엇수과?
#1 당, 당.
#2 당?
@ 예게.
#1 큰당.
@ 게난 큰당?
#2 큰당 그 저 걸쉐오름에 저레 가는디.
#1 걸쉐오름에.
#2 큰당 이서낫어. 큰당.
#1 내, 냇가에.
@ 냇가에?
#1 예, 게난 그때 그디 책임자 심방이 큰심방 잇주게.
@ 예.
#1 심방 허민 그걸로 거기서 굿허곡 그 뭐 멧 둘에 ᄒᆞᆫ 번 어머니덜 막 가근에.
#2 서당도 잇어, 서당.
#1 소원, 소원 뒈곡.
@ 게 그 서당은 아직도 이수과?
#2 서당은 저 도토리동네 에염에 이신디, 이제 솔짝솔짝 뎅기는 사름은 헤도 안 뎅겨, 잘.
@ 게도 일단 당은 잇긴 잇지예?
#1 응, 당 이서낫어.
#2 으 당은 이서낫어. 서당.
@ 아까 서당허고?

#1 큰당, 서당.
#2 으.
@ 큰당허고 서당예? 어딘 엇수과? 망장포 같은 덴 바닷가난 이실 거 닮은디. 갯긋이 엇수과?
#1 그딘 당이 엇인 거 닮은디. 당에 뎅기는 딘?
#2 그딘 절간만 짓언.
@ 아, 기구나예.
#1 그 절간은 요즘사 건축흔 디고.
@ 기구나예. 음, 그 일단 어 그거 당 자체는 아직도 잇고예?
#1 예.
#2 망젱이에.

포제

@ 그다음 여기예, 포제, 포제도 헴수과?
#1 예, 포제 엿날엔 헤나수다.
@ 지금은?
#1 지금은 아녀고.
@ 혹시 그 포젯당은 이시카예? 제지어난 포젯당.
#1 지금은 그디 강 찾지 못헌 덴니다. 막 우이.
@ 막 덤불져 불엉?
#1 으, 걸쉐오름 그 밧 ᄒᆞ나 펜펜흔 디 시난 거기 제단 멘들고.
@ 예.
#1 거기 가서 각 그 뭐냐? 성씨 별로.
@ 음.
#1 성씨 별로 흔 사름썩 뽑아근에 그디 가근에 뒈지 희셍ᄒᆞ곡 그 포제 지나는 건 나, 나가 흔 번 딱 흔 번 참여헷어.
@ 혹시 그때?
#1 예.
@ 그 포제 지낼 때 뭐, 뭐 준비 헤낫는지 혹시 기억남수과? 미시거 올려나신지.
#1 그때가 어린 때라 놓난.
#2 무시거? 무시거?
@ 포제.
#1 포제 헐 때 제물, 제물.
#2 제물 얼마 드느니?
#1 아니, 무시거 헤나시닌.
#2 아, 반찬은 그디 간 사름이 열두 가지 반찬.
@ 음.

#2 열두 가지.
#1 아니, 그거는 거 제관 뒤에.
@ 예.
#1 저녁.
#2 게메.
#1 저녁을 아졍, 다 각자가 집에서 밥ᄒᆞ곡 먹을 걸 아졍 가.
@ 각자가?
#1 으.
@ 제관은 멧 명 헤수과?
#1 제관? 초헌, 아헌, 종헌, 흔, 흔 십 명 헤실 건디.
@ 십 명?
#1 음.
@ 아, 겅 헹 가져강 이제.
#1 거기서 밥 먹고.
@ 먹고.
#2 도세기 ᄒᆞ나 잡앙 올려근에 헴실 거라.
#1 제물 생 걸로 올령.
@ 예.
#1 다 생 걸로.
@ 예.
#1 그거 동태 말고 거 아, 동태지? ᄇᆞ짝 몰른 거.
@ 예.
#2 멩태.
#1 명태가 동탠가 큰 거.
@ 예.
#1 그거, 그런 거 올리곡. 그 향 올려근에 축고.
@ 음.
#1 집례, 대축.
@ 예.
#1 대축은 축 읽곡. 홀기라고 그 삼헌관이 초헌, 아헌, 종헌, 절허민 거 홀기 익는 대로 강 절 허곡 잔 올리곡.
@ 음, 잔 올리고예?
#1 게니깐, 일 년, 일 년에 하례마, 하례마을을 펜안하게 헤줍사 하고.
@ 경 헷구나예. 음.
#1 예, 예, 예. 거 겡 헤수다.
@ 음, 언제까지 헤수과? 그거. 엇어진 지 언제쯤 뒈수과?
#1 엇어진 지가, 아, 우리 큰아버지가, 오래 뒛어. 한.

#2 훈, 오랫저.
#1 한 오십 년 넘지 아녀시카?
@ 아.
#1 훈 ᄉᆞ십 년. ᄉᆞ십 년, 훈 ᄉᆞ십 년은 넘엇어.
#2 ○○이 난 때, 아방 그때 제관 헤나난에 가의 지금 쉰아홉이난에 훈 오십 년 뒘실 거여.
#1 오십 년 거자 뒘서.
@ 알아수다.
#1 음. 겐디 딴 마을엔 지금도 ᄒᆞ는, 저 ᄒᆞ는 디가 이수다.
@ 예, 이수다. 보목리 같은 덴 막 크게 헤여. 아직도.
#1 그 학림동도 지금 ᄒᆞ고 잇어.
@ 학림동도.
#1 경 훈디 그추룩 건 젤 그 마을에서 젤 나이 먹은 사름.
@ 음.
#1 성씨벨로 젤 많은 사름 그디 초헌헤영 그거 강, 훈 메칠, 훈 일주일 동안.
@ 음.
#1 여저도 못 뎅이곡.
@ 음.
#1 남자만.
@ 맞수다게.
#1 경헤근에.
#2 몸정성.(웃음)
#1 몸정성 허는디 뭐 집이도 못 가게 헤. 일주일 동안.
@ 음.
#1 경 몸정성 헤영 강 그 장소에서 산에 그 저녁에 올라 강은에 새벡이.
@ 음.
#1 정월보름날 아닌가? 정월보름날인가, 하튼 뭐 날짠 몰르는디, 하튼 정월달에 헤.
@ 예. 해일인가, 정일인가 잡지 맞아, 정일 잡아근에 허는 거 아니엇수과? 여긴?
#1 건, 우리 담제로 헤근에.
@ 예.
#1 사람이 돌, 그 돌아가면 대소상 다 지내고, 담제에는 혹정혹해라고 정해일로 ᄒᆞ는디, 거기는 우리는 날짜를 정헤실 거라. 날짜.
@ 맞아.
#1 메칠날.
@ 기지예?
#1 예. 날짜를.
@ 일단, 일단 그거는 다시 이제 정월에 다시 들어가근에 여쭤볼 때 골아줍서예.

#1 예, 예.

제보자 정보

@ 어, 그다음에는예, 그 두 분, 저기 ○○이 아부지 성함부터 ᄀᆞᆯ아줍서.
#1 현영송.
@ 어머닌마씨?
#2 허정순.
@ 으, 예. 아까 나이랑 이런 것들은 다 정리헷지만은예, 게도 ᄒᆞᆫ 번만 ᄀᆞᆯ아줍서. 올해 우리 나이로 몃 세 됌수과?
#1 우리 한국 나이로 ᄋᆞ든둘.
@ 예. 어머니는?
#2 ᄋᆞ든셋.
@ ᄋᆞ든셋. 그다음에 아버지 띠가 무시거꽈?
#1 베염띠.
@ 어머니는?
#2 용띠.
@ 어, 그다음엔 두 분이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라수과?
#2 (웃음) 하예리서 나고 하예리서 살앗주게.
@ 하예리에서 살앗지예?
#1 으, 하예리에서 전부.
@ 두 분 어머니에 부모님덜은?
#2 우리 부모님덜토 하예리라.
#1 다 하예리.
@ 아버지네도다 하예리예?
#1 예.
#2 으.
#1 하르버지 때부떠, 하르버지, 우리 옛 조상 ᄒᆞᆫ 삼, ᄉᆞ대ᄁᆞ지는 하예리 살앗어.
@ 음.
#1 그 전이는 몰라.
@ 기구나예?
#1 예.
@ 아, 이거는 옛날 일이난 ᄀᆞᆯ아줍서. 겅헤도, 학교 어디까지 다녀수과?
#1 학교, 엿날 우리 못 살, 못살아 부난 난 중학교 ᄇᆞ듯 나왓어.
@ 아이고, 하영 나와신게마씨. 어머닌?
#2 난게 초등학교. 국민학교주, 국민학교.
#1 우리, 우리 벗들은 고등학교 다 나왓어.
@ 아이구.

#1 게난 우리가 못살아 놓난에.
@ 음.
#1 밥도 못 지어, 못ᄒᆞ난에 우리 아버지가 학교 뎅이지 말렌 헤연에.
@ 음.
#1 한문 서당 뎅엿어, 한문 서당.
@ 아이구, 그 아까 서당.
#1 으.
@ 그 서당은 하예리 이서수과?
#1 그 서당이란 건. 아까 선셍님 말씀.
@ 아까 서당허곤 다른 거지예?
#1 예, 그 무신 믿는 당이 아니고.
@ 맞수다, 맞수다.
#1 글.
@ 글 가르치는.
#2 한문 서당게, 한문 서당.
#1 한문 서당.
@ 한문 서당, 맞수다.
#1 한문 서당게. 게난 우리 그 ᄒᆞᆫ 분이 불구자가 이서낫어. 하르부진데.
@ 음.
#1 지금 살아시민 벡 살 넘어실 건데. 그 집이는 그 초가집인데.
@1 예.
#1 거기 가서 우리 멧 사름 가서 천자문 다 베우고.
@ 음.
#1 축문 베우고.
@ 음.
#1 겐, 지금도 나가 그걸 써 먹어. 축문을.
@ 게난.
#1 으.
@ 아이구, 학교 다니면 그런 거 ᄒᆞ나도 못 베와실 거 아니꽈?
#1 겐디 한문은 대학교 뎅긴 사름보다 우리 손지보다 나, 한문은 더 잘 알아져.
@ 게난.
#1 손지가 한문은 몰라.
@ 맞아마씸.
#1 이거 영 못허여. 거 평풍 잇지? 평풍.
@ 예, 예.
#1 그거 쓴 거 ᄒᆞ나토 몰라, 우리 아이들은.
@ 맞아. 겅 헙니다.

#1 이거 무신, 우리 안 베와수덴 이거라. 아이 거 뭐 뭐.
#2 대학교 나온 것덜이.(웃음)
@ 두 분, 결혼식 잔친 어디서 헤수과?
#1 집이서 헤수다.
@ 그면 혹시 그때 사진 찍어수과?
#1 예.
@ 게, 사진 이시멘?
#1 예.
@ 아이구, 다헹이다. 나중에.
#1 흑백사진.
@ 흑백사진? 사진 보여줍서예?
#1 예.
@ 그다음엔 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쭤보쿠다예?
#1 예.

일월

멩질 준비

@ 그 정월 멩질 허젠 허면.
#2 으.
@ 멩질 허젠 허면 어머니 멩질 준비 무시거 무시거 헙디가?
#2 무시거 헤여게. 제숙ᄒᆞ곡.
@ 예.
#2 떡ᄒᆞ곡.
@ 예.
#2 과일ᄒᆞ곡.
@ 게난 게민, 제숙은 뭐, 뭐 헤수과?
#2 제숙, 제숙은이.
@ 예.
#2 셍선 ᄒᆞᆫ 멧 개 굽곡.
@ 예.
#1 경 말아근에, 솔라니엔 ᄀᆞᆯ아. 솔라니.
@ 맞수다.
#2 솔라니국 끌리곡.
@ 아, 솔라니 굽곡, 국도 솔라니로 끌리고?
#2 솔라니, 갱, 갱.
#1 갱.

@ 갱으로 하고예?
#1 으.
@ 게민 그다음에는 저 적갈은?
#2 무시거?
@ 적갈.
#2 적갈?
@ 예.
#2 뒈지, 뒈지고기, 소고기.
@ 예.
#2 또 그레 저 바닷고기나 무시거.
@ 바닷고기.
#2 아무거라도.
#1 저.
@ 무시거? 바닷고기.
#1 미스이까나.
@ 미스이까.
#2 물꾸럭이나.
@ 물꾸럭이나.
#2 으, 그런 거.
@ 으, 그런 거예?
#2 전복.
@ 전복도예? 아니 옛날에, 옛날에도?
#1 엿날엔 전복 아이 헷지.
@ 옛날에.
#2 엿날엔이.
@ 예.
#2 쉐궤기나 이시민 ᄒᆞ쏠 ᄒᆞ곡, 뒈지고기 두 가지만 헤서. 옛날에.
@ 옛날 것도 ᄀᆞᆯ아주고, 지금 것도 ᄀᆞᆯ아줘도 좋주만은, 옛날 거 생각허멍 ᄀᆞᆯ아줍서예.
#2 으.
#1 게난, 엿날 거, 엿날 그 멩질에는 우리 돈 엇이난 소고기도 못 헤신디.
@ 예.
#1 그 엿날은 그 겨울에가 눈이 많이 완, 왓는디.
@ 예.
#1 노리가 내려와.
@ 예.
#1 게난 그 막 부락민이 내창에 막 밀어.
@ 예.

#1 ᄃᆞ울리민 내창에 강 어디 가민 그건 그 멧돌(?)엔 뭐냐 뎅이진 못ᄒᆞ난에.
@ 예.
#1 겡 거기서 잡으민.
@ 예.
#1 그 분육이라고.
@ 예.
#1 가민 간 사름보다 쪼금씩 요만썩 주어.
@ 예.
#1 게민 그건 소금 막 짜게 헹 놧다근에.
@ 예.
#1 단지에 소금 헷당은에 똑 제사 때 멩질 때 요만썩.
@ 예.
#1 춤ᄀᆞ메기. 춤ᄀᆞ메기 알아지쿠광?
@ 예. 알아지쿠다, 예.
#1 춤ᄀᆞ메기적이라고.
@ 아.
#1 눈 큰 사름벳기.
@ 못 봐.
#1 못 봐. 족은 사름은 못 봐.
#2 (웃음)
@ 기구나.
#1 게민 이게 영 꿰여근에 영 구민 시커 먹어 불어.
@ 맞아예.
#1 예, 그거 저 소고기 대신.
@ 대신에.
#1 대신에, 예. 소고기 돈 없으니까, 못 사니까 말이난.
@ 맞수다게, 맞수다.
#1 게민 그걸 어떵 허냐면, 우린 먹진 못ᄒᆞ곡 단지에 소금 막 짜게 헤 놧다근에 그거 헤나수다.
@ 아, 겅 헷구나예.
#1 예.
@ 음, 아까 그 노리 궤기 갈르는 걸 뭐렌 ᄀᆞᆯ아수과?
#1 분육, 분육.
@ 분육헹.
#1 예, 분육헹 간 사름은 아이나 어른이나.
@ 음.
#1 요만썩 다 갈랏어.

@ 족아도?
#1 음, 절대 몰르게 아정간 버릇이 없어.
@ 없이예, 맞아.
#1 게민 거 얼마나 엿날은 좋아신디, 그. 춤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 기라. 진짜 지금은 아니라. 기곡 그다음에는예, 떡은 무신 떡 무신 떡 헤수과?
#2 떡?
@ 예.
#2 솔펜, 절벤, 인절미, 친떡.
#1 친떡이 아니고 제펜.
#2 제펜.
@ 아까, 솔펜, 제펜 헤시난 제펜이 저기 친떡이라예?
#1 으. 그 얄븐 거.
@ 그다음에?
#2 제펜.
@ 아, 얇게.
#1 얍게.
@ 으.
#1 친떡은 뚜껍는디.
@ 아.
#1 또 친떡은 뚜껍는디, 우에 팟을 놓지.
@ 맞수다예.
#1 이 제사엔 팟을.
@ 안 써근에.
#1 안 썽은에 제펜이 막 얄룹게.
@ 예.
#1 그 엿날은 좀 부모나 그 조상 돌아가면은 각 상제가, 제펜 상제.
@ 예.
#1 솔벤 상제.
@ 예.
#1 점심 상제, 조반 상젤 다.
@ 헤낫잖아예?
#1 으, 헤나난. 게난에 그때 ᄒᆞ는 식으로 헤근에, 제펜도 막 얄룹게.
@ 얄룹게예?
#1 못사니까.
@ 못사니까예?
#1 으, 으.
@ 지금 저 정월 멩질 준비허는 거 물어봠서예?

#2 어.
@ 그다음엔 떡, 게민 그벳기 안 헤수과?
#2 떡.
@ 제펜. 솔벤.
#2 이땅 저 모물ᄏᆞ루 시민 젠기도 ᄒᆞ쏠 짓곡. 정월 멩질에.
@ 젠기도 짓곡예?
#2 으.
@ 그 맨 우에 얹이는 떡 일름 무시거꽈?
#2 우찍.
#1 우찍.
@ 우찍, 우찍.
#2 으.
#1 우찍, 우찍.
@ 예. 우찍은 헤낫지예?
#2 으.
#1 우찍 다 헷주게.
@ 맞지예?
#1 지금도 우찍은 헤.
#2 그 저 작굿떡 ᄒᆞᆯ 땐이.
@ 작굿떡.
#2 우찍, 작굿떡.
#1 으, 작굿떡이란 거는.
@ 예.
#1 그 펜틀 정ᄒᆞ주게. 상에 올리는 그 저 그릇.
@ 예.
#1 것이 펜틀인디.
@ 예.
#1 펜틀 우에 놓는 떡은 다 작굿떡이라고 헤. 작굿, 작굿떡. 작굿.
@ 잡곡?
#1 으, 으.
#2 작굿, 작굿.
@ 잡곡으로 떡을 헤마씨?
#2 아니, 작굿떡.
#1 작굿, 떡이 다 다르다 이거라.
@ 아. 경 헤근에 작굿떡, 작굿떡.
#1 으, 으, 으.
#2 작굿떡, 작굿떡.

@ 아, 기구나.
#2 경 ᄒᆞ곡이, 이땅 저 조개술펜도 ᄒᆞ곡.
@ 조개술펜도 허고예?
#2 으.
@ 게믄 떡 놓는 그 차례 골아줘 봅서. 맨 밑에 무시거 놧수과?
#2 친떡.
@ 그다음?
#1 아니, 제펜.
#2 아, 첨. 제펜.
@ 멩질 때, 제펜.
#2 으.
@ 그다음?
#2 제펜 다음.
#1 인절미.
#2 인절미.
@ 인절미, 예. 그다음?
#1 절벤.
@ 절벤.
#1, 2 솔벤.
@ 예.
#1, 2 우찍.
@ 예, 알아수다. 어, 떡은 경 허곡. 그다음엔 음. 아까 과일은 옛날엔 뭐 놔수과?
#2 과일이.
#1 과일은 엿날엔 무시거 엇어낫수다. 우리 하르버지네 집이 그 장자 장손네, 우리 하르버지가 장자 장손이난에 뎅구지.
@ 뎅유지.
#1 지금 시영 먹지 못헤. 그 저 약제로 들어가는 건디.
@ 예.
#1 뎅구지 상에 올려수다.
@ 아.
#1 똑 ᄒᆞ나.
@ ᄒᆞ나.
#1 사과도 엇고, 배도 엇곡, 뭐 ᄒᆞ나토 없어. 나스미깡도 엇엇고.
@ 음.
#1 뎅구지, 장자 장손네 집이는 똑 뎅구지 이서낫수다.
@ 아, 경 헷구나예.
#1 예.

@ 그다음엔 아까 어, 저 무시거꽈? 채소는 뭐, 뭐 올려수과?
#2 무시거?
#1 채소.
@ 채소.
#2 채소?
@ 예. ᄂᆞ물덜은 뭐, 뭐 올려수과?
#2 콩ᄂᆞ물에, 고사리에.
@ 예.
#2 묵에.
@ 묵에.
#2 으.
@ 어, 옛날엔 콩나물, 콩나물이엔 골아수과?
#2 콩지름.
#1 콩지름.
@ 콩지름 질루젠 허믄 언제부떠 질롸수과?
#2 ᄒᆞᆫ ᄃᆞ순 땐, ᄒᆞᆫ.
@ 아니, 정월 멩질에?
#1 아니, 아니. 미릇 ᄒᆞ젠, 메칠 전이 거 놔야 뒌단 말이야.
#2 ᄒᆞᆫ 보름.
@ ᄒᆞᆫ 보름 전이?
#2 ᄒᆞᆫ 보름 질롸실 거라.
@ 경 헐 땐, 콩지름 놓젠 허믄 그 콩은 미신 콩으로 헤수과?
#2 지름콩.
@ 콩지름콩?
#2 저, 저 콩주름콩.
@ 그 ᄌᆞᆫᄌᆞᆫ헌 거?
#2 으. 그런 것도 ᄒᆞ곡이.
@ 음.
#2 훍은 것도 ᄒᆞ곡이. 콩은이 기자 집이 이시민 아무 거라도 헤서.
@ 음.
#1 경 ᄒᆞ곡, 시리.
@ 음.
#1 침떡 ᄒᆞ는 시리가 잇엇어.
@ 예, 예.
#1 그것에 그 밑에 고살 놔근에.
@ 고삽?
#1 고살.

@ 살, 음.
#1 고살 놓민 그, 그 밑에.
#2 콩 세지 말게시리게.
@ 맞수다.
#1 찝, 찝 ᄀᆞ뜬 거 놔근에.
@ 음.
#1 공기 통ᄒᆞ곡 물 주민.
@ 음.
#1 잘 뽈아들이곡 헤근에 시루 ᄒᆞ민, 뭐 ᄒᆞᆫ어이에 이만썩 큰다고.
@ 아.
#1 ᄯᅮ슨 디 놓면은.
@ 음. 콩지름 겅 하곡. 그다음에는 멩질 준비로 어 콩지름 먼저 질루고예? 그다음에 떡 준비허젠 허믄 떡도 ᄀᆞᆯ아 오주만은.

멩질옷

@ 그다음에 멩질 준비 허젠 허믄, 옷, 멩질옷 같은 건 어떵 준비헤수과?
#2 으, 멩질옷, 저 남저덜은 한복.
@ 게난 거 만들안?
#2 만들주, ᄒᆞᆫ 불 만들앙.
#1 후루메.
@ 후루메.
#2 ᄒᆞᆫ 불 만들앙 내불민게, 계속 입주게.
@ 다음 멩질에도 입곡, 또 다음 멩질에도 입고?
#2 으.
#1 예, 예, 예, 예.
@ 아이덜 건 어떵 헤수과?
#2 아이덜은 장개간 사름덜은 그 옷을 다 입곡, 한복을.
@ 예.
#2 또 장개 안 간 것덜은 아무 거라도 입곡.
@ 게난 겅 헤도 ○○이네안테 뭐 멩질옷 같은 거 안 만들어줘수과?
#1 아, 그때 멩질옷 사줫지.
@ 사줫지예?
#1 으, 그땐 꼭.
#2 그 저 한복. 저 안동포로 우린 문 헤줫주게.
@ 음, 안동포로.
#2 안동포 사당 저.
#2 저 정벵이 적삼.

@ 어.
#2 저, 우의 옷 두루막ᄒᆞ고.
@ 음.
#1 팔월 멩질에 입는 거.
#2 팔월 멩질에.
@ 팔월 멩질은 또 나중에 팔월 때 물어보크라예?
#2 으.
@ 지금은 정월멩질 거라예.
#2 아, 정월 멩질은 검은 후루메.
@ 검은 후루메.
#2 으.
@ 게민, 어머니네 아이일 땐, 어머니네 그 부모님들은.
#2 으.
@ 어무니네안테 멩질 때 뭐 헤줍디가? 멩질옷 헤줘수과?
#2 거, 아무 거라도 입어.
@ 아무 거라도 입어? 따로 안 멘들앙?
#2 으. 따로 안 멘들앙. 멩질 어멍덜은 아무 거라도 입어.
@ 응.
#2 저 세배나 마트젠 ᄒᆞ믄 ᄒᆞ쏠 한복이라도 노릇ᄒᆞ게 입주.
@ 똘이나 아들덜안틴?
#2 똘 아들안틴 무시거 헤 줄 말이라? 안 헤 줘, 안 헤줘.
#1 우린, 우린 안 헤줫어.
@ 음, 기구나예?
#1 으.
@ 알앗수다. 그러면 정월 멩질에 대헤서. 그다음엔 여기는 정월 멩질, 이제 어 멩질 출리젠 허믄 이제 막 돌아다니멍 멩질 먹어야 뒈잖아예?
#2 으.
@ 예, 게난 아부지넨 멧 번째 멩질이꽈? 멧 번째 집?
#1 우리가 ᄒᆞᆫ 세 번째.
#2 아니, 처음으로.
#1 처음 ᄒᆞᆯ 때 이섯고.
#2 처음 ᄒᆞᆯ 때 이섯고.
@ 음.
#2 또 두 번째 ᄒᆞᆯ 때 이섯곡. 건, 건이, 사름 돌아가민이, 어린 사름 돌아가민 젤 먼저 ᄒᆞ주게.
@ 아. 게믄 멩질허기 전이 이제 막 새벡부터 막 움직여야 뒈잖아예? 혹시 새벽에 멩질제하기 전에.

#2 으.
@ 새벡이 뭐 헤서 먹는 건 엇엇수과? 뭐 간단하게 떡멩질 헌다든가 뭐.
#1 떡은 오늘 멩질이민.
@ 아, 떡국, 떡국멩질 같은 거.
#2 떡국은게 둣날 먹주게.
@ 둣날?
#2 으.
@ 그난 그날 멩질 제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안 먹어?
#1 아무 것도 안 먹어.
#2 안 먹어, 안 먹어.
@ 알아수다.
#2 그냥 밥 먹주게. 무신. (웃음)
@ 맞수다.

세배

@ 어, 그다음엔예? 그 세배, 세배를 허젠 허면은 어, 혼 메칠 정도 걸려수과? 세배다 ᄆᆞ끄젠 허민.
#1 엿날은 동네도 뎅이곡, 상에도 상 이신 디.
@ 예.
#1 삼 년 동안 부모를 모시면은 상에 다 분향 가지 못ᄒᆞ여근에 그 제주, 술 혼 펭이라도 아졍, 아졍 가근에 세배ᄒᆞ곡.
@ 예.
#1 또 웃어른덜안티 세배ᄒᆞ곡.
@ 경 허당 보민 메칠쯤?
#1 혼, 혼 삼 일 뒈어.
@ 혼 삼 일, 혼 삼일예?
#1 경 ᄒᆞ곡 사둔이, 또 사둔칩이 또 어른 시민 세배도 가곡.
@ 그거는 사둔칩이 갈 땐.
#1 삼사일 뎅겨. 삼사일 뎅겨.
@ 삼사일 뎅겨예?
#1 으.
@ 음, 기구나예. 어, 그다음엔 아까 그 멩질상 찰리는 건 맨처음 상 위엔 미시거부터 놉니까? 멩질날.
#1 펭풍. 상.
#2 상 출리곡.
#1 펭풍.
@ 예.

#1 펭풍 세우곡.
@ 예.
#1 상, 거 진설홀 때 상을 세우면은.
@ 예.
#1 그 펜틀부떠.
@ 예.
#1 떡부떠 젤 문여 올리곡.
@ 예.
#1 그다음은 적갈.
@ 예.
#1 젝갈, 그다음은 과일.
@ 예.
#1 젤 나중에 탕쉬.
@ 예.
#1 으.
@ 갱하고 메는?
#1 갱은 젤 나중에.
@ 나중에.
#1 제사 홀 직전에.
@ 직전에.
#1 훈, 훈 삼십 분 전에.
@ 저, 제주는?
#1 제주는 미리.
@ 갖다 놓고.
#1 그디 그 밑에.
@ 상 밑에.
#1 으, 상 밑에 앚다 놓고.
@ 앚다 놓고예?
예.
@ 알아수다.

연날리기

@ 어, 그다음엔 정월 멩질이 끗나면 이제 세배영 다 끗나게 뒈면, 보름이 가까올 건데 정월 보름에 혹시 보름에 뭔가 특별한 뭐 행사 같은 건 엇엇수과?
#1 아, 우린 엇엇수다.
@ 아까 무시거꽈? 그 저 아까.
#1 아, 포제?

@ 포제 말고 무신 저, 대상, 아니 저 뭐지? 소상, 대상 다 끗나는 사람들은.
#1 아, 담제?
@ 예, 담제.
#1 아, 그런 건, 건.
@ 건 정월에 허는 거 아니꽈?
#1 건 아니고.
@ 건 상관 엇이?
#1 건 그건.
#2 담제는.
#1 사람이 죽엉 삼 년 상 다 끗낫다.
@ 음, 예.
#1 게민, 백일 전에.
@ 예.
#1 백일 전에 담제를 ᄒᆞ는 거라. 다 끗낫다고.
@ 아.
#1 게민 그때는 상제가 문딱 탈복ᄒᆞ는 거라.
@ 아.
#1 옷도 문딱 벗고.
@ 그거는 그냥 그날 돌아가신, 그니까 제사나 멩질 관련된 거지예?
#1 관련 안 된 거.
@ 아니, 그니까 끗난 다음에 허는 거난.
#1 예, 예, 예. 삼년 상 끗낭 다음에 ᄒᆞ는 거.
@ 끗낭 다음에 허는 거난예.
#1 예.
@ 거믄 허고예, 혹시 그때 어, 연날리기 같은 건 안 헤수과?
#1 연날리기, 그땐 보리, 조 ᄒᆞᆯ 때는 연도 날렷지.
@ 연날릴 때 연 혹시 연 종류, 어떤 연 만들아나신지 기억남수과?
#1 저, 가오리연.
@ 예.
#1 영, 가오리연, 방패연.
@ 예.
#1 그거. 네기반듯ᄒᆞᆫ 거 방패연이고, 가오리연은 영 헤근에.
@ 꼴리.
#1 저 꼬리 달린 거.
@ 음.
#1 그것이 그 두 가지벳기 안 헤서.
@ 두 가지벳기 안 헨예?

#1 우리 엿날에 그거 저 ᄇᆞ름 불 땐 막 그 연술에.
@ 예.
#1 그 뭐옌 ᄒᆞ나? 사발. 사기사발 막 거 삐졍.
@ 예.
#1 거, 밥에 막 버무려 가지고.
@ 예.
#1 무시거 험벅에 쌍, 그 줄에 막 뭉겨.
@ 예.
#1 뭉기민 ᄀᆞ찌 막 연 ᄒᆞ민 그 싸울 거 아니?
@ 예.
#1 줄 ᄒᆞ민.
@ 예.
#1 그걸로 싹 잡아뎅기민 말이여 그.
@ 탁 끈어지게?
#1 으, 으, 으. 사기, 그, 걸로 딱 끈어지게. 그렇게 연구ᄒᆞ멍.
@ 헤낫지예?
#1 으, 헤난 적이 잇어.
@ 기구나예? 그다음에 그 연날리기 말고, 혹시나 어, 보름에 미신 떡점 같은 건 안 헤수과? 막 떡 이렇게 떡 층층 놔가지고 누게 떡이 잘 익으믄 올해 재수 좋은다 헹 그런 떡점 같은 건 안 헤수과?
#1 아, 우린 그런 거 안 헤봐수다.
@ 어머니네도 안 헤나수과? 여자들도?
#2 무시거?
@ 떡점, 떡 점친 거. 떡으로 점치는 거.
#2 아니, 아니.
@ 아니?
#2 그런 거 엇어.
@ 아, 기꽈?
#1 떡으로 무슨 점을 쳐?
@ 아니 영 모영 앉아 가지고 보름날.
#2 아, 그런 거 엇어.
@ 그런 거 안 헤나수과?
#1 우리는 엿날에 보름날이엔 헌 건 단지 이렇게 허민 선생님 뭐 알 건가? 그 저 부상접이라고 헤서 그냥 거 부상접.
@ 예.
#1 부상접이민 부상접이란 건 뭐냐 ᄒᆞ면은. 사름이 죽엇다.
@ 예.

#1 그땐 돈이 없으니까. 요즘은 장의사 빌엉 ᄒᆞ주마는.
@ 예.
#1 그 조를 짜는 거라.
@ 예.
#1 그 멧 사름, 멧 사름 헤근에 ᄆᆞ음에 든 사름 헤근에 겐에 부상접으로 헤 가지고, 오랑 밥 먹곡. 그 사름덜이 지금은 차로 ᄒᆞ주만은, 그때는 셍이.
@ 예.
#1 셍이 꾸명 다 메엉 갓다고.
@ 예.
#1 여기서 ᄒᆞᆫ, ᄒᆞᆫ 오 키로 넘어. 아니, 오 키로 안 뒐 거라, 한.
#2 먼 디도 잇고 보딘 디도 잇주게.
#1 아니, 게메 우리 공동묘지 생각ᄒᆞᆯ 때는 여기서 그걸 저, 사람이 그 시신을.
@ 예.
#1 메영 갓다고. 사름 몸.
@ 몸을?
#1 어깨로.
@ 어깨로.
#1 여름에 막 그 냄새나곡 ᄒᆞ멍 영 교대식으로 막 ᄒᆞ는디.
@ 음.
#1 게난 부상접 ᄒᆞ면은 정월보름날 그 총훼 헤여.
@ 음.
#1 겡 그땐 ᄒᆞᆫ 잔 먹고 거 돌아가면서 그 책임자를 다 정ᄒᆞ고.
@ 아 정허는 걸 점 쳐근에 정헤수과?
#1 아니, 아니.
@ 누게가 누게가 헐 거니?
#1 그 멧 사름 둘리민 둘리.
@ 예.
#1 자근자근 그 이름을 다 써.
@ 예.
#1 올리 헤나믄 다음은 누구, 누구 다 헤여근에.
@ 아, 겅 헤 가지고예?
#1 예.
@ 알아수다.

액막이

@ 어, 그다음엔 그 액막이 같은 건 안 헤수과?
#2 어디?

#1 액막이.
@ 액막이. 예를 든다면 뭐, 올레코시 헌다든가?
#2 올레코시 옛날에 헤낫어.
@ 헤낫지예?
#2 으.
@ 게난. 올레코시 헐 때.
#2 으.
@ 그 올레코시도 정월 보름에 허지 아녀수과?
#2 아니, 정월 보름날 아녕, 그자 정월달에 영 날 존 때 봐근에.
@ 예, 예.
#2 날 봐근에.
@ 예, 올레코시 헐 때 어떵 헤수과? 골아 줍서.
#2 (웃음) 올레코시 홀 땐이.
@ 예.
#2 동글레기떡만 ᄒᆞ곡.
@ 예.
#2 기자 저 솔라니나 ᄒᆞᆫ 구워 놓곡.
@ 예.
#2 ᄃᆞᆨ ᄒᆞ나, 장ᄃᆞᆨ ᄒᆞ나 헤근에 그거 헤근에 올레코시허레 헤근에 올레레 데끼주게.
@ 그 장ᄃᆞᆨ은 숢은 거? 아니믄 생거?
#2 장ᄃᆞᆨ 생거이.
@ 으.
#2 그거 심방이이.
@ 으.
#2 야가지 데와근에 죽으민 올러레 확ᄒᆞ게 데껴.
@ 아.
#2 게믄 고개가 어디레 나가시냐 다 봐.
@ 게, 고개가 동쪽으로 가민 무신 일이 잇고.
#2 아니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올레레 나가 불민 존 거주게.
@ 아. 그게.
#2 으.
@ 모가지가 바깥쪽으로 가면?
#2 으, 으, 으.
@ 음, 기구나예?
#1 겐디 그거 먹는 것도, 좋은 심방은 집이서 ᄀᆞ찌 숢앙 먹는디.
@ 예.
#1 그냥 아져가 불어.

@ 어.
#1 심방 삼춘이 아져가지? 안 아져 가는가?
#2 아졍 가 불주게. 심방덜.
#1 아졍 가, 심방.
@ 음.
#2 저 단골 심방덜은 저레 헹 숣아근에 ᄀᆞ찌 먹곡.
@ 음.
#2 경 아년 사름덜은 아졍 가곡 헤여.
@ 아졍 가곡예? 음, 올레코시 하고. 올레코시 말고 또 다른 것들은 안 헤수과?
#2 다른 건 무시거 엇일 거라.
#1 저, 당에 뎅이는 거, 당에.
@ 게난. 당에, 게니깐.
#1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산 때는.
@ 예.
#1 큰 당에 뎅겨낫주게.
@ 음.
#1 칠월.
#2 열사흘날.
@ 아, 그건 또 칠월 강 물어 보쿠다예.
#1 으, 으, 으.
@ 정월에, 정월 보름에.
#1 정월달엔 아녀고.
@ 아녀고. 그믄 이제 정월에, 어, 정월 멩질 하고, 아까 올레코시 하고. 그다음엔 여기는 바닷가난 또 다른 뭐 헌 같은 거 엇엇수과? 바당에 강 제지내거나?
#2 베랑 그거 말앙은 헐 거 엇일 거.
@ 엇어예.
#2 엇어난 거 닮은게.
@ 기구나예.

포제

@ 그다음 포제 할 때, 포제 할 때는 어, 아까 제사, 제헐, 제사 지내기 전에 무신 뭐 흑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엇엇수과?
#1 아니, 없엇어, 예.
@ 아까 제물로는 도세기 한 마리하고 무시거여수과? 제물.
#2 생걸로.
#1 생걸로 그 밥사발에 다 헤근에.
@ 예.

#1 올렷당.
@ 예.
#1 끗나민 거기서 익혀근에.
@ 예.
#1 그 제관덜 이 먹어근에 또 뒈지고기 또 먹단 나머지는 다 갈라근에.
@ 맞아예.
#1 집이 아졍 오는 생각이 이서.
@ 게믄 그 도세기 통채로 생거 가졍 간 건 그디서 숣아마씨?
#1 예.
@ 어.
#1 생걸로 그냥 그디 제단에 다 올렷당.
@ 예.
#1 제 끗나민 그거 다 짤라근에.
@ 예.
#1 다 끈어근에 저 숣앙 거기서 먹엉.
@ 음.
#1 먹단 나머지는 거 제관끼리 문딱 갈라근에.
@ 갈랑.
#1 오는 거.
@ 음, 겅 헷구나예. 그리고 혹시 그때 저 그 숫 같은 거 안 멧수과?
#2 무시거?
@ 숫, 숫, 숫.
#1 으, 숫?
@ 예.
#1 저 올레?
@ 예.
#1 그때.
@ 어떨 때 숫 멧수과? 숫 멜 때.
#1 저.
@ 애기 날 때 말고.
#1 숫, 올레, 올레.
#2 숫 메영?
#1 어. 숫 멜 때.
@ 언제 숫 메연.
#1 어떤 때 멧냐고?
@ 으.
#2 에고, 우린 베랑 안 메낫어. 전인 놈덜은 아덜 낳민 ᄀᆞ치 돌아메곡.

@ 음.
#2 똘 낳민 낭썹 둘아메곡 헤나신디 우린 그런 거 엇어낫어.
@ 음. 포제 할 때도 숫 안 메수과?
#1 그 초헌 집에.
@ 초헌 집에만.
#1 초헌 집에 부정ᄒᆞᆫ 사름 뎅, 저 뎅이지 말라 헤근에.
@ 음. 경 헷구나예?
#1 예.
#2 거 막 정성ᄒᆞ는 딘 정성헤도, 난, 우린 그런 거 베랑 안 헤봣어.
@ 음.
#1 거 만약에 올레코시 ᄒᆞ게 뒈민 메칠 전부떠 ᄒᆞ는 디가 많아.
@ 음.
#1 이.
#2 숫 메주. 그때도 숫 메여.
#1 숫, 숫 메어근에 부정ᄒᆞᆫ 사람 뎅이지 말라. 낼모리 무시거.
@ 무시거 헐 거여?
#1 으, 무시거 ᄒᆞᆯ 거여.
@ 으.
#1 게민 안 가.
@ 음. 기구나예?
#1 예.

당제

@ 그다음엔 그니까 당제는 어머니 안 가봐수과? 당엔. 제지내레 당에 안 가봣수과?
#1 당에.
#2 당엔 난 안 뎅겨보고.
@ 으.
#2 씨어머닌 뎅기곡.
@ 씨어머니 뎅길 때.
#2 으.
@ 주로 무시거, 무시거 헹 갑디가?
#2 무시거게 곤밥ᄒᆞ곡. (웃음) 거 궤기 굽곡 돌레떡ᄒᆞ곡 헤근에 아졍 가는 거주.
@ 음.
#2 그디 갈 때.
#1 저.
@ 음.
#1 보리빵.

@ 보리빵.
#1 그땐 밀이 엇인 때난.
@ 으.
#1 보리 난 때난에.
@ 예.
#1 보리로 헤근에 빵 멘들앙 헤낫어.
#2 보리빵도 ᄒᆞ곡게 저.
@ 상웨, 상웨.
#2 저 돌레떡 멘들앙 아졍 가주게 돌레떡.
@ 돌레떡으로예?
#2 으.
#1 돌레떡.
#2 모물쏠 헤근에 돌레떡 멘들아근에.

안택

@ 음, 기구나예. 어 그다음에는 어, 마찬가지 아까 그 올레코시도 헷지마는. 올레코시 그 허젠 허면은 칠성제나 문전제 헤근에 안 헤수과? 칠성제 안 헤수과?
#1 아니, 아니. 아녀. 아무것도 안 헤, 우리는 안 헷어.
@ 문전제도 안 허고?
#1 우리, 우리 큰집에는 그 뒤에.
@ 예.
#1 집 뒤에.
@ 예.
#1 무시거.
#2 ᄂᆞ람지 씌와근에.
#1 ᄂᆞ라미 씌와근에 위ᄒᆞ는 디가 이신디.
@ 예.
#1 제홀 때마다 아졍 가신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져 빗어.
@ 옛날엔 헤낫잖아예?
#1 예, 예. 헤낫어.
@ 게난예.
#1 헤난 집이가 잇어.
@ 이서예?
#1 예, 우린, 우린 그런 건 아녀나고.
@ 음. 그다음에 정월에는 어, 막 이제 보리가 싹 틔울 땐디 혹시 보리밟기 안 헤나수과?
#1 보리밟기 하영 헤낫주.

@ 하영 헷지. 그때는 보리 밟을, 보리 붋을 땐 어떵 헹 붋아수과? 직접 사람이 강 붋아수과? 아니민.
#2 에이구.
@ ᄆᆞ쉬?
#2 우린 불라보지 안헷저.
#1 사람으로.
@ 사람으로, 음.
#1 사람으로 불르긴 헤서.
@ 음.
#1 거 겡 헤사. 겐디 술보리는 안 붋고.
@ 예.
#1 두줄보리.
@ 예.
#1 그것이 붋으민 옆으로 피어나 가지고 하영 그 새순이 하영 난덴.
@ 난덴 헤 가지고.
#1 음. 헤낫주게.
@ 음, 줄보리예.
#1 또 땅도 딱딱ᄒᆞ고.
@ 음.
#1 정월달엔 막 ᄀᆞ세 사곡.
@ 게난.
#1 부글락ᄒᆞ면은 그 나쁘니까.
@ 게난.
#1 막 이 든전 난전 헷주게.
@ 예.
#1 든전은 여름에 농사짓젠 허민 초불 갈곡, 두불에 ᄒᆞ는디.
@ 음.
#1 난전밧은 저 화전엔 저 웃드르는.
@ 예.
#1 초불에 ᄒᆞ면은 땅이 막 궂어.
@ 음.
#1 게민 그디서 거 붋곡 헤낫수다.
@ 음, 기구나예. 그리고 혹시 걸궁 안 헤나수과? 걸궁?
#1 걸궁은 우리 하예린 별로.
@ 안 하고?
#1 예, 예.

입춘

@ 그다음에는예, 정월에는, 음력 정월이라 지금예? 절기로 보면 입춘이 이신디예.
#2 입춘.
@ 입춘엔 뭐 헤나수과?
#2 입춘대길.
@ 예, 입춘대길 썬 부쳐나수과?
#2 에, 그 베랑 그런 건 우린 안 헤봣어.
#1 우리는.
#2 으.
#1 이 사름이 절간에 안 뎅기니까 그런 건 아니 써부쳣어.
@ 아 절간에 안 뎅영 뭐 다른 데 다니는 데 이수과?
#2 나 뎅겨난 교가 이서.
@ 아.
#1 엿날에 아프난에.
@ 예.
#1 ᄒᆞ쏠 뎅기단 지금은 안 다념주만은.
#2 지금은 안 뎅겸주.
@ 무신 교마씸?
#1 막 아파낫주.
#2 저 삼천교옌 헌 디 이서. 삼천교.
@ 아, 음.
#2 으.
#1 막, 막 죽어가난에.
@ 으.
#1 돈은 엇곡 병원도 못 가고.
@ 음.
#1 겡 거기서 거기 다니단에 이젠.
#2 그딘, 그디.
#1 으.
#2 멧 십 년 뎅기단 이젠 늙어지고 뎅기지 못헨 안 뎅겸서.
@ 아, 기구나예? 음.
#2 으.
@ 그래서 그 뭐가 좀. 음, 기구나예. 그다음엔 뭐 입춘에는 무시거 허지 말라 이런 말 엇엇수과?
#2 입춘엔 저 새철 드는 날 아니?
@ 맞수다게.
#2 게난, 그 누게 어멍덜 누게 들어오지 말렌 그 입춘대길 헤낫주만은.

@ 예.
#2 거 무신 옛날이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 아무것도 아니라예?
#2 으, 으.
@ 경헤도 입춘에 뭐, 뭐 허지 말라. 무신 진 거 가졍 다니지 말라. 이런 건 엇엇수과?
#2 건 우린, 우린 엇어. 다른 사름은 몰라도.
@ 아니, 이 마을에서. 혹시 그런 말들.
#2 아.
#1 그런 말이 엇어낫어.
#2 엇어, 엇어.
@ 여자들.
#1 여자 뎅기지 말렌 헷어.
@ 무사 그런 말 헤신고예?
#2 검질 짓넨.
#1 검질 짓넨, 검질 짓넨.
#2 (웃음)
@ 여자 뎅기지 말라 검질 진다. 경 굴아나수과?
#1 어.
@ 그것만 굴아?
#1 어, 여자 뎅기민 그 시간에.
@ 예.
#1 그 시간도 잇잖우꽝?
@ 예.
#1 멧 시에.
@ 예.
#1 입춘 드는 날. 저, 새벡, 새철 드는 날 시간이. 게민 여자 뎅기민 밧디 검질 짓나헨에, 뎅이지 말렌 헤낫주.
@ 음. 그거벳기 엇엇수과?
#1 예.
#2 검질 짓나 만다 그런 말도 안 굴아. 기자 우리 생각으로만 경ᄒᆞ는구나 헷주.
#1 아니, 경 헤낫어.(웃음)
#2 (웃음)

방에 부찌기

@ 그다음에 정월에 이제, 그 뚯뚯헤지기 전에 그 오름이나 이런 디 불 부쳐낫잖아예? 오름에.

#1 예.
@ 그걸 걸 뭐렌 굴아나수과?
#2 오름 무시거?
#1 우리.
@ 방에 부치는 거.
#1 우리 저 우리 촐 검질.
@ 예.
#1 소 촐 빌 때, 검질 빌 때에 가민은 그 진둑.
@ 예.
#1 저 표준어론 진드긴디.
@ 예.
#1 진득 없애기 위헤서.
@ 예.
#1 방화 부쳐낫어.
@ 방화 부쳐난 걸 뭐렌 굴아나수과?
#1 거 방화가 거 방화 아닌가?
@ 방에, 방에.
#1 방에, 방에.
@ 음.
#1 방에.
#2 방에 부찌레 갓젠 ᄒᆞ주게. 방에 부찌레.
@ 방에 부치레.
#1 게민 그디 방에 부떠난 디는 그 새로 난 검질이 깨끗ᄒᆞ곡.
@ 예.
#1 방에 안 부떠난 딘 그 작년 풀이 그냥 잇나 말이여. 게민 소가 잘 먹질 아녀.
@ 맞수다, 맞수다.
#1 어.
@ 맞수다.
#1 이 방에 부떠난 디는 깨끗헤여.
@ 아, 기구나예?
#1 예. 게민 소도 잘 먹고, 쉐.
@ 쉐도 잘 먹고.
#1 으. 쉐도 잘 먹곡.
@ 음.

이월

영등

@ 그다음에는 이월에 접어들민 이월엔 이월 나민 영등이 잇잖아예?
#1 영등, 예, 영등할망.
@ 영등 들잖아예?
#1 영등할망.
@ 그땐 여긴 어, 바당이영 가까우난 그 영등에 대헤 가지고 골아줍서.
#1 이디 그거 영등할망, 건 집잇 사름이 ᄒᆞ쏠 알 건가?
@ 화장실 갓지예?
#1 예, 예.
@ 그믄 영등은 저 어머니 오시민 하고.
#1 예.
@ 이월에 그 경칩하고 춘분이 들잖아예?
#1 예.
@ 그때는 어떤 뭘 헤수과?
#1 우린 그런 건 벨로 안 헤수다. 안 헤서.
@ 아, 산담에 가근에 손질도 허거나 이런 것도 안 헤서마씸?
#1 아, 아니, 안 헤여.
@ 음, 기구나. 농사는 뭐 헤수과? 그때.
#1 농사는 뭐 우리 보리, 조, 감저.
@ 아니, 아니, 그때. 이월에.
#1 아, 이월에.
@ 정월 이월에, 예.
#1 아, 이월에 농사짓는 거.
@ 저 감저 구감은 언제 심읍니까?
#1 감전 봄에.
@ 봄에 언제?
#1 쳉명에.
@ 청명에 아, 그때 청명에 가가지고예?
#1 청명에.
@ 음.
#1 감저 모종을 놩.
@ 예.
#1 그거를 그 꿀.
@ 예, 감젓꿀.
#1 예, 감젓꿀 크면은 유월절 뒈기 전에 밧티 강은에 가는 거.

@ 음. 기구나. 그믄 유월절 뒈기 전에 조도 갈고 감젓꿀도 갈고 다 헷구나예?
#1 예, 예, 예. 게난 소서.
@ 음.
#1 지금 소서가 칠월 칠일날 아냐. 아니, 아니다. 유월 칠일, 소서.
@ 예, 소서는. (기침)
#1 유월절.
@ 음력 유월에 드는 거예?
#1 예.
@ 기구나예? 그러면 어, 경 이월에는 특별나게시리 경칩이나 춘분에 뭐 하는 거 엇고예?
#1 예.

삼월

청명

@ 그다음에 영등은 어머니 오시민 하기로 하고. 한식 멩질, 한식 멩질도 헤수과?
#1 우린, 한식 안 헤수다.
@ 허는 사름도 엇엇수과?
#1 예, 오월 멩질만 헷주.
@ 오월 단온예?
#1 예.
@ 건 오월에 가근에 여쭤보크라예? 아까 청명엔 뭐 헷덴 헤수과?
#1 쳉명 뒈면은 모든, 모든 그 씨를 뿌리지.
@ 음. 아까 그 감저씨도 뿌리고?
#1 으.
@ 음.
#1 그, 무신 강냉이도 멧 개 시민 씨 뿌리고.
@ 아.
#1 감저 모종 놀 때.
@ 놀 때예?
#1 예.
@ 또 다른 건 엇엇수과?
#1 우린 다른 거 벨로. 웨도 심곡.
@ 아, 웨나 이런 것들토 그때 심어수과?
#1 물오이 멧 구 심거근에 여름에 따먹주.
@ 호박은마씨?
#1 호박도 심그고.

@ 호박도 이 청명에 헙니까?
#1 예, 예, 예. 지금, 지금 난에 지금 막 지금 자람, 막 컴주게.
@ 음, 기구나예?
#1 예.
@ 청명엔 강넹이도 심고 그다음엔 그때 강 저기 산담 손질도 허고예?
#1 예.
@ 으. 그다음엔 어, 혹시 쉐나 물 질롸나수과?
#1 우리 막 엿날엔, 우리 부모 아버지 어머니 산 때는 워낙 못살아 놓니까.
@ 예.
#1 춤, 장자 장손네 집이라도 좀 엿날은 큰아덜만 다 줘벳주게.
@ 맞수다게.
#1 우리 큰아버지네가 우리, 우리 하르버지가 하예리서 멧 째 안 가는 부젠디.
@ 예.
#1 땅도 많아신디 말이여.
@ 음.
#1 족은아들이라고 무시거 안 주엇주게.
@ 음.
#1 막 곤란ᄒᆞ게 살아서. 곤란허게 사난 놈이 밧도 벌고.
@ 음.
#1 뭐 ᄒᆞ멍, 그때는 쉐 ᄀᆞ뜬 거 물 ᄀᆞ뜬 거 엇곡.
@ 음.
#1 나가 ᄒᆞ쏠 역으난에 초기산에 간에 일 년 동안 살안.
@ 예.
#1 열아홉에.
@ 예.
#1 나 잊어 불지 아녀. 가가지고 그디 간. 초기산에 일 년 동안 살면서 돈을 벌언, 송아지 ᄒᆞᆫ ᄆᆞ리 사난 적이 잇어.
@ 아, 기구나.
#1 겡 그때부떠 소를 키우고.
@ 음.
#1 그때부떠 ᄒᆞ쏠 츰 정신이 낫지. 지금 말허자면.
@ 음.
#1 엿날은 못살아 놓니까. 게난 그전인 막 놈의 밧도 하영 벵작ᄒᆞ고.
@ 음.
#1 농사 다 지으멍.
@ 음.
#1 다른 건 아녀고 농사만 지으난에.

바다일

@ 음. 아이고, 무사 어머니 안 들어왐시니? 이제 메역 헤치허는 거 ᄀᆞᆯ아야 뒐 건디. 삼월. (웃음)

#1 예.

@ 기구나예? 일단 아까 어디꽈? 영등하고 메역 헤치 같은 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갓수과?

#1 예. 전부 갓수다. 전부 강은에 남자는 거 지게로.

@ 예.

#1 그때는.

@ 지게 뭐렌 ᄀᆞᆯ아수과? 지게렌 ᄀᆞᆯ앗수과? 그때도?

#1 지게. 지게.

@ 예.

#1 우리 낭지게.

@ 예.

#1 게민 상군 ᄒᆞ는 사름은 기분 좋곡.

@ 예.

#1 많이 ᄒᆞᆫ단 말이여.

@ 예.

#1 그 망사리가 가득 차게.

@ 예.

#1 이빠이, 그 막 눌르멍 게영 헹 오곡. 못 ᄒᆞᆫ 사름은 야코 죽어근에.

@ 으.

#1 헤난 적이 이수다.

@ 아, 건 공동으로 안 헤 가지고?

#1 공동 아녀곡 개인.

@ 하는 날만 같은 날 정헤 가지고.

#1 예, 예, 예.

@ 헤근에 가져오는 건 다 개인이 가져왕 ᄆᆞᆯ렷구나예? 음.

#1 예, 예. 경 헤근에 메역 하영 ᄒᆞᆫ 사름은 밧도 아까 얘기헷주만은. 밧도 사곡 집도 사곡.

@ 음.

#1 잘 살앗지.

@ 음, 그게 삼월에 헷구나예?

#1 예, 삼월 보름 물끼.

@ 음, 그때. 게믄 그때는 톨이나.

#1 아, 톨.

@ ᄆᆞᆯ망 가뜬 건 안 헤수과?

#1 아, 톨은 그 전이 허지.
@ 톨은 게난 언제 헤수과?
#1 것도 한 삼월 보름, 하튼 삼월달에 다 헤여. 그 톨.
@ 톨 헤치도?
#1 으, ᄒᆞ는 거.
@ 톨도 헤치로 헤수과? 톨 헤치?
#1 헤치 헹 그건 공동.
@ 공동?
#1 헤근에 몰리왕덜.
@ 아, 그건 톨은 공동으로 나눠가져수과?
#1 예.
@ 음.
#1 여기는 뭐 다른 건 엇곡.
@ 음.
#1 뭐 우미 ᄀᆞ뜬 건 그런 여긴 엇이난에.
@ 음. 기구나예? 아, 똑 중요할 때 오줌 ᄆᆞ류와 불언.
#2 어? (웃음)

영등

@ (웃음) 아니, 어무니, 저 영등 때 영등할망 들 때, 영등 들민.
#2 으.
@ 뭐 헤나수과?
#2 영등할망, 영등할망, 영등할망 헤도이, 우린이, 그런저런 거 몰라.
@ 제서도 안 지내고?
#2 으.
@ 음.
#2 겨곡 나가이, 심방 믿질 아녀는 따문에이.
@ 아, 맞아, 맞아.
#1 이? 그런저런 건 원 ᄒᆞ나도 난 아니 ᄒᆞ주게.
@ 아, 겅 헷구나예?
#2 으, 나가 쎈 교회 들어가 부난.
@ 아니, 게난 어머니 그 교회 가기 전이, 저 친정에 시집가기 전이.
#2 어, 씨집가기 전이.
@ 영등, 영등, 어머니넨.
#2 영등제 ᄀᆞ뜬 거 베랑 안 헤여.
@ 어무니네 허는 거 안 봐수과?
#2 안 헤여.

@ 안 헤여. 여긴 바다가.
#1 영등제 아녕 망장폰 몰라도.
@ 예.
#1 지금 망젱이.
@ 예.
#1 망젱인 몰라도 우리 여기는 영등제 ᄒᆞ는 딘.
@ 요기 길 ᄒᆞ나 때문에 여긴.
#1 예, 예, 예.
#2 원 그런 거 몰라.
@ 아, 기구나.
#1 이 바당에 헤, 허치 홀 때만.
@ 맞아.
#1 허치 홀 때만, 메역이나.
@ 으.
#1 톨이나 무시거 홀 때.
@ 으.
#1 문 ᄒᆞ주. 우린 그거 바당 에염 아니난에 농사만 지으난에.
@ 음.
#1 우린 그런 거, 영등제 ᄀᆞ뜬 건 우린 몰라.
@ 못하고예.
#1 음.
@ 그면 그 메역이영 톨이영 헐 때, 다른 거는 뭐 나수과? 물질허민.
#2 이딘이 원 그자 춤 재수 존 사름은 전복도 떼곡, 구젱기도 잡곡 헤도이.
@ 예.
#2 우린 톨팔이라 놓난.
@ 예.
#2 그자 메역허레 가민 메역 ᄒᆞ쏠 헤오곡.
@ 음.
#2 원, 난 그 정도라.
@ 음.
#2 상군이 아니난에.
@ 음.
#2 으.
@ 언니가 상군이렌 헷지예?
#2 언니.
#1 언니는 큰언니가 잘허는디.
@ 으.

#1 겐디 우리 어무니도 나 역은 후제ᄁᆞ진 상군이랏어.
@ 음.
#1 친정이가 위미린데.
@ 으.
#1 위미리도 막 부자칩이라.
@ 음.
#1 부자칩이 족은뚤 와신디 그렇게 바다에 가나, 밧디 가나 일을 잘헤여.
@ 어머니 잡아온 거, 무시거영 잡아와난 거 생각 안 남수과?
#1 아이 무사, 구젱기ᄒᆞ곡.
@ 예.
#2 구젱기ᄒᆞ곡, 메역ᄒᆞ곡, 물망.
#1 조개.
@ 음.
#1 조개.
@ 조개예?
#2 으.
@ 오분제기, 조개.
#1 어, 어, 어.
@ 조개, 예.
#1 조개.
@ 예.
#1 또 물망.
#2 물망, 물망도 ᄌᆞ물곡게.
#1 먹는 물망.
@ 예.
#2 장ᄆᆞ음.
#1 그 여름에 그 메역체.
#2 장, 경도 ᄒᆞ고이.
@ 아까 물망을 아까 장ᄆᆞ음?
#1 장ᄆᆞ음.
#2 장ᄆᆞ음이 먹는 물망이라, 그거.
@ 아, 장ᄆᆞ음이.
#2 저 바당 가운디 가민이.
@ 음.
#2 요 우이로만 강 확확 끈어다근에 먹어.
#1 문작헤여.
#2 막 맛 좋아.

#1 막 보드라와.
@ 음.
#2 건 장ᄆᆞ음이고.
@ 음.
#2 밧디 걸루는 물망덜토 하영 헤낫주게.
@ 음.
#2 감태 ᄀᆞ뜬 거영.
@ 예.
#2 으.
#1 감태.
#2 조개풀.
#1 거 헤다근에, 헤다근에 밧디 꼴아.
@ 무시거?
#2 조개풀이엔 헌 풀이 이서.
@ 무시건고예?
#2 조개풀.
@ 예.
#1 젠젠헌 거. 물싹헌 거.
@ 어.
#1 요만썩 짧은 거.
#2 그런 거 헤다근에 바당에서 물류와근에 아졍 오라근에 밧디 꼴아낫주게.
@ 음, 기구나예? 그리고 게민 이제 삼월 청명하고 곡우 지나고예. 아까 청명, 곡우 때는 씨렌 헌 건 거의 다 뿌리고예?
#1 예, 예.
@ 조나, 조하고 콩은 유월절에?
#1 유월절 전이.
#2 유월절 전이.
@ 전이. 그거는 저 유월에 강 여쭤보크라예?
#1 예, 예.

사월

사월 초파일

@ 그다음에 사월 들어근에예? 어, 게민 초파일에도 무시거 안 헤시켜? 초파일.
#1 초파일은 저 아이덜
@ 머리.
#1 머리 까끄는 거.

@ 게난. 머리 가끄는 거.
#1 어, 어린 것덜.
@ 게난.
#1 까까낫수다.
@ 절에 안 다녀부난 절에도 안 가시켜예?
#2 안 다녀부난 몰라.
@ 아부지도 안 가수과?
#2 으.
#1 아무 디도 안 갓어.
#2 (웃음)
@ 음.
#1 초파일 안 갓어.
@ 음, 기구나. 시어머니도 초파일날 어디 절에 가는 거 안 봐수과? (벨소리)
#1 에, 어머니 저 절간에 그 무당 그 우리 (전화소리) 그 저 믿으난게.
(잡담)
@ 아, 초파일에는 이제 이발허는 거고예? 그다음엔 그때 초파일에 보면 입하하고 소만이라는 절기가 이서예.
#1 소만.
@ 소만 땐 미시거 헤수과?
#1 소만 우리 그런 거 없어.
@ 그때 뭐 농사짓는 건?
#1 농사짓는 거 그때, 그루후제쯤에 헌 거난에 건.
@ 게난.
#1 소만은 거 농사지은 거, 보리 ᄀᆞ뜬 거 염넨 ᄒᆞ는 거 아닌가?
@ 맞수다예.
#1 예, 예.
@ 으.

오월

단오 멩질

@ 그것 다음엔 오월에 뒈사 단오 멩질, 아까 잠깐 말씀하셧잖아예?
#1 예, 단오 멩질 헷어.
@ 단오 멩질은 어떵 헤수과? 무시거 무시거 출련?
#2 단오 멩질이 옛날엔 ᄒᆞ는 집은 헤도이.
@ 게 옛날에 ᄒᆞ는 집이 그거 생각낭 ᄀᆞᆯ아봅서.
#2 으, ᄒᆞ는 집인 헤도 우린 아녀 보난에 몰라.

@ 옆에 살 땐 무시거 무시거 출립디가? 단오 멩질엔.
#2 나, 알아지크라게. 놈의 집이 무신 거 보레 갓어? (웃음)
@ (웃음) 음.
#2 뭣사 헤나신디. ᄒᆞ는 집은 헤낫어.
#1 우리.
@ 씨어머니도 안 헙디가?
#2 어, 안 헨.
#1 우린 안 헤봣어.
#2 안 헤봔.
#1 단오 멩질.
@ 단오 멩질은예?
#1 예.
@ 음, 그믄 넘어가쿠다예?

망종 · 하지

@ 그다음엔 망종 잇고 하지가 이서예? 오월 들민예? 망종하고 하지.
#1 망종에 엿날은.
#2 반ᄀᆞ슬.
#1 반ᄀᆞ슬 ᄒᆞ덴 헷어. ᄀᆞ슬.
@ 예, 반ᄀᆞ슬은 뭐, 뭐?
#1 반ᄀᆞ슬 ᄒᆞ덴 ᄒᆞ는 건 보리.
@ 예.
#1 보리 빌 때가 뒀단 말이주.
@ 아.
#2 반은 헷젠 허는.
@ 아, 반ᄀᆞ슬. 음.
#1 게난 건 겨울에 그 전해에 십일월달에.
@ 예.
#1 보리 가는 거주게.
@ 게난.
#1 그걸 겨울에 키와근에.
@ 음.
#1 망종에.
@ 으.
#1 비는 거.
@ 음, 비는 거예?
#1 이제 곧.

@ 빌 거.
#1 지금 닥쳠실 건디. 보리 지금.
#2 보리.
#1 다 비어실 건디, 지금.
#2 몰라, 보리ᄀᆞ슬 헴실 거라.
#1 엿날은 좀 늦엇어. 지금은 빨라.
@ 빨라예?
#1 농사짓는 것이.
@ 음.
#1 으.
@ 무사 빨람수과?
#1 수확허는 것이 좀 그, 그 빨르는 이유가 그 종자가 ᄒᆞ쏠 틀린 거 같애.
@ 아.
#1 엿날허고.
@ 날씨가 바뀐 건 아니고예?
#1 어, 날씨가 바뀐 건 아닌디, 종자가 ᄒᆞ쏠 틀려. 빨리.
@ 음.
#1 지금, 어디냐? 가파돈 뭐냐 ᄀᆞ슬 다 헤실 건디.
@ 지금예?
#1 으.
@ 기구나. 그게 보통 망종.
#1 예. 망종엔 엿날엔 반ᄀᆞ슬, 반은 ᄒᆞᆫ다 이거주.
@ 헌덴 헷잖아예?
#1 예.

유월

유월절

@ 그다음엔 망종 지나민 바로 유월절 들멍 조.
#1 예.
@ 조 불릴 거예?
#1 예. 여름 농사.
@ 여름 농사.
#2 유월절 전이 그.
#1 콩, ᄑᆞᆺ, 전부.
@ 음.
#2 유월절 전이 문 헤살 거주게. 감저 놓곡.

@ 맞수다.
#1 유월절, 유월절 전ᄒᆞ곡 후ᄒᆞ곡 그 ᄒᆞ룻밤 차이가.
@ 예.
#1 날씨가 그렇게 차이가 잇넨 허주게.
@ 차이나 부난 유월절 전이.
#1 예.
@ 망종 지낭 유월절 전이?
#2 으.
@ 다, 조도 불려불어사예?
#1 조 불리곡, 콩 갈곡 감저 놓곡.
@ 게난, 아.
#1 감저도 전, 후에 논 건 다 죽어 불고.
@ 아.
#1 전에, 유월절 전이 다 심어야 뒈어.
@ 아, 기구나게, 음.
#1 예. 그거 게난 우린 엿날에 쉐 엇이민 쉐를 놈이 거 빌어당 ᄒᆞ멍 ᄒᆞ민 막 늦게 헴신디.
@ 예.
#1 겐 나가 욱은 후젠 쉐 질루멍 ᄆᆞ음대로 ᄒᆞ고 싶은 대로 ᄒᆞ긴 헤신디.
@ 음.
#1 근디 엿날은 그렇게 힘들엇다고. 쉐가 우리 마을에 멧 집이 엇어낫어.
@ 아까, 그 조 불릴 때 뒈민 밧디 뭐 영 낫덴 헷잖아예?
#1 예.
@ 까망 거. 그걸 무시거렌 ᄀᆞᆯ앗수과?
#1 무시거?
#2 크게 ᄀᆞᆯ으라, 조.
@ 아까, 조 불리젠 허민 밧디.
#1 밧디.
#2 으.
@ 뭐 영 나근에, 까망한 씨 이시민 미시거 풍년 든다 헌 거 그거.
#2 무신 사발? 거 무신 사발?
@ 제석할망밥사발?
#1 어, 제석할망사발.
@ 무시거? 아까. 다시, 다시 ᄀᆞᆯ읍서. 제석할망?
#2 으.
#1 밥그릇.
@ 그니까 정확하게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 ᄀᆞᆯ아줍서.

#1 제석할망밥사발.
@ 밥사발.
#1 예.
@ 게난 제석할망밥사발에 대헤 가지고 말씀헤주시쿠과? ○○이 어머니가? 그거 아까 막 무신 씨 하영 들엇저.
#2 무시거? 나.
#1 하영 놓면은.
@ 아니, ○○이 아버지가 골아주쿠과?
#1 으, 으. 그 밥그릇에.
@ 예.
#2 으, 소복, 소복ᄒᆞ민.
#1 소복ᄒᆞ민은.
@ 무시거가 소복허민?
#2 풍년 들 거. 그, 그 밥그릇. 제석할망밥그릇에 그, 그 까망한 뭐가이 쏘곱에 잇주게.
@ 예, 예.
#2 그것이 하영 들어가민.
@ 예.
#2 풍년 든덴 ᄒᆞ는 거.
@ 예.
#2 족영 들민 풍년 말아 무시거니?
#1 흉년.
#2 으, 흉년 든덴. 그거.
@ 아, 겅 골아나수과?
#2 으.
@ 기구나예? 음.
#2 그, 그 제석할망인가 하르방밥그릇에 보민 경헹 골아낫주게, 옛날에.
@ 게난예. 게난 조 불리기 전이 그 제석할망안티 이렇게 간단하게 제지낸 것도 엇어나고예? 여기는.
#2 아이고.
#1 것도 엇어나고.
@ 기구나예.
#2 우린 그 제석할망 ᄀᆞ뜬 것도 신경 쓰지 아녀낫어.
@ 게난, 게도 그거 보민 경만 골아예.
#2 으. 건 그자.
@ 풍년 들켜 이런 거?
#2 으, 그거 그자 봐난 거.

@ 으.
#2 이 나는 거 그자 봐나난 거주.
@ 아, 기구나예?
#2 으.

둑 잡아먹는 날

@ 그다음엔 이 유월 들믄 둑 잡아먹는 날 잇잖아예?
#2 유월 쑤무날게.
#1 유월 쓰무날.
@ 게, 둑 잡아먹어나수과?
#2 으.
@ 게, 둑은 어디 시민?
#2 둑 사다근에.
@ 둑 사다근에?
#2 질왕도 먹곡.
@ 옛날엔 다 질롯지예?
#2 으.
@ 질루민 멧 머리나 질롸나수과?
#1 그건 나가 곧으쿠다.
@ 예.
#1 저, 담, 저런 담 울타리옌 ᄒᆞ는디.
@ 예.
#1 우잣담 에염에 무시걸로 영, 철사로 영 멘들앙.
@ 예.
#1 둑 ᄒᆞᆫ 여남은 머리 나 질롸나수다.
@ 예.
#1 질왕, 거기서 둑세기 나민 그걸로 헤근에 바늘도 다 사곡.
@ 예.
#1 씰도 사곡.
@ 아, 예.
#1 막 엿날에.
@ 둑세기 강 풀앙?
#1 예, 예. 둑세기 아졍 강. 상점에 강.
@ 아, 상점에 강.
#1 아졍 강. 돈은 엇고 어떵 ᄒᆞᆯ 말이라게.
@ 맞수다게.
#1 게민, 겅 허민 바눙도 사곡, 씰도 사난 거 나 잊어 불지 아년디.

@ 음.
#1 경 헤근에 둑도 헤근에, 유월 쑤무날 경 요새추룩 뭐 고기 뭐 헷어?
@ 음.
#1 숣앙 다 찢어 놩, 쏠 놩.
@ 음.
#1 그것에 그냥 죽 쒀근에 그 먹는 거주, 둑.
#2 어느 저르에. (웃음)
#1 다리 ᄒᆞ난 먹지 못헷어.
@ 아, 기구나예?
#1 예.
#2 수정은 하곡게.
@ 음. 그 유월, 유월 들멍 이제 그 초복, 중복, 말복 헤 가지고, 유월 쑤무날 둑 잡아 먹는 날도 잇주마는.
#2 둑 잡아.
@ 초복, 중복, 말복에서 혹시 특별나게 뭐 지내는 건 엇엇수과?
#2 초복, 중복, 말복은 소용 엇고.
@ 예.
#2 유월 쑤무날도 기자 춤, 생각ᄒᆞ민 ᄒᆞᆫ 머리 잡앙 그 북북 치져놩 죽 쒕 ᄒᆞᆫ 사발썩 먹엇주.
@ 음.
#2 옛날엔 하도 가난헤 놓난, 그런저런 거 엇어낫저게.

소서 · 대서

@ 음, 기구나예? 그다음에 소서, 대서엔 뭐 헤수과?
#1 아무것도 아녀수다.
@ 소서, 대서엔 농사는?
#1 농사도 지을 것이 없어.
@ 검질은?
#1 검질은 계속.
#2 (웃음)
@ 조밧디 검질은 멧 번 메수과?
#1 초불, 두 불, 세 불, 네 불.
@ 네 불까지?
#1 으, 네 불은 산디밧디.
@ 산디밧디.
#1 산디.
@ 산디는 언제 심어수과?

#1 아, 산디도 저 그때.
@ 언제?
#1 유월절 전이.
@ 망종 후 유월 전이?
#1 으.
#2 하튼 그 ᄀᆞ슬홀 때.
#1 감저 놀 때.
@ 예, 감저 놀 때.
#1 게민 그때 불리민은 그디 그 쉐로 헤근에 막 불렴사 땅이 단단하게시리.
@ 예.
#1 그 씨를, 씨가 나면은 뿌리를 잘 박게시리.
@ 음.
#1 ᄒᆞ면은 그거 산디 네불검질메면은, 메젠 ᄒᆞ민 우리 이디가 문딱 훌터 불어.
@ 무사?
#1 그 저 이파리가 막 그 강헤 놓난.
@ 아.
#1 사락헤여.
@ 아, 산디 이파리는?
#1 으, 으. 사락헤여.
@ 음.
#1 조 이파리도 경 ᄒᆞ주만은.
@ 음.
#1 여름이는 더우니까 반팔로 다 걸 메신디. 네불 멜 땐 어떤 검질멜 땐 옷 문딱 내려근에 돈돈ᄒᆞ게시리.
@ 음.
#1 헤근에 이디 흘쳐나게시리 헤낫어. 네불, 네불 멧어, 네불. 네불 메 불민 깨끗헤여.
@ 깨끗헤여?
#1 어, 조팟이나 산디밧이나 감저밧이나.
@ 아이고, 검질도 하영 멧저.
#1 게난 검질메민.
@ 매날 밧디 가사 뒈켜예?
#1 에?
@ 매날 밧디 가사크라.
#1 매날 춤, 우리 어무니 애기 ᄒᆞᆫ 네 개 나시냐? 네 개 낫구나. 그 애기구덕 졍은에 산담에 강 그늘 영 헤근에 헹 내비동, 검질 그거, 아이고 춤, 게난에 우리가 지금 일ᄒᆞ는 것이 어무니안테 다 베운 거라.

@ 맞아예.
#1 같이 메면은.
@ 예.
#1 어머닌 빨리 멜 거 아니?
@ 예.
#1 우린 게곡 절대 마주, 마주 메는 버릇이 없어.
@ 없어예?
#1 게민 건 저 차후에 경만 생각허는데.
@ 음.
#1 나, 천천이 가도 마주 멩 올 거라 헤근에.
@ 음.
#1 경 헹 똑 다 가야 뒈어.
@ 음. 그렇게 헤서 유월까지 지나고.

칠월

모살찜 · 물맞이

@ 그다음 칠월 들어가지고, 혹시 칠석, 칠월 칠석에 뭐 제지내나수과?
#1 우린 제 안 지내수다.
@ 안 허고? 백중젠 헤수과?
#2 에, 에.
#1 으?
@ 근디 여기는 막 쉐나 말 하영 안 키와 부난 백중젤 안 헌 거 닮다예?
#1 예, 그런 건 안 헤여.
@ 경 헤도 막 더울 때 저 모살찜 허렌 가나진 안헤수과? 공천포에.
#1 아니, 어딘 공세미도 엿날엔 하영 가낫주마는.
@ 예.
#1 어디 갓주게, 저.
@ 어디?
#1 저, 어디옌 ᄒᆞ느니? 저 우에.
@ 돈내코?
#2 돈내코?
#1 돈내코.
@ 돈내코 물맞이레?
#1 물맞이레. 그딘 여라 번 가왓어.
@ 아, 경 헷구나. 게민 진짜 효과는 이십니까? 물맞이민.
#1 아이, 가오민 씨원ᄒᆞ주게. (웃음)

@ (웃음) 아, 경 헤부난.
#1 물이이 진짜로 씨원헤여.
@ 아, 기구나예?
#1 으. 십 분을 앚지 못헤여.

입추ㆍ처서
@ 그믄 칠월에는 이제 어, 백중도 지나고 입추하고 처서가 이서예?
#1 예.
@ 입추하고 처서 땐 어떵 헤수과? 농사는.
#1 입추, 처서 때 농사짓는 것이 없어.
@ 엇어?
#1 예.
@ 기냥 계속 검질만?
#1 예, 검질만 계속 저 처서 넘엉 검질 난 거는 씨도 아니 뒌덴 ᄒᆞ주마는.
@ 아.
#1 씨가 뒈여.
@ 씨가 뒈여?
#1 게민 처서ᄁᆞ지 검질멧주게.
@ 기지예?
#1 으.
@ 맞아, 씨가 뒈여. 아이구, 죽어지쿠다. 우리 오늘. 우리 저 계속 이축 나다녀 부난 우리 밧 우리 우녕에도 아이고, 진짜예? 검질이 나 질레만큼 커.
#2 어느 ᄆᆞ슬이라?
@ 아, 저는 저쪽에 월산동마씨.
#2 월산동.
@ 저 얘기는 나중에 허크라예.

팔월

벌초
@ 게민 그다음에는예, 팔월에 들잖아예?
#1 예.
@ 팔월 들믄, 어, 처음에 팔월 들자마자 허는 게 무시거꽈?
#2 벌초.
@ 맞아, 벌초.
#1 팔월 벌초.
@ 예, 팔월 벌초 할 때 혹시 여기도 모둠벌초 헤수과?

#1 예, 모둠벌초 헷주게.
@ 모둠벌초 하면은 어, 팔월 언제쯤 만낭 헤수과?
#1 팔월 초ᄒᆞ루.
@ 초ᄒᆞ루에예? 게민.
#1 모둠벌초는 팔월 초ᄒᆞ루.
@ 예.
#1 또 가족벌초는.
@ 예.
#1 팔월 초 전 일요일날.
@ 아, 초 전 일요일날.
#1 예, 게민 아이덜 다 오게시리.
@ 그 벌초 허레 가면 그 혹시 간단한 제사라도 지내수과? 벌초 허레 가면?
#1 아, 지금 우리 모둠벌초는 과일ᄒᆞ고.
@ 예.
#1 술잔ᄒᆞ고 가서 잔 올려.
@ 올려예?
#1 게민 우리 끗나민 거기선 또 술 ᄒᆞᆫ 잔도 먹고.
@ 기구나예. 아부지네는 모둠벌초 할 땐 산 멧 개나 헤나수과?
#1 산 ᄒᆞᆫ, 우리 모둠벌초 ᄒᆞᆫ 열다슷 자리.
@ 열다슷 자리.
#1 열다슷 묘.
@ 열다슷 묘예?
#1 으.

팔월 멩질

@ 음, 기구나예? 그다음엔 이제 팔월 멩질에 들잖아예?
#1 예.
@ 멩질 들고, 벌초가 이신디. 일단 멩질부터 헤낭 벌초로 넘어가게예?
#1 예.
@ 팔월 멩질 때 어, 차례상은 어떵 헤수과? 정월 멩질하고 다른 건 뭐 잇어수과?
#2 팔월[팔뤌] 멩질엔이.
@ 예.
#2 대걸룽 ᄒᆞ민 조개솔펜 ᄒᆞᆫ다.
@ 음.
#2 조개솔펜.
@ 조개솔펜.
#2 으.

@ 음. 게난 그 조개솔펜은.
#2 정월.
@ 정월 멩질 땐 안 헤신디, 팔월 멩질엔 조개솔펜을 허는구나예?
#2 으.
@ 또?
#1 또, 막 엿날은 지금은 아닌디.
@ 엿날에, 엿날에.
#1 막 엿날은 갈치.
@ 갈치?
#1 갈치 사다근에.
@ 예.
#1 돈은 엇곡.
@ 예.
#1 솔라니 살 돈은 엇이난에.
@ 예.
#1 갈치 사당 페쌍.
@ 예.
#1 큰 왕대룽 저만이 우터레 돌아메어.
@ 예.
#1 그 저 뭐냐?
#2 ᄑᆞ리 궤카 부덴. (웃음)
#1 ᄑᆞ리 쉬싸근에.
@ 예.
#1 베렝이가 막 인다 말여.
@ 예.
#1 게민 돌아메영 그걸로.
@ 예.
#1 상에 올리곡.
@ 왕대에다 돌아메영?
#1 으, 저 물류왕, 페쌍 물류왕.
@ 으, 으, 음.
#2 물류는 게, 저.
@ ᄑᆞ리가 그디까진 무사 안 갑니까?
#1 아, 막 우터렌 안 가.
@ 아, 기구나.
#1 이디 아레 널민 ᄑᆞ리가 ᄉᆞ뭇 막 쉬싸근에.
@ 맞수다게.

#1 베렝이가 으마으마허여.
@ 예.
#1 으, 경 허민 허는데. 팔월, 정월 멩질ᄒᆞ고 그 틀린 건.
@ 예.
#1 갈치 멩질이라. 즉 말허민.
#2 (웃음)
@ 아.
#1 갈치적ᄒᆞ곡.
@ 예.
#1 돈 엇이난에 난, 엿날 우린 못살아 놓난.
@ 예.
#1 겐디, 뒈지고기 살 돈도 없어, 진짜.
@ 예.
#1 농사지어도 뭐 돈 나올 디가. 어, 걸 뭐ᄒᆞ난. 게난 갈치적 ᄒᆞ곡.
@ 음.
#1 갈치 갱 ᄒᆞ곡.
@ 예.
#1 갈치 구웡 상에 올리곡.
#2 으.
#1 게난 갈치멩질이렌 헤낫어.
@ 아, 그때도 갈치 막 하영 낫저예?
#1 갈치, 엿날, 갈치 아이 풀레 막 뎅겨.
@ 아.
#2 호박 놔근에 갈치 놩 갱 ᄒᆞ곡.
#2 겡 ᄒᆞ믄 얼마나 맛이 좋아.
@ 아.
#1 지금은 ᄉᆞ뭇 특민디 뭐.
@ 갈치적, 갈치갱.
#1 갈치.
@ 갈치.
#1 상 올리곡.
@ 상 올리고.
#1 으.
@ 아이구, 갈치로 문 올려.
#1 갈치, 게난 갈치 멩질 헤서. 갈치 멩질.
@ 아, 경 헷구나예?
#1 예.

@ 그러면 이제 팔월 멩질이 정월 멩질하고 다른 건 그거고예?
#1 으.
@ 그다음엔 촐헷던 거 굴아줍서. 멩질날은 촐 허렌 안 가수과?
#2 무시거?
@ 촐, 촐허레.
#1 아, 촐허레.
#2 촐허레 멩질날 가느냐게?
#1 촐.
@ 게난.
#1 멩질 끗낭 가주게.
#2 멩질 끗낭.
@ 아.
#1 촐검질.
@ 촐, 가근에 촐 벨 때, 촐은 얼만큼 베어나수과? 얼만큼 헤낫수과?
#1 아이구, 우리 엿날엔 여기서 수악교 대충 알 거라.
@ 예.
#1 수악교.
@ 예, 예.
#1 수악교, 우리가 걸엉 간다고.
@ 예.
#1 걸엉 갓다왓다, 새벡이.
@ 게난, 아이고.
#1 뭐, 그디 가미 희뜩 붉으게시리 헤근에 가민 것도 낫, 저 호미로.
@ 예.
#1 우리 말로, 호미로 앚앙 ᄌᆞ근ᄌᆞ근 다 비어.
@ 예.
#1 비어근에 올 때 멧 단 졍 오곡.
@ 예. 멧 바리 정도 헤나수과?
#1 아, 우리. 우리 많이 헤낫주. 촐검질. 쉐도 ᄒᆞᆫ 두 ᄆᆞ리ᄁᆞ지 질롸신디 멧, 마차로 ᄒᆞᆫ, ᄒᆞᆫ 여남은 개.
@ 아.
#1 많이 헤낫어.
@ 음.
#1 게근에 걸로 소 먹어난 건 또 불 솜앙 밥헹 먹고.
@ 예, 맞아예.
#1 미신 뭐 연탄이 시민 무시거 우린 다 불솜앙 밥헹 먹어신디.
@ 겡 그걸.

#2 게난 검질 막 하영 헹 눌어 두람서 그걸로 불솜으멍 밥헹 먹엇주게. 무사 아이도 게 다덜.
@ 그거 재 모아 놧당?
#2 으.
#1 으, 그거 재 모앗당.
@ 보리 헐 때나, 조 헐 때.
#2 으.
#1 아니, 보리 ᄒᆞᆯ 때 아니, 조 ᄒᆞᆯ 때.
@ 조 헐 때?
#1 여름 농사지을 때, 감저 놀 때 ᄒᆞ민, 감저가 ᄉᆞ뭇 벌겅케 깨끗헤여.
@ 아, 기구나.
#1 이 저 불치가 췌고라고.
@ 불치가 췌고라예?
#1 어.
@ 음. 그래서 게민 팔월, 이제 절기로는 백로하고 추분이 이신디예?
#1 백로, 추분.
@ 예, 그땐 무시거 헤수과?
#1 아, 우린 그런 절기엔 무시거 아녑니다.

구월

@ 산디, 산딘 언제 베어, 어제 벨 거라?
#2 산디?
@ 아, 저기. 예, 산디, 아까 산디 갈앗덴 허멍?
#1 아, 저 가을에, 가을에.
@ 가을에 그게?
#1 조, 조. 조, 보리 헐 아니, 조 감저 캘 때.
@ 조, 감저 캘 때?
#1 그 전이 산디 빌 거 아닌가?
#2 모르큰게. 나도 하도 오래어 놓난.
@ 상강, 상강 전이.
#1 상강 전이.
#2 으.
@ 베엇지예?
#1 으, 베어.
#2 상강은 반ᄀᆞ슬 아니?
#1 아니, 아니.

#2 아니?
#1 망종이 반ᄀᆞ슬 저, 상강에, 상강에.
@ 예.
#1 상강엔 그땐 농사가 다 뒐.
#2 아이구 잊어 빗저, 문.
#1 다 뒌 거 아닌가?
@ 으.
#1 다 수확이 다 뒐 때 아닌가?
@ 음. 상강 때예?
#1 으, 으. 상강 때.
@ 상강 전이들.
#1 예, 다 농사 다 으, 비어.
@ 감저도 상강 전이 다 파야 뒈고예?
#1 에, 경 헤야 감자 안 썩낸 ᄒᆞ곡.
@ 게난.
#1 감저 헤근에 뻿데긴가 무시건가.
@ 예, 뻿데기.
#1 밧디 ᄒᆞ곡. 또 우리 놈삐도 하영 갈앙.
@ 예.
#1 놈삐도 밧디 그 저 생기리.
@ 예.
#1 손으로 다 썰엉.
@ 예.
#1 밧디 다 물류왕.
@ 예.
#1 비왐직 ᄒᆞ민 그 손으로 ᄒᆞ나.
@ 걷엉 오고예. 그것도 다 상강 전이꽈?
#1 예. 상강 전이.
#2 그 생기리 전업으로 ᄒᆞ는 사름이 이서낫주게, 하영.
@ 아, 그걸 받앙 강?
#1 으.
#2 으. 저 막 놈삐 하영 갈아놔근에 놉 빌엉 문 썰엉 널엉.
@ 예.
#1 우리도 감저뻿데기도 밧디 하영 갈안에 그 다 풀아낫주게.
@ 아, 기구나예? 음.
#1 그거 가멩이에 담아근에.
@ 기구나. 그다음에는 상강 전이 이제 그것들 다하고.

시월

@ 시월 들면서 입동이 이서예? 소설하고 입동이 이신디, 그때는 뭐 헤수과?
#2 무시거? 입동?
@ 입동. 예, 소설. 그니까 소설은 이제 눈 이제 조끔 오기 시작헷다는 말인디.
#1 시월달에는.
@ 음력 시월에.
#1 보리 갈앗주게.
@ 아, 그때 보리 갈앗구나.
#1 예, 음력 시월에.
@ 기구나예?
#1 예.
@ 보리 가는 건.
#1 음력 초, 초. 시월 초 뒈민.
@ 시월 초에.
#1 보리 갈아, 시작.
#2 돗걸름 내우곡.
#1 돗걸름.
@ 돗걸름 내고.
#1 돗통에.
@ 예, 맞수다.
#1 돗통에 보리찝 ᄀᆞ뜬 거 막 놩.
@ 예.
#1 도세기 질롱.
@ 예.
#1 게민 그거 또 ᄒᆞ루 쉐스랑으로.
@ 예.
#1 퍼근에 마당에서 씨 불리멍 보리 간 거. 겡 그때는 우리, 지금은 뭐 그냥 씨만 밧디 뿌리민 뒌덴 허주만은 그때는 그런 식이 없어.
@ 엇엇지예?
#1 전부 걸름 놔근에, 그레 씨 놔근에.
@ 예.
#1 것이 오죽 좋은 걸름이라. 췌고지.
@ 기지예?
#1 비료도 안 쓰고.
@ 맞수다, 맞수다.
#1 예.

@ 겅헹 보리 갈고.
#1 으.

십일월

동지

@ 게믄 이제 십일월에 들면서는 이제 동지가 이신디예?
#2 으.
@ 동지 땐 어떵 풋죽은 쒕 먹엇수과?
#2 (웃음)
@ 동지 풋죽?
#1 가당오당.
#2 혼 번썩.
#1 헹 먹곡.
@ 풋은 갈아실 거 아니?
#1 어, 풋은 갈앙 ᄒᆞ쏠 ᄒᆞ민 그거 따, 타근에 문 물류와근에 문딱 구분헹 놔두주게.
@ 기구나예?
#1 예.
@ 풋죽 쒀서 먹을 때 그냥 뭐 뭐 놔근에 풋죽 쒀수과?
#2 아이고, 이딘이 그런 무신 저베기여 무시거여 무시거 새알이여, 무시거 안 놩 풋 놓믄 그자 풋죽만 쑤주.
@ 쏠도 서끄지 안헤영?
#2 으, 풋만 놩 쒕 먹주.
@ 풋만 놩예?
#2 으.
#1 아, 무사 쏠 안 놔? 곤쏠.
#2 아, 곤쏠사 놓주만은게.
#1 (웃음)
#2 아니, 그 육지덜은 막 저베기 ᄀᆞ뜬 거, 새알 ᄀᆞ뜬 거 막 놓주게.
@ 맞수다, 게난.
#2 그 풋죽에.

집일기

#1 그 경 ᄒᆞ고, 돗걸름밧 끗나면은.
@ 예.
#1 엿날은 춤, 지금은 다 뭐 기와집 ᄀᆞ뜬 거 짓엄주만은, 엿날은 다 초가집이난에.
@ 예.

#1 새.
@ 예.
#1 각단 비레.
@ 게난 맞아. 각단
#1 으.
@ 그 각단 비는 게 언제 비엇수과?
#1 십일월달에.
@ 입동 전이?
#1 십일월, 십일월 말에.
@ 음력 십일월에?
#1 어, 어. 경 ᄒᆞ면은.
@ 음력 십일월 말이면은 양력으론 저기 해 그믐 뒈는 거라예?
#1 게, 게. 십이월달에.
@ 아, 예, 예.
#1 게민 새는 걸고.
@ 예.
#1 새는 집헤서 이는 거고.
@ 예.
#1 이렇게 페우는 거고.
@ 예.
#1 각단은 요만썩 헌 거야.
@ 예.
#1 게민 그걸 비어다가 줄 놔.
@ 줄 놔예.
#1 줄 놔근에, 그거 눈 맞이멍 ᄉᆞ못 멘ᄃᆞ롱ᄒᆞᆫ 디 앚아근에.
@ 아.
#1 ᄒᆞ멍 그거.
#2 각단 비레도 ᄉᆞ못 삼ᄉᆞ방에 다 돌아뎅기멍 강 비엉 오주.
@ 음.
#1 우린 밧이 없으니까.
@ 예.
#1 놈의 밧디 강 도둑질 ᄒᆞ레.
@ 음.
#2 놈 내분 거.
#1 거 도둑질 ᄒᆞ레.
#2 도둑질은 무시거게. 그.
@ 동지 지낭?

#1 으, 으, 으, 으.
@ 동지 지낭.
#1 동지 지낭.
@ 동지 지낭 간다고.
#1 경 헤근에 새도, 나 이거 영 굴민 이상헤도, 우리 아시ᄒᆞ고.
@ 예.
#1 새 비레, 우린 새밧 엇이난에.
@ 예.
#1 밤이 간 비어와난 적이 이서. 놈이 밧. 밤이.
@ 아.
#1 콤콤ᄒᆞᆫ 디 강.
#2 (웃음).
@ 집은 일어야 뒐 거난예?
#1 게 어떵 ᄒᆞᆯ 말이라. ᄒᆞ루라도. 춤, ᄒᆞᆫ 해도 ᄒᆞᆫ 안 이민 장마에 또 태풍에.
@ 맞아.
#1 위험ᄒᆞ단 말여.
@ 맞수다.
#1 게난 집은 엇으민 매해 일어야 뒈어.
@ 아이구, 맞아.
#1 게민, 게민 놈이 밧디 강 도둑질 하영 헷어. (웃음)
#2 (웃음) 그땐 보통이난게.
@ 게난, 맞수다게.

십이월

장 담그기

@ 어, 그다음에는 우리 뒌장을 담아야 뒈잖아예?
#1 뒌장.
@ 콩 언제 숢앗수과?
#2 콩.
#1 섣둘에 안 숢아서?
#2 뒌장이, 하이튼이, 콩은이 섣둘 전에 숨아.
@ 섣둘 전에 삶앙.
#2 동짓둘에 ᄀᆞ슬틀민 숢아근에.
@ 예.
#2 옛날엔 섣둘 구뭄날 장을 담앗주만은.
@ 예, 게난, 게난, 예.

#2 이제는이.
@ 예.
#2 정월 구뭄도 뒈곡 이월 구믐도 뒈곡.
@ 아, 게. 옛날에.
#2 난 데로 ᄒᆞ여.
@ 옛날에, 옛날에.
#2 으.
#1 엿날에, 엿날에.
#2 엿날에 섣둘 구뭄날 저 똑 장담아낫어.
@ 콩은 숢을 때, 콩은 게믄 상강, 상강 전이 콩을 다 비엉 털잖아예?
#2 으.
@ 게믄 그 콩은 언제 숢아수과?
#2 콩게.
@ 메주, 메주 언제 숢안?
#2 ᄀᆞ슬틀엉 콩만 장만ᄒᆞ민 시간만 이시민.
@ 아, 지금 숢아 놩.
#2 숢아 놩게 거.
@ 장은.
#2 ᄲᆞᆺ아근에 거 문 메줄 물류와살 거난게.
@ 게난 그 물류는 게 숢으는 게 물류는 게 섣달 구믐에예?
#2 으, 으. 그자 섣달, 섣둘 구뭄에 똑 담아낫주게.
@ 음, 맞수다. 게민 그다음에는예? 어, 음력 십일월이라예? 대설하고 동지가 들어. 아까 동지 풋죽을 헷잖아예?
#2 으.
@ 대설 전이 그믄 새덜 다 비는 거?
#1 예, 예, 예.
@ 동지 지낭 대설, 음.
#1 게난에 새도 눈 하영 오기 전에.
@ 맞수다.
#1 일월 전에 비어야 새가 단단허지.
@ 음.
#1 눈 맞앙 비민 약헤여.
@ 겨난.
#1 게난 미릇 비어.
@ 게, 집은 언제 일어수과? 겡 도둑질 헤단 거.
#1 봄에, 일월, 일이월달에.
#2 봄에.

@ 일이월에?
#2 으.
#1 으, 일이월에.
@ 그 일이월은 양력이꽈? 음력이꽈?
#1 음력.
@ 음력 일이월에예?
#1 예, 예. 게민 그땐 ᄒᆞ쏠 멘도롱ᄒᆞ곡게.
@ 맞수다.
#1 예.

납평날

@ 그다음에 이제 음력 십이월에 들어감서예?
#1 예.
@ 집에서 혹시 엿 같은 거 저 끓여난, 엿 같은 거 만들어나수과?
#2 에, 에. 아녀 봔.
#1 그런 거 아녀 봣수다.
@ 아녀 봔. 납평날, 납평날 엿 담그고 겅 안 헤봣수과?
#1 아이. 그런 거.
#2 그런 것도 엇고.

신구간

@ 엇어낫고? 그다음에는예, 십이월에 들면, 음력 십이월이라예? 신구간이 들어예? 신구간.
#1 예. 신구간에.
@ 입춘 전이라. 아까 우리 일월에 입춘 헷잖아예?
#1 예, 그추.
@ 십일월에 입춘 때 어, 입춘은 언제꽈?
#1 ᄉᆞ월 오일날. 아니 일월.
#2 아니, 것사 지정뒌 날 이서?
@ 입춘 전 삼 일예?
#1 입춘 삼 일 전, 삼 일 전 신구간이주게.
#2 신구간.
#1 대한 넘엉 일주일.
@ 대한 후 오 일부터 이제 입춘 전 삼 일까지예?
#1 으, 으.
#2 그 신구간.
@ 신구간 때 경 이사헤나수과?

#2 어?
#1 우린 이사? 이사 벨로 안 헤봣수다.
@ 게난 옛날부터 이 집을 헷당 집을 그냥 거기다가 초가집에서 큰 집 짓은 거?
#1 예, 예.
#2 옛날엔 그 신구간 춪곡, 하간 거 문 춪앗주만은게.
#1 아, 지금 엿날 말 헴다 말이여.
#2 게메.
@ 게난, 옛날, 옛날에.
#2 엿날에 헴주게.

집알이

@ 그다음에는예 어, 이사갈 때 어머니네 이사 안 가도.
#2 어.
@ 놈이 이사 간 집이 갈 땐 무시거 가져갓수과?
#2 이사칩이 부지?
@ 예. 옛날에, 옛날에.
#1 화각.
#2 (웃음)
@ 화각, 또.
#1 초.
@ 초.
#1 양초.
@ 양초예?
#1 예.
#2 씰. 씰은 아닌가?
#1 아니라.
@ 초하고 화각?
#1 화각허고 양초.
@ 게민 이사허는 집은 들어오는 화각하고 초만 이시민 혼 일 년은 쓰켜양?
#1 아, 일 년도, 일년만 써게? 곽, 잇잖아. 곽 그 잔잔혼 거 말고, 큰 곽.
@ 으.
#2 화곽.
@ 게믄 그 이사간 집에서는, 집들이는 어떵 헤수과? 집들이도 헤수과? 이사 간 집이서?
#2 집들이게.
@ 화곽허고 초 가져가시믄.
#2 집들이 헐 땐게.

#1 겐 집들이가 겡 밥헹 주곡게.
#2 밥헹 주곡 허주게.
@ 밥헹 먹고 헤낫수과?
#1 으.
#2 으.
#1 게민 부락 사름덜이 다 와. 마을 사름덜이.
@ 다 와.
#1 으.
#2 게 부지 아졍 가. 부지.
#1 아, 요즘은 부지. 엿날은.
@ 옛날에, 옛날에.
#2 엿날엔 경 곽만 아졍 가시카?
#1 양초.
#2 아이구, 게도 쏠이라도 두어 뒈씩 아졍 가실 거라.
@ 맞수다.
#1 사둔은 쏠 흔 말.
#2 (웃음)
@ 쏠 흔 말.
#1 동네 사름은 보리쏠 두 뒈.
@ 보리쏠 두 뒈.
#1 으. 돈 엇이니까.
@ 맞수다.
#1 으, 으.
@ 어, 겅 허민 그때 뭐 쏠 흔 말에 보리쏠 두 뒈에, 아니민 저 화곽이나 초 가져갓덴 헤근에 지금처럼 답례품 주는 건 엇엇지예? 무시거 줘수과?
#1 답례품 벨로 아 줫주.
#2 엇주게, 답례품. 답례품 베랑 엇어실 거라.
#1 엇어.

소한 · 대한

@ 그다음에 소한, 대한이 이서예? 음력 십이월에 들면.
#1 소한, 대한.
@ 소한, 대한에 대헤 가지고 무신 속담 같은 거 엇엇수과?
#2 우리 그런 거 엇어.
#1 아니.
@ 소한에 나간 사람.
#1 아니, 으, 소한에 나간 사름 아니, 대한이 소한 집에 간 얼언 죽엇저.

#2 대한에 나간 사름.
@ 대한이 소한 집에 간 얼어 죽어저?
#1 으, 으. 얼언 죽엇저.
@ 으.
#1 또 대한에 나간 사름 찾아보지 말라.
@ 음.
#1 그런 속담 잇엇지.
@ 잇엇지예?
#1 예, 예.
@ 그렇, 이렇게 헤 가지고 어, 일 년 열두 달 이야기는 끗나수다.
#2 (웃음).
#1 예.
@ 이거 끗낫고 아까 밧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 그때 저가 다 여쭤보면서 바다 일이랑 헤시난.
#1 예.
@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겟습니다.

구술로 기록하는 제주의 세시풍속 조사 사업2
-구술 자료집(서귀포시 동부 지역)

정월 보름날 산메 청 오곳이 밥 뒈민 운 좋덴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63281 제주시 임항로 278
전화: (064)726-5623, 모사전송: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
발간등록번호 11-B553921-000029-0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